

남 면 향 토 지



남면 향토지는 과거 연기군이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나누어 졌을때 연기현(燕岐縣)의 중심지가 바로 현재의 남면지역이기 때문에 연기현지(燕岐縣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현재의 연기군은 연기현에서 따온 이름이기에 연기현 중심지 남면향토지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면 향토지 추진위원장을 맡은것이 부담이 큼은 물론 역사의 한페이지를 정리하는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군 남면 양화리 진의리가 중심이 된다하여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에 마지막으로 남면향토지가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 전할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남면향토지 발간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고 과거의 조상의 일을 오늘에 되새기는 작업이라 보아집니다.

현재 남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목조목 엮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여 주었고 그 결과가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오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남면향토지가 나오기까지 같이 고민하여 주신 추진위원 여러분, 물심양면 도와주신 장영 조치원 문화원장님과 한문수 남면 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남면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이 이러한 곳이 었다는 것을 후손에 알려 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2004년 12월

남면향토지 발간 추진위원장 **임 창 철**



발 간 사



역사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또 역사는 언제서부터인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면면히 이어지는 가통(家統)의 흐름이나 지역사회의 역사, 흥망이 교차되는 나라의 역사, 끊어질 듯 이어져 가는 민족의 역사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늘을 올바로 인식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또한 보다 훌륭한 삶을 내일의 후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현상과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할 면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일이며 면민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그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남면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왔고 또 어떻게 언제까지 고증되어질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각 부문에 걸쳐 상세하고 알차게 기록을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남면은 훌륭한 선열들 및 효자효부가 많이 배출되어 오늘도 그분들의 큰 뜻을 이어받아 오고 있으며 전설과 설화 그리고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유적들, 전승되어 오는 우리의 문화, 행정적인 변천, 경제생활의 변화, 너무나도 수록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면에서는 모든 기운이 상승세로 이어져 왔습니다.

유서 깊은 우리 고장에 선인들의 거룩한 얼과 뜻을 이어받아 오늘의 활기찬 모습을 잘 엮어 놓았습니다.

이 면지는 우리고장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긍지와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는 활기찬 신한국 건설의 한 페이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지를 발간하는데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모든 면민들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조치원문화원장 장 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남면의 생활상과 향토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쁨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문화 또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쌓여서 이룩된다는 점에서 과거는 물론 미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기록을 통하여 보존되고, 기록된 보존은 후손에 의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고장 남면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확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또한 남면이란 역사가 기록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흐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앞에서 작은 벽돌이 쌓여 피라밋을 이루듯이 남면 주민들의 손으로 남면의 역사와 각종 사료를 모아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후손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남면은 충신·효자효부·열녀가 많이 배출되어 남면 문화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이는 21세기의 남면 역사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이 한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지역 향토문화에 대하여 새롭게 흥미하고 보다 밝은 내일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자료수집과 조사, 발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12월

연기군수 이 기 봉

축간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국가적·지리적·역사적으로 소중한 땅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시점이며 남면인의 자존심을 다시한번 생각해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면인의 위풍과 기상처럼 듚직히 자리잡고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장남평야를 중심으로 넓은 옥토를 가꿔주는 금강과 미호천등이 모든 자연환경이야말로 천혜의 축복받은 땅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예견되는 중요한 시기에 「면지」 발간이라는 대 과제가 실천됨으로 우리가 수천 수백년을 살아온 우리의 옛 조상들의 발자취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며 선열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지역마다 특색있는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잘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두에게 소중하고도 귀한 문헌적 자료로 면지가 보존되길 바라며 면지 발간을 계기로 애항심의 고취는 물론 우리지역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면지」 발간에 온 심혈을 기울여 애써주신 임창철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남면장 한문수

연기군 남면 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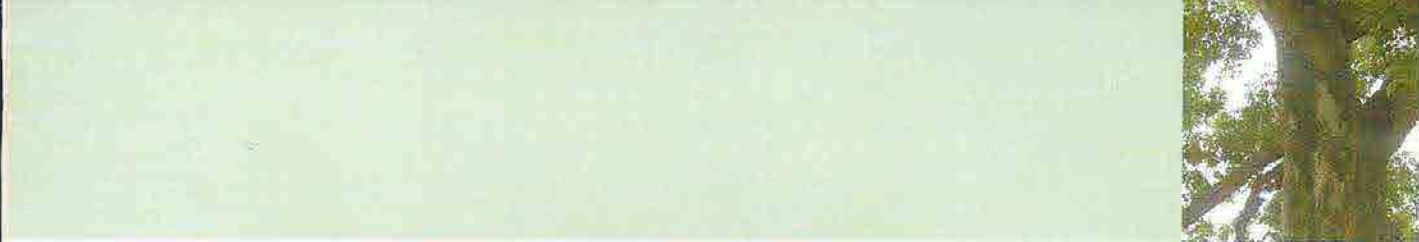


해 설

- 1.벼이삭(노란색) : 장남평야를 비롯한 미곡주산지 남면을 상징하며 27개 자연부락을 뜻함
- 2.벼 잎(청 색) : 벼잎 12개잎은 남면의 12개리를 뜻함
- 3.제 비(검정색) : 제비형의 “남(南)”자는 연기군 남면을 상징함

대한민국의 중심지 연기군 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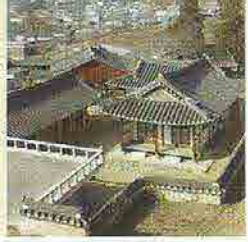


연기현고지도(조선시대)



▲연기현 고지도(조선시대)

대한민국의 중심지



▲ 전월산



▲ 용샘과 버드나무



▲ 상려암과 부왕봉

대한민국의 중심지



▲ 원수산



▲ 원수산 제당



▲ 원수산 산제 소지올리기

연기향교



▲ 연기 향교 전경

◀ 하마비

▶ 대성전

◀ 향교 비석군

▶ 명륜당





700년 터전 부안임씨 전서공파



▲ 독락정 ▼



▲ 임씨가묘

獨樂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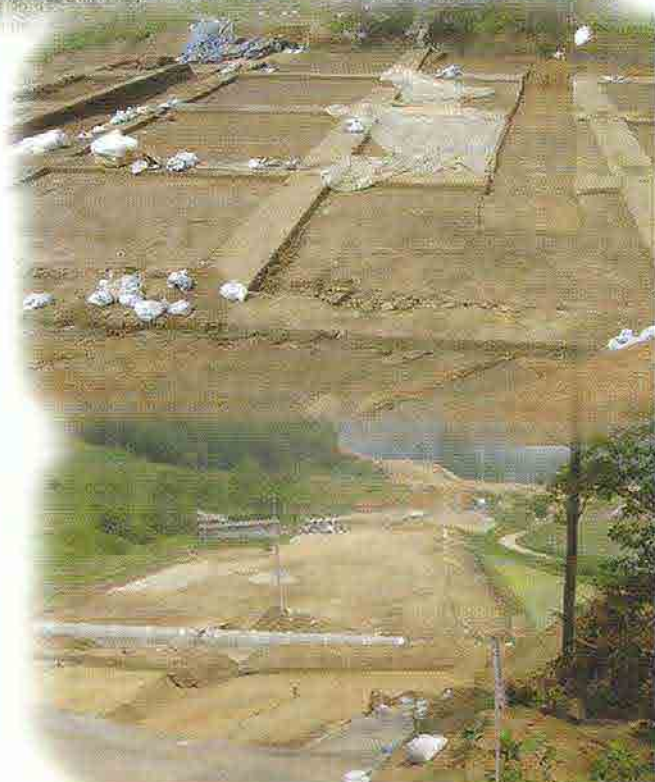
▲ 석불



▲ 송모각



▲ 월산리 고인돌



▶ 발꿈모습



화 보



▲어서각▶



▲ 이유태 신도비



▲ 이유태 묘



▲ 오강표 포스터



▲ 오강표 묘



▲금강과 장남평야



◀조치원
산업단지



▶월산산업단지



◀연기시가지



▶종촌시가지



화 보



▲ 성남중·고등학교



▲ 연남초등학교



▲ 연양초등학교



▲ 연세초등학교



▲ 수왕초등학교

제 1 편 지 리

| | |
|--------------------|----|
| 제 1 장 연기군 남면의 자연지리 | 25 |
| 제 1절 위치와 면적 | 25 |
| 1. 연기군 남면의 위치 | 25 |
| 1) 수리적 위치 | 25 |
| 2) 지리적 위치 | 26 |
| 3) 관계적 위치 | 26 |
| 2. 연기군 남면의 면적 | 27 |
| 제 2절 연기군 남면의 기후 | 30 |
| 제 3절 연기군 남면의 생물상 | 32 |
| 1. 연기군 남면의 동물 | 32 |
| 2. 연기군 남면의 식물 | 37 |
| 제 2 장 인문지리 | 66 |
| 제 1절 연기군 남면의 인구 | 66 |
| 제 2절 인구조사의 역사 | 67 |

제 2 편 역 사

| | |
|---------------------------|-----|
| 제 1 장 선사시대와 연기군 남면 | 87 |
| 제 1절 구석기 시대와 연기군 남면 | 87 |
| 제 2절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의 연기군 남면 | 87 |
| 제 3절 남면지역의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 | 89 |
| 제 2 장 고대(古代)의 연기군 남면 | 90 |
| 제 3 장 백제시대와 연기군 남면 | 92 |
| 제 1절 백제의 건국 | 92 |
| 제 2절 백제 한성시대와 연기군 남면 | 93 |
| 제 3절 백제 웅진시대와 연기군 남면 | 95 |
| 제 4절 백제 사비시대와 연기군 남면 | 98 |
| 제 5절 백제 부흥운동과 연기군 남면 | 100 |
| 제 6절 통일신라시대와 연기군 남면 | 105 |
| 제 4 장 고려시대와 연기군 남면 | 109 |
| 제 1절 고려의 건국 | 109 |
| 제 2절 집권 체제의 정비 | 111 |
| 제 3절 귀족 사회의 성립 | 112 |
| 제 4절 고려 귀족사회의 사회제도 | 113 |
| 1. 중앙의 정치제도 | 113 |
| 2. 지방행정조직과 연기군 남면 | 113 |
| 3. 고려시대 연기군 남면의 교통과 통신 | 118 |
| 제 5절 무인 정권기의 연기군 남면 | 118 |
| 1. 무인 정권의 성립 | 118 |

| | |
|----------------------|-----|
| 2. 농민, 천민의 난과 연기군 남면 | 120 |
| 제 6절 몽고의 침입과 연기군 남면 | 122 |
| 1. 몽고의 제 1차 침입 | 122 |
| 2. 몽고의 제 2차 침입 | 123 |
| 3. 몽고의 제 3차 침입 | 123 |
| 4. 몽고의 제 4차 침입 | 124 |
| 5. 몽고의 제 5차 침입 | 124 |
| 6. 몽고의 제 6차 침입 | 125 |
| 제 7절 합단의 침입과 연기대첩 | 127 |
| 제 8절 고려의 멸망 | 130 |

| | |
|----------------------|-----|
| 제 5 장 조선시대와 연기군 남면 | 132 |
| 제 1절 조선의 건국 | 132 |
| 제 2절 지방 관계 조직 | 136 |
| 제 3절 지방 군사조직 | 138 |
| 제 4절 교통과 통신 | 140 |
| 1. 역참 | 140 |
| 2. 조운 | 143 |
| 3. 봉수 | 143 |
| 제 5절 입진왜란과 연기군 남면 | 144 |
| 청주성 전투와 연기지역 전투 상황대비 | 147 |
| 제 6절 이괄의 난 | 149 |
| 제 7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 151 |
| 제 8절 조선후기의 연기군 남면 | 154 |
| 1. 난후의 제도개편과 연기군 남면 | 154 |
| 2. 조선시대 연기군 남면의 산업 | 167 |
| 제 9절 삼정의 문란과 민란 | 170 |

| | |
|-----------------------|-----|
| 제 6 장 근대사회와 연기군 남면 | 172 |
| 제 1절 태원군의 개혁정치 | 172 |
| 제 2절 동학농민운동과 연기군 남면 | 174 |
| 제 3절 갑오경장 이후의 지방 행정조직 | 178 |
| 제 4절 정미의병과 연기군 남면 | 179 |
| 제 5절 경부선 철도와 조치원 | 184 |

| | |
|----------------------|-----|
| 제 7 장 일제 강점기의 연기군 남면 | 185 |
| 제 1절 일제의 무단통치 | 185 |
| 제 2절 3.1운동과 연기군 남면 | 187 |
| 제 3절 대동단과 연기군 남면 | 192 |
| 제 4절 민족말살의 황민화정책 | 193 |
| 제 5절 3.1운동 이전의 항일운동 | 194 |
| 제 6절 3.1운동 이후의 항일운동 | 195 |
| 1. 연기청년회 | 195 |
| 2. 형평사 조치원분회 | 196 |
| 3. 호서기차동맹 | 196 |

목 차

| | |
|--------------------------|-----|
| 제 8 장 현대의 연기군 남면 | 197 |
| 제 1절 대한민국의 발전 | 197 |
| 1. 8.15 광복 | 197 |
| 2. 8.15 광복과 연기군 남면 | 198 |
| 제 2절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 | 200 |
| 1. 대한민국의 탄생과 시련 | 200 |
| 2. 6.25전쟁과 연기군 남면 | 200 |
| 3. 6.25와 연기군민활동 | 201 |
| 제 3절 4.19 학생의거와 5.16군사혁명 | 203 |
| 제 4절 민족중흥의 새 전기 | 205 |
| 제 5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기군 남면 | 206 |

제 3 편 행 정

| | |
|------------------------------|-----|
| 제 1 장 연기군 남면의 행정구역 변천 | 229 |
| 제 1절 마한시대의 연기군 남면 | 229 |
| 제 2절 백제시대의 연기군 남면 | 229 |
| 제 3절 통일신라시대의 연기군 남면 | 231 |
| 제 4절 고려시대의 연기군 남면 | 232 |
| 제 5절 조선시대의 연기군 남면 | 235 |
| 제 6절 일제시대의 연기군 남면 | 236 |
| 제 2 장 연기군의 연혁 | 238 |
| 제 3 장 연기군 남면의 일반행정 | 242 |
| 제 1절 연기군 남면 | 242 |
| 1. 지역여건 및 특성 | 244 |
| 2. 현황 | 244 |
| 3. 남면의 분장사무 | 245 |
| 4. 역대면장 | 247 |
| 5. 역대부면장과 총무담당 | 249 |
| 6. 남면의 역대마을 이장과 사회단체 | 251 |
| 7. 경찰연혁 | 267 |
| 제 2절 남면의 지명유래 | 268 |
| 1. 연기리 (1,2,3리) | 269 |
| 2. 보통리 (1,2리) | 309 |
| 3. 놀왕리 (1,2리) | 329 |
| 4. 수산리 | 345 |
| 5. 고정리 (1,2리) | 359 |
| 6. 종촌리 (1,2,3리) | 383 |
| 7. 방축리 | 419 |
| 8. 갈운리 (1,2,3리) | 437 |
| 9. 월산리 (1,2리) | 464 |
| 10. 양화리 (1,2,3리) | 478 |
| 11. 진의리 | 509 |
| 12. 송담리 (1,2리) | 523 |

| | |
|----------------|-----|
| 13. 나성리 | 540 |
| 14. 송원리 (1,2리) | 552 |

| | |
|-----------------------|-----|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선거 | 575 |
| 제 1절 개관 | 575 |
| 제 2절 연기군 남면의 역대 읍·면의원 | 576 |
| 제 3절 충청남도 의회의원 선거 | 577 |
| 제 4절 연기군수선거 | 582 |
| 제 5절 연기군 의회의원 선거 | 584 |

제 4 편 교 육

| | |
|-----------------------|-----|
| 제 1 장 삼국시대의 교육 | 591 |
| 제 1절 고구려의 교육 | 591 |
| 제 2절 백제의 교육 | 591 |
| 제 3절 신라의 교육 | 592 |
| 제 2 장 고려시대의 교육 | 592 |
| 제 1절 국가감 | 593 |
| 제 2절 동서학당과 오부학당 | 594 |
| 제 3절 십이도 | 594 |
| 제 4절 향교 | 595 |
| 제 5절 서당 | 595 |
| 제 3 장 조선시대의 교육 | 595 |
| 제 1절 성균관 | 596 |
| 제 2절 사부학당 | 596 |
| 제 3절 향교 | 596 |
| 연기향교 | 597 |
| 제 4절 서원·사우 | 599 |
| 1. 기호서사 | 600 |
| 2. 덕성서원 | 601 |
| 3. 금호서사 | 602 |
| 4. 갈산서원 | 603 |
| 제 5절 서당 및 사숙 | 604 |
| 1. 놀왕서당 | 605 |
| 2. 송담서당 | 605 |
| 제 4 장 개화기의 교육 | 605 |
| 배달학교 | 606 |
| 제 5 장 일제하의 교육 | 608 |
| 제 1절 사립교육기관 | 608 |
| 1. 종촌서당 | 608 |
| 2. 가학의숙 | 608 |

| | |
|----------------------------|-----|
| 제 2절 공교육기관 | 608 |
| 연기공립보통학교 | 608 |
| 제 3절 8.15해방전 연기군의 공립학교 현황 | 609 |
| 제 6 장 해방이후의 교육 | 610 |
| 제 1절 공교육기관 | 610 |
| 제 2절 사립교육기관 | 610 |
| 제 7 장 현재의 남면지역 교육기관 | 616 |
| 제 1절 초등학교 | 616 |
| 1. 연남초등학교 | 616 |
| 2. 연양초등학교 | 622 |
| 3. 연세초등학교 | 628 |
| 4. 수왕초등학교 | 634 |
| 제 2절 중학교 | 639 |
| 성남중학교 | 639 |
| 제 3절 고등학교 | 642 |
| 성남고등학교 | 642 |
| 제 4절 기타교육기관 | 646 |
| 1. 연기어린이집 | 646 |
| 2. 방축어린이집 | 648 |
| 2. 연기향교부설 중·효교실 | 649 |

제 5 편 문 화

| | |
|------------------------------|-----|
| 제 1 장 연기군 남면의 종교 | 654 |
| 제 1절 개요 | 654 |
| 제 2절 연기군 남면의 유교 | 655 |
| 1. 개관 | 655 |
| 2. 연기군 남면의 유학 | 658 |
| 제 3절 연기군 남면의 불교 | 667 |
| 1. 개관 | 667 |
| 2. 연기군 남면지역 불교의 전통적 맥락 | 669 |
| 3.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 예술 | 675 |
| 4. 남면의 사찰 | 676 |
| 제 4절 연기군 남면의 기독교 | 679 |
| 1. 개관 | 679 |
| 2. 장로교회 | 680 |
| 3. 감리교회 | 685 |
| 4. 침례교회 | 688 |
| 5.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 696 |
| 제 2 장 연기군 남면 지역의 언어전승 | 700 |
| 제 1절 남면의 방언 | 700 |
| 제 2절 남면의 민요 | 707 |
| 제 3절 연기군 남면의 속담 | 724 |
| 제 4절 남면지역의 민간신앙어 | 727 |

| | |
|---------------------------|-----|
| 제 3 장 연기군 남면의 전설 | 729 |
| 제 1절 개관 | 729 |
| 제 2절 남면의 전설 | 730 |
| 1. 전월산의 버드나무 | 730 |
| 2. 원수형제봉 | 732 |
| 3. 질마산 | 733 |
| 4. 고마니 고개 | 734 |
| 5. 머느리 바위(1) | 735 |
| 6. 머느리 바위(2) | 737 |
| 7. 상여바위 | 739 |
| 8. 전월산의 용샘 | 740 |
| 9. 양화리의 은행나무 | 741 |
| 10. 나성리 석불 | 742 |
| 제 4 장 연기군 남면 관련 옛시 | 744 |
| 제 5 장 연기군 남면의 세시풍속 | 762 |
| 제 6 장 연기군 남면의 통과례 | 793 |
| 제 1절 출생의례 | 793 |
| 제 2절 관·계례 | 803 |
| 제 3절 혼인의례 | 810 |
| 제 4절 상례 | 826 |
| 제 5절 제례 | 845 |

제 6 편 산업·경제

| | |
|------------------------|-----|
| 제 1 장 남면의 농업 | 867 |
| 제 1절 농업배경 | 867 |
| 1. 지형 및 지세 | 867 |
| 2. 남면의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 868 |
| 3. 남면지역의 토양 | 869 |
| 4. 남면지역의 농민조직 | 870 |
| 제 2절 남면의 축산업 | 874 |
| 제 3절 남면의 임업 | 879 |
| 제 2 장 남면의 공업 | 882 |
| 제 1절 연기군 남면 지역의 기업체 현황 | 882 |
| 제 2절 남면지역의 산업단지 | 884 |
| 제 3 장 남면의 관광토산 | 889 |
| 제 1절 남면의 관광 | 889 |
| 제 2절 남면의 토산 | 893 |

제 7 편 성씨 인물

| | |
|--------------------------|-----|
| 제 1 장 연기군 남면의 성씨 | 901 |
| 제 1절 연기군 남면지역 성씨 변화의 개관 | 901 |
| 제 2절 연기군의 토성(연기현과 전의현중심) | 907 |
| 제 3절 남면지역의 입향성씨와 유래 | 910 |
| 제 2 장 연기군 남면의 인물 | 920 |
| 제 1절 무신 | 920 |
| 제 2절 문신 | 936 |
| 제 3절 유현 | 949 |
| 제 4절 효자 | 954 |
| 제 5절 효·열부 | 962 |
| 제 6절 애국지사·독립운동가 | 963 |

제 8 편 문화재·유적

| | |
|--------------------------|------|
| 제 1 장 연기군의 문화재 | 975 |
| 제 1절 연기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 975 |
| 1. 국보 | 975 |
| 2. 보물 | 978 |
| 3. 천연기념물 | 982 |
| 제 2절 연기군의 도지정 문화재 | 983 |
| 제 3절 연기군의 군지정 향토유적 목록 | 1000 |
| 제 2 장 남면 지역의 선사유적 | 1003 |
| 제 3 장 남면 지역의 고분유적 | 1007 |
| 제 4 장 남면 지역의 산성 | 1011 |
| 제 5 장 연기군 남면의 사지 | 1019 |
| 제 6 장 향교, 서원, 사우 | 1023 |
| 제 1절 연기향교 | 1023 |
| 제 2절 남면의 서원, 사우 | 1042 |
| 1. 덕성서원 | 1042 |
| 2. 갈산서원터 | 1046 |
| 3. 금호서사터 | 1049 |
| 4. 입씨가묘 | 1055 |
| 5. 송모각 | 1059 |
| 6. 어서각 | 1063 |
| 제 3절 남면의 누정 | 1064 |
| 1. 독락정 | 1064 |

| | |
|-----------------------|------|
| 2. 송월정 | 1071 |
| 3. 제산정 | 1071 |
| 4. 연희루터 | 1074 |
| 제 7 장 남면의 금석문 | 1075 |
| 제 1절 신도비 | 1075 |
| 1. 이유태 신도비 | 1075 |
| 제 2절 묘비, 묘갈, 묘표 및 공적비 | 1076 |
| 1. 강혁 묘갈 | 1076 |
| 2. 강순용 묘비 | 1076 |
| 3. 임계현 묘비 | 1077 |
| 4. 고정리 광씨 | 1077 |
| 5. 송원리 열녀비 | 1078 |
| 6. 현감 이태진 청덕인혜비 | 1078 |
| 7. 연기향교 내 비석군 | 1079 |

| | |
|---------------------|------|
| 제 8 장 남면의 정려 | 1081 |
|---------------------|------|

| | |
|---------------------|------|
| 제 9 장 남면의 민속 | 1094 |
| 1. 원수산 산신제 | 1094 |
| 2. 전월산 산신제 | 1100 |
| 3. 양화리 깃고사 | 1102 |
| 4. 갈운리 마을제 | 1104 |
| 5. 수산리 문덕노제 | 1105 |
| 6. 수산리 깃고제 | 1106 |

| | |
|-------------------------------------|------|
| 제10장 남면의 발굴현황 | 1107 |
| 1. 연기보통리 와요지 발굴 | 1107 |
| 2. 월산리 고분군(1997년) | 1118 |
| 3. 월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1142 |

| | |
|-------------------------|------|
| 제11장 남면 역사의 큰 흐름 | 1154 |
| 1. 연기대첩 | 1154 |
| 2. 한국 전쟁과 연기군 남면 | 1163 |
| 3. 한국전쟁과 호국 영령 | 1182 |

| | |
|------------------------|------|
| 제12장 광고(도움주신분들) | 1187 |
|------------------------|------|

| | |
|---------------------------------|------|
| 제13장 남면(연기현) 향토지 발간 추진현황 | 1205 |
|---------------------------------|------|

| | |
|------------------|------|
| 제14장 편집후기 | 1207 |
|------------------|------|

第 1 編 지 리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자연지리

제2장 연기군 남면의 인문지리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자연지리

제1절 위치와 면적

1. 연기군 남면의 위치

연기군(燕岐郡)은 한반도의 중부인 충청남도 동쪽에 위치하며, 연기군에서는 군의 남쪽에 위치하여 남면이다.

위치는 그 지역의 기후, 산업, 생활양식 등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접지역과의 위치여하에 따라 그 지역의 갖는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위도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고 위도상의 위치를 자연적 위치 또는 수리적(경위선적) 위치라고 한다.

한 국가나 지역이 그 주위와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활동과 역사적 사실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위치를 정치적 또는 관계적 위치라 한다.

1) 수리적위치

수리적 위치는 불변의 위치이며 절대적 위치로 경위도상의 위치를 말한다. 연기군 남면과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도시는 예산, 홍성, 청양, 공주, 청주, 보은, 상주, 안동, 영양 등이 있으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로는 포천, 광주, 용인, 안성, 임실, 곡성을 들 수 있다.

〈표〉 연기군 남면의 경위도(經緯度)상의 위치

| 면 소 재 지 | 경 위 도 | | | 경 위 도 | | |
|------------------------------|-------|--------|----------|-------|--------|----------|
| | 방 위 | 지 명 | 동 경 | 방 위 | 지 명 | 동 경 |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중촌리 100-15 번지 | 극 동 | 남면 월산리 | 127도 19분 | 극 북 | 남면 보통리 | 366도 33분 |
| | 극 서 | 남면 수산리 | 127도 12분 | 극 남 | 남면 송원리 | 36도 27분 |

2) 지리적 위치

연기군 남면은 충청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충청남북도로 보면 중앙에 위치한다. 연기군 남면의 동쪽은 연기군 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연기군 서면과 경계, 서쪽은 공주시와 남쪽은 연기군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기군은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소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망은 연기군을 관통하여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도 1호선은 남면을 지나고 인근 조치원에는 철도의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고속철도가 연기군을 관통하여 사통팔달을 이루고 있다.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용수가 풍부하고 산은 높지 않아 목야지, 과수원으로서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하다. 온도는 연평균 12.4℃ 한서의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극심한 편이 아니다.

3)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역사적 위치이며, 가변적 위치라고도 볼 수 있다. 연기군 남면은 금강 중류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다. 금강 하류에는 공주의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 금강상류에는 청원군의 비루봉 동굴 구석기 유적이 이를 입증하고 금강변에 산재한 고인돌이 이를 입증한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 연기에는 연(燕)씨들이 활동했으며 연씨의 연신, 연들은 백제의 병관좌평까지 오른 인물이다. 연기는 백제의 왕도 웅진과 가까이 있기에 이곳을 지키는 역할로 많은 성을 쌓았고, 그러기에 연기군 남면의 산에는 당시 축조했던 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660년 의자왕이 항복하고 31년 간 백제유민이 부흥운동을 전개 할 때 연기군 남면지역의 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유민은 역대왕에 대한 추모제례를 전의 다방리에 절을 짓고 매년 4월15일 대제를 거행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 백제대제이다

왕건이 고려 건국시 삼한 통일에 박차를 가할 때 금강을 건너 공주의 견훤과 싸움을 벌이기 위하여 금강에 도착하니 7월 장마로 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되자 이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건을 건너 준다. 이때의 공으로 이름을 하사 받아 이도(李棹)라 부르고 전의 이씨 시조가 되었으며, 전의 남쪽성에 거주하였다하여 이곳을 이성(李

城)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이 이어져 나라가 위태로울 때, 연기에서 몽고적을 물리치니 이것이 연기대첩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시 연기 출신 인물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왜군을 맞아 싸웠으며, 근대에는 6·25전투가 전의 개미고개 금남의 금강방어 전투로 이어져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연기군 남면은 고대 웅진을 지키기 위한 지리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여왔다.

연기군의 구성은 연기와 전의 그리고 금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기는 백제시대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고, 통일신라시대 연산군에 속한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였다. 태종 6년(1406년)에는 연기에 감무를 두었다. 태종 14년(1414년)에는 연기와 전의를 합병하여 전기현(全岐縣)으로 하였다가 태종16년(1416)에 각각 환원하였다.

전의는 연산군때 환관 김처선에 의하여(1505년)전의가 없어졌다가 중종반정때(1506) 다시 복직되었으며, 연기는 숙종 6년(1608년)읍인 만설의 모역벌주(謀逆伐誅-역모를 꺾하다 들켜 그 죄)로 인하여 문의에 속하였으나, 1685년 복구하여 연기현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종32년(1895년) 전국지방관제를 개정함에 따라 각각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었으며 이때 연기군, 전의군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연기군과 전의군을 합하고 금강 건너 금남을 연기에 편입하였는데 이곳은 백제때 웅진(熊津:熊川)에 속한 소비포현이었으며, 고려 때는 공주에 속했다가 1914년 연기군에 편입되면서 금강의 남쪽에 있다하여 금남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약간의 변화에 의하여 현재 연기군은 1읍 7개 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면은 연기군의 남쪽에 있다하여 남면이라 불렀다.

2. 연기군 남면의 면적

연기군의 지도는 마치 고구마처럼 길게 형성되어 있다. 과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는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제시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공주의 금강변 지역을 편입하여 연기, 전의, 금남 지역이 연기군이 되었다.

연기군은 행정구역상 7개 면적과 1개읍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361.53km²으로서 조치원읍은 13.56km², 동면 29.47km², 서면 54.60km², 남면 53.58km², 금남면 73.63km² 전의면 62.39km², 전동면 57.81km², 소정면 16.49km²이다.

연기군 읍면별 면적 및 현황

| 년 도 읍면별 | 면적 (km ²) | 구성비 | 군 | 읍 · 면 | | | 마을 | | | 반 | 출장소 |
|------------|--------------------------|--------|---|-------|---|---|-----|-----|-----|-----|-----|
| | | | | 계 | 읍 | 면 | 동리 | 행정 | 법정 | | |
| 1994 | 356.95 | 100.00 | 1 | 7 | 1 | 6 | 199 | 199 | 106 | 896 | - |
| 1995 | 361.56 | 100.00 | 1 | 8 | 1 | 7 | 200 | 200 | 106 | 897 | - |
| 1996 | 361.59 | 100.00 | 1 | 8 | 1 | 7 | 201 | 201 | 106 | 941 | - |
| 1997 | 361.52 | 100.00 | 1 | 8 | 1 | 7 | 201 | 201 | 106 | 941 | 1 |
| 1998 | 361.47 | 100.00 | 1 | 8 | 1 | 7 | 201 | 201 | 106 | 941 | 1 |
| 1999 | 361.45 | 100.00 | 1 | 8 | 1 | 7 | 201 | 201 | 106 | 941 | - |
| 2000 | 361.53 | 100.00 | 1 | 8 | 1 | 7 | 203 | 203 | 106 | 982 | - |
| 조치원읍 | 13.56 | 3.75 | - | 1 | 1 | - | 25 | 25 | 14 | 351 | - |
| 동 면 | 29.47 | 8.15 | - | 1 | - | 1 | 25 | 25 | 9 | 65 | - |
| 서 면 | 54.60 | 15.10 | - | 1 | - | 1 | 24 | 24 | 13 | 123 | - |
| 남 면 | 53.58 | 14.82 | - | 1 | - | 1 | 28 | 28 | 14 | 122 | - |
| 금 남 면 | 73.63 | 20.37 | - | 1 | - | 1 | 39 | 39 | 26 | 135 | - |
| 전 의 면 | 62.39 | 17.26 | - | 1 | - | 1 | 30 | 30 | 15 | 93 | - |
| 전 동 면 | 57.81 | 15.99 | - | 1 | - | 1 | 21 | 21 | 11 | 60 | - |
| 소 정 면 | 16.49 | 4.56 | - | 1 | - | 1 | 11 | 11 | 4 | 33 | - |

토지 지목별 현황-1

(단위: m²)

| 년 도 읍면별 | 합계 | 전 | 답 | 과수원 | 목장 용지 | 임야 | 대지 | 공장 용지 | 학교 용지 | 도로 | 철도 용지 | 하천 |
|------------|-------------|------------|------------|-----------|-----------|-------------|-----------|-----------|-----------|-----------|-----------|------------|
| 1995 | 361,564,742 | 35,677,906 | 66,215,694 | 2,714,079 | 1,109,625 | 199,865,534 | 8,857,448 | 3,153,044 | 655,694 | 6,328,308 | 1,505,341 | 20,240,840 |
| 1996 | 361,588,086 | 35,543,156 | 65,726,087 | 2,774,672 | 1,296,507 | 199,658,718 | 9,037,138 | 3,272,171 | 659,923 | 6,546,134 | 1,504,915 | 20,228,656 |
| 1997 | 361,523,431 | 35,215,493 | 65,275,173 | 2,831,211 | 1,419,588 | 199,264,157 | 9,136,546 | 3,504,207 | 1,035,967 | 6,655,998 | 1,495,116 | 20,196,325 |
| 1998 | 361,469,737 | 34,999,901 | 64,291,959 | 3,022,077 | 1,571,799 | 198,817,455 | 9,242,623 | 3,814,349 | 1,039,156 | 7,362,496 | 1,493,265 | 20,174,081 |
| 1999 | 361,448,138 | 33,941,804 | 63,181,286 | 4,887,817 | 1,640,538 | 198,676,339 | 9,351,298 | 3,939,922 | 1,040,017 | 7,484,532 | 1,493,265 | 20,152,712 |
| 2000 | 631,534,975 | 33,526,707 | 63,222,060 | 5,000,302 | 1,694,292 | 198,517,850 | 9,455,929 | 4,147,339 | 1,040,842 | 7,551,504 | 1,493,242 | 20,234,324 |
| 조치원읍 | 13,562,883 | 1,275,318 | 1,983,028 | 890,166 | 45,438 | 4,443,103 | 1,843,676 | 204,397 | 556,517 | 547,607 | 341,193 | 743,168 |
| 동 면 | 29,470,191 | 3,721,600 | 8,126,725 | 294,919 | 83,454 | 10,454,549 | 844,439 | 564,085 | 59,379 | 744,725 | 302,759 | 2,837,420 |
| 서 면 | 54,005,181 | 4,805,818 | 8,632,236 | 2,991,923 | 256,928 | 28,779,783 | 1,325,956 | 482,805 | 61,347 | 1,025,337 | - | 2,636,840 |
| 남 면 | 53,582,362 | 5,353,861 | 11,858,856 | 313,222 | 342,597 | 25,217,311 | 1,503,425 | 1,314,697 | 95,446 | 1,649,632 | - | 3,741,739 |
| 금남면 | 73,630,672 | 5,979,645 | 14,188,602 | 123,062 | 60,019 | 39,357,066 | 1,614,252 | 395,432 | 89,948 | 1,662,625 | - | 7,301,838 |
| 전의면 | 62,392,918 | 6,407,454 | 8,583,951 | 23,446 | 316,291 | 40,336,610 | 1,085,364 | 585,081 | 128,286 | 824,767 | 535,911 | 1,125,957 |
| 전동면 | 57,805,222 | 4,102,000 | 7,259,669 | 356,004 | 486,247 | 39,872,227 | 813,496 | 519,275 | 28,445 | 645,038 | 243,638 | 1,484,310 |
| 소정면 | 16,485,546 | 1,881,011 | 2,588,993 | 7,560 | 103,318 | 10,057,201 | 425,321 | 81,567 | 21,474 | 451,773 | 69,741 | 363,052 |

토지 지목별 현황-2

(단위: m²)

| 년 도 읍면별 | 제방 | 구거 | 유지 | 수도 용지 | 공원 | 체육 용지 | 유원지 | 종교 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
|------------|-----------|-----------|-----------|----------|--------|-----------|-----|----------|-----|-----------|-----------|
| 1995 | 1,441,210 | 8,304,083 | 1,055,658 | 48,503 | 27,510 | 1,213,351 | - | 58,652 | - | 1,485,350 | 1,606,912 |
| 1996 | 1,434,736 | 8,314,778 | 1,047,538 | 48,503 | 32,543 | 1,213,351 | - | 74,660 | - | 1,483,926 | 1,689,974 |
| 1997 | 1,428,364 | 8,417,722 | 1,045,095 | 41,998 | 40,924 | 1,216,383 | - | 82,610 | - | 1,483,809 | 1,736,745 |
| 1998 | 1,428,904 | 8,459,726 | 1,043,095 | 41,998 | 51,085 | 1,216,383 | - | 90,252 | - | 1,479,263 | 1,829,870 |
| 1999 | 1,421,933 | 8,449,716 | 1,013,540 | 41,998 | 56,531 | 1,216,383 | - | 101,960 | - | 1,479,637 | 1,876,910 |
| 2000 | 1,414,718 | 8,395,861 | 1,012,501 | 78,861 | 56,531 | 1,216,383 | - | 109,389 | - | 1,467,791 | 1,898,549 |
| 조치원읍 | 94,630 | 235,581 | 22,249 | 18,563 | 29,585 | - | - | 10,337 | - | 103,611 | 174,716 |
| 동 면 | 248,593 | 1,004,531 | 9,087 | - | - | - | - | 5,484 | - | 75,501 | 92,941 |
| 서 면 | 173,707 | 1,620,650 | 762,082 | 829 | 15,285 | - | - | 15,655 | - | 152,737 | 865,263 |
| 남 면 | 392,864 | 1,340,311 | 29,527 | 1,266 | - | - | - | 11,262 | - | 103,643 | 312,703 |
| 금남면 | 257,738 | 2,052,840 | 47,637 | 4,820 | 1,500 | - | - | 47,529 | - | 334,106 | 112,013 |
| 전의면 | 35,181 | 842,714 | 58,381 | 8,864 | 8,038 | 1,216,383 | - | 7,606 | - | 189,678 | 72,955 |
| 전동면 | 183,101 | 1,008,948 | 65,909 | 33,333 | - | - | - | 7,923 | - | 496,432 | 199,227 |
| 소정면 | 28,904 | 290,286 | 17,629 | 11,186 | 2,123 | - | - | 3,593 | - | 12,083 | 68,731 |

제2절 연기군 남면의 기후

연기군 남면에 사는 사람은 축복 받은 땅에 산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과 장마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하지 않아 커다란 피해 없이 한 해를 넘기는 곳이 연기군 남면이다.

기후란 매일의 일기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평균한 대기의 특성과 현상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기상은 기온·습도·운량·강수·기압·바람·폭풍 등과 같이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일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온대성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6-16℃ 분포로 지역차가 매우 큰 편이며,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10-16℃이다. 연중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평균기온은 25℃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기온은 -0.7℃이다. 연강수량은 남부지방이 1500mm이고, 중부지방이 1300mm정도이다. 계절적으로 연강수량의 약 50-60%가 여름에 내리고, 5-10%가 겨울에 내린다. 바람은 일반적으로 북서계절풍이 남서계절풍보다 강하고, 특히 12월에서 2월까지의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나타난다. 9월과 10월은 남서계절풍에서 북서계절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므로, 바람은 대체로 약하고 해안지방에는 해륙풍의 영향이 뚜렷해진다.

연기군 남면은 우리나라의 중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함으로써 내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므로 중부 내륙형에 속한다. 기온은 최고가 7-8월 38℃이며, 최저는 1-2월에 -6.0℃이다. 강수량은 7-8월에 474mm가 최고이고, 2-3월에는 4-18mm 이다.

연기군의 기상 개황

(2001년통계)

| 년도 월별 | 기온(℃) | | | | | 강수량 (mm) | 상대습도 | | 평균해 면기압 (hPa) | 이슬점 온도(℃) | 평균 운량 (1/10) | 일조 시간 | 최심신 적설(cm) | 바람 | |
|----------|-------|----------|----------|----------|----------|-------------|------|----|---------------------|--------------|--------------------|----------|---------------|----------|----------|
| | 평균 | 평균 최고 | 극값 최고 | 평균 최저 | 극값 최저 | | 평균 | 최소 | | | | | | 평균 풍속 | 최대 풍속 |
| 1994 | 14 | - | 38 | - | -13 | 858 | 66 | 13 | 1,017 | 7 | 5 | 2,529 | 10 | 2 | 12 |
| 1995 | 12 | - | 36 | - | -13 | 1,136 | 68 | 20 | 1,017 | 6 | 5 | 2,422 | 4 | 2 | 16 |
| 1996 | 12 | - | 36 | - | -14 | 1,279 | 68 | 18 | 1,017 | 6 | 5 | 2,441 | 7 | 2 | 13 |
| 1997 | 12.8 | 18.7 | 35 | 7.6 | -15 | 1,766 | 69 | 0 | 1,017 | 7 | 4 | 2,549 | 13 | 2 | 13 |
| 1998 | 13.6 | 19.2 | 34 | 8.9 | -13 | 2,070 | 71 | 10 | 1,017 | 8 | 5 | 2,051 | 17 | 2 | 14 |
| 1999 | 13.0 | 18.5 | 34 | 8.1 | -14 | 1,445 | 70 | 8 | 1,017 | 7 | 5 | 2,243 | 3 | 2 | 17 |
| 2000 | 12.4 | 18.1 | 34 | 7.7 | -12 | 1,708 | 67 | 8 | 1,016 | 6 | 5 | 2,135 | 3 | 3 | 20 |
| 1월 | -1.2 | 3.3 | 11 | -5.2 | -12 | 28 | 70 | 19 | 1,026 | -6 | 5 | 138 | 3 | 2 | 13 |
| 2월 | -1.1 | 4.5 | 10 | -6.0 | -12 | 4 | 57 | 12 | 1,023 | -10 | 4 | 191 | | 3 | 13 |
| 3월 | 6.1 | 13.1 | 20 | -0.1 | -7 | 18 | 55 | 8 | 1,018 | -4 | 4 | 219 | 1 | 3 | 15 |
| 4월 | 11.9 | 18.4 | 25 | 5.9 | -2 | 68 | 51 | 13 | 1,013 | 0 | 5 | 211 | 0 | 4 | 16 |
| 5월 | 17.2 | 23.6 | 31 | 11.8 | 7 | 54 | 64 | 16 | 1,010 | 9 | 5 | 204 | 0 | 3 | 13 |
| 6월 | 22.2 | 27.6 | 32 | 17.8 | 13 | 238 | 72 | 24 | 1,007 | 16 | 7 | 182 | 0 | 3 | 10 |
| 7월 | 25.6 | 30.8 | 34 | 21.9 | 18 | 470 | 77 | 45 | 1,006 | 21 | 7 | 173 | 0 | 3 | 12 |
| 8월 | 25.8 | 30.5 | 34 | 22.6 | 19 | 474 | 79 | 48 | 1,009 | 22 | 7 | 165 | 0 | 3 | 20 |
| 9월 | 19.9 | 24.7 | 30 | 16.2 | 11 | 263 | 78 | 30 | 1,013 | 16 | 7 | 127 | 0 | 3 | 13 |
| 10월 | 14.5 | 21.0 | 27 | 9.3 | 2 | 25 | 72 | 24 | 1,020 | 9 | 5 | 179 | 0 | 1 | 7 |
| 11월 | 6.6 | 12.8 | 22 | 1.7 | -5 | 45 | 67 | 19 | 1,025 | 0 | 4 | 157 | 0 | 2 | 7 |
| 12월 | 1.4 | 7.2 | 16 | -3.7 | -11 | 22 | 62 | 21 | 1,025 | -6 | 4 | 188 | 2 | 2 | 9 |

연기군 남면의 일기 일수

(2001년 통계)

| 년도 월별 | 맑음 | 흐림 | 강수 (0.1mm이상) | 서리 | 안개 | 눈 | 뇌전 | 폭풍 |
|----------|-----|-----|-----------------|-----|----|----|----|----|
| 1994 | 98 | 81 | 91 | 97 | 4 | 18 | 18 | - |
| 1995 | 92 | 90 | 104 | 108 | 21 | 20 | 20 | 1 |
| 1996 | 105 | 91 | 111 | 94 | 16 | 14 | 14 | - |
| 1997 | 127 | 71 | 98 | 81 | 15 | 23 | 23 | 1 |
| 1998 | 86 | 113 | 117 | 78 | 27 | 30 | 30 | - |
| 1999 | 92 | 89 | 117 | 85 | 33 | 12 | 12 | - |
| 2000 | 91 | 105 | 119 | 95 | 18 | 22 | 20 | 6 |
| 1월 | 9 | 10 | 11 | 19 | 2 | 7 | - | - |
| 2월 | 11 | 2 | 5 | 19 | - | 8 | - | - |
| 3월 | 15 | 4 | 6 | 16 | - | 1 | - | 1 |
| 4월 | 8 | 8 | 5 | 1 | 1 | - | 1 | 3 |
| 5월 | 5 | 7 | 10 | - | - | - | 1 | - |
| 6월 | 4 | 14 | 15 | - | 1 | - | 5 | - |
| 7월 | - | 13 | 14 | - | - | - | 3 | - |
| 8월 | 4 | 15 | 19 | - | 2 | - | 8 | 2 |
| 9월 | 4 | 17 | 13 | - | 3 | - | 1 | - |
| 10월 | 8 | 7 | 5 | 2 | 6 | - | - | - |
| 11월 | 12 | 7 | 8 | 13 | 1 | - | - | - |
| 12월 | 11 | 1 | 8 | 25 | 2 | 6 | 1 | - |

※자료: 대전지방기상청

제3절 연기군 남면의 생물상

1. 연기군 남면의 동물(動物)

1) 옛 문헌에 기록된 연기군 남면의 동물

『세종실록지리지』 토공조(土貢條)를 보면 연기현의 토공물로는 여우가죽(皮), 삿쟁이 가죽(皮), 수달피(水獺皮)가 기재되어 있다. 공물의 품목에 오를 정도라면 우리 지방에 이러한 동물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중 연기군 남면에서 요즈음 보이지 않는 것은 여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연기현의 토산품은 게(蟹)이다.

2) 연기군 남면의 동물상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여도, 이제는 사나운 맹수는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들을 구경하려면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다. 또한 심심찮게 들려오던 호랑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된 것 같다.

우리 연기군 남면은 제법 많은 동물들이 산 속에서 살아왔는데,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산을 없애고 높은 산에는 인도를 낸답시고 산 허리에 길을 내어 자동차가 산 정상에 마음대로 오르내리고 있으니, 산짐승들이 살아갈 보금자리를 잃고 있으며 인간이 쏘아대는 총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① 젖빨이 동물(포유류-哺乳類)

2~30여년 전에 호랑이가 출현하여 나무하러갔던 나무꾼이 호랑이를 보고 도망쳐왔으나 그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유제류(有蹄類)인 멧돼지와 노루 또한 연기군 남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제

는 높은 산이라도 발견하기 어렵다. 연기군 남면에서의 멸종은 아닌 것 같은데, 1990년도만 하더라도 웬만한 산에서는 1년에 멧돼지 1마리씩 잡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보았다는 이야기가 없다.

식육류(食肉類)로는 족제비과(MUSTELIDAE) - 수달, 오소리, 산달, 족제비, 개과(CANIDAE) - 너구리와 설치류(齧齒類)로는 산토끼, 다람쥐, 쥐, 시궁쥐, 곰쥐, 생쥐, 등줄쥐, 등의 종류가 있다.

식충류(食蟲類)로는 두더지가 군내 전역에 많은 수효가 서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문 두더지잡이가 많은 양의 두더지를 잡아 약재상에 팔아 넘기기도 했다. 고슴도치 또한 군내에 많이 살고 있다.

익수류(翼手類)인 박쥐는 주로 동굴이나 빈집의 처마, 나무 등지에서 살고 있는데 연기군 남면의 서식 박쥐는 큰수염박쥐, 붉은박쥐, 집박쥐, 문둥이박쥐, 생박쥐, 긴가락박쥐 등이다

② 새 류(鳥類)

연기군을 상징하는 새는 제비이다. 이는 연기(燕岐)의 연자가 제비연(鷺)자와 통하며, 또 연기리의 당산이 제비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것 같다. 그리고 연기군의 중심 도시인 조치원(鳥致院)이 새조(鳥)자가 들어가 있으니 연기군은 새와 연관있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

연기군 남면은 금강이 흐르고 있고 금강을 중심으로 남쪽의 계룡산, 북쪽의 차령산맥이 새들이 살아가는 용이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연기군 남면에서 살고있는 조류는 참새목(PASSERIFORMES) - 까마귀, 참새, 멧새, 쭉새, 북방쇠 종다리, 빨종다리, 종다리, 알락 할미새, 검은등 할미새, 흰눈썹 긴발톱 할미새, 진박새, 때까치, 되지빠귀, 노랑쥐빠귀, 개똥지빠귀, 상모술새.

파랑새목(CORACIFORMES) - 물총새.

딱따구리목(PICIDAE) - 크낙새.

울빼미목(STRIGIDAE) - 흰올빼미, 수리부엉이, 칩부엉이.

매목(FALCONIFORMES) - 쇠황조롱이, 검독수리, 개구리매, 참매.

황새목(CICONIIDAE) - 황새, 따오기.

기러기목(ANSERIFORMES) - 큰기러기, 황오리, 원앙이사촌, 흰비오리.

도요목(CHARADRIIFORMES) - 각도요, 넓적부리도요,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댕기물떼새, 검은머리 갈매기.

두루미목(GRUIFORMES) - 두루미.

닭목(GALLIFORMES) - 메추리, 꿩.

③ 파충류(爬蟲類)와 양서류(兩棲類)

파충류와 양서류는 인간과 친한 동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몸에 좋다는 말 때문에 마구 잡아버려 결국 멸종위기까지 가는 것이 있다.

파충류로 거북목(TESTUDIANTA BATSCH) - 남생이, 자라.

유입목(맹목)(SQAMATA OPPEL) - 도마뱀부치, 장수도마뱀, 도마뱀, 표범장지뱀, 장지뱀, 줄장지뱀, 올리장지뱀, 아무르장지뱀, 대륙 유혈목이, 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무자치, 줄꼬리뱀, 구렁이, 살무사.

양서류도 도롱뇽목 (CAUDATA DUMERIL) - 도롱뇽.

개구리목(SALIENTIA LAURENTI) -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맹꽂이, 참개구리, 금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움개구리, 황소개구리.

이중 황소개구리는 일반개구리보다 몇배가 커다란 개구리로, 40cm 크기가 보통이다. 이는 1970년 당시 광산군 삼도면에서 농가부업 양식용으로 수입된 식용 개구리이다.

이때 개구리가 양식장을 뛰쳐나와 전국의 대소 하천과 저수지에서 급속하게 번성하면서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식성 때문에, 먹이 사슬의 파괴가 생태계의 교란현상을 초래하는 등 이제는 괴물로 둔갑하여 토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 황소개구리가 전국으로 급속도로 퍼지자 이제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황소개구리 잡기 운동을 벌일 정도이다.

④ 민물고기(담수어류-淡水魚類)

연기군 남면은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비교적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미호천 또한 금강 못지않게 많은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고 군립공원인 고북저수지는 주말에 마치 커다란 주차장을 연상하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낚시를 즐기곤 한다. 물고기가 멸종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산업의 발달로 강가나 냇가의 바닥이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부적합한 콘

크리트로 보금자리를 잃어가는 것과 공장과 축사로 물이 오염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둘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외국 어종이 유입되면서 이들 물고기가 토종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멸종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연기군 남면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는 다음과 같다.

원구강(圓口綱) (CLASSIS CYCLOSTOMI) - 다목장어.

경골어강(硬骨魚綱)(CLASSIS OSTEICHTHYES)- 은어, 빙어, 국수뱅어, 벚꽃뱅어, 잉어, 붕어, 누치, 참마자, 어름치, 모래무지, 버들매치, 줄몰개, 몰개, 긴몰개, 참붕어, 중고기, 참중고기, 모섬치, 돌고기, 감돌고기, 버들치, 쉬리, 끄리, 피라미(용수천에 많아서식), 갈겨니, 눈빨가니, 치리, 살치, 강준치, 줄납자루, 묵납자루, 갈납자루, 납자루, 큰납지리, 가시납지리, 납지리, 흐니줄납줄개, 각시붕어, 납줄갱이, 두무쟁이, 쭈구리, 모래주사, 돌마자, 빠가사리, 기름종개, 새코미꾸리, 미꾸리, 미꾸라지, 쌀미꾸리, 메기, 미유기, 동자개, 대농쟁이, 눈동자개, 종어, 꼬치동자개, 자가사리, 뱀장어, 송사리, 송어, 가숭어, 가물치(고북저수지에 많다.),농어, 꺾지, 쏘가리, 버들붕어, 동사리.

무상동물상(無相動物相)

가재목(AOTACRA) - 가재.

족강(足綱) (PELECYPODA)

고치(古齒) (PALEOHETER ODONTA) - 공조개

(5) 외래(外來)동물 - 어류

① 향어(이스라엘 잉어)

1975년부터 소양호에서 처음으로 길렀는데 토종 잉어보다 2배 이상 빠른 성장을 보여, 수자원 이용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량 수입하여 여러 곳에서 기르다가, 홍수 등으로 방류되어 흩어지게 되어 연기군 남면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낚시터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넘었던 고기가 흩어져 서식하게 된 원인도 있다.

향어 특유의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급격히 세력권을 확보, 기존 고유 어종의 터전을 빼앗으면서 토종 잉어와 향어의 교잡으로 인한 잡종어로 전락하는 등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② 블루길(bluegill) (월남붕어)

1960년대 들어 수산청이 동남아지역 각 나라에서 서식하는 담수어족인 새끼고기를 수입해, 농촌소득 자원시범 조성지로 계룡저수지 등을 지정했었다.

당시는 국민 소득이 낮아 배고픈 시절이라, 잘 자라는 것만 보고 우선 택했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수입한 블루길이 서식하는 주변에는 우리 고유의 어족인 붕어와 잉어, 피라미 등의 토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어종 중에서도 공격력이 뛰어난 쏘가니마저도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산란기는 4~6월로 알려졌으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주위를 보호하느라 다른 어종을 열썬거리지 못하게 하며, 피라미나 각종 고기의 알 등을 마구 잡아먹는 난폭자로 자신의 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식장소는 큰 호수나 연안대의 수생식물이 많거나 하천의 흐르는 수초가 있는 곳에서 주로 산다. 원산지는 북미의 동남부지역이다.

③ 웨라붕어(떡붕어)

1960년대 일본에서 수자원 이용차원에서 블루길과 같은 시기에 수입된 붕어로, 성장속도가 토종어종보다 2~3배 빨라 소득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도입되어, 다량 확산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웨라붕어는 토종 붕어보다 둥글고 유선형을 벗어나 타원에 가까우며 힘이 약하고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점이 특징이다. 저수지나 흐름이 완만한 하천의 하류부 약간 깊은 곳의 중층이나, 때로는 표층 가까이에서 떼지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와 규조류를 섭식 하지만, 때로는 식물체의 조직도 소화관 내용물에서 나타나는 대식가이다. 본 종은 붕어의 산란기인 5~6월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보다는 약간 빠르게 산란을 한다고 한다.

붕어보다 성장이 빨라서 5~6년 지나면 40cm를 넘는다. 일본 비와후가 원산으로 일본전역에 분포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식 정착되어 저수지와 대형댐의 여러 곳에서 우점적으로 분포되었다. 현재는 전국의 저수지 및 댐호에 정착되어 재래종 붕어보다 우세하게 출현할 뿐만 아니라, 재래종과의 교잡에 의한 잡종이 나타나고 있다.

연기군 남면에서는 역시 금강과 미호천에서도 잡힌다.

④ 베스

호수나 하천 하류의 흐름이 느린 곳을 좋아한다.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염분이 있

는 해수지역에서도 서식한다. 공격력이 아주 강한 어종으로,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산다. 산란은 16~22℃가 되는 지역의 수초가 있는 바닥에 수컷이 청소를 하고 직경 50cm 깊이 15cm의 둥지를 만든 후, 암컷을 유도하여 산란 방정한다. 한 마리의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유도하여 산란 행동을 하는데, 보통 1개의 둥지에서 수백 개로부터 1만개까지의 알을 낳아 부화하도록 한다. 수컷은 산란 후 둥지에 있는 알과 치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조성용으로 수산청에서 1973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경기도 가평 조종천 등의 여러 곳에 시험 방류를 하는 동안, 적절치 못한 어종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 강·하천에 정착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댐호에서도 매우 우세하여,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연기군 남면에서도 미호천, 금강, 심지어 유료남시터에서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2. 연기군 남면의 식물(植物)

1) 옛 문헌에 기록된 연기군의 식물

『세종실록지리지』 연기현조의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 팥, 메밀, 뽕나무이다. 또 토공(土貢)으로는 대추와 칠, 약재(藥材)는 인삼, 산골(自然洞), 마름(菱仁)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연기에서 많이 나는 곡식은 조이고, 토산물은 대추와 칠이다. 약재로는 인삼이 많이 재배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기군 남면에서 자라는 식물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여기서는 유형별 자원식물을 상세히 언급할 수 없어 개략적인 것만 기술하고, 연기군에 주로 분포된 약용식물(藥用植物)을 수록하였다.

(1) 식용식물(食用植物)

시장에 등장하는 나물은 두릅나무, 돌나물, 취, 머위, 쑥 등의 야생 식용식물이 제

법 등장한다. 물론 요즘에는 재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연기군내에서는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더 많다. 팽나무, 복분자 딸기, 다래, 참나무, 들깨풀, 대나무, 정금나무 등이 식용식물이고, 쭉은 식용도 하려니와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며, 자생력과 생장력이 강하여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쭉차, 쭉떡, 쭉국, 목욕탕의 욕재 등 다양하게 쓰인다. 또, 돌나물은 간질환의 성약으로 알려오고 있어 수요가 급증한다.

(2) 공업용 식물(工業用植物)

해송, 적송,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데타소나무, 잣나무, 편백, 낙엽송, 느티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때죽나무, 이대리 포푸라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리기다소나무이다. 연기군의 산은 높은 산이 없고 구릉모양의 낮은 산이 많다 보니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부터 식재하여, 4~50여 년에도 많이 식재되었다. 나무가 곧게 자라 목재용으로 쓰인다. 전의면 달전리, 원성리에 가면 나무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묘목을 생산하여 전국각지에 공급하여 주고 있다.

(3) 기호식물(嗜好植物)

결명자, 생강나무, 녹차(綠茶)등이다. 이 중 결명자와 생강나무는 유지되어 오는데 녹차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녹차 마시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연기군 남면에서는 생산되는 녹차는 없고, 가공하여 만들어진 차를 사서 마신다.

(4) 향료식물(香料植物)

갯, 냉이, 고추, 마늘, 산초나무 등이 있다. 갯과 냉이는 자연서식으로 많이 자라지만, 고추와 마늘은 농민이 재배를 하여 수확한다.

(5) 염료식물(染料植物)

연기군 남면에서 자라는 염료식물은 다음과 같다. 산오리나무(누런다갈색), 아그베나무(금갈색), 자귀나무(담황색), 아카시아(다갈색), 제비꽃(황록색), 누리장나무(푸른취색), 조개풀(농황색), 산뽕나무(누런다색), 다정금나무(갈색), 다릅나무(옅은다색), 북나무(다갈색), 층층나무(다갈색), 개오동(누런다색), 억새(다갈색), 매자나무(누런다색), 개살구나무(황갈색), 칩(회다색), 봉선화(붉은색), 작살나무(회다색), 참쭉(다록색), 감(흑갈색)

① 쪽물

세계적으로 물감에 쓰이는 식물은 130여종에 이른다. 이들 천연의 물감들은 나름대로 우수한 색상과 옷베의 보존, 그리고 천연 염료의 특성인 제독작용(除毒作用)이 있어, 오늘날 화학염료와는 비길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화학염료의 폭 넓은 개발과 제작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명맥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

쪽은 6·25 직후만 하여도 우리네 가정과 인연이 깊었던 남빛(藍-푸른빛과 자주빛의 중간색) 물감으로, 어지간히 사는 집안이면 쪽이불, 쪽옷이 마련되어 있었고, “남색짜리” 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쪽물 들인 옷을 입으면 독사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어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이가 번지지 않는다 하여 더욱 중히 여겼다.

쪽은 마디풀과에 딸린 1년생 풀로 3~4월에 씨앗을 뿌려 7월 꽃필 무렵에 베어내는 것으로 연기의 각처에서 재배 또는 자생하던 흔하던 풀이었다.

한방에서는 “남(藍)” 이라 하여 잎과 열매를 해독, 해열, 상처 또는 독충에게 물린 곳을 치료하는 약으로 응용하였다.

참고로 쪽물 들이는 방법을 간략히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꽃이 약간 필 무렵 쪽을 베어 큰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며칠 간 두면 쪽물이 우러나오고 쪽의 잎은 누렇게 변색한다.

- 이때 쪽풀은 건져내고, 우러나온 쪽물에 조개 껍질을 구어 밀가루처럼 가늘게 빻은 “사회가루” 를 넣고 저으면 거품이 나오는데, 거품이 많이 나도록 잘 짓는다.

- 시간이 지나면 쪽물은 밑으로 갈아 앉고 맹물은 위로 뜨는데, 위로 뜬 맹물을 퍼낸 후 잿물(콩대나 메밀대 또는 목화대를 태운 재를 시루에다 넣고 물을 부어 매끈 매끈한 잿물을 만들어 쓴다.)을 넣고 다시 “사회가루” 를 적당히 섞어 잘 짓는다.

- 거품이 항아리를 넘쳐 흐르면 찌꺼기를 건져낸 다음, 쪽물이 담긴 항아리 주변에 따뜻하게 불을 지핀다. 계속 물을 지피면 쪽물이 구름처럼 피어 솟구치는데 이렇게 되면 성공이다.

- 쪽이 바로 피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며칠 간 꾸준히 불을 지피고 또 항아리 속을 잘 점검해야 한다.

- 이 과정이 끝나면 베에 물을 들이는데, 한번에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구었다가 꺼내고 말리는 일을 십여번 되풀이하면 고운 남빛이 들게된다.

- 이렇게 들인 물은 이후 빠지거나 퇴색하지 않는다.

(6) 화훼식물

살아가는데 생활이 넉넉해지자, 집에 분재나 화분이 없는 집이 별로 없다. 야생의 적송이 품격 높은 관상(觀賞) 정원수로 각광을 받은 지 오래며, 분재애호가들이 야생의 나무를 분에 옮겨 관상목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보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토박이 야생초화를 화훼화하는 연구가 등, 뜻 있는 몇 사람에 의해 상당히 깊이 연구되고 있다. 남면의 갈운리에 화훼단지가 있다.

① 한국 춘란의 내력과 분포상황

우리나라 남부지방 야산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보이는 춘란(春蘭)은 산란초, 꿩밥, 아기다래, 여달래, 손가락총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향기가 없는 우리 춘란은 난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어떤 것은 미미한 향이 있기는 하나, 있으나 마나한 정도였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난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있으나, 춘란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은편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세종31년인 1449년에 인제 강희안(仁濟 姜希顔)이 쓴 『양화소록』에 “호남 연해의 여러 산에 자생하는 난은 가히 일품이다”라는 구절이며, 이 구절로 당시 호남의 자생춘란이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었던 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춘란의 분포는, 남으로는 제주도에서, 북으로 백령도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휴전선 근방인 강릉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되었고, 서울 바로 아래지방인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춘란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따라 북쪽지역으로 자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 춘란은 기온이 연평균 12~13℃이고, 겨울 평균 기온이 0~2℃ 사이의 비교적 따뜻하며 습기가 많고, 또 적설량이 많은 곳이 적지이다.

연기군 남면에서는 원수산, 전월산, 국사봉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7) 약용식물(藥用植物)

『세종실록지리지』에 연기현의 토공품 약재는 인삼, 산골(自然洞, 마름(菱仁)이다. 이로 보아 연기군에서는 인삼이 제법 많은 양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나무를 하여 오는 이가 없어서 그런지, 산에 올라 산삼을 캐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다음은 연기군 남면 내에서 발견되는 약용식물을 기록한 것이다.

기술방법은 우리말 이름을 쓰되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였고, ()속에 생약명을 썼으며, 학명은 생략하고 용처를 썼다.

·개당주나무 (수산사-藪山査)
요통(腰痛), 위장, 옷, 장출혈(腸出血)
등에 쓴다.

·개맥문동
이뇨(利尿), 해열, 감기, 진정(鎮靜),
강장, 짓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쓴다.

·개맨드라미 (청상자-靑箱子)
씨를 부인 음창(陰瘡), 살충, 해열, 통
경에 쓴다.

·개머루 사포도-蛇葡萄)
동진통, 이뇨, 치질, 종독(腫毒) 등에
싸댄다.

·개벧나무 (구내자-狗奈子)
열매를 먹으면 강정제가 되며 껍질은
고혈압을 다스리는데 쓴다.

·개비자
구충(驅蟲), 건위, 장출혈에 쓴다.

·개산초나무 (죽엽초-竹葉椒)
이뇨, 중풍, 치통, 건위, 진해제로 쓰
인다.

·개시호 (시호-柴胡)
해열제로 뿌리가 특효함

·개암나무 (주인-湊仁)
열매를 보익(補益), 강장제로 쓴다.

·개연꽃
자양강장, 지혈, 해독제에 씀

·개오동 (반피동-半皮東)
거풍(去風), 치통, 해수, 해독, 이질,
신장염 등을 치료함

·개웃나무
소화, 건위, 당뇨, 관절염, 통경(通經)
에 쓰임

·개자리 (수숙-首宿. 고여묵. 거여묵)
황달의 요약, 목초용으로 많이 재
배한다.

·갯버들 (수양-水楊)
이뇨, 종기, 버짐, 수렴, 황달을 치료
하는데 가지와 잎이 쓰임

·겨우살이 (동청-凍靑)

진정, 통정, 허리아픔, 고혈압에 전초를 이용함

·깽깽이풀 (조황연-朝黃連)

건위,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뿌리와 줄기를 씹

·고들빼기 (황하채-黃花菜)

어린잎 식용, 건위의 효과가 있음

·고로쇠나무

수액을 자양강정제로 쓴다. 균유산에 자생함

·고본 (藁本)

부인병 치료, 배아픔, 두통 등에 전초를 씹

·고비 (구척-狗脊)

잎을 다려서 마시면 각기병 및 수종(水腫), 구충(驅蟲), 임질에 효과가 있다.

·고삼 (苦參)

건위, 구충약으로 전초가 쓰임. 약간 독성이 있음

·고수 (호유-胡葵)

대변하혈, 학질, 이질등에 씹. 여래가 익으면 방향성이 있고, 정원에 재배도 함

·고욤나무 (군천자-君遷子)

야뇨(夜尿), 지사(止瀉), 토혈, 중풍 동상 등에 쓰인다.

·고추 (번초-蕃椒)

담 결림, 발한, 식욕부진, 조충 구제 등에 씹

·고추나무 (소연교-小連翹)

심장병, 쇠붙이로 인한 상처, 뼈가 부러졌을 때 전초를 찢어 붙임

·곡정초 (穀精草)

눈병, 목구멍의 후비(喉痺)를 치료함

·골담초 (骨膽草)

풍습, 신경통 등에 씹. 정원에 많이 심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보기 드물게 됨

·골무꽃

폐염, 해열, 위장병, 해수에 전초를 씹

·골풀 (등심초-燈心草)

이뇨, 임질, 지혈, 수종을 다스림

·관중 (貫衆. 면마-綿馬)
구충, 자궁출혈, 해열, 두통에 쓴다.

·광나무 (여정실-女貞實)
잎은 여러 가지 부스럼, 열매는 강장약으로 쓴다.

·파리 (산장-酸漿)
열매를 이뇨, 설파제, 통풍약으로 쓰고, 뿌리는 해수, 해열, 이뇨제로 쓴다.

·팽이밥풀 (초장초-酢漿草)
피부병, 소화, 해독, 벌레의 독을 제거하는데 쓰임

·꼭두선이 (천조-茜草)
황달, 지혈, 토혈, 뇨혈(尿血), 해열, 통경, 강장, 풍습 등에 쓰고 또 염료(染料)로도 쓴다.

·꽃다지 (정력-葶藶)
기관지염, 천식, 변비 등에 씨를 쓴다.

·꽃무릇 (상사화-相思花)
벌레물린데, 화상 등에 응용함. 용천사에 많이자생. 위기식물.

·구기자 (枸杞子. 새꼬치)
열매는 강장, 건위, 당뇨, 폐결핵,

간장약으로쓰고 가지와 뿌리껍질(지골피-地骨皮)은 해열, 청량제로 쓴다.

·구릿대 (백지-白芷)
감기, 두통, 치통, 부인혈증, 태아 분만 촉진에 쓴다. 재배를 많이 한다.

·구슬봉이
건위, 종양, 식은땀, 회충, 습진을 다스린다.

·구약나물 (구약-蒟蒻, 곤약)
종기, 장내 배설작용 촉진 등에 씀

·구절초 (九折草)
건위, 보약(補益), 정혈, 보혈, 신경통에 쓰임

·궁궁이 (천궁-川芎)
순혈(順血), 청혈(淸血), 강장, 진정제로 씀. 재배를 많이 한다.

·꿀풀 (서주하고초-徐州夏枯草)
건위, 자궁병 등에 씀

·평의 다리
뿌리를 달여 배앓이에 쓰고, 뿌리 분말은 상처에 바른다

·귤사진 (진피-陳皮. 청피-靑皮)

잘 익은 귤의 껍질 : 진피. 덜익은 껍질 : 청피. 건위, 발한, 감기에 쓴다.

·긴병풀꽃

(연전초-連錢草. 속칭 적설초)
전초를 소아의 경풍, 해열, 진해, 지혈, 이수(利水)에 쓴다.

·나도닭의장덩굴 (즙채-葢菜)

잎과 뿌리를 치질, 임질, 부스럼, 매독, 요도염, 음위 등에 쓴다.

·냉이 (제채-薺菜)

전초를 이뇨, 해열, 지혈에 응용한다. 안질의特效약.

·나팔꽃 (견우자-牽牛子. 흑축-黑丑)

씨를 설사, 이뇨, 수종, 각기병 치료에 응용한다.

·노간주나무 (두송실-杜松實)

열매를 이뇨, 거담제로 쓴다. 건위, 고혈압의特效약

·노란하늘타리

(왕과-王瓜. 토과-土瓜)
이뇨, 거담, 수렴제

·노루발풀 (녹제초-祿制草)

이뇨, 방부, 각기, 충독 제거에 전초를 쓴다.

·녹두 (綠豆)

씨를 두창, 부종, 부종 제독에 응용한다.

·늦젓가락풀(초오-草烏)

신경통, 류마티스에 쓴다.

·누리장나무 (상산-常山)

건위, 종기, 피부병에 쓴다.

·눈개승마 죽토자-竹土子)

씨를 정력, 해독, 지혈, 편도선염에 쓴다.

·느릅나무 (유백피-乳白皮)

가지나 뿌리 껍질을 이수, 거담, 소종(消腫), 새살 차는데 쓴다.

·느티나무 (괴목-槐木)

껍질을 강장, 안태(安胎), 부종, 이수에 쓴다.

·다닥냉이

해수, 두풍(頭風), 이뇨, 대머리에 쓴다.

- 다래나무 (후도-後圖)
덩굴 즙액을 신장병에 복용한다.
특효다.
- 다름나무
고혈압, 지혈, 자궁출혈, 충력 등에
꽃을 응용한다.
- 닥나무 (저실자-楮實子)
열매와 잎을 양기, 피로회복, 명목
(名目) 등에 쓴다.
- 단삼 (丹蔘)
뿌리를 자궁출혈, 월결불순, 관절염,
청혈제로 쓴다.
- 당풍취
건위에 효과가 있다.
- 달래 (산-蒜)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고혈
압, 강정 강장제로 쓰임.
많이 재배함.
- 담배 (연초-煙草)
피부약, 풍한(風寒), 체기정담(滯氣
情談)에 씀
- 당근 (當根)
빈혈, 이뇨, 신장염, 담 제거에 씀.
- 닭의장풀 (압척초-鴨跖草)
종기, 이뇨, 강심(強心)에 응용함.
- 담배풀 (천명정-天名精)
조충구제용(條虫驅除用)
- 당단풍 (唐丹楓)
수액(樹液)을 하리(下痢)에 쓴다.
- 딱지꽃 (위능채-委陵菜)
지혈, 보익, 통경, 해열제로 뿌리를
쓴다.
- 딱총나무
골절, 신경통, 해열, 이뇨, 폐염 등을
치료하는데 쓴다.
- 땅콩 (낙화생-落花生)
건위, 강정제로 쓴인다.
- 대극 (大戟, 속명 버들옷)
행혈(行血), 발한(發汗), 배앓이, 하설
제(下泄劑)로 쓴다.
- 대싸리 (지부자-地膚子, 속명 비싸리)
소변불편, 음경, 대하 등의 특효약
- 대왕풀 (백급-白芨)
비늘 줄기를 부스럼, 지혈, 보폐
(補弊), 간질환 등에 응용함.

- 대추 (대조-大棗)
완화제, 해열, 목구멍 질환, 요통 등에 쓴다.
- 대황 (대황-大黃)
변비 소화불량(극소량 복용), 타박상에 뿌리를 응용함.
- 댕댕이덩굴 (목방기-木防己)
이뇨의 특효약
- 매짚래 (매괴화-玫瑰花. 일명 해당화)
수렴, 교미(嬌媚), 지형, 피를 맑게 하는데 꽃, 열매를 응용함.
- 더덕 (사삼-沙蔘)
뿌리를 식용도 하고 거담, 건위, 강장, 폐열제거, 산기(疝氣)에 쓴다. 재배를 많이 한다.
- 떡갈나무(해두-檉斗)
잎과 껍질을 강장, 수렴, 해동제로 응용함.
- 떡쑥 (서국초-鼠麴草)
진해, 거담약으로 응용함
- 도꼬로마
어독(魚毒), 매독, 창산, 짓뎀이, 토혈에 잎을 응용함.
- 도꼬마리 (창이자-蒼耳子)
발한, 해열, 고혈압 치료제로 전초를 쓴다.
- 도라지 (길경-桔梗)
진해, 거담, 젖을 많이 나게 함. 배농(排膿), 인후병에 응용함. 재배를 많이 한다.
- 독말풀 (만타라화-蔓陀羅華)
천식, 경련성의 해수, 신경통, 매독, 암종에 응용함.
- 돌가시나무
복통, 하리(下痢), 누뇨(淚尿), 음위(陰痿), 관절염, 강장, 치통, 종창에 응용함.
- 돌감나무
야뇨, 토혈, 지사제, 증풍, 동상에 씬.
- 돌나물
(전채-錢菜. 석채-石菜. 일명 돈노물)
잎은 종양의 고름을 빼는데, 삶은 물은 치질을 치료하는데 쓴다. 최근에 간경화 증을 다스리는 요약으로 판됨.
- 돌배나무 (산이-山梨)
토사, 해열제로 씬

- 두릅나무 (송목-松木)
해열, 강장, 거담, 당뇨 치료제로 씀.
일부 재배를 함
- 두충 (杜冲)
관절의 동통(疼痛), 척추의 여러 병,
견골제로 씀. 재배를 많이 하고 있음.
- 등굴레 (편황정-片黃精. 일명 괴불꽃)
폐염, 부스럼, 강심, 강장, 당뇨, 풍습
(風濕)에 씀.
- 뚝갈
안질, 화상, 단독, 머짐 등을 치료
하는데 전초를 씀.
- 들깨 (백소-白蘇. 임자-荏子)
고혈압, 산후회복, 담제거 등에 씀.
- 들현호색 (현호색-玄胡索)
진경, 진통, 월경조절 치료에 씀.
- 등 (藤. 참등. 등나무)
줄기의 혹을 암에 응용함.
- 등골나물 (산란-山蘭)
황달, 보익, 고혈압, 토혈, 폐염, 산후
배앓이, 중풍, 당뇨 등을 치료함.
- 띠 (백모근-白茅根)
주독, 이뇨, 지혈, 발한, 상처 등에
쓰는데 특히 임질에 특효가 있다.
- 마 (산약-山藥)
자양강장제, 동상, 화상, 젖앓이에
생즙을 씀.
- 마가목 (마아목-馬牙木)
보혈, 중풍, 구충제로 활용함.
- 마늘 (호-葫. 대산-大蒜)
치핵(痔核), 축농증, 과란, 후두염,
이질, 더위 먹은데 응용함.
- 마디풀 (편축-篇蓄)
황달, 광란, 어린이 회충 구제에
전초를 씀.
- 마름(능실-菱實)
덩이 뿌리와 열매를 자궁혈종, 월경
폐지, 위암예방에 씀.
- 마삭나무 (낙석-絡石)
하리, 안태, 진통, 거풍(去風), 각기
병, 종기, 강장제로 씀.
- 마타리 (패장-敗漿)
안질, 화상, 단독, 종기와 부스럼,
머짐에 씀.

·만병초 (萬病草)

내장약, 해열, 최음, 신장 질환의 묘약으로 알려움. 불갑산에 10여 그루가 자생하였으나, 1992년 무지한 채약꾼에 의해, 모두 뿌리까지 뽑혔으며 새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만삼(蔓蓼. 더덕)

뿌리를 부인병, 임질, 폐로(肺癆), 태산불알 치료에 씀.

·말냉이 (퇴람채-退藍菜)

중풍, 이뇨, 늑막염, 신경통에 씨를 응용함.

·말오줌나무 (접골목-接骨木)

타박상, 발한, 무좀 등에 응용함.

·맑은대쭉 (인호-茵蒿. 개제비쭉)

해열에 달여 마심.

·매화 (백매-白梅. 오매-烏梅)

지혈, 소화, 담과 가래, 곱관 등을 다스리는데 씀

·맥문동 (麥門冬. 속명 겨우살이)

덩이 뿌리를 완화, 청양(淸養), 거담, 강정제로 씀

·맨드라미 (계관화-鷄冠花.

청상자-靑箱子)

하리, 눈병약, 지혈, 해열, 음, 버짐 등에 응용함. 복용시 가물치, 돼지고기를 금함.

·머위 (관동화-款冬花)

토혈, 지혈, 간염, 황달에 씀. 폐병의 특효약

·멀구슬나무 (고련피자-苦楝皮子)

겉질 열매를 구충, 피부병 씻기, 동상, 화상 등에 응용함. 함평에 많이 자생함.

·멍석말기 (홍매소-紅梅消)

강장, 설사를 멈추게 함. 안태, 명안(明眼)에 씀.

·메밀 (교맥-蕎麥)

오래된 체증, 편두통, 설사 멈춤, 종기, 대하증, 임질 등에 응용함.

·멧꽃 (선화-旋花)

천식, 중풍, 이뇨, 익기(益氣), 종기 등에 응용함.

·멧대추 (산조인-酸棗仁)

간, 심장병, 허한, 신경예민증, 불면증에 씀.

- 며누리배꼽 (자리두-刺利頭)
고기 먹고 체한데, 피부병 치료에 전초를 씀.
- 명아주 (여-黎)
중독, 버짐, 백진풍(白癩風) 치료제.
- 맷두릅 (독활-獨活. 일명 땃두릅)
두통, 현기증, 습, 버짐 등에 쓴다. 많이 재배 한다.
- 모과 (목과-木瓜)
곽란, 더위 먹은데, 각기, 진통, 감기에 쓴다.
- 모란 (목단피-牡丹皮)
월경불순, 치질, 진정제, 통경제로 응용함, 제배를 많이 하고 있다.
- 모시풀 (행엽채-杏葉菜. 저마-苧麻)
뿌리를 해독약으로 달여 마심.
- 목련 (신이-辛夷)
꽃은 두통, 창독, 축농증 치료제로 쓰고 껍질은 요통, 골통(骨痛), 폐결핵에 씀.
- 뿔미나리
해열, 구풍(驅風), 중풍 등에 쓴다.
- 무궁화 (목근-木槿, 순화-舜花)
장출혈, 장티푸스, 이질 치료에 응용함.
- 무릇 (면조아-綿棗兒)
벌레 물린데 응용한다.
- 무 (대근-大根. 나부-蘿??)
숙취, 화상, 중이염, 신장염 치료에 씀.
- 무화과 (無花果)
자양강정, 건위, 즙액은 치질 치료에 씀.
- 물개암나무
보약, 강장제로 씀.
- 물봉선 (휘채화-輝菜花)
가슴앓이, 타박상, 독사에 물렸을 때, 난산에 응용함.
- 물푸레나무 (수창목-水蒼木).
진피-秦皮)
해열, 소염성 수렴약으로 씀.
- 미꾸리납시 (여귀때)
식육부진, 통경, 고기에 체했을 때 씀.

·미나리 (근-芹)

주독, 폐염, 황달, 해열, 고혈압, 전신이 부었을 때, 신경통에 응용한다.

·미나리아재비 (모낭-毛茛. 자래초)

종기와 부스럼을 다스림. 유독성풀이다.

·미역취 (일지황화-一枝黃花)

해수, 이뇨, 부종에 씀. 재배하면 수익성이 높다.

·민들레 (포공영-蒲公英)

건위, 이뇨, 최유(催乳), 중독, 해열, 발한, 위암, 강장제로 쓴다. 함평군에는 재배하는 곳은 없다.

·민족도리풀 (조리풀. 세신-細辛)

해수, 입이 비뚤어진 증세, 두통 등에 씀.

·밀 (소맥-小麥. 부소맥-浮小麥)

밀은 번열(煩熱), 조갈(燥渴)에 쓰고 물에 뜨는 부소맥은, 허한을 다스리는데 씀.

·바디나물 (전호-前胡)

해열, 진통, 해수, 담 제거에 응용함,

·바위손 (권백-卷柏. 부처손)

파혈, 통경, 장풍(腸風), 탈항(脫肛)을 다스리는데 씀.

·바위솔 (와송-瓦松. 지부지기. 지붕지기)

독충에 물렸거나 쏘였을 때, 화상에 응용함.

·바위취 (호이초-虎耳草)

여러 부수림, 동상에 씀.

·박 (포로-匏蘆)

번갈, 심열, 부종, 담석을 제거하는데 응용함.

·박주가리 (라마-蘿摩)

강정약으로 씀.

·반하 (半夏. 깨무릇)

거담, 구토, 멀미약의 주원료로 쓰인다. 극성 약초임. 함평산이 반하 중 최우수품임.

·빔나무 (울-栗)

건위, 하혈, 종기의 독, 신장강화, 수렴제로 씀.

·방가지똥 (고채-苦菜)

종창, 대하증 치료에 씀.

- 방동산이
임질, 이뇨, 지혈 등에 씀.
- 방애잎 (배초향-排草香. 중개풀)
감기, 종기, 괘란, 구토, 풍습 치료에
응용함.
- 배풍등 (백영-白英)
신경통, 태산불알 통증, 부종, 해열제
로 쓴다.
- 백년초 (백년초-百年草. 선인장)
선인장의 종류는 세계에 3,600 여종
이 있다. 백일해, 늑막염, 각기, 수종,
위병, 당뇨 등에 쓴다.
- 백미꽃 (백미-白薇. 아마존)
해열, 이뇨제로 씀.
- 백선 (白鮮)
통경, 낙태, 황달, 중풍, 이뇨제로 씀.
- 뱀딸기 (사매-蛇莓)
위염, 상한(傷寒), 해열, 토혈, 당뇨,
통경, 진해, 여러 독을 제거하는데 씀.
- 버드나무 (유목-柳木)
수려, 치통, 이뇨, 지혈, 종기에 응용함.
- 범부채 (사간-射干)
소염, 진해, 편도선염, 진통제로 씀.
- 벚나무 (산앵-山櫻)
열매를 건위, 강장에 쓰며 껍질은
고혈압을 다스리는데 씀.
- 변두통 (백편두-白扁豆. 일명 제비콩)
괘란, 토리(吐利). 술독을 푸는데 씀.
- 별꽃 (번루-蘼蕪)
피임약으로 응용함.
- 병풍나물 (방풍-防風)
풍기를 다스리는 선약 (仙藥)
- 보리 (맥아-麥芽)
보리밥은 각기, 당뇨 치료에 효험이
있고 엿기름은 최생(崔生), 낙태에
쓴다.
- 보리수나무 (우내자-牛奶子)
지혈,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씀.
- 복령 (茯苓)
백, 적복령과 복신이 있다. 수종(붓는
병), 임질, 이뇨, 해열, 건위, 안태
에 씀.
- 복분자딸기(복분자-覆盆子)
청량, 갈증, 자양강장제로 쓴다.

- 복수초 (福壽草)
종창, 진통, 이뇨, 강신제로 응용함.
- 복숭아 (도인-桃仁)
이뇨, 두통, 관란, 진해, 월경불순에 응용함.
- 봉선화 (鳳仙花)
고기류에 의한 식중독, 등창의 증기 치료제, 극성약이다.
- 뽕 (상근백피-桑根白皮)
한방에서는 이수, 진애에 응용하고 민간 요법으로는 여러 병을 다스리는데 쓰이며, 잎이 고혈압 치료의 명약이다.
- 부들꽃 (포황-蒲黃. 일명 줌부들)
지혈, 파열, 이뇨제로 씀.
- 부추 (비-菲. 일명 솔)
잇은 반위(反胃), 토혈, 코피 흘리는 데 쓰고 씨는 음위, 유정(遺精), 유뇨증(遺尿症)을 치료하는데 씀.
- 분꽃 (백분초-白粉草)
절상(折傷), 버짐에 씀.
- 분디나무 (천초-川椒. 일명 조피나무)
해독, 진통, 구충제로 씀.
- 붉나무 (오배자-五倍子)
출혈, 해독, 설사를 하게 하는데 응용함.
- 붉은가시딸기
강장, 지사, 태생(胎生), 명안(明眼)에 쓴다.
- 비름 (야현-野覓)
안질, 종창 치료제를 씀.
- 비자 (櫃子)
구충, 진위, 장출혈에 쓴다.
- 사리풀 (낭탕자-萇宕子. 초우윙)
발광, 신경의 여러병, 나력을 치료하는데 씀. 아주 독성이 강하다.
- 사상자 (蛇床子. 일명 뱀도랏)
음위, 부인음종, 악창(惡瘡), 치통에 씀.
- 사위질빵 (여위-女萎)
천식, 각기, 발한 절상, 풍질(風疾)에 씀.
- 사철나무 (왜사중-倭社仲)
진통, 자궁출혈, 강장, 통경제로 응용함.

- 사철쑥 (茵陳蒿. 일명 애탕쑥)
황달, 해열, 더위풀이, 잇몸 치료에 씀.
- 산검양옷나무 (야칠-野漆)
소염(消炎), 건위, 당뇨, 관절염 치료에 쓴다.
- 산달래 (산산-山蒜)
보혈, 장염, 위암, 불면증에 전초를 달여 복용하고 타박상, 벌레 물린데에 비늘 줄기를 찢어 싸맨다.
- 산딸기나무 (산매-山莓)
강장, 지사, 태생, 명안 등에 씀.
- 산들깨
고혈압, 종기 등에 씀.
- 산박하 (갯잎나물)
건위, 구충제로 씀.
- 산밤나무 (산율-山栗)
건위, 하혈, 독종(毒腫), 신장을 강하게 하는데 응용함.
- 산뽕나무 (산상-山桑)
이뇨, 각기, 폐염, 중풍, 벌레의 독 제거, 감기, 고혈압, 발한 등에 쓰이고 재배하는 뽕보다 약효가 좋다.
- 산부추 (산비-山非)
구충, 이뇨, 강장, 해독, 건위, 풍습, 진통, 강심 등에 전초를 쓴다.
- 산수국 (山水菊)
학질, 해열제로 씀.
- 산수유 (山茱萸)
강장제, 귀가 울리는 증세, 코막힘을 치료함. 극히 일부에서 심고 있다.
- 산앵도 (도이-都李)
이뇨, 통격, 구충, 진통의 효과가 있음.
- 산자고 (山慈姑.
일명 까치무릇. 열레지)
등창, 여러 종기와 부스럼, 폐결핵 치료제로 씀.
- 산초나무 (산초-山椒)
해충구제, 해독, 살충제로 쓰고 있고 기름은 전에 기계독을 치료하는 데 응용하였음.
- 산해박 (백미-白薇)
부종, 해열, 중풍, 익정(益精), 이뇨에 씀.

·살구 (행인-杏仁)

천식, 해수, 신체부종, 개고기 중독에 씀. 씨에 독성이 있음.

·살비아

수렴약, 인후염 등에 씀.

·삼 (마인-麻仁)

씨를 변비, 난산, 공수병, 월경과다에 씀. 자연산은 극히 귀하다.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음양곽-淫羊藿)

이소면(利小便). 근골을 강하게 함. 양기 부족증을 치료하는 명약으로 알려 오고 있음. 함평군에서는 불갑산에만 자생하고 있다.

·삼주 (창출-蒼朮. 백출-白朮)

이수, 해열, 건위 당뇨에 씀.

·상사화 (相思花)

창(滄), 화상 등에 씀.

·상산 (常山)

거담, 해수, 학질, 해열에 씀.

·상수리나무 (역연-櫟掾)

수렴, 강장, 중독에 응용함.

·새머루 (조포자-鳥胞子)

해독, 중독, 보혈, 젓없이, 안질, 폐질 환, 이뇨, 두통 등에 효과가 있음.

·새삼

강장, 수렴약으로 씀.

·새양 (생강-生薑)

구충, 소화, 건위, 기침, 타박상의 어혈을 푸는데 씀.

·생강나무 (단향매-檀香梅)

해열, 강심, 건위제로 씀.

·서향 (서향-瑞香)

종기, 창외 발포약 (發泡藥)으로 응용함. 재배함.

·석곡 (石斛)

보위, 강정, 식은 땀을 멈추게 하는데 씀. 재배하고 있다.

·석장풀

해열, 해수, 폐염, 하혈, 진통, 복통, 정혈, 맹장염, 태독 등에 쓴다.

·석류 (石榴)

촌충구제, 수렴제, 광란 등에 씀.

- 석창포 (石菖蒲)
신경 안정, 부스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명약.
- 선괘이밥풀
피부병, 소화, 해독, 충독(虫毒)을 치료 하는데 씀.
- 선씀바귀
진정, 최면(催眠), 건위에 쓰임.
- 소나무 (송지-松脂. 송엽-松葉)
거담, 강장제로 쓰임.
- 소철 (蘇鐵)
폐질환, 천식, 해수, 소아경기 등을 치료함.
- 소태나무 (고목-苦木)
건위, 구충, 고미(苦味), 살충, 학질 치료
- 속썩은풀 (황금-黃芩)
거담, 이수, 당뇨, 임질, 해열에 씀.
- 숨대 (담죽엽-淡竹葉)
이뇨, 해열, 지혈, 치풍(治風)에 쓴다.
- 송이풀
종기, 피부병에 씀.
- 쇠뜨기 (문형-問荊)
자궁출혈, 하리, 탈항, 임질에 씀
- 쇠무릎 (우슬-牛膝)
뿌리를 골절의 아픔, 임질, 부인 통경에 씀.
- 쇠비름 (마치현-馬齒莧)
임질, 부인냉증, 요통, 습진, 무좀 치료에 씀.
- 수국 (水菊, 수구화-水毬花.
자양화-紫陽花)
해열, 창(瘡)의 특효약.
- 수리딸기 (산매-山莓)
명안, 설사, 강장, 양모(養毛), 음위증에 씀.
- 수박 (서과-西瓜)
이뇨, 건위제로 씀.
- 수선 (水仙)
종기, 짓앓이에 밖에 바름
- 수세미외 (사과-絲瓜)
열매와 액즙을 두창, 건위, 이뇨, 치통, 해소 등에 응용함.
- 수영 (산모-酸模)
통경, 피부병에 씀.

·순채 (蓴菜)

종기, 부스럼에 쓴다. 월야면 순촌 마을에서 다량 생산하였고, 진상품의 하나였음.

·슬패랭이꽃 (석죽-石竹)

이뇨, 안질, 늑막염, 치질, 소염에 쓴다.

·숫명다래나무 (고려표단목-高麗瓢簞木)

이뇨, 해독, 종기, 부종, 지혈, 정혈 감기 등을 치료하는데 씀.

·승엄초 (당귀-當歸. 일명 신감채)

지정, 통경, 청량에 응용함. 재배를 많이 함.

·씀바귀 (고채-苦菜. 속명 씹배나물. 싸랑부리)

전초를 건위제로 씀.

·시무나무

부종, 이뇨, 통경, 안테에 응용함.

·시호 (시호-柴胡)

해열, 오한(惡寒), 조막염(助膜炎), 진통, 해수, 기침에 씀. 재배를 많이 함

·실새삼 (兔絲子)

정한(精寒), 임질, 명목(明目), 거풍(祛風)등에 씀.

·싱아 (일명 승애)

해열, 변비에 씀.

·아그배나무 (당이-棠梨)

열매를 해열제로 쓴다.

·아욱 (동규자-冬葵子)

씨를 이뇨, 급체, 적리(赤痢), 타박상, 임부의 부종을 다스리는데 씀.

·아주까리 (비마자-葶麻子)

설사, 신경통, 류머티스, 피부병, 각기에 응용함. 극히 귀해졌다.

·알로에 (노회-소코트린 알로에)

건위, 강장, 소화약으로 응용함.

·애기똥풀 (백굴채-白屈菜)

황달, 간장병, 위궤양, 종기 등을 치료하는데 씀.

·약쭈 (애엽-艾葉. 일명 사재발쭈. 다복쭈)

지혈, 통경, 광란, 살충, 지칠, 자궁냉증에 응용함.

- 양배추 (감람-甘藍)
당뇨, 위궤양 등에 즙액을 복용함.
- 양파 (옥충-玉葱)
고혈압. 동맥경화에 껍질을 달여
복용하며 신장병에도 응용함.
- 엄나무 (해동피-海桐皮)
진통제로 씀.
- 영경귀 (대계-大薊. 일명 향갈퀴)
지혈의 명약, 이뇨, 해독, 수종에 씀.
- 여뀌 (대료-大蓼)
발포약(發泡藥), 살충제(며루), 독성
이 있으며 씹으면 이가 전부 빠짐.
- 여로 (산로-蒜蘆)
강심, 감기, 중독, 임질, 독사의 독
제거, 광란, 피오줌, 고혈압, 중풍
등에 씀.
- 여우콩
기관지염, 폐염, 천식, 거담제로 씀.
- 연 (하엽-荷葉. 연자육-蓮子肉)
자양강정, 지혈, 해독, 이뇨 등에 씀.
- 영생이 (박하-薄荷)
발한, 구풍(颶風), 건위, 통경약으로 씀.
- 오갈피나무 (오가피-五加皮)
뿌리의 껍질을 강장, 산기(疝氣),
당뇨, 복통에 응용함.
- 오리나무 (赤楊)
강장제로 씀.
- 오미자 (五味子)
열매를 강장, 자양, 거담, 보음(補陰)
에 씀.
- 오수유 (吳茱萸)
간 계통 질환, 복통, 구역, 설사, 치질
등에 응용함.
- 오얏 (도이인-都李仁)
수종, 장염 등에 응용함
- 오이풀 (지유-地榆)
토혈, 하혈, 이질, 월경과다, 절상,
타박상에 쓴다.
- 옥수수 (옥촉서-玉蜀黍. 강냉이)
수염을 신장질환, 부종성 질환을
다스리는데 씀.
- 올피불나무
해열, 해독, 이뇨, 지혈, 증기에 씀.
- 올방개 (발제-??臍. 올메. 올리장매)

황달, 당뇨, 명목(明目)에 응용함.

·웃나무 (건칠-乾漆)

가지의 액즙을 통경회충, 구제, 후비(喉痺)에 씀.

·왕대 (고죽-苦竹)

구토, 술의 독, 각혈, 발한, 중풍 등에 응용함.

·왕머루

식욕부진, 금창(金瘡), 종창, 허약증에 씀.

·왕버들

이노, 종기, 황달, 해열, 지혈제로 씀.

·용담 (龍膽)

거위, 소화불양, 이담(利膽)에 쓴다.

·용등굴레

폐염, 강심, 강장, 풍습, 당뇨에 씀.

·우영 (우방근-牛蒡根, 악실-惡實)

이노, 각기병, 강정, 두드러기, 해열 등에 응용함.

·원지 (遠志)

강장, 거담, 이노제로 씀

·울무 (의이인-薏苡仁)

이노, 진해, 건위, 진정, 폐병 등에 쓰임.

·으름덩굴 (목통-木通)

이노, 소염제로 쓰임.

·은방울꽃 (영란-鈴蘭)

강심, 이노제로 쓰임.

·은행 (백과-白果)

열매는 해독, 진해, 거담 등에 쓰이고 잎은 살충, 고혈압 등 많은 약의 원료로 쓰임. 함평산 은행잎이 약효는 물론 성분에서 우월하다.

·이질풀 (방우아-牻牛兒)

이질의 명약. 출혈증, 방광염, 지사제로 쓰임.

·익모초 (益母草, 암눈바앗)

잎과 줄기는 식욕부진에 쓰고 씨는 산후 지혈, 해독, 건위제로 씀.

·인동 (금은화-金銀花)

각종 종기 및 부스럼에 쓴다.

·인삼 (人蔘)

더위먹이, 기력쇠약, 강정강장에 많

- 이 씹. 함평에도 재배지가 늘고 있다.
- 잇꽃 (홍화-紅花)
종기, 토혈, 편도선염 등에 씹. 관상용으로 재배함.
 - 자귀나무 (합환피-合歡皮)
진해, 진통, 골절의 접골, 새 살이 차오르게 하는데 씹.
 - 자래나무 (수서리-藪鼠李)
오한, 부종, 하혈, 부스럼, 버짐 등에 활용함.
 - 자리공 (상륙-商陸. 물나무)
몸이 부는데, 신경통, 신장병에 응용함. 약간의 독성이 있음.
 - 자원 (紫苑. 개미취)
해수를 치료하는데 씹.
 - 자주쓴풀 (당약-當藥. 천진-千振)
거위, 태산불알 통증, 태독(胎毒), 이질등에 씹.
 - 작약 (적, 백작약-赤, 白芍藥)
복통, 치질, 진경, 진통, 통경제로 응용함. 사작약도 있으나 주로 재배함.
 - 잔대
한열(寒熱)에 응용함.
 - 잣나무 (백-柏)
자양강장, 굽주림을 이김, 암 등에 응용.
 - 장구채풀 (왕불유행-王不留行)
해열, 악화된 부스럼, 꺾병, 임질, 이질, 정혈, 지혈, 젖이 나오게 하는데 씹.
 - 절구대 (누로-漏蘆. 둥둥방망이. 개수리취)
해독, 통경, 하유(下乳), 지혈, 생살 뜯는데, 살충, 뇨혈(尿血) 등에 씹.
 - 절국대 (음행송-陰行松)
황달, 배농(排膿), 간염, 월경조정, 임질, 폐염, 치혈, 고혈압 등에 씹.
 - 접골목 (接骨木. 일명 말오줌나무, 자반나물)
발한, 타박상, 무좀 치료에 씹
 - 접시꽃 (촉규화-蜀葵花)
산기(疝氣). 임질, 이질에 뿌리를 쓰고 적백대하증에 꽃을 응용함.

- 정가 (형개-荊芥)
풍병, 부스럼, 산전 산후약으로 씀.
- 정금나무
수렴제, 신우염, 이뇨, 구토, 건위, 하리, 발진, 방광염에 씀.
- 제비꽃 (자화지-紫花地)
태독, 해독, 부인병, 정혈, 발한, 설사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제비쑥 (모호-牡蒿)
건위제로 쓴다.
- 조팝나무 (유모공영-柳浦公英)
거담, 이뇨, 건위제로 씀.
- 족도리풀 (세신-細辛)
해수, 여러 가지 풍, 두통, 발한, 귀가 울릴 때 씀.
- 졸참나무 (포유-抱樞. 일명 떡줄 참나무)
수렴, 강장, 종기 치료에 씀.
- 좁피나무 (진초-秦椒)
이뇨, 복통, 황달, 뱀의 독, 중풍을 다스리는데 씀.
- 주엽나무 (흡협-皂莢)
나력, 버짐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쥐꼬리망초 (진봉-秦苳)
치질, 폐결핵, 진통, 진정, 풍습에 씀.
- 쥐다래 (목천료-木天蓼)
산기(疝氣), 요통, 이뇨제로 씀.
- 쥐똥나무 (동청-冬靑)
건위, 강장, 나무 생김새가 여정실(女貞實)과 같으며 약효 또한 거의 같다.
- 쥐방울 (마두령-馬兜鈴)
거담, 폐의 여러 가지 질환을 다스림
- 쥐오줌풀 (길초근-吉草根. 은땡가리)
진정제로 씀.
- 지기다리스
강심, 이뇨제로 씀. 꽃을 보기 위해 정원에 심고 있음.
- 지모 (知母)
해열제로 쓴다. 재배함.
- 지치 (자초-紫草)
질상, 화상, 피부병의 요약.

·지칭개 (야고마-野苦麻, 니호채-泥胡菜)
건위, 보익, 이뇨제로 씀.

·지황 (地黃)
보혈, 강장, 통경, 수렴제로 씀

·진달래 (백척축-白躑躅)
살충, 진통, 신경통 치료에 씀.

·진득찰 (희렴-??蕈)
풍습, 중풍, 중기, 피를 맑게 하는데 씀.

·진황정 (황정-黃精, 일명 대잎
등글레)
자양강장, 해열, 병후허약, 구황
(救荒)등에 씀

·질경이 (차전자-車前子)
지혈, 구충, 하리(下痢)에 씀

·찔레나무 (영실-營實)
설사, 이수(利水), 관절염, 복통, 강장
제로 씀.

·차나무 (다-茶)
이뇨, 부종, 강심, 장(腸)을 튼튼히
하는데 씀

·차조기 (소엽-蘇葉, 자소-紫蘇)
발한, 해열, 진해, 이뇨, 어패류 중독,
거담제로 씀.

·차풀 (산편두-山扁豆)
잇과 씨를 위약증, 각기, 수종, 소화
불량 치료에 씀.

·참나무 (토골피-土骨皮)
태산불알, 이질, 수렴제로 씀

·참개암나무
보익, 강장제로 씀.

·참깨 (호마-胡麻)
강장, 점골(粘骨), 해독제로 씀.

·참나리 (백합-百合)
자양강장, 진해제로 씀.

·참나물 (자근-紫芹)
지혈, 양정(陽精), 해열, 중풍, 폐염,
신경통에 씀.

·참두릅나무
해열, 강장, 거담, 당뇨 치료에 씀.

·참소리쟁이 (양제-羊蹄)
버짐, 종기의 상처, 설사를 하게 하는
데 씀.

·참억새
지갈, 이뇨제로 씀.

·참외 (과채-瓜菜)

꼭지를 황달, 부종, 담에 응용함.
극성약이다.

·참으아리 (위령선-葳靈仙)

무릎 허리의 통증, 처식, 약종, 각기
병에 쓴다.

·참죽나무 (춘근피-椿根皮. 일명
쭈나무)

뿌리의 껍질을 출혈 및 하리에 쓴다.

·창포 (菖蒲)

신경 안정, 부스럼 등에 씬. 단오절에
부녀들이 창포 끓인 물에 머리를
감음.

·천남성 (天南星)

해수, 거담, 파상풍, 구토, 발한, 건위
제로 씬. 독성이 강함.

·청갈참나무

강장, 수렴, 종기의 독을 제거하는
데 씬.

·청미래덩굴 (토복령-土茯苓)

산귀래-山歸來. 일명 명감덩굴)
뿌리를 류마티즘, 이얹이, 설사 등을
치료하는데 씬.

·초결명 (결명자-決明子)

간장질환, 류마티즘, 천식, 눈병약
으로 쓴다.

·측백나무 (백자인-柏子仁)

자양강정, 진해, 거담, 피의 질환에
응용함.

·층층이꽃

치통, 위장염, 중풍, 신장염에 씬.

·치자나무 (치자-梔子)

혈증(血症), 해열, 황달, 임질, 화상,
불면증에 씬.

·취 (갈근-葛根)

해열, 발한, 강장, 해독, 완화제로 씬.

·침향 (沈香)

곽란, 심복통, 적취(積聚) 등에 쓰임.
손불면 산남리 진흙층에서 나옴.

·큰괭이밥풀

피부병, 소화, 해독, 독충의 독 제거
에 씬.

·큰조롱 (하수오-何首烏. 일명
새박풀)

자양강장, 골연풍(骨軟風)에 씬.

- 키버들나무 (행이류-行李柳)
수렴, 치통, 이뇨, 지혈, 증기에 응용함.
- 탑꽃
치통, 위장염, 중풍, 신장염 등에 씀.
- 택사 (澤瀉)
소갈, 구토, 각기, 뇨혈(尿血)등에 씀.
재배함.
- 탱자나무 (지실-枳實. 지각-枳殼)
거담, 이뇨, 발한, 소화약으로 씀.
- 털단풍나무 (모단풍-毛丹楓)
수액을 하리에 씀.
- 털제비꽃
해독, 태독, 중풍, 강간(強肝), 보약
제로 씀.
- 토란 (토란-土卵)
동상, 폐염, 소화, 보폐(補弊)에 씀.
재배함.
- 토목향 (土木香. 일명 황화채)
뿌리를 건위, 방부제, 구충제로 응용.
재배함.
- 투구꽃
강심, 이뇨, 관절염, 신경통, 중풍
에 씀. 독성이 있음.
- 과 (충-窓)
세계에 30여종이 있다. 적백리, 유행
성감기, 태동(胎動), 각기, 절상, 요혈
(尿血)등에 쓰며, 과의 껍질은 저혈압
의 명약으로 전해옴.
- 과초 (芭蕉)
각기병, 수종, 해열, 이뇨, 황달에 씀.
- 팔배나무 (두이-豆梨)
해열, 객란, 토사, 버짐에 씀.
- 패랭이꽃 (구맥자-瞿麥子.
석죽-石竹)
씨를 수종, 임질, 통경약으로 씀.
- 팽나무 (박수-朴樹)
대하증, 불면증, 부종, 결핵, 이뇨,
화상에 응용함.
- 패모 (패모-貝母)
거담, 허로, 해수, 토설, 폐위(肺痿),
후비 등에 씀. 재배함.
- 편백 (扁柏)
화상, 객란, 간질, 동상에 씀.
- 평지 (운대-蕓臺. 유채-油菜)
산후병을 다스림. 재배함.

·포도 (葡萄)

하복충혈증(下服充血症), 간장질환,
암 예방제로 씀.

·풀숨나물 (천청지백-天靑地白)

건위, 지혈, 이질, 거담에 응용함.

·피나무 (모피목-毛皮木)

이뇨, 진경(鎮痙), 발한제로 씀.

·피막이풀

지혈, 해독, 구토에 씀.

·하고초 (夏枯草. 속명 제비꽃)

줄기와 잎을 나력, 자궁병, 월경불순,
눈병 치료에 씀.

·하국 (선복화-旋覆花. 금불초-金佛
草. 들국화. 옷풀)

건위, 거담, 치질 등에 씀.

·하늘말나리

종기, 동통(疼痛), 토혈, 유방염, 백일
해, 폐염, 신경쇠약, 각혈에 씀.

·하늘타리 (괄루-括藋)

거담, 진정, 황달, 당뇨, 변비, 강장,
땀띠 제거에 씀.

·할미꽃(백두옹-白頭翁)

지혈, 월경폐지, 열성하리(熱性下痢),
치질에 씀.

·향나무 (회-檜)

이뇨, 통경, 살충에 응용함.

·향유 (香薷)

발한, 이뇨, 수종에 씀.

·헛개나무

과실을 달여 복용하면 주독이
풀린다.

·현삼 (玄蔘)

종기, 나력, 폐결핵, 인후병에 씀.

·현호색 (玄胡索. 연호색-延胡索)

어혈을 푸는 요약, 자궁의 여러 병
에 씀. 재배함.

·협죽도 (夾竹挑)

잎, 나무 껍질을 강심약으로 응용함.
독성이 있다.

·호도 (胡桃)

자양강장, 천식, 심복통에 씀.

·호라지쫇 (천문동-天門冬)

거담, 이뇨, 강장, 각혈 등에 씀.
군유산, 모악산에 많이 자생함.

- 호박 (남과-南瓜)
구충, 통기(通氣), 강정, 천식, 이뇨제로 씀.
- 호장근 (虎杖根. 일명 감제풀)
통월수(通月水), 지갈(止渴), 해열 등에 씀.
- 홍피불나무
해열, 해독, 이뇨, 지혈, 종기 다스리는데 씀.
- 화살나무 (귀전-鬼剪)
최유, 복통, 자궁출혈 등 부인병에 씀.
- 환삼덩굴 (울초-葎草. 일명 범상덩굴)
위암 등 위질환의 명약
- 황경피나무 (황백-黃柏)
속 껍질을 건위, 강장, 소염약으로 씀.
- 황촉규 (黃蜀葵. 일명 닥풀)
내장의 염증, 약 제조의 부형약(賦形藥)으로 씀.
- 황기 (황기-黃耆. 일명 단너삼)
강장, 부스럼, 폐결핵 등에 쓰임.
- 회회산 (回回蒜. 일명 젓가락 나물)
즙액을 발로약으로 씀. 독성이 있다.
- 회향 (茴香)
홍분, 구풍약(颶風藥)으로 씀. 재배함.
- 회화나무(괴각자-槐角子)
지혈, 치질, 이질, 혈압 강하제로 씀.
- 후박나무 (厚朴)
위한(胃寒), 구토, 곽란, 복통, 설사 등에 씀.
- 흰독말풀
천식, 신경통, 매독, 암종 등에 씀. 독이 아주 강하다.
- 흰제비꽃
해독, 태독, 중풍, 설사, 강간제(強肝劑)로 씀.

제 2 장 인 문 지 리

제 1절 연기군 남면의 인구

1. 인 구

인구는 일정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통계적 수치를, 인구조사에 의하여 집계 한 것으로, 이것은 실제 거주자를 집계 한 것이고, 행정적 수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것만을 이야기한다.

2003년 5월 말 현재 연기군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는 82,038명으로 조치원읍이 34,375명, 동면은 5,036명, 서면은 8,163명, 남면은 8,166명, 금남면은 10,594명, 전의면은 7,707명, 전동면은 4,519명, 소정면은 3,478명이다.

이는 국회의원을 단독으로 뽑을 수 있는 9만 인구에 못 미쳐, 136천명의 인구를 가진 이웃 공주와 병합하여 국회의원 선출을 하였다. 결과는 공주 측에서 당선되어 줄곧 낙선이 되면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10만 연기군민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이제는 8만 연기군민이라 부를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그렇지, 실제 연기군의 인구는 10만이 넘고 있다. 이는 서울과의 거리가 짧아 통학하는 학생들(고대·홍대)과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그리고 상인들을 합하면 10만이 훨씬 넘는다.

남면은 연기군에서 조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이는 연기군의 중심지역이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 비하여 넓은 지역이기에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남면지역의 인구 특징은 다른 지역보다 이동 인구가 적은 것이다. 이곳 지역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착생활을 하여왔고, 그러기에 신행정수도가 이곳으로 선정되었을 때 심한 반대를 하는 이가 많았다.

제2절 인구조사의 역사

인구조사의 역사는 중국 주(周)나라 때 이미 호적이 시행되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현종 18년(730년)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새로 조사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바빌론에서도 B.C 2000~3000년경에 이러한 조사가 행하여졌고, 이집트에서도 피라밋 건설을 위한 조사가 인구·토지·가구별 재산 등에 대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 조사가 있었음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서원경(西原京-청주 부근)의 4개 촌락에 관한 호구장적(戶口帳籍)이 발견됨으로써, 당시의 조사내용이 구수(口數)의 등급별, 그리고 연령별·재산보유 등급별로 상세히 행해졌으며, 3년마다 그 변동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국역(國役)의 복무와 공부(貢賦)의 부담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갔으며, 조선왕조시대에 들어와서도 거의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하여, 태종·세조를 거쳐 성종에 이르러 정비되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자료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日省錄)』 또는 『호구총수(戶口總數)』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나, 장정 수만을 조사한 것이거나, 호적대장을 기초로 하여 집계 한 것이므로, 인구 센서스에 의한 통계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국제조사를 통한 인구조사는 1925년에 시행되어, 그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었으며, 해방 후 1949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다. 인구조사는 1955년 이후 오늘날까지 5년에 한번씩 실시되어 오고 있다.

연기군 남면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1454년에 쓰여진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연기현(燕岐縣)의 호수는 348호, 인구는 1446명이다. 군정은 시위군(侍衛軍)이 8명, 진군(鎭軍)이 10명, 선군(船軍)이 156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14년 행정개편 때 연기현과 전의현을 병합하는데, 인구가 적은 전의현의 앞글자가 앞으로 나와 전기현(全岐縣)이라 이름지은 일이다. 이는

1414년 당시 전의현의 인구가 많았던지 아니면 인맥의 지명도가 연기현보다 높았던지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에 의해 취해진 조치 같다.

조선왕조 후반기인 영조 35년(1759년)의 기묘장적(己卯帳籍)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여지도서』에 의하면, 연기현의 호수는 2,587호이고 남자는 4,926명, 여자는 5,121명이며 합계가 10,04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당 장정수는 약 3,880명인 셈이다. 따라서 호당 인구수를 대략 5명으로 잡아도 약 12,935명을 18세기 당시의 연기현 인구통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 나온 연기현의 각 면별 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면 | 마을명 | 편호 | 남 | 여 |
|--------------|------------|-----|-----|-----|
| 동일면 (東一面) | 용산리(龍山里) | 49 | 94 | 104 |
| | 전암리(傳巖里) | 26 | 50 | 54 |
| | 합강리(合江里) | 55 | 108 | 87 |
| | 용당리(龍塘里) | 18 | 35 | 42 |
| | 대산리(台山里) | 35 | 61 | 44 |
| | 명학리(鳴鶴里) | 24 | 41 | 56 |
| | 부동리(釜洞里) | 107 | 212 | 197 |
| | 갈산리(葛山里) | 68 | 160 | 93 |
| | 백정촌(白丁村) | 6 | 6 | 4 |
| | 신원리(新院里) | 5 | 12 | 11 |
| 동이면 (東二面) | 문주리(問舟里) | 65 | 125 | 128 |
| | 판교리(板橋里) | 133 | 309 | 299 |
| | 상송동리(上松洞里) | 33 | 45 | 71 |
| | 내송동리(內松洞里) | 40 | 70 | 79 |
| | 외송동리(外松洞里) | 50 | 95 | 76 |
| | 산직촌리(山直村里) | 7 | 15 | 9 |
| | 장산리(장山里) | 11 | 13 | 27 |
| | 산소동리(山所洞里) | 6 | 9 | 10 |
| | 양인동리(養仁洞里) | 52 | 75 | 83 |
| 남면 (南面) | 눌왕리(訥旺里) | 42 | 108 | 60 |
| | 송정리(松亭里) | 28 | 35 | 49 |
| | 청룡리(靑龍里) | 16 | 30 | 45 |
| | 만수동리(萬壽洞里) | 36 | 54 | 94 |
| | 백정촌리(白丁村里) | 4 | 6 | 4 |
| | 수산리(秀山里) | 12 | 18 | 22 |
| | 석현리(石峴里) | 11 | 14 | 21 |
| | 국사동리(國士洞里) | 10 | 14 | 34 |
| 운주동리(雲注洞里) | 7 | 17 | 17 | |

| 면 | 구분 | 마을명 | 편호 | 남 | 여 |
|------------|--------------|------------|----------|-----|-----|
| 남면 (南面) | | 두목리(杜牧里) | 6 | 13 | 18 |
| | | 중리(中里) | 10 | 18 | 21 |
| | | 소학동리(巢鶴洞里) | 28 | 50 | 36 |
| | | 방축동리(防築洞里) | 8 | 12 | 10 |
| | | 덕동리(德洞里) | 11 | 14 | 12 |
| | | 분둔리(分屯里) | 19 | 14 | 30 |
| | | 관대리(?垌里) | 14 | 26 | 32 |
| | | 금사리(金沙里) | 56 | 75 | 79 |
| | | 복룡동리(伏龍洞里) | 15 | 25 | 36 |
| | | 외삼거리(外三岐里) | 28 | 61 | 49 |
| | | 내삼거리(內三岐里) | 42 | 67 | 57 |
| | | 산소동리(山所洞里) | 31 | 23 | 31 |
| | | 개동리(盖洞里) | 22 | 48 | 33 |
| | | 대동리(大洞里) | 21 | 45 | 65 |
| | 북삼면 (北三面) | | 용암리(龍巖里) | 32 | 47 |
| | | 생천리(生泉里) | 18 | 25 | 23 |
| | | 쌍류동리(雙流洞里) | 25 | 46 | 54 |
| | | 헌둔리(憲垌里) | 19 | 20 | 41 |
| | | 사방동리(舍房洞里) | 8 | 18 | 20 |
| | | 청라전리(靑羅田里) | 42 | 76 | 70 |
| | | 자룡산리(自龍山里) | 34 | 57 | 52 |
| | | 신림리(新林里) | 6 | 8 | 9 |
| | | 와룡리(臥龍里) | 32 | 51 | 66 |
| | | 마룡리(馬龍里) | 15 | 41 | 36 |
| | | 하마룡리(下馬龍里) | 8 | 21 | 17 |
| | | 관암리(?巖里) | 11 | 24 | 20 |
| | | 화동리(禾洞里) | 9 | 14 | 25 |
| | | 노곡리(蘆谷里) | 3 | 5 | 3 |
| | | 원봉리(圓峯里) | 16 | 36 | 33 |
| | | 산덕동리(山德洞里) | 10 | 23 | 24 |
| | | 방축동리(防築洞里) | 6 | 14 | 13 |
| | | 부동리(釜洞里) | 26 | 36 | 41 |
| | | 오룡동리(五龍洞里) | 8 | 16 | 25 |
| | | 번암리(磻巖里) | 24 | 60 | 56 |
| | | 서촌리(西村里) | 77 | 149 | 160 |
| | 울촌리(栗村里) | 23 | 43 | 71 | |
| | 은암리(隱巖里) | 42 | 80 | 78 | |
| | 성당사(聖堂寺) | 4 | 4 | | |
| 북일면(北一面) | | 월곡리(月谷里) | 10 | 19 | 20 |

| 면 | 구분 | 마을명 | 편호 | 남 | 여 |
|--------------|----|------------|-------|-------|-------|
| 북일면 (北一面) | | 죽내리(竹內里) | 22 | 47 | 59 |
| | | 죽림리(竹林里) | 27 | 28 | 51 |
| | | 진포리(眞浦里) | 7 | 10 | 14 |
| | | 만포리(滿浦里) | 13 | 30 | 27 |
| | | 흑암리(黑巖里) | 22 | 30 | 25 |
| | | 화산리(華山里) | 13 | 23 | 25 |
| | | 침산리(砦山里) | 55 | 115 | 127 |
| | | 신동리(薪洞里) | 120 | 201 | 189 |
| | | 토옥동리(土玉洞里) | 34 | 72 | 85 |
| | | 토흥리(土興里) | 16 | 39 | 31 |
| | | 번암리(礮岩里) | 5 | 3 | 9 |
| 북이면 (北二面) | | 봉암리(鳳巖里) | 167 | 345 | 289 |
| | | 월하동리(月河洞里) | 90 | 153 | 130 |
| | | 전성리(錢城里) | 15 | 31 | 29 |
| | | 두옥동리(斗玉洞里) | 9 | 12 | 14 |
| | | 양지동리(陽智洞里) | 20 | 45 | 47 |
| | | 신리(新里) | 51 | 113 | 107 |
| | | 성재동리(性齋洞里) | 30 | 41 | 67 |
| | | 고산동리(高山洞里) | 39 | 84 | 59 |
| | | 복동리(福洞里) | 25 | 50 | 64 |
| 읍내면 (邑內面) | | 암천리(岩川里) | 10 | 22 | 28 |
| | | 교촌리(敎村里) | 21 | 32 | 29 |
| | | 동이부리(東二部里) | 27 | 37 | 31 |
| | | 동삼부리(東三部里) | 24 | 50 | 52 |
| | | 중부리(中部里) | 43 | 83 | 81 |
| | | 북부리(北部里) | 12 | 24 | 23 |
| | | 창동리(倉洞里) | 9 | 14 | 18 |
| | | 서부리(西部里) | 6 | 11 | 11 |
| | | 신촌리(新村里) | 18 | 28 | 35 |
| 합계 | | | 2,587 | 4,926 | 5,121 |

1759년 만들어진 여지도서에서 100년 후인 1824년에 만들어진 연기읍지(燕岐邑誌)에는 이보다 더 많은 마을이 형성되었고 인구도 약간 늘었다.

- 동일면(洞一面):
- 용산리 관문으로부터 11리의 거리이며 편호56호 남143명 여133명.
 - 부암리 12리 편호 28호 남66명 여65명.
 - 합강리 15리 35호 남75명 여74명.

- 용당리 15리 17호 남39명 여38명.
- 외대산리 20리 10호 남20명 여19명.
- 내대산리 20리 20호 남40명 여39명.
- 신대리 15리 11호 남21명 여20명.
- 명학리 15리 24호 남56명 여55명.
- 부동리 16리 75호 남115명 여114명.
- 갈산리 25리 51호 남68명 여67명.
- 백정촌 26리 5호 남5명 여4명.
- 신원리 19리 11호 남16명 여 15명.
- 생지리 15리 6호 남14명 여13명.
- 신동리 20리 12호 남25명 여24명.

동이면(東二面): • 문주리 관문으로부터 8리 편호 59호 남150명 여149명.

- 문산직촌 8리 7호 남18명 여17명.
- 상판리 10리 27호 남55명 여54명.
- 판산직리 10리 3호 남5명 여4명.
- 외판교리 12리 30호 남60명 여59명.
- 내판교리 12리 48호 남92명 여90명.
- 노곡리 15리 17호 남27명 여26명.
- 상송리 15리 32호 남80명 여79명.
- 내송리 15리 21호 남66명 여50명.
- 송산소리 15리 14호 남31명 여30명.
- 외송리 15리 44호 남104명 여103명.
- 노산리 20리 18호 남31명 여30명.
- 노산소리 20리 30호 남25명 여24명.
- 양인동리 15리 51호 남85명 여83명.

남 면(南面): • 놀왕리 관문으로부터 7리 편호 47호 남108명 여107명.

- 송정리 9리 22호 남55명 여54명.
- 청룡리 10리 9호 남27명 여26명.

- 만수동리 12리 7호 남9명 여8명.
- 수산리 15리 10호 남22명 여 21명.
- 석현리 22리 3호 남4명 여3명.
- 국사동리 15리 17호 남44명 여43명.
- 중리 15리 18호 남36명 여35명.
- 월성리 15리 18호 남14명 여13명.
- 소학동리 15리 39호 남67명 여66명.
- 운주동리 10리 2호 남4명 여3명.
- 금사리 7리 64호 남81명 여79명.
- 분토동리 10리 14호 남39명 여37명.
- 관대리 10리 29호 남39명 여37명.
- 방축동리 10리 5호 남11명 여10명.
- 덕동리 10리 10호 남20명 여19명.
- 북룡동 10리 14호 남38명 여37명.
- 외삼거리 10리 27호 남53명 여52명.
- 산소동리 10리 7호 남11명 여10명.
- 내삼거리 10리 22호 남44명 여40명.
- 같은동리 7리 8호 남19명 여18명.
- 대동리 15리 28호 남19명 여18명.
- 정자동리 10리 7호 남13명 여12명.
- 재곡동리 7리 25호 남55명 여53명.
- 양화동리 7리 21호 남43명 여42명.

북삼면(北三面): • 용암리 관문으로부터 20리 편호31호 남55명 여54명.

- 생천리 20리 29호 남35명 여34명.
- 사방동리 20리 3호 남6명 여5명.
- 청라동리 20리 20호 남51명 여50명.
- 현대리 20리 16호 남32명 여31명.
- 쌍류동리 20리 21호 남62명 여60명.
- 자룡리 20리 30호 남48명 여47명.

- 기룡리 16리 19호 남39명 여38명.
- 화동동리 17리 10호 남29명 여19명.
- 우덕동리 17리 5호 남11명 여10명.
- 상마룡리 15리 6호 남19명 여18명.
- 용계리 15리 5호 남19명 여18명.
- 학암리 15리 5호 남11명 여10명.
- 신림리 15리 6호 남15명 여14명.
- 원봉리 10리 19호 남43명 여41명.
- 신대리 10리 6호 남16명 여14명.
- 명봉리 10리 10호 남27명 여26명.
- 산덕동리 10리 10호 남21명 여19명.
- 방축동리 10리 8호 남19명 여18명.
- 부동리 8리 11호 남24호 여23명.
- 치북동리 8리 5호 남12명 여11명.
- 오룡동리 7리 11호 남21호 여20명.
- 번암동 10리 14호 남37명 여36명.
- 서촌리 10리 54호 남135명 여134명.
- 율촌리 10리 18호 남33명 여32명.
- 장은동리 7리 4호 남10명 여9명.
- 대야동리 8리 15호 남31명 여30명.
- 은암리 15리 24호 남55명 여54명.
- 치암리 7리 6호 남11명 여10명.
- 동산리 15리 6호 남12명 여11명.
- 봉림동리 15리 6호 남17명 여16명.
- 효교리 10리 6호 남14명 여13명.
- 용동리 10리 7호 남24명 여23명.
- 성당사리 20리 3호 남 6명.

북일면(北一面): • 월곡리 관문으로부터 5리 편호 17호 남48명 여47명.
 • 번암리 15리 7호 남16명 여15명.

- 황조동리 15리 3호 남5명 여4명.
- 죽내리 15리 6호 남14명 여13명.
- 죽림리 15리 28호 남48명 여47명.
- 진포리 15리 4호 남13명 여12명.
- 만포리 10리 10호 남26명 여25명.
- 흑암리 16리 22호 남40명 여40명.
- 침산리 18리 35호 남90명 여88명.
- 화산리 18리 13호 남44명 여43명.
- 신동리 20리 69호 남123명 여122명.
- 토옥동리 20리 19호 남52명 여51명.
- 내창리 20리 11호 남26명 여25명.
- 낙은동리 18리 9호 남19명 여18명.
- 토흥리 19리 17호 남47명 여46명.
- 상동리 20리 5호 남14호 여12명.
- 백관리 15리 남12명 여11명.
- 월암리 15리 21호 남59명 여58명.

- 북이면(北二面):
- 봉암리 관문으로부터 5리 편호 135호 남239명. 여188명.
 - 월하동리 10리 36호 남47명 여46명.
 - 월명리 12리 2호 남3명 여2명.
 - 쌍괴정리 10리 40호 남82명 여80명.
 - 전성리 10리 16호 남34명 여33명.
 - 두옥동리 10리 10호 남30명 여29명.
 - 양지동리 10리 10호 남28명 여26명.
 - 전당리 10리 18호 남54명 여52명.
 - 성재동리 15리 37호 남77명 여76명.
 - 신리 10리 30호 남64명 여 63명.
 - 고산동리 17리 27호 남78명 여77명.
 - 북동리 20리 6호 남12명 여11명.

읍내면(邑內面): • 암천리 관문으로부터 3리 편호 9호 남20명 여19명.

- 교촌리 3리 23호 남43명 여49명.
- 동이부 2리 13호 남30명 여29명.
- 동삼부 1리 37호 남79명 여59명.
- 북부 2리 8호 남39명 여29명.
- 창동리 1리 7호 남16명 여15명.
- 서부 1리 7호 남16명 여15명.
- 남부 1리 8호 남11명 여10명.
- 신촌리 5리 14호 남23명 여22명.

합 2,501호내 男 5,246명 女 4,925명

[임오(壬午)년 장적(帳籍)의 자료에 따름. 구 연기지에서]

1925년의 간이 국제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의 연기군(燕岐郡) 세대수(世帶數)가 11,087이고, 인구수(人口數)가 남녀 각기 30,439명 및 28,359명 계(計) 58,798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1925년 연기군 남면 세대 및 인구

| 면별 | 세대수 | 인 구 수 | | |
|----|-------|-------|-------|-------|
| | | 계 | 남 | 여 |
| 남면 | 1,513 | 8,002 | 4,061 | 3,941 |

1934년 발행한 연기지(燕岐誌)에는 면정리(面町里)에서 조치원읍(鳥致院邑)은 호수가 1,735호 인구는 8,414명 민족별로 나누면 조선인이 1,396호 7,042명(남 3,596명 여 3,446명)이며 일본인이 319호 1,301명(남 638명 여 662명) 중국인이 20호 71명 (남 68명 여 3명)이다.

남면(南面) 호수는 1,612호 인구는 8,367명인데 민족별로 나누어 보면 조선인이 1,601호 8,335명 (남 4,197명 여 4,130명)이며 일본인이 10호에 31명 (남 19명 여 12명) 중국인 1호에 1명이다.

1932년 말 현재 호구(戶口)는 호수 11,819호 인구는 63,589명 조선인 호수 11,379호 (남 31,529명 여 30,314명) 일본인 호수 405호 (남 823명 여 835명) 중국인 37호 남 80명 여 8명이다.

〈표〉 1965년 남면

| 동명 | 호수 | 인구 | | | 비고(附 舊洞名) |
|----------|-----|-------|-----|-----|--|
| | | 총수 | 남 | 여 | |
| 연기리(燕岐里) | 276 | 1,711 | 858 | 853 | 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중부(中部)·교촌(敎村)·신촌(新村)·암천(岩川)·고죽동(孤竹洞) |
| 보통리(洑通里) | 113 | 742 | 375 | 367 | 냉동(冷洞)·보통리(洑通里)·월곡(月谷)·백치(栢峙) |
| 늘왕리(訥旺里) | 185 | 1,167 | 601 | 566 | 내늘왕(內訥旺)·외늘왕(外訥旺)·하늘왕(下訥旺)·문왕동(文旺洞)·와곡(瓦谷)·원곡(元谷)·청룡(靑龍)·마동(馬洞)·문암동(文岩洞) |
| 수산리(水山里) | 111 | 738 | 396 | 342 | 수산(水山)·둔덕동(屯德洞)·국사리(國仕里)·지방(紙房)·석현(石軒)·춘교(春橋)·태천(台川)·율리(栗里)·석현(石峴)·비안(飛鴈)·수월(水越) |
| 고정리(高亭里) | 219 | 1,431 | 745 | 686 | 고정(高亭)·가학동(駕鶴洞)·가자동(柯子洞)·송옥(松玉)·동산촌(東山村)·소학(巢鶴)·월성(月城)·독동(獨洞) |
| 종촌리(宗村里) | 228 | 1,234 | 625 | 609 | 궁동(芎洞)·황조동(黃鳥洞)·호준(虎遵)·시목치(柴木峙)·불곡(佛谷)·두목동(杜牧洞)·장성하(長星河)·도잠(道岑)·도림리(桃林里)·원산(元山)·문평(文坪)·화옥동(禾玉洞)·상현(桑峴) |
| 방축리(方丑里) | 97 | 589 | 301 | 288 | 양지촌(陽地村)·음지촌(陰地村)·덕동(德洞)·논천리(論天理)·조목동(棗木洞)·왕덕동(旺德洞)·금오산(金鰲山)·근곡(根谷)·정문촌(旌門村) |
| 갈운리(葛雲里) | 172 | 1,082 | 547 | 535 | 원곡(元谷)·금사(金沙)·자지동(紫芝洞)·오리(五里)·수망(水望)·창촌(倉村)·상촌(上村)·갈운리(葛雲理) |
| 월산리(月山里) | 109 | 713 | 373 | 340 | 대동(大洞)·제곡(霽谷)·화현리(花峴里) |

| | | | | | |
|----------|-------|--------|-------|-------|--|
| 양화리(陽化里) | 278 | 1892 | 967 | 925 | 상촌(上村) · 월룡(月龍) · 곡촌(谷村) · 학동(鶴洞) · 학천(鶴川) [총칭가학(駕鶴)] · 평촌(坪村) · 정자동(亭子洞) · 행단(杏壇) · 양화(陽化) · 구을촌(仇乙村, 高慶村이라 고침) · 부암(富岩) · *청진(*聽津) |
| 진의리(眞儀里) | 189 | 1239 | 624 | 615 | 진탄리(眞灘里) · 와간리(瓦間里) · 백야동(白也洞) · 성전(星田) · 한천(寒泉) · 서당동(書堂洞) · 복룡동(伏龍洞) |
| 송담리(松潭里) | 147 | 928 | 469 | 459 | 표석동(表石洞) · 대갈산(大葛山) · 소갈산(小葛山) · 덕대동(德大洞) |
| 계 | 2,124 | 13,466 | 6,881 | 6,585 | |

〈상주인구〉

(단위: 명)

| 연 구분 읍면별 | 면적 (km ²) | 가 구 | | | 인 구 | | | 성 비 남 여 |
|-------------|--------------------------|--------|--------|-------|---------|--------|--------|------------|
| | | 계 | 농 가 | 비농가 | 계 | 남 | 여 | |
| 1 9 7 1 | 345.3 | 17,668 | 11,744 | 5,924 | 101,403 | 51,026 | 50,377 | 98.7 |
| 1 9 7 2 | 345.3 | 17,777 | 11,720 | 6,057 | 102,030 | 51,797 | 50,233 | 97.0 |
| 1 9 7 3 | 358.14 | 18,465 | 12,247 | 6,218 | 105,687 | 54,013 | 51,674 | 95.7 |
| 조치원읍 | 13,368 | 5,184 | 994 | 4,190 | 28,175 | 14,219 | 13,956 | 98.2 |
| 동 면 | 30,490 | 1,738 | 1,601 | 137 | 10,348 | 5,312 | 5,036 | 94.8 |
| 서 면 | 2,380 | 2,229 | 1,772 | 457 | 12,874 | 6,598 | 6,276 | 95.1 |
| 남 면 | 52,050 | 2,351 | 2,033 | 318 | 13,653 | 7,042 | 6,611 | 93.9 |
| 금남면 | 79,640 | 2,985 | 2,580 | 405 | 17,993 | 9,179 | 8,874 | 96.7 |
| 전의면 | 49,160 | 2,218 | 1,637 | 581 | 12,352 | 6,320 | 6,032 | 95.4 |
| 전동면 | 79,850 | 1,760 | 1,630 | 6,218 | 10,292 | 5,343 | 4,940 | 92.6 |

1974년 도의 인구는 10만 6천여명

자료: 연기군청

〈표〉 읍·면별 가구 및 인구

1986. 12. 31현재(단위:가구, 명)

| 연 별 및 읍 면 별 | 가 구 수 | 인 구 수 | | | 인구밀도 | 가 구 당 인 구 수 |
|----------------|--------|--------|--------|--------|---------|----------------|
| | | 계 | 남 | 여 | | |
| 1 9 8 0 | 20,307 | 97,371 | 49,179 | 48,192 | 273 | 4.8 |
| 1 9 8 1 | 20,385 | 99,135 | 49,834 | 49,301 | 278 | 4.9 |
| 1 9 8 2 | 20,588 | 99,586 | 50,440 | 49,146 | 279 | 4.8 |
| 1 9 8 3 | 20,944 | 99,697 | 49,825 | 47,872 | 274 | 4.7 |
| 1 9 8 4 | 21,069 | 97,692 | 50,055 | 47,637 | 274 | 4.6 |
| 1 9 8 5 | 21,552 | 92,736 | 47,468 | 45,268 | 260 | 4.3 |
| 1 9 8 6 | 21,635 | 91,188 | 46,564 | 44,625 | 255.8 | 4.2 |
| 조치원읍 | 7,729 | 31,601 | 16,187 | 15,414 | 2,318.4 | 4.1 |
| 동 면 | 1,678 | 6,811 | 3,412 | 3,399 | 211.0 | 4.1 |
| 서 면 | 2,479 | 10,574 | 5,355 | 5,219 | 196.6 | 4.3 |
| 남 면 | 2,578 | 11,277 | 5,714 | 5,563 | 211.6 | 4.3 |
| 금남면 | 3,114 | 13,220 | 6,713 | 6,507 | 179.9 | 4.2 |
| 전의면 | 2,348 | 9,819 | 4,911 | 4,908 | 201.4 | 4.2 |
| 전동면 | 1,709 | 7,886 | 4,272 | 3,614 | 97.0 | 4.6 |

자료: 내무과

1. 인구추이

(단위: 명)

| 연도별 | 세대 Household | 인 구 Population | | | | | |
|------|-----------------|----------------|-----------|-------------|---------|-----------|-------------|
| | | 합계 | | | 한국인 | | |
| | |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Korean | 남 Male | 여 Female |
| 1970 | 18,271 | 101,098 | 49,762 | 51,336 | 101,098 | 49,762 | 51,336 |
| 1975 | 19,642 | 105,271 | 53,799 | 51,472 | 105,271 | 53,799 | 51,472 |
| 1987 | 21,880 | 90,584 | 45,835 | 44,749 | 90,584 | 45,835 | 44,749 |
| 1988 | 22,198 | 88,656 | 44,825 | 43,831 | 88,656 | 44,825 | 43,831 |
| 1989 | 22,203 | 88,489 | 44,342 | 44,147 | 88,489 | 44,342 | 44,147 |
| 1990 | 22,893 | 90,386 | 45,863 | 44,523 | 90,386 | 45,863 | 44,523 |
| 1991 | 23,296 | 90,406 | 45,876 | 44,530 | 90,406 | 45,876 | 44,530 |
| 1992 | 24,004 | 85,756 | 42,859 | 42,897 | 85,756 | 42,859 | 42,897 |
| 1993 | 24,015 | 83,782 | 42,039 | 41,743 | 83,782 | 42,039 | 41,743 |
| 1994 | 24,234 | 82,455 | 41,403 | 41,052 | 82,455 | 41,403 | 41,052 |
| 1995 | 24,357 | 80,931 | 40,671 | 40,260 | 80,931 | 40,671 | 40,260 |
| 1996 | 25,203 | 81,224 | 40,827 | 40,397 | 81,224 | 40,827 | 40,397 |
| 1997 | 25,600 | 80,628 | 40,536 | 40,092 | 80,274 | 40,305 | 39,969 |
| 1998 | 26,541 | 80,931 | 40,577 | 40,354 | 80,601 | 40,368 | 40,233 |
| 1999 | 26,544 | 81,284 | 40,972 | 40,312 | 80,947 | 40,787 | 40,160 |
| 2000 | 26,893 | 80,851 | 40,811 | 40,040 | 80,471 | 40,582 | 39,889 |

| 연도별 | 외국인 | | | 인구밀도 | | 세대당인구 Persons Per Household | 65세 이상 고령자 65years & over |
|------|-----------|------|--------|------------|----------------------|-----------------------------------|---------------------------------|
| | Foreigner | 남 | 여 | Population | 면적(km ²) | | |
| | | Male | Female | Density | Area | | |
| 1970 | - | - | - | 279.7 | 361.4 | 5.5 | - |
| 1975 | - | - | - | 291.3 | 361.4 | 5.4 | - |
| 1987 | - | - | - | 248.7 | 356.5 | 4.0 | - |
| 1988 | - | - | - | 244.9 | 361.4 | 4.0 | - |
| 1989 | - | - | - | 253.5 | 356.5 | 3.9 | - |
| 1990 | - | - | - | 253.6 | 356.5 | 3.9 | - |
| 1991 | - | - | - | 240.3 | 356.8 | 3.6 | 7,642 |
| 1992 | - | - | - | 234.7 | 356.9 | 3.5 | 7,832 |
| 1993 | - | - | - | 231.0 | 356.9 | 3.4 | 8,028 |
| 1994 | - | - | - | 223.8 | 361.6 | 3.3 | 8,293 |
| 1995 | - | - | - | 224.7 | 361.4 | 3.2 | 8,517 |
| 1996 | 354 | 231 | 123 | 222.4 | 362.5 | 3.1 | 8,767 |
| 1997 | 330 | 209 | 121 | 223.9 | 361.4 | 3.0 | 9,118 |
| 1998 | 337 | 185 | 152 | 224.9 | 361.4 | 3.1 | 9,504 |
| 1999 | 380 | 229 | 151 | 223.7 | 361.5 | 3.0 | 9,907 |
| 2000 | | | | | | | |

2. 읍·면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임(외국인포함), 65세이상 고령자는 외국인 제외

(단위: 명, %)

| 연 별 읍면별 | 세 대 Household | 인구 Population | 남 | | 여 | | |
|------------|------------------|------------------|--------------------|--------|--------------------|--------|--------------------|
| | | | 구성비 Composition | Male | 구성비 Composition | Female | 구성비 Composition |
| 1985 | 21,552 | 92,736 | 100.0 | 47,468 | 51.2 | 45,268 | 48.8 |
| 1986 | 21,635 | 91,189 | 100.0 | 46,564 | 51.1 | 44,625 | 48.9 |
| 1987 | 21,880 | 90,584 | 100.0 | 45,835 | 50.6 | 44,749 | 49.4 |
| 1988 | 22,198 | 88,656 | 100.0 | 44,825 | 50.6 | 43,831 | 49.4 |
| 1989 | 22,203 | 88,489 | 100.0 | 44,342 | 50.1 | 44,147 | 49.9 |
| 1990 | 22,893 | 90,386 | 100.0 | 45,863 | 50.7 | 44,523 | 49.3 |
| 1991 | 23,296 | 90,406 | 100.0 | 45,876 | 50.7 | 44,530 | 49.3 |
| 1992 | 24,004 | 85,756 | 100.0 | 42,859 | 50.0 | 42,897 | 50.0 |
| 1993 | 24,015 | 83,782 | 100.0 | 42,039 | 50.2 | 41,743 | 49.8 |
| 1994 | 24,234 | 82,455 | 100.0 | 41,403 | 50.2 | 41,052 | 49.8 |
| 1995 | 24,357 | 80,931 | 100.0 | 40,671 | 50.3 | 40,260 | 49.7 |
| 1996 | 25,203 | 81,224 | 100.0 | 40,827 | 50.3 | 40,397 | 49.7 |
| 1997 | 25,600 | 80,628 | 100.0 | 40,536 | 50.3 | 40,092 | 49.7 |
| 1998 | 26,541 | 80,931 | 100.0 | 40,577 | 50.1 | 40,354 | 49.9 |
| 1999 | 26,544 | 81,284 | 100.0 | 40,972 | 50.4 | 40,312 | 49.6 |
| 2000 | 26,893 | 80,851 | 100.0 | 40,811 | 50.5 | 40,040 | 49.5 |
| 조치원읍 | 11,587 | 34,992 | 43.3 | 17,637 | 21.8 | 17,355 | 21.5 |
| 동 면 | 1,555 | 4,537 | 5.6 | 2,195 | 2.7 | 2,342 | 2.9 |
| 서 면 | 2,671 | 8,240 | 10.2 | 4,214 | 5.2 | 4,026 | 5.0 |
| 남 면 | 2,788 | 8,602 | 10.6 | 4,370 | 5.4 | 4,232 | 5.2 |
| 금남면 | 3,248 | 9,519 | 11.8 | 4,858 | 6.0 | 4,661 | 5.8 |
| 전 의 면 | 2,482 | 7,184 | 8.9 | 3,576 | 4.4 | 3,608 | 4.5 |
| 전 동 면 | 1,457 | 4,477 | 5.5 | 2,311 | 2.9 | 2,166 | 2.7 |
| 소 정 면 | 1,105 | 3,300 | 4.1 | 1,650 | 2.0 | 1,650 | 2.0 |

3. 읍·면 리별 세대 및 인구(8-1)

Household & Population by Eup-Myeon · Ri(Cont'd)

(단위: 세대, 명)

| 읍면별 리 별 | 세 대 Household | 총 계Total | | | 한국인Korea | | | 외국인Foreigner | | |
|------------|------------------|---------------|-----------|-------------|---------------|-----------|-------------|---------------|-----------|-------------|
| | | 인구 Population | | | 인구 Population | | | 인구 Population | | |
| |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 연기군 | 26,893 | 80,851 | 40,811 | 40,040 | 80,471 | 40,582 | 39,889 | 380 | 229 | 151 |

3. 남면 리별 세대 및 인구

Household & Population by Eup-Myeon · Ri(Cont'd)

(단위: 세대, 명)

| 읍면별 리 별 | 세대 Household | 총 계Total | | | 한국인Korea | | | 외국인Foreigner | | |
|------------|-----------------|---------------|--------|-------|---------------|--------|-------|---------------|--------|----|
| | | 인구 Population | | | 인구 Population | | | 인구 Population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
| 남 면 | 2,788 | 8,602 | 4,370 | 4,232 | 8,569 | 4,359 | 4,210 | 33 | 11 | 22 |
| 연 기 1 | 306 | 944 | 466 | 478 | 943 | 466 | 477 | 1 | - | 1 |
| 연 기 2 | 53 | 179 | 95 | 84 | 179 | 95 | 84 | - | - | - |
| 연 기 3 | 86 | 250 | 125 | 125 | 250 | 125 | 125 | - | - | - |
| 보 통 1 | 69 | 212 | 112 | 100 | 211 | 112 | 99 | 1 | - | 1 |
| 보 통 2 | 143 | 456 | 230 | 226 | 456 | 230 | 226 | - | - | - |
| 눌 왕 1 | 90 | 296 | 145 | 151 | 295 | 144 | 151 | 1 | 1 | - |
| 눌 왕 2 | 78 | 241 | 123 | 118 | 241 | 123 | 118 | - | - | - |
| 수 산 리 | 104 | 332 | 180 | 152 | 332 | 180 | 152 | - | - | - |
| 고 정 1 | 115 | 357 | 188 | 169 | 350 | 182 | 168 | 7 | 6 | 1 |
| 고 정 2 | 87 | 269 | 135 | 134 | 269 | 135 | 134 | - | - | - |
| 중 촌 1 | 97 | 268 | 132 | 136 | 268 | 132 | 136 | - | - | - |
| 중 촌 2 | 222 | 774 | 382 | 392 | 755 | 379 | 376 | 19 | 3 | 16 |
| 중 촌 3 | 166 | 551 | 276 | 275 | 550 | 276 | 274 | 1 | - | 1 |
| 방 축 리 | 132 | 396 | 205 | 191 | 396 | 205 | 191 | - | - | - |
| 갈 운 1 | 70 | 196 | 97 | 99 | 196 | 97 | 99 | - | - | - |
| 갈 운 2 | 74 | 205 | 101 | 104 | 205 | 101 | 104 | - | - | - |
| 갈 운 3 | 54 | 194 | 108 | 86 | 192 | 107 | 85 | 2 | 1 | 1 |
| 월 산 1 | 53 | 146 | 77 | 69 | 146 | 77 | 69 | - | - | - |
| 양 화 1 | 154 | 466 | 225 | 241 | 466 | 225 | 241 | - | - | - |
| 양 화 2 | 65 | 188 | 101 | 87 | 188 | 101 | 87 | - | - | - |
| 양 화 3 | 31 | 94 | 49 | 45 | 93 | 49 | 44 | 1 | - | 1 |
| 진 의 리 | 165 | 494 | 253 | 241 | 494 | 253 | 241 | - | - | - |
| 송 담 1 | 55 | 181 | 97 | 84 | 181 | 97 | 84 | - | - | - |
| 송 담 2 | 76 | 238 | 123 | 115 | 238 | 123 | 115 | - | - | - |
| 나 성 리 | 93 | 270 | 130 | 140 | 270 | 130 | 140 | - | - | - |
| 송 원 1 | 105 | 284 | 155 | 129 | 284 | 155 | 129 | - | - | - |
| 송 원 2 | 45 | 121 | 60 | 61 | 121 | 60 | 61 | - | - | - |

4. 인구동태

(단위 : 명, 쌍)

| 연도별 읍면별 | 출생 Birth | 사망 Death | 혼인 (쌍) Marriage(Couple) | 이혼 (쌍) Divorce(Couple) |
|------------|-------------|-------------|----------------------------|---------------------------|
| 1991 | 1,283 | 876 | 1,454 | 138 |
| 1992 | 1,278 | 854 | 1,484 | 160 |
| 1993 | 1,266 | 849 | 1,370 | 163 |
| 1994 | 1,201 | 842 | 1,235 | 196 |
| 1995 | 1,138 | 844 | 1,186 | 198 |
| 1996 | 1,046 | 818 | 1,177 | 205 |
| 1997 | 1,081 | 815 | 875 | 176 |
| 1998 | 1,072 | 808 | 832 | 209 |
| 1999 | 1,024 | 757 | 695 | 189 |
| 2000 | 1,009 | 769 | 567 | 199 |
| 조치원읍 | 568 | 202 | 259 | 82 |
| 동면 | 47 | 72 | 39 | 12 |
| 서면 | 95 | 94 | 44 | 21 |
| 남면 | 83 | 94 | 65 | 19 |
| 금남면 | 74 | 125 | 71 | 32 |
| 전의면 | 67 | 100 | 50 | 13 |
| 전동면 | 20 | 46 | 18 | 9 |
| 소정면 | 55 | 36 | 21 | 11 |

5. 인구이동

(단위 : 명, 쌍)

| 연도별 읍면별 | 총이동 Total migration | | | | 시군내 | | 시군간 | |
|------------|---------------------|-------------|---------------|-------------|--------------------|-------------|--------------|-------------|
| | 전입 | | 전출 | | Intra shi & gun | 이동률 Rate | 전입 | |
| | In-migration | 이동률 Rate | Out-migration | 이동률 Rate | | | In-migration | 이동률 Rate |
| 1996 | 8,846 | 7.1 | 11,414 | 9.5 | 1,694 | 1.7 | 3,049 | 3.0 |
| 1997 | 8,881 | 7.3 | 11,429 | 9.9 | 1,685 | 1.7 | 3,109 | 3.2 |
| 1998 | 7,977 | 8.0 | 8,835 | 8.9 | 1,952 | 2.0 | 1,566 | 1.6 |
| 1999 | 8,503 | 8.9 | 10,292 | 10.8 | 2,297 | 2.4 | 1,441 | 1.5 |
| 2000 | 9,212 | 11.4 | 10,010 | 12.4 | 1,681 | 2.1 | 1,165 | 1.4 |
| 조치원읍 | 4,246 | 5.3 | 4,642 | 5.8 | 783 | 1.0 | 399 | 0.5 |
| 동면 | 472 | 0.6 | 524 | 0.7 | 69 | 0.1 | 45 | 0.1 |
| 서면 | 1,017 | 1.3 | 1,134 | 1.4 | 330 | 0.4 | 70 | 0.1 |
| 남면 | 755 | 0.9 | 889 | 1.1 | 160 | 0.2 | 74 | 0.1 |
| 금남면 | 1,186 | 1.5 | 956 | 1.2 | 102 | 0.1 | 118 | 0.1 |
| 전의면 | 662 | 0.8 | 824 | 1.0 | 82 | 0.1 | 176 | 0.2 |
| 전동면 | 403 | 0.5 | 420 | 0.5 | 109 | 0.1 | 79 | 0.1 |
| 소정면 | 471 | 0.6 | 621 | 0.8 | 46 | 0.1 | 204 | 0.3 |

| 필리핀 Philippine | | | 인도네시아 Indonesia | | | 베트남 Vietnam | |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 | 태국 Thailand | | | Year Eup & Myeon |
|-------------------|-----------|-------------|--------------------|-----------|-------------|----------------|-----------|-------------|---------------------|-----------|-------------|----------------|-----------|-------------|---------------------|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6 |
| - | - | - | 83 | 56 | 27 | - | - | - | - | - | - | - | - | - | 1997 |
| - | - | - | 56 | 52 | 4 | - | - | - | - | - | - | - | - | - | 1998 |
| - | - | - | 49 | 44 | 5 | - | - | - | - | - | - | - | - | - | 1999 |
| 28 | 16 | 12 | 71 | 58 | 13 | 29 | 13 | 16 | - | - | - | - | - | - | 2000 |
| 6 | 3 | 3 | 19 | 12 | 7 | - | - | - | - | - | - | - | - | - | Jochiwon-eup |
| 4 | 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Dong-myeon |
| 1 | - | 1 | 18 | 18 | - | - | - | - | - | - | - | - | - | - | Seo-myeon |
| 1 | 1 | - | 4 | 4 | - | 1 | 1 | - | - | - | - | - | - | - | Nam-myeon |
| 3 | 1 | 2 | 6 | 3 | 3 | 9 | 1 | 8 | - | - | - | - | - | - | Geumnam-myeon |
| 2 | - | 2 | 5 | 5 | - | 7 | 7 | - | - | - | - | - | - | - | Jeonui-myeon |
| 11 | 8 | 3 | 8 | 8 | - | 8 | - | 8 | - | - | - | - | - | - | Jeondong-myeon |
| - | - | - | 11 | 8 | 3 | 4 | 4 | - | - | - | - | - | - | - | Sojeong-myeon |

| 네팔 Nepal | | | 미얀마 Myanmar | | | 프랑스 France | | | 러시아 Russia | | | 기타 others | | | Year Eup & Myeon |
|-------------|-----------|-------------|----------------|-----------|-------------|---------------|-----------|-------------|---------------|-----------|-------------|--------------|-----------|-------------|---------------------|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계 Total | 남 Male | 여 Fema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51 | 29 | 1996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82 | 24 | 1997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 75 | 34 | 1998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 55 | 44 | 1999 |
| 8 | 7 | 1 | - | - | - | - | - | - | - | - | - | 17 | 14 | 3 | 2000 |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Jochiwon-e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ong-mye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eo-mye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myeon |
| 2 | 2 | - | - | - | - | - | - | - | - | - | - | 3 | 3 | - | Geumnam-myeon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Jeonui-myeon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0 | 1 | Jeondong-myeon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 | 2 | Sojeong-myeon |

第 2 編 역 사

- 제1장 선사시대와 연기군 남면
- 제2장 고대(古代)의 연기군 남면
- 제3장 백제시대의 연기군 남면
- 제4장 고려시대와 연기군 남면
- 제5장 조선시대와 연기군 남면
- 제6장 근대사회와 연기군 남면
- 제7장 일제시대의 연기군 남면
- 제8장 현대의 연기군 남면

남면의 역사

연기군 남면은 연기군(燕岐郡) 역사의 중심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문명을 일으킨 금강(錦江)과 현(縣)의 치소였던 연기(燕岐)가 남면에 있으니 그리 표현하는 것이다. 연기군(燕岐郡)은 조선시대 연기현(燕岐縣)에서 따온 이름이다.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중석기시대(中石器時代),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초기 철기시대(初期 鐵器時代) 즉, 50만 년 전부터 서력기원 전후로 한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역사시대는 서력기원 전후인 삼국시대 형성기(삼한시대, 원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킨다.

제1장 선사시대와 연기군 남면

제 1절 구석기시대와 연기군 남면

연기군 남면은 미호천(美湖川)과 만나 서해로 흐르고 있는 금강이 있기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곳이다.

그 예는 1964년에 발굴된 공주의 석장리 구석기 유적과, 1976년 금강 상류인 청원군 가덕면 노현리의 두루봉 동굴의 유적으로, 이는 남면의 위와 아래에 위치하여 이곳의 문명을 일찍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제 2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연기군 남면

약 1만 년 전에서 8천년 전까지는 중석기 시대이다. 이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

어가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세모꼴, 마름모꼴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형태가 작은 간석기(細石器 microlith)를 제작하여, 이를 나무나 뼈 같은 곳에 끼워서 창이나 톱과 같은 복합도구를 만들어 석기의 기능을 높였으며, 연기군 남면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된 유적은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다.

이어 청동기 시대는, B.C 1000년경부터 철기문화가 처음 유입되는 B.C 300년경까지를 일컫는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와 간석기가 같이 사용되었으며, 간석기는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철기와 같이 나타나는데, 청동기 문화를 담당했던 사람은 예맥(濊貊 Tunqus)이라 불리우는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맥이란 곰(熊)을 뜻하며, 현대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시베리아의 미누신스코 문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문화는 동검(銅劍)과 지석(支石 墓 고인돌)이다.

이중 동검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이 처음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만주지방에서 발전하였던 청동검(靑銅劍)이 한국에 전하여 진 것으로 믿어진다. 그 후 B.C 300년경부터는 이 청동기가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 세형동검(細形銅劍)이라 불리우는 한국 고유의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 때 청동기의 변화와 함께 묘제(墓制)도 변하여 그 때까지 유지되어오던 석관묘(石棺墓)가 석곽묘(石槨墓)로 변천됨과 아울러, 고인돌도 이 시대의 주된 무덤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인돌은 선돌(立石)과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로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고인돌 집중지대이다. 이 고인돌은 외부에서 전파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것으로 보이며, 철기시대의 시작과 함께 소멸되었다.

고인돌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분류되는데, 북방식은 탁자식이고, 남방식은 기반식(基盤式)과 개석식(蓋石式)으로 다시 구분된다. 연기지역에서는 주로 남방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연기군은 청동기 문명이 활발히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연기군 내에서 특히, 남면지역의 고인돌은 월산리 고인돌이 그 대표이다. 월산리 활골 부락 금강변에 위치한 이 고인돌은, 예전에 낮은 언덕에 형성되었던 것이 주변 농경지 정리로 인하여 밭 가운데에 놓이게 됐다.

주변 고인돌은 강 건너에 주로 많이 분포하는데 금남면에는 박산리, 봉기리, 신촌리, 장재리, 석삼리, 용포리와 석교리 그리고 동면에서는, 송용리에 2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도로 공사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제3절 남면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남면 종촌 지역에서 일찍이 무문토기(無文土器) 유적이 보고된 바 있으며, 서면 봉암리에서는 청동재 동검(銅劍) 1개와 동과(銅戈) 1개가 수습되었다. 종촌리의 무문토기 분포지역은, 남면사무소에서 진의리로 통하는 간선도로를 따라 600m 되는 곳 북편에 상모골이었고 이곳 표고 700m 정도의 야산이었는데, 이 야산의 남쪽 기슭에 무문토기 편이 산재해 있다.

진의리 서남쪽에 위치한 상모골은, 그 줄기가 서쪽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남쪽으로 꺾어들면서 완만한 구릉이 형성되어있다. 무문토기가 발견된 곳은 적갈색 황토가 섞인 석비레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은 대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에서 토기가 출토되는데 7부 능선에서 정상까지의 일대이다.

4개소 유물 출토지를 확인하였으며 토기편과 석재들이 산재하여 있고, 서북쪽 모퉁이에서는 방형(方形)으로 보이는 주거지벽(住居址壁) 일부가 깊이 20cm 내외로 남아있다. 수습된 유물들은 주로 조질(粗質)의 토기편이며, 태토(胎土)에는 비교적 굵은 사립(沙粒)이 섞여있다.

기종(器種)은 평저호형 토기(平底壺形 土器)가 주종을 이루며, 표면에 붉은 슬립을 입힌 홍도편(紅陶片)도 있다.

평저형 토기들은 바닥과 접합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성형(成形)한 흔적이 보인다. 기벽은 0.4cm 내외로 얇은 편이고, 저부(低部)의 직경은 8cm내외이다. 이들 토기의 발견과 주거지의 확인은 매우 주목되며, 홍도(紅陶)의 출토도 크게 유의된다.

즉, 이곳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한 종촌지역 일대는,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거주 여건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면 보통리 마을 북쪽 작은 길 200m 지점 구릉에서는 마제석검 1점, 무문토기편 1점이 발견되었으며, 적갈색 태토의 김해식 토기편(金海式 土器片)도 출토되었다.

이는 금강변에 일찍 문명을 일으킨 선사인들의 흔적으로, 남면 지역은 오랜 세월 사람이 살아온 곳이다.

제2장 고대(古代)의 연기군 남면

일연(一然 1206~1298)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단군왕검(檀君王儉)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개창(開創)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한다.

삼국유사에 쓰여있는 단군 조선은 설화(說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역사와 연결시키기는 무리라고 하지만, 여기에 깃들여 있는 건국이념은 훗날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건국 설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통사상(正統思想)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 중, 단군 조선 다음에 기자조선(箕子朝鮮)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은(殷)을 멸망시킨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의 왕족으로 현인(賢人)의 평을 듣던 기자(箕子)를 조선왕(朝鮮王)에 봉하였다고 한다.

기자가 조선왕에 봉해지자,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기자 조선은 후조선(後朝鮮)이라 명명(命名)하고, 41대 928년 동안 계속되다가 준왕(準王)때에 멸망되었다고 한다.

또 『사기(史記)』 『조선전』에 의하면 한(漢)나라 통치 하에 있던 연(燕)나라 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匈奴)로 도망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때 연나라 사람인 위만(衛滿)이 무려 천여 명을 모아 동쪽으로 요동(遼東) 변방의 요새를 나와서 패수(溟水) 건너, 진(秦)나라의 옛 빈터 상하장(上下障)에 살면서, 진번조선(眞番朝鮮)의 만이족(蠻夷族)과 연(燕)·제(齊)의 망명자들을 점점 모아 가지고 세력이 커지자,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왕검성(王儉城)에 도읍을 하였다.(B.C 194년)

위만이 처음 들어올 때 상투를 조선옷을 입고 왔으며 준왕이 처음부터 위만을 두텁게 믿고 국경 수비의 중책을 맡긴 점,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국호(國號)를 여전히 조선이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만이 순수한 중국계 사람이 아니고 조선인 계통의 연인(燕人)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중국의 우수한 금속문화를 가지고 동쪽으로 온 위만의 망명집단이, 평양부근에 정착해 있던 고조선을 정복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었다. 그는 준왕을 남쪽으로 내몰고 왕이된 후, 주변의 작은 나라를 병합하였다. 그 결과 위만조선은 청천강 이남, 한강 이북과 동해안의 함남(咸南) 강원(江原) 일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때 한(漢)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辰國)과 교통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위씨조선(衛氏朝鮮)이 이를 방해하자, 한무제(漢武帝)는 이를 토멸하려고 하였다. 이 때 위씨조선은 위만이 그의 손자인 우거(右渠)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였다.

우거왕은 쳐들어오는 한무제군의 우세한 철기문화에 대항해서 1년 간이나 완강하게 버티었다. 이는 위만 조선이 한나라에 대항할 만한 금속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위씨조선은 3대 8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B.C.108년) 이와 같이 우세한 금속문화를 가지고 주변국가를 정복하는 한편, 한나라에 대항해서 싸웠던 위씨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정복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보편적으로 청동기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철기문화가 도입되는 시기로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라 불리우는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들 지역은 각지에 크고 작은 소국(小國)들이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혹은 삼한시대(三韓時代)라 부르는데, 이 시기에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이 분립되어 있었다.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대략 300년 경 까지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시대(歷史時代)로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삼국지』나 『후한서』 등의 중국 문헌에 따르면, 원삼국시대 경기 이남지역에는 마한 54국, 진한12국, 변한 12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마한(馬韓) 54개국은 오늘날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진한(辰韓) 12개국은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 변한(弁韓) 12국은 경상도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배정되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세력은 마한인데, 큰 나라는 1만여 가구에서 작은 나라는 수천 가구로 이루어졌으며, 합하면 10여만 호(戶)에 이르렀다고 한다. 진한, 변한은 큰 나라가 4~5만여 호(戶)였고 작은 나라는 6~7백 가구였으며, 합하면 모두 4~5만여 호(戶)였다.

그러나 이들 소국들 가운데 그 위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연기군 남면 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었으며 어느 소국에 속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천안과 공주지역, 그리고 아산지역이 제소국(諸小國)으로 비정되는 지역이 있어 연기군 남면 지역도 이들 지역 안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3장 백제시대와 연기군 남면

제1절 백제의 건국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이 졸본부여로 망명하여, 그 곳 왕의 딸과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뒤에 북부여로부터 주몽의 원자(元子)인 유리가 고구려로 와서 태자가 되었다. 이에 온조는 동북형인 비류와 함께, 장차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조천(鳥千), 마려(馬黎) 전섭 등 1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온조와 비류는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10명의 신하가 말하기를 “생각컨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고악(高岳)에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 그 천험지리(天險地理)가 얻기 어려운 지대이므로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바닷가에 살기를 원하였으므로, 이에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지금의 인천)로 가서 살았다. 이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로서 보익(輔翼)을 삼아 국토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것이 백제의 건국이며 B.C 18년이다.

한편 미추홀로 간 비류는 국가 경영에 실패하여 병으로 죽고 만다. 이에 미추홀 백성은 모두 위례성에 귀부(歸附)했으며,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로 고쳐 불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扶餘)에서 나왔으므로, 성씨를 부여씨(扶餘氏)로 칭하였다.

그런데 온조가 정착했다는 하남 위례성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그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위례성을 현재의 서울시 일원으로 보고 몽촌토성(夢村土城)을 중심으로 풍납동, 잠실,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 일대로 주장하는 설이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공사 중 백제초기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풍납동이 위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연기군 남면과 가까운 천안의 직산을 위례성으로 비정하는 직산설이 있다.

직산이 위례성이라는 주장은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의 온조왕조에 위례성이 직산이라 기록한데 이어,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국여지승람』에도 위례성은 직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조선 중기 문헌고증학에 입각한 실학적 역사학의 창시자인 한백겸(韓百謙 1552~1615)조차도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직산 위례성을 주장했다.

직산설을 부정한 이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었다. 그는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위례성은 지금의 북한산 동록(東麓)으로 보았고, 온조왕 14년에 천도했다는 하남 위례성을 남한산성 북쪽인 경기도 광주시 동부면 춘궁리 일대로 추정했다.

이병도(1896~1989)의 견해 또한 이와 비슷했는데,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온조가 쫓기듯 고구려를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터를 잡을 때, 그곳을 지배하던 마한의 54개국을 순순히 양보하며 길을 비켜주었을 리 만무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온조는 쫓기는 신세이기에 고구려와 멀면 멀수록 안도감이 들었고, 직산까지 내려와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위례산에 정착을 했을 것이다. 이후 나라의 틀이 잡히고 임시 거처였던 직산이 여러 가지 조건상 국도(國都)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깨닫고 서서히 입지 조건이 좋은 한강 쪽으로 이동하여 초기 위례성을 완성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제2절 백제 한성시대와 연기군 남면

백제 한성시대 (B.C 18~A.D 475년)라 함은 백제가 한강유역에 정착한 이후부터 개로왕(蓋鹵王)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패사(敗死)하고, 그의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웅진(熊津-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할 때 까지를 말한다.

백제가 완전하게 국가체계를 갖춘 시기는 고이왕(古爾王 234~286)때 이다. 고이왕 27년(260년) 왕은 내신좌평(內臣佐平), 내두좌평(內頭佐平), 위사좌평, 조정좌평(朝廷佐平), 병관좌평(兵官佐平) 등 6좌평(佐平)을 두어 각기 직무를 맡게하고 아울러 16품(品)의 관등(官等)을 제정하였으며 또, 품계에 따라 관복(官服)을 정하였다.

262년에는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동시에 종신 금고형(禁錮刑)에 처한다는 법령을 반포하였다고 한다.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한 때는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때 이다.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낙동강 유역과 남해지방에 이르는 한반도 서반부 전체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다시 북쪽으로 황해도 지방에 있었던 대방군까지 진출하여 24년(369년) 9월에는 그가 보낸 태자 근구수(近仇首)가 고구려 침략군을 치양(雉陽 지금의 白川 지방) 전투에서 격파하여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근초고왕 26년(371년) 겨울에는, 그 자신이 태자와 함께 정병 5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마침 그곳에 사냥 나왔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제는 현재의 경기·충청·전라 3도의 전부와 낙동강 중류 지역, 강원·황해 양도의 일부까지를 점유하는 등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토가 크게 팽창함에 따라 백제는 국제적 인식도 넓어져 27년(372년)에는, 서쪽으로 중국 동진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 관계를 맺고, 남쪽으로는 왜(倭)와 교류하는 위치를 굳히게 된다.

근초고왕은 내치(內治)에도 힘을 기울였다. 재위기간 동안 그는 왕위의 형제상속을 부자상속으로 바꾸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박사(博士)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국사(國史)인 『서기(書記)』를 편찬하게 하였다.

침류왕(枕流王, 384~385) 원년에는 동진(東晉)으로부터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와서 불교(佛敎)를 전하자 이를 수용하고, 그를 궁중(宮中)으로 맞이하여 대우하였으며,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전도하게 하였다.

이후 백제의 영토확장 사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개로왕(蓋鹵王, 455~475)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왕족 중심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남조의 송(宋)과도 교통을 하였다. 왕족 중심의 전제화(專制化)는 일반 귀족 세력들의 불만

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개로왕은 지금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토성들을 축조하고, 그 안에 큰 궁실(宮室)과 누각, 대(臺), 사 등을 짓는 한편, 왕릉도 개수하여 토목공사를 많이 벌이다가, 국고는 탕진되고 민심은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고구려의 첩자로 내려온 도림(道琳)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기회를 타서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이 백제를 치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위급한 사정에 부닥친 개로왕은, 중국 북위(北魏)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하하는 고구려군은 백제군의 전진기지인 북성(北城)을 함락시킨 다음 강남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였다. 공격한 지 7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개로왕은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붙잡혀 아차성(阿且城 : 지금의 광나루 峨嵯山)으로 끌려가 살해되고 말았다. 이때 왕뿐만이 아니라 태후, 왕자들이 고구려군에게 몰살을 당하였고 8천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제3절 백제 웅진(熊津)시대와 연기군 남면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475년부터 성왕 16년(538) 사비(泗水)로 천도할 때까지의 63년 동안을 웅진시대(熊津時代)라고 한다.

백제는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잃게 되자, 개로왕의 아들 문주(文周)가 뒤를 잇고 웅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겨 중흥을 도모하게 이르렀다.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과 그 뒤를 계승한 삼근왕은 재위기간이 4년밖에 안되고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성왕(東城王, 479~501)이 즉위하면서부터 왕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신라와는 493년 결혼동맹(結婚同盟)을 맺어 남하하는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그는 진씨(眞氏)·해씨(解氏) 등 한성시대 이래의 외척세력을 배척하는 한편, 새로 옮긴 수도부근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던 연씨(燕氏)·백씨(白氏)·사씨(沙氏) 등 신흥세력을 등용하여 상호간에 세력을 견제케 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오늘날 연기(燕岐), 전의(全義), 목천(木川)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때의 세력가들에 의하여 지명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연기의 연(燕)자는 연기가 백제때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던 것을, 통일신라 경덕왕때 연산군(燕山君)의 영현으로 삼고 이때부터 연기(燕岐)라 하였다. 이는 웅진백제 때 활약했던 연씨(燕氏)들에 의한 지명으로, 당시의 인물에 대하여 연신(燕信)과 연돌(燕突)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침공하여 왕과 왕비, 왕자, 신하들을 죽일 때 왕자 문주(文周, 475~477)는 신라에 구원군을 요청하러 갔기 때문에 전란 속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문주는 황폐화된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때 왕의 율타리 역할을 하던 내신좌평 곤지가 죽자, 병관좌평 해구가 실권을 장악하고 문주왕을 살해한 후, 어린 삼근왕(三斤王, 477~479)을 옹립한 뒤 군국정사 일체를 장악하였다.

해구가 실권을 장악하고 국사를 전담하자, 여타 귀족들이 그의 전횡에 반발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해구는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신진세력의 하나인 연신(燕信)과 결탁하여 대두성(大豆城)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해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 선 것은 진씨세력이었다. 처음에 좌평 진남(眞男)이 2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뒤이어 진로(眞老)가 정병 5백명을 거느리고 가서 해구를 죽이자, 연신은 고구려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이로써 해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진로는 삼근왕을 해구가 세웠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동성왕(東城王, 479~501)을 옹립하였다. 이때 진로는 연돌과 손을 잡고 해구를 몰아냈기 때문에 연돌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동성왕은 신진세력들을 적극 등용하여 자신의 기반세력을 확대하였다. 부여지방에 기반을 둔 사씨(沙氏)세력, 웅진지역에 기반을 둔 백씨(白氏)세력, 연기지방에 기반을 둔 연씨(燕氏) 세력 등은 그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 등용되었다. 490년 9월 연돌을 달솔로 임명하고, 497년(동성왕19) 병관좌평 진로가 죽자 달솔 연돌을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이로써 연기지역 인물인 연신은 반란군으로, 고구려로 망명을 하고 그 처자는 웅진에서 처형당하였으며, 진압군에 앞장 섰던 연돌은 달솔이 되었다가, 병관좌평까지 올랐다.

이로 보아 연기(燕岐)는 웅진백제시대 세력을 이루었던 연씨들에 의하여 통일신라 시대부터 연산(燕山)과 연기(燕岐)라 부른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지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의·전동에 세력을 떨쳤던 전씨들은, 백제초기 온조가 데려온 10명 중 전섭이 끼어 있음으로 그 시조를 이루었는데, 그를 시조로 한 천안전씨 세계가 이루어지듯 전의지방에서 활약했던 전씨들은 분명 그의 후손이며, 백제 멸망기 목씨와 함께 석불비상을 제작한 장본인으로, 비상에 전씨(全氏)가 명기되어 있어, 고려시대부터 부르기 시작한 전의(全義)란 지명은 전씨에서 비롯되었으며, 가까운 목천(木川) 또한 동시대 목씨들에 의하여 붙여진 지명일 것이다.

『양서(梁書)』 백제조에 의하면 백제에는 22담로제도가 있었다고 전한다. 지방에 설치되었던 22담로에는 왕족과 신흥귀족들을 각 지방의 왕(王)·후(侯)로 분봉(分封)하여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였다. 왕권이 강화되어 국가가 안정되자 동성왕은 성안에 임류각(臨流閣)을 짓고 기화요초(奇花異草)를 기르는 등 안정된 정치 국면을 보였는데, 이것은 백제가 그만큼 국력이 신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성왕은 신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城)을 많이 축조하였기 때문에, 동성왕(東城王)이라고 하는 시호(諡號)를 받았다고 한다.

동성왕은 위사좌평 백가의 세력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걱정하여 백가로 하여금 가림성(임천)을 축조하게 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이에 원한을 품은 백가는 자객을 보내서 동성왕을 시해하였다.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武寧王, 501~523)은 부왕을 시해한 백가를 토벌하는데 성공하였다. 무령왕 대에는 왕권과 귀족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국이 안정되고 국력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는 동예(東濊) 군사와 함께 쳐들어오는 고구려의 군대를 몇 차례나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으며, 백제가 바다 건너 탐라(耽羅:제주도)를 초유(招諭)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또 무령왕 12년(512년) 이래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강화한 결과 21년(521)에는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의 관작을 받게 되는 등 고구려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기를 이뤘다. 무령왕대의 찬란했던 문화는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에 의하여 밝혀졌다. 왕릉의 구조는 자연암반을 굴착한 횡혈식 전축분(橫穴式 塼築墳)이다. 평면 구조는 장방형으로 갱도(??道)와 현실(玄室) 그리고 배수구를 갖추고 있었다. 천정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갱도와 현실 내부는 모두 연화문이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실 내부에는 왕과 용비의 합장관대(合葬棺臺)가 갱도(??道)바닥과 같은 높이로 구축되어 있고, 3면 벽에는 보주형 등감(寶珠形 燈龕) 5개가 시설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마치 창과 같은 모양 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 왕릉의 축조연대는 아치형 입구 벽을 폐쇄했던 벽돌 중에서 「土壬辰年作」이라고 새겨진 벽돌이 발견됨으로써 밝혀졌다.

이 임진년은 무령왕이 사망하기 11년 전인 512년으로서, 이때 이미 이 왕릉이 건조되었거나 준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108종 2906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그 중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지석(誌石: 買地券)이다. 지석은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삼국 왕릉 중 처음으로 왕릉의 주인공을 알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4절 사비(泗泚)시대와 연기군 남면

무령왕의 뒤를 이어 성왕(聖王, 523~554)이 즉위하였다. 성왕은 웅진(熊津) 같은 좁은 지역을 벗어나 넓은 새로운 왕도를 경영할 필요성을 느껴, 16년(538년)사비(泗泚)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개칭하였다. 이때 사비지역의 토착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씨(沙氏) 세력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비로의 천도 후 22부의 중앙관서와 5부, 5방의 수도(首都) 및 지방행정 제도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왕은 겸익(謙益)과 같은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의 진흥을 꾀하고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양나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왜(倭)에게는 오경(五經)·의(醫)·역(易)·역(易) 박사와 불경까지 전해주기도 하였다.

왕은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되찾을 목적으로, 신라 진흥왕과 더불어 이곳의 6군(郡)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2년 뒤에 신라군의 기습 공격으로 이를 잃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성왕은 이듬해인 554년 7월 대가야군(大加耶軍)과 합세하여 신라의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威德王, 554~598) 때에는 뚜렷한 공적을 남기지 못한 채 왕권이 혜왕(惠王)·법왕(法王)에게 이어졌다가, 무왕(武王, 600~641)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무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국력을 신장시켰다. 당시 서울인 사비도성 주위에는 9km에 달하는 나성(羅城)을 축조하였으며, 그 안에 오부제도(五部制度)를 완성한 것도 이때인 것이다. 사비도성 중앙에는 금성산(錦城山)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단위(自然聚落單位)로서 오부제(五部制)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왕은 신라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고 국력이 신장되자 전북 익산지방에 별도(別都)를 경영하는 한편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하고, 내불당(內佛堂)의 성격을 띤 제석사(帝釋寺)도 창건하였다.

무왕의 뒤를 이어 의자왕(義慈王, 641~660)이 즉위하였다. 그는 무왕의 뜻을 계승하여 국력신장에 노력하는 한편 신라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다. 왕은 천성이 순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해동증자(海東曾子)라고 하는 칭호까지 듣던 군주였다. 그러나 말년에 와서는 신라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자 충신들의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나·당 관계의 국제정세에 어두워진 것 같다.

결국 백제는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군대와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에게 660년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때 왕과 태자 효(孝), 왕자 태(泰)·연(演) 및 대신, 장사 88명, 백성 12,807명 등이 포로로 당나라에 잡혀갔다. 백제가 망하기 직전에 계백(階伯) 장군은 결사대 5천명을 거느리고 지금의 연산인 황산벌에 나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백제의 오방제도(五方制度)는 성왕대에서 무왕대에 걸쳐 완비된 것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백제의 5방(泗泚時代)

| 五方 | 方城 | 王道를 基準한 方位 및 距離 | 方城의 넓이 | 兵力 | 方城의 推定地 |
|----|------|--------------------|---------|------------|---------|
| 中方 | 古沙城 | 南 260里 | 方 150步 | 1,200名 | 全北 古阜 |
| 東方 | 得安城 | 東南 100里 | 方 1里 | 700~1,000名 | 忠南 恩津 |
| 南方 | 久知下城 | 南 360里 | 方 130步 | ” | 全南 求禮 |
| 西方 | 刀先城 | 西 350里 | 方 200步 | ” | ? |
| 北方 | 熊津城 | 東北 60里 | 方1里 半 | ” | 忠南 公州 |

『삼국사기』 「지리지」 웅천조(熊川條)에는 연기(燕岐)지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 | |
|-----|---------------------|
| 燕山君 | 本百濟 一牟山郡 景德王 改名 今因之 |
| 燕岐縣 | 本百濟 豆仍只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
| 昧谷縣 | 本百濟 未谷縣 景德王 改名 今懷仁縣 |

위의 내용으로 보면 연산군은 백제의 일모산군이었는데 경덕왕때 연산군으로 개명하였고, 영현을 둘 두었는데 하나는 연기현이고 또 하나는 미곡현이었다.

연기현은 본래 백제 때 두잉지현이었고, 지금의 연기군 남면을 중심으로한 서면 일대와 동면, 조치원 일대가 이에 속하였다. 매곡현은 본래 백제의 미곡현이었는데 경덕왕때 매곡현으로 개명하였다. 매곡현은 지금의 충북 보은군 회북면과 회남면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사비시대에 정비된 오방제도 중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북방의 웅진성(熊津城) 뿐이다. 이곳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기군 남면은 북방 웅진성의 동북방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웅진성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때에 군(郡)의 너비는 대개 지금의 5~6개면(面)에 해당하고 현(縣)은 2~3개면(面) 정도의 면적이었다.

제5절 백제 부흥운동(復興運動)과 연기군 남면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의자왕은 항복을 하였지만, 각처에서 백제의 부흥군(復興軍)이 일어났다. 두시원악(豆尸原嶽)에서 정무(正武)가 일으킨 부흥군, 임존성(任存城)을 중심으로 한 복신과 도침의 부흥군, 구마노리성(久麻怒利城)을 근거로 한 여자진(餘自進)이 거느린 부흥군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봉기하게 된 배경은 나·당 점령군의 횡포와 약탈이 그 첫째이다. 『구당서』 「흑치상지전」에 보면, 소정방은 사비성에서 의자왕의 항복을 받은 후 군대를 풀어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젊은이들을 붙잡아 죽이는 등 도성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었고, 의자왕이 항복하였을 때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모

습도 촉발제가 되었다.

항복례(降服禮)를 행하는 자리에서 의자왕은, 당하(堂下)에서 무릎을 꿇고 잔을 받들어 올렸는데,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지켜본 백제의 군신들은 오열을 멈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백제유민과 점령군 사이에 일어난 갈등 등으로 백제유민들은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660년 8월 26일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장군이 임존성 전투에서 당의 소정방과 싸워 승리하였다. 임존성 전투에서 패한 소정방은 의자왕 등 포로를 데리고 9월 3일 회군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사비성에는 1만여 명의 당군과 7천명의 신라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사비성 전투는 660년 9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때 부흥군은 사비(泗批) 남령(南嶺)에 4-5개의 책(柵)을 세우고 사비성을 포위하면서 주변의 성읍을 초략하였다. 이리하여 이례성(尔禮城) 등 20여 성이 부흥군에 합류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삼년산성에 머물고 있던 신라 무열왕의 군대를 돌이켜 부흥군 공격에 나섰다. 부흥군과 신라군은 위례성, 사비남령책, 황흥사 잠성 등에서 싸웠는데, 부흥군은 결국 패배하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웅진강구 전투와 두량윤성 전투는 661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일어났다. 이 시기 임존성에 근거를 두었던 복신과 도침은 사비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도침이 거느린 군대는 웅진강구(熊津江口)에 주둔하였고, 복신은 두량윤성에 주둔하면서 배후 지원을 맡은 것 같다. 이리하여 도침이 거느린 부흥군과 당군 사이에서 웅진강구 전투가 벌어졌다. 도침의 군대는 두 책(柵)을 세운 뒤 당군을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패배하고 강은 건너는 동안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복신이 거느린 부흥군과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가 두량윤성 전투이다.

신라는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해오자, 대당장군(大幢將軍) 품일(品日)을 비롯한 여 11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신라군은 두 길로 나누어, 대당군(大幢軍)은 두량윤성으로 가고 나머지는 고사비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두량윤성으로 간 대당군의 선발대가 패배하자, 고사비성으로 간 신라군은 모두 두량윤성으로 집결하였다. 복신이 거느린 부흥군은 이 신라군을 맞아 한달여 싸워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이 전투에서 실패한 신라군은 회군하는 도중 또 빈골양(賓骨壤)에서 부흥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군수품을 빼앗기는 패배를 당하였으며, 이들이 거

둔 성과는 각산(各山)의 둔보(屯堡)를 함락시키는데 그쳤다. 두량윤성 전투에서 부흥군이 승리하자 이제까지 사세를 관망하던 여러 지역의 세력들이 부흥군에 가담하게 되었다. 「흑치상지 열전」에 남방의 200여 성이 부흥군에 호응하였다고 한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신라는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감히 다시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의를 잃게 되었다.

부흥군이 일어났을 초기에는 부흥군 장군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좌평 여자진(餘自進)과 복신이 각각 일영(一營)을 세웠다고 한 것이라든가 흑치상지가 처음에 본부 즉 풍달군(風達郡)으로 돌아와서 망일(亡逸)한 자들을 불러모아 기병(起兵)하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활동을 하던 부흥군은 점차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다.

복신은 백제가 멸망할 당시 살아남은 왕족 가운데 왕실과 가까운 사람의 하나였다. 그는 비록 왕족 부여씨에게 분지하여 나와 귀실씨(鬼室氏)를 칭하였지만 바로 무왕의 조카요, 의자왕과는 사촌간이었다. 당시 의자왕과 그의 적자(嫡子)들 대다수가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 일부는 왜(일본)국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의자왕의 사촌이면서 한때 대당(對唐) 외교 활동을 벌였던 그의 위치는 부흥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존성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복신과 도침은 곧바로, 끊어진 국맥(國脈)을 잇기 위해 왕조 재건에 박차를 가하였다. 왕조 재건의 핵심은 왕의 옹립인데, 그 대상자가 바로 부여풍(扶餘豐)이었다. 부여풍은 의자왕의 아들이고 왜(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다.

복신과 도침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데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래서 복신은 660년 10월에 왜(일본)에 사신을 보내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하였다. 661년 9월경에 풍왕자는 귀국하여 백제 제32대 왕으로서 부흥백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복신은 거점성을 임존성에서 주류성으로 옮겼다. 주류성은 부흥백제국의 왕도가 되었다. 이때 도침은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칭하고 복신을 상령장군(霜嶺將軍)이라 칭했다.

부흥군은 기본적으로 사비성으로 군량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두량윤성 전투 이후 남방지역과 동방지역이 부흥군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당군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량 보급은 거의 신라에 의존하였으며 신라는 웅진부성에도 군량을 보내야 하고, 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고 있던 당나라군대에게도 군량을 공급해야 했다. 이 시기 소정방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662년 2월에 회군하고 말았다. 그러자 당나라 조정은 남아 있는 당군에게

신라에 들어가 신라에 기대거나 아니면 회군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자 모두들 회군하기를 원하였다. 이때 유인궤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나머지 끝까지 싸우기를 설득하여 당군은 유진을 결심한다.

662년 7월 벌어진 전투가 지라성(支羅城)·피윤성(皮尹城)·대산책(大山柵)·사정책(沙井柵)등에서의 전투이다. 이 지역들은 강동 지역의 요충지로서 지라성은 연기군 남면 라성리의 라성산성(羅城山城)이고, 사정책은 대전시 사정동의 사정동산성(沙井洞山城)에 비정되는데 진산(珍山)에서 대전을 거쳐 유성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된다. 나·당군에 의하여 일제히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들 산성은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 중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지라성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당군은 세작(細作)들을 이용하여, 성내의 방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을 간파한 후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불의의 공격을 당한 부흥백제군은 당군에 변변히 대적도 못하고 패배하여 큰 타격을 입게된다.

나·당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부흥군 내의 갈등이다. 복신은 도침을 살해하였는데 이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지라성을 빼앗기므로 보급로 차단이라는 커다란 작전에 차질을 가져왔고, 부흥군은 진현성(眞峴城)에 병력을 집중하여 특별 강화하였다. 진현성은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와 용촌리에 걸쳐 있는 흑석리산성(黑石里山城)에 비정되는데, 대전에서 연산에 이르는 고대 교통로의 요충지였다. 진현성에 주둔한 부흥군은 처음에는 나·당군을 잘 무찔렀지만 야간에 신라군이 기습 공격하자, 결국 함락되어 신라로 연결되는 통로를 빼앗겼다. 백제 부흥군은 다시 내사지성(內斯只城)을 근거로 하여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내사지성은 월평동(月坪洞) 성재에 있는 석축산성인 유성산성(儒城山城)이다.

부흥군이 내사지성을 근거로 하여 습격을 해오자, 신라는 대군을 일으켜 이 성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 군대를 지휘한 자들은 김유신의 동생인 흠순(欽純)을 비롯한 19명의 장군이었는데, 두량윤성 전투에 동원된 11명보다 많았다. 이는 신라가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과 아울러, 내사지성에 주둔한 부흥군의 규모도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흥군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사지성이 무너져 부흥군은 웅진 동쪽의 부흥군 거점성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663년 2월 부흥군에 호응한 남방제성(南方諸城) 가운데 중심적인 성들이라 할 수 있는 거열성(居列城)·거물성(居勿城)·사평성(沙平城) 등이 나·당연합군에 함락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신라군은 덕안성(德安城)을 공격하였다. 덕안성은 오늘날의

논산으로서 백제 5방의 하나인 동방(東方)의 방성이었으며, 당이 5도독부의 하나인 덕안도독부를 설치한 곳이기도 하다. 덕안성을 지키고 있던 군대는 신라군의 공격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107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함락되고 말았다.

덕안성이 함락되자 이와 보조를 같이하던 주변의 성들도 신라군에 격파되고 말았다. 이처럼 중요성들이 함락되자, 이제 남은 성은 주요거점인 주류성과 가림성, 임존성 등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당연합군의 본격적인 합동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부흥군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 첫 번째가 복신이 도침을 제거한 사건이다. 661년 3월 웅진강구 전투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치고 최고사령관 행세를 하던 도침에게 불만을 품은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자, 이번에는 풍왕과 복신 사이에 실권 쟁탈이라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풍왕은 새로운 왕도로 옮김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확실한 왕으로서의 권익을 차지하고자 피성(避城)으로 천도하려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사건 이후 풍왕의 입지는 좁아지고 반면 복신은 군사적 실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복신은 풍왕이 제사만 주관하는 왕으로 전락하자, 모반심을 품고 거짓으로 병든 체 하여 풍왕이 문병오는 것을 기회로 죽이려 하였으나, 복신의 음모를 사전에 눈치챈 풍왕에게 붙잡혀 죽었다. 복신을 죽인 후 풍왕은 고구려와 왜(일본)에 원군을 요청하였는데, 고구려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왜는 상모야군추자(上毛野君稚子) 등에게 2만 7천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병토록 하였다.

663년 8월 27일 백제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은 나·당연합군과 백강(白江)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당나라 병선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왜의 병선과 싸움에서 제·왜연합병선이 패배하고 말았다. 백강에서 수군의 전투가 벌어질 때 왕성인 주류성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투를 벌였으나 주류성마저도 함락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백강전투에서 패하자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이에 신하들은 싸울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주류성은 왕자 충승(忠勝) 등 고위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항복함으로써 이제 남은 성은 임존성 뿐이었다. 임존성은 지수신이 지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라군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를 잘 물리쳤다. 결국 신라군은 후퇴하고 당군이 싸움을 계속하였다. 당군이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으로 한때 이곳을 지켰던 흑치상지·사타상여를 앞세워 공격하자 결사항쟁을 했던 임존성마저 함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의 부흥운동도 막을 내리고 7년의 백제가 사라지고 만다.

제6절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와 연기군 남면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는 신라마저 정복하여 한반도 지배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고, 신라군과 당군은 한반도 지배권을 놓고 일전(一戰)을 벌이게 되었다. 문무왕 11년(671년) 신라군은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이곳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였으며, 문무왕 16(676년) 신라는 한강유역일대에서 당군과 싸워 당군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대체적으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의 땅을 점유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지방통치조직의 기반이 된 것은 주(州)·군(郡)·현(縣)이었다. 주(州)는 통일전에도 영토의 확장에 따라 차례로 설치되어 온 것이지만,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뒤에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포함하여 이를 9주로 정비하였다. 그 정비 시기는 다른 정치조직과 마찬가지로 신문왕 5년(685년)이었다. 9주는 오늘날 도(道) 크기의 규모이며 9주의 배치는 삼국의 고지(故地)에 3개씩 균등하게 하였다.

〈표〉 통일신라시대 9주와 군·현수

| 州名 | | 州治 (現地名) | 郡 數 | | 縣 數 | |
|-----|-------------|-------------|---------------|--------------------|---------------|--------------------|
| 原名 | 景德王時 改稱名 | | 『三國史記』 地理志 | 『三國史記』 景德王 16年條 | 『三國史記』 地理志 | 『三國史記』 景德王 16年條 |
| 沙伐州 | 尙州 | 尙州 | 10 | 10 | 31 | 30 |
| 歙良州 | 良州 | 梁山 | 12 | 12 | 40 | 34 |
| 菁州 | 康州 | 晉州 | 11 | 11 | 30 | 27 |
| 漢山州 | 漢州 | 廣州 | 28 | 27 | 49 | 46 |
| 首若州 | 朔州 | 春川 | 12 | 11 | 26 | 27 |
| 河西州 | 溟州 | 江陵 | 9 | 9 | 26 | 25 |
| 熊川州 | 熊州 | 公州 | 13 | 13 | 29 | 29 |
| 完山州 | 全州 | 全州 | 10 | 10 | 31 | 31 |
| 武珍州 | 武州 | 光州 | 15 | 14 | 43 | 44 |
| 계 | | | 120 | 117 | 305 | 293 |

위에서 예시한 바 있는 9주에서 연기군 남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웅주(熊州)이다. 이때 웅주의 속군은 13개, 속현은 29개현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속군으로는 대록군(大麓郡 : 천안 목천), 가림군(嘉林郡 : 부여 임천), 서림군(西林郡 : 서천), 이산군(伊山郡 : 덕산 부근), 혜성군(樞城郡 : 면천), 부여군(扶餘郡 : 부여), 임성군(任城郡 : 예산 대흥), 황산군(黃山郡 : 연산), 비풍군(比豐郡 : 회덕), 결성군(潔城郡 : 결성), 연산군(燕山君 : 문의), 부성군(富城郡 : 서산), 탕정군(湯井郡 : 온양) 등이다. 그리고 속현은 이산현(尼山縣)·청음현(淸音縣)·순치현(馴雉縣)·금지현(金池縣)·마산현(馬山縣)·한산현(翰山縣)·남포현(藍浦縣)·비인현(庇仁縣)·목우현(目牛縣)·금무현(今武縣)·당진현(唐津縣)·여읍현(餘邑縣)·신평현(新平縣)·석산현(石山縣)·열성현(悅城縣)·청정현(淸正縣)·고산현(孤山縣)·진령현(鎭嶺縣)·진동현(珍同縣)·유성현(儒城縣)·적오현(赤烏縣)·신읍현(新邑縣)·신량현(新良縣)·연기현(燕岐縣)·매곡현(昧谷縣)·소태현(蘇泰縣)·지육현(地育縣)·음봉현(陰峯縣)·기량현(祁良縣) 등이다.

이때 연기군과 관련이 있는 군·현은 연산군과 연기군, 그리고 전의·전동지역에 해당되는 금지현이며, 금남면은 웅주에 직접 예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州)의 장관을 문무왕 때에는 군주(軍主)로 부르다가 신문왕 때에는 총관(總管)으로, 원성왕 때에는 도독(都督)으로 개칭하였는데, 이와 같은 명칭의 변화는 주(州)장관의 임무가 군사적인 것에서 점차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주 밑에는 군이 있어 태수(太守)가 이를 통치하고 있고, 군 밑에는 현령(縣令)이 있었으며, 현은 다시 촌(村)·향(鄉)·부곡(部曲)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州)의 총관으로부터 현령에 이르기까지는 경관(京官)이 임명되었지만, 하급관리나 촌주(村主)는 토착 호족으로 임명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碑岩寺)를 들 수 있다. 비암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출토된 석불비상에 ‘계유년(癸酉年-673년)’이라 명기되어 있어 적어도 그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암사의 창건은 그 목적이 석불비상에 쓰여 있는 명문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다. 제작된 시기가 663년 주류성과 임존성이 함락되었는데, 계속해서 부흥운동의 여운은 남아 나·당연합군을 괴롭혔다. 이때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곧 이어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자, 이제는 한반도에

서 기득권을 놓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즉 신라는 신라대로,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갖기 위해 발빠른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 첫째로 신라는 사비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였고, 당나라는 웅진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백제유민에 대한 포용정책을 시도하였다.

백제유민들은 백제가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 부여융이 웅진도독으로 임명되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연기지역의 전씨(全氏)가 주동이 되어 목씨, 진 모씨와 함께 웅진도독 부여융을 찾아가 백제 전통에 대한 상의결과 연기지역에 절을 짓고 비상을 만들어 시납한 다음, 백제 국왕과 대신에 대한 제를 지내기로 결정한다. 이 때, 기회를 앞당기게 된 것은 당나라 유인원(劉仁願)이 신라 문무왕과 웅진 도독 부여 융과의 취리산(就利山) 동맹이다. 이는 당나라 척사 유인원의 계략으로 당나라가 주동이 되어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주선하므로, 자연스럽게 당나라가 신라 위인 것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한 묘책이었다. 그러나 백제 유민은 이를 계기로 백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백제왕 제사를 지낼 것이며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동맹의 맹세문에 삽입시킨다. 이로서 비암사의 백제 역대 왕 제사는 합법적인 제사로 진행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암사의 차건과 석불비상의 제작은 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 하여도 백제 유민에 의하여 만들어진 백제사찰과 백제 불상이 분명하다.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부여융을 도독으로 임명한 것이 백제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작전이었고, 신라 또한 발빠르게 백제인들에게 그에 맞는 직급을 줌으로써 신라에 협조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비암사에서는 3점의 비상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국보 106호로 지정된 계유명전 씨아미타불(癸酉銘全氏阿彌陀佛)에는 많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중 배면(背面)에는 신라관등인 내말(乃末)·대사(大舍)가 보이며, 혜명법사(惠明法師)·혜신사(惠信師) 등 승려이름이 있어, 이들이 창건 당시 승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비암사 주변인 서광암에서도 비상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들 두 비상의 명문을 종합해 보면, 우선 석상제작의 주요 인물이 전씨(全氏)·진모씨(眞牟氏)·목씨(木氏)와 같은 백제시대 대성과 달솔 같은 백제관등이 혼재(混在)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내말(乃末)·대사(大舍)·소사(小舍) 등의 신라 관등을

수여받고 있다. 이들이 지니는 신라 관등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 조정이 백제 유민들에게 수여한 것이다. 이들 중 백제의 달솔(達率)은 신라의 대내마(大奈麻), 은솔(恩率)은 내마(奈麻), 덕솔(德率)은 대사(大舍)를 수여받았다.

비상에 명기된 성씨 중 전씨(全氏)는 연기지역의 전의·전동과 같은 지명이 있듯 비암사 주변에 근거를 둔 성씨이다.

진모씨(眞牟氏)는 백제왕실에 왕비를 들여보냈던 왕의 세력에 버금가는 큰 세력을 가진 호족(豪族)이었다. 진씨들은 백제 초기부터 왕족 해씨(解氏)와 더불어 백제왕실과 혼인을 맺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다루왕때 진회(眞會)는 우보(右輔)로 등용되어 북부(北部)에 근거를 둔 바 있으며, 고이왕때 진충(眞忠)은 좌장(左將)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근초고왕때 진정(眞淨)은 조정좌평(朝廷佐平)이 되었는데, 그는 왕후의 친척이었다. 진사왕때 진가(眞嘉)는 달솔이 된 바 있고, 아신왕 때 진무(眞武)는 좌장까지 되었다.

백제가 서울을 웅진(熊津)으로 옮긴 다음에도 이들 진씨는 해씨와 함께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씨(燕氏) 세력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근왕때 연신(燕信)은 왕권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동성왕때 연돌(煙突)은 병관좌평(兵官佐平)에까지 올랐으며,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뒤인 성왕 때에도 연회(燕會)가 좌장에 등용되어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씨(木氏) 또한 전의 북쪽에 위치한 목천(木川)의 지명이 이들이 활동했던 근거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처럼 시대는 통일신라시대이지만, 그 정신은 백제 정신을 간직한 석불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비상은 비암사 일대에서 8기가 발견되었다.

제4장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연기군 남면

제1절 고려의 건국

신라는 내부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진골 중심의 사회의 6두품 출신들이 도전하였고, 지방에서는 호족세력들이 새롭게 대두 되었다. 이들 호족 세력들은 사상적 기반으로 선종(禪宗)과 유교(儒教)를 받아들여 사회 개혁의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호족들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여 신라에 대응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견훤(甄萱)과 궁예(弓裔)였다. 견훤은 상주지방 아자개의 아들로 군공(軍功)을 세워 비장(裨將)이 되었다가 혼란을 이용하여 완산주(完山州)를 장악, 신라 정부에 반기를 들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한편 궁예는 신라 하대의 왕위다툼에 희생된 왕족으로, 일찍이 중이 되었다가 세상이 혼란하여지자 양길(梁吉)의 부하가 되었다. 양길의 신임을 얻은 후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강원도 지방의 요지를 얻게 되자 양길에게서 독립하였다. 그 뒤에 세력을 경기도·황해도 일대에까지 확대하여 양길을 격파하고 효공왕 5년(901년) 고구려의 부흥을 구호로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송악(松岳)에 도읍을 정하였다. 궁예는 911년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泰封)이라 하였다.

왕건(王建)이 궁예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왕륭(王隆)때의 일이다. 왕륭은 송악의 호족으로 궁예에게 귀부(歸附)하여 금성태수(金城太守)가 되었으며, 왕건은 898년에 정기대감(精騎大監)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왕건은 궁예의 부장(部長)으로서 전공을 세워 기반을 쌓아 나갔다. 궁예의 명령을 받은 900년에는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靑州 : 淸州) 및 당성(唐城 : 南陽), 괴산(槐山 : 槐壤) 등의 군현을 쳐서 이를 모두 평정하였으며, 그 공로로 아찬(阿粲)이 되었다. 왕건은 계속해서 서남해 방면의 공략에도 공을 세워 이와 같은 전공(戰功)으로, 마침내 시중(侍中)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는 918년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의 추대로 폭군화된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

수(天授)라 하고 송악(松岳: 개성)에 수도를 정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한반도는 고려·신라·후백제의 쟁패장이 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기울기 시작한 국운을 회복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으니, 대결의 양상은 신라를 병탄하기 위한 고려와 후백제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즉 태조 3년 10월에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여 대량(大良 : 陝川), 구사(仇史 : 昌原)의 2군을 빼앗고 진례군(進禮郡)까지 침투하자, 신라에서는 아찬 김률(金律) 등을 보내어 고려에 원병을 청하였으며, 이에 왕건은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케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백제와 고려는 완전히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고려와 신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고려와 후백제가 균형을 이루었던 대치상태가 무너진 것은, 고창전투(古昌戰鬪, 태조 3년 930년)와 운주(運州: 洪城戰鬪, 태조 17년 934년)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전세는 고려에 유리하게 되었다.

한편 후백제는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神劍)에 의해 금산사(金山寺)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망명하는 국내적 혼란으로 점차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겨우 경주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게 되었으며(경순왕 9년, 태조 19년 935년), 그 다음해 후백제도 견훤을 앞세운 고려군에 의해 일리천전투(一利川戰鬪)에서 패배하여 항복하게 됨으로써,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되었다.(태조 19년, 936년)

여기에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함에 있어 우리 고장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려초에 우리 고장은 청주(靑州)의 속현인 연산군(燕山君)·목천(木川)·전의현(全義縣)·청주현(靑州縣)·청당현(靑塘縣) 범위 내에 있으며, 청주의 세력범위 안에 있었다. 앞의 서술에서처럼, 청주가 900년에 궁예에게 복속됨으로써 우리 고장 연기, 전의도 후백제에서 고려에 속하게 되었다. 궁예는 청주가 옛 백제지역이었던 역사·

지리적 배경으로 인하여 904년 청주민을 철원으로 사민(徙民)시켰다. 당시 사민은 집단 인질적 성격을 띤 것으로, 친족과 떨어져서 살게된 청주민들은 궁예뿐만 아니라 왕건에게도 상당한 반감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 태조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순행(巡幸)과 축성(築城)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통일 후에도 확장된 관할구역을 정치적으로 인정하여 청주(靑州)로 개명하였다.

또 한편으로 태조의 건국기에 태조와 함께 했던 우리고장 인물로 이도(李棹)를 들

수 있다. 이도는 원이름이 이치(李齒)였다. 선대부터 공주의 금강변에 거주하면서 대대로 금강나루에서 나룻배를 운영하였다. 왕건이 금강 건너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금강에 도착하였을 때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게 되자, 이치가 스스로 왕건에게 자신의 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고려군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며 방심했던 견훤군을 크게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이치가 노를 저어 도와 주었기에, 그 뜻이 담긴 ‘도(棹)’라는 이름을 하사하였고, 그때부터 이치(李齒)를 이도(李棹)라 불렀으며, 통합삼한개국익찬공신 2등(統合三韓開國翊贊功臣 二等)에 기록하고 전의후(全義候)에 봉했다.

이도가 이름과 공신호를 하사받은 시기는, 『고려사』의 기록에 ‘940년(태조 23)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그 안에 공신당(功臣堂)을 설치하여 삼한공신을 동·서 양벽 위에 그려 붙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에서 신흥사에 공신당을 설치한 940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벼슬이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이르렀고 시호는 성절(聖節)이며, 묘는 전의면 유천리에 있다.

제2절 집권체제의 정비

태조는 자신이 호족 출신으로서 호족출신의 제장(諸將)들에 의하여 고려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호족들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독자적인 무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반독립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태조는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호족들을 회유 억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태조는 저항하는 호족세력들을 억압하는 한편, 호족들과의 타협과 연합을 통하여 왕권을 안정시켜 나갔다. 이러한 태조의 정권을 우리는 호족연합정권(豪族聯合正權)이라 부른다.

태조의 대호족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가 결혼정책(結婚政策)으로 6명의 왕후(王后)와 23명이 후비(后妃)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을 통하여 호족들과 외척관계를 맺어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을 회유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로는 사성정책(賜姓政策)으로 유력자들에게 왕씨(王氏)의 성을 내려서 의제가족(擬制家族)으로 관계를 강화하였다. 셋째는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와 기인제도(其人制度)로 사심관제도는, 그 지방 출신의 유력자를 사심관으로 삼아서 그 지역의 호족세력들을 무마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인제도는 지방호족의 자제를 경성(京城)에 인질로 머무르

게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호족들에게는 중앙진출의 기회가 되었고, 중앙에서는 이를 통하여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 넷째로는 서경(西京)의 경영을 통하여 왕실의 독자적 세력을 키워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태조는 민심수습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취하는 등 꾸준히 왕권 확립에 노력하였다.

태조의 뒤를 이어서 혜종(惠宗)이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왕권은 강력하지 못하여 왕규(王規)의 난이 일어났으며, 3대왕인 정종(定宗) 때에도 개경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의 근거지인 서경으로의 천도를 단행하려 한데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왕권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정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종(光宗)은, 즉위 7년 동안 호족 세력들을 무마하면서 왕권을 안정시켜 나아가다, 어느 정도 왕권의 토대가 잡히자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조치들로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과거제도(科擧制度), 백관(百官)의 공복제정(公服制定) 등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고, 광종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11년에 스스로 칭제건원(稱帝建元)하고,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서경(西京)을 서도(西道)로 칭하였다.

당시의 불교도 광종의 왕권강화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균여(均如)의 화엄사상(華嚴思想)의 입장에서 법상종(法相宗)을 융합시키려는 ‘성상융합(性相融合)’ 사상은 광종의 전제정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실을 하였다.

고려는 태조에서부터 광종에 이르러 비로소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는 등의 중앙집권제의 정비를 이룰 수 있었다.

제3절 귀족사회의 성립

성종때에 들어와서 고려는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을 중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로(崔承老)였다. 최승로는 왕의 측근세력으로 성종의 명에 의하여 시무책(時務策) 28조를 올렸고, 이는 직접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 시무책은 성종대의 국가 체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무책의 내용은 현재 22개조만 알려지고 있으나, 대체로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고려 왕조가 내세우는 기본 체제와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종대에 이르러 고려사회는 역대 왕들이 구축하여 온 토대 위에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서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나아가서 사회안정을 이루어 귀족사회를 성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절 고려귀족사회의 사회제도

1. 중앙의 정치제도

고려의 정치제도는 성종2년(983)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 30년 (1076)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본래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나라 제도를 채용하여 3성 6부제가 중심이 되었으나, 성종때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를 두었으며, 이외에 도병마사(都兵馬使)와 무목도감(武目都監)은 고려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 고려의 독자적 제도 등이 잘 조화된 제도였다.

2. 지방행정 조직과 연기군 남면

고려의 조정이, 상주하는 외관(地方官)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부터인데, 우리 고장 연기는 12목 중에서 청주(淸州)와 공주(公州)에 일부가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려의 지방제는 성종 14년(995년)에 다시 크게 변하게 된다. 이 때에 개주(開州)는 개성부(開城府)로 개칭되어 10도제(道制)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12주목(州牧)은 12군(軍)으로 개편되는 한편, 지방관도 절도사(節度使)로 바뀌었다. 이때의 각 도·주·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각 도·주·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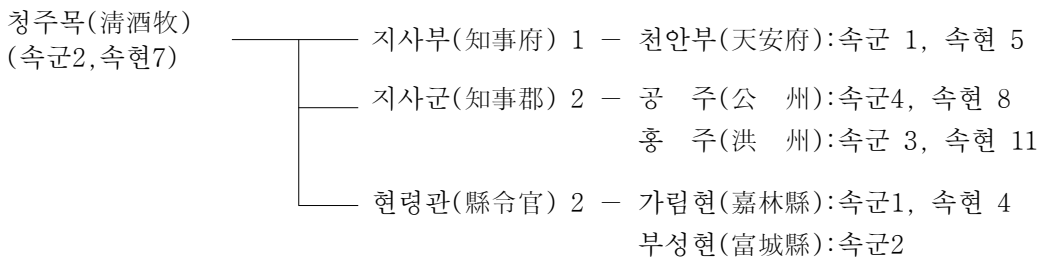
| 10道 | 12州 節度使 | 소관 주·현의 수 |
|------------------------|---------------|--------------|
| 관내도(關內道-경기·황해) | 양주(楊洲)·광주(廣州) | 29주 82현 |
| 중원도(中原道-충청북도) | 충주(忠州)·청주(淸州) | 12주 42현 |
| 하남도(河南道-충청남도) | 공주(公州) | 11주 34현 |
| 강남도(江南道-전라북도) | 전주(全州) | 9주 49현 |
| 영남도(嶺南道-경상북도 일부) | 상주(尙州) | 12주 48현 |
| 영동도(嶺東道-경상남도 일부) | | 9주 48현 |
| 산남도(山南道-경상남도 일부) | 진주(晋州) | 10주 37현 |
| 해양도(海陽道-전라남도) | 나주(羅州)·승주(昇州) | 14주 62현 |
| 삭방도(朔方道-강원도 및 함경남도 일부) | | 7주 62현 |
| 패서도(溍西道-평안도) | | 14주 4현 7진(鎭) |

여기에서 연기군 남면은 중원도(中原道)에 속하여 있었으나, 남쪽의 일부는 하남도(河南道)에 속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시 지방제도는 현종 9년에 72도(道) 안무사(按撫使)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두었다가, 마침내 5도양계(道兩界)·4도호(都護)·8목(牧)·15부(府)·129군(郡)·335현(縣)·29진(鎭)의 제도가 되었다.

〈표〉 5도양계·4도호·8목·3경 표

| 5도(道) 및 양계(兩界) | 4도호(都護) | 8목(牧) | 3경(京) |
|-------------------------------------|------------------------------|----------------------|-------------|
| 양광도(楊廣道: 경기 및 충청) | |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 | 남경(南京: 현서울) |
| 경상도(慶尙道: 지금과 같음) | | 진주(晋州)·상주(尙州) | 동경(東京: 현경주) |
| 전라도(全羅道: 지금과 같음) | 안남(安南:全州 뒤에 樹州 지금의 富平으로 옮겼음) | 전주(全州)·나주(羅州) | |
| 교주도(交州道: 강원도 일대) | | | |
| 서해도(西海道: 황해도) | 안서(安西: 海州) | 황주(黃州) | |
| 동계(東界: 東北面이라고도 칭하는바 강원도 일부 및 함남 일부) | 안변(安邊) | | |
| 북계(北界: 西北面이라고도 칭하는바 지금의 평안도) | 안북(安北: 安州) | | 서경(西京: 현평양) |

위에서 연기군 남면은,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지방통치조직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여러 군현 중 외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이 속현(屬縣)을 직할하도록 하였는데, 외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의 수가 많으므로 이를 14개 정도의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이 계수관(界首官)이 되어 관할케 하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기에 도제(道制)의 발달 미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도(道)의 장관인 안찰사(按察使)는 전기까지는 중간 기구로서의 역할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권56, 지리지2, 청주목조를 통해 우리 고장의 영속관계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청주(淸州)의 속군(屬郡), 속현(屬縣) 관계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청주의 속군·속현

| 時期 地名 | 本 | 신라 경덕왕 | 고려초 | 후 | 성종14년 | 현종9년 |
|----------|------------|---------------------|-----------------|-------------|---------------|------|
| 연산군(燕山君) | 일모산군(一牟山郡) | 연산군(燕山君) | 來屬 | | | |
| 목주(木州) | 대목악군(大木岳郡) | 대록군(大麓郡) | 목주(木州) -래속 | | | |
| 진주(鎭州) | 금물노군(今勿奴縣) | 흑양군(黑壤郡) | 강주(降州) | 진주(鎭州) | 置刺史 穆宗8年罷之 | 래속 |
| 전의현(全義縣) | 구지현(仇知縣) | 금지현(金池縣) -대록군 영현 | 전의현(全義縣) -래속 | | | |
| 청주현(淸州縣) | 살매현(薩買縣) | | 청주현(淸州縣) -래속 | | | |
| 도안현(道安縣) | 도서현(道西縣) | 도서현(道西縣) -흑양군 영현 | 도안현(道安縣) | | 래속 | |
| 청당현(靑塘縣) | 청연현(靑淵縣) | | 청당현(靑塘縣) -래속 | 置監務 兼任道安 | | |
| 연기현(燕岐縣) | 두잉지현(豆仍只縣) | 연기현(燕岐縣) -연산군 영현 | | | 래속 | |
| 회인현(懷仁縣) | 미곡현(未谷縣) | 매곡현(昧谷縣) -연산군 영현 | 회인현(懷仁縣) | | 래속 | |

요컨대 우리 고장은 청주목의 속현으로, 이중 전의현과 연기현이 고려시대에 우리 고장에 해당된다.

고려에서는 군·현 아래에 향(鄉)·부곡(部曲)·소(所)와 장(莊)·처(處)등의 특수 행정조직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 중 향(鄉)과 부곡(部曲)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반면, 소(所)는 금·은·동·철 및 종이, 자기(瓷器) 등을 생산하던 곳이었다. 장(莊)·처(處)는 왕실을 비롯하여 궁원(宮院)과 사원(寺院) 등이 지배한 일종의 장원(莊園)이었다. 고려시대 우리 고장에 있던 향·소·부곡 및 장·처를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알아보면, 먼저 전의현(全義縣)에는

| 구 분 | 명 칭 | 위 치 | 전 거 |
|-----------|------------|---------------|---------|
| 향(鄉) | 대부향(大部鄉) | 현 북쪽 6리 | 동국여지승람 |
| 소(所) | 자기소(磁器所) | 현 서쪽 망현리(망현리) | 세종실록지리지 |
| | | 현 남쪽 송현리(송현리) | |
| | 도기소(陶器所) | 현 서쪽 금동리(금동리) | |
| 부곡(部曲) | 덕평부곡(德平部曲) | | 세종실록지리지 |
| 장(莊)·처(處) | 가을정처(加乙井處) | 현 북쪽 5리 | 동국여지승람 |

※ 여지승람에는 덕평부곡이 덕평향(德平鄉)으로 되어 있음. 행정상으로는 청주목에 속하여 있었으나 실제의 위치는 전의현 내 월입(越入)하여 있었음.

연기현(燕岐縣)에는

| 구 분 | 명 칭 | 위 치 | 전 거 |
|--------|------------|---------------|---------|
| 부곡(部曲) | 토흥부곡(土興部曲) | 현 북쪽 13리 | 동국여지승람 |
| 소(所) | 연천소(鸞川所) | 현 남쪽 10리 | 동국여지승람 |
| | 자기소(磁器所) | 현 북쪽 요혜방(要惠方) | 세종실록지리지 |
| | 도기소(陶器所) | 현 북쪽 요혜방(要惠方) | 세종실록지리지 |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소·부곡 및 장·처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도 촌락의 형태를 이루고 살았다고 보여지며, 대체로 특수한 신분(천민)의 집단생활지였다. 한편 일반 군현민의 생활단위 역시 그 말단은 촌락이었고, 촌정(寸政)의 담당자는 촌장(村長), 촌정(村正)

이었으며, 이들은 향촌에서의 유력자였다. 이들 향리(鄕吏)와 촌장(村長) 등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각 촌락은 일성일촌(一姓一村)을 원칙으로 하는, 같은 성씨가 몰려사는 혈연적 동족집단인 동시에 지역적 촌락공동체였던 것 같다. 고려시대 우리 고장의 성씨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縣 姓 | 연기현 | 전의현 | 전거 |
|--------|--------------------------|-----------|---------|
| 토성(土姓) | 위(魏)·하(河)·전(全)·경(耿)·장(叢) | 이(李)·유(兪) | 세종실록지리지 |
| 래성(來姓) | 왕(王) | | 〃 |
| 속성(續姓) | 김(金)·강(康) | | 〃 |
| 망성(亡姓) | | 하(河) | 〃 |
| 차성(次姓) | | 김(金) | 〃 |

여기에서 토성(土姓)은 고려초 각 지방의 구획 당초부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까지 그 지방에서 토착하면서 그곳 지명을 본관으로 하는 지배적 성씨집단을 가리킨다. 이들 토성은 지방의 향리들이 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유력자들이었다. 래성(來姓)과 속성(續姓)은 고려초에 토성이 분정된 뒤, 그 토성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성씨가 보충된 것에서 래성 또는 속성이라 하였다. 망성(亡姓)은 망토성(亡土姓)과 같은 뜻으로, 종래의 토성이 소멸되거나 타지로 이주하여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이미 그곳에는 없던 토성을 가리킨다.

이는 전의현의 하씨(河氏)와 같은 경우로 고려 때에는 있었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미 우리 고장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성씨이다. 차성(次姓)은 토성이 성립된 후에 나타난 성씨이다. 그러나 차성이 래성 및 속성과 다른 점은 래성 및 속성이 형성시기의 시간적 순서로 토성과 구분되어지는데 반하여, 차성은 성칭(姓稱)의 신분적 상하 우열 관계에서 나왔다는데 다른 점이 있다. 즉 전의현의 차성 김씨(金氏)는 타 성씨에 비하여 신분적으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기현의 토성인 위(魏)·하(河)·전(全)·경(耿)·장(叢)은 그 후 소멸되거나 타지로 이주하였고, 속성인 김(金)·강(康)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자손을 퍼트려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3. 고려시대 연기군 남면의 교통과 통신

고려시대 교통과 통신제도로는 역참제(驛站制)를 들 수 있다. 역참은 정령(政令) 및 공보(公報)의 전달과 군사적 연락 및, 지방 파견 관원의 체송(遞送)과 물자수송 등을 맡았다. 역은 교통량과 군사 및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 3등급으로 구별하여, 토지를 지급하여 경비로 삼았다. 역의 정호(丁戶)로 각 역을 6과(科)로 나누어 역정(驛丁)을 차등 배정하였다. 또한 역마(驛馬)에 있어서도 일정 수의 관마(官馬)가 비치되어 수요에 응하였다. 한편 역을 통한 고문서의 전달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외방 주부(州府)에 보내는 공문서를 먼저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하면, 상서성에서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 수역(首驛)인 청교역(靑郊驛)에 보내고 공문서는 가죽주머니(被袋)에 넣어 역졸(驛卒)이 릴레이식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용건의 완급에 따라서, 3급(急)은 3령(鈴)을 달고, 2급은 2령을 달고, 1급의 경우에는 1령을 달았다.

역참의 계통은 전국 역로의 간선이 22도(道)에 역참의 수가 525개에 달하였다. 우리 고장 연기와 전의에는 연산역(燕山驛)과 금사역(金沙驛), 포곡역(蒲谷驛) 등을 합하여 3개의 역참이 있었는데, 이들 역은 역로상으로는 충청주도의 34역 중의 하나였다.

제5절 무인정권기의 연기군 남면

1. 무인정권의 성립

전기 귀족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이자겸(李資謙) 일파에 의한 한안인(韓安仁)·문공미(文公美) 등의 수청사건이 그 하나인데, 이는 보수적인 집권세력에 대한 지방 향리 출신과, 신진관료와의 대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둘째로는, 이자겸의 남으로 이자겸이 인종에게 두 딸을 주어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장악한 후, 인종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가, 그

의 일당인 척준경(拓俊京)에게 쫓기어 귀향을 가게 된 사건이다. 이는 고려 전기의 귀족사회가 붕괴되는 발단이 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는, 묘청(妙淸)의 난을 들 수 있는데, 묘청 일파의 서경 세력들에 의한 서경천도운동이 개경세력이었던 김부식(金富弼) 일파의 반대에 의하여 실패한 사건이다. 이는 개경 중심의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문벌귀족세력에 대한, 서경 중심의 자주적 혁신정치세력의 대립이었다.

이와 같이 귀족사회 내부의 갈등 노출은 전기 귀족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무인(武人)의 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신의 난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귀족사회의 대문신정책(對武臣政策)의 모순과, 무신들이 전기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지위가 성장했음에도 현실적 차별을 받는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어 졌다.

이러한 사정은 의종 24년에 무신난으로 폭발되었다. 즉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 등이 왕이 보현원(寶賢院)에 놀러갔을 때 문신들을 살해하고 의종을 폐한 후 명종을 옹립하고, 정부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정권을 잡아 무인정권을 수립하였다.

무인정권은 정치적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정중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최충헌(崔忠憲)이 이의민(李義旼)을 제거할 때까지의 명종 일대기로, 처음 정권에 참여한 정중부·이의방·이고 등은 중방(重房)을 통하여 공동으로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의방은 이고를 죽이고 권세를 부리다가 정중부에게 살해되었고, 정중부 또한 청년 장군 경대승(慶大升)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그러나 경대승의 정중부 살해는 무인들을 두렵게 하여 그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게 되었고, 경대승은 도방(都房)이라는 사병(私兵) 집단으로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다. 경대승이 발병하여 죽자, 그를 피해 경주에서 은신해 있던 이의민이 상경하여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의민도 최충헌·최충수(崔忠粹) 형제에게 살해되었다. (명종 26년, 1196년)

이 때에 우리 고장과 인접한 지방의 사람으로 무인의 난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기록에 나타나는 사람은 진준(陳俊)이다. 그는 청주 여양현(呂陽縣) 사람으로 무인난에 가담하였지만, 문신들에 대하여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경진(慶珍)·경대승(慶大升) 부자로 고려사에 청주인으로 쓰여 있어 청주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우리 연기와 가까운 곳인 것만은 틀림없다.

두 번째는, 무인정권이 확립된 시기이다. 이때는 최충헌과 최충수가 이의민을 살

해하고 정권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최우(崔瑀)·최항(崔沆)·최의(崔瑄)에 이르기까지 최씨집권기로 이때부터 문신(文臣)이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붕괴기로 고종 45년 유경(柳暉), 김준(金俊) 등이 최의를 주살함으로써 최씨의 정권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되어 무인정치는 일단 종식되었지만, 원종 9년 김준이 임연(林衍)에게 타도되고, 임연의 병사로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임희무(林惟茂)가 홍문규와 송송례에 의하여 주륙당하기까지는 계속된다. 이에 왕정은 복구되고 100년간 지속된 무인정권은 끝나게 된 것이다.

2. 농민·천민의 난과 연기군 남면

고려귀족사회가 성숙되어갈 즈음해서, 권세가들의 횡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회 하층인들의 동요가, 무신난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난들은 대부분 복고적 성격의 정치적 난과는 달리,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일어난 순수한 민란적 성격을 띤다. 특히 민란이 명종·신종때의 30년 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무신난 이후 집권 무인들이 과중한 수탈을 감행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져 동요를 일으킨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로는, 사회하층 계층 세력들의 민중의식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신난 후 사회 하층계층인들이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하층민들의 신분의식에 자극을 주게 되었다. 또한 이는 초기 무인정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출신 성분에서도 확인된다. 즉 진준(陳俊)·홍중방(弘仲方)·이광정(李光挺) 등이 낮은 군인 신분이었고, 조원정(曹元正)은 그의 아버지가 옥공(玉工)이고, 어머니와 상모(相母)는 관기(官妓)였던 천민이었으며, 기타 이영파(李英播)·석린(石隣)·박순필(朴純弼)·정방우(鄭邦佑)·최세구(崔世構) 등이 미천한 출신이었고, 이의민 또한 천민 출신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고위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사실은 당시 하층계층에게까지 신분의식에 자극이 되었음은 필지의 사실인 것이다. 셋째는, 무인정권의 형성기로 명종과 신종때는 사회적 혼란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였으므로, 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민란은 서북면에서부터 발생하였다. 명종 2년(1172년) 서북계의 창주(昌州)·성

주(成州)·철주(鐵州)의 3주의 백성들이 수령의 탐학과 주구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으며, 4년(1174)에는 조위충(趙位寵)의 난이 있었다. 남도의 민란은 명종 6년(1176년)의 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의 난이 일어나 크게 확산되었다. 명학소의 반란군이 공주를 함락하자, 조정에서는 관군을 파견하여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망이 등을 회유하고자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켜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망이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예산현(禮山縣)을 공격하였다가, 조정의 진압군에 일단 항복하여 향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재차 반란을 일으켜 명종 7년 2월에는 가야사(伽耶寺; 德山), 황려현(黃驪縣; 驪州), 진주(鎭州; 鎭川)을 함락시키고, 3월에는 홍경원(弘慶院; 稷山)을 약탈하고, 4월에는 아주(牙州; 牙山)까지 공략하여, 청주 내의 군현은 모두 이들에게 함락되고 오직 청주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7월에 남천처치병마사(南賤處置兵馬使) 정세유(鄭世猷)에 의하여 망이·망소이 등이 체포되어 청주옥에 갇히게 되고, 1년 7개월만에 난이 평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우리 고장 연기도 청주의 속현으로, 망이·망소이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명학소는 공주의 동쪽으로, 지금의 유성 근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 난의 성격은 소(所)라는 천민집단의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외의 각종 민란으로는 명종 12년 영성(營城:옥천), 부성(富城;서산)의 난, 전주에서 일어난 기두(旗豆)와 죽동(竹洞)의 난, 명종 23년 운문(雲門:청도)의 김사미(金沙彌)의 난, 초전(草田:울산)의 효심(孝心)의 난을 들 수 있다. 또 신종 원년 5월에 일어난 최충현의 사노 만적(萬積)의 난은, 노비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일어난 것으로써 이때 만적이 한 말은 당시 백성들의 신분에 대한 의식과 성장을 엿볼 수 있다. 즉 “국가에 계해(癸亥)의 난 이래로부터 귀족들이 천예(賤隸)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인가? 때가 온즉 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천적(賤籍)을 불살라 삼한으로 하여금 천인이 없게 한즉 공경장상(公卿將相)도 우리들의 무리가 다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외에도 고종조에 민란은 수 차례 더 있었다.

이상과 같은 민란을 통하여 고려사회는 사회하층계급의 실제적 성장과 의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신분사회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어 후대 신분제도 발달에 자극제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민란은 구질서를 타파하려는 역사적으로 전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고려라는 구질서 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하는

원동력의 구실을 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민란과 우리 고장의 관계는 특히, 공주 명학소의 난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공주에서 청주까지 난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우리 고장도 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6절 몽고의 침입과 연기군 남면

고려가 몽고와 최초로 접촉을 가지게 된 것은, 몽고군에 쫓기어 고려의 영내로 들어온 거란인을 강동(江東)에서 몽고와 함께 협공하던 때부터였다.(고종 6년, 1219) 이를 계기로 합진(哈眞)·찰자(札刺) 등이 성길사한(成吉思汗)의 명을 받아, 고려에 대하여 거란 유종(遺種)이 침입을 제거하여 주는 대신에 첫째, 고려에 대하여 세공을 바칠 것과 둘째, 여·몽 양국은 형제가 된다는 조건으로 화호(和好)를 맺었다. 그러나 그 후 몽고의 지나친 요구는 고려인의 반발을 낳게 되어,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여 사이가 나빠졌다. 이러한 때 몽고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고려로부터 귀국 도중에 살해되는 일을 구실로 고종 18년(1231)에 제1차 침입을 하게 되었다.

1. 몽고의 제1차 침입

몽고군은 철례탑(撤禮塔)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고려 반적 조숙창(趙叔昌)·홍복원(洪福源)등을 앞세우고 북방제군(北方諸郡)을 침입하였으나, 귀주(龜州)에 이르러 정주분도장군(靜州分道將軍) 김경손(金慶孫)과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박서(朴犀)의 강력한 저항으로 귀주를 버려둔 채 남하하여 수도 개경을 포위하는 한편, 별동부대를 다시 남하시켜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의 제성을 공격케 하였다. 철례탑은 안북부(安北府)를 점령, 이곳에 본영을 두고 주둔하였고, 그 이남 지역의 작전에 종사한 것은, 그 휘하의 반도(潘桃)·적거(迪巨)·당고(唐古) 등이었다. 시기는 엄동설한이라서 적군에게 포위를 당한 수도의 인심이 흉흉하여, 마침내 고종은 적의 권항사(勸降使)를 인견하기로 결정하고, 또 왕족 회안공(淮安公) 정(挺)을 적의 주장인 철례탑의 본영이 있는 안북부로 보내어 두 나라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때 몽고는 저고여를 암살한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강 건너 금나라 사람의 소행이라 변명하고 대신 몽고에게 황금 70근, 백금 1300근, 유의(襦衣) 1천령, 말 170

필을 내고 또 철레탑 이하의 장수들에게는 각기 황금, 백금, 금기(金器), 은기(銀器), 세포(細布), 수달피, 혁안마(革安馬) 등을 분증(分贈)하였다. 이에 철레탑은 72인의 다루가치를 두어 감시하게 하고, 고종 19년(1232년)에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2. 몽고의 제2차 침입

몽고의 1차 침입 이후, 몽고의 요구가 더욱 가중되어 최우(崔瑀)가 도읍을 강화로 옮기고, 몽고와 항쟁을 결심하는 등 적극적인 항몽정책을 취하자, 이것이 몽고를 자극하여 재차 철레탑에 의한 침입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몽고군은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다가 처인부곡(處仁部曲:용인)에서 철레탑이 김유후(金允侯)에게 살해되어 부장 철가(鐵哥)가 패잔병을 이끌고 철수하였다.

3. 몽고의 제3차 침입

고종 22년(1235년) 윤7월부터 동왕 22년(1235년) 4월까지, 약 5년에 걸친 것이다. 3차 침입시 몽고 장군은 당고(唐古)였으며,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전쟁은 충청 일원에서 행하여졌다. 이때의 주요 전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고종 23년(1236년) 8월 정미(丁未)에는 몽고군사 100명이 온수군(溫水郡:온양)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차현(車峴)으로 나아갔으며, 무술(戊戌)일에는 남경(南京)·평택(平澤)·아주(牙州)·사양창(詞陽創) 등에 나누어 주둔을 했고, 동년 9일 정사(丁巳)에 몽고군사가 온수군을 포위하므로 군리(郡吏) 현려(玄呂) 등이 문을 열고 출전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몽고 군사가 전주(全州) 고부(古阜)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계축(癸丑)일에는 부령(扶寧:부안) 별초 의업(醫業) 거인(舉人) 전공렬(全公烈)이 부여 고란사(高蘭寺)의 산로에 복병하였다가, 몽고인 20여기(騎)를 쳐서 2명을 죽이는 승리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무자(戊子)에는 야별초 박인걸(朴仁傑)등이 공주 효가동(孝加洞)에서 몽고군사를 맞아 싸웠다. 25년 윤4월에는 몽고군사가 동경(東京:경주)에 들이닥쳐 황룡사탑(皇龍寺塔)을 불살랐으며, 이해 12월에 고려는 장군 김보정(金寶鼎)과 어사 송언기(宋彦琦) 등을 보내어 강화를 요청하여, 고종 25년(12238) 12월에 국왕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화의가 성립되고, 26년 4월에 몽고

군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국왕의 친조의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입조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중한 고려 끝에 왕황(王皇)의 상중임을 이유로, 왕족 신안공(新安公) 전(佺)을 왕의 친동생이라 하여 몽고에 보냈으며, 이것이 왕족이 몽고에 처음 가게 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전쟁은 잠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몽고의 3차 침입은 고려에 있어서 신라 이래의 국보인 황룡사의 소실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도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였다. 우리 고장 연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전쟁이 행하여짐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몽고의 제4차 침입

고려 고종 33년(1246)에 몽고 내부의 오랜 황위계승의 분규가 해결되고, 귀유(貴由)가 즉위하여 정종(定宗)이 되었다. 정종은 즉위한 그 다음해에, 고려가 국왕의 친조를 실시하지 않고, 강도로부터 출륙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주장아모형(阿母??)을 앞세워 제4차의 침입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이 지금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만 행하여졌을 뿐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몽고 본국에서도 정종이 사망(고종 35년, 1248)하게 되자, 곧 철수하였다.

5. 몽고의 제5차 침입

정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몽고의 헌종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왕의 출륙과 친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는 고종 39년(1252년) 정월에 몽고에 사신을 보내어 동년 6월 출륙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몽고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왕의 출륙 영접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무인집권자였던 최항의 반대에 부딪쳐서, 신안공(新安公)이 대신 출륙, 사신을 영접하였으므로 몽고의 사신은 왕이 출륙치 않은 것을 비난하며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고종 40년(1253년) 여름에, 몽고는 주장 예구(也古)를 앞세워 5차 침입을 하였다. 고려정부는 이미 충분한 각오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보충하고 방어체재를 갖추었다. 이러한 준비는 큰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인 것은 충주성 싸움으로, 고려장군 김윤희는 70여일 동안 이 성을 지키면서 몽고군 진격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몽고군이 300여기의 선발대를 앞세우고, 충남지방을 거쳐 전주성까지 침입하였다. 이때에 별초지유(別抄指諭)인 이주(李柱)는 전주성 남쪽 반석역(班石驛)에서, 적병 300여명을 사살하고 군마 20필을 노획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고려의 치열한 항전에도 불구하고, 몽고군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왕의 친조를 요구하였다. 고려도 계속 버티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이에 고종은 마침내 강도(江都)에서 나와, 대안인 승천부(昇天府) 새 궁궐에서 예구(也古)가 보낸 군사를 접견하였고, 왕의 친조 대신 제2왕자인 안경공(安慶公) 창(淸)을 입조시켰다. 이같은 왕의 출륙과 왕자의 입조는, 고려 왕실과 몽골과의 직접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무인정권에 대한 왕권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몽고의 5차 침입시에도, 몽고군이 충청도를 지나 전주까지 내려간 것에서, 또다시 우리 고장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스쳐 지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몽고의 제 6차 침입

몽고는 왕의 출륙과 왕자의 입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개경(開京)으로 환도하여 완전히 항복한 실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종 41년(1254)에 차라대(車羅大)로 하여금 다시 고려를 침입하게 하였다. 그의 침입은 6년 간에 걸쳐 4차례 시도되었는데, 몽고군의 선봉대는 경기도·충청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진격하여 전국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는 몽고가 침입한 이래 가장 큰 피해였다. 그러나 몽고군도 괴주(槐州:괴산)·충주·상주 등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종 42년 봄에 일단 철수하여, 9월에 다시 침입해 왔다. 이때 몽고군은 평안도·황해도·경기도·충청도 지방을 유린하였고, 전라도 지방의 영광·담양·해양(海陽:광주)·나주 등지까지 침략해 들어왔다. 몽고군도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충주·온수·영광·인천 등지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특히 충주 근처의 다인철소(多仁鐵所)에서는, 천민들에 의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에 9월 황제의 명령으로 철수하였다가,

고려가 국왕의 친조와 정부의 출륙 환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춘례(春例)의 공물(貢物)을 정지하자, 고종 44년(1257) 6월에 차라대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황해도·경기도·충청도 등지를 약탈하는 한편, 종래의 요구를 계속하였다. 한편 고려 내에서도 최씨 무인정권이 김인준(金仁俊)·임연(林衍) 등에 의해 붕괴되어 왕정이 복구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권은 무인인 김인준과 임연등 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수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더 이상 항전할 능력이 부족하여진 고려는, 고종 46년(1259)에 개경 환도와 태자의 입조를 약속하고 몽고와 강화하였다. 이로써 6차에 걸친, 30여년 동안의 몽고와의 지루한 전쟁은 그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서 겪은 고려 백성들의 생활은 참혹한 것이었다. 정부의 임전태세는 졸렬하고, 소극적이며 무책임하였다. 즉 백성들에게 산성(山城)과 해도(海島)에 입보(入保)할 것을 명하였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구호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강화도 수비를 위해서는, 성곽 구축과 요새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엄중히 방비하는 한편, 그들의 생활은 개경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 강도의 정부는 본토의 조세나 공물을 서해의 해상로를 통하여 강도로 수송하여, 그들의 사치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은 몽고와 강도의 정부에 의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려사회의 기층이었던 농민과 천민들은 분연히 외침에 항전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즉 고려가 침략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의 저항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를 영도하는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까닭이다.

몽고의 6차례 침입으로 우리 고장 연기(燕岐)도 전쟁이 북쪽에서 머무른 2차와 4차의 침입을 제외하고는, 몽고와의 전쟁에서 주 전투장이 되었고, 당시 이 고장의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7절 합단(合丹)의 침입과 연기대첩

고려는 북방의 몽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격을 당하여 치열한 항몽전을 수행하다가 끝내 원나라에 복속되었다. 삼별초군이 진도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항몽전을 수행한 것까지 따진다면, 40여년 간의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막대한 것이었다.

충렬왕은 1274년 원나라 수도에서,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고 곧 귀국하여 왕위에 오름으로써, 이후 고려왕과 원 황실과 혼인관계를 관례화 시키게 된다. 동시에 왕실 용어의 격하, 관제의 개정 등을 통하여 원의 정치적 간섭은 공식화되었다. 더군다나 원나라는 영토 확장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2차에 걸친 일본 정벌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의 강력한 저항과 태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전쟁 물자만 잃게 된다. 이 때, 원나라는 일본 정벌에 있어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함선과 군량미를 모두 고려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고려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고려인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농사에 종사해야 할 장정들이 일본 정벌에 강제 징집되어 영농 시기를 놓침에 따라, 수년간 흉작이 연이어지는 등 고려의 경제 상황은 실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때 원나라에 반기를 든 합단적이, 원세조의 손자 티무르(후에 성종) 군대에 의해 만주의 토오르강 부근에서 격파되어 밀리다가, 1290년(충렬왕 16)에 고려의 동북 변경으로 침입하였다. 합단적의 침입은 고려 정부로서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합단적의 흉포함과 잔혹함이 『고려사』에 전하기를 “합단군 수만이 화주(和州)·등주(登州) 등을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여 양식으로 하였으며, 부녀자들을 윤간한 다음 포(脯)를 떼다.” 고 하였으니 그 잔혹함을 가히 짐작케 한다.

합단적은 1290년 12월에 고려 동북의 쌍성을 거쳐, 군사요충지인 등주·화주를 점거함으로써 남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고려는 만호(萬戶) 정수기(鄭守琪)를 철령에 파견하여 방어케 하였으나, 정수기는 엄청난 합단적의 위세에 놀라,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침으로써 합단적은 철령을 손쉽게 넘었다.

합단적은 원주까지 내려와 치악산에 있는 치악성(稚岳城)에 입보하여 있는 별초군과 전투를 벌인다. 별초군은 원주지방의 선비인 향공진사(鄉貢進士) 원충갑(元冲甲)이 지휘하였다. 원주 치악성 전투에서는 원충갑이 합단적을 맞아 결사투쟁을 벌인

결과, 고려군의 승리로 합단적은 많은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내려와 충주에 이르게 되나, 그곳에서도 패퇴하여 경상도 진입을 포기하고, 그 진로를 서쪽으로 돌려 충청도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1291년(충렬왕 17) 4월 경에는 연기지역의 정좌산(현 연기군 서면 쌍류리)에 도착하여 인근 일대를 점령하고 주둔하게 된다.

고려 정부는 합단적 토벌 작전을 위하여 3개 부대를 편성하는데, 중익군에 인후(印候: 원나라 출신)장군, 좌익군에 한희유(韓希愈)장군, 우익군에 김흔(金忻) 장군이 맡도록 편성하고, 경기도 지역에 당도해 있던 원의 설도간(薛都干)과 함께 남하를 개시하여 목천(木川 : 현 천안시 목천면)에 도착한다.

연기현에서의 전투는 5월 2일 새벽에 개시되었다. 고려군은 목천에서 연기까지 야간 행군을 감행, 이틀에 걸쳐 갈 것을 하루만에 도착하여 5월 2일 정좌산에 주둔하고 있는 합단적을 포위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갑작스런 포위 공격에 놀란 합단적은 전열을 정비할 새도 없이 대항하다가 산의 숲 속으로 퇴각하여 방어를 하게 된다.

이때 고려군은 적의 전면을 보병이 맡아 차단하고, 기병이 뒤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합단군의 저항이 매우 완강하였다. 숲 속에 매복한 적은 활을 쏘면서 저항하므로, 고려군의 선봉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등 기습작전이 주춤거리자, 우익군 만호 김흔 장군이 “물러서는 자는 목을 베겠다” 며 단호히 외치며 계속적으로 독전을 하였다. 이에 500여명이 결사적으로 돌격하여 싸우는데, 사졸 이석과 전득현이 적의 선봉 2명을 베자 적의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적의 흔들림이 역력하자 고려군은 승세를 이용하여 달아나는 적을 공주강(금강)까지 추격하였는데, 죽어 넘어진 시체가 30여 리에 이어졌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릴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합단적은 정좌산 전투에서 엄청난 전력을 상실하고, 1만여 명의 정예 기병만이 겨우 금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기에서의 1차 승전이다.

5월 8일 합단의 정예 기병은 다시 금강을 건너 고려군을 공격하는데, 전투는 현재 연기군 남면 진의리, 양화리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원나라 지원병인 나만대군이 합세한 후로서, 합단적은 그 수적임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2차 전투에서는 적진의 용사 한명이 활로 아군을 쏘는데, 쏘는대로 아군이 쓰러졌다. 이에 한희유가 긴 창을 가누고 말을 달려 적진에 돌입하니, 적들이 놀라 한쪽

으로 밀리므로 그 용사를 붙들고 나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창에 걸어 적에게 보이니 적의 기세가 꺾이므로, 이에 대군을 휘몰아 크게 이겼다. 그러나 합단(哈丹) 노적(路的) 부자가 이끈 2천의 정예기병은 포위를 뚫고 도주하였다. 연기현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대첩에 참여하지 못한 원의 나만대는 도망간 합단을 추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설도간이 이를 거절하였다.

2차에 걸쳐 전투를 치른 연기전투에서 합단적의 붕괴는 명확해졌다. 그러나 아직 도처에 그 잔여세력이 횡행하므로, 이를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 중의 일부는 옛 동주(東州-철원)까지 내려왔다가, 연기에서의 대패 소식을 접하자 다시 오던 길로 철수하고 말았다.

6월 1일 정부는 합단적의 잔적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여 김흔을 죽전(竹田)에, 한희유를 충청도에, 그리고 라유(羅裕)를 교주도(交州道:강원도)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6월 5일 합단적의 잔적 580명이 한희유에게 투항하였다. 합단의 아들 노적은 휘하를 이끌고 죽전(竹田-황해도 瑞興)을 경유, 평양 방향으로 도망하였으나, 라유, 현문혁, 이무 등이 이를 맹공격하여 적을 패퇴시켰다.

2년에 걸친 합단의 침입으로 고려의 내륙 중부 지방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약탈과 살상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무력적 해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오랜 몽고와의 전란으로 피폐한 데다가, 2차에 걸친 일본 정벌전 참여등으로 극도의 곤궁상태 있었고, 더욱이 원의 정치적 간섭 하에 놓임으로써 군사적 독자성과 체제 또한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점이었다. 이 때에 연기에서의 전투는 합단적을 최종적으로 궤멸, 패주시킨 대첩이었다.

제8절 고려의 멸망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려는 점차 국내외적으로 쇠망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국내적으로는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와 대립이 격화되는 한편, 왜구(倭寇)와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은 고려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 넣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회의 혼란을 부패하고 낡은 이상의 권문세족이 개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국외적으로도 대륙에 정세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한인(漢人) 반란군의 한사람이었던 주원장(朱元璋)이 남경(南京)에서 명(明)을 세우고, 원(元)의 수도였던 북경(北京)을 함락시켜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는 원·명 교체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륙에서의 원·명 교체는 고려에도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원·명의 교체기에 즉위한 공민왕은, 대외적으로 반원정책(反元政策)을,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權門勢族)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공민왕은 대외정책으로 원의 연락기구인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철폐하였고, 기철(奇輒)을 위시한 친원파의 숙청과 옛 관제의 복구를 단행하였으며,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무력으로 철폐하고 실지(失地)도 회복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들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기관인 정방(政房)을 폐지시켰으며,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같은 공민왕의 개혁정책으로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들이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어져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다.

공민왕이 피살되고 우왕이 왕위에 오른 후, 우왕 14년(1388)의 명에 의한 철령위(鐵領衛) 설치 통보는 친원파와 친명파 사이에 변화를 초래시켰다. 친원파는 그렇지 않아도 명의 무리한 공물 요구 등으로 분개하고 있었는데,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영(崔瑩)을 한층 더 분개시켰다. 이에 고려는 최영으로 하여금 차제에 명이 차지한 요동 정벌을 꾀하게 된다.

한편 친명파는 요동 정벌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이성계(李成桂)를 중심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최영 등의 친원파는 우왕 14년 최영이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고,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을 시도하였다. 원정을 반대하던 이성계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威化島)에서 조민수를 회유,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제 세상은 신흥사대부의 세상이 되었다.

신흥사대부들은 정권을 잡자,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사전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창왕을 폐지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것이 과전법(科田法)으로, 법이 시행되자 권문세족들의 사전이 혁파되는 한편, 국가의 공전이 확대되었고, 신진사대부 출신의 관료들에게는 과전이 지급되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성계 일파는 정권의 장악과 더불어 경제권까지 장악하였으므로, 새 왕조의 건설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이들 신흥사대부 자체에서도 개혁의 문제로 두 파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 등 온건개혁파였고, 다른 하나는 조준·정도전·남은(南閔) 등의 왕조를 바꾸려는 역성혁명파(易姓革命派)였다. 이때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李方遠)은 조영규(趙英珪)를 시켜 개성의 선죽교에서 반대파 정몽주를 격살(擊殺)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최후의 적인 정몽주마저 제거한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에게 양위를 강요하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왕으로 옹립하였다.(공양왕 4년, 1392). 이로써 고려 왕조는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제5장 조선시대(朝鮮時代)와 연기군 남면

제1절 조선의 건국

고려말기는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물론, 원·명·왜구·흉건적 등 이민족에 의한 시련이 격화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위화도 회군(1388)을 계기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중심의 신진사대부 세력은 가장 먼저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구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고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구 귀족 세력을 거의 제거한 개혁파 관리들은, 새로운 왕조의 수립을 둘러싸고 입장의 대립을 보였다.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는 새로운 왕조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나, 이색과 정몽주 등 온건파들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민왕 때와 같은 개혁정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공양왕의 즉위로 왕실의 혈통도 바로섰으니, 역성혁명은 정치적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1392년에 이루어진 이성계의 즉위는 양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결국 정몽주의 살해를 비롯한 명분론자들에 대한 탄압을 거쳐 얻어진 것이었다.

이성계 즉위 직후에는 고려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고려의 고사(古事)에 따른다” 하여 왕조교체로 인한 동요와 혼란을 막기 위한 온건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때 고려의 유신(遺臣)임을 고집하는 이들은, 한 하늘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낙향하거나 은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연기로 은거지를 정한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은 부안인 임난수와, 안동인 김성목이다. 이들은 전서의 벼슬을 지냈지만, 모두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임난수는 금강변 삼기촌(현 남면 양화리) 전월산 아래에 은거하면서 매일 산에 올라 고려의 왕도를 향하여 절을 하였는데, 전월산에는 고려를 생각하였다하여 붙여진 상려암(想麗岩)과, 왕도를 향하여 절을 올렸다하여 부왕봉이라 부르는 유적이 있다. 김성목은 운주산 아래에 은거하면서, 아들 김휴 또한 이곳에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그의 자손들이 600여년 동안 세거지로 살아오고 있다.

이성계는 공양왕을 원주로 쫓아 보내고 구 왕실의 귀족들을 제거하고, 또한 유교적 풍교(風敎)를 장려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찰사제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향·소·부곡을 없애고, 호구를 기준으로 군·현을 조정하였다. 그 중 국호의 개정과 국도(國都)의 이전은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태조의 의지였다.

태조는 조반(趙琳)과 조림(趙琳)을 명나라에 보내어 새로운 왕조의 수립을 알리고 태조 즉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상질을 보내어 고조선에서 유래한 조선(朝鮮)과 이성계의 출생지인 화녕 중 어느 하나를 국호로 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이듬해 조선으로 택정되어 국호로 결정을 보았다. (1394년, 태조 2년) 그러나 이성계의 왕위 승인 문제는, 당시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세공, 유민 등 미해결 문제로 지연되다가 1400년(태종 즉위년)에 이르러 고명(誥命)과 금인(金印)을 보내왔다.

태조 즉위 당시에는 개경을 그대로 국도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경에 대한 불길한 풍수지리설로 고려의 구세력 기반인 개경을 떠나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치기반을 수립할 필요에서였다. 당시 국도의 후보지로는 공주의 계룡산 부근과 서울의 무악, 그리고 한양이었다. 이중 계룡산 지역이 첫 번째로 추진된 것은 1393년(태조 2)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가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로 왕실 안태(安胎)의 장소를 모색하기 위하여 양광(楊廣:충청도)·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 지방을 다녀와 왕실의 안태지와 더불어 계룡산의 도읍 지도를 올리면서부터이다. 태조는 직접 계룡산에 내려가 5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신도읍의 중심지가 되는 언덕에 올라 형세를 살펴보는 등, 권중화가 올린 종묘사직·궁전·조시 등의 설계도에 따라 그 형세를 확인하고, 김주와 박영충, 최철석 등으로 하여금 신도시 건설을 감독하도록 하고 개경으로 돌아왔다.(1393년, 태조 2)

이후 3월에 이르러 계룡산 신도(지금의 신도안)를 중심으로 기내(畿內)의 주현(州縣)·부곡(部曲)·향소(鄉所) 81곳을 정하는 등 신도읍지로서의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1393년 12월 대장군 심효생(沈孝生)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는 경기 좌·우도 관찰사이던 하륜(河崧)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 끝에 무악(毋岳)은 입지가 너무 협소하여 반대하였고, 마침내 정도전의 강력한 주장과 왕사(王師)인 무학대사의 추천으로 1394년(태조 3) 조선의 새 왕도는 한양으로 결정되었다.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道)로 나눈 8도제로, 고려후기에 정비되기 시작한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다소의 수정을 거쳐, 태종 13년(1413)에 확고한 제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충청도(忠淸道)는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의 앞 글자를 딴 것이며, 공민왕 때에 양광도에서 개칭된 이름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양광도와 충청도라는 명칭이 병용되다가, 태종 13년 8도제가 확립됨에 따라, 지금의 충청남·북도 지역과 비슷한 행정구역을 충청도(忠淸道)라 칭하게 되었다.

조선의 8도제는 8도에 각각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의 대소 각 읍을 두었다.

조선조의 지방관은 이를 외관(外官)이라 하여 그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것은 도(道)의 관찰사(觀察使 또는 監司, 方伯, 종2품) 8월(員)이었고, 그 밑에 수령인 부윤(府尹, 종2품), 대도부사(大道府使, 정3품), 목사(牧使, 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군수(郡守, 종4품),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 있었다.

각 읍의 수령들은 행정상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고, 다만 이들 수령이 겸임하는 군사직으로 말미암아 상하의 명령 계통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각 읍과 각 수령의 이와 같은 차등은 집단적 부락의 대소나 인구와 호수의 많고 적음, 지역의 특수성 또한 전급(田給)의 규모에 따라 생겼다.

읍 밑으로는 면(面; 方, 社)과 그 밑에 리(里; 村, 洞) 및 통(統)이 있었던 바, 여기에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외관이 없어 자치적인 조직을 이루었던 것이다. 태종 13년에 개편된 충청도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 직명 행정구역 | 관찰사 (종2품) | 목사 (정3품) | 도호부사 (종3품) | 군수 (종4품) | 현령 (종5품) | 현감 (종6품) |
|------------|---------------------|-------------|------------------|---|-------------|---|
| 좌도 (左道) | 충주 (태조 4년 置) | 충주 청주 | 청풍 (뒤에 郡置) | 단양·천안· 괴산·옥천· 보은(監) | 문의 | 제천·직산·회인· 연풍·음성·청안· 진천·목천·영춘· 영동·황간·청산 |
| 우도 (右道) | 공주 (선조35년 移置) | 공주 홍주 | | 임천·태안· 한산·서천· 면천·서산· 온양·대흥 (監)·덕산 | | 홍산·평택·정산· 청양·은진·회덕· 진잠·연산·노성· 부여·석성·비인· 남포·결성·보령· 해미·당진·신창· 예산·전의·연기· 아산 |

지금의 연기군은 조선시대 연기현과 전의현, 공주목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 구역을 이루고 있다. 연기현은 고려 현종 9년 청주의 속현이었다가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설치한 후, 목주(木州; 목천)의 감무가 겸임하다가 조선의 태종 6년에 분리된 감무를 설치하였다. 전의현도 청주의 속현이었다가 조선의 태조 4년에 감무를 설치한 곳이다. 군현의 감무 설치와 현감에로의 대치는 군현의 설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군현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나, 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 성종 2년에 12목(牧)의 설치로부터 시작된 지방의 행정제도는 현종 9년에 개편되어 지방행정의 골격을 갖추었다. 현종은 호족의 세력을 인정하고, 그 호족을 통하여 민중을 지배하되 그들의 주거지에 주(州)·부(府)·군(郡)·현(縣)과 그 밑에 촌(村)·부곡(部曲)·향(鄉) 등의 명칭을 줌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의 격식을 부여하였다.

연기와 전의는 모두 현종 9년에 ‘속청주(屬淸州)’라 하여 청주의 속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현에 외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예종 원년부터이고, 그 후 계속하여 조선초기까지 감무를 설치하였다.

전의현은 태조 4년(1395)에 감무가 설치되었고, 연기현은 명종 2년에 목천의 감무가 겸하다가 태종 6년(1406)에 분리된 감무가 설치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 고장에서는 전의 지방의 호족 세력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조의 지방제도 개편과 정비는, 군현의 명칭의 개정과 함께 속현의 정리와 향·소·부곡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에 있어서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군소 주현의 병합이었다. 소현(小縣)의 병합은 태조때부터 거론되어 오다가 태종조에 와서 활발히 추진되었다. 태종은 그 중반부터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을 위한 관제 개혁, 수취제제의 정비, 노비중분법, 호패법 등을 실시한 데에 이어 13년 10월에는 도제(道制)와 군현제(郡縣制)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 이듬해 8월에는 군량 확보와 능록(廩祿)을 절약하기 위하여 용관(冗官)을 정리하는 한편 군소현의 병합을 시행하였다.

이 군현의 병합 때에 연기현과 전의현도 전기현(全岐縣)으로 병합되었다. 군현 병합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합당하는 현 가운데 어느 현이 주읍(主邑)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대체로 병합되는 현 가운데 인리(人吏)·관노비(官奴婢)가 우성(優盛)하거나 호구(戶口)가 많고 면적이 넓거나 혹은 군사상·교통상 중요한 지점일 경

우에는 주읍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현사(縣司)가 폐쇄되고 인리·관노비가 신설된 주읍으로 옮겨져야 했다. 연기·전의현의 경우 전의현이 주읍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군현의 병합은 해당 군현에서 이를 반대하는 원성이 빗발쳐서, 태종 16년에서부터 동왕 18년 선위 때까지 병합 군현의 복설이 이루어졌다. 연기현과 전의현도 태종 16년에 복설되었다.

제2절 지방관제조직(地方官制組織)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주(州)·군(郡)·현(縣)의 수령은 관찰사를 별칭하는 방백(方伯)의 대칭으로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 관찰사 예하의 지방관을 총칭한 말이다.

이들 수령은 목민(牧民)의 관(官)으로서, 그들의 행정적인 치적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선임도 중요하였지만, 임명 후 감독과 경계를 철저히 하였으며, 그 임기는 1800일(5년)로 기한을 삼았다.

각 도의 관찰사 및 각 군현의 수령의 사무는 중앙관제의 축소로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六房)으로 분장케 하고, 그 사무는 토착의 이속(吏屬)을 임명하여 이서(吏胥) 또는 아전(衙前)이라 불렀다.

군의 사무는 호장(戶長:호방의 수석) 이하 육방의 이속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군의 수령은 관찰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이며, 군현의 육방은 수령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후기에는 육방 사무가 세분되어 각종의 색(色)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아전은 향리(鄉吏)와 그 하급인 가리(假吏)로 구분되었다. 향리가 문관적인 속료(屬僚)라면, 군사(軍事)나 경찰(警察)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관적인 속료에는 군교(軍校)·포교(捕校)가 있었다. 이밖에 수령의 공사 생활에 사역되었던 관노·관비가 있었다. 관노에는 급창(及唱)·고직(庫直)·역종(驛從)·방자(房子)·육직(肉直)등이 있었고, 관비에는 기생(妓生)·수급(水汲;婢子) 등이 있었다.

조선조와 지방 행정 체계에 있어 관치 행정기관은 부·군·현에서 그치고, 그 밑에 면·동 또는 리·통의 3단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자치단체는 구래의 조선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촌락공동체로서의 원생적 양상을 다분히 보존하여 온 것이다.

중앙에서 파견하는 외관은 군현에 그치고, 각 군현에는 향청(鄉廳)이라는 자치기구가 있었다. 이 향청의 임무는 주로 지방 행정에 관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風紀)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여 수령의 임무를 보좌하였다. 그래서 향청을 수령 다음 가는 이아(貳衙)라 하였다. 이 향청 역시 육방을 분장하여, 좌수(座首)가 이방과 병방을, 좌별감(左別監)이 호방과 예방을, 우별감(右別監)이 형방과 공방을 맡아 수령의 자문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향청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향약(鄉約)이 있었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덕목(德目)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중종 14년 조광조(趙光祖)가 실시한 이후로 선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실시되었다. 이 향약의 임원으로는 약정(約正)·부약정(副約正)·직월(直月) 등이 있었는데, 대개 덕망이 높은 지방의 유력한 사람이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들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조선전기 연기·전의 두 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조선전기 연기·전의현의 현황

① 연기현

| 시 대 | 관 원 | 호 수 | 인구수 | 전 결 | 성 씨 | 전 거 |
|------------------|--------------|-----|-------|------------------|--------------------------------|--------------|
| 단종 2년 (1454) | | 348 | 1,446 | 간전(墾田) 2,969결 | 토성:魏·河·全·耿·菴 래성:王 속성:金,康 | 세종실록 지리지 |
| 중종 25년 (1530) | 현감 1 훈도 1 | | | | 全·耿·菴·河·魏 康(續)·王 | 신증동국 여지승람 |

② 전의현

| 시 대 | 관 원 | 호 수 | 인구수 | 전 결 | 성 씨 | 전 거 |
|------------------|--------------|-----|-----|------------------|------------------------|--------------|
| 단종 2년 (1454) | | 166 | 572 | 간전(墾田) 1,575결 | 토성:李·俞 망성:河 차성:全 | 세종실록 지리지 |
| 중종 25년 (1530) | 현감 1 훈도 1 | | | | 李·俞·河·全 | 신증동국 여지승람 |

제3절 지방군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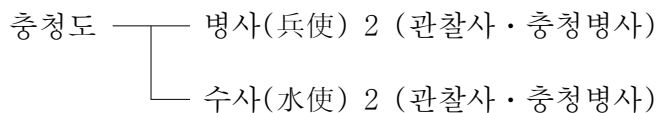
조선은 태조 때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을 두어 병권을 장악케 하였다. 이후 세조 3년(1457)에 5위(衛)가 형성되고, 12년(1466)에는 5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편되어 5위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중앙군의 근간이 된 5위는 각기 분담된 지방의 병력을 통할하였다. 이 5위 가운데 의흥위(義興衛)는 서울 중부와 개성부·경기·강원·황해도와 충청도를 통할하였다.

조선시대의 군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방군이였다. 지방군제 역시 세조 때에 정비되었는데, 먼저 원년(1455)에는 이때까지 북방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로 통일하였다. 이는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 고을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한 것이였다. 이것이 2년 뒤에는 다시 진관(鎭管) 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 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였다.

조선전기의 지방 군사제도는 이 진관 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먼저 각 도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두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兵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水使)를 파견하여 군사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진관에서 병사가 있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고, 그 아래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진(巨鎭) 등 대소의 진이 있어 병영 및 수영의 통제를 받았다. 이때 거진은 목사·부윤이 각각 첨절제사(僉節制使)·절제사(節制使)를 예겸(例兼)하면서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그 아래의 제진은 군수 이하의 지방관이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이하의 직함을 겸하면서 군사를 지휘하였다. 조선전기에 연기·전의현이 소속되었던 진관편성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충청도 진관편성표



| 관찰사 | | (병사·수사검) | | 감영=충주 |
|---------------|----------------------|------------------------------|---|-------|
| 병사 · 우후 | 첨절제사 | (동첨절제) | (절제도위) | 병영=해미 |
| | (충주진관) 충주목사 | 청풍군수·단양 군수·괴산군수 | 충주판관·연풍현감·음성현감· 영춘현감·제천현감 | |
| | (충주진관) 충주목사 | 천안군수 옥천군수 | 청주판관·직산현감·목천현감· 문의현령·회인현감·청안현감· 진천현감·보은현감·영동현감· 황간현감·청산현감 | |
| | (공주진관) 공주목사 | 임천군수 한산군수 | 공주판관·전의현감·직산현감· 은진현감·회덕현감·진잠현감· 연산현감·이산현감·부여현감· 석성현감·연기현감 | |
| | (홍주진관) 홍주목사 | 서천군수 서산군수 태안군수 온양군수 | 홍주판관·평택현감·홍선현감· 덕산현감·청양현감·대흥현감· 비인현감·결성현감·남포현감· 보령현감·아산현감·신창현감· 예산현감·해미현감·당진현감· | |
| 수사 · 우후 | 첨절제사 | (만호) | | 수영=보령 |
| | (소근포진관) 소근포(태안)첨사 | 당진포(당진)만호·파지도(서산)만호 | | |
| | (마량진관) 마량(비안)첨사 | 서천포(서천)만호 | | |

(자료:경국대전)

진관체제 하에서 병력의 근간을 이룬 것을 양인·농민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징발이 되면, 서울에 번상(番上)하거나 지방의 제진에 부방(赴防)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현역 군인인 정병(正兵)으로 징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軍役)의 의무가 있었지만, 번상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奉足)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군호의 편성이었다.

제4절 교통과 통신

1. 역참(驛站:陸軍)

조선시대의 교통수단과 운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참(驛站)과 조운제도(漕運制度)를 들 수 있다. 전국에 걸쳐 교통을 하는 도로망이 역참이며, 수로를 이용한 조운은 운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역참은 육로에 의한 운수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사회 경제상의 뜻을 지닌 산업 도로라기 보다는 군사·행정상의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역참과 조운은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다만 수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역참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마다 역을 두고 마필(馬匹)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公文)을 전제(傳遞)하는 이외에 공무 여행자에게 마필을 제공하고 그 숙식을 알선하며, 그밖에 진상(進上)등 관물(官物)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졸(驛卒)들을 두어 역정(驛政)의 관리와 함께 공역(公役)을 담당하게 하였고, 수 개 내지 수십 개의 역을 한 도(道)로 하여 찰방(察訪, 종6품) 또는 역승(驛丞 : 종9품)이 이를 관장하는 동시에 교통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보고하기도 하였다.

연기·전의현은 성환도(成歡道)의 역참에 속하였는데, 성환도의 역명과 이 지방을 통과하는 도로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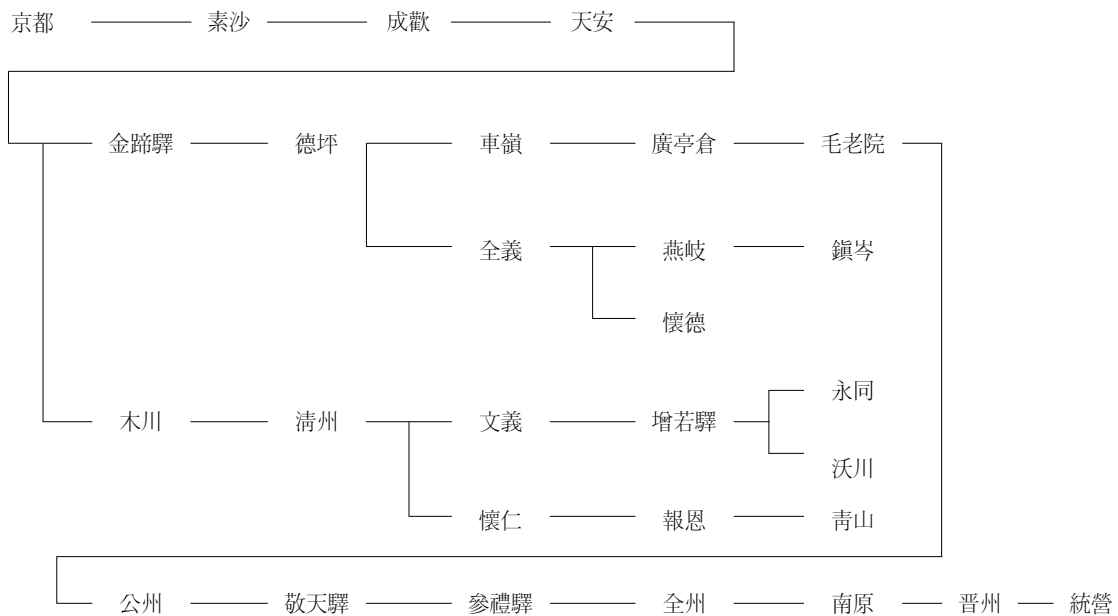
〈표〉 성환도 역명

| 관 할 관 청 | 역 명 (驛 名) |
|------------------------|--|
| 성 환 도(成歡道) 찰 방(察 訪) | 천안 성환(成歡)=중, 천안 신은(新恩)=중, 천안 김제(金蹄)=중 공주 광정(廣程)=중, 공주 일신(日新)=중, 공주 경천(敬天)=중 연산 평천(平川)=중, 공주 단평(丹平)=소, 공주 유구(惟鳩)=소 연기 금사(金沙)=소, 청주 장명(長命)=소, 목천 연춘(延春)=소 |

(자료 : 經國大典 吏典)

- ※ 1. 중은 중로(中路 ; 中驛), 소는 소로(小路 ; 小驛)을 표시한 것임
- 2. 성환도의 각 역은 연춘역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역임
- 3. 고덕체는 연기·전의지방의 역임

〈경도-소사-삼례-고성간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1) 금사역(金沙驛)

연기현의 남쪽 7리(현 남면 갈운리 검새울)에 있었다. 금사역에는 역리 20명, 노(奴) 3명, 비(婢) 5명, 대마(大馬) 6필, 역마(驛馬) 6필, 복마(卜馬) 2필이 있는 소역(小驛)이었다.

2) 김제역(金蹄驛)

본래 조선시대에 천안군 소동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마(馬) 15필, 노(奴) 45명, 비(婢) 12명이 있었던 중역(中驛)이다.

연기·전의현에는 금사역과 김제역 이외에도 송현역(松峴驛 : 서면 송현리)이 있었는데, 이 역은 조선시대에 폐지된 역이다.

도로망에 있는 역참 이외에도, 각 군현에는 공용 여행자의 숙식을 위해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객사(客舍)가 있었다. 이밖에도 교통의 요로에 원(院)과 진(津)을 두었다. 원(院)의 유지를 위하여 고려 공양왕 3년에 원위전(原位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는 이를 정비하여 부근의 거주민으로 원주(院主)를 삼고 이를 관리케 하였다. 그러나 원은 그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 점차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공용여관인 공궤(供饋)는 각 관(官)이나 민간업자가 담당하는 일이 많았다. 공용 여행자는 초료(草料)라 하여 여정 중에 관으로부터 종인(從人)·마필(馬匹)과 숙식을 포함하는 소정의 공급(供給)을 받게 되는데, 이 증빙(證憑)은 병조·감사·병수사 등이 내어주게 되어 있으며, 변장(邊將)·군관(軍官) 등도 그 특전을 받았다. 사용 여행자는 사설의 점(店;주막)에서 방화전(房火錢)을 내고 숙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본군 내에 있었던 원(院)은 다음과 같다.

- 신원(新院) : 현 동쪽 10리에 있었다.
- 동진원(東津院) : 현 동쪽 5리에 있었다.
- 조천원(鳥川院) : 현 북쪽 20리에 있었다.

역참을 교통하는 대로(大路)와 중로(中路) 이외에도, 지방에서 지방으로 통하는 소로(小路)도 각 지방으로 연결되었는데, 본 군내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기현

관문에서 동쪽으로 청주의 경계에 접하는 15리 대로

문의 경계에 이르는 20리 소로

북쪽으로 전의 경계에 접하는 20리 대로

서쪽으로 공주 경계에 접하는 15리 소로

남쪽으로 공주 경계에 접하는 15리 소로

(2) 전의현

동대로(東大路) : 미당리(美塘里)를 경유하여 대치원(大峙院)에서 청주 노*리(盧*里)에 이르는 20리

남소로(南小路) : 송치리(솔티, 松峙里)를 경유하여 연기 생천리(生川里)에 이르는 15리

서남소로(西南小路) : 마산(馬山)·누동(樓洞)·사기소(沙器所)를 경유하여 공주 의랑리(議郎里)에 이르는 20리

서대로(西大路) : 오류동(五柳洞)을 경유하여 청주 덕평(德坪)에 이르는 10리

서북소로(西北小路) : 고등(高等) 유점(楡店)을 경유하여 김제역에 이르는 10리

북대로(北大路) : 박동(朴洞)을 경유하여 목천 마산리(馬山里)에 이르는 10리

2. 조운(漕運)

조운이란, 조세로 징수한 미곡(米穀)·포백(布帛) 등을 해상을 통하여 경도(京都)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전(漕轉)이라고도 하였다. 교통기관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당시로서는, 육운보다는 수운에 주력하여 세미(稅米)의 운반을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서는 조세미(租稅米)의 운반을 위하여, 각 군현의 관할 창고에 조세를 모으고 선박을 창고에 부속시켜, 매년 일정기간의 기한을 정하여 경창(京倉)에 수송하였다. 수로 연변에 설치한 창고 가운데 해상 운송을 맡은 것을 해운창, 강상 운송을 맡은 것을 수운창이라 하였다. 연기·전의현의 조세는 아산의 공세곶창(貢稅串倉)으로 운반되었다.

공세곶은 세종 때에 전국의 주요 수조창 8개처의 하나로 설치되어, 주로 충청우도 지역의 조세를 수납하였다. 공세곶(중종 18년 貢津倉으로 개칭)은 충청도 전역의 조세를 수납하기에는 거리가 먼 곳이 많이 불편하였으므로, 숙종때에 공주 금강 이남의 조세를 수납하던 은진현(恩津縣)의 시진창(市津倉)과 공주 금북(錦北)의 분포창(汾浦倉)을 설치하여 사선(私船)으로 조운케 하였다.

3. 봉수(烽燧)

봉수제도는 변방의 다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봉수대(烽燧臺)는 수십 리마다 눈에 잘 띄는 산꼭대기에 두어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써 신호를 보냈다. 평상시에는 횃불 1개, 적이 나타나면 횃불 2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횃불 3개, 국경을 침범하면 횃불 4개, 전투가 벌어지면 횃불 5개로 각각 신호하였다. 봉수의 간선은 직봉(直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을, 동남은 동래를, 서북의 내륙지방은 강계를, 해안지방은 의주를, 서남은 순천을 각각 기점으로 하고 서울 목멱산(木覓山 : 남산)을 종착점으로 하였다. 이외에 간봉(間烽)이라는 보

조선이 있는데, 이는 전선의 초소로부터 직봉선의 사이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전선에서 직접 본진이나 본읍에 다다른 단거리의 것이었다.

연기·전의현은 제5본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봉수대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남면 같은리 원곡(元谷)에 용수산 봉수(龍帥山 烽燧)의 흔적이 남아 있다. 참고로 연기·전의현 주변을 잇는 제5봉의 봉수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돌산도(突山島: 順天)……→강경대(江景臺: 이하 恩津)→황화대(皇華臺)→노성산(魯城山: 魯城)→월성산(月城山: 이하 公州)→고등산(高登山)→쌍령산(雙嶺山)→대학산(大鶴山: 天安)→연암산(燕巖山: 牙山)→망해산(望海山: 稷山)……→한성(漢城) 목면산(木覓山)

제5절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연기군 남면

조선시대 최고의 국난은 임진왜란이었다. 선조 25년(1592년) 왜(倭: 일본)가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동안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는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난중에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자기에게 반대한 영주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해외무역의 이익을 취하고자, 20여만의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당시 부산진성에서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정발(鄭撥)이 천 여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함락당하고 말았다. 부산을 유린한 왜군은 동래성으로 밀려들어왔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지휘 아래 군민들은 치열하게 항쟁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였다. 그 후 중앙에서 출정한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 唼)이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으나, 신병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대군을 저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20일도 채 못되어 서울에 입성하였으며, 계속하여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였다.

하지만 비록 육상에서는 관군이 패하였지만, 해상에서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 의하여 도처에서 왜군을 섬멸하였다. 이로써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수륙으로 협공하려던 왜군의 작전을 봉쇄하였으며,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관군이 도처에서 패하고 전 국토가 왜적에게 유린당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왜군과 대전하였다.

호서(湖西)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은 옥천(沃川)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헌(趙憲)이었다. 조헌은 제독(提督)으로 재임한 바 있어 호서의 많은 유림과 교분이 있던 관계로 이 지방의 의병은 거의 그의 휘하로 모여들어 그는 호서의병(湖西義兵)의 총수(總帥)가 되었다. 조헌은 처음에는 호좌(湖左)에서 기병(起兵)하여 활동하다가, 7월 4일 공주에서 다시 기의(起義)하여, 호우(湖右)의 열읍(列邑)을 돌면서 의병 천여명을 모았다.

호서의병으로 조헌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는 승장(僧將) 영규(靈圭)였다. 영규는 계룡산 청련암(靑蓮庵)에 있으면서 수도를 하는 한편, 선장을 가지고 연무(演武)를 하다가 왜란이 일어나자 계룡산의 승려를 모아 승병을 일으켰는데, 그의 첫 기의처는 연기지방이라고 전한다. 영규대사의 승병은 대단한 활약이었으며, 임진왜란이 조선의 승리로 이끈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된 영규대사는 연기출신 승려의 활동을 보고 봉기하였기에 임진왜란시 승병의 시초는 바로 연기 출신 승려에 의한 것이었다.

임진왜란 시 충청감사였던 윤선각(尹先覺)은 그의 저서인 『문소만록(聞韶漫錄)』에서 난리의 초기에 공주에서 유생 신난수(申蘭秀)와 장덕개(張德蓋) 등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연기에 속명(俗名)을 정만억(鄭萬億)이라 하는 중이 있는데, 적을 잘 치므로 사람들이 승장군(僧將軍)이라 불러 명성이 자자합니다” 라고 전하였는데, 이들 신난수와 장덕개 또한 의병에 가담한 사람이다.

목사(牧使) 허욱(許頊)도 역시 말하기를 “이 고을에 중 영규가 자진해서 모집에 응하며 말하기를 ‘만억(萬億)은 매우 못난 사람이나 또한 장군(將軍)이란 이름을 얻었으니 나도 또한 종군하리라’ 하고 뜻이 같은 승려 9명을 데리고 적의 형세를 탐지해서 도움을 주었으니 그 말이 가히 취할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연기출신 정만억 스님은 의병과 승병이 봉기하기 전에 이미 승병을 모집하여 왜군을 무찌른 전적이 있으니, 그의 활약으로 결국 승병의 대장으로

알려진 영규대사가 승병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정만억은 연기 사람이라 하였다. 당시 연기지역에는 오봉산에 있는 흥천사와 안선사, 그리고 전의와의 경계에 있는 비암사, 비암사 가기 전에 성당사 이렇게 4개의 사찰이 기록에 보이나, 어느 사찰 출신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비암사에 전해오는 괘불(掛佛)이 순치 10년(1653년)에 제작되었으며, 왼쪽 하단에 도총섭(都摠攝)이란 승병 계급과 함께 승병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괘불이 제작된 시기가 임진왜란이 끝난 시기이기에 임진왜란시 조작된 승장군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비암사가 전의지역 사찰이지만 연기현에 편입된 때가 있었으므로, 정만억 스님이 비암사 승려일 수도 있으며, 비암사를 중심으로 많은 도요지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시 도공들이 끌려가면서 도자기 생산은 중단되었고, 지금은 옛 가마터만이 전해온다. 공주 학봉리에 세워진 일본도지 이삼평 기념비는, 첫째 비문이 잘못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이삼평이 임진왜란시 왜군을 따라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자기를 생산하여 일본 도자기 발전에 기여하여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이고, 왜군의 약탈이 극에 달한 때 스스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삼평의 고향이 공주라 주장하는 것도 지금의 박정자 공원과 맞지 않는다. 이삼평은 일본에 끌려가 자신의 성을 「금강(錦江)」이라 불렀다. 그것은 금강에서 끌려온 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후손들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세워진 자리는 「금강」이란 말보다는, 「계룡」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계룡의 정기를 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삼평은 전의 금사리 출신일 수도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의 금사리는 전의이씨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당시 만들었던 백자 가마터가 산재해 있으며, 백죽재에서는 이삼평이 만들었던 백자와 흡사한 것이 많이 출토된다.

이로써 정리하면 공주를 거쳐 천안방면, 또 청주방면으로 가던 왜군은 이곳 비암사 승병과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제법 규모가 컸던 비암사는 불타 없어지고 주위 도공들은 끌려갔다. 그래서 비암사 너머 산골짜기에는 이곳으로 피난온 주민들이 살아났다 하여 생천(生天)이란 지명이 붙게 되었다.

호서에서 기병한 의병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호서의병 봉기 일람표

| 의 병 장 | 의병수 | 기 병 처 | 신 분 | 기 타 |
|-----------|-------|---------|-------|-----------|
| 심수경 (沈守慶) | | 아산 (牙山) | 전 대 신 | 팔도의병대장 |
| 김홍민 (金弘敏) | | 호서 (湖西) | 전 목 사 | |
| 신 담 (申 湛) | 1,000 | 한산 (韓山) | 전 참 의 | |
| 조 웅 (趙 雄) | 500 | 충주 (忠州) | 충 의 위 | |
| 조 헌 (趙 憲) | 1,700 | 옥천 (沃川) | 전 제독관 | 휘하 막료는 생략 |
| 한명윤 (韓明胤) | | 영동 (永同) | 현 감 | |
| 박춘무 (朴春茂) | | 청주 (淸州) | 전 찰 방 | |
| 신난수 (申蘭秀) | | 홍주 (洪州) | | |
| 장덕개 (張德蓋) | | 홍주 (洪州) | | |
| 이광륜 (李光輪) | | 홍주 (洪州) | 전 참 봉 | |
| 영 규 (靈 圭) | 500 | 연기 (燕岐) | 승 병 장 | |
| 이산겸 (李山謙) | | 보령 (保寧) | 서 열 | |
| 임정식 (任廷式) | 100 | 정산 (定山) | 사 인 | |
| 조덕공 (趙德恭) | 100 | 충주 (忠州) | | |
| 이 봉 (李 逢) | | 청주 (淸州) | | |

청주성 전투(淸州城 戰鬪)와 연기지역 전투 상황 대비

조헌과 영규의 위병진에는 연기지방의 의병들이 다수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의병진은 청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연기의 동쪽에 진을 치고 여러 날 활약하였던 것이다.

공주에서 의병진을 형성한 조헌과 영규는 의병을 이끌고, 청주성의 왜군을 공략하기 위하여 청주성에 이웃한 연기로 진격하였다. 이때 청주성의 왜군은 5번대(番隊)의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휘하의 7천 병력중 일부가 성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다. 조헌과 영규의 의병진은 청주에서 15리쯤 떨어진 안심사(安心寺)에 진을 치고 대오를 정비하였다. 또한 이때 방어사 이옥(李沃)도 연기의 동진(東津)에 진

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 안되어 조헌과 영규의 의병진이 서문 밖 빙고현(氷庫縣)으로 나가 진을 쳤다.

이들 의병과 관군은 7월 보름과 20일 사이에 동진평야(東津平野)에서 적을 맞아 싸우니 적이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이 싸움에서 방어사 이옥과 종사관 최기(崔沂) 이하의 수령들은 의병이나 승병만큼 용감하지 못하여, 틈만 있으면 도망치려는 자가 많았다.

승장 영규는 모가 진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수령들이 혹 물러서면 쪼고 있던 큰 몽둥이로 등을 치면서 말하기를 “평일에 고기맛을 보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도망치는 맛을 보려는가”? 하니 수령들이 부끄러워 감히 그 위명(威命)을 꺾지 못하였는데, 이 말은 연기현감 임태(任兌)가 공주목사 허옥(許瑬)에게 보고한 말이었다. 조헌과 영규의 의병은 관군과 함께 8월 1일 청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성안에 있던 왜군은 지형과 수림을 이용하여 적을 포위하고 활을 쏘아 적을 말살하였다. 종일토록 육박전을 벌였던 의병은, 마침내 성벽을 오르는데 성공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이때 연기의 박천봉(朴天鵬)은 스승인 조헌의 의병에 가담하여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다가 청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조헌과 영규의 의병군은 청주성을 수복한 다음, 유성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라도에서 침입하는 왜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금산으로 출발하였다. 이곳에서 이들 의병은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중과부적으로 장렬한 전사를 하여 한 구덩이에 묻히니, 이가 곧 칠백의총(七百義塚)이다.

임진왜란 때 연기출신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여럿 있다.

먼저 박천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인 조헌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약하다 청주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권주(權柱)는 군량미 수송책임을 맡은 이성중(李誠中)이 적에게 차단되어 군량미가 떨어지게 되자, 백미 800석을 아들 권봉(權葑)을 통하여 헌납하면서 “내가 나라를 걱정하고 또한 너를 생각하여 이 곡식을 군량미로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분연히 일어나 적을 무찌르고 공을 세우기 바란다” 라고 하자 권봉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가노(家奴) 300여 명을 이끌고 의병을 모집하여 금산전투에서 싸우다, 큰아들 권전(權全)과 함께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초혼으로 장사지냈다.

변응정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 해남현감에 제수하였다. 당시 관에서는 어지러운 틈을 타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관청의 물건을 약탈하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이를 진정시키는 격문을 돌리고 의병을 규합하였다. 그는 항상 의병들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의기를 격려하여 이탈하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그는 금산에서 조현과 합류하기로 약속하고, 모집한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현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자 그는 “어찌하여 의병장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어겨 함께 죽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김제군수 정담(鄭湛)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성 아래에서 싸워 큰 전과를 올렸으나, 밤을 틈타 습격해온 적들과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웅령(熊嶺)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이러한 변응정의 충의에 탄복한 적들은 큰 무덤을 만들고 표지목(標識木)을 세워 조문하여 이르기를 ‘조선의 충간이요 의열의 담력이다(朝鮮國忠肝義膽)’ 라고 하였다 한다.

김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00여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스승인 중봉 조현의 휘하에 들어가 적군과 싸우다가 금산에서 순절하였으며, 김서한(金緒漢)은 권율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적을 섬멸하기 위해 인부에 이르러 적과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순절하였다. 고여우(高汝雨)는 첨사(僉使)로 많은 적병을 죽이고 생포하였고, 김효간(金孝幹) 또한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사간원 정언에 추증되었다. 홍신민(洪信民)은 가재(家財)를 기울여 조현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고, 김우(金瑀)는 의병으로 금산전투에 참여하여 장렬히 전사하였다.

제6절 이괄(李适)의 난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명(明)의 세력에서 벗어난 여진족(女眞族)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1616년 마침내 후금(後金)을 건국하고 명을 압박하였다.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교훈 삼아 전후의 복구사업과 국방강화에 전력하고, 당시 명·청의 세력 교체기에 이르자 현명한 외교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조선이 국제적 전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광해군은 선조의 빈(嬪)의 소생으로서 임진왜란의 와중에 세자로 책봉되었

지만,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가 뒤늦게 왕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출산하자,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파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가운데 왕위에 올랐다. 이에 광해군은 봉당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과 인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을 느껴, 반대파 정적들을 과격한 수단으로 처단하였다. 특히 1616년(광해군 3) 정인홍의 주장으로 이언적과 이황을 문묘(文廟)의 제사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균관 유생들을 축출한 사건은 유생들의 큰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614년 영창대군의 죽음과, 1618년 인목대비를 폐비시켜 서궁(西宮)에 유폐시킨 사건은, 집권에서 배제된 서인(西人)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유·이귀·이괄 등 서인들은 마침내 이를 대의 명분으로 삼아, 1623년(광해군 15)에 무력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을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인조반정(仁祖反正)이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끝난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둘러싸고 서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때 반정에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에 봉해진 뒤,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좌천되었던 이괄이 이에 불만을 품고 1624년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대는 장만·이수일 등의 관군을 연파하면서 과족지세로 남하, 불과 보름 만에 서울 근교인 벽제관까지 육박해 들어왔다. 이처럼 정세가 위협하게 돌아가자, 조정에서는 2월 8일에 인조가 공주로 피난 가는 일을 논의하여 2월 13일 출발, 16일에 공주에 도착하였다.

이때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밤절이 인조와 관련이 있다. 공주로 향하던 피난 행렬은 당시 청용사라 부르던 이곳에 당도하였고, 때마침 풍년으로 따놓은 밤을 진상받고 이곳을 밤절이라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조신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주장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장유가 “공주 산성은 전방에 금강이 있어 형세가 대단히 좋을 뿐 아니라 길 또한 멀지 않아 우선 공주산성에 들어가 정세를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 이괄의 난은 곧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었고, 이때 연기출신의 많은 인물들이 공을 세웠다.

홍직(洪植)은 삼등현령으로서 원수 장만(張晩)을 도와 일등공신에 기록되었고, 김언신(金彦信)은 학성군(鶴城君) 김완(金完)의 종사관이 되어 서울 안현(鞍峴)에서 적과 싸워 공을 세웠다. 배천의(裴天義) 역시 안현에서 적병을 베는데 앞장 선 공로로

진무1등공신에 기록되고 녹권을 받았다. 최재수(崔粹秀)는 인조가 남쪽으로 파천할 때 공을 세워, 형 최권수(崔權秀)와 함께 별천 원종공훈으로 율봉찰방에 제수되었다. 최기수(崔杞秀)는 목사 송흥주(宋興周)의 천거로 행재소에 나아가 통훈대부 장례원 평사에 임명되었으나, 적이 패하여 물러가니 자기집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환궁한 뒤에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이미 국난이 평정되었으니 벼슬길보다 초야에 묻혀 시문을 즐길 것이 낫다.” 고 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홍상경(洪尙慶)은 임금을 모시고 금강에 이르렀는데, 배가 없어 강을 건널 수 없자 맨몸으로 강을 헤엄쳐 건너가서 배 2척을 끌고 돌아와, 임금을 모시고 산성으로 피난케 하였다. 이 공으로 만호(萬戶)에 제수되었다.

조계원(趙啓遠)은 성균관 유생으로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으며, 김경여(金慶餘)도 왕을 호종하여 공주까지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정사진무원종공신 1등에 기록되었다.

제7절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관군에 의하여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다. 이때 그의 잔당들은 후금(後金)으로 도망하여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당시 조선과 명의 연결을 경계하고 있던 후금은 이를 구실로 3만의 군사를 내어 조선을 공격하니, 이것이 1627년(인조 5)정묘호란(丁卯胡亂)이었다. 후금군이 평산(平山)에 이르자 정부는 강화로 피난하고 화의(和議)를 청하니, 이에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철군하였다.

그 후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청(淸)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신하로서 종속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무리한 요구에 주전론(主戰論-전투 주장)과 주화론(主和論-화의 주장)이 대립되다 주전론으로 기울어, 전국에 선전(宣戰)의 교서를 내리니 청의 태종은 직접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다. 이때가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임진왜란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정묘·병자호란 때에도 우리가 입은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피해는 매우 컸으며, 전후방 여러 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전방에서의 의병 봉기는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라,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침략군과 싸워야 했고, 후방의 의병들은 무력한 관군을 대신하여 자기

고장을 지키는 것 이외에 전방의 출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후방지역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호남지방이었고, 의병이 조직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중앙에서 각 도로 호소사(號召使)를 파견한 이후이다. 비록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에 미치지 못하였고, 강화가 성립되면서 해체되었지만, 이들의 의병활동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정신을 이어받아, 관군의 무력함을 의병이 대신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권건(權健)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정동리(鄭東里)의 막하에서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홍직(洪植)은 정방산성에 들어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초관(哨官) 박종산 등이 그에게 탄 곳으로 퇴진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마땅히 한 골목이라도 지킬 것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단호히 거부하였다. 결국 몰려오는 적을 맞아 싸우다 13발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박천봉의 네 아들, 원겸(元謙)·인겸(仁謙)·예겸(禮謙)·의겸(義謙)은 임진왜란때 청주성에서 장렬히 전사한 부친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쪽의 왜적이냐 북쪽의 오랑캐가 비록 종자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침범한 원수임은 매한가지니, 부친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수치를 씻는데 왜적 오랑캐를 가릴 것 있겠느냐?” 라고 하고는, 형제들이 다함께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의 막료로 들어가 활약하다가, 1637년 죽산산성 전투에서 모두 순절하였다. 김기(金基)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부친 김제정(金濟鼎)의 원수를 갚고자 출전하였다가, 검천(黔川)에서 순절하였다.

최진원(崔進遠)은 월하(月河) 민후건(閔後騫)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마련하여 북쪽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집한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수집한 군량은 모두 관에 공납하여, 뒷날 연기 환자미(還子米) 기금이 되도록 하였다. 류형국(柳亨國)은 월하 민후건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워 공을 세우자, 도사(都事)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김언신(金彦信)은 두 아들 응추(應秋)와 응춘(應春)을 데리고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를 호위하고자 출정하였다가, 도중에서 적과 격돌하여 수십 명의 적장을 죽이고는 기력이 다하여 삼부자가 모두 순절하였다. 신익(愼益)은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는데, 나이가 어렸음에도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감당해나갔다. 임설(林濼)은 무반

에 들어가 급제한 뒤, 죽산산성 전투에서 맨손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는데 진천에 사는 송경(宋景)이 말하기를, 그의 옷과 신발을 현의 동쪽 덕동(德洞)에 매립하였는데, 그 원한이 풀리지 않음인지 비오는 날이면 왕왕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하였다. 임경택(林景澤) 또한 군에 들어가, 죽산·원산 전투에서 맨손으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여 별절교위(別節校尉)에 증직되었다.

최달원(崔達源)은 죽기를 각오하고 관아의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정리하여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였다.

김남중(金南重)은 예조참의로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호종하였으며, 김경여(金慶餘)도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는데, 군사를 독려하여 40여일 동안 적과 싸우며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류충걸(柳忠傑)은 영동(嶺東)으로 달려가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인조가 항복하자 대궐로 돌아와 죽음으로 적을 막지 못한 죄를 물어 처벌해줄 것을 청하고, 힘을 길러 치욕을 씻을 방책을 개진하였다. 이유태(李惟泰)는 인조가 청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자 “선비가 출사할 의(義)가 없어졌다”고 탄식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은거생활을 하였다. 윤정홍(尹廷鴻)은 충과 의를 부르짖으며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김흡(金洽)은 모자가 솔밭에 숨어 있다가 모친이 적장에게 잡히려 하자, 이들이 모친을 업고 함께 죽으므로 인조조에 명정을 받았다. 배립(裴立)은 부친을 모시고 산중으로 피난갔는데 오랑캐의 대장이 부친을 죽이려 하자, 칼을 빼앗아 오랑캐 대장을 죽이고 부친을 살렸다.

장응헌의 처 언양김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의 굴로 피난하였는데, 오랑캐가 아이들을 죽이고 김씨를 붙잡아 말에 태우고 달리자 말에서 떨어져 자결하였다. 임상협(梁相協)의 처 한산이씨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척 하였는데, 가노(家奴)가 적들이 사라지기 전에 구출하여 적이 잡아가려 하자, 적에게 온갖 욕을 하고 살해당하였다. 류형국의 처 해주최씨는 시가로 가는 도중 적에게 사로잡히자, 혈서를 써서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김언신의 처 성산배씨는 남편과 두 아들이 출전할 때 옷에 몰래 표시를 해 두었다가, 삼부자가 모두 순절하자 옷의 표시를 보고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른 뒤 며느리인 밀양박씨와 함께 자결하였다.

제8절 조선후기의 연기군 남면

1. 난후의 제도개편과 연기군 남면

1) 군현의 현황

국초에 정비되었던 조선의 정치·군사제도는 15세기 후엽부터 해이해지다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군현의 개편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청도의 감영은 선조 31년(1598)에 충주에서 공주로 옮겨왔다.

조선후기의 군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인구의 증가이다. 인구는 시대가 경과할수록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는 않지만, 한때 양대 전란으로 인구가 격감되고 또 은루(隱漏), 모록(冒錄) 및 유행병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그럼에도 조선 전기 중종 무렵의 전국의 인구는 약 4백만을 헤아렸는데, 조선 후기의 인구는 약 8백만이 되었다. 이같은 인구의 증가는 전쟁 이후의 사회 안정과 산업의 발달 등이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선 후기 연기·전의 두 현의 관직과 인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기·전의현 상황표

(1) 관직 및 기속(其屬)

| 출 처 | 여 지도 서 (1757~1765) | | 호 서 읍 지 (1871) | |
|----------|--------------------|----------|----------------|-----------------|
| 관직 \ 현 | 연 기 현 | 전 의 현 | 연 기 현 | 전 의 현 |
| 현 감 (縣監) | 음(陰) 6품 | 문자(文資)6품 | 음(陰) 6품 | 문음(文陰)교제(交遞)종6품 |
| 좌 수 (座首) | 1 | 1 | 1 | 1 |
| 별 감 (別監) | 2 | 2 | 2 | 2 |
| 군 관 (軍官) | 8 | 30 | 8 | 31 |
| 아 전 (衙前) | 20 | 14 | 20 | 18 |
| 지 인 (知印) | 9 | 7 | 9 | 9 |
| 사 령 (使令) | 13 | 9 | 13 | 12 |
| 관 노 (官奴) | 24 | 7 | 24 | 13 |
| 관 비 (官婢) | 22 | 5 | 22 | 10 |

(1) 면리(面里) 및 인구통계(人口統計)

- 연기현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 동 | 용산리(龍山里) | 49 | 94 | 104 | 용산리(龍山里) | 56 | 143 | 133 | |
| | 전암리(傳巖里) | 26 | 50 | 54 | 전암리(傳巖里) | 28 | 66 | 65 | |
| | 합강리(合江里) | 55 | 108 | 87 | 합강리(合江里) | 35 | 75 | 74 | |
| | 용당리(龍塘里) | 18 | 35 | 42 | 용당리(龍塘里) | 17 | 39 | 38 | |
| | 대산리(垓山里) | 30 | 61 | 44 | 외대산리(外垓山里) | 10 | 20 | 19 | |
| | | | | | 내대산리(內垓山里) | 20 | 40 | 39 | |
| 일 | 명학리(鳴鶴里) | 24 | 41 | 56 | 명학리(鳴鶴里) | 24 | 56 | 55 | |
| | 금동리(金洞里) | 107 | 212 | 197 | 금동리(金洞里) | 75 | 115 | 114 | |
| 면 | 갈산리(葛山里) | 68 | 160 | 93 | 갈산리(葛山里) | 51 | 68 | 67 | |
| | 백정촌(白丁村) | 6 | 6 | 4 | 백정촌(白丁村) | 5 | 5 | 4 | |
| | 신원리(新院里) | 5 | 12 | 11 | 신원리(新院里) | 11 | 16 | 15 | |
| | | | | | 신대리(新岱里) | 11 | 21 | 20 | |
| | | | | | 생지리(生芝里) | 6 | 14 | 13 | |
| | | | | | 신동리(薪洞里) | 12 | 25 | 24 | |
| 총 | 계 | 388 | 779 | 692 | 총 | 계 | 361 | 703 | 680 |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 동 | 문주리(問周里) | 65 | 125 | 128 | 문주리(問周里) | 59 | 159 | 149 | |
| | 판교리(板橋里) | 133 | 309 | 299 | 내판교리(內板橋里) | 48 | 91 | 90 | |
| | 상송동리(上松洞里) | 33 | 45 | 71 | 외판교리(外板橋里) | 30 | 60 | 59 | |
| | 내송동리(內松洞里) | 40 | 70 | 79 | 상송동리(上松洞里) | 32 | 80 | 79 | |
| | 외송동리(外松洞里) | 50 | 95 | 76 | 내송동리(內松洞里) | 21 | 60 | 59 | |
| | 산직촌리(山直村里) | 7 | 15 | 9 | 외송동리(外松洞里) | 44 | 104 | 103 | |
| 이 | 장산리(獐山里) | 11 | 13 | 27 | 산직촌리(山直村里) | 7 | 18 | 17 | |
| | 산소동리(山所洞里) | 6 | 9 | 10 | 장산리(獐山里) | | | | |
| 면 | 양인동리(養仁洞里) | 52 | 75 | 83 | 송산소리(松山所里) | 14 | 31 | 30 | |
| | | | | | 양인동리(養仁洞里) | 51 | 80 | 83 | |
| | | | | | 판산직리(板山直里) | 3 | 5 | 4 | |
| | | | | | 상판리(上板里) | 27 | 55 | 54 | |
| | | | | | 노곡리(老谷里) | 17 | 27 | 26 | |
| | | | | | 노산리(老山里) | 18 | 31 | 30 | |
| 총 | 계 | 397 | 756 | 782 | 총 | 계 | 401 | 826 | 807 |

| 면 | 여 지도서 (1757~17765) | | | | 호 서 읍 지 (1871) |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 남 | 눌 왕 리(訥 旺 里) | 43 | 108 | 60 | 눌 왕 리(訥 旺 里) | 47 | 108 | 107 | |
| | 송 정 리(松 亭 里) | 28 | 35 | 49 | 송 정 리(松 亭 里) | 22 | 55 | 54 | |
| | 청 룡 리(靑 龍 里) | 16 | 30 | 45 | 청 룡 리(靑 龍 里) | 9 | 27 | 26 | |
| | 만수동리(萬壽洞里) | 36 | 54 | 94 | 만수동리(萬壽洞里) | 7 | 9 | 8 | |
| | 백정촌리(白丁村里) | 4 | 6 | 4 | | | | | |
| | 수 산 리(秀 山 里) | 12 | 18 | 22 | 수 산 리(秀 山 里) | 10 | 22 | 21 | |
| | 석 현 리(石 峴 里) | 11 | 14 | 21 | 석 현 리(石 峴 里) | 3 | 4 | 3 | |
| | 국토동리(國土洞里) | 10 | 14 | 34 | 국토동리(國土洞里) | 17 | 44 | 43 | |
| | 운주동리(雲注洞里) | 7 | 17 | 17 | 운주동리(雲注洞里) | 2 | 4 | 3 | |
| | 두 목 리(杜 牧 里) | 6 | 13 | 18 | | | | | |
| 면 | 중 리(中 里) | 10 | 18 | 21 | 중 리(中 里) | 18 | 36 | 35 | |
| | 소학동리(巢鶴洞里) | 28 | 50 | 36 | 소학동리(巢鶴洞里) | 39 | 67 | 66 | |
| | 방축동리(防築洞里) | 8 | 12 | 10 | 방축동리(防築洞里) | 5 | 11 | 10 | |
| | 덕 동 리(德 洞 里) | 11 | 14 | 12 | 덕 동 리(德 洞 里) | 14 | 24 | 23 | |
| | 분토동리(分土洞里) | 19 | 14 | 30 | 분토동리(分土洞里) | 14 | 30 | 29 | |
| | 관 대 리(館 岱 里) | 14 | 26 | 32 | 관 대 리(館 岱 里) | 29 | 39 | 37 | |
| | 금 사 리(今 沙 里) | 56 | 75 | 79 | 금 사 리(今 沙 里) | 64 | 81 | 80 | |
| | 복룡동리(伏龍洞里) | 15 | 25 | 36 | 복룡동리(伏龍洞里) | 14 | 38 | 37 | |
| | 외삼기리(外三岐里) | 28 | 61 | 49 | 외삼기리(外三岐里) | 27 | 53 | 52 | |
| | 내삼기리(內三岐里) | 42 | 67 | 57 | 내삼기리(內三岐里) | 28 | 44 | 43 | |
| | 산소동리(山所洞里) | 30 | 23 | 31 | 산소동리(山所洞里) | 7 | 11 | 10 | |
| | 개 동 리(蓋 洞 里) | 22 | 48 | 33 | | | | | |
| | 대 동 리(大 洞 里) | 21 | 45 | 65 | 대 동 리(大 洞 里) | 7 | 13 | 12 | |
| | | | | | 월 성 리(月 城 里) | 11 | 14 | 13 | |
| | | | | | 갈은동리(葛隱洞里) | 8 | 19 | 18 | |
| | | | | | 계곡동리(薺谷洞里) | 25 | 53 | 52 | |
| | | | | 양화동리(陽化洞里) | 21 | 43 | 42 | | |
| 총 | 계 | 477 | 787 | 855 | 총 | 계 | 442 | 849 | 824 |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북 | 용암리(龍巖里) | 32 | | | 용암리(龍巖里) | 31 | 55 | 54 |
| | 생천리(生泉里) | 18 | | | 생천리(生泉里) | 29 | 35 | 34 |
| | 쌍류동리(雙流洞里) | 25 | | | 쌍류동리(雙流洞里) | 25 | 62 | 61 |
| | 부대리(不岱里) | 19 | | | 헌대리(獻岱里) | 16 | 32 | 31 |
| | 사방동리(舍房洞里) | 8 | | | 사방동리(舍房洞里) | 3 | 6 | 5 |
| | 청라전리(靑羅田里) | 42 | | | 청라전리(靑羅田里) | 20 | 51 | 50 |
| | 백룡산리(白龍山里) | 34 | | | 백룡산리(白龍山里) | 30 | 48 | 47 |
| | 신림리(新林里) | 6 | | | 신림리(新林里) | 6 | 15 | 14 |
| | 와룡리(臥龍里) | 32 | | | 와룡리(臥龍里) | 21 | 39 | 38 |
| | 마룡리(馬龍里) | 15 | | | 마룡리(馬龍里) | 6 | 19 | 18 |
| | 하마룡리(下馬龍里) | 8 | | | 하마룡리(下馬龍里) | 5 | 19 | 18 |
| | 관암리(觀巖里) | 11 | | | 관암리(觀巖里) | 5 | 11 | 10 |
| | 화동리(禾洞里) | 9 | | | 화동리(禾洞里) | 10 | 20 | 19 |
| | 노곡리(盧谷里) | 3 | | | | | | |
| 삼 | 원봉리(圓峯里) | 16 | | | 원봉리(圓峯里) | 19 | 43 | 42 |
| | 산덕동리(山德洞里) | 10 | | | 산덕동리(山德洞里) | 10 | 27 | 26 |
| | 방축동리(防築洞里) | 6 | | | 방축동리(防築洞里) | 8 | 19 | 18 |
| | 부동리(釜洞里) | 26 | | | 부동리(釜洞里) | 11 | 24 | 23 |
| | 오룡동리(五龍洞里) | 8 | | | 오룡동리(五龍洞里) | 11 | 21 | 20 |
| | 번암리(磻巖里) | 24 | | | 번암리(磻巖里) | 14 | 37 | 36 |
| | 서촌리(西村里) | 77 | | | 서촌리(西村里) | 54 | 135 | 134 |
| | 울촌리(栗村里) | 23 | | | 울촌리(栗村里) | 18 | 33 | 32 |
| | 은암리(隱巖里) | 42 | | | 은암리(隱巖里) | 24 | 55 | 54 |
| | 성당사(聖堂寺) | 4 | 4 | | 성당사(聖堂寺) | 2 | 6 | |
| 면 | | | | | 우덕동리(友德洞里) | 5 | 12 | 11 |
| | | | | | 용계리(龍溪里) | 5 | 19 | 18 |
| | | | | | 신대리(新垆里) | 6 | 15 | 14 |
| | | | | | 명봉리(鳴鳳里) | 10 | 27 | 26 |
| | | | | | 치복동리(致福洞里) | 5 | 12 | 11 |
| | | | | | 장은동리(獐隱洞里) | 4 | 10 | 9 |
| | | | | | 대야동리(大也洞里) | 15 | 31 | 30 |
| | | | | | 치암리(馳巖里) | 7 | 11 | 10 |
| | | | | | 동산리(東山里) | 6 | 12 | 11 |
| | | | | | 봉림동리(鳳林洞里) | 6 | 17 | 16 |
| | | | | | 효교동리(孝橋洞里) | 6 | 14 | 13 |
| | | | | | 용동리(龍洞里) | 7 | 24 | 23 |
| 총 계 | | 498 | 914 | 1,005 | 총 계 | 460 | 1,016 | 976 |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북 일 | 월곡리(月谷里) | 10 | 19 | 20 | 월곡리(月谷里) | 17 | 48 | 47 |
| | 죽내리(竹內里) | 22 | 47 | 59 | 죽내리(竹內里) | 3 | 5 | 4 |
| | 죽림리(竹林里) | 27 | 28 | 51 | 죽림리(竹林里) | 28 | 28 | 47 |
| | 진포리(眞浦里) | 7 | 10 | 14 | 진포리(眞浦里) | 4 | 13 | 12 |
| | 만포리(滿浦里) | 13 | 30 | 27 | 만포리(滿浦里) | 10 | 26 | 25 |
| | 흑암리(黑巖里) | 22 | 30 | 25 | 흑암리(黑巖里) | 22 | 40 | 40 |
| | 화산리(華山里) | 13 | 23 | 25 | 화산리(華山里) | 13 | 44 | 43 |
| | 침산리(砧山里) | 55 | 115 | 127 | 침산리(砧山里) | 35 | 90 | 88 |
| | 신동리(薪洞里) | 120 | 201 | 189 | 신동리(薪洞里) | 69 | 123 | 122 |
| | 토옥동리(土玉洞里) | 34 | 72 | 85 | 토옥동리(土玉洞里) | 19 | 52 | 51 |
| | 토흥리(土興里) | 16 | 39 | 31 | 토흥리(土興里) | 17 | 47 | 46 |
| | 번암리(礮巖里) | 5 | 3 | 9 | 번암리(礮巖里) | 7 | 16 | 15 |
| 면 | | | | | 황조동리(黃鳥洞里) | 3 | 5 | 4 |
| | | | | | 송산리(松山里) | 6 | 14 | 13 |
| | | | | | 내창리(內倉里) | 11 | 26 | 25 |
| | | | | | 낙은동리(樂隱洞里) | 9 | 19 | 18 |
| | | | | | 상동리(上洞里) | 5 | 14 | 12 |
| | | | | | 백관리(百官里) | 5 | 12 | 11 |
| | | | | | 월암리(月巖里) | 21 | 59 | 58 |
| 총 계 | | 344 | 617 | 662 | 총 계 | 304 | 681 | 681 |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북 | 봉암리(鳳巖里) | 167 | 345 | 289 | 봉암리(鳳巖里) | 135 | 239 | 188 |
| | 월하동리(月河洞里) | 90 | 153 | 130 | 월하동리(月河洞里) | 26 | 47 | 46 |
| | 전성리(錢城里) | 15 | 31 | 29 | 전성리(錢城里) | 16 | 34 | 33 |
| | 두옥동리(斗玉洞里) | 9 | 12 | 14 | 두옥동리(斗玉洞里) | 10 | 30 | 29 |
| | 양지동리(陽智洞里) | 20 | 45 | 47 | 양지동리(陽智洞里) | 10 | 28 | 26 |
| 이 면 | 신리(新里) | 51 | 113 | 107 | 신리(新里) | 30 | 64 | 63 |
| | 생재동리(生齋洞里) | 30 | 41 | 67 | 생재동리(生齋洞里) | 37 | 77 | 76 |
| | 고산동리(高山洞里) | 39 | 84 | 59 | 고산동리(高山洞里) | 27 | 78 | 77 |
| | 복동리(福洞里) | 25 | 50 | 64 | 복동리(福洞里) | 6 | 12 | 11 |
| | | | | | 월명리(月明里) | 2 | 3 | 2 |
| | | | | | 쌍괴정리(雙槐亭里) | 40 | 82 | 80 |
| | | | | | 전당리(錢塘里) | 18 | 54 | 52 |
| 총 계 | | 446 | 874 | 806 | 총 계 | 357 | 748 | 683 |

| 면 | 여 지도서 (1757~1765) | | | | 호서읍지 (1871) | | | | |
|-------------|-------------------|------|-----|----------|-------------|------|-----|-----|-----|
| | 리 | 호(戶) | 남 | 여 | 리 | 호(戶) | 남 | 여 | |
| 읍 내 면 | 암천리(巖川里) | 10 | 22 | 28 | 암천리(巖川里) | 9 | 20 | 19 | |
| | 교촌리(校村里) | 21 | 22 | 29 | 교촌리(校村里) | 23 | 43 | 49 | |
| | 동이부리(東二部里) | 27 | 37 | 31 | 동이부리(東二部里) | 13 | 30 | 29 | |
| | 동삼부리(東三部里) | 24 | 50 | 52 | 동삼부리(東三部里) | 37 | 79 | 59 | |
| | 중부리(中部里) | 43 | 83 | 81 | | | | | |
| | 북부리(北部里) | 12 | 24 | 23 | 북부리(北部里) | 8 | 39 | 29 | |
| | 창동리(倉洞里) | 9 | 14 | 18 | 창동리(倉洞里) | 7 | 16 | 15 | |
| | 서부리(西部里) | 6 | 11 | 11 | 서부리(西部里) | 7 | 16 | 15 | |
| | 신촌리(新村里) | 18 | 28 | 35 | 신촌리(新村里) | 14 | 23 | 22 | |
| | | | | 남부리(南部里) | 8 | 11 | 10 | | |
| 총 | 계 | 170 | 291 | 308 | 총 | 계 | 126 | 277 | 247 |

(2)지방의 군사조직

조선후기 군사제도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지방의 군사조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道)·목(牧)·부(府)·군(郡)·현(縣)등의 지방군병은 중앙의 군병과 약간 그 목적을 달리 하고 있었다. 중앙군병은 왕실을 호위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한 것이나, 지방의 군대는 각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방(國防)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 편제는 중앙에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표방한 5위제(衛制)가 있었던 초기에는 지방에 진관체제(鎭管體制)가 형성되어 있었고, 임진왜란때 그 허구를 드러내자, 중앙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이 창설되고 지방에는 속오군(束伍軍)이 설치되었다. 또 그 군제가 5군영제로 개혁된 때에는 역시 5영(營)의 제(制)에 의거하여 지방 군사조직도 편제된 것이며, 이들 군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명 없이 동원하지 못하였다.

중앙의 5군영과 지방의 속오군은 조선후기의 핵심적인 군대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양난 후 진전된 신분제의 붕괴와 부역제의 해이, 그리고 수취제제의 변동 등은 번상병제(番上兵制)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결국 모병제(募兵制)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전기의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는 이제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군제(軍制)로 전환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농민의 군역 부담은 세(稅)호 대치되어 1년에 2필의 군포를 수납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연기현의 군병은 다음과 같다.

〈표〉 연기현 군병표

| 내 용 | 연 기 현 |
|-------------------------|-------|
| 공 주 진 과 총(公州진과총 把總) | 1 |
| 초 관 (哨 官) | 1 |
| 기 패 관 (旗 牌 官) | 4 |
| 교 수 (教 授) | 1 |
| 훈 도 (訓 導) | 1 |
| 마 병 (馬 兵) | 28 |
| 마 병 보 (馬 兵 保) | 28 |
| 속 오 잡 색 병 (束 伍 雜 色 兵) | 222 |
| 훈련도감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 78 |
| 군 향 보 (軍 餉 保) | 39 |
| 어 영 정 군 (御 營 正 軍) | 52 |
| 정 군 자 보 (正 軍 資 保) | 55 |
| 관 납 보 (官 納 保) | 204 |
| 금 위 영 정 군 (禁 衛 營 正 軍) | 8 |
| 정 군 자 보 (正 軍 資 保) | 8 |
| 관 납 보 (官 納 保) | 82 |
| 병 조 기 병 (兵 曹 驥 兵) | 190 |
| 보 병 (步 兵) | 123 |
| 금 군 보 (禁 軍 保) | 13 |
| 호 련 대 (扈 輦 隊) | 2 |
| 장 악 원 악 공 보(掌樂院樂工保) | 12 |
| 사 복 시 제 원 (司 僕 侍 諸 員) | 4 |
| 균 역 청 선 무 군 관(均役廳選武軍官) | 40 |
| 감 영 영 무 (監 營 另 武) | 17 |
| 아 병 (牙 兵) | 38 |
| 병 영 신 기 패 관(兵營新選牌官) | 2 |
| 대 섭 군 관 (待 變 軍 官) | 4 |
| 신 선 마 병 (新 選 馬 兵) | 5 |
| 마 병 보 (馬 兵 保) | 5 |
| 보 군 (步 軍) | 17 |
| 보 (保) | 40 |
| 병영후수첩군관 (兵營候守牒軍官) | 7 |
| 수 영 수 군 (水 營 水 軍) | 16 |
| 수 군 보 (水 軍 保) | 32 |
| 총 계 | 1,380 |

(자료 : 여지도서)

(3) 수취체제의 변화

왜란 이후 국가의 수세토지(收稅土地)는 1/3로 줄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국가의 양전사업(量田事業)과 진전(陳田) 개간으로 영조-정조시대에는 약 140만결까지 토지 결수가 늘어났으나, 국가의 수세지(收稅地)는 불과 80만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궁방전(宮房田)과 관둔전(官屯田) 등 면세지(免稅地)가 크게 늘어난 데 원인이 있었다. 전세(田稅) 뿐만 아니라 공물(貢物)과 군포(軍布)등도 양반의 납세 기피와 농민의 도망으로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를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나 수취체제에 변혁을 가져온 숙종조 이후 공납제(貢納制)의 대동법(大同法)으로의 개혁과, 영조조 이후 균역의 균역법(均役法)으로의 개정 등 전정(田政)의 큰 개편이 기본이 되었다.

(4) 전세(田稅)

인조 13년(1635)에는 각 지역별로 전토(田土)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 永定調率法)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 법은 임란 후 농민이 피폐하고 전토가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목(稅目)이 가중되어 농민이 전토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의 부담을 감소해서 백성을 안주(安住)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연분법(年分法: 세종조 이후 시행된 전세제) 시행에 있어서의 기술상의 난점을 없이 하고 전세미(田稅米)의 세입량을 가능한 대로 고정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종 5년(1664)에는 진황전(陳荒田)의 개간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진전강하법(陳田降下法)을 제정 실시하여 신간지(新墾地)는 3년간 면세하고, 4년째부터 그 등급을 정하여 수세케 하기로 하였으며, 영조 36년(1760)에는 새로이 비총법(比摠法: 定額科率法)을 실시하였는데, 이 세법은 고종 31년(1894)에 전세(田稅)의 근대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50년간 큰 변혁없이 실시되어 온 것이다.

비총법(比摠法)은 비교적 안정된 전세미의 세입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시행되었으나, 이 또한 수령들의 은결(隱結), 재결허록(災結虛錄) 등 부정한 수탈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조선후기 연기·전의 양 현의 전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연기현의 토지

| 종류 \ 군현 | 연 기 현 |
|---------|--------------------------------|
| 한 전(旱田) | 원장부(元帳簿) 1,736결(結) 79부(負) |
| | 진잡경(陳雜頃) 813결(結) 23부(負) |
| | 시기(時起) 948결(結) 56부(負) |
| 수 전(水田) | 원장부(元帳簿) 1,124결(結) 89부(負) |
| | 진잡경(陳雜頃) 176결(結) 44부(負) 3속(束) |
| | 시기(時起-實田) 948결(結) 44부(負) 7속(束) |

〈표〉 연기현의 전세

| 종류 \ 군현 | 연 기 현 |
|---------|----------------------------------|
| 쌀(米) | 320석(石) 12두(斗) 5승(升) 2합(合) 6석(夕) |
| 콩(太) | 223석(石) 3두(斗) 7승(升) 2합(合) |

※연기현의 전세는 공진창(貢津倉)을 거쳐 한성의 광흥창(廣興倉)에 수납되었다.

(5)대동(大同)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물제도는 본래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부터 방납(防納)의 폐단이 있었다. 방납이라 함은 국가의 수요물품을 공납 청부업자로 하여금 사서 바치게 하고, 그 대신 공납청부업자가 농민에게서 그 댓가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납자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농민의 부담이 더욱 늘게 되었다.

방납의 폐단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에 여러 번 논의되었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17세기 초 광해군 때에 토산물을 미곡(米穀)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다. 그 후 17세기 중엽에 충청도에서

도 대동법의 실시를 보게되었다. 충청도의 대동법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시행 3년 만에 폐지되었다가, 효종 2년에 다시 실시를 보게 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은 공납이 면제된 대신에, 전(田) 1결(結)마다 12두(斗)의 대동미를 냈는데, 산간지방에서는 쌀 대신 포(布)나 전(錢)으로 내게 하였다. 국가는 선혜청(宣惠廳)에서 징수한 미(米)·포(布)·전(錢)을 공인(貢人)이라고 불리는 어용상인(御用商人)에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관수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대동법은 토지가 적거나 토지를 갖지 않은 소농에게 다소 유리하였으나, 그 후에도 진상(進上)이라든가 별공(別貢) 등을 거두어, 현물(現物) 장수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연기·전의 양현의 진상품과 대동미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기현 진공품목(進貢品目)

| 종류 | 군현 | 연 기 현 |
|----------|----|-------------------------------------|
| 하진상(賀進上) | | 압자대건치(鴨子代乾雉) 1마리 |
| 2월 | | 양재 창목(蒼木) 6근(斤) |
| | | 걸지황(乞地黃) 2량(兩) |
| | | 초석(草席) 1위(位) |
| 3월 | | |
| 5월 | | 행인(杏仁) 8량, 금은화(金銀化) 2량, 정력자(亭歷子) 2량 |
| 6월 | | 도인(桃仁) 8량 유가(柳苛) 1부(部) |
| 7월 | | |
| 9월 | | 창목 4근, 금은화 1근, 백금 2량 |
| 10월 | | |

(자료 : 영조~헌종년간 충청도읍지)

〈표〉 연기현 대동

| 내용 군현 | 내 용 | 비 고 | 전 거 |
|----------|---|---------------------------------------|----------------------|
| 연기현 | 미(米) 390석(石) | 3월에 아산 진공창에 수송하여 4월에 용산에 도착하여 선혜청에 수납 | 영조~현종 연간 충청도읍지 |
| | 전목(錢木) 1,950냥(兩) | 육운(陸運)하여 선혜청에 수납 | |
| | 저치미(儲置米) 43석(石) 11두(斗) 2승(升) 8홉(勺) 2석(夕) | 본읍에 유치 | |

(6) 균역(均役)

균역(軍役)의 부담은 본래 양인(良人)의 부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양반은 균역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 균역을 면하기 위하여 평민은 양반이 되려고 애를 쓰거나 농토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이 균역을 피하면 피할수록 국가는 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미 죽은 사람과 어린아이, 또는 이웃과 친족에게 떠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균역 개선은 정부의 오랜 현안이었는데, 18세기 중엽의 영조 때에 이르러 균역법(均役法)으로 매듭지어졌다. 이 법에 의하여 종래에 받아오던 2필(匹)의 군포(軍布)가 1필로 반감되고, 그로 인한 수입의 부족은 권문세족이 소유한 어장(漁場)·염전(鹽田)·선박 등에서 세를 징수하고, 토지 1결(結)마다 2두(斗:또는 5錢)씩의 결작(結作)을 징수함으로써 보충하였다. 이로써 농민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지고 국가의 수입이 늘었으나, 뒤에 가서는 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악폐가 잔존하여 큰 실효를 거두진 못하였다. 조선후기 연기현의 균세(均稅)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기현 균세

| 연 | 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결미(免稅結米) 10석 8홉 2석 2리 · 태(太) 10석 2두 8승 8홉 8석을 전세와 같이 상납 · 대동미(大同米) 22석 2두 1승을 대동선에 실어 상납 · 결전(結錢) 851량 7전 대동목 27필(疋) 전56냥 7전을 육로로 상납 · 농선 일척, 전 5전 춘추분납 | |

(7) 환곡(還穀)

환곡은 속칭 환상(還上)라고도 부르며, 봄에 빈민에게 관곡(官穀)을 대출해 주고 추수 후에 회수하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행한 조적제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빈민에게 식량과 종곡을 대여해 주는 환곡제도는, 봉건적 지주국가가 소농경제의 재생산 조건을 유지케 하고, 지대(地貸)의 수입원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시책이었다. 그러므로 환곡제도는 일찍이 삼국시대에 창설되어, 고려조를 거쳐서 조선조에서도 실시된 것이다.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에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빈민에게 관곡(官穀)을 진대(賑貸)하고 10월에 환납케 하는 항상적 제도로서 창설되었다. 고려조에서도 태조 이래 국창(國倉 ; 黑倉)을 설치하여 흉년이 되면 구휼곡(救恤穀)을 방출해 오다가 성종 5년(986)에 이를 의창(義倉)으로 개칭하는 한편, 물가조절을 위한 상평창(常平倉)을 설립하였다. 조선조에서도 초기부터 고려조의 제도를 모방하여 환곡제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환곡은 본래 산업정책 또는 사회정책 상의 목적으로 소생산자인 빈농에게 관곡을 진대(賑貸: 구제대출) 및 진급(賑給: 구제지급)하는 시책이므로 국가 세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중기, 특히 임진난 이후 환곡제도가 관영고리대로서 농민수탈장치로 변질하여 국가 경비의 조달수단으로 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지(地誌) 및 읍지(邑誌)의 기록에는 환곡을 조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군현의 창곡(倉穀)의 상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연기현의 조적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기현 조적〉

| 기 관 명 | 조 적 |
|----------|---|
| 상진청(常眞廳) | 米 : 1석 5두 1승 2홉 太 : 91석 2승 3홉 租 : 6,758석 13두 7승 2홉 半 : 2,519석 14두 6승 7홉 |
| 군자창(軍資倉) | 米 : 7두 1승 4홉 豆 : 2두 9승 1석 |
| 영 (營) | 米 : 35석 7두 5승 3홉 太 : 1석 2두 2승 3홉 豆 : 2석 2홉 租 : 754석 9두 2승 5홉 米半 : 21석 9두 7승 8홉 진맥(眞麥) : 5두 7홉 半 : 986석 2두 7승 8홉 |
| 영 진(營 賑) | 米 : 2두 1승 6홉 太 : 11두 6홉 租 : 254석 3두 6승 4홉 半 : 44석 9두 9승 4홉 |
| 북 곡(北 穀) | 米 : 196석 11두 2승 5홉 |
| 비변사(備邊司) | 米 : 2석 10두 2승 2홉 |
| 균역청(均役廳) | 米 : 1석 7두 6승 4홉 |
| 보 환(補 還) | 太 : 61석 1두 1승 6홉 |
| 쌍수미(雙樹米) | 406석 14두 7승 2홉 |
| 행영조(行營租) | 270석 9두 3승 5홉 |
| 상당미(上黨米) | 37석 2두 |

(자료 : 영조~헌종연간 충청도읍지)

2. 조선시대 연기군 남면의 산업

1) 농업(農業)

연기군은 현재도 면적이 좁고 인구도 작은 군이지만, 조선시대 역시 연기·전의현은 규모가 작은 군현으로 농업 생산도 타 군현에 비해 보잘 것 없는 편이었다.

연기현은 비록 생업은 보잘것없으나,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여지승람』 「연기현 풍속조」에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고, 남을 고자질하는 풍습이 없다.” 라고 하였듯이, 또 조선 초기의 문신 윤기(尹 頎)가 “사람들은 화평하여 함께 생업을 즐기고 장사꾼도 아낙네도 양식 싸 가지고 갈 필요없네.” (『동국여지승람』 「연기현 제영조」)라고 읊었듯이 연기는 순수한 인심을 가진 고장이다. 연기군의 지역은 조선시대에 농업이 근간이었으므로, 당시의 농업의 변천과 궤를 같이 한다.

17세기 이후의 정치체제 및 수취체제의 개편은, 이 시기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경제발전은 우선 농업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지개간의 활발한 전개와, 새로운 농법의 보급에 따라 생산력의 급증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조선후기의 농법은 지금까지의 직파법(直播法)과 농종법(籠種法)이 각각 이양법(移秧法)과 견종법(畝種法)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력을 절반 이상 절감하고,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후기 이양법 보급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二毛作)을 가능하게 하였다. 벼의 이양법은 양묘(養苗)에 있어서나 이식(移植)에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과거보다 수리문제가 더 절실했다. 그리하여 제언(堤堰)·보(洑) 등 저수지가 새로 많이 만들어지고 또 수리하게 되었다. 저수지 시설은, 현종 3년(1662)에 제언사(堤堰司)가 설치되고, 정조 2년(1778)에 제언절목(堤堰節目)이 반포되어 국가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18세기 말에는 저수지의 총수가 전국적으로 약 6,000에 달하였다. 연기현의 전결(田結)은 앞서 전세(田稅)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연기현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표〉 연기현 제언 일람표

| 제 언 명 | 위 치 | 규 모 |
|-------------|----------|--------------------------|
| 대야곡제 (大也谷堤) | 현 북쪽 5리 | 주회(周回) 506척 수심(水深) 2척 5촌 |
| 금사제 (金沙堤) | 현 남쪽 5리 | 주회(周回) 884척 수심(水深) 3척 |
| 판교제 (板橋堤) | 현 동쪽 10리 | 주회(周回) 1,254척 수심(水深) 3척 |
| 지곶지제 (池串池堤) | 현 북쪽 10리 | 주회(周回) 854척 수심(水深) |
| 침산제 (砧山堤) | 현 북쪽 15리 | 주회(周回) 1,331척 수심(水深) 3척 |
| 대박산제 (大朴山堤) | 현 북쪽 10리 | 주회(周回) 620척 수심(水深) 2척 |
| 흑암제 (黑巖堤) | 현 북쪽 10리 | 주회(周回) 797척 수심(水深) 2척 5촌 |
| 기지동제 (機池洞堤) | 현 북쪽 10리 | 주회(周回) 1,408척 수심(水深) 3척 |
| 저치제 (苧峙堤) | 현 북쪽 15리 | 주회(周回) 737척 수심(水深) 3척 |

(자료 : 1871년 읍지)

2) 토산품(土産品)

차령(車嶺)의 산간에 위치한 연기와 전의현은 농업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별다른 특산품이 생산되지 않았다.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재배된 목화(木花)는 조선조에 와서는 의생활의 주된 옷감이 되었다. 목화는 주로 영남과 호남에서 재배되었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생리조(生利條)」에 의하면, 강원도와 한강 이북에서는 목화가 거의 재배되지 못하고, 한강 이남지역도 내포(內浦)·임천(林川)·한산(漢山)은 모두 목화 가꾸기에 알맞지 않고, 한강 남쪽에서 드물게 목화가 재배되는 곳으로는 오직 충주(忠州) 근처인 괴산(槐山)·연풍(延豐)·청풍(淸風)·단양(丹陽)에서 꽤 많이 재배되나, 차령 이남의 목화재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차령 이남의 목화 산지로는 황간(黃澗)·영동(永同)·옥천(沃川)·회덕(懷德)·공주(公州)가 첫째이고, 다음은 청주(淸州)·문의(文義)·연기(燕岐)·진천(鎭川) 등 고을이 가장 잘 된다고 한 것에서 보면, 연기는 목화의 산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연기·전의현의 토산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기·전의 토산품 일람표

| 군현 \ 종류 | 동 국 여 지 승 람 | 읍 지 |
|---------|--|---------------|
| 연 기 현 | 자기(磁器)·도기(陶器)·게(蟹) | 창목(蒼木)·목화(木花) |
| 전 의 현 | 철(鐵:현동 서방리)·자기(磁器) 시초(柴草)·복령(茯苓)·안식향(安息香) | 우슬(牛膝)·창목(蒼木) |

3) 상업(商業)

조선시대의 지방상업은 장시(場市 ; 鄕市)와 행상(行商 ; 褌負商)이 전부였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각 지방의 경제적 중심지에 발달한 장시는, 조선후기 국내 상업의 발달과 함께 장시의 발달로 병행되었다. 양난 후 전쟁의 복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농촌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병행하여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졌고, 이에 힘입어서 장시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장시는 1월(月) 6장(場)으로, 한 지방에서 매월 6회씩 개시(開市)되며,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의 순서로 개시하였다.

장시에서의 교역품은 곡물과 담배·목화 등의 특산작물, 그리고 수공업 제품 등이 매매되었다. 지방의 장시는 보부상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이웃한 장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1일에서 5일까지 장시를 순환하면서 교역을 하였다.

연기·전의현은 읍내장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이전부터 설장(設場)된 것으로 보인다. 조치원장은 전설에 신라 때 최치원(崔致遠)이 건시장상(建市獎商)하였다 하나, 『동국문헌비고』·『임원경지제(林園經濟志)』 등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임원경지제』 「시규지조(僖圭志條)」에 있는 연기·전의 양 시장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연기·전의 장시

| 장시 \ 내용 | 개 시 일 | 교 역 품 |
|---------|-------|--|
| 연기 읍내장 | 2·7일 | 지황(地黃)·천궁(川芎)·택사향(澤瀉香)· 목향(藿木香)·향부자(香附子)·유기(柳器) |
| 전의 읍내장 | 2·7일 | 창목(蒼木) |

제9절 삼정(三政)의 문란과 민란(民亂)

19세기의 조선왕조, 특히 순조·헌종·철종 3대의 정치·사회의 구조적 단층은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경시화시키는 양상들이었다. 즉 세도정치와 그 정치상황하의 관료체제·수취체제의 문란에서 야기된 사회질서의 파탄이 그것들이었고, 아울러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은 시대적 취향이었다.

조선후기 3대는 나이 어린 임금이 잇달아 즉위하면서, 정권은 외적으로 넘어가 이른바 세도정치라고 불리는 문벌정치가 60여년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세도가의 일족은 모든 요직을 독점하여 국사(國事)를 문란하게 하였고, 뇌물과 매관매직(賣官賣職)의 부패로 정치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수취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정(田政)·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삼정문란은, 결과적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농민의 항거야말로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삼정의 문란은 곡창지대인 삼남(三南)에서 극심하였고, 농민의 항거 역시 삼남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충청도의 경우 삼정의 문란상을 보면, 전정에서 영조 35년 2월 충청도의 가전(加田) 흠축(欠縮)이 580결이나 생겨, 수세(收稅)의 반감과 영속전(永續田)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정조 3년에는 전정이 불균(不均)하였기 때문에 양전(量田)을 개량하여 부역(賦役)을 균평(均平)하게 하며, 보(淤)·언(堰)을 수축하여 토지를 방기(放棄)하지 말 것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정의 문란은 출곡에 대한 작전(作錢)의 무리가 생겨 정조 5년 11월에는, 충청도의 읍곡작전(邑穀作錢)을 균평하게 할 것을 엄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고, 또한 동왕 10년 8월의 「호조연분사목戶曹年分事目」을 보면 호서지방이 가장 등숙(登熟)하였는데도 전결(田結) 총수 129,061결 내에 급재결수(給災結數)가 5,300결이고, 실결수(實結數)가 123,761결에 불과하여 전정(田政) 문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정 이외에도 군정의 백골(白骨)과 황구(黃口), 심지어는 지복세(指腹稅)의 강징과 환곡(還穀)에서의 반작(反作)·가분(加分)·허류(虛留)·입본(立本)·증고(增估)·가집(加執) 등의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과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삼정의 문란과 정치기강의 해이가 더욱 심화됨에,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전국 각지에서 패서(掛書)·방서(傍書)등으로 음성적인 형태를 띠고 일어나

인심을 소란케 하더니, 드디어 철종 13년에는 삼남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다.

삼남의 민란은 충청도의 각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연기현과 인접한 공주·연산·회덕·진잠·문의 등 각 고을에서 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기현에는 파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술농민난(壬戌農民亂)이 삼남에서 크게 확산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긴급대책으로 안무책(按撫策)을 쓰는 동시에, 근본대책으로 삼정이정책(三政釐政策)을 세워, 삼정의 모순점을 시정하려 하였다. 또 지방관의 불법행위를 규찰하는 한편, 민정의 파악 및 수습을 위하여 암행어사를 삼남에 집중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제6장 근대사회와 연기군 남면

제1절 대원군의 개혁정치

현종이 후사(後嗣)없이 죽자, 고종이 즉위하였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생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실권을 잡고, 왕권의 재확립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대내적으로 전제정치를,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강행하였다. 대내적 개혁정치로는, 서원(書院)의 철폐와 인재의 등용 관제의 개혁, 법전의 편찬, 호포법과 사창제도의 부활과 경복궁(景福宮)의 중수를 들 수 있다.

대원군은 유림들의 나태한 생활과 당쟁의 본거지인 서원에 대한 폐지령을 내렸다. 즉, 고종 5년(1868)에 전국의 서원 중 47개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키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유생들의 활동을 제지하였다. 이때 우리 연기군에서는 봉암리의 봉암서원, 송원리의 금호서사, 송담리의 갈산서원, 나성리의 기호서사, 합강리의 합호서원, 방축리의 덕성서원 등이 훼손되었다. 이 중 다시 복원된 곳은 합호서원과 덕성서원 뿐이다.

또 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三軍部)를 부활시켜 행정권과 군사권을 담당케 하였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재건함에 있어, 그 재정적 보완책으로 군포를 호포(戶布)라 하여 양반들에게까지 부과시켰다. 공사로 인한 재정적 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결두전(結頭錢)을 비롯하여, 원납전(願納錢)과 당백전(當百錢) 등을 징수하여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게 하였다.

19세기 이래 이양선(異樣船)의 통상요구를 거부하였던 대원군은 철종 이후 천주교의 교세확장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신부를 통하여 러시아의 남진책을 저지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천주교 탄압을 결심하게 되었다.

고종 31년(1866) 조두순(趙斗淳)의 배외정책(排外政策) 건의에 따라 프랑스 신부와 많은 교인들을 학살하였으니, 이것이 병인사옥(丙寅邪獄)이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리델(Ridel)신부의 탈출사건은, 결국 병인양요(丙寅洋擾)라는 프랑스함

대의 침략을 불러왔다. 탈출에 성공한 리텔신부는 프랑스 극동함대의 로즈(Roge)제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프랑스 북경주재 대리대사인 벨로네(Bellonet)는 신부 학살의 보복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그들은 무력정벌에 의한 개국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양화진 문수산성, 정족산성 등지에서 이용희·한성근·양헌수 등의 힘으로 격퇴당하였다.

고종 3년에는 미국상선 셔먼(General Sherman)호가 평양에서 조선관헌과 충돌하여 소각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북경주재 미국 공사 로우(F.Sow)는 로제(Rodgers) 아세아함대 사령관에게 조선 정벌을 명하여, 고종 8년(1871)에 인천 앞바다에 들어와 광성진(廣城津)을 공격하니, 이것이 신미양요(辛未洋擾)이다. 이 전투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어재연(魚在淵)은 전사하였으나, 조선 군대는 끝까지 싸워 미국함대를 격파시켰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양요를 물리친 대원군은 의기양양하여 쇄국정치를 강화하였고, 이른바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치의 표본으로 삼게 하였다.

이 비문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도 싸우지 않고 화합한다면 나라를 파는 것과 같으니 자손만대까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병인년에 만들고 신미년에 세우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吾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이라 적혀 있다. 우리 연기군에도 당시 척화비가 세워졌는데, 현재는 연기향교 명륜당 마당의 비석군 앞에 세워져 있다.

대원군은 결국 반대파에 의해 10년만에 물러나게 되고, 조선의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원군이 물러나자 며느리인 명성왕후에게 실권이 넘겨졌다. 명성왕후가 집권하게 되자, 안으로는 친족 세도정치의 재현으로 내정이 부패되고, 밖으로는 자주성을 상실한 문호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받아들리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 침략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강력한 통상요구에 의하여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 체결되었다. 그후 미국과 국교를 맺은 이래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우리나라는 마침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외세의 위협을 맞아 위정척사(衛正斥邪)를 부르짖는 세력이 대두됨에 따라, 국론이 개화(開花)와 척사(斥邪)로 엇갈려 정계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침략의 야심을 품은 일본과 청(淸)의 대립으로 이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임

오군란(壬午軍亂)과 갑오정변(甲午政變)이 일어나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2절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과 연기군 남면

조선후기에 와서는 정치의 부패, 탐관오리의 행패, 세금의 과중 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특히 외국 세력의 침투로 국가 위험이 가증되는 가운데, 고종 31년(1894년)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고부민란은 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학정에 반기를 든 농민 봉기로서,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和重)·김개남(金開南)등이 중심이 되어 고부군 백산(白山)에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고, 농민군과 합세하여 정읍(井邑)의 황토현(黃土峴)에서 관군과 보부상 부대를 격파한 후 무장(茂長)을 제압하고 전주(全州)를 점령하였다.

그들의 활동이 호남과 호서에 과급되고, 이에 잇따른 제2차의 동학봉기는 축멸왜이(逐滅倭夷)의 구호 아래 남접과 북접이 호응하여 서울 공격 전선을 폈다. 그런데 결국 동학군은 공주 우금치(牛禁峙)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고 말게 된다. 그 후 전북 태인(泰仁)으로 퇴각하여 유격전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다시 패배함으로써 농민군의 조직적인 항쟁은 끝이 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충청남도 지역은, 회덕·진잠·공주·은진·한산·비인·연산·서천·서산·홍성·예산·당진·면천·보령·전의·연기·정산 등이었다. 3월 하순 동학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자, 최시형의 문하들은 교주 최시형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다. 4월 2일 최시형의 이름으로 각 접주에게 통문을 띄웠다. 4월 7일을 기하여 모든 교도들은 충청북도 청산현에 모이라는 것이었다. 청산에 모인 동학도 수천명은 청산을 떠나, 충청남도의 공주목과 진잠현의 경계인 성전평(星田坪-대전시 유성구 성전동)을 점거하였고, 3월 9일에는 황토현 싸움의 첩보를 듣고 출정하여, 회덕을 장악하고 다시 진잠으로 물러갔다.

이에 충청감사 조병호(趙秉鎬)는 군대를 급히 진잠 방향으로 파견하려고 관민(官民)을 소집하였으나, 모여든 자들은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부상단을 끌어 모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10여명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충청·전라 양도의 경계를 지키는 은진과수병(恩津把守兵) 100명을 급파하기로 하고

충청병사 이용복(李容復)에게 청주 영병(淸州營兵) 200명을 파견하도록 급히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서호초토사(西湖招討使)인 홍계훈(洪啓薰)에게 원병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4월 11일까지 이미 공주와 진잠 사이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동학군이 해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용히 해산한 것이 아니고, 문의·옥천·회덕·진잠·청산·보은·목천 등 충청도 각지에서 전곡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공주·청주 이남의 지역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다름없이 되었다.

충북 보은 장내리(帳內里)에 잠복해 있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동학군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며 무력항쟁에 가담하기를 꺼려했었다.

이로 인하여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동학 북접(北接)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동학 남접(南接)파의 사이에는 미묘한 마찰이 생겼다. 여기에 여러 두령(頭領)들의 권유로 오지영(吳知泳)은 남·북접 화해 공작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 노력의 결과로 동학의 북접과 남접이 다시 연합하여 항일 구국의 전선을 펴게 되었다.

이로부터 삼례에 집결된 남접의 군세와 청산(靑山)에 집결된 북접의 군세는 서로 호응 합세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10만명의 대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산에 집결한 북접 산하에 포섭되었던 충청남도 출신 두령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주 : 김지택(金知擇)·배성천(裴成天)

안면도 : 주병도(朱炳道)

예산 : 박인호(朴寅浩)

태안 : 김동두(金東斗)

홍성 : 김두열(金斗悅)·한규하(韓圭夏)

면천 : 박희인(朴熙寅)

당진 : 박용태(朴容台)·김현구(金顯玖)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시켜 놓은 일본군의 군용전신선(軍用電信線)은 동학군에 의해 여기저기서 절단되었다. 천안에서도 일본인 6명이 살해되었다. 천안 지방 동학당의 세력은 강성하여, 주민 가운데 10명 중 8-9명이 여기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일본인의 여행에는 위험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호남·호서의 동학군은 논산으로 집결하였다. 이들은 일본인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공주로 북진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 정부군을 앞세워 남하하였다. 이들은 천안에서 집결하였다. 이 때 부대가 통과하는 지역의 수령이나 읍민은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강제로 헌납해야만 하였다.

그때 천안군수 김병숙(金炳塾)은 두 마리의 쇠고기, 백주(白酒) 1항아리, 담배(南草) 15과(把)를 바치고, 전의현감 이교승(李敎承)은 짚신 100켤레, 또 천안에 사는 전감찰(前監察) 윤영렬(尹英烈)은 소 한 마리와 돈 40량을 바쳐야만 했다.

이들 부대가 10월 29일에 천안으로부터 30리를 행군하여 청주 송정리(松町里)에 머무르고, 다음날 목천 세성산(細城山) 밑에 이르렀을 때 이윽고 동학군과 전단(戰端)이 벌어지게 되었다.

북접(北接)의 동학농민군은 거의 청주·공주 사이의 인근 동학농민군이 모두 참여하여 이곳에 이르는 관아의 피해가 컸다.

연기현은 수령이 관아(官衙)를 피하여 병기가 동학군에 넘어갔다. 이때 청주 이북의 관군이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다. 장위영(壯衛營) 영관(領官) 죽산부사(竹山主使) 이두황(李斗璜)은 이들 북접(北接)의 동학농민군을 추적하여 10월 17일 회인현(懷仁縣)으로 행군하여 이어 부강(莢江)에 이르러 주둔한 다음, 18일에는 연기현으로 진출하여 연기 봉암동(鳳巖洞)에 진을 쳤다. 이때 관군이 파악한 북접의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40여 리 떨어진 유성에서 논산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논산에 머물러 있었다. 전봉준이 이곳에서 군세를 가다듬고 길을 3로(路)로 나누어 북상하려 하였다. 북접의 효장(驍將) 김복용(金福用)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목천(木川) 세성산(細城山)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산꼭대기 방색(防塞)을 쌓고 진을 쳤다. 이곳에서 일본군과 만나절을 싸운 끝에, 동학농민군은 몰려서 서쪽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북편의 일본군으로부터 추격받은 동학농민군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김복용도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세성산의 동학농민군은 전의지방의 동학농민이 많이 가담하였다. 이는 동학 농민의 잔당을 소탕하는 12월에, 전의에서 관군이 세성산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던 거두(巨頭) 25인을 체포하고 또한, 이곳에서 동학의 거두 8한(漢)이 살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논산에 집결된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11월 초순에 이르러 요충지인 공주

를 향해 북상하였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은 관군 및 일본군의 주력부대와 공주의 관문인 우금치(牛禁峙) 근처에서 마주쳐서, 피비린내 나는 격전을 전후 6-7일간에 걸쳐 거듭 벌인 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근대적인 장비와 훈련을 받은 일본군의 방어를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여기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전봉준은 관군에 대하여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비극을 깨우치고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거를 호소하였으나, 조선정부나 관군은 이미 일본군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남은 세력들을 모아 제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섬멸하려는 일본군에 의하여 해산되고, 또한 수색·학살되었다.

당시 일본군에 입수된 충청남도 각 지방의 동학군 두령들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공주 : 장준환(張俊煥) | 서천 : 추용성(秋鏞聲) |
| 전의 : 임기준(任基準) | 은진 : 염상원(廉相元) |
| 결성 : 변대철(卞大哲) | 진잠 : 송석영(宋錫榮) |
| 한산 : 김약선(金若善) | 서산 : 이창구(李昌九) |
| 연기 : 최명규(崔鳴奎) | 아산 : 안교선(安敎善) |
| 홍주 : 김영필(金永弼) | 예산 : 박덕칠(朴德七) |
| 회덕 : 박성모(朴聖模) | 목천 : 김형식(金滢植) |
| 면천 : 이화삼(李花三) | 남포 : 김우경(金禹卿) |
| 평택 : 김용음(金鏞音) | 온양 : 방화용(方化鏞) |
| 청양 : 유진하(俞鎭夏) | 부여 : 이종필(李鐘弼) |

결국 전봉준이 배반자의 밀고로 이하에 11월에 순창에서 체포되어 다음해 3월에 서울에서 처형됨으로써, 1년간에 걸친 농민전쟁은 30-40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끝이 났다.

제3절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의 지방 행정 조직

동학농민운동이 농민 대중에 의한 반침략·반봉건의 민중운동인데 대하여, 갑오경장(甲午更張)은 온건개화 정책들이 주동이 된 정부 추진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 개화세력은 기세를 펼 수 없었으나, 동학운동의 폭발을 계기로 다시금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군대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청(淸)의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침략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208건의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갑오경장이다 이때 정치·경제·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착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행정기구는 이 갑오경장을 거쳐 근대화 되었다. 이 지방제도의 개혁은 갑오경장 최후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내무아문(內務衙門)은 이 지방제도 개혁안을 작성하기 위해 각 도(道)의 행정실무자로부터 도의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지만, 지방의 행정구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대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박영효(朴泳孝)가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1895년 5월 26일에 도제(道制)의 폐지, 지방제도의 개혁 및 지방제도가 공포되어, 다음달인 윤 5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8도의 감영(監營), 안무영(按撫營) 및 유수부(留守府)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도의 관찰사, 안무사 및 각부의 유수 이하 지방관도 모두 폐하였다. 이 지방제도의 개혁은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府)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군(郡)으로 획일화시켰다. 그리하여 전국에 336개 군(郡)을 설치하고 신설된 23개 부(府)에 분속시켰다.

충청도는 공주부(公州府)·홍주부(洪州府)·충주부(忠州府)로 나누어, 치소(治所)는 공주·홍주·충주에 두었다. 공주부는 27개 군을 관할하였는데, 연기군과 전의군은 이에 소속되었다.

당시 연기군의 구성면은 연기군 소재지인 읍내면과 동일면, 동이면, 북일면, 북이면, 북삼면, 남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치소는 연남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전의군은 소재지가 현 읍내리에 있었고, 군청은 전의초등학교 자리이다. 구성면은 동면, 소서면, 대서면, 남면, 북면이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다음 해인 1896년 8월 4일에 부제(府制)를 개정하여 수도인 한성부(漢城府)를 제외하고, 전국을 13도(道)·1목(牧)·9부(府)·329군(郡)으로 하여, 각 부군(府郡)은 5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인원·봉급·경비를 달리하였다. 이때 개정된 13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었는데, 연기군과 전의군은 4등급의 군이었다.

13도제로 개편된 지방행정은, 이후 지방행정관인 관찰사와 군수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지방행정은 중앙의 지휘 감독을 받아 피라미드식의 현대적 행정체제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 이하의 면(面)·리(里)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근대적 자치제의 개념을 가미한 향회제도(鄉會制度)를 실시하였다.

향회는 1895년 11월 3일 의정부 주본(議政府 奏本)으로 발포도니 향회조규(鄉會條規) 및 향약판무규정(鄉約辦務規定)에 의하여 지방 주민이 해당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향회는 마치 지방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중·소회가 있어 대회(大會)는 군회(郡會), 중회(中會)는 면회(面會), 소회(小會)는 리회(里會)였다. 그 조직은 군회는 각 면의 집강(執綱) 및 면공선(面公選)의 2인으로 구성하였고, 면회는 집강과 면내 각 리존위(里尊位) 및 리공선(里公選)의 2인으로 하고, 리회는 존위와 리 내 매호 1명으로 구성하되, 징역 또는 조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였다.

제4절 정미의병(丁未義兵)과 연기군 남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 문제의 경쟁자인 청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축출시키는데 성공한 일본은, 제국주의 세계정책에 광분하던 영국·프랑스·미국 등과 상호 권익을 존중해주는 침략외교를 펴, 마침내 한반도를 정치적 우월권 지역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국제 정치무대에서 조선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일본은, 마침내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체결로 조선의 국권을 탈취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이를 물리치기 위한 민족운동이 의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단발령이 실시되던 해에는 을미의병(乙未義兵)이 일어났고, 을사조약으로 인한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서는 병오의병(丙午義兵)이 전국에서 봉기하였다. 본군에서는 을미·병오의병의 뚜렷한 활동은 없었으나 많은 유생들은 의분을 참고 있었다.

1907년 6월, 헤이그밀사사건으로 일본은 내정간섭을 보다 강화하고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켰다. 이에 양위를 반대하는 항일 의거가 전개되었다. 일본은 보호권을 확대해 정미 7조약(丁未 7條約)을 성립시키고, 8월에는 군대해방을 단행하였다. 이에 항거하여 각지에서 의병전쟁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정미의병이라 한다.

이 정미의병 봉기 때에 의병장 임대수(林大洙)는 전의에서 기의(起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임대수는 1882년 2월 12일 연기군 남면 송담리 표석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분개하여, 의병에 가담하여 전국의 각지에서 활약한 바가 있었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과 고종의 퇴위, 정미 7조약 등으로 국운이 완전히 기울자, 임대수는 동년 9월 3일, 의병 100여명을 모집하여 이를 이끌고 전의 소정역을 습격하여 일본 순사와 첫 싸움을 벌인 후, 직산경무소, 은진·정산 등의 일경주재소를 습격하였다. 그는 일정한 거점이나 주둔지역을 정하지 않고,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 격투를 벌였다. 그는 1908년에는 당진·청양·비인·한산·임천·면천·신창·아산·평택 등지의 일경을 급습하여 일경에 구속된 수백인의 지사(志士)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임대수는 이후 계속된 의병활동으로 일본 경찰에 쫓기다가, 1911년 6월 16일 공주군 의당면 대산리의 대산강당에서 일경과 결전을 벌이던 중 피살되었다.

당시 충청남도관찰사 최정덕(崔廷德)이 내무대신 송병준(宋秉峻)에게 1909년 10월 22일 보고한 문건 적도상황(賊徒狀況)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희 원년 9월 3일 오전 9시

전의군 소정리역에 폭도 약 1백명이 내습하여 정거장을 총격하고 마침내 이를 불태웠다. 급보를 받은 순사부장 길정(吉井喜之功)·순사 총본(塚本富次郎)은 전의읍으로부터 현장에 달려나왔으나 이미 적의 1대 50여명은 목천지방으로, 20여명은 온양 방면으로 떠났으므로 이를 쫓았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2. 융희 원년 9월 15일

폭도 60명이 신창(新昌) 순사주재소에 내습하였으나 주재소 순사가 이를 격퇴하였다.

3. 융희 원년 9월 20일 오후 12시

직산 경무분과소에 폭도 20명이 내습하여 왔으나 한인 순사 전용채(田溶采)가 잠자고 있었다가 싸우지 못하고 성환으로 피하였던 바 관품(官品) 약간을 탈취한 적은 목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4. 융희 원년 10월 25일 오후 12시

폭도 약 1백 50명이 평택 읍내를 습격하고 군아(郡衙) 및 경무 분과소에 쳐들어왔으나 바로 떠나 버렸다.

5. 융희 원년 11월 5일 오후 7시

은진 분과소에 폭도 약 60명이 내습하여 총기·관복 등을 약탈하였고, 군아의 서류를 모조리 불태우고 또 사무실에 방화하였으나 대수롭지는 않았다. 겹하여 구금 중인 범인 등을 풀어놓는 등 횡포가 이를 데 없었다.

6. 융희 원년 11월 9일 오전 8시

10여명의 폭도가 다시 평택 경무분과소를 습격하고 순사의 긴 칼자루를 약탈하여 갔다.

7. 융희 원년 11월 10일 오후 5시경

화적(火賊)의 무리 30명 내외가 임천군 외곡면 덕림리에 있는 일본인 벌목장을 습격하고 소막사(小幕舍)를 불태웠다는 급보를 받은 임천 분과소 순사 각전(角田華太郎)·광영(光永熊太郎)은 즉시 현장에 출장, 취조한 바, 당시 벌목장에는 감독 산근(山根定次郎)외에 10명이 있었고, 그 중 1명은 부인, 1명은 어린아이로서 부인과 어린아이는 그 소막사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부근에 흩어져 취업 중에 적의 불의의 발포·습격을 받았으므로 흩어져 도주하여 피난하였다. 다행히 인명에 손해는 없었으나 적은 막사에 있던 엽총 2정을 약탈하고 방화하여 전부를 불태웠다.

그리고 오후 8시경에 화동면 입포에 나타나 주막을 운영하는 최덕윤의 방에 와서

일본인이 있는지를 물으며 발포하여 한인 1명을 부상시키고 금강 강변에 매어 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주하여 버렸다고 한다.

8. 율희 원년 11월 16일

폭도 1백 30명이 아산 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 순사가 힘써 싸워 수시간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교전 중에 한인 순사 1명이 전사하였다.

9. 율희 원년 11월 22일

면천 주재소에 폭도 1백명이 내습하여 주재소 및 우편 취급소 등을 불태웠다. 주재 순사가 이를 추격하여 한총(韓銃) 9정, 잡품 수 점을 노획하였다.

10. 율희 원년 12월

정산 읍내에 폭도 약 1백 50명이 내습하여 주재소·우편취급소 기타 4호에 방화하고, 일본인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시켰다.

11. 율희 2년 1월 9일

폭도 50명이 당진 주재소를 습격하고 한인 순사 3명 및 한인 우편 체송인을 잡아 면천군 금암포에 이르러 순사 및 체송인을 구타한 후 순사에게는 파직할 것을 서약 받고 석방하였다.

12. 율희 2년 2월 26일

청양 주재소에 폭도 1백 50명이 내습하여 주재 순사가 이를 격퇴하였다. 적 4명을 죽였다.

13. 율희 2년 3월 11일 밤 10시경

폭도 14명이 비인군 읍내 인창학교(仁昌學校)를 습격하였다. 이때 일본인 교사 좌등(佐藤竹次郎)이 와병 중이었으나 간신히 몸을 피하고 엽총 1점, 의류 등을 약탈당하였다. 또 비인 순사 주재의 문짜를 파괴하고 돌입하였으나 별 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재소에 있었던 한인 순사 2명은 학교가 습격 당하자 즉시 나와 이를 살폈으나, 그들은 수가 많고 총기를 가졌으며 이쪽은 소수로 맨손이었으므로 부득이 숨어 있었다.

이 보고가 다음날 12일 오후 2시 홍산 경찰분서에 도달하자 경부 편강(片岡操)은 순사 목전(木田之夫)·도변(渡邊常太郎)·김익환(金益煥)·신성균(申星均) 등을 비인에, 순사 산하(山下邦雄)·세야(笹野常藏)·장기영(張基榮)·장병관(張秉觀) 등을 남포군 심전면 방면에, 또 순사 김수빈(金洙彬)을 남포 주재소에 보내어 그곳 순사와 함께 출발토록 하여 한편에서부터 엄밀히 수색케 하였으나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

14. 용희 2년 5월 12일 오전 12시경

한산 순사 주재소에 폭도 약 50명이 내습하여 순사의 관복·대검(帶劍)·총기·탄약·기타 물품을 약탈하고 또 세무서를 습격하여 서류를 훔쳐 버리고 기구를 파괴하였다.

15. 용희 2년 5월 18일

폭도 20명이 당진 순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를 불태우고 도주하였다.

16. 용희 2년 6월 9일 오후 11시경

임천 순사 주재소에 폭도 약 60명이 내습하여 순사의 관복·기타 총검 등을 모조리 약탈하고 또 병사(病舍)에 방화를 하였다.

17. 용희 2년 6월 17일

폭도 50명이 당진 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방화를 하고 도주하였으나 전부 타지는 않았다.

18. 용희 2년 9월 21일

면천군 창택면 성구미포에 폭도 16명이 내습하여 주재 순사가 이를 공격하여 6명을 죽이고 소총 11점, 칼 2자구를 노획하였다.

위와 같이 의병활동이 활발해지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의병장을 토벌하라는 지시가 계속 하달되고, 임대수는 더욱 큰 활약으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응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구금되었던 애국지사를 구출한 수는 백여명에 달하였고, 탈취한 무

기·탄약과 불은서류가 부지기수였다. 임대수는 ‘호경대장’이라는 별칭처럼 호랑이가 화가 나서 덩벼들 듯 용맹하게 싸웠고, 싸움마다 전승을 거두었다.

1911년 6월 16일 공주군 의당면 태산리 전투는, 이러한 임대수의 생을 마감한 치열한 전투였다. 임대수는 연기지역에서 활동하던 동지 권정남과 이곳에서 합세하여 전투를 벌였다. 이때는 한일합방 바로 다음해였기 때문에 의병활동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로 전투에 임하였고, 일본 경찰 또한 병력을 증강하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그런데 의병들이 공주군 의당면 태산리에 집결하여 있을 땐 이미 누군가의 밀고가 있었다. 임대수와 동료 권정남이 만남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임대수는 태실 강당(이씨 재실 앞) 높은 담을 넘어 마루 밑에 숨어 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동지 6명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전사자들은 재실집 근처에 매장되었다가, 1982년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에 대전공원묘지가 만들어지면서 의병활동을 조사하게 되었고, 임대수의 묘가 방치되어 있다 하여 대전공원묘원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공주군이 이장비용을 부담하여, 1982년 6월 19일에 대전공원묘지로 이장하였다가, 1997년 10월 16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국립묘지로 이장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여 1980년 8월 14일 건국포장을, 1990년 12월 26일에는 건국훈장애국상을 추서하였다. 1999년 연기향토박물관·조치원문화원·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에서 추진하여 그의 생가마을 입구에 공적비와 공원을 조성하였다.

제5절 경부선 철도(京釜線 鐵道)와 조치원(鳥致院)

조선시대의 연기와 전의는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이였다. 이와 같은 본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부터이다. 양군의 중심지가 경부선의 역이 설치되는 조치원으로 옮겨지고, 조치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0년대의 세계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며,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가주의(國家主義)를 앞세워 제국주의(帝國主義)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이권 쟁탈의 침략적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일본에 의해 크게 자행되었다. 서구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각종 이권을 획득하는 과정

에서 일본은, 철도 가설권, 해관(海關) 관리권, 전기사업권, 포경어로권 등을 탈취하였다. 건양 원년에 경인철도 부설권이 미국인 모오스에게, 경의철도 부설권이 프랑스인 그릴르에게 차례로 넘어가자, 일본은 총력을 기울여 일본 정부의 후원 아래 우선 경부철도주식회사(京釜鐵道株式會社)의 창립을 추진하여 백방으로 한국 정부와 교섭하여 동년(1898) 9월 8일, 한·일 양국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경부철도합동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드디어 그 숙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1년 6월에 경부철도주식회사는 동년 8월 21일 북단인 영등포와, 9월 21일 남단인 초량(草梁)에서 각각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경부선의 철도공사는 초량·영등포·대구·조치원에 건설사무소를 두고 추진하였는데, 조치원 건설사무소는 뒤에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공사는 속성공사로 착수하였으나 성현(省峴)-부강(美江) 간의 120리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동 구간은 190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측을 마쳤으나, 속성공사를 시행하려면 개측(改測)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측한 결과 남부 성현-영등포 간 77리 32쇄(심천정거장 남단) 지점에서 남북 궤도의 연결접합을 보게 되어, 경부철도 속성의 공사가 준공되게 되었다.

속성공사에 이어 부대로 터널, 교량 등의 공사를 매듭진 경부선은, 1903년 12월 27일 초량-영등포간의 여객 취급을 한 데 이어, 1905년 1월1일에는 전선을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05년 5월 25일에 남대문 정거장 구내광장에서 경부선의 개통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제7장 일제 강점기의 연기군 남면

제1절 일제의 무단통치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정미 7조약 늑결(勒結)의 수순을 밟고 난 후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을 체결하여 우리 국토를 강점하였다.

합방 후 총독부를 설치하여, 육·해군 대장을 총독에 임명하고 무단식민통치를 강행하였다. 총독부는 5부 9국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중 경무총감부는 중심기구로서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들은 헌병경찰제(憲兵警察制)를 실시하여 2만여 명의 헌병과 보조원 및 2개 사단의 병력으로 민족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니, 105인 사건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비협조인들은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 하여, 1912년에 5만명, 1915년에는 14만명 이상을 검거하였다.

무단통치 기간 중, 일제의 식민지 착취로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다. 토지조사국 설치와 토지조사령에 의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 이 조사사업에서 많은 농민토지, 지주토지 및 국유지가 몰수되어, 전국토의 40%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고, 그중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는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우리 농민의 약 77%는 소작농으로 전락, 영세화되어 갔다.

총독부는 우리나라 임업·금융·어업·광업 등 모든 산업 시설을 독점했는데, 그중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국책회사로 최대의 착취기관이었다. 또한 민족기업을 억압하고자 회사령을 발표하였고, 그 외 일본 제일은행, 한국은행, 조선식산은행 등이 설립되어 금융계를 독점 지배하였다.

광업정책은 1차(1930 ~ 1940년)는 금광개발을, 2차(1941년 ~ 1945)는 철·석탄·중석 등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모든 사업은 총독부의 보호 아래 일본인 회사가 경영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총독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체나 다름없었다. 총독부는 철도·항만·통신·항공 등을 독점 경영하고, 전매사업으로서 담배·인삼·소금 등이 있었다. 또한 일제가 기업의 규제를 위해 이미 통감부 시대에 발표했던 회사령을 1911년에 허가제로 바뀌어, 조건에 위배한 기업의 폐쇄·해산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쌀과 생산원료를 거두어 일본으로 반출하고, 이들 원료로 만든 상품을 다시 들여와 비싼 값으로 팔게 하여, 곡물 및 원료 공급지의 상품시장화라는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는 민족사업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만 잘 사는 길은 일본 사람 못지 않게 일본사람 행세를 하고, 그들 자본세력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민족 자본은 거의 말살되어 갔다.

제2절 3·1운동과 연기군 남면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억압받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민족운동이 도시의 중산층과 개화지식층을 포함한 애국시민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추구되었으나, 일제 헌병경찰 통치를 말미암아 지하의 비밀결사조직으로 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 광복회(光復會),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 천도구국단, 국민회, 자진회, 국민군단, 민단조합 등이었다. 각지의 사립학교와 서당의 교육기관과 천도교와 크리스티교, 불교, 대종교 등 종교조직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그리고 뜻있는 종교인들은 비밀결사와 기맥을 통하면서, 광범위하게 민족의 광복을 향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新民會)는 1907년 안창호(安昌浩)·이동녕(李東寧)·이승훈·양기탁 등 수백명의 민족운동자들이 조직한 비밀결사단체로서, 당시 의병전쟁과 함께 항일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신민회는 민족주의 교육의 실시, 근대의식의 고취, 민족산업의 육성, 민족문화의 계발·선양 등을 목표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외 독립운동의 기지란, 서북간도와 연해주에 한민족이 집단적 거주지역을 만들어,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모아 근대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켜,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조직화·무장화시켜 독립투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독립운동 기지로 유명한 것이, 서간도의 삼원포(三源浦)와 한흥동(韓興洞)이었다. 한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14년에 이상설·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설치되어 독립군의 터전은 민간정부 탄생의 단서가 되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전개는 더욱 그 지역을 확대시켜 상해에서의 신규식(申圭植)은 손문(孫文)과 연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텐진에서는 이회영(李會榮),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승만, 미국에서는 안창호 등이 각각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천도교 대표 손병희(孫秉熙) 기독교 대표 이승훈(李昇薰), 불교대표 한용운(韓龍雲) 등 33인의 대표들은 최남선(崔南善)에 의해서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여 3·1운동의 봉화를 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시민·학생들은 파고다 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대적인 시위운동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로부터 시작된 시위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시위 횟수는 1,500여회나 되고, 200만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만주·일본·미국 등지에서도 일어났다. 일제는 크게 당황하여 헌병경찰은 물론 육해군까지 긴급 출동시켜, 평화적으로 시위하며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남녀 민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많은 인명을 빼앗았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피살자는 7,600여 명, 부상자는 1만 6천여명이 넘었으며, 투옥된 자가 5만명이 넘어 총 200만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또한 불에 탄 가옥과 학교, 예배당 등이 750동이 넘었다.

3월 1일은 마침, 전의 장날이었다. 각처에서 운집한 군중들을 이수욱(李秀郁)을 비롯한 윤상원(尹相元)·이수양(李秀陽)·윤상억(尹相億)·추득천(秋得天) 등이 선동하여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시장을 누볐다. 그리고 함성은 천지를 진동케 하였다. 그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3월 15일 : 전의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② 3월 23일 :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여 신안동·서창동·동리·죽내·변암·백관리·월하리, 서면 일부와 연립한 충북 청원군 강내·강외·옥산 등지에서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3,500명에 달했다.

③ 3월 23일(음 2.22) : 이 날은 금남 대평리 장날이다. 이를 이용하여 임헌규(林憲奎)는 미리 약속했던 임병주(林炳周)·이덕민(李德敏)·김봉식(金鳳植)·임헌빈(林憲斌) 등 5명에게 군중을 동원시킨 후 자신이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그는 일본군에게 피검

④ 3월 24일 : 남면 연기리에서도 밤에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다.

⑤ 3월 30일(음 2.29) : 이 날은 조치원 장날이다. 당시 연기청년회장인 맹의섭(孟義燮)은 홍일섭(洪日燮)과 모의하여 청년회원들을 시장 요소마다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 조선 독립 선포식을 거행한 후 오후 2시 30분 경에 홍일섭을 선두로 독립만세를 외치자 청년회원들과 시장에 운집한 군중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러 천지가 진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늘을 진동하는 독립만세를 듣고 왜병들이 몰려와 구타 혹은 검거하였다.

수많은 군중들은 왜병들에게 노도처럼 항거하던 중 김병수(金炳壽)와 몇몇 회원들은 다행히도 현장에서 피할 수 있었으나 김규필(金奎弼) 회원은 불행히도 머리를 총뿌리에 맞아 유혈이 낭자하였고, 천종구(千鍾九)·임보철(林寶喆)은 검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홍일섭은 그 의지가 초지일관으로 전향치 않는다 하여 기소되어 1년형을 받았고, 김재형(金在衡)은 청주에서 활약한 것이 탄로나 이날 밤 조치원에서 검속되어 1년간의 형을 받았다.

이날의 거사는 전의면 신정리 주민 이수옥(李秀郁)이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3·1 독립만세 광경을 보고 3월 6일에 귀향하여 같은 동리에 사는 추경춘(秋敬春)과 모의하면서 비롯되었다. 7일 밤, 박성교(朴聖敎)의 집에서 추득천(秋得天)·윤상원(尹相元)·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周) 등과 회합하고, 3월 13일 전의 장날 거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8일 밤에는 김병오(金炳五) 집에서 이장희(李章熙)·정원필(鄭元弼)과도 같은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수옥은 태극기 150매를 만들어 거사일인 3월 13일에 장터에서 태극기를 배포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동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대부분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즉심과 복심에도 불복하여 상고심에까지 비약되어 법정투쟁을 전개하였고, 헛불 시위운동을 벌였다.

주동자와 장소

김규필(金奎弼) : 북면(현 조치원읍) 신안동, 서창동

김병수(金炳壽) : 동리(東里, 현 봉산동)

김재형(金在衡) : 죽내리

맹의섭(孟義燮) : 번암리

이은식(李殷植) : 배관리, 율하리

신도균(申道均) : 장달식(張達植) : 서면 와촌리

임헌빈(林憲斌) : 남면 양화리, 진의리

강원식(康元植)·강병두(康炳斗) : 남면 고정리

이날 충북의 강내(江內)·강외(江外) 두 면민들이 밤 9시부터 10개소에서 횃불을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조치원으로 몰려왔는데, 이에 조치원 부근의 군중들이 이를 맞이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 경찰은 삼엄한 경계를 폈다.

⑥ 3월 26일 : 남면 연기리, 동면 송용리, 응암리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응암리에서는 고목동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북면에서는 밤 8시경부터 횃불시위를 하였는데, 이때 1,000여명의 군중들과 합세하여 기세를 올렸다.

⑦ 3월 27일 : 동면 사봉리, 노송리, 송룡리 등 6개소에서 횃불을 올리며 부르짖은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하늘을 진동하였다. 사봉리에서는 구장 장재기(張在基)가 주동하였다. 이날 밤 조치원 헌병분견대가 출동하여 주동자 8명을 체포하였다.

⑧ 3월 28일 : 동면 송룡리에서는 10여명의 주민이 마을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이 운동을 주동하였던 장기복(張基宓)은 평소에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순회 강연을 나온 연기 군수에게 항의하다가 면장의 제지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마을 주민들과 합세하여 횃불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⑨ 3월 29일 : 전동면 청송리에서는 마을주민 20여명이 내동산(內洞山) 위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이 운동은 권혁기(權赫基)가 주동하였는데, 그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또 이날 밤 면내 각 마을에서 일제히 횃불시위가 있었다. 또 서면 기룡리에서도 유진광(俞鎭廣)이 주동이 되어 주민 다수가 마을 뒷산에서 타동의 횃불시위에 호응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주동자인 유진광은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⑩ 3월 31일 : 북면(조치원)에서는 전일 오후 2시부터 조치원 시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후 이날도 읍내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고, 밤에 이르러서는 면내의 모든 마

을이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은 주동 인물로 임헌상(林憲祥)이 체포되어 태형을 받았다.

남면 보통리에서는 밤 8시경 동민 약 10명이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박원칠(朴元七)은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옥고를 치렀다.

양화리·진의리·송담리 등 세 마을에서도 횃불 시위를 하였다.진의리의 김봉식(金鳳植), 월산리의 임영복(林永福), 양화리의 조의순(趙義淳)과 임덕문(林德文)은 이덕민(李德民)의 집에서 모여 독립시위운동을 모의하고, 이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를 계속 부르면서 양화리의 임덕화(林德化)를 앞세워 동리 부락민 100명과 함께 뒷산에 올라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이들은 다시진의리의 임영철(林榮喆)을 앞세워 동민과 함께 동리산에 올라서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송담리로 갔는데 여기서는 횃불시위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호응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로 인해 김봉식, 조의순, 임영복, 임덕민 등은 일경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⑪ 4월 1일 : 남면에서는 전일에 이어 횃불시위가 있었다. 송담리에서는 전일에 이어 이날 9시경 서운산(瑞雲山) 위에서 동민 30여명이 횃불을 놓고 약 1시간 동안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시위는 임희수(林喜洙)가 발의하여 임숙명(林淑明), 임만수(林萬洙)가 주동하였는데 이들은 체포되어 모진 태형을 받았다. 갈운리에서는 동민 150여명이 이날 밤 대거 황우산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는데 류시풍(柳時豊)이 주동 인물로 체포되어 옥고를 겪었다.

⑫ 4월 2일: 감성(금남면) 장터에서 대평 장날에 100여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검거 소동이 일어났다.

⑬ 4월 2일 : 금남면 대평리 장날에 300여명의 군중이 시위를 하였는데 헌병에게 8명이 체포되었다.

⑭ 4월 13일 : 연기 시장에서는 400~500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⑮ 4월 20일 : 연기에서는 100여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앞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벌였다.

〈각 면의 주동자〉

전의면 : 이수옥, 추경춘, 박승준, 추동천, 윤상원, 윤상억, 김병오, 이장희,
정원봉, 이수양

전동면 : 권혁기

서 면 : 유진도

동 면 : 장재기, 장기필

남 면 : 임헌상, 박원칠, 김봉식, 임영복, 조의순, 이덕민, 임영철, 임희수,
임숙명, 임만수, 유시풍, 임덕화

북면(조치원) : 맹의섭, 김재형, 이은식, 전병수, 김규필, 천종규, 홍일섭,
변해조, 오진균.

금남면 : 임현규, 임병주, 이덕주, 김봉식, 임순철, 임헌빈.

제3절 대동단(大同團)과 연기군 남면

기미년 3·1운동 이후, 전 일진회 총무였던 전협(全協) 지사(志士)가 상해로 탈출하여 임시정부 요인과 긴밀한 모의 끝에 재입국한 후, 최익환(崔益煥) 지사와 회합하여 30여명의 동지를 규합해서 조직한 것이 대동단(大同團)이다. 이 대동단은 독립운동을 전제로 하여 조직된 비밀결사로 단원 구성이 다양하였다. 관료를 위시하여 유림·학생·승려·부녀(婦女)·의병·귀족·행상인 등 각계 각층이 망라되었는데, 그 인원은 수십만명에 달하였다. 대동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되었는데, 연기군에서도 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여 청주·공주·대전 등지를 은밀하게 연락하던 대동단원 군감(郡監 : 일개 軍을 통솔하는 직위)은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헌빈(林憲斌),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 임헌성(林憲成), 유성 권성채(權聖采), 청주 윤집(尹集)과 오지환(吳志桓) 여사 등 6인이었다. 임헌성은 연기군청에 재직하면서 대동단원으로 활약하였는데, 주로 독립운동 군자금 조달에 전력하였으며, 만주 여순(旅順) 지방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총탄에 맞았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순감옥에 투옥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르는 동안 병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었다.

제4절 민족말살의 황민화 정책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야기시키면서 침략의 망상을 키워갔다. 이로 인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필연적 파국을 자초하게 되었으며, 전쟁의 참화는 중국 대륙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각지로 파급되었고, 일제는 갖은 전쟁 범죄를 자행하였다.

일제는 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강제로 징수하여 엄청난 시련을 주었음은 물론, 민족성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또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 사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는 한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러한 정책의 정신적 배경 조성을 위하여, 허울 좋게 내선일체(內鮮一體)·동조동근(同祖同根)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황민화운동(皇民化運動)을 펼쳤다.

그리하여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하고, 황국신민의 서사(皇國新民의誓詞)를 기회있을 때마다 제창케 했고, 학교 교육에서 우리 글과 우리의 역사교육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우리의 성씨(姓氏)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하였다. 이 모든 일을 군·관 일체로 강제 시행했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갖은 수단으로 처벌과 보복을 가하였다. 한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國民精神 總動員 朝鮮聯盟)이라는 관제 어용단체를 앞세워 우리 겨레를 전쟁터로 내몰았다.

황민화의 방편으로 전통적 제례(祭禮)와 종교를 말살하고자 신도(神道)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했고, 민족의 혼이 담긴 언어와 문자, 그리고 역사를 박탈하고자 광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혈연적 뿌리를 망각시켜 사회적 유대를 해체시키고자 창씨 개명을 강제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1938년에는 지원병제(志願兵制)를 실시하여,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의 병력 부족을 보충하였고, 1942년에는 그것이 징병제(徵兵制)로 확대되었다. 다음 해에는 학도병제(學徒兵制)로 고등교육을 받던 우리 청년들을 전선으로 강제동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징용령(徵用令)을 실시하여 노동력을 무제한 동원했고, 심지어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우리 자매들마저 침략전선의 희생물로 투입시키는 죄악을 자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병력·노동력의 강제 동원만이 아니라, 일본은 우리 땅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통제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중요 산업 통제법, 수출입품 임시조치법, 위체관리법(爲替管理法), 임시자금 조정법이 차례로 발동되었고, 1938년에 국가 동원법이 제정된 후로, 한반도의 경제는 완전한 통제 경제로 이행되었다.

한편, 징병·징용으로 청장년 노동력을 계속 상실하게 된 농촌에 대해서는, 전시 식량 생산 공급의 무거운 부담을 가중시켰다. 가혹한 공출제도가 강행되고, 철저한 식량배급제도가 실시되어, 농사지으면서도 기아에 허덕여야 하는 참상을 빚어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강행했던 황민화 정책이란, 철저한 수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하여 민족성을 말살하여 혼(魂)이 없는 인간집단으로 우리 민족을 개조하여 철저하게 수탈하고, 침략의 제물로 만들기 위해 광분했던 악랄한 정책으로서,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식민정책(植民政策)이었다.

제5절 3·1운동이전의 항일운동

제국주의는 식민지에 대한 원료·식량공급지·상품시장·값싼 노동력 등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한 요구는 식민지 민중의 궁핍화와 광범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저항은 처음에는 생존권 확보를 근간으로 하여 전개되나 차츰 생존권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어, 반제국주의·반봉건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연기군 항일운동의 흐름은 3·1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1919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이후에는 획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3·1운동 이전의 항일의 형태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주로 한학자(漢學者)군의 소국적인 저항운동을 들 수 있다. 한·일 합방이 된 것을 비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성교(崔成敎)·오강표(吳剛表)의 저항, 향리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시킨 황도연(黃道淵)·임영철(林瑩喆)·성기운(成璣運)의 저항, 단발령이나 호적신고를 거부하고 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임휴철(林休喆)·황희연(黃禧淵)·장재학(張在學)·장재규(張在奎)·최백영(崔百營)의 저항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흐름은, 무장하여 일제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적극적 형태의 항

일투쟁이다. 한말 의병투쟁을 흐름을 이어 받은 이러한 형태는, 연기군의 경우 임대수(林大洙)가 그전형적인 예이다. 그는 의병투쟁에 가담하다가 합방이 되자 무장하고 동지들과 함께 16개군에 걸쳐 일제의 파출소를 습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연기군의 항일운동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6절 3·1운동 이후의 항일운동

3·1운동 당시 군내의 활동상은 앞서 서술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3·1운동 이후의 뚜렷한 경향은, 개인에서 단체운동으로의 전환이다. 3·1운동 자체가 민중의 의식을 근대화시켜 민중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했던 것이다. 군내의 항일단체는 아래와 같다.

1. 연기청년회(燕岐青年會)

1918년 봄에 조치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쟁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일제에 대항하여 궁극적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힘을 길러야 하고 품성을 도야해야 한다는 민족개조론적(民族改造論的)인 입장에 서있던 이 단체는, 당시 경성에 기독교청년회(基督青年會)가 있었을 뿐이었던 상황에서 지방 청년 단체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연기청년회가 창립된 다음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큰 활약을 하였으며, 1920년에는 청년회를 크게 확장하여 40여 명의 회관을 건립하고 10부(部)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초대 회장에 맹의섭, 부회장에 박노집, 간사에 김재환, 전병수, 이은식이었고, 2대 회장에 김원근, 부회장에 유영렬, 부장 및 서기에는 맹의섭, 오병렬, 이증철, 이기전, 박노집, 최석규, 이정렬, 정재억, 김철원, 박만순, 홍순각, 홍윤규가 각기 활동하였다. 이 때에는 각 면에 지부까지 조직될 정도로 기구가 확대되어 있었다. 3대 회장에 이증철, 4대회장에 임세희가 활약했으나 이후,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인하여 1942년부터는 활동이 중지되었고, 회관은 무산아동(無産兒童)의 문맹 퇴치 기관인 연청학원(燕靑學院)으로 성격이 전환되어, 항일단체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2. 형평사 조치원분회(衡平社 烏致院分會)

형평사(衡平社)란 1923년 5월 진주에서 백정을 주축으로 한 천민계급이 조직한 단체였다. 이들의 형평운동은, 초기에는 천민계급의 지위향상을 위한 혁신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후기에는 특수 부락단위 혹은, 특수 계급운동에서 통합된 계급운동·민족운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면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운동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내부의 사상적 대립으로 인하여, 이 단체는 정치성을 띠지 않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연기군에서도 형평사 운동이 민족운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지부가 설립된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활동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호서기자동맹(湖西記者同盟)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조치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북도 기자들이 모인 단체이다.

(연기군지 제5편 2장 1절 언론편에 자세한 내용 기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일의 성격을 띤 단체는 어떠한 형태든지 탄압을 받게 마련이었다. 1920년대 연기군 항일운동의 흐름은 지식인 중심의 단체를 통한 항일의 모색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1930년대는 일제의 소위 문화정책이 고착화되면서 민족개량주의 노선이 기층 민중의 계급운동과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로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연기군의 경우, 일제의 관제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 건립되었던 일본인 소유의 사회와 농장들은 군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1940년대는 국내 항일운동의 암흑기 속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본군 출신자들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갑수(黃甲秀)의 경우는 일본 중앙대학(中央大學) 재학 중 일제에 의해 학도지원병으로 끌려가게 되나, 곧 탈출하여 중국에서의 항일 유격전을 벌이게 된다. 주로 일본군에 대한 특무공작에 참여하고 광복군의 분대장을 맡기도 하였던 그는 활동 중에 해방을 맞이한다. 장계순(張鷄淳)의 경우는 1940년 일본의 동경유학생과 결탁하여 거국적 민중 봉기를 계획하다 발각되어 일제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활동은 3·1운동 이전 임대수의 항일운동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항일 운동이란, 어느 일개인에게만 공로를 돌릴 수 없

는 복합적인 것이다.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직접·간접적으로 저항했던 연기군민의 흐름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제8장 현대의 연기군 남면

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

1. 8·15 광복

일제는 한반도는 물론 만주를 식민지로 만든 후에도 그 야욕을 멈추지 않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급기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가 하면, 유럽의 독일·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상대로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초기에 일본은 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버마 등 동남아까지 전세를 확대해 가면서 승세를 떨치는 듯 하였으나, 미국의 참전 이후 점차 패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태평양사의 사이판섬을 점령한 후(1944.7.7.), 전세는 급격히 일본측에 불리하게 기울어졌다. 사이판에 공군작전기지를 마련한 미국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한편, 유구지역과 유황도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일본 본토에 대한 상륙작전을 준비하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히로시마(廣島, 1945.8.6.)와 나가사키(長崎, 1945.8.9.)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유럽에서는 연합국이었던 이탈리아가 항복하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어(1943.11.12.) 전후 세계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어 독일이 항복하자, 연합군은 포츠담에서 회담하여(1945.7.17)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카이로 선언 내용의 이행과 일본의 주권은 전전(戰前) 일본 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 사국(四國)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비교적 늦게 참전하였다. 즉 알타회담(1945.2.11.)에서 소련은 남부 사할린의 소련에의 반환, 쿠릴열도의 할양, 외몽고의 현 상태 보호 등

을 연합군으로부터 보장받고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2-3개월 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키로 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있는 후, 급히 참전함으로써 (1945.8.9.) 일본의 항복을 재촉하였다.

이와같은 원자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하였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으로써(1945.8.10) 한국은 35년간의 일제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8·15광복과 연기군 남면

1945년 8월초에 일본군대가 조치원읍 침산공원(당시 일본 신사가 있었음)에 주둔하면서, 배일사상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8월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연기군 민들은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조치원읍 공회당에는 읍내 유지들이 모여서 치안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1주일 이 흐르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월 23일에는 우익진영에서 해계모니를 잡았는데, 그간 항일투쟁으로 일관해 온 맹의섭(孟義燮)을 추진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정헌(金正憲)을 추대하게 되었다. 당시에 참여한 멤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배(金盛培)·박용덕(朴容德)·최봉국(崔奉國)·박광현(朴光鉉)·양정석(梁晶錫)·송종섭(宋鐘燮)·이창인(李昌仁)·조동근(趙東根)·김필수(金弼洙)·이범오(李範五)

그런데 일제 관헌들은 왜병들의 집결지였던 침산공원 안에다가 10여 척이나 되는 깊은 땅굴을 파놓고 있었다. 이는 정국이 혼란해지자 항일 반체제인사들을 체포하여 살해, 매장할 만반의 준비를 가한 것이었다.

앞서 말한 건준 결성 3일 후에는, 중앙과의 연락관계로 맹의섭이 상경하였다가 중앙의 부위원장인 안재홍(安在鴻, 전 조선일보사장)을 만났으나, 그는 건준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귀향하였다.

조치원 건준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작용하여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우익진영에서는 그들과 대결하여 일대 난투극을 벌여 수라장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동년 12월 29일 임시정부 요인인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온양 온천에 와서 시국 강

연회를 갖는다는 전갈이 왔기 때문에, 읍내 교동초등학교 교정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함으로써, 신익희 선생의 강연회는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연기군의 뜻있는 인사들은 연기군 반탁위원회를 조직하여, 즉각 국내 요로 단체에다 반탁 전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이르고 보니 실은 연기군 반탁투쟁위원회는 서울보다 하루 앞서서 조직되었던 것이다. 당시 간부로는 맹의섭(위원장), 김정현(부위원장), 양정환(위원), 최봉국(위원), 이찬환(위원), 박용덕(위원) 등이 있었다. 이로부터 반탁과 찬탁으로 투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군정 장관인 하지 중장은 유화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러던 중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환국하게 되었다. 그는 제일성으로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회(國民會)를 조직하여 이끌어 갔다. 따라서 이 고장 연기군에서도 국민운동이라는 전제 하에 반탁위원회까지도 발전적으로 해산시켰다. 그 후 자유당에서 정권을 잡았으나, 장기 집권으로 정치기강이 해이해지자 4·19혁명이 일어나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참고로 자유당 정권을 전후하여 생긴 이 고장의 정당사회단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기군내 정당사회단체〉

- 민족청년단 연기군단(단장 : 홍윤규)
- 대한청년단 연기군단(단장 : 양정석)
- 대동청년단 연기군단(단장 : 최영준)
- 대한부인회 연기군지부(지부장 김일례)

제2절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1. 대한민국의 탄생과 시련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 하에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제헌의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러하여 8월15일을 기해,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으며, 동 12월의 제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신생 대한민국은 동서의 냉전, 북한정부의 적화침투, 중공의 등장 등으로 위협을 받다가 결국 6·25전쟁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2. 6·25전쟁과 연기군 남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대거 남침하였다. 북한은 일요일을 틈타서 38선 전역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을 침략하였고, 한미 양군은 이에 대한 반격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역부족이어서 남으로, 남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대전으로 후퇴하게 되니, 충남지역 일대는 이미 전쟁의 와중에 휘말리게 되었다.

연기군에서는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미군 제 24사단의 단소장이 이끄는 부대로 제21연대 1대대와 3대대, 제24연대의 1대대와 3대대가 방어에 나섰다. 반면 적군은 제3사단 이영호 소장이 이끄는 제7연대·8연대·제9연대·포병연대로, 1950년 7월 8일 오후 늦게 삼룡리에서 제1대대가 전의로 철수하였다. 이곳은 미군 제21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곳으로, 7월 9일 11대의 전차와 300여명의 북한군이 나타나 전투를 벌였다. 적의 전차 5대가 불에 타고 북한군 차량 12대를 파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7월 10일 다시 전투가 벌어져 북한군은 정면 돌파가 어렵게 되자 측면돌파를 하여 미군을 괴롭혔으며, 미군은 이곳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미곡리로 후퇴하였다.

7월 11일 개미고개 전투에서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미군이 설치한 대전차 지뢰가 북한군의 전차가 지나갔는데도 폭발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우회 작전으로 보급로가 차단된 채로 공방을 벌이다 미군은 조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조치원 시가지 전투로 북괴군은 탱크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공격하므로, 경찰서를 중심으로 주요 건물들이 폭격에 무너지고 불타버려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7월 12일 미군은 금강을 건너 대평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금강방어 전투에 돌입하

였다. 우선 미군은 금강교를 폭파하여 북한군의 탱크가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제방에서 포격준비를 하였다. 적은 금강을 도하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미군의 방어에 실패하고 만다. 16일 04시 30분, 적과의 대치 중 금강을 못 건너게 한 것은, 적의 움직임에 낱낱이 밝혀주던 조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명탄이 적이 도하하는 지역에서 약간씩 벗어나자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조준하는 바람에 20분 동안 조명이 꺼지자, 그 틈에 북한군이 금강을 건너 결국 금강방어 전투는 7월16일 실패로 돌아갔고, 미군은 대전으로 후퇴하였다.

3. 6·25와 연기군민 활동

연기군청에는 군수와 산업과장만이 남아서 청사를 지키고 있었고, 읍사무소에는 읍장과 수도계원 2명과 전기회사의 전공 2명뿐이었다. 그런데 7월 21일에는 인민군들이 전동지구로 침입하였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읍내에는 공산주의자와 무지한 일부 사람들만이 남아 있는 데다, 인민군이 침입하면서 조치원역을 비롯한 시내 각 관공서와 큰 건물들을 그들이 점유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역전 상가가 불타버리고 기타 학교 일부가 파손되는가 하면, 잔인한 인민군에 의한 피살자의 수 또한 적지 않았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 아군이 조치원에 진주함에 따라 시민들은 환영의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1951년 1월 1일 대반격 작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1·4 후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무렵 조치원에는 이상 기후로 눈이 많이 쌓였는데, 수많은 피난민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과의 회담에서 중공해안 봉쇄와 만주폭격을 제기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세계대전이 야기되면 큰 사태가 벌어진다는 미국의 여론 때문에 맥아더 장군은 해임되고 휴전협정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없는 휴전이란 우리 3천만 국민으로는 죽음보다 쓰라린 일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공포로 25,900여 명을 석방하였는데, 이 고장에도 많은 반공포로들이 할당되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2년이란 세월을 두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므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대통령의 사전양해도 없이 불명예스러운 휴전조약을 체결해버렸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아심은 분분하였다. 4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시민대표자회의 명의로 주한 미국대사인 부리그스에게 보내는 휴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채택하였으며,

UN결의서를 분쇄하자는 건의서를 변영태 외무부 장관에게 송부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대한민국 주권사수 선포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에 연기군 자결대표들은 5월 8일, 지방 유지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5월 15일에는 각 읍면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에 참석하였던 각 읍면 대표는 다음과 같다.

조치원읍 대표 : 양순환 · 양창석 · 이건녕 · 이일봉 · 이인환 · 임헌동 · 맹의섭 · 방원근 · 정동환 · 정명준 · 조동근 · 최영준 · 하상만 · 최광석 · 이종오

남 면 대표 : 임재복 외 3명

금남면 대표 : 임찬욱 외 2명

전의면 대표 : 이석영 외 2명

동 면 대표 : 이창수

서 면 대표 : 윤병화 외 4명

이 회의에서 각계 요로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대상은 ① 이승만 대통령, ② 미국대통령, ③ UN총회, ④ UN군 사령관, ⑤ 미 8군 사령관 이었다.

이상의 메시지와 결의 내용을 담은 군민의 연판장을 받아 송달할 것을 아울러 결의한 후, 이날의 대회는 군민과 각 사회단체 및 학생들의 시가행진 등으로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한편 이곳 연기군에서는 1956년 UN가입 전국추진위원회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UN 가입 추진회 연기군지부 결성은 동년 9월 29일에 군내 가계 대표 150여명이 군청 회의실에서 회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위원장은 맹의섭, 부위원장은 김정현 · 박찬욱 · 강태진이었다.

제3절 4 · 19 학생의거와 5 · 16군사혁명

휴전 후 정부는 미군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황폐화한 국토와 파괴된 산업시설의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무렵, 안으로 정치적 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1952년의 제2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자유당을 조직하여 독재적 경향을 노골화하였다.

즉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드디어, 5월 26일에는 많은 반대의원들을 감금하였다. 이를 5·26정치과동이라 한다. 결국 기립표결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소위 발췌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정치적 긴장상태는 계속되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중임제한을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 일단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의 이론을 내세워, 그 이튿날 가결을 선포하였다. 자유당은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피하였다.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자유당은 12월 24일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그들을 감금하고, 자기네만이 출석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소위 2·4과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정계에서는 독점자본이 자라났다. 부패한 자유당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특정한 일부 상인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넘겨주니, 이들은 대자본을 형성하여 경제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재벌과 정부는 자립경제 수립에 절대 필요한 중공업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에 치중하였다. 재벌형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및 재벌들의 경제적 도입은, 미곡 가격을 생산비보다 낮게 하여 언제나 적자만을 내게 하였다. 독점자본의 비대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 불균형 상태가 조성되어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무질서가 나타났다. 실업자수의 증가, 특히 대학 졸업자와 제대 장병의 실업이 가장 많았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데모는 학원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배격하는 소규모적인 것이었다. 반면 선거당일인 3월 15일에 마산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데모는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항거였다. 경찰은 이에 발포하여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겨우 위급한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그 후 4월 11일에 바닷가에서 한 데모학생의 처참한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데모를 일으켰다. 마산의 데모는 이윽고 서울로 번져 4월 19일, 서울시내의 모든 학생들과 시민 수십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와 이승만 정권의 타도를 외쳤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폭력으로 제지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니, 시위자들도 마침내 폭력과 방화 등으로 대항하여 사태가 매우 험악해졌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써 시위 군중을 진압하려 했으나, 군대마저 군중들에 가담하였다. 계엄령 하에 대학교수단의 데모가 서울의 시가를 누비자, 데모는 재연되고 이승만은 하는 수 없이 4월 26일,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말았다. 4월 의거는 학생들의 주동역할을 담당했으나, 그 배경에는 전 국민의 호응이 있었다.

그러므로 4·19의거는 대중혁명인 동시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혁명이기도 하였다.

4·19의거 뒤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허정(許政)이 수반이 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합법적인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하고, 또 정부는 내각책임제로 하였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양원이 개원되었다. 윤보선(尹潽善)이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장면(張勉)이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제2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당면 과제로는 안으로는, 독재정권의 유산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밖으로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신구파의 치열한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갈 뿐이었다.

이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최고통지기관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를 설치하여 비상조치법으로 여러 가지 과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혁명정부가 내세운 중요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공체제를 재정비하여 공산주의 침략에 대비하고, 둘째는 폭력배 일소, 밀수품 단절,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의 처단, 농어촌 고리채 정리 등 사회모순을 과감하게 제거하며, 통일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의 배양에 힘쓰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닦는 것 등으로, 이를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제4절 민족중흥의 새 전기

민정이양을 위해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국민투표로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0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군정을 끝내고 마침내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그는 조국근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시의 정책을 계승하여 과감한 혁신정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경제자립을 목표로 추진해온 1차·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동시에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촌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될 자조·근면·협동을 통한 정신적 각성이며 분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민윤리의 정립과 경제개발 촉진운동으로서 농공병진(農工併進)의 희망에 찬 번영을 약속해 주었다. 농촌의 자조정신이 확립되면 이 정신적 기반 위에서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민족역량의 근대적 발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운동을 역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여 국민정신의 지표를 정하여 민족 자주의식을 높이고, 1972년부터 새마을 사업을 건재하여 농촌근대화를 추진하였다.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과 국토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력의 고도성장을 도모하고, 1972년 7월에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7·4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대화를 개시하였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모색하고, 조국통일의 실마리를 찾고자,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 최두선 총재에 의하여 남북적십자 회담이 제의되었다. 1972년 6월 이산가족의 염원을 풀어주기 위한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렸다. 동년 7월 4일 평화통일·긴장완화·제반교류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남북한의 4반세기만에 정치적 대화에서 조국통일의 자주·평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것이다.

제5절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기군 남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연기군민에게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길가에는 환영 프랑카드와 반대 프랑카드가 걸리더니 통곡 프랑카드로 변하여 이제는 협박 프랑카드가 길거리를 도배하였으니 신행정수도 때문에 연기군은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때는 으레히 후보들은 되든 안되든 떠들어 보겠다는 심리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003년 2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지방 분권추진」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 신행정수도 건설을 꺼내자 이대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12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83%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이 통과되었고, 2004년 벽두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4월 총선을 맞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와 후보자들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적극 추진” 재차 공약으로 내세웠고 6월부터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처음에는 후보지가 충북 청원군의 오송과 공주의 장기, 계룡시의 신도안 그리고 후에 충북 진천이 합류하였다. 충북 청원의 오송은 지명이 궁뜰이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이곳이 신행정 수도의 적임지라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고속 철도의 오송역 개설과 청주 국제공항이 가깝다는 이유가 설득력을 가졌다.

공주의 장기는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으로 청와대를 옮기려고 계호기를 세웠던 사실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곳의 지명이 한다리인데 일제시대 대교(大橋)라 표현하여 큰 다리가 놓여진 곳이라 해석하였는데, 이는 “한”이 높고 크고 넓음을 지칭하여 서울과 비교되고, 다리는 연결시킨다는 뜻을, 한다리는 신행정수도가 이곳으로 내려오는데 적임지의 지명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신행정수도 반대운동
(2004. 9. 19)



신행정수도 반대운동
(2004. 9. 19)



생존권을 보장하라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민설명회 (2004. 9. 20)

계룡시 신도안은 조선초기 이성계가 정도전의 주장으로 이곳으로 천도하려고 터를 닦았던 곳이다. 이처럼 후보지의 입지조건은 모두가 팽배하게 맞서, 온갖 분석으로 떠들어댔다. 천안에서는 이들 후보지가 갖고 있는 풍수지리상 천도지는 어느 곳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세미나도 갖고 행사를 바쁘게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연기군은 후보지가 공주의 장기나 충북의 오송이나 떠들어도 어느곳에 확정되는 그 안에 연기가 끼어 있으니 충북 받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충남의 연기·공주로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연기사람들은 갑자기 연기가 신행정수도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별 커다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행정에서 내건 환영의 플래카드가 눈에 떨 뿐 별 반응이 없었는데, 연기군 남면과 조치원 4차선 도로변에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었다.

신행정수도건설입지가 연기지역으로 발표되고 가장 바쁜 곳은 부동산업자와 언론인들이다.

조치원 신흥리 군청 뒤편에 푸로지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모텔하우스 주변에는 온갖 콘테이너 부동산 사무실이 주변을 메꾸었다. 그뿐인가? 분양권 발표날에는 도로를 점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 대부분이 외지인이었다. 언론은 어떠한가. 별 관심 없는 주민들에게 유도 질문을 던져놓고 신행정수도 연기선정 발표 후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매일 일간지 톱기사로 올렸다.

이때 남면에는 심심치않게 TV, 신문기자, 잡지기자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은 현지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한다고 기사를 몰고 갔다. 특히 중심지가 원수산과 전월산으로 선정되면서 부안임씨들이 거론되었다.

이곳은 부안임씨 중시조인 전서공 임난수가 고려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모든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여 자손을 퍼뜨렸는데 600여년동안 집성촌으로 살아온 중심지가 바로 원수산과 전월산 아래 진의리와 양화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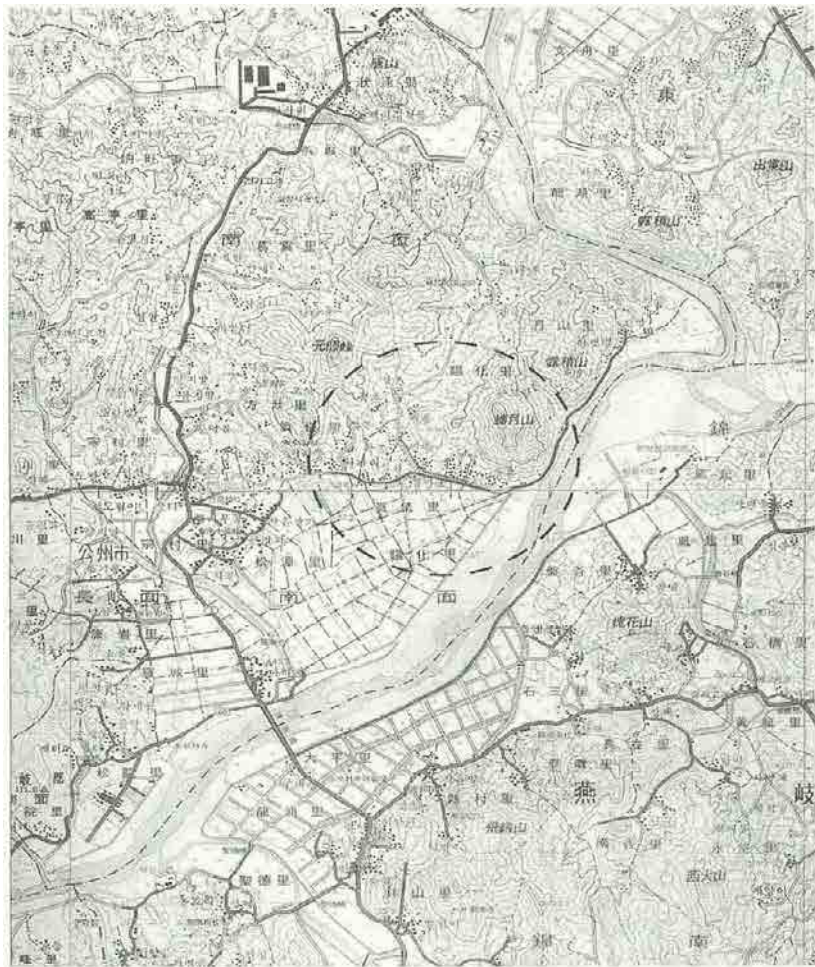
그러니 이곳 부안임씨는 신행정수도가 이곳에 건설되면 600여년동안 살아온 집성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당연히 신행정수도 건설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거론되었던 공주의 장기나 충북의 오송, 계룡시의 신도안 중 한곳을 선정하지 않고 갑자기 이곳을 선정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지선정 결정을 반대하였다.

이때 연기군 전체의 분위기는,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일을 누가 막으랴는 식이었고 생각지 않았던 연기군 중심은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구나라는 식이었다.

연기군 남면은 반대의 프랑카드가 하나 둘씩 내걸리기 시작하였다.

진의리, 양화리 이장은 TV와 신문에 마을사람의 대변인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 후 가장 바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이때 부안임씨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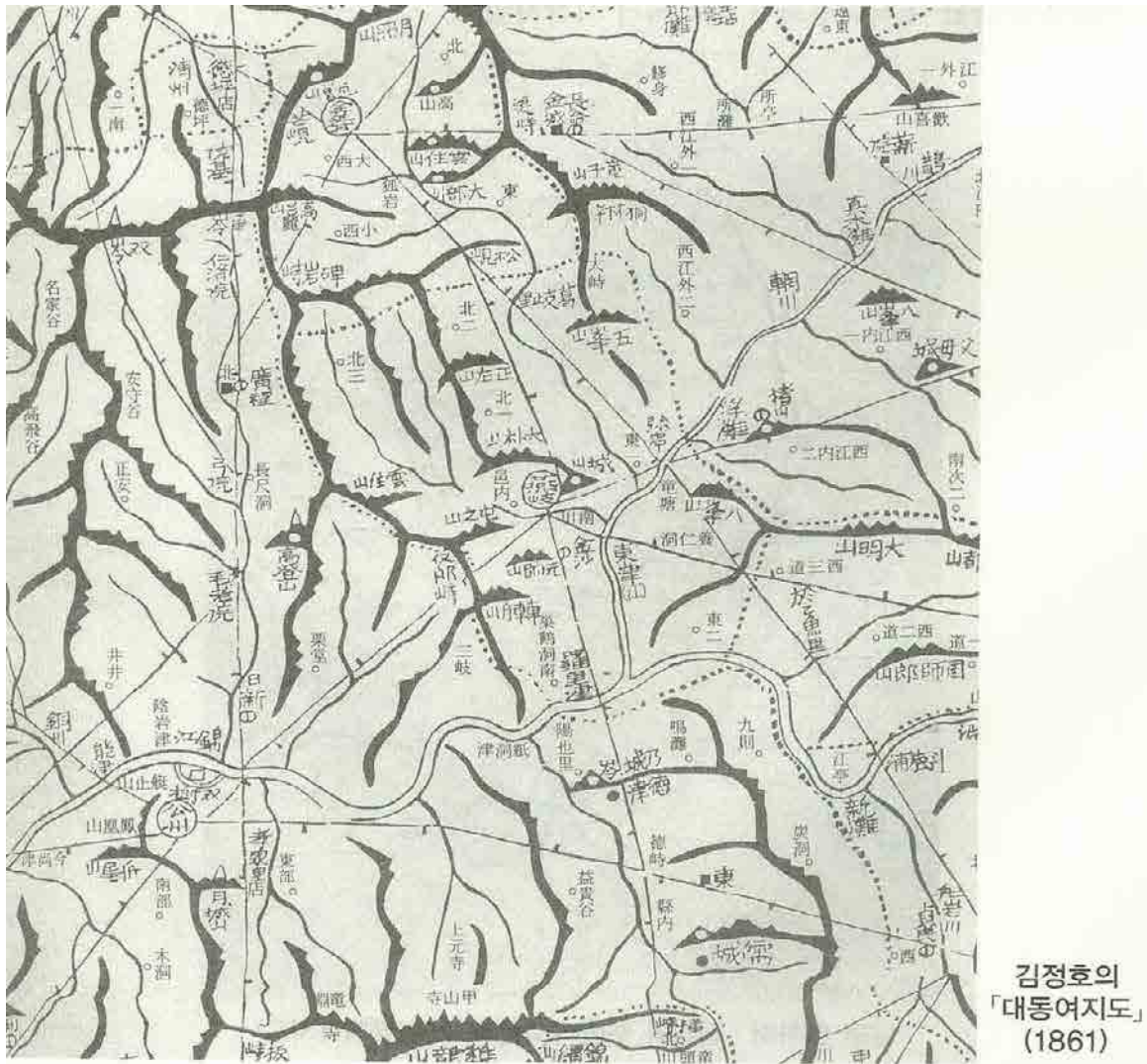


남면 양화리·진의리 주변의 지형도 (5만분의 1지도)

9월초에 부안임씨 종친회에서는 입지선정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위원장에 임헌인씨를 선출하였다.

2004년 9월 4일 독락정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임영수로 하여금 기획을 맡도록 결정하였다.

그후 첫 번째 움직임으로 9월 19일 남면 연양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왜 반대하나!」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계획하였다. 이는 부안임씨 종중에서는 선조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요구이며, 이것은 문중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동면의 순흥안씨, 월산리의 진주강씨, 종촌리의 경주이씨, 동면의 장수황씨, 종촌리의 창원황씨 등 여러문중이 합세하여 집회를 열었다. 집회장소에는 만장과 상복, 구호띠가 준비되



었고 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 운동장에서는 안순근 연기향교 전교와 경주이씨 문중의 연설과 부안임씨 문중의 연설이 이어졌고, 이기봉 군수가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였다.

집회는 운동장에서 거리로 이어져 종촌도로를 지나 수창물산앞에서 돌아, 학교 운동장으로 되돌아가 행사를 종료하였다.

집회가 끝나고 부안임씨 대책위는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을 기다렸다.

10월 8일 도에서는 충청남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단기구가 공식으로 발족되었고 19일에는 충청남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 개소식을 가졌다.

10월 20일에는 연기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사업소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신행정수도의 진행은 속도가 가속화하는 듯 하였다. 그런데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즉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효력상실된 것이다.

모두들 뜻밖의 결정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남면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현재의 결정에 심한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화형식을 가졌다.

10월 22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연기군수는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황순덕 군의원은 단식에 들어갔으며, 연기군 남면 사람중 일부는 발빠른 행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외지에 땅을 사고 이주할 준비를 마쳤으며, 위헌 결정은 이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조치원역 광장에서 헌재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임상전 도의원을 비롯하여 여러명이 삭발을 하였으며,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기도 하였다. 집회는 충청남도 곳곳에서 열리었다.

연기군에서는 신행정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황순덕 군의원을 중심으로 죽림 오거리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남면에서는 성남중·고등학교 앞에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하여, 김창제, 안원종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촉구하였다.

연기군 마을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주민등이 서울로 상경하여 시위를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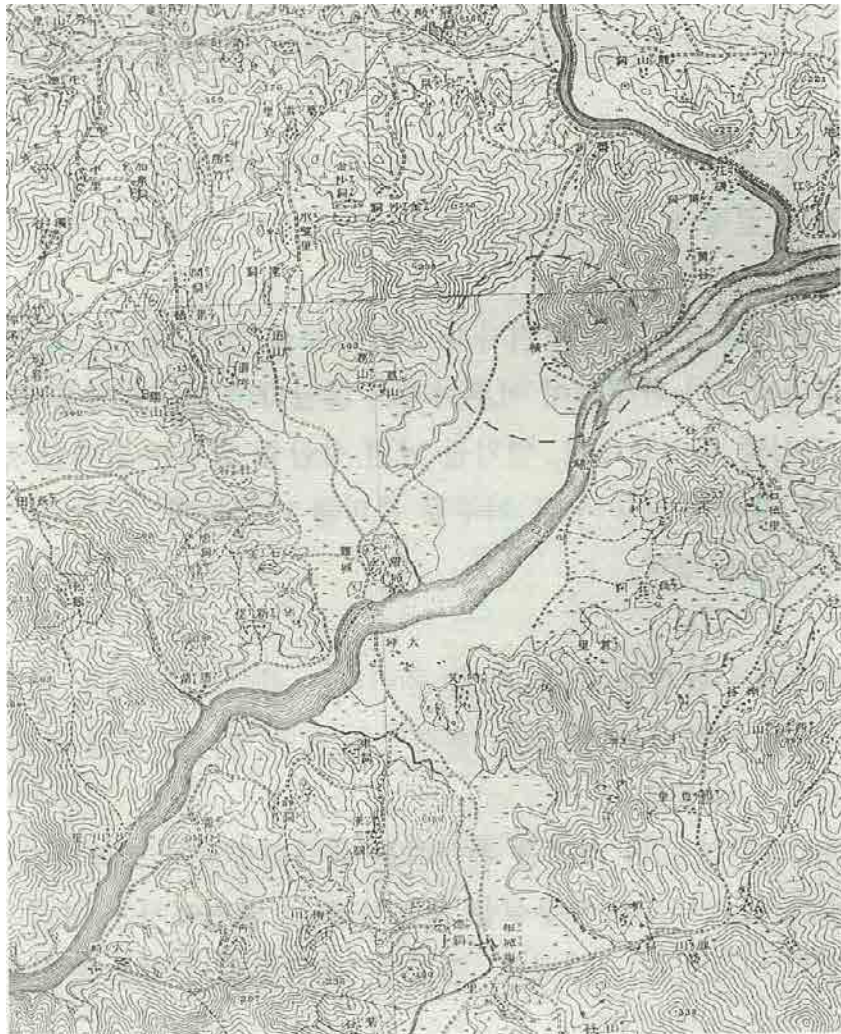
인 것이 여러 번이요, 공주, 부여, 서산, 대전 등 곳곳에서 서울에 올라가 군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이곳저곳 기회만 주어지면 신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홍보하였다.

홍보단에 발족되어 서울역을 중심으로 열차안에서도 홍보가 시작되었고, 조치원 역에서는 밤마다 촛불집회가 열리었다.

결국 정부가 후속조치로 내 놓은 것이 행정타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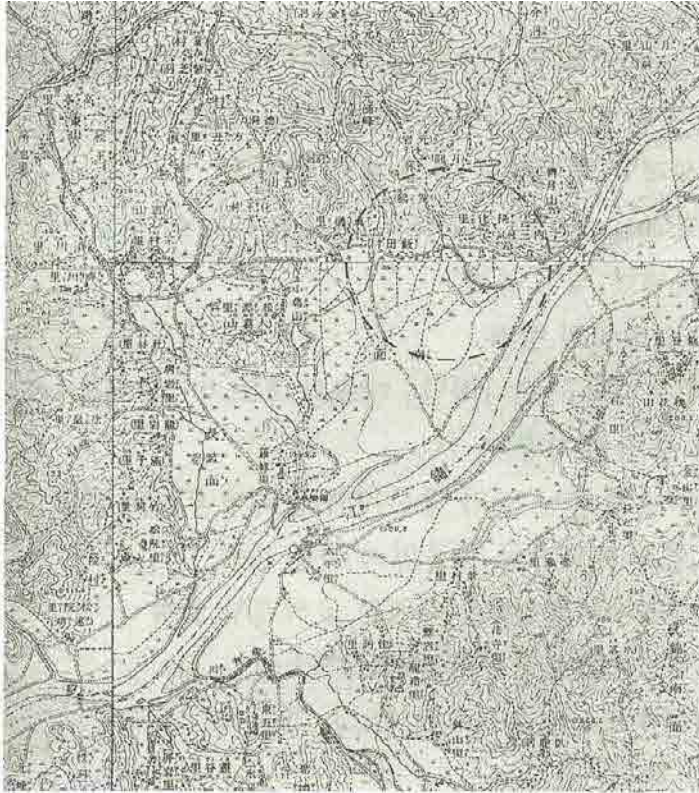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처를 연기군으로 내려 보내어 신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2월 24일 여·야는 연기군에 12개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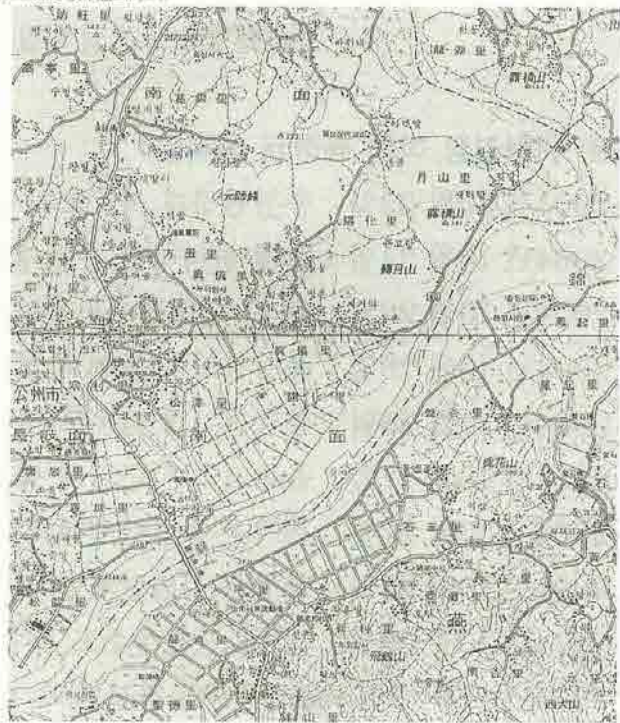


구한말 지형도 (1894~1906)

그러나 연기군 어디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만족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양화리 부분)
조선반도 1:5만 지형도 (1919)



(양화리 부분)
국립지리원 1:5만 지형도(1996)

— 신행정수도 추진 경과 —

■ 추진현황

- 2002년 12월 :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
- 2003년 2월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지방분권추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핵심과제로 설정 신행정수도 건설 재차 확인
- 2003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83%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 통과
- 2004년 벽두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족
- 2004년 4월 : 총선을 맞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표와 후보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적극 추진 재차공약
- 2004년 6월 15일 : 신행정수도추진위 충남 연기 공주지역 등 4개 후보지 발표
- 2004년 8월 11일 :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최종입지 확정 발표
- 2004년 10월 8일 : 충청남도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공식기구 발족
- 2004년 10월 19일 : 충청남도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개소식
- 2004년 10월 20일 : 연기군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사업소 개소식
- 2004년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효력 상실

■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움직임

- 2004년 10월 22일 :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긴급 회동(공동합의문발표)
- 2004년 10월 24일 : 현재 한나라당 규탄대회(남면 300명)
- 2004년 10월 26일 : 충북,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 2004년 10월 26일 : 충청남도 도단위 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 2004년 10월 26일 : 충청권 3개 시·도 공직협 및 충남 이·통장협의회 기자회견
- 2004년 10월 27일 : 공주지역 시민단체 범시민 쫓겨대회
- 2004년 10월 27일 : 부여군 농업단체협의회 결의대회
- 2004년 10월 28일 : 충청권 시민단체연대 현재 위헌판결 규탄대회
- 2004년 10월 29일 : 제1차 신행정수도 사수 연기군민 쫓겨대회
- 2004년 11월 3일 :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도민 결의대회

- 2004년 11월 4일 : 연기농민 규탄대회
- 2004년 11월 5일 : 충청남도 이장단협의회 국회의사당 앞 집회
- 2004년 11월 5일 : 청양, 농민단체 규탄 결의대회
- 2004년 11월 6일 : 보령, 충구협회회원 등 위헌결정 규탄 결의대회
- 2004년 11월 6일 : 대전시민단체 행정수도 지속추진 촛불집회
- 2004년 11월 6일 : 충북, 탄핵소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2004년 11월 9일 : 충청권 3개 시·도 기초의회의장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 2004년 11월 9일 : 신행정수도충북범도민대회
- 2004년 11월 9일 : 열린우리당 충청남북도 당집회
- 2004년 11월10일 : 공주농민단체 규탄대회
- 2004년 11월10일 : 시산시민단체 규탄대회
- 2004년 11월11일 : 논산시민단체 쫓기대회
- 2004년 11월12일 : 서천시민 규탄 결의대회
- 2004년 11월16일 :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연기군민 투쟁선포식
- 2004년 11월22일 : 제1차 1만 연기군민 대규모 쫓기대회
- 2004년 11월25일부터 촛불문화제 진행중
- 2004년 12월 4일 : 서울(종묘공원) 집회

행정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연기·공주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재적의원 177명중 찬성 158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연기·공주 2210만평에 대한 매입을 개시하게 되며, 2006년 1월 행정도시 건설청을 건립, 본격적인 도시개발에 나서게 된다.

충남 연기·공주에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재경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4처 2청이 2012년경부터 입주할 시작한다.

정부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당초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의결해 본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이날 오전 법사위원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김덕규 부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의장 대리가 직권상정하자, 일부 의원들은 유인물을 집어던지면서 극력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세일 정책위원장이 당직을 사퇴했고 박근혜 대표가 “지난 의총에서 투표로 결정한 특별법 주인은 당론”이라며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행정 도시 추진 일정

| 순서 | 추진 계획 | 시행 주체 | 시행 일정 |
|----|--------------|----------|----------------------|
| 1 | 특별법 제정 | 의원 입법 | 2005년 3월 |
| 2 | 시행령 제정 | 건교부 | 2005년 4월 |
| 3 | 예정지역및사업시행자지정 | 건교부 | 2005년 5월 |
| 4 | 행정기관이전 계획수립 | 행자부 | 2005년 6월 |
| 5 | 기본 계획 수립 | 건교부 | 2005년 8월 ~ 2006년 6월 |
| 6 | 개발 계획 수립 | 건교부(건설청) | 2005년 8월 ~ 2006년 10월 |
| 7 | 실시 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 2005년 8월 ~ 2007년 6월 |
| 8 | 토지보상개시 | 사업시행자 | 2005년 12월 |
| 9 | 공사착공 | 사업시행자 | 2005년 7월 |
| 10 | 단계적이전개시 | 각부처 | 2012년 |

자료 : 충청투데이신문

(2005년 3월 3일자)

금강(錦江)과 연기군 남면

연기군 남면의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금강(錦江)이다. 이는 한반도에서는 서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이 주요 5대 강 중에서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세 번째 큰 강이 금강이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남으로 약 7.5km 떨어진 남원군 산동면의 수분령(水分嶺)이라는 고개마루 북편으로부터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사이에서 여러 하천과 만나 신탄진까지는 곡류(曲流)하고 있으나, 부여에서 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대체로 평탄한 충적평야를 지나 서해로 유입하고 있다.

연기군 남면지역의 금강은 금강의 중류에 속하여 신탄진 아래 부용에 와서는 S자 모양의 심한 곡류를 이루어 공주로 내려가며 특히 남면에서는 청원군의 미호천이 남면 당산 아래에서부터 동진강으로 변하여 남면 월산리에서 금강과 합하므로 합강이라 부른다.

남면에서의 금강은 커다란 평야를 적시는 생명수로, 강건너 금남면에는 대평평야를 이루고 남면으로는 장남평야를 이룬다.

금강의 길이는 약 401.4km에 달하고 유역면적은 9,886m²로서 충청남북도의 약 절반과 전라북도의 약 1/4을 차지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일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금강은 오랜 세월 많은 역사유적을 남겼다.

그중 선사유적은 크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누는데, 구석기시대유적은 공주의 석장리 마암리 유적과 청원 샘골유적, 청원 두루봉 동굴의 구석기 유적이 대표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연기군 남면의 위와 아래에 위치하여 남면지역은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금강변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많다.

영동 금정리, 원촌리, 옥천 안터, 막저리, 정원 아득이, 공주 석장리, 부여 나복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청동기 유적은 금강변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그 유적은 집터와 고인들이 산재하여 있다.

연기군에는 남면, 동면, 금남면에 이들 유적이 있으며 가장 많은 유적은 금남면에 있다.

남면의 대표유적은 월산리 고인돌이다.

금강을 오강(五江) 팔정(八亭)이라 한다.

이는 강의 이름이 다섯인데 다음과 같다.

초강(楚江) - 부강하류

오강(吳江) - 동진하류(오강과 초강이 합쳐진 곳을 합강(合江)이라 부른다.

금강(錦江) - 연기, 공주지역

백강(白江) - 일명 백마강이라 부르며 부여지역

청강(靑江) - 백마강 하류, 즉 부여 아래지역

금강변에 있는 정자는 여덟인데 다음과 같다.

- 1. 합강정(合江亭) 2. 독락정(獨樂亭) 3. 한림정(翰林亭) 4. 금벽정(錦壁亭)
5. 벽허정(碧虛亭) 6. 사송정(四松亭) 7. 쌍수정(雙樹亭) 8. 안무정(按舞亭)**

1. 합강정(合江亭) - 연기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현. 연기군 동면 합강리)

이곳은 오강(吳江-동진하류)과 초강(楚江-부강하류)이 합쳐지는 곳으로 합강(合江)이라 부른다. 정자는 강변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어느때인지 사라지고 복원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논산과 강경의 상인들이 금강변에 있는 정자를 지날때에는 나루세를 물어야 했다는 기록이 옛읍지에 전한다. 금강변의 8정중에 가장 상류 자리잡고 있다.

순흥안씨들이 세운 정자라 한다.

2. 독락정(獨樂亭) - 연기군 남면 나성리 금강교 옆 금강변에 위치한다.

금강의 8정자 중 가장 오래된 정자로 15세기 부안임씨의 중시조인 임난수(林蘭秀)의 둘째 아들 임목(林穆)이 건립하였다. 임목은 양양도호부사를 마

지막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와서 정자를 짓고 남은 여생을 보냈다. **독락정기(獨樂亭記)**을 석학 남수문(1408년~1443년)이 지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 전라, 충청도의 강물이 이곳에서 합류하니 삼기(三岐)라 부른다. ... 북으로 원수산이 성곽처럼 둘러있고 남으로 계룡산이 솟아 있는데 그 동·서 여러산들이 혹은 조회하듯 혹은 이(揖)하듯 기이한 현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마을과 논밭의 이랑들이 멀리 또는 가까이 바둑판처럼 펼쳐있다....”

한편 공주목사와 공주부윤을 지낸 승문원제조 최립(崔笠 1539 ~ 1612)이 쓴 **독락8영(獨樂八詠)**이란 시가 **공산록(公山錄 - 1592년)**에 수록되어 있다.

3. 한림정(翰林亭) - 금남면 영곡리 금강가에 지어졌다.

공산지(公山誌)에 보면 한림학사였던 신준미가 을사사화에 몰리어 이곳에 은거하던 중 정자를 세우려고 터를 닦다가 중지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즉, 신준미가 사람을 시켜 터를 닦고 정자를 세우는데 웬 사람이 술에 취하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며 쌍스러운 언행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달려들자, 신 학자가 말리며 “가만두어라 저 사람은 저절로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풀섬에서 꿩이 날아가자, 말이 깜짝놀라 두발을 높이들자 그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강아래로 굴러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불길한 징조라며 정자짓는 것을 중단한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터만 전하다가 평산신씨 한양공신(신준미)종친회에서 (회장 신옥균)발의 하여 1964년 완성한 것이 지금의 한림정(翰林亭)이다. 명칭이 신한림학사에서 유래 하였으며, 언덕아래 나루이름이 한림나루이다.

4. 금벽정(錦壁亭)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에 위치하여, 처음에는 창벽을 마주 바라보는 언덕위에 있었는데, 후에 마을이 있는 풍양조씨 종가집옆으로 이전 관리해 오다가

1982년 철쇄하였다. 이때 기와는 마곡사 보수에 사용하였으며, 후에 1991년 다시 복원하였으며, 금벽정 맞은편에 지었다가 도로가 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금벽정은 조대수(1655~1721. 풍양인 의정부사인)가 낙향하여 창건하였다. 택리지에 금벽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1602년 관찰사 유근이 지은 시가 있으며, 그 외 여러명의 시가 전한다.

5. 벽허정(碧虛亭)

벽허정은 관찰사 이익보가 1751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얏골나루 근처로 추정된다.

1980년 7월에 금강에서 인양된 “이공사적비”에 벽허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익보가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중 건립하였고, 정자의 뒀뒀이를 살펴보면 동쪽 편 즉, 도로쪽은 정자를 짓되 남쪽 즉, 금강쪽에는 기둥을 세워 누각을 꾸미고, 정자의 남쪽에는 제승루라는 액방을 달고, 동쪽편에 “벽허정”이라 현판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붕의 기와, 구불어진 난간, 주사를 바른 붉은 벽은 푸른 강물과 어우러져 약약루보다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다.

6. 사송정(四松亭)

사송정은 장기면 월송리, 현 공주시 월송동 오탄서원 진입로 오른편 금강에 직면한 언덕위에 사송정 자리가 남아있다. 택리지 해설서에는 사송정이 충남 연기군에 있다고 쓰여있는데 장기면 월송리가 유력하다.

사송정은 누가 창건하였나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이중환(1660~1756)이 지은 택리지에 사송정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여기에서 사송오가(四松吾家)의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중환의 집안 즉, 여주이씨의 문중의 어느분에 의하여 정자가 세워진 것 같다. 그런데 이중환의 아버지인 이진휴(1657~1710)가 숙종 27년(1710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이진휴에 의하여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측을 하게된 까닭은, 첫째로 사송정이 위치한 오탄서원 일대는 여주이씨는 없고 공산이씨가 많이 살고 있는 점. 둘째로 정자는 그 지역사람

이 짓는 것이 아니고 독락정, 금벽정처럼 벼슬을 하다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혹은 관찰사나 목사에 의하여 창건된 사례가 있는 점 (벽허정과 안무정)이다.

7. 쌍수정(雙樹亭)

쌍수정은 공산성내에 있으며 영조 10년(1734년)관찰사 이수항이 건립하였다.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공주로 피난 왔을 때,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는 자리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788년(정조 12년)에 관찰사인 홍억이 중건하고 1903년(고종 광무 7년)에 관찰사 홍승헌이 수습하였다. 그후 1947년 공주읍 보승회에 중수 1970년에 전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8. 안무정(按舞亭)

안무정은 공산지(公山誌)에 “재금강하 검주삼리” 로 적혀 있는데 그 위치는 현 공주중학교 뒤편 정지산의 능선을 북으로 따라가다가 보면 금강에 임한 구릉의 정상에 안무정자터가 있다.

수년전만해도 기와편들이 산재하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거정의 시와 신수의 공주후 십경시의 두영(頭詠)으로 부아 1400년 중엽부터 1600년 말엽까지는 상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주 금강팔정중 독락정과 함께 오래된 정자의 하나이다.

공산지(公山誌. 1861)에 보면 “어느 안렴사(按廉使)가 이 정자에 올라 멀리 바라보다가 취하여 춤을 추었다” 하여 안무정(按舞亭)의 이름을 얻었고, 뒤에 어느 목사(牧使)가 중수하려다 감사에게 문책을 받아 이루지 못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취해서 춤추는 안렴사가 있는가 했더니 뒤에는 술 깨서 조아리는 감사도 있구나” 하였다. 안무정이 경관에 대해서는 서거저의 시가 전한다.

연기군 남면과 금강변의 나루

나루터는 근대문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

이는 금강을 따라 형성된 곳곳의 나루터가 강을 건네주는 것 이외에, 물건을 운반하는데 긴요하게 쓰였음을 물론, 문화를 전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나루터 문화” 라고 까지 표현한다.

금강변에는 많은 나루터가 있었고 남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루는 다음과 같다.

1. 부용나루 - 금남면 부용와 충북의 부간을 잇는 나루이다.

일명 “새우개 나루 ” “초우개 나루 ” “부강 나루” 라고도 부르며 서해에서 잡은 새우젓과 소금배가 이곳에 와서 금남의 부용·봉기·대박·박산·달전 등지로 보급했으며 강건너 부강에도 보급하였다.

1050년대 부강쪽에서 거주하던 김중철씨가 사공을 가장 오래 했고 이어 오사공(오씨성을 가졌다해서 붙여짐)이 부용리에서 거주하며 사공을 했으며 마지막 사공은 1990년대까지 임씨성을 가진이가 사공을 하다 대전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건너다 전복되어 모두 죽고 나루가 없어졌다.

2. 용당이 나루 - 금남면 부용리 2구 앞에 있는 나루를 용당이 나루라고 한다.

물속에 용이 살아 물이 휘돌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을 건너면 충북의 부강이 나온다.

부용나루보다는 작았으나, 현재는 골재채취하는 공장에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가교를 놓아 나루가 없어졌다.

3. 앵청이 나루 - 남면 양화리와 금남면 반곡리를 잇는 나루이다.

앵청이라는 처녀가 사모하는 남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나루터에서 주막을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나성 나루(羅城津) - 나성 나루는 현 연기군 남면 나성리 즉 독락정(獨樂亭)이 있는 곳에 있었으니 옛날에는 장기면 나성리(1973. 7. 1이전)에서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연결되던 나루터이다.

현재 이곳은 금남대교가 가설(架設)되어 자동차문화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5. 한림 나루(翰林津) - 閑林나루는 나성나루의 하류. “불티 나루”의 상류에 있으니 금남면 영곡리강 안에 있으며 남면 당암리와 연결되는 나루터이다. 여기 “翰林”이란 지명은 조선조 중종때 한림학사 신존미라는 사람이 을묘사화에 연루되어 이곳에 은거중 한림정을 지으려던 고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6. 불티 나루(火津) - “불티 나루”는 마암리 “火津” 바로 상류에 있으니, 곧 반포면 원봉리 강변에 위치한다. 이 나루는 건너편 장기면 금암리 “정자 마을” 곧 “金亭”이 있었던 마을과 연결된다.

이곳 위 지명에 대하여는 속칭 “불티 나루”라 하는데, “옛날 상선(商船). 일명 <꺼떡배>에 소금을 싣고 이 나루터에 들어오면, 이곳 반포면 산골 사람들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듯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소금이 삽시간에 “불티 나루” 팔리어 “불티 나루”라 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한편 이 나루터에서 산골길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넘어”라는 마을이 있고 또 조그마한 고개가 있는데 속칭 “되넘어 고개”라는 것이다. 이것은 창벽의 아름다운 경관에 추한 나그네가 산만 바라보고 걷다가 길이 막히어 발길을 되돌이어 “되넘어 간다”는 뜻에서 “되넘어 동네” 또는 “되넘어 고개”라는 유래가 생겼다고도 한다.

7. 말어구 나루(馬於口津) - 장기면 말어구

8. 장암 나루(狀巖津 - 일명 금벽나루) - 장기면 장암리

9. 오얏골 나루(李也津) - 장기면 무능리

10. 장깃대 나루 - 공주시 옥룡동
11. 음암진(陰巖津) - 공주시 철교 아래
12. 곰마루 - 공주시 용진동
13. 데데울 나루(如如津) - 공주시 용진동
14. 검상골 나루(檢詳津) - 공주시 검상동
15. 새 나루 - 공주시 검상동 패자
16. 양청이 나루 - 공주시 검상동
17. 늦점 나루 - 공주시 탄천면 우성리
18. 반여울 나루 -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19. 분창 나루 -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20. 창가안루 - 부여 서원리

第 3 編 행정

제1장 연기군 남면의 행정구역 변천

제2장 연기군의 연혁

제3장 연기군 남면의 일반행정

제4장 지방자치단체선거

제1장 연기군(燕岐郡) 남면의 행정구역(行政區域) 변천

제1절 마한시대(馬韓時代)의 연기군

한반도에는 삼한이 존재하였다. 삼한은 마한·진한·변한으로 연기군 남면은 마한에 속한다.

마한에는 크고 작은 나라가 54개국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 범위는 대개 지금의 경기·충남·전남 지역에 해당된다고 한다.

마한의 54개국 중 충남에는 15개국이 있었는데, 연기군 남면과 인접한 곳에는 월지국(月支國 혹은 目支國- 직산)·신운신국(臣雲新國-천안)·불운국(不雲國-공주 서부)이다.

이 중 연기군 남면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에 흡수되어 행정력을 행사하는 영역에 속한 것은 사실이다.

제2절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연기군 남면

현재의 연기군은 백제시대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지금의 전의·소정·전동면은 구지현(仇知縣)이었고, 서면·남면·조치원·동면은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으며, 금남면은 웅천주(熊川州) 혹은 웅주(熊州)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이었다. 이들을 정리하면 전의·연기·금남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백제시대 연기군 남면은 백제의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475년을 전후하여 연씨(燕氏)가 활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훗날 두잉지현이 연기현으로 불리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연기는 연씨들 즉, 웅진초기에 활약했던 연신(燕信)과 연돌(燕突)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근거지로 추측할 수 있다. 연신과 연돌은 벼슬이 병관좌평(兵官佐平)에 이르러 오늘

날 국방장관에 올랐다.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근초고왕(346~375)때로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대방군(帶方郡) 땅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고, 일본 및 중국의 동진(東晉)과 사신을 교류하는 등 국가적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때 백제의 관계조직(關係組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백제의 관제

| 관 직 | | | 관 계 와 복 제 | | | | | | |
|--|---|--|-----------|--------|---------|-------------------|--------|--------|--------|
| 육 좌 평 (대신급·장관급) | 중 앙 관 서 | | 관 계 | | 복색 | 관식·의대 | | | |
| | 내관(궁내분서) | 외관(정무관서) | 등급 | 관 계 명 | | | | | |
| 1. 내신좌평 (內臣佐平, = 上佐平) - 선납사(宣納事, 왕명출납 : 수상격) 2. 내두좌평(內頭佐平) - 고장사(庫藏事) : 재무장관 3. 내법좌평(內法佐平) - 예의(禮儀) · 외교(外交) : 예식장관(禮式長官) 4. 위사좌평(衛士佐平) - 숙위병사(宿衛兵事) : 친衛長 5. 조정좌평(朝廷佐平) - 형옥사(刑獄事) : 司法長 6. 병관좌평(兵官佐平) - 병마사(兵馬使) : 국방장관 | 1. 전내부(前內部) 2. 곡부(穀部) 3. 육부(肉部) 4. 내경부(內京部) 5. 외료부(外寮部) 6. 마부(馬部) 7. 도부(刀部) 8. 공덕부(功德部) 9. 악부(樂部) 10. 목부(木部) 11. 법부(法部) | 1. 사군부 (司軍部, 軍部) 2. 사도부 (司徒部, 文敎部) 3. 사공부 (司空部, 土木部) 4. 사관부 (司冠部, 司法府) 5. 점구부 (點口部, 戶口部) 6. 외사부 (外舍部, 外戚部) 7. 객부 (客部, 外交部) 8. 주부 (綱部, 財務部) 9. 일관부 (日官部, 天文部) 10. 도시부 (都市部, 市塵部) | 1 | 좌평(佐平) | 자의 (紫衣) | 관(冠)을 은화(銀花)로 장식함 | | | |
| | | | 2 | 달솔(達率) | | | | | |
| | | | 3 | 은솔(恩率) | | | | | |
| | | | 4 | 덕솔(德率) | | | | | |
| | | | 5 | 친솔(任率) | | | | | |
| | | | 6 | 내솔(奈率) | | | | | |
| | | | 7 | 장덕(將德) | 비의 (緋衣) | 자대(紫帶) | | | |
| | | | 8 | 시덕(施德) | | | 금대(○帶) | | |
| | | | 9 | 고덕(固德) | | | | 적대(赤帶) | |
| | | | 10 | 계덕(季德) | | | | | 청대(靑帶) |
| | | | 11 | 대덕(對德) | | | | | |
| | | | 12 | 문독(文督) | | | | | |
| | | | 13 | 무독(武督) | 청의 (靑衣) | 백대(白帶) | | | |
| | | | 14 | 좌군(左軍) | | | | | |
| | | | 15 | 진무(振武) | | | | | |
| | | | 16 | 극우(克虞) | | | | | |

사비(泗比)시대에 들어와서는 왕경(王京)은 상(東)·전(南)·중·하(西)·후(北)의 5부(部)로 나누고, 다시 각 부에는 5항(巷)을 두어 모두 25항(巷)을 두었으며, 또 각 부에는 500명의 군대를 두었다. 지방은 5방(方)으로 구획하고 매 방에는 방령(方令) 1인을 두어 달솔(達率)로써 임명하였으며, 각 방에는 10개 내지 6-7개의 군(郡)이 있었고, 군에는 군장 3인을 두되, 덕솔(德率)로써 임명하였다. 또, 아래의 작은 성에는 도사(道使)가 있었다.

| 오방 | 방성 | 왕도를 기준한 방위 및 거리 | 방성의 넓이 | 병력 | 방성의 추정치 |
|----|------------|-----------------|--------|------------|----------|
| 중방 | 고사성(古沙城) | 남 260리 | 방 150보 | 1,200명 | 전북 고부 |
| 동방 | 득안성(得安城) | 동남 100리 | 방 1리 | 700~1,000명 | 충남 은진 |
| 남방 | 구지하성(久地下城) | 남 360리 | 방 130보 | 700~1,000명 | 전남 구례(?) |
| 서방 | 도선성(刀先城) | 서 350리 | 방 200보 | 700~1,000명 | ? |
| 북방 | 웅진성(熊津城) | 동북 60리 | 방 1리 반 | 700~1,000명 | 충남 공주 |

제3절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연기군 남면

연기(燕岐)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연산군(燕山君)의 영현이었다. 연산군은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郡)을 신라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다. 연산군의 영현은 두 개 현인데, 하나는 연기현으로,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을 경덕왕때 연기현으로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연기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매곡현(昧谷縣)을 경덕왕때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회인(懷仁) 지방에 해당된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문무왕대에서 신문왕대에 걸쳐 고구려·백제 유민들을 흡수, 지방 지배 기반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문무왕 13년(673년)에는 백제 유민에게 구백제 관등의 고하(高下)에 준하여 차등있게 신라의 관등을 주었다.

| 백 제 관 계 | | 신 라 관 계 | | | |
|---------|--------|---------|----------|----|-----------|
| 등급 | 관 계 명 | 등급 | 중앙관계명 | 등급 | 지 방 관 계 명 |
| 2 | 달솔(達率) | 10 | 대내마(大奈麻) | 4 | 귀간(貴干) |
| 3 | 은솔(恩率) | 11 | 내마(奈麻) | 5 | 선간(選干) |
| 4 | 덕솔(德率) | 12 | 대사(大舍) | 6 | 상간(上干) |
| 5 | 천솔(任率) | 13 | 사지(舍知) | 7 | 간(干) |
| 6 | 내솔(奈率) | 14 | 당(幢) | 8 | 일대(一代) |
| 7 | 장덕(將德) | 15 | 대오(大烏) | 9 | 일척(一尺) |

제4절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연기군 남면

연기군은 성종때 10도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중원도(中原道), 지금의 충청북도에 속하였다. 5도양계(五道兩界)의 제도가 실시되면서 양광도(楊廣道-지금의 경기와 충청)에 속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연기군은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청주(淸州)의 속현이었다.

연기현은 고려 현종(縣宗) 9년에 청주의 속현이 되었고, 명종 2년에는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뒤에는 목천(木川) 감무가 겸하였다.

고려시대에 본격적인 지방관제가 성립된 것은, 성종 2년 2월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이때 설치한 12목은 양주(楊洲),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진주(晋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해주(海州), 황주(黃州) 등이었다.

그런데 이때 12목에 파견된 지방관에게는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다가 성종 5년에 비로소 허락되었으며, 성종 6년에는 12목마다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인씩 보내어 지방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종 12년에 와서는 양경(兩京)과 같이 12목에도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물가 조절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성종 14년에 이르러, 고려는 당(唐)의 십도제(十道制)를 모방하여 전국에 십도제를 실시하여 지방관제(地方官制)를 크게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십도제

는 당의 십도제와 같이 지방관제의 최고단위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행정구획은 아니었고, 다만, 순찰 또는 감찰구획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십도제와 함께 12목에 절도사(節度使)가 설치되었으며, 12 절도사 이외에도 7도단연사(都團練使)·11단연사(團練使)·21방어사(防禦使)·15척사(刺史)등의 지방 관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각 도·주·현 표

| 10 도 | 12주 절도사 | 소관 주현(州縣)수 |
|-------------------------|-------------|------------|
| 관내도(關內道, 경기·황해) | 양주·광주·황주·해주 | 29주 82현 |
| 중원도(中原道, 충청북도) | 충주·청주 | 12주 42현 |
| 하남도(河南道, 충청남도) | 공주 | 11주 34현 |
| 강남도(江南道, 전라북도) | 전주 | 9주 49현 |
| 영남도(嶺南道, 경상북도 일부) | 상주 | 12주 48현 |
| 영동도(嶺東道, 경상남도 일부) | | 9주 48현 |
| 산남도(山南道, 경상남도 일부) | 진주 | 10주 37현 |
| 해양도(海陽道, 전라남도) | 나주·승주 | 14주 62현 |
| 삭방도(朔方道, 강원도 및 함경남도 일부) | | 7주 62현 |
| 패서도(溍西道, 평안도) | | 14주 4현 7진 |

고려의 지방제도가 크게 변화하여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 9년 때의 일이다. 이때 4도호(都護)·8목(牧)·56 지주군사(知州郡事)·28 진장(鎭將)·20 현령(縣令)을 두었고, 이는 그 후 다시 개편되어 5도(道) 양계(兩界)·4도호(都護)·8목(牧)·15부(府)·129군(郡)·335현(縣)·29진(鎭)으로 완성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도 양계 · 4도호 · 8목 · 3경

| 5도 양계 (道 兩界) | 4도호 (道護) | 8 목 (牧) | 3경 (京) |
|---------------------|------------|----------|--------|
| 양광도(楊廣道, 현 경기·충청) | | 광주·충주·청주 | 남경(서울) |
| 경상도(慶尙道, 현재와 같음) | | 진주 상주 | 동경(경주) |
| 전라도(全羅道, 현재와 같음) | 안남(安南)(全州) | 전주 나주 | |
| 교주도(交州道, 현 강원도) | | | |
| 서해도(西海道, 현 황해도) | 안서(安西)(海州) | 황주 | |
| 동계(東界, 현 강원도와 함남일부) | 안변(安邊) | | |
| 북계(北界, 현 평안도) | 안북(安北)(安州) | | 서경(평양) |

지방장관에 있어서는 도의 안찰사(按察使), 도호부(都護府)의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의 지사(知事), 현의 현령(縣令), 제진(諸鎭)의 진사(鎭使)·진장(鎭將) 등이 있으며, 지방에 있는 3경(京)에는 유수관(留守官)이 있어 다스렸다. 이들 지방장관의 임무는 전야벽(田野關)·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도적식(盜賊息) 등의 다섯 가지가 주된 임무였으며, 새로 관리가 임명되면 구관은 신관에게 문서와 전곡의 장부를 교부한 후 임지를 떠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 중간기구의 미숙성을 들 수 있다. 즉, 몇몇 한정된 기능만을 주목(主牧)즉, 계수관(界首官)이 중간기구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도의 장관(將官)이었던 안찰사(按察使)가 중간기구 역할을 한 것은 중기 이후부터이다. 둘째의 특징은, 외관(外官)이 없는 속현(屬縣)이 많았다는 점이다.

즉, 외관이 설치된 주현이 129개인데 비하여,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은 361개나 되었다. 셋째의 특징은 향(鄉)·소(所)·부곡(部曲)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5절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연기군 남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연기군 남면은 연기현에 속하였다. 연기현(燕岐縣)은 태종 6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태종 14년(1414년) 전의에 합쳐져서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다시 태종 16년(1416년) 연기현으로 복설(復設)되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종래의 8도를 23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한성부(漢城府) 이외의 지역을 13도로 개편하고, 그 밑에 7부(府), 1목(牧), 231군(郡)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조선은 건국 초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태종 13년(1413년)에 전국을 8도(道)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8도는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함경)·평안 등이며, 한성부(漢城府)와 개성부(開城府)는 경관직(京官職)에 편입하여 6조(曹)와 같은 서열에 있었다. 8도의 관찰사(觀察使) 밑에는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군(郡)·현(縣)의 각 읍(邑)을 두어 부윤(府尹, 종2품)·부사(府使-대도호부, 정3품)·목사(牧使, 정3품)·부사(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현감(縣監, 종6품)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행정단위에는 모두 중앙의 6조(曹)를 모방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房)이 있어서 사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6방의 일을 맡은 것은 지방 토착의 향리(鄉吏)들이었다. 그러나 관찰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6방 이외에도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원인 경력(經歷)·도사(都使)·판관(判官)·교수(教授)·중군(中軍)·심약(審藥)·훈도(訓導)·역학(譯學)·검률(檢律) 등이 있었다. 그리고 수령들의 업무는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간활식(姦滑息)을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기본업무로 삼았다.

8도 가운데 우리 고장이 속하였던 충청도는, 고려 공민왕 때의 양광도(楊廣道)를 개칭한 것이다. 태조 초에는 충주(忠州)에 감영을 개설하였으나 선조 말년에 공주(公州)로 옮겼으며, 충청도에 속하였던 읍은 아래와 같다.

[감영(監營)] : 충주(忠州)→공주(公州)

[목(牧)] : 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 등 4곳

[군(郡)] : 임천(林川)·단양(丹陽)·청풍(靑風)·태안(泰安)·한산(韓山)·
서천(舒川)·면천(沔川)·천안(天安)·서산(瑞山)·괴산(槐山)·
옥천(沃川)·온양(溫陽) 등 12곳

[현(縣-令)] : 문의(文義)

[현(縣-監)] : 홍산(鴻山)·제천(堤川)·덕산(德山)·평택(平澤)·직산(稷山)·
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연풍(延豐)·음성(陰城)·
청안(靑安)·은진(恩津)·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
이산(尼山)·대흥(大興)·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仁)·
남포(藍浦)·진천(鎭川)·결성(結城)·보령(保寧)·해미(海美)·
당진(唐津)·신창(新昌)·예산(禮山)·목천(木川)·전의(全義)·
연기(燕岐)·영춘(永春)·보은(報恩)·영동(永同)·황간(黃澗)·
청산(靑山)·아산(牙山) 등 37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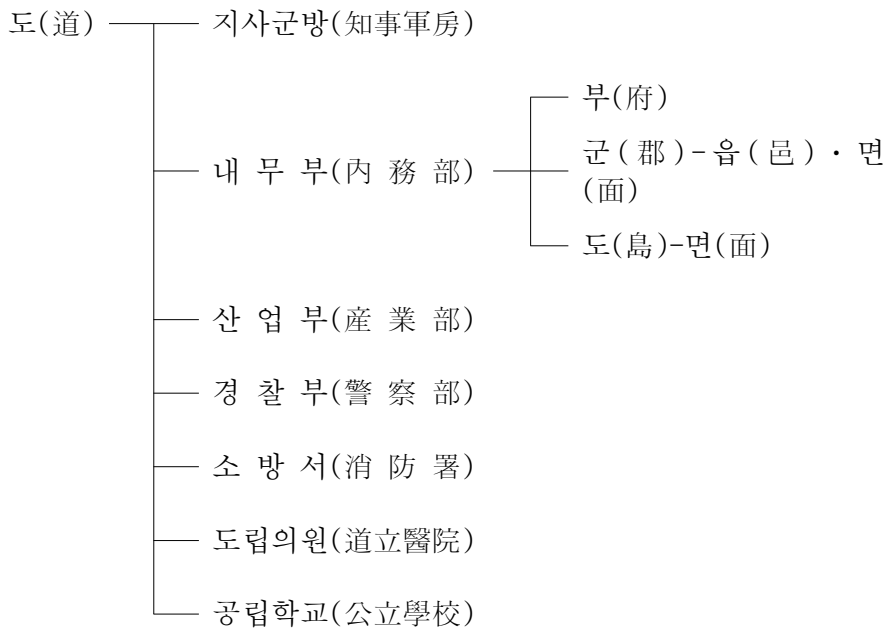
연기는 조선시대 태종 14년에 연기현(燕岐縣)과 전의현(全義縣)이 전기현(全岐縣)으로 병합되었는데, 주읍이 전의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병합당한 군현의 원성이 대단하여 복설하게 되었다. 전기현도 태조 16년에 다시 전성현과 연기현으로 나누어 복설되었다.

우리 지방의 전성현과 연기현의 관직과 군병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기현(燕岐縣)] : 현감(縣監, 종6품) 1인,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20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3인, 관노(官奴) 24인, 관비(官婢) 5인

제6절 일제시대와 연기군 남면

한일합병 후에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행정·군사·입법·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중앙행정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지방행정조직도 개편하였는데, 지방은 다음의 표와 같이 3단계로 조직되었다.



즉, 전국을 13도로 나누었으며, 도(道)에는 지사(知事), 부(府)에는 부윤(府尹), 군(郡)에는 군수(郡守), 도(島)에는 도사(島司)가 도장관(道長官)의 지도 감독 아래 행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부(府)·군(郡)·도(島)의 행정기구도 도(道)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도(道)와 부(府)에는 도회(道會)와 부회(府會) 등의 의결기관이 있었으나, 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서 형식상 내세운 어용의 지방자치 기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지사(知事)와 부윤(府尹)이 맡고 있었고, 이들은 총독에 예속되어 행정, 일부의 사법권, 그리고 일본군의 지방분견대장(地方分遣隊長)에게 요청하여, 한국인을 탄압하기 위한 분대(分隊)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읍과 면은 1940년에 전국에 76읍, 2262면이 있었다. 이때에 일본인은 대부분 부(府)에 거주하였는데 반하여, 한국인은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그리고 읍장(邑長)은 대부분 일본인이 맡았으며, 면장(面長)은 대부분 한국인이 맡았다. 읍과 면에도 도회 및 부회와 같은 읍회(邑會)와 면협의회(面協議會)를 두었으나 이 기구 역시 어용단체였다.

제2장 연기군의 연혁

삼한시대 - 변한, 마한, 진한 중 연기군은 마한(馬韓)에 속하였다.

백제시대 - 전의(全義) - 대목악군의 구지현(仇知縣)
연기(燕岐) - 일모산군의 두잉지현(豆仍只縣)
금남(錦南) - 웅진(熊津), 소비포현(所比浦縣)

통일신라시대 - 전의(全義) - 대록군(大麓郡)의 속현으로 금지현(金池縣, 金地縣)
연기(燕岐) - 연산군(燕山郡)의 속현으로 연기현(燕岐縣)
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16년) 757년
금남(錦南) - 웅천주(熊川州)를 웅주(熊州)로 고치고
비풍군(比豊郡)의 속현으로 덕진현(德津縣)

고려시대 - 전의(全義) - 현종 9년(1018년) 전의현(全義縣)으로 고쳤고, 1018년
청주에 예속되었으며, 명종 2년(1172년) 감무를 따로
두었으나, 뒤에 다시 목주감무(木州監務)로 겸임케
하였다.
연기(燕岐) -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여 명종 2년(1172년)
전의현과 청주에 예속되었다.
금남(錦南) - 덕진현과 폐현이 되고 웅주(熊州)를
공주(公州)라 하였으며 공주 동쪽지역이다.

조선시대

1395년(태조 4년) - 전의에 감무를 두었다.
1406년(태종 6년) - 연기현에 감무를 두었음.
1413년(태종 13년) - 예에 따라 연기, 전의현의 수령을 현감(縣監)이라 하였다.
1414년(태종 14년) - 연기현과 전의현을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 하였다.
1415년(태종 15년) - 운주산에 전성부사를 설치함.
1416년(태종 16년) - 전기현에서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환원함.
1505년(연산군 11년) - 환관 김처선을 처형하면서 김처선의 고향인 전의를
없애버림

- 1506년(중종 1년) - 중종반정이 일어나 전의현이 복구됨.
- 1680년(숙종 6년) - 연기현 읍인 만설의 모역벌주(謀逆伐誅)로 인해 문의(文義)에 속하였다.
- 1685년(숙종 11년) - 연기현이 문의에서 복구하여 연기현(燕岐縣)이라고 하였음.
- 1895년(고종 32년) - 전국 지방 관제를 개정함에 따라 현을 각각 군(郡)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어 연기현은 연기군(燕岐郡)이라 하고 전의현은 전의군(全義郡)이라 하였으며 금남지역은 공주군의 양야리면, 명탄면이 되었다.

일제시대

1911년 - 연기리에 있던 연기군청을 조치원으로 옮겼다.

1914년 3월 1일

- 군면의 폐합에 따라 전의군의 동면, 남면, 소서면, 대서면, 북면, 덕평면(德平面), 읍내면(邑內面)의 7개면 전부와 공주군 명탄면(鳴灘面)의 초오개(草五介), 부용(芙蓉), 봉기(鳳起), 반곡(盤谷), 신산(申山), 대유산(大柳山), 대박(大朴), 석교(石橋), 연소(燕巢), 황용(黃龍), 서북(西北), 원각(元角), 대기(大岐), 유산(柳山), 명촌(鳴村), 신대(新垆), 가양(佳陽), 영대(永垆), 서대(西台), 상평(上坪), 남곡(南谷), 달전(達田), 신곡(新谷), 성리(聖里), 계봉(鷄峯), 박산(朴山), 반석(盤石), 석삼(石三)의 28개리와 양야리면(陽也里面)의 신촌(新村), 화사(花寺), 대평(大平), 상거(上巨), 하거(下巨), 고사(高沙), 이암(鯉岩), 용포(龍浦), 탑산(塔山), 팽목정(彭木亭), 가동(佳洞), 점촌(店村), 중발(中鉢), 흥룡(興龍), 영치(永峙), 사양(沙陽), 내동(內洞), 와룡(臥龍), 금천(金川), 청사(靑寺), 학봉(鶴峰), 상봉천(上鳳川), 하봉천(下鳳川), 구룡(九龍), 용곡(龍谷), 축산(丑山), 감성(柑城), 장대(場垆), 두만(斗滿), 산동(山洞), 장재(長在), 금산(金山), 남곡(南谷), 수락(水落), 호탄(壺灘)의 36개리와 반포면(反浦面)의 용담리(龍潭里)와 삼기면(三岐面)의 평촌(坪村), 서근소(西斤所), 기양(岐陽), 행단(杏檀), 봉산(鳳山), 진의(眞儀), 창동(倉洞), 덕암(德岩), 가정(柯亭), 성전(星田), 송현(松峴), 노은(老隱), 나성(羅城), 송담(松潭), 중촌(宗村), 도산(道山), 유계(柳溪), 이산(李山), 화옥(禾玉), 도금(道琴)의 20개리와 천안군 소동면의 대사(大寺), 궁리(宮里), 소정(小井) 대야(大也), 소시(所柴)의 5개리와 회덕군 구즉면(九則面)의 신달전

(新達田) 신동리(新東里)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 서강의 일하면(一下面)의 옥동(玉洞), 정중(正中), 장대(場垜), 평리(坪里)의 4개리를 병합하여 동면, 서면, 남면, 북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의 7개 면을 두게 되었다.

1920년 - 면제개정(面制改正)에 따라 북면의 일부를 조치원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서면에 속하게 함과 동시에 조치원면을 지정면으로 하였다.

1931년 - 4월 면제개정에 따라 조치원읍을 신설하므로 1읍 6면 101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40년 - 7월에는 서면의 신동(薪洞), 내창(內倉), 변암(礮岩), 동리(東里)의 4개 동리를 조치원읍으로 편입시켰다.

1946년 - 6월 대홍수로 대평리 유실(소재지 용포리로 옮김)

1973년 7월 1일 -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주군 반포면 도암(道岩), 성덕(聖德), 영곡(靈谷) 3개리를 금남면에 장기면의 나성(羅城), 송원(松院) 2개리를 남면에 편입하여 1읍 6면 106동리로 구성하였다.

1986년 - 10월 3일에 지방 자치법 제 10조의 규정 및 연기군 읍·면 출장소 설치조례 제955호(86. 10. 30공포)에 의거 전의면(全義面)의 소정리(小井里), 대곡리(大谷里), 운당리(雲堂里)를 전의면 소정출장소 신설과 동시에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다.

1987년 - 1월1일에 대통령령 제12007호(86년 12월 23일 공포)에 의거 전동면(全東面) 신방리(莘芳里), 영당리(靈堂里), 양곡리(陽谷里), 달전리(達田里), 금사리(金沙里), 다방리(多方里)를 전의면에 편입하였다.

1987년 -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 10조의 규정 및 연기군 읍·면 출장소 설치조례 제 944호(87. 7. 1 공포)에 의거 서면의 봉암(鳳

岩) 1·2리 와촌(瓦村) 1·2·3리, 월하(月河) 3리, 부동리(釜洞里)가 서면 봉암출장소 신설과 동시에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 1988년 - 지방 자치법 제3조 3항 및 부칙 11조에 의거(1988. 5. 1 시행). 조치원읍(烏致院邑)의 19개동(個洞)을 리(里)로 명칭 변경하여 191개 행정리로 조정하였다.
- 1990년 -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자연(自然)의 촌락(村落)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1158(90. 7.20)호에 의거 197개 행정리로 조정되었다.
- 1992년 - 조례 1242(92. 1. 20)호에 의거 전의면 영당 1·2리를 영당리(靈堂里)로 하여 196개 행정리로 조정되었다.
- 1993년 - 조례 1287(93. 12. 18)호에 의거 조치원읍 원리(元里)를 원 1·2리, 침산리(砦山里)를 침산 1·2리, 신안(新安) 1·2리를 신안 1·2·3리로 하여 조정되었다.
- 1994년 - 조례 제1330호(94. 11. 28)에 의거 동면 응암(應岩) 1·2·3리를 음암 1·2·3·4 리로 하여 행정리가 조정되었다.
- 1995년 - 1994년 12월 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조례 제 1333호 94. 12. 24)에 의거 소정출장소 관할 운당 1·2리, 소정 1·2·3리, 대곡 1·2·3·4리, 고등 1·2리의 11개리를 편입하여 1995년 1월 1일자로 소정면(小井面)을 신설하였다.
- 1995년 - 3월 1일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 4,820호에 의거 조례 1345호(95. 2. 28)로 동면 갈산 1,2리를 청원군 부용면에 편입시키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 1, 2리를 전동면에 편입시키어 1995년 3월 1일 자로 1읍 7면 200개 행정리로 조정되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과 서쪽은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제3장 연기군 남면의 일반행정

제1절 연기군 남면

위치 :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15번지

남면은 연기군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금강은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또 금강을 따라 선사유적이 분포되어 일찍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곳이다.

월산리의 고인돌과 진의리 상모골의 청동기 유적은 선사시대 중 청동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의 54개국 중 하나였으며, 천안지역의 목지국(目支國)과 공주지역의 불운국(不雲國)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백제 때에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 연기(燕岐)로 고쳐 연산군(燕山君)의 영현에 속했으며, 고려 현종9년(1018)에는 청주에 속했으며, 명종2년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4년에 전의현과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1416년 다시 연기현으로 환원하였다.

조선말기인 고종 32년 1895년에 연기현이 연기군으로 바뀌어 연기현에서 관아로 쓰던 건물에 연기군청을 만들고 업무를 보다가, 1911년 연기군청을 조치원으로 옮기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의군과 합하여 연기군(燕岐郡)이라 하였다. 그때부터 이곳은 연기군의 남쪽에 위치한다하여 남면(南面)이라 불렀으며 관아로 쓰던 건물은 연남초등학교의 전신인 배달



< 남면 면사무소 >



< 남면 면장 직무 모습 >



< 직원 직무 모습 >



< 남면 보건소 >

학교가 되었다. 지금은 남면의 연기리가 과거 연기현의 중심도시로 연기향교가 있으며, 관아 흔적은 연남초등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초석들이다.

남면 양화리에 가면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600여년 동안 그 터전을 지켜온 것은 입향조 임난수(林蘭秀)가 이곳에 정착하여 자손을 퍼뜨린 것이다.

임난수는 고려의 충신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한 하늘 아래 두 임금 을 모실 수 없다면 모든 벼슬을 버리고 금강변에 은거하였는데, 이곳에 정착 하게 된 동기가 전월산을 바라보니 산이 마치 수풀림(林)자와 같아 자신의 성과 비슷하므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매일 전월산에 올라 고려의 서을인 개 성을 향하여 절을 하고 묵상에 잠겼는데, 그곳을 상려암(想麗岩)이라 부르고 그 가 심었다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마을 가운데에 있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을 승모각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임난수가 살던 곳으로 그가 죽자 그의 손자인 임 중이 이곳에 사당을 지은 것이 오늘날 승모각으로 변하고 임난수의 사당은 독락 정으로 옮겼다.

독락정에 있는 임씨 사당은 원래 “기호서사 첩패령으로 기호서사가 문을 닫고 대신 부안임씨의 입향조인 임난수 위패를 모시고 임씨사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다. 독락정의 정자는 조선초기 임난수의 둘째아들인 임목에 의하여 지어졌다. 중국, 사마의 정원 이름이 캔뎀이름과 같이 지었고, 독락정은 금강의 5강 8정 중 하나이다.

5강 8정 중 강이름이 다섯인데, 오강(吳江-동진 하류), 초강(楚江-부강 하 류), 금강, 백강(백마강), 청강(백마강 하류)이며, 8정은 8개의 정자로, 합강정 (合江亭), 독락정(獨樂亭), 한림정(翰林亭), 탁금정(濯錦亭), 금벽정(金璧亭), 사 송정(四松亭), 청충정(淸風亭), 수북정(水北亭) 이다. 옛날에는 논산과 강경의 상선들이 이들 8정을 지날 때에는 나루세를 물어야 했다고 한다.

진의리, 양화리, 방축리, 갈운리 뒷산에 원수산(元帥山)이 있다. 산 모양이 붓 의 끝과 같이 뾰족하여 문필봉이라고도 불렀고, 봉우리가 큰 것 작은 것 두 개 라 형제봉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원수산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연기대첩에 서 제1차 전투는 서면 쌍전리에서 공주금강까지 30여리간 시체가 즐비하도록 승리를 거두었고 이때 살아난 합단군이 다시 정비하여 원수산에 진을 치고있던 고려 군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어 이곳을 2차 전투지로 부른다. 이 때 높은 장수 가 지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원수산” 이다 해마다 십일월 초하루 자시(子時)를 기하여 지내고 있다.

1. 지역여건 및 특성

○ 연기군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미호천이 경계로 동면 서면으로는 공주시, 남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금남면과 접경을 이루고, 북쪽으로는 서면과 인접해 있으며, 대전, 공주, 조치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 풍부한 용수를 이용한 양질의 미곡과 무공해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연기 월산공단 조성으로 새로운 공업 산업 입지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 공병합지역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교통의 중심지로 대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함은 물론, 주변도시의 영향력 확대와 정주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있지만, 서부지역은 행정중심 과학기업 복합도시로 발전될 지역임.

2. 현 황

○ 일반현황

| 면 적 | 인 구 | 가 구 | 행 정 구 역 | |
|---------------------|-------|-------|---------|-----|
| | | | 리 | 반 |
| 53.5km ² | 8,492 | 2,899 | 28 | 122 |

○ 주요기관 및 업소현황

| 계 | 공공기관 | 학교 | 금융 | 의료 | 약국 | 재래시장 | 음식점 | 이미용 | 목욕탕 | 학원 | 중계업 |
|-----|------|----|----|----|----|------|-----|-----|-----|----|-----|
| 111 | 4 | 6 | 4 | 4 | 4 | - | 46 | 12 | - | 12 | 19 |

○ 복지수급 대상자 현황

| 읍 면 |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 | 모(부)자 가정 | | 소년소녀가장 | | 장애인 | |
|-----|-------------|-----|----------|----|--------|---|-----|-----|
| | 가 구 | 명 | 가 구 | 명 | 가 구 | 명 | 가 구 | 명 |
| 남 면 | 259 | 462 | 15 | 48 | - | - | 318 | 403 |

3. 남면의 분장사무

1) 총무분야

(1) 총무분야

서무·보안·인사·회계·직원의 복리·문서·여론·집단민원·선거·통계·공보·홍보·문화재 보호 관리·문화예술·각종지시사항·견문보고, 적십자 회비, 기타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도의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육성, 체육, 청소년, 바르게살기운동, 스승존경운동

(2) 재무분야

지방세 관련업무, 세외수입 수납, 국유재산 실태조사, 군유재산관리, 시장사용료징수

2) 민원분야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사무, 민원서류 접수처리, 호적, 민방위, 의용소방대 관리, 학사,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및 회보, 인구동태 관리업무, 기타 민원 관련 사무

3) 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재해구호,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장애인등록 및 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총령탑관리, 노인복지 및 가정복지,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시설입소, 묘지관리, 하계방역, 보건일반, 이·미용업소 관리, 청소년 관련업무

4) 산업분야

(1) 도시분야

농산, 농사기술, 지식보급, 개량종묘 공급, 잠업, 식량, 수산, 농지개량, 수렵, 취업정보, 직업안내, 고용촉진, 과수 저축, 이륜, 자동차관리, 축산, 농산물 유통, 지역경제일반

(2) 도시분야

하수도준설 및 사용료 징수, 상수도 소유자 명의변경·급수업종 변경신고,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 급수사용료 납부증명·이의신청처리, 수도사용량점검, 수도요금부과·고지·수납, 급수공사 폐전신고·급수공사 신청,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도급수공사,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 상수도 수질검사 및 약품, 투여, 무허가수도 단속,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하수도공사 시행,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지하수개발 실태, 조사 및 보고, 기타 상·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무

(3)건설분야

시가지 노상적치물 관리, 부동산 소유사실확인증명, 하천 실경작 확인증명, 도로점용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재해대책, 도로관리, 설해대책, 토지형질변경관리, 재해피해확인발급, 도시공원 유지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가로등관리, 도시일반업무, 건설일반업무 처리

5) 주민자치분야

· 문서의 접수 · 보관, 통제에 관한 사항

4. 역대면장

| 대수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 | 임 헌 교 | 1945.12.10 ~ 1950.11.20 | |
| 2 | 임 헌 장 | 1950.11.21 ~ 1955. 2.27 | |
| 3 | 임 재 덕 | 1955. 3.29 ~ 1956. 1. 9 | |
| 4 | 임 재 복 | 1956. 2. 1 ~ 1956. 6.30 | |
| 5 | 강 홍 기 | 1956. 8. 3 ~ 1959. 8. 2 | |
| 6 | 하 충 환 | 1959. 8. 3 ~ 1959.12. 1 | |
| 7 | 임 장 수 | 1959.12.28 ~ 1961. 6.14 | |
| 8 | 민 병 수 | 1961. 7. 8 ~ 1964. 6.25 | |
| 9 | 백 성 기 | 1964. 6.25 ~ 1971. 9.10 | |
| 10 | 임헌국(林憲國) | 1971. 9.13 ~ 1973. 3.20 | |
| 11 | 이덕노(李德魯) | 1973. 3.20 ~ 1974. 2.28 | |
| 12 | 임헌국(林憲國) | 1974. 3. 1 ~ 1976. 4.21 | |
| 13 | 강기찬(康基贊) | 1976. 4.22 ~ 1977. 5.12 | |
| 14 | 황병국(黃秉國) | 1977. 5.13 ~ 1979. 3.26 | |
| 15 | 이달상(李達相) | 1979. 3.17 ~ 1980. 7.11 | |
| 16 | 강기찬(康基贊) | 1980. 7.12 ~ 1986. 4. 9 | |
| 17 | 임창복(任昌福) | 1986. 4.10 ~ 1989.12.31 | |
| 18 | 한종률(韓鐘律) | 1990. 1. 1 ~ 1993. 6.30 | |
| 19 | 이기중(李奇鍾) | 1993. 7. 1 ~ 1996.12.31 | |
| 20 | 진영은(陳榮殷) | 1997. 1. 1 ~ 1998.12. 4 | |
| 21 | 김관수(金觀洙) | 1998. 1.25 ~ 2001. 3.31 | |
| 22 | 서금택(徐今澤) | 2001. 4. 1 ~ 2003. 2.11 | |
| 23 | 한문수(韓文洙) | 2003. 2.12 ~ 현 재 | |



임헌교



임헌장



임재덕



임재복



강홍기



하충환



임장수



민병수



백성기



임헌국



이덕노



강기찬



황병국



이달상



임창복



한종률



이기종



진영은



김관수



서금택



한문수

5. 역대 부면장과 총무담당

역대 부면장

| 대 수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 | 임 민 수 | 1950.11. 3 ~ 1953. 8.16 | |
| 2 | 권 덕 수 | 1953. 8.17 ~ 1956. 3.29 | |
| 3 | 이 상 만 | 1956. 3.30 ~ 1957. 9.30 | |
| 4 | 하 충 환 | 1957. 9.30 ~ 1959. 9.10 | |
| 5 | 임 현 주 | 1959. 9.10 ~ 1960.11.23 | |
| 6 | 민 병 수 | 1960.11.24 ~ 1968. 5.14 | |
| 7 | 임 현 국 | 1968. 5.15 ~ 1971. 9.12 | |
| 8 | 임 기 창 | 1971. 9.13 ~ 1973. 3.19 | |
| 9 | 이 용 범 | 1973. 3.19 ~ 1974.10.30 | |
| 10 | 박 춘 실 | 1974.11.01 ~ 1976. 3.28 | |
| 11 | 장 옥 | 1976. 3.29 ~ 1977.12.22 | |
| 12 | 임 기 창 | 1977.12.23 ~ 1982. 6.30 | |
| 13 | 이 창 길 | 1982. 7. 1 ~ 1983. 8.31 | |
| 14 | 윤 종 일 | 1983. 9. 1 ~ 1984.10. 9 | |
| 15 | 김 관 수 | 1984.10.10 ~ 1985.12.25 | |
| 16 | 안 만 수 | 1985.12.26 ~ 1989. 8.11 | |
| 17 | 전 봉 균 | 1989. 8.12 ~ 1994. 7.12 | |
| 18 | 양 기 영 | 1994. 7.13 ~ 1995. 6.18 | |
| 19 | 안 만 수 | 1995. 6.19 ~ 1997.12.31 | |
| 20 | 전 복 향 | 1998. 1. 1 ~ 1998.12.05 | |

역대 총무계장

| 대 수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 | 유 진 수 | 1961.10.30 ~ 1967. 2.29 | |
| 2 | 임 현 승 | 1967. 3. 1 ~ 1971. 9.22 | |
| 3 | 이 용 범 | 1971.09.23 ~ 1975. 4. 1 | |
| 4 | 한 종 룰 | 1975. 4. 2 ~ 1975. 4.30 | |
| 5 | 임 현 승 | 1975. 5. 1 ~ 1977. 3.10 | |
| 6 | 김 관 수 | 1977. 3.11 ~ 1984.10.12 | |
| 7 | 이 창 원 | 1984.10.13 ~ 1985. 2.24 | |
| 8 | 전 봉 균 | 1985. 2.25 ~ 1986. 4.11 | |
| 9 | 임 좌 순 | 1986. 4.12 ~ 1989. 3. 1 | |
| 10 | 천 인 기 | 1989. 3. 2 ~ 1989. 8.13 | |
| 11 | 임 재 덕 | 1989. 8.14 ~ 1994.10.30 | |
| 12 | 이 경 희 | 1994.11. 1 ~ 1997.10.19 | |
| 13 | 임 훈 | 1997.10.20 ~ 2002. 4.23 | |
| 14 | 허 성 무 | 2002. 4.24 ~ 2002. 8.26 | |
| 15 | 임 재 덕 | 2002. 8.27 ~ 2003. 2.16 | |
| 16 | 최 평 남 | 2003. 2.17 ~ 2004. 7.31 | |
| 17 | 임 재 덕 | 2004. 8. 1 ~ 현 재 까 지 | |

6. 남면의 역대마을 이장과 사회단체

마을별 대표자 전화번호

2005년 4월 현재

| 마을별 | 이 장 | | 이장 휴대폰 | 지 도 자 (남) | | 지 도 자 (여) | | 비 고 |
|------|-----|-------|---------------|-----------|-------|-----------|-------|-----|
| 연기1리 | 박노식 | 34603 | 011-9807-4603 | 안희근 | 34286 | 이길순 | 24239 | |
| 연기2리 | 황승수 | 34188 | 011-460-4181 | 이윤재 | 31095 | 박옥자 | 34207 | |
| 연기3리 | 이병수 | 29695 | 018-220-9695 | 박종강 | 34764 | 이현호 | 63869 | |
| 보통1리 | 이상옥 | 34447 | 011-436-4447 | 고진우 | 34394 | 이상복 | 34265 | |
| 보통2리 | 김선길 | 34424 | 011-458-2458 | 심종선 | 34336 | 김임순 | 25526 | |
| 눌왕1리 | 이연규 | 34118 | 011-9814-3345 | 안중훈 | 34417 | 장현경 | 34327 | |
| 눌왕2리 | 이재구 | 34142 | 011-9804-4142 | 안희용 | 34539 | 홍현숙 | 34538 | |
| 수산리 | 정광희 | 34990 | 011-9812-4990 | 김충희 | 34174 | 이경숙 | 34625 | |
| 고정1리 | 김민수 | 41347 | 011-9406-1347 | 이용현 | 46240 | 지현춘 | 46170 | |
| 고정2리 | 김갑용 | 45626 | 018-454-5626 | 박갑순 | 45279 | 임부산 | 44011 | |
| 종촌1리 | 황정익 | 40532 | 011-404-0532 | 황인순 | 40077 | 이일순 | 45133 | |
| 종촌2리 | 황인산 | 41230 | 011-405-7535 | 임찬수 | 45153 | 이정화 | 45214 | |
| 종촌3리 | 임헌봉 | 45840 | 016-9323-5840 | 이회양 | 44022 | 이현숙 | 46670 | |
| 방축리 | 이필선 | 45060 | 011-487-5062 | 김지용 | 45866 | 황규환 | 43393 | |
| 갈운1리 | 임건철 | 46076 | 018-212-6076 | 임지철 | 48243 | 이연순 | 46078 | |
| 갈운2리 | 최원식 | 46553 | 011-589-1368 | 김시관 | 45934 | 임인숙 | 46320 | |
| 갈운3리 | 임재기 | 45813 | 018-414-5813 | 임재호 | 45573 | 구자춘 | 54602 | |
| 월산리 | 남궁배 | 45481 | 011-9414-5481 | 김진수 | 46278 | 이명순 | 45394 | |
| 양화1리 | 임백수 | 46226 | 011-9816-2233 | 강환일 | 45177 | 안승채 | 45101 | |
| 양화2리 | 임영수 | 46214 | 011-427-6214 | 노문주 | 46610 | 안영숙 | 45515 | |
| 양화3리 | 노수재 | 46272 | 010-7132-6272 | 김강식 | 46596 | 임인자 | 46272 | |
| 진의리 | 임만수 | 46243 | 016-423-6243 | 임재안 | 46318 | 황인자 | 45912 | |
| 송담1리 | 임봉수 | 45846 | 011-9846-5846 | 임재준 | 45882 | 김난숙 | 45878 | |
| 송담2리 | 임헌만 | 45329 | 010-7727-5329 | 이원섭 | 45378 | 김순애 | 45163 | |
| 나성리 | 임재궁 | 45661 | 016-9670-1561 | 임헌광 | 45689 | 이금례 | 45704 | |
| 송원1리 | 김창재 | 46415 | 018-427-6415 | 임재득 | 46592 | 이복실 | 42507 | |
| 송원2리 | 민원규 | 45723 | 011-9408-5723 | 채덕환 | 45729 | 허대순 | 45730 | |

남 면 지역 역 대 마을 별 이 장

| 마을별 | 역 대 이 장 |
|------|--|
| 갈운1리 | 임태균, 임영수, 임성운, 임상철, 임은철, 임헌찬, 임동철, 박효순 이은용, 임왈수, 임경수, 강기현, 임헌찬, 임동철, 이은식, 임건철 |
| 갈운2리 | 강대섭, 임헌조, 오창교, 김인식, 김인식, 김인식, 임방수, 임헌천 김인식, 임헌천, 임춘수, 임무장, 이재면, 임헌명, 곽동환, 임헌경 최원식 |
| 갈운3리 | 이명희, 임호철, 임태균, 임헌영, 임상철, 임태균, 임헌천, 임정철 전연식, 임정철, 임영목, 임재기, 임영목, 양태명, 임재기 |
| 고정1리 | 강감동, 이진국, 박연길, 박영길, 강병희, 강병준, 강창기, 박연길 강창기, 강창기, 김원식, 김우근, 강창기, 김옥찬, 정현도, 김옥찬 강병대, 김민수 |
| 고정2리 | 임헌국, 임헌원(고정3리), 박종학, 임동수(3구), 임동수(3구) 박종학(2구), 임동수, 강윤식, 임성목, 권순성, 박종팔, 권순성 임연수, 박종팔, 임재인, 김갑용 |
| 나성리 | 임헌동, 이근학, 임헌용, 이근학, 임헌봉, 임정수, 임복수, 임영철, 서정선, 임재홍, 임복수, 서정선, 임영무, 양현창, 임헌성, 임재궁 |
| 눌왕1리 | 이형규, 이건성, 이기룡, 황혁주, 이훈영, 하기주(4리), 안치중(4구) 이훈영, 이예찬, 이성구, 이직규, 이훈영, 이성구, 이정규, 이훈영 이진규, 이중규, 이백구, 황의원, 이용규, 황의로, 이진일, 박일주 이연규 |
| 눌왕2리 | 황혁주, 이재용(3리), 안재화(4리), 황을갑, 황의탁, 이정규 황하주(3구), 안성걸, 황의탁(3구), 이예찬(4구) 안재하, 안성걸 황의탁, 안성용, 이백구, 이재구, 이인구, 안진철, 이인구, 안대용 이재구 |
| 방축리 | 임헌영, 전우선, 황명수, 황한선, 임헌권, 황명수, 임광남, 임옥빈 임호수, 임헌진, 전용구, 임재일, 박건창, 임용철, 임근수, 임옥빈 임영수, 이필선, 김지용 |
| 보통1리 | 윤정현, 윤예혁, 윤무균, 김용환, 윤무균, 김갑수, 고진철, 윤만균 윤종인, 이현희, 고진두, 이상옥 |
| 보통2리 | 이상빈, 이상빈, 이상빈, 이상빈, 이상훈, 이상빈, 안교천, 이윤희 김경중, 이윤희, 김선길, |
| 송담1리 | 임진수, 임재원, 임맹수, 임성수, 임맹수, 임상희, 이일영, 오희정 신호균, 임재양, 임규영, 임봉수 |
| 송담2리 | 임병준, 임상희, 임경수, 임의수, 신용희, 임재완, 임재영, 임계수 |

| 마을별 | 역 대 이 장 |
|------|---|
| | 임영달, 임상철, 임치수, 임현완, 임병영, 임현만 |
| 송원1리 | 이근원, 이삼하, 유양호, 이은창, 유진호, 백중기, 김봉기, 이은창 김구현, 이은창, 이근백, 이은창, 이근백, 이은수, 이근백, 김창재 홍창표 |
| 송원2리 | 김봉기, 이규용, 김신규, 현석운, 김우섭, 정혜근, 민원규 |
| 수산리 | 이창극(수산1리), 이연량(1구), 김태원, 이연학, 김태원(2구), 이훈태 임현원(2구), 이훈태, 안희주, 이도영, 안희주, 안희주, 임현경, 안기철 이완규, 김영자, 이운찬, 이범호, 안기주, 정광희 |
| 양화1리 | 임달수, 임익수, 임갑남, 임운철, 임권철, 임현조, 임권철, 임순철 임현유, 임홍철, 임민수, 임홍철, 임재선, 임권철, 임옥철, 임현난 임봉철, 임건수, 임백수 |
| 양화2리 | 임현동, 임현조, 임현계, 임현조, 임현상, 임현조, 임현계, 임현만 임현창, 임근수, 임영재, 임권조, 임의수, 임영수 |
| 양화3리 | 최진영, 노수재 |
| 연기1리 | 전병열, 하충환, 김영준, 임장홍, 황기환, 조봉희, 유태열, 이원준 김재덕, 전봉균, 하태섭, 임복희, 이선, 임복희, 고정환, 박노선 장창규, 하재동, 홍길주, 김명제, 임기천, 박노식 |
| 연기2리 | 이한성, 천병국, 이계축, 이한성, 김창욱, 박희래, 하태수, 고정환 이성하, 강익수, 고진웅, 김종수, 황길수, 천원기, 황승수, 이종선 |
| 연기3리 | 김창욱(4리), 황기환(3), 천병수, 전옥용, 김찬욱, 정쾌준, 김창욱 허형(4구), 유인식(3구), 강철규, 박희래, 황경희, 윤철수, 김화배 윤철수, 이병수, 엄죽성, 이병수 |
| 월산리 | 임영학, 임현관, 임형철, 임영학, 임형철, 이명학, 남궁환 임현교, 임현필, 임진수, 임현필, 박영훈, 남궁현, 임영길 임현춘, 임완근, 임현춘, 임영철, 남궁배 |
| 종촌1리 | 황세익, 황세익, 황건익, 황운익, 황운익, 황우표, 황옥익, 황노익 황영일, 황노익, 황정익 |
| 종촌2리 | 임재학, 임석철, 임남철, 오희춘, 임인목, 한상호, 임현호, 임덕철 장광래, 김영배, 임동일, 황장풍, 김일태, 황인산, 이완수 |
| 종촌3리 | 임남철, 임길성, 임해철, 임현봉, 임현기, 서상범, 임병수, 임현기 임현봉 |
| 진의리 | 임현목, 임영근, 임현목(1리), 임준철, 오창교(3리), 임현옥(1리) 임경수(2구), 이종순, 임달수(2리), 임현옥(1리), 임현중, 임현석 임현중, 임현석, 임현중, 임달수, 임현석, 임현석, 임현용, 임현양 임현호, 임태수, 임만수 |

농 협 관 련 단 체

명 칭 : 남면농협 청년부

조직일시 : 1996년 8월

초대회장 : 정 광 희

역대회장 : 김우식, 육해일, 이열우, 김태영

현 회 원 : 31명

조직인원 : 31명

조직목적 : 청년부는 미래의 농업, 농촌, 농협을 이끌어 갈 젊은 농민으로서 농촌 청년 상호간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농협이념을 확고히 하여 농업, 경영개선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 칭 : 남면농협 농가주부모임(농협여울타리)

조직일시 : 1994년 6월

초대회장 : 오 정 임

역대회장 : 이영자, 이춘복

현 회 장 : 김덕순

조직인원 : 46명

조직목적 :

-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주부에게 농업생산의욕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기회제공
- 농업경영과 가정경영의 주체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농가주부를 조직화하여 농촌여성들이 건의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농촌여성과 농협의 유대강화

명 칭 : 남면농협 부녀회

역대회장 : 김성자, 임옥희, 박순자, 김순의, 박옥순

현 회 장 : 구 자 춘

조직인원 : 30명

조직목적 : 부녀회는 건전가정 육성과 농촌여성의 복지향상을 기하며 회원 간 협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을단위로 여성들이 자율결성한 협동조직이며 회원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남면 테니스회

- 회 장 : 김 중 길
- 회 원 수 : 17명
- 재임기간 : 1998년부터 현재까지

♣ 남면 주민자치위원장

1. 임창철(2003년 ~ 2004년) 2. 김관수 (2004년 ~ 현재)

남면 주민자치위원 명단

(2004. 7.30현재)

| 직 | 성명 | 성별 | 연령 | 현직업 | 참여단체명 | 비고 |
|------|-----|--------------|----|------|----------|-----|
| 계 | 26명 | 남:17 여: 9 | | | | |
| 고문 | 임태수 | 남 | 44 | 농업 | 연기군인회 | 의원 |
| 고문 | 정창규 | 남 | 65 | 금융업 | 남면농협 | 조합장 |
| 위원장 | 임창철 | 남 | 54 | 자영업 | 바르게살기위원회 | 위원회 |
| 부위원장 | 하재동 | 남 | 60 | 원장 | 연기어린이집 | 원장 |
| 간사 | 임봉수 | 남 | 55 | 서비스업 | 행정동우회 | 총무 |
| 위원 | 김관수 | 남 | 62 | 농업 | 남면번영회 | 회장 |
| " | 임만수 | 남 | 59 | 농업 | 리장협의회 | 회장 |
| " | 이재진 | 남 | 60 | 학교장 | 성남중학교 | 교장 |
| " | 최태수 | 남 | 54 | 농업 | 연기군문고 | 회장 |
| " | 이인복 | 남 | 44 | 축산업 | 새마을지도자회 | 회장 |
| " | 구자춘 | 여 | 59 | - | 새마을부녀회 | 회장 |
| " | 임방수 | 남 | 50 | 축산업 | 농업경영인연합회 | 회장 |
| " | 이순자 | 여 | 48 | 자영업 | 생활개선회 | 회장 |
| " | 김덕순 | 여 | 45 | 자영업 | 여울타리회 | 회장 |
| " | 이중복 | 남 | 59 | 자영업 | 남면의용소방대 | 대장 |
| " | 김명제 | 남 | 59 | 자영업 | 연기위용소방대 | 대장 |
| " | 홍문자 | 여 | 45 | 자영업 | 여성방법대 | 대장 |
| " | 최재선 | 남 | 45 | 자영업 | 자율방법대 | 대장 |
| " | 이은재 | 여 | 46 | 자영업 | 여성방법대 | 대장 |
| " | 김덕천 | 남 | 50 | 자영업 | 남면체육회 | 부회장 |
| " | 박노식 | 남 | 53 | 농업 | 리장협의회 | 부회장 |
| " | 강금숙 | 여 | 37 | 학원장 | 중촌컴퓨터학원 | 원장 |
| " | 이예숙 | 여 | 50 | 농업 | 적십자봉사회 | 회장 |
| " | 박남돌 | 남 | 69 | 농업 | 남면농촌지도자회 | 회장 |
| " | 김종길 | 남 | 49 | 자영업 | 남면농악대 | 대장 |
| " | 황인천 | 남 | 43 | 자영업 | 대영에너지 | 대표 |

♣ 남면 의용소방대 (연기지대)

• 역 대 대 장

- | | |
|--------------------|--------------------|
| 1. 이나씨(초대소방대장) | 2. 김용락 |
| 2. 김동완 | 4. 이원준 |
| 5. 최태석 | 6. 이성남(1964~1969) |
| 7. 김원규(1969~1973) | 8. 하태섭(1973~1975) |
| 9. 이진복(1975~1982) | 10. 김영제(1982~1988) |
| 11. 고진웅(1988~1994) | 12. 안희근(1994~2000) |
| 13. 최중환(2000~2003) | 14. 김명제(2003년~ 현재) |

♣ 여성의용소방대

- 회 장 : 홍문자
- 재임기간 : 2003년 2월 ~ 현재까지

♣ 남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소 내)

1989년 연기지회창립, 1993년 남면 생활 개선회 창립

• 역 대 대 장

- | | |
|---------------------|---------------------|
| 1. 황군자(1993년~1996년) | 2. 성옥기(1997년~1998년) |
| 3. 지현춘(1999년~2002년) | 4. 이순자(2003년~현재) |

♣ 역대 소방 대장 (남면 의용소방대)

• 역 대 대 장

- | | |
|--------------------|--------------------|
| 1. 임재병(1948~1950) | 2. 임영목(1950~1953) |
| 3. 황관익(1953~1956) | 4. 임태성(1956~1960) |
| 5. 임현호(1960~1965) | 6. 임영철(1965~1970) |
| 7. 이장호(1970~1974) | 8. 임재완(1974~1981) |
| 9. 임정목(1981~1989) | 10. 임헌출(1989~1997) |
| 11. 이완수(1997~2003) | 12. 이종복(2003년~현재) |

남 면 예 비 군 중 대

▣ 임 무

남면 지역 향토방위 및 지역내 주요 시설 방위

▣ 부대위치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15번지

▣ 역대 지휘관

| 역 임 순 | 연 번 | 성 명 | 거 주 지 | 비 고 |
|-------|-----|-------|-------|-----|
| 제 1 대 | 중 위 | 윤 봉 균 | 보 통 리 | |
| 제 2 대 | 소 위 | 임 동 일 | 종 촌 리 | |
| 제 3 대 | 중 위 | 양 현 창 | 나 성 리 | |
| 제 4 대 | 대 위 | 진 영 목 | 종 촌 리 | |
| 제 5 대 | 소 령 | 이 기 령 | 종 촌 리 | |

▣ 부대 활동사항

중대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기치아래, 현역복무를 마치고 귀향한 젊은이들이 다시 뭉쳐서 1968년 4월 1일, 현위치 인 남면 종촌리에서 창설되었음. 그후 36년여의 세월동안, 부대원들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온갖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부대의 전통을 수립하여 왔으며, 창설 이래 현재까지 단한명의 적도 침투를 허용치 않고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음. 또한 지역내 긴급 화재 발생시, 피해 복구와 대민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음.

현재 부대는, 창설 초기 선배들의 뒤를 이어, 그 아들 및 손자들이 향토방위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

남면 역대 지역·부녀·문고회장 명단

| (지역) | | | (부녀) | | | (문고) | | |
|------|-----------------------|-----|------|-----------------------|-----|------|-----------------------|-----|
| 번호 | 재임기간 | 이름 | 번호 | 재임기간 | 이름 | 번호 | 재임기간 | 이름 |
| 1 | 80. 8. 1~ 84. 4.10 | 최익환 | 1 | 85. 1. 1~ 87. 1.12 | 김성자 | 1 | 89. 7.15~ 99. 2. 1 | 황인상 |
| 2 | 84.10. 2~ 86. 1 7 | 이진규 | 2 | 87. 1.13~ 90. 1.11 | 임옥희 | 2 | 99. 2. 1~ 02. 3, 5 | 최태수 |
| 3 | 86. 1. 7~ 86. 7.26 | 최익환 | 3 | 90. 1.12~ 91. 1.16 | 박순자 | 3 | 02. 3. 5~ 현 재 | 임재권 |
| 4 | 86. 7.26~ 90. 1.20 | 이진규 | 4 | 91. 1.17~ 92. 1. 1 | 박옥순 | | | |
| 5 | 90. 1.20~ 92. 1. 8 | 안희영 | 5 | 92. 1. 1~ 94. 1. 6 | 김정순 | | | |
| 6 | 92. 1. 8~ 95. 1.21 | 임창철 | 6 | 94. 1. 6~ 03. 1. 9 | 김순의 | | | |
| 7 | 95. 1.21~ 01. 5. 9 | 황정익 | 7 | 03. 1.10~ 현 재 | 구자춘 | | | |
| 8 | 01. 5. 9~ 현 재 | 이인복 | | | | | | |

연기군 새마을 지역회장 남면 출신

1. 최 익 환 (1987년 ~ 1988년) 부녀 김순의 03. 현재
2. 임 창 철 (2000년 ~ 2002년) 문고. 최태수 03.05

남면체육회 실무이사 명단

2004년 12월 현재

| 연번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주 소 | 연 락 처 |
|----|-------|-------|-------------|-------------|--------------------------|
| 1 | 회 장 | 한 문 수 | 남 면 면 장 | 종촌리 110-15 | 011-425-1907 |
| 2 | 부 회 장 | 김 덕 천 | 대 립 건 설 | 종초3리 54-3 | 011-401-3253 |
| 3 | 사무국장 | 황 인 산 | 우 정 회 관 | 종촌2리 76-15 | 011-405-7535 |
| 4 | 실무이사 | 최 봉 식 | 궁 중 백 숙 | 나성리 100-8 | 011-408-5795 |
| 5 | 실무이사 | 임 헌 배 | 4 계 절 청 과 | 송담2리 458-5 | 010-4653-0301 |
| 6 | 실무이사 | 최 재 선 | 한 일 전 파 사 | 종촌2리 75-3 | 016-9449-3366 |
| 7 | 실무이사 | 이 회 양 | 성 진 세 탁 소 | 종촌 2리 | 011-433-4026 |
| 8 | 실무이사 | 황 인 손 | 황 우 축 산 | 종촌1리 356-3 | 011-407-5563 |
| 9 | 실무이사 | 진 재 호 | L G 전 자 | 종촌2리 110-27 | 011-9821-6386 |
| 10 | 실무이사 | 강 현 우 | 대 한 사 료 | 종촌3리 148 | 864-1656 |
| 11 | 실무이사 | 임 찬 수 | 종 촌 전 파 사 | 종촌2리 104-37 | 016-438-5153 |
| 12 | 실무이사 | 임 재 만 | 학 교 폭 력 예 방 | 종촌2리 110 | 016-462-5143 |
| 13 | 실무이사 | 김 성 수 | 공 간 예 술 | 방축리 173-5 | 011-9425-9602 |
| 14 | 실무이사 | 임 재 경 | 남 면 축 구 단 | 종촌2리 104-09 | 864-0084 011-454-5629 |
| 15 | 실무이사 | 박 성 돈 | 신 흥 쌀 상 회 | 종촌2리 | 864-5095 011-451-2714 |
| 16 | 실무이사 | 이 중 우 | | 송담2리 452-7 | 011-455-2090 |
| 17 | 실무이사 | 김 덕 영 | | 연기리 425-18 | 011-486-8479 |
| 18 | 실무이사 | 황 석 영 | 광 팡 노 래 방 | 연기리 444-13 | 019-427-2673 |

지역총화협의회원 명부

2004년 12월 현재

| 연번 | 직 위 | 현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비 고 |
|----|----------|--------------|-------|-------------|------------------------------|
| 1 | 남 면 장 | 남면 종촌110-15 | 한 문 수 | 864-5301(사) | 011-425-1907 |
| 2 | 연기의회부의장 | 남면 진의352-11 | 임 태 수 | 864-5459(자) | 018-420-5656 |
| 3 | 명 예 군 수 | 남면 종촌 62-2 | 임 현 세 | 865-7029(자) | |
| 4 | 남면파출소장 | 남면 종촌 79-10 | 신 정 식 | 864-5112(사) | |
| 5 | 종촌우체국장 | 남면 종촌 76-3 | 정 미 자 | 864-5001(사) | 011-463-6414 |
| 6 | 남면농협장 | 남면 종촌 79-11 | 정 창 규 | 864-5800(사) | 011-728-2471 |
| 7 | 성남고등학교장 | 남면 종촌 191-5 | 도 완 석 | 864-5900(사) | 864-7519(직) 016-246-1497 |
| 8 | 성남중학교장 | 남면 종촌 191-5 | 이 재 진 | 865-8333(사) | 865-8331(직) 019-406-5254 |
| 9 | 연남초등학교장 | 남면 연기 379-1 | 성 열 소 | 863-4500(사) | 863-4501(직) 019-401-4312 |
| 10 | 연양초등학교장 | 남면 종촌 18-4 | 이 강 인 | 864-2030(사) | 864-6200(직) 017-401-3479 |
| 11 | 연세초등학교장 | 남면 양화 562 | 김 남 식 | 864-5008(사) | 864-6497(직) 011-9422-6497 |
| 12 | 수왕초등학교장 | 남면 놀왕 324 | 정 호 숙 | 863-4101(사) | 863-4357(직) 011-403-4357 |
| 13 | 방축어린이집원장 | 남면 방축 201-1 | 정 미 순 | 864-5166(사) | 019-477-5066 |
| 14 | 연기어린이집원장 | 남면 연기 74 | 하 재 동 | 863-4654(사) | 011-407-4016 |
| 15 | 남면의용소방대장 | 남면 종촌 111-13 | 이 중 복 | 864-5175(사) | 017-431-7776 |
| 16 | 리장협의회장 | 남면 진의리 10 | 임 만 수 | 864-6243(자) | 016-423-6243 |
| 17 | 남면변영회장 | 남면 방축리 322 | 김 관 수 | 864-5122(자) | 011-436-5122 |
| 18 | 지도자협의회장 | 남면 놀왕 710-8 | 이 인 복 | 863-4783(자) | 011-9826-4783 |

지역총화협의회원 명부

2004년 12월 현재

| 연번 | 직 위 | 현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비 고 |
|----|-----------|--------------|-------|-------------------------|---------------|
| 19 | 부녀회총회장 | 남면 갈우리 581-6 | 구 자 춘 | 865-4602(자) | 017-411-2259 |
| 20 | 자율방범대장 | 남면 종촌리 75-3 | 최 재 선 | 864-6402(사) | 016-9449-3366 |
| 21 | 의소연기지대장 | 남면 연기1리428-1 | 김 명 제 | 863-4215(자) | 011-463-4215 |
| 22 | 바르게살기위원장 | 남면 종촌 123-4 | 임 창 철 | 864-5542(사) | 011-462-5949 |
| 23 | 농업경영인회장 | 남면 종촌 104-13 | 임 방 수 | 864-5034(자) | 011-9830-4646 |
| 24 | 생활개선회장 | 남면 종촌 79-14 | 이 순 자 | 865-4515(자) | 017-425-4515 |
| 25 | 남면예비군중대장 | 남면 종촌 110-15 | 이 기 령 | 864-5113(사) | 017-685-2740 |
| 26 | 남면노인회장 | 남면 양화 560-2 | 임 헌 서 | 864-5271(자) | 016-9690-5271 |
| 27 | 농촌지도자협의회장 | 남면 나성 62--2 | 박 남 돌 | 864-5653(자) | 016-9559-5653 |
| 28 | 명예파출소장 | 남면 방축 96-2 | 이 필 선 | 864-5060(자) | 011-487-5062 |
| 29 | 남면체육회부회장 | 남면 종촌 53 | 김 덕 천 | 864-8285(사) | 011-401-3253 |
| 30 | 종촌미화(합) | 남면 종촌 76-16 | 황 인 설 | 865-6487(자) | 011-432-6487 |
| 31 | 대영에너지 | 남면 종촌2리 | 황 인 천 | 868-5182(자) 867-5104 | 019-432-5189 |
| 32 | 적십자봉사회장 | 남면 갈우리 115 | 이 예 숙 | 864-5921(자) | 011-209-5921 |
| 33 | 용마산업 | 남면월산공단5브럭 | 박 동 수 | 866-5020(사) | 011-454-9312 |
| 34 | 남면농악대장 | 남면 종촌 312 | 김 종 길 | 864-5069(자) | 011-403-2069 |
| 35 | 서 우 | 남면 송원 430 | 김 선 두 | 866-2506(사) | 011-434-2505 |
| 36 | 선 에어시스 | 남면 송원 248-1 | 박 선 태 | 864-2177(사) | 011-286-0257 |

지역총화협의회원 명부

2004년 12월 현재

| 연번 | 직 위 | 현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비 고 |
|----|----------------------|--------------|-------|-------------|---------------|
| 37 | 광 명 건 설 | 남면 종촌 101-1 | 임 정 엽 | 864-6700(사) | 011-425-0317 |
| 38 | 맑 은 나 라 | 남면 고정 485-1 | 전 창 진 | 866-6172(사) | 011-407-6171 |
| 39 | 풍 년 식 품 | 남면 고정 360-7 | 안 영 수 | 864-6719(사) | 018-374-6718 |
| 40 | 풍 만 제 지 | 남면 보통 319 | 윤 복 노 | 863-4111(사) | |
| 41 | 동 진 자 원 | 남면 고정리 375-1 | 정 병 희 | 865-5947(사) | 011-255-8806 |
| 42 | 수 창 물 산 | 남면 종촌 63-2 | 홍 유 석 | 864-5400(사) | 011-401-9918 |
| 43 | 농업기반공사충남 지사연기출장소장 | 남면 진의리 86-1 | 이 영 호 | 864-3184(사) | 011-439-6595 |
| 44 | 한국자원재생공사 | 남면 월산리 440 | 김 정 수 | 866-0541(사) | 011-9405-0548 |
| 45 | 연합마을금고제3분소장 | 남면 종촌리 | 권 순 성 | 864-5215(사) | 016-462-3488 |
| 46 | 여성의용소방대장 | 남면 종촌 104-7 | 홍 문 자 | 864-5392(자) | |
| 47 | 여성방범대장 | 남면 종촌 76-15 | 이 은 재 | 864-1230(자) | |
| 48 | 전농남면지회장 | 남면 나성리 | 육 해 일 | 864-5666(자) | 011-491-0047 |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남면협의회

- 회 장 : 임 창 철
- 회원 수 : 30명
- 재임기간 : 1997년부터 현재까지

♣ 바르게살기 남면 협의회

- 역 대 회 장
 1. 임 정 목 (1989년 ~ 1992년)
 2. 임 헌 세 (1992년 ~ 1993년)
 3. 황 금 출 (1993년 ~ 1995년)
 4. 이 재 구 (1995년 ~ 2000년)
 5. 이 중 복 (2000년 ~ 2003년)
 6. 임 창 철 (2003년 ~ 현 재)

♣ 남면 농악대

- 역대회장 및 회원수
 1. 김 중 길 (1998년 현재) 회원수 30명

♣ 남면 방범대장

- 역 대 회 장
 1. 임 헌 정 (1982년 ~ 1984년)
 2. 황 인 산 (1984년 ~ 1998년)
 3. 최 재 선 (1998년 ~ 현 재)

역대 남면 농촌지도자 회장 명단

2004년 12월 현재

| 대 수 | 재 임 기 간 | 성 명 | 비 고 |
|-----|----------------|-------|-------|
| 1 | 1950 ~ 1951 | 임 동 철 | 2년 재임 |
| 2 | 1952 ~ 1953 | 임 동 철 | |
| 3 | 1954 ~ 1955 | 임 동 철 | |
| 4 | 1956 ~ 1957 | 임 동 철 | |
| 5 | 1958 ~ 1959 | 임 동 철 | |
| 6 | 1960 ~ 1961 | 임 동 철 | |
| 7 | 1962 ~ 1963 | 임 동 철 | |
| 8 | 1964 ~ 1965 | 임 동 철 | |
| 9 | 1966 ~ 1967 | 임 동 철 | |
| 10 | 1968 ~ 1969 | 임 동 철 | |
| 11 | 1970 ~ 1971 | 이 일 영 | |
| 12 | 1972 ~ 1973 | 이 일 영 | |
| 13 | 1974 ~ 1975 | 이 일 영 | |
| 14 | 1976 ~ 1977 | 이 일 영 | |
| 15 | 1978 ~ 1979 | 이 일 영 | |
| 16 | 1980 ~ 1981 | 이 진 규 | |
| 17 | 1982 ~ 1983 | 이 진 규 | |
| 18 | 1984 ~ 1985 | 이 진 규 | |
| 19 | 1986 ~ 1987 | 이 진 규 | |
| 20 | 1988 ~ 1989 | 이 진 규 | |
| 21 | 1990 ~ 1991 | 이 진 규 | |
| 22 | 1992 ~ 1993 | 이 진 규 | |
| 23 | 1994 ~ 1996 | 이 재 구 | 3년 재임 |
| 24 | 1997 ~ 1999 | 이 재 구 | |
| 25 | 2000 ~ 2002 | 박 남 돌 | |
| 26 | 2003 ~ 2004 현재 | 박 남 돌 | |

농업경영인 남면연합회 현황

| 구분 | 회장명 | 주 소 | 전 화 | 회원수 | 기 간 |
|----|-----|--------|----------|------|--------------------------|
| | 안원중 | 남면 놀왕리 | 863-9804 | 12명 | 1985. 1. 1 ~1987. 12 |
| | 권순성 | 남면 종촌리 | 865-3488 | 24명 | 1988. 1. 1 ~ 1989. 12 |
| | 권순성 | 남면 종촌리 | 865-3488 | 31명 | 1990. 1. 1 ~1991. 12 |
| | 임재완 | 남면 연기리 | 862-6085 | 34명 | 1992. 1. 1 ~ 1998.12 |
| | 임방수 | 남면 종촌리 | 864-7361 | 54명 | 1994. 1. 1 ~ 1995. 12 |
| | 전창진 | 남면 연기리 | 863-4044 | 86명 | 1996. 1. 1 ~ 1997. 12 |
| | 이용현 | 남면 고정리 | 864-6240 | 98명 | 1998. 1. 1 ~ 1999. 12 |
| | 임백수 | 남면 양화리 | 864-6226 | 107명 | 2000. 1. 1 ~ 2001. 12 |
| | 임재권 | 남면 갈운리 | 864-4062 | 113명 | 2002. 1. 1 ~ 2003.12 |
| | 임방수 | 남면 종촌리 | 864-7361 | 113명 | 2004. 1. 1 ~ 현 재 |
| | 김만수 | 남면 고정리 | 864-1347 | 113명 | 2004. 1. 1 ~ 현 재 |

연합새마을금고 연혁

설립년월일 - 1980년 6월 16일 9명칭 - 남양새마을금고)

| | 이사장성명 | 주 소 | 비 고 |
|----|-------|----------|-----|
| 초대 | 임 헌 국 | 남면 고정 2리 | 생 존 |
| 2대 | 이 상 근 | 남면 방축리 | 사 망 |
| 3대 | 임 헌 승 | 남면 종촌 2리 | 사 망 |
| 4대 | 강 기 수 | 남면 종촌 2리 | 생 존 |
| 5대 | 임 헌 수 | 남면 종촌 2리 | 생 존 |

- 합병년월일 - 2000년 6월 20일 (조치원시장, 금남, 남양 새마을금고)

- 명 칭 - 연합 새마을금고

- 주 소 - 본 점 :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1-1번지
 금남지점 :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3-33번지
 남면지점 :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1 - 31번지

- 합병 초대 이사장 - 정상철 (조치원읍 남리)

- 합병2대 이사장 - 장광래.

- 조합원 수 6,300명 (2004. 12. 31 현재). (남면지점 : 1,396명)

- 총자산 - 22,041(백만원)

7. 경찰 연혁

1922. 烏致院警察署 設置
1945. 10. 21 1945. 8. 15 民族解放과 同時 日帝警察에 歸屬되었던 韓人警察 32名을 中心으로 美軍政下 國立警察 體制下에 依한 警察機構로서 創立.
1947. 6. 19 燕岐支署 管轄中 燕岐郡 南面 宗村里에 宗村出張所를 設置 認可.
1947. 7. 10 燕岐郡 南面 宗村里 75의 2번지에 宗村出張所를 設置. 南面中 松潭里 眞儀里 宗村里 方丑里 等 4個里를 管轄케 함.
1948. 3. 2 烏致院邑 上洞 敵産 木造2層 建物 占有 派出所 設置.
1950. 3. 5 烏致院警察署 上洞派出所 認可.
1950. 10. 7 警察署 廳舍가 6.25事變으로 消失되어 臨時的으로 烏致院邑 貞洞 72番地 所 敵産建物 172 坪인 現 烏致院 天主教에서 집무.
1950. 11. 25 烏致院邑 上洞派出所가 6.25事變으로 消失되어 官內 有志 支援下에 假聽舍 [建坪 5坪] 建築 使用.
1952. 5. 26 錦南支署가 6.25事變으로 消失되어 錦南面事務所 倉庫를 使用하다 現 位置에 面民의 支援下에 支署廳舍 新築 使用.
1953. 11. 1 驛前派出所 設置가 認可되어 驛構內에 新設 烏致院邑 砧山洞 新興洞 礪岩洞 竹林洞 等 4個洞을 管轄케 함.
1953. 12. 26 烏致院警察署가 1級地 警察署로 昇格 警務 搜查係長을 配置함.
1954. 6. 30 烏致院警察署 廳舍를 國庫豫算에 依하여 本局 直營으로 烏致院邑 元洞 127番地에 新築 移轉 [垆地 750坪, 建坪 107.75坪]
1954. 12. 17 忠淸南道 規則 第63號에 의거 宗村派出所를 廢止하고 燕岐支署를 南面支署로 改稱함.

제2절 남면의 지명유래

1. 연기리
2. 보통리
3. 놀왕리
4. 수산리
5. 고정리
6. 종촌리
7. 방축리
8. 갈운리
9. 월산리
10. 양화리
11. 진의리
12. 송담리
13. 나성리
14. 송원리

1. 연기리(燕岐里)

옛날 연기현(燕岐縣)의 읍터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君,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었다.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의(全義)와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이었었고, 그 후 연기현이 되었고,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읍터로서 군내면(郡內面)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옛 고을의 이름을 따서 연기리(燕岐里)라 하여 연기군 남면(南面) 연기리가 되었다.

1) 연기 1리

객사(客舍)터

연기리에 있는 연기현 객사가 있었던 곳이다.

객사는 임금이나 사신 등 나라의 중요 손님이 왔을 때 머물던 곳이다.

동헌(東軒)터

연기리 서쪽에 있는 연기현 동헌의 터로 현재 느티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어서 예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동헌은 조선시대 현감이 업무를 보던 곳으로 중요사항을 결정짓거나 재판을 하던 곳이다.

옥(獄)거리

아사터 남쪽에 있는 길로 조선시대 옥(獄)이 있어서 붙여졌지만 지금은 없다.

교촌(校村)

연기리(燕岐里) 동부(東部)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다.

이 곳에 향교(鄉校)가 옮겨와서 지어 짐에 따라 ‘교촌’, 즉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교촌’이라 부른다.

향교말이라고도 하며, 당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연기향교가 있으며, 55가구가 거주한다.

환재(換財)골

연기리(燕岐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고려 때에는 보통리(湫通里)에 읍(邑)이 있었으나 조선초엽에 읍(邑)을 연기에 환도하여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였으며, ‘환재골’은 그 당시 나라의 환재 창고가 있다하여 ‘환재골’이라 하였다.

환재(換財)란 옛날 춘궁기에 나라의 양곡을 백성이 빌려서 봄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가, 가을 추수기에 상환하는 제도를 ‘환재(換財)’라고 말한다.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구향교골

연기 1리 서부(西部)에 위치한 마을이다. 지금은 교촌(校村)으로 향교가 이주하였지만 예전에는 향교가 있었다 하여 ‘구향교말’이라 부른다.

조선중엽(朝鮮中葉)에 이곳의 현감(縣監)이었던 박현감(朴縣監)이 자기(自己)의 선영(先塋)을 여기에 묘(墓)로 모시기 위해 향교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켰다.

현재, 공업단지가 들어서 공장 건물만 웅장하게 서 있고 옛 흔적은 전혀 없다.

무대미

지형이 낮아 물이 넘치는 논이 있던 마을이다. 3가구가 거주한다.

등지미

마을 남쪽으로 월산공단이 조성되면서 그곳으로 편입되었다, 지금은 없어졌다.

고작골

장군이 살았던 곳이라 전해지며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지금도 기왓장이 나온다.

양목골

민가가 3가구 거주하고 있다.

네집네

민가가 10가구 거주하고 있다.

백이집턱골

민가가 4가구 거주하고 있다.

병마골

돌림병이 돌면 환가를 격리시켰던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큰목골

암천 앞에 있는 마을이다.

움말

저자거리와 움말을 합쳐 저자거리(장터)라고도 부르며, 150가구가 거주한다.

서부(西部)

연기리 일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예전부터 고을원이 여기에 있을 때, 관청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서부(西部)라 부른다.

옛날에는 웃말이라 부르다, 서부로, 서부에서 다시 연기로 불린다. 이 마을에는 400여년이 된 느티나무가 2그루가 있다.

장승배기

현 소방서와 복지회관 앞 고개를 말한다. 옛날 돌림병인 손님(마마)이 마을에 찾아오면 디딜방아를 갖다가 장승을 세워 빌었다.

구녕고개

현 소방서가 있는 고개다

구룡고개가 변이 된 듯 하다. 놀왕리 사람들이 장에 다니던 고개이다.

누군가가 혈(穴)을 자르자, 피가 흘렀다고 전하며 그 뒤로 연기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창(社倉)고개

연기리 북쪽에 있는 고개다. 조선 때에는 병기창고(兵器倉庫)가 있었던 곳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간직했던 고개다.

병기(兵器)가 저장되어 있었던 터라 하여 ‘사창(社倉)고개’라 부른다.

구(舊)청사자리

현청 터 뒤로 후에 면사무소가 들어섰다. 버드나무가 많아 사람이 죽으면 그 나무에 매달았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 왜군들이 쳐들어오자, 주민들이 버드나무에 매달려 죽은 척하고 있다가 왜병을 물리쳐 왜병들이 많이 죽었다. 후에 왜병들이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다.

빙(氷)고도래

옥거리가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었다.

떼재고개

연기 2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오고개

관등전

등(燈)을 켜주고 밭(田)을 부쳐먹었다고 해서 부터진 이름이다.

밭풀답(田)

관가의 서류에 풀을 붙여 준 밭이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석소(花碩沼)

남면 연기리에서 월산리(月山里)를 돌아 합호서원(合湖書院)을 가다 보면, 산기슭 약(約) 5리(里) 정도에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화석소(花碩沼)라 부른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설송(雪松)이 가경(佳景)을 이루는 여기는, 더구나 한암(恨岩)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일품

(一品)이라는 풍류인들의 말이다.

시객(詩客)들이 작시(作詩)하는데, 벼룻물이 마를 새가 없다해서 화석소(花碩沼)라 부른다.

당산(唐山)

마을 뒷산으로 연기현의 주산이며, 산정상부에는 퇴메식 토석(土石)산성이 있다. 백제 때 쌓은 산성으로 연기리를 지키는 중요산성이다. 또 산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냈던 제사터가 있다.

당산 기우제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낸 산이다. 이 산이 명당이어서 사람들이 몰래 산소를 썼다. 그러나 산소를 쓰면 가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소를 파헤쳐 고발당해 벌금을 물기도 했었다. (1962년도) 산소를 아래로 이전하면 바로 비가 왔다고 한다. 기우제는 4개리 주민(연기리, 보통리, 놀왕리, 수산리)들이 합쳐 지냈다.

위사터

연기리 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조선 시대에 아전들의 관사가 있던 마을로 ‘위사터’라 부른다. ‘위사터’ ‘신촌(新村)’이라고도 부른다.

마부(마고)배미

마부가 말을 키우면서 농사짓고 살던 곳이다.

저자거리(장터)

일제시대 장이 섰으나, 1950년대 없어졌다. 1908년에 개교한 연남초등학교가 있으며, 50가구가 거주한다.

옥(獄)터

옥거리에 있는 연기현의 옥 터로 현재는 논이 되었다.

바위내

‘향교말’ 앞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바위가 많고, 앞에는 냇가 흐르고 있다.

바위와 냇물 사이에 마을이 있다 하여 ‘바위내’라 부른다.

암천(岩川)이라고도 부른다.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연기향교(燕岐鄉校)

향교말에 있는 연기 향교로서 태종 16년 (1416)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며 공자를 비롯하여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제향을 지내는 곳이다.

뜸병주막

지형이 뜸병처럼 파인 곳에 주막이 있었으나 6.25사변 후 없어졌다.

호멸산

조치원 3공단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부처당(산)

해방 때까지 거리제를 지냈었다.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박(朴)답(沓) - 박 과부답 ※ 위치 : 암천교 인근

오래 전 박화춘 씨가 죽자, 아내인 김씨는 과부가 되어 살다 죽었다. 그들은 슬하에 자식이 없어 가지고 있던 논(8마지기, 1600평)과 밭(730평)을 마을에 희사하고 죽었다. 그 후, 주민들은 박씨와 부인을 위해 해마다 한식 때 제사를 지내 주었고(이장 주관), 논과 밭은 면에서 관리를 했다. 등기는 ‘교촌리’로 나 있었다.

현재 이 논밭을 농사짓는 사람은 이병수(연기 3리)씨로, 조부(이한순)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 아버지(이복남)을 거쳐 3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다.

박씨 부부 산소 앞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고밀양박씨화춘지묘 배우인김해 김씨부좌’ ‘(故密陽朴氏化春之墓 配孺人金海金氏 左)’라 새겨져 있다.

관가샘(우물)

조선시대 연기현의 관아에서 사용했던 우물이다.

객사

연남초등학교 터에 있었다.

생업

도(道), 농(農) 복합도시로 논농사, 밭농사(고추)를 짓고 공단(효성건축, 대림산업, 국일방직, 대우자동차시스템, 물류센타 등)이 들어서 있다.

주요 인물

성태경 — 전 국회의원 (민주당)

하준환 — 일제시대 때 서천군수를 지냈다.

제보자 : 하태섭(74), 전봉균(70), 임복희(76), 고정환(72), 박노식(55·이장)

연 기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노식 | 밀양 | 장선자 | | 건규, 현규 | 준자 |
| 정창규 | 하동 | 성암순 | | 완용, 완영 | 인순 |
| 정창문 | 하동 | 안옥자 | | | 경희, 찬희 |
| 김주환 | 경주 | 이영희 | | 기화, 기철 | 기옥,기선,기숙,경화 |
| 최석규 | 강화 | | 임현숙 | | 지혜, 지연 |
| 김정순 | 경주 | | | 황윤명,윤기,윤성 | 경숙,혜숙,신자,윤숙 |
| 오종상 | 보성 | 윤경섭 | 최옥렬 | 상민 | 다정, 가영 |
| 김원규 | 경주 | 김용매 | | 해용,호영,광용,평용,한경 | 한옥 |
| 성낙효 | 창녕 | 이정숙 | 송열현 | 도경 | 금미 |
| 김철자 | 의성 | | | 박종필,종환,종삼 | |
| 김성근 | 경주 | 성기춘 | 이월선 | 현석, 민태 | 혜정, 문정 |
| 이항규 | 한산 | | | 문구, 성구, 현구 | 정희, 연희 |
| 허범석 | 양천 | 유현정 | | | |
| 엄재하 | 영월 | 안옥희 | | 영호, 명호 | 금숙 |
| 이옥분 | | | | 박명배, 영배 | 금희,선희,원선,원희 |
| 홍장주 | 남양 | 김유순 | | 황표 | 송남,부경,선경,미경,은경 |
| 조용철 | 풍양 | 서경금 | 조성엽 | 용과 | 연주 |
| 황경운 | 창원 | 이정례 | | 연주, 길주, 인수 | 유숙, 유희 |
| 김백희 | 김해 | | | 강전호,전수,전태 | 전순, 전주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의영 | 경주 | 오순옥 | | 창기, 명기, 준기 | |
| 안희근 | 순흥 | 이영주 | | 성영, 세영 | |
| 김덕영 | | 서순희 | 김상국, 강정남 | 민호 | 소미 |
| 유인식 | 기계 | 오수순 | | 병호 | 병숙, 영숙, 은숙 |
| 박영배 | 밀양 | 유혜경 | | 종국, 종현 | |
| 진배식 | 연양 | | | 안기만, 기수, 기석, 기세 | 순미 |
| 최영종 | 높을 | | 장현심 | 우식, 준혁 | |
| 노동기 | 광산 | 김승희 | 이정순 | 종권 | 을희 |
| 이진복 | 한산 | 박찬래 | 이봉구 | 원, 국원 | |
| 강정실 | 진주 | 이선동 | | 승권 | 미경, 은경, 유신 |
| 서강선 | 이천 | 최미경 | 강봉례 | | 운주 |
| 하재청 | 진주 | | | | |
| 이종길 | 경주 | 박정자 | | 수환, 수호 | |
| 유호석 | | | | 곽충홍 | |
| 이규성 | 한산 | 김영복 | | 훈구, 인구 | 연미, 연숙 |
| 김상국 | 청풍 | 강정남 | | 덕영, 하영 | 정희 |
| 황건수 | 창원 | 양경옥 | | 상민 | 나리, 나영 |
| 임해수 | 부안 | 강희숙 | | 재운, 재현 | 미순 |
| 박노준 | 밀양 | 정옥희 | | | 미숙, 미옥 |
| 홍길주 | 남양 | 김원예 | | 중표 | 성자, 성임, 성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장명식 | 인동 | 강중순 | | 경재 | |
| 안용규 | 순흥 | 남숙향 | | 계황, 계림 | |
| 박노일 | 밀양 | 김명희 | 박성복, 윤인순 | 용규 | 선화 |
| 손용규 | 밀양 | 김말려 | | 완영 | 경희, 인정, 민정 |
| 황인호 | 창원 | 임재순 | | 정희, 정관 | 정미 |
| 장기원 | 인동 | | | 영덕, 영명, 영주, 영무, 영호, 영식 | |
| 주정현 | 신안 | 김용자 | | 영택, 현택 | |
| 염건태 | 파주 | 김삼숙 | | 요한 | 선혜, 혜정 |
| 윤병국 | 파평 | 오순완 | | 봉균, 동균, 남균, 창균 | 영숙 |
| 안병의 | 광주 | | | 김운제, 김복제 | 김현숙 |
| 박정임 | 밀양 | | | 석현, 광현, 구현 | 명숙, 해숙, 미숙 |
| 김현국 | 김해 | | | 경배 | 성옥, 선정 |
| 강민규 | 진주 | 박중순 | | 전낙, 전환, 전복, 전석 | |
| 허무영 | 양천 | 박을례 | | 정, 석 | 연옥, 연미 |
| 김성복 | 온양 | 최순규 | | | 은경 |
| 신관철 | 평산 | | | 동식, 동익 | 동월, 동순, 미옥 |
| 김현순 | 김해 | | | 윤문, 윤길 | 금옥, 윤옥, 윤자, 윤정 |
| 김영일 | 김해 | 고윤경 | | 인겸, 우겸 | |
| 김춘락 | 진주 | 임태분 | 황순예 | 보환, 민환 | |
| 황금출 | 창원 | 김순의 | | 장수 | 진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동원 | 진주 | 김복이 | | 성은 | 성덕, 성애 |
| 고진규 | 제주 | | 이은순 | | |
| 황철주 | 장수 | 유찬근 | | 의락 | 선자, 창희, 창선, 의옥, 의호 |
| 이금용 | 전주 | 노경미 | | | |
| 김형순 | 나주 | | | 이진영, 이종남 | 이단비 |
| 최순자 | 경주 | | | | |
| 안철진 | 순흥 | | | | |
| 안영진 | 순흥 | 박정희 | | | 요정, 효선 |
| 고준재 | 제주 | 박의숙 | 고진혁, 전정숙 | 상택, 상민 | 유라 |
| 최걸출 | 경주 | | 이옥단 | | 제:순선 |
| 전동률 | 전주 | 오용자 | | | 민아, 초현, 민경, 지원 |
| 최필수 | 경주 | 서정희 | 김희태 | 문식, 정식, 연식 | |
| 박세희 | 밀양 | | 박석규, 성정숙 | 봉순 | 순임, 세희, 지혜 |
| 황세익 | 창원 | 류광자 | | 황인택 | 선, 선영 |
| 박고명 | 밀양 | 임춘옥 | 이옥분 | 병찬 | 병남, 병숙, 병선 |
| 박성복 | 밀양 | 윤인순 | | 노복, 노일, 노희, 노학 | 정자, 인자 |
| 김재숙 | 안동 | 이재순 | | 영대, 영국, 영일 | 영미, 영화, 영해, 영실, 영남 |
| 조성근 | 한양 | | 유준희 | | 아라 |
| 이재석 | 전주 | 이선희 | 이동춘 | | 슬기, 슬이, 슬미 |
| 이이균 | 강진 | 오요순 | | 진명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정정숙 | 경주 | | | 이민규 | 이규희 |
| 김종석 | 경주 | | | | 다운, 나은 |
| 하태영 | 진주 | 위신복 | | 기상 | 성예, 성란 |
| 정기남 | 진양 | 성순희 | | | 은주, 사라 |
| 하재동 | 진양 | 김영순 | | 하선호 자부:김동우 | 하선자, 하연경 |
| 유경준 | 기계 | 임남순 | 이영자 | 성민, 주만 | |
| 김명제 | 경주 | 이영희 | | 동일, 동천 | 은경 |
| 정지훈 | | 박미선 | | | |
| 문태근 | 남평 | 임영이 | | 준호 | 소라 |
| 김덕호 | | 최순례 | | | |
| 홍영표 | 남양 | | 안정분 | 준철, 준성 | |
| 하태섭 | 진주 | 엄동순 | | 성권, 성삼, 성욱, 성규 | 성님 |
| 안담기 | 순흥 | 정유정 | | 동건 | 지영 |
| 천인기 | 영양 | 배순이 | 강창복 | 성민 | 지영, 경선, 진영, 지강 |
| 육근옥 | 경주 | | 육근옥 | 김인환, 김은환 | |
| 황효철 | 창원 | 이정순 | | 기호, 기현 | |
| 임복희 | 평택 | 박재언 | | 기철, 기연 | 기숙, 기욱, 기년, 기향 |
| 최영환 | 경주 | 박영애 | | 경천, 경균, 회만 | |
| 김기복 | 경주 | 고영순 | | 정택, 종석 | 종임, 종예, 종숙 |
| 권기정 | 안동 | | | 순제, 순조, 초룡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하재승 | 진주 | 조현숙 | | 정선, 연호 | 정선 |
| 신영순 | 고령 | | | 충구, 선구 | |
| 임지현 | 평택 | 김구희 | 이춘길 | 지형, 재경 | |
| 김경제 | 경주 | 성정숙 | 윤재중 | 동진, 동렬 | 윤희 |
| 이재무 | 우봉 | 박미숙 | | 정범, 준범 | |
| 장정자 | | | | | |
| 원종래 | | | | 이성복 | 이선미 |
| 정근학 | 진주 | 성금순 | | 혜윤 | 은연, 은정, 명숙 |
| 최태수 | 경주 | 박순임 | 고진각 | 효식, 성식 | 아연 |
| 임헌옥 | 부안 | 유기분 | | 성수, 진수 | 미경 |
| 이찬용 | 전주 | 국은임 | | 성규, 동규 | 정숙 |
| 이동병 | 전주 | 김정희 | | 성용, 덕용 | 윤선 |
| 전상예 | 천안 | | | 시대, 시오, 시하, 서구, 시찬 | 은옥, 미난 |
| 이성남 | 원주 | 임철순 | | 종현, 종진, 귀중, 귀영 | 귀빈 |
| 유준태 | 기계 | 임헌수 | | 정근, 태근, 석근 | |
| 김효순 | 안동 | | | | 매:김효진 |
| 신완충 | 영월 | 서혜경 | | 민제 | 경은, 현희 |
| 민명복 | 영웅 | 한현숙 | | 성기, 원기 | |
| 최정호 | 경주 | 김복자 | | | |
| 이규호 | 덕은 | 황선임 | | 홍구, 성구, 영구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재호 | 평택 | | | 성욱 | |
| 성정자 | 상명 | | | 기연, 백연 | 연화, 연옥, 연분 |
| 사예동 | | | | 김복룡 | 김점순 |
| 윤영자 | 과평 | | | 이길한, 진한, 문한, 중한 | 이미영 |
| 이기영 | | 임순녀 | | 성재 | 지혜, 지선 |
| 고진석 | | 이성예 | | 운순, 인순, 민순 | 순이, 길순 |
| 최중환 | 경주 | 박형엽 | | 재석 | 숙희, 숙자, 숙례 |
| 박기철 | 상주 | 김정식 | | 종필, 종찬, 종호 | 영숙, 영낙 |
| 박수천 | 밀양 | 조순영 | | 병훈 | 혜은 |
| 고정환 | 제주 | 김시원 | | 대영, 대경 | 진숙, 진향, 진경, 진주 |
| 나병례 | | | | | |
| 이병하 | | 박애자 | | 은혁, 은일 | 은희, 은예, 은주, 은경 |
| 신연란 | | | | 정원순, 정덕순 | 정진순, 길순, 월순 |
| 이진남 | | | | | |
| 김영순 | 대림 | | | 윤종진, 종대, 종인 | |
| 김영재 | 경주 | 송영옥 | | | 동환 |
| 박순자 | 밀양 | | | | 임기진 |
| 이준호 | 영천 | 황미랑 | | 의찬 | 수현 |
| 권순분 | 안동 | | | | |
| 육근석 | 옥천 | 신현숙 | | 영진 | 진아, 진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홍준기 | 남양 | 김화숙 | | | 지연 |
| 윤명숙 | 과평 | 김현숙 | | 김상진 | 김상미 |
| 임헌주 | 부안 | 김영자 | | 준수 | |
| 이영길 | 전의 | 박계순 | | 상균 | |
| 전창진 | 천안 | 이금희 | | 중현 | 하나 |
| 전봉균 | 천안 | | | 손자: 종호, 종석 | 자부 : 임은옥 |
| 윤대근 | 과평 | 홍영자 | | | |
| 김정관 | 경주 | 이은영 | | 김선규 | |
| 임동식 | 은진 | | | | |
| 김경순 | 경주 | | | | 아연 |
| 김홍배 | 경주 | 이영우 | | | 김미정 |
| 김애란 | 김해 | | | 최경훈 | |
| 김홍준 | 경주 | | | 홍용택 | |
| 조병로 | 창녕 | 황미영 | | 덕환 | |
| 박홍순 | 순천 | 윤여민 | | 박상준 | |
| 임미숙 | 부안 | | 이원자 | | |
| 이동명 | 진성 | 전순자 | | 준희 | 진아 |
| 임재학 | 부안 | 이건진 | | 옥목 | |
| 김용호 | 김해 | 이종예 | | 종선 | 배성, 배순, 배희, 배숙 |
| 홍계순 | 남양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상희 | 연안 | 장정순 | | 배환 | 영리 |
| 서부영 | 달성 | | | 유승환, 유지형 | |
| 안충훈 | 순흥 | 성경이 | | | |
| 홍원술 | 남양 | 이순예 | 홍광수, 허금순 | 성구 | 미지 |
| 이부호 | 전주 | | | | 손녀 : 이금미 |
| 이홍인 | 공주 | 황현순 | | 광민 | |
| 이신일 | 영천 | 진숙 | | 두수 | 유진 |
| 유재일 | 문화 | 박은희 | | 재광 | 재은, 정선 |
| 장재석 | 인동 | 이덕녀 | | 현진 | 장미 |
| 안희선 | 순흥 | 이이순 | | 기필, 기남, 기선 | 기정 |
| 윤난순 | 파평 | | | 진의수, 진의정 | |
| 이원영 | 강진 | 김영숙 | 신계식 | 모현, 모순 | |
| 신동호 | 평산 | 허덕자 | | 원식 | 선미 |
| 오세은 | 해주 | 홍명순 | | 용석, 광식 | |
| 박봉연 | 밀양 | | | 이태희 | 이윤선, 이효정 |
| 이은철 | 부안 | 송영순 | | 현돈 | 미정 |
| 김오성 | 경주 | 김령자 | | 세관, 세환, 세영 | 영애 |
| 안영화 | 순흥 | 정희자 | | 형석, 형근 | |
| 김보배 | | | | 안기일, 기철, 기범 | 안기영 |
| 이훈업 | 강진 | 이준희 | | 광규 | 수지, 수인, 수비, 수진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용구 | 광산 | 조 순 | | 선중 | 선영 |
| 정철순 | 진주 | 진순자 | | 근원 | |
| 임종필 | 나주 | 정미혜 | | 솔빈 | 다은 |
| 구재창 | 능성 | 안희자 | | 자복, 자영, 자경, 자선 | |
| 임동수 | 부안 | | | | |
| 이은재 | 광주 | 이현정 | | | |
| 배삼철 | 성주 | 김순희 | | 성호 | 명남, 명아, 명옥 |
| 정상열 | | 윤정희 | | 주형 | 주은 |
| 김유신 | 나주 | 오경자 | | 우영 | 우숙, 우순 |
| 정종엽 | | 김기숙 | | 운구, 운봉, 상낙 | 복형 |
| 황의빈 | 장수 | 최용순 | | 희연, 기연, 태연 | |
| 엄명호 | 영월 | 김경미 | 엄재하, 안옥희 | | |
| 이천균 | 강진 | 김옥자 | | | 소희 |
| 이광의 | 전주 | 김운하 | | | 지수 |
| 이진용 | 강진 | 윤숙자 | | 관영, 호영 | |
| 김경자 | 김해 | | | 석규, 성규 | 명화, 명희 |
| 장병석 | 인동 | 김경숙 | | 민철, 민혁 | |
| 채종석 | 인천 | 김미영 | 채현영, 김년희 | 지혁 | 한나 |
| 전병기 | 천안 | 정택길 | | 영준, 대균 | 영선, 미선, 재선 |
| 박태영 | 죽산 | 김영자 | | 근식 | 근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향석 | 함평 | 오양숙 | 박기천, 이점순 | | |
| 윤만균 | 과평 | 고순영 | | 석정, 석문 | |
| 이규남 | 전주 | | | 김강산 | 김연주 |
| 윤용현 | 해남 | 김근옥 | 양다매 | 기석, 기남 | 기임 |
| 장병진 | 결성 | 박순자 | | 장순영 | 인순, 순열 |
| 최광창 | 경주 | 이무연 | | 인수 | 진숙, 인숙 |
| 장찬주 | 흥덕 | | | 이창한, 철한 | 이보숙, 이봉길 |
| 김재분 | 김해 | | | 태동, 태영, 태균 | 순분, 순남 |
| 성낙출 | 창녕 | 이순호 | | 복경, 재경 | 은경 |
| 최용호 | 경주 | 양순분 | | 종만 | |
| 허경옥 | 양천 | | | 윤한민 | 윤소라 |
| 고준길 | 제주 | 원종세 | | 상진, 상열 | |
| 최종선 | 경주 | 안정순 | 최기동, 황우초 | 민수 | |
| 조대용 | | 한미연 | | | |
| 류옥상 | 고흥 | 성기화 | | 연국, 연표, 연희 | 성희 |
| 김용만 | 광산 | 전성화 | 김명수, 정봉섭 | 범중 | 민경 |
| 김명근 | 선산 | 이길순 | | 상목 | 경희 |
| 배기형 | 성주 | 김영자 | 민낙희 | 현석, 준석 | |
| 김필수 | 선산 | | 김영득, 윤수자 | | |
| 박영서 | 변남 | 강영옥 | 박승맥, 최춘자 | 찬일 | 찬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노일 | 밀양 | 조춘홍 | | 성규, 완규, 창규 | |
| 장재원 | 인동 | 김동옥 | 박덕래, 안순자 | 승진, 성범 | 영란, 영애 |
| 김용해 | 영암 | 김스미고 | | 종하, 종호 | 향숙 |
| 강희준 | 진주 | 김명자 | | 문규, 태규, 창규 | 미숙, 미자, 미선, 정순 |
| 최성락 | 경주 | 이정자 | | 재성, 명환 | |
| 하재명 | | 임헌순 | | 태운 | 종숙, 종임, 선미, 종미 |
| 김영갑 | 경주 | 양을모 | | 용철 | |

사진으로 본 연기1리



연기1리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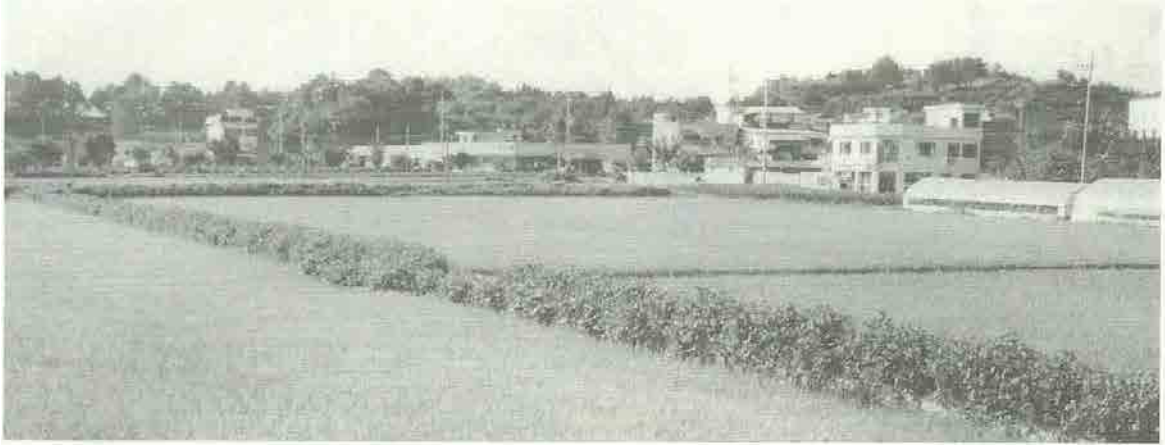
당산마을(금하방직이 들어서며 이주한 주민이 마을을 이룬 곳)



(구) 금하방직 정문



(구) 금하방직부설 흥은여고



마부배미(馬夫田)
(관아의 말을 돌보는 조건으로 경작하던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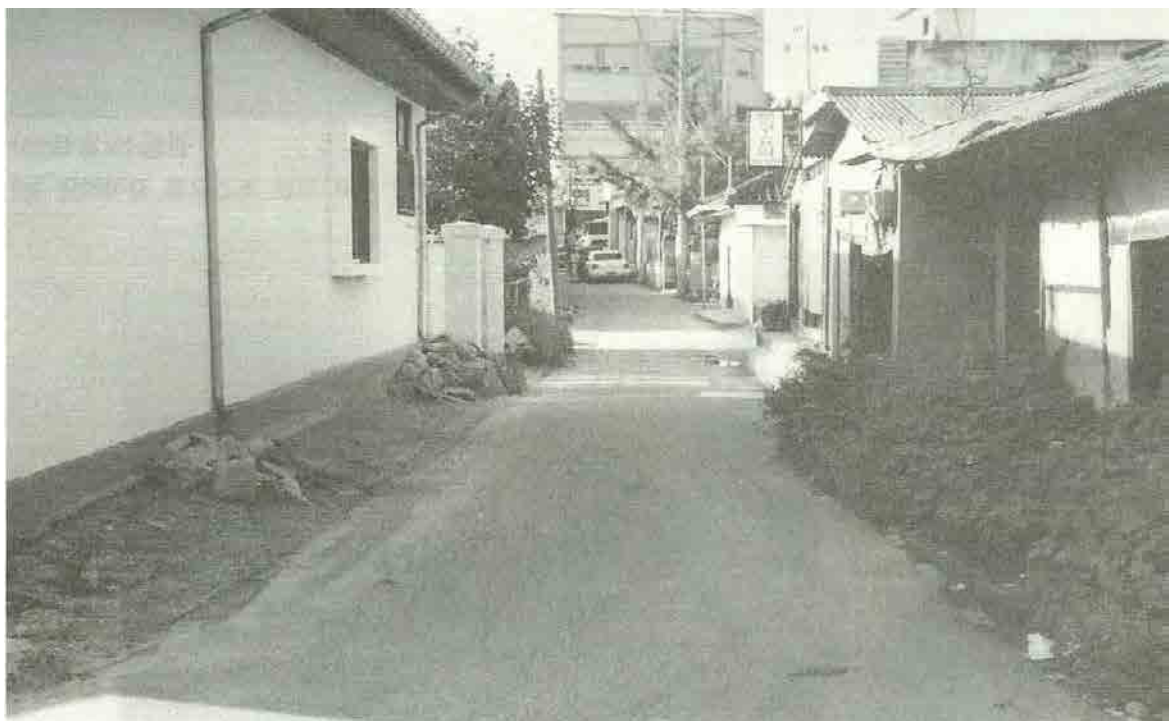
관등전(官燈田)
(관가의 불을 켜고 끄는 조건으로 경작하던 논)



연기교회



옛 연기고을의 저자거리
(옛장터 연기리 38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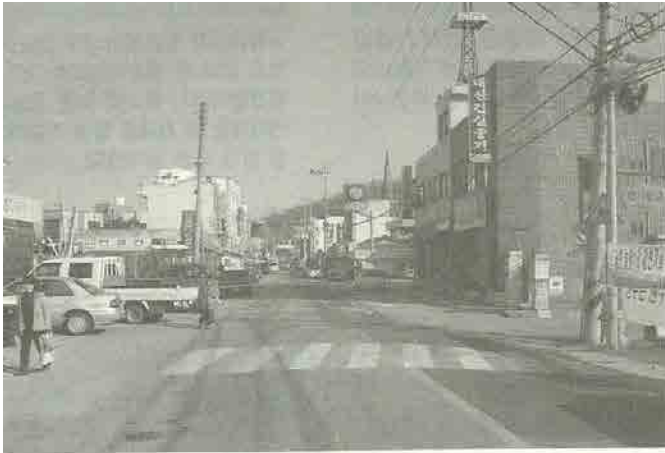
옛 연기고을의 저자거리
(옛장터 연기리 388번지)



남면 농협 연기지소



대한민국 독립기념비



연기리 중심지



충경 정구창 송덕비



복지회관



연남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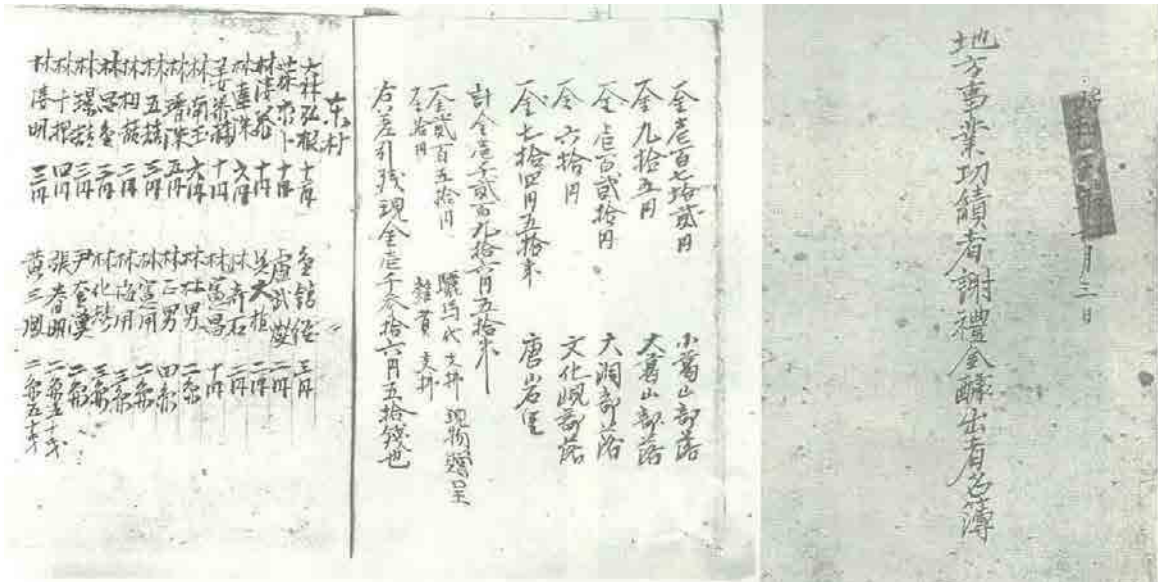
연기1리 하재동 이장 공적비
(마을을 위하여 헌신노력한 공적을
주민들이 1994년 10월 8일에
건립하였다.)



면장 허경환 성적기념비
(1925년 남면장 허경환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독립유공자 일뿐만아니라연남초등
학교 초대 총 동창회장으로 거동이
불편할때까지 학교의 각종 운동기구
전자제품 등 사재를 털어 기증하시는
등 많은 공을 남기셨다.



하경환 공덕비 찬조부락

2) 연기 2리

연기 2리

1반, 2반 모두 63가구 거주한다.

향교말

연기 2리를 통털어 교촌리(校村里)라고 부른다. 전에는 “향골” 이라고 불렀다.

연기 1리부터 3리까지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것은 30여년 전부터다.

향교

원래 연기 1리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원 향교터(1리)가 명당이므로 원님이 그곳에 묘를 쓸려고 2리로 옮겼다는 설과, 당산(堂山)이 명산이므로 유림들이 2리로 옮겼다는 설이 전한다.

향교 앞에 홍살문이 있다.

비석거리

비석이 많이 있어 그리 불렀다. 현재는 향교에 비석을 옮겼다 놓았다.

옥(獄)거리

감옥이 있던 곳으로, 현재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다.

당산(堂山)

산 정상에 옷샘이 있으며 고려장을 지냈다는 얘기가 전한다. 여기 돌을 갖다가 구들장이나 빨래터 등에 쓴 사람은 집에 우환이 생겼다. 이곳에 묘를 쓰면 부자가 된다하여 묘를 썼으나, 비가 오지 않아 마을에서 묘를 파헤쳤다.

빙구들에

빙고(氷庫, 얼음창고)가 있던 곳으로, 옥거리에서 돌아가서 환자골(3리)로 가는 들을 말한다.

무더미들

내(川)가 높고 들(野)은 낮아서 장마가 지면 모래가 쌓였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옷샘

평구들 가기 전에 있었다. 피부병, 옷, 땀띠 등에 특효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소실되었다. 이 샘 부근에 한 쌍의 석장승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땅에 파묻었다고 한다.

기우제

당산에 묘를 많이 쓰면 가물었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냈다. 주민들은 산 너머 샘에서 물을 떠다가 ‘키’를 까붙면서 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한다.

생업

논농사, 축산업, 과수(복숭아)농사를 주로 한다.

제보자 : 황승수(50·이장), 김낙원(70), 남병철(82), 박현옥(82), 차감례(73), 김효재(83), 강양순(77), 전순예(79).

연 기 2 리 세 대 주 명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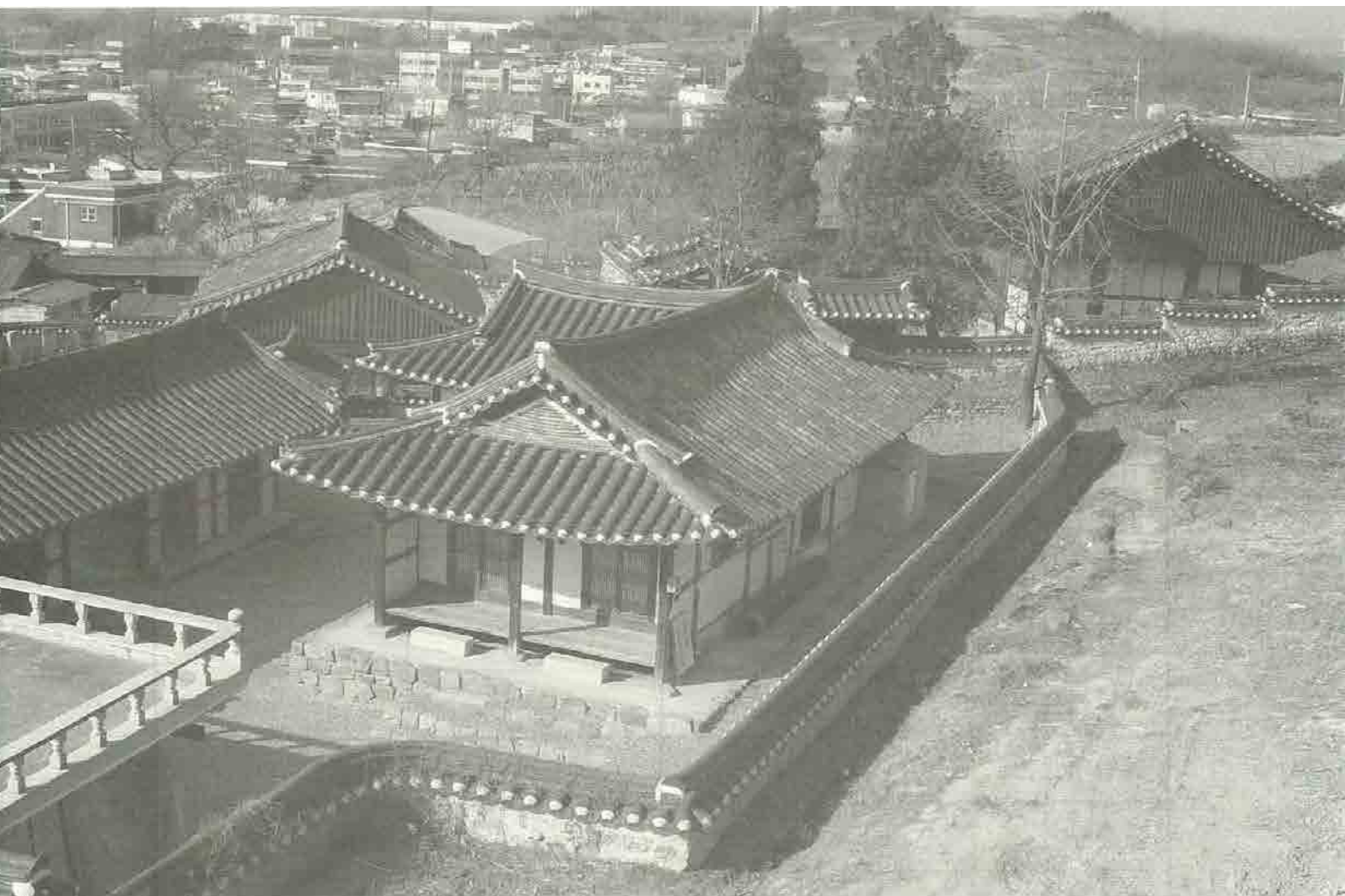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월선 | 삼척 | | | 김근호, 김근정 | |
| 강영직 | 진주 | 박옥분 | 강선희, 조선문 | 강창길, 수길 | 경미 |
| 신명운 | 평산 | | 신병선, 김옥분 | 명운, 명호, 명길 | 명심, 명화, 명복 |
| 한영전 | 청주 | | | | 손녀: 미숙, 미향 |
| 남기태 | 의령 | | 차갑예 | | |
| 조형대 | 한양 | 정순자 | 정인숙 | 조경민 | 조경애, 경임, 난영 |
| 박찬영 | | | | | |
| 이원식 | 전주 | 성하순 | | 종열 | 인선 |
| 고진웅 | 제주 | 조한임 | | 고준복 | 영선, 영순 |
| 남병철 | 의령 | 전순례 | | | |
| 장찬해 | 홍성 | 남기분 | | 형기, 영기 | 선화 |
| 임영순 | | | 김효제 | 강전국, 전민 | 강전옥 |
| 강전우 | 진주 | 김명선 | 신명자 | 광수, 대수 | |
| 강전민 | 진주 | 임미옥 | | 강정훈, 영훈 | |
| 황중원 | 창원 | | 이연홍 | 황지성 | 황지애, 지영 |
| 김채교 | 김해 | 장신자 | | | |
| 김문식 | 경주 | 강양순 | | | |
| 박정순 | 밀양 | | | | |
| 박옥자 | 고령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순정길 | 홍산 | 박순임 | 순건일, 윤광심 | 순종표, 종범 | 순미란 |
| 박한천 | 죽산 | 손분란 | | 박강원 | 박인경, 수정 |
| 장효억 | 인동 | 최경미 | | 장희수 | 장희진 |
| 이선자 | 인천 | | | | |
| 윤공균 | 과평 | 박문숙 | 안순금 | 윤석민 | 윤선희 |
| 이풍호 | 전주 | 성원자 | | | 이다영, 서영 |
| 정정희 | | | | | |
| 차영자 | 연안 | | 장례덕 | 장예훈, 연훈, 동훈 | |
| 황달수 | 창원 | 양춘옥 | | 선경, 선진 | |
| 안경숙 | 경주 | | | 최한수, 양수 | 최정란 |
| 송명용 | 여산 | 양순자 | | 송해우 | 송보라 |
| 황길수 | 창원 | 이한열 | 황경희, 박승임 | 선학 | 용숙, 옥자, 찬숙 |
| 천원기 | 영양 | 안진숙 | | | 선임, 성아 |
| 김기석 | 안동 | 박종남 | | 김영하, 영락 | 김영옥, 영숙 |
| 남재근 | | | | | |
| 황의신 | | 김점순 | | 황기연 | |
| 이종선 | 전주 | 강철옥 | 박헌옥 | 이문한, 인한 | |
| 이중복 | | 백금순 | | 이관용 | 은하, 현하 |
| 김기선 | | 허기영 | | 김치형, 치현 | 김보람 |
| 신금례 | | | | 유비용, 승용, 관용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승수 | 창원 | 이영란 | | 선우 | 은영 |
| 성정자 | | | | 배재환 | 주희 |
| 이윤재 | 안산 | 정금남 | | 이대중 | |
| 민명철 | 여흥 | 석미자 | 민병주, 김숙자 | 민학기 | 민유리 |
| 김용규 | | 노영심 | | 김명진, 승진, 창진 | 김미진, 수진 |
| 허범주 | | | | 허영수, 영재 | |
| 장한옥 | 인동 | 서용남 | | 장필상, 우진 | 장효정 |
| 장한우 | | | | | |
| 장경환 | | | | | |
| 송연주 | | | | | |
| 김은경 | | | | | |
| 안민영 | | | | | |
| 김덕일 | | | | | |
| 김유정 | | | | | |
| 천기원 | | | | | |
| 이만수 | | | | | |
| 조남기 | | | | | |
| 성민영 | | | | | |
| 홍승규 | | | | | |
| 한효식 |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엄용환 | | | | | |
| 이수화 | | | | | |
| 유근철 | | | | | |
| 박응진 | | | | | |

사진으로 본 연기 2리



연기향교와 연기리



연기향교



소방헬기



마을전경



마을회관

3) 연기 3리

등지미

‘둔지미’에서 변형된 마을이름이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섰다.
등허리에 지고 넘어가야 할 만큼 깊은 산골이라 등지미라고 불렀다 한다.

행여바위

‘행여’처럼 생긴 바위, 또는 행여 지붕처럼 생긴 바위이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은 소실되었다.

매봉재

월산, 갈운, 연기의 경계인 산 정상으로, 큰목골 산 전체를 가리킨다.

치마바위

‘너시락바위’라고도 한다. 멀리서 보면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치마바위’라고 불렀으며, 한편 바위가 넓어서 ‘너시락바위’라고도 불렀다.

윗샘거리

마을 위쪽에 샘이 있어서 붙여진 거리이다.

앞마랏(앞마름)

마을 앞의 논으로 물이 귀했다.

오고개

네 집만 살던 곳이다.
3리에서 읍내로 가는 고개로, ‘네집메고개’라고도 불렀다.

연기 3리 3반 : 1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백이집터골

백석(百石)꾼 두 집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홍고개

원사골 넘어가는 고개이다.

살구쟁이

개골고개

고개 너머 개골(월산리)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 또는 공동지고개라고도 부른다. 이 고개는 1998년 공단이 들어서면서, 서낭당과 공동묘지는 없어졌다.

환자골

병막이골이라고도 한다. 집이 두 채 있었다.

양목골

약샘이 있던 곳으로, 병을 가진 사람이 목욕 후 부정을 타서 물이 더러워졌다고 한다. 현재도 남아 있다.

바우내

바위와 냇가 사이에 마을이 있었다.

천렵편던

천렵을 하였던 곳이다.(물이 아주 맑았다)

서낭당

큰 나무가 있어 주민들이 오가며 돌을 쌓고 소원을 빌었다. 도로가 나면서 소실되었다.

암천(岩川)

연기 3리를 통털어 암천(岩川)이라 부르는데, 바위가 많고 산 앞에 내(川)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30호가 거주하고 있다.

용추골

앞에 있는 산이 용틀임 하는 형상이 있는 마을이다.

감투바위

‘감투(사모관대)’ 처럼 생겼다. 지금은 소실되었다.

부처당골

절(부처)이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현재 주춧돌은 남아 있으며, 현 바우내식당 뒤에 있었다.

큰목골산

골이 큰산으로, 부처당이 있었다.

머위편들

머위가 많이 자란 곳으로 절이 있었다. 일명 ‘절터골’ 이라고도 부른다.

본암천(本岩川)

연기 3리 2반으로, 2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갓골

갈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는 연기 3구이다.

생업

논농사, 고추, 콩 등을 주로 한다.

주요 성씨

김해김씨가 4 ~ 5호이고, 기타 여러 성씨들이 거주한다.

제보자 : 이병수(58), 죽성(54·이장), 최창근(69), 윤중기(66), 강경식(65)
박광규(79·노인회장), 이성하(69), 한양순(76), 윤임중(54)
임용분(76), 염정애(79), 오상순(72), 이복순(66), 이한순(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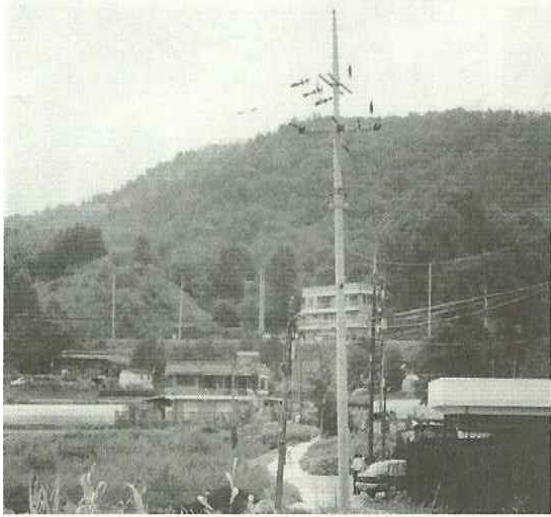
연 기 3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하재교 | 진양 | 지선미 | | | 선우, 연주 |
| 임헌문 | 부안 | 김창례 | | 임창수 | 미나, 미옥 |
| 강창권 | 진주 | 홍양표 | | | 강민희 |
| 노노복 | 만경 | 박회자 | | | |
| 조병순 | 한양 | | | | |
| 하재경 | 진주 | 김청자 | | 경호, 승호, 성호, 준호 | 미자 |
| 김 번 | 경주 | 이용자 | | 동길 | |
| 이정희 | 한산 | | | 동호, 동훈, 동현 | |
| 임정옥 | 상산 | | | 재호 | 최순예, 순해, 지해, 정해 |
| 황의지 | 장수 | 강영님 | | 대현, 창현 | 복순, 미화 |
| 황명예 | | | | 명찬, 태찬 | |
| 전영덕 | 옥천 | 문지연 | | 준혁, 형주 | |
| 김기택 | 김해 | 정순애 | | 재영 | 미정, 미선, 미희 |
| 정근영 | 진주 | 박현옥 | 최윤희 | | 호숙, 예은 |
| 최경옥 | 경주 | 김순례 | 한태순 | 영상, 종현, 종섭 | 영례, 영순 |
| 한성수 | | 이은경 | | | 채연 |
| 김화순 | 김해 | 송서운 | | 종락, 종해, 종연 | 종명, 종안 |
| 김재봉 | 안동 | 박형순 | | 성우, 성희 | 성미 |
| 조창호 | 양주 | 이은미 | 김선님 | | 진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재순 | 김해 | | 정인숙 | 고용봉, 용만, 현동 | 진순 |
| 김종상 | 김해 | 이현호 | | 인태 | 가해 |
| 강창식 | 진주 | 민금희 | | 창현, 창민 | 창희, 창은 |
| 정명순 | 진주 | | | 김재규 | |
| 김일배 | 김해 | 배영춘 | | 종화 | 종관,종양,종자,종미,종삼,성우,영희 |
| 고정렬 | 제주 | 신 옥 | 강경식, 노수예 | 대권, | 진선, 진옥, 진미, 진정, 진예 |
| 강전도 | 진주 | 황주영 | | 용진 | |
| 강경식 | 진주 | 노수예 | | 전국, 전도, 전권 | 예분 |
| 박광규 | 밀양 | 김금순 | 오상순 | 종모, 종희 | 종문, 종순, 종임 |
| 정기순 | 진주 | 김순덕 | | 형란 | 근애 |
| 김재욱 | 김해 | | 임주철 | 종문 | 종희, 종분, 종애, 종민 |
| 임헌권 | 부안 | 박은미 | | | 수연, 수정 |
| 임경빈 | 부안 | 김미라 | | | |
| 서대석 | 대구 | 이화실 | | 길원 | 효희 |
| 김종석 | 김해 | 최정순 | 강익수, 염정애 | 태일 | 향춘 |
| 김종호 | 김해 | 황인숙 | 강이순 | 승태 | 방울 |
| 김은태 | 김해 | 임순예 | 박장예 | 영대, 영로, 영달 | |
| 김중도 | 김해 | 이연희 | 김선옥 | 경태 | 도현 |
| 이계월 | 공산 | | | 진리, 지용 | 선주, 선옥 |
| 남을룡 | 의령 | | | 유은준, 상준 | 숙자, 정순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홍만성 | 남량 | 서영옥 | 김희순 | | 해분 |
| 이준희 | 수성 | | | | |
| 이성하 | 전주 | 윤영순 | | 은호, 은석 | 은정, 선희, 기영 |
| 김태상 | 안동 | 우영남 | 홍복금 | 동식, 현식 | 현숙 |
| 이은창 | 전주 | 박남순 | | 기주 | 순주 |
| 김종일 | 김해 | | | 호태, 원태 | |
| 정해경 | 나주 | | 서주임 | | 한나 |
| 이병수 | 전주 | 정청애 | 임용분 | 덕하, 덕명 | 선미 |
| 윤철수 | 파평 | 이애용 | | 봉석, 호석 | 미정, 미현 |
| 윤중길 | 파평 | 안영자 | | 진원 | 미리, 회정, 복희, 정미 |
| 박갑수 | 밀양 | 한양순 | | 종남, 종광 | 승예, 종순, 승주, 승순 |
| 최순근 | 화순 | 윤임중 | | 인수, 종규, 종복 | 선자 |
| 윤한진 | 파평 | | 예천순 | | |
| 윤육환 | 파평 | | | | |
| 강익수 | 신천 | 염정애 | | | |
| 최창근 | 화순 | | | | |
| 김태봉 | 안동 | 양희숙 | | 광식, 범식 | |
| 이현기 | 전주 | | 임송자 | | |
| 장춘근 | 홍덕 | 박계수 | | 지환, 민환 | 채운, 채봉, 해련, 언자, 희숙 |
| 강광옥 | 진주 | 이복순 | | 전홍, 전의 | 명숙, 명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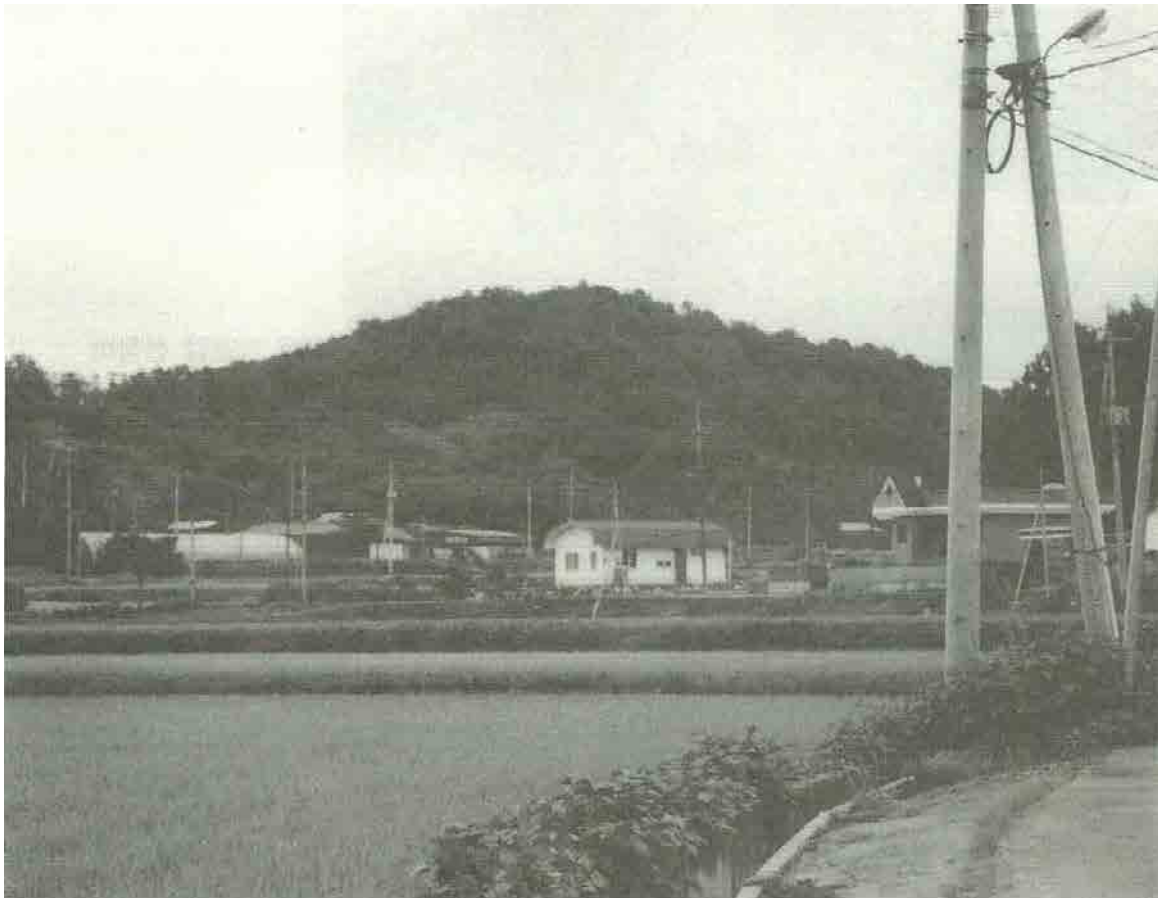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연기 3리



연기3리 암천(岩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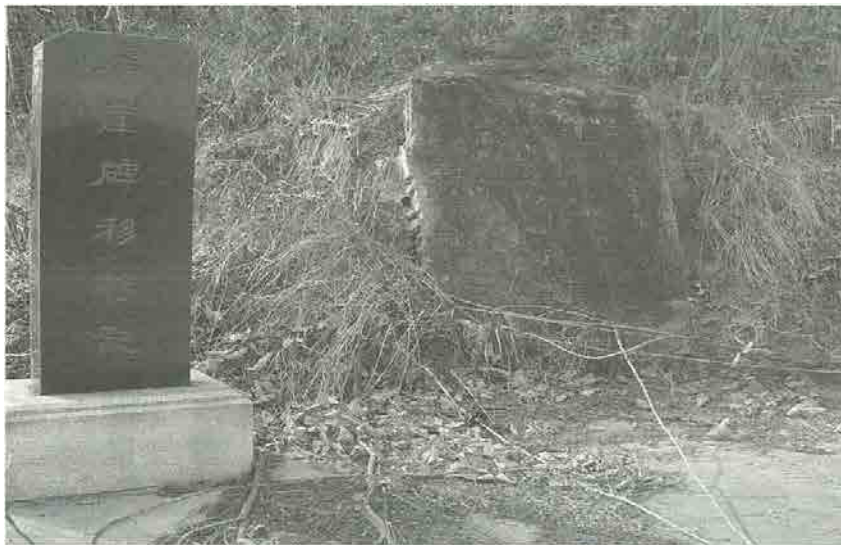
연기3리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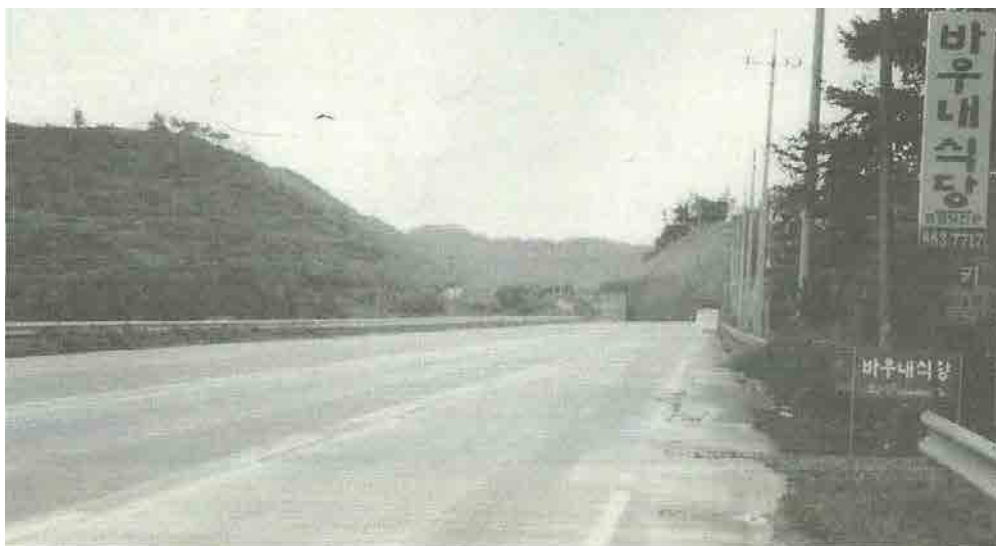
바우네(용추골)



서낭당 고개
(도호가 나면서 없어짐)



마애 강현감 선정비



개골 고개

2. 보통리(湫通里)

보통용수(湫通用水)란 말로부터 연유(緣由)된 마을 이름이다. 냇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와 놀왕리, 연기리를 거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물이 꼭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물(寶物)과 같다고 표현(表現)했었다. 연기리로부터 보(湫)가 통(通)해 가므로, 보통(湫通)이라 불렀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연기현(燕岐縣)에 속했다가 조선중기에는 연성(燕城)이라 불렀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군내면의 지역(地域)이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보통리(湫通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1) 보통 1리

큰뜸

보통 1리 1반으로, 22가구가 거주한다.

묘등(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며, 마을이 크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새뜸

집이 드문드문(새) 있어서, 새뜸이라고 불렀다.

안산

마을 앞에서 보이는 산이다.

헛수명

물이 헛 곳으로 빠졌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 비행장 자리이며, 비행장은 1970년대에 생겼고, 현재 헬기훈련장으로 활용 중이다

보들이

보물(寶物)같은 물이 들어오는 논이다.

묘등

마을입구에 묘처럼 생긴 논이다.

상곶모퉁이

윗뜸

보통 1리 2반으로, 20가구가 거주한다.

위쪽에 있어서 윗뜸 이라 부른다.

서낭당

1리와 2리의 경계에 위치하며, 돌무더기 형태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다.

당산(堂山, 唐山)

백제 때 큰절이 있었던 곳이다. 백제 금불상 2개가 출토되었다.

1개는 일본으로 반출되려다가 되돌아와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곳은 50여 년 전까지 연기군수 주관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었다.

부처당골

옛날 절이 있어 이곳에 부처를 모신 법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 고랑(세 갈래의 고랑)이라고도 불렀다.

사공탑

동면(東面)에 살던 사공들이 부치던 논이다.

장판

장치기를 하며 놀던 곳으로, 이씨(李氏)형제가 장치기 하다 한쪽 눈을 다쳤다.

장치기는 길다란 막대로 나무나 짚으로 만든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아래뜸

보통 1리 3반으로, 19가구가 거주한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라 아래뜸이다.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다. 보통리(주막거리)에서 부강(美江)을 거쳐 동면(東面)으로 갔다.

큰샘

보통리 전 주민의 식수로 사용할 만큼 크고 중요한 샘이다.

현재도 샘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

돌소매

돌아가서 소를 매던 곳이다.

젓막

예전에 연기리가 큰 고을이었을 때 이 곳은 큰 장터였었다. 물건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새우젓’ 이었다 하는데, 그 새우젓을 싣고 배가 금강(錦江)따라 올라온 여기에서 거래가 되었다.

새우젓이 쌓여진 고장이라 하여 ‘젓막’ 이라 부른다

청임말

청나라 사람(淸人)들이 살던 곳으로, 깨진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다.

높은 집 산

청양박씨가 살던 높은 지대가 황새가 앉았던 큰 바위가 있었는데, 45년 전 소실 되었다.

황새바위

높은집 산 뒤에 높이 10m가 되는 바위가 있다.

동진나루

영규대사가 임진왜란 때 진(陣)을 치던 곳으로, 1980년부터 배가 다니지 않고 있다.

고마담

일본인의 소유인 토지로, 1필지가 현재도 남아있다.

주막거리밑 비(碑)

문화류(柳)씨 비석으로 위에 다리가 세워져 절반 이상 덮여져 있는 상태이다.
옛날 이곳에 주막이 있어서 주막거리라 불렀다.

보통리 제방

1998년에 쌓았다.

배터-젓막, 상아배, 구강(舊江)

생업

주로 논농사, 그 외 감자, 단무지, 복숭아, 배를 생산한다.

주요 성씨

파평윤씨가 30%, 제주고씨가 20% 순으로 거주한다.

사격장

1950년대 중반에 설치되었다.

현재 인근 군부대 포 훈련장으로 활용 중이다.

32시단 KD 종합 사격장을 폐쇄하고 종합 각계 전투 교육장으로 사용

충남 소방 항공대 - 군비행장 의무소방대 10명

장비 - 소방헬기 1대(PZL W-3A(쏘콜 119)유조차, 밸리뱅크, 밤비 바스켓,

인명구조장비(호이스트), 구조낭, 들 것,

주로 하는 일 - 산불, 산학구조, 수한 재해시 응급환자 이송, 소방 인력 공수,
도정 업무 지원.

저울고개

진주정(鄭)시의 묘가 있는 곳으로, 옛날 정씨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머슴살이를 하다 어머니가 죽자, 가마니에 싸서 달밤에 이곳에 묘를 썼다.

이때, 여자가 낯선 남자에게 쫓겨오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산발을 시켜 묘 앞에서 울게 하여 위기를 모면케 해 주었다.

목숨을 건진 여자와 정씨는 부부가 되어 그 후, 부자가 되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자, 여자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이 집의 기운이 다 된 것을 느끼고 선녀가 그네를 타는 형국인 “묘 고개(穴)를 꿰으면 된다” 고 말했다. 혈(穴)을 꿰을 때 하얀 피가 흘렀다고 하며, 그 후, 정씨네는 망했다고 전한다.

석인봉(石人峰)

뒤산 봉우리 큰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예전에 이곳 동진나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때,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좋은 시를 써서 바위에 새겨 놓았다.

제보자 : 이상옥(47, 이장)고진두(51), 김갑수(70), 윤상균(69), 고준원(71), 강호규(55), 윤정현(61), 김순원(69), 김덕순(64), 허희재(60), 문영희(70), 윤복임(78), 김영희(70)

보 통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영운 | | | | | |
| 육근우 | 옥천 | | | | |
| 하봉선 | 진주 | 김숙자 | 하형도, 최정분 | 재용, 재영 | |
| 윤복임 | 파평 | | | 박수복 | 박수예, 순희 |
| 서기순 | 이천 | | | 윤강일, 강욱, 강현 | 윤강희 |
| 고진국 | 제주 | 이선우 | | 준안 | 은혜, 은영, 은정 |
| 윤종원 | 파평 | 신숙자 | | 근상 | 덕례 |
| 윤권균 | 파평 | 김덕순 | | 종근, 종부, 종과 | 미화, 봉예 |
| 김정순 | 김해 | | | 윤청균 | 윤경애 |
| 김순기 | 김해 | 신정숙 | | 기태, 영태 | 은희 |
| 김순원 | 김해 | 김윤희 | | 종태, 용태 | 복선 |
| 차중옥 | 연한 | 이영애 | 이구순 | 영돈 | 미순, 미애, 미연, 미정 |
| 이금순 | 진주 | | | 명규, 재규 | 순옥, 옥경, 지수 |
| 조용무 | 순창 | 이규희 | 권영자 | 철호 | 원호 |
| 고진우 | 제주 | 이순희 | 김영순 | 준민 | 은주 |
| 한응철 | | 김미옥 | | 상기 | |
| 윤상균 | 파평 | 김영희 | | 종국, 종돈, 종욱 | 종금 |
| 성낙일 | 창녕 | | | 고준구, 준걸, 준영 | 준모, 준옥 |
| 박순철 | 밀양 | 고애준 | | 정근, 정환 | 정애, 정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윤강호 | 파평 | 한순옥 | 최중희 | 은기 | 진연, 해준, 해인 |
| 윤종인 | 파평 | 김덕일 | 유영숙 | 문수 | 신애 |
| 김정복 | 경주 | 성순애 | | 중협, 종일 | |
| 윤승균 | 파평 | 김동자 | | 종석 | |
| 윤종설 | 파평 | 이상복 | | 중수, 완수, 천수 | 청해, 희순 |
| 윤봉균 | 파평 | 문영희 | | 종화, 종민, 종각 | 종애, 순미 |
| 고진두 | 제주 | 최관순 | | 준일, 준이 | |
| 소진혁 | 제주 | 전정숙 | | 준재, 준환 | 준월, 준양, 준숙 |
| 김학규 | 경주 | 김근함 | 김홍순 | 민식 | |
| 김갑수 | 광산 | 정인순 | | 용일 | 향이, 일해, 양진, 현정 |
| 최수영 | 경주 | 엄영화 | | 영석 | 영실 |
| 윤강유 | 파평 | 김양희 | | 지근 | 숙자 |
| 고준문 | 제주 | 이명순 | 사회정 | 상효, 상덕 | |
| 고준원 | 제주 | 최분식 | | 상원, 상현 | 영애 |
| 고춘옥 | 제주 | 박종순 | | 진각, 진산, 진용 | 미령, 미자, 미화 |
| 윤민근 | 파평 | | 조영애 | | |
| 윤정현 | 파평 | 유옥순 | | 종찬, 종택 | 선정 |
| 이상희 | 전주 | | | 강종규 | 강소애, 종숙, 옥희, 남수 |
| 윤현균 | 파평 | 정홍연 | | 종면, 종태 | 복희, 순희 |
| 강병기 | 진주 | 윤명희 | | 정국, 전진 | 전옥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윤종관 | 과평 | 이유경 | 성부용 | | 정수 |
| 강호규 | 진주 | | 이봉순 | 정용 | 문선 |
| 윤영균 | 과평 | 이새임 | | 종주, 종진 | 복자 |
| 윤종대 | 과평 | 성인자 | | 정봉, 성환 | 홍숙 |
| 윤의조 | 과평 | | | | |
| 고진태 | 제주 | 박영순 | 김지선 | 준교 | 은지 |
| 김영애 | 경주 | | | 윤종대, 종윤 | 종희 |
| 곽병달 | 현풍 | 성진영 | | 고진균, 고진원 | 고진애, 곽정자, 곽정화 |
| 박태규 | 춘천 | | | 최성일, 성근 | 최성순 |
| 유재경 | 강릉 | | | | |
| 현근주 | 경주 | | | 김기준, 기성, 기만, 기호 | 김순옥 |
| 이상옥 | 경주 | 강행심 | 김영분 | 충희 | 가연 |
| 박수복 | 밀양 | 연숙자 | 윤복임 | 상초 | 상은, 은하 |
| 성춘의 | 창녕 | | | 유문영, 재용, 충용 | 유은숙, 은순 |
| 허희재 | 양천 | | | 한경, 현경 | 경순 |
| 강병기 | 진주 | 임영훈 | | 전일, 전우, 전희 | |
| 최이영 | 경주 | 박경숙 | | 영옥, 영록 | 영숙 |
| 최대봉 | 경주 | | 이윤기 | 성남, 성길 | 성미, 성희 |

사진으로 본 보통 1리



보통1리와 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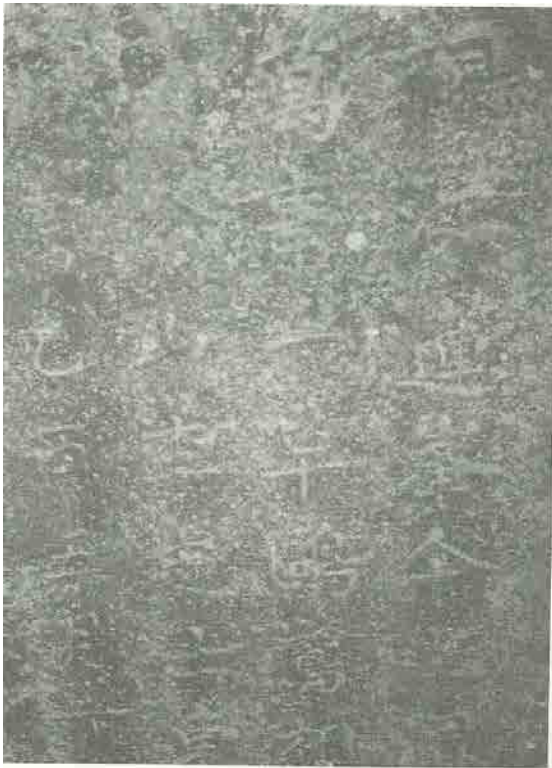
보통1리 마을회관



사격훈련장



지울고개



석인봉 바위에 쓰여진 글



임해수 공적비

2) 보통 2리

보통(洑通)이

‘жат띠’ 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연기리로부터 보(洑)로 통해 본다 해서 ‘보통이’라 부른다 한다. 과평윤씨(坡平尹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진주강씨(晋州姜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두메에선 큰 마을이다.

жат띠

‘성산’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백자목(柏子木, 잣나무)이 있었다. 잣띠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보통 2리를 통털어 잣띠, 백치(栢峙)라고 부른다. 경주이씨, 광산김씨(光山金氏)들이 많이 산다. 마을에서 보는 당산(塘山)이 마치 반월(半月)처럼 생겼다 하여 ‘월리(月里)’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가까운 미호천(美湖川)은 1934년 일본인들이 제방을 막아서 미호천이라고 불렀다.

서낭당

1리와 2리 경계에 있었다.

жат띠고개

жат띠 뒤에 있는 고개로서 잣띠에서 보통이로 가는 고개이다.

월곡

보통 2리 1반으로, 동네가 반달같이 생겨서 붙여졌다.

돌소매

아래에 받이 있어 돌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때 제방을 쌓기 위해 돌을 채취했던 곳으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당산(塘山)

백제 때 쌓은 토석(土石) 혼축 산성이 남아 있다. 월산리 형제봉 장수와 보통리 당산 장수가 싸웠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 산은 거의 박씨네 것이라고 한다. 당산은 연기현의 주산으로 백제 때 두잉지현의 주산이고,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연기군청이 1911년 조치원으로 이전하기까지 연기의 중심 마을이었고 연기현의 주산이었다.

풍만제지

1980년대 초 설립된 사업체이다.

보광사

약 1960년에 세워진 절이다.

내운사

보통 2리 2반에 있는 절로, 1970년대 초에 세워진 절이다.

농협창고

양곡수매창고로 연기와 보통의 경계에 있으며, 1974년에 세워졌다.

지하 상수도

보통리 주민 식수로 관정 2개가 설치되었다.

1996년에 150m 깊이의 관정, 2002년에 250m 깊이의 관정을 설치했다.

육군 방공학교

원래는 1970년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세워졌다가, 병원이 1998년 대전으로 이전하고, 2001년 육군방공학교로 설치되었다. 이곳은 땅이 차갑고 진 곳이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청진’ 또는 ‘청질’ 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육군방공학교가 세워지자, 주민들은 “지명은 거역할 수가 없다” 면서 지명(地名)의 절묘함에 놀랐다고 한다.

쑥고개

내운사 앞 고개를 말한다.

치암

보통 2리 3반 마을로, 2리 끄트머리에 있다.

어사 박문수 후손이 살다 떠난 후, 집을 허물고 묘를 썼다.

연바대

풍만제지 앞 물둑병을 말한다. 물둑범은 강을 막아서 생긴 것으로 봉암 앞으로 강이 흘렀다. 1934년 제방을 쌓아서 강이 갈라지고 미호천이 생겼다.

4반 마을

강남빌라 7개동(56세대)과 대명빌라 2개동(16세대)이 있다. 10년 전에 들어섰다.

생업

논농사 외에 고추, 콩, 깨,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다.

주요 성씨

경주이씨, 광산김씨가 많이 거주한다.

제보자 : 김선길(53·이장), 고병세(72), 권혁세(66), 박노기(67),
윤종묵(66), 김호장(70·노인회장).

보 통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진덕 | 강진 | 박선화 | | 승철, 승민 | 향미 |
| 홍성철 | 남양 | 박사숙 | 장옥자 | 홍원기 | 홍이슬 |
| 임창현 | 평택 | 임현숙 | 유화춘 | 진영 | 선유 |
| 임현호 | 부안 | 이광순 | | 해수 | 다운 |
| 심종선 | 청송 | 김명화 | | 승진 | 승화, 승남 |
| 허범석 | 양천 | 이미숙 | | 강민, 강준 | 은정 |
| 이종기 | 전주 | 심미화 | 이정남, 김옥순 | | 은경 |
| 이재일 | 전주 | 오진경 | | | 슬비, 슬빈 |
| 진영식 | 여양 | 서민옥 | | 영철 | 영희, 문경 |
| 정근식 | 동래 | 양귀숙 | 권계월 | 지철 | |
| 황학연 | 장수 | 김이자 | 황의원, 윤덕순 | 인각, 인홍 | |
| 김규현 | 경주 | 유정임 | 이복순 | 천일 | 소진, 소영 |
| 김순희 | 경주 | | | 최석진 | 최용옥, 용순 |
| 최경호 | 경주 | | 최마한, 예분이 | 최운광 | 최운선 |
| 이진동 | 강진 | 김복순 | | | |
| 김용성 | 김해 | 정봉순 | 윤청자 | 김대장, 종혁 | |
| 진관식 | 영양 | 배명자 | | 진영중 | |
| 임재표 | 부안 | 최승화 | 임길수, 전금자 | 임대성 | 임서현 |
| 임경수 | 부안 | 김은숙 | 임현귀, 박정자 | 임재상 | 임은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송동훈 | 여산 | 신여숙 | 송계홍, 정숙자 | | |
| 임경수 | 부안 | 홍순희 | 임현주, 김영자 | | 다솜, 하늘 |
| 하만규 | 진주 | | 이홍차 | | |
| 이 연 | 덕수 | 이강범 | 박향서 | 이호영 | 이우경, 주연, 종녀, 선오 |
| 임재정 | 부안 | 이희정 | 임동수, 오영 | 임정묵 | 임예은 |
| 임이수 | 부안 | 정진례 | 임현만, 최정순 | 승찬 | 초롱 |
| 임종성 | 나주 | 김순애 | | 문상훈, 임문일, 임용우, 문정훈 | |
| 김종운 | 경주 | 박현임 | 김인식, 이묘섭 | 김강범 | |
| 박은돌 | 밀양 | 박순이 | 최입뿐 | | 윤희 |
| 한동수 | 청주 | 김임순 | 조화섭 | | |
| 강재승 | 진주 | | | 강인석 | 강정현 |
| 이형래 | 경주 | 한선희 | 김옥덕 | 창현 | |
| 이춘기 | 전주 | 박순복 | | | 혜진, 혜경 |
| 김영철 | 김해 | 박유미 | 김태철, 박일본 | 명현 | 연주 |
| 박정규 | 밀양 | 고봉희 | | 덕윤, 덕원 | 영아 |
| 박준기 | 밀양 | 윤희미 | 김정숙 | 박유민 | |
| 허강원 | 양천 | 황명순 | | 허재민 | 허민정 |
| 허춘렬 | 양천 | 김정임 | 이부익 | 허재진 | 허수정 |
| 김창호 | 경주 | 김순덕 | | | 김연실, 김연지 |
| 조석현 | 창녕 | 김정옥 | 배정녀 | 용국, 영하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하명훈 | 진양 | 황순연 | | 하상혁 | 하랑 |
| 박순주 | 밀양 | | 최옥순 | 김태기 | |
| 김천기 | 김해 | 이난영 | 박민자 | 민수 | 하늘 |
| 박동주 | 밀양 | 이숙희 | 박용규, 김순자 | 윤섭, 형섭 | |
| 김완기 | 강릉 | 박종숙 | 천수자 | 김남혁 | 김남숙 |
| 조철원 | 창녕 | 장인숙 | 조귀현, 안순단 | 수영 | 신행, 수현 |
| 손준호 | 밀양 | 하이정 | 신금선 | 대성, 재성 | |
| 김일동 | 경주 | 박순천 | 임우순 | 용현, 창현 | |
| 조경수 | 풍양 | 성기자 | | 대호 | 순녀이, 미아, 혜정 |
| 김흥기 | 김해 | 유삼예 | | | 미희, 미영 |
| 이정희 | 경주 | 염선아 | | 재훈 | 은지 |
| 유정자 | 순화 | | | 이광훈, 호훈, 성훈 | 이영숙 |
| 노영근 | 풍천 | 박종화 | | 경민, 종관 | |
| 전성순 | 천안 | | | 이재홍, 재덕, 재규, 재경 | 이재화 |
| 박태량 | 밀양 | 이두순 | 박춘석, 진오섭 | 의준 | 은경, 은미 |
| 안진철 | 죽산 | 이향숙 | | 중선 | 상희, 상미, 상민, 상현 |
| 박용규 | 밀양 | 김순자 | | 동일, 동주, 동찬 | 복실, 경실, 효실 |
| 양배준 | 중화 | 박은숙 | 김계순 | 남진, 영진 | 혜진, 수진 |
| 김순심 | 광산 | | | 김현, 명관 | |
| 김종천 | 김해 | 김영자 | | 영호 | 영숙, 영화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전형순 | 천안 | | | 홍구표, 남표 | 홍인자 |
| 신경수 | 평산 | 김금주 | 신대순, 정운희 | 창용, 성용 | 혜원, 지원 |
| 김갑순 | 안동 | | | 임재주, 재공, 재원 | 임재금 |
| 윤래영 | 파평 | 정미경 | 안복자 | | 윤나현 |
| 윤봉수 | 파평 | 안성재 | 안복자 | 동원, 동준 | 혜란 |
| 김경중 | 광산 | 김향묵 | | 선군 | 선분, 선민, 미자, 미화 |
| 이영석 | 전주 | 최영옥 | | 형일, 형태 | 혜란 |
| 김육손 | 김해 | 이영숙 | | 동춘 | 정혜 |
| 유재빈 | | 임숙현 | | 동선 | 숙빈, 지영, 지선, 지희 |
| 임봉수 | 부안 | 장경순 | | 준석, 현석 | 경신 |
| 마춘자 | 목천 | | | 명용, 의주, 봉주, 용주 | |
| 이춘희 | 경주 | 임영미 | 이상갑, 김철희 | | 주옥, 재순, 윤미, 소연 |
| 홍재술 | 남양 | | | 선홍, 선호 | 연표, 선경, 선미 |
| 김명기 | 경주 | 최정윤 | 김정석, 김연순 | 진만, 진평 | |
| 김기돌 | 경주 | 김재영 | | 문기 | 문숙, 형숙 |
| 김호장 | 광산 | 김월분 | | 선준, 선걸 | 선정, 선님 |
| 윤종목 | 파평 | | | 길영, 창녕 | 경미, 경옥 |
| 임인자 | 평택 | | | 전종국, 종길 | |
| 문말례 | 남령 | | | 이연희 | 영희, 영선, 미희, 미경, 은희 |
| 서정옥 | 달성 | | | 김덕수, 기영 | 덕순, 덕분, 명순, 명숙, 순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노성 | 밀양 | 최영수 | | 문규 | 순예, 연순, 연숙, 은숙 |
| 전찬성 | 담양 | 양양순 | | 우식 | |
| 김금식 | | | 김월봉 | | 보경 |
| 박노기 | 밀양 | 고희자 | | 은규, 종규, 진규 | 경숙 |
| 최부영 | 경주 | 황재희 | 임신호 | 경수 | 수난 |
| 정종곤 | 동래 | 박명자 | 박부전 | 호석 | 은주, 미니, 민영 |
| 김진배 | 김해 | 박순자 | | 종성, 종진 | |
| 김선길 | 광산 | 강인숙 | | 홍순 | 양숙 |
| 이충희 | 경주 | 장현자 | | 재석, 재환 | 정숙 |
| 김선화 | 광산 | | | 의순 | 유진 |
| 김선권 | 광산 | 김정숙 | 박서림 | 형태 | 다영 |
| 김선광 | 광산 | 김현숙 | | 인순, 규순 | |
| 이성희 | 경주 | 송금순 | 박임교 | 재욱, 재걸 | 미란, 소정 |
| 임순필 | 풍천 | 홍선희 | 김기례 | | 수정, 수혜 |
| 고문곤 | 제주 | 박성복 | 고병세 | 석현 | 은하 |
| 구분수 | 능성 | 김지연 | | | 승희 |
| 이재광 | 경주 | | 이양희, 김명순 | 석호 | 지호 |
| 최순철 | 경주 | 김순호 | 정월선 | | 운정 |
| 안세명 | 순흥 | 김임숙 | | 성복 | 현미, 연옥 |
| 정상순 | 동래 | | | 김형순, 성순, 남순 | 김진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진홍 | 강진 | 임복자 | | 도영 | 경희, 윤하 |
| 이윤희 | 경주 | 홍명옥 | | 재성 | 정아, 정은, 정옥 |
| 김진호 | 김해 | | 성영순 | | |
| 김호성 | 경주 | | | 기만 | 월선 |
| 서인자 | 달성 | | 남옥희 | 재용 | 태은 |
| 길종덕 | 해평 | 장순억 | | 재성 | 현순, 현미 |
| 이형희 | 경주 | 고영순 | | 재용 | 정현, 정민 |

사진으로 본 보통 2리



마을전경



마을회관



서낭당

3. 놀왕리(訥旺里)

‘놀왕리’ 군자(君子)라는 옛말에서 유래(由來)된 지역(地域)으로, ‘군자림(君子林)’이라고 부르던 지역이기도 하다. 백제(百濟)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통일 후(新羅統一後) 경덕왕(景德王)때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가, 고려 현종때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했었다.

놀왕산(訥旺山)아래 위치(位置)하므로 ‘느랑이’라 불렸던 곳이다. 본래(本來) 연기군 남면(南面)의 일부(一部)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놀왕리(訥旺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1) 놀왕 1리

왕자봉

막골, 무남골(아랫말), 서면 등 3개 지역이 합쳐진 봉우리이다.

사직골, 용추골

용못골

신촌과 문암 사이의 골짜기를 지칭한다.

문암(文岩)

‘새터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서 마주보는 왕자봉(王子峯)이 이 마을에서 바라보면 왕자(王子)가 스승 앞에서 글을 배우는 형상(形象)이라 하여 ‘문암(文岩)’이라 부르며, 또한 ‘무남골’이라고도 부른다. 장수황씨(黃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석골(鄭), 증석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 정도전의 후예가 살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동재

막골과 무남골의 경계이다.

신촌(新村)

새로 생긴 마을이다. 그 전에는 구옥말(玉屋)이라 불렀다.
14가구가 거주한다.

가로배미

신촌 앞에 가로질러 있는 논이다.

새터말

‘느랑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새터말’ 이라 부른다. 또한 ‘하늘(下訥)’ 이라고도 부른다.

느랑이고개

‘느랑이’ 동쪽에 있는 고개를 ‘느랑이’ 고개라 부른다. 조치원에서 대전(大田)과 공주(公州)로 통하는 고개인데,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한희유(韓希愈), 김흔(金)등이 원(元)나라 장수 설도간(薛 干), 나만알대왕(那蠻 大王)과 함께 침입하는 거란군사들을 맞아 정좌산(正左山) 아래에서 싸워 이기고, 이 고개에서 또 크게 이겨, 공주(公州) 고마나루까지 추격하여 섬멸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 ‘의랑티(儀浪峙)’ 라고도 부르는 고려 때의 격전지이다.

늘 왕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승준 | 강진 | | 심영례 | | |
| 홍종희 | | | | | |
| 장견자 | 결성 | | | | |
| 강창원 | 진주 | 윤옥자 | | | |
| 장장순 | 임동 | | | | |
| 안정기 | 순흥 | | | 석영, 달영 | |
| 곽찬석 | 센통 | 황의순 | 곽철웅 | 신욱, 명엽 | 미란, 미영 |
| 박봉대 | 밀양 | 유귀순 | | 정덕 | |
| 최재일 | | 이동선 | | 영진 | 윤정 |
| 송기영 | | 이명교 | | | |
| 김안기 | 경주 | 이진화 | | 호영, 춘수 | |
| 차원배 | | 임향순 | | | |
| 조항례 | 한양 | | | | |
| 이원선 | 강진 | | 신혜자 | | |
| 신혜자 | 고령 | | | 이원선 | |
| 김선기 | 광산 | | | | |
| 정경희 | 경주 | | | | |
| 이상례 | 전주 | | | | |
| 황덕순 | 창원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채현영 | 인천 | 김련희 | | 채근석 | 채시라 |
| 황종연 | 장수 | 장춘자 | | 황인중 | |
| 장순예 | 결성 | | | | |
| 채용환 | 인천 | 장찬금 | | 대직, 성직 | |
| 박태교 | 진원 | | | | |
| 장봉진 | 결성 | 이석순 | | | |
| 진원식 | 여양 | 홍미자 | | | |
| 이명한 | 전주 | 송영자 | | | |
| 이종덕 | 전주 | 홍성자 | 오정례 | 길우 | 정은, 정애 |
| 황도연 | 장수 | 오희임 | | | |
| 황명주 | 장수 | | | 의룡 | |
| 황의부 | 장수 | 박선옥 | | 양연 | 미희 |
| 황규연 | 장수 | 임현숙 | | | |
| 황의동 | 장수 | 곽춘란 | | 덕연 | 은아 |
| 황의원 | 장수 | 윤덕순 | | | |
| 유순관 | 문화 | | | 재덕 | |
| 황의식 | 장수 | 임순임 | | | |
| 임재정 | 부안 | | | | |
| 황정연 | 장수 | 윤영순 | | 인혁 | 인정, 인준, 인선, 인혜 |
| 박일주 | 진원 | 이영자 | | 형국 | 혜영, 순화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성예숙 | 창녕 | | | 태연, 희연 | |
| 이록규 | 강진 | 이진례 | | | |
| 황동연 | 장수 | | | | |
| 임인수 | 부안 | | | 진목 | |
| 이진덕 | 강진 | 임분순 | | 지영 | |
| 이진목 | 강진 | 명민자 | | 경민 | 혜미 |
| 이진상 | 강진 | | | | |
| 이원영 | 강진 | 양경미 | | | 종신, 소리 |
| 이용완 | 강진 | 오순례 | | 창영 | 선영, 선화, 영화 |
| 임재룡 | 부안 | 이옥순 | | | |
| 이진기 | 강진 | 최영선 | | | |
| 임재용 | 부안 | 이정애 | | | |
| 임동목 | 부안 | | 이원순 | 규성 | |
| 김봉순 | 의성 | | 강창림(시모) | 임규호, 규진 | 임규형, 규남 |
| 이헌규 | 강진 | 양순례 | 유봉득 | 승희, 용호, 용준 | |
| 이정순 | 강진 | | | 의석 | |
| 임헌규 | 부안 | 이종숙 | | | |
| 이상규 | 강진 | 김창례 | | | |
| 이진규 | 강진 | 김기순 | | | |
| 안병호 | 죽산 | 이이순 | | 종훈 | 영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훈화 | 강진 | 김명자 | | 노규 | 희숙, 현숙, 연속 |
| 이진섭 | 강진 | 박간례 | | 해영 | |
| 이항영 | 강진 | | | | |
| 이진철 | 강진 | 유화준 | | 수영, 시영 | |
| 이용수 | 강진 | 현연옥 | 이승규, 이영희 | 덕영, 이영 | |
| 이만규 | 강진 | 이순례 | | | |
| 이인규 | 강진 | 강정순 | | 이진천 | |
| 이연규 | 강진 | 양유순 | | 용조 | 성미 |
| 이돈규 | 강진 | 진영순 | 이안호 | | |
| 이진욱 | 강진 | | | | |
| 이옥규 | 강진 | 유예준 | | | |
| 이진아 | 강진 | 장현경 | | 근영 | 근례 |
| 이진욱 | 강진 | | | | |
| 유진희 | 기계 | | | | |
| 유수연 | 기계 | | | | |
| 이용규 | 강진 | 차복례 | | 진우, 진권 | 주미, 주희 |
| 이용하 | 전주 | 이종월 | | 은희 | |
| 이훈동 | 강진 | 유진순 | | | |
| 이임규 | 강진 | | | | |
| 임윤희 | 부안 | | | 이세영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진일 | 강진 | 이혜숙 | 박동규 | 수영 | 혜정 |
| 이찬규 | 강진 | | | | |
| 이모연 | 강진 | | | | |
| 이진문 | 강진 | 안영희 | | 대영 | 은경 |
| 이진목 | 강진 | 이원옥 | 임인수 | 수영 | 주희 |
| 최재일 | 경주 | 이동선 | | 영진 | 윤정 |

사진으로 본 놀왕 1리



놀왕1리



문암골



마을회관



수왕초등학교

2) 놀왕 2리

외왕

원래 ‘느랑이’ 였다가 ‘온느랑이’ 와 ‘반느랑이’ 로 마을이 나누어지면서, 일제시대 때 ‘외왕’ 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왕바위

‘청룡’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하여 그 바위를 ‘왕바위’ 라 부르며, 여기 마을도 그 바위 따라 ‘왕바위’ 라 부른다.

‘왕암(旺岩)’ 이라고도 부른다

왕산

원땃골과 외왕리의 경계이다. 깃대봉이 있었다.

뫼재

뫼재를 뚫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하여, 새 길을 낼 때도 비껴서 냈다고 한다.

큰골

외왕 옆의 골을 큰골이라 한다. 뜨묵골 이라고도 부른다

소 죽은 산

최근에 붙여진 이름이다. 2구 회관 옆의 봉우리이다.

함박산, 들봉산

원땃골

‘놀왕리’ 에 있는 마을이다. 영조(英祖) 4년(1728년)때 신천영(申天永)이 난(亂)을 일으켰을 때, 연기의 원님이 이곳에서 피난하였다 하여 ‘원곡(元谷)’ 이라고도 부르며, 한산 이씨(李氏)들이 많이 산다.

작은골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다. 거북이날에 묘를 쓰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 이 마을의 안화임 씨는 딸 셋을 낳고, 시아버지 묘를 작은골에 쓰고 난 뒤 아들 형제를 두었다.

비렁골

거지들이 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뜸우골, 도방골

송마

예전에 ‘마굴’이었던 곳으로 일제시대 쇼마(송마)라고 불렀는데, 소나무가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마동(馬洞)

눌왕리(訥旺里)에 있는 마을이다. 한말(韓末)에 말을 기르던 동리(洞里)라 하여 ‘마동(馬洞)’이라 부른다. ‘마굴’이라고도 부른다. 죽산 안씨(安氏)들이 많이 산다.

청룡(靑龍)

느랑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수산리의 청룡 쪽이 된다.
지세가 용트림하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땅값이 제일 비쌌다. 송마와 합쳐 청룡이라고도 한다.
능선을 가운데 두고, 송마 1, 2반, 청룡 1, 2반으로 나눈다.

으능징이

청룡 앞 논을 말한다.

송정(松亭)

청룡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수산(元水山)

국사봉 줄기로 능선이 경사가 저 나무를 심어 마을의 우환을 막았다. (큰 줄기가 끊어진 능선), 손의 엄지가 잘라진 형국으로 이 마을에는 장자(長子)는 잘 되지 않고 차자(次子)가 잘 살게 된다고 전한다.

생업

논농사, 축산업(젓소), 과수(복숭아, 포도, 배), 묘목, 담배, 겨울철 부업으로 짚신을 만들어 민속촌이나 영화제작소에 팔아 소득이 되고 있다.

종교

주로 불교이다.

주요 성씨

한산 이씨의 세거지로, 목은 이색의 후예인 이기찬(69)씨 10대조 이여출(당시 진사 벼슬) 선조가 처음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강산, 함박산, 들봉, 큰 골, 소 죽은 산줄기에 한산 이씨 산소 12기가 모셔져 있다.

7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산 이씨 외에 죽산 안씨 등이 살고 있다.

** 역대 군수 이선구(의왕사람) 역임 **

제보자 : 이명구(74), 이성구(82), 이기찬(69), 이명구(83),
이재구(62·이장), 이재찬(73), 이인복(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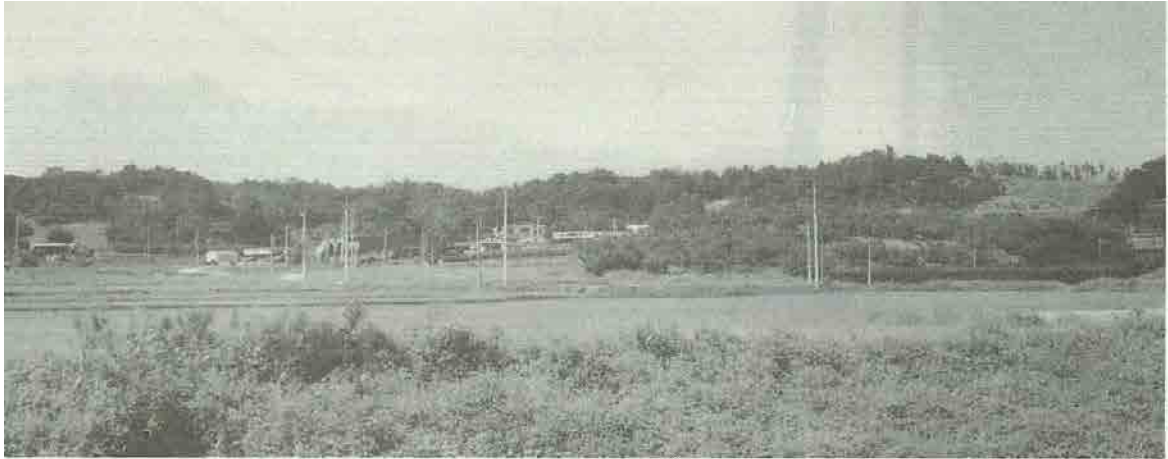
늘 왕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종원 | 한산 | 윤길자 | | 경수 | 해정 |
| 이공찬 | 한산 | 성행순 | | 승원, 지원, 상원, 재원 | 길원 |
| 이혁구 | 한산 | 황이만 | | 종찬, 두찬, 준찬, 승복, 대복 | |
| 이훈철 | 강진 | 성영자 | | 홍규 | 진숙, 잔숙, 위숙, 은자, 은자, 남숙, 현숙 |
| 이인구 | 한산 | 채재연 | | 선복, 훈복 | 현숙 |
| 이중구 | 한산 | 박태순 | | 희찬, 응복, 서찬, 춘복 | 인순, 선순, 선희 |
| 이기찬 | 한산 | 임동선 | | 달원, 동원, 중원 | 정숙 |
| 이명구 | 한산 | 임정난 | | 선찬, 현찬, 윤찬 | 찬순, 경자, 임숙, 선숙 |
| 이배원 | 한산 | 유옥자 | 일찬, 황을순 | 동수, 경수 | 미경 |
| 이시구 | 한산 | 김기영 | | 영복, 주복 | 진영, 은희 |
| 이교찬 | 한산 | 강민자 | | 주원, 회원 | 명희 |
| 이덕찬 | 한산 | 백윤향 | | 정원, 형원 | 순애, 재순, 재숙 |
| 이재원 | 한산 | 심순예 | 이명윤, 오선예 | 창수, 광수, 화수, 대수, 향수, 택수 | 애숙 |
| 이백구 | 한산 | 이은주 | 이삼용, 이훈예 | 호찬 | 정애, 마숙, 생자, 예숙, 연숙, 명숙, 유순 |
| 임옥신 | 부안 | | | 홍구 | 윤순, 윤숙 |
| 이평찬 | 한산 | 김부희 | 이봉구, 황팔래 | 경원, 홍원, 방원 | |
| 한성현 | 청주 | | 한은식, 정정자 | | |
| 이명구 | 한산 | 안영자 | 역규, 안남임 | 용복, 정복, 치복, 영복, 원복 | 인숙 |
| 임윤수 | 부안 | 노기선 | 임현승, 이학팔 | 임재희 | 임유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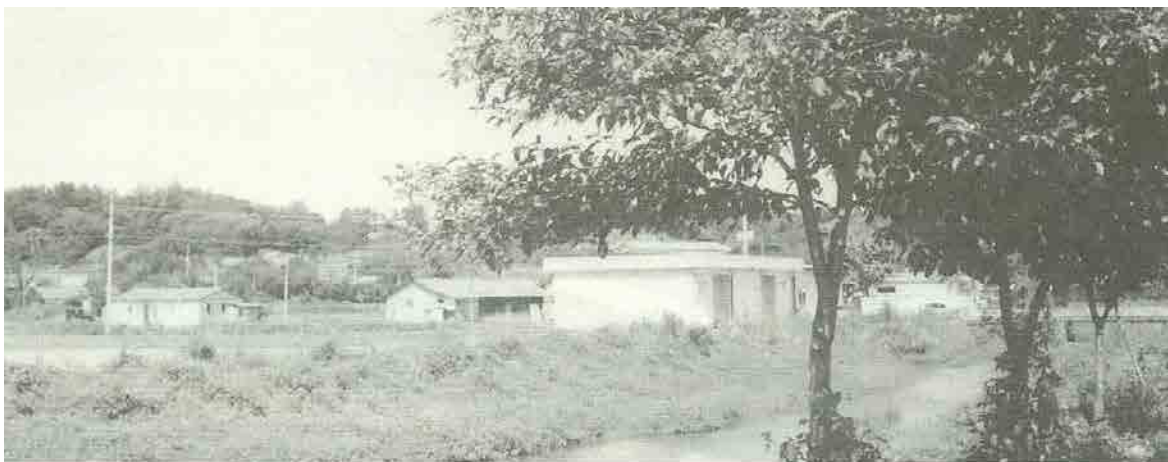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태구 | 한산 | 황주영 | 이영규, 성지대 | 광복, 선복 | 명희, 명숙 |
| 곽영철 | | 김영례 | 김동이 | 한신, 창신 | 채경 |
| 이재찬 | 한산 | 이근례 | 이민구, 이귀예 | 충원, 지원 | 명자, 영자, 정자 |
| 이연구 | 한산 | 강기진 | 이복규 | 동복, 유찬 | 영옥, 순옥, 연숙, 영희 |
| 최수복 | 전주 | 주영래 | | 영덕, 창덕 | 명옥, 경옥, 정옥, 은옥, 금옥 |
| 이승구 | 한산 | 임완순 | | 규찬, 묘찬, 오찬 | 찬순, 찬숙, 찬옥 |
| 이진찬 | 한산 | 유성자 | | 경원 | 경희, 영희 |
| 이경구 | 한산 | 노수분 | | 영찬, 연찬 | 명숙, 은옥, 은희 |
| 이원구 | 한산 | 안화임 | | 이상복, 충성 | 동애, 창옥, 창애 |
| 홍상의 | 남양 | 유성자 | | 홍진성, 진호 | 진숙, 진희 |
| 이성구 | 한산 | 임도임 | 이정남, 윤순희 | 영복, 우복, 인복 | 복순 |
| 이재구 | 한산 | 오재님 | 이소산 | 이천복, 태복 | 미경 |
| 이창복 | 한산 | 김순화 | 이서수, 이은창 | 성원 | 수민 |
| 이인복 | 한산 | 최경애 | 이봉구, 활팔례 | 소원 | 진선, 화정, 민지 |
| 안대용 | 죽산 | 홍현순 | 안치중, 장순희 | 광희, 광진, 광민 | |
| 안원중 | 죽산 | 유찬분 | 안성길, 강현순 | 현진 | 현정, 현민 |
| 안원갑 | 죽산 | 고정순 | 안재하, 임정숙 | 만주, 태주 | 춘성 |
| 안성광 | 죽산 | 황금순 | 안학준 | 선용, 훈용, 정용 | 옥순, 향춘 |
| 안승부 | 죽산 | 박순자 | 안광보, 임인순 | 이경 | 성경, 진경 |
| 안성우 | 죽산 | | | 일용 | 정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안회용 | 죽산 | 구재화 | 안성건, 노태숙 | 홍명 | 효선 |
| 안성문 | 죽산 | 임진호 | 안용준, 박태철 | 상용, 완용, 현용 | 은경 |
| 안정훈 | 죽산 | 장명자 | 안훈명, 박순희 | 성군, 성필 | 순희 |
| 안경용 | 죽산 | 최미숙 | 안영창, 임정숙 | 홍천 | 정화 |
| 안만중 | 죽산 | 한정희 | 안성용, 강모립 | 홍윤 | 미현 |
| 안방훈 | 죽산 | 유영자 | 안팔용, 홍재의 | 성입 | 경숙, 경순, 미옥 |
| 안성각 | 죽산 | | 안정훈, 이순할 | | |
| 신의석 | 아주 | 전심전 | | 신순식, 명식, 경식 | |
| 금병숙 | 동화 | | | 순용, 진용, 병진 | 명숙 |
| 이창순 | 인천 | | | 성집, 재관, 성방 | 경자, 경옥 |
| 안길훈 | 죽산 | 강병하 | | 성식, 성신 | 성민, 성분, 희순 |
| 오에순 | 보성 | | | 새용, 성용 | 광용, 명용, 두용, 용자, 용옥, 용순 |
| 안낙훈 | 죽산 | 한금자 | 한명전, 이희순 | 성상 | 해숙, 해경, 손녀:서연 |
| 유재강 | 강릉 | 김금순 | 김창주, 한씨 | 유인호, 현호 | 유경자 |
| 안성모 | 죽산 | 박홍례 | | 안선용, 정용 | 영순, 임순, 재용, 예순 |
| 안권수 | 죽산 | 서언년 | | 홍기, 홍철, 홍수 | 영미, 영순 |
| 안병목 | 죽산 | 박화동 | | 평훈, 이훈 | 예훈, 향숙 |
| 임정임 | 부안 | | | | 성난, 성연 |
| 황선예 | 창원 | | | 동용, 치용 | 미경, 미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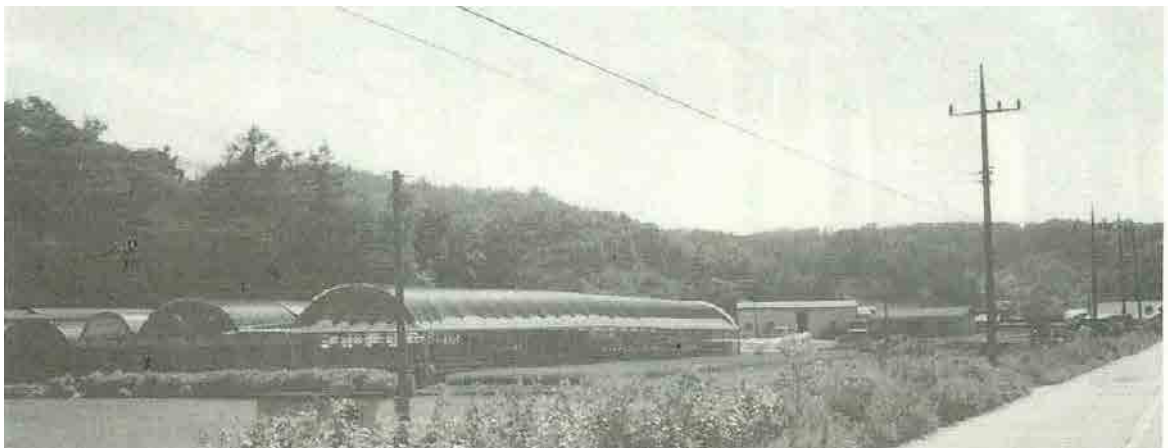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놀왕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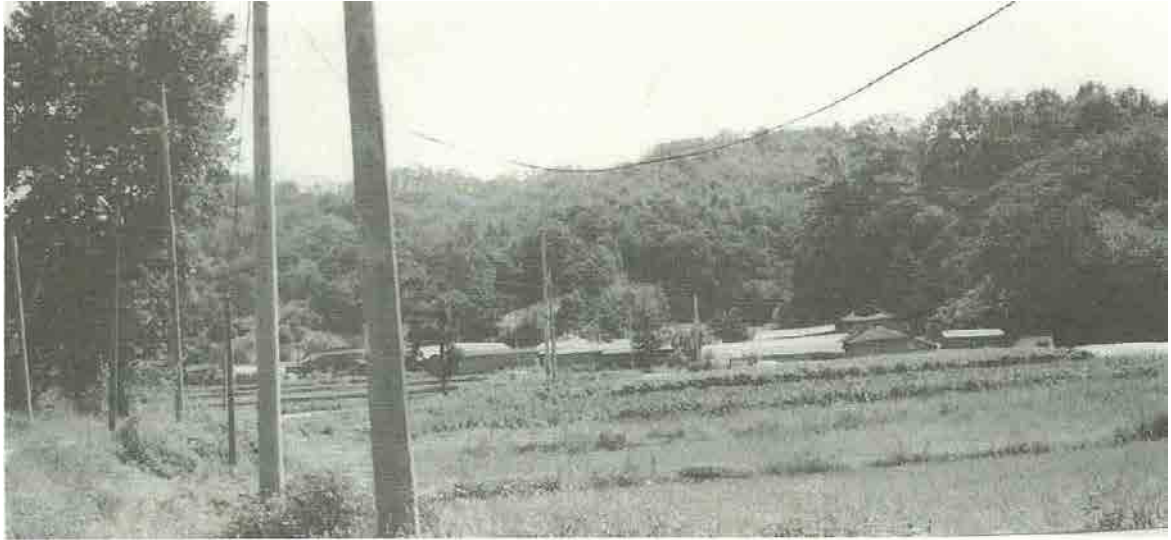
마을전경



마을전경



마을전경



마을전경



마을전경

4. 수산리(水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 때 청주(淸州)에 붙여지기도 하였지만 원래부터 연기현(燕岐縣)에 속했던 곳이다. 본래는 조선말엽부터 연기군 남면(南面)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금병산(金瓶山)이 수려(秀麗)하므로 수산(秀山)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수산(水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국사리·대천리를 병합하여 수산리(水山里)라 부르게 되었다.

방아다리

마을 지형이 디딜방아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산리 입구 마을을 지칭한다.

둔덕기

‘수산’ 동남쪽 둔덕에 있는 마을이다. 국사봉(國土峰) 아래다. 순흥안씨(順興安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둔덕(屯德)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하여 둔덕기라 부르며 ‘둔덕’ ‘국사봉’ ‘국사리(國史里)’ 라고도 한다.

조뱅이(조방이)

개울 옆에 닻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에는 집에서 종이를 만들어 썼다.

서당골

수산리 앞산, 석현리 뒷산이다. 동남쪽에 위치하며 서당이 있었던 곳이라 서당골이라 부른다.

삼막골

국사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턱골

버스 종점 왼쪽 마을을 지칭한다.

장골

맹금산 부근 마을로, 1가구가 거주한다

둔덕골

새길 가는 쪽으로 3가구가 거주한다.

맹금산

장골과 둔덕골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망아지 만한 금이 나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사봉에는 산삼이 나왔다고도 전해지며, 장곡 저수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잉어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산삼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편 수산리 서낭당이 저수지에는 잉어가 살고 있다.

서낭당이(성황당)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로 가는 길로, 골목길이 많다.

성황당이 있어 성황당이라 부르며 지금도 있다.

돌방차

돌로 제방을 쌓아 붙여진 이름이다.

깃고사

정월 열나흘 저녁(6시)에 마을의 새뜨락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마을 동계장이 집집마다 소원을 빌며 가옥 수대로 소지를 올렸다. 깃밭은 정월 초하룻날 세웠다가 제가 끝난 후, 걷어 보관해 둔다.

풍물을 치고, 제물은 명태, 떡, 과일 등 타지와 비슷하다.

수산(水山)

‘둔더기’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있는 금병산(金甁山)이 수려하여 수산(秀山)이라 부른다 하는데 변하여 수산(水山)이라 부른다.

떡갈나무

수산리 큰 마을 서편 산 속에 있는 노목(老木)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한산(韓山) 이판서(李判書) 분묘(墳墓)앞에 있는 나무의 높이가 10여 척이나 되고, 나무의 주위가 약3아름이나 되는 고목으로, 수령도, 여기에 처음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알 길이 없으나, 고목이 늙어서 시들시들 하나 한편, 등갈 에서는 고엽(枯葉)이 항상 파릇파릇하다. 백세(百歲)가 된 노인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도 똑같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수령이 500년 넘은 것으로 짐작을 한다.

한데 이상스러운 것은 풍년이 드는 해는 잎이 무성하고, 흉년일 때는 잎이 시들시들하다 하며, 또한 나뭇잎을 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돌아온다 하여, 마을에서는 신단처럼 모시는 고목(古木)이다.

태천(苔川)

‘수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태천(臺川)이라고도 한다. 진주정씨와 청주곽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굽고 깨끗하여, 단단한 토지 위에 튼튼한 인물(人物)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 태천이라 부른다.

조선 단종때 우의정을 지낸 정분(鄭玢)이 참화를 당하자(정분은 조선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단종을 보필함) 계유정란에 연류되어 경기도 수원에 은거하였다가 전라도 광양으로 귀양을 가서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다.

진주정씨 세거지인 이 마을은 400여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본다.

한때는 진주정씨를 태천정씨로 부를 정도로 오래 살아왔다.

정 분은 동혈사에도 은거하였고, 계룡산 동학사를 건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수산리 263번지에 정 분, 정지산(鄭之産, 정 분의 양자(養子))을 모신 사당이 있었으나 후에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로 이전하였다.

청주곽씨 또한 이곳에 세거하면서 진주정씨와 더불어 오래도록 살아오고 있다.

아랫말

7호가 살고 있다.

마을이 아래에 있다하여 아랫말이라 부른다.

중뜸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락으로, 국사봉 북쪽에 있으며 중간마을이란 뜻이다. 40호가 거주하고 있다.

장골(긴마을)

힘이 센 장사가 살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사봉 아래 마을로, 이 마을에 약수터가 있는데 한여름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외지인들이 이물을 마시고 효험을 많이 보았다.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 주민이 모여 제를 지냈다고 한다.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작골

저수지 위쪽으로 고려 말의 한희유 장군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지 못한다고 한다. 조선 말기 유럽에 의해 훼손되었다고도 하며,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한씨 비석이 도랑 건너는 다리로 쓰여졌다고도 한다.

수산리의 지명중 일제시대 잘못기록된 것

국사봉(國師峯→國土峯), 수산(秀山→水山), 태천(苔川→台川)

돈방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여기서 주막을 운영한 사람은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돈방차라고 전한다.

청룡골, 큰말림,

무너미

국사봉에서 청룡굴로 물이 넘어갔다 하여 무너미라고 부른다.

큰말랭이봉

국사봉 남서쪽에 위치한 봉우리로 아래 서낭당이 저수지가 있는데, 해방 전에 만들었다. 주변의 봉우리중 가장 크다고 하여 큰 말랭이 봉이라 한다.

비아니

국사봉과 승적골 사이에 있는 산을 지칭한다.

서당골

삼막골, 턱골과 함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

검바위뜰

연기군 서면 은암 가는 길로 북쪽에 위치한다.
뜰 가운데 큰바위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원수산 서쪽에 위치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마을 뒤뜰에 있다하여 뒷골이라 불렀다.

통고뿔

국사봉 동쪽에 위치하며, 옆에 강진이씨 산소가 있으며, 전에는 몇 가구의 농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다.

부덕골

통고뿔 아랫마을로, 민가가 3가구 살고 있다.

석현(石玄)마을

서낭대이 가는 길에 위치하며, 민가가 5가구가 있다.

승적골(성적골)

서낭대이 가는 길에 위치하며, 소먹이는 꼴을 베러 다녔던 곳이다.

원수산 부락(큰말)

15호(이씨(李氏) 12, 정씨(鄭氏)1, 황씨(黃氏) 2)가 살고 있다.

덕미골

마을 앞에 덕미배미(논)가 있으며, 2가구가 살고 있다.

마래뜰

회관 앞의 논을 지칭한다.

살구징이

돌마루 밑에 있는 논을 지칭한다.

문앞배미(논), 서낭당이(고개)

이판서봉

앞에 이판서의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업

주로 논농사를 짓고, 고추, 담배,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

종교

주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마을에 침례교회도 있다.

거리노제

오래 전부터 정월 14일 저녁 7시, 거리제를 지낸다.

약 칠백년 전, 마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어느 도인이 노제를 지내면 마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노제를 지내오고 있다. 제사를 지낸 후에 한집도 빠지 않고 가옥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무너미고개

동네 중간에 있는 고개로, 훗날 마을 한쪽에 저수지가 생겼는데 이 고개로 물을 넘겼다. 주민들은 ‘물이 넘는 고개’란 뜻의 이 고개가 나중에 저수지가 생긴걸 보고 지명에 대해 신기하게 여겼다.

이 무너미 고개는 전설이 있다.

마을에 백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이 찾아와 부인의 손이 마를 날이 없이 짓무를 지경이었다. 어느 날, 중이 지나가는데 손 병을 낳게 해 달라고 하자, 무너미 고개를 끊으면 낳는다고 하였다. 부인은 병 고칠 생각에 무너미 고개를 끊어 버렸다. 그러자, 집에 손님의 발길이 딱 끊어지고 가세는 기울어 백씨 부부는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이 집을 헐어 버렸는데 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거나 산소를 써도 오래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백씨 산소가 많이 있다.

도토막이

터져서 도로 막는 바람에 얻어진 이름으로 큰길 우측에 있다.

치국채

입구에 선돌이 있고 정월 보름 장승제를 지냈다.

작은 치국채(능선), 태천 앞뜰, 장승배기, 구렛들, 검바위

피천말

사당에 고기를 대주던 사람들(백정)이 살았던 곳이다.

주요인물

이민원 - 2002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 전 남면장 이달상의 동생이다.

이순승 - 동학란 때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이다.

이도영 - 국가 유공자 (6.25때 부상)

안기익 - 6.25 북한군에 잡혀있다가 포로 교환때 남하였다.

주요성씨

원수산 마을 — 수산리에는 강진이씨가 제일 많이 살고있고, 다음으로 창원황씨, 진주정씨, 평택임씨 순이다.

강진 이씨는 이도영 씨 7대조부터 이 마을에 정착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약 200년 전부터 수산리에 세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둔덕이 — 40호로 순흥안씨가 20호, 안동김씨, 인동장씨, 강진이씨, 전주이씨, 부안임씨 등이 거주하며, 순흥안씨 세거지인 이곳은 처음 안희재의 10대조가 살기 시작했다고 하며 약 300년 전으로 보여진다.

태천 — 13호가 거주하며, 진주정씨가 6호, 청주곽씨, 창녕성씨, 순흥안씨, 전주이씨, 남양홍씨, 기계유씨, 문화유씨 등이 거주한다. 진주정씨 제실이 있었으나, 100여년 전 화재로 소실되었다.

제보자 : 이도영(노인회장·76), 장창원(71), 임노분(74), 정충용(72)
박화자(65), 안기주(이장·46), 안희재(69), 정성희(진주정씨)
정광희(이장·51 진주정씨)

수 산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조경연 | 풍향 | 안영숙 | 이부덕 | 용빈 | 용선 |
| 김성동 | 안동 | 이유순 | | 재현 | |
| 이진철 | 강진 | 박효순 | | 태영 | 미향 |
| 이천우 | 경주 | 이명숙 | | 상만, 상대, 상식 | |
| 이원찬 | 한산 | 배병희 | | 지원, 석원, 향원, 시원, 명원 | 경자 |
| 임광철 | 부안 | 이 철 | 이일례 | 헌상, 헌익 | 광순, 남순 |
| 이 준규 | 강진 | | | 진섭, 진혁 | |
| 임대수 | 부안 | 이상희 | | 수철 | 혜숙, 경애, 정애 |
| 이귀근 | 강진 | | | 임동환, 동복, 동식 | 임동분, 동자 |
| 임동천 | 평택 | 노경숙 | | 한별, 한빛 | 한이 |
| 황의성 | 창원 | 임영자 | | 규중, 주빈, 규칠 | |
| 박춘환 | 밀양 | 임정숙 | | 상열, 상호 | |
| 이도영 | 강진 | 진정식 | | 훈빈, 훈찬, 훈석, 훈정 | 영숙 |
| 이진희 | 강진 | 유순덕 | 이인동 | 완영, 진영 | 묘순, 미순 |
| 이극휴 | 강진 | | | 훈권 자부:윤희숙 | 경란, 훈님, 영란 손자:치균 |
| 이연수 | 강진 | 박화자 | | 길상, 권상, 태상, 효상 | |
| 이진황 | 강진 | | 천상자 | 제:진광 | 제:순이 |
| 이훈주 | 강진 | 박복남 | | 헌균, 봉균, 해균 | 미숙 |
| 황무성 | 창원 | 이훈임 | | 규섭, 규은 | 예옥, 경옥, 순옥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국휴 | 강진 | 홍재순 | | 훈경, 훈량, 훈일 | 옥순, 옥자 |
| 이훈부 | 강진 | 김영숙 | 임노분 | | 누이:훈분, 훈두, 금분, 금숙, 남숙 |
| 이범호 | 전주 | 조춘자 | 이중화, 이은순 | 자춘 | 자영 |
| 정영희 | 진주 | 조을구 | 유춘예 | 종철, 성환 | 종순, 종님 |
| 이훈상 | 강진 | 이혜영 | 정복임 | 훈규 | 문숙, 은정 |
| 안기익 | 순흥 | 김금남 | | 종수, 종상 | 종순, 김순, 춘자, 옥자, 오순 |
| 정충용 | 진주 | 한동근 | | 원희, 방희, 시희, 규희 | |
| 유근복 | 진주 | | 정양 | 이덕열 | 이주열, 이기연 |
| 정홍규 | 진주 | 곽송남 | | 종신 | 종수, 미애, 미옥, 미화 |
| 정헌창 | 진주 | 김복수 | 김선녀 | 병희, 명희, 범희 | 숙희, 재희, 윤희 |
| 홍종수 | 남양 | 정윤숙 | | 순규 | 경신, 경민0 |
| 유준호 | 기계 | 오영례 | | 배근, 재근, 동근, 인근 | 은수 |
| 정광희 | 진주 | 이연호 | | 진형 | 은중, 은정, 은영 |
| 김순자 | 김해 | | | 회용, 회산, 회풍, 용희 | |
| 곽노환 | 청주 | 이정숙 | | 영신 | 선영, 원영 |
| 곽원신 | 청주 | 안기란 | 성동순 | 호준 | |
| 정헌민 | 진주 | 김정영 | | 동희, 대희, 일희 | 복희, 금숙 |
| 성낙렬 | 창녕 | 박부순 | 김동님 | 민호, 원호, 한호 | |
| 진재현 | 려양 | 이옥화 | | 승표 | 해리 |
| 이송원 | 한산 | 신길순 | | 택수 | 은정, 은경, 윤경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운찬 | 한산 | 김옥순 | | 창원, 길원 | |
| 진영균 | 려양 | 조미자 | 박금성 | 원기 | 수정, 수연 |
| 진영복 | 려양 | 송영숙 | | 권기, 승기 | |
| 이금구 | 한산 | 이용례 | | 학찬, 중찬 | 명순, 명자, 명호 |
| 이언찬 | 한산 | 임은례 | | 영성 | 경자, 영자, 숙자 |
| 이운찬 | 한산 | 김이경 | 유삼순 | | 미정 |
| 안기주 | 순흥 | 김종분 | 성인순 | 종진, 종렬, 종복 | |
| 김충희 | 안동 | 김현희 | 조모:이육균,모:진을수 | 인태, 태준, 태현 | |
| 안희창 | 순흥 | 황영자 | | 대성 | 미선, 미정, 명성, 황은 |
| 김천수 | 김해 | 오옥남 | | | 은영, 성경, 지영 |
| 안석기 | 순흥 | 이문주 | 안희안, 강병님 | 종현, 종인, 종철 | |
| 안기춘 | 순흥 | 이건애 | 박희복 | 제: 기영 | 민정 |
| 안종영 | 순흥 | | 이경숙 | | 누나: 현주, 제: 미정 |
| 안종찬 | 순흥 | 김인희 | 이은숙 | 재성, 민재 | |
| 안희선 | 순흥 | 황희성 | | 기창, 기준, 기동, 기섭 | 향순 |
| 안종국 | 순흥 | 이영희 | 정현순 | 재학 | 소하, 민하, 윤하 |
| 안복순 | 순흥 | | | 호영, 승영, 창영, 찬영 | 성례 |
| 이진길 | 강진 | 성순희 | | 권영 | 옥분, 정미 |
| 안재천 | 죽산 | | 김경자 | 제: 성유, 승정 | 제: 명자 |
| 임완수 | 부안 | 차선옥 | 이건순 | 대원 | 주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영수 | 김해 | | 길계화 | | |
| 이명구 | 경주 | 손영순 | | 종석, 종훈 | 종숙 |
| 이건국 | 전주 | 박형숙 | 음옥기 | 요하 | 경민, 인선, 선민 |
| 장윤길 | 안동 | 진월식 | | 문규, 필규, 낙규, 남규 | 인숙, 은숙 |
| 안창옥 | 순흥 | 김은순 | | 동진, 동학 | 경숙 |
| 안희만 | 순흥 | 박화자 | | 준기, 준석, 준태 | 기숙, 기화, 효순, 기순, 기란 |
| 안기봉 | 순흥 | 황이순 | | 종원, 종일 | 미숙, 민숙 |
| 안희재 | 순흥 | 박병순 | | 기세, 기훈, 기양 | 영희, 영애 |
| 안종관 | 순흥 | 진영숙 | 임난희 | 재현 | 지연, 소영 |
| 김시대 | 경주 | 김영숙 | 전상례 | 찬우, 대우 | 이진 |
| 안희석 | 순흥 | 홍창숙 | 강기숙 | 덕기 | 혜은, 혜선 |
| 김태환 | 안동 | 조난근 | | 영식, 병식, 관식 | 정진, 정숙 |
| 임홍수 | 부안 | | | 재형, 재석 | 재현, 재순 |
| 안양규 | 순흥 | 이효석 | 남태순 | 찬혁, 준영, 세열 | |
| 안기용 | 순흥 | 김복례 | | 종석, 종선, 종민, 종호 | 종님, 종순, 권숙 |
| 장재삼 | 인동 | 임흔연 | | 본규, 대규 | 명숙, 정님, 정순 |
| 안기현 | 순흥 | 성월기 | 윤종희 | 종문, 종훈 | |
| 안세창 | 순흥 | 김금순 | | 재원, 재인 | 금자, 은례 |
| 김영자 | 안동 | | | 홍식, 진식, 경식, 훈식 | 정자, 정님, 정례 |
| 장창원 | 안동 | 성경순 | | 찬규, 태규 | 재순, 재숙, 현숙 |

사진으로 본 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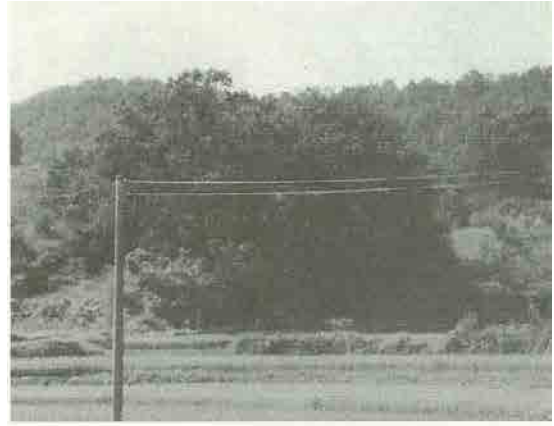
수산리 마을회관



마을입구 주차장



농산물 간이 직판장



떡갈나무



원수산 마을전경



태천



수산저수지



송덕비



노제장면

5. 고정리(高亭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 현종 때부터 공주군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 이었다가 말엽에는 연기군 남면의 지역(地域)으로서 ‘높은 정이’ ‘고정(高亭)’ 이라 불렀는데, 서기(西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고정리(高亭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었다.

1) 고정 1리

범지기(호준, 虎)

51호가 거주하며, 범지기, 감나무재, 큰두령, 대비실, 부처골을 통틀어 호준(虎峻)이라고 부른다.

‘높은 정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 모양이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국(形局)이라 한다. 예전에 범이 산 속에 있는 마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므로, 포수(砲手)들이 몰려와 여기에서 여장을 하고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그래서 범을 지키는 곳, ‘범지기’ 또는 호준이라 부른다. 호랑이때 들이 몰려와서 사람을 해치게 된 것은 산신(山神)을 잘못 모셨다 하여, 먼저 산신(山神)을 모시고 호랑이 사냥을 하자, 호랑이는 모두 도망쳤다 한다.

눌왕산과 범지기산이 겹해 있는 이곳에서는, 150년 전부터 산제(山祭)를 지내 오고 있다.

대비실, 조뱅이, 작은 두령, 솔밭, 행자나무골

인물 - 이훈봉 체신부장관(1960년대). 범지기 마을 출신이다.

향교(鄕校)말

‘향교말’ ‘아랫말’ 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어서 많은 인재(人才)를 배출함으로 ‘향교말’ 이라 부른다.

은고개(銀高介)

조선말엽에 곽정승(郭政丞)이 이 곳에 선친(先親)의 묘(墓)를 마련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때 따라오던 스님이 말하기를, 지금 곽정승이 끼고 있는 은가락지를 부처님께 시주하면 자손대대(子孫代代)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릴 것이라 하여, 그 은가락지를 스님께 시주를 하고 선친(先親)의 묘(墓)를 여기에 썼더니, 그 후 자손(子孫)이 후하게 영화를 누렸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고개를 ‘은(銀)고개’ ‘시주고개’라 부른다.

또 다른 설은, 은(銀)이 나왔기 때문에 은고개라 한다.

일제시대 때 산 중턱에 도로가 났다.

감목정(柑木亭)

‘중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부터 다른 곳에 비해서 유난히도 감나무가 많았고, 여기 감나무에서 따는 감은 크고 맛이 좋아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감나무골’ ‘감목정(柑木亭)’이라 부른다.

중리(中里)

고정리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51호가 거주한다.

장승배기, 가락골, 궁골, 뜰이기, 황새울을 통틀어 중리라고 부른다.

큰 두렁

논두렁이 크고 넓다.

부처골

절(부처)이 있었다.

장승배기

나무 장승이 있었던 곳이다. 3기의 장승이 있었으나, 해방 후 소실되었다.

가락골

13호 거주

뜸이기

두떡골이라고도 한다.

종자원(種子院)

땅이 비옥하여 농산물 씨(種子)로 썼던 곳이다.

이선구(4·19전(前) 연기군수)의 비(碑)에도 종자원 이라고 쓰여 있다.

종전(種田)이라고도 부른다.

무동(舞童)골

아이가 춤추는 형국이다, 곽(郭)씨 10대조 산소가 있다.

황새울

산의 지형이 황새가 나는 형국이라 황새울이라 부른다.

국사봉(國土峰)

고정리 뒤에 있는 산이다. 고려말엽에 어지러운 국운(國運)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3정승(三政丞)이 국론(國論)을 협의(協議)한 산이라 하여 국사봉(國土峰)이라 했다.

이 산을 섬기면 그 섬기는 집에서 훌륭한 자손(子孫)을 둔다하여, 여기 마을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산제(山祭)를 지내며 국사사(國土師)를 모신다.

궁골 뒤 국사봉 아래 8명당 터가 있다고 한다. 둔덕산이라고도 불렀다.

봉화를 올렸던 산이다.

궁(宮)골

국사봉 바로 아래 정자가 있던 마을이다.

임씨 5대조가 몹시 빈궁하였다. 선친이 죽어 묘를 쓸 때, 한 스님이 “당대 발복을 원하느냐? 만대 영화를 원하느냐?” 고 묻자, 가난한 살림에 싫증 나, 당대 발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대에 300석을 거두어 부자가 되었으나, 자손은 빈궁했다 한다.

지형은 좁아도 명당터라고 한다. 선대로부터 이곳에 묘를 쓴 곽씨(郭氏)는 4대

가 벼슬을 하였는데, 판서(判書)가 세 사람, 왕사부(王師父)가 한사람이 나왔다 한다.

월성(月城)

‘반월터’ 라고도 하며, 마을 형태가 반달 같은 지형이다.

‘높은 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 여기는, 달과 연유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이다.

옛날 단란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스님이 한사람 찾아와서 시주를 원하기에, 시주를 듬뿍하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달이 밝게 비치는 밤에,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 기도를 하라 해서, 하루는 달 밝은 밤에 기도를 드렸더니 소원을 이루었다. 그 때부터 월성(月城)이라 부르게 되었다.

곽희태 산소

조선 선조 때 판서를 지낸 분의 산소이다.

지경재

공주군과 연기군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중새터

42호가 거주하며, 종전(種田), 월성(月城), 중사터(중새터), 작은 독골을 통털어 중새터라고 부른다.

매봉재

월성 앞쪽에 있는 산으로, 공주와 연기의 경계이다.

소람봉

월성 뒤쪽의 산으로, 국사봉 줄기이다.

작은 독골

소도곡(小道谷)이라고도 한다.

큰 독골

공주 장기 쪽에 있는 계곡이다.

곡산강(康)씨 산소

이성계 처남의 산소로, 부처골과 대비실 사이에 있는 산소이다.

생업

논농사 외에 고추, 과수(복숭아, 배)농사를 주로 한다.

주요 성씨

곡산강(康)씨가 약 40%, 그 다음으로 경주 김씨, 강진 이씨, 청주 곽씨 순으로 살고 있다.

주요 인물

곽유신 - 충남도청 자치행정국장(부이사관)

제보자 : 김민수(44·이장), 김영기(55), 이호영(49), 박인규(67),
강성기(73), 곽충신(46), 김만순(75).

고 정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장명자 | | | | 이진섭, 이진관 | |
| 이호영 | 강진 | 유진님 | 이진옥, 임인순 | 이모찬 | 이소라 |
| 이용규 | 강진 | 김영월 | | 이진덕, 이진산 | |
| 이초영 | 강진 | 장례옥 | | 이모현, 모철, 모승 | 경희 |
| 김명경 | 김해 | 이화숙 | 이순분 | 김상현, 상훈 · 손:은혜, 성민 | 고명복 |
| 이태영 | 강진 | 주영님 | 박중례 | 이효관, 이광복 | 이선화 |
| 고등해 | 제주 | 최순자 | | 이모영, 모운, 모준, 모정, 모상 | |
| 이창영 | 강진 | 고재만 | | | |
| 이영배 | 전주 | 서창례 | 이병문, 김씨 | 학수 | 영순 |
| 김미정 | 경주 | | 김정환, 이길자 | 남수, 준형, 시영 | 해림 |
| 박종호 | 밀양 | 최용숙 | 박선봉, 이정순 | 훈효, 훈용 | |
| 이부상 | 강진 | 신민자 | 이연학, 김재임 | | 문영, 은영 |
| 강완기 | 곡산 | 마씨 | 강병희, 이정완 | 용갑, 용이 | 명순, 성순 |
| 강정기 | 곡산 | 성낙연 | | 윤기 | 강희, 수희, 복순, 영옥 |
| 강병세 | 곡산 | 성한순 | | 우용 | 한분, 선희, 현숙, 현미, 영숙, 미경 |
| 김권우 | 경주 | 강점순 | | 현수, 준영 | |
| 강형기 | 곡산 | 이정순 | | 용하, 용식, 용선 | 경옥, 경숙, 경순, 경현 |
| 김옥남 | 금영 | | | | |
| 정수만 | 경주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연순 | 경주 | | | | |
| 강현기 | 곡산 | | 진식 | 용신 | 인숙, 의숙, 애숙 |
| 강성기 | 곡산 | | | 용복, 용덕, 용광, 용민 | 순자, 순옥 |
| 이분순 | 영천 | | | 우영, 우국, 우민 | 재숙, 재옥, 재영, 미영 |
| 김옥찬 | 경주 | 박정자 | | 우정, 우익 | 혜정 |
| 김우식 | 경주 | 오정임 | 김만용, 오정순 | 주명 | 보라 |
| 김우근 | 경주 | 황순자 | 김만용, 오정순 | 영주 | 영애, 영희, 희영 |
| 김정식 | 경주 | 노영예 | 김정봉, 장기월 | 민수, 시풍, 시갑 | 민자, 민숙 |
| 김시갑 | 경주 | 장경미 | 김정식, 노영예 | | 아란, 아영, 민주 |
| 이용현 | 전주 | 홍미자 | 홍순목, 이종섭 | 현주 | 은미 |
| 배장환 | 성주 | 김미경 | 이정자 | 기영 | 재림 |
| 김우진 | 경주 | 노금순 | 김만용, 오정순 | 진주, 원주 | |
| 이순이 | 전주 | | 박옥희 | 전창호 | 전희정 |
| 임정자 | 신천 | | | 강용주, 용길, 용빈 | 강현옥 |
| 김만순 | 경주 | 신태숙 | 갑진, 김순예 | 우선, 우신, 우창, 우남 | 재화, 정화 |
| 강원영 | 신천 | 이창옥 | 진장임 | 강태철, 태성 | 강유선 |
| 강용태 | 신천 | | 강재기, 임현임 | 춘호 | 옥순 |
| 강용봉 | 신천 | | 이용순 | | 현주 |
| 김성무 | 경주 | 백소제 | 박성수, 민홍순 | 충배, 충남, 충옥, 충운, 충선, 충금 | 경자, 숙자, 은자 |
| 임헌태 | 부안 | | 임예철, 유순례 | 낙수 | 순미, 영주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종성 | 경주 | 마숙자 | 김강섭, 송기남 | 정수 | 미진, 미선, 미영, 미정 |
| 김을순 | 경주 | | | | 한금숙 |
| 안영수 | 순흥 | 김홍예 | | 우석 | 필선, 나영 |
| 김시황 | 경주 | | 김대식 | | |
| 강대기 | 곡산 | 이정희 | 강병갑, 유혜임 | 용주, 용우 | 용자, 용래, 용복 |
| 김민수 | 경주 | 강문자 | 김정식, 노영예 | 우일 | 지선, 지은 |
| 박한규 | 상주 | 김병님 | 박양석, 이간난 | 성근 | 영은, 경은, 성은 |
| 강홍식 | 곡산 | 이희수 | 강춘봉, 임정술 | 강병필, 병력, 병배 | |
| 정현도 | 진주 | 지현춘 | 정우식, 이기녀 | | 윤영, 윤미 |
| 박창규 | 순철 | | | 손종호, 종성, 종수 | 손종선, 손상근 |
| 강병대 | 곡산 | 김정임 | 강한용, 박갑동 | 강덕연 | 강민진, 민경, 민형 |
| 강연식 | 곡산 | 채정순 | 춘봉, 임정술 | 강병윤, 병난, 병근 | 강수진 |
| 이대균 | 강진 | 김영예 | 이학봉, 임정술 | 이진일, 진성 | 이진준, 영이, 회순, 경자 |
| 강현식 | 곡산 | 임금산 | 강춘봉, 임정술 | 호철, 병재, 병광 | 남용, 종록 |
| 강병재 | 곡산 | 김복자 | 강현신, 임금산 | 강은기 | 강은서 |
| 강병규 | 곡산 | 임동순 | 강원식, 이정의 | 민기, 기환, 중기 | 현옥, 순애 |
| 곽태신 | 청주 | 김순자 | 곽노하, 이을순 | 호철, 민상, 용선 | 신옥 |
| 곽충신 | 청주 | 이희주 | 곽재근, 신의순 | 철규, 철희, 철하, 원상 | 선희, 연희, 윤희, 수진 |
| 곽경신 | 청주 | 정현명 | 곽재근, 신의순 | 대영 | 명희 |
| 강병수 | 곡산 | 이복남 | 이상철 | 강봉기 | 강순옥, 순자, 순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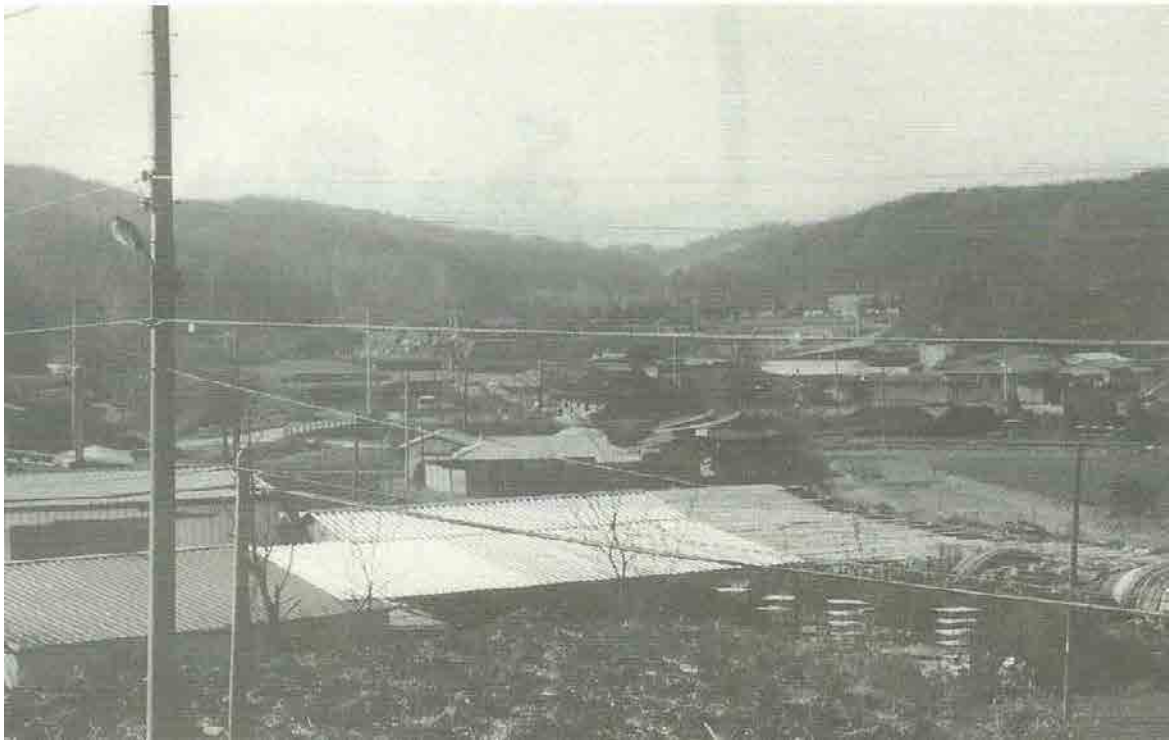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광수 | 진주 | | 강덕성, 김춘이 | | |
| 강형기 | 곡산 | 임순자 | 강병완, 안순호 | 용신 | 진숙, 명숙, 은숙, 현숙, 은희 |
| 김영식 | 경주 | 박중희 | 김래희, 최씨 | 로원, 로찬 | 복수, 복희, 복천, 복련 |
| 김영기 | | 노안순 | | 김용희, 용석, 장겸 | |
| 서정수 | | 강선희 | | | |
| 조병철 | 한양 | 서남순 | | 강형, 을형, 춘형, 세환 | 미래, 미영 |
| 이근황 | 인천 | 신성자 | | 대희 | 승연 |
| 전성호 | | 김선미 | | | |
| 강공식 | | 장열순 | | 강병휘 | |
| 신혁주 | 영산 | 유순복 | | 시내, 보람 | |
| 김영선 | 김해 | | 김수만, 안순금 | | |
| 김태영 | 김해 | 원상례 | 김석귀, 이경숙 | 김영기 | 김미선, 미영 |
| 윤덕중 | 파평 | 백금순 | 윤귀병, 황풍자 | 석환, 석현 | |
| 김석만 | 김해 | 김현남 | 김기준, 김용진 | 태완, 태열, 용태 | |
| 김석원 | 김해 | 임명순 | 김기준, 김용진 | 광태, 정태, 준태 | |
| 박종구 | 밀양 | 김효진 | 박규중, 조갑예 | 박찬, 옥찬, 성찬 | |
| 김종원 | 김해 | 김향란 | 김기봉, 임복례 | 김성태 | 선순, 선희, 선용 |
| 임현완 | 부안 | 한상희 | 임경철, 최복례 | 신우 | 영신, 경미 |
| 노승범 | 교화 | 장미숙 | 노양섭, 김명자 | 창내 | 민희, 선내 |
| 신현재 | 거창 | 위귀연 | 신용택, 이순란 | 중순, 영채 | 해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치운 | 울산 | 전정순 | | 영진 | |
| 박인규 | 밀양 | 전점순 | 박정길, 서문남 | 근식, 준식, 창식, 영식 | 금옥 |
| 박인수 | 밀양 | 김영자 | 박일남, 김가순 | 박덕순, 광순, 광만 | 박희자 |
| 박규복 | 밀양 | 윤옥림 | 박명숙, 김순예 | 종태, 종권, 종화, 종옥 | 순옥 |
| 임범수 | 부안 | 이길자 | 임헌덕, 최효학 | 재호, 재우 | 재원, 재숙, 재분, 연숙 |
| 김석도 | 김해 | 이경자 | 김기선, 한광예 | 정수 | 선예, 선옥, 선자 |
| 원상호 | 원주 | | 원용, 김요순 | | |
| 김석문 | 김해 | 나영순 | 김기선, 한창예 | 김길수 | 김수옥, 수경 |
| 김수만 | 김해 | 안순금 | 순오, 조씨 | 영선, 영주 | 영님, 영희, 영단, 영자, 연신 |
| 강근무 | 진주 | 정지리 | 연산, 최기화 | 문규 | 미경, 희경, 윤경 |
| 이진일 | 강진 | 김인자 | 이대균, 김영예 | 주영 | 혜정 |
| 강성강 | 곡산 | 조성분 | 강용기, 이씨 | 만호, 윤희 | 명숙, 명희, 윤희 |

사진으로 본 고정 1리



고정1리



고정1리



고정1리 마을회관



고정1리 범지기



가락골



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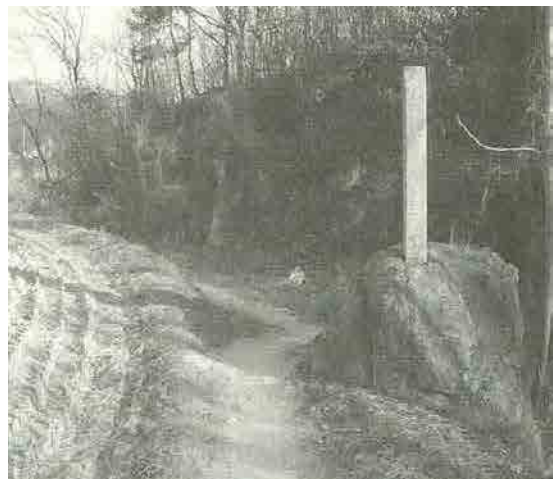
월성



높은댕이



신천강씨 묘소



현감공적비

2) 고정 2리

높은 정이

고정2리의 1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높은 곳에 정자(亭子)가 있어서 불려진 이름이다.

어서각(御書閣)이 있는 마을이다

원고정(元高亭)

높은정이의 원 마을이다.

동산(東山)

‘높은 정이’ 동쪽 산밑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 마을이 있어서 해가 뜰 때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뜨는 해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하여 ‘동산’ 이라 부르게 되었다.

소학동(巢鶴洞)

‘높은 정이’ 남서쪽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소학(巢鶴)이란 학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때부터 많은 인재(人才)가 배출되었다 하는데 그 학자와 연유한 마을이라 해서 ‘소학당’ 을 약(略)해서 ‘소학’ 이라고 부르다가 변해서 ‘소지(小地)’ 라 부르기도 한다.

본래는 공주군 장기면의 지역(地域)이었으나, 1914년에 연기군 남면 고정리로 편입(編入)되었다.

왕솔밭이 있었으며 학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소야’ 라고도 한다.

병풍바위 앞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종이 절을 태우고 떠났다고 한다.

소로골

고정2리 3반으로, 14호가 거주한다.

아랫말을 말한다. 수령 500여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소송(訴訟)에 걸린 적이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사두(蛇頭)

뱀 머리 형국의 마을이다.

뱀이 개구리를 쫓고 있는데 황새가 뱀 꼬리를 짝어, 뱀 허리는 끊어지고 뱀 머리만 남았다.

어느 날 중이 앞으로 이 자리에는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한다.

7, 8년 전 산을 없애고 터를 닦았는데, 그 후 마을의 젊은이 5,6명이 죽었다.

주민들은 산을 없애고 우환이 들었다고 믿고 있다.

송옥(松玉)

고정 2리 2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소로골이라고도 한다. (소의 배에 해당)

소로골에는 웃말, 가운데말, 음지말이 있다.

평뜰

크고 넓은 뜰을 지칭한다.

어서각(御書閣)

높은정이에 있으며 이성계(태조), 정조, 태종 3왕의 친필이 모셔져 있다하여 어서각이라 했다.

황새바위

사두(蛇頭)뒤에 있는 산이다.

개구리 산

통피라고도 하며, 묘를 쓸 때 통으로 썼다고 한다.

세시풍속

40여년 전에는 백중날(음력7월 보름)에 ‘호미씻이’ 를 해 왔으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고 있다

뱀골, 마당골, 큰골, 섬지기, 수채낭골, 뒤봉골, 흠배낭골, 비행골, 배차지굴멍, 가재울구멍, 구남지기, 새필이

가자골(가재골)

가재를 잡던 곳이다.

명애독

재팩이들이라고 하며, 들이 약간 도톰하게 올라왔다.

쇼골

씨앗을 치는 마을이다.

창말

옥단말

감옥(監獄)이 있었던 마을이다

치구재

독수리가 비둘기를 채어가던 고개이다.

편돈

산이 편편하다 하여, 편돈이라고 한다.

돌절골

석사곡(石寺谷)이라고도 하며, 병풍바위가 있는 곳이다.

시구재, 샡골

생업

논농사, 고추, 복숭아 농사를 주로 한다.

주요 성씨

곡산강(康)씨, 순천박씨, 부안임씨, 3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인물

재일 동포인 임달수(林達洙)씨는, 32년 전 (1970년) 당시 100만원을 들여 인근에서 제일 먼저 이 마을에 전기를 끌어 들인 사람이다.

주민들이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임달수(林達洙) 시혜비(施惠碑)’를 세웠다.

연기군 남면 고정리 232

임 헌 건(林 憲 建) 초등학교 교장

연기군 남면 고정리 232

임 관 수(林 寬 洙)문학박사, 충남대 교수

연기군 남면 고정리 232

임 헌 기(林 憲 琦)문학박사, 충남대 교수

고 정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갑용 | 안동 | 김옥선 | | 김양근, 수한 | 김연실 |
| 전일구 | 옥천 | 김순여 | | 전병진 | 전혜경, 혜진 |
| 임여수 | 부안 | 석후남 | 진철임 | 임재현 | 임현주 |
| 이용근 | 망골 | | | 임영수, 담수 | 임덕순,미화,은경 |
| 임재인 | 부안 | 김옥희 | 임동수, 정종례 | 세목, 성목 | 계숙,순숙,향숙 |
| 임현진 | 부안 | 배춘자 | 임대철,이춘임 | 열수, 용수 | 하순, 나영 |
| 임봉수 | 부안 | 양인옥 | 임현각,이판순 | 재양,재동,재홍,재권 | 윤희,진희 |
| 임연수 | 부안 | 이영래 | 임현무 | 재찬, 재중 | 미경,미정,미옥 |
| 임재호 | 부안 | 오덕균 | | 영환 | 문옥, 정순 |
| 임재홍 | 부안 | 박병년 | 임홍수,윤씨 | 재홍, 재중, 재송 | 점숙, 혜경 |
| 임철수 | 부안 | 박정순 | 임현석,이씨 | 재곤,경호,재훈,재혁 | 부산,똥똥리,순희,현순,현호 |
| 임남수 | 부안 | 오춘희 | | 재두,재진 | 미란, 순란 |
| 임재천 | 부안 | 강석 | 임영수,유분예 | 항목, 흥목 | 명선, 명희 |
| 임봉수 | 부안 | 김금자 | 임현양,오선진 | | 은경, 준경 |
| 임탁수 | 부안 | | 임현정,윤정숙 | 탁수, 천수, 만수 | 부홍, 영자 |
| 오금순 | 동해 | | 정석환 | 정지원,지명,지성 | 순자 |
| 황선예 | 장수 | | 임필수 | 임재광, 재정 | 임상숙 |
| 박병덕 | 의량 | 임명숙 | | 영준, 정근 | 정의, 영미 |
| 정경환 | 경주 | 장숙자 | | 지만, 지훈 | 숙자,미숙,윤숙,선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헌숙 | 부안 | 오언년 | 노익선 | 탕수 | 선옥, 향란, 해숙, 정란 |
| 이사나예 | 전주 | | | 임재문, 재완 | 임연옥, 재진, 재란 |
| 임헌국 | 부안 | 송화영 | | 명수, 진수 | 경남, 경예, 경숙, 경희 |
| 권명국 | 안동 | 김화실 | | 준상, 준복 | 경숙, 경옥, 경미 |
| 권등용 | 안동 | 박괴례 | 서원통 | 오선, 성오 | 옥순, 옥선, 옥심 |
| 노중호 | 교환 | 서현숙 | 이동희 | 노승준 | |
| 임성목 | 부안 | 이사순 | | 규상, 규일, 규완, 규혁 | |
| 임인수 | 부안 | 노영자 | 망임현동, 진칠남 | 재승, 재평 | 경희 |
| 목영일 | 사천 | 이경순 | 목진상, 김홍순 | 선균, 의균 | |
| 임헌화 | 부안 | 강덕현 | 임규철, 고흥순 | 현수 | 윤숙, 미숙, 영숙, 금숙 |
| 강대기 | 신천 | 임애자 | 강병렬, 유명월 | 용무, 문수 | |
| 박의순 | 순천 | 권오순 | 박종학, 장현순 | 상무 | 혜현, 수현 |
| 박종헌 | 순천 | 강숙자 | 박정규, 임경순 | 대순 | |
| 박상돈 | 순천 | 이예규 | 박은순, 권정축 | 민환 | 민지 |
| 박흥순 | 순천 | | 박종갑, 최농규 | | |
| 임옥분 | 부안 | | 박이규, 조씨 | 만순, 병순, 권순 | |
| 양재희 | 청주 | | 박노순, 임월용 | 종우, 종배 | |
| 박원순 | 순천 | 이재월 | 박종훈, 송인희 | 상기 | 선희, 선애 |
| 박종팔 | 순천 | 김정옥 | 박덕규, 민영수 | 은호 | |
| 박종필 | 순천 | 이순자 | 박영규, 이숙용 | 승호 | 희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갑순 | 순천 | 오순자 | 박종국, 오영순 | 규진 | 남옥, 미화, 미경, 경화, 경미 |
| 박일순 | 순천 | 조정자 | 박종철, 임기복 | 상민, 상영 | |
| 박인순 | 순천 | 임정희 | 박종열, 이오녀 | 상우, 상권 | |
| 박상옥 | 순천 | 최인숙 | 박기순, 여옥수 | | |
| 강정경 | 진주 | | 박노승, 김중정 | 종택, 종호 | |
| 박판규 | 순천 | 엄이섭 | 박노승, 김중정 | 종락, 종인 | |
| 박주순 | 순천 | 임영순 | 박종만, 안해선 | 상원, 상래, 상진 | |
| 권혁세 | 안동 | 김진예 | | 순종 | |
| 권전호 | 안동 | 김수태 | | 유서 | |
| 박현님 | 밀양 | | | 권순종 | |
| 김시연 | 경주 | 정남숙 | | | 명희 |
| 강태기 | 곡산 | 김영숙 | | | |
| 임형목 | 부안 | 최현숙 | 임재봉, 고귀례 | 충 | 소연 |
| 강훈호 | 곡산 | 김주영 | 정옥주 | | |
| 이진일 | 강진 | 김인자 | 이대균, 김영예 | 주영 | 혜정 |
| 임헌명 | 부안 | 이은순 | | 손자: 임성진 | |
| 강용인 | 곡산 | 최은자 | | | |
| 장환기 | 홍성 | 오영례 | | 종일 | 수연 |
| 강봉근 | 곡산 | | 강강섭 | 손: 임재영, 재훈, 재후 | |
| 강태호 | 곡산 | 남인숙 | 황우복 | 삼촌: 낙호 | 영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양수 | 부안 | 강은아 | | 재규 | |
| 황철성 | 창원 | 임수임 | | | |
| 박상호 | 밀양 | 김윤경 | 박봉환, 고복자 | 성주, 주현, 성민 | |
| 오진희 | 부안 | | | 임양수 | |
| 강병영 | 곡산 | 김영란 | 안지애 | 광기 | 영순 |
| 강우기 | 곡산 | | 최복순 | | |
| 원영목 | 원주 | 최정현 | 원구상, 김영순 | 교석, 교진 | 미경 |
| 강평식 | | 유윤순 | | 윤기 | 손녀:유라,유미 |
| 강지훈 | 진주 | 추문자 | | 선우 | |
| 강병균 | 곡산 | 김순자 | | 완기 | 민희, 혜미 |
| 강창수 | 재령 | 장동희 | | | |
| 전정임 | 온전 | | | 안광일(사위) | |
| 박광순 | 순천 | 임부산 | | 박상태 | 정난, 정은, 정숙 |

사진으로 본 고정 2리



소학동



높은댕이



마을회관과 슈퍼



은행나무



소로골



임달수공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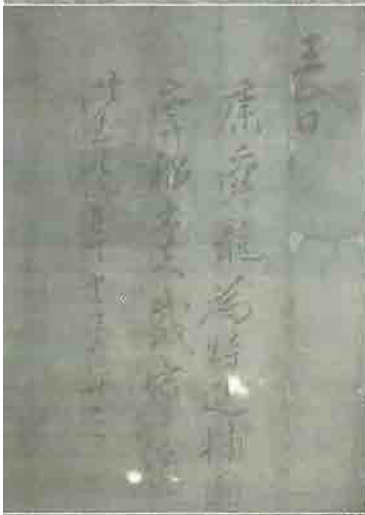
어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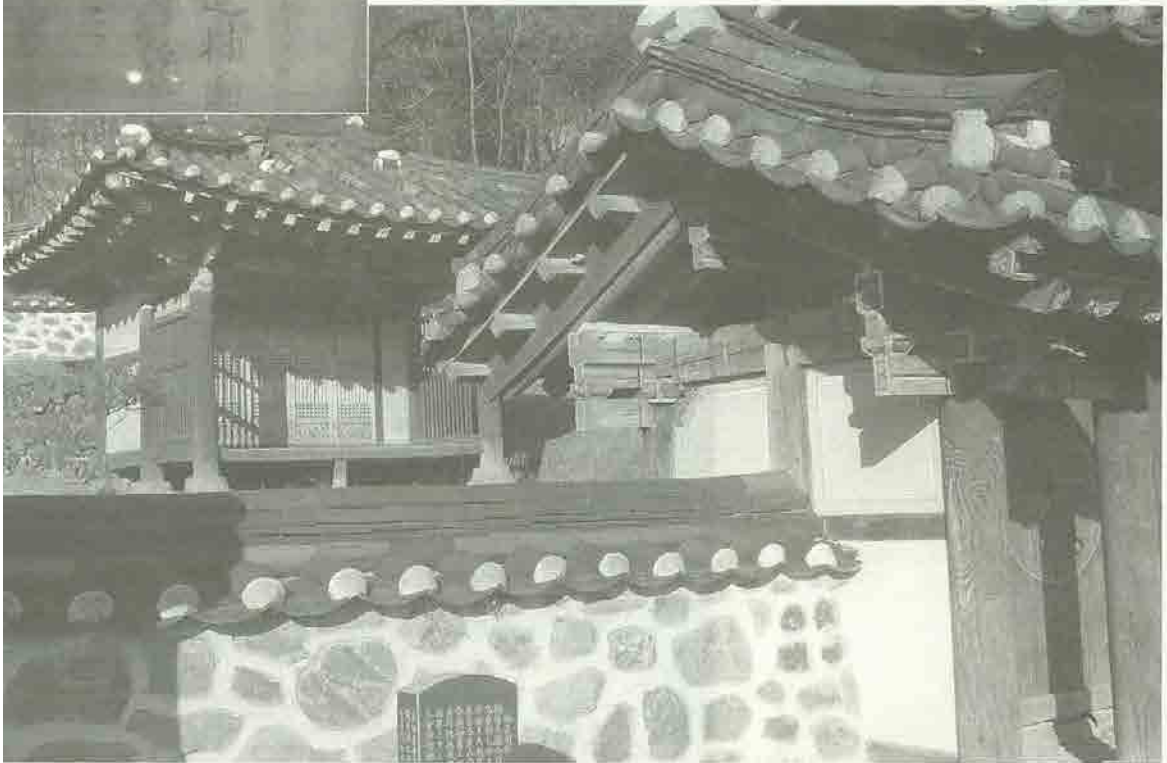
어서각



고정2리



왕지



어서각

6. 종촌리(宗村里)

백제 때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해 있으면서, 일찍부터 장터로 발달한 마을이다.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백제 유민(流民)들이 자리하여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하여 고려 때에도 큰 장터였었다.

조선 태종(太宗) 때에는 공주(公州)로 합쳐지기도 했었으며,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삼기면의 지역이었었다. 지대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으므로 일찍부터 개화(開化)한 지역이다.

낮은 산등성이에 있다 해서 ‘밀마루’ ‘종촌리(宗村里)’ 이라 부르다가 ‘장터’ 로 통칭하기도 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종촌리(宗村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었다. ‘밀마루’ 가 종촌(宗村)이라 부름은 종(宗)은 ‘밀종’, 촌(村)은 ‘마루촌’ 이란 이치에서 그리된 것이라 한다. ‘장대(場垜)’ 라고도 부른다. 전에는 ‘도리미’ 밀마루라 불렀다.

1) 종촌 1리

도산

‘밀마루’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낮은 산이었으며 이곳에 도학군자(道學君子)의 묘지(墓地)가 있다. 선비가 많이 배출되는 마을이다 하여 ‘도산(道山)’ ‘도림(道林)’ 또는 ‘도리미’ 라 부른다. ‘도리미’ 란 편안한 마을의 속칭인데 방우간도림(放牛干桃林)의 평화촌(平和村)이란 뜻도 된다.

도리미

종촌 1리 1반으로, 24호가 거주한다

도리미(道林이 있는 마을)는, 임씨가 돌림병이 돌아 도망갔다는 설과, 원래 황씨 세거지였으므로 타성(他姓)이 못살고 도로 나가 ‘도리미’ 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 황씨 세거는 14대조 약 420년 전으로 추측한다. 지금도 ‘도리미’ 라고 부른다. ‘도(道)’ 자를 쓰고 나면서 길이 생겼다.

상지말

상지말은 2반에 속해있다. 조선 중기 학자 초려 이유태의 묘가 있으며 그분의 자손 산소가 있다. 경주이씨 제실도 도산제실이 있었으나, 소실되었고 현재는 산하에 자손이 살고 있다.

마을이 뱀 형국(巳穴)이라 한다.

도잠(도장)

등짐장수가 쉬어 가는 곳이었다.

‘한 조랭이’ 밖에 안 되는 곳, 즉 작은 터이기에 부자가 못된다고 전해온다.

함지(함정)고개

산이 깊어 범이 살아서 함정을 파 잡으려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로가 나면서 혈(穴)이 끊어졌다. 옛날 도로는 함지고개와 도잠을 넘어 다녔다.

큰말

3반으로, 22호가 거주한다.

동네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 마을회관이 있다.

중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즉, 죽도 못 끓여 먹는 동네였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다르다.

서당골

서당이 있었는데 일제 때 소실되었다.

주민 홍재남 시아버지가 훈장이었다.

예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으며, 지금은 삼정사 절이 있다.

옥정(玉井)

옛날 조선시대에 태자(太子)를 가르친 이초려(李草廬)가 옷담을 먹고 옷이 읊아 고통을 겪다가, 옷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를 지나다가 잠깐 쉬게 되어 마침

곁에 있는 샘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더니 병(病)이 완쾌(完快)되어 갑자기 여기 샘이 유명하게 되었다. 옷병을 고친 우물이 있다해서 옥정(玉井)이라 부르게 되었다.

원산과 증뜸 사이에 있으며 바위 틈새로 찬물이 나온다.
눈병, 옷, 땀띠 등을 치료했다.

서낭당이

원산 뒤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무와 돌무덤 흔적만이 남아있다.

덧논

마을 앞의 논을 지칭한다.

구수논(구유논)

논 생김이 구유처럼 생겼다고 한다.

공수마루

물이 항상 차 있어서 벼가 잘 되지 않아 세금을 공제해 주던 논이다.

심지논

장수밭

동네에서 제일 긴 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리 정리가 되어 답으로 되어있다.

사당제(祠堂祭)

중촌리에서 지내는 사당제다. 조선말엽에 이곳을 지나던 황씨(黃氏) 한 사람이 아주 이 곳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그 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황씨(黃氏)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거룩한 넋을 추모하는 뜻에서 사당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던 것이 이 곳 사당제(祠堂祭)의 처음이라 하는데 이 곳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면 복(福)을 받는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당제를 지낼 때 모여든다.

사당제는 일제 말에 소멸되었다.

모정산

모정(茅亭 - 글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정자)을 지어 글도 가르치고 선비들이 시도 읊었던 곳으로 당시 건물이 소실되어, 근래에 현대식 건물 2층으로 중수하였다.

전 이장(황노익)과 전 면장(한종률)이 현판을 제작하였다.

이유태 신도비

황용정의 묘

창원 황씨 선조인 황용정이 장기면 금암리 금벽정에 살았다.

그는 어질고 학식이 있었으나 빈곤하게 살았다.

하루는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권하자, 황용정은 저녁 한끼 해먹을 쌀밖에 없지만 아무 말없이 대접을 하자 스님은 밥을 다 먹고 가난한 선비의 마음이 가특하여 그 보답으로 묘 자리를 잡아주려고 물었다.

묘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대 발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만대 영화지라 했다.

황용정은 궁하게 살았기에 당대 발복지를 선택하였고, 스님이 잡아준 묘 자리로 아버지 황림의 묘를 이장하자, 당대 발복이 되어 수사공의 벼슬을 얻었다. 훗날 1990년도에 황용정의 묘를 종촌1리 원산에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당(祠堂)

황씨가 관리했었으며 6·25 때 헐렸다. 여기서 나온 재목은 모정을 증축할 때 갖다 썼다.

원산

원산은 종산에 근접해 있으며, 제실당에 1년에 한 번, 음력 10월 10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생업

주로 논농사, 그 외 밭농사(고추, 담배, 깨 등)를 주로 한다

주요 성씨

창원황(黃)씨가 전체 65%를 차지한다.

주요 인물

황정익 - 대통령 표창. 97. 7.16 (경제 살리기)

제보자 : 황정익(58·이장), 황인학(81), 황인기(57), 황주익(69·노인회장)
임갑례(81), 임선희(64), 황노익(67), 황영일(67·전이장),
오춘미(73), 임재순(75), 안노임(78), 임재선(75), 홍재남(80).

종 촌 1 리 세 대 주 명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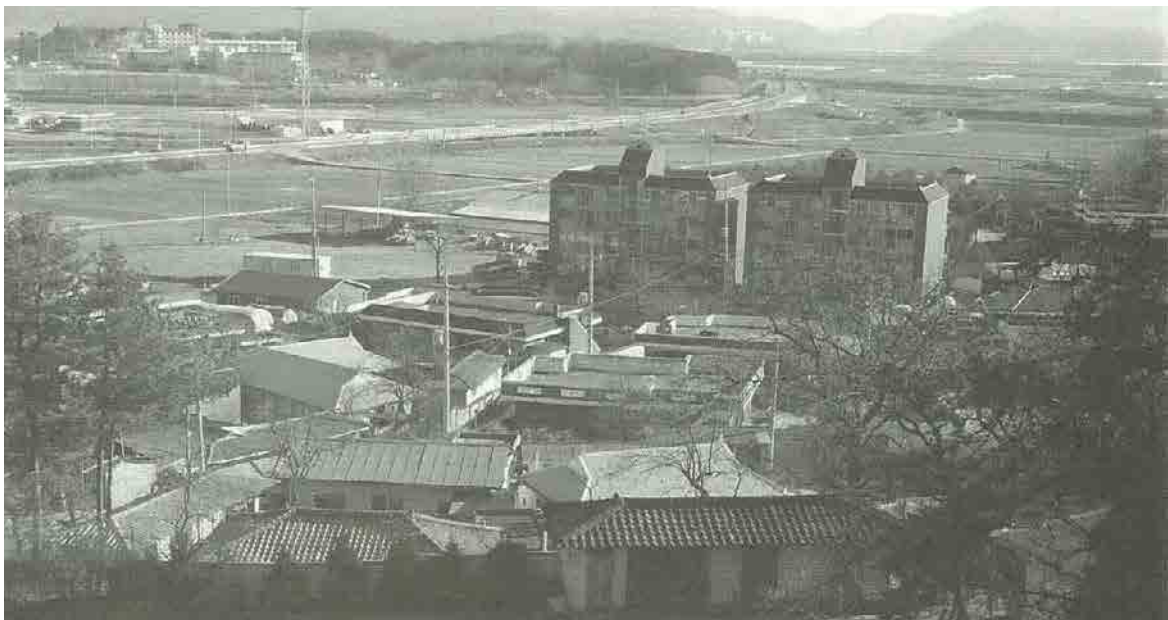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영애 | 부안 | | | 황감익 | 경자, 인자, 규옥, 규정, 명옥, 순정 |
| 배동완 | 청주 | 임옥순 | | 장섭, 성훈 | 숙이, 선미 |
| 임선희 | 부안 | | | 황인호, 황인기 | |
| 성무제 | 창명 | 류춘열 | | 성희창, 성희훈 | 영옥 |
| 황원식 | 창원 | 장영희 | | 황필환 | 미숙, 미영 |
| 황인면 | 창원 | | 이순희 | 황인진 | 황순일 |
| 황인경 | 창원 | 유석자 | | 황지환 | 황정순 |
| 황영일 | 창원 | 김광순 | | 황준범 | 연숙, 남이, 경남, 경희 |
| 최순득 | 화순 | | | 황인영, 인용, 인호, 인협 | 황의희 |
| 임영순 | 부안 | | | 황인도, 황인준 | 황경숙, 경옥, 경애, 정의 |
| 황인섭 | 창원 | | 임종여 | | |
| 이재구 | 한산 | 황인임 | | 양원 | 윤숙, 윤애 |
| 강복순 | 진주 | 탁정엽 | | 강영진, 영철, 영규 | 강인혜 |
| 이열우 | 경주 | 송순자 | | 이상유, 상수, 상대 | |
| 황노익 | 창원 | 홍종분 | | 황인걸, 인헌, 인정 | 황은희 |
| 황광조 | 창원 | 최정애 | | 황규환, 황두환 | 황문순, 복순, 향미 |
| 황운익 | 창원 | 김인희 | | 황용기, 인세, 인수, 인권 | 황정옥 |
| 김병례 | 경주 | | | | |
| 손필승 | 밀양 | 임준수 | | 손승원, 손승규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수열 | 함평 | 김순자 | | 이태희 | 이경화 |
| 이종철 | 경주 | 조정행 | | 이석우 | 영우, 양우, 민우, 경우 |
| 이종락 | 경주 | 강희원 | | 이응오 | 희주, 희장, 희경 |
| 임언수 | 부안 | | | 황인국, 인열, 인생 | 인순, 영순 |
| 임명자 | 부안 | | | 황해환, 황금환 | 환이, 정미, 이환, 미정 |
| 이학성 | 전주 | 김정임 | 이철규, 김순길 | 이병만 | 효정, 효진 |
| 황정익 | 창원 | 이재순 | | 황염일, 황인부 | 혜영 |
| 신남수 | 고령 | 권병례 | | 신상현, 신상봉 | 상희 |
| 황원익 | 창원 | 강순자 | | 황인성, 인상, 인삼, 인단 | 인화, 이화 |
| 박추옥 | 밀양 | | | 김성배, 유창배 | |
| 황인선 | 창원 | 고기호 | | 황세환 | 난이, 영란, 난수, 난영 |
| 오춘미 | 보성 | | | 황우교, 우산, 우각, 우청, 추찬 | 오순, 현숙 |
| 황인철 | 창원 | | | 황덕환, 황광환 | 덕순, 덕희, 금옥 |
| 홍재남 | 남양 | | | 황인장, 황인순 | 석자, 석진, 은미 |
| 서은원 | 달성 | | | 서동열 | 서보람 |
| 황대익 | 창원 | 이순복 | | 황인성 | 난숙 |
| 이형섭 | 전의 | 신복주 | | 이지언 | 혜란 |
| 황인섭 | 창원 | 안종금 | 황상익, 임재선 | 황창원 | 영희, 영애, 미자 |
| 황인관 | 창원 | 이경숙 | 임경순 | 황선환 | 황선경 |
| 오월순 | 보성 | | | 임헌영, 헌덕, 헌기 | 임헌배, 은숙, 종자, 진이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우열 | 창원 | 진금순 | | 황덕익 | 황지혜 |
| 강병용 | 진주 | | | 황인균, 인광, 인찬 | 황인례, 인자, 홍자, 순미, 순이 |
| 황우달 | 창원 | 윤자이 | | 황양익 | 황영미, 황은미 |
| 서병희 | 달성 | 김혜숙 | | 정훈 | |
| 홍경자 | 남양 | | | 황억환, 태환, 길환 | 황난순, 황용순 |
| 황인권 | 창원 | | | | |
| 황주익 | 창원 | | | | |
| 신광식 | 평산 | 김영희 | 김순여 | | 신민지 |
| 임서철 | 부안 | 정갑순 | 황무익 | 임평일 | 임은진, 현진, 수진 |
| 황인학 | 창원 | 임갑례 | | 황용환, 종환, 성환 | 황옥수 |
| 황인목 | 창원 | 강신자 | | 황대환, 황석환 | 황대순, 황순이 |
| 황성환 | 창원 | 박노은 | 황인학, 임갑례 | | 황효주, 아람, 유나 |
| 황인만 | 창원 | 이명호 | | 황철환, 황민환 | |
| 황오익 | 창원 | 임건순 | | 황상필 | 황인순, 인예, 명희, 경숙, 경희, 복주 |
| 황인택 | 창원 | | | 황선욱, 황성환 | 황선희 |
| 황인균 | 창원 | 김정님 | | 황일천, 황선환 | |
| 황인범 | 창원 | 이일순 | | 황진환 | 황은숙, 황은정 |
| 황용기 | 창원 | 이영미 | 황운익, 김인희 | 황기환 | 황유진 |
| 임응순 | 부원 | 전성희 | 조홍균 | 임연빈 | 임금림 |
| 황인한 | 창원 | 홍성근 | | 황두환 | 황금화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인해 | 창원 | 김석봉 | | 황돈환, 황찬환 | |
| 진기봉 | 여양 | 김덕자 | | 김재형 | 김수화 |
| 오춘남 | 보성 | | 박홍금 | 이영운 | 이수진 |
| 임재분 | 부안 | | | 황인중, 인술, 인진, 인천 | 황선예 |
| 안노임 | 순흥 | | | 황우배 | |
| 이동우 | 경주 | 신연순 | | 이상협, 이상흡 | 이상민, 이상화 |
| 김갑수 | 광산 | 임홍순 | 김수근 | 김용일 | 김효진 |
| 황우원 | 창원 | 이영애 | | 황봉익, 담익, 기태, 본익 | |
| 김용택 | 김해 | 황옥희 | | | 김영자, 영숙, 영실 |
| 황우병 | 창원 | 강기순 | | 황강익, 석만 | 황순이 |

사진으로 본 종촌 1리



도산정에서 바라본 마을전경



예전에 모정(募亭)이 있던 곳에 세운 정자



창원 황씨 사당



종촌 1리 마을회관



수사 창원황 정용묘비



수사 창원황 정용묘



초려 이유태 신도비



초려 이유태 묘

2) 종촌 2리

종촌2리

‘문마루’로 불렀다가 문평(文坪)에서 ‘민마루’로, 다시 ‘밀마루’로 변형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현

예전 조선말엽에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문인(文人) 한 사람이 이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말하기를, 이 마을은 문화현(文化峴)이라 부르면 장차 큰 마을이 될 것이라 하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 그 후 이 곳엔 그 선비의 말대로 차츰 번창해 간다 하여, 문화현(文化峴)이라 부른다.

1반

삼거리에서 뚝방 까지를 가리키며, 종촌 우체국이 있다. 25호가 거주한다.

2, 3, 4반

시장통 모두를 합친 곳으로 해방 2년 후부터 개설했다. 1945년에 전기가 들어왔고 시장은 197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 화재가 나서 시장은 폐쇄됐고, 5년 후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2반 21호 거주, 3반 13호 거주, 4반 31호 거주한다.

5반

45호 거주한다.

한섬지기

한 배미에서 한섬을 추수해서 그리 불렀다 한다.

상여집, 도살장

1960년대까지 있었으나 현재 소실되었다.

6반

현 면사무소에서 농협까지를 가리킨다. 파출소가 있다. 25호 거주한다.

7반

파출소에서 수창물산까지이다. 24호 거주한다.

8반

연양 초등학교 후문에서 현 우체국 앞까지 이다. 일제시대 때 용기공장이 있었는데 갈운 2리와 3리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를 갖다 땄 뒤로 용기점은 망했다. 22호 거주한다.

9반

현 금하연립 자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미나리깡터였다. 22호 거주한다.

반쪽산

1반에 있으며 반달처럼 생겼다. 도로가 나면서 밭으로 변경되었다.

피눈배미

5반 상여집 근처에 있는 논이다.

생업

논농사(35호), 공무원과 회사원(25%), 상업(40%)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인물

임정수 - 전 대전지검 차장검사

주요 성씨

부안 임씨 25명(10%), 창원 황씨 21명(10%)이며, 기타 여러 성씨이다.

제보자 : 황인산(49), 구자환(68), 한상호(78), 이훈기(75) 임정업(56), 박금순(84)

종 촌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인산 | 창원 | 이은재 | | 동환 | 소년, 미환 |
| 이규상 | 전주 | 김선영 | | 명학 | 수빈 |
| 강기수 | 신천 | 조만옥 | | 세현, 창현, 순현 | |
| 김상순 | 경주 | | | | |
| 김동예 | 경주 | | | 전송 | |
| 홍달표 | 남양 | 김영숙 | | 성길, 성호 | |
| 이예한 | 전주 | | 임정수 | 영수 | |
| 이종숙 | 전주 | | | | 현나, 금리 |
| 임은주 | 부안 | 김경자 | | 재범, 재방 | 옥희 |
| 임정목 | 부안 | 한유순 | | 성호, 성현, 규형 | |
| 김영규 | | 최봉화 | | 진원 | 지원 |
| 박선자 | 충주 | | | 장현, 형록 | 현미 |
| 성기용 | 창녕 | 김양진 | | 하준 | 하평, 하운 |
| 황인석 | 창원 | 신정자 | | 승환 | 미라, 미원 |
| 홍종철 | 남양 | 윤현희 | | 순찬 | 세빈 |
| 황인출 | 창원 | 이원희 | | 금성 | 다영 |
| 임성목 | 부안 | 황순임 | 임정자 | 규호 | 유리 |
| 인종광 | 교동 | 홍은자 | | 준형 | 소희 |
| 정의주 | 영일 | 임은주 | 김평례 | 도원 | 숙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인훈 | 창원 | 유숙근 | | 재환 | 진희, 윤희 |
| 임영수 | 부안 | | | | |
| 김영환 | 김해 | 김태숙 | | 정현, 정철 | 정아 |
| 이수배 | 경주 | 손종연 | 박일분 | 재영 | |
| 황인하 | 차원 | 임재순 | | | |
| 이정엽 | 부안 | 김경자 | | 태성 | 규와, 경희 |
| 황인명 | 창원 | 김덕순 | | 규환 | 수영, 수경 |
| 이장호 | 전의 | 이정애 | 황제익, 이덕수 | | 해민 |
| 임용수 | 부안 | 권명분 | 임정순 | | |
| 임헌손 | 부안 | 황인순 | 황옥순 | 근수, 성수, 경수 | |
| 최재선 | 화순 | 김덕희 | | 장현 | 선미, 사라 |
| 김일태 | 온양 | 임성순 | 최원근 | 호성 | 지혜 |
| 황인항 | 창원 | 박용순 | | 도환, 경환 | 정선 |
| 박한순 | 순천 | 이상옥 | | 상윤 | 윤정 |
| 황장풍 | 창원 | 오병인 | | 철환, 경환 | 해정 |
| 임영택 | 부안 | 성금자 | | 수현 | 수경, 수진 |
| 이추자 | 전주 | | | | |
| 임권수 | 부안 | 최정순 | | 재우 | |
| 박영운 | 온양 | 조민자 | | 정학, 정웅, 정호 | |
| 임방수 | 부안 | 김미자 | | 효동 | 상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정수 | 광산 | 남경숙 | 김계순 | 용신 | 수필, 수경 |
| 송수길 | 철원 | 홍성연 | | 송병주 | 송영미, 지희 |
| 조두춘 | 향안 | 박미자 | 조해술, 김일선 | | 다혜, 가혜 |
| 임재경 | 부안 | 김혜경 | 장남희 | 임성묵 | 다희, 가현 |
| 유정숙 | 문화 | | | 윤대한, 준환 | |
| 임찬수 | 부안 | 이정삼 | 홍영표 | 재석 | 수정, 수진 |
| 임재춘 | | 이순희 | 오옥분 | 임태환, 용환 | |
| 허강옥 | 양천 | 홍문자 | 강사혜 | 재성, 재원 | |
| 유정곤 | 인진 | | | | |
| 최영남 | 경주 | 이경리 | | 용혁 | 민아 |
| 이완수 | 공주 | 정춘자 | | 정규, 상규 | 이데리샤 |
| 이명순 | 강진 | | 이송남, 황선자 | | |
| 신철우 | 평산 | 이재숙 | 신현국, 임옥희 | 동근, 동민 | |
| 권순석 | 안동 | 임순지 | | 권유환 | 권유리 |
| 이일준 | 전주 | 김미희 | | 이신현 | 이다은 |
| 김근원 | 경주 | 오복신 | | 진오 | 나영 |
| 박학범 | 밀양 | 김봉희 | | 박병권 | 박진희 |
| 양광석 | 남원 | 김진화 | 양기영, 김정애 | 양승준 | 양정선 |
| 박승후 | 반남 | 조숙희 | 박도양, 정유남 | 박세훈 | 세리 |
| 장광래 | 결성 | 박종순 | 이순하 | 철규, 기원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재만 | 부안 | 김화 | 진순애 | 성민, 성훈, 성범 | |
| 임여원 | 부안 | 김영미 | 임현수, 황채순 | 재우 | 성지 |
| 광정주 | 선산 | 김정임 | | 중석, 은섭 | 선화, 선영, 선주 |
| 전병문 | 천안 | 최부길 | 황예익 | 종혁 | 혜진, 현진 |
| 임헌정 | 부안 | 김한숙 | | 창주, 용주 | |
| 김은자 | 경주 | | | 병규 | 은미, 은영 |
| 김용현 | 광산 | 김정경 | 김관수, 김성자 | 재중 | 희경 |
| 한준석 | 청주 | 김병순 | 한중교, 이복덕 | 한현수, 상수 | 한현희 |
| 김기호 | 경주 | 강경옥 | | 성종 | 은경 |
| 신기순 | 평산 | | | 현균 | |
| 현상철 | 연주 | 김진순 | 황예희 | 창목 | 희영, 연옥 |
| 임양수 | 부안 | 이막내 | 이삼내 | 재형, 재영 | 미옥, 예빈 |
| 양태복 | 중아 | 강기숙 | | 길준 | 해영, 해진 |
| 박진순 | 순천 | 염점희 | 오세분 | 상우, 사인 | |
| 이종복 | 전주 | 신복선 | 이훈기, 권언년 | 철한, 동한 | 은경 |
| 김승중 | 선산 | 배수녀 | 김재룡, 최성환 | | 예원 |
| 박노예 | 밀양 | | | 병우, 우석 | |
| 임면철 | 부안 | 홍성미 | | | 수진, 옥정, 지향, 혜경 |
| 방헌식 | 온양 | 한주석 | | 경일 | 해정, 경옥 |
| 류형선 | 문화 | 왕명규 | | 호정, 호병, 호영, 호석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노철 | 부안 | 권영임 | | 현양 | 은서 |
| 이은범 | 전주 | 임옥자 | | 명주 | 정순, 숙경 |
| 강금숙 | 곡산 | | | | |
| 김성균 | 김해 | 임남순 | | | 근주, 현주, 정희 |
| 신영인 | 평산 | 라숙희 | | 민선, 경권 | |
| 김상천 | 김해 | 이남순 | 지달재 | 현창 | 현화 |
| 황인경 | 창원 | 유일순 | 황제익, 이덕수 | 옥환, 명환 | 선영 |
| 현상복 | 연주 | 이종숙 | 황예희 | 의창, 창연 | 현진희 |
| 임점수 | 부안 | 김순호 | 임현기, 강모학 | 재만, 재환 | |
| 강성기 | 곡산 | 신미영 | | 용진, 용철 | |
| 장대성 | 인동 | 정정희 | | 훈희, 진희 | 현숙 |
| 선재훈 | 보성 | 강임자 | | 치현 | 은화 |
| 김한성 | 광산 | 이영예 | | 유신, 지영, 용남 | |
| 김재숙 | 김영 | 진남숙 | 이금순 | 정현 | 지현 |
| 방일동 | 온양 | 주정식 | 이금녀 | 찬희 | 은희, 윤희, 영숙, 기은 |
| 김경열 | 경주 | 김애순 | 정순금 | 지훈 | 지영 |
| 이관우 | 경주 | 채향자 | 김용례 | 상천 | 상임, 상미 |
| 이기동 | 고성 | 강영숙 | | 세호 | |
| 황우영 | 창원 | 이정순 | | 학익, 옹익 | |
| 이만영 | 신평 | 이춘 | | 인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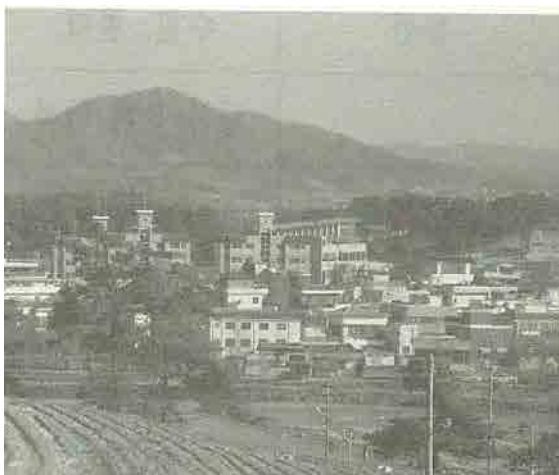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한영진 | 청주 | 이순자 | 한상호, 이은하 | 종범, 종찬 | 종숙 |
| 이강숙 | 함평 | | | | |
| 이근수 | 함평 | | | | |
| 이종현 | 함평 | 이정애 | | | |
| 강선호 | | 김영순 | | 영훈 | 세리 |
| 엄도대 | 영월 | | | | |
| 김용현 | 광산 | 김정심 | | 재중 | 희경 |
| 진재호 | 삼척 | 한옥순 | | 상돈 | 민아 |
| 임은식 | 부안 | | | | |
| 이희수 | 진주 | 박정옥 | | 용재 | |
| 임정자 | 부안 | | | | |
| 노천호 | 교하 | 채기순 | | 승환 | 노혜란 |
| 유정신 | 문하 | 임창란 | | | 혜지, 은서 |
| 노순구 | 광산 | | | | |
| 김성구 | 광산 | | | | |
| 김응현 | 경주 | 문형희 | | 한규 | 채연 |
| 구자신 | 능성 | 임양희 | | | |
| 김종길 | 김해 | 김성숙 | | 진호 | 정기 |
| 권명수 | 안동 | 박옥순 | | 형민 | |
| 이봉열 | 공주 | 송재희 | | 동환, 영환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익수 | 부안 | 이정화 | 권주옥 | 헌태, 헌광 | |
| 황인한 | 창원 | 황순희 | | 준하 | 윤정 |
| 이상만 | 전의 | 안연옥 | | | 진주, 진영, 진경 |
| 임헌세 | 부안 | 임선재 | | | |
| 임근철 | 부안 | 조일재 | | 헌민, 헌선, 헌생 | 미선 |
| 최규순 | 강릉 | | | | |
| 최홍수 | 화순 | 임갑수 | | | |
| 성길순 | 창녕 | | | 상헌, 희석, 성미 | |
| 구자환 | 능성 | 황오익 | | | |
| 임병옥 | 부안 | 전천명 | | 지열 | |
| 김병삼 | 김해 | 박은자 | | 정섭 | |
| 임재술 | 부안 | 김홍미 | | 정숙, 숙희, 용열 | |
| 이재구 | 덕수 | 임재희 | | | 원용, 기용, 성용, 숙용 |
| 최규상 | 경주 | 임연옥 | | 동식, 영식 | |
| 이훈기 | 저주 | 권언년 | | 이종복 | 이종애 |
| 황인상 | 창원 | 이연자 | 황원익, 강순자 | 황승환 | 황승희 |
| 임몽수 | 부안 | 김윤미 | 김정임 | 재억, 용태, 재용 | 정아 |
| 곽근수 | 현풍 | | 곽순길, 박월성 | 근재 | 영희, 영미 |
| 황인근 | 창원 | 오억순 | | 찬희 | 은주 |
| 김종덕 | 김해 | 임미자 | | | 김장태, 김혜진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노순 | | | | 황인찬, 인영, 인철 | 인순, 인숙 |
| 이한구 | 전주 | 임점순 | | 상현, 슬기 | |
| 이형래 | 경주 | 김순연 | | 용희 | 경희, 경진, 현정, 현주 |
| 황우익 | 창원 | 임미숙 | | 황인찬 | 황혜림 |
| 이옥례 | 전주 | | | | 임경화 |
| 이주청 | 전주 | 정선미 | 이영순, 김준덕 | 진섭, 규섭 | |
| 이상규 | 강진 | 임순정 | | 이용운 | 이경자 |
| 김계산 | | | | | |
| 황기환 | 창원 | 임숙주 | | 교선, 교준 | |
| 임성철 | 부안 | 강명옥 | | 현종 | 은숙 |
| 이상원 | 경주 | 장은숙 | 이태우, 홍정자 | 찬희 | 선희, 송희, 근희 |
| 박성두 | 밀양 | 유근복 | 유태호, 조인숙 | | |
| 김인숙 | 김해 | | | | 조민지, 인성 |
| 박영여 | 밀양 | | | | 혁진, 혁만 |
| 조규영 | 창녕 | 송경자 | | 용현 | 수현, 현덕 |
| 황인선 | 장수 | 이안순 | | | 진하, 은하, 민하 |
| 박행춘 | 밀양 | | | 현복 | |
| 박만식 | 울산 | 고연임 | | | |
| 최기철 | 전주 | 이명제 | | 우연 | 수연, 지혜, 은지 |
| 이현진 | 부평 | 강계순 | | 기연 | 희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유병구 | 기계 | 차은숙 | | 재민 | 예람 |
| 유체철 | 문화 | 이남숙 | | 유환, 용환 | 미숙 |
| 창호 | 순천 | 이은경 | | | 수현 |
| 강현우 | 곡산 | 남상미 | | 기준, 필준 | |
| 윤영열 | 과평 | 김태선 | | 대준 | 소연, 주연 |
| 김영환 | 김해 | 김태숙 | | 정현, 정철 | 정아 |
| 김태진 | 안동 | 배명선 | | | 도경, 세은 |
| 김병홍 | 김녕 | 김계화 | | 유석 | 지예, 지연 |
| 권오집 | 안동 | 빈순덕 | | 혁민 | 한별 |
| 황인석 | 창원 | 신정자 | | 황승환 | 미라, 미원 |
| 임재영 | 부안 | | | | |
| 임헌민 | 부안 | 이미정 | | 형준 | 정현 |

사진으로 본 종촌 2리



종촌2리 전경



종촌2리 국도(삼거리)



남면농협



남면농협



남면파출소



남면 우체국



남면 면사무소



연남 새마을금고



시장내의 의용소방대



남면 노인 학구 회관



연양초등학교



애향동심비



구. 시장터



구. 시장터



박철예여사추모비



6·25참전비



국가유공자비



국민헌정비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촌교회

3) 종촌 3리

종촌 3리

종촌 3리를 통틀어 화옥동(禾玉洞) 또는 옥동(玉洞)이라고 한다. 일제 때 행정지역상 부락이 합치면서 종촌리라고 불렀다.

1반

25호 거주한다.

상현고개

작은 뽕나무골에 있는 고개이다.

모듬내(습川)다리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제천천, 종촌천이 합쳐지는 곳이다.

방죽

수렁으로 물에 빠지는 논이다. 소 쟁기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쇠스랑으로 농사를 지었다.

찰방이

미질(米質)이 차지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논을 메워 농지 개량하여 농지로 사용한 곳이다.

일제시대말 기미년(己未年)에 다시 논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부근에서 유일한 저수지이다.

이사막골

황량하고 무서운 곳으로, 현재 성남중·고등학교 부근이다.

셋골

‘뽕나무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토지가 비옥해서 논 한마지기에 벼가 석 섬

씩 난다 하는데, 삼대군수가 나온 마을이라 해서 ‘셋골’ 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셋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

‘화옥동(禾玉洞)’ ‘옥동(玉洞)’ ‘잇골’ 이라고도 부른다.

2반 (큰 뽕나무 고개)

30호 거주한다.

옥동구례

1, 2, 3반을 합쳐서 ‘옥동구례’ 라 불렀다.

뽕나무골

‘송담리’ 옆에 있는 마을이다. 뽕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다해서 이 마을을 ‘뽕나무골’ 또는 ‘상현(桑峴)’ 이라 부른다.

서낭댕이

종촌 2리와 송담 1리 사이에 고목나무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음력 10월과 정월 보름에 갈떡을 올리며 보름제를 지냈다.

바깥 뽕나무골

뽕나뭇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 뽕나무골

동네 호수가 몇 되지 않아서 그리 부른다.

셋골윗산

이 산에 3기의 묘가 있다.

임기상(林崎相) : 조선 철종 壬午年 연일(延日) 현감(縣監).

임병호(林炳鎬) : 조선 선조 壬辰年 가산(嘉山) 군수(郡守).

임성철(林成喆) : 조선 고종 己未年 기린도 찰방.

백호(百戶)나리

이곳을 기점으로 종촌 2, 3리가 생겼다.

풍수지리학자가 이곳은 큰 동네(百戶)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다.

현 연양 초등학교 뒷날을 가리킨다.

솔고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판(書板)날

서판 (글 쓰는 연습판) 같이 생긴 곳이다.

활터

국궁장 연습장으로 나무가 없고 넓은 들이다.

점촌고개

용기점으로 가는 고개이다.

임예철 공적비

임성철의 사촌으로, 임병호 조카이다.

새마을운동 선봉자로 전기와 전화를 마을에 끌어들이는 공을 세워 문화생활에 힘썼다.

4반

1995년 성남빌라, 세룡빌라가 건립됐다. 46호 거주한다.

노인합창단

종촌 3리 노인합창단(단장 오순창)은 1992년 3월에 설립됐다.

1993년 9월 마을노래 ‘원수산(임창철 작사, 박상서 작곡)노래를 시작으로 합창단을 설립, 종촌 3리 노인들이 농사일을 즐겁게 하며, 7천평 농사를 지어 수익금 80%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장학금, 마을잔치, 효자·효부 등에 쓰고 있다.

KBS 6시 내 고향 등 2003년까지 여러 회 방송출연으로, 이웃마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정서 작곡, 임창철 작사,
〈원수산 노래〉 종촌3리 합창단(단장 오순창)

1. 금강물 흘러흘러 세월은 가고
원수산 장하구나 아름답구나
오랑캐 무찌르신 가신님함성

2. 토성산 올라가서 소리외치니
몽고합단 물리치신 삼장군함성
원수산 산상봉에 실안개도네

후렴 : 우리들도 가신님의 본을 받아서
이땅을 지키리라 지켜가리라

생업

논농사, 양계장, 축산(한우)업이며, 양계는 연기에서 제일 크게 경영하고 있다.

주요 성씨

부안 임씨가 많이 산다.

주요 인물

임헌권 -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6개월 분의 봉급을 피난민들을 위해 기증했다.

이 공로로 1950년 3월 30일 고 이승만 대통령 감사장과, 1969년 12월 18일 고 박정희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임창철 - 새마을포장 2000년 12월

제보자 : 임헌봉(67), 임명수(73), 임백철(68), 임헌권(75), 김재문(74)

종 촌 3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재욱 | 부안 | 곽순례 | | 상묵 | 경숙 |
| 임창철 | 부안 | 장월임 | | 현장, 현관 | |
| 임공열 | 부안 | 박정임 | | 명성, 진성 | |
| 권명래 | 안동 | 강순예 | | 준성 | 미영, 미란 |
| 오순창 | 보성 | 남월순 | | | 정희, 정은 |
| 임덕철 | 부안 | 안인자 | | 현승, 현초 | 선희, 선영 |
| 박춘봉 | 밀양 | | | | |
| 유병숙 | 기계 | | | 오창균, 오경훈 | 오연실 |
| 전경복 | 담양 | 김이임 | | 병하, 병문 | |
| 김영자 | 김해 | | | | |
| 임헌봉 | 부안 | 한갑순 | | 찬수, 도수 | 현숙, 현희, 현옥 |
| 김월예 | 경주 | | | | |
| 임헌돈 | 부안 | 박영희 | | 학수, 안수, 옥수 | 연옥, 연희, 연숙, 연자 |
| 임헌구 | 부안 | 이성분 | | 영수, 창수, 근수, 춘수, 상수 | 영순 |
| 한동호 | 청주 | | 전복순 | | |
| 방영완 | 온양 | 김순자 | | 정조, 정현 | 정일 |
| 구은실 | 능성 | | | | |
| 유승남 | 강릉 | 전미남 | | 형철 | 선애, 정희 |
| 김창열 | 안동 | 나화엽 | | 용집, 주홍 | 한영, 은영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양명순 | 남원 | | | 인관섭 | 인정해 |
| 홍한표 | 남양 | 임미자 | | 성모, 성진 | 혜순 |
| 이금찬 | 한산 | 임영예 | | 부원, 안원, 태원, 호원 | |
| 이규창 | 전주 | 김진식 | | 종완 | 영순, 영옥 |
| 차만길 | 연안 | 한지영 | | 차건, 차민 | |
| 유명임 | 문화 | | | 조현준 | |
| 이선균 | 한산 | 김영기 | | | |
| 이학근 | 전주 | 이성자 | | 현진 | |
| 김기혁 | 안동 | 임향숙 | | 승호 | 정은 |
| 김경순 | 경주 | | | 윤주성, 조득길 | |
| 양기 | 남원 | | | | |
| 구자용 | 능선 | 정종현 | | 본문, 본승 | 지은, 미연 |
| 강선봉 | 진주 | 이현주 | | 강철, 강서, 강옥 | 미경 |
| 장달순 | 결성 | 남공순예 | | 주현 | 지숙 |
| 유지용 | 문화 | 정해승 | | 두현, 장현 | 자부: 김선옥 |
| 박종화 | 순천 | 이영숙 | | 인식 | |
| 정병오 | 동래 | 이동순 | | 일남, 일옥 | 지선 |
| 양순임 | 남원 | | | 임현영 | 임해숙, 임정숙 |
| 채재창 | 평강 | 강애자 | | 홍석 | |
| 배동오 | 성주 | 전쌍숙 | | 옥환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창식 | 진주 | 이주남 | | | 경미, 정미, 유미, 희정 |
| 정현교 | 동래 | 이순자 | | 의성, 의권 | 은주, 은숙 |
| 장정숙 | 결성 | | | 이광 | 이정원, 이정아, 이선아 |
| 서해옥 | 이천 | | | 임헌식, 임헌범 | |
| 박성공 | 순천 | 강영순 | | 희관, 희준, 희태 | |
| 이회용 | 전주 | 김전희 | | 대연 | |
| 이회양 | 전주 | 이미아 | 최진규 | 구연, 성진 | |
| 배태석 | 성주 | 김영옥 | 지창예 | 성수, 성찬 | |
| 김재문 | 경주 | 임헌순 | | 수희, 동희 | |
| 임헌옥 | 부안 | 김현숙 | | 준수 | 진아 |
| 이동연 | 전주 | 오복춘 | 임연철 | 병준 | 영자 |
| 황수연 | 창원 | 박종수 | | 장식, 명식 | 영선 |
| 목영일 | 사천 | 이경순 | | 성균, 의균 | |
| 임헌권 | 부안 | 박정순 | | 양수 | |
| 소영태 | 진주 | | | 병남, 병호 | |
| 임헌환 | 부안 | 여정선 | 유순예 | | 다솔, 한샘 |
| 김정현 | 경주 | 임헌자 | | 태완 | 민정, 민혜 |
| 박충식 | 순천 | 유선화 | | 상수 | |
| 임호수 | 부안 | 강미경 | 박노성 | 재훈 | 지현 |
| 유경예 | 기계 | | | 임학수, 임연수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신세철 | 평산 | 이복연 | | | |
| 장기열 | 결성 | | | 임정훈 | 임정선 |
| 박병염 | 순천 | 김영순 | | 홍규, 용규, 성규, 만규 | |
| 임진철 | 부안 | 이현숙 | | 헌무, 헌욱 | 상희 |
| 임헌귀 | 부안 | 박정자 | | 병수, 경수, 동수 | 손자 : 재용 |
| 임백철 | 부안 | 황인녀 | | 헌학, 헌상, 헌양, 헌용 | |
| 남궁찬 | 함열 | 윤개애 | | 준 | 진, 미 |
| 심상주 | 청송 | 노옥자 | | 대섭, 선일 | |
| 엄구룡 | 영월 | 김정혜 | | 태영, 태웅 | |
| 서상범 | 이천 | 함영순 | | 강철, 강욱, 용준 | |
| 최중섭 | 화순 | 정홍자 | | 재동 | 동희 |
| 최 민 | 화순 | 최관옥 | | | 은희, 승희, 윤희, 재희 |
| 이규창 | 전주 | 안옥선 | | 승진 | 효진, 수진 |
| 남상호 | 남양 | 임기자 | | 성환 | 지예, 지은 |
| 유철호 | 문화 | 임강순 | | 근원, 근주 | 근예 |
| 임명수 | 부안 | 황무진 | | | |
| 임헌성 | 부안 | 송재숙 | | 일수, 지수 | |
| 임헌창 | 부안 | 이재순 | | 효수, 용수, 열수 | |
| 임헌기 | 부안 | 배광예 | 이순임 | 완수, 준수 | |
| 임정목 | 부안 | 장정자 | | 규창 | 미경, 미영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진영목 | 여양 | 이성자 | 임홍철 | | 혜진, 화진 |
| 박노일 | 순천 | 이충한 | | 승규 | 춘미 |
| 박점예 | 순천 | | | 임헌범, 헌균 | |
| 강병예 | 곡산 | | | 임청수, 덕수, 영수 | |
| 최금순 | 화순 | | | 이정민 | 이정현, 정하 |
| 임재목 | 부안 | 이희숙 | | 완진, 용무 | |
| 강영자 | 진주 | | | 고상돈 | 고향미 |
| 배정숙 | 성주 | | | 임민영 | |
| 최정옥 | 화순 | 지연희 | | 대현 | 소현 |
| 배상협 | 성주 | 최수경 | | 영보 | |
| 임재숙 | 부안 | | | | |
| 이만순 | 전주 | 권종희 | | | |
| 최영호 | 화순 | 송영숙 | | 성진 | 성희 |
| 강영문 | 진주 | | | 준희 | 민희 |
| 성락훈 | 창령 | | 강일순 | | 매 : 은순 |
| 이호원 | 한산 | 고진자 | | 남오, 남제 | |
| 황인철 | 창원 | 임이배 | | 무환 | 란영, 진희 |
| 임동일 | 부안 | 임묘순 | | | |
| 임상철 | 부안 | 박경자 | | 현상 | 경미, 영실 |
| 김수만 | 경주 | 이옥희 | | | 미영, 미경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최기현 | 화순 | 임연희 | | 윤석 | |
| 심규남 | 청송 | 지인옥 | | 수용 | |
| 황건하 | 창원 | 한수경 | | 인한 | 경희 |
| 최승문 | 화순 | 김기은 | | | 유림 |
| 박만규 | 순천 | 이명희 | | 종진 | |
| 이정희 | 한산 | | | 지호, 원호 | |
| 인병두 | 연안 | 임정순 | | 태진 | 유미, 유진 |
| 황인걸 | 창원 | 김춘옥 | | 대환, 주환 | |
| 이상조 | 전주 | 이미자 | | | 정희 |
| 어영철 | 함풍 | 윤순이 | | 선진 | 진경, 진영 |
| 최원천 | 화순 | 김덕분 | | 사왕, 주왕 | |
| 임재학 | 부안 | 황민옥 | | 종호 | 지연 |
| 김승진 | 안동 | 서동숙 | | 은석 | 은정 |
| 황인혁 | 창원 | 김순옥 | | 대환 | 혜선, 혜진 |
| 전금택 | 천안 | | | 이영로, 이향로 | |
| 이소희 | 전주 | 박병숙 | | 재효, 준효 | 선효 |
| 박정서 | 순천 | | | 송준영 | 송은진, 송미 |
| 김점혜 | 경주 | | | 이안우 | |
| 전종태 | 천안 | 김현태 | | 효원 | 하염 |
| 윤인순 | 과평 | | | 임영수, 임홍수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명수 | 순천 | 임근순 | | | 은혜, 은희 |



종촌3리 마을 전경



종촌3리 노인합창단이
조치원문화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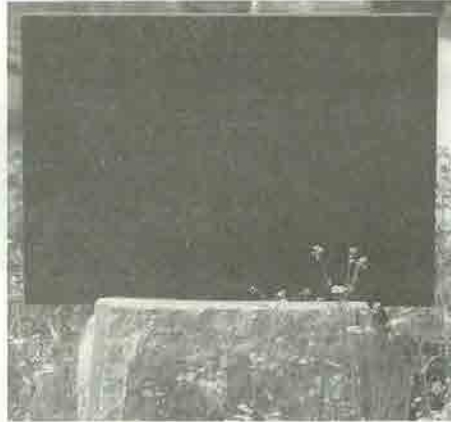
남면 농민의 집



종촌3리 마을회관



임봉수 송덕비



임예철비



송담침례교회



성남중 · 고등학교



성남중 · 고등학교

7. 방축리(方丑里)

백제(百濟)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남면의 일부(一部)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방축리(方丑里)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에 속했다.

그전에는 ‘관대마을’이라 불렀다. 도선국사가 황우(黃牛)가 외양간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 하여 ‘방축리’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방축이 있었으므로 방축이라고도 한다.

도람말

방축리 1반으로, 31호가 거주하고 있다.

도래마을이라고도 하며, 방축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地形)이 황소의 도래(뚜레 ; 고삐의 일종)처럼 생겼다 하여, 이 마을을 ‘도람말’이라 부른다. ‘근곡(根谷)’이라고도 부른다.

1979년 농촌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군에 처음 책정된 마을이다.

이 마을 가옥 전체가 2호를 제외하고 신개축을 자력으로 이루었으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문화 마을을 이루었다는 평이다.

시구재

어린아이가 죽으면 묻었던 곳이다.

하관대

관대 아래 마을이다.

서낭재

중촌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통미

마을 끝에 있는 산이다.

고삐바위

동네 앞에 바위가 6~7개가 고삐 모양으로 일렬로 있다. 그 중 1개는 새마을 사업때 유실됐다.

달밭

달(月)처럼 생긴 밭이다.

구수(구유)배미

현재는 도로로 유실됐다.

뒗골, 멩에 독, 당산재들

정지말

방축리 2반으로, 16호가 거주하고 있다.

통피라고도 부르며, 방축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성씨(成氏), 장씨(張氏), 이열녀정문(二烈女旌門)이 있다해서 ‘정문말’ 이라 부른다.

현재 옥천전씨가 많이 산다.

용모재

열녀문 뒤에 있는 고개이다.

통피

제재소 자리를 지칭하며 도램말 들어오는 입구로 갈운리로 편입되었다.

강신자리

논 이름이다.

섬뜰

들 이름이다.

디병골

양지말(원방축)

방축리 3반으로, 22호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로,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

몇 백년 된 대추나무가 있었으나, 오래 전 벼락을 맞아 지금은 없다.

원장골

선전 벼슬하던 사람이 살던 동네로, 말을 타고 가다 그를 보면, 말에서 내려가 야만 했을 정도로 유세가 대단했으며 부자동네였다.

그의 성씨가 원씨이기 때문에, 원장자라 불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말

방축리 4반으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음지에 있는 동네이다.

구례논, 냇가자리

턱골

방축리 5반으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방축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고종황제의 스승이었던 한림학사 임공(任公)이 내려와 살던 곳이라 ‘덕동(德洞)’ ‘턱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창원황씨(昌原黃氏)가 많이 살았다. 유덕군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하였다.

논천리(論天里)

논 천 다량이 있는 동네이다.

샷갓으로 덮으면 한 다량이 안 보일 정도로, 논 다량이 작게 나누어져 있다. 부안 이씨 통정대부 임하해(林河海)공의 재실이 있다.

원정골

큰 소나무와 서낭당이 있었다. 원정저수지는 현재도 있다.

옛날에는 한양을 가려면 원정골→화통고개→진의리→한양으로 가는 옛 길이었다.

황우산

3·1만세운동 때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누런 황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산

토성(土城)이 있고 진의리 끝에 있다

절(천광사)이 있었으나, 5공화국 때 철거되었다.

왕덕(王德)골

방축리 6반으로, 21호가 거주하고 있다.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솔모랭이

4반과 인접한 동네로 소나무가 많은 모퉁이 이다.

오가터

오(吳)씨가 많이 살았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곳이다.

화통(化通)고개

‘방축리’에서 ‘진의리’로 연락(連絡)하는 고개를 ‘화통(化通)고개’라 부른다. 병자호란 때 명나라의 장수가 here를 지나다가 본 즉. 여기에서 장차 유능한 명장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괴롭힐 것 같아서, 고개를 단칼로 잘라 통하게 하였다 해서 ‘화통고개’라 부른다.

생업

논농사, 밭농사(참깨, 고추, 콩), 과수(복숭아, 포도, 밤, 감, 은행)농사를 주로

한다. 1970년대 초에 작목반을 조직운영하고 국도 1호선 가 창촌, 방축 사이에 하우스터널로 논밭을 메워 높은 소득을 올린 때도 있다.

주요 성씨

부안임씨 약 30%, 창원황씨 약 20%가 거주한다.

제보자 : 이필선(65·이장), 임옥빈(69), 박건창(71), 임영창(63), 임현진(76),
임택수(83), 김영달(70), 임윤수(78), 김관수(61), 임춘자(61).

덕성서원

임헌회(林憲晦)외에 6인을 모신 서원이다. 음력 3월 초여드렛날 시제를 지낸다. 전재 임헌회 선생이 이곳으로 와서 후학을 가르쳤던 서원이다.

승덕사(崇德祠)

덕성서원 내에 있는 사당이다.

전재 임헌회 선생 외 6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원래는 이북에 있던 것을 임헌회 선생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은행나무

덕동(德洞)에 있는 나무이다. 이 곳 출신(出身)인 임엽(林葉)이 20여세에 군사감주부(軍資監主簿)의 벼슬까지 올랐고, 머리가 비상하여 의(義)에 두드러진 사람이었는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죽산(竹山)싸움에서 용감하게도 오랑캐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여 단신분투 하였으나, 역부족(力不足)으로 전사(戰死)하였다. 오랑캐들이 용장(勇將)인 그의 시체(屍體)를 유달리 끌어내서 불태워 버린 것을 봐도 그의 용맹을 알 수 있다.

그 후 후손이 전지(戰地)까지 찾아가 불탄 시체(屍體)의 재를 한 주먹 가지고 와서 이 곳에 초혼(招魂)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매년(每年) 병자년이면 이 은행나무의 나뭇잎이 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수령이 410여 년이 되는 은행나무다.

성재산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토성(土城) 1.2km가 있다.
진의리, 방축리가 병합되어 있는 산으로 장군바위가 있다.

원수산

이산 서쪽 기슭에 부안임씨 통정대부 임하해(林河海)공의 묘소가 있다.
형제봉, 질마산, 문필봉이라고도 부른다.

솔모랭이산(뒷산)

4반과 6반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대덕사(大德寺)

1995년에 창건하였다.
마을 동쪽 원수산 아래에 있는 사찰이다.

만남의 장

4차선 국도변에 있는 방축휴게소로, 2002년에 임재상 씨가 건립되었다.

임익철(林益喆) 송덕비

부락주민들이 세운 비로, 곡도 1호선 방축리 도로가에 있다.

※ 마을 유래비

타고난 성품이 근실하고 검박하여 재산을 모아 능히 흘으니 고을에서
그 덕을 칭송하여 비(碑)를 그 명(銘)을 새겨 이르기를

어짚을 천성으로 타고나 효우(孝友)로 가정을 다스렸도다.
비록 학문을 못하였으나 스스로 정도(正道)를 세웠도다.
재물을 기우려 급한 일을 돕고 곡식을 나누어 굶주림을 구했도다.
근곡(根谷)의 봄바람에 백화(百花)가 동시에 만발한 것 같도다.

마을 유래비

최익환 새마을 승덕비, 임옥희 영덕비, 원수산 유래비

오산(熬山)

‘턱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마치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오산(熬山)이라 부른다.

산조천

임씨네 제실이 있었으며 산지기가 살던 곳이다.

가재울

가재 형국인 동네이다.

포상내역

최익환 : 새마을 협동장. 1981, 12. 9

최명환 : 충주 보은처장

임택수 : 62년 대통령 먼러포장

86년 대통령 동백장

방축리 세대주 명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김관수 | 광산 | 김성자 | | 용권, 용현 | 용주 |
| 김영달 | 김해 | 김양옥 | | 일섭, 영달 | 정숙,길숙,달숙,지숙 |
| 김지용 | 경주 | 임진영 | 김영주 | 김강현, 기현 | 김현미 |
| 김오중 | 광산 | 박영희 | | 김희정 | |
| 권정순 | 안동 | | | 유상근 | 자부: 조순진 |
| | | | | 손: 유병옥, 병옥 | |
| 강현기 | 곡산 | | | | |
| 김성수 | 경주 | 신경희 | | 기종훈 | 김해진 |
| 김맹기 | 경주 | 최진희 | | 김진수 | 김진숙, 진주 |
| 김지춘 | 경주 | 전은숙 | | 김현, 김동현 | |
| 김수봉 | 남양 | 주성순 | 홍갑분 | 김충식 | |
| 김순길 | 김해 | 남옥년 | | | |
| 김기복 | 경주 | | | | |
| 남재우 | 영양 | 이선옥 | | 남태호, 수호 | |
| 노재희 | 교하 | | | 노정호, 병호 | 자부: 이미애 |
| | | | | 손: 승진, 지은, 하은 | |
| 김정희 | 김해 | | | 임창준 | |
| 박건창 | 밀양 | 최정순 | | 성규, 진규 | |
| 박경순 | 순천 | 임애수 | | | |
| 박노중 | 밀양 | 김봉금 | | 박남규, 훈규 | |
| 박동운 | 밀양 | 김영학 | | 박영덕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병해 | 밀양 | | | 박성준 | |
| 박병오 | 죽산 | 하묵식 | | 박상현 | 박수정, 박나희 |
| 서천경 | 달성 | 이순복 | 정만 | 서정만 | 자부 : 조성규 |
| | | | | 손 : 서덕룡 | |
| 송만영 | 은진 | 민해숙 | | | |
| 신춘식 | 여흥 | 권상례 | | | |
| 신길예 | 영월 | | | | |
| 신종의 | 영월 | 유종임 | | 창하 | |
| 이윤식 | 경주 | 정숙자 | | 이원희 | 이연희 |
| 이종일 | 경주 | 임을순 | | 성호 | 이지연 |
| 임애수 | 부안 | | | 춘식, 희영 | |
| 임택수 | 부안 | 강계현 | | | |
| 임주수 | 부안 | 이차남 | | 임정훈 | |
| 임하수 | 부안 | 유수남 | | 임재득 | 자부 : 조금희 |
| | | | | 손: 태옥, 현옥 | |
| 임현익 | 부안 | 강희준 | | 임동수 | 자부 : 김진순 |
| | | | | 손: 경아, 경희 | |
| 윤복균 | 파평 | 곽만수 | | 윤종철 | 윤명옥, 순옥 |
| 오호근 | 보성 | 양장희 | | 상훈 | |
| 오필근 | 보성 | 정운분 | | 오정훈 | 자부 : 박영숙 |
| | | | | 손 : 슬기, 찬영 | |
| 이재충 | 경주 | 이상미 | | 이영토 | 이지은, 이민영 |
| 임현식 | 부안 | | | 임영수 | 임성실 |
| 임종수 | 부안 | 오순자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병수 | 부안 | 이동임 | | | 임선옥 |
| 임헌진 | 부안 | 강기분 | | 임정국, 의국 | |
| 임영창 | 부안 | 황순임 | | 임상진 | |
| 임영무 | 부안 | 김정태 | | 임상진 | 임진의 |
| 임결수 | 부안 | 석문순 | | 임용진 | |
| 임윤수 | 부안 | | | | |
| 임춘수 | 부안 | | | 임효주 | |
| 이기섭 | 남면 | | | | |
| 이수만 | 전주 | 이영희 | | | |
| 임경수 | 부안 | 유옥근 | | 임재상 | 자부 : 이임숙 |
| | | | | 손 : 동우, 현우 | |
| 임유수 | 부안 | | | | |
| 임주영 | 부안 | 곽은경 | 장찬향 | 세인 | 임세희 |
| 임세철 | 부안 | 이안자 | | 현장 | |
| 임희철 | 부안 | 박정순 | | | |
| 임응수 | 부안 | | | | |
| 임헌규 | 부안 | 오윤옥 | | | |
| 오세용 | 해주 | 채유순 | | 오광석 | 자부:임선경 |
| 임춘화 | 부안 | | | | |
| 임민수 | 부안 | 한순자 | | 임수미 | |
| 임복수 | 부안 | 박경순 | | 임재범 | 임진영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영수 | 부안 | 오순옥 | | 임상훈 | 임혜진, 임수진 |
| 임헌재 | 부안 | 현분찬 | | 임태수 | |
| 임한수 | 부안 | | | | |
| 임재영 | 부안 | 홍동복 | | | |
| 이병선 | 전주 | | | | |
| 임주빈 | 풍천 | 황규한 | | 임창일 | |
| 임영수 | 부안 | 이영자 | | 임재은, 임성일 | |
| 임맹수 | 부안 | 배숙희 | 황옥선 | 임재홍 손 : 임보영, 보라 | |
| 임옥빈 | 풍천 | 어연순 | 송석란 | | |
| 임헌준 | 부안 | | | | |
| 김용녀 | 평산 | | | | |
| 임예순 | 부안 | | | 황충성(자부:송영) 황둔성 손 : 황준호, 황소윤 | |
| 이갑순 | 고성 | | | | |
| 이승호 | 전주 | 이은경 | | | |
| 이일권 | 고성 | | | | |
| 이동배 | 전주 | 박순례 | | 이용식 | 이수옥 |
| 이필문 | 여주 | | | | |
| 이필권 | 여주 | 노순희 | 채중희 | 다형, 하영, 건형 | 지영, 나영, 선영, 아름 |
| 이필선 | 여주 | 임춘자 | | | |
| 이훈자 | 강진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남수 | 부안 | 강순남 | | | |
| 윤대국 | 해남 | | | | |
| 한중률 | 청주 | 장진숙 | | | |
| 정운재 | 하동 | 황복례 | | | |
| 전병도 | 옥천 | 안켈라스 | | 전태홍 | |
| 전경구 | 옥천 | 황희순 | | 전병돈 | |
| 전형구 | 옥천 | 임영순 | | 전병용, 병호손:전진영, 세용 | |
| 최원근 | 화순 | | | | |
| 최익환 | 화순 | 김기욱 | | 최재용, 최재관 | 손 : 최나현 |
| 최갑선 | 경주 | 이영순 | | 최준호, 최준영 | |
| 황천수 | 창원 | 유계준 | | 황혜성 | 황금성(사위:지병규) |
| 황정희 | 창원 | | | | |
| 황규석 | 창원 | | | | |
| 황공성 | 창원 | 임오목 | | 황규남 | |
| 황규렬 | 창원 | | | 황종선 | |
| 황규태 | 창원 | 강복순 | | 황승현 | 황정숙, 강옥 |
| 황규영 | 창원 | 손영숙 | | 황명현 | |
| 진병태 | 여양 | 이종순 | | 진영로 | 진이슬 |
| 조경선 | 풍양 | 최순천 | | 조충기 | 조난영, 조아라 |
| 조복자 | 한양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규완 | 창원 | 안기애 | | 황정선 | |
| 남재우 | 영양 | 이선옥 | | 대호, 수호 | |

사진으로 본 방축리



1981년 도로포장 준공



방축리휴게소



송덕사



송덕사



덕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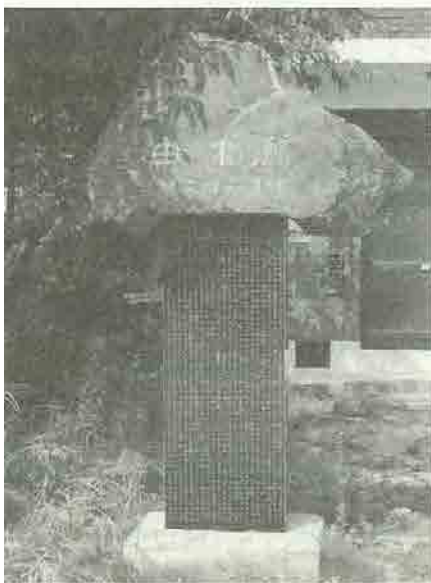
덕성서원



방축리



양지말 (원방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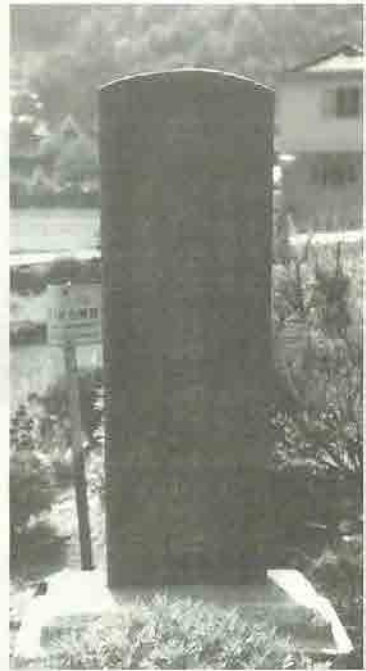
방축리 유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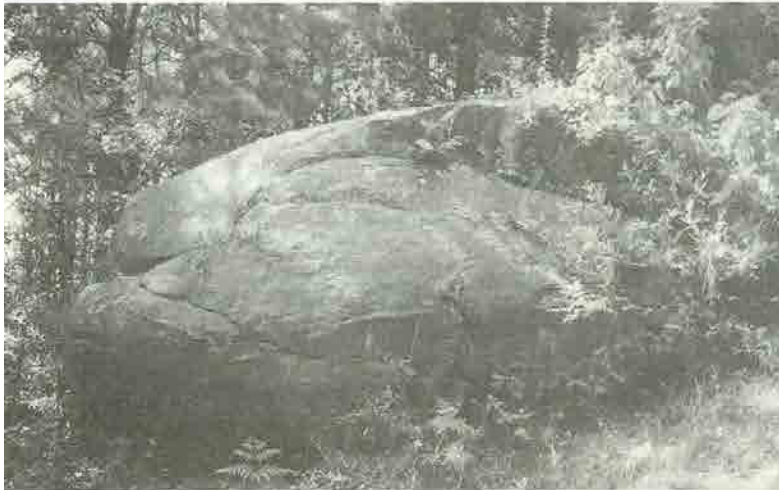
농협주유소



방축어린이집



임익철 공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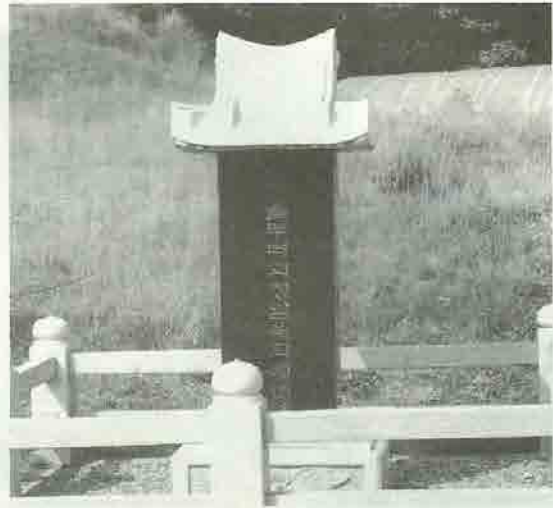
성재 장군바위



성재 우물



최익환 송덕비



임옥희 공덕비



독립유공자 효행자 비



원수산 유래비



덕성서원 은행나무



방축리 마을회관

8. 갈운리(葛雲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연기현으로 연산현(燕山縣)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현종 때는 청주(淸州)에 속했다가, 조선 태종(太宗)때 다시 연기현(燕岐縣)이 되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남면(南面)에 속하였으며, 산이 칩넝쿨처럼 엉키어 열기 설기 서려있고, 여기에서는 물이 귀하여 구름을 보아도 물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해야 할 지역이라 하여 갈운(葛雲)이라 하였다.

1) 갈운 1리

원갈운(原葛雲)

원래 갈운리 중심 마을이었던 곳이다. ‘위갈운’ 과 ‘아랫갈운’ 으로 나눈다.

매봉산

오류동 뒤에 있으며 예전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수망리(水望里)

수망재, 수명재라고도 하며, 갈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수망재

갈운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17호가 거주하였는데 현재에는 다인물산, 현암, 보리식품 등의 공장이 있다.

조산

시사촌(묘)이 있다. 조산 정상에는 갈운리 측량기점이 있으며, 조산 아래는 조씨들이 사는 마을 앞으로 수령배미, 돛병배미, 방죽배미, 서바탕, 명수배미가 있다.

갯바재

갈운 1리 앞산으로, 갯을 쓴 형상이다.

새고개

갈운에서 연기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를 새고개라 부른다.

은고개

고정리와 갈운리 경계의 고개로, 예전에 목장승이 있었다.

문앞논

마을회관 앞의 논을 말한다.

방죽

예전에 이곳에 방죽이 있었다. 현재에는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남궁산

남궁선생 선조의 묘가 있는 산이다.

현재 LG텔레콤과 KTF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인물

임난구 - 조선말기 성균지사 벼슬을 지낸 분이다.

임몽우, 임준철, 임기준 등은 일제시대 말 갈운리 매봉산에서 3·1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운동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 매를 맞았다.

생업

논농사, 고추, 참깨, 콩, 고구마, 복숭아 등을 주로 재배하고, 국도 1호선 변에 복숭아 판매 원두막이 10여 군데 설치되어 여름과 가을에는 판매를 한다.

주요 성씨

부안 임씨가 전체 주민의 약 30%를 차지한다.

제보자 : 임동철(78)

같은 1 리 세대주 명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기백 | 경주 | | 최옥순 | 정수, 정남 | 정화 |
| 신영애 | 평산 | | | 최영현, 재식 | 영숙 |
| 안덕순 | 순흥 | | | 신동선, 동윤, 동수 | |
| 김정순 | 광산 | | | 이재환, 흥한, 보한 | |
| 최기동 | 경주 | 황우초 | | 종선, 종찬 | |
| 임소순 | 부안 | | | 이양한, 태한 | |
| 김희태 | 경주 | | | 필수 | |
| 최혁수 | 경주 | | | 용식 | 영진 |
| 강진억 | 경주 | | 최순창 | | |
| 이관희 | 전주 | 강명선 | 최언년 | 재일 | 한솔 |
| 최기창 | 경주 | 차선숙 | | 종성, 종광 | |
| 최현수 | 경주 | | | | 희수 |
| 강기현 | 진주 | 박순정 | | 세종, 석종 | |
| 이진원 | 강진 | 유재숙 | | | |
| 성주헌 | 창녕 | 임수경 | | | |
| 이종복 | 전주 | | | | |
| 성의경 | 창녕 | 전광희 | | 기의 | 송아 |
| 안승우 | 순흥 | 이순동 | | 창근 | 형례 |
| 임건철 | 부안 | 권영화 | | 헌병, 헌항, 헌창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신순용 | 평산 | 성청자 | | 홍서, 학서 | |
| 임헌방 | 부안 | 강기옥 | | | |
| 임헌엽 | 부안 | | 박종례 | | |
| 장종환 | 결성 | | 최용숙 | | |
| 임재권 | 부안 | 조춘분 | | | 영숙 |
| 임재권 | 부안 | 서미정 | 이규남 | 광목 | 진숙, 민숙 |
| 이진형 | 강진 | 강경옥 | | 상영, 형영 | |
| 오희천 | 보성 | 정정례 | | 옥균 | |
| 홍종순 | | | | 임공수, 창수 | |
| 임헌배 | 부안 | 진정옥 | | 인수 | |
| 임영일 | 부안 | 오분표 | | 헌길, 헌술, 헌규 | |
| 윤광일 | 파평 | 김창숙 | | 부영, 부성, 상호 | |
| 임헌찬 | 부안 | 이은님 | | 호수, 광수 | |
| 임경수 | 부안 | | 유일순 | | |
| 최정길 | 경주 | 조정숙 | | 철식 | |
| 최영길 | 경주 | 이언순 | | 항수, 재수 | |
| 서충환 | 달성 | 이복순 | | 정업 | |
| 서정필 | 달성 | 박연주 | 정순덕 | 준석, 윤석 | |
| 표성수 | 신창 | 박경자 | | 근식, 근민 | 윤경 |
| 안광현 | 순흥 | 김복덕 | | 병진 | 수지, 지영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상덕 | 경주 | 이효순 | | 용운, 용호, 용수 | |
| 유용재 | 기계 | 이순근 | 임복순 | 경산, 선수 | |
| 이진석 | 강진 | 박진임 | | 원영, 광영, 세영 | |
| 이성우 | 전주 | 김죽정 | | 상석 | |
| 이은식 | 전주 | 양석 | | 범주, 동주, 일주, 관주 | |
| 이태주 | 전주 | | 안준순 | | |
| 이진용 | 강진 | 임재순 | | 구영, 승영 | |
| 김선호 | 광산 | | 이정순 | | |
| 양해용 | | | 송순예 | | |
| 김갑용 | 경주 | | | 시대, 시찬 | |
| 이호규 | 한산 | | | 관영, 찬영 | |
| 장진국 | 보성 | 조춘례 | | 상필 | 희숙, 영숙 |
| 정명자 | | | | 신재운, 재문 | |
| 이훈고 | 강진 | 임백순 | | 대규 | 현숙, 복례, 선옥, 선화, 지애 |
| 이성희 | 전주 | | | 임재근 | |
| 임지철 | 부안 | 김향숙 | | 우람, 현민 | 셋별 |

사진으로 본 갈운 1리



마을입구



수명재



갈운1리 마을회관과 노인정



원갈운



갈운리



수망도



쓰레기 매립장

2) 같은 2리

금사(金砂)

같은 2리를 통털어, 금사라고도 부른다.

‘원수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새울’ ‘검사’ 라고도 부른다. 고려말 김씨(金氏) 한 사람이 이 곳을 지나다가 산세(山勢)를 본 즉, 산에 금줄기가 뻗었다 하여, 이 곳 지명(地名)을 금사(金砂)라 지었다. 문사(文士) 임낙용(林樂龍)의 호(號)도 금사(金砂)라 한다.

금사역(金沙驛)

금사(金砂) 서쪽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금사역’ 이 있었다 하여, 그때부터 금사역(金沙驛)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금사교(金沙橋)

금사 앞에 있는 다리로서, 1962년에 놓았다.

둥근나무거리

‘금사역’ 앞에 있는 큰길에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하는데. 예전에는 역졸들이 말을 매놓고 쉬어가던 곳으로 알려진 거리다.

둥구나무거리라고도 한다.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는데, 6·25때 화재로 소실되었다. 과발마를 교체해 주던 객사(客舍)가 있었는데, 관가에서 운영했다. 이곳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1992년 자연사(自然死)했다. 이 나무를 유성의 조각장이 사간 뒤, 그 조각장은 얼마 후에 죽었다고 전한다. 또, 6.25전에 느티나무의 가지가 초가집에 닿아 집주인이 나뭇가지를 제거하자, 어느 날 구렁이가 나타나 집 주위를 맴돌았고 그 후, 주인은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다. 느티나무가 자연사하자, 동네 청년들이 죽어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죽은 나무 탓이라며, 1994년 새로 나무를 식재하고 화를 면했다.

치알봉

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옛날 어느 부부(夫婦)가 자식을 두지 못하여 아들 하나 두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이 찾아와서 말 한 대로, 치알을 치고 백일간(百日間) 기도를 하였더니, 옥동자(玉童子)를 얻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 후, 그 아들은 커서 과거에 급제하여 권세가 대단하였다. 그 후부터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면 권세가 불길처럼 치솟는다 하여, ‘치열봉(熾熱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1리에서는 치알봉, 2리에서는 매봉재라고 불렀다.

비(碑돌)거리

양지말에 미륵이 있는 거리를 말한다.

양달말

금사 양달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말이라고도 한다.

1반으로 27가구가 거주한다.

감나무골

양지말 입구에 있는 마을로, 감나무가 많이 있다하여 감나무골이라고 부른다.

청룡날

지형이 높은 곳(穴)에 있는 마을이다.

매봉재

1리와 2리 경계의 산이다.

원샛골(원사(原沙)골)

2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갈운리에 있는 마을을 ‘원샛골’이라 부른다. 예전에 고을 원님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원숫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원샛골’이라 부르며, 또한 ‘원곡(原谷)’이

라고도 부른다.

비가 오면 산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사골이라고 불렀다.

남면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며, 바위에 원시그림이 있다.

원사골 가마터

같은 2구 9번지 원사골 소로길을 확장하다, 도자기 조각이 많이 발견되어 당시 노인회장(김인식)과 이장(최원식)이 공주대 사학과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고려시대 도자기를 구웠던 가마터로 추정했다.

원곡(元谷)

원셋골, 원숫골이라고도 하며, 원수봉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뜸, 윗뜸

봉화골

현 기도원 위쪽, 봉화산 밑에 있는 마을로 봉목동이라고도 한다.

손모랭이

솔밭 모퉁이를 돌아가면 소나무가 많은 동네이다.

안산

형제봉과 뒷산 사이에 있으며, 가재골 넘어가는 산이다.

가재골

1반에서 2반까지 걸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이 잡혔다.

홍고개

2반에서 연기로 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서낭당

양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사골 뒷산

기차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돌에 오줌 눈 자국, 사람과 말 발자국과 사람이 앉았던 자국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2개의 토굴이 있는데 주민들은 고려장 흔적이라고 말한다.

음지말

3반으로 20가구가 거주한다.

음지말에는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한 그루는 올목고개에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태워버렸다. 태우고 남은 나무를 밀마루 용기점(종촌)에 팔았는데, 그 용기점은 이유 없이 망했다.

다른 한 그루는 음지마을 중앙에 있었는데, 단오(음력 5월 5일)가 되면 온 동네 처녀들이 모여 그네 놀이를 했다. 아주 좋은 놀이터였는데, 느티나무가 너무 늙어 비, 바람에 소멸되어 지금은 없어졌다.

해지계

금사 마을에서 하루의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산마을을 말한다.

절터

아주 옛날에 아담한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 살지 못하고 태워버렸다 한다.

올목고개

3리 넘어가는 고개로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옛날에는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가야만 했던 옛길(舊道路)이다

황우산

방축산 경계에 있으며 산세가 황소같이 생겼다고 한다. 봉우리는 ‘황재’라고 불

렸다. 이 산에는 금광(금굴)이 있어 왜정 때 금을 많이 캐으나, 후에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이유는 원수산에서 전쟁을 하여 사람과 말이 죽어 피를 흘려 금(金)이 죽었다고 한다.

생업

논농사, 밭농사(고추), 과수(복숭아)를 주로 한다.

주요 성씨

부안임씨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다.

원수산(元帥山)

갈운리와 진의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의 높이가 233m가 되는데 봉우리가 둘로 되어 있다. 형제봉, 또는 부모산이라고도 부른다.

고려 충렬왕 때 거란군사와 크게 싸웠던 자리다.

연기대첩 후 몽고군이 퇴각하면서 “원수와 같은 산이다” 라고 해서 ‘원수산’ 이라 했다고 주민들이 전한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 뜻은, 높은 장수가 지휘한 곳이란 뜻이다.

원수산성(元帥山城)

원수산 산정(山頂) 남쪽에 있는 산성(山城)을 원수산성(元帥山城)이라 부른다.

고려 충렬왕 17년, ‘거란’의 내침(來侵)때 원장(元將) 설도간과 고려의 장군 한희유, 김흔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서면 정좌산(正左山)부터 적을 추적(追跡)하여 원수산성에 유진(留陣)하면서 적을 전멸시킨 유서 깊은 산성이다.

미륵불

400여 년 된 것으로 추측한다. ‘음지말 할머니 미륵’ 과 ‘양지말 할아범 미륵’ 이 마을입구에 서 있다. 6·25전부터 ‘미륵계’ 를 해왔으며, 논일을 해서 쌀을 걷어 정월 열나흘에 해마다 정성껏 미륵님제를 지내는데, 재앙을 막아주고 풍년농사와 주민이 평화스럽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주민 전원에게 소지를 올리게 하여 소원성취하기를 빌어 오고 있다. 그 덕인지 오늘날까지 마을은 무고하게

지내고 있으며, 6·25 동란 때 마을의 젊은이 6~7명이 참전했을 때,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 주민들은 미륵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제를 올리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제관들은 살생을 하지 말며, 비린내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부정
에 관한 모든 일을 삼가야 한다.

- 최원식 : 근정포장. 1999년 3월 31일
- 김인식 : 선친 3대 가선대부 10대

제보자

최원식(63 이장), 김인식(81), 김시관(53 새마을지도자), 임헌경(46), 오광수(58), 임송수(51)

갈 운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인식 | 경주 | 허소선 | | 진호 | |
| 김영식 | 경주 | 정희열 | | 시역, 시호 | |
| 김시은 | 경주 | 장영미 | 김대식, 이길복 | | 민서 |
| 곽동환 | 평풍 | 이예숙 | 곽인득, 윤정희 | 영근, 정근, 희근 | 수정 |
| 이옥순 | 안산 | | | 선하 | |
| 김상덕 | 청풍 | 유용순 | | 관영, 태진, 태철 | |
| 이재면 | 경주 | 신영옥 | | | 연경, 연희, 연정 |
| 이재옥 | 경주 | 임인숙 | | | 정희 |
| 임승철 | 평택 | 강선숙 | | 지영, 태영, 주영 | |
| 유기식 | 기계 | 임영희 | | 병각, 병삼 | |
| 임현서 | 부안 | 안경숙 | 진성운 | 기수, 문수 | 인순 |
| 김재식 | 경주 | 김정숙 | | 대한 | 민주 |
| 이현주 | 전주 | 박종호 | 허점순 | 용직 | 용미 |
| 김학남 | 경주 | 이종련 | | 종호, 종구 | |
| 박공식 | 진원 | 장순애 | 이순임 | 병우, 병진 | |
| 전수봉 | 옥천 | 임영자 | | 병배 | |
| 한길전 | 청주 | 김사순 | | 병수 | |
| 김현호 | 의성 | 오세난 | | 철희, 철웅 | 성희 |
| 조춘호 | 한양 | 임관순 | 김삼례 | 장희 | 희령, 인상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영길 | 충주 | 임영춘 | | | |
| 윤권병 | 과평 | 이명순 | | | 지수, 지원 |
| 차덕용 | 연안 | 신성순 | 이매월 | 용수 | |
| 이봉희 | 경주 | 김미화 | 김정희 | 권용 | 경은 |
| 임헌정 | 부안 | 추연희 | | 보구 | 혜영,보영,난영 |
| 임경철 | 부안 | 박호순 | | 헌궁, 헌호, 헌정 | 영옥 |
| 임재옥 | 부안 | 김옥자 | 장순희 | 금봉 | 진양 |
| 임광수 | 부안 | 안기례 | | 재인, 재규 | |
| 임도수 | 부안 | 하종미 | 이창봉 | 재면 | |
| 임남철 | 부안 | 심분례 | | 헌경 | |
| 최화숙 | 경주 | | | 임동혁, 임동화 | |
| 김달식 | 경주 | | 김이순 | 진옥, 시완 | |
| 임윤수 | 부안 | 박공순 | 이순례 | 재형, 재완 | 재경, 재하 |
| 이종진 | 거창 | 명노옥 | | 원식 | |
| 임명수 | 부안 | | 유경자 | | |
| 임헌용 | 부안 | 황명애 | | 영찬, 태찬 | |
| 임헌우 | 부안 | | | 성준 | |
| 임현수 | 부안 | | 최영순 | | |
| 임신수 | 부안 | | | | |
| 임송수 | 부안 | 김복정 | 임헌무 | 대운, 대승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고병길 | 제주 | 김문순 | | 태석 | 윤미, 영미 |
| 임상철 | 부안 | 최낙순 | | 문헌, 일권, 민영 | 미자 |
| 고광준 | 제주 | 박미원 | | 준석 | 가영 |
| 최원식 | 전주 | 양병숙 | 최봉규, 전분명 | 성락, 정락 | 영은, 현정 |
| 최윤식 | 전주 | 김성자 | 최봉규, 전분명 | | |
| 임용길 | 부안 | 박금순 | 박순 | 범석 | |
| 김시관 | 경주 | 김희선 | | 상우, 경우 | |
| 오종학 | 보성 | | | 성현 | 현정 |
| 오광수 | 보성 | 이복희 | | 장근 | |
| 김권식 | 경주 | | | | |
| 임길수 | 부안 | 전금자 | 박순 | 재필, 재표 | |
| 윤정환 | 파평 | 조춘영 | 이순기 | 상수 | |
| 이원호 | 전의 | 박상희 | | 상길, 상식 | |
| 임이수 | 부안 | 김보선 | 임허오, 이복순 | 재구 | 재효 |
| 지남진 | 충주 | | 지윤옥, 박순자 | | |
| 이태희 | 경주 | 안태순 | | 재범 | 지은, 선화, 소라, 보라 |
| 한덕수 | 청주 | 홍선희 | | | 상은 |
| 김귀환 | 경주 | 남장숙 | | 기덕 | 지영 |
| 최후자 | 경주 | | | 신재우 | |

사진으로 본 갈운 2리



마을전경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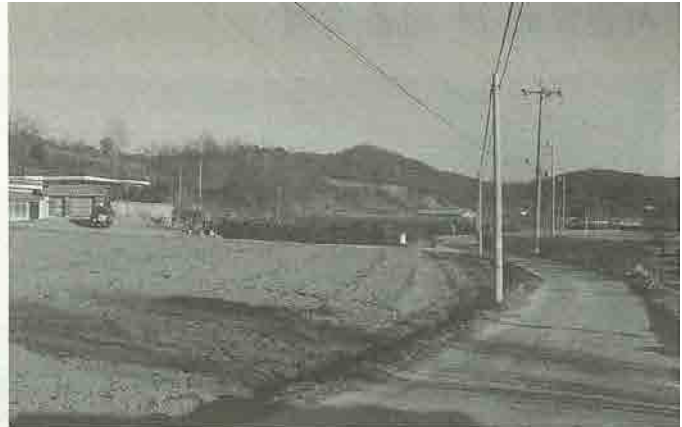
공동묘지



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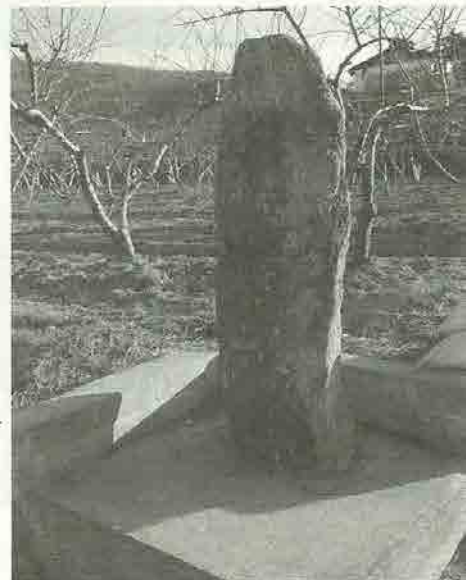
오강표 순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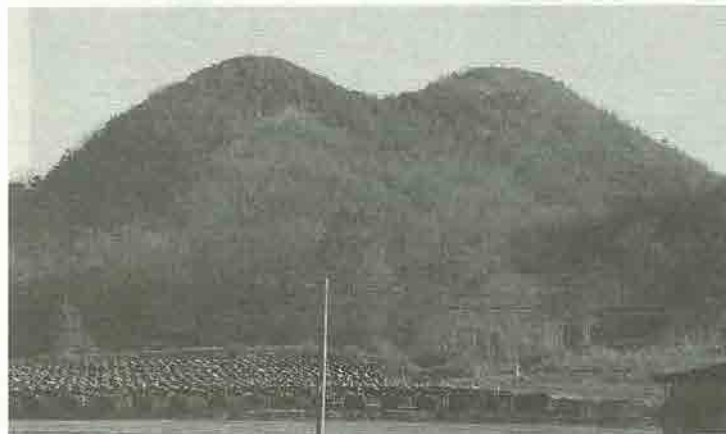
갈운2리



음지말 미륵불



양지말 미륵불



원수산 형제봉

3) 같은 3리

같은3리

3리 전체를 창촌(倉村)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관대’라고 불렀다. 양화, 진의, 방축, 눌왕, 고복저수지를 거쳐 개미고개까지 옛길이 나 있었다.

개발터(상촌 上村)

같은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앞산의 모양이 복호형(伏虎形)이다. 즉, 호랑이가 엎드려 먹이를 노려보는 형국이다. 같은 3리 1반으로, 9호가 거주한다.

표석골

옛날에 표석이 있었던 마을이다.

통피

산이 불록하고 봉우리가 홀로 되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재 제재소 자리다.

섬뜰

들이 섬처럼 생긴 곳이다.

모정터

개발터 뒷산에 모정(茅亭)이 있었는데, 6·25 때 없어졌다. 이 모정은 마을 서당(書堂)으로도 사용되었다. 일제시대 때, 이 모정에서 임정철 씨가 서당 훈장을 하였다.

2반 : 15가구 거주한다.

새나무터

방축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큰도덕골

깊숙한 곳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작은 도덕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모산골(茅山)

‘띠’가 많아 마치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해지계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즉 남향을 하고 있는 산이다.

황우산

황소가 앉아있는 형국의 산이다.

이 산에는 부안 임씨 전서공(임난수)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사위인 사직공의 묘와 비석이 있다. 비문은 1970년에 썼고, 비석을 옮길 때 소로 끌어다 세웠다.

자지택골

3반으로 8호가 거주한다.

창밀 아래쪽에 있으며, 뒷산을 지칭한다.

자지동(紫芝洞)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 근처엔 자지(紫芝)란 약초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자지택골’이라 부른다.

뒤봉골

밭처럼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매장

소나무 숲이 우거졌었다. 1947, 8년경에 집을 짓느라 소나무를 많이 베어서 지금은 없어졌다. 말(馬)을 매던 마을의 중심이 되던 곳으로, 현 마을회관 자리이다.

창촌(倉村)·창말

4반으로 13호가 거주한다.

예전에 사창(社倉)이 있었고, 마전답(馬田畓)과 말을 가두어 두던 창고(倉庫)가 있었다. 그래서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창촌(倉村) 또는 창말이라 부른다.

덕대골

덕대(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두던 나무)가 있던 곳이다.

상제(喪祭)는 나무 아래서 초막(草幕)을 짓고 1년 또는, 3년 상을 치렀다.

오가나무골

옛날 기와집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깨진 기왓장이 나오며, 예전에 디딜방아도 있었다.

모정(茅亭)날

띠로(띠풀) 엮어서 만든 정자가 있던 마을이다.

살가지군청

살쟁이가 많았으며, 들어가면 깊숙한 숲이 있는데, 얼마나 울창한지 하늘만 보였다고 한다.

샘

음력 1월 14일에 떡과 청주를 갖다놓고 용왕제를 지냈다.

현재 샘터만 남아 있다.

세시풍속

터주단지 - 장독대에 놓아둔 터주대감을 모신 단지이다.

연반계 - 주민 45가구가 참여한 계로, 가입비는 쌀 3가마였다. 왜정 때부터 시작했으며, 돈은 동네 애사(哀事) 때 주로 썼다. 현재 계장(契長)에 전영식 씨, 총무에 임재인 씨가 맡고 있다.

생업

축산업(한우 사육), 논농사, 밭농사(고추, 콩, 팥, 들깨, 참깨), 과수(복숭아) 등을 주로 한다.

주요 성씨

부안 임씨 50%, 중화 양씨 15%, 기타 여러 성씨들이 거주한다.

제보자 : 임재기(53 이장), 양태문(61), 임만철(69), 임재호(52 새마을지도자), 임춘수(59), 임길수(65), 최정례(83), 황호순(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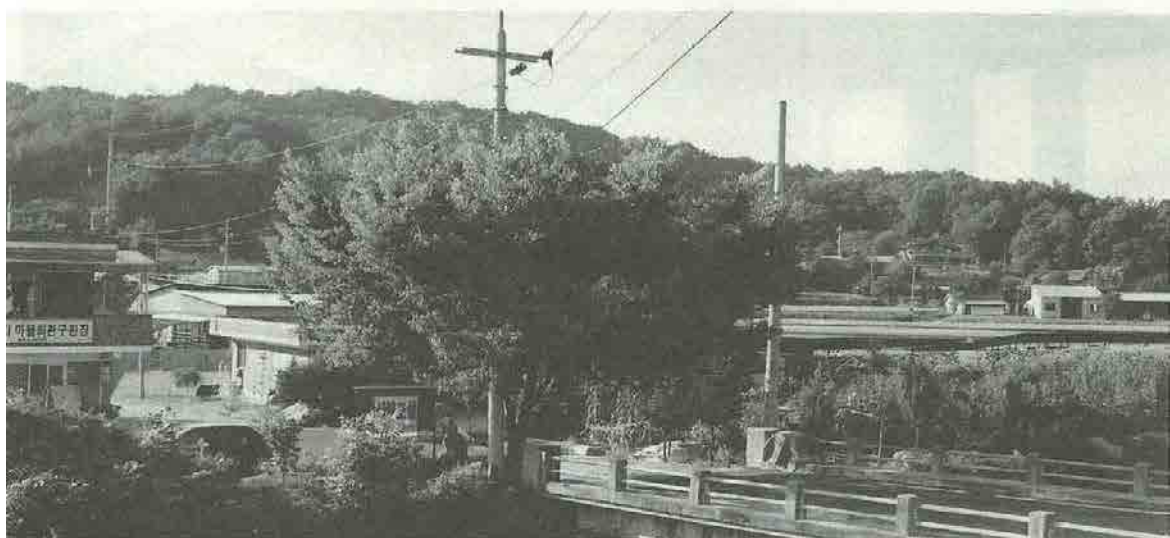
갈 운 3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전영식 | 옥천 | 김영희 | | | |
| 임중수 | 부안 | | | | 임희경, 은하 |
| 임헌덕 | 부안 | | | 임인수, 명수 | |
| 양태문 | 중화 | 황승순 | | 양경준 | |
| 양태일 | 중화 | 배계순 | | 양의준 | |
| 임헌관 | 부안 | | | | |
| 양태명 | 중화 | 최상녀 | | 양문준 | |
| 임무장 | 부안 | | | | |
| 임만철 | 부안 | 노재숙 | | | |
| 임헌우 | 부안 | 송순자 | | 임성진 | 임유진 |
| 송순섭 | 은진 | | | | |
| 임정철 | 부안 | 성기정 | | 임헌명 | 임정은 |
| 임헌범 | 부안 | 안월순 | | 임수필 | 임대옥, 영신 |
| 홍순만 | | 황계순 | | 홍동표, 현표 | |
| 임헌석 | 부안 | 박진희 | | | |
| 황호순 | | | | 임왈수 | |
| 박규채 | | | 손양선 | | |
| 임은수 | 부안 | 이은주 | | | 임가영 |
| 임빈수 | 부안 | 이승숙 | 유광식 | 임광재, 성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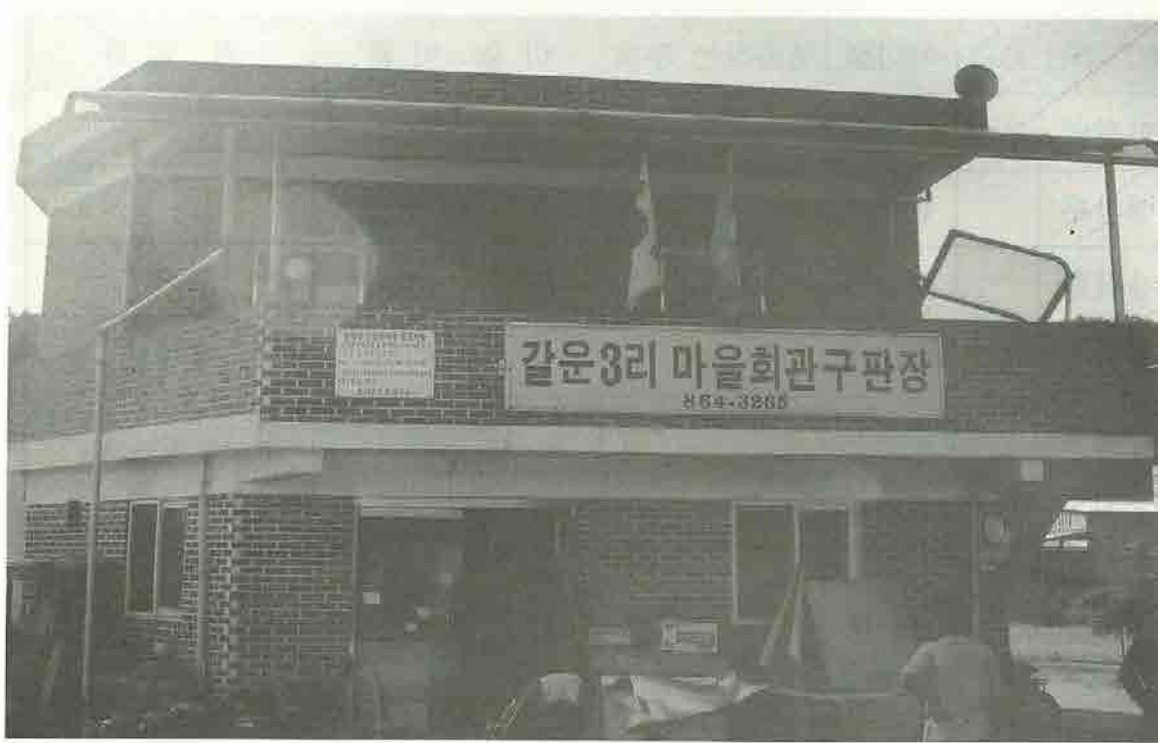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양수 | 부안 | 박희순 | 최정예 | 임승훈 | |
| 임재기 | 부안 | 이현숙 | | 임홍진 | |
| 임길수 | 부안 | 박춘선 | | 임상훈 | |
| 문건무 | | 강례원 | | 문민석 | |
| 구자춘 | | | | | |
| 권오태 | | | | | |
| 문명식 | | 김정숙 | | 문준환, 수환 | |
| 임상목 | 부안 | 손태순 | | 임규성, 규영 | |
| 임재호 | 부안 | 김옥태 | | 임진목 | 임영화 |
| 임영목 | 부안 | 유순애 | | | |
| 임재인 | 부안 | 안길순 | | 임태홍 | 임혜진, 은영 |
| 양태관 | 중화 | 송인숙 | | 양병진 | 양정아 |
| 임재현 | 부안 | 김명숙 | 정기연 | | 임효진 |
| 권정열 | | 강순진 | | 권기태 | |
| 김복임 | | | | | |
| 구명주 | | | | | |
| 장순원 | | 김정순 | | 장내혁 | 장윤희, 윤실 |
| 안금순 | | | | 임재구 | |
| 김영자 | | | | 임재인 | |
| 김영석 |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재익 | 부안 | 이명희 | | | |
| 배창무 | | 김수자 | | 배재구 | |
| 장석철 | | 임순옥 | | 장대영, 성영 | |
| 임한수 | 부안 | 최정숙 | | | 유한을 |
| 양태덕 | 중화 | 임옥희 | | 양상준 | |
| 유선리 | | 임민수 | | 유민 | |
| 장순례 | | | | 전병배 | |
| 임재갑 | 부안 | | 양복자 | | |
| 김명숙 | | | | 이용찬 | 이선아 |
| 강경식 | | 이은자 | | 강희범, 새봄 | 강애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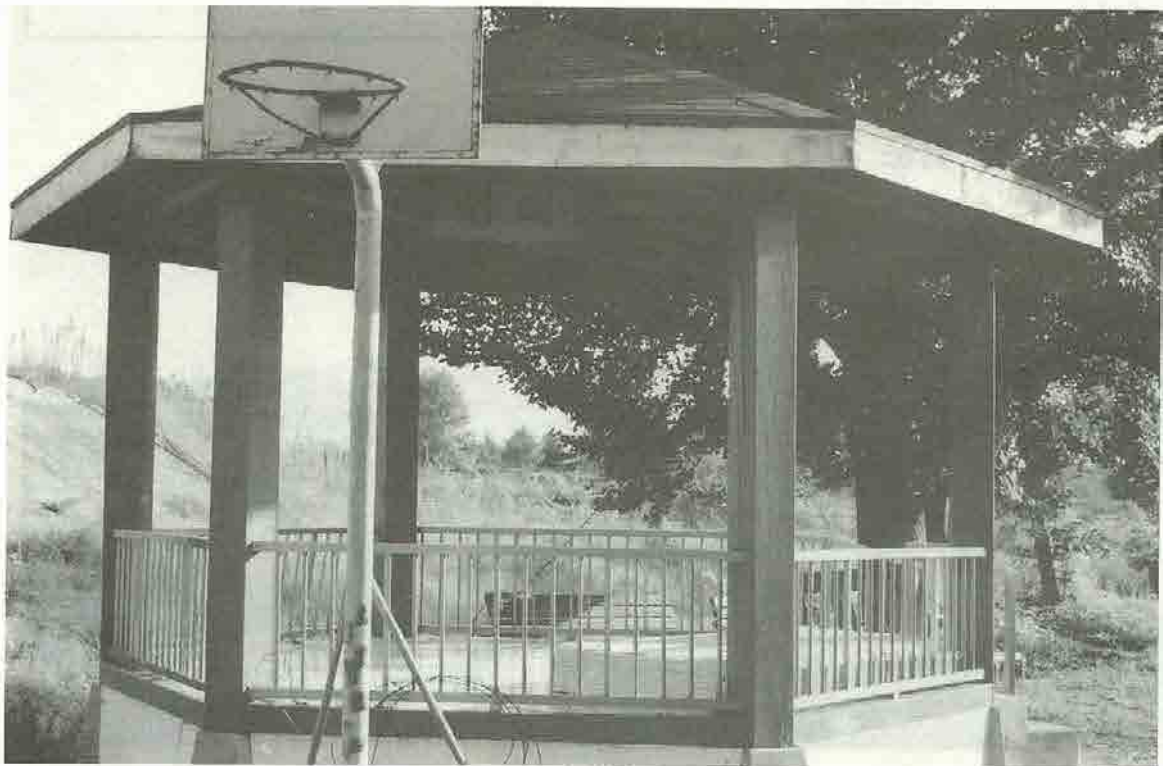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같은 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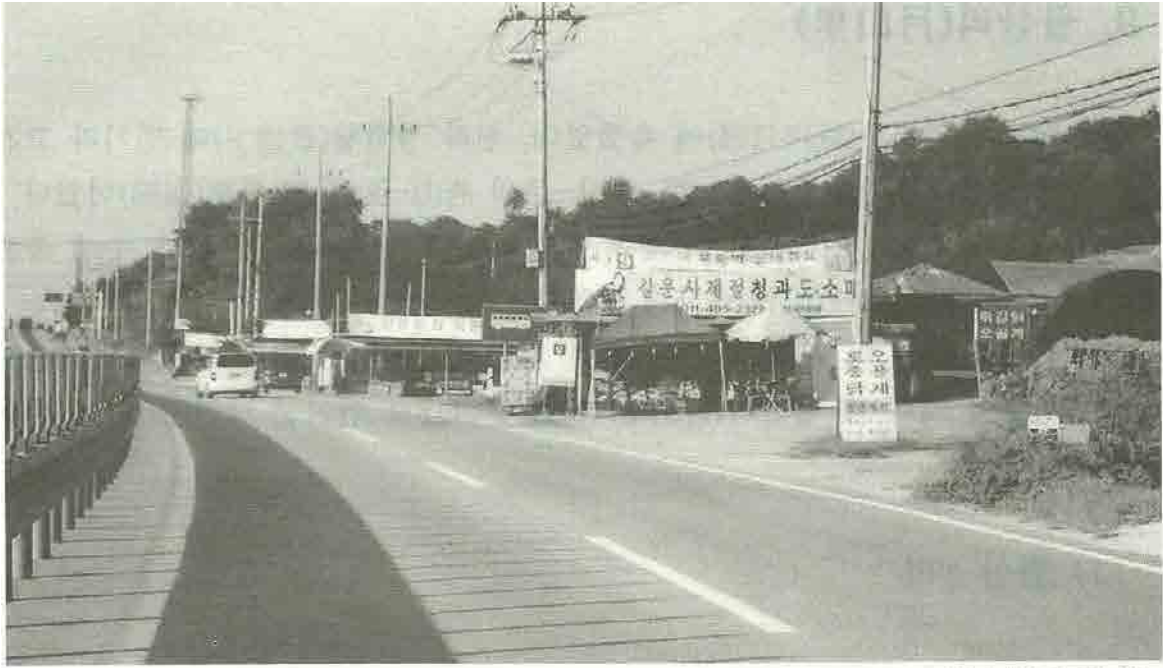
마을전경



마을회관



쉼터



도로변 복숭아 판매소



도로변플랜카드

9. 월산리(月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연기라 고친 그 안에 속하였다.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조선 태종(太宗)때 전의(全義)와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이었을 때 그 곳에 속했고, 그 후 연기현(燕岐縣)에 속하게 되었다.

전월산(轉月山)이 이 지역(地域)에 있다 해서 ‘월산(月山)’이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월산리(月山里)라 하여 그대로 연기군 남면(南面)에 속하게 되었다.

1) 월산 1리

꽃재

‘갯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야생화 꽃나무가 많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안씨(安氏)들이 선조산(先祖山)이 뒷산인데, 산형(山形)이 호화형(芦花形)이라 한다. 꽃나무가 많은 뒷산이 있다 하여 이 마을을 ‘꽃재’ 또는 ‘화현(花峴)’이라 부른다. 황골 백제시대 교통수단이 주로 수로였다. 한글, 소재지였다. 셋터말 지금도 계와 파편이 발견된다.

황골

마을 뒷산에 큰 계곡(溪谷)이 있는데 ‘한골’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 어휘가 변하여 ‘황골’이라 부른다.

또한 대동(大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부터 금강으로 지나는 배들이 이 곳 마을을 큰 마을이라 하여 대동(大洞)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도 이 곳은 큰 마을이었었다.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명당(名堂)이 있다. 부안 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해방 시에는 80호가 넘었는데 그 후 점차 줄었다. 주민들은 한씨가 사는 마을이라 ‘한골’이었었는데, 변해서 ‘황골’이라 부른다 한다.

강경에서 부강까지 소금배가 다녔다. 한글에서 조치원까지 30리, 대평리까지 10리, 부강까지 10리, 연기까지 10리, 종촌까지 10리인 거리다.

황골에는 ‘아랫서당터’와 ‘윗서당터’가 있다.

합강(合江)

월산 1리에 있는 마을이다. 금강이 ‘황골’ 마을 앞을 흘러서 미호천(美湖川)과 합치는 곳에 위치한다 하여, 강물이 합친다는 뜻에서 ‘합강’이라 부른다. 여기를 합강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여기에 지명(地名)이 없었는데, 하루는 한양(漢陽)으로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금강(錦江)을 건너다가 이 곳 지형(地形)을 보고 ‘합강(合江)’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하여 그 후 여기를 ‘합강(合江)’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동면 합강리와 남면 월산리, 금남면 반곡리의 접경지역으로 모두 합강이라 부른다. 또한 옛날부터 전라, 충청, 경상도의 금강물이 이곳에서 합친다고 하여 합강이라 하였다.

독정(獨亭)이 나루(花江珍-꽃벼루나루)

외딴 주막집이 있어 오가는 나그네가 더위나 식히며 유일하게 쉬어 배를 건너는 곳이어서 독락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안골

황골 안에 있는 동네이다.

승터골

모종 너머에 있었으며, 아이가 죽으면 갖다 묻었으므로 ‘애장골’이라고도 한다.

향교터

고려 때 향교가 있던 자리로 연기향교, 전의향교 보다 먼저 생겼으며, 연기군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향교였다. 병목안골 입구 편편한 곳이 향교터다.

매봉재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매봉재’라 한다. 매의 먹이인 부엉이가 많이 있으며, 새끼를 데리고 있는 부엉이굴(둥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개골편던

매봉재에 있는 편던을 지칭한다.

병목안글

개동 넘어가는 매봉재에 있는 큰 굴로, 병자호란 때 주민들의 피신처였다.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병자를 이곳으로 격리 수용하던 곳이다. 사람이 서서 10m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메워져, 기어서 겨우 들어간다.

석봉

서당이 있어 석봉이라고 부르며, 서당고개와 서낭당고개가 있었는데 공단을 지으면서 없었다.

정감사막골

‘정감사골’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정감사가 아픈데, 중이 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니 시주는 하지 않고 중을 내쫓았다. 정감사가 죽은 후, 그 중이 나타나 묘자리를 잡아준다고 하여 잡아주었는데 중이 호구(虎 “호랑이 입자리 구”)터에 묘터를 잡아주어 묘를 썼는데, 벼락을 맞아 비석이 산산조각 났다. 후손들이 묘를 보수하러 왔다가 우연히 다 죽었다고 한다.

개골

황골에 있던 동네였으나 지금은 공단이 들어섰다.

별말림

별판 같은 산이다.

화등재

‘하(河)등재’ 또는 처음 토지 등기를 냈다 하여 ‘하등기’라고 부른다. 일제 때 하(河)씨 군수의 산소가 있어 그리 불렀다고도 한다.

절고개

절이 있어서 그리 불렀다. 개동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이다.

눈썹재

바위가 눈썹처럼 생겼다.

명석바위

4차선 도로가 나면서 파손되었다.

서낭나무

개인이 벌던 서낭나무였다.

팽나무

마을 가운데 수령이 200여 년이 된 팽나무이다.

꽃재

진달래가 많이 피어 꽃재라 부른다.

통미

마을에서 금강 쪽으로 고인돌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다리개울

마을 앞 금강 변의 논을 가리킨다.

가물을 때 동네 아낙들이 키를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옷을 건어붙이고 물을 까 불렀다. 그러면 3~4일 후에 비가 내렸다.

치가리골

재산정자 있는 곳을 가리킨다.

공성굴

통미에서 다리개울 중간 부분을 가리킨다.

세거성씨

월산리에는 현재에는 부안 임씨들이 많이 살지만, 예전에는 창녕 성씨들이 많이 살았었다.

어부

금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주로 잉어, 모래무지, 처리, 메기로 낚시나 그물을 이용하여 잡는다. 1950년대 어부는 배갑성, 김만석, 배확실 등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았다.

웃말

효자정문 있는 곳을 가리킨다.

고무래봉

웃말 강가를 고무래봉이라 부른다.

합강섬

합강 쪽 강가에 있는 봉우리로, 비만 오면 섬으로 변하여 합강섬이라 부른다.

장날

부강시장은 5일과 10일, 조치원 시장은 4일과 9일, 대평리 시장은 2일과 7일, 중촌시장은 3일과 8일에 장이 섰다.

민속놀이

장치기, 풍물놀이, 짚으로 만든 공으로 축구차기 등 민속놀이가 있었으나, 약 15년 전부터 하지 않는다.

정문거리

효자문 앞에 있는 길을 말한다.

말등구리

양수장(일제시대 때 지음)앞의 길을 말한다.

말등구리 지나 예전에 절이 있었는데, 뒷산 바위에서 쌀이 나왔다. 쌀은 스님 한 사람 먹을 만큼, 하루에 한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스님이 욕심을 부려서 쌀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부지깅이로 후비니까 빈대가 튀어나왔다. 그 후부터 쌀이 나오지 않자, 주지가 못 살고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말과 같이 넘어져 뒹글자, 그 때부터 그곳을 ‘말등구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

꽃나루(花津) - 꽃벼루나루

부강에서 미호천으로 가려면 꽃나루로 가야 한다. 부강장(芙蓉江場)을 보려면 주민들은 선주에게 1년에 보리 1말과, 벼 1말을 주어 강을 건너 다녔다. 1977년도까지 배를 타고 다녔다.

이곳은 나루 주변에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 꽃나루라고 부르며, 예전에 노를 저어 배를 운영하다, 강 건너와 길다란 줄을 이어 놓아 줄을 당겨서 배를 건넜다. 때로는 여자들을 가운데로 몰아 남자들이 배를 뒤집는 장난도 하였고, 여자 사공이 건너다 물살이 세서 줄을 놓쳐 동네 사람들이 구해주기도 하였다.

장마때, 통나무가 떠내려오면 건져 팔기도 하고, 정월 보름날에는 배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상을 차려 놓으면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고사 돈을 낸다.

이곳을 이용한 동네는 월산리, 양화리, 종촌리, 송담리 주민들로 주로 부강장을 가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가마니를 만들어 팔러가고, 금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러갔으며, 역대 뱃사공으로는 차씨, 오건식, 안경호, 안길호, 안승록 씨가 마지막 사공을 했으며, 그는 1997년에 작고하였다.

느티나무

호군(護軍) 임경수공(林景秀公)이 심은 느티나무로 전해 내려온다. 임경수공(林景秀公)이 향리(鄉里)인 이 곳에 내려와서 월산리(月山里) 대동(大洞)에 은거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수명이 400여 년 되는 나무다.

금강 하류의 역수사(逆水砂)로 심은 나무로 수명이 길다.

생업

논농사, 고추, 깨, 콩 등을 주로 한다.

제보자 : 임영철(52), 김진수(52), 임현교(66), 임진수(69), 임현필(75),
한월석(63), 임방수(47), 임화수(74), 강철순(81), 이동례(89),
이은이(85), 이명순(60)

2) 월산 2리

개동(介洞)

전월산(轉月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개자(介字) 모양이다. 옛날, 이 곳으로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 곳에 유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지명(地名)을 지어달라 함으로, 그 선비가 말하기를 산형(山形)이 마치 개자(介字)와 같다 하니, ‘개동(介洞)’ 이 좋겠다 하여, 그 후부터는 개동(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개골’ 이라고도 부르고 ‘제동’ 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동’ 이라 부르는 것은 효종(孝宗)때 황(黃)선비란 학자가 여기에 살고 있었을 때,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이 황선비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가 마을 이름을 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제동(霽洞)’ 이라 부르게 하였다.

개동에는 사방(四方)으로 나가는 고개가 있는데, 양화 2리로 가는 ‘가래기고개’, 암천으로 가는 ‘연기고개’, 월산1리로 가는 ‘서당고개’, 갈운 2리로 가는 ‘짐새고개’ 가 있다.

갯골 마을은 97~98년에 월산 공단 매립으로 마을 전 주민이 이주했다. 현재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벽할미

혈(穴)이 금비녀가 벽에 걸린 것 같다 하여 ‘벽할미’ 라고 부른다.

양말

항상 양지가 드는 동네이다.

음말

항상 음지가 드는 동네이다.

등치락골

‘등곡’이라고도 한다. 등에다 지고 갈 수밖엔 없는 곳에 있다 하여 그리 부른다. 이는 길이 좁고 험하여 물건을 등에다 지고 나른다는 뜻이다.

서당골

서당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북쪽 개동과 경계에 있었다.

양마석

이씨(李氏)네 비(碑)가 많아서 그리 부른다 한다.

오얏마루, 양마석

오약고개

제곡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모룩묘기

음혈(陰穴)로서 이곳에서 용혈이나 장군봉을 보고 묘를 써야 좋다고 한다.

고제기

모룩묘지에서 고제기를 보고 묘를 쓰면 자손이 없다고 한다.

삼태미 밭골

삼태미와 같이 생긴 밭고랑을 말한다.

함박골

함박같이 생긴 밭고랑을 말한다.

안골명

큰 묘터가 있다고 한다. 봉우리가 황새봉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황소봉(黃牛峰)이라고도 한다.

등지미

등에 짐을 저야 넘어갈 수 있는 고개이다. 길이 좁다는 의미이다.

새터말

동네 동쪽 나루터 가는 곳을 가리킨다. 소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지형으로, 새터말이라 부른다. 이는 마을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다.

질마봉

소질마 형국이라 질마봉이라 부른다. 뒤에는 ‘뒷골’이 있다.

공동묘지

일제시대 때부터 면(面)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제보자

임영철(76), 오세용(58), 임재완(50), 채유순(50)

제산정(濟山亭)

임헌두가 아버지 임영휴의 뜻을 받들어 금강변에 세운 정자이다.

1920년 보수를 했고 1989년 중수를 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겹처마를 한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창방과 평방 사이에는 각각 2개씩의 화반 대공을 올리고 있으며, 어칸 상단부에 ‘제산정’ 각석된 현판이 걸려있다. 정자 내부 중앙에는 김영한이 지은 정자기가 걸려있고 좌측에는 임장우(林章佑)가 지은 정자기가 걸려있다. 이 정자는 효자 임수준 정려(1904년 명정)와 비슷한 시기인

1919년에 세워진 것으로, 효자 임수준의 둘째 아들인 비서승(秘書丞) 임영휴가 1905년 이후에 정자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의 아들 임헌두(林憲斗)가 이어서 완성을 하였다. 정자의 이름을 제산이라 한 것은 아버지인 임영휴의 호가 제산이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임영휴는 성품이 고왔으며 학과 덕이 출중하여 비서승까지 올랐다. 물려받은 천석지기를 줄이면서 이웃을 도왔으며 후덕한 성품을 근동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효자 정문

월 산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애자 | 밀양 | | | 김경진, 경체, 경배, 경원 | 유순 |
| 이금화 | 경주 | | | 임갑철, 진철, 정문 | 도완, 영숙, 경숙, 영옥 |
| 유숙자 | 기계 | | | 박형민, 박성기 | |
| 한월석 | 성주 | 허정임 | | 용수 | 은영, 은주, 경수 |
| 임순화 | 부안 | | | 김대영, 진성 | 기옥, 은숙 |
| 성명오 | 창영 | 박순남 | | 재현 | 인숙, 명자, 인희 |
| 임현춘 | 부안 | 이홍순 | | 천수 | 민정 |
| 임재용 | 부안 | 안승순 | | 성호, 의진 | 정실, 주희 |
| 정부용 | | | | 김기성 | 감기화, 기순, 기희 |
| 김순정 | 김해 | | | 임성묵, 선묵 | 임정옥 |
| 조미령 | 풍양 | | | | 김혜진, 차희, 복자 |
| 남봉순 | 을령 | | | 임경묵, 임용묵 | |
| 박금순 | 밀양 | | | 남궁성, 궁남, 궁길 | 남궁연 |
| 강인식 | 진주 | 방부자 | | 희백, 희웅 | 희남, 희분, 희완, 희자, 희연, 희선, 희향 |
| 남궁배 | 함열 | 유선희 | | 남궁윤, 궁원 | 남궁은 |
| 임영철 | 부안 | 김순애 | | 임용 | 은혜 |
| 이은국 | 경부 | 금금순 | | | |
| 임재국 | 부안 | 박효남 | 오말분 | 경묵 | 경미 |
| 임재원 | 부안 | 오금자 | | 정묵, 춘묵 | 선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재호 | 부안 | 박헌예 | | | 선목, 권목, 용목 |
| 김기순 | 경주 | | | | 미희 |
| 임헌교 | 부안 | 남궁숙 | | 평수 | 혜리, 민정, 현정 |
| 임헌봉 | 부안 | | | 장수, 창수 | 정숙, 정희, 경애, 경순, 란주 |
| 임원근 | 부안 | | | | 선영 |
| 임덕철 | 부안 | 이명순 | | 헌선 | 은란, 은선, 은정, 은아 |
| 임헌화 | 부안 | 박희규 | | 웅수, 태호 | 민정 |
| 임헌필 | 부안 | 이덕님 | | 성수, 백수 | 미용 |
| 임완근 | 부안 | 배귀환 | | 태영 | 임선미, 선화, 정미 |
| 김진수 | 경주 | 성명자 | | 김경수, 정수, 남수 | |
| 임진수 | 부안 | 오희분 | | 임재걸, 근평, 재두 | 인숙 |
| 남궁환 | 함열 | 장옥희 | | 남궁장, 공용 | 남궁경 |
| 임화수 | 부안 | 박인택 | | 재형, 재용 | 상경 |
| 임영길 | 부안 | 허분예 | | 헌홍 | 성숙, 명애, 명희, 선희, 현미 |
| 오봉순 | 해조 | | 이춘령 | 양근수, 두영 | 양윤경, 수경, 문경 |
| 오월세 | 보송 | | | 임재형, 재운 | |
| 오정애 | 보송 | | | 임재득, 재학, 상민 | 임재순, 애란, 문숙 |
| 임영상 | 부안 | 이경희 | | 헌필, 헌동, 헌남, 헌평, 헌찬, 헌주 | 희순 |
| 임방수 | 부안 | 노은경 | 강철순 | 재훈 | |
| 하재봉 | 진주 | 안기에 | | 영호, 관호 | 은희 |

사진으로 본 월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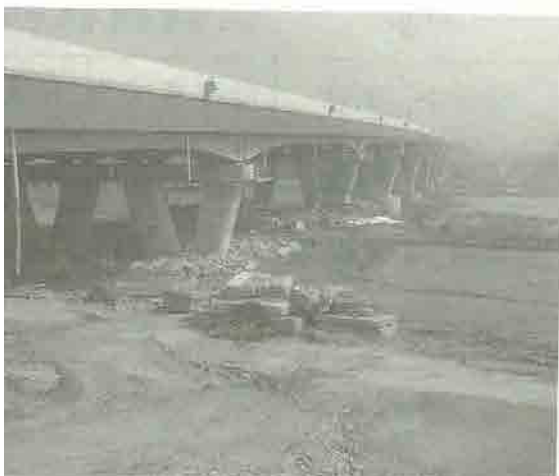
마을전경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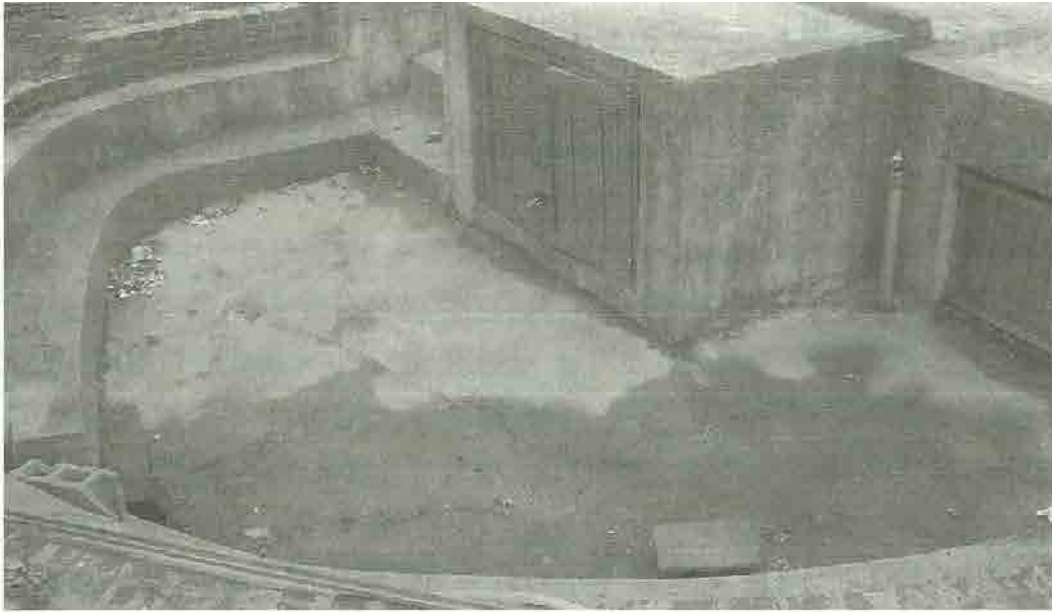
팽나무



꽃벼루나루에 놓여진 다리



월산리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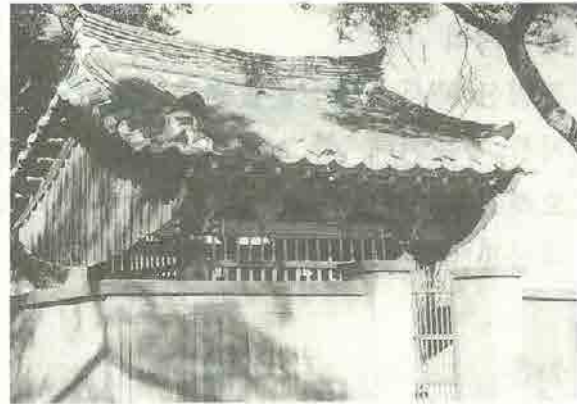
마을우물



월산리마을



도로공사 전 발굴모습



효자 임수준 정려

10. 양화리(陽化里)

옛날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청류부곡(淸流部曲)과 양화부곡(良化部曲)이 있었던 곳이다.

백제 때는 두양지현(豆仍只縣)의 지역(地域)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연기현에 속하였고, 고려 현종때 청주(淸州)에 속했다가, 조선시대에는 연기현(燕岐縣)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연기군 남면의 원암리(元岩里), 학천리, 월룡리, 내산리, 평촌리와 공주군의 이웃 마을 일부를 병합하여 양화리(陽化里)라 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양화리는 양화부곡에서 따온 이름이다. 현재 양화리는 1리, 2리, 3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리는 세거리가 중심마을이고 7반까지 나누어져 있다. 2리는 가학이 중심마을로 6반까지 있으며, 3리는 평촌이 중심마을로 1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1) 양화 1리

세거리

양화리와 진의리를 통털어 이르는 마을명이다. 동쪽의 형강(荊江)과 북쪽의 작천(鵲川) 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금강(錦江)을 이루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장사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마치 세거리를 이루는 것 같았다.

‘시거리’라고 부를 때도 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갈 수 있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세거리

전월산(轉月山)아래에 있는 마을을 ‘안세거리’라고 부른다. 세거리 안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이곳에 양화부곡(良化部曲)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대다.

내삼동(內三洞)이라고도 한다.

동촌

세거리 동쪽 마을로 70여 호에 달하는 큰 마을이다.

임승철 집 앞, 이만규씨집 옆 두군데 우물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없었다.

서촌

세거리 중간마을로 동촌의 서쪽마을이다. 40여호가 살고 있다.

골말

세거리 바깥편에 있는 마을이다. ‘굴말’ ‘구을촌(仇乙村)’ ‘곡촌(谷村)’ ‘바깥세거리’ ‘외삼(外三)’ 이라고도 부른다.

상고시대에는 청류부곡(淸流部曲)이 있었다.

정자동 우물

정자동 윤정환씨 마당에 있으며, 현재는 덮개를 만들어 덮어 놓았다.

사당마을

정자동

고려 때 전서공 임난수의 은거지이며 예전에 정자가 있던 곳이라 정자동이라 부른다. 47여 호가 살고 있다.

큰골안

도둑골

전월산 북쪽의 골을 지칭한다. 산중턱에 골이 하나 있으며, 이 골을 도둑골이라 부른다. 예전에 도둑들이 마을로 내려와 물건을 훔쳐서 이곳 골에 쌓아 두었다고 하며, 도둑들이 골짜기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여 이 고랑 전체를 도둑골이라 불렀으며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

산막골

황새말랭이

절골

남면 양화 1리의 산에 있는 뒷 골짜기를 ‘절골’ 이라 부른다.

옛날에 큰절이 있어서 그 절이 나날이 번창해 갔는데, 어느 해부터 빈대가 생겨 극성을 부려 중들이 모두 달아나고 절을 불태워 버렸다. 옛날에 절이 있었던 자리라 하여 이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 창건을 한 절은, 전사한 병사들의 넋을 봉안하고 그 후손들이 자주 찾아 들며 불공을 드렸으므로 크게 번창했다.

밀골

터진바위골

날가지능선

쌍바위

마을 남쪽 금강 물속에 있으며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다.

잉어바위

잉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떡바위골

넓고 무뚝뚝하게 생긴 바위로 지금은 없어졌다.

앵청이 나루

양화리에 있는 나루터다. 조치원 부강쪽에서 흐르는 물이 합치는 곳을 ‘합강(合江)’ 이라 하고, 그 합강에서 1km쯤 공주(公州)쪽으로 금강변(錦江邊)을 타고 내려오면 낚시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루터다.

예전 이곳에 ‘앵청이’ 라는 아가씨가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못 사내들이 이 곳에서 쉬어가곤 하다가 나루터 이름도 그 아가씨 이름을 따서 ‘앵청이나루’ 라고 부르게 되었다.

앵청이 나루는 강 건너 반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앵청이라는 처녀가 우연히 알게된 새우젓 장사 총각과 만나 백년가약을 약속하였는데, 그 총

각이 새우젓을 가지러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갔다가 약속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자, 그곳에 주막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여인은 남자를 기다리면서 못 사내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처녀로 늙어죽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에 벚나무가 많았었다. 앵청이의 앵(櫻)은 그런 연유로 붙여졌는데 삼지천 능선 끝에 강물을 막고 나무를 심었는데, 1920년 일제시대에 제방을 쌓고 양수장을 새로 읍기면서 많이 없어졌으나, 지금도 서너 그루가 남아있다.

백두정이

두령이 백 개쯤 되듯 많이 갈라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수밭뜰

무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근수나루

세거리 앞의 나루로 강 건너 신촌리와 연결된 나루이다.

용천(龍泉) - 용샘

전월산 정상부에 있는 우물로 용천(龍泉) 또는 영천(靈泉)이라 부른다.

여기 우물은 산 정상에 있으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으며, 가뭄일 때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전해진다.

옛날에 한 이무기가 금강(錦江)에서 백년을 지내고 산으로 굴을 파고 올라와서 전월산(轉月山)에서 백년을 지낸 다음 이 용천을 통해서 승천(昇天)하여 용(龍)이 되었다 하는데, 보통 이무기는 삼 백년을 물 속에 있어야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하지만, 200년 만에 승천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고려충신 임난수가 고려를 그리워하며 왕의 안녕을 빌었던 곳이다. 여기에서 명주실에 돌을 매달아 넣으면 그 명주실이 금강으로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며느리바위(명지도토마리 바위)

전월산에 있는 바위로서 큰 바위 위에 더 큰 바위가 올라앉아서 도토마리와 비

슷하여 머느리가 명주를 짜는 형상이라 한다.

상여바위

전월산에 있는 바위이다. 이곳에 정착한 고려장군 임난수가 매일 이곳에 올라 고려조정을 생각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압각수

양화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압각(鴨脚)이라고도 부른다.

이 고목(古木)은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에 심어진 나무로, 고려충신 전서공 임난수(林蘭秀)가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지절(不事二君之節)로 이곳에 은거하면서 집 주변에 은행나무 2그루와 백자나무 1그루를 심은 것인데, 백자나무는 일제시대에 고사(枯死)하고 은행나무 2 그루만 살아서 오늘에 전하고 있다.

회화나무

양화리 중앙에 있는 꽃나무를 임흥(林興)의 회화나무라고 말한다.

고려말 임난수 장군과 같이 고려의 충신으로 조선초기에 이곳에 은거하면서 나무를 심고 돌로 설단을 쌓았다. 처음에는 두 그루를 심었으나, 한 그루는 40여년 전에 고사하고 한 그루만 남아 있는데 수령이 580여년 된 고목이다.

산제당

동촌에 있다. 옛날 약 500여 년 전 부인 임씨가 세거하면서부터 있었다고 한다. 약 10년 전까지 산신제를 지내는 종답이 있는데 1200평 중 800평은 수인답으로 행사와 인건비로 쓰였고 400평은 산제당 제향비로 쓰였으며, 현재는 소실되었다.

전월산(轉月山)

양화리 뒷산으로 산의 높이가 262m이다.

청류부곡(淸流部曲)이 있던 구을촌(仇乙村)앞이 되므로 ‘구름다리’라 하던 것인데 한자로 전월산(轉月山)이 되었다. 산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가물 때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으며, 우물가에 능수버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커서 반곡을 넘어다보면 그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하여, 그 나무가 크기 무섭게 반곡리 사람들이 베어 버린다고 한다.

전월산의 버드나무

전월산 정상부(262M)에 있는 우물은 용천이라 부르는데, 이 용천 옆에 버드나무 한그루가 있다. 이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이곳 나무가 강 건너 반곡리를 향하면 반곡리 마을 아낙들이 미치거나 바람이 난다. 그래서 반곡리 청년들은 양화리 사람들 몰래 전월산에 올라 버드나무 가지를 자른다. 양화리 사람들은 못 자르게 막는데 그 이유는 버드나무가 잘 자라야 마을에 재앙이 없이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한다.

장남평야

양화리 앞 들판을 지칭하는데, 일제시대 이전에는 금강물이 흐르는 대로 놔 두어, 비가 오면 모두 강으로 변하였고 평소는 갈대와 늪이었다. 제방과 둑을 쌓으면서 넓은 들판이 만들어졌다.

주요인물

임헌연(林憲延) - 경기대학교 교수(한양대학교 교통 공학박사)

임헌문(林憲文) - KTF 상무(마케팅 연구실장,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이기순(李基順) -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서기관, 고려대학교 졸업)

조관식 - 국회 입법 보좌관 (국민대 정치학 박사)

제보자

임승철(76), 임헌국(85), 전성구(72), 임대성(71), 윤명근(65), 임건수(52), 임백수(49), 유해재(79), 황순익(80), 백도기(74), 안승재(54), 임정숙(60)

양 화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순임 | | | | 임관수 자부:서옥자 | 손:임윤영, 윤희, 윤지, 재신 |
| 임필수 | | | | | |
| 강병룡 | | 황의득 | | 강진경 자부:이지연 | 손: 강나연 |
| 신양호 | | | | 자부:김영자 | 손: 윤송렬 |
| 임현진 | | 유순익 | | 임연수 자부:황순녀 | 손: 임영웅, 은혜 |
| 박정순 | | | | 전만순 | |
| 황인순 | | | | 임성일 자부:이미숙 | 손: 임의영, 정현 |
| 임계철 | | 김선례 | | 임현찬, 현욱 | 금숙, 영숙, 혜숙, 현숙 |
| 서해분 | | | | 황규택 자부:손숙엽 | 손:황지호, 미진, 선우 |
| 임인수 | | 조성년 | | | |
| 임재문 | | 한정자 | | 임승목 | |
| 임대성 | | 임현희 | | 자:임선목 자부:배정임 | 손:민지, 주영, 혜린 |
| 임재득 | | 전기순 | | | |
| 임정길 | | 하재순 | | 임성덕 | 임은혜 |
| 유춘자 | | | | | |
| 오병기 | | 이창순 | | 오영균, 성균 | |
| 정화순 | | | | | |
| 김영달 | | 정수정 | | | 김순자, 미옥 |
| 임현복 |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전성순 | | | | | |
| 김청옥 | | | | 임경석 | |
| 신승하 | | | 강순임 | 임상욱, 임상신 | |
| 임옥철 | | 박성규 | | 임대준 | 애라 |
| 홍종금 | | | | | |
| 황순익 | | | | 임찬수, 백수, 송수 | |
| 임성철 | | 황옥순 | | | |
| 임용수 | | 이계순 | | 임경환, 재춘 | |
| 김복근 | | | | 임종수, 완수 손:재민 | |
| 송명순 | | | | | |
| 양기춘 | | | | 임배형 | |
| 임헌태 | | 진태분 | | | |
| 임덕철 | | 윤유순 | | 임헌우 | 은옥, 은선 |
| 임경수 | | 이국자 | | 임재범 | |
| 김명자 | | | | 임문수 | 임윤미 |
| 임병수 | | | | 임재창 | |
| 임종수 | | | | 임재학 | |
| 임화숙 | | | | | |
| 임부복 | | | | 이봉열 | |
| 임성수 | | 김용례 | | 김태민, 태훈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희성 | | 임정숙 | | 강현규 | 강영주, 영선, 은미 |
| 임헌중 | | | | 임학수 | |
| 임헌권 | | 이명화 | 오임선 | 임동혁 | 지혜 |
| 이 순 | | | | 재진, 재웅 | |
| 안인완 | | | | | |
| 전명구 | | 김영자 | | | 전주옥 |
| 임봉철 | | 이혜자 | | 임석주 | 임진주 |
| 임창수 | | 송점순 | 홍성열 | 임재동, 재상 | 지영, 지연 |
| 임백수 | | 김순득 | 황순익 | 임선기 | 임혜림 |
| 강춘자 | | | | | |
| 임경목 | | 안순득 | 백승수 | 임국환 | 혜란, 혜선, 혜주 |
| 박영자 | | | | 성대, 성태 | |
| 이영자 | | | | 조성철 | |
| 윤정환 | | 길경희 | 임석순 | 명렬, 경렬 | |
| 임헌의 | | 이필정 | | | |
| 임명수 | | 오세렬 | | | |
| 윤금자 | | | | 임재덕, 재고 | |
| 금정희 | | | | 신정, 채원 | |
| 임성목 | | 정미숙 | | 규철 | 정은 |
| 김병택 | | 박월화 | | 김일기 | 은영, 영옥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전성구 | | 박영희 | | 지현 | |
| 전을귀 | | 조옥희 | | | |
| 임헌식 | | 이애민 | | | 경진, 성진 |
| 김병오 | | 박월계 | | 진규, 정규 | |
| 여운교 | | 나병례 | | | |
| 임정목 | | 안승재 | | | 임지선 |
| 임하원 | | 박옥순 | 임경복 | | |
| 오석천 | | 임양순 | | 오문수 | 인숙 |
| 김홍규 | | 박혜정 | | 김진주 | |
| 임만철 | | | | | |
| 임재형 | | 권은숙 | 박재동 | 임현목, 장목, 창목 동생임재정 | |
| 임흥철 | | 윤정순 | | | |
| 임재영 | | 이선옥 | | 임경선 | |
| 임태산 | | 장영숙 | 권복임 | 임광성, 광룡 | |
| 임재학 | | 김애순 | 김복남 | 임진만 | 성은, 진주 |
| 황우성 | | 하재석 | | | |
| 김옥남 | | | | | |
| 임헌일 | | 전노련 | | 임우수, 억수, 효수 | |
| 김순자 | | | 임헌국 | 재록 | 은숙 |
| 임헌범 | | 오영자 | | 자:임공수 자부:최창난 | 손:임수빈, 영서, 재현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헌부 | | 민병순 | | 영수 | 정아 |
| 임청수 | | 김윤정 | | | 소윤,소희,선화 |
| 임헌완 | | | | | |
| 임승철 | | 안옥근 | | 현연,현성,현문,현영 | 안숙 |
| 송인창 | | 임재향 | | 자부:김미수 | |
| 이한순 | | | | 진수 | 수정 |
| 윤명근 | | 오숙자 | | | |
| 임홍수 | | 김옥순 | | | |
| 임재산 | | 이정자 | | | |
| 임원순 | | | | | |
| 임재원 | | 김선애 | 강오례 | 찬목 | 은혜 누이:임미옥 |
| 임덕수 | | 유해재 | | | |
| 백도기 | | | | | |
| 임명옥 | | | | | |
| 임택수 | | 이종남 | | 임재관, 재인 | |
| 이만규 | | | | | |
| 진점례 | | | | | |
| 임정근 | | 안윤순 | | | |
| 신정옥 | | | | | |
| 오희월 |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재균 | | 양옥순 | 장용진 | | |
| 임영목 | | 원정실 | | 임민규 | 은별 |
| 임흥근 | | | | | |
| 임헌국 | | 이성복 | | 손자:임승민 | |
| 임문철 | | 이광애 | | 임헌인 자부:김경진 손:채은 | |
| 임건수 | | 강남룡 | | 임재중 | 성하 |
| 임월수 | | 황효순 | | | |
| 임옥근 | | 박노희 | | | |
| 윤용근 | | 진봉례 | | | |
| 황귀익 | | 김영자 | | 황인섭, 인준 | |
| 임헌모 | | 민성자 | | 임형수 | |
| 임예순 | | | | 황규섭, 규만 | |
| 임헌우 | | 이종금 | | 임연수 | |
| 임탁수 | | 오덕균 | | 임한아 | 한나 |
| 정현숙 | | | | 임기수 | |
| 정재순 | | | | | |
| 임무철 | | 이순례 | | 임성록 | |
| 임선수 | | 왕혜옥 | | 손:임대한 | |
| 유석준 | | | | | |
| 강건석 | | 김갑쟁 | | 자:강환일 자부:임연숙 | 손:강진영, 해정, 수정, 두현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천영 | | | | | |
| 임재현 | | 강예자 | 홍종용 | 임승한 | 임혜영 |
| 황성순 | | 배명식 | 김인숙 | 황태봉 조카:황미미 | |
| 임헌완 | | 황성미 | | 임주영 | 보람 |
| 박길자 | | | | 임재석 | |
| 송종성 | | | | | |
| 김순래 | | | | | |
| 임헌란 | | 배문규 | | 임효준, 효신 | |
| 임민수 | | 박노임 | | | 임해진 |
| 임범수 | | 임수자 | | 임재두 | |
| 임헌빈 | | | 안노훈 | 동생:임헌배, 헌기 | |
| 임도수 | | 안산월 | | 생각 | 보라, 소라 |
| 임광일 | | | 유해분 | | |
| 임덕수 | | 서해월 | | | |
| 장인순 | | | | | |

사진으로 본 양화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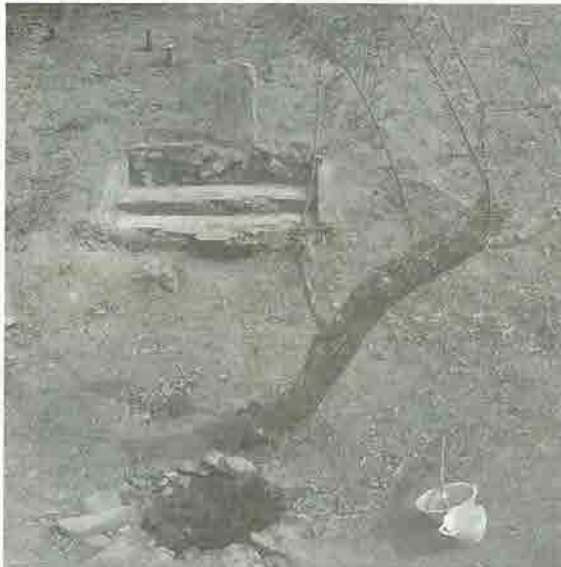
전월산에서 바라 본 양화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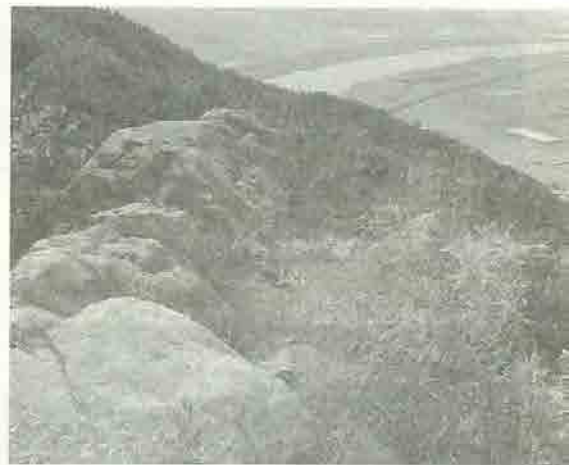
전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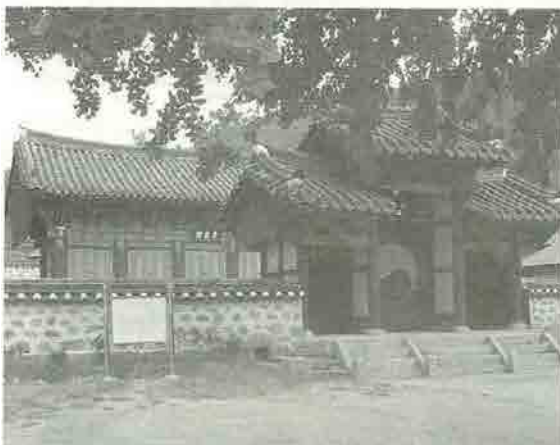
양화1리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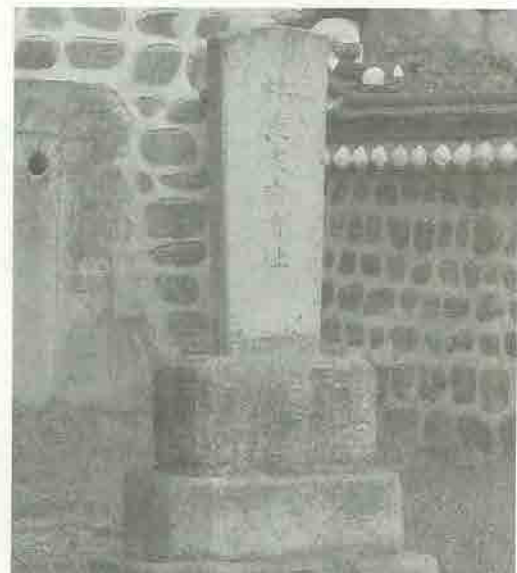
전월산 용샘과 버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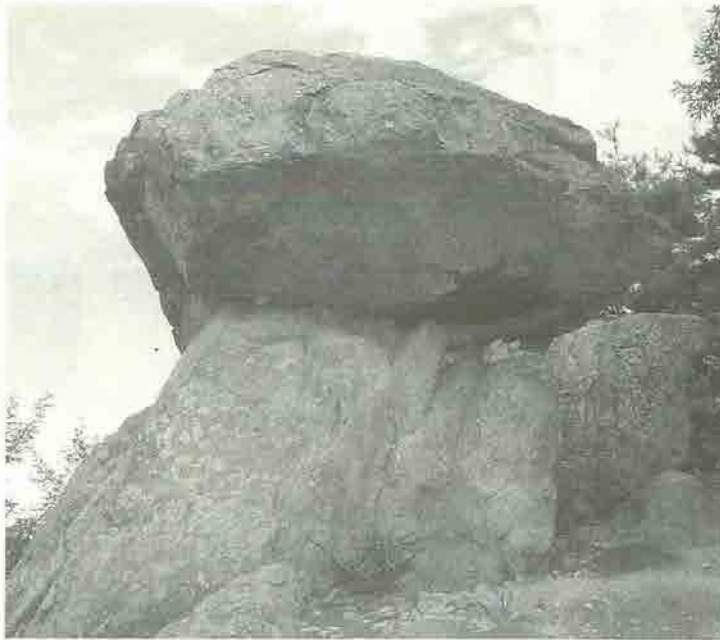
전월산 부왕봉과 상려암



승모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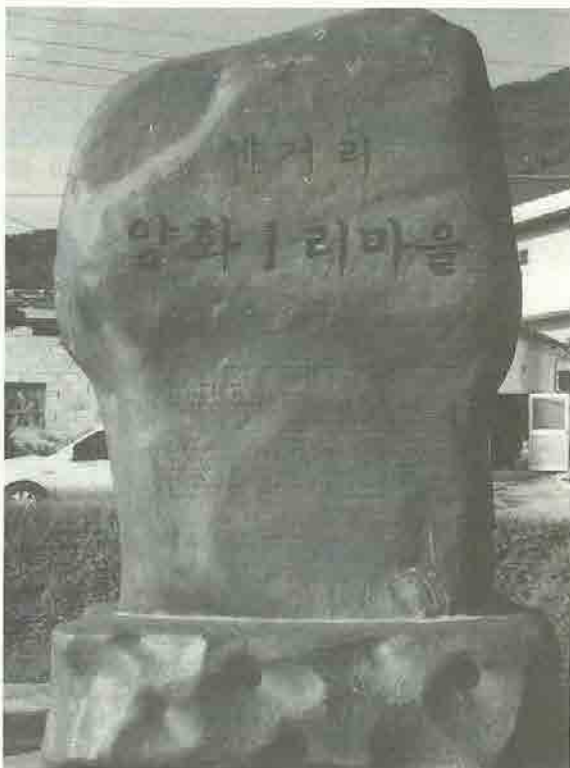
임씨가묘비



전월산 머느리바위



임재성 공덕비



양화리 마을 유래비



임원순여사 공덕비

2) 양화 2리

가학(佳鶴)

안세거리 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가라지(강아지풀)가 많았으며 지형(地形)이 학(鶴)의 형국(形局)이라 해서 ‘가학이’라 부른다.

그 외에 아랫말, 하촌, 학천, 가학, 가라기 라고도 부른다. 부안 임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마을의 생김새가 소의 멩에와 같다하여 멩에 가(駕)자를 쓰고 학의 형상이라 학(鶴)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얏고개

상촌에서 동쪽으로 원산리 개골가는 고개이다. 조치원장에 가려면 이곳을 넘어다녔다.

월룡(月龍)

전월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달이 먼저 뜨고 용이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곡 임정이 따님을 위하여 못을 파고 물을 가두어 초당(草堂)을 지어 이곳에 기거하면서 학문과 예절을 가르쳤다 한다.

학선대(鶴仙臺)

가라기 의 느티나무 뒤에 있는 바위이다. 학의 입(부리)과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형국이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이곳에 철탑을 세워 혈을 끊으니, 학이 철탑으로 인하여 날지 못하여 중요인물 배출을 막았다 한다.

원앙고개

가학에서 원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돌을 올려놓으며 소원을 빌었다.

원수사 고개가 변하여 원앙고개라 불렀다.

상촌(上村)

안세거리 뒤쪽인 원수봉 밑에 있는 마을로 ‘원암’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가운데서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그리 부른다.

서당골

예전에 이곳에 서당(書堂)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집

예전에 결혼식에 쓰였던 가마를 보관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쑥밭탕

상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막골과 도랑 건너 올라가면 쑥밭탕이 나온다. 이곳에는 쑥이 잘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티나무

마을 동쪽 언덕에 있는 느티나무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여름이면 이곳에 앉아 정담을 나누는 곳으로, 한산이씨 열녀비가 예전에 이곳 앞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 뒤쪽을 학선대라 부른다.

소편던

월용사람들이 이곳에 소를 매고 소갈을 베어간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왕봉 바위

부안임씨 중시조 전서공 임난수가 고려가 망하자 은거하며 매일 이곳에 올라 고려개성을 향하여 예를 올렸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부엉디미라고도 부른다.

원수산 산제

원수산 산제는 400여 년 전부터 지내오고 있다. 이곳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어느 도인이 지나가며 산제를 지내면 화를 면한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내력이다.

음력 11월 초에 지내며 현재는, 임장철씨가 산제당을 관리하며 매년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지냈으나 지금은 많이 약소해졌다.

평말

일명 곡촌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산수골, 독대골, 삼막골의 고랑이 있다.

곡촌이라 부르게 된 것은 동네에 계곡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막골

임정연이란 효자가 아버지(임하종 林夏鐘)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온갖 약을 구하여 봉양했지만 결국 돌아가시자, 묘를 쓰고 그곳에서 3년 간 시묘살이를 하니 동네사람들이 만고의 효자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이곳을 삼막골(三幕屈)이라 불렀다.

학동

학이 많이 날아온다하여 학동(鶴洞)이라 불렀다. 예전에 이곳에는 임윤손씨가 땅을 기증하여 서당을 지었는데 이곳을 야학당(공화당)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한글과 예절교육을 받았으며 지금은 그 터만 전한다.

모정

현재 양화2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임정수씨가 11평의 땅을 마을에 기증하였다. 이곳은 예전에 모정이었던 곳으로 정자처럼 지은 이곳에서는 여름에 지나가는 길손과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였었다.

아랫말

중심마을에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하촌(下村)이라 부른다.

장판재

장치기 놀이를 하던 고개이다. 예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갔던 나무꾼들이 이곳에 지계를 받쳐놓고 쉬면서 장치기 놀이를 즐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을 넘으면 진의리 성전 방앗간이 나온다.

시묘비

원수산 중턱 원수산제당 아래에 있다.

용곡 임정(林 - 율곡 문하생으로 서거정과 동문)이 부모가 돌아가시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여 효자로서 명성이 자자하며, 후손들이 이를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

열녀소(열녀비)

양화리 월용곡 뒤편에 있었던 연못을 열녀소(烈女沼)라 한다. 병자호란 때 생원 임상협(林尙)의 처인 한산이씨가 난리 속에 참살 당한 곳이라 해서 열녀소라 부른다.

한산이씨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아녀자들을 잡아가지 스스로 연못에 빠져 죽은 시늉을 하였다. 오랑캐들이 이씨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마을을 떠나는데 그의 아들이 물에 빠진 어머니를 보고 울자, 이씨가 물에서 나와 아들을 달래다 뒤돌아 본 오랑캐에 의해 발각되어 참살을 당하였다. 훗날 한산이씨의 열행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열녀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열녀비가 처음에는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에 총각들이 죽어나가자 열녀비의 원혼 때문이라며 마을 입구로 옮기는 등, 마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옮기곤 하여 수난을 당하다, 현재는 마을입구 도로변에 잘 세워져 있다.

원수산(元帥山)

남면 양화리, 진의리에 있는 산이다. 동민의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사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군들이 마침 쳐들어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끝내 우리 군사들은 적에게 산을 빼앗겼다. 그때 죽은 시체로 피바다를 이루어 골짜기가 생겼고 왜군에게 원한을 갚지 못하였다 하여 원수산이라고 부른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이 쳐들어 왔을 때 아군이 적군을 물리친 것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변형된 것 같다.

1293년 몽고 합단적이 쳐들어와 서면 쌍전리에서 1차 전투를 하여 대패한 합단적이 금강 건너 도망갔다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예견으로, 고려군사가 지키고 있다가 이곳에서 완전 섬멸하여 높은 장수가 이곳에서 지휘했다하여 원수산이라 지었다.

주요인물

- 임재혁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의원(현)
- 임재국 — 일본 와세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공학박사), 한국국제물류지원단 전문위원(현), 국립 한밭대학교 겸임교수(현)
- 임재형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정치외교학박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현)
- 임청산 — 대전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전공(문학박사), 미국 오랄로버츠대학원목회학전공(목회학 박사), 국립 공주문화대학교 학장 역임, 국립 공주대학교 영상예술 대학원장 역임, 국립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 교수(현)
- 임지수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장(현)
- 임명수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서울 치과 병원 경영(현)
- 임성조 — 중국 남경대학교 교수(현)
- 임동수 — 서울대학교 정신 신경과 박사, 안산시 신경 정신과 병원(현)
- 임헌원 — (전)중앙 정보부 비서실장

제보자

임근수(71), 오희복(74), 임양순(63), 임헌원(73), 임신필(58), 진옥선(63)
 임영수(60)

양 화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헌우 | 부안 | 황이순 | | 찬수, 관수, 전수, 복수 | 정례 |
| | | | | 손자: 재용, 재원, 재왕, 재현, 재형, 강복, 재관, 다습 | |
| 노문주 | 만경 | 임현숙 | 이화월 | 노광영 | 노보라 |
| 임만수 | 부안 | 김금자 | 이화월 | 비나리, 재숙(?)희 | |
| 임황수 | 부안 | 진순오 | 최병오 | 임재동 | 선숙, 네리 |
| 임낙수 | | 안승희 | | 임재호 | |
| 오희복 | 보성 | 임영순 | | 경균 | 옥순, 남옥, 남숙 |
| | | | | | 임숙, 희은, 태아 |
| 류근창 | | 홍은숙 | 류의진, 김정석 | 충걸 | 소영, 승걸 |
| 임헌율 | 부안 | 진옥선 | | 두수, 덕일, 덕기 | 경희 |
| | | | | 손자: 지은, 주은, 재운, 재혁, 재은, 영은 | |
| 임헌춘 | 부안 | 유영자 | | 명수, 운수, 우수 | 명숙 |
| | | | | 손자: 정화, 정민, 나래, 재유, 재연, 은아 | |
| 홍정예 | 남양 | | | 민수, 청수, 기완 | 민순, 영이 |
| | | | | 손자 : 재완, 재인, 재연, 은아, 진아 | |
| 이철순 | 전주 | | | 영일, 영기 | 연이, 영민 |
| | | | | 손자 : 창수, 범수 | |
| 임영수 | 부안 | 김순자 | | 재원, 재형 | 은영, 은실 |
| 박순자 | 밀양 | | | 임홍산 | 임향지, 임알초 |
| 임중수 | 부안 | 성재길 | | 재안 | 경희, 윤경 |
| 강장섭 | 신천 | 주경화 | | 기민, 기연, 기원, 기홍 | 미옥, 미숙 |
| | | | | 손자: 배현, 종현 | |
| 천경옥 | 영양 | | 천경옥 | 방용운 | 방수진 |
| 원옥식 | 원주 | 김석순 | | | |
| 임헌우 | 부안 | 안언돈 | | 기수 | 기순, 선자, 순자 |
| | | | | 손자: 재진, 수완 | |
| 임중철 | 부안 | 서정숙 | | 임헌진 | 임홍선, 정희, 세라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조성예 | | | | 양수, 호수, 청수 치수, 추수 | 부돌, 옥희 |
| 노옥순 | 교하 | | | 임현수, 임교수 임상수, 임은수 | 임노숙, 교숙 |
| 임의수 | 부안 | 전문세 | | 재혁, 재유, 재국, 재형 손자: 한솔, 한결, 한얼, 한준, 한길, 한상 | 윤희 |
| 임재무 | 부안 | 김소자 | | 상목, 형기 | 경님, 경희 |
| 임헌월 | 부안 | | | | 산희, 유희 |
| 연규찬 | 곡산 | 임양순 | | 배흠, 지현 | 호순 |
| 임재남 | 부안 | | 박옥희 | 이재남 | 현수, 희자, 재향 |
| 임복수 | 부안 | 김옥희 | | 재학, 재열 | 재란, 재화, 경화 |
| 임재석 | 부안 | 엄명자 | | 임현우 | 임은지 |
| 임백수 | | 오숙자 | 임헌기, 강무학 | 임재관 | 오순 |
| 임명재 | 부안 | | | 태성, 태영, 태준 | 임소용 |
| 이윤주 | 인천 | 강성희 | | 상현 | |
| 이문규 | 전주 | 박명란 | 이병산 | 종성 | 수진 |
| 임재성 | 부안 | 장혜숙 | | 선기 | 윤경, 상희, 진아 |
| 임헌백 | 부안 | 유치남 | | 양수, 일수, 달수 손자: 원선, 희진, 상현, 진영, 화평, 영광, 희정, 성원 | |
| 임헌경 | 부안 | 최근복 | 이성제 | 장수 | 자옥, 정은 |
| 임맹수 | 부안 | 임영순 | | 임재양 | |
| 임헌기 | 부안 | 강모학 | | 백수, 민수, 점수, 해수 | 점순 |
| 임근수 | 부안 | 이송자 | | 재평, 재종, 건종, 재창 손자: 현목, 한목, 성목 | |
| 임창수 | 부안 | 김순이 | 오오분 | 성진 | 영미, 은아, 수정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이수 | 부안 | 홍정자 | | 상조, 근영 | |
| 여광인 | 함흥 | | 박금순 | 여광남 | 여인숙, 미숙, 은숙 |
| 임갑철 | 부안 | 전옥순 | 박용례 | 헌길 | 일순, 미영 |
| 임영배 | 부안 | 남미경 | | 민수, 동수 | |
| 임은수 | 부안 | 김영주 | | 재의, 재우, 재원 | 미영 |
| 임헌태 | 부안 | 이영숙 | 조모: 안기순 모: 정진순 | 요셉, 요한 | |
| 임월수 | 부안 | 이종선 | | 재승, 삼일 | 지혜 |
| 오송자 | 보성 | | | 임헌명, 헌양, 헌범 | |
| 임태순 | 부안 | 최일섭 | | 재일, 재월, 재규 | 은숙 |
| 임헌양 | 부안 | | | | |
| 임말수 | 부안 | | | 재균, 상호 | |
| 임춘성 | 부안 | 안영숙 | | 임상혁, 임재환 | 차부: 신선영 손: 임지호 |
| 임 엽 | 부안 | | 유지순 | 성원 | 해영 |
| 장광순 | 결성 | | | 오명새 | 오순남 |
| 임강수 | 부안 | 홍은포 | 안연옥 | 임재윤 | 인순, 근자, 현우 선옥, 영의, 수연 |
| 이미원 | 신평 | | | | 김지술, 김건수 |
| 허순애 | 양천 | | | 임경호 | 임지연 |
| 임석호 | 부안 | 유정미 | 박수자 | 임장훈 | 임은지 |
| 이상준 | 한산 | 이원자 | 김기선 | 이민석 | 이민정, 이민경 |
| 노문길 | 만경 | 이명자 | 이화월 | 명호, 현호 | 애자, 현주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현상 | 부안 | 김영남 | | 상수 손자:재운 | 윤순,윤자,윤화,숙자,순복 |
| 임현창 | 부안 | 최신자 | | 경수, 화수 | 손자:재경, 경숙 |

사진으로 본 양화2리



원수산



동구나무



마을회관



열녀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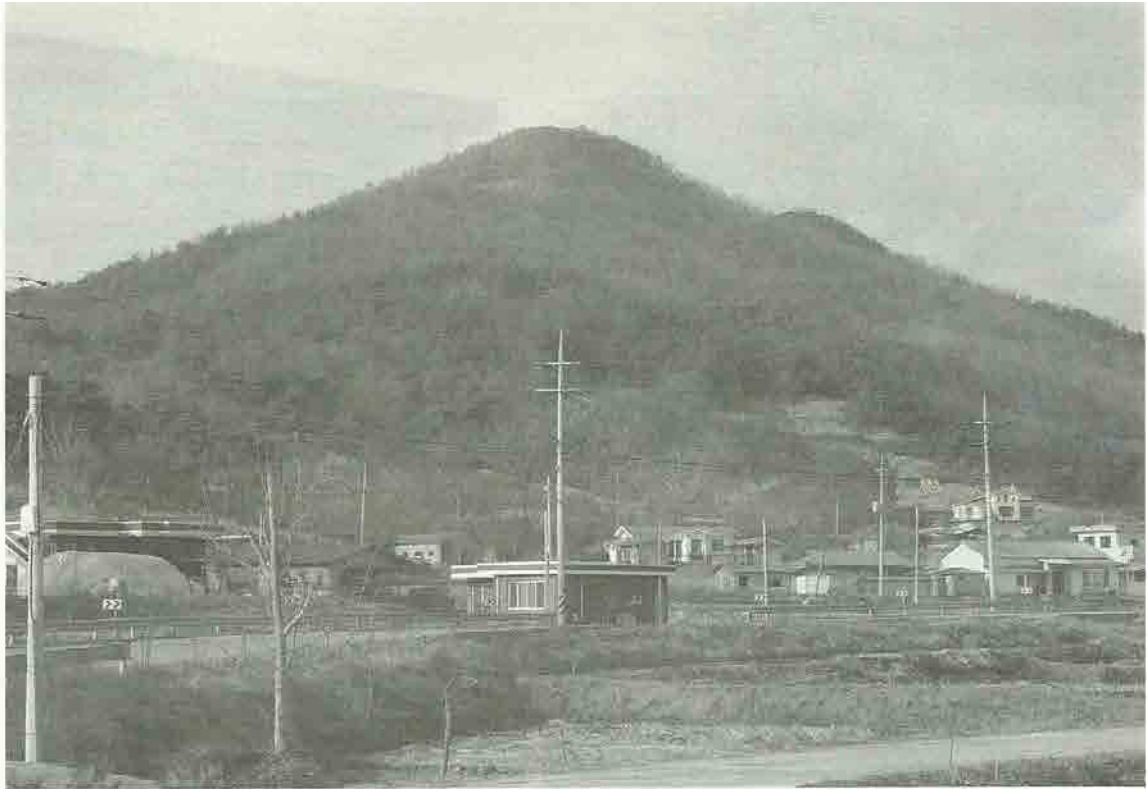
마을유래비



마을유래비



마을유래비



원수산과 양화2리



한산이씨 열녀비

3) 양화 3리

서산

달성 서(徐)씨들이 묘를 살 산으로 서산소(徐山所)라 부른다.
서관서 묘도 있다.

상관재

장치기 놀이를 하던 고개이다. 예전에 동네 청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이곳에 모여 쉬면서 작대기로 장치기 놀이를 하던 곳이다.

건양골

서산 아래 계곡을 말하며 마을 가운데 위치한다.

길놀이와 가래질

20여 년 전까지 칠석제를 지낼 때 놀던 놀이로, 도로를 내면서 풍습이 사라졌다.

매봉

서촌에 있는 산으로 아래에 서당이 있었는데, 이곳 훈장을 매봉선생이라 불렀다.

모래봉

치곡골 옆에 있으며 모래를 쌓아놓은 형상이다.

창다름(바위)빚장

모래봉 옆에 있다.

장군목 툼병

장남평야 내에 있었다. 20여년 전 경지정리하기 전까지 양화리 앞 들판에는 서너 군데의 툼병이 있었다. 제일 큰 것은 갈미 앞의 방죽이고, 다음이 세거리 앞 장군목툼병이 있었다.

쟁길내둑

가래기에서 시작하여 연세학교, 세거리 앞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냇가이다.

창달음

전월산 남쪽의 지형이 절벽을 이루어 창달음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당산골 도랑

송모각 옆으로 흐르는 도랑을 지칭한다. 당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으로 흐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치수골 전월산 서쪽 골이다. 60여년 전에 어느 보살이 절을 창건하여 운영해 오다 보살이 죽고 난 후 절이 없어졌다.

서광사(瑞光寺)

양화 3리에 위치한 사찰로 60여년 전에 창건하였다. 청주에 살던 보살이 이곳에 와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자식이 없어 양자를 찾다가 양자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이태화스님이 주지로 기거하고 있다.

사당골

전월산 서쪽 중턱에는 예전에 산제당이 있어 그곳을 사당골이라 불렀다. 산제당은 8년 전 어느 정신이상자가 부순 후 복구하지 않았다. 이곳 산제당에서는 매년 동짓달에 제를 올리다 어느 해부터 정월 10일경에 제를 지냈다. 현재에는 어느 보살이 이곳에 와 기도를 하고 있다.

큰샘

첫 번째가 서촌에 있는 우물로 마을 가운데 있다. 이곳 우물을 큰 샘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곳의 우물이 가뭄에 말라도 이곳의 우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려암(想麗岩)

고려말기 이곳에 은거하던 임난수 장군이 고려를 생각하며 시간만 나면 이곳 바위에 올라 고려수도인 개성을 향하여 무릎 꿇고 목상에 잠기곤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말(下村)

가래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촌(坪村)이야기

등 뒤에는 오성과 내판들(野)이 바다같이 펼쳐지고 앞으로는 장남(長南) 대평(大平) 벌이 망망하게 물결치는데 그 북판 한가운데 고고(高孤)한 모습으로 쌍봉이 서있다. 그중에 한봉 전월산(轉月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전월의 중심맥이 흘러내리다 한맥은 좌측 평촌으로 드러오고 한맥은 정자 동측으로 흘러내려서 묘지국을 이루었다.

좌측으로 들어온 맥은 평촌인데 문자 그대로 평평한지대로 흙이 두텁고 부드럽다. 그 가운데 오목한곳에 큰 집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곳이 평촌파조(坪村派祖) 임차현(林繼賢)과 그의 후손들이 살던 집이다. 이집은 찬현(繼賢)의 구대 손 임홍철(林弘喆)까지 살아서 구대(九代)를 3000석으로 누려왔으니 가히 자랑할만하다 하겠다.

나의 기억으로는 이집에 구조는 안채와 밖채로 나뉘어져 있는데 밖채는 칠간(七間) 대청이 있었고 그 옆에 재실이 있고 사랑방을 합쳐서 방이 세개 있던 걸로 기억한다. 내귀에는 풍경이 달려있었고 바람이 불면 소리내어 울었다. 사랑 처마 밑에는 무수한 음각(陰刻)한 액자판(額字板)이 걸려있었던 걸로 기억난다.

어린이들은 칠간대청에서 다름 박질하며 뛰어놀았다.

정자동쪽으로 내려간 맥(脈)은 길게 떨어져 있는데 이를 이르기를 옥통소혈이라 한다.

거기에는 줄줄이 칠대(七代)의 묘소가 있다. 이 묘국(墓局)이 좋아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달하였다 한다. 현감(縣監)이 한분 군수(郡守)가 두분이다.

진사(進士)와 금부도사(禁府都事)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일곱명이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투쟁한 자랑스런 자손도 있다.

전월산 끝자락에는 그들의 선조를 봉사한 선향사(先香祠)가 건립되고 울울한 청송이 묘역을 감싸얹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호군(護軍) 임찬현공이 그가 축성한 정반(庭畔)에서 회유(回遊)하던 모습이 보이는 듯 아련하다.

2005년 7월

임헌서(林憲瑞)쓰다.

주요인물

임헌서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간접 선거인단 당선

임봉수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간접 선거인단 당선

임하수 - 이철승 국회 부의장 비서관 (사무관 2급)

임재길 - 노태우 대통령 총무 수석비서관 (차관)

양 화 3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노수재 | 만경 | 임인자 | | 노명중 | 차용, 도경, 애경 |
| 김강식 | 양근 | 안인순 | | 김정문, 성문 | |
| 김송배 | 김해 | 이금복 | | 김종훈 | |
| 최진섭 | 경주 | 박귀순 | | 최유창, 윤종, 윤철 | 최순화, 유정, 윤실 |
| 최진영 | 경주 | 차옥순 | | 최경석, 경민 | 최경희 |
| 정건석 | 경주 | 성석경 | | 정동규, 동희 | 정연희, 선희 |
| 임용수 | 부안 | 박호숙 | | 임재영 | 임지연, 승연 |
| 임현옥 | 부안 | 김순억 | | 임정인 | 임서희, 진희 |
| 임진태 | 부안 | 백길자 | 이병예 | 임봉석, 임상수 | |
| 임신필 | 부안 | 정청근 | | | 임성아, 민호 |
| 임경수 | 부안 | 최경숙 | | 임재광, 동희 | |
| 임현정 | 부안 | 이병예 | | 임은호, 금호, 영호 | 임순자, 순동, 미숙, 동숙 |
| 임범수 | 부안 | 이순하 | | 임충효, 충현 | 임안나 |
| 임장수 | 부안 | 이옥자 | 박봉석 | 임재홍 | 임주연 |
| 임영학 | 부안 | 박길녀 | | 임재민 | 임보라 |
| 임준수 | 부안 | 안국자 | | 임재연, 재국 | 임송숙, 임미숙 |
| 임지수 | 부안 | 김재님 | | 임재선 | 임선자 |
| 임종철 | 부안 | 황의춘 | | 임현학, 헌탁, 정집 | 임현옥 |
| 임성철 | 부안 | 안노인 | | 임현록 | 임현자, 헌정, 헌별, 헌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철수 | 부안 | 강남희 | | 임재정, 재선, 재경 | 임재숙, 재현 |
| 임헌서 | 부안 | 신도화 | | 임성수, 익수, 백수, 경수, 거수 | 영예, 영임, 영미, 영난, 영하 |
| 임덕수 | 부안 | 오오분 | | 임재훈 | 임재순, 정하, 정효 |
| 임헌두 | 부안 | 김진순 | | 임배수, 광수, 응수 | 임정자, 정숙, 숙자, 경옥 |
| 유정목 | 기계 | 이순재 | | 유성문, 광준 | 유연아, 현숙 |
| 유순관 | 문하 | 황덕순 | | 유재문, 재덕 | 유도수 |
| 임우철 | 부안 | 김태상 | | 임헌재 | 임정옥, 연옥, 미옥 |
| 임헌필 | 부안 | 장원순 | | 임성만, 창균 | 임순애, 결순, 동순 |
| 손양선 | 경주 | | | | |
| 박수민 | 밀양 | | | | |
| 이옥수 | 광주 | | 정영금 | | |
| 조덕상 | 평양 | 김해경 | | 조창준 | 조혜성, 은애 |
| 조항익 | 평양 | | | | |

사진으로 본 양화3리



마을전경



연세초등학교



마을회관

11. 진의리(眞儀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백제 멸망 후에는 웅진(熊津)에 오래 속해 있었다.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공주(公州)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삼기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대 앞으로 흐르는 ‘금강의 여울이 길다’ 해서 ‘긴여울’ ‘진탄(眞灘)’ ‘진의(眞儀)’라 불러 왔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창동(倉洞)’ ‘덕성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 ‘북룡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어 진의리(眞儀里)가 되었다.

진의리

한말 공주군 삼기면(三岐面)의 지역으로, 마을 앞의 금강이 여울져서 여울이 길다하여 ‘긴여울’ ‘진탄’ ‘진의’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창동’ ‘덕성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 ‘북룡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어 진의리가 되었다.

진여울

진의리 중심에서 서쪽 마을로 진여울, 또는 진탄이라 부르며 행정구역상 1반과 2반으로, 1반은 32가구 2반은 1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 금강 물줄기가 이 앞을 길게 여울져 흐른다 하여 진여울 진탄이라 불리었고, 예전에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모창골,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던 곳이라 하여 솔고개, 전쟁을 하러가다 말이 죽은 곳이라 하여 말무덤, 마치 장군들이 대좌하고 원사가 출진하는 형상이라 하여 장군봉, 적군 장수가 이 바위 아래서 항복을 했다 하여 항서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모창골

진여울 옆에 가재울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부른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혈(穴)을 뚫었다고 한다.

장군봉

진여울 뒷산에 있는 바위로 마치 장군들이 대좌하고 원사(元師)가 출진하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황새바위

고려 충렬왕 몽고난 때 한희유 장군이 이 바위에서 적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하여 항서(降誓)바위라 하다가 변하여 황새바위라 한다.

다락바위

황새바위 뒤에 있는 바위로 가운데 굴이 있어 다락과 같다.

소바위

다락바위 위쪽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소가 누운 것 같다.

와가니

진의리 중심에 있는 이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고, 행정구역상 3반 32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자촌으로 옛날에도 기와집이 많았다하여 와가리(瓦家里)라 불렀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살았다하여 일명 덕암이라 불리었다. 옛날에는 피부병 환자 특히, 옷이 오른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 즉시 낫는다는 참샘이 있고, 물의 양이 많은 곳이다. 옛날부터 성전마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을 묻어 물을 공급하기도 했다. 지금은 1998년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진의리 전체 137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와가리

조선시대 이곳에만 기와집이 많았고 모두 유복하게 살았다. 기와집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와가리(瓦家里)라 부른다.

참샘

약수터로 불리우는 참샘이 있으며, 그 샘물이 피부병과 속병에 효력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샘물을 찾았다.

지름바위

성재 남쪽 와가리 뒷산에 있는 바위로 기름을 칠한 것처럼 미끄럽다하여 기름바위라 부른 것이 지름바위라 부른다.

희여물

진의리 동북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4반 3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원수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로, 마을 위쪽에 있다하여 웃골 산날줄기가 마치 용이 엮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복룡날이라 한다. 지명 덕분인지 집집마다 고위 공무원이 배출되는 마을이다. 서당골은 옛날에 서당이 있던 곳으로 후세양성에 명성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새로 터를 마련하여 집을 지었다하여 새터말 이라한다. 희여물을 일명 백동(白洞)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희여물이라 한다. 구전에 의하면 현재 임씨네가 살기 이전 옛날에 백(白)씨가 살았다 하여 백동이라 한다고도 한다.

서당골

옛날에 글을 못배우는 농촌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집을 짓고 가르치던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한다.

복룡날

용이 엮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바위

서당골 뒤에 큰 바위가 있다. 옛날부터 장군바위라 부른다.

성전

진의리 중심마을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로 행정구역상 5반과 6반 4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성전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은 조선 철종 때 학자 전제 임헌회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갈매기떼가 별밭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이라 지었다 한다. 지금도 성전이라 한다. 이곳은 1928년 장남수리조합(장기면의 “장”, 남면의 “남” 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으로 부르다, 후에 농지개량조합이라 불렀고

2000년부터는 농업기반공사로 부르며, 현재의 규모는 지소로 되어있다.

그리고 앞뜰이 곡창지대이므로 남면농협창고가 지난 60년대 후반에 2동이 세워져 있다.

제실

오랜 옛날부터 조상 산소 관리를 하기위해 집이 있던 곳이 지금도 그대로 제실이라 한다.

돌팡이마

양화리와의 경계인 이곳은 성전마을의 가장 모퉁이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생업

논농사(400정보ha), 축산(한우, 젓소)업을 주로 한다.

제보자 : 임만수(59·이장), 임현두(78), 임완수(66), 진상림(85), 이계임(71)
오관순(80), 임현녀(74), 성기순(66), 강경화(62), 임복례(73),
임복남(70), 임달수(78), 임재안(51·새마을지도자)

주요 인물

임현엽 — 국가안전기획부 행정 서기관
(진의리 108-6번지 출생)

임덕수 — 문화관광부 문화재 관리국 서기관
(진의리 16번지 출생)

임헌화 —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
(진의리 22번지 출생)

임홍수 — 강원도 춘천여고 교장
(진의리 10번지 출생)

임능수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서기관
(진의리 131번지 출생)

김주한 — 7사단 보충대 (화랑무공훈장 — 1955년 1월10일 수여)

진 의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황명수 | 창원 | 임부임 | | 범성, 지성, 태성 | 경성, 경순 |
| 임병수 | 부안 | 이춘애 | 임헌남, 이선예 | 재원, 재학 | 미나 |
| 임재길 | 부안 | 하려화 | 임만수, 백정임 | 현목 | 유진, 지원 |
| 임만수 | 부안 | 백정림 | 임헌용, 김씨 | 재구, 재길, 재기, 재양 | 경자, 순자, 미자 |
| 임봉수 | 부안 | 오옥님 | 임헌천, 이맹예 | 재훈 | 은혜, 은영 |
| 임헌수 | 부안 | 손윤경 | 임문철, 최종분 | 헌필, 헌양 | 경주, 영순 |
| 김기우 | 의성 | | 김기우, 현양원 | 광련, 보련, 교련 | 정숙, 정순 |
| 황윤석 | 장수 | 만석순 | 황귀보, 김황만 | 성하 | |
| 안순희 | | | 임이식 | 임효수, 정훈 | 영재 |
| 임재무 | 부안 | 최종숙 | 임광수, 오판순 | 정목 | 혜영 |
| 임영수 | 부안 | | 강남훈 | 영수, 하수 | 양순, 양숙, 군희, 양희 |
| 정금순 | 진주 | | | 임헌찬, 임헌범 | |
| 편기형 | 절강 | 김옥순 | | 선원 | 순미, 은하 |
| 임헌주 | 부안 | 김은주 | 임효철, 성남순 | 광희, 진호 | 창희, 소영 |
| 임 훈 | 부안 | 김재분 | | 규선 | 송이 |
| 임일수 | 부안 | 박화석 | 임재안 | 범준, 범석 | 혜정 |
| 임헌성 | 부안 | 박향길 | 임원수, 한복순 | 재필, 재양, 재욱 | |
| 임영철 | 부안 | 황경익 | 김정일 | 현왕, 현황, 현홍, 현송, 현오 | |
| 황예익 | 창원 | | | 임재선 | 임재분, 임재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갑수 | 부안 | | 임헌명,신태임 | 재우, 재광 | 남순, 재식 |
| 임장철 | 부안 | 장찬기 | 임노택 | 헌천, 헌규 | 영자,영순,영숙,헌순,영희 |
| 임재남 | 부안 | | 임이수,성유순 | 영목 | 은정 |
| 김준근 | 안동 | 임갑남 | | 영식, 완식 | 미숙, 옥경 |
| 김준성 | 안동 | 유화임 | 김재용,황길순 | 태웅, 용식, 충식 | 정숙, 경숙 |
| 임헌석 | 부안 | 김부임 | | 찬수, 청수, 평수 | 진숙, 은숙, 현순 |
| 임헌혁 | 부안 | 이진임 | 임정원 | 대수,권수,광수,명수 | 명희, 명옥 |
| 임 표 | 부안 | 박진순 | | 성현 | 채영, 채림 |
| 임재형 | 부안 | 윤복순 | 임형수,오순균 | 한목 | 미화,순옥,명옥,정옥,연옥 |
| 윤태식 | 실응 | | 윤영운,심두문 | | |
| 윤진식 | 실응 | | 윤영운,심두문 | | |
| 김대환 | 김해 | 이정희 | | 승현 | 승미 |
| 임무철 | 부안 | 정춘희 | 임노근,황옥순 | 헌산, 헌준 | 명순, 옥자, 옥순 |
| 노덕규 | 광주 | 김용례 | 노영오,정귀분 | 찬, 진 | |
| 최기현 | 화순 | 윤인순 | 최정백,임헌희 | 원태 | 윤미, 원희 |
| 최승하 | 화순 | 성낙순 | | 용현, 해현, 귀현 | 성순 |
| 임재선 | 부안 | 신영옥 | 임영수,장기임 | 성민, 성진 | |
| 임재길 | 부안 | | 임영수,장기임 | | |
| 임석철 | 부안 | 오언례 | | 헌화, 헌호, 헌경 | |
| 안철암 | 순흥 | 남혜경 | | 하량, 하성 | 하원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재홍 | 부안 | 김절지 | 안희화 | 용목 | 정목, 성목, 금희 |
| 임춘수 | 부안 | 황화순 | | 재일 | |
| 임재성 | 부안 | 오완순 | | 번수 | 옥례 |
| 임은수 | 부안 | 김화자 | | 재무, 재정 | |
| 임재정 | 부안 | 주미자 | | 민섭, 영섭 | |
| 김동주 | 연안 | 김미혜 | 김기영, 송부영 | 민성 | 경현 |
| 김기영 | 연안 | 송부용 | 김종학, 김용순 | 한주, 태주, 동주 | 명순, 은순 |
| 이병욱 | 성산 | 황일희 | 이희주, 장임숙 | | |
| 임광수 | 부안 | | 임헌동, 성기양 | 태성 | |
| 임재운 | 부안 | 유연자 | 안승례 | 종환, 상목 | 지현 |
| 임영철 | 부안 | 류형순 | | 헌관, 헌선 | |
| 이옥예 | 한산 | | | 정국, 인준 | 경자 |
| 김태권 | 삼척 | 정숙희 | | 성철 | 미정 |
| 임재홍 | 부안 | 박미정 | 박영자 | 영목 재복 | 선애, 성실, 경애 |
| 이순균 | 전주 | 김영자 | | | |
| 임문수 | 부안 | 안명자 | | 정석 | 혜정, 혜영 |
| 임헌덕 | 부안 | 정현 | 임해철, 최동임 | | 서영 |
| 김경식 | 안동 | 오미경 | 김주한, 임영순 | 용배 | 혜진, 유진 |
| 박종희 | 밀양 | 이명희 | 박학규, 이택숙 | 성진 | 은희, 기연 |
| 김남명 | 강능 | 임옥자 | 김관일, 안상열 | 정래 | 정순, 정숙, 현미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종환 | 청주 | 전기수 | 이기태, 이만순 | 승우 | 숙이 |
| 임헌재 | 부안 | | 임호철, 최차순 | 복수, 성수, 평수 | 복자 |
| 임정수 | 부안 | 김순기 | 임헌배, 황장순 | 재찬, 재환 | 유미 |
| 하태식 | 진양 | 홍현숙 | 하광호 | 기석, 용숙 | 영하 |
| 임홍수 | 부안 | 전경애 | 임헌숙, 이두금 | 재오, 재민 | |
| 임홍수 | 부안 | 윤영자 | | 제한, 재석 | |
| 유병일 | 기계 | 노병숙 | 유윤식, 김기정 | 유호 | 화설 |
| 임재일 | 부안 | 안경임 | 임정수, | 진묵 | 정미, 경순, 명옥, 미선, 미경, 안석 |
| 임헌환 | 부안 | 여정선 | 유순례 | | 다솔, 한샘, 기희 |
| 성영환 | 창녕 | | 진상남 | 낙규, 낙훈, 낙원, 낙범 | |
| 이한옥 | 성주 | 김옥희 | 이상태, 유상연 | 율학 | |
| 강종철 | 신천 | 김순옥 | 강연훈, 임보수 | 지호 | |
| 강신면 | 진주 | 임혜숙 | | 진성 | 선아 |
| 강병덕 | 신천 | 김 숙 | 채정복 | 원기, 성기 | 원순, 미용, 미숙 |
| 윤석만 | 파평 | 이병순 | 임헌순 | 여범 | 나리 |
| 임헌만 | 부안 | | 최정순 | 창수, 복수 | |
| 이일순 | 전주 | | | 임우수, 덕환 | 임석옥, 안순 |
| 장순임 | | | | 홍순정, 순만, 순부, 순감, 순신 | |
| 임만수 | 부안 | 신송자 | 임헌국, 박정례 | 재락 | 순경, 우경, 진경 |
| 성주찬 | 창녕 | 임소선 | | 삼용, 기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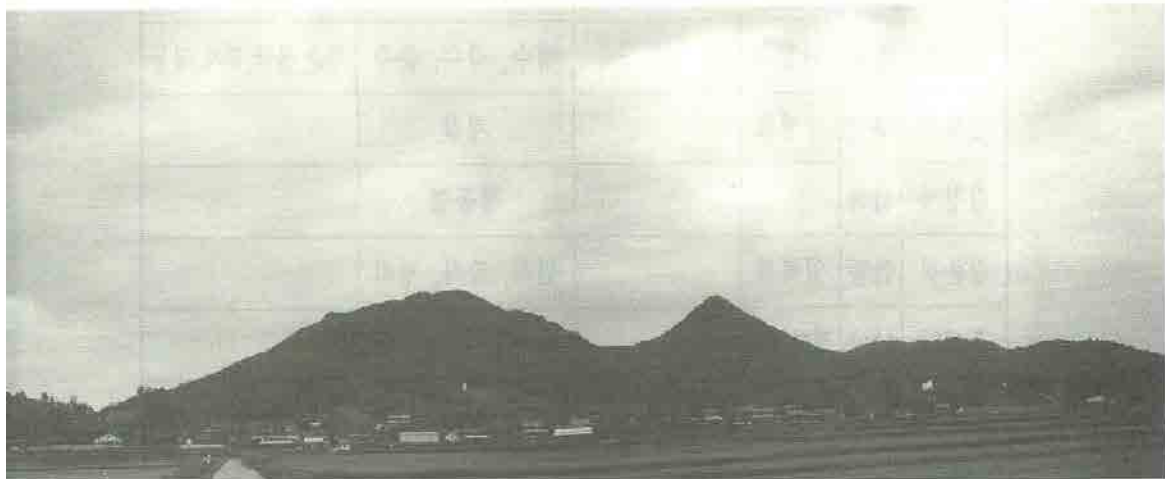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춘희 | 진주 | 정광순 | | 진일 | 경희, 경진, 선희 |
| 김충화 | 나주 | 조순례 | | 학준, 학근 | 영란, 영신, 관순 |
| 임복남 | 부안 | | | 최창만 | |
| 인경순 | | | | 최희만, 헌만 | |
| 유치수 | 기계 | 진영자 | | 진남, 진광 | 은선, 의선 |
| 윤수중 | 파평 | 황인자 | | 석원 | 미애 |
| 조만기 | 평양 | 홍계월 | | 경남, 경원 | 은경 |
| 임태수 | 부안 | 황미애 | 성기순 | 광호 | |
| 임헌두 | 부안 | 강희숙 | | 백수, 천수, 삼수 | |
| 임헌녀 | 부안 | | | 안태균, 정균 | |
| 정영교 | 연일 | 황소례 | | 의철, 의주 | |
| 이복희 | 전주 | | | 김정제 | |
| 이예균 | 강진 | | | 임춘수, 만수, 낙수 | |
| 임헌인 | 부안 | 성옥기 | | 항수, 흥수 | |
| 임헌복 | 부안 | | | 인수, 의수 | |
| 이용순 | 강진 | | | 헌평, 헌선 | |
| 임성목 | 부안 | 양세진 | 임재인, 정순애 | 규요 | 오판순(할머니) |
| 임헌설 | 부안 | 소정희 | | 정민 | 성희, 정화, 성미 |
| 이계임 | 한산 | | | 형수, 청수, 용수 | |
| 임헌귀 | 부안 | | | 이진상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진상임 | 여양 | | | 성영환, 영찬, 영배, 영귀 | |
| 김원식 | 안동 | 이경희 | | 용준 | 선경, 지영 |
| 임현구 | 부안 | 전태숙 | | 영수, 영호 | |
| 임현호 | 부안 | 고순자 | 장소저 | 상진 | 단비 |
| 최성락 | 해주 | 김금례 | | 재영, 재민 | |
| 백대현 | 수원 | 남양순 | | 김범중 | 김선빈 |
| 김영기 | 경주 | 홍숙경 | 김성업, 박순예 | 술, 석 | |
| 유병남 | 진주 | 민연식 | | 우형 | 선형 |
| 임희수 | 부안 | 오향미 | | | 경희 |
| 임하수 | 부안 | 하태성 | | 욱제 | 다운 |
| 성명자 | 창녕 | | 박총삼 | 김강식, 성길 | |
| 김태홍 | | 이금애 | | | |
| 임정님 | 부안 | | | 송재왕 | |
| 이규임 | 전주 | | 맹순이 | 임태완 | 임정희 |
| 임주수 | 부안 | 박금수 | | 강훈, 주영, 동훈 | |
| 임재항 | 부안 | 김해숙 | | 창목, 현목 | 수연 |
| 임재구 | 부안 | 이상숙 | 임필수, 권필득 | 영목 | |
| 임달수 | 부안 | 남복록 | | | |
| 임은수 | 부안 | 최복희 | | 재득 | 숙주, 인선 |
| 진태선 | 부안 | |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윤석진 | 과평 | 이내길 | 임헌순 | 여훈 | 채은 |
| 임헌환 | 부안 | 김순정 | 임중철, 황복순 | 현수, 성수 | |
| 임관수 | 부안 | 오연균 | 임헌국 | 재록, 재만, 재동 | 은주 |
| 오은복 | | 박한수 | 오성열, 김복림 | 민용 | 신원 |
| 김재규 | 금형 | 이복순 | | 종원, 진영 | |
| 임민수 | 부안 | 황군자 | | 재정, 재의 | |
| 임중철 | 부안 | 황복순 | 임노진, 이금동 | 현우, 현옥, 애록, 현환 | 정자, 순복, 성자 |
| 임헌양 | 부안 | 황화숙 | 임갑철, 박순덕 | 대광 | 채리 |
| 송기주 | 서산 | 이옥순 | 송해인, 배일필 | 희원, 희찬, 희준 | |
| 조선영 | 평양 | | 문경숙 | 동생: 경운 | |
| 윤성순 | 과평 | | | 재원, 재덕 | 갑순, 재순, 재익, 복순 |
| 오부근 | 해주 | | | | |
| 임재수 | 부안 | 성순경 | | 재관, 재성, 재덕 | 재화 |
| 김관진 | 경주 | 권정술 | | 영수, 광수, 준수 | 복순, 봉금, 복자, 복동 |
| 임해수 | 부안 | 송영호 | | 재길 | |
| 김청자 | 김해 | | | 정동열 | |
| 김준철 | 안동 | 임복례 | | 민식, 종식, 정식 | |
| 홍재찬 | 남양 | 장하차 | | | |
| 임헌정 | 부안 | 송순저 | | 철환, 길환 | 순자 |
| 임금수 | 부안 | 유소준 | | 영산, 명산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한수 | 부안 | 현경 | | 재경, 재덕 | |
| 최순례 | 부안 | 최옥한 | 임헌복 | 호수, 정훈 | 임길순, 임길례 |
| 이광순 | 한양 | | 조병옥(사망) | 임희수, 호수, 철수, 재두 | 권금순, 김성희 |
| 황호예 | 부안 | | 임인수 | 조건행, 은행, 재행 | 영옥 |
| 임헌광 | 부안 | 김경진 | 임헌광, 김경진 | 재진, 재명, 재준 | 성남, 영남, 장남, 미남, 혜란 |
| 임헌국 | 부안 | 강점순 | | 성수 | 정희 |
| 임연순 | 부안 | | | 최종원, 종구, 종근 | |
| 임학수 | 부안 | 배순이 | 임헌정 | 재형, 재욱 | 은지 |
| 임진락 | 부안 | | | 성만용 | |

사진으로 본 진의리



마을 전경 (원수산과 성재)



장남수리조합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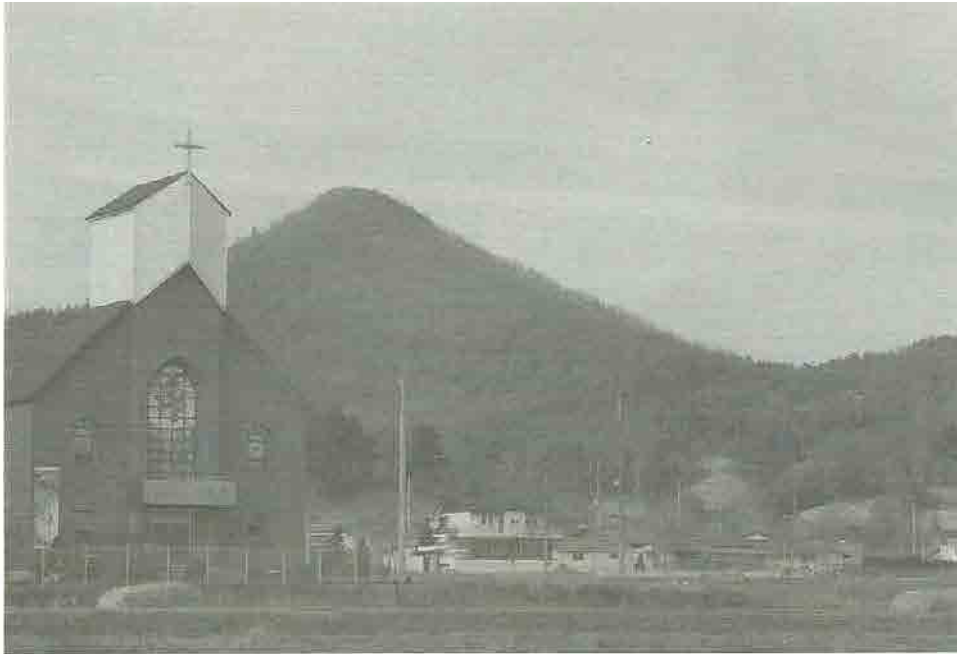
진의리 마을회관



진의리 마을유래비



항서바위
(고려충렬왕 때 협단적을 이곳에서 함복시켰다고 함)



진의리에서
바라본 원수산



농협창고



야학 강습소



성전정미소



성전정미소

12. 송담리(松潭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地域)이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삼기면(三岐面)인 지역으로서 마을의 소나무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마을 한 가운데에 못이 있었다. 그 못 안에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우거진 소나무가 아름다워서 여기를 ‘송담(松潭)’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노은리’ ‘나성리’의 일부(一部)를 병합하여 송담리(松潭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연못을 ‘방죽’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도랑으로 경지정리 되었다.

1) 송담 1리

이 마을은 충청남도 농촌 문화 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마을로,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와 함께 ‘충남 문화 마을’로 1999년 지정되었고, 2002년 완공되었다.

갈미(葛米)

‘송담리(松潭里)’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마을 뒤에 묘한 산이 있으며, 고려말엽에 이 곳을 지나던 임포장군(林圃將軍)이 말하기를 “여기 지형(地形)은 갈만형(葛萬形)이라 깊은 갈대밭이 장차 변해서 곡식을 생산하는 들이 될 것”이라 하여 갈미(葛米)라 부르게 되었다. ‘갈산(葛山)’이라고도 부르며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또 다른 설은, 산들이 칙녕쿨처럼 뻗어 있다해서 갈산(葛山)이라 부른다 한다. 소갈산(小葛山), 대갈산(大葛山) 등으로 부른다.

큰 갈미(대갈산 大葛山)

갈미(葛米)의 큰 마을이다

산세가 원수산을 기점으로 해서 칙녕쿨처럼 뻗었다 해서 갈산이라 부른다.

갈미(葛米)는 갈산(葛山)의 약자로, 원래는 ‘갈뿔’였던 것이 갈미(葛尾), 다시 갈

미(葛米)로 변형되었다.

작은 갈미(소갈산 小葛山)

갈미(葛米)의 작은 마을이다.

느티나무계

‘작은 갈미’ 뒷산이 있는 놀이터를 ‘느티나무계’라 부른다.

느티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인데, 이 부근 사람들은 ‘느티나무계’ 하면 신성한 곳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

등구나무계라고도 한다.

느티나무

송담리(松潭里) 소갈산동(小葛山東) 뒤편에 있는 고목(古木)이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의 젊은이들이 청운(靑雲)을 품고 글을 읽던 송월정(松月亭)의 밖에 심은 나무로, 나뭇가지의 모양이 마치 꽃송이 모양과 같아 울창함과 화려(華麗)함을 자랑하는 나무다.

서낭대이

종촌3리와 송담 1리 사이에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음력 10월과 정월 보름에 갈떡을 올리면서 보름제를 지냈다.

송월정(松月亭)

원래는 모정(耗亭, 짚으로 엮은 정자였다.)이었는데, 몇 번 중수를 했다.

송월정 현관은 1970년대 초에 걸었는데, 2001년 중수하면서 떼어 버렸다.

윗뜸

송담 2리의 2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남면에서 제일 오래된 송담교회가 있었는데, 1970년대 초 종촌 3리로 이전하였다.

성남 복음교회→소망 감리교회→소망 장로교회 변화하였다.

덕대골

2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리와 2리의 경계에 있는 마을로, 덕대(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걸었다가 장례를 지냈다고 함)를 하던 곳이다.

정문거리

효자 정려(旌閭)가 있는 거리이다.

아래뜸

14가구가 거주한다.

천석꾼 유원석이 있었다. 마을을 위해 덕을 많이 쌓았는데, 1972년 기와집을 헐고 충북 옥천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마을에 공덕비가 있다.

속뜸

아래뜸 속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갈미방죽(갈산방축 葛山防禦)

작은 갈미 앞에 있는 방죽이다.

들샘이

원래 밭이었는데 논으로 변경했다.

구수(구유)논

말구유처럼 생긴 논으로, 고려 충렬왕 때(1290~1292년)몽고난 중 말먹이를 주던 구유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동날

마을 뒤 능선을 말한다. 원수산과 성재간 줄기다.

중비, 마루뜰, 생마루, 섬뜨들기, 사닥다리, 새독, 방죽거리

유원석 공덕비

마을을 위해 공을 쌓은 유원석을 기리기 위해 세움

임택수 공덕비

일제시대 말년과 6·25직전까지 마을 이장직을 맡았었다.

마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민 모두가 그를 칭송하며 공적비를 세웠다.

주요 성씨

주민 70%가 부안임씨 이다.

제보자 : 임봉수(49·이장), 임형묵(72), 임헌남(71), 임재각(65),
임종렬(46), 임재준(52·새마을지도자), 임병현(61)

송담 1리 세대주 명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이상철 | 경주 | 이순숙 | 이재희, 안채순 | | |
| 임재호 | 부안 | 서명숙 | 최재순 | 천열, 한열 | |
| 김동수 | 경주 | 이정님 | | 영화 | 혜영, 미영 |
| 임헌남 | 부안 | 송정자 | | 은수, 화수, 의수 | 은숙 |
| 최중술 | 경주 | 안영희 | 윤기운 | 해석, 해동 | 옥단, 옥분 |
| 임병주 | 부안 | 김경숙 | | 성희 | 경미, 지현, 순현 |
| 임봉수 | 부안 | 나혜숙 | 성기완 | 재운, 재운 | |
| 임규영 | 부안 | 이춘복 | 임광열, 곽원영 | 성호, 경호 | |
| 구옥순 | 달성 | | | 김운정 | 운숙, 운이, 운당 |
| 임재희 | 부안 | 황영순 | | 공열, 충열, 봉열 | 경순, 경숙 |
| 이규완 | 경주 | 이종구 | | 종기, 종희, 종만, 종국 | |
| 김재운 | 나주 | 박숙자 | | 소항, 경항 | 소연, 소희 |
| 전부환 | 담양 | 김순옥 | | 영규 | 미연 |
| 임종렬 | 부안 | 김남숙 | | 규백, 규호 | 보라 |
| 오연균 | 보성 | 최옥희 | 임순희 | 진욱 | |
| 김순례 | 안동 | | | 시정 | 미숙, 미경, 광숙, 영희 |
| 임헌용 | 부안 | | | 창순, 양수, 광수, 창수, 잔수 | 숙자, 순자 |
| 임재양 | 부안 | 강기숙 | | 권열, 권묵 | 선아, 정아 |
| 유상준 | 기계 | 임정자 | | 용식 | 명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종목 | 부안 | 최동임 | | 규남, 규완 | 은숙, 희숙, 금숙 |
| 임형목 | 부안 | 최순현 | | 규화, 규삼, 규찬, 규섭 | 창준, 규순 |
| 임헌준 | 부안 | 오옥단 | | 봉수, 용수, 의수, 직수 | 춘지, 춘화 |
| 조인숙 | 안동 | | | 오범균 | |
| 이명자 | 전주 | | | 진성, 진범, 진남 | 이경자 |
| 임재준 | 부안 | 박재욱 | 이복례 | 기현 | 순옥 |
| 이재진 | 경주 | 김을선 | | 남호, 종호 | |
| 임재각 | 부안 | | | 광목, 명목, 용목, 권목, 송전 | 명순 |
| 홍순영 | 남양 | 임행님 | | 천표, 완표, 상표 | 상희, 인철, 경자 |
| 유상식 | 기계 | 이종임 | 장창례 | 병구, 병운 | |
| 곽노복 | 청주 | 이숙주 | | 혁신, 화신, 치신 | 인숙, 정숙 |
| 배태영 | 성주 | 김태숙 | | 상득, 상식, 상용, 용운, 배두 | |
| 임동목 | 부안 | 김태자 | | 규천, 규인 | 선영, 지영 |
| 임인목 | 부안 | 조경행 | | 규룡 | 희순, 향순, 정순, 덕순, 용순 |
| 한평산 | 청주 | 장춘자 | | 용택, 용석, 용일, 용덕, 용수 | 옥난, 옥희, 영숙, 선미 |
| 이음전 | 한산 | | | | |
| 임진목 | 부안 | 강예식 | | 규창, 규선, 규태 | 평순, 순희, 운명 |
| 임재순 | 부안 | | | 광준, 정준 | 정숙, 연희 |
| 임현호 | 부안 | 이재근 | | 장수, 강수, 점수 | |
| 정만진 | 동래 | 배은자 | | 성훈, 태훈 | 미숙, 혜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병직 | 경주 | 이복순 | | | |
| 임병현 | 부안 | 정봉윤 | | 조렬, 형렬, 세렬 | 정희 |
| 임헌빈 | 부안 | 이순주 | | 영수, 연수, 이수 | 열배, 옥금 |
| 최해복 | 경주 | 강건남 | | 찬희, 찬우, 찬혁 | 예진 |
| 김민영 | 김해 | 백정숙 | 이옥례 | 봉수, 용수 | 채린 |
| 전재형 | 담양 | | | | |
| 심옥례 | 경주 | | | | |

사진으로 본 송담 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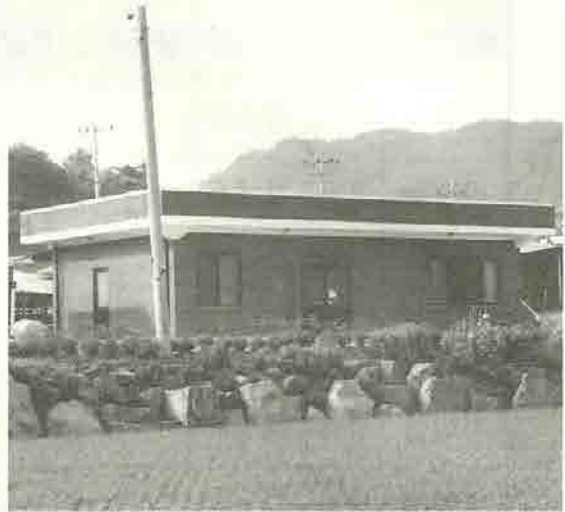
마을전경



정문거리



정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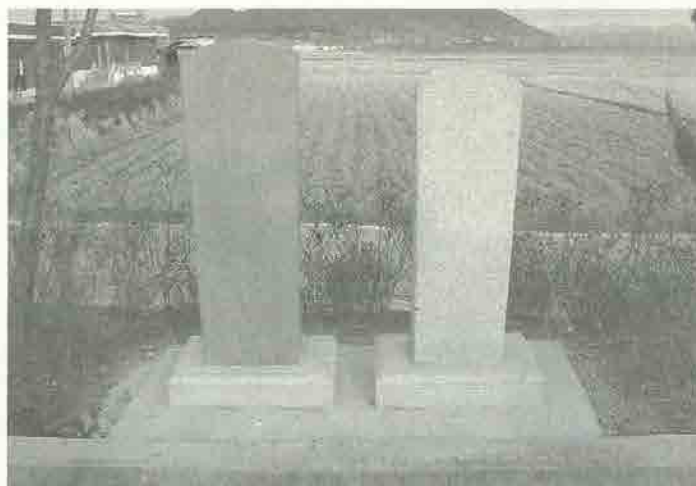
마을회관



문화마을 정자



문화마을 조감도



임택수, 유원석 공덕비

2) 송담 2리

표석(標石)골

송담2리의 2반으로,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뒷산에 임씨(林氏)묘소의 표석이 서 있다 하여 ‘표석(標石)골’ 이라 부른다. 표석동(標石洞), 표석뜸이라 이라 부를 때도 있다.

부안임씨(임난수 손자 만호공 절충장군) 제실이 있다.

골뜸

송담 2리의 3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고랑 저 있는 뜸이라 하여, 골뜸이라 부른다.

꿩말뜸

송담 2리의 4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꿩말은 꿩이 많이 서식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아래뜸과 꿩말을 합친 곳이다.

서원재

표석동 남쪽의 산(고개)이다. 이곳을 넘으면 서원이 나온다. 이곳의 서원을 갈산서원이라 했으며, 18세기 중반인 1770년경에 세웠다. 갈산서원 배향 인물은 초려 이유태이다.

모룽지(복망산)

서원재 뒤에 있는 산으로 마을 공동묘지가 있었다.

샘곳배미

다른 논은 물이 말라도 이곳은 물이 마르지 않아 샘곳배미라 부른다.

샘처럼 물이 많았다.

방죽

방죽을 메워서 논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4년에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송담 665번지/ 1,041평)

방아마루

지금은 없어졌다. 수리조합이 생기기 전에 발동기로 물을 품었으므로 방아마루라 했다.

위 뜰

송담 2리 2반으로 현재 22가구 거주하고 있으며, 부락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뜰이라 부른다.

생마루

땅이 여물어서 생마루라 불렀다.

뒬선뜰

섬두독뜰 이라고도 부르며, ‘언젠가는 제방뜰이 바뀐다(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수밭들

무를 많이 재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생업

논농사, 과수(딸기, 오이, 복숭아)를 주로 한다.

주요인물

임봉수(林鵬洙.1894~1976.83세) -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후까지 남면장을 지냈다. 장남뜰 수리조합이사, 천안지구 연초조합장, 충남도의원을 역임하고, 성남중·고 육성회장 때 부지를 학교에 싼값에 헌납, 학교 내에 비문이 세워져 있다. 1983년 건립하였다.

임창수(林昌洙. 1892~1960.68세) - 일제시대 때 변호사였다.

임노권(林魯權) - 조선말기 때 참봉을 지냈다.

임씨 3대 벼슬 - 임기서, 임희철(정3품, 통훈대부 시종원 시종), 임헌영(종3품, 통훈대부 시종원 시서). 소갈산에 산소와 비석이 있다.

임영대(林永大) - 신해(1920년생) 순종3년 선략장군 부사과 정3품 통정대부

임완수 : 경기도 수원시 대림건설 주식회사 회장

임홍묵 : 대전, 청주, 구미 세반장(서기관)

임열수 : 신학박사

임창수 : 신학박사

주요 성씨

부안 임씨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제보자 : 임헌만(68·이장), 임병달(82), 임병식(58), 임명수(57), 김만분(76),
구자숙(49), 원점례(51), 박정옥(72), 황옥자(73), 임평수(70),
이이화(78)

송담2리 세대주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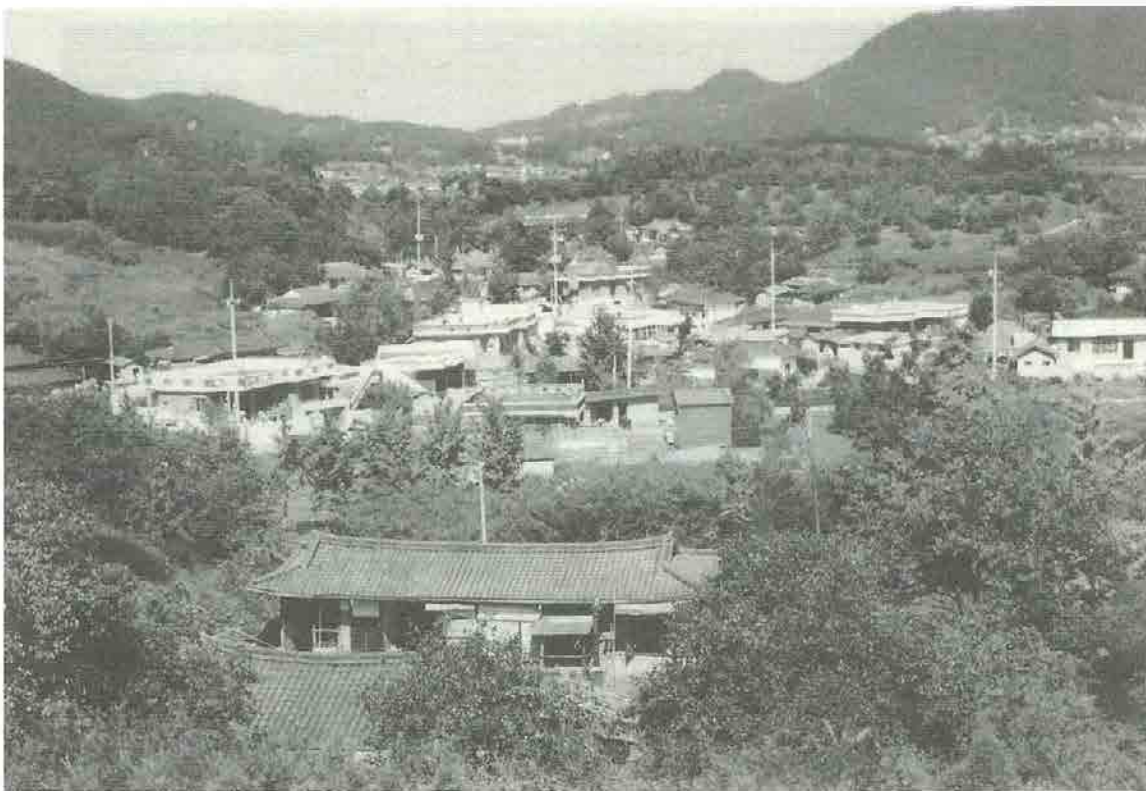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열수 | 부안 | 박성자 | 임헌문, 송빈영 | 태상, 다니엘 | 사라 |
| 임성수 | 부안 | 김금녀 | 임헌풍, 성안순 | 임재범 | 은혜 |
| 안성창 | 죽산 | 임평수 | 정섭, 임영철 | 원용, 효종, 세종 | 종숙 |
| 장원옥 | 목천 | 채명희 | 장인기, 이분구 | | 은숙, 은영 손녀:은별 |
| 한광석 | 청주 | 박경옥 | 한순기, 김금임 | 승현 | 승희 |
| 김순옥 | 경주 | | 유석주, 김인순 | 유근원, 근홍 | 근미, 미영, 미숙 |
| 임화수 | 부안 | 강병예 | | 복남, 태경 | 송정 |
| 임명순 | 부안 | | 임헌무, 윤보선 | 유광호, 용호 | |
| 이희석 | 전주 | | 이진구, 이순의 | 희석, 희준 | 희정 |
| 이희정 | 전주 | | 김주성 | | 김희주 |
| 임상희 | 부안 | 함평오씨 | 임병준, 안인래 | 윤태 | 윤숙 |
| 임병철 | 부안 | 박정옥 | 임성준, 이금동 | 헌의, 헌삼, 헌배 | 경자, 경옥 |
| 김만분 | 경주 | | | 임상묵, 범묵, 선묵 | 경순, 춘화 |
| 임용수 | 부안 | 이순몽 | 헌원, 이은예 | 병윤 | 경자, 경선, 경애, 경남, 경은 |
| 임치수 | 부안 | 이선화 | 임헌동, 박일남 | | 연희, 윤희, 윤형 |
| 임의수 | 부안 | 고상례 | 임헌남, 송정자 | 재선 | |
| 이정화 | 부평 | 임영순 | 이연옥, 송병님 | 찬진 | |
| 임병달 | 부안 | 조태임 | 임봉수, 박명희 | 원묵, 중묵, 찬묵 | |
| 임명식 | 부안 | 김순분 | 헌주, 오채복 | 재구, 재광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헌호 | 부안 | 채복님 | 사익, 이씨 | 덕수, 백수 | 칠선 |
| 임용수 | 부안 | 강기순 | 헌원, 이예순 | | 인자, 금숙, 윤자, 경숙, 연희, 경주, 정선 |
| 임병영 | 부안 | 암정숙 | 임흥동, 강신삼 | 창환 | |
| 김성배 | 김해 | 임선하 | 김현주, 오을순 | 김중호, 지영 | 동생, 장배, 옥자, 명숙, 인숙, 성란, 성옥 |
| 임재연 | 부안 | 김향순 | 홍수, 서행순 | 길정, 길목, 상정 | 민애 |
| 최영숙 | | | | 임명수, 임오수 | |
| 전인호 | 천안 | 박재분 | 전철인, 정장금 | 상철 | 미숙 |
| 이명구 | 전주 | 최정자 | 이용래, 임성학 | 희만, 희성 | 희숙, 미숙, 미자 |
| 장유복 | 결승 | | | 임병수, 명수 | 임미아, 경아 |
| 임헌봉 | 부안 | 안정임 | 삼세, 황관예 | 경수, 경화, 경북, 경호 | 경순 |
| 박성희 | 밀양 | 전복순 | 박군자, 고길용 | 준호 | 미화, 미희 |
| 임헌풍 | 부안 | 김순애 | 관길, 정종순 | 성수, 인수, 강수, 학수 | 성순, 복실 |
| 임희철 | 부안 | 정태희 | 노행, 안복례 | 상무 | 효정, 효선 |
| 김용화 | 안동 | 강정심 | | 도윤, 지윤 | |
| 김광명 | 안동 | 노윤화 | 서정자 | 태협 | 예지 |
| 신호균 | 평산 | 노정선 | 신용희, 권임출 | 현호, 현일 | 영자 |
| 유기용 | 문화 | 김영림 | 상각, 최난임 | 성민, 경민 | |
| 임맹수 | 부안 | 송순필 | 헌기, 노남봉 | 재형, 재건 | 영숙, 재숙 |
| 임재찬 | 부안 | | 명수, 김영애 | | |
| 박헌근 | 밀양 | 이충근 | 박준량, 이장금 | 광진, 영진 | 경선, 영희, 미라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현완 | 부안 | 이금수 | 삼세, 황관예 | 세일 | 세정 |
| 이원섭 | 전의 | 하재임 | 상돈, 임정순 | 기욱 | 은실, 연실, 연숙, 성연, 선민, 선주, 여진 |
| 임장희 | 부안 | 강순안 | 인만, 서성덕 | 임규영, 규봉, 규열, 규환, 규찬 | |
| 최광열 | 전주 | 조미애 | 인수, 황옥자 | 성규, 지훈 | 혜지 |
| 이한중 | 함안 | 최홍순 | | 순국, 순익 | 손숙 |
| 임관수 | 부안 | 구자숙 | 헌길, 진경식 | 은영 | 은선 |
| 임영택 | 부안 | 성금자 | 준철, 오은여 | 수현 | 수경, 수진 |
| 유기범 | 문화 | 조연분 | 상옥, 이건백 | 인정 | 지연, 지은 |
| 임흥철 | 부안 | 원점례 | 노종, 정매영 | 헌덕, 헌진 | 지영 |
| 임준웅 | 부안 | 안창묵 | 노은, 오길순 | 영덕 | 종문, 정인 |
| 임도수 | 부안 | 오정숙 | 헌복, 이순임 | 재광 | 재철, 재현, 재문, 재창, 춘옥, 선화, 주연 |
| 유기장 | 문화 | 신금례 | 상진, 김금분 | 유석현 | 유면정, 희정 |
| 전정희 | 옥천 | | 승관, 김순애 | 박주정 | |
| 이규성 | 경주 | 유길순 | 천금, 김애기 | 종우 | 종숙, 은숙, 은주, 은경, 경희 |
| 임재국 | 부안 | 오춘식 | 덕수, 오정세 | 행목, 광목, 중목, 범목, 윤목, 한목 | 경희, 연숙 |
| 임현만 | 부안 | 현매자 | 규철, 황만순 | 찬수, 창수, 한수 | 향숙, 문희 |
| 임정수 | 부안 | 김순길 | 성일, 김백동 | 병주, 병창, 병서, 손:상목 | 순애, 복순, 금화 자부:강성화 |
| 이선구 | 전주 | 신순옥 | 삼성, 임귀임 | 희태 | 희진, 은경 |
| 임병배 | 부안 | 신문자 | 의수, 윤명순 | 용목 | 시진 |
| 손영식 | 밀양 | 이정자 | | 현기, 현훈, 현석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용근 | 김해 | 김정자 | 김일기, 김태금 | 동관, 성관 | |
| 이인학 | 경주 | 이장숙 | 영춘, 최영래 | | 이샘, 이진 |
| 임헌길 | 부안 | 이이화 | | 재수, 지수 | 암장님, 장애, 정숙, 정복, 정열 |
| 이상철 | 경주 | 이순숙 | 재희, 안채순 | | |
| 임형수 | 부안 | 이재숙 | 영달, 황석순 | 병무 | 향미 |
| 임병식 | 부안 | 권정님 | 홍동, 강심삼 | 승묵, 준묵 | |
| 임헌배 | 부안 | 장영자 | 병철, 박정옥 | 근수 | 화실, 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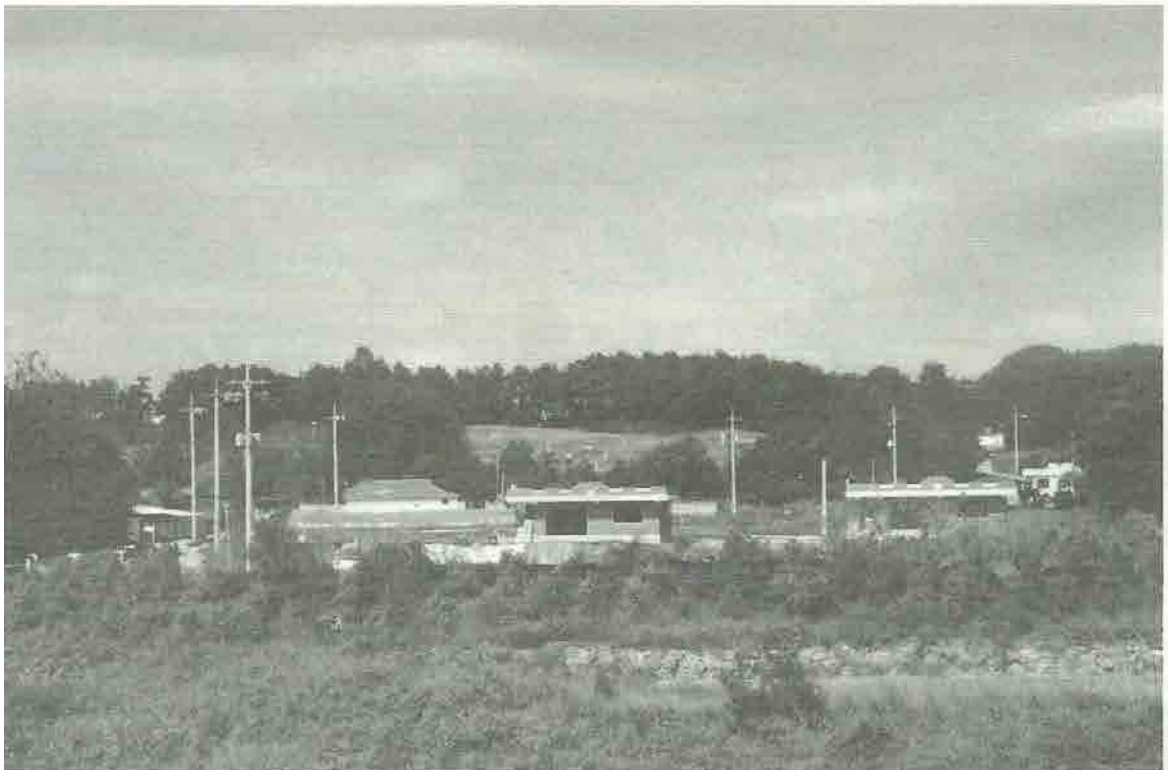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송담 2리



송담2리 마을전경



마을회관



표석골



표석골의 주인공인 만호공 임지의 묘



소망교회



의병장 임대수 공적비

13. 나성리(羅城里)

백제 때는 응진에 속했고, 응진성을 지키던 지라성이 이곳에 쌓여져 백제 말기 금강을 통하여 신라군이 군수물자를 수송할 때 이곳에서 차단했던 곳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공주에 속하여 이곳의 나루를 나리진이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어, 나루터의 나리진과 독락정의 토성을 합쳐 나성리(羅城里)라 불렀다.

나리재

나성리에 있는 토성(土城)을 ‘나리재’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나리재’라 부른다. 나성(羅城)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들을 지나 금강(錦江)가에 있는 높이가 45m되는 외딴 산에 토성(土城)을 쌓았으며, 백제 때엔 농성(農城)이었다.

여기 성(城)안에 임씨 가묘(林氏家廟)가 있고, 기슭에 독락정(獨樂亭)이 있다.

8·15해방 전까지는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해방 후 다리를 놓아서 나리재는 없어졌다. 조치원에서 지프차가 다니기도 했다.

나성(羅城)

말굽처럼 생겼으며, 말굽동네라 부르기도 했다.

나성(羅城)나루

나성(羅城)앞 금강(錦江)에 있는 나루터로, 나성(羅城)에서 금남면 대평리(大平里)로 건너가는 나루터를 ‘나성나루터’라 부른다. 나성리에 있는 나루터라 해서 나성나루라 부른다. 나성진(羅城津)이라고도 한다.

구터

원래 마을이 있던 동네로, 20호가 거주한다.

안동네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로, 40호가 거주하는 곳이다.

강당골

독락정이 있는 동네로, 14호가 거주한다.

참샘골

참샘이 있는 마을이며, 10호가 거주한다.

돌새뿔

참샘이 있는 곳에 바위산이 강 쪽으로 뻗었다.

청룡뿔

현재 남아있지 않다.

다간마루

다각마루, 이곳은 물이 귀하고 지대가 높아 곡식이 안됐다.

통메구례

통피산에 있다.

뒷동산

안동네 뒤에 있는 산이다.

강당산

임씨 사당과 독락정이 있어, 강당산이라 불렀다.

금강교(錦江橋)

나성 남쪽 금강에 있는 긴 다리이다.

육안들

나성 주위에 있는 넓은 들을 지칭한다.

옥안뚝(옥안제방)

옥안들에 있는 큰 뚝이다. 나성 쪽에서 보면 우측에 있어 옥안뚝이라고 부른다.

참샘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前)부터, 산 계곡에 자연수(自然水)가 흘러나와, 오고가는 사람들이 웅달샘을 파놓은 것이 그 시초다.

물이 계절(季節)에 관계없이 차고, 피부병에도 약효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샘이다. 여기에는 부안 임씨(扶安林氏)들이 살며 ‘약수터’로 통한다. 예전에는 용궁제(龍宮祭)를 지냈었다.

고려말엽의 기록(記錄)을 보면, 공주(公州) 고을에서도 몸에 병이 생기면, 나성(羅城)의 참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유명하였던 약수터였다. 물이 얼마나 깊은가 보려고 살구씨에 명주실을 감아 참샘에 던져 보았더니, 공주 창벽(장기 부영테미산)까지 실꼬리가 갔다고 한다.

예전에는 고기 반, 물 반이었으며, ‘중택이’라는 물고기가 살았었다.

아이들(대전사람)이 고기를 잡아 끓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고기는 간 데 없고 물만 있었다. 그 뒤로 ‘도깨비샘’이라고도 불렀다.

주민 송씨의 어머니가, 이 참샘을 위하고 이 물을 마시고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명에구례

마을 바로 앞에 있었는데 후에 경지정리를 했다.

사당

예전에 스님이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후 절은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사당을 지었다. 현재 절 주춧돌이 남아 있다.

참샘고개

참샘이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 송원리로 갔다.

구마니고개

안동네에서 뒤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제방이 터져 물이 넘으면 나성은 ‘그만이다’ 라고 하여, 어느 보살이 작명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용이 금강을 막았기 때문에, 나성에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친다고 믿고 있다.

돌마루산, 이간마루, 조산구례, 빼리구례

생업

주로 논농사를 짓고 있다.

주요 성씨

84가구 중약 70%가 부안임씨이다.

제보자 : 임재궁(47·이장), 임신용(72), 임진수(73), 임준수(82),
강정식(77), 구옥례(72) , 송인두(76)

독락정(獨樂亭)

나성(羅城)기슭에 있는 정자(亭子)를 독락정이라 부른다. 망망한 들 가운데 있는 나성(羅城)을 등지고 낙락장송이 우거졌으며, 앞에는 맑은 금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는 흰모래가 펼쳐 있어서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조선 초에 양양 도호 부사(襄陽都戶府使) 임목(林穆)이 이곳에 독락정을 짓고 한가히 남은 해를 보냈으며, 경제(敬齊) 남수문(南秀文)이 글을 짓고 서거정(徐居正)이 시(詩)를 지어 찬양한 정자(亭子)다.

6·25사변과 1·4후퇴 때 독락정과 사당이 폐허가 되어, 1953년 독락정 기둥
공

사와 1990년 연기군 군비로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다.

사당은 1980년대 중수하고 재실도 신축했다

기호서사(岐湖書士)터

나성(羅城)있는 전(前) 기호서사(岐湖書士)의 터로서, 서하(西河) 임춘(林春), 전서(典書) 임남수(林蘭秀), 부사(府使) 임목(林穆), 위의장군(威毅將軍) 임흥(林興) 등 삼대(三代)의 네 위를 배양하였던 곳이다.

고종(高宗)5년(1868)에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시키라 하여 양화리에 모셔졌던 임남수의 위패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 모셔 놓았기에, 현재 임씨가묘(林氏家廟)가 되었다.

미륵불

독락정에 2기의 미륵불이 있었는데, 1기는 금남면에 있었고, 1기는 나성 독락정에 남아 있다.

예전에 전서공 임남수가 양 겨드랑이에 미륵불을 끼고 금강을 건너다 신발 한쪽이 물에 떠 내려 갔다. 그래서 미륵 하나는 강 건너 금남면 뚝방 병막 부근에 박아 놓고 또 하나는 나성에 박아 놓았다.

제방을 쌓고 1946년에 홍수가 나서 뚝이 넘치자, 대평리 장터자리(논답)를 개간하면서 미륵불이 묻혔다. 독락정의 미륵불에는 6.25 때 인민군이 이 부처에 대고 총을 쏘아 석불에 자국을 남겨졌다. 그 병사는 곧 죽었다고 한다.

임현도 공덕비

임현도 박사(공주사대 학장 국문학)동네, 전답, 임야, 대지 많음
나성 위에 상수도 같은 터를 동네에 많이 기증. 이용해서 동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 2002년도 공덕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움.

나성리 마을 유례비

- 임민수 - 교육학박사 임현각씨 (장남)
- 임현균 - 행정학박사 임문철씨 (장남)
- 임재하 - 중앙병무청 징집과장 (임정수 아들)
- 임정수 - 화랑무궁훈장 6.25참전

나 성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형수 | 부안 | 송춘자 | 임헌봉, 서순예 | 재무 | 영희, 혜경 |
| 오동영 | | 윤순옥 | 김순래 | 재광, 재영 | |
| 이정기 | 전주 | | | 윤기준, 인준, 길증 | |
| 윤용미 | 과평 | | | 김영삼 | 은진, 정은, 은미 |
| 임경묵 | 부안 | 김채옥 | | | 고은 |
| 조해조 | | 이숙자 | | | 순자 |
| 임승수 | 부안 | 김복례 | | 재정, 재영 | 선미 |
| 임헌장 | 부안 | 최옥순 | | 종석, 석원, 상수 | 미향, 미호, 미자 |
| 임헌광 | 부안 | 김한순 | 강정식 | 영수 | 정화 |
| 이태규 | 전주 | 윤금순 | 전경임 | 승권, 승민, 승만 | 영숙 |
| 이은병 | 전주 | 김해숙 | 이근식 | 규정 | 은혜, 은경, 은비 |
| 배경득 | 경주 | 김영례 | | | 규순 |
| 윤지호 | 과평 | 육현숙 | 서점순 | 기순, 상혁 | |
| 임병덕 | 부안 | 이금례 | | 성선, 성도 | |
| 임은철 | 부안 | 최경정 | | 헌홍, 헌예 | 성희, 희임 |
| 임헌주 | 부안 | 공소재 | | 난수, 종필 | 성순, 혜순 |
| 박종인 | 밀양 | | | 전종하, 종태 | 전순옥 |
| 김정례 | 김해 | | | 박영길, 영철 | 박미경, 미자 |
| 유지례 | | | | 임재진 | 임난희, 금숙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재홍 | 부안 | 조인수 | 김계향 | 소양 | 은주, 주영 |
| 이대동 | 전주 | 최혜호 | | | 미진 |
| 임재성 | 부안 | 김경숙 | | 지환 | 지나, 진솔 |
| 최봉식 | 화순 | 임오자 | | 병선, 병호 | 지연 |
| 김충구 | 경주 | 임매숙 | | | |
| 임만수 | 부안 | 황희연 | | | |
| 심상용 | 청송 | 이경애 | | 정섭 | 해란, 해진 |
| 선상준 | 보성 | 박연수 | | | 선에스터 |
| 이종하 | 전주 | 오영자 | | 은도, 은수 | 경옥 |
| 이찰하 | 전주 | 김정자 | | 은찬 | 미경, 조경, 현희 |
| 이정자 | 전주 | | | 이영주 | 금옥 |
| 이효순 | 전주 | | | 윤성호 | 성난 |
| 김달길 | 해평 | 이재순 | | 재환, 재동, 창환 | |
| 김차량 | 예산 | 김에이자 | | 달수, 선수 | 정순, 정숙, 정님 |
| 조남선 | 풍양 | 임길순 | | 용성 | 정선, 경희 |
| 육해일 | 옥천 | 이경숙 | | 은명 | |
| 양현창 | 남원 | 구선심 | | 정순, 대순 | 은경 |
| 이덕걸 | 공산 | 이상해 | | 진용 | 진선 |
| 현석찬 | | | | 박일수 | |
| 홍재원 | 남양 | 윤양순 | | 종학 | 종순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이은찬 | 전주 | | | 임재윤 | 애자, 경자 |
| 임영수 | 부안 | | 이선원 | | |
| 안준영 | 죽산 | | 신현순 | | |
| 배규상 | 성주 | 박정향 | | | 향아, 영아, 진아 |
| 홍종복 | 남양 | 공명심 | | | |
| 이원교 | 강진 | 하정순 | | 혁진, 옥진 | |
| 홍성남 | 남양 | | | 임광수, 화수 | 임성옥, 부순, 향숙 |
| 송인수 | 여산 | 이점동 | | 승화, 일화 | 복순, 미화 |
| 변동수 | 초계 | 이한분 | | 상덕, 상용, 상선 | 상순 |
| 임근수 | 부안 | | 김재수 | | |
| 임헌주 | 부안 | 이한순 | | 순수, 훈수 | |
| 임헌중 | 부안 | 신현임 | | 혜수, 화수 | 화숙, 미영 |
| 임승철 | 부안 | 오월자 | | 헌일, 헌삼 | 헌문, 헌숙 |
| 임현대 | 부안 | 백명옥 | 손연화 | 경수 | 현숙 |
| 박영자 | 밀양 | | | 최정 | 은정, 희정 |
| 임진수 | 부안 | 윤영한 | | 재궁, 재농 | 미순, 미영 |
| 임영난 | 부안 | | 서해순 | | 장연정, 현정 |
| 임헌성 | 부안 | 서옥경 | 김순임 | 지수 | 지연, 지숙 |
| 임재궁 | 부안 | 박효순 | 임진수, 윤영한 | 상묵 | 상하 |
| 임준수 | 부안 | 신순덕 | | 재경, 재성 | 재순, 신자, 영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유수 | 부안 | 최순예 | | 재양, 재정 | 명순, 성순, 덕순 |
| 임헌천 | 부안 | 김명자 | | | 정희 |
| 임복수 | 부안 | 이세하 | 민호순 | 재연, 재용, 재영, 재은 | 연실 |
| 임준수 | 부안 | | | 재근, 재경, 재명 | 재희 |
| 임동수 | 부안 | 이옥자 | | 재관, 재윤, 재성 | |
| 박남돌 | 밀양 | 전정자 | | 순찬, 순일 | 진옥, 신옥 |
| 임헌묵 | 부안 | 김정자 | | 근수 | 해진, 해영 |
| 임영무 | 부안 | 정문자 | | 홍일, 태국, 진태 | |
| 임노숙 | 부안 | 노광배 | | 정철 | 현희, 은미 |
| 박영규 | 밀양 | 순순옥 | | 경주 | 경숙, 경미 |
| 손종석 | | | | 용재 | 윤숙, 윤예 |
| 임헌각 | 부안 | 신순자 | | 민수, 광수 | 민숙 |
| 임신용 | 부안 | 구옥래 | | 재일, 재일, 재호, 재민 | |
| 임재덕 | 부안 | 신영순 | 유치매 | 성목 | 주희, 숙현 |
| 임찬수 | 부안 | | | 재욱, 재범 | 미숙 |
| 임헌복 | 부안 | 조용순 | | 양수, 평수, 홍수 | |
| 임헌명 | 부안 | | | | 송희, 삼미, 수미 |
| 조병권 | 한양 | 장경식 | | 조선행 | 희진, 은진 |
| 박병근 | | | | | |
| 임재병 | 부안 | | 이경순 |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임헌균 | 부안 | | | | |
| 임혜수 | 부안 | 우월식 | 임헌중, 신현임 | 재현 | 홍진, 현진 |
| 임재관 | 부안 | 안미희 | 임동수, 이옥자 | 성묵 | 상미 |
| 임재욱 | 부안 | 최난순 | 임찬수 | 명환, 민환 | 영미 |
| 임재경 | 부안 | 최병분 | 임준수 | 광묵 | |

사진으로 본 나성리



마을전경



나성마을 유래비



나성교회



마을회관



임헌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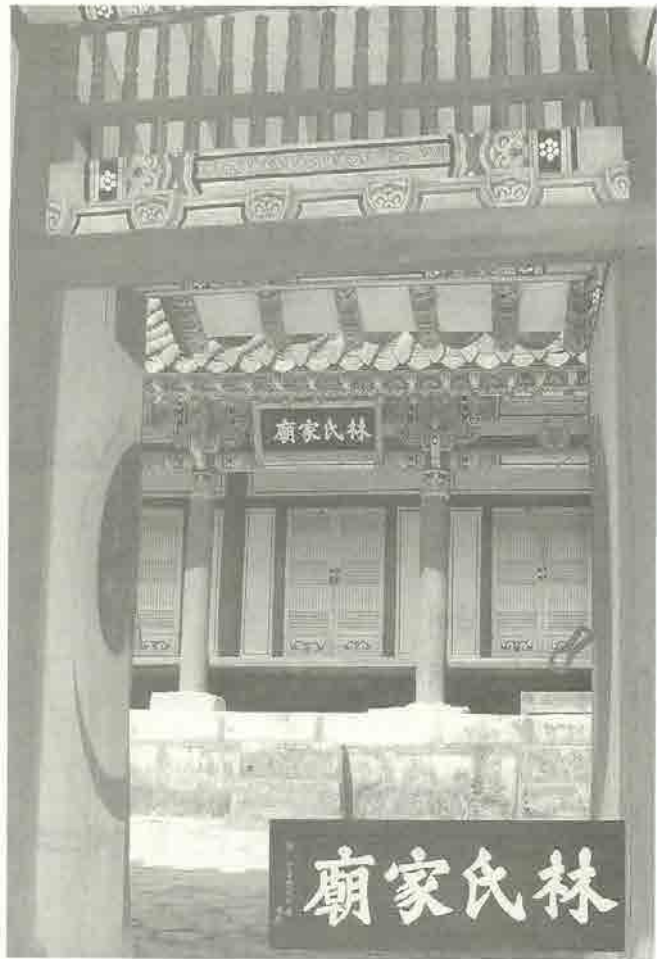


독락정

獨樂亭



나성리석불



임씨가묘

林氏家廟

14. 송원리(松院里)

백제 때는 웅주(熊州)에 속했으며, 고려 성종2년(983년)부터는 공주목(公州牧)의 관할에 있었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장원면(長元面)의 지역으로서 원래 여기에는 산과 계곡(溪谷)에 소나무가 많았고, 서원(書院)과 기와집이 즐비하게 많아서 송원리(松院里)라 하였다.

본래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행리, 신촌, 원촌, 죽동, 송계리, 만자리, 원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계와 원촌의 이름을 따서 송원리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1) 송원 1리

송계동(松溪洞)

송원 1리 1반으로, 30호가 거주한다.

‘원촌’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소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송계동(松溪洞), 송계(松溪)라 부른다.

서낭대이

나성에서 송원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요골 산 정상에 있었다.

도로가 나면서 산이 깎였다.

용달이

용달샘이 있는 마을이다.

돌쇠부리

나성, 송계동의 경계에 있는 돌 절벽으로 물이 돈다해서 돌쇠부리라고 불렀다.

곡촌(谷村)

송원 1리 2반으로, 24호가 거주한다.

송계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골말이라고도 하며, 느티나무와 정려가 있는 곳이다.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약 400년으로 나무로 속은 텅 비었다. 고사(枯死)직전 주민들의 건의로 군에서 약을 투여하여 살렸다. 예전에는 목신제(木神祭)를 지냈으나 끊긴 것을, 2001년부터 부활시켰다. 제는 정월 보름날 낮에 동네 마을 주민이 모여 옷놀이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차려놓고 동계장, 마을 이장, 청년회장 순으로 잔에 술을 붓고 절을 올린다.

홍두깨골

골이 홍두깨처럼 곧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문거리

정려가 있던 곳을 말한다.

말무덤

말을 파묻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맥이골

홍수가 나면 배를 묶어 두던 곳이다.

새뜸

예전에는 마을이 없었고 새로 마을이 들어섰다는 뜻으로, 새뜸이라 부른다. 호구혈(戶口穴)명당이였다. 이 명당은 자손이 찾아오면 화를 입기 때문에 묘지기를 두어 관리하였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묘지기가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동천모랭이(모롱고지)

마을로 갈 때 새터로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사장들

강 옆에 백사장을 들판으로 만든 곳을 지칭한다.

현재 동성피혁 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원터

송원 1리 3반으로, 20호가 거주한다. 효(孝)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머레’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금호서원(錦湖書院)의 터가 있다 하여 ‘원터’라 부르며 ‘새터’ ‘원촌(院村)’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조선시대 때 전라도 사람들이 한양(漢陽)가는 길에 여기를 지날 때, 서원(書院)과 기와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한양이냐고 물을 정도로 서원이 많이 있다 하여 ‘원촌(院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열녀비(烈女碑)

‘원터’ 앞에 있는 열녀비(烈女碑) 열녀(烈女) 일개(一介)의 열녀비(烈女碑)다. 도로를 내면서 연기향토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금호서원(錦湖書院)

‘원터’에 있는 향현사(鄉賢社)인 금호서원(錦湖書院)의 터다. 죽당(竹堂) 유진동(柳辰仝), 충경공(忠景公) 유형(柳珩), 금사(錦沙) 유충걸(柳忠傑)을 배양하였던 곳이다. 고종 5年(1868)에 철폐되었다.

충신정문(忠臣旌門)

원터에 있던 정문으로 광해군 때 명나라의 명을 받고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유지걸(柳智傑)의 충신정문이다. 자손들이 공주로 이사하면서, 후에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옮겼다.

밤고개(방고개)

새터와 공주의 경계에 있다. 잉어골에 있었으며 도로가 나면서 유실되었다.

잉어골

잉어가 많이 잡혔던 골이다.

새터뫼뫼

유림 뒷산을 가리킨다.

서원터

서원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

대소골(대숲골)

송원 1리 4반으로, 10호가 거주하고 있다.

‘송계’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해서 ‘대소골’이라 부른다. 대나무로 한 마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죽동(竹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지형이 소쿠리 안처럼 아늑하다.

망적봉(望積峰)송원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전란(戰亂)시에는 망을 보던 곳이다.

안대소골

대소골에서 더 들어가면 고랑 있는 동네를 가리킨다.

용미(龍尾, 앵밀티)

용꼬리처럼 생긴 능선을 말한다.

만자골

송원 1리 5반으로,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대소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이 곳엔 암자(庵子)가 있었다. 여기 있는 암자(庵子)에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마을이다. 많은 자식을 얻어 나가는 ‘암자(庵子)’가 있다 해서 ‘만자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만자동(滿字洞)’이라고도 부른다.

요골

만자골 남쪽으로 남쪽 고랑을 지칭하며, 범(부엉)바위 북쪽이다.

절골

만자골에서 서쪽 골짜기에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새방골

만자동 정문거리 서북쪽의 골짜기이다.

음지말

만자골에서 북쪽의 마을로 해가 뜨면 양지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삼세정문(三世旌門)

만자골 앞에 있는 정문(旌門)으로, 평사(評事) 이목(李穆)을 비롯하여 삼세(三世)의 효자정문(孝子旌門)이다.

제보자(송원1리)

김창재(57 이장), 남자 노인회장 유증호(77), 여자노인회장 송병숙(70),
최완봉(79), 이찬복 동계장(72), 오종환(71), 김인수(70), 백구현(68),
유경일(64), 김우진(52), 백옥순(70), 신현숙(67) 김재희(68), 김윤정(69),
구권순(79)

송 원 1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김창재 | 선산 | 박순분 | | 경훈, 대훈 | 진희, 선희 |
| 현석민 | 연주 | 김옥현 | | 길순, 종대 | |
| 주명순 | | | | 손: 형우 | |
| 백병기 | 수원 | 이순주 | | 인현, 덕현, 장현, 일현 | 미현 |
| 백정현 | 수원 | 이춘선 | | 운청, 운정 | |
| 백영기 | 수원 | 권사나이 | 서식 | 관현, 완현 | |
| 백구현 | 수원 | 황정서 | | 운찬, 운학, 운성 | 운숙 |
| 백성현 | 수원 | 최원순 | | 운상, 운기, 운홍 | |
| 임재석 | 부안 | 송금순 | | | 유천, 지숙, 지영 |
| 임재득 | 부안 | 정근예 | 한이례 | 상목 | 상희 |
| 임병태 | 부안 | 변재웅 | | 영규, 정규 | 정순 |
| 임병문 | 부안 | 정점자 | | 용규, 향규 | 정애 |
| 이경숙 | 청주 | | | 한상식 | 상옥 |
| 윤갑수 | 파평 | 손종섭 | 최옥녀 | 재환, 재복, 재철 | |
| 윤갑동 | 파평 | 한영애 | | 재만, 재성 | 혜정 |
| 윤봉림 | 파평 | | | 이용길 | |
| 성은모 | 달성 | 김석선 | | 열상, 열식 | 미순 |
| 성주찬 | 달성 | 윤원순 | | 기용, 재용 | |
| 박선봉 | 밀양 | 김대순 | | 종선, 종만 | 순남, 영선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박성일 | 밀양 | 김태순 | | 종복 | |
| 박영진 | 밀양 | 강남식 | | 영철 | 영애 |
| 강성원 | 진주 | 전영자 | | 호영, 호일, 호만, 호인 | |
| 김삼환 | 경주 | | | 백옥현 | |
| 정정희 | 동래 | | | 영한 | 운영, 지영 |
| 백상현 | 수원 | 심분근 | | 운강 | 운선 |
| 김성태 | 김해 | 고순자 | 백선기 | 상철 | 철희 |
| 김선두 | 광산 | 이복실 | | 용봉 | |
| 김춘기 | 경주 | 이성운 | | 종훈, 종욱 | 미숙, 미옥 |
| 김대영 | 김해 | 문순규 | | 경철 | 연희, 경진 |
| 김우진 | 경주 | 이화자 | | 기찬 | 애란 |
| 김호일 | 경주 | 양병임 | | 학선, 학원 | 민숙 |
| 장기원 | 인동 | 임정자 | | 석준 | 용이 |
| 유경일 | 진주 | 이영자 | | 완호, 인호 | 선욱 |
| 유현호 | 진주 | 한희영 | 유호일, 강희숙 | 재성 | 민지, 민영 |
| 유봉호 | 진주 | | 권필순 | 권호 | |
| 조병익 | 한양 | 김종선 | | 인행, 선행 | |
| 오세빈 | 해주 | 박재희 | 오종환, 길삼예 | 민석 | 슬기, 채림 |
| 오영세 | 해주 | 김정자 | 오도환, 홍승분 | 오승록 | 오진영, 숙영 |
| 오영자 | 해주 | | 고금순 | 임종직, 종필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최완봉 | 경주 | 이용준 | | 인호 | 영복, 영숙, 영애, 영희 |
| 이찬복 | 전주 | 신현숙 | | 정기, 홍기, 동기 | 정희, 정옥 |
| 이방석 | 성산 | 이순희 | | 석영, 혁영 | |
| 김중선 | 김해 | 이미자 | 김인수 | | 보영, 다영 |
| 한정예 | 청주 | | | | |
| 박영숙 | 밀양 | | | 용복, 용갑 | 은미 |
| 문환춘 | 남평 | 백금기 | | 용규, 하규 | 순규 |
| 현청일 | 연주 | 김윤정 | | 덕순, 교순, 도순 | 경순, 장순, 점순, 동순 |
| 이달주 | 전주 | 김순예 | | 용재, 용무, 용화, 용규 | |
| 김종석 | 경주 | | | 이충규 | |
| 이근직 | 전주 | 조옥희 | | 기병 | 인숙, 진숙 |
| 이근백 | 전주 | 백순덕 | | 기병, 윤병 | |
| 정송길 | 동래 | | | 이덕수, 이정학 | 이미경, 이에경 |
| 유성희 | 진주 | 이선자 | | | |
| 김완규 | 경주 | 박재복 | | 종학, 동기, 종인, 종태, 종만 | |
| 백인석 | 수원 | 유해성 | 백운국, 맹정희 | 성규, 성수 | |
| 강상규 | 진주 | 성순옥 | | 전명 | 경희, 은희 |
| 이근복 | 전주 | | | 유근수 | |
| 송병숙 | 회덕 | | | 근전, 근환 | 근애, 근초, 근옥, 미애 |
| 이은수 | 전주 | 김정순 | | 증주, 인주 | 항주, 선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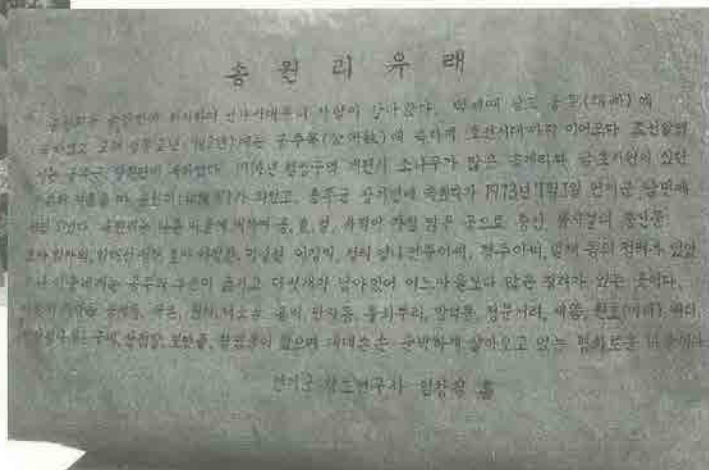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백옥순 | 수원 | | | 김운재 | 김진순, 진숙, 진분 |
| 김상인 | 광산 | 김선봉 | | | |
| 홍장표 | 남양 | 이화남 | | 성도, 성유 | 향옥, 경자 |
| 이영동 | 전주 | 염옥남 | | 원상, 원태 | 원정 |
| 강태현 | 진주 | 황순자 | | 영문, 상문 | 영미, 영난 |
| 박두수 | 밀양 | 성은순 | | 기성 | |
| 성재용 | 달성 | 이선희 | | 하준 | 정예 |
| 이선규 | 전주 | 정경희 | | 진광, 진호 | |
| 장창봉 | 인동 | 이동예 | | 병안, 병운 | 순애 자부:박명숙 |
| 이서규 | 전주 | 배년희 | | 진경, 진수 | |
| 안병걸 | 순흥 | 김명희 | | 창남 | 인숙, 춘숙, 봉순 |
| 안영식 | 순흥 | 엄지순 | | 성환 | 민경 |
| 고성규 | 제주 | 전장순 | | 현수 | 옥경, 옥화 |
| 이병완 | 전주 | 조영순 | | 주규, 원규 | |
| 이연옥 | 전주 | 노영숙 | | 도규, 석규 | 영자, 노섭, 진순 |
| 이병준 | 전주 | 문오규 | | | |
| 임옥례 | 부안 | | | 이성병 | |
| 이기진 | 전주 | 김경순 | | 강시, 강선, 강현 | |
| 강영숙 | 진주 | | | 이윤규 | |
| 유중호 | 진주 | 구건순 | | 근배, 근영 | 국화, 국희, 화순, 근숙, 마숙, 연숙, 영심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유근중 | 진주 | 이정중 | | 탁희 | |
| 황연서 | 회덕 | 이영순 | | 성준 | 인선, 진희 |
| 현명호 | 연주 | | 이봉하 | | |
| 이평규 | 전주 | 성금용 | | 진우 | 진주 |
| 이공자 | 전주 | | | 태순, 성순 | |
| 권종기 | 안동 | 김정순 | | | |
| 유길호 | 진주 | 박정현 | | 유근홍, 근일 | 유혜숙 |

사진으로 본 송원 1리



송원리 마을유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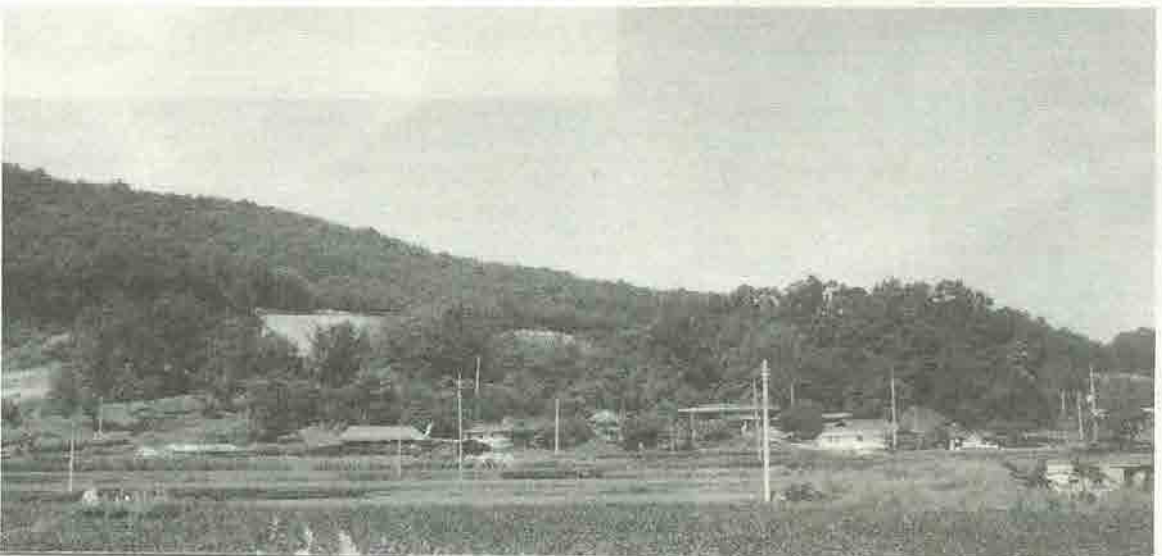
연기군 향토연구회 일출용 돌



송계동 끝말 전경



만자동



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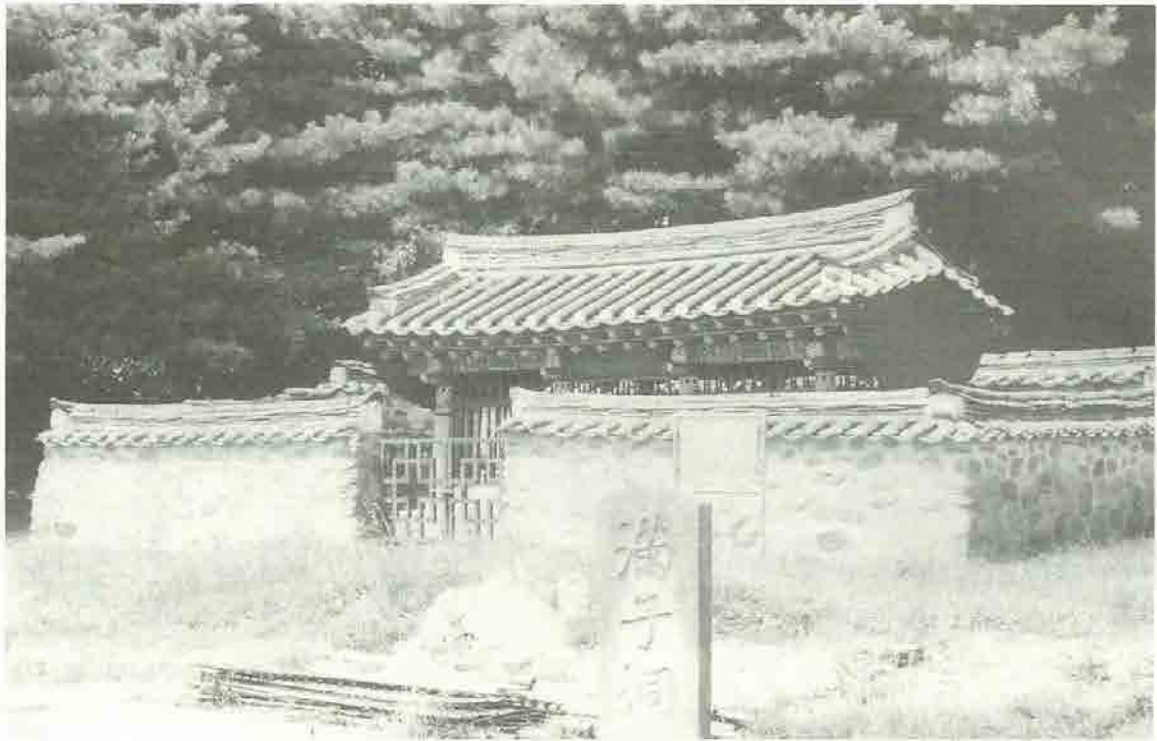
2000년 등구나무 목신제



느티나무



마을회관



만자동 삼세정문



이윤창 송덕비

2) 송원 2리

원호(遠湖)

송원2리의 2반으로, 36호가 거주하고 있다.

옛날에는 머레라고 부르다가 후에 원호(遠湖)라 불렀다. 다시 일제시대 때 송원리라 불렀다.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로 강변에 위치하여 장사꾼이 많았다.

물이 마을까지 들어와서 원호(遠湖)라고 불렀다.

송원리(松院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수원박씨(水原朴氏)와 유씨(柳氏)가 많이 살고 있다. ‘원터’에서 멀리 떨어져 금강(錦江)가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이 마치 먼 곳에 보이는 호수(湖水)가의 마을이라 해서 원호(遠湖)라 부르며 ‘머레’라고도 부른다.

쌍효자정문(雙孝子旌門)

‘머레’ 앞에 있는 임자의(林自儀), 임태의(林太儀) 형제의 그윽한 효성을 기념하는 효자정문이다.

임 형제는 아버지가 죽자, 묘 앞에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때 호랑이가 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에서 잠도 같이 잤다. 어느 날, 형제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살려 달라고 해서 가 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형제는 호랑이를 구해 안고 강을 따라 내려오니, 도덕골에서는 호랑이와 같이 온 효자를 보고 야단법석이 났다고 한다.

형제들의 효행에 대하여 왕에게 올린 상소문은 후손 임흔태, 임정수 부자(父子)가 간직하고 있으며 정문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산적말

머레의 중심 마을을 산적말이라 부른다

날랭이 마을로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다. 마을 가운데 수령이 약 250년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 정자나무의 잎이 일찍 피면 풍년이 들고, 늦게 피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사람이 아프면 이 나무 앞에서 ‘경(經)’을 읽었으며, 죽은 나뭇가지(삭정이 가지)를 갖다 불을 때면 동토가 난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 보름제를 지냈으나

1970년경 이후부터 지내지 않는다. 송원1리(대소골)에서 옮겨왔다고 한다. 길가는 나그네가 쉬어 가던 곳이다.

한림정(翰林亭)나루

머레 남쪽에 있는 금강의 나루이다.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한림정으로 건너간다.

배터

한림나루터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강경에서 온 소금, 새우젓, 굴비 등을 실은 배가 이곳까지 왔던 곳이다. 머레에서 공주로 밀, 보리방아를 찧기 위해 이 나루로 다녔다.

구례

송원 1리에서 돌아오는 곳을 구례라고 부른다.

정문(旌門)거리, 큰말

개사귀

원래 밭이었다가 후에 논으로 바뀐 논을 말한다.

추경밭

보리, 밀 등을 갈 때 깊이 갈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

대추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이다.

보(洑)안골

보(洑)가 있는 안 동네를 지칭한다.

무당바위

무당이 굷하다 떨어져 죽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바위

작은 벽장골, 큰 벽장골

골이 쭉 들어가 벽장처럼 생긴 골을 말한다.

입구는 좁고 들어가면 넓어지는 골이다.

참샘골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옷, 피부병 등과 특히 미친 사람이 이 샘물을 먹고 나았다고 한다.

터골예전에 큰 기와집이 있던 터라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지금도 깨진 기와장이 나오고 있다.

체봉골

체봉(가묘, 假墓)하던 곳이다.

글방

서원이 있던 곳으로 6·25 사변 때 없어졌다.

윗골

마을 위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매봉재

벽장골 옆 큰산이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매처럼 높은 곳에서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곳이기에 매봉재라 부른다. 밑에 샘이 있었으나, 2년 전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장구배미

장구처럼 생긴 논이다.

기와배미

기와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네모배미

네모처럼 반듯하게 생긴 논을 지칭한다.

밭티

논을 밭으로 갈던 논이다.

생업

논농사, 축산(젓소)업을 하고 있다.

주요인물

정낙진

독립유공자 정낙진(79)씨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1980년 건국훈장을 포상하였고, 6·25사변 참전으로 화랑훈장을 받았다.

정낙진 씨는 소학교 시절인 1940년 일본에서 조선독립단에 입단해 연락책을 맡아 도서관 등지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일본정부 전복을 기획하였다.

일본군에 잡혀 현창석, 최용석, 강금종 등과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 죄목으로 3년 간 옥살이를 하였다.

주요성씨

옛날에는 현(玄)씨와 허(許)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경주김씨가 7, 8가구 살고 있다. 그 외에 여러 성씨들이 거주한다.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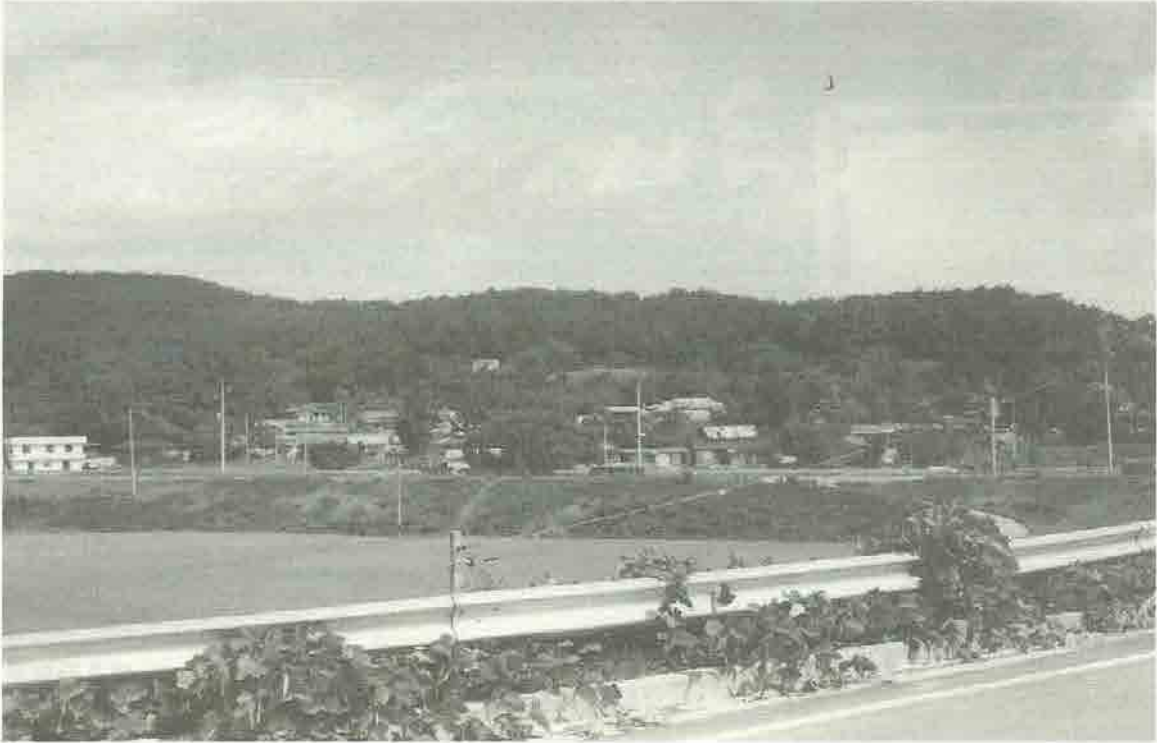
민원규(이장), 김영식(70), 이규용(71), 허연(75), 이정하(77), 정낙진(79), 김봉귀(80), 허영대(71), 김우섭(65), 허준(64), 김계동(65), 최성일(61), 강석자(65), 권경애(69), 김경섭(53), 허대순(51)

송 원 2 리 세 대 주 명 단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 들 이 름 | 딸 이 름 |
|-------|----|-----|---------|--------------|----------|
| 강석자 | 진주 | | | 채재환,기환,덕환 | 경숙, 경림 |
| 김순기 | 김영 | | | | |
| 김영식 | 경주 | 홍영자 | | 학동, 학정 | 순옥 |
| 김기순 | 경주 | | | 정해영,해철,해경,해군 | 춘자 |
| 김화순 | 안동 | | | 김기현,기영 | 명옥,순자 |
| 김용순 | 경주 | | | 정해승,해승 | 해옥,해순 |
| 김우병 | 경주 | 허대순 | 김봉기,홍언년 | 기석,기복 | 수연 |
| 김정희 | 경주 | 박나목 | 장죽자 | 기성 | 기순,기숙 |
| 김우섭 | 경주 | 박임규 | | 기형, 기봉 | 명숙,명희 |
| 김진표 | 김영 | | 이봉남 | | |
| 김성규 | 김영 | 김동림 | | 진필, 진갑 | 진경 |
| 김충지 | 경주 | | | 은수, 영기 | 영옥,영순,영숙 |
| 남병용 | | 최성일 | | 기호 | |
| 남병봉 | | | | 기웅 | 옥순 |
| 민원규 | 여흥 | 조목남 | | 경림, 경만 | 경진 |
| 민영순 | 여흥 | | | 황관철, 관영 | 관예,관숙,관순 |
| 설희환 | 순창 | | 윤대임 | | |
| 설영순 | 순창 | | | 송춘자,재희,재수,재연 | |
| 이만복 | 전의 | 현명신 | | 진용,주홍 | |

| 세대주명단 | 본관 | 처이름 | 생존하는 부모 | 아들 이름 | 딸 이름 |
|-------|----|-----|---------|--------------------|--------------------|
| 임재화 | 부안 | 김계동 | | 문수, 태수 | 예숙 |
| 이규용 | 전주 | 황석자 | | 석진 | 영진,복진 |
| 이우진 | 전주 | | 송춘자 | | |
| 유춘원 | 진주 | 신무진 | | 근철, 승찬, 승돈 | 정순, 정식, 정옥 |
| 이영일 | 전주 | 설근예 | | 광규 | 순규 |
| 양순석 | | | | 승복, 승홍 | |
| 유지인 | 문화 | | | 민상규 | |
| 이정하 | 전주 | | 설순임 | 은영, 은규, 은성 | 영숙, 영수, 영남 |
| 안순만 | 수원 | 김경섭 | | 동기 | 영자 |
| 정순용 | | | | 이규삼, 규홍 | |
| 정낙진 | 나주 | 박소제 | | 해룡, 해석, 해근, 해수, 해열 | |
| 최정순 | 전주 | | | 조익환, 만익, 성익 | |
| 허연 | 양천 | 이덕순 | | 만규, 용성 | 승자, 승준, 승한, 승나 |
| 허영대 | 양천 | 유언년 | | 만수, 만영, 만제 | 승식 |
| 허준 | 양천 | 권순예 | | 용진, 용길 | 승순, 용숙 |
| 현석윤 | 양천 | 권상인 | | 동주 | 용선, 회정, 회숙, 회남, 회경 |
| 현석춘 | 양천 | 권경례 | | 달순, 성순, 돈순, 경순 | 은순, 문순 |

사진으로 본 송원 2리



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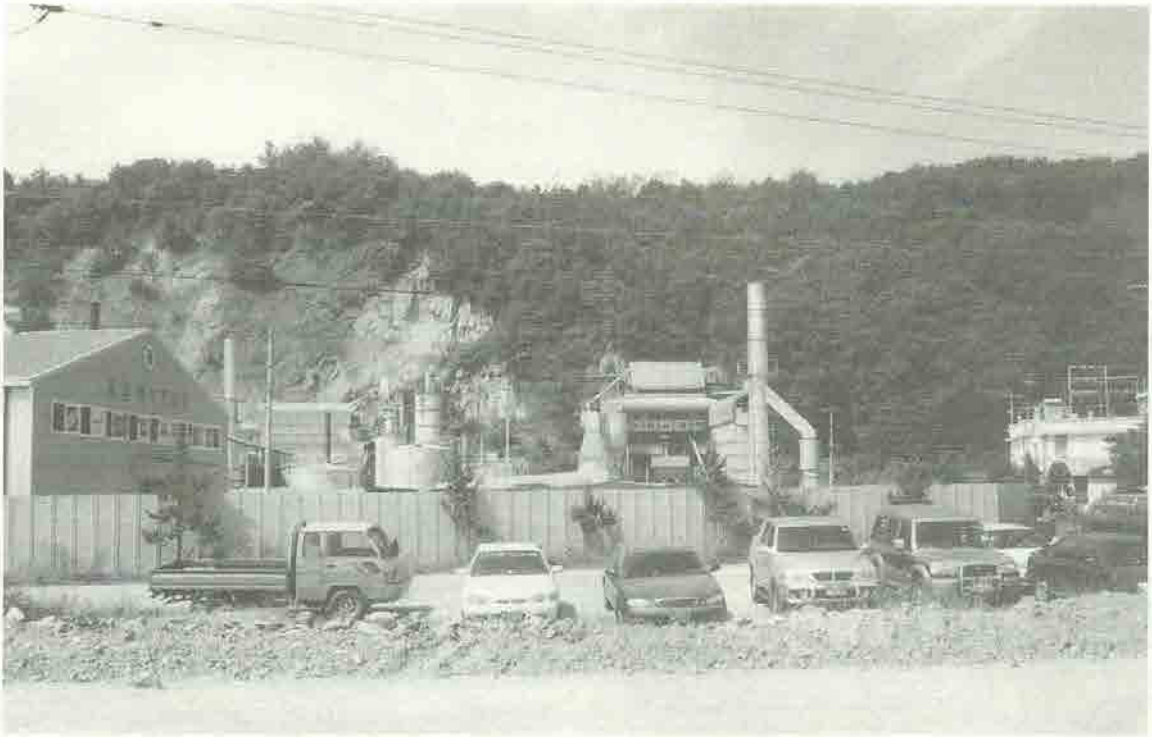
송원2리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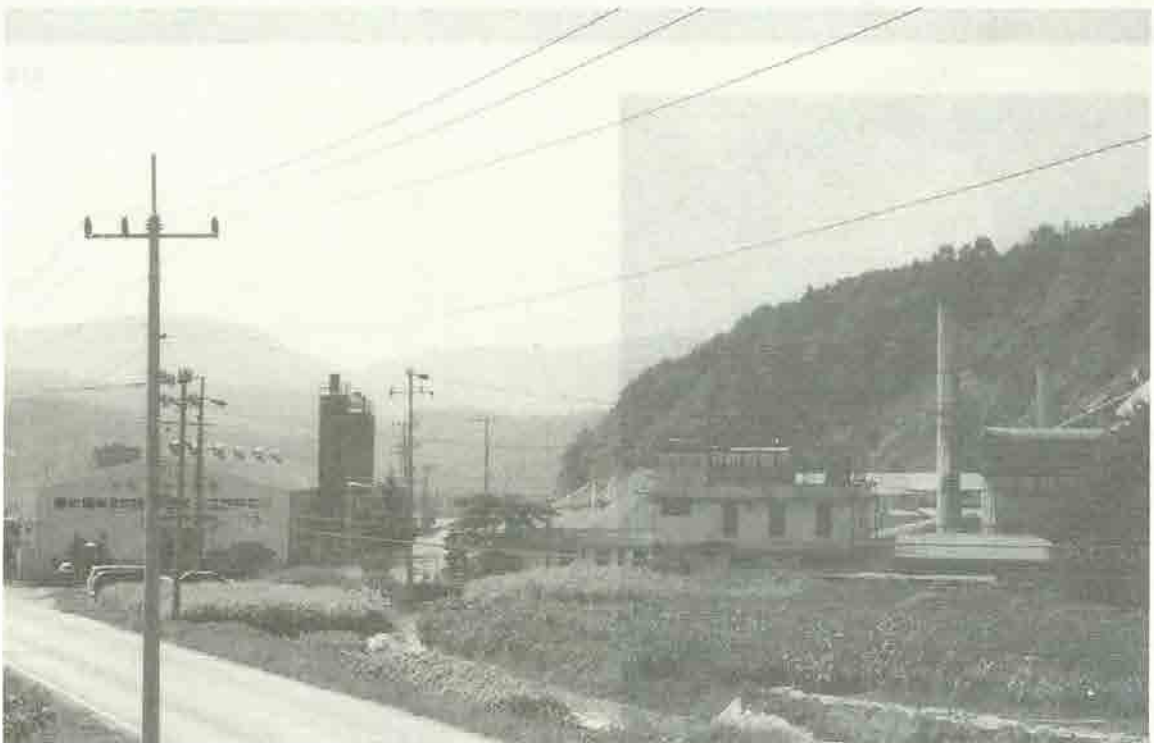
쌍효자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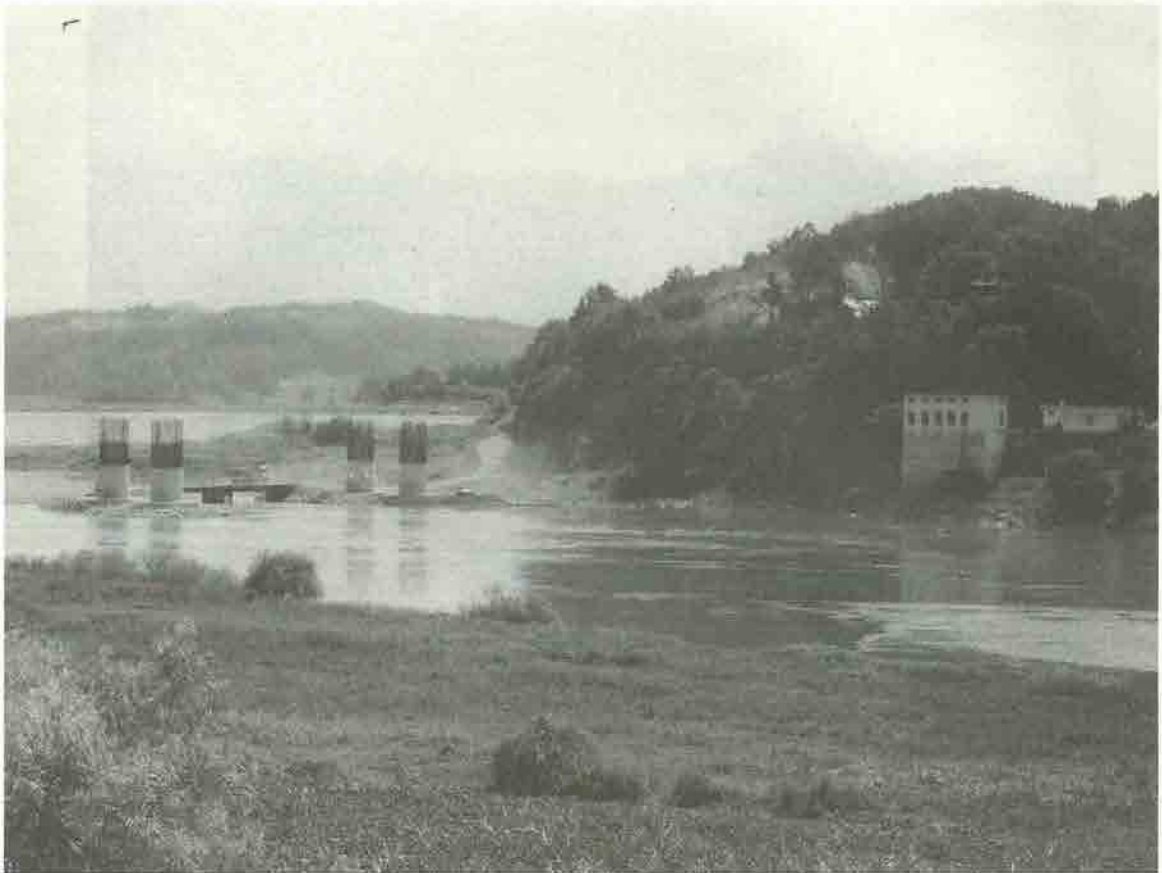
송원2리 느티나무



유림공영



유림공영



한림나루



애국지사 정낙진(79)

제 4장 지방자치단체선거

제1절 개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각각 의회를 둔다」, 그리고 3항의 「지방자치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동년 12월 5일자로 개정·공포되고, 이듬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25의 발발로 인하여 선거가 연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전쟁 중에 처음으로 읍·면 의원 선거가, 그리고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의회와 도의회 의원과 시·읍·면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2월 10일 개정(제2차 개정)으로 시·읍·면장도 주민이 직접선거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8년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였다.

제2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아 지방선거가 없었다. 그러다가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6월 20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보다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이 때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임기가 만료된 초대 시·군·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였다. 이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한다. 이어 3년 뒤인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공히 4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방자치 단체장과 제2대 지방의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에 만료하도록 지방자치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주기와 2년의 차이를 두기 위한 기술적 조치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건국이래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선거 현황표〉

| 구 분 | 시·읍면장 | 시·도의원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의원 | 시·읍면장 | 시·읍·면의원 |
|------|-------|-------|-----------|---------|-------|---------|
| 1952 | - | ○ | - | - | | ○ |
| 1956 | - | ○ | - | - | ○ | ○ |
| 1960 | ○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
| 1998 | ○ | ○ | ○ | ○ | - | - |
| 계 | 3회 | 6회 | 2회 | 3회 | 2회 | 3회 |

제2절 연기군 남면의 역대 읍·면의원

1, 남면 역대 면의원

1) 초 대 (1952. 3)

의 장 : 이훈갑

부의장 : 임재학

의 원 : 하충환, 김용학, 이창덕, 박문옥, 황건성, 임재복, 임태산
임재성, 임헌석, 이종석

2) 2 대 (1956. 4)

의 장 : 이달상

부의장 : 임재성

의 원 : 이영호, 임윤손, 임병준, 윤정현, 안재하, 박문옥, 임현호, 임현영
임현양, 홍명기

3) 3 대 (1960. 12)

의 장 : 임준철

부의장 : 이도영

의 원 : 이 단, 이영호, 임현찬, 이태규, 임윤손, 임현양, 강윤식, 황건식
임현영, 임현성

제3절 충청남도 의회의원 선거

1. 초대 도의회의원선거

초대 도의회선거는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선거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연기군 전역으로 이루어진 단일구로, 의원정수는 2명이었다.

정치 발전의 초창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것은 의정경험은 물론 지역내에서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고, 중앙정치무대로의 진출에 매우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이 모아졌다.

투표결과 당선자는 최병익, 강태진이다.

2. 제2대 도의회의원선거

제2대 도의회의원선거는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7월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선거구에 1인 선출주의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연기군은 초대와 마찬가지로 2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는데 당선자는 최병익, 임봉수이다.

초대와 2대의원에 당선된 최병익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3.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11월 1일 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으나, 선거권자 연령을 20세로 내린 이외에 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해서는 종전과 별로 다를바가 없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된 선거구역이 종전과 같이 2개의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당선자는 진용식, 김태용으로 2명이다.

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동시에 중복되어, 선거운동에 혼잡을 이루었다.

4. 제4대 도의회의원선거

1987년 6월항쟁이후 6·29선언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 15일 통과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 시·군·자치구의 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데 이어, 동년 6월 20일 광역시, 도의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연기군은 3개의 선거구로 남부(금남·남면지역), 중부(조치원읍), 북부(전의·정동지역)로 나뉘어져 선거구당 1명씩을 선출하게 되어 총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선거에 앞서 정당 공천을 받기위해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조치원읍 선거구에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 공천을 얻기 위해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이기봉과, 지역 번영회장인 윤필균을 놓고 군민회관에서 당원들이 모여 공천 투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필균이 당선이 되자, 이기봉을 밀던 박희부는 단상에 뛰어올라 무효를 주장했다. 결과는 윤필균이 민주자유당후보가 되었고, 이기봉은 무소속출마를 결심한다. 그래서 연기지역은 민주자유당에 윤필균후보, 민주당에 박희서후보, 무소속에 이기봉후보가 출마하여 결과는 무소속의 이기봉후보가 8,53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한편 제2선거구인 남부권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강기세후보가 6,229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고성후보가 6,83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연기군 제1선거구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보자별 득표수 | | | | 무효투표수 | 기 권 수 |
|--------|--------|----------|-----|-------|--------|-------|-------|
| |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무소속 | 계 | | |
| | | 윤필균 | 박휘서 | 이기봉 | | | |
| 20,120 | 14,318 | 4,546 | 984 | 8,532 | 14,062 | 256 | 5,802 |

연기군 제2선거구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보자별 득표수 | | | | | | 무 효 투표수 | 기 권 수 |
|--------|--------|----------|-------|-------|-------|-------|--------|---------|-------|
| | | 민주자유당 | 신민당 | 민주당 | 무소속 | 무소속 | 계 | | |
| | | 강기세 | 이원석 | 박상희 | 안원중 | 최봉식 | | | |
| 19,690 | 13,851 | 6,229 | 1,795 | 1,283 | 2,315 | 1,860 | 13,482 | 369 | 5,839 |

연기군 제3선거구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보자별 득표수 | | | | 무효투표수 | 기 권 수 |
|--------|--------|----------|-------|-------|--------|-------|-------|
| |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무소속 | 계 | | |
| | | 김고성 | 김동수 | 정해영 | | | |
| 17,381 | 12,753 | 6,831 | 1,780 | 3,822 | 12,433 | 320 | 4,628 |

5. 제5대 도의회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의 통합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군수),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군의원)] 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4대 동시선거는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도지사의 열풍은 식었지만, 반면 지역에서 선출되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많은 후보자들로 인하여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것은 흑색선전과 상대방 비방이 난무하였고, 자연 주민들은 파가 형성되어 분열의 조짐이 생기므로, 지방자치체의 본의가 우려되었다.

특히 충청도를 기반으로 김종필총재는 자유민주연합(약칭:자민련)이란 정당을 만들어 공천하였으므로, 충청도의 자존심을 찾자는 구호는 충청도인들에게

단결을 요구하여 자민련 공천자가 대거 당선되는 사례를 낳았다.

연기군의 도의원선거는 제1선거구에 민주자유당의 홍헌표와 자민련 한소환후보의 경합에서 한소환후보가 6,264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는 민주자유당의 안원종과 자민련의 임해수후보의 경합에서 자민련 임해수후보가 6,304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홍종준과 자민련의 윤석규후보가 경합을 벌여 윤석규후보가 7,188표를 얻어 모두 자민련후보가 당선되었다.

연기군 제2선거구

| 선거인 수 | 투표수 | 유효 투표 수 | | | | | 무효 투표수 | 기권수 | 투표율 (%) | 유효 투표율 (%) |
|--------|--------|---------------|-------|-------|-------|--------|--------|-------|---------|------------|
| |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 | | | |
| |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자민련 | 무소속 | 계 | | | | |
| | | 안원종 | 박상희 | 임해수 | 강화섭 | | | | | |
| 18,207 | 14,198 | 2,958 | 2,451 | 6,304 | 1,734 | 13,447 | 751 | 4,009 | 78,0 | 94.7 |

6. 제6대 도의회의원선거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치루어진, 제2회 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치루어졌지만, 연기군은 3개의 선거구가 2개구로 줄어들어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치루어지게 되었다.

동부는 조치원을 중심으로 서부는 전의·금남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는데, 동부는 국민회의의 윤훈준후보, 자민련에 한소환후보가 경합을 벌였고 서부지역은 한나라당 홍종원, 국민회의 강기세, 자민련 강화섭, 무소속 박상희후보가 출마하여 경합결과 자민련의 후보인 한소환, 강화섭후보가 당선되었다.

연기군 제2선거구(전의면, 서면, 남면, 금남면)

| 선거인 수 | 투표수 | 유효 투표 수 | | | | | 무효 투표수 | 기권수 | 투표율 (%) | 유효 투표율 (%) |
|--------|--------|---------------|-------|-------|-------|--------|--------|-------|---------|------------|
| |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 | | | |
| | | 한나라당 | 국민회의 | 자민련 | 무소속 | 계 | | | | |
| | | 홍종원 | 강기세 | 강화섭 | 박상희 | | | | | |
| 28,369 | 19,252 | 3,649 | 5,323 | 6,985 | 2,486 | 18,443 | 809 | 9,117 | 67.9 | 95.8 |

7. 제7대 도의회의원선거

세 번째 지방4대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후보로 인하여 갈등도 심하였는데 이제는 서서히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잡혀갔다.

또 하나의 변화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자유민주연합의 가능성이 전에 보다 많이 희박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연기군은 군수와 도의원이 한나라당후보가 당선되면서 어느시·군보다 더욱 뚜렷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 역시 2개의 선거구에서 치루어졌으며 제1선거구는 한나라당의 유환준후보와 자민련의 황치환후보 경합에서 유환준후보가 10,288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노장우후보와 자민련의 임상전후보가 경합을 벌여 자민련 임상전후보가 7,856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충남도의원선거(지역구)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보자별 득표수 | | | | 무효투표수 | 기권수 | |
|-------|--------|--------|----------|-------|--------|-------|--------|-----|--------|
| | | | 한나라당 | | 자유민주연합 | | | | 계 |
| | | | 유환준 | 황치환 | 유환준 | 황치환 | | | |
| 제1선거구 | 31,837 | 17,653 | 10,288 | | 6,674 | | 16,962 | 691 | 14,184 |
| 제2선거구 | 29,066 | 18,698 | 한나라당 | 자민련 | 무소속 | 무소속 | 계 | 883 | 10,368 |
| | | | 노장우 | 임상전 | 박상희 | 신상근 | | | |
| | | | 4,249 | 7,856 | 2,884 | 2,826 | | |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종전 지역선거구에서의 정당추천 후보자의 득표수를 근거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정당별로 투표하는 정당선호도 방식으로 바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결과 전국적인 선거판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종전 제3당의 위치를 고수하던 자민련이 민주노동당보다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여 이제 제3당으로서의 위치마저 불안하게 되었고 이후, 자민련의원의 대거탈당이라는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지역에서는 자민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제4절 연기군수 선거

1. 초대 민선 연기군수선거

초대 민선 연기군수선거란 과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 경험은 없지 않으나 그 당시에는 시·읍·면이었으므로 연기군수를 뽑는 것은 처음 실시된 것이라 하겠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4대 선거에서 군수선거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다른 선거보다 군수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사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누가 출마할 것인가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군수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이 가능했기 때문에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출마할 것인가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당시 연기군수선거에 출마한 이는 조치원문화원장을 역임하다 도의회의원이었던 이기봉이 민주자유당으로, 부군수를 하던 홍순규가 자민련으로,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성원, 이재기, 최부용, 한종률등 6명이 입후보하여 이들 중 이기봉후보와 당시 충남의 바람을 타고 지지받던 자민련 소속 홍순규후보의 경합으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자민련의 홍순규후보가 19,13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초대 민선 연기군수선거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유효 투표 수 | | | | | | | 무효 투표 수 | 기권 수 | 투표율 (%) | 유효 투표율 (%) |
|------|--------|--------|---------------|--------|-------|-------|-------|-------|--------|---------|--------|---------|------------|
| | |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 | | | | | |
| | | | 민주자유당 | 자민련 | 무 소 속 | | | | 계 | | | | |
| 이기봉 | 홍순규 | 이성원 | 이재기 | 최부용 | 한종률 | | | | | | | | |
| 연기군 | 57,178 | 42,846 | 10,622 | 19,131 | 917 | 1,322 | 1,013 | 5,613 | 38,618 | 4,030 | 14,530 | 74.6 | 90.6 |

2. 제2대 민선 연기군수 선거

두 번째 실시한 동시지방선거는 투표참여율이 초대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아 평균 64.2%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의 양상 또한 초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자민련의 압승이 이어졌다. 그러나 초대에서 받았던 표보다는 2등과의 표차

가 좁아지고 있었다.

또한 초대에서 6명의 후보가 이제는 단 2명으로 줄어들었다. 연기군에서는 현군수인 홍순규후보가 자민련으로 입후보하였고 이기봉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현군수인 자민련 홍순규후보가 20,42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2대 민선 연기군수선거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유 표 투 표 수 | | | 무 효 투표수 | 기권수 | 투표율 (%) | 유 효 투표율 (%) |
|------|--------|--------|---------------|--------|--------|---------|--------|---------|-------------|
| | | | 후 보 자 별 득 점 수 | | | | | | |
| | | | 자민련 | 무소속 | 계 | | | | |
| | | | 홍순규 | 이기봉 | | | | | |
| 연기군 | 57,942 | 37,199 | 20,424 | 15,729 | 36,153 | 1,046 | 20,743 | 64.2 | 97.2 |

3. 제3대 민선 연기군수선거

세 번째 지방동시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시행되었다. 처음과 두 번째 선거보다 더 저조한 60%의 투표율로 선거를 치루었으며 선거후보자가 많았지만 서로의 비방과 편가르기가 심하지 않았다.

연기군수선거에 입후보자는 한나라당에 이기봉, 자민련의 최준섭,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성원·최부웅 후보가 출마하여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홍순규 현군수가 출마를 포기하므로 최준섭씨가 자민련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이기봉후보와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결과 이기봉후보가 17,48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연기군수 선거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무 효 투표수 | 기권수 | |
|------|--------|--------|---------------|--------|-------|-----|---------|-----|--------|
| | | | 한나라당 | 자민련연합 | 무 소 속 | | | | |
| | | | 이기봉 | 최준섭 | 이성원 | 최부웅 | | | |
| 연기군 | 60,903 | 36,315 | 17,483 | 15,460 | 1,565 | 936 | 35,444 | 871 | 24,588 |

제5절 연기군 의회의원 선거

1. 초대 연기군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과 군수선거가 1992년 말의 시한을 넘겨서 그 실시가 연기되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었다.

6·29 민주시민항쟁에 의해 성취된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에 의해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이 선거는 단체장 선거의 자의적인 연기로 인해 일단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발아단계에서 정착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던 지방자치제도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유명무실해진 후, 실로 30년만에 재출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선거였다.

초대 연기군 의회선거는 1991년 3월 8일 대통령공고 제112호로 선거일이 공고되고, 3월 21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어, 3월 26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연기군은 7개의 선거구에서 8명의 군의원을 선출하였다.

조치원읍에서 4명이 입후보하여 2명이 선출되었다. 남면의 임해수후보는 상대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조치원읍은 오운교와 이진희가 당선되었고, 동면은 임광수, 서면은 유진국, 남면은 임해수, 금남은 임상전, 전의면은 허찬, 전동면은 황순덕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초대 연기군의회의 의원선거

(1991. 3 26시행)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유효투표수 | | | | 무효투표수 | 기권수 | |
|------|--------|--------|----------|-------|-------|-------|--------|-----|-------|
| | | | 후보자별 득표수 | | | | | | 계 |
| 조치원읍 | | | 윤덕재 | 이진희 | 오운교 | 조선평 | | | |
| | 20,150 | 12,741 | 1,517 | 3,483 | 3,988 | 3,444 | 12,432 | 309 | 7,409 |
| 동면 | | | 장옥 | 임광수 | | | | | |
| | 4,496 | 3,293 | 1,526 | 1,661 | | | 3,187 | 106 | 1,203 |
| 서면 | | | 윤종구 | 유진국 | | | | | |
| | 6,622 | 4,746 | 1,899 | 2,660 | | | 4,559 | 187 | 1,876 |
| 남면 | | | 임혜수 | | | | | | |
| | 7,204 | 무투표당선 | | | | | | | |
| 금남면 | | | 강기찬 | 이종기 | 임상전 | | | | |
| | 8,245 | 5,618 | 1,454 | 779 | 3,193 | | 5,426 | 192 | 2,627 |
| 전의면 | | | 허찬 | 정근원 | 아윤구 | 신정범 | | | |
| | 7,680 | 5,403 | 1,804 | 910 | 966 | 1,559 | 5,239 | 164 | 2,277 |
| 전동면 | | | 황순덕 | 남용우 | 한준석 | 김우진 | | | |
| | 3,293 | 2,603 | 1,137 | 902 | 393 | 90 | 2,522 | 81 | 690 |

2. 제2대 연기군의회의 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 통합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4대 선거는 도지사, 도의회의원, 연기군수, 연기군의회의원을 뽑는 관계로 군의원의 관심도가 낮아졌다. 특히 군수선거가 비중이 크다보니 선거의 과열이 군의원에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어도 군의원 후보가 지난 선거보다 배가 되게 입후보한 것을 보면, 지방의회에 관한 입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연기군은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종전 7선거구에서 8선거구로 늘고 의원도 9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조치원읍은 2명이 선출하는데 6명이 입후보하였다. 조선평, 이진희후보가 당선되었고 동면은 5명이 입후보하여 장래열후보가, 서면은 4명이 입후보하여 홍

종기후보가, 남면은 3명이 압후보하여 임정목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금남면은 5명이 입후보하여 임상전후보, 전의면은 2명이 입후보하여 윤중웅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전동면은 황순덕 단일후보가 결정되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소정면은 3명이 입후보하여 최홍규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대 연기군의회 의원선거

(1995. 6.27 시행)

| 선거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유효 투표 수 | | | | | | | 무효 투표수 | 기권수 | |
|------|--------|--------|-----------|-------|-------|-----|-------|-------|--------|--------|-------|---|
| | | | 후보자별 득표수 | | | | | | | | | 계 |
| 조차원읍 | | | 이진희 | 이풍용 | 조선평 | 하청일 | 한정석 | 윤덕재 | | | | |
| | 21,221 | 15,159 | 4,071 | 1,067 | 6,261 | 791 | 1,104 | 1,281 | 14,575 | 584 | 6,062 | |
| 동 면 | | | 장래열 | 김권희 | 허 호 | 조원무 | 황선주 | | | | | |
| | 3,741 | 3,039 | 884 | 781 | 249 | 701 | 295 | | 2,910 | 129 | 702 | |
| 서 면 | | | 홍종기 | 유진국 | 김정우 | 임현우 | | | | | | |
| | 6,373 | 4,850 | 1,967 | 1,668 | 753 | 231 | | | 4,619 | 231 | 1,523 | |
| 남 면 | | | 황인범 | 전봉균 | 임정목 | | | | | | | |
| | 6,913 | 5,421 | 1,818 | 1,350 | 1,976 | | | | 5,144 | 277 | 1,492 | |
| 금남면 | | | 이선규 | 정명모 | 지천호 | 이종기 | 임상전 | | | | | |
| | 7,553 | 5,738 | 1,171 | 880 | 1,154 | 188 | 2,040 | | 5,433 | 305 | 1,815 | |
| 전의면 | | | 허 찬 | 윤중웅 | | | | | | | | |
| | 5,657 | 4,196 | 1,642 | 2,335 | | | | | 3,977 | 219 | 1,461 | |
| 전동면 | | | 황 순 덕 | | | | | | | | | |
| | 3,584 | | 무 투 표 당 선 | | | | | | | | | |
| 소정면 | | | 손석주 | 최홍규 | 이경옥 | | | | | | | |
| | 2,136 | 1,723 | 421 | 623 | 560 | | | | 1,604 | 119 | 413 | |

3. 제3대 연기군의회 의원선거

1998년 6월 4일 제2회 지방자치단체 4대 동시선거가 통합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19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

여 지방의회 의원 전원이 조정되었다. 연기군의 경우 조치원읍이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을 1명으로 줄여, 8개의 선거구에서 8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선거결과 조치원읍에서 조선평이 선출되었고, 동면은 장래철, 서면은 홍종선, 남면은 임태수, 금남면은 지천호, 전의면은 황우성, 전동면은 김웅기, 소정면은 이경옥이 당선되었다. 전동면 김웅기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농업협동조합장은 지방자치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의원을 사직하고, 이어 보궐선거에 황순덕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대 연기군의회 의원선거

(1998. 6. 4 시행)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유효 투표 수 | | | | | | 무효 투표수 | 기권수 |
|------|--------|--------|---------------|-------|-------|-------|-------|--------|--------|-------|
| | |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 | | |
| 조치원읍 | | | 홍재선 | 이충언 | 홍종기 | 박휘서 | 조선평 | | | |
| | 22,550 | 12,840 | 1,261 | 1,256 | 3,889 | 1,122 | 4,922 | 12,450 | 309 | 9,710 |
| 동 면 | | | 류지화 | 장래철 | 최순관 | | | | | |
| | 3,549 | 2,634 | 792 | 1,101 | 661 | | | 2,554 | 80 | 915 |
| 서 면 | | | 홍종선 | 유진국 | | | | | | |
| | 6,331 | 4,254 | 2,377 | 1,756 | | | | 4,133 | 121 | 2,077 |
| 남 면 | | | 황인상 | 황성미 | 임정목 | 임태수 | | | | |
| | 6,721 | 4,584 | 1,052 | 124 | 544 | 2,733 | | 4,453 | 131 | 2,137 |
| 금남면 | | | 임상전 | 지천호 | 노찬두 | | | | | |
| | 7,287 | 4,989 | 1,873 | 2,114 | 843 | | | 4,830 | 159 | 2,298 |
| 전의면 | | | 황우성 | 윤중용 | | | | | | |
| | 5,622 | 3,804 | 2,109 | 1,568 | | | | 3,677 | 127 | 1,818 |
| 전동면 | | | 황순덕 | 김웅기 | | | | | | |
| | 3,474 | 2,494 | 1,039 | 1,380 | | | | 2,419 | 75 | 980 |
| 소정면 | | | | | | | | | | |
| | 2,408 | 1,620 | 753 | 819 | | | | 1,572 | 48 | 788 |

4. 제4대 연기군의회의원선거

제4대 지방동시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시행되었다. 군의원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채 입후보해야한다. 그러나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다보니 군의원도 자연 공천자의 줄을 이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후에도 알게 모르게 단합활동을 하였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가 조정되어 조치원읍이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져, 철로를 중심으로 동쪽이 제1선거구, 서쪽이 제2선거구이고, 나머지는 면마다 선거구를 두어 총 9선거구를 두었다.

이중 동면의 장래철과 전동의 황순덕은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조치원 1선거구는 홍종기, 제2선거구는 조선평, 서면은 성기운, 남면은 임태수, 금남면은 지천호, 전의면은 황우성, 소정면은 김한식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조치원 제2선거구는 처음으로 여자후보가 입후보하여 선전하였지만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제4대 연기군의회 의원선거

(2002. 6. 13. 시행)

| 선거구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 | | | 무효투표수 | 기권수 |
|-------|--------|-------|---------------|-------|-------|-------|-------|-------|
| 조치원1구 | 12,063 | 6,679 | 홍종기 | 박휘서 | 계 | | 249 | 5,384 |
| | | | 4,116 | 2,314 | 6,430 | | | |
| 조치원2구 | 12,100 | 6,638 | 신미식 | 조선평 | 계 | | 158 | 5,462 |
| | | | 2,743 | 3,737 | 6,480 | | | |
| 서 면 | 6,035 | 4,204 | 성기운 | 유진완 | 계 | | 111 | 1,831 |
| | | | 2,180 | 1,913 | 4,093 | | | |
| 남 면 | 6,471 | 4,172 | 인종관 | 임태수 | 계 | | 101 | 2,299 |
| | | | 1,408 | 3,023 | 4,071 | | | |
| 금 남 면 | 8,233 | 5,068 | 지천호 | 양영직 | 계 | | 130 | 3,165 |
| | | | 2,832 | 2,106 | 4,938 | | | |
| 전 의 면 | 5,822 | 3,608 | 이훈열 | 이경대 | 황우성 | 계 | 130 | 2,214 |
| | | | 563 | 1,385 | 1,530 | 3,478 | | |
| 소 정 면 | 2,505 | 1,644 | 김한식 | 민태인 | 계 | | 40 | 861 |
| | | | 969 | 635 | 1,604 | | | |

※ 무투표구 선거구 : 동면 장래철, 전동면 황순덕

第 4 編 教 育

제1장 삼국시대의 교육

제2장 고려시대의 교육

제3장 조선시대의 교육

제4장 개화기의 교육

제5장 일제하의 교육

제6장 행방 이후의 교육

제7장 남면 지역 교육기관

연기군 남면의 교육사(教育史)

교육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시대별로 교육하는 방법과 제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은 같다. 연기군 남면은 일찍이 연기향교가 자리잡고 있어, 지방이지만 공교육이 발달한 곳이다. 연기향교를 중심으로 시대적 교육 현황과 사숙이나 서당,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교육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삼국시대의 교육

제1절 고구려의 교육

삼국 중 교육제도가 가장 먼저 발전한 곳은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나라가 형성되었고, 지리적으로도 중국대륙과 인접하여 일찍부터 한문이 전래되어 발달하였다.

소수림왕 2년(372)에는, 이미 국가에서 서울에 유학의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을 세워, 귀족의 자제들에게 주로 경학(經學), 문화(文化), 무예(武藝) 등을 가르쳤으며, 지방에는 경당(堂)이란 사립학교를 세워 평민자제들을 가르쳤다.

제2절 백제의 교육

백제는 개국이래 한문으로 기사(記事)화 하는 일이 없었으나,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때 비로소 박사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서기(書記)』를 편찬케 했다고 한다. 또한 근초고왕, 근구수왕(近仇首王) 때에 아직기(阿直岐), 박사 왕인(王仁)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유학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침류왕(枕流王) 원년에 동진(東晉)에서 불교가 들어와, 백제에서는 유교와 불

교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오경박사(五經博士—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를 두고 가르치게 했다는 것은, 찬란한 백제 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기군은 당시 3개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지금의 연기가 두잉지현, 전의는 구지현, 금남은 소비포현에 속했다. 이 중 남면은 두잉지현에 속했다.

제3절 신라의 교육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내물왕(奈勿王) 때 고구려와 교섭하여 전진(前秦)에 사신을 보낸 데서 한문이 전래되었으며, 지증왕 때는 국호와 왕호를 새로 쓰고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율령(律令)을 반포하였다.

진흥왕은 영역을 돌아 순수비(巡狩碑)를 세우고, 선덕여왕 때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중국 문화를 수입하였으며, 한자 전래 이후 설총(薛聰)은 독특한 표기법을 사용하여 이를 확대시켜 이두(吏讀)로 정리하였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당나라 문화를 대폭 수용하여 문물제도(文物制度)를 개편하였다. 중앙에는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의 교화 및 한학의 교육을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유교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두었는데, 이것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교과내용이 모두 유학경전이었다.

제2장 고려시대의 교육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신라의 국운이 쇠퇴해가면서 후삼국시대에 돌입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였고, 고려는 당나라에서 들여온 신라의 봉건제도를 이어서 더욱 발전시켰다.

고려는 서경을 북방정책의 중심지로 삼고 중요시 여겨, 태조 13년(930)에 서경에 학교를 세웠으며, 광종 9년(957)에는 중국의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법을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했다. 과거법에 의한 인재양성은

국가 또는 민가에서 불교가 커다란 세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지배층을 등용하기 위해서 유교가 요청되었으며, 유교식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요구된 결과이다.

고려의 과거제도가 관리 등용을 위한 것이었다면, 학교제도(官學)는 관리 양성 및 그 준비기간으로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교육에 가장 열의를 보인 왕은 성종으로, 주현(州縣)에 있는 제자들을 서울에 와서 학문케 했으며,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면 포(布)를 주어 보내고, 서울에 남는 자는 쌀과 술, 과일 등을 하사하였다. 고향에 간 학생은 가르칠 선생이 없으므로,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 1명씩 전국 12목에 파견하여 가르치게 하였는데, 이 때 파견 교수의 성적이 불량하면 임기가 끝나도 유임시켜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등, 향리 자제의 교육에 힘쓰게 하였다.

제1절 국자감 (國子監)

국자감(國子監)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립학교로, 성종 11년(992)에 수도인 개경에 설치되었다. 국자감의 설립목적은, 유교적인 교양의 보급과 국가에 필요한 관리 양성이었다. 그 중에서 국자감은 특히, 전자의 성격이 강하여 과거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학에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학 진흥책에 의하여 인종 때에는, 국자감 등의 여러 학제가 완비되었다.

고려시대 최고의 국립대학격인 국자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의 3과와 율학·서학·산학의 삼학인 잡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의 3과는 그 교육적인 내용이 경학으로 동일하나, 그 입학에는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국자감은 3품 이상의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학자격의 구분은 고려사회가 귀족사회라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자감의 교육내용은 논어와 효경을 그 필수과목으로 하고, 주역·상서·주예·모시·춘추 좌씨전·곡염전 등을, 율학에는 율령, 서학에는 팔서, 산학에는 산수를 각각 학습하였다.

국자감에 있어서 수업 연한은 국자감 등 유학과에서는 9년으로 하고 있었으며, 율학등 잡학은 6년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예종때의 관학 부흥도 잠시에 그치고, 정중부(鄭仲夫)등 무신정변과 계속

되는 몽고의 간섭으로 국학을 폐지하고 학문은 극도로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새로운 학풍인 주자학(朱子學)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부흥된 관학과 신 학풍은, 다음 조선왕조에 계승되어 큰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는 합호서원이 있어 문성공(文成公) 안향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를 하고 있다.

제2절 동서학당(東西學堂) · 오부학당(五部學堂)

고려시대에는 국가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이 동서학당(東西學堂) · 오부학당(五部學堂)이다. 지방의 중등교육과정인 향교는 교육적인 기능과 문묘의 제례가 있지만, 학당은 강학(講學)을 행하는 교육적인 기능만 지니고 있었다.

동서학당의 설립은 원종 2년(1261)이며, 그 후 오부학당으로 증치되었다. 즉 공양왕 때에 정몽주가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기존의 동서학당에다 삼부학당을 증치한 것이 오부학당이다. 이로써 오부학당은 개경의 동·서·중·남·북부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오부학당이 조선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제3절 십이도(十二徒)

고려 중기 사회에서 관학인 국자감이 부진하게 되자, 최충(崔庶)이 처음으로 사학교를 열어 후진들을 교육하였다. 이에 많은 문하생이 향학에 증진하여 다수가 과거에 합격하게 되자, 사학이 진흥되었던 것이다.

십이도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감독하였고, 교육의 정도는 대학의 수준으로 경영되었다. 십이도는 하나의 학풍과 학벌을 형성하면서도 관학인 국자감이 부진하고 향교와 학당이 아직 수립되기 이전의 고려문화와 유교 교육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고려가 강도(江都)에서 개경(開京)으로 천도한 후, 국학이 서서히 부흥되자 십이공도는 국학에 흡수되었고, 결국 공양왕 3년(1319)에 폐지되고 말았다.

제4절 향교(鄕校)

고려시대 지방교육제도는 향교와 서당을 들 수 있다. 향교(鄕校)는 고려시대에 설립되었으나, 창설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향교란 지방의 학교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에 설치된 학교이다. 향교는 관학으로 교육의 수준은 중앙 학당과 같은 중등과정의 정도였으며, 이로써 향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국가감에서 수학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향교는 중앙의 학당과는 달리 문묘에 제사를 지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향교는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기능과 제향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조선의 향교에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제5절 서당(書堂)

서당에 대한 교육의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으나 서경의 『고려도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마을의 거리마다 경관의 서사가 두 셋씩 서로 바라보이며, 미혼의 자제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경을 배운다. 조금 성장하면 끼리끼리 벗을 택하여 사(寺)와 관(館)으로 가서 공부하고, 아래로 줄 오·동요들도 역시 선생에게 배운다.’ 고 기술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서당교육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조선시대의 교육

고려시대가 불교를 숭상했다면, 조선시대는 유교의 위상을 높인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한성(漢城)에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을 설치하고, 서울 사방에 사부학당(四部學堂)을 두어 양반자제를 교육시켰다. 지방에는 유독 개성(開城)에만 고려 이래의 성균관(실제로는 지방향교에 불과)을 설치하였을 뿐, 다른 목(牧)·부(府)·군(郡)·현(縣)에는 1읍에 1향교를 설치하여 지방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조선왕조는 양반중심의 관료사회를 형성하고자 중앙의 교육제도를 일찍부터 정비하여 경영하였다.

제1절 성균관(成均館)

조선시대 유교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은 태조 7년(1398)서울에 설치되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일정한 신분과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생·진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학의 생도 등으로 보충되었다. 성균관의 정원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100~200명에서 조정되었던 것 같다.

성균관 건물은 크게 문묘와 명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묘는 공자를 향사하고 제현들을 배향하는 곳이며, 명륜당은 유생들을 교육하고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성균관의 교육내용은 대체로 강독·제술·서범으로 나누어진다.

제2절 사부학당(四部學堂)

조선시대의 사학 또는 사부학당은, 고려시대의 동서학당 오부학당에 해당된다. 사부학당은 성균관의 부속학교이다. 교육의 정도는 지방에 설치된 향교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기관이며, 그 구조와 교육방침 및 학제는 성균관과 비슷하나, 사학에는 문묘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성균관과 다른 점이다.

제3절 향교(鄕校)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서울에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세우고, 지방의 군과 현에는 향학(鄕學)으로서 향교가 세워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충청에는 감영(監營)이 공주에 있었고, 공주와 홍주 2개소에 목(牧)이 있었으며, 군이 10개소(임천·한산·태안·서천·면천·천안·서산·온양·대흥·덕산), 현이 22개소(홍산·직산·정산·청양·은진·회덕·진잠·연산·노성·부여·석성·비인·남포·결성·보령·해미·당진·신창·예산·전의·연기·아산)가 있었다.

따라서 연기군(燕岐郡)의 경우, 연기(燕岐)와 전의(全義)에 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2개의 향교(연기향교·전의향교)가 설치되어, 우리 고장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향교는 본래 문묘(文廟)와 향학(鄉學)의 두 가지의 소임을 하는 곳으로, 문묘로서 대성전(大成殿)과 향학으로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앞에 고직방(庫直房)이 있어 관리(管理)의 역할을 맡았었다.

향교는 국왕으로부터 7결(結) 혹은 5결(結)의 학전(學田)을 사여받고 있었지만, 기타 유림의 기부 또는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한 막대한 기본 재산을 토대로 하여 운영되었다.

관학으로서의 향교는 학생정원이 목(牧)에 90인, 군(郡)에 50인, 현(縣)에 30인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거로 할 때, 연기군 내의 향교 학생 수는 모두 60여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교과서는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연기군은 당시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기현과 전의현, 그리고 현재의 금남(당시 공주의 양야리면, 명탄면)지역이다. 연기현은 연기향교에서, 전의현은 전의향교에서 수업했고, 공주지역인 금남면 일부(양야리면·명탄면)는 공주향교나 회덕향교, 그리고 연기향교에 나갔다. 남면 지역은 연기향교에서 수학하였다.

연기향교(燕岐鄉校)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연거리 33번지

건립연대 : 조선초기



외삼문

지 정 :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 123호(1997.12.13.)

소 유 : 충남향교재단

연기향교는 남면 연기리의 당산성 서남편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조선초 대부분의 각 지방·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던, 1407년(태종 7) ~ 1413년(태종 13) 사이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창건당시의 위치도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향교가 ‘현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져 있다’ 고 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1824년에 간행된 『연기지(燕岐誌)』에는 연기향교가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1530년부터 1824년 사이에 향교가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 소장 『학교등록(學校謄錄)』에 의하면, 1680년(숙종 6)에 연기현 사람인 만설(晩設)이 역모를 저지르고 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기현이 약 5년간 폐지되어 문의현과 합병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기향교도 잠시 폐지되었다.

연기향교의 중수기록은 1865년(고종 2)의 「명륜당중수기」에서 현감 이태진(李泰鎭)이 1862년(철종 13)에 부임하여 향교를 둘러보다가 명륜당과 서재의 기둥이 썩고, 지붕의 기와가 깨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내려온 것을 개탄하고, 재정을 마련하여 몇 달만에 명륜당과 서재를 중수하였다. 1897년(광무 1) 12월 충청도 어사로 왔던 박영민(朴永民)이 연기향교에 청동 200냥을 기부해 학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자원으로 강학의 자금을 삼았다.

또 1900년(광무 4)에는 흥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조직했다는 기록도 있다.

연기향교의 건축 구조 및 양식을 보면,

대성전 -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묘당으로 사용하고



명륜당

있다.

- 명륜당 -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내부는 마루로 되어있다. 명륜당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로 사용되었으며, 요즘에도 여름·겨울방학이면 인근 학생들이 와서 사서 삼경을 배운다.
- 내삼문 - 명륜당 뒤쪽에 대성전을 세우기 위해 한단 높였는데, 좌·중·우 3개의 계단을 만들어 내삼문을 세웠다. 정면 3칸의 솟을 삼문 형식이다.
- 외삼문 - 명륜당 앞에 정면 3칸의 솟을 삼문 형식이다. 이 외삼문 앞에는 돌계단이 있고, 돌계단 앞에 홍살문을 세웠다. 원래 홍살문은 이보다 훨씬 앞쪽인 진입로에 세워졌던 것이 이 곳으로 옮겨졌고, 홍살문 옆에는 하마석이 있다. 하마석 또한 이곳보다 30여m 앞에 있었으나,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 전사청 - 대성전과 명륜당 동쪽에 위치해 있다. 전사청 본 건물은 친▲자 형으로 앞쪽으로는 경로당, 제기고(창고), 식당 등의 부속건물이 지어져 있다.

연기향교의 직제는 동재에 도유사 1인, 장의 2인과 서재의 장의 1인, 유사 2인을 두고 그 외에 교생 60인과 수호 30인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교 1인, 고문 10인, 자의 16인과 수호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향교가 전근대 시기에 담당하고 있던 지방 학교로서의 기능이나 지방민 교화 기능은 거의 상실하였으나, 최근에는 향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지라도 전통문화의 보급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연기향교에서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동·하계 충효교실 운영과 전통혼례, 경로당 운영, 효자·효부 제가상 표창 등을 한다.

제4절 서원·사우(書院·祠宇)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향촌사림의 덕성 함양과 학문 연구, 그리고 서원이 세워진 지역과 연고가 있는 특정 인물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사림(士林)들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었으며, 동시에 향촌사림의 정치·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향촌자치운영기구이기도 하였다.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여정서원(麗正書院)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송나라 초기 4대 서원(백록-白鹿, 석고-石鼓, 응천-應天, 악록-嶽麓)이 세워진 이후이며, 특히 남송(南宋)에 이르러 주희(朱熹)가 백록동서원을 중건하고 성리학 중심의 학문활동의 도장으로서 이를 보급한 이래, 원나라와 명나라를 거치면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며, 뒤이어 이황의 서원보급 운동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서원이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처음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주목적으로 하였던 서원은, 단순한 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체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기구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점차 특정한 인물을 드러내는 제향 기능 위주로 운영되면서, 본래 학교 기능이 강했던 서원과 제향처(祭享處)이던 사우(祠宇)와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어, 결국은 서원의 범주에 사우까지 포함시켜 서원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연기군에는 연기의 봉암서원과 동면 합호서원, 전의의 뇌암서원 등이 있으며 남면 지역의 서원과 사우는 기호서사, 덕성서원, 금호서사, 갈산서원 등이 있었는데, 현재 그 모습을 보존한 곳은 덕성사원 뿐이고, 기호서사는 임씨가묘로 변하여 전해오고 있다.

1. 기호서사(岐湖書社)

연기군 남면 나성리 독락정 옆에 위치하고 있는 기호서사는, 경종 19년(1693)에 각 군의 선비들이 나성 독락정에 모여 건립한 것이다. 서하 임춘, 전서공 임난수, 부사 임목을 배향하여 춘추로 제를 지내고, 서생들을 모아서 강학(講學)하며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시상하였다. 학문의 내용은 유교의 경전을 가르쳐 경로효친 사상을 배양토록 하였다. 임재항(林在恒)이 지은 상량문에 의하면, 기호서사는 1724년 중수되었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

2. 덕성서원(德星書院)

소재지 : 연기군 남면 방축리

시 대 : 1885년 창건, 1978년 복원

지 정 : 연기군 향토유적 제40호

(2001년 5월 31일)



덕성서원은 송덕사(崇德祠)라고도 하는데, 1885년(고종 22)에 관북유림들의 발의로 흥원에 건립된 입안사(入安祠)와 경양사(景仰祠)가 모체가 된다. 남북분단 이후 1978년 4월에 전국 유림 천여명이 조치원 문화원에 집합하여 서원 건립을 결의하였으며, 임헌회 선생의 유허지인 남면 방축리 성전마을에 사우를 세우고 그 문하생 6명을 추배하여 매년 음력 2월 8일에 향사하였다.

그 후 1980년 가을에 덕성서원이라 명칭을 바꾸고, 사우를 송덕사라 하였다.

임헌회는 1811년(순조 11)에 천안시 직산면 산음리에서 출생하여, 1858년(철종 9)에 경연관(經官)에 당선되었으며, 이조참판 대사헌(大司憲)을 거쳤고 육영사업에 전력하다 1876년 세상을 떠난 후, 정2품 자헌대부 내무대신의 벼슬을 받았다. 홍직필(洪直弼) 등에게 학문을 배운 그는 특히, 경서 공부에 전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학자로서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한다.

전우(田愚)는 1841년(헌종 7)에 전주 청석교(靑石橋)에서 출생하였으며, 임헌회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며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정독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지낸 후 도학(道學)에 전력을 하다, 1922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재구(李載九)는 1836년(헌종2)에 연기에서 출생하였다. 임헌회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도학(道學)에 전력함과 동시에 14년간을 경적 탐구와 육영사업에 종사했다.

김준영(金駿榮)은 1842년(헌종 8) 공주 현암(公州 玄岩)에서 출생하였으며,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이유흥(李裕興)은 1859년(철종 10)에 천안 증자동(曾子洞)에서 태어났다.



병암 김준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성경효우(誠敬孝友)를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조홍순(趙弘淳)은 1860년(철종 11) 충북 진천 성암 유동에서 태어났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문예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았다.

임헌찬(林憲瓚)은 1876년(고종 13) 연기 맹곡(盲谷)에서 태어났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문예(文藝)에 조예가 깊었고 율곡전집(栗谷全集)을 탐독했으며, 평생 예절과 청빈을 실천하며 살았다.



덕성서원



상읍례

3. 금호서사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송원 1구

건립연대 : 1827년(순조 27)

훼철연도 : 1868년(고종 5)

금호서사(錦湖書社)는 죽당(竹堂) 류진동(柳辰全), 석담(石潭) 류형(柳珩), 금사(錦沙) 류충걸(柳忠傑)을 제향하기 위하여 1827년(순조 27)에 건립되었던 서원이다.

1832년(순조 32)에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이 쓴 『금호서원기(錦湖書院記)』(1871년, 호서읍지 수록)에 의하면, 정묘조에 특명으로 유씨 세가(世家)가 『존주록(尊周錄)』에 편입되자, 금호의 선비들이 서로 상의하여 말하기를 “향선생이 죽으면 그 사례(社禮)를 지낸다. 우리 향리에 유씨의 집안과 같은 일문삼현(一門三賢)이 있으나 일찍이 숭봉(崇奉)의 예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은 향선생과 같지 않은 것이다. 향리에 모현(慕賢)의 풍속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여, 마침내 금호 위에 사우를 세우고 삼현을 병향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1783년(정조 7) 류취장 병조 판서 증직, 1796년(정조 20) 류형 충청공 시호, 류지걸 명정 및 호조좌랑 증직, 1799년 류진동 정민공 시호, 1802년(순조 2) 류취장 무민공 시호 등 진주류씨가 문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포장과 증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류형의 아들은 금사(錦沙) 류충걸(柳忠傑)의 유지(遺址)에 정민공 류진동과 충청공 류형, 류충걸을 제향하는 금호서사(錦湖書社)를 건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공주 유생 이계원(李繼遠)등 37명이 올린 등장을 보면 “죽당

류진동, 석담 류형, 금사 류충걸의 충절을 찬양하고, 이미 해남과 함평에 사당을 지어 모시고 있으니 공주에도 사우 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그러나 거둬진 요청에도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건립 40여년 만인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금호서사터는 연기군 남면 송원 1리의 이영동씨 집이 있는 자리로, 당시 서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추춧돌, 기와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류충걸(柳忠傑)과 류비연(柳斐然)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서원이 훼철된 후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류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류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기면 하봉리에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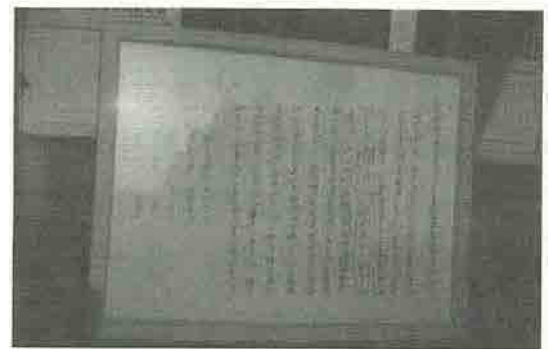
4. 갈산서원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종촌리 도산

건립연대 : 1694년 (숙종 20) 건립



금호서사 소장 문서



금호서사 소장 문서

갈산서원은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를 제향한 서원으로 1694년(숙종 20) 공주목 삼기촌 갈산(현 연기군 남면 종촌리 도산)에 세워졌다.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와 함께 충청오현(忠淸五賢)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산림학자이다. 1684년 그가 죽은 후 문인들에 의해서 그가 만년에 거주하던 공주의 충현서원에 제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문인들은 삼기촌 갈산에 이유태를 제향하는 서원을 별도로 세우게 되는데, 서원을 세울 당시 부안임씨 상련당(賞蓮堂) 임우직(林遇稷, 1637~1702)이 서원을 지을 당시 터를 희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려 이유태를 제향한 갈산서원의 건립과 운영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이씨 문중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에 의하면, ○○년 5월 20일 공주유생 오명협(吳命協) 등 50인이 이유태를 제향한 갈산서원을 훼파한 우두머리가 임희춘(林希春) 아니면 임우팔(林遇八)이라고 지목하고, 이미 임우팔이 그 죄상을 이장회(李長淮, 1688~1764)에게 자백했으니 그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산서원은 지역 사족간의 대립 속에서 건립되고 훼파되었는데, 그 이후의 재건여부 등은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제5절 서당 및 사숙(書堂 및 私塾)

서당(書堂)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면·동·리를 기본 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교육기관으로, 서원이나 향교에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어린 학동들에게 『천자문』·『동몽선습』·『통감』 등을 가르쳤다. 대개 7~8세 가량에 입학하여 15~16세 경에 마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20세기가 넘는 경우도 많았다.

서당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된 것은 16세기 사림파의 등장과 시기를 같이 하는데, 이는 종종 때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과도 일련의 연관성을 가진다.

이들 사림파는 서당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반상의 구별을 비롯한 유

학적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서당의 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사숙(私塾) 또는 독서당(讀書堂) 유형은 대개 문벌가나 유력가가 그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이고, ②동계서당(洞契書堂) 형태는 양반 계층이나 유력 자산가의 문중에서 계를 조직·경영하여 마을에 서당을 짓고,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문중서당이다. ③훈장의 자영서당으로 이는 훈장 자신이 집에서 생계유지나 소일을 위하여 개설한 경우이며, ④문중연립서당은 동계서당의 확대형으로 지체가 비슷한 마을끼리 그 향촌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각 마을에서 뛰어난 청년 자제들을 선택하여 교육시키는 고급서당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기지역에 있었던 서당 또한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남면 지역의 서당은 놀왕서당과 송담서당이 있었다.

1. 놀왕서당

지금부터 290여년 전에 남면 놀왕리에서 이유인(李惟仁)·이유의(李惟義) 형제와 이유무(李惟茂) 등 3인의 발의로 설립되어 도강이씨 종중에서 계속 운영하여 왔다.

2. 송담서당

1824년 경에 남면 송담리에서 부안임씨 종중의 발의로 설립되어 마을 아동을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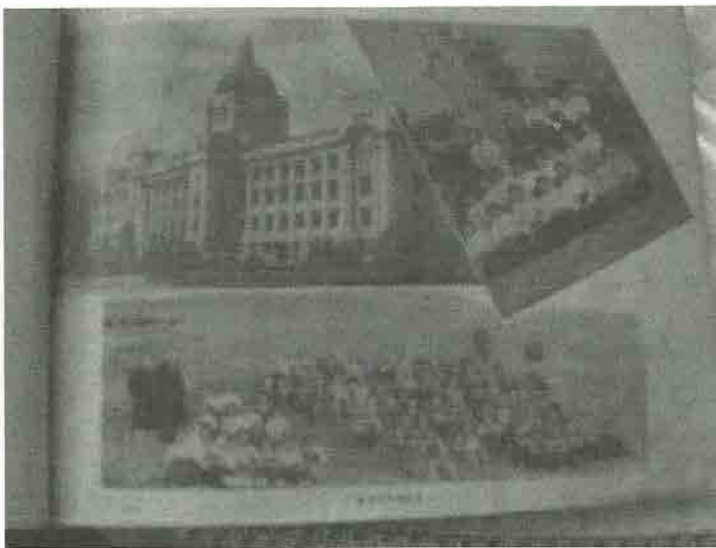
제4장 개화기의 교육

개화기의 교육은 종래의 향교나 서당 중심의 한학에 대한 교육과 구한말의 전통적 유교 교육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신문화를 섭취하고 1910년 한일합방 직

전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연기군내에는 남면 연기리에 배달학교(培達學校)가 1908년 봄에 개교하였으며, 전의향교 명륜당에 대동학교(大東學校)가 1909년 설치되었으며, 서면 봉암리 삼락당에 기양학교(岐陽學校)가 1940년에 운영되었다. 배달학교와 대동학교는 운영되다가 2~3년이 지나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배달학교(培達學校)

1908년 봄에 교육에 뜻이 깊은 임동훈(林東勳)·이학준(李學俊)·한일동(韓日東), 그리고 장경순(張景淳) 등 4명이 주축이 되어서 남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향청(鄉廳)에서 수천금의 거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유지의 성원으로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에는 한일동이 취임하여, 1912년까지 만 4년간 5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는데, 같은 해 5월 10일에 연기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면서 연기 객사로 이전하였다. 이것이 현재 연남초등학교의 전신으로 군내 정규 보통학교의 효시이다.



연남초등학교 졸업앨범

〈私立倍達勸學歌〉

秘書院丞 柳寅哲 作詞

- | | |
|------------------------------------|--------------------------|
| 1. 隆熙 2년(1908) 2월 20일 俊秀子弟 少年兒童 | 우리 學校 開學하여 試驗場에 태어났오 |
| 2. 次等따라 規則보고 國文배워 本領삼고 | 紀律따라 授業하다. 語學배워 外國通話 |
| 3. 歷史地理 通達하여 萬國地形 눈에 익혀 | 各國歷代 略然하고 知識發達 開明하세. |
| 4. 各課程을 無不通知 父母님의 誠心訓育 | 日就月將하여보세 教師丈의 勤懇教育 |
| 5. 學徒들아 學徒들아 青年時節 虛送말고 | 어찌 감히 잊을 소냐 마뻘마뻘 工夫하세 |
| 6. 林下讀書 志師宿儒 孔子같은 大成人道 | 우리말씀 들어보세 溫故知新 하라시니 |
| 7. 萬國通商하는 시대 귀도 먹고 입도 막아 | 新學問을 쏠 하면 눈이 있는 소경일세 |
| 8. 急하도다 急하도다 愛國之心 發揮하여 | 學業卒業 急하도다 自彊之力 在此로다 |
| 9. 五百宗社 鞏固하고 우리倍達 學徒들아 | 三千疆土 保存하세 實心卒業하여 보세 |

제5장 일제하의 교육

제1절 사립교육기관

1910년 전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많은 사립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몇년간 존속하다가 한일합방 후에 승격 또는 폐지되었는데, 당시 연기군 남면의 유명한 사학은 다음과 같다.

1. 종촌서당

1924년 경에 남면 종촌리에서 황우정(黃祐政)·황우복(黃祐復)·황우영(黃祐永)·황우창(黃祐彰)등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종중의 소유재산을 기금으로 설립한 서당으로 주로 종중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2. 가학의숙(可學義塾)

1924년에 남면 양화리에서 박병두(朴炳斗)와 박병철(朴炳喆)의 발의로 양화리 내에 있는 유지들의 성원과 주민들이 보리 한말씩을 거둔 것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다. 그 뒤 박씨들의 개인 및 종중재산을 합하여 아동들을 수용·교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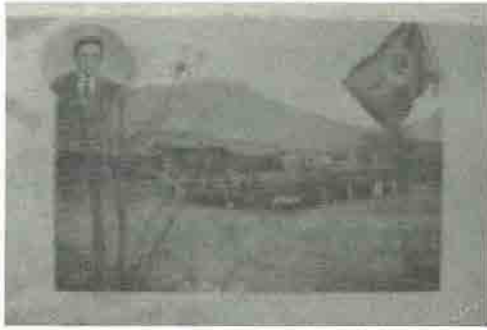
제2절 공교육기관

1934년 당시 연기군내의 교육기관을 보면 관립학교로서 농업실수학교 1개교, 실과여학교 1개교, 공립보통학교 5개교, 심상(고등)소학교 3개교로 10개교가 있었다.

연기공립보통학교

1911년 8월 남면 연기리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연간 예산은 7,100원이었

다. 원래 이 지역 명문 사학인 배달학교(1908년)가 승격된 것으로 군내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깊은 연남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연남초등학교 졸업앨범

제3절 8·15 해방 전 연기군의 공립학교 현황

| 학 교 명 | 설 립 연 월 일 | 현 재 학 교 명 |
|--|-------------|-------------------|
| 연 기 공 립 보 통 학 교 | 1911. 3. 8 | 연 남 초 등 학 교 |
| 전 의 공 립 보 통 학 교 | 1912. 11. 8 | 전 의 초 등 학 교 |
| 조 치 원 공 립 보 통 학 교 | 1915. 6. 25 | 조 치 원 대 동 초 등 학 교 |
| 금 남 공 립 보 통 학 교 | 1920. 4. 17 | 금 남 초 등 학 교 |
| 연 동 공 립 보 통 학 교 | 1925. 3. 31 | 연 동 초 등 학 교 |
| 조 치 원 침 산 공 립 심 상 학 교 부 설 쌍 류 간 이 학 교 | 1934. 5. 1 | 쌍 류 초 등 학 교 |
| 연 서 공 립 보 통 학 교 | 1935. 5. 10 | 연 서 초 등 학 교 |
| 전 의 공 립 보 통 학 교 부 설 금 사 간 이 학 교 | 1935. 5. 17 | 금 사 초 등 학 교 |
| 전 동 공 립 심 상 소 학 교 | 1935. 5. 30 | 전 동 초 등 학 교 |
| 소 정 공 립 보 통 학 교 | 1937. 3. 5 | 소 정 초 등 학 교 |
| 연 양 공 립 심 상 소 학 교 | 1939. 5. 5 | 연 양 초 등 학 교 |
| 조 치 원 소 화 국 민 학 교 | 1940. 4. 10 | 조 치 원 명 동 초 등 학 교 |

제6장 해방이후의 교육

제1절 공교육기관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 하에서 학교 현황은 학제개편에 의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각 지역에 초등교육기관이 다수 설립되어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의 6-3-3-4제로 학제가 변경되어 학교제도가 개편 또는 신설되었다.

남면의 공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 1957. 4 - 남면 연세초등학교 신설 (현재 교육기관 참조)
- 1970. 2 - 남면 수왕국민학교 신설 (현재 교육기관 참조)

제2절 사립교육기관

1980년 이후 수도권외의 인구 분산과 지방의 고등교육향상 시책으로 대학교의 분교가 설립되었고, 사립 중고교도 설립하여 연기군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남면 지역의 사립 교육기관은 성남중·고등학교가 개교되었다.

- 1963. 2 - 남면 성남중학교 신설 (현재 교육기관 참조)
- 1966. 3 - 남면 성남고등학교 신설 (현재 교육기관 참조)

이보다 앞서 연기리에는 유신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1. 연기 유신학교

위치 :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69년 우리의 처지는 의·식·주 해결에 비중을 크게 둔 가난한 시절이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진학이 어려웠었다. 초등학교 진학 자체도 힘들었고 중학교 진학은 학급에서 일부밖에 갈 수 없었던 시절, 이들에게 단비를 제공한 것이 연남 유신학교이다.

학교 설립은 군부대에서 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신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이다. 당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군인 중 대학교를 다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과 선생 출신, 장교 등이 맡았다. 그런데 이 유신학교를 설립해서 폐교까지 학교장을 맡은이가 하재동씨 이다. 가난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던 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촌이 잘 살아야 배움도 있다는 결심으로, 군 제대 후 고향에 내려와 연남 유신학교 설립에 앞장선다. 처음에는 연기향교 회의실을 얻어 연기 중학원이라 했으며, 고입 검정고시를 목표로 수업하자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났다. 향교 회의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우스 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다. 비닐이 낡아 군데군데 구멍이 나자 가장 곤란할 때가 비 오는 날이다. 수업을 중단할 수 없기에 우산을 쓰고 수업을 하였고, 그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부녀회관 소방창고를 이용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흙벽돌을 찍어서 직접 집을 지어 교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우산을 받치고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는 희망으로, 먼 곳까지 가서 흙을 파다 벽돌 찍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를 회상하는 하재동 씨는 “제일 걱정이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흙벽돌을 마당에다 찍어 말리는데 비가 자주 왔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그 벽돌은 깨져서 사용을 못하였고 깨진 벽돌은 다시 부수어 찍었는데 밤이 되면 비가 오는지 궁금하여 다리를 처마 밖으로 내 놓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 다리에 빗물이 떨어지면 급히 일어나 한 장이라도 더 건지려고 처마 밑에다 쌓고 비닐을 덮어

모면하였지만 그래도 마르기까지는 애타는 순간이었습니다.

1974년 7월 건물이 완료되어 낙성식을 가졌다.

기관장을 초청하고 천장에는 만국기도 달고 기념식에 선보이려고 연극도 준비하고 성대하게 치렀다. 모두들 커다란 궁전을 가진 양 기뻐하였고 학생들은 구름처럼 몰려왔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실이 마련되었으며, 1975년 문교부가 선정하는 사회교육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사회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1979년 1월 1일 제 6회 졸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수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 역은이 : 집필자

○ 학교 연혁

- 1969. 8. 8. 연기 중학원 설립 (학생 20명)
- 1971. 12. 5. 신입생 모집 (1학년 42명, 2학년 18명)
- 1971. 12. 27. 비닐하우스 교실 건립
- 1972. 5. 1. 연남 중학원으로 개칭
- 1972. 5. 2. 신축 교사 착공
- 1972. 8. 8. 신축 교사 준공
- 1972. 12. 24. 신입생 모집(65명)
- 1972. 12. 31. 제 1대 이사장 여득춘 씨 (제2617부대 참모장) 취임
- 1973. 3. 2. 충남지구 연남 유신고등공민학교로 개칭
- 1973. 12. 26. 제 1회 졸업생 7명 배출, 제3회 신입생 모집 (60명)
제 2대 이사장 김윤석 씨 (제2617부대 참모장) 취임
- 1974. 8. 8. 신축교사 1개동 낙성
- 1974. 12. 1. 유신반 (5급 공무원 응시반) 부설
- 1974. 12. 30. 제 2회 졸업생 50명 배출
제 4회 중학생 신입생 모집 (70명)
제 1회 유신반 신입생 모집 (25명)
- 1975. 1. 1. 연남 유신학교로 개칭
- 1975. 1. 1 제 3대 이사장 김현용 씨(제2617부대 부사단장) 취임

- 1975. 12. 30. 제 3회 졸업생 42명 배출
제 5회 중학반 신입생 모집(70명)
제 2회 유신반 신입생 모집(30명)
- 1976. 12. 30. 제 4회 졸업생 46명 배출
제 6회 신입생 95명 입학
제 4회 명예 이사장 김태완 씨 추대 (제5916부대 참모장)
- 1977. 12. 30. 제 5회 졸업생 70명 배출
제 회 고등반 15명 배출
- 1978. 12. 30. 제 6회 중학반 졸업생 75명 배출
제 2회 고등반 30명 배출

※ 총 335명 배출 (중등 290, 고등 45명)

○ 교 훈

- 1. 굳건한 인내
- 2. 꾸준한 노력
- 3. 참된 결실

○ 교 가

하재동 작사 우기수 작곡

- 1 불빛이 사라져간 백제의 고도
횃불을 밝혀 들고 일어선 응지
아름다운 당산기슭 고을 옛터에
내일의 밝은 꿈 희망을 안고
연남유신 연남유신 길이 빛내리.

- 2. 어둠을 헤쳐가는 개척의 초개
동이튼 새아침의 제비의 고장
인내와 노력은 결실을 맺고
연남유신 연남유신 길이 빛내리.

○ 본교 교육 목표

국민 교육 현장에 입각한 슬기로운 지혜를 지닌 자유 건전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 본교 교육 방침

- 가) 국민학교 졸업 후 정규 중학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아동을 모집하여 중학 과정을 이수시켜 올바른 국민으로 선도한다.
- 나) 중학과정을 1년 6개월에 이수시킨다.
- 다) 진학 희망자는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시킨다.
- 라) 불우하여 고교 진학의 길이 없는 학생은 타자, 주산·부기 등의 실업 교육 이수 후 직장 취업 알선한다.
- 마) 유신반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진학의 길이 없는 학생들을 2년에 걸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시키고, 5급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 후 청신한 일선 공무원으로 배출시킨다.
- 바) 교사는 제 2617부대 장병 중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교육에 전념토록 한다.

○ 년도별 검정고시 합격현황

| | 년도 | 응시인원 | 전과목합격 | 8개과목합격 | 7개과목합격 | 6개과목합격 | 5개과목합격 | 4개과목합격 |
|---------|------|------|-------|--------|--------|--------|--------|--------|
| 인원 | '74년 | 27 | 14 | 14 | 2 | 6 | 3 | |
| | '75년 | 35 | 22 | 22 | 7 | 4 | 1 | |
| | '76년 | 42 | 29 | 29 | 2 | 4 | 5 | |
| 백분율 (%) | '74년 | | 50.2% | 50.2% | 8% | 22% | 12% | 72.5% |
| | '75년 | | 63% | 63% | 20% | 11% | 3% | 86.9% |
| | '76년 | | 69% | 69% | 5% | 10% | 12% | 90.5% |

○ 본교 교과 과정

가) 중학반

|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과 | 1학년 전과정 | | | | | | 2학년 전과정 | | | | | | 3학년 전과정 | | | | | | 고 시 준 비 | | 검 정 고 시 | | 입시준비 실업교육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유신반

국어, 영어, 수학, 법제대의 일반상식등 전반과정을 1년 동안에 완료.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 후, 낙후자는 추가 1년 교육 후 전원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토록 한다.

○ 77학년도 계획

가) 중학 3학년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목표 80%로 완승 77학년으로 한다.

나) 체육시설을 구비하여 체력단련에 기여한다.

다) 유신 3년을 전원 5급 시험에 합격시킨다.

라) 실업반과 5급 시험반은 전원 타자 3급 이상 이수시킨다.

마) 학교 발을 만들어 영농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바)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7장 현재의 남면지역 교육기관

제1절 초등학교

1. 연남초등학교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연기리 397번지

- 전화번호
교장실 : 863-4501 교무실 : 863-4500
행정실 : 863-4504 FAX : 863-5717

- 교 장
성명 : 성열소 연령 : 59세 부임년월일 : 2002. 9. 1

- 주요연혁
1908. 04. 01 연기공립배달학교 개교
1911. 05. 10 연기공립심상소학교 개교

| | |
|--------------|------------------------|
| 1941. 04. 01 | 연남공립국립학교로 명칭 변경 |
| 1973. 03. 01 | 수왕국민학교 분리 |
| 1993. 03. 01 | 농어촌형 아동 급식 실시 |
| 1993. 03. 01 | 식생활 개선 협력학교 지정 |
| 1993. 12. 30 | 1개 교실 증축 |
| 1995. 03. 01 | 특별활동 지정 시범학교 운영 |
| 1999. 03. 08 | 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 2000. 03. 01 | 충청남도 연기교육청 지정 전통예술시범학교 |
| 2001. 03. 01 | 8학급 편성 |
| 2003. 02. 13 | 제 88회 졸업식 |
| 2003. 03. 01 | 8학급 편성 |
| 2003. 03. 03 | 농어촌 거점학교 지정 |

● 시설현황

학급총부지면적 : 12,599㎡ 학급수 : 초등 6학급, 유치원 1학급

● 직원총수 : 15명 (교사 11명, 기타 직원 3명)

● 통학구역 : 연기리(1·2구), 보통리(1·2·3구), 놀왕리, 갈우리

● 교 훈 : 뜻은 높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 교육목표 및 중요시책

- 교육목표

- 가. 의지가 강하며 튼튼한 어린이
- 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린이
- 다. 새롭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
- 라. 함께 행동하는 지혜로운 어린이
- 마. 심성이 곱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

- 중요시책

- 가.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효 관련 독서활동을 통한 효행심 정착)
- 나. 사물놀이반 운영을 통한 전통음악 교육

● 졸업생 총수 : 6,308명(총졸업회수 89회)

● 현학생수 : 167명

● 역대교장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
| 1~11 | | | 22 | 오 일 영 | 1970.03.01~1970.10.24 |
| 12 | 이 치 하 | 1945.10.25~1947.07.31 | 23 | 이 일 환 | 1970.10.25~1973.08.31 |
| 13 | 정 인 용 | 1947.08.01~1949.09.29 | 24 | 김 재 동 | 1973.09.01~1977.08.31 |
| 14 | 전 향 규 | 1949.09.30~1951.02.04 | 25 | 정 문 섭 | 1977.09.01~1982.08.31 |
| 15 | 황 호 연 | 1951.02.05~1954.05.07 | 26 | 나 광 표 | 1982.09.01~1987.08.31 |
| 16 | 정 도 희 | 1954.05.08~1956.11.04 | 27 | 김 재 갑 | 1987.09.01~1989.02.28 |
| 17 | 황 호 연 | 1956.11.05~1961.05.07 | 28 | 박 재 원 | 1989.03.01~1992.08.31 |
| 18 | 임 중 응 | 1961.05.08~1962.12.31 | 29 | 이 효 중 | 1992.09.01~1994.08.31 |
| 19 | 양 재 완 | 1963.01.01~1963.10.27 | 30 | 홍 중 린 | 1994.09.01~1999.08.31 |
| 20 | 이 택 구 | 1963.10.28~1968.02.28 | 31 | 박 희 재 | 1999.09.01~2002.08.31 |
| 21 | 남 기 방 | 1968.03.01~1970.02.28 | 32 | 성 열 소 | 2002.09.01.~현 재 |

● 교 가

1. 백행의 으뜸되는 효자의 길로

우애롭게 나타나는 형제봉이며
 나라의 기둥되는 우리의 얼굴
 용감히 실천하는 연남어린이

2. 지혜의 으뜸되는 성실의 길로
줄기차게 힘이 솟는 당산의 정기
겨레의 햇불되는 우리의 마음
슬기로 같고 닦는 연남어린이

3. 참됨의 으뜸되는 백행의 길로
상냥하게 웃음짓는 미호천 여울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정신
씩씩히 불변하는 연남어린이

— 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97번지

- 전화번호 : 863-4500

- 직 원 수 : 1명

- 설 립 자 : 공립

- 주요연혁
 - 1999. 03. 01 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 1999. 03. 08 제 1회 취원식(1학급 편성)
 - 2000. 02. 14 제 1회 졸업식
 - 2003. 02. 12 제 4회 졸업식

- 수용학생수 : 남 5명, 여 56, 계 11명

- 졸업생 총수 : 24명

- 교 실 수 : 1실

- 교육목표

-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
- 인사 잘하고 예절바른 어린이
-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 바르고 고운말 쓰는 어린이
- 살피고 생각하는 어린이

- 교육활동내용

- 안전규칙 준수, 바른 식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 질서지키기, 음악감상
- 도구를 이용한 만들기와 꾸미기, 경험·생각·느낌 말하기, 글씨 쓰기
- 관심가지기,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 다양하게 생각하기

- 일일활동내용 : 주마다 생활주제가 다름

- 급식상황 : 전원급식

- 직원명단

유치원 교사 : 김은숙



성일소 교장선생님



연남초교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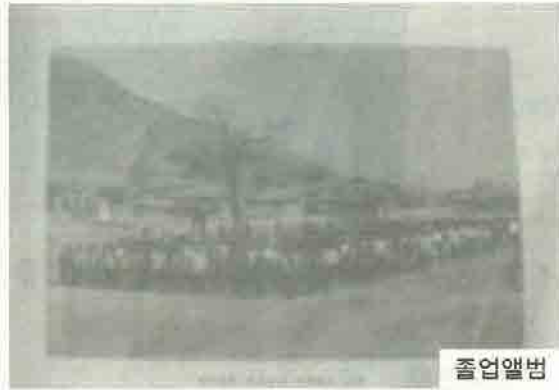
졸업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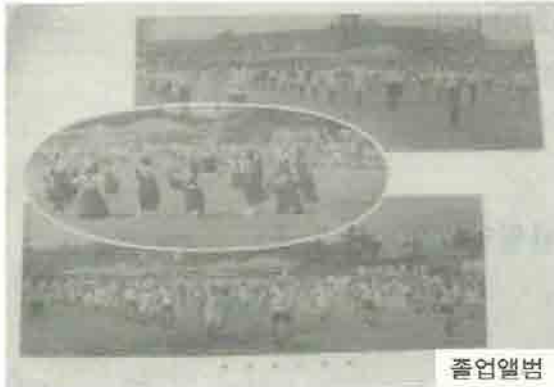
졸업앨범



학교전경



졸업앨범



졸업앨범



급식실



졸업앨범



졸업앨범

2. 연양초등학교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1-1번지

● 전화번호

교장실 : 864-6201 교무실 : 864-6200

행정실 : 864-6205 FAX : 866-5933

● 교 장

성명 : 이강인 연령 : 59세 부임년월일 : 2001. 3. 1

● 주요연혁

| | |
|--------------|--------------------|
| 1939. 05. 05 | 연양공립심산소학교 설립인가 |
| 1940. 06. 10 | 본교사 65.8평 신축·이전 |
| 1941. 04. 01 | 연양국민학교라 칭함 |
| 1956. 09. 01 | 양화 분교장으로 6학급 분리 |
| 1957. 04. 01 | 양화 분교장 연세국민학교로 독립 |
| 1970. 03. 01 | 연남교에서 고정리 학구 편입 |
| 1996. 03. 01 | 연양초등학교로 개칭 |
| 2001. 12. 31 | 선택적 다목적교실(845㎡ 준공) |

2002. 11. 13 셋별관(다목적 강당) 준공
 2002. 02. 19 제 60회 졸업식(총 5,014명)
 2003. 03. 01 10학급 편성(병설유치원 2학급)

● 시설현황

학교 총 부지 면적 : 4,178m² 학급 수: 초등-9학급, 유치원-2학급

● 직원총수 : 21명 (보건교사 1명, 유치원교사 2명, 기타 직원 6명)

● 통학구역 : 중촌리, 방축리, 송당리, 고정리

● 교 훈 : 효도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

● 교육목표

- 밝은 품성을 지닌 예절바른 학생
- 자기 학습력을 기르는 탐구하는 학생
-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개성있는 학생
-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능동적인 학생
-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

● 중요시책

- 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강화
- 기초·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한 학력 증진
- 정보활용능력 신장
- 바른생활 습관의 생활화
- 독서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표현력 신장
- 연구하고 화합하는 교직원토 조성

● 졸업생 총수 : 5,049명 (총 졸업회수 61회)

● 현학생수 : 213명

● 역대교장

| 대 | 성명 | 재직기간 | 대 | 성명 | 재직기간 |
|----|--------------|-----------------------|----|-----|------------------------|
| 1 | 이노우 에세이가꾸 | 1939.05.05~1940.03.31 | 13 | 홍순배 | 1970.10.10.~1974.02.28 |
| 2 | 호소다니순수 | 1940.04.01~1941.03.31 | 14 | 신병희 | 1974.03.01~1976.02.29 |
| 3 | 고기소도시미 | 1941.04.01~1943.03.31 | 15 | 천영덕 | 1976.03.01~1980.08.31 |
| 4 | 구찌 바젠소 | 1943.04.01~1944.08.31 | 16 | 이상기 | 1980.09.01~1984.02.29 |
| 5 | 마쓰이다메이찌 | 1944.09.01~1945.08.15 | 17 | 이선희 | 1984.03.01~1986.02.28 |
| 6 | 김광길 | 1945.09.10~1946.03.31 | 18 | 강희용 | 1986.03.01~1989.08.31 |
| 7 | 임헌천 | 1946.04.01~1951.01.31 | 19 | 조일연 | 1989.09.01~1993.08.31 |
| 8 | 최원식 | 1951.02.01~1952.08.27 | 20 | 류달현 | 1993.09.01~1996.02.29 |
| 9 | 임헌경 | 1952.08.28~1957.03.27 | 21 | 진태웅 | 1996.03.01~1997.08.31 |
| 10 | 홍종욱 | 1957.03.28~1961.08.15 | 22 | 강신태 | 1997.09.01~1999.08.31 |
| 11 | 유진원 | 1961.08.16~1964.03.31 | 23 | 김명호 | 1999.09.01~2001.02.28 |
| 12 | 임궁수 | 1964.04.01~1968.02.28 | 24 | 이강인 | 2001.03.01.~현재 |
| 13 | 이경환 | 1968.03.01~1970.10.09 | | | |

● 장학금 수혜상황

| 년도 | 지급기관(자)수 | 수혜학생 수 | 장학금 총액 |
|------|----------|-----------|------------|
| 2001 | 7 | 김우일 외 11명 | 1,000,000원 |
| 2002 | 10 | 강석 외 12명 | 1,250,000원 |
| 2003 | 11 | 박경미 외 22명 | 2,050,000원 |

● 교 가

1. 수려한 전월산의 정기를 받아
깨끗한 금강물에 몸을 담고서
튼튼히 자라나는 귀여운 새싹
끝없이 빛을 준다 우리 연양교



이강인 교장선생님

2. 어진덕 본받으라 문필봉 보고
비단강 푸른 물은 우리 슬기다
스스로 부지런히 일해 나가는
대한의 꽃송이다 우리 연양교



연양초등학교 전경



셋별관 준공식



연양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 연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중촌리 131-1번지
- 전화번호 : 864-6215
- 직 원 수 : 2명
- 설 립 자 : 공립
- 주요연혁
 - 1981.03.10 연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인가
 - 1986.03.01 연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명칭 개칭
 - 2002.02.14 제 21회 졸업
 - 2003.02.06 1학급 증설(2학급)
- 수용학생수 : 31명
- 졸업생 총수 : 673명
- 교 실 수 : 2실
- 교육목표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
 - 서로 돕고 예의 바른 어린이
 -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 잘 듣고 바르게 일하는 어린이
 - 깊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어린이

- **중요시책**

- 효생활 실천 및 기본생활습관 교육
-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을 통한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 총체적 언어활동을 통한 언어능력 신장(군시범)

- **교육활동내용**

즐거운 유치원, 안전한 생활, 나, 나와 친구들, 봄, 여자와 남자, 우리가족·동네, 동물, 환경보호, 음식, 건강과 위생, 여름, 여름방학, 여러 가지 탈 것,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우주, 가을, 기계와 도구, 보도기관, 전기와 자석, 겨울, 겨울방학, 초등학교에 가려면.

- **일일활동내역**

자유선택활동 및 평가, 우유 급식지도, 대그룹활동(이야기나누기·새노래지도) 교육방송시청, 컴퓨터 활동, 자유선택활동(실외놀이를 중심으로), 점심급식지도 소그룹활동(작업·동작활동·창의성), 동화·동시듣기, 귀가지도

- **급식상황 : 전원 급식**

- **직원명단**

유치원교사 : 강인수, 부성숙

3. 연세초등학교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439-5번지

● 전화번호

교장실 : 864-6497 교무실 : 864-5008

행정실 : 866-5009 FAX : 866-9993

● 교 장

성명 : 김남식 부임년월일 : 2004. 3. 1

● 주요연혁

1956. 09. 01 연양국민학교 양화분교로 개교

1957. 04. 01 연세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60. 08. 31 전기가설 및 운동장 확장공사

1981. 03. 10 병설유치원 개설

1990. 03. 01 6학급 편성

1993. 12. 15 개축공사 준공(서편 1층, 2층) 및 옥내 계단 설치

1995. 03. 01 농·어촌지역학교 지정

1996. 03. 01 연세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9. 10. 09 수행평가 군 시범학교 운영공개
2001. 01. 17 교내 학내망 공사 완료
2003. 02. 19 제46회 졸업식

● 시설현황

학교총부지면적 : 28,353m² 학급 수 : 6학급

● 직원총수 : 14명 (교사 11명, 기타 직원 3명)

● 통학구역 : 양화리 1구·2구·3구, 진의리, 월산리

● 교 훈 : 성실·자주·창조

● 교육목표

-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 효 실천에 힘쓰는 어린이
- 심신이 튼튼한 어린이
- 스스로 노력하는 어린이
- 새롭게 창조하는 어린이

● 졸업생 총수 : 3,079명 (총졸업회수 47회)

● 현학생수 : 57명

● 역대교장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
| 1 | 박 노 춘 | 1959 ~ 1958 | 11 | 임 완 수 | 1978 ~ 1983 |
| 2 | 권 순 안 | 1958 ~ 1961 | 12 | 노 승 완 | 1983 ~ 1985 |
| 3 | 민 태 환 | 1961 ~ 1962 | 13 | 서 순 석 | 1985 ~ 1988 |
| 4 | 이 은 철 | 1962 ~ 1963 | 14 | 이 세 원 | 1988 ~ 1991 |
| 5 | 임 긍 수 | 1963 ~ 1964 | 15 | 김 정 식 | 1991 ~ 1994 |
| 6 | 홍 종 옥 | 1964 ~ 1965 | 16 | 김 경 배 | 1994 ~ 1996 |
| 7 | 임 헌 경 | 1965 ~ 1966 | 17 | 이 주 하 | 1996 ~ 1999 |
| 8 | 배 도 진 | 1966 ~ 1970 | 18 | 김 악 회 | 1999 ~ 2001 |
| 9 | 임 택 수 | 1970 ~ 1973 | 19 | 이 상 준 | 2001 ~ 2004 |
| 10 | 임 용 목 | 1973 ~ 1978 | 20 | 김 남 식 | 2004 ~ 현 재 |

● 장학금 수혜상황

| 년 도 | 지급기관(자)수 | 수혜학생 수 | 장학금 총액 |
|------|----------|-----------|------------|
| 2001 | 9 | 임재민 외 15명 | 1,650,000원 |
| 2002 | 7 | 황성하 외 10명 | 1,150,000원 |
| 2003 | 9 | 임재관 외 11명 | 1,350,000원 |

● 교 가

1. 전월산 맑은 바람 몸을 다루고
금강의 푸른물결 마음을 닦는
연세의 아들 딸 대한의 새싹
해남도 귀여워라 우릴 비춘다
연세 연세 세거의 배움터
종소리 우렁차게 울려 나온다
2. 배달의 붉은 피 가슴에 품고
화랑의 높은 뜻 머리에 지녀
무궁화 동산에 꽃 피울 우리

해님도 가름해라 우릴 비춘다
연세 연세 세거의 배움터
종소리 우렁차게 울려 나온다

— 연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남식 교장선생님



연세초등학교



연세초등학교



교목 : 느티나무



학교전경(시계탑과 어린이 독서헌장상)



학교 정원의 '시계탑' 과 국민교육헌장탑



유치원 놀이터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439-5번지

- 전화번호 : 865-6416

- 직원수 : 1명

- 설립자 : 공립

- 주요연혁
1981.03.10. 연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2003.03.04. 제 23회 취원식

- 수용학생수 : 남-2명 여-7명 계-9명

- 졸업생 총수 : 453명

- 교실수 : 1실

- 교육목표 :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하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유아

- 교육활동내용
 - 건강생활 : 안전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방법을 익히고 건강한 생활을 기른다
 - 사회생활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태도를 기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마음을 기른다.
 - 표현생활 :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언어생활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며,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 탐구생활 : 과학적 사고와 논리·수학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일일활동내역**

등원,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이야기나누기, 게임 및 음률활동, 동화·

동극·동시 조형활동, 손씻기, 점심식사, 이닦기 및 자유선택활동, 귀가지도

- **급식상황 : 전원 급식**

- **직원명단**

유치원교사 : 송석례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놀왕리 324**

4. 수왕초등학교



● 전화번호

교장실 : 864-4357 교무실 : 863-4101

행정실 : 863-4164 FAX : 863-6551

● 교 장

성명 : 정호숙 부임년월일 : 2004. 3. 1

● 주요연혁

- 1970. 01. 07 연남국민학교 놀왕분교장으로 개교
- 1972. 11. 30 교사 2교실 증축
- 1973. 03. 01 수왕국민학교로 승격
- 1973. 10. 30 교사 2개 교실 증축 및 동쪽 계단 설치
- 1974. 05. 08 창고 1동 신축 및 서쪽 계단 설치
- 1986. 11. 04 군지정 학습지도 시범학교 운영 공개 보고회
- 1995. 03. 01 농어촌 지역학교 지정
- 1996. 03. 01 수왕초등학교로 개칭
- 1996. 11. 29 연기교육 발전과제 연구 시범 공개 보고회

2002. 02. 16 제 29회 졸업식
 2002. 03. 01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 1학년 편성
 2003. 03. 01 초등학교 5학년, 유치원 1학년 편성

● 시설현황

학교총부지면적 : 18,884㎡ 학급 수 : 5학급 (유치원 1학급)

● 직원총수 : 11명 (교사 7명, 기타 직원 4명)

● 통학구역 : 놀왕1리(1반 제외), 놀왕 2리, 수산리, 고정1리(1·2반)

● 교 훈 : 새롭게, 스스로, 끝까지

● 교육목표

-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 개성을 추구하는 어린이 (개성인)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어린이 (창의인)
- 진취적인 생활태도로 진로를 개척하는 어린이 (개척인)
-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이 (창조인)
- 바른 기본생활습관으로 이웃과 나라에 공헌하는 어린이(공헌인)

● 중요시책

- 예절실 활용을 통한 효 실천 지도
- 교수·학습 자료센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졸업생 총수 : 833명 (총졸업회수 30회)

● 현학생수 : 38명 (유치원 12명)

● 역대교장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대 | 성 명 | 재 직 기 간 |
|---|-----|-----------------------|----|-----|------------------------|
| 1 | 임택수 | 1973.03.01~1981.02.28 | 6 | 정세기 | 1994.09.01~1998.08.31 |
| 2 | 홍종욱 | 1981.03.01~1985.02.28 | 7 | 류대기 | 1998.09.01~1999.08.31 |
| 3 | 임재진 | 1985.03.01~1990.02.28 | 8 | 박우용 | 1999.09.01.~2000.08.31 |
| 4 | 이효중 | 1990.03.01~1992.08.31 | 9 | 성경태 | 2000.09.01~2002.08.31 |
| 5 | 김동호 | 1992.09.01~1994.08.31 | 10 | 천이봉 | 2002.09.01~2004.02.28 |

● 장학금 수혜상황

| 년 도 | 지급기관(자)수 | 수혜학생 수 | 장학금 총액 |
|------|----------|----------|----------|
| 2000 | 6 | 이한별 외 5명 | 450,000원 |
| 2001 | 7 | 이종신 외 9명 | 650,000원 |

● 교 가

1. 놀왕산 기슭의 그윽한 품에
 슬기롭게 배운다 겨레의 새싹
 날마다 같고 닦아 한빛을 받아
 씩씩하게 자라라 수왕 어린이

2. 금강의 맑은 물 잔잔한 물결
 희망찬 푸른 꿈을 높게 키우고
 날마다 같고 닦아 한빛을 받아
 씩씩하게 자라라 수왕 어린이

3. 내일의 일꾼을 기르는 터전
 찬란한 새 역사의 꽃을 피우자
 날마다 같고 닦아 한빛을 받아
 씩씩하게 자라라 수왕 어린이

- 수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놀왕리324번지
- 전화번호 : 863-9640
- 직원수 : 1명
- 설립자 : 공립
- 주요연혁
 - 1985.03.06 수왕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개원
 - 2000.09 유치원 전용 종합적 놀이시설 설치
 - 2003.02.14 제18회 졸업식
 - 2003.03.05 유치원 1학급 9명 취원
- 수용학생수 : 남 5명, 여 4명, 계 9명
- 졸업생 총수 : 265명
- 교실수 : 1실
- 교육목표 :
 -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생활 습관을 가진 어린이 (건강생활)
 - 자기조절능력 및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어린이 (사회생활)
 -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 (표현생활)
 - 잘 듣고 바르게 말하는 어린이 (언어생활)
 - 호기심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어린이 (탐구생활)

- 교육활동내용 : 5개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운영
- 일일활동내역
자유선택활동, 집단활동(이야기나누기, 동화듣기, 노래부르기, 율동)
개별활동(작업), 점심식사, 오후선택활동, 실외놀이, 오후간식, 귀가
- 급식상황 : 전원 급식
- 직원명단
유치원교사 : 김창순

제2절 중학교

성남중학교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중촌리 191-5
- 전화번호
교장실 : 865-8331 교무실 : 865-8333~4
행정실 : 865-8332 FAX : 865-8355
- 교 장
성명 : 이재진 연령 58세 부임년월일 : 2001. 3. 1
- 주요연혁
1963. 02. 20 성남중학교 설립인가
1963. 02. 20 김신옥 초대 교장 취임
1963. 03. 07 개교식 및 입학식
1966. 01. 18 제 1회 졸업식

| | |
|--------------|-------------------|
| 1999. 02. 19 | 학칙개편 10학급에서 9학급인가 |
| 2001. 09. 01 | 제14대 이재진 교장 취임 |
| 2002. 02. 09 | 제37회 졸업 |
| 2004. 02. 10 | 제39회 졸업식 |

● 시설현황 : 학교총부지면적 : 40,395㎡ 학급 수 : 9학급(각 학년 3학급)

● 직원총수 : 23명

● 교 훈 : 경천(敬天) 위국(爲國) 애인(愛人)

● 교육목표

-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으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인격이 성숙된 개성 있는 사람
- 기초학력을 증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창의적인 사람
- 질서를 존중하고 자율적이며 부지런하고 협동하는 사람
- 범 교과적인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 주요시책

- 아가페적 사랑의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함양
- 사제동행독서 및 자율학습으로 학력증진을 통한 창의력 신장
- 건전하고 바른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준거집단 활동의 강화
- 학교 전통 예술로 사물놀이 육성

● 졸업생 총수 : 8,738명

● 현학생수 : 256명

● 역대교장

| 대 | 성명 | 재직기간 | 대 | 성명 | 재직기간 |
|---|-----|-----------|----|-----|-----------|
| 1 | 김신옥 | 1963~1966 | 8 | 이현중 | 1988~1990 |
| 2 | 윤치원 | 1966~1967 | 9 | 이백주 | 1990~1992 |
| 3 | 이영자 | 1967~1968 | 10 | 조성우 | 1992~1994 |
| 4 | 변창헌 | 1968~1980 | 11 | 정오영 | 1994~1998 |
| 5 | 이한덕 | 1980~1981 | 12 | 가춘호 | 1998~2000 |
| 6 | 이계승 | 1981~1982 | 13 | 정동원 | 2000~2001 |
| 7 | 이백주 | 1982~1988 | 14 | 이재진 | 2001~현재 |

● 장학금 수혜상황

| 년도 | 지급기관(자)수 | 수혜학생 수 | 장학금 총액 |
|------|----------|----------|------------|
| 2001 | 6 | 류민진 외 6명 | 1,500,000원 |
| 2002 | 5 | 임서경 외 4명 | 1,000,000원 |

● 교 가

하늘과 조국의 부름을 받아
 대한의 건아로 이룩한 동산
 광활한 금강변 배움의 동산
 이름도 거룩한 성남중학교
 다하자 다하자 하늘과 조국의 거룩한 뜻을 날리자
 날리자 겨레의 자랑 우리 성남 중학교

제3절 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

- 전화번호
교장실 : 864-7519 교무실 : 864-5901
행정실 : 864-5900 FAX : 864-6688

- 교 장
성명 : 도완석 부임년월일 : 2004. 3. 3

- 주요연혁
1966. 03 성남고등학교 3학급 인가
1966. 03 제1대 윤치영 교장 취임
1969. 01 제1회 졸업식
1969. 02 제3대 변창헌 교장 취임
1972. 05 9학급 인가

| | |
|----------|---------------|
| 1979. 10 | 21학급 인가 |
| 1980. 03 | 성남중 · 고등학교 분리 |
| 2003. 02 | 제35회 졸업식 |

- 시설현황 : 학교 총 부지면적 - 42,995m² 운동장면적 - 15,010m²
 학급 수 - 21학급(각 학년 7학급)

- 직원총수 : 교사 - 47명, 기타 직원 - 15명

- 교 훈 : 경천(敬天) 위국(爲國) 애인(愛人)

- 교육목표
 -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취하여 일하는 사람(애국인)
 -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기능인)
 - 밝은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건강인)
 - 근면 성실하고 이웃을 도우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공익인)

- 주요시책
 -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지향
 - 독서지도를 통한 건전한 심성과 사고력 배양
 -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실현
 - 인성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전인교육의 실현

- 졸업생 총수 : 8,572명 (제 36회)

- 현학생수 : 635명

● 역대교장

| 대 | 성명 | 재직기간 | 대 | 성명 | 재직기간 |
|---|-----|-----------|---|-----|-----------------|
| 1 | 윤치영 | 1966~1967 | 5 | 변창헌 | 1986~1994 |
| 2 | 이영자 | 1967~1969 | 6 | 조성우 | 1994~1999 |
| 3 | 변창헌 | 1969~1981 | 7 | 임대수 | 1999~1999(6개월) |
| 4 | 이한덕 | 1981~1986 | 8 | 가춘호 | 1999~2004. 3. 2 |

● 장학금 수혜상황

| 년도 | 지급기관(자)수 | 수혜학생 수 | 장학금 총액 |
|------|----------|-----------|-------------|
| 2001 | 13 | 김인옥 외 46명 | 37,292,800원 |
| 2002 | 18 | 이선인 외 72명 | 66,255,000원 |

● 교 가

하늘과 조국의 부름을 받아
 대한의 건아로 이룩한 동산
 광활한 금강변 배움의 동산
 이름도 거룩한 성남고교
 다하자 다하자 하늘과 조국의
 거룩한 뜻을 날리자 날리자 겨레의 자랑
 우리 성남고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제4절 기타 교육기관

1. 어린이집

1) 연기어린이집

• 보육시설

| 어린이집명 | 원 장 | 개 원 | 총졸업회수 | 총졸업생수 | 학 급 수 |
|--------|-------|----------|---------|-------|-----------------------|
| 연기어린이집 | 하 재 동 | 1981.3.2 | 23회 | 840명 | 10개반 |
| 원아수 | 교사수 | 기타직원수 | 총건평 | 부지면적 | 주 소 |
| 128 | 10 | 3 | 467.22㎡ | 646㎡ |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85-2번지 |



하 재 동 원장

• 원 훈
 착하고 슬기롭고
 소망스럽게 자라는
 세쌍과 같이

• 어린이집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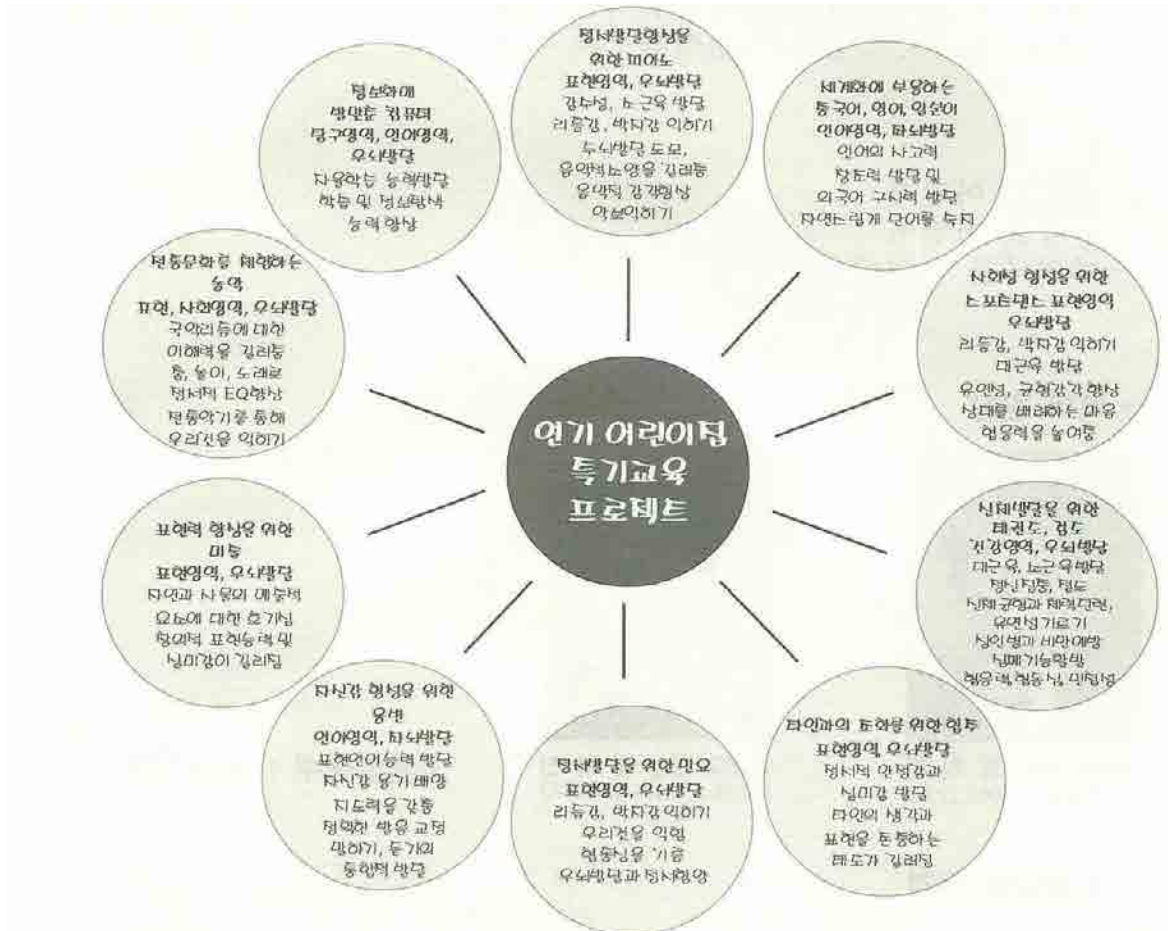
• 교육목표
 - 참신한 인성 교육
 - 지능 발달 교육
 - 특기계발 교육

• 연기어린이집 전경



연기어린이집 특기교육

유아교육 과정인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영역의 완성 프로그램



• 연기어린이집 학습발표회



2) 방축 어린이집

- 연 혁

1983. 3. 31. 방축 새마을유아원 개원

1994. 2. 15. 방축 어린이집으로 전환

- 원 훈

씩씩한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

- 역대원장



제1대 원장 최 익 환
(1983.3.31 ~ 2003.12.31)



제2대 원장 정 미 선
(2004 3. 18 ~ 현재까지)

• 졸업생수 : 총 977명

- 어린이집 전경



2. 연기향교 부설 충·효 교실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4번지
- 전화번호 : 863-4219
- 직원현황
전교 : 안순근 총무장의 윤왕재 상임강사 : 박종국, 배기찬, 홍순도
- 설립목적
 - 가. 성현숭배사상 고취
 - 나. 춘추제향 및 후진양성
 - 다. 청소년의 충효정신과 도덕성 양양
 - 라. 향토사 교육을 통한 애향심 고취
 - 마. 한문교육의 저변확대
- 교육내용
생활한자, 일반예절, 윤리도덕, 향토사, 충효정신
- 교육활동시간
 - 가. 매년 여름·겨울방학 이용
 - 나. 각 기당 40시간(1일 4시간×10일)
 - 다. 09:00~13:00까지(매일)
- 졸업생 현황
매회 40명×32회 = 1,280명
- 강사내용
 - 가. 상임강사 : 전교가 매년 위촉
 - 나. 특별강사 : 군내 저명 인사 초청
- 특별활동
 - 가. 설존대제 예행 실습
 - 나. 현지 답사 교육 - 군내 유적지

第 5 編 문 화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종교

제2장 연기군 남면 지역의
언어전승

제3장 연기군 남면의 전설

제4장 연기군 남면 관련 옛시

제5장 연기군 남면의 세시풍속

제6장 연기군 남면의 통과례

종 교 단 체 현 황

| 명 칭 | 대표자 | 성 명 | 주 소 | 우편번호 | 연락처(전화번호) | 비 고 |
|-------------|-----|-----|-----------|---------|-----------|------------|
| 석 연 사 | 직 위 | 장기원 | 연기 7-2 | 339-823 | 863-4062 | |
| 래 운 사 | 주 지 | 이석용 | 보통 341-8 | 339-824 | 863-4104 | |
| 보 광 사 | 주 지 | 성영순 | 보통 332 | 339-824 | 863-4301 | |
| 용 운 사 | 주 지 | 이종원 | 눌왕 산74 | 339-823 | 862-4051 | |
| 보 영 사 | 주 지 | 이보열 | 눌왕 126 | 339-823 | 862-9434 | |
| 미 타 사 | | | 수산 334 | 339-823 | | 미거주 |
| 삼 광 정 사 | 주 지 | 손경숙 | 종촌 398 | 339-822 | 866-1333 | |
| 대 덕 사 | 주 지 | 임찬수 | 방축 14 | 339-821 | 865-3075 | |
| 방 축 암 | 주 지 | 손미자 | 방축 99-7 | 339-821 | 864-3791 | |
| 서 광 사 | 주 지 | 이옥수 | 양화 577-1 | 339-824 | 864-1389 | |
| 덕 암 사 | 주 지 | 이진표 | 진의 44 | 339-824 | | |
| 용 화 사 | 주 지 | 윤영식 | 나성 607-2 | 339-822 | 864-9143 | |
| 도 인 사 | 주 지 | 이훈자 | 방축 96-1 | 339-821 | 864-4001 | |
| 덕 성 암 | 주 지 | 이성근 | 눌왕 410-1 | 339-823 | 863-4840 | |
| 용 암 사 | 주 지 | 백대현 | 진의 356-1 | 339-824 | 866-7754 | |
| 연기중앙장로교회 | 주 지 | 순정길 | 연기 343 | 339-823 | 863-5090 | |
| 연 기 칩 례 교 회 | 목 사 | 강동원 | 연기 374-4 | 339-823 | 862-4241 | |
| 수 산 칩 례 교 회 | 목 사 | 김천수 | 수산 151-1 | 339-823 | 863-4573 | |
| 고 정 장 로 교 회 | 목 사 | 배장환 | 고정 766-5 | 339-821 | 864-6116 | |
| 종 촌 장 로 교 회 | 목 사 | 한준석 | 종촌 110-16 | 339-822 | 864-5137 | |
| 성 남 복 음 교 회 | 목 사 | 김기혁 | 종촌 191-5 | 339-822 | 864-6416 | |
| 갈 운 칩 례 교 회 | 목 사 | 박종서 | 갈운 319-4 | 339-821 | 864-5916 | |
| 충 만 기 도 원 | 목 사 | 조영자 | 갈운 59 | 339-821 | 864-6266 | |
| 원 산 교 회 | 목 사 | 임재원 | 월산 95-4 | 339-824 | 864-6089 | |
| 양 화 칩 례 교 회 | 집 사 | 천 왕 | 양화 | 339-824 | 864-5313 | |
| 양 화 감 리 교 회 | 목 사 | 김흥규 | 양화 49 | 339-824 | 864-5107 | |
| 연 세 장 로 교 회 | 목 사 | 안철암 | 진의 340-1 | 339-824 | 864-5312 | 남면교회연합회 총무 |
| 송 담 칩 례 교 회 | 목 사 | 임공열 | 종촌 123-8 | 339-822 | 866-1004 | 남면교회연합회 회장 |
| 왕 국 회 관 | 목 사 | | 송담 422 | 339-822 | | |
| 나 성 칩 례 교 회 | 목 사 | 이성택 | 나성 187 | 339-822 | 864-5684 | |
| 송 원 장 로 교 회 | 목 사 | 이반석 | 송원 149-1 | 339-822 | 864-5751 | |
| 소 망 장 로 교 회 | 목 사 | 장원옥 | 송담 459-1 | 339-822 | 864-5064 | |
| 시 온 성 교 회 | 목 사 | 이승호 | 방축 135 | 339-821 | 865-9177 | |
| 월 산 칩 례 교 회 | 목 사 | 강찬기 | 연기 454-2 | 339-823 | 862-6032 | |
| 연 남 장 로 교 회 | 목 사 | 정기남 | 연기 387-7 | 339-823 | 863-6574 | |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종교

제1절 개요

우리 종교의 역사는 자연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민간신앙, 즉 토속신앙이라 부르는데 토속 신앙은 우리주변에 있는 나무, 바위, 우물과 산, 하늘, 땅 등에 신이 깃들여 있어서, 이를 위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불교나 기독교처럼 교리를 담은 경전 창시자가 없고 교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도를 갖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리 자연발생적일 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관습에 대한 공감과 동화의 심의현상에 의해 구전이나 행위모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개국설화가 전해온다. 이 개국설화에서 상징되는 환인(桓因)과 환웅(桓雄)은 하늘, 하느님이란 우리말의 음역(音譯)으로 하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하느님은 세상을 다스리거나(光明現世),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弘益人間) 믿어왔다.

고대인들은 제의(祭儀)를 통하여 신앙을 나타냈으며 제의는 신화의 내용을 현실에 실천하는 행위이며 신화적 이념의 실현이다.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을 천신으로 상징되는 국조신(國祖神)과 그 밖에 제사의 목적에 관련되는 다른 대상들도 포함된다.

시대가 흐르면서 중국을 통하여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됨에 따라 자연신앙도 변모하였다. 삼국초기까지 상고시대의 제정일치(祭政一致)로 부족의 족장이 왕이고 사제(司祭)였는데 고대국가로 발전되면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 왕이 곧 무(巫)였던 시대가 가고 무(巫)는 종교적 제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업으로 독립된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토착신앙이 중심이었으나 불교의 전래로 원시신앙의 자리를 불교가 차지하고 도교가 전래되면서 신선설(神仙說)과 방술(方術)이 행하여지고 도덕경을 강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토속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모를 나타냈지만 오랜 세월 민초를 틈바구니에서 현재까지 신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 내지 문화재로 변모하기도 하였지만 세시풍속으로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양에서 기원(起源)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미 각 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급속도로 선교하여 전통적으로 신봉하던 불교와 더불어 한국 민족개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근대에 새로 일어난 금강대도(金剛大道)와 증산도(甑山道)도 포교에 힘쓰고 있다.

제2절 연기군 남면의 유교

1. 개 관

유교는 불교·도교와 함께 동양의 삼대종교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삼대종교 중 유교는 천시(天時)에 따라서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일을 덕목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수신(修身)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先正其心), 그 마음을 바르게 하자면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가져야하고(先誠其義), 그 뜻을 정성스럽게 갖자면 먼저 슬기로우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하며(先致其知), 슬기롭고 지식이 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은 사람이 닦아야 할 심성(心性)문제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심성을 닦아서 착한 사람(至人, 善人)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륜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천지인(天地人) 삼재원리(三才原理)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오행원리사상(五行原理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를 잘 다스려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이룩하는 원리도 천도(天道)에 준해서 정치와 경제제도를 제정하여 인본정치시대(人本政治時代) 고래(古來)에 있어서는 (王道政治)의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유교는 현실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학문이므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공을 초월하여 이용되어 내려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이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2년(372)에 태

학(太學)을 세우고 중앙의 귀족자제들에게 유교의 경전을 가르쳤다. 과목은 유교경전이나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의 역사책(史書)과 『문선』 같은 문학을 가르쳤으며, 교수직으로는 박사직이 있었다. 말기에는 국자박사(國子博士)·대학사(大學士)등이 있어 모두 소형(小兄)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로서 임명하였다. 태학 이외에 지방에서 각처에 국당(局堂)이라고 하는 대옥(大屋)이 세워져서 평민자제들은 이곳에 모여 공부를 하였다.

백제에서도 박사의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경(經)·자(子)·사(史)등의 서적을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 때에 박사 고흥(高興)에게 『서기(書記)』를 편찬시킨 일이 있고,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國書)나 대좌평 사택지적비 등은 백제유학과 관련시켜서 발달된 백제 한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왕 때에는 양나라에 표를 올려 모시박사(毛詩博士) 혹은 강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한 것으로 보아 유교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일본에 학문을 전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찍이 한성시대에는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 등이 일본에 건너가 한학과 유학을 전하였는데, 왕인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며, 무령왕 때에는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와 고안무(高安茂)가 일본에 건너간 일이 있고, 성왕 때에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역시 오경박사인 왕유귀(王柳貴)를 보낸 일이 있었다.

고려초기의 유학자로서는 문종(1046~1083)때의 최충(崔庶)을 들 수 있다. 그는 구재학당(九齋學堂)을 만들어서 유교교육을 시킴으로써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12재(12齋)의 사학이 설치되어 관학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후 200여년이 지난 충렬왕(1274~1308)때에 국학과 문묘를 신축하고 양현고(養賢庫)를 충실히 하는 등 유학을 크게 장려하였다. 이 시기의 유학자 안향(安珦 一名 裕, 1243~1306)은 유교를 체계화한 성리학을 받아들인 최초의 학자이었으며, 그 후 백이정(白正), 이승인(李崇仁),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등의 성리학자들이 배출되어 유학을 진흥시켰다. 성리학은 인성(人性)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구명하는 철학적인 유학이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도덕으로서의 군신(君臣)의 의(義)를 강조하는 한편,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사장(詞章)이나 훈고학(訓學) 중심의 유학을 이단으로 보고 불교도 배척하였다.

이들 유학자들은 고려왕조를 개혁하며 존속시키려고 하는 보수파와 새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일부 젊은 유학자들의 신흥사대부세력의 양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후자가 조선왕조를 건설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성리학자들의 신진 사대부세력에 의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학구열이 더욱 높았다. 그리하여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때부터 서당에 가서 한문과 습자를 배운 뒤 8세가 되면 서울에서는 사학(四學)에, 지방에서는 향교(鄕校)에 진학하였다. 이 사학과 향교에서 수학한 유생들이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방의 초시에 합격하면 다시 서울에 모여 복시를 치루고 최후의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생진과에 합격한 유생들은 서울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문과(文科)에 응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초시를 거쳐 다시 복시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933명), 그리고 궐내에서 전시(殿試)를 시행하여 갑(甲)·을(乙)·병(丙) 3科로 나누어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관학인 사학이나 향교는 유학의 경전을 수학하는 동시에 과거에 등용되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학 못지 않게 사학인 서재(書齋)가 양반사회에서는 더 환영되어 심도있는 유학연구를 하는 한편 과거의 등용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유학의 도통연원(道統淵源)은 왕도정치를 실시하여 태평시대를 이룩한 중국 고대 요(堯)와 순(舜)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권교체에 있어서는 이때에 선양제도(禪讓制度)가 실시되었으며, 백성들은 격양가를 부르면서 태평세월을 구가했다고 한다. 이때의 도(道)·정(政)일치의 학통은 하(夏)의 우(禹), 은(殷)의 탕(湯), 주의 문왕·무왕·주공(周公)에게 이어져 내려 왔다가 공자 때부터 도통(道統)과 정통(政統)이 분리되어 이후 유학의 학통만이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自思)·맹자(孟子)까지 계승되다가 일단 정지되었다. 학통이 끊기었던 유학은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주희(朱熹)에 의하여 계승되면서 학문도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초기 유학사상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길재(治隱 吉再, 1353~1419)였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경상도 선산에 내려 와서 후학을 양성하여 그의 학통을 계

승하게 하였다. 지금도 그가 살았던 선산군 구미면에는 고사리를 캐 먹고 살았다고 전하는 ‘채미정(採薇亭)’이 남아 있는데, 이는 중국 백이·숙제의 절의사상을 흠모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길재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은 김종직(畢齋 金宗直, 1431~1492)이다. 김종직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이 항우가 조카 의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과 같이 비유해 조의제문(吊義帝文)을 지었다. 이것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金駟孫)이 사초에 올린 것이 화가 되어 김종직은 연산군에게 부관참시의 화를 당하고 그의 제자 사림파들은 모두 참화를 당하였다. 이 사림파들의 절사(節死)는 사육신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후 춘추대의사상에 입각한 왕도정치사상을 받아 들어서 도학정치를 실행해보려고 시도한 것이 조광조(靜菴 趙光祖, 1482~1519)이다. 그는 주자의 학문과 함께 향약실시제도를 받아들여 이상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그의 선진적인 정책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를 중종 14년 기묘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묘사화라고 한다. 이때의 성리학에 바탕을 둔 지치주의적 도학사상(至治主義的 道學思想)은 이민족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유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발전하게 되었다. 즉 조광조의 도학사상은 이후 이황(퇴계, 1501~1570)과 이이(율곡, 1536~1584)에 계승되었으며, 이들의 학통은 충청도 연산 출신인 김장생(1548~1631)에게 계승되어 그후 회덕(懷德)의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 김원행(溟湖 金元行, 1702~1772), 박윤원(近齋 朴胤源 1734~1799), 홍직필(梅山 洪直弼, 1776~1852), 연기의 임헌회(任袁晦 全義, 1811~1876), 전우(良齋 田愚, 1841~1922), 성기운(惠泉 成機運, 1877~1956)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충청도 연산, 회덕, 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학통이 연기지방 유학사상을 지배해온 주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연기군 남면의 유학

유학을 가르쳐서 교화에 힘쓰도록 한 기관으로 서울에는 성균관이, 각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향교는 조선 태조 1년(1392) 지방의 각 주목군현(州牧郡縣)에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연기군에 있는 연기향교와 전의향교도 이때부터 설치되었을 것이다.

연기향교는 지금 남면 연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두잉지현(豆仍只縣)으로 남면과 동면이 함께 묶여 있었던 한 고을로 알려져 있으며, 전의향교는 지금 전의면 읍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백제시대 구지현(仇知縣)으로 지금 전동지방과 함께 묶여 있었던 고을이다. 그런데 유독 금남면만은 향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을인데, 이는 공주목(公州牧)에 같이 묶여 있었던 고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기향교의 설치 년도에 대해서는 전국에 실시되었을 조선초기 태조때부터라고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자료는 없다. 현재 연기향교에 남아 있는 자료는 송명노(宋明老)의 연기향교 중수기(重修記)와 송래희(宋來熙)의 연기현학 명륜당 중수기(燕岐縣學 明倫堂 重修記)가 기록되어 있으나 두 자료에는 창건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호서읍지(湖西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0년(1684)에 동쪽의 5리에서 이전하여 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연기향교의 건물은 이때 이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향교에서는 다른 향교와 같이 대성전에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하여 중국 성현(聖賢)과 우리나라 십팔현(十八賢)을 배향하고 유교의 경전을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과거에도 합격시켜 국가에 공헌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연기향교에서는 ‘향약’이 있어서 운영되어 내려왔다.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개 조목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 즉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 한 일이 있으면 서로 일깨워 주고, 미풍·양속은 서로 본받게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 준다고 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향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때 조광조(靜菴 趙光祖, 1482~1519)의 건의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일설에는 태조 2년에 향약과 성격이 같은 향약조목을 그의 향읍(鄉邑)인 함흥(咸興)에 시행하였다는 설도 있다. 유흥렬, 『조선향약의 성립』 참조). 그 후 향약은 그의 학통을 계승한 이황과 이이에 의하여 발전·실시되었다. 이황은 예안향약(禮安鄉約, 1556)을 만들어 실시하였으며, 이이는 해주(海州)에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鄉約束, 1561)과 청주의 서원향약(西原鄉約, 1577)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향약실시는 그 후 전자는 영남지방의 학통을 이루면서 실시되어 내려왔고,

후자는 기호지방의 학통을 이루면서 실시되어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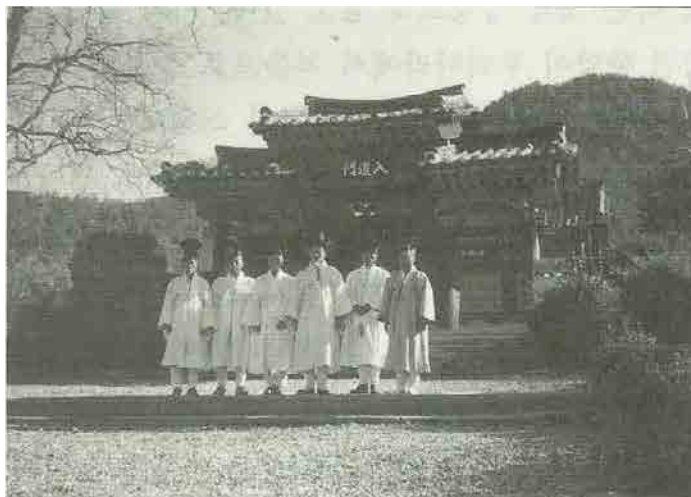
우리고장은 이이가 제정해서 실시한 서원향약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서원(淸州)과 연기지방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연기향약에는 향약을 다시 작성하기 위하여 당장 홍수영(堂長 洪洙泳)과 읍장(邑掌) 성지학(成志學)의 건의로 유생(儒生) 홍극렬(洪極烈)이 청주에 파견되어 서원향약의 자료를 얻어 와서 상고하도록 한 것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연기향약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연기향교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내려오고 있다.

- ① 연기구향안서(燕岐舊香案序)
- ② 신향안서(新鄉案序)
- ③ 청아록(菁莪錄)
- ④ 청금좌목서(靑衿座目序)
- ⑤ 연기현향교흥학절목(燕岐縣鄉校興學節目)
- ⑥ 재임안(齋任案)
- ⑦ 모리게좌목(募里契座目)

등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구향약안』에 의하면 정유년(丁酉年)에 향안이 화재로 없어졌다고 하며, 개수정안(改修正案)에는 승정후임진년에 새 향안(鄉案)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후임진년은 효종 3년(1652)에 해당된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것으로 알



덕성서원 유림

려진 구향안은 정유년(丁酉年)에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정유년은 선조 30년(1597년)에 해당된다. 이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어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시기이므로 전란 중에 불에 타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연기향약 실시 시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이전부터임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연기향약이 처음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561년(明宗16년) 율곡 이이가 서원향약을 실시한 시기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25년(1592)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향약안에 의하면 향안의 근본정신은 하나라(夏)의 육향(六鄉)과 주나라(周)의 좌우향(左右鄉), 진나라(秦)의 향읍(鄉邑), 한나라(漢)의 향곡(鄉曲)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국정은 향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향리는 국정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인즉, 먼저 국정을 기반으로 이루고 있는 향리가 잘 다



연기향교 대성전



연기향교



연기향교

스려져야 국가가 잘 다스려진다고 전제하고, 효제사상을 생활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에 공헌하는 것을 제정 목표로 삼고 있다.

개수정안(改修政案)에 의하면 향안(鄉案)은 향당(鄉黨)들의 세적(世籍)이라고 전제하고 일향입법(一鄉立法)을 44개 절목으로 세분해서 작성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봄과 가을에 향회를 열어서 풍속을 바로 잡도록 할 것.

둘째로 불효불목(不孝不睦)하는 자와 임의 자행하는 자는 경중을 가려서 관에

고발하든지 향중에서 처벌하든지 할 것.

셋째로 임원(任員)의 임기는 1년으로 할 것.

넷째로 향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 어른을 능멸히 여기는 자, 향곡을 남용하는 자는 향적에서 제명할 것.

다섯째 향안에서 처벌할 수 없는 정도의 범법자는 관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기향교 향양입약(燕岐鄉校 鄉約立儀)에는 위에서 예시한 바 있는 향약 사덕목(四德目)을 열거하고 14개 향의 향약범례(鄉約凡例)와 10개 향의 향약시폐(鄉約時弊)를 보입(補立)하고 있는데 학덕이 겸비된 자를 추천해서 일인의 도약장(都約長)과 2인의 도약헌(都約憲)과 도약정(都約正)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등의 조목들이 적혀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연기향약의 대강인데 향안에는 많은 인사들이 기재되어 있다.

명단 아래 기재되어 있는 그들의 주거지는 남면이 가장 많고 동면 출신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서면 인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 3개면이 한 고을로 묶여진 행정구역으로 내려 온 것임을 짐작케 해 주고 있다. 재임록(齎任錄)에 게재되어 있는 임원인사들의 성(姓)은 모두 26성(姓)이며 그 중 임(林)씨가 109명, 홍(洪)씨가 72명, 유(兪)씨가 44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 성씨가 방대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을 두고 실시되어 내려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청아록』에는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향적에서 아주 삭제해 버린다고 하는 대목도 있는데, 그러한 연유인지 향안에는 많은 인사들의 명단이 삭제되어 있다.

향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군·현(州·牧·郡·縣)에만 향교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대한 지역과 많은 인구에 비해서 그 수는 너무 적었다. 그래서 사립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곳곳마다 설립된 것이 서원(書院)이다.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豊基郡守 周世鵬)이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을 위하여 세운 백운동서원(1541)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서울과 지방에서는 경(京)·향(鄉)·각지(各地)에는 서원들이 많이 설립되어서 유교 교육의 일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옛 연기현에 있었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기군 서면 봉암리에는 봉암서원(鳳巖書院)이 있다. 이 봉암서원은 연기군 전체에 걸쳐서 유일한 사액서원인데 효종 2년(1651)에 창건되고 현종 6년(1665)에 사액되었다.

처음에는 번계(礮溪)에 신축하였다가 석담(石潭)으로 이전한 후, 봉암으로 옮겨져서 봉암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 이 서원에는 송재 한충(松齋 韓忠),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동춘 송준길(同春 宋浚吉)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이 서원은 고종 2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으로 훼손된 후 봉암서원 사적비만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사적비는 영조 33년(1757)에 윤봉구(尹鳳九)가 글을 짓고 송환성(宋煥星)이 글씨를 쓴 것이다. 이 비문의 내용은 송재(松齋) 한충(韓忠 1476~1521)과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관계를 비롯하여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으로 계승되는 학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문화수준이 얕은 오랑캐라고만 여기던 후금(後金)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친 다음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인조의 항복을 삼전도(三田渡)에서 받아 냈다. 그리고 명을 치고자 중원으로 진출해 들어가니 우리 조정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명은 우리나라와 임진왜란 때 혈맹관계(血盟關係)를 가지고 있는 우방국 일뿐만아니라, 가장 큰 강대국으로만 믿었는데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패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명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는 친명파(親明派)와 이에 반대하는 친청파(親淸派)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의견대립은 대청정책(對淸政策)에 있어서 척화파(斥和派)와 주화파(主和派)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 때 정계의 주도권은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척화파가 잡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비롯하여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홍익한(洪翼漢) 등이 있었고, 대개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유학자들이 이에 속하여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학통으로 체계화되어 전해져 내려 왔으니 그 대표적 인물로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암과 동춘은 노론을 대표하는 기호학파의 영수(領袖)이다. 연기향교와 봉암서원에 양현(兩賢)이 배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기지방은 대체로 우암·동춘의 학문적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연기지방에서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 받은 이는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이다.

그의 호는 전재(全齋)요, 자는 명노(明老)며, 연기군 남면 방축리에 거주했었다. 그는 고종 때 찬선(贊善)과 이조판서와 대사헌직을 역임하였으며, 고종 13년에 사망하자 고종은 그에게 정이품을 증직하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내린 바 있다. 저서로는 예설(禮說) 4권과 문집 20권, 년보(年譜) 6권이 있다. 그의 학문은 성리학에 있어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배격하고 기(氣)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일원론적(一元論的) 주기파(主氣派)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예론(禮論)에도 밝았다고 한다. 그는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인이다. 홍직필은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에게 수학하였고, 근재는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에게 수학했으며 미호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에게 수학하였는데 농암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門人)이다. 따라서 전재 임헌회는 우암의 학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임헌회의 문하에는 불계재(不匱齋) 이재구(李載九)와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비롯하여 김준영(金駿榮), 이유흥(李裕興), 조홍순(趙弘淳), 임헌찬(任憲瓚)등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불계재 이재구(1833~1887)는 연기군 북면 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해서 부모님이 병이 들면 바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쾌유하기를 빌었다고 하며,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못하면 매양 이 바위 위에서 회초리로 때려 엄하게 교육시켰다고 전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스승인 전재 임헌회는 ‘자교암(慈敎岩)’이라고 하는 글씨와 ‘불계재(不匱齋)’라고 하는 호를 지어 친필로 글씨를 써서 그의 효도를 칭찬하였다.

임헌회의 제자인 간재 전우(艮齋 田愚, 1841~1922)는 전라도 전주 출신이지만 전재 임헌회의 학행(學行)을 사모하여 전재에게 수학하였다고 하며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학자였다. 이밖에 김준영, 이유흥, 조홍순, 임헌찬 등의 고제(高弟)가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 고장이 낳은 전재 임헌회가 거주하던 남면 방축리 유허에는 고종 21년(1844), 유림들의 발의로 입안사(立安祠)가 창건되고 그들의 학덕을 추모하게 되었다.

1950년 6·25사변이 나자 일시 중단되고 말았으나 1978년 4월에 전국 유생 1,000여명이 조치원읍 문화원에 모여서 유허지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그들의 학

덕을 추모하여 내려오다가 1980년 덕성서원(德星書院)이라고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호서사(岐湖書社)는 숙종19년(1663) 연기군 남면 나성리에 유림들이 모여서 설립하였다. 기호서사에는 서하(西河) 임춘(林椿)과 전서(典書) 임난수(林蘭秀), 부사(府使) 임목(林穆)등을 배향하고 있다. 전서 임난수는 고려말의 인물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자 이곳에 낙향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이곳은 임씨(林氏)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이곳에 있는 독락정(獨樂亭)은 조선 세종 때 임목이 벼슬을 버리고 와서 지은 정자이며, 기호서사는 1693년 그들 후손들이 만든 강학하던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유학을 강학(講學)하여 경노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정책에 의하여 철사(撤社)되고 말았으나 지금도 이 모임은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함호서원과 같이 임씨문중에서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전수하여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호서사에는 1891년(고종 28)에 기록되어 있는 수강생 명단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 36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성씨 분포는 다음과 같다. 김(金) 6, 이(李), 양(梁) 5, 변(邊) 4, 임(任) 3, 박(朴) 2, 홍(洪) 2, 강(姜), 최(崔), 오(吳), 신(申), 서(徐), 송(宋), 한(韓), 권(權), 황(黃)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로 보면 임씨문중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성(各姓)들이 참여해서 폭넓게 강학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유교는 한말에 정도(正道)·정교(正敎)·정학(正學)을 수호하고 사도(邪道), 사교(邪教), 사학(邪學)을 배격하는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학자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게 되자 배일운동으로 앞장서게 되었다. 『구연기군지(舊燕岐郡誌)』에 게재되어 있는 3·1운동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사들의 명단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연기군 남면·서면·동면을 중심으로 하여 부안임씨(扶安林氏)인 임헌상(林憲詳), 임헌성(林憲成), 임영철(林瑩喆), 임휴철(林休喆), 임헌빈(林憲斌) 등이 3·1운동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한 바 있고, 결성장씨(結城張氏) 문중에서는 장재학(張在學), 장재규(張在奎), 장홍진(張弘鎭)등이 참여하고 있다. 황씨(黃氏) 문중에서도 황도연(黃道淵), 황득수(黃得秀)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밖에 배상철(裴相哲), 유한열(柳烈), 윤봉균(尹鳳均), 홍일섭(洪日燮), 오강표(吳

剛杓)등이 배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치원에서는 맹의섭(孟義燮)을 비롯하여 홍일섭(洪日燮), 최성교(崔成敎)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의·전동에서는 신정리를 중심으로 이수욱(李秀郁), 이장희(李章熙), 윤상원(尹相元), 추득천(秋得天), 정원필(鄭元弼)등 모두 16명이 체형(體刑)을 받은 바 있다. 금남면에서도 반곡리의 진태현(陳泰顯), 김상설(金商說) 등이 참여한 바 있고, 달전리에서는 성주찬(成周讚)이 독립군자금 조달을 감행한 바 있으며, 성기운(成璣運)은 호적을 거부한 바 있다. 부안임씨와 결성장씨들은 남면과 동면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학을 교습하여 내려왔음은 위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제3절 연기군 남면의 유교

1. 개관

연기군 남면 주민들이 유교의 삼강오륜과 함께 오계(五戒)·십선(十善)의 기본 윤리를 실천하고 현명한 생활철학을 실천해 오는 것은 불교의 계율적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불교는 생활·실천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윤리덕목과 생활 지혜의 기본이고 원천이다.

때로 인간의 오욕락(五慾樂)을 훌훌히 버리고, 희노애락 등의 감정을 적절히 조정하며, 비극과 좌절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자비관용으로 호혜·화복하는 등의 모든 실천도덕이 거의 모두 불교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지방의 불교는 갖가지 지방문화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오랜 세월 부침했던 화려하고 고아한 사원 건축, 찬란했던 각종 벽화, 장엄하고 신묘한 불보살상, 범종, 불구(佛具)등의 정교한 조각품들은 실로 훌륭한 불교미술로서 이 고장 미술문화의 기반이고 핵심이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보배로운 불교미술품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래로 각 사찰에서 조석으로 울려 퍼지던 염불소리와 범패성 등이 그대로 불교음악으로 어울려 이 고장의 전통적 음악문화를 형성·발전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염불성에서 유래된 민요가락이 남아 있고, 그 중에 장례할 때의 상두소리의 회심곡은 그 뚜렷한 사례라 하겠다. 게다가 불교제에서의 승무나 권선(勸善)할 때의 불교 희극적 놀이 등이 이 지방에 전승되고 불교 계통을 닮은 무용, 사물놀이 등을 이룩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더구나 사찰에서 벌인 불교 명절의 행사 등이 이 지방 민간에 퍼져 나와 그대로 민속화된 것도 적지 않다. 안택, 액막이, 그리고 백중놀이는 그 대표적인 실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가 이 지방에 들어 온 것은 아무래도 백제시대부터라고 하겠다.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불교를 들여옴으로써 백제불교가 시작되었다. 연기군 남면 지방에 실제로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웅진도읍시대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백제의 수도와 인접하여 정치·경

제 · 사회 · 문화등에서 위성지대였던 연기군 남면 지방에는 불교신앙과 정신문화도 일찍이 전파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백제의 불교는 웅진천도 이후로 성행하였거니와,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던 남면 지방에서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정착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때 남면 지방의 불교가 어느 지방보다도 먼저 발전 · 성세를 보였던 것은 물론이라 하겠다.

연기군 남면 지방의 일부가 한때 고구려의 침범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교의 세력에는 이렇다할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도 역시 불교 숭배국으로 정복자의 아량을 신앙적으로 베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 신라가 이 지방을 통일했을 때에는 신라도 불교 숭앙국으로서 점령지역을 불교적 방편으로 위무하고 정신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불교신앙을 더욱 장려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 지방의 주민들은 호족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유민으로서 불교신앙을 통하여 망국의 슬픔을 달래고 조국에 대한 승모지정을 승화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조화롭게 개척해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신라시대에는 이중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이 지방의 불교는 세력을 더욱 굳히고 실제적인 발전을 거듭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고려가 이 지방을 통치할 때에도 불교의 세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리라고 보아진다. 고려 역시 태조시대부터 대단한 불교신봉국으로 치민정책(治民政策)과 안민방편(安民方便)으로 불교를 크게 앞세웠으므로 이 지방의 불교가 함께 세력을 유지해 왔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무렵에는 기존 사찰의 보수 · 유지보다는 새로운 사원을 창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 지방의 불교가 하강세를 보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조선시대 도성(都城)의 위성지역으로 양반의 고장, 유학의 본거지로 승화된 충청도, 그 중심지대에 자리한 연기군 남면 지방의 지도층과 문화계층은 삼시간에 승유의 사조에 휩쓸리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배불(排佛)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방의 불교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이 지방 곳곳에 향교가 생기고 승유(崇儒)의 세력이 점차로 유학으로 출세하는 길이 훤히 열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교를 멀리하고 멸시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불교를 숭상하고 육성하던 계층 · 부류에서 이처럼 등을 돌리니, 불교가 세력을 유지할 기반을 잃고 겨우 서민들의 소박한 믿음에 의지하여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찰은 퇴락해서 그대로 폐허로 돌아갔고, 승려들은 열반하거나 환속하여 대를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도들

은 점점 줄어들고, 출세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차 음성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는 오늘의 형세를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이나 정형으로 볼 때에는 이 지방의 불교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백제로부터 신라·고려를 거쳐 온 이 지방 불교의 찬란한 맥락과 그것이 이 지방 주민의 신앙·사상과 전통문화에 끼친 지대한 영향은 오늘에도 계승되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를 거치고 개화의 물결에 밀리어 파손되고 음성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연기군 남면 지방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고 불교의 역사적 계통과 종교적 실상을 발굴·복원하여 그 진정한 원형을 우선 탐색해 낼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의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연기군 남면 지역 불교의 전통적 맥락을 탐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지방불교의 종교적 전통을 점검해 보며, 나아가 이 고장 불교예술의 실상과 수준을 대강 더듬어 보고자 한다.

2. 연기군 남면 지역 불교의 전통적 맥락

1) 전통불교의 계맥(系脈)

첫째, 주변지역의 전통불교 현황을 통해서 연기군 남면 지방의 전통불교를 어렵게 볼 수가 있겠다. 먼저 공주지역과의 불교교류 상황을 살펴보면 주목되는 바가 있다. 공주지역은 백제시대 이래로 불교가 가장 성행하던 고장이다. 백제의 도성(都城)이 경영되면서 축조된 대통사(大通寺), 궁성주변의 서방을 옹위하던 동서남북 혈사(穴寺)와 그 외각을 수호하던 구룡사(九龍寺), 마곡사(麻谷寺) 등이 고래로 성행했던 불교신앙을 오늘에 이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송산리 일대의 능묘문물, 특히 무녕왕릉 문물이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일면을 증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주지역과 연기군 남면 지방은 동일문화권으로서 각종 불교문화가 상호 유통되었던 것이다. 한편 관촉사(灌燭寺)를 중심으로 하는 논산지역의 불교, 수덕사(修德寺)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지역의 불교, 광덕사(廣德寺)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지역의 불교, 계족산사(鷄足山寺)를 중심으로 하는 대덕지방의 불교, 그리고 흥덕사(興德寺)를 중심으로 하는 청주지역의 불교 등이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와 교류되어 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가 없겠다. 이 지

역의 불교가 만만찮은 세력으로 교류되었던 터이므로, 연기지방의 불교세력을 족히 짐작하게 한다. 실로 연기군 남면 지방은 불교의 유통과 정착에 있어 적합한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고루 갖추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불교가 그만큼 성행했다는 사실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연기군 남면 지방에도 그만큼 불교가 성세를 보여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터라고 하겠다. 적어도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가 동일문화권의 다른 지역 불교와 동일수준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기군 남면 지방에 현존하는 고찰 및 유지(遺址)를 통해서 이 고장의 전통불교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지방에 산재해 있는 사찰과 유지(遺址)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남면 연기리(燕岐里) 석연사
- 남면 양화리 절골사지(寺址)
- 남면 나성리 나성사지(羅城寺址)
- 면 보통리 당산사지(唐山寺址)
- 남면 놀왕리 통방사

이와 같이 수많은 사지(寺址)가 남아 있고, 다시 그 위에 사원 건물을 복원해 놓은 것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건조(建造)연대를 정확히 고증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나, 적어도 그것들이 백제시대부터 창건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동안에 계맥(系脈)을 이어 부침해 왔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사찰마다 그 시대에 상응하는 그 주변의 원근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세력을 유지해 왔으리라는 것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다. 이처럼 이 고장의 불교는 백제시대 이래로 계속 성세를 보이며 내려오다가 근세에 이르러 쇠잔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제 이 유지(遺址)의 위치, 규모와 건축구조 내지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복원한다면, 전통불교의 실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구해 볼 수도 있겠다.

셋째 이 지방의 불교유적을 검토해 보면 이 고장의 불교적 맥락이 더욱 뚜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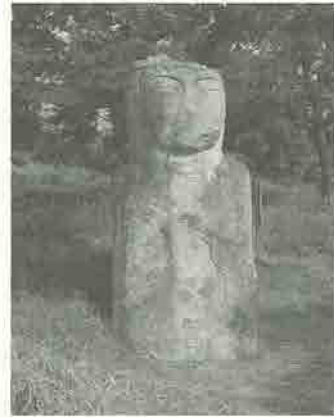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굴·소개된 불교유물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남면 연기리 석연사 소재
- 나성리(羅城里) 미륵불상(彌勒佛像)
남면 나성리 소재
- 갈운리(葛雲里) 미륵상(彌勒像)
남면 갈운리 소재
- 보통리 출토 금동불상
국립박물관 소장

이상과 같은 유물들은 당시 불교의 현황과 실세를 증언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이 유물들은 사원이란 울타리 속을 원만히 채워주는 성물로서 그 권능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불상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가장 존승하는 신앙 성체이기에, 그것의 규모와 조성의 수준은 그대로 불교의 성향과 심도를 말해 주는 터라 하겠다.

2) 전통불교의 신앙경향

연기군 남면 불교의 신앙·사상이 충청불교의 그것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으로 형성·전개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충청지역에 보편화되어 온 불교신앙·사상은 대강 미륵·미타·관음계통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기군 남면 불교의 신앙이 대체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왔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은 이 고장에서 발굴·현존하고 있는 불교 유물이 실증해 주는 바이기도 하다. 이제 앞에서 열거한 신앙계통을 따라 연기군 남면 불



나성리 석불



양지마을 미륵



음지마을 미륵

교의 신앙경향을 어렵해 보기로 한다.

(1) 미륵신앙

이 미륵신앙에서는 미륵보살 내지 미륵불을 믿고 기원한다. 33천(天) 중의 하나인 도솔천 내원궁(內院宮)에 머물며 미륵정토를 주관하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의 수기·예언에 의해서 미래세계를 제도해 나갈 미래불, 미륵불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신앙에서는 미륵보살과 미륵불을 구별하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한다. 미륵보살이 바로 미륵불이요, 미래불이 바로 현재불로서 권능을 발휘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륵신앙은 10선업(善業)을 닦고 사후에 미륵보살·미륵불의 제도를 받아서 미륵정토에 왕생하는 것으로 최고 이상을 삼고 있거니와, 그 신앙이 아무래도 백제시대부터 연기지방에 뿌리를 내려왔으리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지방의 문화·예술·신앙·사상 등이 백제의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리라는 것은 역사·지리적으로 입증되는 터이기 때문이다.

백제에 미륵신앙이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몇 가지 문헌 자료가 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백제의 성왕 때에 승려 겸익(謙益)이 중인도의 상가야대불사(常伽耶大佛寺)에 가서 율문(律文)을 배우고 율장(律藏)을 가지고 백제에 돌아와서 번역하고 율종의 개조가 되었는데, 그가 율종을 연 미륵광불(彌勒光佛)에서는 미륵불을 모시고 그 신앙을 퍼나가기도 했으리라 추정된다. 게다가 백제의 웅진시대에 무왕이 창건했다는 익산미륵사는 사찰이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원의 창건연도가 『삼국유사』 무왕조(武王條)를 통해서도 미륵삼존을 모신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다. 실로 성왕대에 절정을 이룬 백제불교가 미륵·미타신앙을 중심으로 성행하여 가까운 일본과 신라에 미륵신앙이 전파된 것이 확실해졌다. 이럴 때 백제지역의 중심지로 왕도에 접해 있던 연기지방에 미륵신앙이 성세를 보였을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백제 당시에 이 고장에도 미륵신앙의 사찰·성물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나 현존하는 유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후에 그 유민들의 주류가 연기지방에 터전을 잡고 백제의 부흥과 함께 미륵정토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백제의 미륵신앙을 강화·선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결과는 그 시대의 미륵신앙계 유물이 오늘에 전하여 그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 개관함으로써 그 근거를 삼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신앙이 더욱 성행하였다. 태조초부터 명실공히 불교국으로 전개된 고려시대에는 각계 불교 종파가 나름대로 발전하였고 이 시대에 미륵신앙이 함께 성행함으로써 민간종교로써 완전한 자리를 잡은 터라 하겠다. 이러한 성향이 연기군 남면 지방에 그대로 통용되어 미륵불이 신앙되어 온 것이 전통인양 내려왔는데 나성리 미륵불과 당산 아래 석연사의 미륵불이 현존함으로써 그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로 남면 나성리 미륵불상이 주목된다. 이 석불은 공주에 근접한 금강변의 독립 야산에 자리하여 풍요한 들과 주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이고, 교통도 비교적 편리한 자리에 임씨가묘(林氏家廟)와 독락정(獨樂亭)이 함께 위치하여 다방면에서 주민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끼쳐 왔다. 석불이 있는 곳에 사찰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여기에는 사찰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혹 임씨가묘와 관련하여 작으나마 사찰이 세워져 이 석불에 공양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석불이 사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워졌다고 보겠는데, 그 석불의 투박하고 고졸한 형태로 미루어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다. 대체로 그 조각수법을 훑어보고 그것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라 하지만, 그 시대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어쨌든 그것이 백제와 신라의 계통을 이어 미륵신앙의 민간화를 대변하는 뚜렷한 근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연기리의 석연사 미륵불상이다. 이 석불은 과거 연기현의 중심지인 연기리 당산에 있던 것을 현재의 석연사로 옮겨왔다 한다. 반대편 보통리 사지에서 금동 불상이 출토된 예로 보아 당산 내에는 오래 전부터 큰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 속에서도 미륵신앙은 이 고장에 끈질기게 유지되었다고 보아진다. 현존 사찰에 미륵신앙이 남아 있고, 조선조 말기까지도 미륵신앙이 유사종교 용화교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던 터이다. 그보다도 분명한 근거는 갈운리 미륵상 한쌍과 미곡리 미륵당이 미륵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미륵상들은 미륵신앙의 민간화를 증언하고 있는 바, 갈운리 미륵상은 암석신앙을 바탕

으로 ‘암미륵’ 과 ‘숫미륵’ 으로 분화하고 조용하여 본래적인 성신앙(性信仰)의 면모를 감추고 있다. 이런 것이 미륵신앙의 민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족히 추정할 수 있겠다. 이보다는 좀 후대성을 지니지만 역시 미륵신앙의 민간화 현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미륵당의 미륵불이라 하겠다.

(2) 불교신앙의 민속화에 따른 몇 가지 경향

첫째로, 초파일 신앙을 들 수 있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날로 신도들 사이에 큰 경축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불가의 대명절이다. 이 날이 오랜 전통속에 민속화되어, 비록 정식 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날을 ‘초파일’ 이라 하여 목욕재계를 하고 절에 가거나 기도에 동참하는 습속이 있다. 그런 경우 민간에서는 불교의 진리를 익히고 실천하기보다는 석자본존에 대한 신앙이 민중화됨으로써, 그래야 복을 받고 집안이 편안하다는 습속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신앙적 기반은 비록 음성적이거나 뿌리깊은 터라고 보아진다.

둘째로, 백중날 행사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이날은 원래 음력 7월 15일 우란분재일(盂蘭盆齋日)로 하안거(夏安居)에 들어 수행 정진하던 승려들이 자유롭게 풀려나, 많은 신도들의 각종 공양을 받고 그 대신 신도들의 가정 복락이나 조상들의 명복을 정성껏 빌어주며 큰 뜻을 헤아리는 명절날이라 하겠다. 이것이 민중화·민속화되어, 민간에서는 머슴들 또는 일꾼들이 하루를 마음껏 쉬면서 얻은 돈으로 갖가지 음식이며 좋은 물건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쓰기도 한다. 이 때에 사물놀이, 농악놀이도 곁하게 되는데, 이 또한 산사의 성사물(聖四物)치기가 민속화된 것이라 보아진다.

셋째로, 용왕신앙을 들어보겠다. 이 용왕신앙은 인도에서 연원하는데, 그것이 불교계에서 호법신중의 하나로 중시하는 대상이 된다. 동서남북의 바다 아래 용궁이 있고 그곳에 용왕이 있어 바다의 제반사를 주관하되, 부처의 설법에 감동하여 그 권속과 함께 변신하여 청법에 임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것이 민속화되어, 바다·강·호수·큰 샘 등에 용궁·용왕이 있는 것으로 신앙하고 일정한 날을 택하여 용왕제를 지내며 소원을 빌기도 한다.

넷째로, 풍수신앙을 들 수가 있다. 이 신앙은 원래 밀교의 계통을 이은 신비적 습속이다. 명산의 지맥과 지기(地氣)를 지형과 영감으로 판단하여 길지(吉地·

대지(大地)에 조상을 장사지내면 당대 발복이나 만대 영화를 누린다는 속신이다. 혹자는 이 신앙이 도참신앙, 음양사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나 근래에 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탐색에 의하여 밀교신앙의 변형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자고로 대지사(大地士), 큰 지관은 명승(名僧)·도승(道僧)들이 찾아내는 것으로 믿어 왔다. 그러한 신앙을 설화화한 이야기도 있다.

다섯째, 망자(亡者)의 길뉘이를 들어 보겠다. 원래 불교에서는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7일마다 재(齋)를 지내고 7회(回)에 이르러 7·7재를 ‘49재’라 하여 고인을 극락세계로 안내·왕래시키는 의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이 민속화하여 민간에서는 망자의 장례를 지내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무당을 불러다가 ‘길뉘이’를 한다. 그 결과를 점쳐서 망자가 무엇으로 환생했는가를 헤아려 보기도 한다. 이러한 환생신앙, 극락신앙도 실은 불교신앙의 민속화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고장의 불교는 백제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정식신앙으로부터 민속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한 전통·맥락을 뿌리깊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3. 연기군 남면 지방의 불교예술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기지방의 불교는 오랜 전통속에서 이 고장의 갖가지 문화·예술을 창조해 냈던 것이다. 실로 불교미술이 이 고장의 미술을 형성시키고, 불교음악은 이 고장의 전통음악을 탄생시켰으며, 불교무용이나 불교회극은 이 고장의 전통무용 내지 연극을 창출해 내는 데에 이바지한 바가 컸던 것이다. 이 지방의 불교예술 자체가 한국예술사상에서 중시되어야 하겠거니와, 이로부터 형성·전개된 연기지방의 문화·예술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 고장 전통예술의 계통을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고래의 불교예술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바로 절감되는 것이다.

이 지방에 현존하는 불교예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값진 것은 역시 불교미술품이고 그 중에서도 불교조각품이라 하겠다. 그 장엄하고 풍성했던 불교예술 가운데에서 창해유주(滄海遺珠)로 남은 불교조각, 몇몇 불상을 제대로 검토·평가함으로써 이 고장 불교예술의 본래 면모를 복원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연기군 남면 지역 불교 예술 중 불상은 당산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상과 나성리의 미륵불상, 석연사의 미륵불상과 조선시대 제작된
갈운리의 미륵불상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4. 남면(南面)의 사찰(寺刹)

1) 덕암사(德岩寺)

주 소 : 남면 진의리 316번지
전화번호 : 866-1060, 865-1506

2) 래운사

주 소 : 남면 보통리 341번지
전화번호 : 863-4104
종 과 : 천태종
창건연대 : 1974년 창건, 1974. 4. 10 회관 준공 및 불상 봉안식.
초대 회장 박준도, 2대 회장 권광오.
현 주 지 : 이석용

1981년 8월 22일 천태종 종정 큰스님으로부터 사찰명을 하명받았고 1986년
법당 기공식, 1987년 김세운 스님이 초대 주지, 1987년 한식법당 120평, 요사
채 75평 준공, 1987년 남월주 스님이 2대 주지, 1990년 이덕유 스님이 3대 주
지, 1993년 정장호 스님이 4대 주지이다.

3) 보광사

주 소 : 남면 보통리
주 지 : 성영순

4) 보현사

주 소 : 남면 보통리

5) 서광사(瑞光寺)

주 소 : 남면 양화리 579-1번지
전화번호 : 864-4747

창건연대 : 1949년 보명당 최두성(崔斗晟)스님이 창건,
작고 후 양자인 진행스님이 이어 운영하고 있다.
전 주 지 : 진행(眞行) 임헌국(林憲局)
현 주 지 : 이옥수
보유유물 : 단군 시조 탕화와 관우·장비 탕화 - 1951년 천안의 이좌영
화백 작품

6) 석연사(石蓮寺)

주 소 : 남면 연기리 7-1번지
전화번호 : 863-4062 FAX : 862-5988
종 파 : 태고종
창건연대 : 일제시대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사찰을 창건.

전언에 고려시대, 나라에서 현이 있는 곳은 동쪽을 향하게 돌부처를 만들어 세우라는 명이 내려 이곳 연기현에는 이 석불을 제작하여 세웠고 석불이 제작될 당시에는 사찰이 없었다.

그 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공동으로 사찰을 짓고 운영해 왔다. 그 때 사찰을 석연암이라 불렀고 그 후에 송헌직 스님이 주지가 됐다. 1900년대 송헌직 주지 스님은 밖에 있는 미륵불을 안으로 모시려고 현 대웅전의 좌측에 건물을 지었다.

주 지 : 장기원(張園浩)
보유유물 : 석연사석조여래입상 미륵불.

동방미륵이라 불리우는 천년석불로 이 석불은 석조여래입상으로 화강암으로 조각되어 있고 높이가 235cm, 폭 70cm로 긴 얼굴에 장방형의 석재에다 세부를 간략하게 표현한 형상이다. 입은 크게 표현됐고 눈은 선으로 간략하게 했으며 법의 또한 간략한 표현법이며 왼손은 오른쪽 가슴에 대고 중지를 구부려 엄지손가락에 붙였으며 오른손은 훨씬 아래에 손만 표현하였는데 수인은 왼손과 같은 형상이다. 무릎 이하는 표현하지 않았고 하단에는 중앙에 끼울 수 있게 만들었으며 도리부의 크기는 15cm×5cm이다.

7) 용운사(龍雲寺)

주 소 : 남면 놀왕 2리 74번지

전화번호 : 863 - 4612

종 파 : 총화종

창건연대 :

1948년 이영찬의 어머니가 창건했으며 이영찬씨는 9살 때 몸이 좋지 않아 연화사에서 불공을 들여 나았고 그의 부인 이준규도 병이 나, 서면 연화사에서 기도하여 병을 고치자, 밭 3마지기를 사 주었고 사찰을 건립하였다.

사찰이 비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최수복, 주영희 부부를 주지로 사찰을 맡겼다.

주 지 : 이종원

보유유물 : 동불상(신라시대라 전해짐)과 옥불상.

8) 통방사(統方寺)

주 소 : 남면 놀왕리

전화번호 : 863-4529

창건연대 :

1974년 계룡산에서 암자 철거시 안광보(安光甫) 스님에 의하여 이곳으로 이전, 안광보 스님이 타계하고 그의 부인이 지켜오다 1997년 화재로 법당이 소실되고 사찰이 중단되었다.

보유유물 : 석조 미륵불과 작은 동불 몇 점을 소장하고 있다.

9) 효진사(孝鎭寺)

주 소 : 남면 갈운리 산 6번지

전화번호 : 864-4021

종 파 : 태고종

창건연대 :

1969년 임헌식씨가 창건하여 정해교 스님께 인계하였고 1988년 박승순씨가 매입하여 1989년 일오 스님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주 지 : 일오(一悟) 장동식.

10) 삼광정사

주 소 : 남면 종촌리 398번지

전화번호 : 866-1333

주 지 : 손경숙

11) 용화사

주 소 : 남면 나성리 607번지

전화번호 : 864-9143

주 지 : 윤영식

제4절 연기군 남면의 기독교(基督教)

1. 개관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전파된 것은 1816년 현재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앞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의 『순조실록』과 성서를 전한 영국 리라호의 함장 바실 홀(Basil Hall)이 1818년에 작성한 『한국 서해안 및 큐큐열도의 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rea and the Loochoo Island)』에 기록되어 있다.

영국 정부로부터 한국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라는 임무를 맡은 바실 홀과 맥스웰은 각기 자기의 군함을 통솔하고 1816년 9월 한국에 내항하여 서해안 일대를 시찰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인만 나량진에 정박하였을 때 첨사 조대복(趙大福)에게 성서를 전달하였다. 첨사 조대복과 현감 이승열은 그 후에 문정을 잘못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파직되었고 함선에서 받은 책들은 직속 상관인 충청수사 이재홍에게 보내졌고 또한 이 물건들은 그 중대성에 따라 조정에 상송되었을 것이다.

선교사로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이는 중국선교사로 홍콩에 와 있던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1803-1851)라는 네덜란드선교협회의 소속의 독일 출신 루터교 목사이다. 귀츨라프 선교사 일행은 1832년 7월 17일 장산에 도착한 후 7월 22일 녹도(鹿島) 근처 불모도(不毛島)를 거쳐 26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고대도에 정박하였다.

그들은 홍주목사 이민회 등의 관리들을 만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국왕에게 정식으로 통상을 청원하는 서한과 한문성경을 비롯한 26종의 책자와 망원경 및 많은 선물을 순조 임금에게 진상하도록 전달하였다. 그리고 조정의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고대도에 20일을 머무르면서 주민들에게 한문성경과 전도문서, 서적 및 약품을 나눠주며, 감자를 심어주고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한글 자모를 받아들인 다음 후에 이를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현재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비는 고대도가 아닌 원산도에 있다.

2. 장로교회

1) 한국 장로교회 역사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료선교사인 H. 알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북미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1884년 9월 2일 제물포(인천)항을 통해 서울에 들어왔다. 그해 12월 4일에 발생했던 갑신정변을 통해 의술이 알려지자 알렌은 왕실부 시의관으로 임명을 받고 활약하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다. 1885년 4월 5일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날이다. 이날 인천에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처가 공식적으로 입국함으로써 선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후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회 데이비스 선교사가 오고, 1890년에는 선교사 마포삼열(馬布三悅)이 도착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 자택에서 새문안교회가 개척·설립되었는데 이 교회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다. 1893년에는 남북장로회 선교회가 합하여 선교공의회를 조직함으로써 한국장로교의 첫 진취적인 태동이 시작되었다.

1898년에는 캐나다장로회가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여 원산에서는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를 조직하고 호주선교부와 함께 공의회에 가담하였다. 1901년에는 「조선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함으로써 한국인과 선교사의 협의체제를 형성하였다. 이 해에 마포삼열 목사가 그의 집에서 평양신학교를 개설하였다. 1905

년에는 감리교와 더불어 연합회를 조직하고, 선교지역의 책정과 선교 전략에 관해 협의하였다. 1907년 9월 17일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독로회」가 평양에 조직되었고, 이 해에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되어 최초로 한국 장로회 목사들이 탄생하였다. 이로부터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보게 되어, 1912년에는 평양에 「조선예수장로회 총회」가 창설되고 총회장에 언더우드를 선출하고 선교사업을 하였다. 교회는 총회창설을 기념하여 중국의 산둥성 내양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신도들이 투옥되었다. 장로회의 헌법이 제정·공포됨으로 총회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193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일제에 의하여 노골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인 수법과 무력으로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그것을 교회가 결정하도록 총회에 심한 압력을 가하였다. 제 27차 총회에서는 결국 일제의 무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락한다는 치욕적인 결의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 결의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마음껏 이용하였고, 뜻 있는 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에 반항하여 싸웠다. 주기철, 최봉석 등 50여명의 목사들이 순교당하고, 평양신학교는 폐쇄당했으며,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은 면직되고, 학교도 폐쇄되었다.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여 교인이 투옥되었다.

1943년에는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등을 해산 폐쇄시켜버렸고, 장로교회를 일본 기독교단 산하의 한국교단으로 만들었다.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하자, 교회의 재건을 위한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6·25사변은 또 한 번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손양원·김익두 목사를 비롯하여 공산당에 대항하던 수많은 목사들이 순교하였으며, 남궁혁·양주삼·손창근·조만식·등이 납치되는 등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6·25사변을 통하여 파손·손실된 교회수는 장로교회만 152교회나 되고, 납치당한 목사나 장로의 수만도 177명이었다.

1951년 5월 부산에서 모인 장로교총회는 교려파를 정죄함으로써 출옥교인을 중심으로한 경남 법통노회가 조직되어 지금의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측」이 되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첫 분열이었다. 또한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서울에서 김재준 목사가 중심이 된 새로운 신학교가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조선신학교」(현재 한국신학대학)로서 그 설립의 동기는

장로교의 정통신학에 대한 도전이었다. 조선신학교측은 성서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인 비판을 하였고, 세계신학의 참여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국 1953년 6월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명칭을 씌으로써 예수교장로회와 분리되었다. WCC(세계교회협의회)를 용공으로 주장하고 탈퇴할 것을 주장하는 측이 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회의 도중에 퇴장하여, 그 해 11월 24일 서울 송동교회에서 모여 「합동총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WCC노선 지지자는 1960년 2월 서울 연동교회에서 모여 「통합총회」를 구성하였다. 이 때에 WCC를 잠정적으로 탈퇴하면서까지 재결합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979년 9월에 대구 동부교회에서 모인 「합동총회」는 주류측과 비주류측의 불화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길으로는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단이 산재하여 있다.

2) 남면의 장로교회 현황

(1) 대한예수교장로회 종촌교회(통합)

- 주 소 : 남면 종촌리 100-16
- 교역자 :
 김시우(장로, 1957.03.~1961.06.), 양태양(전도사, 1963.07~1964.12)
 방신학(목사, 1965.01.~1965.12), 이희동(전도사, 1966.01~1969.12)
 남재현(전도사, 1970.01~1971.08), 이명선(전도사, 1971.09~1975.04)
 마성호(목사, 1975.05~1979.04), 한준석(목사, 1979.06~현재)
- 통 계 : 목사 1명, 전도사 1명(남), 장로 2명, 권사 2명,
 교인 205(남 65, 여 140)
- 연 혁
 1955.03.0 김시우 장로를 중심으로 천막교회 개척
 1959.09.30 대지 273평을 서울 보성학원 이사장 한경직 목사기증
 1961.07.01 양태양전도사부임
 1961.09.11 보성학원 구교사를 구입하여 교회건축(20평)
 1962.03.05 성경구락부 개설(발전하여 현 성남중고교가 됨)

- 1965.01.04 방신학목사 보성학원 교목 겸임
- 1966.01.02 이희동전도사 부임
- 1980.11.16 교회신축 (40평)
- 1981.03.20 대지400평 건물 2동 노회유지재단 가입
- 1987.04.04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장로 : 황권익, 심상주, 안상균
 권사 : 왕명규, 홍황룡
- 1968.11.05 교회부지 127평 보성학원에서 추가 기증
- 1970.01.06 남제현전도사 부임
- 1971.09.05 이명선전도사 부임
- 1971.10.22 교회현관증축, 진입로 계단 공사
- 1975.05.01 마성호전도사 부임
- 1979.04.18 마성호목사 안수
- 1979.06.01 한준석전도사 부임
- 1983.02.22 한준석목사 안수
- 1985.03.10 사택신축(23평)
- 1989.04.05 임직식(한준석목사위임, 임계순권사)
- 2001.04.02 새성전건축기공예배(250평)
- 2002.07.07 새성전준공, 입당예배(250평)
- 현 담임목사 : 한준석 (T.864-5197)

(2)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 주 소 : 남면 송담리 455-1 전화 : 864-3470/5064
- 교역자 : 장원옥(55세)
- 통 계 : 목사 1명, 전도사 1명(여), 교인 120명(남 48, 여 72)
- 연 혁
 1984.10.06 교회창립(조석주 장로현당)
 1985.04.05 현당식 예배, 소망선교원 운영

(3) 대한예수교장로회 연세교회(통합)

- 주 소 : 남면 진의리 340

- 교역자 :
이선덕(전도사, 1971.02~1975.03), 임성연(전도사, 1975.05~1976.02)
김태영(목사, 1976.03~1978.09), 이상원(목사, 1978.11~1979.04)
이연희(전도사, 1979.05~1980.16), 이락원(전도사, 1980.06~1982.02.14.)
이원우(1982.03.22~1984.12), 김기봉(전도사, 1985.05~1985.12)
최병무(목사, 1986.04~)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168(남 65, 여 103)
- 연 혁
1969. 임의수·김민자 성도를 중심으로 현재 교회위치에
가건물을 짓고 예배드리기 시작
1973.10.05 교회당 준공.
1977. 교육당 준공
1986.10.15 최병무 목사 안수
- 현 담임목사 : 안철암 (T.864-5312)

(4)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남교회(보수)

- 주 소 : 남면 연기리 387-7
- 교역자 : 김영제(목사, 1982.11~1984.12), 신학순(목사, 1984.12.11~)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163명 (남 67, 여 96)
- 연 혁
1982.11.16 김영제 목사가 한빛교회 개척 설립
1987.06.23 교회를 확장 이전하고 교회명칭을 연남교회로 개명
- 담임목사: 정기남 (T.863-6574)

(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정교회(합동)

- 주 소 : 남면 고정리 305
- 교역자 :
강용구(전도사, 1983.08.12~1984.03), 이태주(전도사, 1984.04.01~1986.11)
강영환(강도사, 1986.12.01~)
- 통 계 : 강도사 1명(남), 교인 93명(남 33, 여 60)
- 연 혁
1983.08.08~1983.08.12 강용구 전도사가 임마누엘 선교회의 협조를
얻어 전도집회 개최

- 1983.08.14 마을회관을 빌려 강용구 전도사 외 8명의 신도가 창립예배
- 1983.10.16 150평 대지 구입, 기공식 예배
- 1983.11.26 30평의 예배당 건축, 입당예배
- 담임목사 : 배장환(T.864-6116)

(6)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원교회(합동)

- 주 소 : 남면 송원리 196
- 교역자 :
장대영(전도사, 1976.01~1979.09), 모춘우(강도사, 1979.09~1982.01)
남영호(전도사, 1982.01~1984.04), 제경호(강도사, 1984.04~)
- 통 계 : 전도사 4명(남), 교인 113명(남 40, 여 73)
- 연 혁
1976.01.25 교회창립
1976.03.25 장대영 전도사 개인의 재정으로 대지 매입, 예배당 착공
1977.05 장전도사의 헌금으로 블록 스테트 예배당 완공(32평)
1977.07.10 사택건립
- 담임목사 : 이반석 (T.864-5752)

3. 감리교회

1) 한국 감리교회 역사

미감리회 가우처는 방미사절단 단장인 민영익과 대화 중에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매클레이로 하여금 김옥균을 통하여 1884년 7월 3일 한국선교에 대하여 고종황제의 허락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미감리회에서는 교육선교사로 아펜젤러, 의료선교사로 스크랜톤, 여성을 위한 선교사로 스크랜톤 모친 등을 파송하여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내외는 장로회의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 8월 3일 배재학당을, 스크랜톤 모친은 1886년 5월 31일 이화학당을 시작하니 국내 최초의 남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스크랜톤은 9월 10일 의료사업을 시작하였고 1889년에 개업한 상동약국은 상동병원으로, 그후 1893년에는 상동교회로 발전하였다. 또 1892년 시약소를 시작한 것이 동

대문교회가 되었다. 설립된 중등학교는 서울에 배재학당(1885)과 이화학당(1886)을 비롯하여 인천에 영화학당(1892)과 영화여학당(1894), 평양에 광성(1894)와 정의여학교(1899), 수원에 삼일학교(1903)과 매향여학교, 공주에 영명학교(1906), 영변에 승덕학교(1906), 이천에 양정여학교 등 남녀별로 거의 균등하게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남감리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유학 중이던 윤치호의 적극적인 활동때문이었다. 그는 일본을 경유, 상해로 망명하여 중서대학(中西大學)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1888년 11월 벤더빌트대학교와 에모리대학교에서 신학과 영문학을 공부하는 한편, 각지를 순회하며 한국을 소개하여 모금한 200달러의 기금을 1893년 3월 에모리대학교 캔들러 총장에게 기탁하여 한국에 기독교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해 10월 상해로 가서 중서대학에서 영어를 교수하다 1895년 2월에 귀국하였다. 그후 그는 곧 남감리교 선교부에 서신을 발송하여 한국선교에 착수하도록 촉구하였다. 그해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직후 헨드릭스 감독이 초대 선교사 리이드와 함께 내한하여 선교에 착수하였다. 1897년 5월 경기도 고양군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남감리회에서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은 배화학당(1898)과 원산에 무디학당(1903), 개성에 호수돈여학교(1904), 개성의 한영서원(1906)이다.

남북감리회에서는 먼저 교회지도자 양성기관인 신학교를 합동으로 경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회연합의 주동 역할을 하도록 도왔다. 1924년 3월 서울에서 남북감리교회 진흥방침연구회가 모여 전도사업, 교육사업 및 출판사업 등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합동안이 미감리회총회(1928. 5)와 남감리회총회(1930. 5)에서 각각 승인을 받았다.

한국에 두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는 합동성명에 이어 역사적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창립총회가 1930년 12월 2일 서울 협성신학교에서 소집되었다. 총회기간에 기독교조선감리회의 헌법, 교리적 선언, 장정(章程) 등을 통과시켰고, 초대 총리사로 양주삼 목사를 선출하였다. 1934년 총회에서 총리사에 재선된 양주삼 목사는 8년의 재임기간 중 조직강화와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으로 부흥회, 대전대회, 세미나, 문서발간, 교회기본금 적립 등을 추진하였다.

1938년 10월 제3회 총회에서는 김종우 감독이 선출되었는데 만주선교의 확장과 효과적인 부흥전도를 추진하던 중 일년만에 서거하였다. 이에 1939년 9월에 정춘수 감독을 보선하였다. 정감독은 교회부흥을 위한 대전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의 전시체제강화와 기독교 일본화 정책에 밀려나게 되었다. 전시 포고지침에 따라 예배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천하게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임시취체법을 공포하여 기독교의 일본화에 급급한 나머지 1943년 10월에는 「일본기독교감리교단」으로 교단명칭을 바꾸었다. 비행기 대금을 강제 징수하였으며 교회중은 공출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포탄을 만들었다. 교역자들에게도 근로보국, 종교보국 등을 내세워 강제로 노력동원을 감행하였고, 이를 거부하거나 찬동하지 않으면 구속하거나 목사직을 파면하였으며, 면직·정직 등으로 위협하였다.

1945년 8월 일제 치하 36년만의 조국광복의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38선으로 인한 국토의 양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대립, 부일협력자(附日協力者)와 이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거나 탄압을 받았던 재건파와의 교회 안의 추태가 벌어졌다. 부흥측에서는 1946년 9월 특별총회를 열어 강대회 목사를 감독으로, 재건측에서는 1948년 1월 장석영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여 교회도 두 갈래로 분리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감리교회의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자 감리교회 안의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합동운동이 진행되었다. 1949년 4월 29일 총회에서 김유순 감독이 당선되었고 교회 이름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 김유순 감독 및 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납북되었고, 북한에서 교역자와 피난민이 다수 월남하여 희비가 엇갈렸다.

1953년 8월 감리회 총리원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왔고 그후 교단은 계속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78년 10월 제 13회 총회는 분립되었던 갱신총회와 합동총회를 열어 동부연회에 이경재 감독, 중부연회에 김지길 감독, 남부연회에 박우회 감독, 중앙연회에 김재황 감독 등을 선출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감리회 총리원이란 명칭이 없어지고 감리회 본부로 개칭, 선교국·교육국·평신도국·사무국(재단 등에 각 총무를 두게 하고 연회단위로 분리, 4부 연회 감독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감리교회 현황

(1) 기독교대한감리회 양화교회

- 주 소 : 남면 양화리 49
- 교역자 :
이재신(전도사, 1963.03~1965.03), 방명신(목사, 1965.04~1968.04)
배상근(전도사, 1968.04~1969.03), 장양옥(전도사, 1969.08~1971.04)
감만식(목사, 1971.05~1973.07), 현상규(전도사, 1973.07~1976.04)
신운집(목사, 1976.04~1979.04), 박재홍(목사, 1979.05~1981.04)
서기선(목사, 1981.04~1982.10), 이선영(목사, 1982.10~1985.06)
김홍선(목사, 1985.06~)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117명 (남 39 , 여 88)
- 연 혁
1965.03.15 교회창립
1967.04 교회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은 교우들의 정성으로
4만 3천장의 벽돌을 찍어 건축을 완성하고
1968년 성전을 봉헌
- 현 담임목사 : 김홍규 (T.864-5107)

4. 침례교회

1)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는 1889년에 캐나다에 독립 선교사인 M. 펜윅이 극동선교의 뜻을 품고 내한하여 포교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펜윅은 서울, 솔내(松川), 원산 등지를 전전하며 한국어를 공부하다 1893년에 귀국하여 침례교로 전향한 후 1896년 다시 내한하였다. 원산에 본부를 두고 선교에 힘쓰던 중 1901년 재정난으로 한국에서 철수하는 「엘라딩 기념 선교회」의 공주·강경지역의 선교기반을 인수하여 자신의 「한국 순회 선교회」와 병합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다. 펜윅 선교사는 자신이 훈련하여 키운 문서순회 전도자를 각처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순회전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31개 교회가 설립되자 1906년에 충남 강경에서 대회를 열고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였다.

1890년에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계예양(敎界禮讓)원칙에 따라 선교지역을 분할자 펜워 선교사는 선교 터전을 만주, 간도, 시베리아, 몽고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과 초창기의 선교지인 공주·강경지역, 경상북도 일원과 원산을 중심한 함경도 일원에서 선교하였다. 선교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도 여러 명 나왔다. 1918년 시베리아 대륙을 수습일 동안 강행하였던 네명의 전도자들이 풍랑으로 거룻배가 파손되어 순교하였다. 1921년 만주 임강현과 압록강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손상련 목사가 일본 헌병들에 의해 순교하였다. 1925년 4월에는 여섯 명의 전도자들이 만주 길림성과 화전현에서 개척전도하던 중에 일본군 정탐군이란 오해를 받고 조선 독립당원들에게 희생되었다. 1928년 경 몽고에 3개 교회를 설립한 이현태 교사는 몽고 토족에게 타살되었으며, 1932년 간도에서 선교하던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장로 형제는 못매를 맞고 순교하였다. 1944년에는 전치규 목사가 원산 감옥에서 굶주림과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함으로 1945년 조국 광복 전에 순교자가 15명에 달해 순교자들의 피는 몽고, 만주, 북한, 시베리아, 간도 등지에 뿌려지게 되었다. 1940년까지의 선교 결과를 보면 국내에 100여개의 교회, 만주에 100여개의 교회, 시베리아에 약 40여개 교회, 그리고 몽고에 수개의 개척 전도소를 개설하는 등의 교세 확장을 이루었다.

1919년의 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박해는 강화되었으며 신사 참배와 황궁 요배를 강력히 거역한 「대한기독교회」는 보안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32명의 지도적 목회자들이 투옥되었으며, 1921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명칭을 「동아기독교회」로 개칭하였고, 1933년에는 「동아기독대」로 바꾸었다가 1940년에는 이 교단의 통칭인 「동아기독교」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신도들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자 1944년에는 「동아기독교」해체 명령을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경찰의 감독이 심했다. 한편 예배당의 종과 건물 및 교회재산은 국방헌금으로 강제 헌납되고 말았다.

1945년의 조국 광복은 한민족은 물론, 한국의 기독교계의 새 삶의 소망과 햇빛을 비쳐주었다. 그러나 1946년의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더불어 만주, 시베리아, 몽고 및 북한지역에 주된 교회와 사업 터전을 가졌던 「동아기독교」는 선교

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1946년에 남한의 교단 지도자들은 충남 칠산에서 모임을 갖고 「동아기독교회」 재건에 나섰다. 1948년에 남한의 동아기독교는 제38회 총회를 경북 점촌에서 개최하고 교단의 지도적 강화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침례교단과 제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49년 강경에서 개최된 제 39회 총회에서 교단명칭을 「대한 기독교 침례회」로 변경하였다. 이 총회에서 미국 남침례회 외국선교부의 동양총무인 코우든 박사가 참석함으로써 1950년에 나요한 박사 부처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 본격적인 한국 침례교 선교사업의 서막을 열었다. 1950년의 칠산 총회에서는 총회의 제반 규약을 미국 남침례회 총회의 규약과 유사한 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6·25사변이 일어나 전병무 목사가 경북 울진에서, 그리고 사변 후 이종덕 목사가 금강변에서 공산당들에게 순교당함으로써 침례교단은 큰 별을 잃게 되었다. 1951년 이후 선교사들은 전화로 고통받는 한국에 구호 및 의료사업을 펴 나갔다. 이 때에 침례교인의 숫자와 교회는 놀랍게 자라났다.

1952년 충남 칠산 총회에서는 여전도회를 조직하였고 1953년에는 소년회, 소녀회 및 신혼회를 조직하였고, 대전에 성서학원을 개설하였으며, 1954년에는 침례신학대학으로 승격시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다. 총회 기관지로 「백티스트」를 발간하였고, 1955년에는 「침례회보」를 발간하였다.

1959년에는 두 개의 분열 총회가 대전과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향후 9년간의 교단분열은 한국 침례교회 발전을 저해했다. 분열 이후 대전 총회는 선교회 주도로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수행하였다. 교회진흥원은 교회학교 공과와 제반 문헌을 간행 보급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신앙정신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분열 이후 선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 포항 총회는 많은 재정적 난관에 부딪혔다. 초교단적인 선교 단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포항 총회는 침례교의 정체를 간직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68년 4월 16일은 한국 침례교단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감격의 날이었다. 9년간 분열되었던 교단이 합동 총회를 개최하고 김용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임했다. 1969년 총회에서는 신학대학 1회생인 오관석 목사가 총회장에 선임되고 제반 임원진이 신학대학 출신들로 피택됨으로 세대교체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서 신학대학에서 침례교의 신앙원리로 무장된 젊은 사역자들이 계속 배출되었으며, 선교회는 교회진흥원·라디오 방송부 등의 기관을 통하여 침례교회와

침례교 신앙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출판물과 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해 왔다. 총회 분리 이후 선교회에서 독자적으로 1966년에 발족시킨 「군인전도부」는 군선교의 보루로서 논산 훈련소를 비롯한 전국의 군사도시에 군인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군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70년에는 한국 총회와 선교회가 공동으로 「한미 교회기금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기금 위원회는 개척교회를 위한 제반 기금을 대여 혹은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척교회조직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교단의 통합과 더불어 전개된 70년대의 한국 침례회 연맹총회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침례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인 시기였다. 1976년 11월 4일부로 「한국침례회 연맹」이란 교단 명칭을 「기독교 한국침례회」로 개명하였다. 한국의 침례교회는 신약성서 교회의 모본을 향하여 아직도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80년대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한국의 침례교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순종하면서 침례교회 시대를 한국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다.

2) 남면 침례교회 현황

(1) 기독교한국침례회 송담교회

• 주 소 : 남면 중촌리 123-8

• 교역자 :

오경환(전도사, 1931.11~1934.2), 김용해(목사, 1934.02~1937.06)

노재천(목사, 1937.06~1939.11), 신성균(목사, 1945.10~1947.03)

박시양(목사, 1947.03~1949.09), 장일수(목사, 1949.09~1951.05)

임대철(전도사, 1951.05~1951.08), 윤덕훈(목사, 1951.08~1953.04)

김호연(목사, 1953.04~1954.05), 최완식(전도사, 1954.05~1957.06)

조필환(전도사, 1957.06~1958.10), 임원철(목사, 1962.09~1986.09)

정영진(목사, 1986.10.08.~), 임병학(95~98)

임공열(목사, 1998~현재) T.865-0091

• 통 계 : 목사 1명, 전도사 2명(남), 교인 400명(남 130, 여 270)

• 연 혁

1931.04.02 오경환 전도사 개척

- 1937. 초가 4간 예배당
- 1940~1945 일제의 박해로 목자 없는 교회
- 1946.09 예배드리기 시작
- 1951.06.30 6·25 동란으로 예배당 전소
- 1952.11.15 선교회 보조로 송담리 산 8번지에 300평 대지 마련
25평 예배당 건축
- 1963.04 예배당 증축(31평)
- 1971. 현위치에 890평의 대지 확보, 53평의 본당 건축, 입당예배
- 1982.04.05 창립 52주년 기념예배, 황인황·임상철·황민성 집사 안수
- 2000.04.05 교회건축 250평 헌당 및 임태순, 박성희 집사 안수
- 2004.12.07 교회 리모델링 및 23명 권사 취임 및 임백수, 신현대 집사 안수

(2) 기독교한국침례회 연기교회

- 주 소 : 남면 연기리 374-7
- 교역자 :
박채용(전도사, 1959~), 우제창(전도사, 1961~)
정인도(전도사, 1963~), 유병문(전도사, 1965~)
성낙수(전도사, 1966~), 우동호(목사, 1967~)
김강률(목사, 1969~), 우영창(목사, 1982~현재)
- 통 계 : 목사 1명, 전도사 1명(남) 교인 207명(남 67, 여 140)
- 연 혁
1959. 박채용 전도사 창립
1960. 가건물 13평 건축
1962. 가건물 18평 증축
1979. 성전건축 봉헌 (38평)
- 현 담임목사 : 강동원 (T.863-4041)

(3) 기독교한국침례회 갈운교회

- 주 소 : 남면 갈운리 319
- 교역자 :
오경환(전도사, 1950.04~1953.11), 조필환(전도사, 1953.11~1955.05)
조병진(전도사, 1955.05~1956.05), 현걸(전도사, 1959.03~1960.04)

이 전도사(1960.04~1961.06), 신순균(전도사, 1961.06~1963.11)
 성낙수(전도사, 1963.12~1965.10), 신순균(목사, 1965.10~1968.11)
 이상용(목사, 1968.11~1971.04), 이복택(목사, 1971.04~현재)

• 통 계 : 목사 1명, 전도사 1명(남), 교인 82명(남30, 여 52)

• 연 혁

1950.04.05. 오경환 전도사 개척

1953.11 대지 95평 매입

1961.06 대지 300평 구입

1965.10 성전건축(성전 30평, 주택18평)

• 현 담임목사 : 박종서(T.864-5916)

(4) 기독교한국침례회 양화교회

• 주 소 : 남면 양화리 527

• 교역자 :

윤기윤(집사), 권영진 · 오종길 · 서중선 · 이병황 · 이남옥 · 이춘우

임관수 · 신흥호 · 이근창 · 이재옥(전도사), 김용관(목사)

오세학(목사, 현재???)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82명(남33, 여 49)

• 연 혁

1960.01.01 송담교회에서 분리하여 윤기윤 집사 개척

1965.10.30 대지 300평 구입

1966.07 예배당 18평 건축

1968.04 목양관 신축

1983.05 목양관 개축

• 현 담임목사 : 천왕 (T.864-5313)

(5) 기독교한국침례회 나성교회

• 주 소 : 남면 나성리 188

• 교역자 :

김청원(전도사, 1962.05~1964.12), 김찬호(전도사, 1964.12~1966.01)

강형식(전도사, 1966.01~1967.01), 김승기(전도사, 1967.02~1969.10)

최병열(목사, 1969.10~1972.02), 임범수(전도사, 1977.07~1981.01)

안철모(목사, 1982.06~1985.07), 김동현(전도사, 1985.08~1986.05)

유재철(목사, 1986.06~)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160명(남 56, 여 104)

• 연 혁

1962.03.02 임공수 집사와 6명의 송담교회 교인들이 개척

1962.05.07 천막교회

1964.04.02 미남침례선교부의 도움으로 대지 226평 매입

1966.04.08 예배당 신축

• 현 담임목사 : 이성택 (T.864-5684)

(6) 기독교한국침례회 월산교회

• 주 소 : 남면 월산리 421-3

• 교역자 :

이한영(전도사, 1968~), 강일성(전도사, 1970~)

김삼량(전도사, 1973~), 김철수(전도사, 1975~)

조재선(전도사, 1977~), 강홍영(전도사, 1978~)

이근창(목사, 1980~), 송승영(목사, 1983~)

우선호(전도사, 1985~현재)

• 통 계 : 전도사 1명, 교인 47명(남 20, 여 27)

• 연 혁

1947.06 오경환 안수집사의 인도로 오정순 집사 택에서 창립예배

1967. 예배당 30평 사택 15평 건축

1968. 1대 교역자 이한영 전도사 부임

• 현 담임목사 : 공석 (T.862-6032)

(7)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산교회

• 주 소 : 남면 수산리 150-1, 연락처 863-4573

• 교역자 : 김주만(목사, 1981.01.21~1985.03.13)

송승영(목사, 1985.03.14~1989.01.04)

김천수(1989.01.05~현재)

• 통 계 : 목사 1명, 교인 62명(남 19, 여 43)

• 연 혁

1981.01.21 김주만 전도사가 이명구 집사 댁에서 4명의 성도로 개척.

1981.07.08 수산리 150-1번지의 현 가옥 매입

1984.04.25 예배당 착공

1985.01.05 김주만 목사 안수식 및 헌당예배

1990.04.20 교육관 건축

1991.01.26 토지.수산리 450-3. 수산리 산70-1을 매입하여

담임목사(김천수) 소유권이전

1995.04.15 목사관 건축

2000.05.01 교회 진입로 포장

- 현 담임목사 : 김천수 (T.863-4573)

(8) 소망장로교회(장로교) : 목사(장원옥) 송담459-1 T.864-5064

(9) 시온성교회(장로교) : 목사(이승호) 방축135 T.865-9177

(10) 월산침례교회(침례교) : 목사(강찬기) 연기454-2 T.862-6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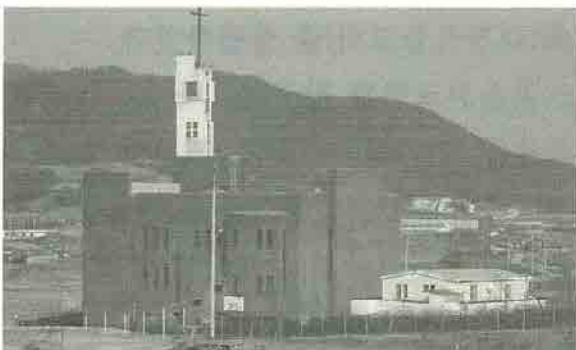
〈남면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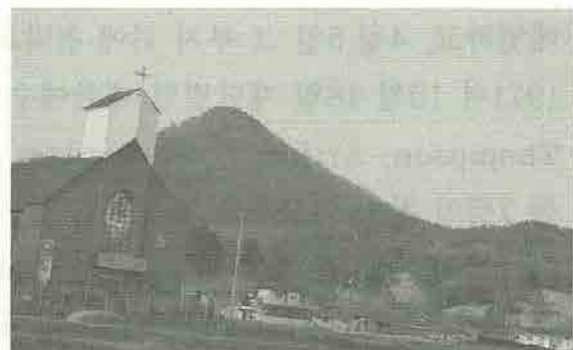
종촌리



양화리교회



종촌3리



진의리

5.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1) 대한예수교 복음교회의 역사

대한예수교 복음교회(The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in Korea) 총회는 정통 오순절 교단으로서 미국 Los Angeles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복음교회(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는 1969년도에 신학 연구차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 김신옥 목사가 설립하였다.

1969년 5월 10일 김신옥 목사는 국제복음교회 총회장 사무실에서 총회장 랄프 맥퍼스(Rolf K. McPherson)박사와 해외선교총무 렐란드 에드워드(Leland B. Edwards)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 때 김신옥 목사는 에드워드 박사에게 한국의 청소년 선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제복음교회는 그 해 9월 2일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이블린 탐슨 선교사 부부(Arthur & Evelyn Thompson)를 한국 감독으로 파송하였다. 탐슨 선교사 부부는 처음 대성학원 산하의 6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교사역을 하였고 후에 한국최초의 학생교회를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다.

이듬해인 1970년 3월 탐슨 선교사 부부는 당시 선교사 사택이던 대전시 중구 선화동 339-59번지에서 성인예배를 시작하였고, 7월 30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신옥 목사가 탐슨 선교사 부부와 합류하면서 청소년 선교의 활성화와 오순절 성령운동의 확산을 위한 복음교회의 사역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71년 3월 16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143-4번지의 1필지의 대지 2,000평을 매입하고, 4월 5일 그 부지 위에 천막교회(대전복음교회)를 설립하였다.

1971년 10월 18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복음선교회를 창립하고자 Evelyn R. Thompson, Arthur F. Thompson, 김신옥, 안기석, 이복실, 최부영, 이한덕 등 7명이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72년 2월 1일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복음선교회(The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in Korea)설립 허가를 받았다(문공부 허가 제237호. 종무 1-75).

1972년 3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대전시 중구 용두동 143-4번지 대전복음교회 지하층에 대한복음신학교를 설립하였다.

1972년 9월 10일 대전복음교회 건물 1층 248평을 완공하였다.

1972년 11월 5일 탐슨 선교사 부부 본부로 귀국하고, 일본에서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던 해롤드 뱃첼(Harold A. Muetzel) 선교사가 대한예수교 복음선교회 제2대 감독으로 겸직 부임하였다.

1973년 4월 1일 김신옥 목사가 대전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1973년 7월 17일 마이어스(Meryers) 선교사 부부가 협동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1976년 1월 11일 대한복음신학교 1회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창우 전도사가 수정복음교회(대전시 서구 도마동), 오창도 전도사가 중앙복음교회(서울 강남구 삼성동)를 창립하였다.

1978년 2월 5일 뱃첼 선교사 부부 본부로 귀국하고, 5월 6일 콘래드(HelenPat Conrad) 협동선교사 부임하였으며, 7월 14일 마이어스 선교사가 제3대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1978년 3월 서울 중앙복음교회 내에 서울지역 복음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 대한복음신학교 서울 분교를 설립하였다.

1984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제1차 년차 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예수교 복음선교회 총회를 구성하였다.

198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열린 제 2차 연차총회에서 총회 정치제도를 감독제에서 총회장 제도로 바꾸기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신옥 목사를 제1대 총회장에 선출하였다.

1986년 12월 29일부터 87년 1월 2일까지 부여 유스 호스텔에서 극동 아시아 복음교회 지도자 회의(Eastern Council of Foutsquare Churches) 및 아시아 청소년 십자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 19개국에서 300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1987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제 6차 연차 총회에서 최부영목사(동대전복음교회)가 제3대 총회장에 선출되었고, 1991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제8차 연차총회에서 오창도 목사(중앙복음교회)가 제 4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대전 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제 10차 연차총회에서 오창도 목사가 5대 총회장

에 연임되었다.

1995년 6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대전복음교회에서 열린 제 12차 연차총회에서 최부영목사를 제6대 총회장에 선출하였다.

1996년 10월 26일에는 학교법인 복음신학원(교육부 제81421-380호), 1997년 12월 5일에는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대학 제81411-1464호)가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1998년 3월 개교를 하였다.

1997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제 14차 연차 총회를 열고 리창우 목사(수정복음교회)를 제7대 총회장에 선출하였고, 10월 14일 대전복음교회에서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본 교단명칭이 선교단체로 오해를 받고 또 유사한 명칭의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로 개명하고, 1997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허가받았다(문화체육부 종무 86210-1095).

1998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오순절 서울대회의 준비교단으로 참여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 대회는 “21세기의 오순절”이라는 주제아래 전 세계에서 모인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이 학술대회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었다.

1999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복음교회에서 제16차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이창우 목사를 제8대 총회장에 연임시켰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는 현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위원회등의 회원교단으로 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기독교의 발전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본 교단 신학교인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한국신학대학협의회의 회원 학교로 한국의 신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연기군 남면 현황

(1) 연기군 남면 성남복음교회

- 주 소 : 본 당 - 충남 연기군 남면 중촌리 191-5
- 기도처 - 충남 연기군 남면 중촌리 123번지



성남빌라 가동 402호

교육관(건축예정지) - 남면 종촌리

- 담임목사 : 김기혁
- 교세현황 : 목사 1명, 시무장로 2명, 원로장로 1명, 권사 3명
 성도 약 100여명(남 40여명, 여 60여명)
- 연 혁

| | |
|--------------|--|
| 1974. 9. 22 | 성남교회 창립 명선성 전도사 취임하다. |
| 1981. 5. 14 | 김창열, 홍한표 장로 장립하다. |
| 1984. 10. 1 | 정영진 목사 취임하다. |
| 1986. 9. 27 | 홍순영, 정오영 장로 장립하다. |
| 1986. 10. 30 | 박창현 목사 취임하다. |
| 1987. 9. 1 | 이규복 전도사 취임하다. |
| 1987. 9. 10 | 안창호, 조용호 전도사 취임하다. |
| 1992. 3. 1 | 조광호 목사 취임하다. |
| 1999. 3. 28 | 김기혁 전도사 취임하다. |
| 2001. 10. 15 | 김기혁 목사 안수받다. |
| 2002. 11. 23 | 이재진 장로, 나영순, 임미자, 김을선 권사 임직예배 드리다. |
| 2003. 3. | 연기군 남면 종촌소재 123번지에 성남빌라를 사택으로 구입하다. |
| 2003. 5. | 김신옥 목사 종촌소재 전 314평을 교회건축 부지로 출연하다. |
| 2004. 8. | 연기군 남면 소재 성남빌라사택을 교회명으로 등기필하다. |
| 2005. 3. 20 | 김창열 원로장로로 추대하다. |

제2장 연기군 남면 지역의 언어전승(言語傳承)

제1절 남면의 방언(方言)

연기군 남면은 동쪽으로는 동진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다. 서쪽으로는 공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연기군 서면과 접하고 있다. 이는 과거문화가 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방언은 차이가 많이 났다. 남면은 크게는 충청도 방언이요 그보다 작게는 연기군 방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연기군 내에서도 면과 면 사이의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

본고는 1990년 한국 교원대 성기조 교수를 팀장으로 최문식, 성낙수 교수와 장장식(경희대 민속학 연구원 현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외 보조원 10여명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연기군 읍·면을 돌면서 질의 응답 혹은 자연담화 등을 60여 개의 녹음 테이프(120시간)분량으로 채집·정리한 것이다.

이는 어휘, 음운, 문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방언의 특징과 다른 방언과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 중 연기군 남면 것만 편집하여 수록하였으며 이곳의 자료가 1991년 이전의 자료밖에 없는 것은 그 후 이렇게 조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 어휘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에서 발간한 「韓國言語調查質問紙」중 제 1, 2, 3편에 수록된 것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1) 農事(농사) : 경작(耕作), 타작(打作), 搗精, 物, 蔬茶
- 2) 飲食(음식) : 부식(副食), 주식(主食), 그릇, 부엌
- 3) 家屋(가실) : 가구(家具), 방(房), 건물(建物), 마당, 우물
- 4) 衣복(衣服) : 세탁(洗濯), 복식(服飾)
- 5) 人체(人體) : 머리, 얼굴, 눈, 코, 귀, 세수, 上體, 下體, 피부병, 질병, 生
- 6) 育兒(育兒) : 발달, 재롱, 놀이

이상 목록에 속하는 600여 개의 어휘를 조사하였으나 이곳에는 300여 개만 수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것도 있다. 조사된 자료는 때로는 그 지

방민 전체의 말이 아니라 개인방언(idiolects) 일수도 있으며 특수방언(patois) 일수도 있다.

제보자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연세가 50세 이상인 자, 학력이 낮은 자, 치아가 건강한 자, 연기군에서 계속 살아온 자를 선정하였으며 편의상 한글로 표준어 방언을 비교하였고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여 표기하였다.

1) 농사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언 |
|-------------|------|------|-------------|-------|-------|-------------|--------|--------|
| 경 작 (耕作) | 볍씨 | 썩나라락 | 타 작 (打作) | 꼬다 | 꾸다 | 곡 물 (穀物) | 팔 | 팏 |
| | 못자리 | 모짜리 | | 도리깨 | | | 조 | 서숙 |
| | 호미 | 호맹이 | | 어레미 | 얼게미 | | 수수 | 쭈수 |
| | 김매다 | | | 명석 | | | 깨 | 꽤 |
| | 애벌매다 | 아사매다 | | (집)방석 | 맷방석 | | 참깨 | 창꽤 |
| | 두벌매다 | 이듬매다 | | 광주리 | 광우리 | | 들깨 | 들꽤 |
| | 눅 | 일꾼 | | 바구니 | 소쿠리 | | (곡식)사다 | 내다 |
| | 결두리 | 셋밥 | | 떡동구미 | 동구떡 | | (곡식)팔다 | 팔다 |
| | 호미씻이 | 백중놀이 | | 삼태기 | 산태미 | | 소채 | 소채 |
| | 쟁기 | | | 절구 | 도구통 | | 무우 | 무수(고어) |
| | 극쟁이 | | 절구공이 | 도구땡이 | 김치 | | 짐치 | |
| | 보습 | 보십 | 디달방아 | 디들방아 | 무말랭이 | | 무수고쟁이 | |
| | 벧 | | 확 | 방아확 | 장더리무우 | | 장아리 | |
| | 씨레 | 쓰레 | 방앗공이 | 방아꼬 | 시래기 | | 씨래기 | |
| | 번지 | | 맷돌 | 메뜰 | 쓰레기 | | 탑썰기 | |
| | 구멍 | 구녜 | 암쇠 | 암세 | 나물 | | | |
| | 오른손 | | 숫쇠 | 수썰 | 고갱이 | | 꼬갱이 | |
| | 왼손 | | 겨 | | 과 | | | |
| | 자루 | | 왕겨 | 딩겨 | 고구마 | | | |
| | 삽 | | 키 | 치 | 감자 | | | |
| 쇠스랑 | 소시랑 | 까불다 | | 가지 | | | | |
| 타 작 (打作) | 괘이 | 꼬괘이 | 곡 물 (穀物) | 보리 | | | | |
| | 개상 | | | 감부기 | 잠베기 | | | |
| | 자리개 | | | 밭 | | | | |
| | 벼홀이 | 홀태 | | 밭두둑 | 밭뚝 | | | |
| | | | | 밭고랑 | 고랑 | | | |

2) 음식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언 |
|-------------|-------|------|-------------|-----|-----|------|--------|------|
| 부 식 (副食) | 지랑 | 간장 | 주 식 (主食) | 밀기울 | 밀지울 | 부 일 | 고무래 | 고물개 |
| | 두부 | | | 국수 | | | 부삽 | 불삽 |
| | 깍두기 | | | 고명 | 끼미 | | 숯 | |
| | 콩나물 | | | 새알심 | 샬시미 | | 뜬숯 | 숯 |
| | 상추 | | | 수제비 | 수지비 | | 화로 | 참숯 |
| | 오이 | | | 과줄 | | | 부젓가락 | 화로 |
| | 오이지 | 짬아찌 | | 엿기름 | 엿질금 | | 석쇠 | 불젓가락 |
| | 오이소박이 | 오 | | 식혜 | 감주 | | 다리쇠 | 석쇠 |
| | 부추 | 정구지 | | 그릇 | 식기 | | 담뱃대 | 삼발이 |
| | 김 | | | 시루 | | | 물부리 | 담배때 |
| 주 식 (主食) | 반찬 | 진건이 | 그 룻 | 시루밀 | | 담배동 | 물쭈리 | |
| | 국물 | 멸국 | | 숯뚜껑 | 소두방 | 담배설대 | 대꼬머리 | |
| | 술 | 숯 | | 뚜껑 | | 성냥 | 대설대 | |
| | 바가지 | | | 뚜배기 | 독백기 | 부시 | 성냥 | |
| | 이남박 | 바가지 | | 바가지 | | 굴뚝 | 부시 | |
| | 조리 | 조랭이 | | 부엌 | | 그을음 | 굴뚝 | |
| | 주걱 | | | 살강 | 살경 | 넙다 | 겹장, ㄹ름 | |
| | 누룽겹이 | 누룽지 | | 실경 | | | 내굽다 | |
| | 눌은밥 | 누룬밥 | | 선반 | | | | |
| | 흰떡 | 흔떡 | | 아궁이 | 아구이 | | | |
| 가래떡 | | 부뚜막 | | | | | | |
| 백설기 | 흔설기 | 부지갱이 | 부주갱이 | | | | | |

3) 가옥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
| 가 구 (家具) | 서랍 | 빠다지 | 건물 | 종이 | 조이 | 마당 | 담 | |
| | 궀 | 궀작 | | 구기다 | 꾸기다 | | 뒤궀 | 뒤뜰 |
| | 자물쇠 | 자물통 | | 지붕 | 지병 | | 장독대 | 장궀 |
| | 열쇠 | 열쇠 | | 사다리 | 새다리 | | 화장실 | 뒤간 |
| | 베개 | 버개 | | 초가집 | | 뜰 | 뜰궀 | |
| | 목침 | | | 이영 | 영 | 두레박 | 타리박 | |
| | 퇴침 | 퇴침 | | 궀다 | 헤이다 | 또라이 | 또바리 | |
| | 누비이불 | 궀비이불 | | 이다 | 지다 | 도랑 | 또랑 | |
| 방 (房) | 마루 | | 용마름 | 용구새 | 우물 | 붓도랑 | 붓돌 | |
| | 미단이 | 밀궀 | 틀다 | 틀다 | | 거궀 | | |
| | 여단이 | 여단이 | 기둥 | 지둥 | | 수렁 | | |
| | 돌궀귀 | | 서까래 | 석까래 | | 수채 | | |
| | 벽 | 벼름박 | 처마 | 처매 | | 구멍 | 구궀 | |
| | 궀도리 | | 가스궀물 | 지시궀물 | | 쌈 | 쌈 | |
| | 흙손 | 궀손 | 고드름 | 고도레미 | | 개울 | 개울 | |
| | 궀알 | 궀솔 | 마당 | 궀타리 | | 궀따리 | | |

4) 의복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
| 세탁 (洗濯) | 빨래 | | 복식 (服飾) | 누더기 | | 복식 (服飾) | 숨 | |
| | 빨다 | | | 버선 | | | 채봉틀 | 자궀틀 |
| | 애벌 | 아시 | | 궀버선 | | | 궀무 | |
| | 두벌 | 이듬 | | 대님 | | | 궀위 | 궀새 |
| | 다리미 | | | 궀신 | 미투리 | | 반궀궀궀 | 반궀궀궀 |
| | 다듬이궀 | | | 삼다 | | | 호다 | |
| 복식 (服飾) | 다리다 | | 나궀신 | 나궀궀 | 베 | | | |
| | 궀리궀 | 궀궀 | 궀궀 | 궀궀 | 궀아 | 궀아시 | | |
| | 두루마기 | 두루궀기 | 궀다 | 궀오다 | 궀에 | | | |
| | 주머니 | 궀궀 | 궀궀 | 궀궀궀궀기 | 궀궀궀궀 | | | |
| | 궀궀궀 | 궀궀궀궀 | 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 | | | |
| | 궀궀궀 | 궀궀궀궀 | 궀궀궀 |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 | | |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 | |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 | |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 | |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궀궀궀궀궀궀 | | | |

5) 인체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
| 머 리 | 머리 | 대가리 | 귀 | 귓볼 | 귀떼기 | 피부병 | 부스럼 | |
| | 소머리 | | | 구에지 | 귓밥 | | 고름 | |
| | 머리카락 | 머리털 | | 귀이개 | 귀지개 | | 사마귀 | |
| | 가마 | | | 귀머거리 | 덕통 | | 두드러기 | 두드래기 |
| | 가르마 | (열)가르마 | 세수대야 | 세숫대 | 땀띠 | | 땀떼기 | |
| | 비듬 | 비늘 | 비누 | | 버짐 | | 버즘 | |
| 얼 굴 | 턱 | | 세 수 | 목욕 | | | 기계충 | 이발충 |
| | 수염 | | | 목물 | 등목 | | 주근깨 | |
| | 목 | 모가지 | | 거울 | 색경 | | 기미 | 지미 |
| | 이마 | 마빡 | | 빗 | | | 여드름 | |
| | 볼 | | | 얼레빗 | 얼기빗 | 멍 | | |
| | 뺨 | 볼떼기 | | 참빗 | 참빗 | 곰보 | | |
| 눈 | 눈 | | 상체 (上體) | 손 | | 질병 | 학질 | 하루걸이 |
| | 눈썹 | | | 손바닥 | | | 홍역 | |
| | 눈동자 | 눈깔 | | 손가락 | | | 감기 | 고뿔 |
| | 눈두덩 | 눈뚜경 | | 마디 | 마듬거리 | 딸꾹질 | 결뜨기 | |
| | 눈곱 | 눈꼽 | 겨드랑 | 겨드랑이 | 사레 | | | |
| | 다래끼 | 다라끼 | 배꼽 | | 트림 | 배트림 | | |
| | 소경 | 장님 | 허리 | | 생리 | 채채기 | | |
| | 애꾸 | | 다리 | | (生理) | 하품 | | |
| 코 | 코 | | 가부좌 | 책상다리 | 기지개 | 지지개 | | |
| 입 | 입 | 주덩이 | 하 체 (下體) | 엉덩이 | 볼기짝 | 방귀 | 방구 | |
| | 입술 | | | 궁둥이 | 궁덩이 | 구린내 | 꾸린내 | |
| | 혀 | 혓바닥 | | 넓적다리 | 넙적다리 | | | |
| | 병어리 | | | 무릎 | 무릎팍 | | | |
| | 말더듬이 | 반병어리 | | 오금 | 오금쟁이 | | | |
| 귀 | 귀 | | 뺨 | 뺨대기 | | | | |

6) 육아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구 분 | 표준어 | 방 언 |
|-----|------|------|-----|------|-------|-----|-----|-----|
| 발달 | 갓난아이 | 간난장이 | 재롱 | 이장이장 | | 놀이 | 막대 | 막대기 |
| | 똥 | 돌 | | 버릇 | 버르쟁이 | | 제기 | |
| | 기저귀 | | | 엄살 | | | 망월 | |
| | 오줌 | | | 새암 | 삼 | | 웃 | 웃 |
| | 포대기 | 퍼대기 | | 사금피리 | 새금치쪽 | | 도 | |
| 재롱 | 재롱 | | 놀이 | 소꿉질 | 소꿉장난 | 개 | | |
| | 죄암죄암 | 귀엄귀엄 | | 숨비꼭질 | 소경장난 | 걸 | | |
| | 짹짹 | 짹짹 | | 목말 | 말타기장난 | | | |
| | 따라따로 | 삼미삼마 | | 차치기 | | | | |

위의 방언은 1990년 1월에 조사된 것으로 조사자는 박홍모, 주우성, 김신익 이
 며 성낙주가 정리하였다.

※ 제보자 : 임정근(남) 70세, 황순옥(여) 64세 남면 양화 1구

제2절 남면의 민요

일을 할 때 흥겨운 노래와 더불어 일을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능률을 올려준다. 그래서 남면 지역 사람들은 언제나 노래를 즐겨 불렀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노동요라 부른다. 또, 아녀자들이 고된 시집살이에서 푸념을 하던가 노래로 한을 토해 내어 위안을 삼았던 노래를 내방요라 부르고, 신앙의 대상을 소재로 한 노래를 신앙요, 동심이 가득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동요라 부른다.

흥에 겹도록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것을 타령이라 부르는데 연기군 남면 사람들은 어른들께서 민요를 입에서 입으로 따라 불려왔다.

본고는 70년대 충청남도가 발행한 충남의 구비전승에서 한상수 교수가 정리한 자료와 1981년 연기군에서 발행한 연기실록(燕岐實錄) 그리고 1990년대는 조치원 문화원에서 발행한 연기민속(燕岐民俗)에서 남면지역의 자료만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 1970년대 채록된 남면의 민요

김매기 노래

에헤야 에헤야
 상사디야
 이 농사를 지어서
 부모님 봉양도
 하려니와
 나라에 바치세
 에헤야 에헤야
 얼렷렷렷상사디야

유 진하(남) 1975. 8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모내기 노래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만수산 꼭대기
 구름 모았다.
 쏘나기 삼형제
 거기들었다
 어헷헷헷 상사디야
 여봐라 농부말 들어
 느마지기 왼뱀인가
 반달치만 남었다
 어서 바빠 심고 가세

임 헌진(남) 1974. 7. 7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모내기노래

아농부 말들어
어아농부 말들어
세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었네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노화 노화 어혜
상상 디이여

유 진하(남) 1975. 7. 29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타작노래

에에혜 에혜
저 건너 갈미봉비
들어온다
혜혜 에혜
저 건너 갈미봉비
들어온다
천석 만석만 쏟아져라
에혜야 에혜나혜

임 헌빈(남) 1975. 5. 8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타작노래

응혜야 어질시고
잘도 한다 응혜야
단둘이만 응혜야
하드래도 응혜야
열쫂이면 응혜야
하는 듯이 응혜야
팔구월에 응혜야
과종해서 응혜야
그해삼동 응혜야
다 지나고 응혜야
익년 이월 응혜야
재초하고 응혜야
삼월 지나 응혜야
삼월들래 응혜야
삼월 남풍 응혜야
대맹황으로 응혜야
푸른잎과 응혜야
푸른 종자 응혜야
죽은 듯이 응혜야
변해져서 응혜야
황앵같은 응혜야
황색되어 응혜야
오륙월에 응혜야
수확하여 응혜야

이와같이 응혜야
 타작해서 응혜야
 응게등게 응혜야
 재오놓고 응혜야
 삼동삼춘 응혜야
 양식함세 응혜야
 이럼으로 응혜야
 오월농부 응혜야
 팔월신선 응혜야
 함이로다 응혜야
 응혜야 응혜야
 절시구 응혜야

임 영철(남) 1976. 8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타작노래

에야혜－
 에야혜－
 저 건너 갈미봉에
 비 들어 온다
 에야혜－혜
 에혜－에－에야혜－
 오옴－들로 나가세

임 헌빈(남) 1975. 8
 충남연기군 남면 진의리

베틀노래

아가아가 문 열어라, 비단 짜는
 구경하자.
 놓고 짜고 들고 짜고, 통수없이
 잘도 짠다.
 그 비단을 그리 짜서 누구 줄래
 우리 오빠 장가 갈 때, 금자철류
 하여줄래
 그 나머지 누구 줄래, 우리 언니
 시집갈 때
 가마후장 둘러 줄래

임 씨(여) 1974. 7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시집살이 노래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있어서
 누룩으로 담을 치고
 명지전대 울띠 맷나
 내 집에는 없어서
 나무전대 울띠 맷나
 포록쫓록 뜯던 나물
 옹술에 삶아서
 입 벌리고 떠넣어니
 첫 손갈에 옹기 들고
 두 손갈에 숨이 도네

아홉아들 아홉인가
외딸이 딸이지

임 재성(남) 1974. 2. 7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파랑새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대궐 안테 들어가면
은행 꺾질 물어다가
바위 밑에 모았다가
네 오라비 장가갈 때
청실 홍실 늘어주렴

곽 덕신(남) 1974.9.1
충남연기군 남면 고정리

떡타령

정월보름 달떡이요
二月寒食 松餅이요
삼월삼진 쑥떡이로다
떡 사려 떡 사려
사월팔일 느티떡에
오월단오 수리치떡
유월 유두에 밀정편이로다
떡 사려 떡 사려

칠월칠일에 수단이요
동짓달 동지날에 세알세미
섯달에는 골무떡이라
떡 사려 떡 사려
세기발죽 호반죽
네기발죽 인절미로다
먹기 좋은 꿀설기
보기 좋은 백설기
시금털털 증편이로다
떡 사려 떡 사려
키 크고 싱거운 흰떡이요
의가 좋은 개피떡
시앗보았다 세부리로다
떡 사려 떡 사려
글방도련님 평양떡이요
앞집아가씨 실패떡
세 살둥둥 타래떡
떡 사려 떡 사려

임 영철(남) 1973. 8. 8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 1980년대 채록된 연기군 남면의 민요

모심기 노래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만수산 꼭대기

구름 모았다

쏘나기 삼형제

거기들었다

어혈러러 상사되야

여봐라 농부말 들어

느마지기 윈뱀이가

반달치만 남었다

어서 바빠 심고 가세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현진(남) 제공〉

시집 살이 노래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있어서

누룩으로 담을 치고

명지전대 울띠 맷나

내 집에는 없어서

나무전대 울띠 맷나

포록쫄록 뜯던 나물

옹술에 삶아서

입 벌리고 떠넣어니

첫 술갈에 옹기 들고

두 술갈에 숨이 도네

아홉아들 아홉인가

외딸이 딸이지

〈연기군 남면 송담리 임재정(남) 제공〉

請婚歌

앞집이라 열순이는

님물잘난 탓이든지

양반이라 그리 한지

열 살부터 오는중매

오늘까지 오건마름

이 내 나는 어이하여

만사십이 다되어도

중매 할미 전혀없노

보살 할미 보통장사

성기장사 바디장사

쌀을주고 밥을취도

이내중매 아니오고

할 일 없고 할 일 없다

사랑방에 손님와서

아버지와 같이앉어
 편지놓고 읽을적에
 행여나 중매신가
 아이불러 물어보니
 외 삼촌의 부음이라
 방안으로 들어가서
 면경 চে경을 둘러놓고
 나의모양 살펴보니
 나이사 많건만은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 지노라
 꽃이피면 오시마더니
 잎새가 피어도 아니오네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여사(여) 제공>

비단짜기 노래

아가아가 문열어라
 비단짜는 구경하자
 놓고 짜고 들고 짜서
 통수없이 잘도 짠다
 그 비단을 그리 짜서 누구 줄래
 우리 오빠 장가 갈 때

금자철류 하여줄래
 그 나머지 누구 줄래
 우리 언니 시집갈 때
 가마후장 둘러 줄래

<연기군 남면 양화리 임여사(여) 제공>

童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터밭에도 안된다
 상추씨앗 밟는다
 꽃밭에도 안된다
 꽃모종을 밟는다
 울타리도 안된다
 호박순을 밟는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종종머리 찾았네
 까까머리 찾았네
 장독대에 숨었네
 까까머리 찾았네
 방앗간에 숨었네
 빨간땡기 찾았네
 기둥뒤에 숨었네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명철(남) 제공>

童謠

까치까치 낭낭까치
나비나비 파랑나비
지비지비 초록지비
인두한쌍 물어다가
추녀안에 집을 짓고
바늘로 연목 엮고
당사실로 외를 엮고
연지로 도배하고
부엌을 들여다보니
꿩매기로 솔을걸고
궁굴채로 불을피고
옥실박실 클러랑지
밖에를 내다보니
사박같은 박고리가
예두가고 제두간다

〈연기군 남면 나성리 임명철(남) 제공〉

3. 1990년대 채록된 연기군 남면의 민요

토끼 화상

그린다.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소.
이적선 봉황대 봉 그리던 환쟁이
만국천자는 능화대 일월 그리던 환쟁이
연소학이는 황금대 연 그리던 환쟁이
동정윤이는 청황운
금상후퇴 거북이언정 오징어 불러 먹을 갈어
백능설화 간지상에 이리 저리두 잘 그린다.
천하명산 승지간이 경계 보던 눈 그리고,
앵무 공작을 짚어올 때 소리 들던 귀 그리고
방정 봉래 운무 중에 내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 웬갓 타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동지 선달 설한풍에 광풍하던 털 그리고
만첩청파 재수중에 등실 떴다. 배 그리고
북위는 쫓긋, 두 눈은 도리 도리
앞 발은 짚룩, 뒷 발은 질고,
허리는 짚쭈, 콩대이는 뭉뚝.
만첩청 그늘 속에서 펼 펼 뛰던 발년 토끼.
그 아니도 분명코나.

아나 네봐라 별주부야 네 어디를 가라더냐.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3시 56분~58분
- 구 연 자 : 임 옥 근 (남, 62세)
- 본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위와 같음.

- 채록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달타령’을 부르고, 잠시 쉬었다가 임헌복씨가 그리던 토끼 화상을 다시 그려보겠다고 자청하여 불렀다.

범벅 타령

어리야 둥둥 범벅이야
 누구 잡수실 범벅인가.
 김 두령 잡수실 범벅이지.
 이 도령은 멍쌀 범벅, 김 도령은 찹쌀 범벅,
 이 도령은 본 낭군,
 김 도령은 혼 낭군 계집년의 행실 알구
 외방(外方) 장사를 나간다.
 미빳 참빳 싸 가지구 뒷동산으로 올라가
 걸만 보고 배만 보니 계집년의 행실 봐라.
 이 도령없는 짝을 알구 김 도령 올 때를 고대한다.
 여보시오, 벗님네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
 계집년의 행실봐라.
 김도령 목소리 알아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가는 허리를 두리쳐 안고 대문걸고 일광 문 닫고, 닭이문 걸고
 부엌 문 닫고 앞 문 걸구 뒷문으로 들어가서
 쳐다보느냐 소라반지, 내려다보느냐 각장장판
 홍금단 이불을 죽 피어다 놓고
 새빌같은 금요강은 발치발치 밀어 놓고,
 원앙금침(鴛鴦衾枕) 잤버개는 비는디께 돌워놓고,
 두 몸뻥이가 한 몸뻥이 되어
 청포발에 금잉어 놀 듯 굵실굵실 잘도 논다.
 이 도령이 내려와서,
 여보시오 벗님네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

계집년의 행실 봐라.
 이도령 목소리 알아듣고 삼대 사대 내려온 뒤주,
 뒤주 문을 푹 따고서 빨가둥이를 집어넣고,
 뒤주 문을 덜컥 닫고
 버선 발로 뛰어나와 하는 말이,(사설조표)
 여보시오, 사방님, 외방장사를 나간다더니
 아니 아닌 밤중에 웬일이요,
 여보게 내 말 잠깐 들어보소,(사설조표)
 가다 가다 가는 길에 돌파리더러
 일년 신수를 잠깐 물어보니,
 뒤주 탓이라 하거들레 뒤주를 가질러 내가 왔네,
 아이구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사설조표)
 삼대 사대 내려온 뒤주 뒤주 탓이란 말이 웬말이요,
 아이구 예 이년 그만 뒤라(사설조표)
 산내기 서발을 걸빵을 걸고 북망산으로 올라가
 뒤주 문을 푹 따고보니 빨가둥이가 들었구나.
 너두 남의 집 외아들, 나두 남의 집외아들,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얼릉 빨리 도망가라.
 뒤주를 때려붙기어 불을 살르고 내려오니,
 계집년의 행실봐라.
 김 도령 죽은 줄 먼저 알고,
 삼대 사대 청산보화니 단대추 사고,
 이리 저리 능금 사고
 앞치마에다 끌구 올라 오는거란 말여(사설조표)
 일 년 열두달 범벅이나 생경(주위섬겨)불까
 이월달이는 씨라기 범벅
 삼월달이는 썩범벅.
 사월달이는 느티 범벅,
 오월달이는 보리 범벅,
 유월달이는 밀 범벅,

칠월달이는 수수 범벅,
파월달이는 송편 범벅,
구월달이는 구일 범벅,
시월달이는 수리치기 범벅,
동짓달이는 팔죽 범벅,
선달에는 흰 떡 범벅,
정월달이는 달력 범벅,
열두달이는 범벅을 할 때,
소두방같은 손으루다
전단 같은 머리채를 휘휘 칭칭 감어지고,
엎어놓구 목을 딸까 재껴놓고 배를 딸까
아이구 서방님 그제 무슨 말씀이요(사설조로)
의만 좋으면 그만이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4시53분~59분
- 구 연 자 : 임 현 복 (남, 69세)
- 분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위와 같음.
- 채록장소 외 : 앞 노래와 같음.

흥부 타령

흥부가 나가란말 듣더니만은
아이구 여보 형님이 동생을 나가라고 하시니
갈곳이나 알려주.

백이숙제 주려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눔아 내가 갈곳까장 알려주라

밀을 상상에다 밀을 짓고 증상에다 목욕을 하구
하상에다가 소죽을 쑤구

여지한장 드린후에 비난이요 비난이요
하나님께는 비난이요 칠성님께는 발원을 하구

신장님께서 공양을 들으니 어느 신장에 아름답어
감릉이야 할까 보냐

(잠시 중단)

제일전에는 신관대왕 나무아미타불이요

제이전에는 조광대왕 나무아미도타불이요

제삼전에는 흠애대왕 나무아비타불이요

제사전에는 의원대왕 나무아미타불이요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5시 33분~35분
- 구 연 자 : 임 성 근 (남, 62세, 농업)
- 본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채록장소 외 : 앞 노래와 같음.

양 산 도

헤이~예 곱대도 청춘 한 때요

당신이 곱대도 청춘 한 때로구나…….

아 서라 말어라 네가 그리를 말어

사람에 팔세를 네가 그리 말아
헤이~예 춘하~추동 사시절이

이기질 못할 성낙부질허구나
에라라 놓아라 아니 못놓거니

영지를 하여도 에루하 나는 못놓겠구나.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7시15분~18분
- 구 연 자 : 최 능 만 (남, 70세, 농업, 국문 해득)
- 본 적 :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동양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채록장소 : 양화리 1구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오후 3시경부터 약 3시간 가량 이곳에서 전설과 민요를 채록하고,
저녁 시간 기간이 되어 면소재로 가서 식사를 하고 밤 7시 10분 경에
다시 찾아왔다. 노인들도 다 집으로 갔는데, 일찍 식사를 마친 일곱 분
이 이미 와서 한쪽에서는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담소하
고 있었다. 낮에 이어서 최능만, 임헌복, 임헌국씨가 민요 몇 곡을 구
연해 주었다.

단 가

가자 가자 어서 가…… 이수 근너 백로 가

백로 안이는 빈배 병아리 천병 이이룩
두상이 등실 높이뻗다.

양구기로 가지는 게 얼봉으로 돌아든다

어장은 춘계집고 희연궁 그림이 높이뻗다

어~하다 논디고

앞발로 뒷발을 찌그다려 뒷발로 장단을 땡땡

요리조리 조리요리 영금당실 높이 떠

동남을 바라봐라…….

지방은 칠백리 팔광은 천일색

천하무삼이 시루봉은 구름 밖으로 내려있고

애오이 소상은 일천리 앞내히 경계로다

양야루 높은 집이 두자미 앓은 글은

동남으로 보여있구 천복만악을 바라봐라

만궁대 그림 속에 학이 앉어올어

칠보산 검은 구름 허공이 층층 높이뻗다

태산과무차 물은 술렁 깊은데

이골물 주르르 저골물 쉼쉼

열의열두골 한더루(한곳으로) 합두쳐

천방졌다 지방졌다 어덕졌다

방울졌다 어덕졌다

마주 광광 흐르는 물은 어냥 수루만 돌아든다

앞내버들은 유륙장 둘러

뒷내버들은 청푸장 둘러

한가지 늘어져 한가지 찢어져

천비천을 못이기여
삼월이라 삼짓날 연자는 펼 펼 날아들구

호집은 점점 나무나무 속있 나
가지가지 꽃피어 암마두 내려구나

젊었을때 쓰구 먹구 거두럭 거리구 노러보세
허리 곧고 늙은 장성 광풍을 못이기어

어절어절 춤을 춘다
근하혜~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7시22분~27분
- 구 연 자 : 임 현 복 (남, 69세)
- 분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위와 같음
- 채록장소 외 : 앞 노래와 같음.

달 거 리

정월이라 드는 액은 이월 한태기로 막아내구

이월이라 드는 액은 삼월 삼지로 막아내구
삼월이라 드는 액은 사월 파일로 막아내구

사월이라 드는 액은 오월 단오로 막아내구
오월이라 드는 액은 유월 유두로 막아내구

유월이라 드는 액은 칠월 칠석이루 막아내구

칠월이라 드는 액은 팔월 보름이루 막아내구

팔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 구일루 막아내구

구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 상달루 막아내구

시월이라 드는 액은 동지 팔죽이루 막아내구

선달이라 드는 액은 정월 달력이루 막아내세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7시27분~30분
- 구 연 자 : 임 현 복 (남, 69세)
- 분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위와 같음.
- 채록장소 외 : 앞 노래와 같음. 구연자는 이 노래를 ‘성주풀이’ 라고 하였음.

청 춘 가

임현복 : 에~ 우연이든 정에 골속에 맺혀서어
이질방자가 어허~병들병자로다.

최능만 : 못살같구나 나 못살같구나
날마다 요로구는 난 못살같구나

임현복 : 데려가시오 날 데려가시오
정 많이 든 사람 어러 날 데려가시오

최능만 : 양산우산 회허 현 못받아보아도
소리나 한마디 받아만 봅시다.

임현복 : 아~술 아니 먹자고 맹세를 했더니만
임보구 술보니 또 먹게 되었구나

최능만 : 흑수나 비단에는 짓물이나 걸지요
정든님 멀거든 모두사리 걸구나

임헌복 : 아~산은 높구요 골도나 깊으련만
조그만한 여자속에 에 헤~얼마나 깊을소나

최능만 : 혼년에 정하 저 매평 노려마
예 옆질러 감침기에 검기도 던니다

임헌복 : 돌려를 봅시다 돌려를 봅시다.
노랫가락 청춘가로 앵애루화 돌려나 봅시다……

[잠시중단, 임헌복씨가 계속 부름]
예~임없는 동산에 달 뜨면 뭐하나
나비없는 동산에 꽃 핀들 뭐할까~

- 채록일시 : 1990. 1. 12. 오후 7시 50분~53분
- 구 연 자 : 임 헌 복 (남, 69세)
- 분 적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 주 소 : 위와 같음.
- 구 연 자 : 최 능 만 (남, 70세, 농업, 국문 해득)
- 분 적 :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동야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제3절 연기군 남면의 속담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을 속담이라 한다. 속담은 남을 비웃을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 남면 지역 사람들은 속담을 적당히 이용할 줄 알기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

- 아니 뎌 굴뚝에 연기가 나라. 안한다.
- 〈근거 없는 말이 있을수 없다는 뜻〉
- 콩밥 쉽게 먹은 놈 찻간에 갈 적에 알아본다.
 - 분다 분다 하니까 하루 식전에 왕겨 석 섬을 분다.
 - 시장이 반찬이다.
 - 호랑이도 체말하면 온다.
 - 업은 아기 삼년 찾는다.
 - 개천에서 용난다.
 -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
 -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 한 술 밥에 배 부르랴.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 까마귀가 사촌이라고 하겠다.
 -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 간도 쓸개도 없다.
 - 개밥에 도토리이다.
 - 꾸어다 놓은 보리쌀 자루이다.
 - 눈뜬 소경이다.
 - 따오기는 먹을 감지 않아도 희다.
 -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
 - 독안의 쥐다.
 - 동풍 안개속에 수수잎 꼬이듯 한다.
 - 들보보다 서다래가 굵다.
- 〈콩밥을 제대로 삭이지 못하고 먹으면바로 설사를 하니까, 무슨 일을 급하게 하지 말고 순서를 잡아서 하라는 말〉
- 바늘 허리 매서 쓰랴.
- 〈위와 비슷한 뜻으로 완급을 가려서 하라는 옛 사람들의 슬기〉
-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
- 자는 사람 뭇은 없어도 나간 사람 뭇은 있다.
-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소금이 시나, 되는 대로 살자.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작은 고추가 맵다.
-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 하던 지랄도 명석 깔아놓으면

- 물에 빠진 생쥐같다.
- 밀 빠진 독이다.
- 배가 남산만 하다.
- 벼룩 오줌만 하다.
- 빛좋은 개살구다.
- 새발의 피다.
- 썩은 개살구 씹은 표정이다.
-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하다.
- 오뉴월 장마끝물 오이 꼭지 씹은 표정이다.
- 가는 날이 장날이다.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
- 간에 기별도 안간다.
- 갈수록 태산이다.
-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 귀신 곡할 노릇이다.
- 글씨 못쓰는 놈이 붓만 탓한다.
-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 남 못하게 하고 잘되는 놈 못 봤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 따 놓은 당상이다.
- 다 된 밥에 재뿌린다.
-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 대가리 떼고 꼬리 떼니 먹을 것이 없다.
- 때린 놈은 발을 오무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을 뺨고 잔다.
- 돈을 잃고 사람 잃는다.
-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 먹어야 양반 노릇도 한다.
- 모기도 낮짜이 있다.
- 미꾸라지가 용됐다.
- 뱀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
- 범 없는 산에는 토끼가 왕이다.
-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 싸움 끝에 정든다.
- 산전수전 다 겪었다.
-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다.
- 안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 안되면 조상 탓이다.
- 알아야 면장도 한다.
- 약방에 감초
- 어물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 옆구리 찢러 절 받기다.
-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둔다.
- 장작과 계집은 쭈석거리면 탈난다.
- 정들자 이별이다.
- 지극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 자기 집 제사는 몰라도 남의 집 제사는 잘 안다.
- 죽 쑤어 개준다.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처녀가 아이를 배도 할말이 있다.
- 우물안 개구리이다.

- 하늘을 봐야 별도 탄다.
- 유월 감장수.
-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 자루빠진 도끼날.
- 가는 님은 밭쌍이요 오는 님은
곱쌍이다.
-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다.
- 가재는 제 편이고 초록은 동색
이다.
- 종이 한 장 차이다.
- 개는 안주인을 따르고 소는 바깥
주인을 따른다.
- 주시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 같은 떡도 남의 것이 커보인다.
- 죽도 밥도 아니다.
- 거지도 흥년들까 걱정이다.
- 집도 절도 없다.
- 고운 사람은 울어도 곱고 미운
사람은 웃어도 밋다.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
이다.
-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다.
- 과부사정 홀아비가 안다.
- 누울 자리보고 발 뻗는다.
- 귀엽게 자란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
- 늙은이 망령은 곰국으로 고치고
젊은이 망령은 몽둥이로 고친다.
-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
- 그릇은 들면 깨지고 여자는 놓으면
바람난다.
- 말은 세워 기르고 소는 뉘여 기른다.
- 급하면 우물에 가서 숭늉 달랜다.
- 먼저 발등의 불을 끄고 봐야한다.
-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
은 기어간다.
- 메고 나가면 가마요 들고 나가면
들불이다.
- 다음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
- 모로 가나 뒤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
자라다.
- 모으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 닷새 굶어 도둑질 앓는 놈 없다.
-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
- 범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
- 동네 개가 싸워도 편들어 준다.
- 여름 소는 파는 사람이 이롭고
겨울 소는 잡는 사람이 이롭다.
- 쥐잡는데는 천리마도 고양이만 못
하다.
- 동서시집살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보다 더 밋다.
- 큰며느리가 무던한 것은 작은 며느
리를 얻어봐야 안다.
- 바늘가면 실 따라간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

제4절 남면 지역의 민간 신앙어

민간신앙어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자체력을 키워주고 위안을 주는가 하면 삶의 지혜를 준다. 남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민간 신앙어를 적당히 이용하여 슬기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밥 먹고 바로 자면 뺨이 난다.
-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 밤에 손톱 깎으면 부모님 죽는다.
- 음력 정월 열나흘 날, 잠자면 눈썹이 센다.
- 음력 정월 보름날, 소가 목화씨를 먹으면 목화가 잘되고, 밤을 먹으면 베가 풍년 든다.
- 자는 사람 얼굴에 환칠 하지 말아라.
- 시체방에 가서 시체 보고 말하지 말라.
(시체가 있는 곳에서, 시체가 깨끗하다고 하면 금새 더러워진다고 함.)
- 고양이가 고랫구렁에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나 돌아다닌다.
- 아침에 까치가 짖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아침에 까무개(까마귀)가 짖으면 재수가 없다.
- 아침에 까무개가 짖으면 초상난다.
- 여자가 식전에 남의 집에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앞길을 건너가면 재수없다.
- 밥먹고 이내 자면 소가 된다.
- 아랫목에 머리 두고 자면 원수집에 가서 꺼끌로 잔다.
- 임신중에 오리고기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이 붙는다.
- 산월에 굴뚝 고치면 언청이 낳는다.
- 애기 날 때, 바가지를 깨면 부스럼 난다.
- 여자가 닭대가리 먹으면 그릇을 깨고, 남자가 닭대가리 먹으면 장군(술이나 물을 담기 위하여 오지나 나무로 만든 그릇)을 깬다.
- 애기 있을 때, 파란 호박을 따면 딸 낳는다.

- 애기 있을 때, 알밤을 주으면 아들을 낳고, 벌어진 것을 따면 딸을 낳는다.
- 큰 우렁을 잡으면 아들을 낳는다.
- 구렁이를 잡으면 아들을 낳고, 꽃뱀을 잡으면 딸을 낳는다.
- 천도복숭아를 따서 먹으면 딸을 낳는다.
- 홍시감을 먹으면 딸을 낳는다.
- 토끼꿈을 꾸면 딸을 낳는다.
- 산신령이 ‘에헬’ 하는 꿈을 꾸면 아들 낳는다.
- 호랑이가 달려드는 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
- 해를 보면 아들을 낳고, 달을 보면 딸을 낳는다.

제3장 연기군 남면의 전설

제1절 개 관

전설(傳說)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삶의 터전 속에 있는 산, 강, 들과 바위, 나무, 연못과 같은 자연 속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한 것 중 하나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의 현상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자연물의 생김새를 설명하거나 평범한 체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특출한 인물에 대하여 미화하여 재미와 교훈을 주기도 하는 것이 전설이다.

연기군 남면은 금강과 동진강이 흐르고 당산, 국사봉, 원수산, 전월산이 솟아 있어 강과 산에 얽힌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골짜기마다 또는 오래된 바위나 나무에도 전설이 깃들여 있다. 특히 이곳은 시대마다 커다란 전투가 벌어져 나라가 위급할 때 충(忠)과 의(義)로서 목숨을 바쳤던지, 부모님께 효(孝)로서 보답한 아름다운 역사적 인물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온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자연전설(自然傳說)과 인문전설(人文傳說)로 나누며 자연전설은 명산전설, 명당전설, 지명전설, 고개전설, 암석전설, 굴혈전설, 지소전설, 거목전설 등이 있고 인물전설에는 성곽전설, 사찰전설, 석불·석탑전설, 충·묘전설, 인물전설, 도깨비전설 등이 있다.

남면 전설에 소개되는 내용 중 위에 구분된 전설이 모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입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모아 모두 수록하였다.

제2절 남면의 전설

1. 전월산의 버드나무

남면 양화리에 있는 전월산에 오르면 용천이란 연못이 있다. 그 연못 근처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을 앞으로 하고 우뚝 솟은 전월산은 상봉에 있는 용천이 산 속으로 뚫려있어 금강까지 물이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무기가 금강에서 자라 용천까지 올라와서 백년을 기도하면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된다고 한다.

고려 초엽에 금강에서 맑게 자란 이무기가 승천을 위해 전월산 산 속 물줄기를 타고 용천까지 올라와 있었다. 넓은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세월을 보내던 이무기가 물줄기를 타고 전월산 안으로 올라오자 답답했다. 용천에 올라와서 물 밖에 몸을 내놓지 않고 앉아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무기가 용천에 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하늘에서 우렁찬 천둥소리가 들려오면 누군가 승천을 하는구나 하고 초조해지기도 했지만 이무기는 여유 있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고이는 듯하더니 전월산이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이무기는 아직 승천하기엔 이른데 웬일인가 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벼락치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더니 하늘의 한편이 흰해지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전월산의 파수병은 듣거라. 전월산의 그대는 승천하면 천궁을 지키는 파수병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승천할 때는 티끌 하나 없이 맑아야 하느니라. 또한 승천할 때는 산모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니 이점을 명심하거라.”

그로부터 몇 십 년이 흐른 후, 이번에는 더욱 큰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이무기에게 승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무기는 흙을 닦고 승천할 때를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물줄기가 내려왔다. 이무기는 그 물줄기를 올라탔다. 그런데 한참 승천을 하다 하늘의 중간쯤에서 물줄기가 멈추더니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

다. 이무기가 이상해서 하늘을 바라보자 이번에는 진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 바보 같은 놈아. 산모를 주의하라지 않았느냐. 건너 마을 반곡의 산모가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무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땅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다시 용천으로 떨어졌다.

이무기는 산모 때문에 승천을 못하고 용천에 떨어진 후 버드나무가 되었다. 버드나무가 된 이무기는 반곡 마을을 원망하는 듯 자라서 그쪽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버드나무가 자라서 반곡 마을이 보이자 이번에는 반곡 마을 아낙네들이 바람이 나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전월산의 버드나무가 자라서 반곡 마을에 보이게 되면 반곡 마을에선 여인네들이 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승천하려다 반곡 마을의 산모 때문에 좌절된 이무기의 심술 때문이었다.

반곡 마을 청년들은 밤이 되면 전월산에 올라가 이곳 마을 사람들 몰래 버드나무를 베어버리곤 했다 하는데, 전월산 아래인 남면 양화리 사람들은 승천을 위해 몇 백 년 동안 구도를 한 이무기의 한을 달래기 위해 버드나무를 베지 못하게 감시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연기실록, 금남면지



상려암과 부왕봉



용샘

2. 원수형제봉

연기군 남면 갈운리에는 뽕족한 봉우리가 둘인 산이 있다. 이 봉우리를 형제봉이라 부르는데, 그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옛날 이곳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과 아우는 한 동네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지만, 욕심 많은 형 때문에 그만 불화가 일어난 것이다.

형은 어떻게 하면 아우의 재산을 빼앗아 오나 궁리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때가 돌아왔다. 동생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형은 이때다 싶어 밤에 몰래 하인을 시켜 동생집 광에 있는 곡식과 물건을 훔쳐 오도록 하고자 미리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동생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멀리 친척집에 다녀올테니, 집안 단속 잘하라고 이르고는 집을 나섰다. 떠날 때 하인 둘만을 남기고 갔기에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쓸쓸했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다.

저녁때가 되어 두 하인은 주인 없는 집에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고 술을 얼근히 한 잔 하고 잠에 떨어졌다.

그때 복면을 한 서너 명의 그림자가 담을 넘어 들어와 대문을 열고 광에 있는 곡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하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니, 몇 명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락 달려들어 하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난데없이 날아온 몽둥이를 한 대 맞은 다른 하인은 재빠르게 담을 넘어 달려가 동생이 묵고 있는 주막까지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인들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집은 불타 버리고 하인은 마당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동생은 이것이 분명 자신의 형이 한 짓임을 알고 형의 집으로 몰려가자 형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싸움이 시작되었다.



원수산 형제봉

어느 큰 전쟁처럼 찌르고, 때리고 불지르고를 한참 했을까. 동생의 하인이 형의 하인들을 모두 죽이고 만세를 부르자 난데없이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번개가 치더니, 그곳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나 땅이 솟아나더니 두 개의 산 봉오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원수같은 형제가 싸우다 변한 것이라며 싸워 이긴 동생은 큰 봉오리, 형은 작은 봉오리라 하여 이곳을 원수형제봉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 연기대첩 연구

3. 질마산

연기군 남면 진의리 마을 뒷산은 그리 높지도 않지만, 산 정상에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산을 질마산이라 부르는데, 그 내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질마산

옛날도 아주 먼 옛날, 고려시대 중국 몽고족이 쳐들어와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몽고군들은 온갖 약탈과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 심각하였다.

들려오는 말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피신하였으며, 몽고군이 우리 연기에 까지 몰려오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벌써부터 겁을 먹고 피난을 가자는 이도 있고, 무슨 소리냐며 싸워야 한다는 이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 “싸우더라도 무슨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라는 의견도 있고, 몽고족은 잔인하여 부녀자들을 겁탈하여 죽이고 어린애와 노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죽인다고 떠들자 겁에 질려서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 “몽고족이 그렇게 잔인하다면 피난을 간들 살아나겠으며, 이왕 죽을 것이라면 죽도록 싸워 고려인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 역설하자 모두 박수를 쳤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지휘자가 되어 그날부터 뒷산에 올라 성을 보수하고 싸울 준비를 하였다.

부녀자들은 머리에 돌을 이고 나르고, 남자들은 지계에 돌을 짊어지고 날랐다. 밤이건 낮이건 열심히 준비하여 드디어 몽고족과 전투를 벌였다.

나라에서 지원한 병사들도 열심히 싸웠고, 동네 주민들은 짊어진 돌을 이용하여 적군에게 던지고 여자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 부으니, 성벽을 오르려는 적들은 꺾꺾꺾 꺾꺾 뛰며 도망치거나 또 돌에 맞아 죽은 이가 산을 이루었다.

승리는 고려에 돌아갔다. 주민들과 고려 병사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고, 주민들은 “우리가 열심히 질마질을 했으니, 승리에 보탬 것이여.” “그래. 아예 그 산을 질마산이라 부르자.” 그때부터 주민들은 그 산을 ‘질마산’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 연기대첩 연구

4. 고마니 고개

남면 나성리에는 고마니 고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왔을 때, 백제의 남자들은 모두 싸움터로 나가야만 했다. 이때 남면 나성리의 산비탈에 자리잡은 한 마을의 젊은이들도 싸움터로 나갔다.

그곳에는 다섯 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집에 아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외아들의 부락이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모이기만 하면 사냥을 하며 무예를 익혔다. 그들의 집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으므로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사냥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실컷 먹었고 겨울에는 털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추위를 피하곤 했다. 그런 어느 날 관원에서 싸움터로 나오라는 전갈



나성리 고마니 고개

을 받고 그들은 사냥을 나가듯 홀가분하게 싸움터로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마을은 쓸쓸하기 그지 없었다. 마을에 남은 부모들은 그들이 무예가 뛰어나 전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웅진 땅에 들러 장수들 앞에서 활을 쏘고 창칼을 휘둘러 무예의 솜씨를 보였다. 모두 무예가 뛰어나 장수에 발탁되어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움터로 흩어졌다. 한 사람은 웅진 방어에 소속되고 나머지는 사비성 쪽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였다. 나 · 당 연합군은 16만 대군이였다. 그들은 여기 저기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밀려드는 적에게 백제군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사들이 죽어나가 나중에는 싸울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싸운 그들은 모두 용감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마침내 의자왕이 항복을 하여 백제는 망했고 싸움이 끝났다.

마을에 남은 가족들은 싸움이 끝났으니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나고 삼 년이 지나도 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들이 용감하게 싸움터로 나가며 넘어가던 고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고개를 넘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자식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자 그 가족들이 한번 넘어가면 그만이다 해서 그 고개를 ‘고마니고개’ 라고 불렀다 한다.

이 마을 젊은이들이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한 것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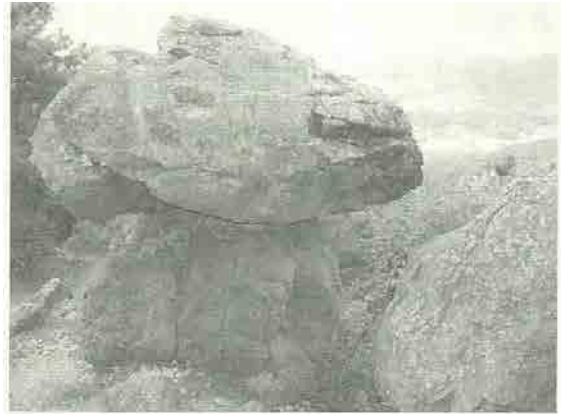
옛날에 여기에 사는 다섯 집의 조상들 중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혼이 이 고개에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들을 죽임으로 보복을 한 것이라고도 전한다. 힘있는 장사도, 무예가 뛰어난 장수도 대대로 원한을 품으면 어느 땐가 보복을 받는 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충남전설집 상권, 금남면지

5. 며느리바위(1)

남면 양화리 전월산 정상에 여인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며느리 바위’ 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장자소’ 라는 연못 옆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간에 곡식이 들어차도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다. 게다가 부자는 수시로 하인들을 감시하고 못살게 굴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의 마음씨 착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소작농의 딸로 태



며느리바위

어나 어렵게 컸지만 심성이 곱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아랫사람들에게 베풀며 집안 일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오다 민망한 일을 보고 말았다. 백발 노승이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들기며 시주할 것을 부탁했는데, 마침 대청에서 낮잠을 자던 시아버지가 일어나 마당에서 퇴비를 퍼담는 하인의 삽을 빼앗아 스님의 바람에 퇴비를 한 삽 떠서 넣어 주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뒤주에서 쌀을 한 되 떠내어 마을을 벗어나는 스님께 쫓아가 시주를 하고 시아버지의 용서를 빌었다.

스님은 며느리의 가특한 마음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일 모레 뒷산인 전월산 정상으로 올라가시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됩니다.” 하고 일러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며느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님이 알려준 그 날짜에 전월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중턱쯤 오르자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마을이 몹시 궁금했다. 마을에 비가 얼마나 오나, 시댁은 괜찮을까, 며느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스님의 당부 때문에 그냥 산을 오르고 있었다.

얼마쯤 산에 올랐을까. 며느리가 전월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 갑자기 시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자 마을은 물 속에 잠겨 바다처럼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뒤를 돌아본 며느리가 서서히 바위로 변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말을 거역하여 바위로 변해 우뚝

솟은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며느리 바위’ 라고 불렀으며, 그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지성으로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연기실록, 연기군지

6. 며느리바위(2)

남면 양화리 전월산에 며느리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책읽기를 좋아하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쌀독에 쌀이 있는지도 모르며 책을 읽었다. 그의 학문이 널리 조정까지 알려져 그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정사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 대신들이 모여 진지하게 회의를 해도 그는 남의 얘기를 듣거나 임금에게 도학이나 강론할 뿐 현실을 몰랐다. 그러다가 그는 사화에 휩쓸려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다. 그는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다.

선비가 죽자 아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골말’로 내려와 길쌈을 하며 지냈다. 아내가 짜는 명주나 모시는 품질이 좋아 장에 들고 가기가 무섭게 팔렸다. 아내는 길쌈을 하는 틈틈이 밭을 일구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글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했다. 아들은 장성했으나 역적의 자식이라 과거에 응할 수 없어 서원에 나가 남을 가르쳤다.

어느 날 역적의 누명이 벗겨지고 아들이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아들은 왕자를 가르치는 벼슬을 하게 되었다. 아들은 기뻐했지만 어머니는 웬지 한양에 보내기가 싫었다.

어머니는 건너 마을에 사는 고려시대 때 명신의 후예와 혼인을 시켰다. 아들이 장가들면 한양에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서둘러 혼인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혼인한 그 이튿날 쪽지를 써놓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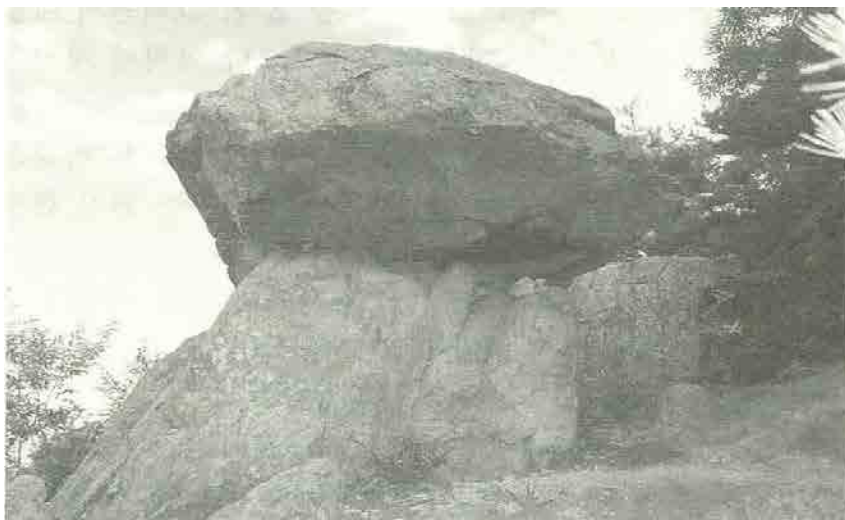
어머니는 아들이 떠났어도 며느리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길쌈을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어머니가 야단

을 쳐도 며느리는 극구 길쌈을 하였다. 며느리가 길쌈을 하자 친정 집에서 어떻게 키운 딸인데 길쌈을 하게 하냐고 야단이였다. 그러나 며느리가 나서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친정 집과 절교를 하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후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마을에 금부도사의 행차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졸들이 그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며느리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기고 “천하의 역적을 둔 어미와 처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하고 호통을 쳤다. 어머니가 이유나 알고 죽자고 말하자 금부도사가 “아들이 임금님이 옳은 일을 하려는데 임금님께 반대하는 언행을 함은 물론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장한 아들이구나. 어찌 그리도 장한 일을 하였나. 옳고 나쁜 것을 잘 가리는 아들이라 바른말을 했구나.” 하고 사약을 마셨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자 며느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약을 받아 마시고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죽었다.

그 후 선비의 집안은 대가 끊어졌고,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전월산 기슭에 바위가 솟아 올라왔다. 이 바위는 부녀자가 명주를 짜는 형국인데 큰 바위가 더 큰 바위를 엮고있는 모양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추켜세우고 있다 하여 ‘며느리 바위’ 라고 불리었다 한다.

참고문헌 : 우리고장 이야기



며느리바위

7. 상여(想麗)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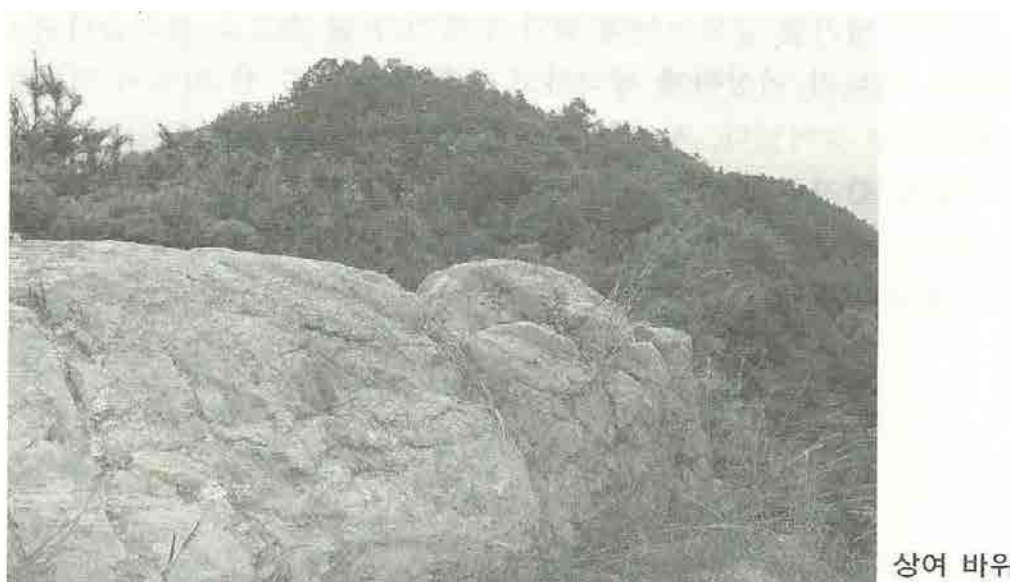
남면 양화리 전월산에 ‘상려암’ 또는 ‘상여바위’ 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임난수라는 장군이 전월산으로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는 성품이 어질고 학식과 덕망이 높아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그는 고려에 대한 충심으로 이곳까지 내려와 은둔생활을 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움막을 짓고 산초와 풀뿌리로 연명하며 나라를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살았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월산을 한바퀴 돌며 망한 고려를 생각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전월산을 돌다가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그 바위는 위가 평탄했지만 밑에는 천길 벼랑이라 앞이 확 트였다. 그는 그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북쪽을 바라보며 망한 고려를 생각했다.

이윽고 세월이 흘러 그는 노환으로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그후 사람들은 그가 고려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극하다하여 그 바위를 ‘상려암’ 또는 ‘상여바위’ 라고 불렀다 한다.

참고문헌 : 금남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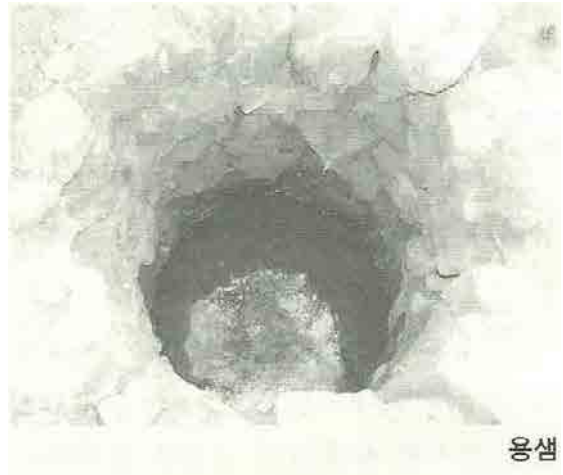


상여 바위

8. 전월산의 용샘

남면 양화리 전월산 위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용샘’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 가난한 집의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씨가 고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이 자자했다. 그녀의 집은 어쩌나 가난한지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을



용샘

정도였다. 게다가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처녀가 나이가 들어 출가할 때가 되자 얼굴에 딱지가 나서 흉하게 되었다. 처녀의 부모는 그것을 보고 나날이 시름에 잠겼다. 가난한 집의 딸이라 마땅한 곳에 시집을 보내기도 어려운데 얼굴이 곰보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처녀가 그 샘으로 가서 머리에 감았던 땀기를 풀어놓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물이 차고 부드러운 것이었다. 처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다음 다시 땀기를 매려다 샘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곰보였던 자신의 얼굴이 감쪽같이 깨끗해진 것이다. 처녀는 너무도 감동하여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때 머리에 올려진 땀기가 샘에 떨어졌다. 처녀가 땀기를 잡으려는데 갑자기 땀기가 물 속으로 빨려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처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처녀가 빠뜨린 땀기가 물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던 용의 가슴을 간지럽게 하여 용이 승천을 한 것이다.

그 후 처녀는 좋은 집으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이 샘을 ‘용샘’이라고 불렀다 한다.

참고문헌 : 금남면지

9. 양화리의 은행나무

남면 양화리 마을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려말에 충신인 임난수 장군이 고려가 망하자 이곳으로 와서 은둔하며 지내다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두 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어느 날 마음씨 나쁜 방물장수가 마을에 들어와 이곳에 말을 매어놓고 빈집마다 들어가 물건을 훔쳐내기 시작했다. 물건을 가득 훔친 방물장수가 말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말에 벼락이 떨어져 말이 죽고 나뭇가지 하나가 툭 부러져 내렸다.

그 후로 이 나무는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울음소리를 내며 가지가 하나씩 부러져 내렸다고 한다. 일제시대 왜놈들이 나무를 베려고 할 때도 벼락이 쳤고, 6·25때도 나무가 웅웅 울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 두 나무를 충청남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참고문헌 : 남면지



송모각과 은행나무

10. 나성리 석불

남면 나성리에는 커다란 돌부처가 있는데, 이 돌부처에 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두지 못하여 대가 끊길 것을 생각하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백발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달래서 후히 대접하고 가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노승이 그 돌부처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며 정성껏 예불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부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한 달 동안 예불을 드리자, 어느 날 저녁 그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그대들의 지성이 지극해서 아들을 짐지하니 잘 길러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날 찾아라.” 라고 인자한 얼굴로 말하였다. 그 꿈을 꾸 뒤로 태기가 있더니 십여 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 아기가 자라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국가에서 소집하여 전장에 나가서도 부처님께서 보호하는 은덕으로 늘 이겼고 자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나성리 석불

그런데 단란하게 살던 노부부가 모두 병으로 죽게 될 처지가 되었다. 지난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라.” 라는 꿈에서 본 부처님을 회상하고 아들에게 그 말을 하였더니 아들은 곧 거기로 가서 부모님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내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보면 둥근 바위가 있는데 그 밑의 큰 더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서 부모님께 달여드리면 병이 곧 나을 것이다. 만일 내일이 지나면 그 더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니 날짜를 어기지 말라.’ 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들이 산에 올라가 바위 밑을 보니 정말로 거기에 커다란 더덕이 있었다. 아들이 그것을 캐어 부모님께 달여드리자 곧 완쾌되었다.

그런데 이웃 마을의 어느 불효자가 신기하게 병이 나은 것을 이상히 여겨 연유를 묻자 그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자기만 못한 사람을 멸시하기 일쑤였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소원 성취한다는 말에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부모님이 병으로 누워있는데 돈이 없어 좋은 약을 사

드리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여러 날 예불로 너의 뜻을 알았다.

그처럼 돈이 필요하다면 내일 일찍 산에 가서 둥근 바위 밑을 파보면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불효자는 부모님께 약을 사드리겠다고 거짓 사례하고 다음날 바위 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매일 주색에 빠져 부모의 병을 방치한 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웃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어서 돈을 빌려 달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방에 둔 돈이 뱀으로 변해서 그 불효자의 몸을 칭칭 감더니 죽이고 말았다.

부처님은 예불을 드린다고 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며, 옳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한다. 지금도 나성리 주민들은 그 석불의 영험함을 믿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연기실록

제4장 연기군 남면의 관련 옛 시(詩)

• 윤기- 원수산

말 멈추고 서쪽으로 연기산(燕岐山) 바라보니,
 뜬구름 아지랑이 빛이 어이 그리 푸르른고.
 길가는 나그네 탄식하면서 가다 다시 멈추되,
 이곳은 지난 날 큰 싸움터라네.
 적의 기병(騎兵) 올 때에 몇 만이나 되었던고,
 공중을 덮은 깃발 구름이 휘날리듯.
 처음에 강동(江東)으로부터 사방을 노략하니,
 한번만 지나가면 폐허(廢墟)로 변하였다.
 영웅임을 자랑하고 힘을 믿고 이 땅에 주둔할 때,
 기세도赫赫(赫赫)하다. 누가 감히 당하라.
 장막 안의 미인(美人)은 절세의 일색(一色)이요.
 수레 안의 금과 비단 사방 것을 탈취했네.
 마음대로 탐락(耽樂)해도 오히려 부족하여,
 만 마리 소를 삶고 천 마리 양을 잡았네.
 황금 병 백옥잔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흥도 길었다.
 천병(天兵 : 원나라 군사)이 한 번 오매 모두 무너져 버렸나니,
 큰 수레바퀴가 범아재비(螳) 누르듯이.
 우습도다, 구구(區區)한 무리 제 힘 생각 못했다가
 계책 이미 다하여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네.
 우리 임금님의 은덕과 공업(功業) 천지와 짝하여
 앞서서 온 사해에 농상(農桑)을 부성(富盛)하게 하니,
 민간인은 화평하여 함께 생업을 즐기고
 장사꾼과 나그네도 양식 싸가지고 갈 필요가 없네.
 어리석은 선비 다행하게도 성대(聖代)를 만나서

중천의 일월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
 다니면서 성군(聖君)의 덕을 노래하고 성군의 만수무강을 비노니,
 원하건대 우리 임금 만세(萬歲)에 장수하시고 창성(昌盛)하소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산천조-원수산)

• 인재(寅齋) 신개(申개) - 연희루(燕喜樓)

| | |
|---------|-------------------------------|
| 十載重登百尺樓 | 10년 만에 또다시 백 척 다락에 오르니, |
| 世情人事水流 | 세정(世情)과 인사(人事)는 물처럼 급히 흐르는구나. |
| 獨隣元師靑山色 | 홀로 어여빠라, 원수(元帥)의 푸른 산빛만이 |
| 萬古興亡只 留 | 만고(萬古)의 흥망에도 이렇게 남았구나 |

| | |
|---------|------------------------------|
| 含盞轉覺此心寬 | 한잔 술에 이 마음이 한결 더 너그러워짐을 |
| | 깨달았더니, |
| 把鏡還羞久客顏 | 거울을 들여다보니 오랫동안 객지에 산 얼굴이 |
| | 도리어 부끄럽구나. |
| 不用更登樓上望 | 다시 다락에 올라서 조망할 필요 없으니, |
| 北來何恨有雲山 | 북으로 구름 덮인 산이 있으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 |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누정조
 - 연희루, 연기지 제영조, 조선환여승람 연기 누정조)

※ 신 개 (申??, 1374(공민왕 23)~1446(세종 28))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격(子格), 호는 인재(寅齋)이다. 종부시령(宗簿寺令) 신안(申晏)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임세정(任世正)의 딸이다.

1390년(공양왕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393년(태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태조가 실록을 보자고 할 때 그 불가함을 강

력히 논하였다.

이어 감찰 · 문하습유(門下拾遺)좌정언 · 형조좌랑 · 호조좌랑을 거쳐 충청도 도사로 나갔다가 다시 헌납 · 이조정랑 · 사인(舍人) · 예문관제학 ·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등을 역임하고, 1413년(태종 13)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발탁되는 동시에 춘추관편수관 · 지제조(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주장한 의정부서사제도(議政府署事制度)의 폐지는 다음해에 실현되었다. 그 뒤 예조참의 · 병조참의 · 충청도관찰사 · 한성부윤을 역임하고 1417년에 공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이해에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즉위 후 전라도 · 경상도 · 황해도의 도관찰사를 역임하고 형조참판 · 진주목사 · 우군총제 · 좌군총제 · 예문관대제학 · 전라도관찰사 ·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 ·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야인이 자주 변경을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히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야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 해 이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라 지춘추관사를 겸임하면서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고, 1436년에 찬성으로 승진하여 세자이사(世子貳師) · 집현전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439년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1442년에는 감춘추관사로 권제(權#제51) 등과 더불어 편찬한 《고려사》를 올렸다. 1444년에 궤장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공법(貢法) · 축성(築城) 등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은 이를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저서로 《인재문집》이 있다.

• 서거정(徐居正) - 수입금강명(水入錦江明)

| | |
|-------|-------------------------|
| 龜嶺行多險 | 귀령(龜嶺) 넘어 갈 땐 험하기도 하더니, |
| 燕岐路自平 | 연기(燕岐) 땅 들어서니 길도 평탄하구나. |
| 山連鷄岫翠 | 산은 멀리 계룡산을 연해 푸르고, |
| 水入錦江明 | 물은 금강에 들어와 맑구나. |

| | |
|-------|----------------------|
| 有容頻來往 | 오가는 손들이 저다지 빈번하니, |
| 何時了送迎 | 보내고 맞는 일 어느 때 끝이 나라. |
| 淒涼孤 夜 | 처량한 외로운 객관의 밤에, |
| 惱殺遠遊情 | 멀리 다니는 손의 심정이 산란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제영조, 연기지 제영조, 조선환여승람 제영조)

• 독락정(獨樂亭) - 서거정(徐居正)

①

| | |
|-------------|--|
| 三江別野 + 土是青氈 | 금강의 별장이 선조의 유업이라 |
| 家世相傳又此賢 | 집안 대대로 전하여 옴에 또 어진 자손이 더러 뜻을 이어 받았고 |
| 獨樂風流溫國後 | 독락정의 풍치는 사마온공의 뜻을 이어받았고 |
| 一區圖畫輞川前 | 일구의 그림같은 경치는 왕마일의 마천도보다 좋더라. |
| 青連鷄岳山無數 | 계룡산으로 이어지는 산봉우리 다 헤아릴 수 없고 |
| 白接熊津水不邊 | 웅진나루로 흘러가는 물줄기, 그 끝이 없어라 |
| 好作林泉眞宰相 | 산중의 참다운 재상이 될 수 있으니 |
| 爲君長詠去來編 | 그대를 위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오래도록 읊겠네 |

②

| | |
|---------|------------------------------------|
| 少年聲價孰如君 | 소년의 성가(聲價)가 누가 그대에 비기리. |
| 脚底平看萬里雲 | 그 다리 아래 만리의 청운(靑雲)이 길이 평평히 보였네. |
| 暫屈朝班還舊隱 | 잠깐 조정에 나왔다가 옛 고장 다시 찾고 |
| 更從榮宦策高勳 | 또다시 영화로운 벼슬에 높은 공훈 이루었다. |
| 功名造物眞如戲 | 공명이란 참으로 조물주의 작희(作戲)런가. |
| 出處南兒未易論 | 남아의 출처(出處)를 어찌 쉽사리 논하리오. |

却恐鳴騶催上道
北山遠鶴更移文

말방을 울리며 길을 재촉하니
북산(北山)의 원학(遠鶴)이 다시 이문(移文)할까
두렵도다.

③

名園直壓錦江低
我昔相尋路自迷
何氏林亭知最勝
杜陵桐葉不曾題
膏車恨未從盤谷
雪艇終順訪剡溪
莫遣藏湍仍斂霧
似聞桃李已成蹊

이름난 동산이 저 금강을 눌러 나직하게 있는데
옛날에 내가 찾으려다 길을 몰랐네
하씨(何氏)의 임정(林亭)이 가장 좋은 줄 알았어도
두릉(杜陵)이 오동잎에 시를 쓰지 못하였네
수레에 기름칠 해 반곡(盤谷)에 따르지 못하니
눈 속에 배를 저어 마침내 각계를 찾으리
여울물 감추고 안개 거두지 말라.
도이(桃李)나무 밑에 이미 길이 났다고 들었노라.

(신증동국여지승람-공주목)

• 독락정별기(獨樂亭別記) - 임재무

惟我十二世祖保安伯諱淑有三子仲爲我先而將軍公其季也公
以麗季勳臣革除後屏遯于三江上優遊十六年而後
沒自守其身有如圃治之賢其幽堂之誌神道之銘有足徵焉不佞
曾有所受於家庭世傳之語公山三岐合江下有亭獨
樂者是公別墅也舊說又曰國家褒賞節義 命賜江山又
賜廟額曰林氏家廟使中軍摠制申檣題其額四字至今如
新然此亭之築必在於公之屏遯日也距今三百有於餘年而巖然獨存
於遺址者豈代有修葺而然歟吁亭之記文中有以
此亭爲公之胤府使公所築者阿也公受 賜江山名亭獨樂者其志亦
有寓焉夫如是則府使公繼其遺躅而肯溝之者
歟不佞以公之傍孫景仰節義有倍他人願一登臨者雅矣??官纏

身恨末遂計今年夏來鎮西州去亭不過果腹地乃於
 閏七月既望瞻拜公之廟仍上此亭江山風物宛然猶舊使人
 有興感而起者矣於是燕公兩邑宗人咸以序集同席叙族
 幾數百人也公之種德之厚吁亦盛矣于時宗人皆囑余曰子
 既同宗而工於篆盍以揭其額耶余不敢以筆拙辭遂書之因
 記聞見事蹟如右云

崇禎後再庚寅仲秋下浣

洪陽營將林再茂記

〈역 문〉

나의 十二代祖保安伯諱淑은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 仲子는 나의 先祖요
 장군(전서공은) 그망내시다. 공은 고려말 훈신으로 조선 太祖혁명후에 삼강상에
 자취를 감추어 덧없이 지내기 十六年만에 돌아 가셨으나 그 몸을 스스로 지키심
 이 포은(정몽주) 야은(길재)의 어지심과 같았으니 그 묘소의 지문과 신도비문으
 로 족히 증거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가정에서 대소로 전해 오는 말을 들은바 있는데 공산 삼기 합강 아
 래(독락정)이라는亭子가 있으니 이는 공(전서공)의 농막이라
 구설에 또 이르되 국가에서 절의를 포창하여 王命으로 강산을 사패하고 또 가묘
 액호를 사액하여 가로되

林氏家廟라 하고 중군 총재 申檣으로 하여금 그 額號를 쓰게한바 그 四字 가 지
 금도 새것과 같다.

그러나 이 정자를 지은것은 반드시 전서공께서 은거하실 당시 일 것이다.

지금에 삼백년이 지났는데도 높다랗게 홀로 유지에 우뚝 서 있으니 어찌대소로
 수리하여 그런 것인가.

아아!! 정자의 기문중에 이 정자가 공의아들 부사공이 지었다고 한 것은 무엇인
 가?

(전서공이) 강산을 사패받고 정자 이름을 독락이라 하였으니 그 뜻을 또한 부친
 것이리.

무릇 이와 같은 즉 부사공이 그 유축을 이어받아 장자를 지은 것인저.

내가 典書公의 방손으로서 절의를 울어러 삼모함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
 여 한번 올라가 보고자 원한것이 오래 되었으나 관직에 매인 몸으로 뜻을 이루

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드니 금년 여름에 西州營將으로 와서 정자하지 거리가 바로 구부리면 닿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비로소 윤철월 보름이 넘어 바라든 公의 사당을 참배하고 이 정자에 오르나 보나 강사의 풍물이 완연히 옛과 같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였다.
 이에 연기 공주 兩邑 宗人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族饗를 닦으니 수백인이 되었다.
 공이 쌓은 덕이 두터움이 또한 성하도다?
 이때 공인이 모두 나에게 청하기를 그대가 同家으로 종서에 숨씨가 있으니 어찌 그 懸額을 게시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내 감히 문필이 졸렬하다고 사양치 못하고 마침내 이제까지 듣고 본바 사적을 우와같이 이르노라

• **독락정(獨樂亭) - 임중(林重)**

| | |
|---------|--|
| 十載經營屋數椽 | 십년을 경영하여 집 몇 칸을 지었고나 |
| 錦江之上月峯前 | 금강의 위요, 월봉의 앞이로다 |
| 桃花 露江浮水 | 복숭아꽃은 이슬에 젖어 강물에 붉게 뜨고 |
| 柳絮飄風白滿船 | 버들가지는 바람에 나부껴 배에 희도다 |
| 石逕歸僧山影外 | 돌길에 돌아가는 스님 산그림자에 비치고 |
| 烟沙眠鷺雨聲邊 | 연기 낀 모래밭에 자우는 회오리 빗소리에 놀래도다 |
| 若令摩詰遊於此 | 만약 마힐(摩詰,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 王維의 자)이 이곳에 놀았다면 |
| 不必當年畫輞川 | 당년에 반드시 망천(輞川, 중국 섬서성에 있는 강)만을 그리지 않았으리.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

• **최립(崔岏) - 독락팔영(獨樂八詠)**

① 원포권장 (원포에서 넘치는 물을 봄)
 流止皆天機 물이 흐르고 그치는 것이 모두 하늘의 조화로 됨이니,

漲來亦發越 넘쳐 오는 것도 역시 그 조화 속에서 발함이로다.
 川觀卽觀海 냇물을 보는 것이 즉 바다를 보는 것과 같으니
 小大非吾設 작고 큰 것은 내가 말함이 아니로다

② 層磯酌魚 (층돌에서 고기를 낚음)

不應心在魚 마음이 응당 고기에 있지 않은데
 何事老於釣 무슨 일로 낚시에서 늙는고,
 自結自鷗盟 스스로 백구의 맹세를 맺노니
 暮歸來復早 저물게 돌아옴이 다시 이르도다.

③ 文殊春事 (문수사의 봄일)

文殊傾社去 문수사로 서사(書社)의 제생들이 다 올라가니,
 春服旣成時 봄옷이 이미 이루어진 때로다
 採愁春損 나물을 채취함에 봄빛이 손상될까 근심했더니
 新芳夜又肥 새로 꽃다운 싹이 밤에 또 돌아났도다.

④ 蒼岩秋氣 (푸른 바위와 가을 기운)

蒼岩與秋氣 푸른 바위와 가을 기운이
 借問是誰高 빌어 묻노니 어느 것이 더 높을고.
 白首人不語 흰머리의 늙은이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
 一聲長嘯豪 긴 휘파람의 한 소리 호걸스럽도다.

⑤ 石潭明月(돌 못에 밝은 달)

潭空眞一鑑 빈 못은 참으로 한 거울이 열렸는데
 更有月來照 달빛이 또 와서 비치도다.
 與足莫相憐 흥이 남에 서로 어엿비 여기지 말라.
 潭中月漸杳 못 속에 달이 점점 아득이 보이도다.

⑥ 瓦灘顛風(와탄의 어지러운 바람)

顛風作作惡 어지러운 바람이 갑자기 사납게 부니

| | |
|-------|---------------------|
| 灘淺愁舟閣 | 얕은 여울에 배 띄움이 걱정이로다. |
| 剛彼早物兒 | 강하게 조물아의 희롱을 입었으되 |
| 戲人人不覺 |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다. |

⑦ 倉坪雨後(창평의 비온 뒤)

| | |
|-------|-----------------------|
| 農家得雨喜 | 농가에 비를 얻어 기뻐하니 |
| 滿野叱牛耕 | 들판에 가득히 소를 몰아 밭을 갈도다. |
| 草色亦何事 | 풀빛이 또한 어떠한고 |
| 幽人空復情 | 그윽한 사람이 부질없이 정을 두도다 |

⑧ 鷄岳春晴(계약에서 봄이 개입)

| | |
|-------|--------------------------|
| 雲空天似鏡 | 구름이 걷히니 하늘은 거울같고 |
| 岳古雪爲眉 | 피부리는 옛이니 쇠잔한 눈이 눈썹이 되도다. |
| 相對又歲暮 | 서로 대함에 또 어느덧 해가 저르니 |
| 溪翁耶得衰 | 시냇가 늙은이가 어찌 쇠로하랴? |

최립의 「簡易堂集」-公山錄

※ **최립**(崔笠, 1539~1612)은 자는 입지, 호는 간역·동고이고, 본관은 개성으로 진사 자양의 아들이다. 이이의 문인이며, 1555(명종 10)에 진사, 1561년 식년 문과에 장원하여 외직을 거쳐 1577(선조 10)에는 주청사의 질정관으로 명에 다녀왔다. 그 후 1581년, 1594년에도 명에 다녀왔다. 1592년 공주목사를 거쳐 1593년에는 공주부윤을 지낸 뒤 승문원 제조가 되었다.

간송(礪松) 장홍진(張弘鎭)

• 당수청람(唐岫晴嵐)

天晴唐山暖生嵐
草樹依依翠共含
非烟非霧渾如靄

一扶青山氣更添
(연기지 제영조)

맑게 개인 당산에 따뜻하게 바람이 이는데
산천초목이 다같이 푸르름을 머금고 있구나.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아지랑이가 다함께
어우러지니
한가닥 청산이 기운을 더하고 있네.

성주노(成周老)

• 당수청람(唐岫晴嵐)

江雨初晴滴翠嵐
連峰層石碧於藍
燕南歸客彷徨久
戰地腥塵一夢酌
(연기지 제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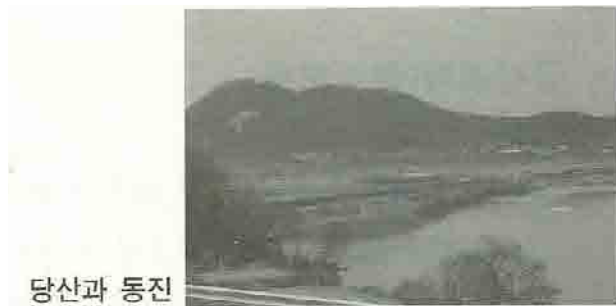
강에 뿌리던 비가 개이고 푸르른 기운이 한결 짙은데
연이은 봉우리에 층층 바위는 쪽빛보다 더 푸르르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방황한지 오래인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꿈속에 아롱거리는구나

우재(友齋) 장기정(張基定)

• 당수청람(唐岫晴嵐)

連峰西畔鳳崗南
唐山晴天倒滴崗
浮沈塵埃山更好
空 眼碧○○
(연기지 제영조)

연봉의 서쪽 기슭 봉암고개 남쪽에는
당산 위 개인 하늘에 푸르름이 드리우고
부침하는 풍진 속에서도 산이 더욱 아름다우니
하늘에 출렁이는 푸른 담요 같구나.



당산과 동진

화석 김영채(華石 金永采)

• 금강귀범(錦江歸帆)

江亭楊柳綠依依
數曲漁歌一帆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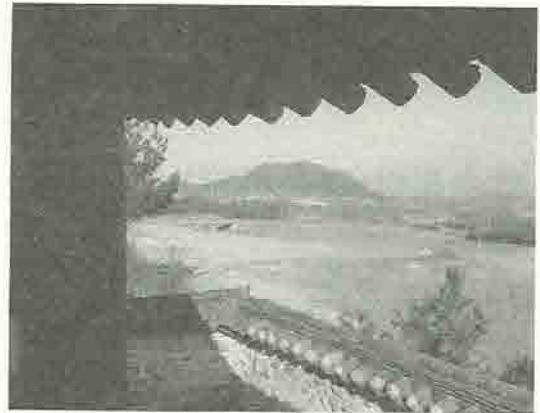
遣世飄如天上坐
要津風雨不侵依
(연기지 제영조)

강가 정자에 버드가지 푸르렀는데,
어부의 노래 소리 몇 곡조 들리더니 돛단배 하나
외로이 돌아오네.

속세를 떠나 표연히 하늘 위에 앉으니
나루터 비바람이 옷자락을 못 적시네.



금강



독락정에서 바라본 금강

용은(龍隱) 임병수(林炳琇)

• 금강귀범(錦江歸帆)

日送孫帆錦浦歸
檣鳥詩與渚飛 丘+鳥

炯波十里滄茫外
一曲漁歌美夕輝
(연기지 제영조)

해 저무니 배 한 척 강 포구에 돌아오는데,
때마침 까마귀 한 마리 돛대 위에 앉으니 물가에
갈매기 놀래어 나른다.

물결 십리 아득한 강물 밖에
어부가 한 가닥 고운 석양에 빛나네.

난계(蘭溪) 장일환(張日煥)

• 금강귀범(錦江歸帆)

紅漸瘦時綠漸肥
錦江春色正芳菲
堪令手模眞景
立立群帆帶月歸
(연기지 제영조)

붉은 꽃이 시드니 푸른빛이 길어져서
금강의 봄기운에 방초가 푸르르네.
영을 받은 화공이 진경을 그려내
돛을 단 배들이 달빛 안고 돌아온다.

모계 장세진(張世鎭)

• 동진어화(東津漁火)

茫蘆枯荻藝爲漁
水底光明易看魚
潛伏雖昭休捉鯉
此鱗最愛好傳書
(연기지 제영조)

갈대와 마른 풀로 햇불 놓아 고기 잡으니
물 속까지 밝게 보여 고기 잡기 용이하다.
그러나 잠복해서 있다 해도 잉어를 잡지 말아라.
이 잉어는 좋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당운(唐雲) 하천해(河天海)

• 동진어화(東津漁火)

東進自古野人居
近水生涯太平漁
對火慙慙招伴語
秋來風雨夜多魚

동진에는 자고로 야인이 살면서
물가에서 일생을 고기 잡아 꾸려간다.
불을 마주보며 은근히 속삭이는 말
가을이 오면 비바람 부는 밤에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네

(연기지 제영조)

기운 장기항(張基恒)

• 동진어화(東津漁火)

一帶長江十里餘
野人清趣癖於漁
第看月落汀空夜
炬火縱橫星火如
(연기지 제영조)

한줄기 긴 강이 십리 넘어 흐르는데,
야인의 맑은 취미 고기잡이 버릇일세.
달 떨어진 물가에는 밤이 이슬한데,
출렁이는 횃불 빛이 달빛과도 같구나.

• 팔경시(八景詩)

登臨唐岫翠嵐晴
更有挾山麗古城
月白砧園秋杵亂
雲深碑寺曉鍾鳴
賈帆錦水風千里
漁火東津笛數聲

莫道五峰殘照斂
龍塘巖上別遊晴

당산에 오르니 푸르스름한 람기에도 날씨는 맑은데
산 위에는 옛 성터 자리를 잡고 있네.
가을달 밝은 밤에 다듬이 소리 요란한데
구름 깊은 비암사 새벽종이 울리는구나.
금강에 돛단배 바람은 천리나 나부끼고
동진에 고기잡이배 등불이 깜박이고 피리부는
소리만 여기저기 들려오네.
오봉산 저녁 노을 걷힌다고 말하지 말라.
용당바위 위에 놀기 좋게 개어 있네(연기지 제영조)

금사(錦史) 임병두(林炳斗)

• 팔경시(八景詩)

夕照峰前烟一蓑
奇巖塘畔露雙靴
天晴歸帆遠水落
砧山秋月多羅寺
疎鍾曉雲出麗城

古堞暮禽過嵐擬

唐山清如許嵐氣
漁火東津興若何

(연기지 제영조)

석양 노을진 봉우리에 저녁 연기 둘러 있고.
연못가 멧진 바위는 한 켤레 신발처럼 드러나 있네
맑은 하늘 금강포구에 돛단배 돌아오고
나뭇잎 떨어진 침산에는 가을달만이 비치우네.
신라 옛 절에서 울려나오는 새벽 종소리는 구름
속에서 퍼져 나오고
고려 옛 성의 담장 위에는 돌아오는 새의 발길이
바쁘더라
람기 어린 당산은 맑기도 하구나.
고기잡이 배 돌아오는 나루에는 흥타령이 절로
나오네.

이병연(李秉延)

• 제언(提言)

긴 방죽을 새로 축성(築城)하였으니,
마치 이것은 진시황의 만리장성인 듯 하네.
자연히 물 걱정이 없어지니,
연기 백성 편안하게 농사짓겠네.

(조선환여승람, 연기산천조)

회산(晦山) 유인학(柳寅鶴)

• 연기팔경(燕岐八景)

황혼녘 붉은 물결 위로 밝은 달이 나오니,
연기의 사방에 환한 빛이 깃들었네.
먼 산은 아득히 푸른빛을 띠고
황량한 절의 종소리는 옛 왕국의 소리처럼 들려오네.
고기잡이 배 등불이 강의 좌우를 비추고,
용당기암과 고려 잔곽은 험준하네.
연기의 팔경은 붓끝에 쌓이건만,
이 모두에 시인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네.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탄수(灘) 임영철(林營喆)

• 연기팔경(燕岐八景)

오봉의 석양이 빛나는 것을 잠시 보니
침산의 가을달은 새로운 영을 비추네.
비암사의 종소리는 새벽의 노래를 부르고
고려시대 성에는 두견새 소리 쓸쓸하네.
용당을 품은 바위에는 어수리풀이 자라나니
아지랑이 개인 당산은 돌연꽃이런가.
동진의 고기잡이배와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

(조선환여승람, 연기 형승조)

• 정약용- 연기 지방을 지나면서[燕岐途中作]

燕岐途中作 연기 지방을 지나면서

| | |
|-------|-------------------|
| 始識前冬煖 | 지난 겨울 포근함 처음 느끼니 |
| 殊非二月天 | 아무래도 이월의 날씨 아닐레 |
| 麥芒隨地白 | 보리이삭 곳곳에 돌아 허영고 |
| 花氣滿山燃 | 꽃기운은 온 산에 불이 붙은 듯 |
| 劉向心徒苦 | 유향이 마음쓴 일 고달팠을 뿐 |
| 京房學未傳 | 경방이 닦은 학문 아니 전하네 |
| 乾坤含淑景 | 천지가 맑은 빛을 한껏 머금어 |
| 應是有年 | 그야 물론 풍년이 있을 거구만 |

• 비가십수(悲歌十首)- 이정환

一首

| | |
|-------------|-----------------------------|
| 半夜獨起坐 消魂問孤夢 | 한밤중에 홀로 일어 묻노라 이 내 꿈아 |
| 萬里遼東路 能得片時廻 | 만리 요동을 어느덧 다녀온고 |
| 鶴駕先容近 依 如面拜 | 반갑다 학가선용(鶴駕先容)을 친히 뵈 듯 하여라. |

二首

| | |
|-------------|-------------------------------|
| 風雪交紛日 爲問北來使 | 풍설(風雪)이 뒤섞인 날에 묻노라 북쪽에서 온 사자여 |
| 小海容顏苦 幾多耐嚴寒 |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고 |
| 故國孤臣在 未死但淚垂 | 고국(故國)에서 못죽는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 하노라 |

三首

| | |
|-------------|-------------------------------|
| 候生今已沒 誰得說項王 | 후생(候生)이 죽은 후에 항왕(項王)을 누가 달래리오 |
| 楚軍三年餘 苦已備嘗 | 금군(楚軍)이 삼년에 간고(艱苦)도 그칠 이 없다 |
| 何時明漢日 能使太公歸 | 언제나 한일(漢日)이 밝아 태공(太公)을 오게 하리오 |

四首

| | |
|-------------|-------------------------------------|
| 堤上死已久 無人解主憂 | 박제상(朴堤上)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아는 이가 없도다. |
| 異域春宮遠 誰謀得脫還 | 이역춘궁(異域春宮)을 누가 모셔 오리오. |

至今 述嶺 無限悼歸魂

지금의 치술령귀혼(述嶺歸魂)을 못내 슬퍼하노라.

五首

回望 邱上 可憐衛國人
歲月空屢逝 葛節已蔓延
身上孤 弊 無人補綻縫

모구(邱)를 돌아보니 위(衛)나라 사람이 가없도다.
세월이 잘도 가니 칩줄기 길기도 하여라.
이 한 몸 헤어진 옷을 꿰메줄 사람 없도다.

六首

企望大朝上 武臣足且多
辛苦和親意 不知仗以誰
趙厥今已死 未見參乘者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많도다.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은 누구를 두고 한 것인고.
조궐(趙厥)이 이미 죽었으니 참승(參乘)할 리 없도다

七首

九重明月夜 聖廬想應多
異域風霜苦 那忘鶴駕遙
此外億萬命 未遑蒼生憂

구중(九重) 달 밝은 밤에 성려(聖廬)일 정 많으려니
이역풍상(異域風霜)의 학가(鶴駕) 고달픔을 어찌
잊으리오.
이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이 못내 시름겨워 하노라

八首

陂鋤有 楚 自長春雨餘
其性本無知 是亦最良圖
我生不知汝 豈堪多憂虞

구렁에 돌아난 풀이 봄비에 절로 자라
풀은 애통함을 알 리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니 시름겨워 하노라.

九首

渺然一身在 飄零天一涯
遙隔五雲深 何處是長安
隨風如轉蓬 不知有歸路

조그마한 이 한 몸 이 하늘가에 떨어져서
오색 구름 깊었으니 어느 곳이 장안인고
바람 따라 다니는 쭉이 갈 길 몰라 하노라.

十首

寄語癡孩者 慎莫且多談

이것아 어린것아 잔말 마라.

漆室悲歌意 不知悼者誰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누가 슬퍼하리오
須把一盃酒 聊以解窮愁 한잔 술에 이 시름을 풀까 하노라.

題歌感懷(십수를 지은 감회)

吟罷十歌後 십수를 불러 마치나
誰憐未死臣 누가 죽지 못한 臣을 어여삐 여길고
自歌還且和 스스로 읊고 스스로 화답하니
不覺淚沾巾 수건에 눈물 젖음을 깨닫지 못하노라

제5장 연기군 남면의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는 주기 전승의 의례적인 풍속으로 세시, 세사, 월령, 시령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우리의 역사 속에 오래 전부터 행하여 왔으며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춘추 농경의례 등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우리 민족은 세시풍속 일을 명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간 생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리듬을 주었으며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계절이 뚜렷한 연기군 남면은 명절도 대체로 계절에 따라 행사 내용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월령에 의하여 날마다의 행사로 구분되어 있다. 월령은 농업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세시의 행사로 농업의 개시,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생산활동의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기군 남면은 장남평야가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인구 대부분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어 세시풍속을 어느 지역보다 소중하게 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단조로운 생활 과정에 리듬을 주고 질서를 준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의 생활기술이 습득되고 문화유산이 창출하여 후대로 전승되어 간다.

풍년을 기원하고 가을의 수확 때에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농심이라 했다.

연기군 남면 사람들은 대대로 순박한 농민의 전통을 이어왔다.

1. 정월(正月)

정월 초하루 즉 1월 1일을 설날이라 한다. 요즘은 양력과 음력이 구분되어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지칭한다.

일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으므로 새로운 정신과 몸가짐으로 근신하며

조상의 명복을 빌고,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우리는 아직도 농경사회이므로 풍년을 소망하는 갖가지 의례 · 습속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정월은 대체로 설날, 정초, 보름날로 나누어 그 풍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설날

(1) 차례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빔으로 갈아입는다.

여자아이들은 금박 박은 댕기를 달거나, 꽃 미투리를 신기도 했다.

차례는 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리는 예절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차대신 술을 준비했다가 올린다.

※큰집

종가[큰집]에서 세찬(歲饌), 세주(歲酒)를 마련하여 제상에 진설(陳設)하고 4대(代)를 모신다. 차례 때의 제물은 떡국과 삼색 실과(밤 · 대추 · 귤감), 시루떡 등이다. 집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제사상 차림의 순서는 조율이시(棗栗梨柿), 홍동백서(紅東白西) 순이며, 집에서 담은 맑은 술 등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

예전에는 술을 뜨고 남은 것을 걸러 막걸리를 만들어 일반 손님이나 머슴상에 놓았다.

(2) 성묘

차례를 지낸 다음 다함께 선조의 산소에 가서 성묘한다. 음식은 나무로 짠 네모판에다 정성스럽게 담아서 선산에 오르면서 자손에게 선조의 업적이나 집안 내력을 말하기도 하고, 일문(一門)끼리 앞으로 선산의 치산(治山)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선산에 도착해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느 할아버지의 묘소라고 설명해 주고 그분의 업적이나 일화를 말해준다. 주 · 과 · 포를 진설하고 재배한 후 묘소를 살펴본 다음에 돌아온다.

(3) 세배

설날에 아랫사람이 집안 어른들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자손에게 각자의 실정에 맞게 덕담을 한다. 그리고 떡국·과일 등의 음식을 대접하며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4) 설빔

설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는 정성껏 마련한 새 옷을 입는다. 이것을 설빔이라 하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장만하는데, 가을부터 주부는 식구들의 설빔 준비에 마음을 쓰게 된다.

(5) 세화

세화는 본래 궁중·대가(大家)에서 액막이의 의미로 그려 붙였던 것인데, 민간에서는 닭과 호랑이를 그려 붙였다.

또 문신 신앙의 하나로 가지 달린 엄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방문 앞에 매달기도 한다.

(6) 복조리

설날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이 조리를 팔러 다니는데, 각 가정에서 일 년 동안 소요되는 수량만큼의 복조리를 산다.

복조리는 일찍 살수록 좋다고 하여 서로 남보다 일찍 사려고 하며, 새벽에 조리를 사두면 일년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 하여 복조리하고 한다.

2) 정초

정초는 정월의 초순(初旬)을 가리킨다.

(1) 널뛰기

정초에 여자들이 하는 놀이이다. 안마당에 널판을 차려놓고 널뛰기를 한다. 처녀들이나 젊은 부인들이 설빔을 차려입고 양쪽에서 번갈아 뛰었다 내렸다 하는

놀이로 조선시대에는 부녀자들이 담밖의 모습을 마음대로 살필 수 없기에 이런 놀이를 통하여 담밖의 모습을 보았다.

(2) 옷놀이

박달나무나 밤나무로 네 가락의 옷을 만들어 던지며 놀이를 한다. 부녀자들은 안방에서, 남자들은 사랑방이나 밖에서 노는데 한 번 던져 모 · 옷 · 걸 · 개 · 도가 나면 그대로 말밭을 써서 먼저 나가는 쪽이 승리한다. 오락으로 재미도 있지만 말밭을 쓰면서 지혜와 계획성을 기르기도 한다.

(3) 연날리기

대나무살로 연의 골격을 만들고 문종이로 발라서 살에 붙인 다음 남은 종이로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고 실에 메달아 공중으로 날린다. 연이 높이 오르는 대로 연줄을 연자세에서 풀어놓아 더욱 높이 오르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떤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느냐가 시합의 초점이며, 나중에는 연싸움을 해서 상대의 연줄을 끊어 날려보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정월 보름까지 날리며, 보름날 연을 멀리 날리어 모든 액을 떨쳐 보낸다고 한다.

(4) 옷점

1년 동안 신수를 미리 알기 위하여 옷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옷을 세 번 던져 그 떨어진 상태로 점괘를 만들어 점을 치는 것이다.

육효점과 같은 것이라 일반 민간에서는 그리 보편화되지 않았다.

(5) 토정비결

정초에 1년의 신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토정비결을 보는 사례가 많다.

생년월일을 숫자로 산출해서 괘수를 만들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비결의 괘사와 해설을 보아 운수를 짐작하는 것이다.

(6) 입춘(立春)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서 봄이 시작된

다는 뜻이 내포된 날이다.

옛날부터 농촌에서는 이 날 보리 뿌리를 캐서 보리농사의 풍흉을 점쳤는데, 뿌리가 세 가닥이면 그 해의 보리농사는 풍년이요, 두 가닥이면 평년작이요, 한가닥이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였다.

잡귀를 쫓는 의미로 대문에 용(龍)·호(虎)자를 쓰거나 입춘서(立春書)를 써 붙이며, 팔죽을 쑤어 대문에 뿌리기도 한다.

입춘에는 새봄을 맞이하는 뜻에서 봄을 축하하는 글을 써붙였는데, 이것을 입춘서(立春書)라고 한다. 많이 쓰이는 글귀는 다음과 같다.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

父母千年壽 子孫萬世榮(부모천년수 자손만세영)
天下泰平者 四方無一事(천하태평자 사방무일사)
天上三陽近 人間五福來(천상삼양근 인간오복래)

3) 정월대보름

정월 14일을 ‘작은 보름’이라 부르는데, 정월 보름과 연관해서 이어진 행사가 많다. 정월 15일을 상원일(上元日) 또는 대보름, 큰보름이라 하는데, 설 다음가는 명절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한 놀이와 의식이 이 날에 거의 끝난다.

대보름도 일년의 첫보름으로 그해의 흉년과 신수의 길흉화복에 관한 민속이 대단히 많다.

(1) 산신제

한 동네의 배산 기슭에 산제당을 짓고, 보름날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모범적이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유사(有司)로 정하여 청정하고 근엄하게 제의를 치른다.

이를 생기복덕인을 가린다고 하나, 요즘에는 편의상 마을 이장이나 노인회장을 제주(祭主)로 하여 축문이나 기도를 통하여 동네의 안녕과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산제를 잘못 지내면 1년 내내 동네가 불안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믿는다.

연기군 남면은 산신제를 보름보다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추수감사제처럼 지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화리의 원수산 산신제이다.

(2) 탐제

마을 입구에 하나나 두 개의 돌탑을 쌓아 놓고 산제와 같이 제의를 지낸다.

정월 14일 밤을 세우고 보름날 새벽에 농악을 울리면서 제의는 시작된다. 푸짐하고 정갈하게 제물을 차려놓고 동네의 집사자, 유덕한 노인이 집전을 하여 축문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 동네 남녀노소가 다 모여 이를 지켜보다가 제의가 끝난 다음 제사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다.

(3) 당제 · 장승제

마을 입구 성수에 제당을 마련하거나 장승을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낸다.

연기군 남면에서는 매년 14일 오전에 남면 갈운리에서 동장승에게 종이로 된 옷을 입히고 장승제를 지낸다.

(4) 뱃고사

강가 나루에서 새해 1년의 무사안녕을 비는 고사 · 제의를 지낸다.

그 다음에 배 안에 돈받는 상을 차려 놓으면, 배타는 손님들이 선개(배값) 말고도 기도전을 내놓는다.

연기군 남면에는 금강과 미호천이 흐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루가 많았다.

현재는 강에 놓은 다리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이가 없지만,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나루가 금남면 부용에서 청원군 부강으로 건너다녔던 부용나루이다.

나루는 사라졌고 뱃고사도 지내지 않지만, 남면 나성리에서는 지금도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치고 걷어 오는데 작은 배를 사용한다.

(5) 거리제

14일 밤에 길에서 지내는 제이다. 짚을 관㉔자로 놓고 떡과 밥, 나물 등을 길가에 가지고 나와 치성을 드린다. 신수막이를 하는 것이다. 밥 3그릇, 나물 3가지, 명태 1마리, 삼색실과 촛불(예전에 초가 없을 때에는 들기름을 접시에 담아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감), 소지, 돈, 벚짚 등을 가지고 세 갈래 혹은 네 갈래 길에 나가 짚을 삼발나게(X자로)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은 다음, 사방으로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리면서 만사태평하게 해달라고 빈다. 그 후 가지고 간 돈을 벚짚 밑에 놓고 나머지 제물을 일부 떼어놓고 돌아온다.

남면 수산리에서 지내는 마을제를 ‘거리제’라 부른다. 현재 마을입구 향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목신제를 지내듯 하나 예전에 거리제 지내는 것이 변형된 모습이다.

(6) 들기름 불켜기

정월 14일날 저녁에 접시에 들기름을 붓고 실을 꼬아 만든 심지를 식구 수대로 놓아 불을 붙인다.

불꽃이 고우면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기는 등의 좋은 일이 있다고 여기며, 그을음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사 전날 밤에 목화씨 기름에 질경이 뿌리를 심지로 삼아 꽂아두면, 죽은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7) 백가반(百家飯)

정월 열나흘날에는 아이들이 이웃집의 밥을 훔쳐먹는다. 남의 집 밥을 많이 훔쳐먹어야 그 해의 액운이 사라지고 운수가 좋다고 여겼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부터 아이들은 동네를 돌아다녔으며, 각 가정에서는 일부러 부엌문을 열어두거나 밥을 해서 담은 솔뚜껑을 열어 두었다. 어려운 시절 남에게 베푼다는 마음을 담은 세시 풍속의 하나이다.

(8) 달맞이

저녁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것을 먼저 맞이하려고 주변의 산 정상에 오른다. 남보다 먼저 그 달을 보면 일년 내내 신수가 좋다는 것이다. 일단 달맞이를 하면, 그 달을 향하여 소원을 빈다.

또 보름달을 보고 일년 농사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 징조이고,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려 장마가 들 징조이며,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 달빛이 밝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남면에서는 원수산, 전월산, 당산 등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는 산이 있어 예전에 달맞이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하는 이가 없다.

(9) 부럼 깨물기

보름날 아침에 밤 · 호두 · 은행 · 땅콩 등의 딱딱한 과일을 이로 깨물면서 “부스럼 깨문다”고 소리친다. 그러면 이빨도 튼튼해지고 부스럼도 안난다는 것이다.

(10) 귀밝이술

보름날 새벽에 약주 등을 마시면 일년 내내 귀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이때 데우지 않고 찬 술을 그대로 마시며, 귀가 밝아 좋은 말과 희소식을 잘 듣는다 하여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마신다.

(11) 오곡밥과 복쌈

정월 열나흘날 저녁부터 오곡밥을 지어먹는다. 오곡밥은 맵쌀 · 찰쌀 · 팥 · 조 · 수수 등 온갖 곡식을 섞어 짓는다. 오곡밥은 여러 집의 것을 많이 먹어야 좋다. 그래서 열나흘날 저녁과 보름날 아침에는 아홉집의 밥을 먹기도 한다.

시래기 · 산나물 · 고사리 같은 갖은 나물도 해서 먹는다. 그때 밥을 김이나 나물 앞으로 쌈을 싸 먹는데, 그것을 복쌈이라 한다.

복쌈을 먹을 때마다 한 섬, 두 섬 헤아리면서 먹는데, 그러면 풍작이 되어서 잘 먹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들이 밥을 김으로 싸서 그릇에 담아두면 식구들은 각기 자기 나이 수대로 먹기도 한다.

오곡밥은 과일나무의 떨어진 나뭇가지에 돌을 끼우고 가지와 돌 사이를 메우는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열매가 좋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해 어느 집의 과일나무 열매가 잘 떨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보름날 오곡밥 안 썼냐?”라고 묻기도 한다.

(12) 모의타작

정월 14일 밤새 수수깡으로 모의 곡식을 만들어 보름날 아침에 매상이나 도구통에 타작을 하였다. 그러면 가을에 풍작이 든다고 믿었다.

(13) 벼가릿대 세우기(노적가리)

정월 열나흘날 짚을 묶어서 큰 기처럼 만들어 세우고, 벼·기장·피·조 등의 이삭으로 싣는다. 그리고 면화(棉花)를 긴 막대 위에 달아 집 곁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새끼로 묶어두는데, 이것을 벼가릿대(화간-禾竿)이라 한다. 이 벼가릿대는 2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내리는데, 곡물을 가마니에 넣으면서 천 석이요, 만 석이요 하는 집도 있는데, 이것은 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들 곡물로는 떡을 해서 머슴을 먹이고, 이웃집과도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보름날 마을에서 부잣집 앞에 “깨깔”을 세운다. 3~4m 정도의 막대 위에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감아 올린 깨깔을 세워 놓고 2월 초하룻날 그 집에 가서 풍물을 치며 고사를 지내면 그 집에서 술을 내와 함께 즐긴다. 그 집의 부정을 막는 의식이다.

보름날 마을 부잣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세우고 세 줄의 동아줄을 매어 말뚝을 박아 넘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그리고는 2월 초하룻날에 머슴이나 동네 사람들이 풍장을 치며 찾아가서 넘어뜨린다. 집주인은 넘어지는 걸 액운을 막는 좋은 징조로 여겨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14) 소밥주기

소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차려준다.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소를 대우하여 풍년을 기약한다는 뜻이다. 이때에 소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풍작을 점친다.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곡식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 푸성귀 풍작이 된다는 것이다.

(15) 소·개목사리

동쪽으로 뻗어있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개·소의 목사리를 해주면, 한

해 동안 파리가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밥 아홉그릇 · 나무 아홉집

정월 14일에는 무엇이든 아홉 번씩 해야 좋다고 한다. 그래서 밥을 아홉 번이나 먹고, 나무를 아홉 집이나 해오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먹을 것이 많고 뽕 것이 흔해진다고 한다.

또 잿간에 짚을 한 주먹씩 아홉 주먹을 쫓으며 농사가 잘되기를 빌기도 한다.

(17)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 더위를 판다. 상대방 이름을 불러서 상대가 대답하면 ” 내 더위 사라’ 혹은 “네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 라고 하며 더위를 판다. 더위를 팔고 나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 반면 더위를 사간 사람은 더위에 시달리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18) 쥐불놀이

정월 14일과 15일 밤에 농가에서는 논둑이나 밭둑을 태우는데 이것을 쥐불놀이 라고 한다. 머슴들은 미리 췌불을 만들어 놓았다가 달이 떠오를 무렵, 들로 나가 불을 지르는데, 겨울 동안 건조했던 풀이 타는 광경은 장관을 이룬다.

이것은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을 죽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들귀를 잡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온 세상을 불로 태워 정화함으로써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원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쥐불은 농가의 각 가정에서도 놓는데, 14일 밤에 마당 한가운데에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잡귀를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하며 1년 동안 무병하며, 액을 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보름날 저녁에 이웃동네 아이들과 패를 갈라 쥐불을 놓고 편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 이기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19) 나무 시집보내기

농가에서는 보름날 양다리처럼 벌어져 오른 과일나무 양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좁으로써 나무가 시집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과일이 많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20) 청솔가지 엮기

보름날에 청솔가지를 꺾어 지붕에 엮는데, 지붕이 썩지 않고 노래기가 생기지 말라는 뜻이다.

(21) 묵은 나물 먹기

지난해에 말려 두었던 무·박나물·버섯·고사리·미역·호박고지 등을 대보름날 삶아 무쳐 먹는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22) 줄다리기

정월 보름에는 마을끼리 혹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를 하여 이긴 마을은 풍년이 든다고 하며, 진 마을은 벌칙으로 연로한 자가 이긴 마을의 연로한 자에게 절을 하기도 한다.

(23) 지신밟기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동네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며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각 가정에서는 풍물패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해주고 쌀이나 돈을 내놓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기도 한다.

남면에는 마을마다 풍장패가 있어 각 마을 단위로 지신밟기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부농악대, 소방대농악대가 조직되어 이들이 지신밟기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진의리와 양화리는 최근까지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2. 2월(二月)

이월 풍속은 정월에 비하여 단순하고 소박하다. 농경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계절이므로 정월에 이어 몇 가지 습속과 잡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신앙이 깃들여 있다.

1) 머슴날

2월 초하루는 “머슴생일날” 이라고도 한다. 일년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면서 일꾼을 “돈귀 맥인다(잘 먹인다)” 는 날이다. 음식을 많이 하고 풍장을 치며 즐기고, 윷놀이도 한다. 2월 초하루는 윷놀이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이후 윷놀이를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했다.

바쁜 농사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놀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성인의례

2월 초하룻날 20세가 되는 이에게 어른들은 술상을 보아 한 잔씩 따라 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여 준다.

2) 콩볶아먹기

2월 초하룻날 솥에 콩과 약간의 잡곡을 넣어 불을 때어 볶아 나누어 먹는다. 가마솥에 콩을 볶아서 콩이 크게 튀겨지면 그 해 풍년이 들고 그대로거나, 작아지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볶은 콩은 아이들이 좋아라하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는다.

이렇게 콩을 볶아 먹으면 새나 쥐, 해충들이 곡식을 침해하지 않고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겸하여 노래기가 없어지고 청결해 진다고 한다.

3) 대청소 하기

대청소를 하여 노래기를 쫓아내는 습속이 있다. 집 안팎을 청결히 하며 가축 우리도 두엄을 쳐내고 노래기를 물리치는 부적을 써 붙인다.

(1) 노래기 바늘주기

이것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 초가지붕에 엮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노래기에게 바늘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노래기가 안 낀다고 여겼다. 솔가지를 엮을 때 “노락각시 바늘 받아.” 라고 소리치며 던진다.

(2) 노래기 쫓기

산에 가면 사철나무에 속하는 노간주나무가 있다. 이월 초하룻날 노간주나무를 베어서 집안에서 불을 놓으면 연중 노래기가 집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4) 쯔생이 점치기

2월 6일 저녁이면 쯔생이별을 보고 1년 연사를 점친다. 쯔생이별은 여러 개의 작은 별이 모여서 이루어진 군성(群星)으로 쯔생이로 점치는 것을 “쯔생이 본다” 라고 한다.

달과 쯔생이가 나란히 가거나 쯔생이가 조금 앞서가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농점의 하나이다.

5) 장닭 꼬리 보고 점치기

2월 초하룻날 장닭 꼬리가 바람에 날리면 그해 바람이 심하다고 한다.

6) 경칩 알먹기

경칩일 무렵에는 날씨가 따뜻해져 동면하던 짐승들도 깨어난다. 이날 농촌에서 논이나 개울물 고인 곳을 찾아 개구리가 낳아 놓은 알을 건져 먹는데, 이것이 보양에 좋다고 한다.

7) 한식

동지 후 105일 되는 날이 한식일인데,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2월에 든다.

이날 조상의 산소에 과일, 떡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한식 차례를 지내며, 그 산소가 헐었으면 다시 때를 입히는 사초를 하고 산소 둘레에 나무를 심는다.

이때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고 채소씨 등을 뿌리며, 농경준비를 시작한다.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고 나라에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여 매우 꺼린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설·단오·추석·한식)중의 하나이다.

3. 3월(三月)

삼월은 “춘삼월 호시절” 이라고 부른다.

봄이 무르익은 때라 여러 가지 습속과 놀이가 성행했다. 지금은 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삼월에 행하는 습속과 잡속을 알아본다.

1) 삼월 삼진날

삼월 삼진날은 길일이라고 제비를 맞이한다. 제비는 자고로 길조라 하여 그것이 강남에 갔다가 이날에 돌아와 집안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는 것을 잘 보호한다.

2) 나비보고 점치기

삼진날 쫓으면 갖가지 나비가 선을 보이는데 이때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처음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이나 흰나비를 보면 부모상을 당할 흉조라고 판단한다.

3) 삼진날 머리감기

삼진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 흐르듯이 소담해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다투어 머리를 감는다.

4) 천렵 · 화전놀이

화창한 봄날에 야외놀이를 간다.

남정네, 부녀들이 각각 무리를 지어 가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산기슭이나 냇가로 화전놀이, 천렵을 가게 된다.

갖가지 음식, 술 등을 차려 가지고 가서 모처럼 재미있게 논다.

5) 풀놀이

소년·소녀들 사이에 풀놀이 습속이 있다. 풀과 나뭇가지로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논다. 물오른 버드나무, 미루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어 호루라기도 만들어 불고, 질경이나 끝풀 등 질긴 풀을 엇갈려 당겨서 누구 풀이 안 끊어지는가 내기를 한다.

6) 소꿉장난

소녀들이 담 밑에서 각시풀을 뜯어 모아서 각시의 머리모양을 만들어 서로의 솜씨를 자랑한다.

이럴 때 소녀들이 풀, 나뭇가지, 흙, 물 등을 사금파리 그릇에 담아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소꿉장난을 한다.

4. 4월(四月)

사월은 초여름 신록의 계절이면서 농사철로 접어들어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달에는 뚜렷한 풍속이 없고 다만 초파일의 행사가 주축을 이룬다.

1) 초파일(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나 욕불일(浴佛日)-부처님 목욕시켜 주는 날)이라고도 부르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 한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자손이 잘 되기를 빌거나 득남을 빌기도 한다.

이날의 관등놀이는 철저하게 배불정책(排佛政策-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쓰고, 승려의 도성(都城) 출입을 금했던 조선시대에도 휘황찬란하게 대성황을 이루었다.

초파일 전날 조치원역 광장은 각 사찰에서 모인 신도들로 북적거린다. 저마다

갓가지 모양의 대형등을 앞세우고 신자들은 개인등을 들고 조치원 읍내를 돌며 제등행렬을 한다. 남면에 있는 각 사찰에서도 참여하는데 대표적인 곳은 래운사, 석연사, 대덕사 등이다.

행렬이 끝나면 모두 자신이 다니는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소원을 빈다.

이날 절에서는 아기부처님을 놓고 목욕시키면서 탄생을 경축한다. 갓가지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승속간에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 저녁때에는 등을 들고 절마당에 있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2) 봉숭아 물들이기

사월에는 봉숭아꽃이 한창이므로 여자들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인다.

봉숭아 꽃잎을 따서 시영·백반 등을 넣어 찌어서 넓은 나뭇잎으로 감싸 손가락·손톱에 묶어 놓으면 하룻저녁만에 붉은 물이 든다.

5. 5월(五月)

오월은 단오날이 가장 큰 풍속이다.

단오날과 5월의 습속, 잡사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아본다.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옷날, 중오절 또는 천중절, 수리, 술의 날 등으로 불린다.

단옷날은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행사날이다. 단(端)은 초(初)의 뜻이고, 오(午)는 옛날 오(五)와 상통하던 글자이니, 단오(端午)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중오(重五)도 5가 겹치는 5월 5일이라는 뜻이다.

『동국세시기』에는 이 날 해먹는 썩떡이 수레바퀴 모양이어서 수레날이라 한다고 했다. 수리치로 떡을 해먹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수릿날이라 한다고도 했다.

“수리”라는 말은 “上·高·峰·神” 등을 의미하는 옛말이니 “수릿날”은 “신일(神日), 상일(上日)”의 뜻이라고도 한다.

단오행사가 씨름이나 그네타기이듯이 5월은 푸른 젊은이의 달이고, 젊은이의 명절이다. 또 오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아서 새 생명이 돌아나 푸르게 자라나는 것을 반기는 부활의 축제이기도 하다.

단오날의 습속은 다음과 같다.

(1) 창포로 머리감기

여자들은 단오날에 창포로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창포와 쑥을 넣어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도 않고 소담스러워진다. 머릿결이 좋아지고 잘 길며, 희어지지도 않는다.

창포뿌리는 껍질을 긁어서 하얀 속부분이 드러나면 양쪽 끝에 자주나 초록 등의 고운 물을 들여서 비녀삼아 꽂는다.

(2) 인형만들기

단오날에 호로박이나 작은 인형을 만들어 허리띠에 차면 질병을 쫓는다고 한다.

또한 이날에 상추밭에서 상추 잎의 이슬을 받아 세수를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태종우(太宗雨)

농가에서는 5월 10일에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날에 비가 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이 비를 태종우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 제3대왕인 태종은 신앙심이 두터워 신을 공경하고 백성을 지극히 염려하는 임금이었다. 왕은 재위 22년에 병에 걸렸고, 그때 나라에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은 절망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고 태종은 “내 옥황상제에게 청하여 비를 오게 하여 백성을 구하리라.” 하고는 승하하였다. 태종이 승하한 후부터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가뭄을 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해에 대풍이 들어 백성들은 태종 임금이 비를 내리게 했다 하여 그날 비가 내리면 이를 태종우(太宗雨)라 불렀다.

(4) 계잡기

이날 계가 나와 그네를 탄다 하여 젊은이들은 계를 잡으러 간다. 잡은 계는 장을 담그는 등 다양하게 요리하여 먹는다.

(5) 단오그네

단오날에 동네 여인들은 집안팎에 그네를 메고 그네뛰기를 한다. 집안에서 일만 하고 갇혀있던 부녀들이 이날만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자유롭게 그네놀이를 하니 오랜만의 나들이에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는 셈이다.

그네를 뿔 때에는 짚으로 굵고 단단하게 새끼를 꼬아 동아줄이나 밧줄을 만들어 가로로 뻗어있는 큰 나무에 양 끝을 내고 아래 가운데에는 조그마한 나무로 새끼를 엮어 발판을 만들어 그 위에 타고 그네를 뿔다. 그러면 다리에 쭈미 안 먹는다고 한다.

(6) 씨름

단오날에 남정네들이 씨름을 해온 것은 유명하다. 동국세시기 중원조에는 충청도 풍속에 노소를 막론하고 15일에는 거리에 나가 씨름 놀이를 한다고 했다.

남자들의 힘, 재주대기로 편을 갈라 단체로 승부를 가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천하장사를 뽑기도 한다.

이 날의 최고 장사에게는 황소 1마리를 주므로 ‘소걸이 씨름’ 이라고도 한다. 이 씨름은 오랜 역사를 두고 남자들의 체력 향상, 투지력 양성, 부족의 단결력 등을 기르고 농경에 이바지하는 습속으로 보아진다. 남면에서는 금강변에 자리하여 예전에는 강가에서 씨름을 하였는데 요즘은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면민 체육대회가 전부이다.

6. 6월(六月)

유월은 한여름이라 농사도 한창이려니와 농경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개인 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고 농경에 유효 적절한 습속이 형성·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유두날을 중심으로 하는 습속과 잡사가 있다.

유두날

6월 15일은 유두날이다. 이 날에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면 더위가 들지 않고 액운이 물러간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 나는 참외·수박 등의 과일과 국수를 만들어 조상에 제사지내는 것을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했다. 유두날의 음식 중에 유두면을 비롯하여 수단, 전단, 연병 등이 있다.

(1) 유두떡

유두날에 떡을 해가지고 논에 가서 물꼬와 논둑 밑에 한 덩이씩 놓아두는데, 이는 물이 새지 말고 풍년이 들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때로는 떡을 해가지고 논이나 논두렁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 역시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2) 유두팔죽

유두날에 쭈어 먹는 팔죽을 유두팔죽이라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팔죽의 붉은 색은 나쁜 잡신을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다.

유두팔죽은 동지팔죽과 다른 점이 있다. 동지팔죽은 찹쌀 새알심을 넣지만, 유두팔죽은 밀반죽을 밀어서 국수마냥 썰어 넣어 먹는다.

(3) 망종날씨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고 밭갈이도 하고, 논에 모도 심어야 한다. 그래서 망종날의 날씨에는 큰 관심을 가지는데, 이 날에 천둥이 치면 농사가 시원치 않고 불길하다고 하여 꺼린다.

(4) 삼복과 복다름

하지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이라 하고, 10일 뒤인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라 한다.

이 복날과 그 사이에 걸친 20일 간을 삼복이라 하고,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한다.

복중에는 너무 더워 입맛을 잃고 땀도 많이 흘려 건강을 해치기 쉽다. 어른들은

일손을 멈추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물장난을 치기도 한다.

삼복더위 때는 보신탕으로 개장국이나 삼계탕을 먹는다. 개장국은 집안에서 하기보다는 동네 모임별로 마련하는 일이 많다. 이는 모두 “복다름 한다” 하여 더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7. 칠월(七月)

칠월은 여름을 벗어나 가을로 접어드는 과도기로서 비교적 한가한 계절이다. 이 달에는 칠석절과 백중절이 유명하다.

1)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은 칠석이다. 이날은 은하수 중간쯤의 동쪽 가장자리에 빛나고 있는 견우성과 서쪽에서 빛나고 있는 직녀성이 만나는 날이다. 이때가 되면 바쁜 농사일은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칠석놀이”라 하여 하루를 내어 즐겁게 논다. 풍물패가 풍장을 울리며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사를 지내고, 집주인이 내온 술을 마시며 논다. 고사를 지낼 때는 안방문 앞에 상을 놓고 상에다 “불받이”라 하여 생쌀을 뿌린다. 그 위에 말(斗)을 두고 말에는 쌀을 가득 담는다. 말에 담긴 쌀은 풍물패가 가져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가 있어 소년·소녀들에게도 낭만적인 소망이 부풀게 된다. 소년들은 글재주를 빌고, 소녀들은 길쌈·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었다지만, 서로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되기를 내심 기원한다.

칠석날 저녁에 비가 오면 견우·직녀가 이별하는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이다.

이날 까마귀·까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하늘 은하수까지 가서 오작교를 만들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다녀온 까마귀·까치들은 머리털이 벗어져 보이는데, 그것은 견우와 직녀가 그 머리를 밟고 왕래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1) 칠석맞이 제단차리기

각 집에서는 잡귀 축출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의미에서 장광(장독대)에 제단을 차린다. 장광 바닥의 자갈 위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돛자리를 펴서 음식을 해 놓는다. 여기에는 붉은 팔 시루떡과 생쌀 1사발, 냉수 1사발을 놓는다. 밥을 지어 놓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들기름에 심지를 꽃아 불을 켜고 어머니가 가족들 하나 하나의 생일, 나이를 읊으며 안녕을 빈다.

이날 샘제를 지내기도 한다.

2) 백중날

7월 보름날 백중일이 있다.

이 날 각 사찰에서는 승려·신도들이 모여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우란분제를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승속간에 푸짐하게 장만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또 목련존자의 구모효행담을 중심으로 법회도 열고, 그에 알맞은 놀이도 한다.

이날 일반 가정에서는 백중 천신이라 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남면에서는 마을 단위로 윷놀이를 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낸다. 젊은이들은 이때에 경로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1) 백중장

백중날을 전후해서 백중장이 선다. 그때 머슴을 둔 집에서는 상당한 돈을 주어 장에 가서 먹고 마시며 놀게 하고, 마음대로 물건도 사게 한다.

그날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소에 태워 위로하고 찬양하며 흥겹게 논다.

(2) 호미씻기

7월 보름을 전후해서 호미씻기 습속이 행해진다. 농사를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호미가 필요 없으니 씻어둔다는 뜻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안팎에서 먹고 즐긴다. 이때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머슴에게 샷갯을 씌워 소에 태우고 칭찬을 한다. 그 머슴의 주인이 한턱을 낸다.

8. 8월(八月)

팔월은 초가을이라 오곡백과가 익기 시작한다. 풍성한 계절에 풍요를 구가하며 추수감사를 겸하여 갖가지 습속이 행해진다.

팔월에는 추석이 가장 큰 풍속이라 하겠다.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추석·가배·중추절 등으로 부른다.

가위 또는 한가위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븐데”(경상도 방언으로 ‘가운데’의 뜻에 명사형미어(名詞形尾語)가 붙어서 “가위”가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것은 삼추(三秋)에서 중추(中秋)도 중간인 보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 신라 가위의 유래담은 진 편이 이긴 편에 베푸는 잔치나 놀이로서 “값다(報·價)”의 전성명사인 “가배”가 “가위”로 된 것이라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

『동국세시기』에는 추석을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삼는다”고 했다. 현재에도 추석과 설날은 민족의 2대 명절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때가 되면 객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연기군까지 평소에는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가 10시간 넘게 걸리는 정체현상이 극심하다. 그러기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행렬은 장관을 이룬다.

사람들은 추석에 차례라는 혈연적인 제의를 핵심으로 해서 모이고, 부모 자식이나 친척, 고향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 정을 나누고 유대를 굳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추석은 평소의 물질적인 속(俗)의 생활에서 정신적인 성(聖)의 제의를 행한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날 어린이들은 추석빔을 입으며, 사람들은 우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다. 제사상에는 햅쌀밥, 햅쌀로 빻은 떡과 술이 시절음식으로 쓰인다.

추석 때가 되면 멀리 나가있는 자손들도 전부 돌아와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조상 산소에 성묘를 간다. 그러고는 남녀노소가 끼리끼리 모여 재미있게 논다. 이때에 농악놀이, 씨름판, 각종 연회들이 펼쳐지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술집에서는 햅쌀로 술을 빚는다. 떡집에서는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또 무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도 만든다. 또 찹쌀 가루를 찌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삶은 검은 팥, 누런 콩의 가루나 깨를 찌서 바른다. 이것을 인절미라 한다.

또 찹쌀가루를 찌서 계란같이 둥근 떡을 만들고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인다.

이것을 울단자라 한다.

추석에는 토란국을 끓여 먹는다. 토란국에는 닭고기나 소고기들을 넣어 먹는데, 이는 특히 추석 때의 시절음식이다.

이날은 성묘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차례 후에는 성묘를 가는데, 예전에는 남자들만 갔으나, 요즘에는 여자들도 성묘를 간다. 산소는 “참초하기”라 하여 성묘하기 전에 긴 풀을 낫으로 깎고 잡초를 제거하여 미리 손질해 둔다.

(1) 벌초하기

자손들이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에 자란 잔디를 잘라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다. 불원천리 선영을 찾아가 이렇게 봉분을 다듬고 풀을 가꾸는 것은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풍속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생존한 부모의 거처를 정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과 같다.

(2) 친정집 찾아가기

시집간 딸이 추석을 전후해서 친정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고, 서로의 회포를 푸는 습속이 있다. 그때에 형제자매들이 모처럼 재회하여 기쁨을 나누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 즐기는 것이다.

(3) 추석 달맞이

추석날 달이 잘 보여야 다음해 풍년이 드는데, 특히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여겼다. 추석에 달이 보이지 않으면 개구리가 알을 배지 못하고, 토끼도 새끼를 배지 못하며, 메밀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민간의식이 있다.

또 구름이 많거나 한 점도 없으면 보리 농사가 흉년이고, 구름이 적당히 떠서 떨어져 있으면 풍작이라 여겼다.

또 추석에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음해 보리 농사가 흉작이 된다고 한다.

(4) 거북이 놀이

추석날 밤에는 마을 아이들이 거북이 놀이를 하며 집집을 돌아다녔다.

수숫대를 머리에 쓰고 고무래를 거북이 머리로 삼아 손으로 잡고 꼬덕거리며, 등에는 명석을 뒤집어 쓰고 거북이 등을 흉내낸다.

풍물패가 부잣집부터 찾아가서 문안을 하고 질라아비가 덕담을 하며 풍장을 친다. 그러면 그 집 어른들이 추석음식상을 내어주곤 한다.

9. 9월(九月)

구월은 한 가을이라 추수에 바쁜 계절이며, 풍성하고 여유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시절을 한껏 즐기는 놀이도 성행하고 그 전에 지은 온갖 빚을 갚는 습속이 있다.

중구일(중양절)

9월 9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고 한다. “중양”이란 양이 겹쳤다는 뜻이니, 양수인 기수가 겹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이 다 “중양”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양”이라 하면 중구날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중양은 당(唐)에서는 관리들의 휴가일이었고, 중추(中秋)는 휴가일이 아니었다. 중양에 관한 기사나 시가(詩歌)도 중추(추석)보다 몇 배나 많고,

중양은 중추보다 훨씬 성대했다.” 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처럼 중구일을 중추보다 큰 명절로 여기기 않으며, 중구일 자체를 아는 이도 그리 많지 않다.

(1) 구일 차례

중구일에 구일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혈손 없이 묘답을 동중에 맡기고 돌아간 고혼(孤魂)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전답을 경작하는 집에서 제물을 차리고 동장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다.

또한 한식 때에 제사를 못 지낸 자손들이 이때에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2) 구절초

중구일을 전후하여 구절초를 뽑아다 말려서 약초로 쓴다. 이때를 계기로 각종 약초를 채취하여 말려서 갈무리하게 된다.

(3) 국화놀이

『동국세시기』에 보면, 9월 초에 빛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든다. 방법은 3월 삼짇날의 진달래 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이것을 화전(花煎)이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화전인 셈이다.

또 배와 유자(柚子)·석류·갓을 잘게 썰어서 꿀물에 탄 것을 화채라 한다.

이는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쓰이기도 한다고 한다.

중구절에는 국화송이와 쌀, 누룩을 섞어 국화주를 빚는데, 약간 노른 빛이 도는 맑은 술이 된다. 이 술은 동지선달에 먹는다.

10. 10월(十月)

시월은 상달이라 추수를 마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시제도 지내며, 국조(國祖)에 대한 숭앙심도 함께 표하게 된다.

또 시월은 가을 수확이 다 끝나는 때이다. 고구려의 동맹(同盟)도, 예의 무천(舞天)도, 삼한의 10월 농공이 끝난 후의 제천의식도 다 10월에 하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농경의례였다.

각 가정에서는 팔시루떡이나 무시루떡을 만들어서 고사(告祀)를 지낸다.

주로 여자가 추수감사와 가내 평안을 감사하고 빈다.

또 5대 이상 조상들의 묘제인 시제(時祭)도 10월에 날을 잡아 지낸다.

지금은 그 의미가 미미해지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다양한 제사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10월이 추수 감사의 달이고, 그래서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일찍부터 농경생활을 한 농경민족의 유구한 전통임을 알 수가 있다.

1) 시월고사

상달인 10월에는 날을 잡아서 고사를 지낸다. 네 쪽지 시루에 찜떡을 많이 하여 놓고, 청수를 바쳐 치성을 드린다.

고사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액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령에게 비는 제사를 뜻하는 말이다.

각 집안에서는 사흘 전부터 부정 방지를 위해 황토를 3주먹씩 떠다 좌우 대문 앞에 두어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황토는 고사가 끝난 뒤에 그날 밤이나 다음날 식전에 쓸어버린다.

이날 여자들은 시루떡을 찌서 부엌 또는 방안 바닥에 짚을 깔고 냉수를 함께 올리며 조상님께 절을 한다. 이때 보통 남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떡을 떼다가 장광·대청·부엌·헛간·화장실·굴뚝 모퉁이에 두고, 토주님·성주님·조양님(주왕님)께 잡귀가 들지 않고 불이 나지 않게 해 줄 것을 빈다.

빔기가 끝난 연후에 다시 거뒀던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시골에서는 떡을 넉넉히 하여 집집마다 돌려 먹는다. 한 집이 앞집, 뒷집, 옆집에 가져다 주면, 또 그 집에서 떡을 가져와 누구네 떡이 맛있게 되었나를 알 수 있고 인심을 느낀다.

또 이것은 10월 3일, 나라를 연 국조에 대한 신앙의 잔영이라 보인다.

2) 시제

시제는 시향(時享)·시사(時祀)·세일사(歲一祠) 시사차례라고도 하는데, 5대 이상의 조상을 시제로 모신다. 문중에서는 10월 중 날을 정한다. 집에서는 음식을 차리지 않고 보통은 산주의 조상묘가 있는 산을 지키는 산지기가 시제답(時祭답)에서 수확한 것으로 음식을 차려주면, 산주는 음식을 진설하고 축문을 읽고 절을 올리게 된다.

산지기가 없는 집은 장손이 시제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산지기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는 집들도 많이 줄었다.

3) 대동계

가을 농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에서 연로한 자가 이장과 상의하여 날을 정해 대동계를 한다. 평소 이장의 수고비로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쌀 1말을 집집이 낸다. 이장은 가을 대동계 때 결산보고 겸 술과 떡을 내어 잔치를 한다.

4) 지붕 해이기

시월이 가기 전에 농가에서는 기본으로 초가지붕을 다시 해 덮는다. 새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한 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초가지붕이 없어 그러한 풍속이 사라졌지만, 우리 조상들을 서로 초가지붕을 올려주는 두레의 풍속을 가졌었다.

5) 김장 담그기

겨울 양식의 하나로 김장을 한다.

배추·무우 등을 뽑아다가 갖은 양념을 하여 김치를 담가 겨울에 먹을 준비를 한다. 이 김장에는 배추김치·무김치·동치미 등이 있어 가을·겨울·봄의 반찬에 큰 몫을 한다.

6) 산제 지내기

음력 시월 초에는 산제를 지내는 마을이 많다.

추수 감사의 뜻으로 산중턱에 마련되어 있는 제당에 올라 산제를 지냈는데, 제관은 일주일 전에 생기와 복덕이 닿는 이를 가려 뽑고 뽑힌 제관은 몸을 청결히 하여 나쁜 것을 보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문밖 출입을 삼가고 제당 앞에 있는 우물물을 퍼다 목욕제계를 한다.

산제날 날이 어둑해지면 공양주·제관·축관은 제물을 지고 산제당에 올라 제물을 진설하고 산제를 올리는데, 보통 다음날 새벽까지 지낸다.

집집마다 사연을 이야기하며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를 태운 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때 각 가정에서도 장독대에 떡을 해놓고 촛불을 켜 소원을 비는데, 산제가 끝나고 신호를 보내면 집에서는 그때부터 떡을 먹기 시작한다.

남면 원수산에서는 5개 마을이 모여 산제를 지내는데 한 동안 동네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임장철 씨가 주관을 하였다. 요즘은 다시 주변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을 주민 뿐 아니라 연기군 내 기관장까지 참여하는 큰 산제로 변화하였다.

11. 11월(十一月)

동짓달은 한겨울이라 추위도 심하고 돌림병도 많아서 실은 지내기 어려운 시기이다. 선달을 향하여 미끈하게 지내는 달이라 다양하고 뚜렷한 습속은 없으나, 가족과 동종의 안녕을 위한 방역에 힘쓴 흔적만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지(冬至)

동지는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스물 두 번째 날로, 태양

이 남회귀선 곧 적도 이남 23.5° 인 동지선(冬至線)에 이르는 때이다.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남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는 작은설(亞勢)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팔죽을 쑤어 먹는다. 팔죽은 정초의 떡국과 같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상징으로 삼는다. 동지가 동짓달 상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애동지 때는 팔죽을 쑤어 먹으면 좋지 않다 하여 그냥 지나가지만, 중동지나 노동지 때는 “액운을 몰아낸다” 하여 팔죽을 쑤다.

팔죽에는 뽕쌀이 들어가며, 찹쌀이나 차서석(조) 또는 찹쌀과 수수를 섞어서 빻은 “새알심”을 넣는다. 새알심은 나이 수대로 먹는 것이 보통이다.

팔죽은 먹기 전에 방, 장독대, 대청, 헛간 등에 뿌리는데, 대문에는 “팔(八)”자로 뿌린다. 이것은 질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다. 지금은 팔죽을 쑤어 먹어도 이를 행하는 집은 보기 힘들다.

중국의 「형초세기(荊楚歲時記)」에는 공공씨(共工氏)의 재주없는 자식이 팔을 두러워 하다가 동짓날에 죽어서 역신(疫神)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팔죽을 뿌려서 역귀를 물리친다고 전한다.

(1) 디딜방아 훔쳐오기

동짓달에 만약 돌림병이 돌거나 이웃동네에 유행하게 되면 이웃동네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동구 앞에 거꾸로 세워 묻고 여인들의 속옷을 입힌 다음 팔죽을 뿌려 놓는다.

거기에 다시 금줄을 매놓아 보기 흉한데 그렇게 해야만 마마귀신·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2) 옛날 이야기

동짓달은 밤이 길기 때문에 남녀들이 각각 사랑방이나 안방에 모여 고담책을 읽거나 무서운 이야기로 서늘하게 하며 즐긴다.

남자들은 산네키나 가마니를 치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자들은 자수나 물레를 돌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12. 12월(十二月)

섣달은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기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준비과정으로 여러 가지 습속이 있다. 궁중이나 대가집에서는 묵은 세배, 폭죽, 사당제 등이 행해졌으나 지방에서는 그 변형, 잔영이 남았을 뿐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섣달 그믐

음력 12월 30일은 1년의 마지막 날로서 섣달 그믐·제야(除夜)·제석(除夕)등으로 부른다.

이날은 우선 1년간 있었던 거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갚을 것을 다 갚고, 받을 것도 미리미리 다 받아둬야 한다. 만일 이날 자정까지 받지 못하면 정월 대보름까지는 빚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받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더욱 미리 서둘러야 했다.

금전 거래뿐 아니라, 1년 생활의 마무리이니 차분히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준비한다.

남면에서는 원수산, 당산, 전월산에 올라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맞이 행사를 한다. 이 날 떠오르는 첫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빌기도 한다.

(1) 묵은세배

섣달 그믐날에 “묵은세배”라 하여 1년 동안 잘 지냈음을 감사하며 집안 어른께 절을 올리고 어른을 찾아 뵙고 세배를 하기도 했다. 아직 묵은세배는 지켜지고 있는 곳이 많다.

『동국세시기』에 “조신(朝臣) 2품 이상과 시종신(侍從臣)들이 제석에 대궐에 들어가 묵은해 문안을 올린다.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에 참례한다. 또 연소자들은 친척 어른들을 찾아서 문안하는데, 이것을 묵은세배(舊歲拜)라 한다.”고 하였다. 묵은세배는 가까운 집안 어른에 한정되는데, 이때 흑 술이나 담배를 사가기도 한다.

(2) 수세(守歲)

『동국세시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가에서 다락·마루·방·부엌에 모두 등잔을 켜 놓는다. 흰 사기접시 하나에 실을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환하게 켜 놓으니 마치 대낮과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다. 이것을 수세라 한다. 이는 곧 경신(庚申))을 지키던 유속이다.

또 속담에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모두 하얗게 세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이들은 대개 속아서 잠을 자지 않는다. 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분을 채어 눈썹에 바르고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하며 놀린다.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옷놀이나 설음식을 장만하면서 밤을 새운다. 하지만 설날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로 설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무김치, 또는 고구마를 깎아서 먹으며 송구영신(送舊迎新) 하였다.

밤을 세워 지키는 것은 잡귀나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도 있다.

(3) 참새잡이

설날 그믐날 밤에 새를 잡는다. 농가에서는 복합적인 의미로 참새를 잡는데, 참새고기가 약이 된다는 것이나, 새해 농사에 새의 피해를 덜어보자는 뜻도 있다. 참새는 초가집 처마 속이나 짚가리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밤에 아이들이 촛불을 손전등처럼 만들어 밝힌 후, 참새가 눈이 부셔 움직이지 못할 때 손으로 잡는다.

(4) 대나무 태우기

그믐날 밤에 웬만한 집안에서는 대나무를 태워 그 마디가 터지는 소리로 잡귀를 몰아내고 청정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런 폭죽의 습속은 중국이 가장 심한데, 이러한 풍속에서 나온 것 같다.

제 6장 연기군 남면의 통과례(通過儀禮)

연기군 남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서로 더불어 겪은 것이 바로 의례(儀禮)이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고 나이가 차 혼인을 하며 아들, 딸 낳아 살다보니 어느덧 회갑이 되고 생을 마치면 후손들이 제사로 받드는 것이 바로 인생이며 이 과정을 통과례(通過儀禮)라 한다.

본 장에서는 관(冠)·혼(婚)·상(喪)·제(祭)에다가 인간의 태동기인 출생에 관한 것과 경로효친을 반영하여 회갑, 진갑, 칠순, 팔순의 잔치를 비롯 결혼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回婚禮)를 넣어 남면에서 행하는 통과례를 정리하였다.

전통의식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허례허식이라 표현하는 이도 있다. 그러기에 1961년에 현시대에 알맞은 의례준칙을 만들고 1969년에는 가정의례준칙이 법제화되면서 전통의식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비용 면에서는 줄었는지언정 서양의 문화가 섞여 의미없는 행사로 전락하거나 아예 전통이 사라진 예가 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절 출생의례(出生儀禮)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의식에는 가문을 보존하고 후손을 잇는 것에 의미를 치중한다.

그러기에 과거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거나 특히 남아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저지른 것이 되어 쫓겨나든지, 남편이 남아 생산을 목적으로 첩이나 씨받이를 들이는 것에 순응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다. 예전에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었던 수보다 훨씬 줄어 이제는 들이나 하나를 고집하는 이가 늘고, 심지어 자녀를 두지 않는 이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에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가문을 잇고, 특히 제사를 모시는 등 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1. 기 자 (祈子)

예전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성을 드렸는데, 이를 기자(祈子)라 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임신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 치료를 하는데, 원인이 없는데도 임신이 안 될 때에는 종교 의식이나 동네 노인들의 말을 따라 여러 가지 기자(祈子)행위를 한다.

기자의식(祈子儀式)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예가 있다.

산이나 절 들을 찾아가 절대자에게 아들을 비는 행위이다.

높은 산이나 커다란 바위, 또는 마을 뒷산 중 영험한 곳을 찾아가 정화수를 떠 놓고 산신께 기도를 한다. 또 절을 찾아가 부처님, 보살님에게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데, 절의 칠성각, 산신각에서도 빈다.

집안에서는 성주, 칠성님, 조왕님 또는 삼신할머니께 정화수, 미역국을 해놓고 아들 낳기를 빈다. 또는 무당을 통하여 바깥에서 삼신을 받아오거나 성황당이나 당산나무를 향하여 빈다.

샘이나 개울물의 웅덩이에 금용왕이라 하여 빌기도 하고, 아들바위를 찾아가 자식을 비는데 바위구멍 틈에 돌을 던져 적중해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연기군 남면 곳곳에도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렸던 곳이 많다. 남면 독락정 뒤에 있는 석불에 음식을 차려놓고 빌었고, 당산 아래 석연사 미륵불에서 치성을 드린 이도 많다. 또, 전월산과 원수산, 국사봉, 당산 중턱에는 산제당이 있어 이곳에서 빌기도 하고 큰바위나 우물에서도 득남을 기원한다.

둘째, 자식 낳기를 비는데 특별한 음식을 먹는 사례가 있다.

누런 장닭의 생식기를 떼 내어 약을 조제해 먹는다.
산모에게 첫국밥을 해주고 그 산모와 첫국밥을 같이 먹는다.
남의 산신상에 올려놓았던 쌀을 훔쳐다가 밥을 지어먹는다.
남의 집 금줄에 매단 고추를 떼어다가 달여먹는다.
설날 낳은 달걀을 삶아 먹는다.

셋째, 아들을 낳기 위하여 주술 행위를 한다.

아들 낳은 집 금줄을 몰래 걷어다가 자기 집에 모셔둔다.
다른 부인이 아들 낳을 때 입었던 치마를 얻어다 입는다.
다산한 집의 식칼을 훔쳐다 작은 도끼를 만들어 부인의 베개 밑에
넣거나 속옷에 차고 다닌다.
상여 나갈 때 공포 조각을 훔쳐다가 속옷에 달고 다닌다.
은으로 자물통을 만들어 찬다.
아들 3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의 베개 밑에 감추어 둔다.
고쟁이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 붉은 고추를 넣고 다닌다.

넷째,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하여 보시공덕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찰의 제반 불사에 보시를 한다.
부부가 합심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정월보름날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많은 사람이 잘 다니게 한다.
허물어진 길을 고치거나 공동우물을 뿔어서 깨끗하게 한다.

2. 임신습속(妊娠習俗)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의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진다.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아무 탈없이 순산하기를 비는 뜻도 있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아름다운 것을 배우고 나오면 아이의 건강은 물론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행동인데, 이를 태교(胎敎)라 한다.

태교는 임신한 당사자는 물론 남편도 같이 한다.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뽕감을 마련할 때도 낫이나 도끼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줍거나 꺾어 마련한다.

산모가 태교를 위해 제한하고 금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 감각에도 제한이 따른다.

-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 음란하고 고약한 생각을 하지 말라.
- 음란한 행동과 이야기를 보고 듣지도 말라.
- 착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어라.

둘째, 산모의 몸짓과 가족의 행동에도 제한과 금기가 따른다.

- 상가나 결혼식에 가서도 안 된다.
- 음식을 바가지로 먹어서도 안 된다.
- 빗자루를 깔지 말아야 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한다.
- 산모가 말고삐를 넘으면 열두 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
- 남의 집 담을 넘으면 자식이 도둑이 된다.

셋째, 산모의 음식에도 금기가 따른다.

-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언청이가 된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태아의 손가락이 오리발처럼 붙는다.
 개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형제간의 우애를 못 지킨다.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자손이 귀하다.
 상가집 고기를 먹으면 살갓이 터진다.
 이 빠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으면 아기가 출세를 못한다.
 개고기를 먹으면 태어난 아기가 잘 할퀴고 문다.
 오징어를 먹으면 다리가 붙은 아기를 낳는다.
 식혜를 먹으면 젓이 삭는다.
 염소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염소 소리를 낸다.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몸이 꺼칠꺼칠해진다.

3. 태몽과 예지법

임신을 하면 궁금한 것이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의례히 남아를 먼저 출산하기를 원했으며, 남아를 낳은 여인은 천하를 얻은 듯 행세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변하여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자녀를 하나나 둘만 두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혹 집안에 여자가 많아 꼭 남자를 원하거나 몇 대 독자라며 남자를 원한다든지, 거꾸로 남자가 많아 여자를 원할 때 현대 의학으로 미리 감별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옛날에는 산모가 꾸는 꿈 해몽에 의하여 남·녀를 감별하거나 출산 후 꾸는 꿈에 의하여 아이의 장래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꾸는 꿈을 태몽이라 한다. 태몽은 산모 자신이 꾸는 꿈도 있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꿀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웃 사촌이 대신 꿀 수도 있다.

태몽으로 아들·딸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을 낳는 꿈은 다음과 같다.

꿈에 부처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관을 쓰면 벼슬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호랑이를 안거나 호랑이에게 쫓기면 아들을 낳는다.
소가 집으로 들어오면 아들을 낳는다.
구렁이에게 물리면 아들을 낳는다.
거북이가 헤엄치는 것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자라가 엄지손가락을 물면 아들을 낳는다.
알밤을 주워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붉은 대추를 따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밖에 용, 사슴, 어미돼지, 고추, 콩, 도끼, 안경, 시계, 망치, 옥수수, 은수저, 금비녀 등에 얽힌 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

둘째, 딸을 낳은 꿈은 다음과 같다.

구슬을 얻거나 먹으면 딸을 낳는다.
거울을 얻으면 딸을 낳는다.
노리개를 얻으면 딸을 낳는다.
밭에서 파란 호박을 따면 딸을 낳는다.
물고에서 송사리를 잡으면 딸을 낳는다.

그밖에 학, 닭, 돼지새끼, 계집아이, 꽃, 복숭아, 목화, 밤송이, 은술잔, 은비녀, 금반지, 대야, 새끼줄, 달, 구름 등과 얽힌 꿈을 꾸면 딸을 낳는다.

셋째, 태몽에 의하지 않고 태아가 아들인가 딸인가를 점치는 예지법이 있다.

부부의 나이와 달수를 합하여 홀수이면 아들이고, 짝수이면 딸이다.
산모가 콩을 한 줌 쥐어서 그 수가 홀수이면 아들이고, 짝수이면 딸이다.
태동이 심하면 아들이고, 별로 심하지 않으면 딸이다.
산모의 배가 평평하면 아들이고, 배가 약간 솟아 있으면 딸이다.

뒤에서 사람이 부를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왼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다.
 신 것을 잘 먹으면 딸이고, 싫어하면 아들이다.
 태아가 배 왼쪽이나 위쪽에서 놀면 아들이고,
 배꼽 밑이나 오른쪽에서 놀면 딸이다.
 산모가 국을 좋아하면 아들이고, 비빔밥이나 찜을 좋아하면 딸이다.
 산모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들이고 적게 먹으면 딸이다.
 얼굴이 지저분하면 아들이고 고와지면 딸이다.
 엉덩이가 좁으면 아들이고, 넓으면 딸이다.
 민망스럽게 걸으면 아들이고, 곱게 걸으면 딸이다.
 누웠을 때 편하면 아들이고 불편하면 딸이다.

4. 출산(出産)

산모가 산달이 다 되어 출산할 때 요즘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하여도 집에서 분만하는 것이 예사였다. 출산이 가까워 오면 먼저 출산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출산 준비물로는 배냇저고리와 기저귀, 포대기 등이 있다. 포대기는 옛날부터 친정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대개 시댁에서 마련하여 준다.

해산 장소는 주로 시댁인데 보통 시어머니가 해산을 도왔기 때문이다.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는데, 산모에게 돼지고기와 계란을 먹였다. 돼지고기 중 꺾테기는 기름기가 많아 매끄럽게 순산하라는 의미이다. 계란 역시 같은 의미로 3개를 먹으면 순산한다고 한다.

출산준비로 서두르는 것은 삼신 할머니를 모시는 일이다. 삼신할머니는 아들을 짐지해 주시는 분으로 산모가 출산할 안방 아랫목 천장에 모시는데, 백지를 오려서 달아매거나 짚을 한 줌 깨끗하게 다듬어서 높이 매어놓거나 혹은 짚을 산모 주변에 깔아 태어난 아기를 짚 위에 올려놓는 곳도 있다. 이때 짚은 3일간 깔고 누웠다가 3일 후 태반과 함께 태운다.

짚은 우리의 주식인 쌀을 의미하며 불순물을 잘 흡수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는

곤충이나 나쁜 것의 접근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쌀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봉해 두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성함을 표시한 삼신 할머니다.

백지, 짚, 쌀은 삼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마다 바꾸는 집도 있고, 몇 해 두는 집도 있다.

삼신을 위하는 기간은 짧을 때는 3~7일, 길 때는 3×7일 해서 21일을 모신다. 산실은 부정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과 밖을 청결하게 하고, 상인이나 살생을 한 이(가축을 잡은 자)나 시체를 본 이는 출입을 금한다.

산실 앞이나 대문 앞에 금줄을 쳐서 알리고 붉은 황토를 퍼다가 집 주변에 놓아 잡귀를 막는다.

5. 산파와 태(胎) 처리

산파는 시어머니가 주로 하지만, 마을에서 출산에 경험이 있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많이 할머니를 복있는 할머니라고 해서 초빙하여 아이를 받게 한다.

태를 자를 때에는 텃줄을 알맞은 거리에서 훑어 내리고, 낫이나 가위로 자른다. 사내아이를 낫으로 자르면 커서 일을 잘하고, 여자아이를 가위로 자르면 커서 바느질을 잘한다고 한다.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이빨로 자르면 장수한다고 한다.

자른 태는 부모가 액이 없는 방향으로 가서 불에 태운다. 또는 가족이 불에 태워 재를 길바닥에 뿌리거나 땅 속에 묻는다. 태를 태울 때에는 액이 없는 방향에서 태우는데, 이를 손 없는 방향이라 한다.

참고로 액이 있는 곳(손 있는 방위)은 1·2일은 동쪽, 3·4일은 남쪽, 5·6일은 서쪽, 7·8일은 북쪽이고, 9·10일은 아무 방향에도 손이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원거리 출산, 가축을 잡을 때, 이사할 때 등 광범위하게 손 있는 방향을 꺼려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다. 금줄은 아버지가

주로 쳄으며, 원새끼에 아들을 낳으면 고추·숯을 각각 3개씩 꿰어 단다. 딸을 낳으면 솔가지와 숯을 3개씩 꿰어 단다.

6. 작명(作名)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어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좋지 않다고 해서 예전에는 태어나 21일이나 100일 날에 지어주었다. 성씨에 따라 오행에 의해서 돌림자가 정해져 있어 한 글자만 지어 넣으면 된다.

정상적인 이름을 짓기 전에는 임시 이름으로 ‘개똥이’, ‘쇠똥이’라 짓는다. 이런 천한 이름은 잡귀가 붙지 않고 염라대왕이 싫어하여서이며, 아기 자랑도 귀엽고 잘생겼다고 하지 않고, 밋고 못생겼다고 표현하여 화를 면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딸이 많고 아들이 귀한 집이라든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어서 액운이 있는 집에서는 항렬에 따르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름을 짓게 된다.

민간에서 흔히 돼지, 개똥이, 쇠똥이, 바우, 딸막이 등 천한 이름을 짓는 까닭은 너무 천하고 더러워서 염라대왕도 관심이 없어 무병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름이 멋있고 부르기 좋은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시기를 하게 되지만, 이름이 천하고 나쁘면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귀신도 모두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기의 복을 빌기 위해 지어주는 이름은 복남이, 복돌이, 복덩이, 복순이 등이고, 딸이 많은 집에서 아들 낳기를 원할 때에는 딸고만이, 딸막이, 영남이, 희남이, 필남이, 종마리, 꼭지, 딸끝이 등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아이가 허약하거나 잘 죽는 집안에서는 그 아이를 산, 바위, 나무 등에 양자로 보내거나 팔아서 관계를 맺는 수가 있다. 즉 이것은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강인하고 무궁한 생명력이 그의 양자인 아들에게도 전해지고 계승되어 장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 순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아버지 성 뒤에 어머니 성을 넣어 이름을 짓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

이름을 지어 호적에 올릴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아기의 이름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글자 안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글자 외의 것으로 지었을 때는 소송을 걸어 법원판결에 이 글자를 써도 좋다는 판결문이 나와야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음만 한글로 표기하여 호적에 올릴 수 있다.

7. 백일(百日)

아이를 낳은 지 백일째 되는 날 베푸는 잔치를 백일(百日)이라 한다. 백일을 넘기면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백일이 되기도 전에 사망하는 예가 많아서 백일만 넘기면 살아서 장수한다는 뜻으로 축하를 했던 것이다.

아이의 수명이 길어지라고 이날부터 색깔 있는 옷을 입힌다. 배냇머리는 머리 카락 몇 가닥만 남기고 깎아주는데, 이것 역시 아기가 장수하라는 뜻이다.

백일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백설기와 수수떡이다. 백설기는 백세 장수하라는 뜻이고, 수수떡은 잡귀를 막기 위함이다. 백설기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일음식을 받은 집에서는 그릇을 씻지 않고 실을 담아 보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아기의 수명이 길어지라는 것이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세이레, 백일, 돌잔치를 거치는 동안의 의례가 대부분 아기의 수명에 관계된 것임을 미루어 예전에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즘에는 백일잔치에 하객이 주로 가져가는 것이 금반지 반 돈이다. 또는 아기에 필요한 용품을 선물하기도 한다.

8. 돌

아기가 태어난 지 1년(한 해)이 되는 날이다. 이를 캔밤이라 하는데, 돌잔치도 백일 때와 비슷하다. 삼신상을 차리고 남자아이는 바지를 남색 쾌자에 복건을 씌우고, 여자아이는 다홍치마에 노랑 또는 연두색 저고리를 하고 당의 마고자를 걸치며, 머리에는 조바위를 쓴다.

돌 잔치상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기더러 집어 올리게 한다. 이를 ‘돌잡이’라 하는데, 이때 아기가 집어 올린 물건을 보고 아기의 장래를 예견한다. 남자아이의 경우 먼저 집는 것이 활이면 장군감, 쌀이면 부자, 연필이면 학자나 관리가 된다고 하였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바늘이나 가위를 집으면 바느질을 잘하고, 칼을 들면 음식솥씨가 뛰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요즘에 연기군에서는 돌집에 갈 때 ‘돌반지’라 하여 금반지 1돈을 가지고 가 축하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옷이나 장난감 등을 가지고 간다.

제2절 관·계례(冠·笄禮)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던 어린이들이 세월이 흘러 나이가 차면 성년이 된다.

지금은 성년의 구분이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사회의 성년행동에 걸림돌이 없으며,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조상들은 성년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차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야겠기에 관·계례를 행하였다.

관례(冠禮)는 남자가 땅아 내리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을 쓴다는 뜻이고, 계례(笄禮)는 여자가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이른다. 이것을 합쳐 관·계례(冠·笄禮)라 부른다. 지금은 성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뜻은 같다.

1. 관·계례의 유래

관·계례는 중국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대략 고려 광종(光宗)16년에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를 행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것이 초유이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15세부터 20세 사이에 관례를 치른다고 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조혼(早婚)하는 사례가 늘어 관례의 시기도 이보다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 관혼상제 중 혼례와 상례, 제례는 예전과 변함없이 진행되지만, 관례를 행하는 예는 드물다. 향교나 서울의 성균관에서 행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생활 자체에서 관·계례를 행하지는 않고 있다.

2. 관·계례 준비물

- 치관(緇冠)-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만든 검은 관
- 계(笄)- 머리를 꼭뒤에 쪽 저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꽂는 비녀
- 심의(深衣)- 높은 선비의 옷. 흰 베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름
- 대대(大帶)- 심의에 두르는 띠
- 조(條)- 실로 만들어진 띠로서 대대에 매는 실띠
- 리(履)- 검은 명주나 검은 베를 종이에 붙여서 만든 신
- 모자(帽子)- 초립(草笠). 나이가 어린 사내로서 관례한 사람이 쓰던 누런 빛깔의 가는 풀로 결여서 만든 갓.
- 백삼(白衫)- 청포, 도포의 일종
- 혁대(革帶)- 가죽띠
- 혜(鞋)- 신에 꾸밈이 없는 가죽신
- 복두(幘頭)- 사모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고 뒤쪽의 좌우에 날개가 달렸음
- 난삼(欄衫)- 녹색이나 검은빛의 단령(團領)에 각기 같은 빛의 선을 둘렀음
- 대(帶)- 난삼에 두르는 띠
- 화(靴)- 신
- 즐(櫛)- 빗

- 량- 망건
- 포혜(脯醢)- 포육과 식혜
- 잔반(盞盤)- 술쟁반
- 주주(酒注)- 주전자
- 관분(盥盆)- 손을 씻는 대야
- 세건(洗巾)- 수건

지금은 관·계례(冠·笄禮)라 하여 남녀가 같이 의식을 행하지만, 예전에는 관례(冠禮)와 계례(笄禮)가 따로따로 행하였다. 그래서 관례와 계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3. 고례(告禮)

관례 치를 날짜가 잡히면 이보다 3일 전에 조상에게 이를 알리는데, 이 의식을 고례(告禮)라 한다.

관자(冠者)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당(祠堂)에 삼색(三色)의 과일을 차려 놓고 축문을 읽어 고한다. 축문은 대개 이러하다.

**유세차(維歲次) 모월 모일 누구의 손자 누구는 감히 밝혀 고하나이다.
현고조고학생부군(顯高祖考學生府君) 현고조비유인(顯高祖 孺人) 모관
모씨 누구의 아들 누구는 나이가 점점 차면서 성장하여 장차 어느 달
어느 날에 머리에 관을 씌우겠기로 이에 주과(酒果)를 차려놓고 삼가
고하나이다.**

이 고례가 끝나면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쪽에 휘장을 취고, 관례 당일에는 준비한 관복(冠服)을 상 위에 올려놓는다.

4. 초가(初加)

관례의 첫 번째 의식이 초가(初加)이다. 이날 성인이 되는 관자(冠者)는 쌍 상투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 늑백(勒帛) 무늬있는 신발인 채리(彩履)로 차림을 갖추고 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관례의 시중을 드는 찬자(贊者)는 관자의 머리를 빗으로 빗겨 두 가닥의 상투를 한 데 묶는다. 이를 합계라 한다. 합계가 끝나면 찬자는 망건을 씌운다.

빈(賓)은 검은 관인 치관(緇冠)을 갖고 관자 앞으로 나아가 축사를 읽은 뒤 치관을 씌우고 계(笄)를 꽂는다.

찬자가 건(巾)을 빈에게 주면 빈은 이를 받아 관자에게 씌우고, 찬자는 허리띠[帶]를 매어준다. 이어 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선비들이 입는 옷옷인 심의(深衣)로 갈아입고, 큰띠[大帶]를 두른 다음 그 위에 실띠[條]를 더하여 검은 신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초가 때의 축사는 다음과 같다.

※빈(賓)이 처음 관을 씌울 때 읽는 축사

길월영진(吉月令辰), 시가원복(始加元服), 업이성덕(葉爾成德), 수고유기(壽考維祺), 이개경복(以介景福) - 길하고 좋은 때에 비로소 원복을 더하니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장성한 덕을 따라 오래도록 수를 누리 고 경복을 받으리라.

5. 재가(再加)

관자가 정해진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빈이 초립(草笠)을 가지고 관자 앞으로 나아가 축문을 읽는다. 찬자가 초가(初加) 때 관자가 쓰고 있던 관건(冠巾)을 벗기면 빈이 초립을 씌운다.

그러면 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早衫 : 청포)에 혁대(革帶)를 매고 계해(繫鞋)를 신은 뒤 방에서 나와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재가 때의 축문은 대개 다음과 같다.

※두 번째 관을 씌울 때 읽는 축사

길월영진(吉月令辰), 내신이복(乃申以福), 근이멸의(謹爾滅儀), 속신이
 덕(淑慎以德), 미수영년(眉壽永年), 향수가복(享受假福) - 길한 달 좋
 은 때에 너에게 옷을 입히고 삼가 의식을 갖추니, 덕을 쌓고 닦아서
 눈썹이 세도록 오래 살아 복락을 누리라.

6. 삼가(三加)

관자가 자리를 잡고 꿇어앉는다. 그러면 빈이 복두(幘頭)를 들고 나아가 축문
 을 읽는다. 복두는 사모(紗帽) 같이 좌우에 날개가 달린 관이다.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이 이 복두를 씌운다.

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欄衫)으로 갈아입고 혁대를 두른 뒤
 신을 신고 나온다.

삼가 때의 축문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품행을 달리하여 오래도록 복락을 누
 리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관을 씌울 때 읽는 축사

이세지정(以歲之正) 이월지령(以月之令) 함가복(咸加服) 형제구재(兄弟
 俱在) 이성귄덕(以成厥德) 황고무강(黃耄無疆) 수천지경(受天之慶) —
 좋은 해와 좋은 달에 너의 관복을 입혀주니 형제간에 함께있어 그 덕
 을 이루면 흰머리와 얼굴빛이 누령도록 살면서 하늘이 주시는 무궁한
 경복을 받으리라.

7. 빈자·관자(賓者·冠者)

관자(冠者)·빈(賓)·찬자(贊者)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나눈다. 이를

초(醮)라 한다. 그런 뒤에 빈이 섬돌을 내려와 동쪽을 향해 서면, 관자는 서쪽 섬돌로 내려와 동향하다 남향하고, 이때 빈이 자(字)를 지어주는 축문을 읽는다. 관자는 이에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올린다.

주인은 관자를 사당으로 데리고 가서 조상 신위에게 고사(告辭)를 올리고 재배(再拜)한다. 그런 다음 집안 어른들을 뵙고 나서 빈에게 예를 행한 뒤에 마을 어른들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음식을 대접하게 된다. 이로써 관례의식을 마치게 된다.

※관자에게 술과 포찬을 주고 읽는 축사

지주기청(旨酒既清) 가천령방(嘉薦令芳) 배수제지(拜受祭之) 이정이번(爾定爾) 승천지휴(承天之休) 수고불망(壽考不忘) - 좋은 술은 이미 맑고 아름다운 제물이 향기로우니 절하고 받아 신께 제사하여 너의 상서를 정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들어 오래오래 살면서 잊지 말지어다.

8. 계례(笄禮)

계(笄)는 일종의 비녀같은 것이다. 남자들은 상투가 흘러내리지 않게 꽂기도 하고, 여자들에게는 비녀같은 역할을 한다.

여자에게 행하는 성인의식은 관례라 하지 않고 계례(笄禮)라 한다. 비녀를 꽂아주는 예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남존여비사상이 강하여 계례는 관례만큼 복잡하지 아니했다.

계례는 처녀의 어머니가 주관한다. 주례(빈)는 친척 가운데서 어질고 예법에 밝은 부인으로 정해서 계례 3일 전에 청한다.

당일날이 밝으면 의복을 내놓고 차례대로 서 있다가 주례가 오면 어머니가 맞아 드린다. 차례로 설 때는 어머니가 주인의 자리에 선다.

주례가 성년의식을 치르는 처녀에게 머리에 쪽을 지게 하고는 계(笄)를 꽂아 준다. 그리고 나면 처녀는 방안으로 들어가 배자(褙子)를 입는다. 이 옷은 소매가 없는 내의처럼 속에 입는 친의(襯衣)로 빛깔이 있는 비단이나 명주로 만들고

길이는 치마 길이와 같다.

이어 제사를 지내고 자(字)를 부르고 나면 조상을 모신 사당에 데리고 가서 참배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날 모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관 · 계자에게 자(字)를 지어줄 때 읽는 축사

예의기비(禮儀既備) 길월령일(吉月令日) 소고이자(昭告爾字) 원자공가(爰字孔嘉) 장사[여사[수의(士[女士]脩宜) 의지우하(宜之于嘏) 영수보지(永受保之) - 예의를 다 갖추어 길한 달과 좋은 날에 너의 자(字)를 밝혀 고하니 그 자(字)가 심히 아름다워 배운 선비[어진 여자]에게 마땅하니 복(福)에 마땅케 하여 길이 보전하라.

※관 · 계자가 자(字)를 받고 대답하는 말

모(某一姓名) 수불민(雖不敏) 감불숙야지봉(敢不夙夜祗奉) - 제(성명)가 비록 불민하오나 어찌 감히 밤낮으로 조심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9. 자(字)의 의의와 성격

『예기(禮記)』에 “ 남자는 20세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자(字)를 짓고, 여자는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笄禮)를 행하고 자를 짓는다.” 라고 하면서 관례를 행하고 자를 짓는 것은 그 이름을 공경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 때문에 어른[成人]이 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출생한 후부터 갖게 된 이름[名] 이외에 누구나 널리 부를 수 있는 별도의 칭호가 필요하게 되어 자를 지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字)는 성년의식인 관례를 행할 때 짓게 되는데, 예전에는 관례를 혼인례(婚姻禮)보다 중요시하였다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른과 아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준을 머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관례는 머리를 가다듬어 관을 쓰는 의식이고, 여자의 계례는 머리를 꾸미며 비녀를 꽂는 의식이다. 머리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아이에서 벗어나 어른이 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바꿔 말하면 인격의 변화를 머리에다 그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는 신체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신이 담긴 곳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영묘처(靈妙處)인 까닭으로 다른 의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례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빈(賓)은 성년이 된 젊은이(冠者)에게 세 번 각각 다른 관을 씌워준다. 평생 쓸 수 있는 관을 한번씩 선뎠는 것인데, 그때마다 축사를 해서 성년이 된 의미와 이후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있고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항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 함유된 자(字)는 성인으로서의 의미와 책임이 담겨져 있다. 즉 성인으로서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한 인생의 지표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자(字)를 중시하였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호(號)처럼 풍류적·해학적인 성격을 띤 것은 전혀 없고, 대부분 근엄하게 실천할 덕목이 함유된 글자로 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字)를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어진 이름(名)과 연관성을 가지고 지었고, 이름과 무관하게 짓는 경우는 드물었다.

제3절 혼인례(婚姻禮)

성인이 된 남녀는 서로 만나 혼인(婚姻)을 해야 서로 부부로서 한평생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남과 여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婚姻)’이라 하는데, ‘혼(婚)’자는 남자가 장가를 든다는 뜻이고, ‘인(姻)’자는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처럼 공용되는 곳에는 결혼이 아닌 혼인이라 쓰여 있다.

또 혼인을 ‘이성지합(二姓之合)’이라고도 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지칭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은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이므로, 양은 낮이요 음은 밤이므로 낮과 밤이 만나는 황혼시간에 거행하였다. ‘혼(婚)’ 자는 날 저물 ‘혼’ 자이므로 이를 ‘혼례(昏禮)’ 라고도 부른다.

혼인례(婚姻禮)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였다.

본 장은 연기에서 행했던 전통혼례를 먼저 기술하고, 뒤이어 가정의례 준칙으로 제정된 내용을 삽입하였다.

오늘날 전통혼례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기보다는, 선인(先人)이 행하던 의식에는 반드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겠기에 되도록 자세히 기록해 놓는다.

1. 혼례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의 결혼 풍토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다. 첩을 두어 다처적(多妻的) 경향이 있으나 정실과 첩을 엄격히 구분하였고, 신분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층에서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다.

신라·고려의 왕족은 계급적 내혼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혼(血族婚), 인척혼(姻戚婚) 등이 행해졌고, 부여·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풍습이 기록으로 전한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말에는 친가는 물론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異姓再從姊妹)와의 금혼(禁婚),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한편 가계의 존속을 위하여 첩제도를 공인하였으나 처와 첩의 구별이 엄격하고, 부녀자에 대한 정조관념을 강요한 결과 재가를 허락치 않았다. 왕가의 간택, 원나라 및 명나라에 대한 헌녀(獻女), 당파간의 금혼, 궁합에 의한 불혼 등 극히 복잡한 금혼 조건으로 조혼(早婚)의 관습이 생겼다.

고구려에서는 데릴사위 제도가 있어 혼인 후 낳은 아들이 장성하면 본가로 돌

아가도록 하였고, 고려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고구려와 다른 점은 신랑이 일정한 기간을 처가에서 노동으로 봉사한 후 돌아가는 일종의 봉사혼이었던 점이다.

이 밖에도 교환혼의 한 변형인 회전혼(삼과형의 혼인, 갑은 을의, 을은 병의, 병은 갑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있었고,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여 약탈혼(미리 약속하고 밤에 몰래 업어 가는 풍습)도 민간에서 성행하였다.

2. 혼례의 절차

중국의 혼례는 주나라 때부터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를 갖추어야 하였다. 그러나 너무 번거로워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문공 주자(文公 朱子)가 이를 조금 간소화 해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받아 사례를 치르게 되었다.

유교 사상의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 특히 집안 어른들의 의사에 따랐으므로, 쌍방 가족의 허락인 중매결혼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모든 제도가 개편되면서 결혼제도에 있어서도 단점을 시정하기에 노력하여 조혼의 폐지를 비롯, 과부의 재가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였고, 복잡한 혼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다.

3. 의혼(議婚)

남녀가 나이가 차면 혼사를 걱정하여 이리저리 알아본다. 어른들이 친분이 있어 서로 혼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집 규수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중매인(중신아비라고도 함)에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도록 보낸다. 그쪽에서 싫은 기색이 없으면 비로소 신부의 신상 파악에 들어가는데, 두 집안의 가문은 물론 두 사람의 궁합을 제일 먼저 살펴본다.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비로소 두 집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허혼(許婚) 또는 면약(面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남자쪽에서는 정식으로 청혼 편지를 여자쪽으로 보내고, 여자쪽에서는 허락하는 편지를 남자쪽에 보낸다.

※청혼서(請婚書)의 예

복유진하(伏惟辰下)

존체후이시만중(尊體候以時萬重) 소구구지지(素區區之至) 제가아(弟家兒) 친사(親事) 년급가관(年及可冠) 상무지합처(尙無指合處) 근문(近聞) ○○동(洞) ○○씨가(氏家) 규양(閨養) 숙철운(淑哲云) 능기유(能其誘) 사결진진지의(使結秦晉之誼) 여하(如何) 여(餘) 불비례(不備禮) 근배(謹拜) 상장(上狀)

월(月) 일(日) ○○동(洞) 하생(下生) ○○○ 배상(拜上)

※허혼서(許婚書)의 예

복유춘원(伏惟春元)

존치동지후만중(尊體動止候萬重) 앙위구구지지(仰慰區區之至)

제여아(弟女兒) 친사(親事) 불비한루(不鄙寒陋) 여시근유(如是勤誘)

감불청종(敢不聽從) 여(餘) 불비복유(不備伏惟) 존조(尊照) 근배(謹拜)

상장(上狀)

4. 납채(納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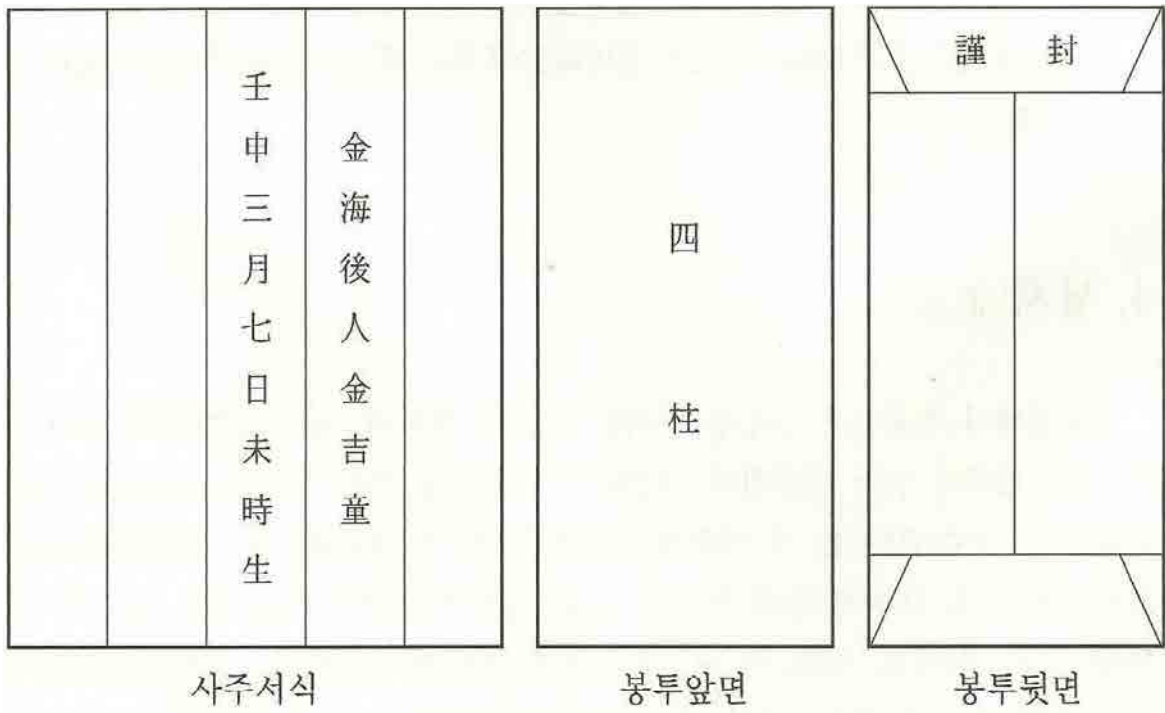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를 말하며, 납징(納徵)이라고도 한다. 신랑집에서 먼저 신부집에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는데, 사주(四柱)는 네 기둥이란 뜻으로 ① 연주(年柱), ② 월주(月柱), ③ 일주(日柱), ④ 시주(時柱)를 말한다. 이를 식물과 사람에 비유하면, ①은 뿌리/조상, ②는 싹/부모, ③은 꽃/나, ④는 열매/자녀에 해당한다. 사주를 육십갑자로 적으면 각각 두 자씩 8자가 되므로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도 한다.

납채를 요즘말로 약혼이라고도 하는데, 양가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주고받기도 한다. 이때에 만날 장소는 여자측에서 준비하며, 납채는 청색과 홍색의 옷감을 보내는데, 납채 취지의 글[납채서]를 넣어 보낸다.

사주단자는 백지를 다섯 칸으로 접어 중앙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쓴 다음 봉투에 넣고, 봉투에 곁에는 사주(四柱)라고 적어 봉투를 싸리나무 가운데를 쪼개서 청실·홍실을 감아 끼워 청홍보자기에 싸서 사람을 통해 보낸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중신아비나 대복지인(大福之人)을 보낸다.

사주가 오면 치마폭으로 받아서 쌀단지에 넣었다가 꺼내보는 곳도 있다. 이렇게 절차상으로 신랑의 사주만 보고, 신부의 사주는 보지 않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자는 남자의 사주에 따라 살면 된다는 생각이다.

신랑·신부의 사주를 가지고 신부어머니는 궁합을 보는데, 궁합은 남녀의 사주오행으로 풀어 상극(相剋), 상생(相生), 상비(相比)를 따져 말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사주팔자를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5. 연길(涓吉)

연길이란 택일(擇日)과 같은 뜻으로 날받이라 한다. 신랑집에서 날짜를 받아 오면 신부집에서 그대로 하기도 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여자측에서 최종적으로 혼인날짜를 정하여 남자쪽에 알리는 것을 납기(納期)라 한다.

연길단자(涓吉單子)는 백지를 다섯 칸 또는 일곱 칸으로 접어 중앙에 전안연월일시(奠雁年月日時)를 쓴 다음 봉투에 넣어 청홍 보자기에 싸서 보낸다.



연길을 보낼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의제장을 함께 보내는데, 이를 의양서간(衣樣書簡)이라 한다. 의양(衣樣)이란 옷의 크기를 잴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 | | |
|----------|----|----|----|
| 주의 지어 길이 | ○자 | ○치 | 넉넉 |
| 앞품 지어 | ○자 | ○치 | |
| 뒤품 지어 | ○자 | ○치 | 넉넉 |
| 화장 지어 | ○자 | ○치 | 넉넉 |

6. 납폐(納幣)

혼인이 성립되면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데, 이것을 납폐(納幣)라 한다. 납폐는 예물과 혼서지를 함에 넣어 보내기 때문에 ‘함(函) 보낸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함은 예장함(禮狀函)이라 한다.

함에는 신부의 옷감을 넣는데, 이를 채단(綵緞)이라고 한다. 채단은 청색과 홍색의 비단으로 치마 두 벌의 옷감이나 치마저고리의 옷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많아도 열 가지를 넘지 않고 적어도 두 가지는 되어야 한다. 채단의 포장은 청단은 홍색 종이(또는 보자기), 홍단은 청색 종이(또는 보자기)로 싸고, 각각 중간을 청실과 홍실로 나비매듭을 지어 묶는다.

납폐의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폐물과 혼수 등을 넣은 함은 한 달 전쯤 보내고, 혼서지와 채단을 넣은 함은 결혼식 전날 밤에 보내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혼식 전날 밤에 한꺼번에 보내기도 했다.

함을 보낼 때에 신랑집에서는 봉치떡(참쌀 두 켠에 팔고물을 넣고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은 찰떡)을 정성껏 찐 다음, 시루째 마루 위에 있는 소반을 떼어다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았다가 지고 가게 한다.

신부집에서도 똑같은 봉치떡을 해서 화석문을 대청에 깔고 소반에 시루째 올려놓았다가 함이 오면 받아서 그 위에 얹어 놓는다. 함을 받은 뒤 혼서는 사당으로 받들고 가서 고사를 지낸다. 봉치떡 가운데 박았던 대추와 밤은 신부의 주발 뚜껑에 퍼 두었다가 혼인 전날 신부가 먹도록 했다.

함을 지고 온 이를 ‘함진아비’라 부르는데, 신부집에서는 함진아비를 친절히 대접해야 한다. 예전에는 함진아비를 하인이 하였으나, 요즘에는 신랑의 친구 중 첫째아들을 낳은 기혼자가 하는 것이 보통이다.

혼서지(婚書紙)는 함의 맨 위에 올려놓는데,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한다. 백지를 길이 36cm, 폭 60cm 정도의 크기로 잘라 9번 접어서 혼서보(검은 비단 겹보자기 네 귀퉁이에 붉은 색 금전지를 단 것)에 싸서 근봉(謹封)을 두른 다음 함 위에 올려 놓는다.

신부의 아버지가 혼서를 받아 사당에 고하고, 신부는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관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연길송서

복유맹춘(伏惟孟春)

존체백복(尊體百福) 복차장자(僕之次子) 모(某) 년기장성(年既長成)

미유항려(未有伉儷) 복몽(伏蒙) 존자허이(尊茲許以) 영애(令愛)

황실(室) 자유선인지례(茲有先人之禮) 근행납폐지의 (勤行納幣之儀)

불비복유(不備伏惟) 존조(尊照) 근배(謹拜) 상장(上狀)

연(年) 월(月)

일(日)모관후인(某貫後人) 이(李)○○ 재배(再拜)

7. 친영(親迎)

친영이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의례 절차이다. 그래서 ‘장가간다’ 라는 뜻이 바로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들러 간다는 뜻이다.

먼저 신부집에서는 대문 밖 서쪽에 신랑이 나귀에서 내리면 잠시 쉴 곳을 마련하는데, 이것을 사처(舍處)라 한다. 사처는 보통 이웃집의 깨끗한 방을 빌려서 쓰게 된다.

신랑이 사모관대에 관복을 입고 묵화(墨靴)를 신고 예장을 갖추는데, 이것을 성복(成服)이라 한다. 성복은 사모(紗帽)에 신랑은 성복한 뒤 주혼자와 사당에 가서 조상님께 고한다.

대례(大禮) 며칠 전 또는 전날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히고 결혼의 중대성과 부부의 예에 관하여 엄숙하게 교훈을 하고,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의 교훈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가르쳐준다. 특히 어머니가 신부를 대하는 것도 이때에 가르쳐 준다.

신랑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집으로 간다. 수행은 신랑의 존속친(尊屬親 : 보통 숙부나 백부) 중의 한 사람이 혼행을 거느리고 간다. 수행은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람직하며, 가까운 친척이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까이 모시는 동네 어른도 무방하다.

신랑이 신부집을 향해갈 때 한 사람이 기러기를 가지고 앞에 서서 간다. 신부집에 도착하면 안내받은 사처에서 대례시간까지 기다린다.

혼례는 해가 지고 나서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시간을 맞추어 혼행을 맞기 위해 하인들이 초롱불을 들고 십 리, 이십 리까지 마중을 나가곤 했다.

8. 전안례(奠雁禮)

전안례는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먼저 전현소(奠硯所)에 들어서 나무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고 집사의 흘기에 따라 전안례를 행한다. 전현소는 전안청(奠雁廳)이라고도 하며, 신부집에서 초례청이 있는 안마당 한쪽에 마련한다. 교배상 옆에 따로 마련한 전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북쪽을 향하여 앉아 상 위에 청홍보자기로 쓴 목안(木雁 : 나무기러기)을 올려놓고 재배(再拜)한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이를 치마폭에 싸 가지고 신부 앞에 가서 가볍게 던진다. 이때 목안이 바로 서면 첫아기를 낳고 누우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이것을 소례(小禮)라고도 하는데, 이것으로 부부의 맹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러기를 두고 하는 것은 기러기가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잘 지키며, 한번 짝을 정하면 그 짝을 잃더라도 다시 짝을 구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 속성을 지닌 새이기 때문에 기러기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이다.

9. 초례(醮禮)

초례는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를 지내고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卺禮)를 합쳐서 초례라고 한다.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대면하여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으로 대청이나 뜰에 동서로 좌석을 마련하여 병풍을 남북으로 치고 교배상을 한가운데 놓는다.

상 위에 촛대 한 쌍을 켜 놓고, 송죽을 꺾은 화병 한 쌍과 백미 두 그릇과 닭

한 쌍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 두 그릇을 준비하고 술상 두 상을 준비한다.

초례상의 진설은 지방과 가풍에 따라 다르다.

1) 교배례(交拜禮)

교배례는 신랑신부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교배상 앞에 나온 신랑, 신부는 집례의 말에 딸 교배상을 동서로 마주 서서 각각 준비된 대야의 물에 손을 씻은 다음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하는 것을 두 번 되풀이한다.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 번 절하는 것은 음양으로 보아 여성은 음의 수인 짝수로 절하고, 남성은 양의 수인 홀수로 절하는 것이다.

교배(交拜)를 할 때는 큰절을 한다. 큰절은 보통 공수배(拱手拜)로 한다. 공수(拱手)는 공손한 자세로, 앉거나 설 때에 손을 맞잡는 것을 말한다.

교배상에 답을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수탉은 처자를 보호하며 먹이를 구해주고, 생활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와 맞서 싸우며, 때를 알아 울어주기 때문에 수탉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 처자식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며, 생활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히 싸울 줄 알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일 것이다.

암탉은 수탉의 보호를 받으며 병아리를 잘 기르는데, 신부 또한 이러한 점을 본받아 살림을 잘하고, 자녀를 잘 기르라는 뜻이 담겨있다.

2) 합근례(合斟禮)

교배례를 마친 신랑 신부가 합근례의 의식으로 들어간다. 대례를 진행하는 집사자가 “합근분치서부진’ 하고 말하면, 시중드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앞에 술잔을 갖다 놓는데, 하나는 일반 술잔이요, 또 하나는 표주박을 준비한다.

첫 번째 술잔에 술을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이 잔을 빈 그릇에 세 번에 나누어 따르고 과일 안주를 집어 상위에 놓는다. 이것이 천지신명에게 드리는 것이라 하겠다.

시자가 다시 빈 잔에 술을 채우면 신랑과 신부는 그 잔을 각각 다른 시자에게 준다. 그 잔을 신랑측 시자는 신부에게, 신부측 시자는 신랑에게 가져다준다.

신랑이 함께 들자는 뜻으로 신부를 향하여 읍하고(두 손을 마주잡아 얼굴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고) 잔을 들어 마시면 신부도 따라 마신다.

세 번째 잔은 표주박을 사용한다. 양측의 시자가 준비된 표주박에 술을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자기 잔에 손을 대었다가 시자에게 준다. 그러면 그 잔을 둘째 잔과 마찬가지로 신랑측 시자는 신부에게, 신부측 시자는 신랑에게 준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읍하고 표주박 잔을 들어 마시면, 신부도 따라 마신다. 이것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절차를 합근례(合罇禮)라 하는데, 이로써 혼례식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합근례에 쓰는 표주박 잔은 한 쌍으로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것이다. 박은 다산(多産)의 식물로 대지의 생산력(生産力)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 새의 알과 함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신성시하기도 하였다.

조롱박이나 둥근박을 쪼개서 만든 한 쌍의 표주박잔은 그 짝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다시 짝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신랑신부가 마시는 술은 민간신앙에서 정화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파괴와 정화의 큰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성시된다.

합근례에서 신랑 신부가 예로부터 신성시하여 왔고, 이 세상에서 다시 짝을 구할 수 없는 한 쌍의 표주박잔에 신성시되는 물(혹은 술)을 부어 서로 바꾸어 마시며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서약하는 것은 참으로 뜻 있는 일이라 하겠다.

초례(교배례, 합근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의 처소로 들어가 신랑은 신부집에서 마련해준 옷으로 갈아입고, 신부는 신랑집에서 마련해준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옷을 “관디벗김”이라 한다.

초례를 마친 신랑과 신부는 한 방에서 몸을 합치는 합궁례(合宮禮)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신방(新房) 또는 첫날밤 이라고 한다. 신랑 신부는 합궁례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며, 전에는 신방 엿보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이 어린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는 남자 또는 사귀(邪鬼)의 해를 입지 않도록 지

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우귀(于歸)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절차이다. 신부가 대례를 지낸 그 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흘동안 신부집에서 신방을 치르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의 것을 당일우귀(當日于歸)라 하고, 뒤의 것을 삼일우귀(三日于歸)라 한다.

지방에 따라 1주일 우귀, 1개월 우귀, 3개월 우귀, 1년 우귀, 3년 우귀가 있었으나, 삼일우귀가 가장 많았다.

시댁으로 간 신부는 준비해간 폐백(幣帛)을 드리고 새며느리로서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드린 다음, 시부모 외의 다른 가족, 친족과 상면하는 절차를 가졌다. 사당을 모신 집에서는 사당 참례를 하기도 한다.

요즈음에는 혼인예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폐백을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11. 폐백(幣帛)

혼례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에 가서 처음으로 어른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폐백에는 대추와 밤, 꿩을 쓰는데, 대추는 시아버지에게, 꿩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다. 요즘에는 꿩 대신 닭을 많이 쓰고 있다.

옛날에는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병풍을 치고 시아버지는 동편에, 시어머니는 서편에 앉은 후, 주안상을 차리고 배례(拜禮)하였다.

폐백상만 놓고 수모(手母 : 신부집에서 함께 옴)가 신부를 시부모 앞으로 데리고 가서 큰절을 한 번 시킨다.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신부가 일어났다 앉으면, 수모는 폐백을 가져와 신부가 바쳐 올린다는 뜻으로 신부 앞을 잠깐 거쳐서 폐백상에 갖다 놓는다. 이때 먼저 대추 폐백을 시아버지 앞에 놓고 세 번 반절을 한다. 다음 수모는 시어머니에게도 절을 한 번 시키고 앉게 한 뒤, 편포나 포를

역시 신부 앞을 거쳐서 시어머니 앞에 놓고 다시 세 번 반절을 한다.

신부가 다시 앉으면 시아버지는 대추를 며느리 치마 앞에 던져 준다. 수모는 그것을 받아 신부 원삼 안에 넣어주면서 첫 아들을 낳으라는 등 잘되기를 비는 덕담(德談)을 한 뒤, 그릇에 옮겨 신부방에 갖다 놓아 밤에 먹도록 한다.

이때 시어머니는 편포 위를 두드리며 어루만진다. 이것은 신부의 흉허물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신부에게 대추를 던져주지 않는다. 만일 시아버지가 없을 때는 사당에 고하여 폐백하고 나온 다음에 시어머니가 “이것이 너의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며 대추 몇 개를 그릇에 담아 며느리에게 준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고 나면 폐백은 수모가 물리고 빈 상만 놓아두고 다른 친족들에게 폐백을 드리게 한다.

시조부모가 계시면 두 분의 폐백도 따로 준비하여 시부모에게와 똑같이 폐백을 드리게 한다. 친족에게는 폐백이 없고 절만 하게 한다. 시삼촌, 시고모 등 항렬이 높은 어른에게는 내외분이 함께 앉게 하여 4배를 한다. 같은 항렬은 선후를 따져 손윗분에게 한 번씩(내외가 같이 앉아 있을 때는 두 번)하고, 손아랫사람인 경우 저쪽에서 먼저 절을 하면 답례로 맞절을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의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신부가 마련한 갖가지 선물을 직계 친인척 순으로 나눠주고, 신랑측에서도 신부에게 선물이나 축의금을 준다.

12. 표준가정의례준칙(標準家庭儀禮準則)

예전의 예법이 다소 번거롭고 불합리한 면들은 있다고 치더라도 공손함과 존경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결혼이란 정신과 육체의 완벽한 조화를 뜻한다.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는 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되짚어 경솔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결혼 문화는 서양 문화에 가까워지고 말았다. 변화는 변화 그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고유의 전통과 미풍을 얼마나 유지해 나가면서

형식에 있어 검소, 간결해졌느냐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전통혼례의 번잡함과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면에서는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현재, 현대식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종촌리에 있는 남면 농협 예식장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식을 올린다.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현대식 혼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약혼

혼인은 사주와 궁합에 구애됨이 없이 한다.

약혼은 당사자간에 합의와 표시만으로 성립된다.

신랑 신부의 호적등본 및 건강진단서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약혼식이나 약혼잔치는 폐지한다.

2) 혼일

양가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3) 납폐

납폐는 일체 폐지한다.

4) 혼례식장

혼례식장은 양가간에 합의한 장소에서 한다.

5) 청첩

극히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 한한다.

특히 공직에 관련된 청첩은 일체 금한다.

6) 혼례복장

신랑은 평상복을 입는다. 신부는 평상복 또는 간소한 예장을 한다.

7) 혼례식 절차

- 가족 친척 및 하객 입장
- 주례입장
- 신랑 신부 입장
- 개식사
- 신랑 신부 상견례
- 성혼 선언(응분한 예물교환은 무방하다)
- 신랑 신부 친척 및 내빈에게 경례
- 폐식(신랑 신부 퇴장)

8) 혼례식 종료 후 행사

- 가족 이외의 친지 및 지인을 상대로 하는 잔치는 일체 폐지한다.
- 당일로 신행(新行)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회갑(回甲)

장수하면 그 생일을 축하하는데, 예전에는 50세부터 축하잔치를 시작하였다. 50세에 오순(五旬)잔치, 60세에 육순(六旬)잔치, 그리고 61세에 회갑(回甲) 잔치를 한다.

회갑을 환갑(還甲), 환갑(換甲), 주갑(周甲)이라고도 하며, 자손들이 헌수(獻壽)하는 큰 잔치를 베푼다. 많은 음식을 차리고, 자·서·제·질(子·壻·弟·姪) 순으로 부부가 함께 축배(祝杯)로 장수를 헌하(獻賀)한다.

이때 만약 회갑된 사람이 시하(侍下)이면 헌수상(獻壽床)을 더 마련하여 회갑된 사람이 먼저 그분께 헌수(獻壽)한 다음 받는다. 그리고 손자들도 그분께 먼저 한다. 친구들은 주연과 아울러 시문(時文) 등으로 축하를 하며, 자손들은 친지를 초대하여 축하연을 연다.

회갑이 지나면 62세에 진갑(進甲), 칠십 세에 칠순(七旬)잔치·고희연(古稀宴), 팔십 세에 팔순(八旬) 잔치를 연다.

14. 희수(喜壽)

77세가 되는 생일에 간단한 잔치를 하는데 이를 희수연(喜壽筵)이라 한다. 77세를 희수(喜壽)라 하는 까닭은 「喜」자를 초서(草書)로 써서 파자(破字)할 경우 「七十七」이 되기 때문이다.

15. 미수(米壽)

88세가 되는 생일에는 미수연(米壽筵)을 차리고 축수한다. 「米」자를 파할 경우 「八十八」이 되기 때문이다.

16. 백수(白壽)

99세가 되는 생일에는 백수연(白壽筵)을 차린다. 「百」자에서 「一」을 제거하면 「白」자가 되는 까닭이다.

17. 회혼(回婚)

혼인하여 60주년이 되는 날을 회혼이라 하여 해로한 것을 축하한다. 자손들이 이날 의복을 갖추어 노부부를 신혼과 같이 혼인의 예를 다시 올리게 하고 헌수(獻壽)한다. 일가친척과 친지들을 불러 잔치하고 금침(衾枕)을 새로 마련하여 신방을 꾸민다. 즉 자손이 장수해로를 칭경(稱慶)하여 신혼의 예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제4절 상례(喪禮)

1. 상례(喪禮)의 의의

상례란 사람이 운명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大祥)을 지내고 담제(禫祭), 길제(吉祭)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脫喪)하기까지의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에게 이 이상 슬프고 비통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는 자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 고 했다. 원래 「상(喪)」은 죽었다는 말이나 「사(死)」라 쓰지 않고 「상(喪)」이라 쓰는 것은 효자(孝子)의 마음에 차마 「사(死)」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예기(禮記)』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데는 3년의 복(服)을 입으며, 스승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 고 했다.

이 상례는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곧 길례(吉禮 : 祭祀), 흉례(凶禮), 빈례(賓禮 : 賓客), 군례(軍禮 : 軍旅), 가례(嘉禮 : 冠婚) 중 하나에 속하는데, 이중 어느 예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되는 의식이다. 그러기에 옛날 애공(哀公)같은 임금도 공자(孔子)에게 물어본 다음에 상장(喪葬)의 일을 결정했다 한다.

2. 상례의 유래와 변천

연기군은 금강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특히 금강변인 금남

면 대박리·봉기리·장재리·석교리·산촌리·용포리와 동면의 송용리, 남면의 원산리에 산재한 고인들은 청동기시대부터 무덤을 만들었으며,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가 성행하였으므로 불교 의식의 흔적이 상례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이 성한에 따라 주자(朱子)의 학설을 따랐고, 의식에 있어서 『주자가례』를 주로 하여 상례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상례는 일반 서민층을 기준으로 한 예법이라기보다는 특별 신분에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백성들도 그들을 본받아 신분과 처지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키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상례는 유교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역으로서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3. 임종전(臨終前)

1) 신질(慎疾)

신질(慎疾)이란 병환을 삼가 공손히 받든다는 뜻이다. 병자를 지극히 간호하다가 병세가 위중해지면 병자를 정침(正寢)으로 옮긴다. 정침은 보통 안방을 말한다. 이때부터 엄숙한 마음으로 임종을 기다린다. 집안을 정돈하고 애뜻한 정성으로 환자의 소생을 기도해야 한다.

2) 유언(遺言)

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이다. 다급한 때이므로 간략할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둔다. 병자의 유언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4. 임종(臨終)

운명(運命)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사람이 장차 죽을 때를 말한다.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이때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는 가운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다.

집 안팎을 모두 깨끗이 청소한 다음 조용히 앉아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5.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권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무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七星板) 위에 눕히고 홰이불을 덮는다.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들어 퍼지지 않으므로 염습(殮襲)할 때 큰 걱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곡(哭)하는 집도 있으나, 고복(梟復)이 끝난 뒤에 곡을 하는 것이 옳다.

6. 고복(梟復)

고복은 곧 초혼(招魂)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上衣)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외 다음에 “복(復)! 복! 복! 하고 세 번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하는 것이라 한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某官) 모공(某公)’ 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 모공(某公)’ 이라 한다.

고복하는 옷은 벼슬한 사람이면 공복(公服) 혹은 심의(深衣)를 사용하고, 서민은 심의가 없으면 도포 직령으로 대신하며, 부인의 경우는 저고리나 치마를 사용한다. 고복한 옷은 죽은 사람의 가슴에 올려놓는다.

7. 발상(發喪)

발상이란 초상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喪主)와 주부(主婦)를 세우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아들이 없을 때에는 장손(長孫)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으면 큰형이 상주가 된다. 주부는 원래 죽은 사람의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호상(護喪)은 자제들 중에 예법을 아는 사람으로 정해서 초상에 관계된 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 된다. 사서(司書)나 사화(司貨)는 자제들이나 이복(吏僕)들 중에서 정하는데, 사서는 문서를 맡고, 사화는 재물을 맡아 처리한다.

8. 전(奠)

전(奠)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에 놓은 제사상 위에 집사자(執事者)가 포(脯)와 식혜 또는 고인이 평소 즐겨먹는 음식을 올려놓는다.

다음으로 축관(祝官)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 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하는 것이다.

전을 드릴 때 고인이 평소 꽃을 좋아하면 꽃을 놓는데, 화려한 색의 꽃은 피하고 흰색과 노란색의 꽃으로 조출하게 놓는다. 또 준비할 것으로는 밥상, 포, 과일이나 채소, 술, 식혜, 세숫대야, 수건 등이다.

9. 치관(治棺)

호상(護喪)은 목수에게 관(棺)을 만들도록 한다. 관을 만드는 재료는 유삼(油衫)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순이다. 천판(天板)이나 지판(地板)이 각각 하나씩 필요하며, 높이나 길이는 시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칠성관은 북두 칠성 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다섯 푼이 적당하다. 옛날에는 부모가 회갑이 지나면 미리 관재(棺材)를 준비하고 옷칠을 하여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장의사에게 살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되었다.

10. 부고(訃告)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발송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써야 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를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정중히 써도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은 전인(傳人) 부고, 우편부고, 신문부고가 있다. 부고 서식중에 상주 성명은 만상주의 성명을 쓴다. 망인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므로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大人)」, 어머니이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이면 「왕대인(王大人)」, 아내이면 「합부인(閤夫人)」이라 쓴다. 늙어 돌아가셨을 때는 노환(老患),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숙환(宿患), 뜻밖의 죽음에는 사고급사(事故急死)라고 쓴다. 별세(別世)는 운명(運命) 또는 기세(棄世)라고도 쓴다.

자이(茲以)는 사람이 직접 전할 때는 전인(傳人)이라고 쓴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寢牀)에 눕히고 수의(壽衣)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襲奠)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侍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

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魂帛)을 만들어 엮고 명정(銘旌)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12. 소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떡목(幘目)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싸·나 다음 장포(長布)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13. 대렴(大斂)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땀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자들은 손을 씻는다.

대런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통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靈牀)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14. 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즉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朝哭)을 하고 서로 조상(弔喪)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써어 있다.

조상을 할 때에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5. 전통 상복과 복제도

부모상을 당하면 결혼한 아들은 굴건, 두건, 수질, 상복, 요질, 교대(絞帶) 마혜(麻鞋) 등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미혼자는 수질에 중단(中單)을 입었다. 중부(宗婦)는 대수장군(大樹將軍)을 입은 위에 요지와 교대를 띠고, 흰 족두리를 쓰

고 엄신을 신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남자의 경우는 흰 도포나 두루마기에 굴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는 흰 치마저고리(素服)에 수질을 두르는 정도로 간소화되었다.

16. 조상(弔喪)

조상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식 장례인 경우 조상은 원래 성복(成服)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성복 전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가서 상주에게만 인사하고 영구(靈柩)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성복 후라도 망인(亡人)과 생시에 안면이 없었거나 여자인 경우 빈소에는 절을 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인사를 한다.

조객(弔客)은 먼저 호상(護喪)에게 성명을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상주는 일어나서 “애고 애고…” 하고 곡을 한다. 호상이 조객을 안내하여 영좌 앞으로 가면 조객은 “허희 허희…(보통은 어이 어이…) ‘ 하고 슬피 곡을 한 뒤 두번 절을 한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집사가 무릎을 꿇고 잔을 조객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조객이 이것을 다시 집사에게 주어 영좌 앞에 놓게 하고 일어서면, 호상이 상주의 곡을 그치게 한다. 축관이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제문(祭文)을 읽고 조객이 가져온 부의(賻儀)의 명세를 바치고 나면 조객과 상주가 모두 슬피 곡을 한다.

고인에 대한 인사가 끝나면 조객은 상주와 맞절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상사(喪事)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또는 ” 상사 말씀 무슨 말씀으로 여쭙오리까’ 또는 “병환이 침중하시더니 상사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한다. 상주는 머리를 숙여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을 대신하기도 하고 “망극하옵니다” 또는 “원로에 수고하시니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17. 부의(賻儀)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하며,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피봉(皮封)에 물목을 쓴다. 조물(弔物)을 보내는 경우 물품은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는다.

18. 치장(治葬)

옛날에는 석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만한 땅을 고른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塋域, 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

| | | | | | | | | |
|---|-----------------|----------|------|----------------|--------------|-----------|----------|---|
| 饗 | 謹以清酌脯○祗薦于神 尙 | 神其保佑○無後艱 | 營建宅兆 | 土地之神 今爲某官姓名 | 某官姓名 敢昭告于 | 幾年干支朔幾日干支 | 年號幾年歲次干支 | 維 |
|---|-----------------|----------|------|----------------|--------------|-----------|----------|---|

<풀이>

○년 ○월 ○일 ○○벼슬하는 ○○○가 감히 고하나이다.
토지신이시여, ○○벼슬하던 ○○○의 유택을 마련하오니
신께서 보살펴 주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에 삼가 맑은 술과 포와 젓갈을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9. 천광(穿壙)

사토제가 끝나면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하여 광중(壙中)을 만든다. 광중을 팔 때에는 금정기(金井機)를 땅 위에 놓고 역사(役事)를 시작한다. 금정기는 나무 막대기 네 개를 가지고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관의 크기를 짐작하여 반듯하게 놓고서 네 모퉁이에 말뚝을 박아 표시한 뒤 그 모양대로 파들어 간다. 구덩이를 다 파고 나면 석회에 모래를 섞어 발라서 관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콧(槨)을 만든다.

20. 천구(遷柩)

영구(靈柩)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發靱)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五服)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의 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朝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服人)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朝奠)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을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린 상을 마련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해가 지면 조전(祖奠)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21. 발인(發靱)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遣奠)이라 하여 조전(朝奠)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에는 발인제(發靚祭)라 한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脯)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神道)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등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 공포, 만장, 요여(腰輿), 요여 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22. 운구(運柩)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葬地)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주나 자질(子姪)들이 모두 화려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분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故人(故人)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중에서 뜻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 때에는 매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 때가 되면 상식(上食)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가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23. 노제(路祭)

집을 출발하여 묘지에 이르는 도중 길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가 올리는데,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 장막을 치고 제청(祭廳)을 꾸민 뒤 영여(靈輿)를 모시고 조전자가 분향한 후 술을 올리고 제문(祭文)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24. 하관(下官)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壙中)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졌지 않은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玄)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25. 성분(成墳)

흙과 회(灰)로 광중(壙中)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誌(誌石)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 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체주(題主)라 하여 신주(神主)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을 상자에 넣어서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상주 이하 모두가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

에는 향을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26. 반곡(反哭)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역을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 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반혼(反魂)이라 한다.

27.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 없으면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과 아헌, 중헌이 끝나고 유식(侑食)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28. 재우(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하루 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제사를 지낸다.

29. 삼우(三虞)

제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제우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30.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일 것이다.

31. 부제(祔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때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 때는 죽관이 독(櫛)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事)가 조비(祖妣)의 신주를 받들어 내

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主積)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서부터는 우제(虞祭)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 나서 먼저 모셔 내온 고조, 조비의 신주를 도로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32.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紼)을 벗는다.

33.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내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모(祔廟) 한다.

이 제사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百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几筵)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34. 담제(禫祭)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지나 두 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만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下旬) 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35. 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갔으면, 어머니 초상이 끝난 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때 입은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뵈는다. 그 밖의 절차는 보통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난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종교적 상례는 전통상례와 절차와 의미가 다르다. 절차상 간소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은 자를 아쉬워하고 그리움 속에서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은 전통상례의 불편함이 되었다.

표준가정의례준칙(標準家庭儀禮準則)

표준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절차상 간편하게 한 것이 본질의 의미를 많이 훼손시키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고 어쩔 수 없는 사회 추세에서 예전처럼 의미 있는 절차를 행하지 않더라도 그 본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표준가정의례준칙을 적어둔다.

1. 임종

-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는 근친자는 환자실의 내외를 정숙히 하고 있다가 운명하면 망인의 시신과 수족을 정제 수시하고 애도 근신하여야 한다.

2. 상주

-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주가 된다.
-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죽었으면 장손이 승중을 하여 주상이 된다. 단, 장손이 미성년자이면 차자가 주상이 된다.
-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3. 부고

- 호상자의 명의로써 극히 가까운 친족 및 친지에게만 한다.
- 관청 및 일반 직장 명어나 공직에 관련된 부고는 일체 금한다.

4. 입관(염습)

- 운명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깨끗한 평상복을 입히고 입관한 후 장일까지 정결하게 소독된 곳에 안치한다.
- 성복제는 폐지한다.

5. 영좌

- 입관 후에는 망인의 사진을 정결한 위치에 모신다.
- 명정은 폐지된다.

6. 상복

- 남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평상복에 마포두건을 쓴다 단, 장일까지만 한다.
- 여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평상복에 마포대를 허리에 두른다. 단, 장일까지만 한다.
- 복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한 유복친은 남녀 다같이 흑포 완장을 왼팔에 두른다.

7. 장일

- 3일장을 원칙으로 한다.

8. 영결식(발인제)

- 간소한 영결식 또는 발인제를 지낼 수 있다.

9. 장지

-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한다.
- 성분(또는 화장) 후에는 분향 합동 배례 한다.
- 묘지 선정은 풍수설에 구애됨이 없이 한다.

10. 상기 중 폐지사항

-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 우제 및 졸곡은 폐지한다.
- 상식 및 삭망은 폐지한다.
- 소상과 대상과 답사는 폐지한다.

11. 조위 및 호곡

- 조객은 망인의 영좌에 분향 단배하고 상주에 조위한다.
- 상주 및 조객은 호곡을 없앤다.

제5절 제례(祭禮)

1. 제례(祭禮)의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친족, 친지가 슬픔 속에서 장사를 지내고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여 사망하신 날에 정성으로 생시(生時)에 봉양이 미진했던 불효의 마음을 사(謝)하는 추도의 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천지(天地), 일월(日月), 성신(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 우사(雨師), 사직(社稷), 산악(山岳), 강천(江川), 그리고 선왕(先王), 선조(先祖)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라 하면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가례(家禮)』에 의하면, 선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가옥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는 사후 세계 관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제사의식은 원시사회에서도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을 시발점으로 사람이 죽으면 추모식에서 조상숭배의식으로 바뀌었고,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고 재앙을 예방하는 행위로 진행되어오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유교문화와 더불어 전래된

『주자가례』에 의하여 제례의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여 검소한 제사를 올리는 것은 효의 개념으로 볼 때도 당연하다.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의미 있고 교훈적인 마음씨이며 행동일 것이다.

2. 제례의 유래와 변천

먼 옛날 우리 조상은 천재지변,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를 지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교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애모(愛慕)의 표시로 변하여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4대 봉사(四代奉祀)로 종손(宗孫)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왔고, 이것이 예의의 나라라 불리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했다.

『예서(禮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 사시제, 이제, 기일제, 묘제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행 되고 있는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차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시제는 묘사(墓祀)로 구분하기도 하며, 차례는 성묘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參祀者]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3. 전통 제례

1) 제사의 종류

(1) 기제(忌祭)

고인이 돌아가신날[忌日]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의 봉사(奉祀)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이를 자시(子時-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라 한다.

제사는 제주(祭主)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주자가례』나 도암(陶菴) 이재(李穡)의 『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두 분[兩位]을 함께 모셔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차례(茶禮)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이다.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였다.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또는 불교에서 다례를 뜻하는 말이 되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키게 되었다. 또한 차례는 그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는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그런데 고례를 존속시켜 오는 가문도 있다.

제사는 종손이 분향, 재배, 강신, 일동 재배, 참신, 종손의 헌작, 재배, 정저(正著), 낙저(落著), 일동 사신(辭神)의 순서로 지낸 다음 철상(撤床)하고 음복을 한다.

① 연시제(年時祭) :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 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조상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② 추석제(秋夕祭) :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두 직계 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3) 사시제(四時祭)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의 철을 따라 그 절기의 첫달의 다음달인 매중월(每中月 :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모신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4) 묘제(墓祭)

사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원래 묘제는 3월 상순에 지내는 고조(高祖) 이하의 친제(親祭)를 뜻하는 말로 『사례편람』에서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하루 전에 재계(齋戒)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묘사를 비롯하여 시향(時享), 절사(節祀) 등을 통틀어 이르게 되었다.

① 묘사(墓祀) :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묘제이다. 대개 3월 중순으로 택일하여 그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墓域)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 다음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진찬(陳饌), 참신(參神), 강신(降神), 초헌, 아헌, 종헌, 진숙수의 순서로 차례를 지낸다. 절차는 가제와 같으나 다만 초헌에 숙수(熟水)만을 진설하고 유식(侑食)이 없다.

② 시향(時享) : 매년 음력 10월 5대조 이상의 친진묘(親盡墓)에 지내는 제사이다. 시사(時祀) 또는 시제(時祭)라고도 한다.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참례하지 않으며, 이름 높은 선조의 시향에는 많은 후손이 모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절차는 묘사와 다름없으나 다만 강신이 먼저이고, 참신이 나중에 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문일족(一門一族)이 공유하는 제전(祭田) 또는 위토(位土)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③ 절사(節祀) : 현재 가장 많이 행하여지는 묘제이다. 고래에는 없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한식 혹은 청명과 추석에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다. 절차는 삭일에 행하는 참례와 같으나 5대조 이상에게는 행하지 않는다. 시향이나 절사 때도 먼저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

④ 한식 성묘 : 한식(寒食)은 청명(淸明)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한식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비와 바람이 심해서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이제(禰祭)

계추(季秋)에 지내던 제사로서, 계추란 음력 9월을 가리킨다. 전달 하순에 제사지낼 날짜를 택일한 뒤, 제삿날을 맞으면 사흘 전 재계하고 하루 전 신위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 제찬을 준비한다.

제삿날 동이 틀 무렵 일찍 일어나 제상을 진설한 뒤 제주 이하가 옷을 갈아입고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 내와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수조, 사신, 납주, 철상, 준의 순으로 진행된다.

(6) 사당(祠堂)

집을 지을 때에는 주인(主人)이 거처하는 방[正寢]의 동쪽에 사당을 짓고, 이곳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다. 신주는 남향하여 서쪽으로부터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부(父)의 순으로 감실 안에 봉안한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살면서 지키고 아무에게도 팔거나 주지 않는다.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 사당을 찾아 뵙고, 외출하거나 밖에서 돌아오면 이를

또한 사당에 고한다. 정월 초하루나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당에 참배해야 하고, 철마다 새로 나온 음식을 사당에 올리며,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를 사당에 고한다.

(7) 제기(祭器)와 제구(祭具)

제사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기와 제구는 평소에 일정한 곳에 모두 모아 두었다가 제사 전날 꺼내 깨끗이 닦아 쓰도록 한다.

제상(祭床) : 제수를 진열해 놓은 상

교의(交椅) : 신주나 혼백함을 올려놓는 의자

향탁(香卓) :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작은 상

병풍(屏風) : 글씨로 된 병풍으로 준비하여 제상 뒤에 친다.

돛자리 : 두 장을 준비하여 하나는 제상 밑에 깔고, 다른 하나는 제상 앞에 깔다.

향로(香爐) : 향을 피우는 작은 화로

향합(香盒) : 향을 담은 그릇

모사기(茅沙器) : 모래와 띠의 묶음인 모사를 담은 그릇으로 보시기와 같이 생겼다.

촛대 : 두 개를 준비한다.

주독(主櫃) : 신주를 모시어 두는 나무궤

신주(神主) :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 고인의 위(位)를 모시는 나무패로서 대개 밤나무로 만든다. 길이 8치(약 24cm), 너비 2치(약 6cm) 정도이다. 나무 대신 종이로 만든 신주를 지방(紙榜)이라 한다.

축판(祝板) : 축문(祝文)을 올려 놓는 제기

변(??) : 실과와 건육을 담은 제기.

원래 대나무로 굽을 높게 엮어서 만들었다.

두(豆) : 김치 젓갈 등을 담은 제기. 굽이 높고 뚜껑이 있다.

병대(餅台) : 떡을 담은 제기. 윗판은 사각형

적대(炙殆) : 적을 올리는 제기. 나무로 만들고 발이 달렸다.

조(組) : 고기를 담은 제기, 나무로 만들고 발이 달렸으며,
윗판은 직사각형이다.

탕기(湯器) : 국을 담은 제기

시접(匙楪) : 수저를 올려 놓는 제기

주주(酒注) : 술주전자

주병(酒瓶) : 술병

주배(酒杯) : 술잔, 잔대(잔받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퇴주그릇 : 헌작한 술을 물릴 때 따라 붓는 그릇

(8) 제복(祭服)

제례 때 착용하는 제복을 보면, 남자의 경우 처음에는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부터는 도포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선 말엽의 남자 제례복은 국가의 종묘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층의 구별 없이 도포를 입었다. 이처럼 제복이 도포로 바뀌에 따라 머리에도 복건 대신 흑립이나 유건을 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기제사 때만은 조선말엽까지도 베로 만든 심의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의 경우 제례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정해진 제례복은 없었다. 다만 가문에 따라 염의를 입거나 올이 성기고 얇은 비단으로 만든 소의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의 일반 서민층에서는 흰색이나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조선시대 흰색, 옥색의 치마저고리는 여자들의 평상복이었으므로 평상복을 깨끗이 빨아 다듬어 입었다고도 할 수 있다.

(9) 제수(祭需)의 진설(陳設)

먼저 대청이나 방의 정면에 병풍을 치고 돛자리를 깔며, 교의(交椅)를 놓고 그 앞에 제상을 놓는다. 제상 앞에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모사그릇을 놓고 양 옆으로 촛대를 놓는다. 제주병은 제상 밑에 두고 퇴주그릇을 준비한다.

먼저 과일을 상 맨 앞줄에 놓고, 포, 혜, 소채, 청장, 침채 등을 그 다음에 놓

는다. 다음에 시접과 잔반(殘飯), 초반(醋飯)을 맨 앞쪽에 놓는데, 시접은 서쪽, 초반은 동쪽, 그리고 잔반은 가운데 놓는다.

제수는 처음부터 진설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의 제수를 참신(參神), 강신(降神)이 끝난 뒤 제수를 올리게 된다.

이상의 진설이 끝나면 촛불을 밝히고 지방을 써서 붙이며, 향로에 향불을 피움으로써 제사가 시작된다. 참신, 강신이 끝나 진찬의 차례가 되면 제주(祭主)는 먼저 생육(生肉)을 올려 놓고 끝나면 육적을 거둔다.

제수의 진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쫓는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동쪽, 흰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 생동숙서(生東熟西) : 야채로 된 것 중에서 김치같이 생인 것은 동쪽에, 익은 나물은 서쪽에 놓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적은 어와 육의 중간에 놓는다.
- 두동미서(豆東尾西) :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놓는다.
- 좌포우혜(左脯右醢) : 포는 동쪽에, 혜는 서쪽에 놓는다.
- 우반좌갱(右飯左羹) :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에 놓는다.
- 조율시이(棗栗柿梨) : 왼쪽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의 순으로 놓는다.
- 건좌습우(乾左濕右) :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 접동잔서(東盞西) :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 남좌여우(男左女右) : 제상의 왼쪽에 남자가 위치하고,
오른쪽에 여자가 위치한다.

같은 종류의 제수를 올릴 때는 오과(五果), 삼채(三彩) 등 홀수로 차린다. 이 점은 기(奇)는 양수(陽數)이고, 우(偶)는 음수(陰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수 진설법은 가례로 집집마다 그 내용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2) 전통제례의 순서

1. 영신(迎新)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紙榜)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고례(古禮)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 강신(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고, 잔에 술을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받들고 향로에 세 번 두른다. 그리고 왼손으로 잔대를 쥐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 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 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 때는 주인이 육(肉)·어(魚)·羹(羹)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병(餅)·메(飯)을 올린다.

4. 초헌(初獻)

제주가 첫 번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로 위에 세 번 두르고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그것을 받아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일 경우 고위(考位) 앞에 먼저 올리고, 다음에 비위(妣位) 앞에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 독축(讀祝)

축을 읽는 절차이다. 초헌이 끝난 후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앉고 제주 앞에 축관(祝官)이 앉아 읽게 된다. 축문은 제주가 읽도록 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 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가 올린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 종헌(終獻)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잔을 올린다. 이때는 술을 가득 따르지 않고 잔의 7분쯤 따라 올린다.

8.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

사는 술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9. 삽시정저(插匙正著)

이것은 신위에게 제물을 잡수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절차이다.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고 수저를 씻는데,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가도록 씻는다.

10. 유식(侑食)

침작과 삽시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 하는데, 이는 진지를 권하는 의식이다.

11. 합문(闔門)

합문이란 참사자 모두가 방을 나와(이때 한 쪽 촛불을 끄기도 한다.)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대청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는 뜰 아래로 내려가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수분 후 일어선다.

12.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다시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3. 헌다(獻茶)

갱을 내리고 승냥을 올린다. 메를 세 술 떠서 물을 말아 놓고 저(著)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동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4. 철시복반(撤匙覆飯)

신이 제물을 다 잡수셨다고 간주하고 수저를 거두는 절차이다. 숟가락에 놓인 수저를 시접에 거두고 매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15.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철상(撤床)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뒤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飮福)

조상께서 내려주신 복된 음식을 든다는 뜻이다.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돌리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한다.

표준가정의례준칙(標準家庭儀禮準則)

1. 제사의 구분

제사는 기제사, 묘사, 절사(원단, 추석 또는 중구)로 한다.

2. 제사의 봉사범위 및 시일

기제사는 조부모, 부모의 2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주가 승중한 조상은 제주 당대만 봉사할 수 있으며, 또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자가 제주 당대에 지낼 수 있다.

기제사의 일시는 기일 일몰 후에 지낸다.

원단에 기제사의 봉사범위를 대상 위로 한다.

묘사의 봉사범위는 2대까지로 한다.

추석 또는 증구에는 기제사의 봉사범위를 대상 위로 한다.

3. 제사의 절차

모든 제사는 망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극히 간단한 음식물을 진설할 수 있다. 단, 공화(供花)로써 제물을 대신할 수 있다.

모든 제례 절차는 단헌 단배하고 묵념 후에 다시 단배 한다.

제사에는 추도문 또는 축문을 읽을 수 있다.

제복은 평상복으로 한다.

4. 신주 폐지

사진으로 대신하고 모든 신주(불천위 포함)는 폐지한다.

5. 묘사 및 성묘시 지킬 일

옛날에는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햇곡식으로 떡을 빻어 온 문중의 대소일가가 모여 시제(묘사)를 지내고 한식과 추석에는 성묘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각자가 편리한 시기를 잡아 횡수에 제한 없이 성묘를 하되, 음식물은 따로 마련치 않고 포(脯)와 잔만 준비하여 술이나 한 잔 쳐놓고 재배한 다음, 무덤 주위의 풀도 깎아주고, 허물어진 곳에 성토도 해준 후 묘소를 돌봐주는 분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면 족하다.

지방(紙榜) 만드는 법

1. 전통식

길이 2자(약 60cm) 너비 2자 6치(약 78cm)의 백지를 12간으로 접어 접어진 선 11개를 오른쪽에서부터 1-11까지 번호를 가정한다.

오른쪽부터 1선과 2선을 연결쳐 왼쪽으로 접고 3선은 건너뛰고 4선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의 부분을 오른쪽으로 접는다.

5선을 기준하여 다시 왼쪽으로 접으면 6, 7, 8, 9, 10, 11선이 보인다. 이것을 접어진 그대로 뒤집어서 6선을 왼쪽으로 싸서 접으면 7, 8, 9, 10, 11선이 남는다. 위·아래의 점선을 접고 다시 8선과 10선을 오른쪽으로 접은 뒤 11선을 안으로 끼워 넣으면 완성된다. 동그라미가 쳐진 번호의 선은 접히지 않는다.

2. 현대식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거나 현대식의 지방을 써붙인다. 지방은 너비 6cm, 길이 22cm 정도의 한지나 백지 위에 먹으로 쓴다.

지방 쓰는 법

1. 전통식 지방 쓰는 법

| | |
|--|--|
| 顯 高 祖 老 學 生 府 君 神 位 | 顯 高 祖 枇 孺 人 全 州 李 氏 神 位 |
|--|--|

고조부모

| | |
|--|--|
| 顯 曾 祖 老 學 生 府 君 神 位 | 顯 曾 祖 枇 孺 人 密 陽 朴 氏 神 位 |
|--|--|

증조부모

| | |
|---|---|
| 顯 祖 老 學 生 府 君 神 位 | 顯 祖 枇 孺 人 文 化 柳 氏 神 位 |
|---|---|

조부모

| | |
|--------------------------------------|--|
| 顯 老 學 生 府 君 神 位 | 顯 枇 孺 人 坡 平 尹 氏 神 位 |
|--------------------------------------|--|

부모

| | |
|--|--|
| 顯 伯 （ 叔 ） 老 學 生 府 君 神 位 | 顯 伯 （ 叔 ） 枇 孺 人 光 山 金 氏 神 位 |
|--|--|

백(숙)부모

| |
|--------------------------------------|
| 顯 ○ 學 生 府 君 神 位 |
|--------------------------------------|

남편

| |
|--|
| 亡 室 孺 人 海 州 吳 氏 神 位 |
|--|

아내

| | |
|--|--------------------------------------|
| 顯 兄 ○ ○ 人 全 州 李 尹 氏 神 位 | 顯 兄 學 生 府 君 神 位 |
|--|--------------------------------------|

형

| | |
|--------------------------------|---|
| 亡 弔 ○ ○ (이름) 神位 | 亡 子 秀 ○ ○ (이름) 之 ○ |
|--------------------------------|---|

2. 현대식 지방 쓰는 법

| | | | |
|---|--|------------------------------|---|
| 할 아 버 님 신 위 할 머 님 안 동 김 씨 신 위 | 아 머 님 신 위 어 머 님 밀 양 박 씨 신 위 | 부 군 신 위 | 망 실 인 전 주 이 씨 신 위 |
|---|--|------------------------------|---|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 | | | |
|---|---|---|---|
| 할 | 할 | 아 | 어 |
| 아 | 머 | 머 | 머 |
| 버 | 님 | 버 | 님 |
| 님 | 전 | 님 | 밀 |
| 신 | 주 | 신 | 양 |
| 위 | 이 | 신 | 박 |
| | 씨 | 신 | 씨 |
| | 신 | 신 | 신 |
| | 위 | 위 | 신 |
| | | | 위 |

합사하는 경우

| |
|---|
| 선 |
| 조 |
| 여 |
| 러 |
| 어 |
| 른 |
| 신 |
| 위 |

절사(節祀)의 경우

3. 축문(祝文) 쓰는 법

축문은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로서, 그 내용은 추모의 정과 간소하고 보잘 것 없는 제수(祭需)나마 흠향(歆饗)하여 달라는 의미를 담으면 된다.

전통식 축문 쓰는 법

維歲次○○(太歲)○○月○○(月建)
 朔○○日○○(泰祝者名)○○日○○(月建)
 孝孫○○(某官)府君○○(姓)氏
 顯祖○○(某封)○○(本貫)○○(姓)氏
 ○○(某)封○○(本貫)○○(姓)氏
 歲序遷易 顯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조부모 기제사의 경우

維歲次○○(太歲)○○月○○(月建)
 朔○○日○○(日唇)
 孝子○○(泰祝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 또는 학생) 府君 顯祖
 ○○(○人 또는 某封)○○(本貫)○○(姓)氏
 歲序遷易
 顯考 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謹以 清酌庶羞
 追遠感時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부모 기제사의 경우

〈풀이〉

○○년 ○월 ○일 효손 ○○○는

○○는

삼가 고하나이다. 할아버님과 할머니.

어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 돌아가신

(또는 어머님)

날이 다시 돌아오니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크고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흠향하시옵소서.

〈풀이〉

○○년 ○월 ○일 효손

삼가 고하나이다. 아버님과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님

날이 다시 돌아오니, 하늘과

넓으신 은혜를 잊지 못하와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維歲次○○(太歲) ○月○○(月建)
 朔○○日○○(日唇) 夫○○○○(姓名)
 敢昭告于亡室○○○氏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自勝感 茲以
 清酌庶羞 伸此奠儀 尚饗

남편 기제사의 경우

<풀이>

○○년 ○월 ○일 주부 ○○○는
 삼가 고하나이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당신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금 돌아오니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
 서.

현대식 축문 쓰는 법

년 월 일
 아버님(또는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니) 신위 전에 삼가 고합니다.
 아버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당하오니 사모의 정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부모(조부모) 기제사의 경우

년 월 일
 남편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당하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니 흠향
 하소서.

아내 기제사의 경우

第 6 編 산업·경제

제1장 남면의 농업

제2장 남면의 공업

제3장 남면의 관광토산

제1장 남면의 농업

제1절 농업 배경

1. 지형 및 지세

연기군 남면은 연기군에서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연기군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남부권이 금강의 영향을 받아 평야지대이고 북쪽은 산이 많아 산악지대로 나누는데 남면은 평야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남면은 북동쪽에 동진강이 흘러 남쪽인 금강으로 합쳐져서 서해로 흐른다. 이는 남면이 풍부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지형을 유지할 수 있어 농업생산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남면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물은 쌀과 오이, 복숭아, 감자로 나눌 수 있다.



동진평야

이를 세 지역으로 나누면 쌀과 금강변의 장남평야에서 양질의 많은 쌀을 생산하고 이곳에서 하우스 오이 또한 많은 양이 재배되어 생산하고 있다. 이는 금강변의 둑이 일제시대 설치되면서 금강물의 흐름을 조정하므로 넓은 평야를 확보한 것이 커다란 여건이 되었다.

한편 국사봉을 중심으로 작은 언덕과 산악지대로 비탈밭이 많은 놀왕리, 수산리, 갈운리, 고정리 일대에는 연기군의 특산물인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포도와 딸기 또한 재배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도 1호선 종촌에서 연기구간에는 길가에 많은 과일 판매점

이 개설되어 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복숭아와 참외, 수박, 포도 등은 남면에서 생산되는 과일 뿐 아니라 타면에서 생산된 과일까지 받아다 팔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리는 동진강가에 자리잡아 모래밭이 많다.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에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장마 전인 봄감자와 장마가 끝나고 심은 가을감자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다.

2. 남면의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천하지대본(天下地大本)으로 삼아왔다. 이는 인간이 삶을 지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농업생산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산업인 농업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2차, 3차 산업에 밀리어 이제는 농촌의 모습이 변모하여 가고 있다. 즉,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곤란하여 인근 공장이나 물건 제조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어 농촌을 지키는 연령은 고령의 노인들 뿐이어서 과학영농이 전체가 아닌 일부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었다.

얼마전까지 우리는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구 억제 정책을 폈었다.

이는 과거 농촌의 농가는 자식이 많아야 노동력을 얻어 4~5인에서 7~8명 혹은 10여 명의 자손을 낳아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농촌의 인구가 모자라 아이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농촌의 학교는 입학자가 모자라 폐교되는 등 농촌의 수난시기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고 그 중 하나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불과 15년 전만해도 인구억제정책과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문명의 발달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1985년도만 하여도 연기군의 농업인구는 48,42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인구 비중은 전국이 21% 충남도는 38.8%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어서 연기군은 전형적인 농촌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말 연기군의 농업인구는 7,431가구 23,627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호당 경지면적이 1.4ha로 과거와는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연기군 남면은 2004년 12월 현재 인구가 9,167명으로 남자가 4,668명 여자가 4,499명이며 이 중 농가는 2,075세대이다. 남면의 전체 세대수가 3,578세대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58.1%를 차지하여 농업인 수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

2003년 연기군에서 발간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남면의 농가 수가 1,344가구이며 전업농가가 781가구 1종 겸업(연간 총 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 농가) 191가구, 2종 겸업(농업수입이 50%미만) 372가구이며 농가인구는 4,777명이다. 이 중 남자는 2,354명 여자는 2,423명으로 2004년이 농업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15세 미만이 580명(남316명, 여264명) 15세 이상이 3,932명(남 1,943명 여 1,989명) 경지 규모별 농가로는 0.5ha 미만이 397가구 0.5ha 이상 448가구 1.0ha 이상이 339가구 2.0ha 이상이 96가구 3.0ha 이상 46가구 5.0ha 이상이 6가구이며 소유한 경지가 없이 남의 땅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농가는 12가구이다.

남면 지역의 경지 면적 중 논이 1,178ha 밭이 523ha 과수원이 31ha이다. 이고서 연기군 남면은 연기군에서는 금남면의 1,638가구에 이어 1,344가구로 두 번째 많은 농가 지역이다.

남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미곡이 955ha에 4,851M/T 맥류는 11ha에 495M/T로 합한 수는 1,110ha에 5,528M/T이다. 이는 남면지역이 장남평야의 영향으로 많은 쌀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남면지역의 토양

연기군 남면은 동진강과 금강이 흘러 넓은 들판을 형성하였다.

이는 장남평야를 만들어 금남의 대평평야와 동면의 동진평야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계곡을 낀 다락논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다락논을 최근에는 경지정리하여 경작하기 편리하게 가꾸어 놓았으며 이들 농경지의 토양은 식양질과 사양질 및 사질토양으로 구분되는데 연기군의 논은 식양질이 37% 사양질이 60.7% 사질이 2.3%로 구성되어 있다.

사양질은 과채류 재배에 알맞은 토양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농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요즘에는 객토를 하여 필요한 토양을 개량하기도 한다.

남면지역의 유형별 토양을 살펴보면 보통 논은 307ha의 면적으로 32% 사질논은 392ha로 41% 습한 논은 251ha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4. 남면지역의 농민조직

농민들이 농작물을 생산해냄에 있어 이를 돕고 교육이나 정보 물자공급을 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그 중 농민들에게 가장 가까워서 도움을 주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촌지도소를 들 수 있고 농민 스스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농민연합회나 농민회를 들 수 있다. 남면지역의 농업관련기관은 남면농협과 금강물을 관리하는 수리조합이 있다.

1) 남면농업협동조합

우리나라 농협은 1961년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주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함」을 근본취지로 하여 비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은 일제시대 금융조합과 강제적 권업기관인 농회가 통합되어 오늘날의 농협이 되었는데 농회는 1952년 실행협동조합이 되었고 1957년 구 농협법에 의거 경제사업만을 하였었다.

금융조합은 1956년 일반은행법에 의하여 농업은행으로 개칭되었고 1958년 농업법에 의하여 신용사업만 하도록 되었는데 정부가 양기관을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였다.

농협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수매, 판매, 농촌경영, 지도사업, 공제, 농산 가공, 금융업은 물론 예식장 장례사업까지 관장하고 있어 농민이 모든 것을 농

협에서 얻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면 농협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남면 농협의 연혁

- 1972년 5월 25일 초대 임재성 조합장 취임
- 1972년 5월 25일 남면농협 설립 인가
- 1972년 6월14일 남면농협 성립일
- 1972년 8월31일 업무개시
- 1976년 12월15일 연기지소 업무개시
- 1977년 12월31일 현 종합청사 준공
- 1985년 4월2일 6대 임인묵 조합장 취임
- 1991년 12월27일 하나로 마트 개점
- 1994년 3월1일 9대 정창규 조합장 취임
- 1995년 6월15일 발효퇴비공장 준공, 동물병원 개원
- 1997년 1월8일 농협주유소, 가스판매소 개원, 농기계수리센터 개원
- 1997년 8월30일 365자동화코너 신설
- 2002년 7월1일 연기지소→연기지점으로 승격
- 2002년 9월20일 현 종합청사 리모델링
- 2003년 3월26일 연기지점 365자동화코너 신설
- 2004년 6월7일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 2005년 6월13일 연기지점, 하나로마트 이전 개점

초대 ~ 5대 조합장 : 임재성(72.5.25~85.4.1)

6대 ~ 8대 조합장 : 임인묵(85.4.2~94.2.28)

9대 ~ 11대 조합장 : 정창규(94.3.1~현재)



남면농협



남면농협 역대조합장 제1대



남면농협 역대조합장 제2대



현조합장



남면농협



하나로마트



남면 농협연기지점

2) 남면지역의 농민회 조직

연기군에는 농업인 단체인 (사)한국 농업 경영인 연기군 연합회가 조치원읍 남리 275번지 농민회관을 지어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회원은 567명이다.

또, (사)한국 여성 농업인 연기군 연합회가 이곳에 있으며 회원은 220명이다. 전업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기군 농민회는 조치원 서창리 국제 농기계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면지역의 농민회 조직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남면 후계농업인 현황

| 합계 | 농업 | | | | | | 축산 | | | | | |
|-----|----|----|----|----|----|----|----|----|----|----|----|----|
| | 소계 | 경정 | 복합 | 원예 | 과수 | 특작 | 소계 | 한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
| 107 | 47 | 5 | 19 | 16 | 4 | 3 | 60 | 34 | 8 | 17 | | 1 |

나. 남면 농업회사법인 현황

| 소재지 | 회사명 | 대표자 | 구성인원 | 설립연월일 | 전화번호 |
|------------|----------|-----|------|----------|--------------|
| 남면 진의리 314 | 전의농업회사법인 | 임학수 | 4 | '91.3.21 | 041)863-5857 |
| 남면 보통리 192 | 보통농업회사법인 | 윤강호 | 4 | '96.1.26 | 041)863-4159 |

다. (금강오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라. (금강오이) 작목반

마. (장 남) 복숭아 작목반

바. (송 마) 포도 작목반

사. (눌왕 딸기) 작목반

아. (원 양) 복숭아 작목반

자. (수 왕) 복숭아 작목반

차. (갈 운) 복숭아 작목반

- 카. (고 정) 복숭아 작목반
- 타. (남 면) 배 작목반
- 파. 남면 농민회

※ 작목반 대표자 내역

- 갈윤리한우 : 정영식(2005.2.1)
- 국사봉한우 : 강병재(2004.4.1)
- 금강오이 : 임덕철(1990.1.1)
- 방축리한우 : 임영무(2005.2.1)
- 송담딸기 : 임상철(1992.2.1)
- 장남복숭아 : 이진일(2002.5.1)
- 금수산오이 : 김시대(1996.5.1)
- 보통리감자 : 윤정호(1991.1.5)
- 송마포도 : 안증부(1991.1.5)
- 수왕복숭아 : 진영군
- 연기복숭아 : 신동호(2004.1.13)
- 고정복숭아 : 정현도(1997.2.1)
- 금강영농오이 : 임공수(1991.1.1)
- 남면배 : 박인수(1992.2.1)
- 산봉산오이 : 황성환(1995.1.1)
- 월산한우 : 임재필(2005.2.1)
- 장남쌀 : 임헌남(2003.12.31)
- 문암복숭아 : 황정연(1991.1.5)
- 송마복숭아 : 안대용(2004.2.15)
- 수왕딸기 : 안평훈(1993.1.5)
- 수왕오이 : 안평훈(1991.5.1)
- 원암복숭아 : 이연규(1991.1.5)

제2절 남면의 축산업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과 가축과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농업경작에 이용과 거리 이동수단 그리고 영양을 보충하는 음식물 등 다양하게 인간과 공조하고 있다. 가축은 본래 야생동물이었던 것을 사람이 포획, 또는 계속 개량하여 인간의 생활에 적당하게 변화시켜 수 천년간 길러온 것이다.

야생 동물중 가장 먼저 가축화된 것은 유럽에서 구석기시대에 개가 먼저 가축화되었고 원시농업이 시작된 신석기시대에는 소, 면양, 산양, 돼지 등 많은 동물들이 가축화되었다. 말은 청동기시대에 가축화되었으며 닭은 B.C2000년경에 가축화 되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고대로부터 소와 말을 주요 가축으로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에 한우가 역용(役用)으로 고려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목마장을 설치하여 마정(馬政)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소는 농업용 즉 역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중요시 되었기에 관영목장(官營牧場)에서 말과 함께 사육되어 민간에도 그 사육을 권장하였다.

또한 도살(屠殺)의 제한과 질병의 치료 등에 관한 시책도 이루어졌으나 농경용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나머지 가축들은 소나 말에 비하여 관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소, 말, 양, 돼지, 나귀, 닭, 오리, 잉어등이 왕에게 진상되어지거나 상류층의 소비에 따른 사육과 역용으로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육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의 구분에 의하여 축산은 논, 밭농사에 비하여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보다는 수도작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형태의 축산연구 및 진흥사업이 출범하게 된 것은 1906년 수원에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현 축산기술연구소)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같은 해에 한국중앙농회가 설립되었고 현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관립농민학교(官立 農民學校)도 설립되었다.

이어서 1908년 관립농민학교에 수의속성과가 설립되어 그 시발점을 이루었다. 그리고 같은해에 각 도에 종묘장이 설치되어 종축의 생산과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함으로써 축산도 일제 식민지 산업화에 이용되었다.

일제강점 당시의 가축수는 소가 70여만두, 말이 약 5만두, 돼지가 약 57만두, 그리고 닭이 약 280만수가 있었다.

일제 강점 이후 축우 1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지역에 축우 생산 지구를 설정하여 우량 종축을 생산하였으며 매년 일본에 60,000두, 만주에 10,000두의 한우를 반출하였다.

우가지 총독은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으로 면양증식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6천여두의 면양을 수입하여 북한지역 중심으로 사육을 권장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중에 낙농증식 정책을 수립하고 일본재벌들이 낙농목장을 세우고 유제품을 생산하여 동남아로 수출하였으나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한국의 농민이나 한국의 축산 발전과는 관계가 먼 것이었다.

1945년 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사회가 무질서할 때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이 밀도살(密屠殺)과 남도살(濫屠殺)로 크게 감소되었다.

한우의 경우 광복 이전인 1944년에는 88만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해방후인 1945년 59만두로 감소되었다.

이때 미군정에서는 이러한 가축 감소를 막기 위하여 도살제도령을 공포하고 각종 가축의 증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1949년에는 한우의 사육두수가 61만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6.25 동란은 축산의 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다. 한우의 두수가 6.25 동란 후 39만두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도살(濫屠殺)과 공산군에 의하여 북한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휴전이후 식량증산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산진흥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농가에서는 축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예전에는 몇두의 가축을 키우는 부업적인 수준에서 수십마리 이상 키우는 전업형 또는 기업형 축산이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축산물의 소비량보다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1970년대에 축산물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93년 12월5일 GATT의 UR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1월1일부터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가축을 단순히 키워서 번식시키고 개량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맛있고 건강에 좋은 안전성이 보장된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국가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 돼지의 도체 상태에서 육질이 좋고 나쁨과 육량이 많고 적음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규격화, 상품화한 축산물 등급제를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2000년이 들어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2003년에 개발된 한우고기 실명제도는 그 대표적인 제도라 하겠다. 우리나라 유명백화점에서는 고기를 구입시 이를 검색대에 대고 검색하면 이 고기는 어느 지역에서 사육된 것이며 몇 년도 누가 기른 것등 상세히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다 먹을 수 있는 장치이다.

2003년 연기의 축산 분야 소득현황

| 축종별 | 농가수 | 사육두수(두) | 연간생산량(kg,개) | 판매단가(원) | 소득금액(백만원) |
|-----|-------|-----------|-------------|---------|-----------|
| 합계 | 1,062 | 1,809,781 | 403,715,300 | - | 87,377 |
| 한우 | 760 | 9,829 | 1,892,000 | 9,000 | 17,028 |
| 젓소 | 84 | 4,937 | 21,474,000 | 650 | 13,028 |
| 돼지 | 89 | 76,015 | 15,051,000 | 1,8000 | 13,958 |
| 산란계 | 26 | 1,170 | 362,992,500 | 75 | 27,092 |
| 육계 | 103 | 539,000 | 2,305,800 | 900 | 2,075 |

1. 연기군의 축산업

연기군에는 축산농가가 2003년 1,062가구이다. 한우 사육농가가 760가구로 가장 많으며 돼지 농가가 89, 젓소농가가 84 농가로 돼지와 젓소의 농가 비율이 비슷하다. 두 번째로 많이 사육하는 것이 육계와 산란계로 육계는 103농가로 한우사육 다음이다. 연간소득 금액은 한우가 17,028백만원인데 반하여 돼지는 27,092백만원 산란계 27,224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곳이 산란계이다. 이는 축산물 1인당 소비량이 계란일 경우 1998년 1년에 178개였던 것이 1999년에는 180개 2001년에는 184개 2004년 소는 광우병으로 닭은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때는 닭조류 독감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천안을 거쳐 연기군 소정면까지 번져 내려오므로 연기의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었다. 조류독감은 농가만 도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식당들도 문을 닫는곳이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심하다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닭고기를 먹는가 하면 심지어 양계업계에서는 20억보험을 들어 만약 닭고기를 먹다 조류독감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면 20억을 준다는 방법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남면의 축산업

남면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를 도와 동물병원이나 가축 개량사업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병원은 남면 종촌리 남면 농협에서 박홍희씨가 1995년 5월 30일 등록하였고, 남면 보통리에 연기 인공수정센터를 이철교씨가 2000년 9월에 등록하여, 돼지 액상정액을 취급하고 있다.

2001년 5월 30일 남면 종촌리 남면 농협의 박홍희씨가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였다.

그 외 남면에서의 축산 작목반은 다음과 같다.

1) 남면 갈운3리 축산 작목반

2) 남면사육농가

3) 대전 충남 양돈조합 연기작목반

| 일련 번호 |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비 고 |
|----------|----------|-----|----------|---------------|-----|
| 1 | 고정 1리 | 이용현 | 864-6240 | 011-451-6240 | 반 장 |
| 2 | 서면 부동리 | 이장우 | 867-0912 | 011-438-5849 | |
| 3 | 서면 부동리 | 이호기 | 867-2332 | 011-9016-2331 | |
| 4 | 고정 1리 | 강용태 | 864-5694 | 011-9830-6500 | |
| 5 | 진의 420-1 | 임헌환 | 865-6038 | 011-402-0896 | |
| 6 | 수산리 | 진재현 | 863-5789 | 011-9414-5789 | |
| 7 | 종촌 3리 | 박동권 | 864-5518 | 011-497-5518 | |
| 8 | 방축리 | 김지용 | 864-5866 | 017-311-5866 | |
| 9 | 연기3리 | 최대봉 | 862-5793 | 011-458-5793 | |
| 10 | 월산리 | 이명철 | 864-6423 | | |
| 11 | 서면 부동리 | 최충신 | 863-7200 | | |
| 12 | 보통 1리 | 윤강유 | 863-4169 | | |
| 13 | 고정 509 | 김민수 | 864-1347 | 011-9406-1347 | 총 무 |

제3절 남면의 임업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과거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숲에서 얻은 나무가 모든 연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기에 겨울만 되면 산은 나무하는 나무꾼에 의하여 민둥산으로 변하고 별 거벗겨지기에 나무심는 식목일을 정하여 그 빈자리를 채우곤 하였다.

그러다가 대체연료가 개발되고 이제는 더 이상 산에 올라 나무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숲이 우거져 사람들이 제대로 다닐수 없게 되자 정기적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벌목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체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나무나 숲이 들어찬 면적이 6,263,519ha로 산지 대부분을 임목지로 부를 수 있다.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국유림이 전체 숲의 약 22%를 차지하며 민유림은 전체 임지의 78%를 차지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할 때 이처럼 높은 사유림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다.

우리나라 숲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741,515ha 활엽수림이 1,675,299ha 혼유림이 1,838,760ha를 차지한다. 그 밖에 나무가 없는 무림목지도 172,785ha를 차지하고 대숲도 약 8,000ha가 있다.

우리나라 숲을 보면 목재 이용가치가 적은 30년생 이하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기군이 차지하고 있는 임야면적은 총 19,961ha로 소유별로 나누면 국유림이 1,422ha이고 공유림이 119ha이다. 이는 90%가 사유림으로 국·공유림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임야가 64% 충남도가 51%이고 연기군은 55%로 전국에 비해서는 적으나 충남도보다는 많은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남면 지역의 산림 중 군유림은 6개리에 9필지로 196,572ha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산, 보통, 고정, 종촌, 월산, 양화리에 분포되어있다. 또한, 남면지역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11본이고 채종림은 남면 갈운리 산 12, 산 13-1, 산 14-1에 29~38년 수령의 상수리나무가 223번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연기군 남면은 비교적 높은 산이 수산리에 있는 국사봉(266,7m) 연기 의당산(157m) 갈운리의 원수산(254m) 양화리 전월산(260m) 월산리의 노적산(181m) 등이다.

이들 산들은 전형적인 농촌의 뒷산으로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신령한 것으로 믿고 산제당을 만들어 위하고 있으며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면 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며 추수가 끝나면 산제당에 올라 추수감사의 뜻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산을 가꾸는 일 뿐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를 심는데 2002년 6월 남면에서는 남면 종촌리 국도 36호 변에다 15본의 은행나무를 0.06km에 심었다.

또한, 남면 연기리에 400본의 벚나무를 2km 구간에 심었다.

농업기반공사 연기지소 연혁

1. 연 혁

- 1927.11.30 : 장남수리조합 설립(연기농조 전신), 설립자 하경환
- 1998. 7. 3 :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기관 통합방침 확정
- 1999. 2. 5 : 「농업기반공사 및 종지관리기금법」 제정 공포
- 1999. 2. 8 :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0. 1. 1 :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지사 연기·대금지부」 출범
- 2002. 1. 1 :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본부 연기·대금지부」
명칭변경
- 2003. 1. 1 : 농업기반공사 연기지소 개소(관할구역:
남면.금남면.동면.서면)

2. 역대조합장

- | | |
|-----------------------------|------------------|
| ① 1961.12. 4 이병무 | ② 1970. 7.25 강운섭 |
| ③ 1973. 5.16 박민규 | ④ 1977. 5.16 정낙양 |
| ⑤ 1981. 5.16 조철희 | ⑥ 1982. 2. 3 허 희 |
| ⑦ 1986. 3.22 장원백 | ⑧ 1989.12. 6 임재원 |
| ⑨ 1993.12. 6~1999.12.31 노장우 | |

2. 농업기반공사 연기지소장

- 2000. 1. 1 ~ 2001. 3.13 : 강기향
- 2001. 3.14 ~ 2002. 3. 3 : 이남민
- 2002. 3. 4 ~ 2005. 3.13 : 이영호
- 2005. 3.15 ~ 현 재 : 박권석



장남수리조합



장남평야

제2장 남면의 공업

연기군 남면은 기업의 입지조건으로는 최상의 지역이다.

동에서 흐르는 동진강과 서해로 흐르는 금강은 공업용수로 쓰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해낸 제품은 철도, 경부,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 각 처로 운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남면지역의 공업입지는 어느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연기리에 위치한 조치원 공업단지와 월산의 산업단지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제는 남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에만 전념했던 시대는 지났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하여 주춤했던 분위기는 차츰 가라앉기 시작하여 남면 곳곳에 있는 공장들은 다시 소리를 내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1. 연기군 남면지역의 기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생 산 품 |
|---------------|-------|-----------|----------|-------------|
| 경 일 섬 유 | 김 명 경 | 고정리 335 | 864-8333 | 양 단 |
| 대 립 산 업 (주) | 장 진 양 | 연기리 519 | 860-3600 | 수 로 관 |
| 대 창 식 품 | 육 근 우 | 보통리 17 | 862-2653 | 단 무 지 |
| 대 한 산 업 사 | 강 무 선 | 눌왕리 79 | 862-7363 | 양 곡 도 정 |
| 동 진 P · S · P | 정 병 회 | 고정리 375-1 | 865-5946 | 성 형 바 인 더 |
| 맑 은 나 라 (주) | 전 창 진 | 고정리 485-1 | 866-6172 | 주 방 세 계 |
| 보 성 직 물 | 신 만 수 | 종촌리 322-6 | 864-5440 | 화 섭 직 |
| 대 원 프 라 스틱 | 유 명 석 | 연기리 92-1 | 864-0942 | 포 장 용 기 |
| 세 창 (주) | 김 승 태 | 눌왕리 29-3 | 863-0726 | 프 라 스틱 |
| 송 립 9 주) | 최 정 상 | 연기리 705 | 863-6636 | 부 직 포 |
| 유 한 실 업 (주) | 이 순 인 | 눌왕리 690 | 868-0012 | 각 재 벽 들 |
| 성 산 산 업 | 이 진 우 | 갈운리 461-1 | 865-4005 | 정 화 조 |
| 삼 일 팩 키 지(주) | 이 상 찬 | 송원리 446-1 | 865-8531 | 중 이 상 자 |
| 수 창 물 산 (주) | 홍 유 석 | 종촌리 63-2 | 864-5400 | 누 룡 지 사 탕 |
| 더멋진바이오텍(주) | 이 인 영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7-0778 | 미 생 물 제 재 |
| 오 천 산 업 (주) | 박 종 회 | 송원리 233-3 | 866-0415 | 샌 드 위 치 관 벨 |
| 대 립 건 설 (주) | 박 정 회 | 종촌리 39-3 | 864-8285 | 샤 시 제 조 |
| 정원엔지니어링(주) | 류 완 회 | 송원리 233-7 | 866-8552 | 산 업 기 계 |
| 금 덕 요 업 | 김 덕 자 | 종촌리 11 | 866-0589 | 용 기 |
| 대 산 산 업 | 하 재 봉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0328 | 의 류 부 자 재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생 산 품 |
|-----------------|-------|------------|---------------|--------------|
| 서 울 농 산 | 임 헌 순 | 고정리 254 | 865-5784 | 만 두 속 |
| 썬에어로시스(주) | 박 선 태 | 송원리 248-1 | 864-2177 | 항 공 기 부 품 |
| 영신양계영농조합법인 | 임 헌 완 | 고정리 505 | 865-4700 | 유 기 질 비 료 |
| 원 일 농 산 | 박 원 순 | 연기리 204-5 | 862-9566 | 살 구 식 초 |
| 유 립 공 영 (주) | 김 재 선 | 송원리 산 22-7 | 864-5403 | 레 이 콘 |
| 덕 키 산 업 | 민 충 기 | 갈운리 289-1 | 864-3271 | 가 위 · 과 도 |
| 보혜엔지니어링(주) | 권 순 재 | 수산리 429-1 | 862-2401 | 드 라이 아 이스 |
| 설정숙김치분가(주) | 권 민 재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7766 | 김 치 류 |
| 조 화 직 물 | 김 순 자 | 중촌리 328-1 | 864-5339 | 화 섬 직 |
| 중촌황토벽돌농장 | 임 창 철 | 중촌히 123-4 | 864-5542 | 세 멘 박 돌 |
| 씨엔에이(주) | 김 기 철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1177 | 프 라 스틱 첨 가 제 |
| 대 진 타 올 | 김 기 환 | 갈운리 458 | 866-6891 | 타 올 |
| 중 부 A T P | 김 오 수 | 송원리 190-1 | 864-4039 | 단 미 사 료 |
| 풍 년 식 품 | 안 영 수 | 고정리 360-7 | 864-6719 | 냉 면 |
| 풍 립 산 업 (주) | 이 필 용 | 눌왕리 42 | 862-7315 | 철 구 조 물 |
| 풍 만 제 지 (주) | 윤 복 노 | 보통리 319-1 | 863-4111 | 백 상 지 |
| 효 성 (주) | 이 돈 영 | 연기리 518 | 860-3114 | 철 탑 |
| 다 인 물 산 | 김 진 국 | 갈운리 397-5 | 865-8848 | 감 가 공 |
| 보리식품영농조합법인 | 한 성 립 | 중촌리 383 | 866-2216 | 양 념 갈 비 |
| 세 이 저 장 | 육 근 조 | 보통리 19 | 862-2655 | 단 무 지 |
| 쌍 기 산 업 | 이 상 기 | 갈운리 196-6 | 862-6748 | 화 장 지 |
| 충 남 제 재 소 | 정 완 순 | 갈운리 577-7 | 864-0354 | 목 재 |
| 신 성 식 품 (주) | 박 근 식 | 연기리 360 | 863-4010 | 빙 초 산 |
| 연 기 식 품 | 한 순 욱 | 보통리 129-2 | 863-4159 | 단 무 지 |
| 공 간 프 레 임 | 김 성 수 | 방축리 173-5 | 865-9602 | 액 자 |
| 대륙테크놀로지(주) | 문 철 수 | 갈운리 139-4 | 865-9101 | 전 자 관 |
| 시 우 (주) | 이 강 희 | 송원리 430 | 866-2506 | 금 속 조 립 |
| 코 스 모 텍 (주) | 정 형 오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2-4546 | 접 착 제 |
| 용 마 산 업 (주) | 장 동 준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6-5020 | 레 미 콘 |
| 일진소재산업(주) | 김 윤 근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0-5500 | c u 박 |
| 이 원 컴 텍 | 유 창 윤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2175 | 절 연 바 니 쉬 |
| 인 텍 케 미 칼 (주) | 김 장 유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2211 | 약 품 제 조 |
| 코 리 아 A C F (주) | 유 승 곤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2-0961 | 정 수 기 필터 |
| 신 흥 기 계 | 임 헌 정 | 연기리 485 | 865-2528 | 프 레 스 키 |
| 효 진 산 업 | 김 완 용 | 진의리 402-3 | 865-4171 | 집 수 정 |
| 유 원 정 공 | 박 종 찬 | 중촌리 376-3 | 011-425-1805 | 승 강 기 |
| 혜 성 파 렛 트 | 김 호 중 | 고정리 584 | 864-5557 | 목 재 갈 판 |
| 한 국 기 계 공 사 | 이 희 만 | 수산리 103-4 | 862-7723 | 과 학 기 기 |
| 임 광 산 업 사 | 전 성 희 | 중촌리 381-4 | 865-1904 | 벽 돌 |
| 유엔아이화장품(주) | 설 장 호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3-8530 | 화 장 품 |
| 현 암 (주) | 임 대 진 | 갈운리 100-3 | 863-6280 | 가전제품케이스 |
| 신 흥 산 업 | 임 백 환 | 연기리 557-1 | 016-403-3250 | 금 속 철 재 |
| 바이오알렌즈(주) | 윤 병 대 | 송원리 190-1 | 864-1677 | 보 조 사 료 제 |
| 이이에스철강건설산업(주) | 김 찬 호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7750 | 철 근 조 립 |
| 에 닥 스 (주) | 홍 성 복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7701 | 오 일 구 리 스 |
| 베스트코리아(주) | 신 동 린 | 고정리 361-1 | 042-282-6171 | 과 학 교 구 |
| 봉 덕 (주) | 김 금 식 | 월산지방산업단지 | 868-2369 | 구 리 선 |
| 대 동 북 층 유리(주) | 박 병 천 | 송원리 138 | 042-825-6211 | 복 층 유리 |
| 일 도 물 산 | 차 명 식 | 갈운리 401-5 | 016-9588-1217 | 판 지 상 자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생 산 품 |
|---------------|-------|------------|--------------|------------|
| 보리식품영농조합법인 | 한 성 립 | 갈운리 310 | 011-653-4222 | 면 류 |
| 청 암 산 업 | 백 인 석 | 송원리 산 13-7 | 011-401-9270 | 플 라 스틱 창 호 |
| 신 화 가 공 (주) | 황 부 희 | 월산지방산업단지 | 846-3361 | 일 반 기 계 |

2. 남면지역의 산업단지

1) 산업단지



(1) 조치원 지방산업단지

- 위 치 : 연기군 남면 연기·놀왕리, 서면 부동리 일원
- 지정번호 : 상공부 공고 제85-34호
- 시 행 자 : 연기군수, 조성추진위원회
- 처리일자 및 근거 : 공업배치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1985년 5월 20일)
준공일시 2001년 11월 28일
- 목 적 : 지방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 시행면적 : 304,354㎡(녹지지역 74,790㎡ 공업지역 229,564㎡)
- 시행기간 : 1989 \ 6년부터 1992년까지
- 변경사항 : 1차 변경 1995년 12월 30일 공업지역 869,139㎡
녹지지역 80,548㎡
계 949,687㎡
- 시설개요 : 부지공사 1식 21,240,000,000원
용수공급시설 1식 2,360,000,000원
폐수처리시설 1,000톤/일 3,835,000,000원
진입도록 1식 413,000,000원
부대공 1식 1,652,000,000원 계29,500,000,000원

(2) 월산산업단지

- 위 치 : 연기군 남면 월산리 일원

- 지정번호 : 충청고시 제1994-205호
- 시행자 : 연기군수
- 처리일자 및 근거 : 산업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1994년 9월 16일)
- 목적 : 지방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 시행면적 : 1,842,500㎡(공업지역 1,331,320㎡)
상업지역 38,300㎡, 주거지역 65,920㎡
녹지지역 406,930㎡
- 시행기간 : 1994년부터 1996년까지
- 변경사항 : 1차변경 1997년 6월 20일 공업지역 1,382,530㎡
상업지역 8,010㎡
주거지역 255,930㎡
계 1,646,470㎡
2차변경 2000년 5월 24일 공업지역 1,191,841㎡
상업지역 9,728㎡
녹지지역 192,278㎡
계 1,394,847㎡
- 시설개요 : 부지공사 1식 19,314,000,000원
용수공급시설 1식 11,238,000,000원
폐수처리시설 900톤/일 6,464,000,000원
진입도로 1식 1,200,000,000원
부대공사 1식 7,212,000,000원
계 45,473,000,000원



조치원지방산업단지

남 면 제 조 업 체 현 황 (1)

| 기업체명 | 성별 | 대표자 | 소재지 | 기업 형태 | 설립일 | 주생산품 | 규모(평방미터) | | 종업 원 | 전 화 (F A X) | 수출 비증 | E-MAIL(URL) | 가 동 상 황 |
|------------|----|-----|------------|-------|-----------|----------|----------|--------|------|--------------------|-------|----------------------------------|---------|
| | | | | | | | 대 지 | 건 물 | | | | | |
| 쌍 기 산 업 | 남 | 이상기 | 갈운 196-6 | 개인 | | 화장지 | 4,119 | 400 | 6 | 862-6748(864-6749) | | | 정상 |
| 연 기 식 품 | 남 | 한순옥 | 보통 129-2 | 개인 | | 단무지 | 2314 | 561 | 2 | 863-4159 | | | 정상 |
| (주)서우 | 남 | 이복실 | 송원리 430 | 개인 | 00. 3. 2 | 금속조립 | 1481 | 494 | 6 | 866-2506(-2507) | | | 정상 |
| (주)설정숙김치본가 | 남 | 권민제 | 월산산단지6브록 | 법인 | | 김치 | 2483.25 | 777.3 | 15 | 868-7766(-6859) | | DAEDOK@hanmail.net | 정상 |
| (주)에이스철강 | 남 | 최진호 | 월산산단지6브록 | 법인 | | 철근임가공 | 8480 | 1259.4 | 13 | 868-7751~3(-7754) | | ILSIN-STEEL@hanmail.net | 정상 |
| 대원프라스틱 | 남 | 유명석 | 연기리 92-1 | 개인 | 00. 5. 15 | 프라스틱용기 | 1723 | 915 | 6 | 864-0942(-0943) | | | 정상 |
| (주)봉덕 | 남 | 김금식 | 월산산단지 6브록 | 법인 | | 비철금속가공 | 11037 | 2567 | 15 | 868-2369(-2370) | | GHDEJR333@hanmail.net | 정상 |
| 임광산업사 | 여 | 전성희 | 중촌리 381-1 | 법인 | | 콘크리트벽돌 | 4694 | 529 | 3 | 865-1904(864-2777) | | im1903@hanmail.net | 정상 |
| 일도물산 | 남 | 차명식 | 갈운 401-5 | 개인 | | 대형화분 | 1650 | 514 | 4 | 868-6080 | | | 정상 |
| 인텍케미칼 | 남 | 김장유 | 월산산단지 내 | 법인 | | 안경코팅제 | 1652 | 595.73 | 5 | 868-2211(-2213) | | intechchemical@hanmail.net | 정상 |
| 대진타올 | 남 | 김귀환 | 갈운 458 | 개인 | | 마르세이유 | 2598 | 710 | 3 | 866-6891(7-6892) | | daelin6028@hanmail.net | 정상 |
| (주)맑은나라 | 남 | 전찬진 | 고정리 485-1 | 개인 | 00. 7. 1 | 세계제조 | 1081 | 372 | 5 | 866-6172(6170) | | 011.4076171@hanmail.net | 정상 |
| 효진산업 | 남 | 김완용 | 진외리 402-3 | 개인 | | 콘크리트맨홀 | 1792 | 170.42 | 3 | 865-4171(-4172) | | kimwywy@hanmail.net | 정상 |
| (주)에닥스 | 남 | 홍성복 | 월산산단지1-1블럭 | 법인 | 00.11.22 | 훈활요, 부동액 | 3306 | 931 | 10 | 868-7701~2(-7703) | | iiaddax@lycos.co.kr(addax.co.kr) | 정상 |
| 중부APT | 남 | 김오수 | 송원 190-1 | 개인 | | 단미사료 | 1609 | 748 | 4 | 864-4039 | | | 정상 |
| 남면농협 | 남 | 정창규 | 고정 748-2 | 개인 | | 발효퇴비 | 2,999 | 1,594 | 3 | 864-5802(-3368) | | GLAWOTLF@yahoo.co.kr | 정상 |
| 대한산업사 | 남 | 강무선 | 눌왕 79 | 개인 | | 정부약국도정 | 2916 | 765 | 1 | 8652-9363 | | | 정상 |
| 보성직물 | 남 | 신남수 | 중촌 322-6 | 개인 | | 화섬직 | 825 | 323 | 3 | 864-5440 | | | 정상 |
| (주)송림 | 남 | 최정상 | 연기 705 | 개인 | | 각재 | 2662 | 568 | 1 | 863-6636 | | | 정상 |
| (주)유한실업 | 남 | 이순인 | 눌왕 690 | 개인 | | 벽돌 | 11848 | 700 | 5 | 868-0012(-0013) | | | 정상 |
| 삼일포장 | 여 | 유미숙 | 송원 446-1 | 개인 | | 종이상자 | 1357 | 473 | 5 | 865-8531(-3725) | | | 정상 |
| 유엔아이화장품(주) | 남 | 설장호 | 월산산단지 6블럭 | 법인 | | 화장품 | 3300 | 1028 | 7 | 863-8530(86-85) | | MINDUKHONG@ | 정상 |
| (주)홍익테크 | 남 | 박순거 | 고정 751-2 | 개인 | | 합성수지 | 5851 | 1202 | 10 | 864-0240(866-0569) | | | 정상 |
| (주)현암 | 남 | 임대진 | 갈운 397-3 | 법인 | | 가전제품케이스 | 3853 | 1535 | 20 | 863-6280 | | FRESHMAN0823@ORGIO>NET | 정상 |
| 신흥산업 | 남 | 임백환 | 연기 557-1 | 개인 | 00. 2. 8 | 금속철제 | 886 | 290 | 7 | 016-403-3250 | | | 정상 |
| (주)바이오알렌즈 | 남 | 윤병대 | 송원리 190-1 | 법인 | | 보조사료제 | 2110 | 210 | 1 | 864-1677 | | | 폐업 |
| (주)베스트코리아 | 남 | 신동린 | 고정리 361-1 | 법인 | | 과학교구 | 3121 | 1215 | 27 | 867-0008(864-6996) | | BEST2020SOY@YAUHOO.CO.KR | 정상 |
| 청암산업 | 남 | 백인석 | 송원 산 13-7 | 개인 | | 플라스틱창호 | 5202 | 790 | 57 | 011-401(-9270) | | SK1001KS@hanmail.net | 정상 |
| 상근단무지 | 남 | 조영래 | 보통리 15 | 개인 | 00. 2. 8 | 단무지 | 3065 | 986 | 5 | 864-1508 | | | 정상 |

남 면 제 조 업 체 현 황 (2)

| 기업체명 | 성별 | 대표자 | 소재지 | 기업 형태 | 설립일 | 주생산품 | 규모(평방미터) | | 종업 원 | 전 화 (F A X) | 수출 비중 | E-MAIL(URL) | 가 동 상 황 |
|------------|----|-----|-----------|-------|-----------|------------|----------|---------|------|--------------------|-------|--------------------------------|---------|
| | | | | | | | 대 지 | 건 물 | | | | | |
| (주)리얼바이오텍 | 남 | 이춘옥 | 월산산단6블럭 | 개인 | 00. 5.25 | 레반 | 3966 | 1642 | 10 | 864-3171 | | ibi5797@hanmail.net | 정상 |
| 일진소재산업(주) | 남 | 김윤근 | 월산산업단지4블럭 | 법인 | 01. 7.12 | 전자인쇄회로기판용 | 145,455 | 54,228 | 70 | 860-5500(860-5501) | | www.iliin.co.kr | 부분가동 |
| 늘푸른산업 | 남 | 이승희 | 수산리 85-1 | 개인 | | 보온덮개 | 2172 | 826 | 3 | 863-3191 | | | 정상 |
| 동해고무 | 남 | 이동철 | 종촌리 383 | 개인 | | 방진고무 | 1812 | 786 | 5 | 866-0223 | | | 정상 |
| (주)시엔에이 | 남 | 김기철 | 월산산업단지6블럭 | 법인 | 01. 4.19 | 프라스틱첨가제 | 6633 | 1826.5 | 8 | 868-1177(868-0512) | 79 | gckim48@hotmail.com | 정상 |
| (주)코스모텍 | 남 | 정형오 | 월산산업단지6블럭 | 법인 | 01. 4.16 | 접착제 | 3960 | 1093 | 11 | 862-4546(-4549) | | o-kkwon@orgio.net | 정상 |
| (주)신화기공 | 남 | 황부희 | 월산산업단지8롯데 | 개인 | 79. 2.23 | 자동제진기 | 4620 | 1100 | 7 | 864-3361(29-3363) | | shinhae@chol.com(shi.whae.com) | 정상 |
| 신흥기계 | 남 | 임현정 | 연기리 485 | 개인 | 01.11.14 | 프레스기 | 2476 | 745 | 2 | 865-2528(8662528) | 33 | | 정상 |
| 혜성과렛트 | 남 | 김호종 | 고정리 584 | 개인 | 01.11.15 | 목재갈판 | 1673 | 581 | 1 | 864-3440 | 0.1 | | 정상 |
| 금덕요업 | 남 | 김덕자 | 종촌리 346-4 | 개인 | 00. 3. 7 | 용기 | 8477 | 1497 | 4 | 866-0589(866-6373) | | toggy0589@hanmail.net | 정상 |
| 원일농산 | 남 | 박원순 | 연기리 204-5 | 개인 | 01. 6.26 | 살구식초 | 2200 | 495 | 5 | 862-9566(-0954) | | (www.afmc.co.kr) | 정상 |
| Y&T파워텍(주) | 남 | 심인택 | 월산산단지6블럭 | 법인 | | 실린더라이너 | 33785 | 12821 | 14 | 867-2361 | | | 정상 |
| 재신산업사 | 여 | 윤옥자 | 진외리 28-2 | 개인 | 3.11.13 | 파렛트 | 2576 | 415 | 1 | 864-9537 | | | 정상 |
| 조화직물 | 남 | 김순자 | 종촌리 328-1 | 개인 | | 화섬직 | 793 | 366 | 3 | 864-5339(865-7339) | | | 정상 |
| 다인물산 | 남 | 김태환 | 갈운리 327-5 | 개인 | 00.12.18 | 감가공 | 4808 | 1393 | 3 | 865-8849(865-8884) | | DALBONGG@hanmail.net | 정상 |
| 경일섬유 | 남 | 김명경 | 고정리 335 | 개인 | | 양단, 침대카바 | 571 | 373 | 6 | 864-8333(-8334) | | PRIMEROSE93hanmail.net | 정상 |
| 수창물산(주) | 남 | 홍유석 | 종촌리 63-2 | 개인 | | 아이스크림, 캔디 | 16709 | 6410.64 | 92 | 864-5400 | | | 정상 |
| 대림산업(주) | 남 | 한주희 | 연기리 519 | 법인 | 93. 1. 4 | 가스관, 수도관 | 140,647 | 35.314 | 65 | 860-3600(3-0742) | | webmaster@daelimchem.co.kr | 정상 |
| 대창식품 | 남 | 육근무 | 보통 17 | 개인 | | 단무지 | 1680 | 358.68 | 10 | 862-2655 | | | 정상 |
| 세일저장 | 남 | 윤근조 | 보통리 19 | 개인 | | 채소(무) | 3263 | 784 | 3 | 862-2655 | | | 정상 |
| (주)세창 | 남 | 김승태 | 눌왕 29-3 | 법인 | | 부직포 | 5345 | 2570.5 | 37 | 863-0726(862-3282) | 15 | S3282@yahoo.co.krz | 정상 |
| 유림공영 | 여 | 박순자 | 송원 산 22-7 | 법인 | | 아스콘 | 34848 | 6504 | 32 | 864-4048(-6587) | | JEAIEE@hanmail.net(YOULIM) | 정상 |
| 더젯바이오텍 | 남 | 이인영 | 월산산단지6블록 | 법인 | 00. 1. 5 | 베타글루칸, 캐피어 | 3962 | 648.75 | 10 | 867-0778(-0779) | | LEEIJ@DMJBIO.COM(www. | 정상 |
| 용마산업 | 남 | 박동수 | 원산산단지내 | 법인 | 00. 1.25 | 레미콘, 아스콘 | 22566 | 1547.07 | 24 | 866-5020(-5024) | | yongma1420@yah00.co.kr | 정상 |
| 풍만제지 | 남 | 윤복노 | 보통리 319-1 | 법인 | | 백상지, 아트지 | 155787 | 48751.8 | 183 | 863-4111(863-0520) | | (www.kyesung.co.kr) | 정상 |
| (주)정원엔지니어링 | 남 | 류환희 | 송원리 233-7 | 법인 | | 철물구조, 철물공사 | 3513 | 835 | 8 | 866-8550(-8554) | 2 | 97JUNGCO@hanmail.net | 정상 |
| (주)대동북충유리 | 남 | 박병천 | 송원리 138 | 법인 | 94.10.13 | 북충유리 | 2609 | 711.2 | 18 | 863-6212~4 | | | 정상 |
| 영신양계 | 남 | 임현완 | 고정 654 | 법인 | | 계란 | 18271 | 9777.7 | 16 | 865-4700(4-5114) | | | 정상 |
| 션에어로시스 | 남 | 박선태 | 송원 248-1 | 법인 | 00. 10. 1 | 항공기시물레이터 | 2171 | 1067.48 | 32 | 864-2177(-2035) | | STPARK@SUNAEROSYS.COM | 정상 |

남 면 제 조 업 체 현 황 (3)

| 기업체명 | 성별 | 대표자 | 소재지 | 기업 형태 | 설립일 | 주생산품 | 규모(평방미터) | | 종업 원 | 전 화 (F A X) | 수출 비중 | E-MAIL(URL) | 가 동 상 황 |
|--------------|----|-----|-------------|----------|----------|--------------|----------|---------|---------|----------------------|----------|------------------------------|------------|
| | | | | | | | 대 지 | 건 물 | | | | | |
| 오 천 산 업 | 남 | 박종희 | 송원리 233-3 | 법인 | | 샌드위치판넬 | 7537 | 2469 | 21 | 864-0415(-3501) | | OCHOUNCO@hanmail.net | 정상 |
| (주)충남계계소 | 남 | 강현국 | 갈운리 577-7 | 법인 | | 건축가설재, pauet | 3746 | 142.08 | 19 | 864-0354-5(865-4217) | | CHUNGNAM100@hanmail.net | 정상 |
| 보리식품영농조합 | 남 | 한성립 | 갈운리 310 | 법인 | | 양념돼지갈비, 칠냉 | 3527 | 1995 | 43 | 865-2212(865-0743) | | BOROFOOD@YAHOO.KR | 정상 |
| 풍림산업steel사업소 | 남 | 이필승 | 눌왕리 42 | 법인 | | 강교box | 63,419 | 14,637 | 28 | 862-7315(863-5735) | | www.POONGLIM.CO.KR | 정상 |
| (주)고려소재연구소 | 남 | 김영숙 | 월산산단지6블럭 | 법인 | | 무정전판넬 | 4134 | 1314 | 15 | 868-5810(-5812) | 40 | koreasemicon@hanmail.net | 정상 |
| 력 키 산 업 | 남 | 김희수 | 갈운 288-2 | 개인 | | 가위의다수 | 1189 | 432 | 4 | 864-3271(-3272) | 17 | | 정상 |
| (주)에스엔디 | 남 | 여경옥 | 월산리 6-12블럭 | 법인 | 00. 1. 3 | MPG-6, 쇠고기분말 | 6610 | 2337.82 | 33 | 866-0515(-0518) | | dptmdsose@yahoo.co.kr | 정상 |
| (주)신성식품 | 여 | 김지연 | 연기리 360 | 법인 | | 이온물엿, 식용빙초 | 2401 | 1128 | 7 | 863-4010 | | kiy5618@hanmail.net | 정상 |
| 한국기계공사 | 남 | 이희만 | 수산리 103-4 | 개인 | | 흡후드, 실험대 | 1239 | 400.41 | 11 | 862-7723(-7725) | | webmaster@hmcclab.co.kr | 정상 |
| 풍 년 식 품 | 남 | 안영수 | 고정리 360-7 | 개인 | 00. 4. 1 | 냉면 | 1243 | 465 | 10 | 864-6719(865-0334) | | pungnyun@hanmail.net | 정상 |
| (주)이원컴텍 | 남 | 유창윤 | 월산산단지 4-1블럭 | 법인 | | 도료제조업 | 3300 | 940 | 6 | 868-2175-6(-2174) | | ewon@kornet.net | 정상 |
| (주)동진PSP | 여 | 정병희 | 고정리 375-1 | 법인 | | 성형파렛트, 농수로 | 5110 | 1195.3 | 25 | 865-5946(-6001) | 15 | pspkorea@hanmail.net | 정상 |
| 공간프레임 | 남 | 김성수 | 방축리 173-5 | 개인 | | 액자 | 2023 | 701 | 5 | 865-9602(865-9603) | | | 정상 |
| 지 산 제 약 | 남 | 유희상 | 수산리 86 | 법인 | 00. 5.30 | 한약재 | 3967 | 1284 | 10 | 862-8051(862-8054) | | iuni6800@hanmail.net | 정상 |
| 대륙테크놀로지 | 남 | 문철수 | 갈운리 139-4 | 법인 | | 전자관 | 2797 | 1008 | 11 | 865-9101(865-9106) | | lg-com@hanmail.net | 정상 |
| (주)코리아ACF | 남 | 유승곤 | 월산산단지4블럭 | 법인 | | 정수기필터 | 3310 | 2037 | 10 | 862-0961(862-0964) | | koreasemici@hanmail.net | 휴업 |
| 유 원 정 공 | 남 | 박종찬 | 종촌리 376-3 | 개인 | 99. 6.21 | 승강기 | 1488 | 330 | 1 | 011-425-1805 | | skryu@cnu.an.kr | 폐업 |
| 서 울 농 산 | 남 | 임현순 | 고정 254 | 개인 | | 만두속 | 785 | 170 | 2 | 865-5784 | | | 휴업 |
| 이 원 컴 텍 | 남 | 유창윤 | 월산산단지 | 법인 | | 절연바니쉬 | 3066 | 940 | 5 | 868-2175(-74) | | ewon@kornet.net | 정상 |
| 대 립 건 설 | 여 | 박정희 | 종촌 39-3 | 법인 | 01.10. 5 | 샤시제조 | 1412 | 536 | 10 | 865-8285(-7) | | | 정상 |
| (주) 동 성 | 남 | 이정태 | 송원리 65 | 법인 | 94.12. 1 | 피혁 | 121662 | 33466 | 1 | 864-5591 | | | 정상 |
| 종촌황토벽돌 | 남 | 임창철 | 종촌 123-4 | 개인 | 84. 7.24 | 세멘벽돌벽돌 | 4620 | 657 | 3 | 864-5542(864-5948) | | soiblick충남황토벽돌.com | 정상 |
| 대 산 산 업 | 남 | 하계봉 | 월산산단지6-11 | 개인 | 93.11. 1 | 핫픽스, 라인스톤 | 16500 | 3300 | 27 | 02-2617-0328(0329) | | webmaster@dshrinestone.co.kr | 정상 |
| 효 성 | 남 | 이돈영 | 연기518 | 법인 | | 철탐, 용접기 | 120548 | 19003 | 49 | 860-2617(-3113) | | dentlee@hyosung.com | 정상 |
| 성 산 산 업 | 남 | 이준우 | 갈운461-1 | 개인 | 95. 4.20 | 단열재 | 2909 | 1181 | 4 | 862-4005 | | | 휴업 |
| 용 석 산 업 | 남 | 백남용 | 송원산 30 | 개인 | | 규석 | 14026 | 2650 | 1 | 032-347(-2457) | | | 휴업 |
| 천 마 식 품 | 남 | 전병준 | 갈운442-4 | 개인 | | 마국수 | 1107 | 873 | 1 | | | | |
| 계 | | | | | | | 1288576 | 372123 | 1325 | | | | |

제3장 남면의 관광 토산

제1절 남면의 관광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있다. 직장 생활이 주 오일근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휴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단계이므로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누리고 느끼며 더 나아가 체험을 통하여 즐거움과 지식을 얻고 선인의 얼을 느끼는 정신적 행복을 얻는 것인데, 이는 관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기군에서 관광자원을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 하나 살펴보면 연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 연기군이다.

과거 연기군은 연기현, 전의현으로 구성되었고, 1914년 이전에 공주지역이었던 금강너머 금남면과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연기와 전의에는 관아와 향교가 존재하였다. 이는 독립된 행정권으로 연기는 연기대로 전의는 전의대로 그 지역에 맞는 문화가 있었으며, 이들 문화는 현재까지 그 유적이 존재하며,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중의 후손들에 의하여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1. 옛 선비들이 칭찬한 연기8경(燕岐八景)

옛 선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면 한 수의 시로 만들어 많은 이들과 그 느낌을 같이 하였다. 연기군의 대표적인 경치를 8군대로 선정하여 그에 대한 느낌을 지은 시를 모아 그 모습이 과거에서 현재 어떻게 변하였나 정리하여 보았다.

1) 연기의 제 1경은 오봉락조(五峰落照)이다.

이는 조치원 봉산리 뒷산에 위치하여 서면 고북리, 전동 소정리와 연결되어 봉

우리가 다섯이어서 그 봉우리가 목형봉, 화형봉, 토령봉, 금형봉, 수형봉으로 이루어졌다.

오봉산 안에는 과거 홍천사라는 옛 절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소장된 석조 지장보살과 석조 비로자나불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되는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큰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서쪽에 있는 봉서재는 400여 년 전 창건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당으로, 이곳을 드나들던 선비들은 오봉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였다.

현재는 그 아름다움에 맨발로 등산로를 개설하여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조치원 읍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산책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선비들은 오봉산을 바라보면서 산의 푸르름과 특히, 지는 해의 붉은 빛을 오봉산에 걸치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2) 연기 제 2경은 당수청람(唐岫晴嵐)이다.

이는 남면연기리에 있는 당산을 노래한 시이다. 이 당산은 과거 연기현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산아래 연기향교가 전하며 관아는 변하여 연남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현대식 건물로 모두 바뀌었다. 또 이곳에는 아름다운 연희루(燕喜樓)가 있어 인제(寅霽) 신개(申??),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노래한 시가 전하며 당산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동진강이라 부른다.

당산의 아름다움은 내리던 비가 그치고 산아래 안개가 끼어 산이 하얀 구름위에 떠있는 모습이 가히 빼어난 절경이라 하였다.

3) 연기 제 3경은 침산추월(砧山秋月)이다.

침산은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충령탑 공원으로 조치원읍내의 유일한 자연 녹지이다. 선인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한밤중 달이 떠있는 모습으로 노래하였다.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변하여 6.25 참전 용사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승화하신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등의 위패를 모셨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이곳 가을 경치가 참으로 빼어났으며 특히 한밤중의 달빛은 더욱 아름다웠나 보다.

일제시대 이곳 공원에다 일제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하였다. 일제가 물러나자 충령탑을 세우고 공원화 하였으며 이곳 운동장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

가 개최된다.

4) 연기 제 4경은 용당기암(龍塘奇巖)이다.

용당은 동면 명학리 금강변에 있는 기암 절벽이다. 이곳도 현재의 모습은 옛 모습과 많이 다르지만 기암 절벽이 장관이었던 것 같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는 금강이 흐르는 것 이외의 그리 멋진 풍경을 자아내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이곳의 물줄기가 지금과 달라 여러 가지 형상의 바위가 깎은 듯 절벽을 이루었고 그 아래는 연못처럼 물이 모여 흐르므로 마치 용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올라 하늘을 향하리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5) 연기 제 5경은 금강귀범(錦江歸帆)이다.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 사이를 흐르는 금강은 전체 중 류에 속한다.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나듯, 금강은 우리의 역사 중 선사시대 문화와 백제문화를 일으킨 곳이다.

또한 고대 행로는 배를 이용한 물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금강변 곳곳에 나루가 형성되었고 빼어난 절경에는 정자를 지어 놓았다. 이를 오강 팔정이라 하는데 오강(五江)은 오강(吳江-동진하류), 초강(楚江-부강하류), 금강, 백강(백마강), 청강(백마강 하류)이며 팔정(八亭)은 합강정(合江亭), 독락정(獨樂亭), 한림정(翰林亭), 탁금정(濯錦亭), 금벽정(錦壁亭), 사송정(四松亭), 청풍정(淸風亭), 수북정(水北亭)이다. 예전에는 상선들이 이곳 8정을 지날 때마다 나루세를 물어야 했다고 한다. 그 시대는 돛을 단 배들이 금강물결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나 보다.

지금의 금강은 골재 채취로, 또는 콘크리트 다리로 그 모습이 많이 변하였지만 노을진 금강은 여전히 아름답다.

6) 연기 제 6 경은 동진어화(東津漁火)이다.

동진은 금강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래이며, 청원군에서 흘러 조치원의 조천천과 미호천이 만나 옛 연기의 현청인 연기리 당산을 돌아 금강과 합류하는 곳이다. 이곳은 연기현의 관아 등 주요기간이 자리잡아 동진 나루를 이용하는 이가 많았을 것이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동진가에는 낚시하는 이들도 많았나보다. 동진가에서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고 비바람 부는 밤에도 고기를 잡는 곳으로 유명한 것 같다. 지금은 주변에 공장과 축사로 인하여 그 모습을 찾기 힘들지만 동진어화가 인상깊었나 보다.

7) 연기 제 7경은 고려고성(高麗古城)이다.

이는 소정면 고등리 아야목 마을 뒷산으로 옛성터가 있는 곳이다. 이곳 산성은 테피식 토석혼축으로 쌓았으며 석축의 부분에 많은 곳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 지금까지 전한다. 이곳의 위치는 공주, 전의 지방에서 이곳을 거쳐 천안, 한양으로 오르는 길목이며 고대 고구려가 이곳에까지 쳐들어 왔다는 설도 있다. 이 산성에는 싸움 중 산성 안 우물이 말라 비가 오게 간절히 원하다 비가 내리자 급하게 물을 마시자 목이 따가와 “아야목”이라 외친데서 마을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은 등산로를 개설하여 찾는 이가 제법 많은 곳이다.

8) 연기 제 8경은 비암만종(碑岩晩種)이다.

비암사는 전의면 다방리 산 속에 위치하였다. 백제 멸망기 백제 유민은 나라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분으로 인하여 결국 백제는 멸망하고 만다. 백제가 멸망하자, 유민들은 언젠가는 백제국이 다시 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를 석불비상이라 하며 백제유민의 염원을 담아 사찰을 세우고 매년 4월 15일 대제를 지내온 것이 백제대제이다. 비암사는 이러한 역사를 가졌기에 해질녘 범종의 소리는 숙연한 것이다.

비암사의 규모는 제법 컸었나보다. 주위 절터가 동서남북으로 산재하여 있고 석불비상이 현재까지 8점이 출토되었으며, 비암사 소장 괘불 하단에 쓰여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비암사의 규모는 제법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면의 관광자원

남면은 금강변과 연기현이 있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금강변에는 많은 유적이 있다.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나듯 금강변에는 선사유적인 고인돌이 월산리에 있고 주변에서는 선사시대 집터 그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금강변에 빼어난 절경에 알맞게 정자 또한 많다. 그 대표적인 정자가 독락정이다. 독락정(獨樂亭)은 세종 19년(1437년) 임목(林穆)이 건립한 것이다. 그는 고려 공조전서 임난수(林蘭秀)의 아들로 임난수는 조선이 개국하자 고려유신으로 벼슬을 버리고 남면 양화리에 은거하면서, 뒤 전월산에 올라 고려 조정을 향하여 절을 올렸던 상려암, 고려를 생각하며 맑은 물을 얻었던 용천 등이 유적으로 전한다.

금강변 원수산에는 연기대첩의 2차 전투지로 고대 쌓았던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 원수산에는 해마다 10월 2일 산제를 지내는데 4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지금도 산제가 중단되지 않고 내려오고 있으며, 연기리는 연기 향교가 봄, 가을 제향을 올리며 조선시대 유림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연기리 당산은 과거 연기의 진산이었다. 산 정상에는 토석혼축 산성이 있고 기와편과 여러 가지 유물이 출토되어 오랜 세월 중요한 시설이 있던 것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관아는 현재 연남초등학교가 되어 교내에 초석이 이곳 저곳에 산재하여있다. 이곳에는 객사, 아전, 사창, 동헌, 연희루 등 주요시설이 있었다. 남면 같은리에는 마을 입구에 할아버지, 할머니 미륵이 존재하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 마을 주민이 이곳 미륵님께 정성을 다하여 미륵제를 지내고 있으며 이는 400여 년 전부터 행하여 오던 민속이다. 또 이곳 마을에는, 무아재 오강표 선생의 생가와 묘소가 있다. 오강표 선생은 한일 합방 소식을 듣고 치욕적인 일이라며 공주향교 명륜당에 목을 매어 자결하신 애국열사이시다. 조선 말기 성리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임헌회 선생과 전우 선생의 유적인 덕성서원과 송덕사가 남면 방축리에 있다.

제2절 남면의 토산

토산(土産)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토양과 토질 여건 등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므로 좋은 질과 많은 양을 생산할 때 또는 다른 곳에서는 생산할 수 없고 오직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토산품이라 한다.

기록에 나타난 시대별 토산품

1)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연기현의 토산품은 다음과 같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 팥, 메밀, 뽕나무다. 토공(土貢)은 대추, 칠, 잡깃, 여우가죽(狐皮), 삿괭이가죽(狸皮), 수달피(水獺皮)요. 약재(藥材)는 인삼, 산골(自然洞), 마름(菱仁)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니 현의 북쪽 요혜방(要惠方)에 있고 중품이다. 도기소가 1곳이니 요혜방에 있다. 하품이다.

2)여지도서

여지도서에 연기현에는 창출(蒼朮), 목화(木花) 등이 기록되어있다.

3)연기읍지

연기읍지는 1824년(순조24년)에 간행된 책으로 이곳에는 물산(物産)이 창출과 목화가 표시되어있다. 진공(進貢)은 진하진상(陳賀進上) 오리대신 수평 1수

2월령 약제 창출 6근 건지황 2량 갈자리 1입

5월령 약제 행인 8량 금은화 2량 정력자 2량

6월령 약제 도인 8량 버들고리 1부

9월령 약제 창출 4근 금은화 1량 백급 2량

4) 연기지(燕岐誌)

연기지는 1934년에 만들어진 책이다. 이는 1914년 전의, 연기가 통합하였고 공주 지역이었던 금남면이 연기군에 편입된 후다.

토산(土産) 및 공산품(工產品)

창출(蒼朮), 택사(澤瀉), 우슬(牛膝), 목화(木花)

목화(木花)에 대하여서 옛날의 연기와 전성지에 전하듯, 기후와 풍토가 적합하므로 구한국농상공부 임시 면화 재배 소에서 3정4반의 채종포(採種圃)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도 위탁원종포(道委託原種圃) 20여 정보와 군채종포(郡採種圃) 70여 정보를 동면(東面) 명학리(鳴鶴里)와 기타에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에는 년산 30만4천근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1932년에는

125만근이상에 달하였다.

- 박하(薄荷)
- 박하유(薄荷油) 제조 호수는 6호이며 1년의 생산액이 1만여 원에 달한다.
- 완초(莞草: 왕굴)
현재 1년의 생산고가 6천여 관에 달한다.
- 기류(杞柳: 버들) 현재 년 산고가 2천여 관에 달한다.
- 가마니
년 산고가 62만장으로 1926년에 비하여 26만장이 감소되었다.
- 생사(生絲) 제사호수는 2호, 년산고는 1만 1천 73톤이며, 대금은 16만 7백 90여원이다.
- 진유기(眞鑰器: 낫그릇) 제조호수는 2호, 년산고는 1만 7천여원이다.
- 초자진주(硝子眞珠: 인조구슬) 연 수출액이 수10만원에 달한다.
- 맥간제(麥稈製: 밀짚제품)
- 백목면(白木綿: 한광목)

5) 연기지

1966년 연기지는 연기향교에서 발행된 것이다. 이곳에 연기군의 토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창출, 텍사, 우슬을 예전까지 많은 양을 생산하였는데, 현재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33년전 조사에 의하면 박하(薄荷)가 대량생산되어 만유여원의 외자소득을 올리는 산물로 되어있고 기류(杞柳)도 일년에 2천여관, 완초(莞草)가 6천여 관에 달하였고, 맥간제와 백목면과 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매매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초만이 5개 면에서 특용작물로 재배하고 있을뿐더러 기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유기제조업자가 비록 2호였다고 하나 일년생산이 이만원 이상에 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기 좋고 품질 좋은 양기(洋器)를 사용함이 편리하여 유기는 자취를 감추어지고, 조치원을 중심으로 특산물인 인조진주를 외국에 수출하는데, 1년 생산고가 20여 만원을 넘고 있다. 제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외국수출이 중단되었었는데, 근자에는 외국과의 통상이 복구되어 외국 의 주문이 많아지므로 상공부장관이 인조진주가 조치원 특산임을 인정하고 조

치원 천일산업사(鳥致院天一産業社)에게 봄부터 인조진주의 수출 공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년 수출 목표는 10만불 이상을 세우고 있어서 다시 인조진주를 제조하는 가정은 대부분 농가인 만큼 부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활기를 띠고 있다.

6) 1977년 연기군지(燕岐郡誌)

1977년 발행된 군지는 소설가 강금중 선생이 집필한 것이다. 이곳 군지에는 권역별 장기 종합 개발 계획도를 그렸는데 이는 크게 네 개 지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북부권은 소정, 전의, 전동이고 중부의 서쪽은 서면 동쪽은 조치원 그리고 남부는 남면, 동면, 금남면을 묶어 표시하였다.

이 중 전의 지역은 누에, 한우, 밤이 특산물로 누에는 전의 철도 건너 남부권에 많이 생산하였고 한우와 밤은 전동면에서 생산하였다. 이곳을 수출 농업권으로 지정하였고 서면은 특수작물 조성권으로 지정하여 딸기와 밤, 인산을 생산하였다.

조치원은 경공업권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금남, 동면, 남면은 종합 농업권으로 남면은 하우스 채배로 오이, 고추를 동면은 포도, 금남은 송이버섯, 한우, 시오리를 생산하였다.

1970년대 금남의 대평평야와 남면의 장남평야에서 채배되었던 시오리는 오이와 참외의 맛을 접목시킨 것으로 장아치용으로 만들어지다 없어졌다.

7) 1988년 연기군지(燕岐郡誌)

1988년 연기군지는 충남대학교 성주탁교수의 의하여 집필되었다. 이때 연기군의 토산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1) 누전차단기

조치원읍(鳥致院邑) 신흥동(新興洞)에 위치하고 있는 (주)동아기에서 생산

(2) 구슬공예품

일제(日帝)시대에 수출품으로 적극 장려되었던 인조진주는 현재 조치원읍(鳥致院邑) 원동(元洞)에 개인별 부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510명에 연

간 300만타스(360백만원)를 생산하여 연간 303천불 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조치원에서 생산한 인조진주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제작이 간편하여 가정 부업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화장지

조치원읍(鳥致院邑) 범암동(礮岩洞)에 있는 (주)쌍용스카트제지

(4) 가죽제품

남면(南面) 송원리(松院里)에 있는 (주)동성은 대지 133,979평, 건평 6,889평, 종업원 수 650명의 규모로 연간 60만매(28,000백만원)를 생산하여 40,000천불을 수출하고 있는데 천연제품으로 촉감이 우수하고 내구성, 내연성이 강하다.

(5) 통조림

서면(西面) 월하리(月河里)에 있는 (주)조치원식품

(6) 잎담배

조치원읍(鳥致院邑) 침산동(砧山洞)에 있는 (주)오팩

(7) 담배필터

서면(西面) 월하리(月河里)에 있는 (주)선일홍업

(8) 성냥

금남면(錦南面) 신촌리(新村里)에 있는 대림성냥공업사

(9) 복숭아단지

연기군(燕岐郡)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복숭아는 서면(西面)에 재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재배면적 250ha 연간 생산량 3,500M/T, 소득액 525백만원이다.

(10) 고추단지

전의면(全義面)에 있는 고추단지는 재배면적 1,100ha, 생산량 1,430M/T, 소득액 3,569백만원이다.

(11) 단무지단지

동면(東面)에 있는 단무지단지는 200ha의 면적에 연간 11,000M/T를 생산하고 있고 330백만원의 소득을 얻고있다.(이상 1986.12.31 현재)

8) 2004년 연기군 남면의 주요 특산물

연기군 남면은 종촌리에 자리잡은 수창물산에서 과자류를 생산하여 전국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금덕토기에서는 전통옹기를 대량생산하고 있다.

농산물로는 금강변의 장남평야에서 생산하는 쌀과 하우스 재배로 유명한 금강 오이가 있으며 보통리 동진강변에서는 봄, 가을로 감자를 많이 생산해낸다. 눌왕리, 수산리, 갈운리, 고정리에서는 비탈밭을 이용하여 복숭아를 재배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국도 1호선 변에서 복숭아 판매소를 설치하여 판매하므로 이곳에서 생산해낸 과일을 이곳에서 모두 소비함은 물론 모자라 이웃 면에서 갖다 파는 경우도 있다.

第 7 編 성씨 인물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성씨

제2장 연기군 남면의 인물

제1장 연기군 남면의 성씨

제1절 연기군 남면지역 성씨 변화의 개관

1. 지리지 기록 성씨들

1) 연기현

연기군 남면은 대부분 과거 조선시대 연기현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의 성씨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필 때 가장 적합한 자료가 바로 지리지들이다. 이 지리지는 당 시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면서, 공론화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씨의 출현과 존재는 이미 백제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8대 성씨가 기록되기도 하지만,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연기지역의 경우는 조선초기의 지리지에 기록된 연기 토성 魏·河·全·耿·菘 씨와 속성인 金·康씨, 래성으로 개경의 王씨 정도가 기록된다. 이들은 모두가 현재로 치면 본관이 연기였다.

| 구분 |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2)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 여지도서 (영조, 정조) | 충청도읍지 | 연기읍지 (1824) | 호서읍지 (1871) | 증보문헌비고 (1907) |
|----|-----------------------|-----------------------|------------------|-----------------|-----------------|-----------------|-----------------------------|
| 土姓 | 魏, 河, 全, 耿, 菘 | 全, 耿, 菘 河, 魏 | 全, 耿, 菘 河, 魏 | 全, 耿, 蔣 河, 魏 | 全, 耿, 蔣 河, 魏 | 全, 耿, 蔣 河, 魏 | 鄭, 張, 徐, 裴, 全 玄, 菘, 洪, 成 |
| 續姓 | 金, 康 | 金, 康(並, 續) | 金, 康(並, 續) | 金, 康(並, 續) | | 金, 康(並, 續) | |
| 來姓 | 王(개경) | 王(개경) | 王(개경) | 王(개경) | | 王(개경) | |

그러나 연기 위씨를 비롯한 이들 성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지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러한 변화를 지리지에 반영하여 조선초기와 후기의 성씨가 매우 다른데 연기현 지리지의 경우는 조선초기의 지리지 성씨 기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변화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조선초기에도 성씨의 기

록순서가 魏·河·全·耿·裴 에서 全·耿·裴·河·魏로 바뀐 것 정도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사실 연기지역에서의 성씨 변화는 조선후기를 지나 증보문헌비고의 〈증보〉에서 기록된 鄭·張·徐·裴·全·玄·裴·洪·成씨처럼 성씨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사마방목 향안 등의 기타 기록들이라든가, 입향성씨들의 유래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2) 사마방목 연기현 성씨별

| 급제 연대 성씨 | 1501 ~1550 | 1551 ~1660 | 1601 ~1650 | 1650 ~1700 | 1701 ~1750 | 1750 ~1800 | 1800 ~1850 | 1850 ~1894 | 합 계 |
|----------------|---------------|---------------|---------------|---------------|---------------|---------------|---------------|---------------|-----|
| 강화최씨 | | | | 1 | 3 | 1 | | | 5 |
| 부안임씨 | | | | | | 2 | 1 | 2 | 5 |
| 결성장씨 | | | | | | | | 5 | 5 |
| 남양홍씨 | | | 1 | | | | | 1 | 2 |
| 파평윤씨 | | | | | 1 | 1 | | | 2 |
| 전의이씨 | | | | | | 1 | | 1 | 2 |
| 양주조씨 | | | | | | 1 | | 1 | 2 |
| 한산이씨 | | | | | | | 1 | 1 | 2 |
| ○○安씨 | 1 | | | | | | | | 1 |
| 함안채씨 | 1 | | | | | | | | 1 |
| 강화황씨 | | | 1 | | | | | | 1 |
| 진주정씨 | | | | 1 | | | | | 1 |
| 진천송씨 | | | | | 1 | | | | 1 |
| 보성오씨 | | | | | 1 | | | | 1 |
| 경주김씨 | | | | | | 1 | | | 1 |
| 진주강씨 | | | | | | 1 | | | 1 |
| 밀양박씨 | | | | | | 1 | | | 1 |
| 죽산박씨 | | | | | | | 1 | | 1 |
| 동래정씨 | | | | | | | 1 | | 1 |
| 안동김씨 | | | | | | | 1 | | 1 |
| 광산김씨 | | | | | | | | 1 | 1 |
| 합 계 | 2 | | 2 | 2 | 6 | 9 | 5 | 12 | 38 |

3) 사마방목 연기현 인물

| | 급제년도 | 분류 | 성명 | 본관 | 본인 생년 | 부친 성명 및 관력 | 비고 |
|----|-------|----|--------|----|-----------|-----------------------------|----------|
| 1 | 1504년 | 생원 | 安福謙 | | | | |
| 2 | 1522년 | 생원 | 蔡允浩 | 함안 | | | |
| 3 | 1616년 | 진사 | 洪履慶 | 남양 | 1582년(임오) | 洪義民(통사랑, 예빈시/전봉사) | |
| 4 | 1624년 | 생원 | 黃汝中 | 강화 | 1574년(갑술) | 黃琰(학생) | |
| 5 | 1662년 | 생원 | 崔有華 | 강화 | 1629년(기사) | 崔造源(선략장군, 용양위/행좌부장) | |
| 6 | 1708년 | 생원 | 宋重玉 | 진천 | 1684년(갑자) | 宋構(유학) | |
| 7 | 1696년 | 생원 | 鄭熙采 | 진주 | 1667년(정미) | 鄭行道(학생) | |
| 8 | 1705년 | 진사 | 崔煊 | 강화 | 1674년(갑인) | 崔柱華(학생) | |
| 9 | 1705년 | 진사 | 尹廷亮 | 과평 | 1664년(갑진) | 尹弼星(통훈대부, 돈녕부/전행봉사) | |
| 10 | 1715년 | 생원 | 崔煊(崔壽) | 강화 | 1681년(신유) | 崔柱華(학생) | |
| 11 | 1719년 | 생원 | 崔是 | 강화 | 1701년(신사) | 崔煊(진사) | |
| 12 | 1721년 | 생원 | 吳泰昌 | 보성 | 1672년(임자) | 吳?(통훈대부, 서헌부/행감찰) | |
| 13 | 1768년 | 진사 | 尹光濬 | 과평 | 1740년(갑신) | 尹東興(성균진사) | |
| 14 | 1771년 | 진사 | 金成烈 | 경주 | 1748년(부진) | 金履相(유학) | |
| 15 | 1773년 | 진사 | 林翰儒 | 부안 | 1727년(정미) | 林在華(학생) | |
| 16 | 1777년 | 진사 | 姜克成 | 진주 | 1750년(경오) | 姜文益(유학) | 1785년 문과 |
| 17 | 1777년 | 진사 | 朴聖煥 | 밀양 | 1755년(을해) | 朴尙鳳(선략장군, 훈련원/권지봉사) | |
| 18 | 1786년 | 진사 | 李廷植 | 전의 | 1760년(경진) | 李潤積 示+(통덕랑) | |
| 19 | 1789년 | 생원 | 崔之聖 | 강화 | 1756년(병자) | 崔義敬(유학) | 1785년 문과 |
| 20 | 1790년 | 생원 | 林秉鉉 | 부안 | 1764년(갑신) | 林亨遠(유학) | |
| 21 | 1798년 | 진사 | 趙南達 | 양주 | 1754년(갑술) | 趙榮國(승정대부, 이조/행판서) | |
| 22 | 1814년 | 진사 | 李憲溥 | 한산 | 1792년(임자) | 李驥(유학)/생부:李顯(통훈대부, 이천행도호부사) | |
| 23 | 1819년 | 생원 | 朴敏愨 | 죽산 | 1787년(정미) | 朴聖泰(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 |
| 24 | 1822년 | 생원 | 鄭山容 | 東來 | 1774년(갑오) | 鄭東稷(통덕랑)/생부:鄭東樑(학생) | |
| 25 | 1834년 | 진사 | 林錫圭 | 부안 | 1771년(신묘) | 林謙肅(학생) | |
| 26 | 1846년 | 생원 | 金宗學 | 안동 | 1807년(정묘) | 金光良(유학) | |
| 27 | 1867년 | 생원 | 李玄秀 | 전의 | 1796년(병진) | 李大會(학생) | |
| 28 | 1873년 | 생원 | 林命源 | 부안 | 1819년(기묘) | 林命源(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 |
| 29 | 1876년 | 생원 | 林永善 | 부안 | 1817년(정축) | 林希豊(학생) | |
| 30 | 1880년 | 진사 | 張履煥 | 결성 | 1858년(병진) | 張龜相(유학) | |
| 31 | 1882년 | 진사 | 張彝相 | 결성 | 1802년(임술) | 張網濟(학생) | |
| 32 | 1882년 | 진사 | 張喆相 | 결성 | 1835년(을미) | 張榮濟(학생) | |
| 33 | 1888년 | 생원 | 金根鉉 | 광산 | 1840년(경자) | 金在懋(학생) | |
| 34 | 1888년 | 진사 | 張基鴻 | 결성 | 1859년(기미) | 張鼎煥(학생)/생부:張升煥(학생) | |
| 35 | 1891년 | 생원 | 趙允熙 | 양주 | 1846년(병오) | 趙復林(통훈대부, 서산/행군수) | |
| 36 | 1891년 | 생원 | 張基萬 | 결성 | 1874년(갑술) | 張文燮(선략장군, 용양위/행부사과) | |
| 37 | 1894년 | 생원 | 洪在駿 | 남양 | 1874년(갑술) | 洪揆燮(학생) | |
| 38 | 1894년 | 진사 | 李憲珪 | 한산 | 1870년(경오) | 李寅植(통훈대부, 기기국/전행사사) | |

〈표〉에 나타난 가문별 등재 인원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강화최씨(5), 부안임씨(5), 결성 장씨(5)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안임씨는 18세기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결성장씨는 19세기 후반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본인 거주지가 연기로 되어 있는 사마방목 등재 인물은 모두 38명으로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6세기 2명, 17세기 전반 2명, 17세기 후반 2명, 18세기 전반 6명, 18세기 후반 8명, 19세기 전반 5명, 후반에는 12명이 등재되어 있다.

16세기 전반 사마 급제자로는 안씨(1)와 함안 채(1) 2명만이 등재되어 있고, 후반에는 등재된 인물이 없다. 그 수치가 매우 적어 확실한 통계는 낼 수 없겠지만, 이 두 성씨가 다른 성씨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연기지방에 정착하여 사족기반을 확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전반에는 남양홍씨(1)와 강화황씨(1), 후반에는 강화최씨(1)와 진주정씨(1)가 등재되어 있다. 18세기 전반에는 강화최씨(3), 과평윤씨(1), 진천송씨(1), 보성오씨(1)가 보이며, 18세기 후반에는 강화최씨(1), 부안임씨(2), 과평윤씨(1), 양주조씨(1), 전의이씨(1), 경주김씨(1), 진주강씨(1), 밀양박씨(1)가 등재되어 있다.

19세기에는 모두 17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전반에는 부안임씨(1), 한산이씨(1), 밀양박씨(1), 동래정씨(1), 안동김씨(1)가 등재되어 있고, 후반에는 부안임씨(2), 결성장씨(5), 남양홍씨(1), 전의이씨(1), 양조조씨(1), 한산이씨(1), 광산김씨(1)가 등재되어 있다. 순흥안씨와 함안채씨가 다른 성씨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기지방에 기반을 잡고 있었으며, 강화최씨(5), 부안임씨(5), 결성장씨(5)가 가장 두드러지지만, 부안임씨는 18세기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결성장씨는 19세기 후반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4) 연기현의 구향안좌목

(향안을 통하여 성씨 변천사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乙酉 | 己巳 | 壬申 | 丁丑 | 합 계 |
|------|----|----|----|----|-----|
| 남양 洪 | 11 | 4 | | 9 | 24 |
| 부안 林 | 8 | 3 | | 10 | 21 |
| 결성 張 | 4 | 2 | | 8 | 14 |
| 기계 俞 | 1 | 1 | | 8 | 10 |
| 창령 成 | 2 | 4 | | 2 | 8 |
| 尹 | 3 | 2 | | 2 | 7 |
| 金 | 2 | 1 | 1 | 1 | 5 |
| 姜 | 3 | 1 | | | 4 |
| 黃 | | | 1 | 3 | 4 |
| 崔 | | 1 | | 3 | 4 |
| 朴 | 1 | | | 2 | 3 |
| 田 | | 1 | | | 2 |
| 鄭 | | | 1 | 1 | 2 |
| 柳 | 1 | | | 2 | 2 |
| 蔡 | 1 | | | | 1 |
| 韓 | | | 1 | | 1 |
| 楊 | | | | 1 | 1 |
| 李 | | | | 1 | 1 |
| 安 | | | | 1 | 1 |
| 합 계 | 37 | 20 | 4 | 54 | 115 |

5) 연기현의 신향안좌목

| | 丁丑 | 丙戌 | 己丑 | 癸巳 | 甲午 | 丙申 | 辛丑 | 壬寅 (5) | 임인 (6) | 병오 (3) | 병오 (4) | 암자 (3) | 암자 (4) | 암자 (4) | ? | 계 |
|----|----|----|----|----|----|----|----|-----------|-----------|-----------|-----------|-----------|-----------|-----------|---|----|
| 林 | 11 | 6 | 6 | 6 | | 11 | 25 | 7 | | | | 23 | 1 | 3 | | 99 |
| 洪 | 10 | 4 | 5 | 2 | | 8 | 5 | 10 | | | | 10 | | | | 54 |
| 張 | 9 | 1 | 5 | 1 | 1 | 8 | 5 | 3 | | | 3 | 7 | | | 1 | 44 |
| 成 | 2 | | | 6 | | 3 | 4 | 6 | | | 2 | 7 | | 2 | | 32 |
| 俞 | 9 | 4 | 3 | 2 | | 9 | 5 | 8 | | | | 12 | | | | 52 |
| 黃 | 4 | | 2 | 2 | | 3 | 6 | 2 | | | | 8 | | 1 | | 28 |
| 尹 | 2 | | 1 | 1 | | 1 | | 1 | | | | 2 | | | | 8 |
| 崔 | 3 | 1 | | | | 1 | 1 | 1 | 1 | 2 | | 4 | | | | 14 |
| 李 | 1 | 2 | | 4 | | 2 | 1 | | | 4 | | | | | | 14 |
| 鄭 | 1 | 1 | | 2 | | 4 | 2 | 1 | | 1 | 2 | | | | | 14 |
| 柳 | 2 | | | | | 1 | 3 | 3 | | 2 | | 3 | 1 | | 1 | 16 |
| 楊 | 1 | | | | | 1 | 1 | | | | | 1 | 1 | | | 5 |
| 韓 | | 1 | | | | 1 | | 1 | | | 1 | 2 | | | | 6 |
| 呂 | 1 | | | | | 2 | 1 | | | | | | | | | 4 |
| 姜 | | 1 | | | | | 1 | | | | | 1 | | | | 3 |
| 蔡 | | | | | | | | | | 1 | | | 2 | | | 3 |
| 田 | | 1 | | | | 1 | 1 | | | | | | | 1 | | 4 |
| 孟 | | | | | | | 1 | | | 1 | | 1 | | | | 3 |
| 慶 | | | | | | 1 | | | | | 1 | | | | | 2 |
| 朴 | 2 | | | | | 4 | 2 | 1 | | 1 | | 2 | | | | 12 |
| 金 | 2 | | | 4 | | | 2 | 2 | | | | 2 | | | | 12 |
| 閔 | | | | 1 | | | | | | | 1 | | | | | 2 |
| 합계 | 60 | 22 | 22 | 31 | 1 | 61 | 66 | 46 | 1 | 11 | 9 | 87 | 5 | 7 | 2 | |

제2절 연기군의 토성(土姓) (연기현과 전의현 중심)

1. 연기 김씨

연기 김씨는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燕城君)에 봉해진 김준손(金俊孫)을 시조로 하는 성씨로 연성김씨(燕城金氏)라고도 한다. 시조는 김준손(金俊孫)으로 신라 경순왕의 제4자인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예이다.

김덕의(金德義)의 아들로 자가 자언(子彦), 호는 주헌(酒軒)이다. 1486년 사마시에 급제하고, 훈도(訓導)로써 1486년(성종 17)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506년 9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燕城君, 燕城은 燕岐의 별호임)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연기(燕岐)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연기김씨 인물로는 김효간(金孝幹)이 있다. 그는 1591년(선조 24)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김정(金珽)도 1651년(효종 2) 식년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국조방목]에 기록된다.

2. 연기 위씨

연기위씨는 현재는 연기에서 그 유래를 전혀 밝힐 수 없는 성씨이다, 지리지에는 세종실록지리지부터 계속 위씨가 기록되지만, 그밖에는 전혀 위씨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함흥부 정평도호부 성씨조에 入姓이 모두 48성인데, 그중에 위(魏)[연기(燕岐)]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48성이 지금은 모두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씨는 연기로 부터 정평도호부로 이주하였다가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될 당시에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혹 후일 참조가 될지 몰라서 참조로 기록하여 둔다.

3. 전의 이씨

전의현의 본현 성씨로는 전의이씨(全義李氏)를 들 수 있다. 전의이씨의 시조는 이도(李棹)이다. 그는 본래 공주에 세거했는데, 원이름은 이치(李齒)였다. 고려태조 왕건이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남하하여 공주 금강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장마로 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게 되자, 태조를 도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다. 이로 인하여 태조는 견훤군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때 견훤군은 강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고려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태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조가 이치로 인하여 기회를 잃지 않고 큰공을 세우자 물을 돛대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棹)라는 이름을 내리고 통합삼한개국익찬 이등공신(統合三韓開國翊贊 二等功臣)으로 책록(策錄)하고, 전산(全山) 전의후(全義候)에 봉하였다. 그 후 전의의 이성산 아래로 이거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전의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이후 전의지방에는 전의이씨가 크게 세거하게 된다. 이도의 7세손인 이혼(李混)은 원종조에 첨의 정승(僉議 政丞)벼슬에 올랐다. 영해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바다에 떠내려가는 뗏목을 주어서 나무로 장고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악부에 전하고 있다. 이언충(李彦沖)은 이혼의 조카이며 정당문학(正當文學)의 벼슬을 지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전의이씨의 세력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혼의 아우인 이정간(李貞幹: 조선조, 효행) 어머니 김씨가 102살이고, 아들이 80살인데 참새새끼를 놀리어 어머니를 즐겁게 하니 노래희(老萊戲)이라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글씨를 써서 포상하고 효정(孝精)의 시호를 내렸다. 이정간의 아들인 이사관(李士寬)은 부윤(府尹)을 지냈다. 이사관의 아들인 이예장(李禮長)은 세조조에 정난좌익공신으로 병조참의의 벼슬을 지냈다. 1854년에 전성지를 만들 당시에 후손으로 덕근과 덕표 형제가 동면에 살고 있다고 기록된다.

4. 전의 김씨

전의 김씨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성씨이다. 언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씨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 연산군때의 인물 김처선

(金處善, ~1505)이다.

우리 역사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으면서 왕에게 직간을 했다고 알려진 환관(宦官-내시)김처선은 본관이 전의(全義)로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시종한 조선 초기의 환관이다.

문종때 영해(寧海)로 유배되었다가 1453년(단종1) 귀양이 풀리고 이듬해 직첩이 되돌려 졌으나 1455년(단종3) 금성대군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되어 본향(전의)의 관노가 되었다.

1457년(세조3) 다시 복직되어 1460(세조6)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었으나 세조로부터 미움을 받아 자주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성종때에는 대비의 병을 치료하는데 공을 세워 정2품인 자헌대부에 올랐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직언을 잘하여 미움을 받았으며, 1505년(연산11)연산군이 궁중에서 처용회라는 놀이에서 음란한 거동을 벌이자 직간하여 죽음을 당했으며 분이 풀이지 않은 연산군은 김처선의 이름과 같은자를 못쓰게하고 집을 파, 연못을 만들고 고향인 전의를 없앴다.

다음해인 1506년 중종반정으로 전의는 다시 복권되었다.

5. 남면지역 입향 성씨들의 입향사유

| | 입향 시기 | 마을 및 성씨 | 입향 사유 |
|----|-------|-------------------|-----------------|
| 1 | 14세기 | 눌왕리 강진이씨 종파(중) | 고려 말 역적으로 몰려 피난 |
| 2 | | 양화리 부안임씨 전서공파(후) | 조선개국 후 은거 |
| 3 | | 연기리 진양하씨 군사공파(후) |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 |
| 4 | 16세기 | 연기리 진주정씨 연일파(초) | 알 수 없음 |
| 5 | | 연기리 평택임씨 현감공파(후) | 임진왜란을 피해 입향 |
| 6 | | 고정리 신천강씨 곡산파(후) | 금남면 발산리에서 분가 |
| 7 | 17세기 | 눌왕리 죽산안씨 정양공파(초) | 알 수 없음 |
| 8 | | 고정리 청주곽씨 연기파(초) | 명당을 찾아서 입향 |
| 9 | | 눌왕리 장수황씨 성구공파(중) | 질병을 피해 피난 |
| 10 | | 눌왕리 한산이씨 공무공파 | 알 수 없음 |
| 11 | | 방축리 옥천전씨(후) | 알 수 없음 |
| 12 | 18세기 | 연기2리 창원황씨 부사공파(중) |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거 |

제3절 남면지역의 입향 성씨와 유래

1. 남면 놀왕리 강진 이씨 종파

남면 놀왕리 강진이씨의 입향조는 이진(李珍, 1300년대 인물)으로 자는 백고(伯古)이다. 고려 충렬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민왕 조에 평리찬성사(評理贊成事)가 되었다. 충선왕이 원에 소환되었을 당시 수행보좌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후에 추사(秋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진이 남면 놀왕리 원왕에 낙향하게 된 것은 고려조에 역적으로 몰려 은거하였다고 한다. 강진이씨가 놀왕리에 거주하기 전에는 공산이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고정리, 수산리, 갈운리 일대에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진이씨의 주요인물로는 세조 때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으로 길주목사(吉州牧使)를 지낸 이터(李攄), 홍문관 부제학 겸 경연참찬관(弘文館 副提學 兼 經筵參贊官) ·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지낸 이만균(李萬鈞), 학행이 있는 이사경(李思敬) 등이 있다.



놀왕리 마을 전경

참고문헌

『호서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전성지』, 연기군, 1991

『향토사료제1집』, 조치원문화원, 1989

『강진이씨 곡산파보』, 강진이씨종중, 1983

『한국인의 족보』, 한국인의족보편찬위원회, 1996

제보자

이륙규, 67세, 041-863-8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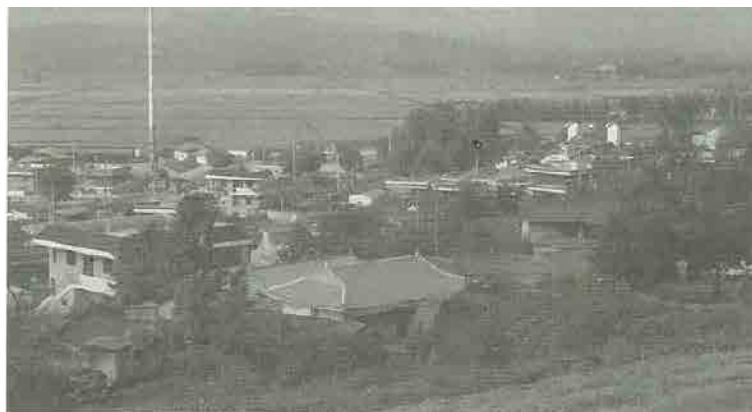
이영균, 82세, 041-863-4124

2. 남면 양화리 부안 임씨 전서공파

부안임씨(扶安林氏)는 고려 초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에 봉해진 임계미(林季美)를 시조로 한다. 현재 양화리에 살고 있는 부안임씨(扶安林氏) 전서공파(典書公派)는 전서공(典書公) 임난수(林蘭秀, 1342~1407)를 파조로 한다.

남면 양화리의 부안임씨 입향조는 임난수(林蘭秀)로 아버지 임숙(林淑)과 어머니 유씨(劉氏) 사이에서 전라도 보안현(현재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32세의 나이로 1374년(공민왕 23) 최영 장군과 함께 탐라를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다. 흥복도감(興福都監) 녹사(錄事), 낭장(郎將), 호군(護軍) 등 11관직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공조전서에 올랐으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공주목 삼기촌(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은거하여 생활하다가 1407년(태종 7) 생애를 마감하였다.

연기에 전서공 임난수(林蘭秀)가 정착한 이래 부안임씨들이 터전을 이루면서 동쪽마을로 번성한 남면 양화리는 ‘세거리’란 이름으로 더욱 유명하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미에서 ‘삼기(三岐)’ 또는 세거리라 불리기도 하고 또는 대를 이어 산다는 의미로 ‘세거리(世居里)’라 불리는 이곳은 현재의 양화리, 진의리, 월산리, 송담리, 나성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적 범위를 지니며, 금강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육로와 수운의 이로움을 모두 갖춘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다.



양화리 마을 전경

현재 연가지역 내의 부안임씨는 남면 고정리, 월산리, 송담 1,2리 등으로 분파되어 거주하고 있다.

임난수와 관련하여 남면 나성리의 석불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나성리의 부처는 옛날 임장군이란 사람이 멀리 서역국에서 가지고 와서 겨드랑이에 끼고 금강을 뛰어 건너 나성리에 세웠다는 것이다. 이 부처는 상당히 신장이 큰데, 기운이 센 임장군이 땅속에 힘껏 꽂았기 때문에 흙 속에 묻힌 길이가 지상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또 이 부처를 위하면 무엇이든지 소원 성취 할 수 있다는 신비스런 이야기가 전해져, 부처와 관련해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나성리에는 암난수의 둘째 아들 임목(林穆)이 지은 독락정(獨樂亭,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4호)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1710년(숙종 36) 건립되어 임난수를 제향한 사우인 기호서사 터가 있다. 또 양화리에는 ‘임씨가묘(林氏家墓)’라 하여 세종이 내린 부조묘가 있는데, 현재 기호서사의 옛터에 임씨가묘가 건립되어 옛 유허를 지키고 있고, 원래의 부조묘 자리에는 송모각이 건립되어 임씨시조 충절공학사의 12현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다.



임씨가묘



독락정

참고문헌

『금강변의 600년 터전, 세거리』,

문화관광부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1

『연기군지』, 연기군, 1987

『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 ·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8

『조선환여승람』

『연기 · 전성지』, 연기군, 1991

『충청도읍지』

『여지도서』

『호서읍지』

『충절공신도비 건립기념 문집』, 1982

제보자

임성목 041- 864 - 5455

3. 남면 연기1리 진양 하씨 군사공파

남면 연기 1리 진양하씨(晉陽河氏) 군사공파(郡事公派)는 전체 320호 중에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남면 연기1리 진양하씨 군사공파 입향조는 하왕(河, ? ~1425)으로 아버지는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낸 하자중(河自宗, 1350 ~ 1433)이며, 어머니는 진주정씨(1347~1431)이다.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이며 3남 3녀를 두었다.

하왕은 병조판서(南平文譜作 兵曹判書)를 지냈다.

하왕은 아버지인 하여중이 1385년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임명되어 부임하자, 하왕이 풍치 좋은 연기리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근방인 청원군 강외면 석화리에도 진양하씨 군사공파가 거주하고 있다.

하왕의 아들 하정수(河程秀)는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냈고, 하정발(河程拔)은 봉산군수(鳳山郡守)를 지냈다. 하옥(河沃)은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를 지냈다.

참고문헌

『진양하씨 대동보 권1』

제보자

하재동, 60세, 041-863-4026, 011-407-4016



연기리 마을 전경

4. 남면 연기1리 진주 정씨 연일파

남면 연기1리의 진주정씨 연일파 입향조는 정업중(1480~1541)으로, 자는 경지(敬之)이다. 아버지는 정지종(鄭知宗)이며, 어머니는 부여서씨, 부인은 죽산 안씨이다.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정업중은 원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대에 거주하다가 500여 년 전 연기 남면 연기리 고자동으로 이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입향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정업중의 묘는 원래 고자동에 있었으나 최근 서면 와촌리 매봉 아래에 이장하였다.

제보자

정근춘 02-784-3232

정근학 041-863-4149

5. 남면 연기 1리 평택 임씨 현감공파

남면 연기 1리의 평택임씨(平澤林氏) 현감공파(縣監公派)의 입향조는 임승렬(林承烈, 1500년대 후반)이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임승렬이 형인 임승번(林承蕃)과 함께 임진왜란을 피해 전라도 옥구에서 이거, 서면 기룡리에 입향하여 세거지를 이루었고, 임승렬은 남면 연기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주요 관련 인물로는 1900년대 초 연기군 수로서 연기리에 배달학교를 세운 임동훈(林東勳)이 있다.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사재를 털어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문헌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

제보자

임지현(입향조의 16세손), 51세

041-863-4027



연기리 마을 전경

6. 남면 고정 2리 신천 강씨 곡산파

남면 고정 2리의 신천강씨(信川康氏)로 곡산파(谷山派)는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을 파조로 한다. 입향조는 강혁(康赫, 1500년대 중반)으로 통훈대부 행 아산현감(通訓大夫 行 牙山縣監) 겸 청주 진관병마절제도위(淸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아버지는 진사를 지낸 강언정(康彦禎)이고, 어머니는 참봉을 지낸 윤비(尹泌)의 딸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다. 부인은 심서용(沈瑞龍)의 딸인 청송심씨(靑松沈氏)이다.

신천강씨가 연기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강진경(康晉卿)이 금남면 발산리에 입향하면서 부터이다. 강진경은 예종 대에 남이(南怡) 역모사건(1468년)에 영의정이었던 숙부 강순(康純)이 연루되어 참형에 처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금남면 발산리로 그 거처를 옮겨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강진경이 발산리에 들어와 세거해 오다가, 강혁 대에 이르러 고정리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된다. 주요 후손으로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강천의(康天義)가 있다.

한편 고정리에는 어서각(御書閣)이 있는데, 이는 강윤성의 아들인 강순용의 것으로, 태조가 강순용의 누이를 신덕황후로 책봉하면서 친필 교지(教旨)를 하사한 것이다. 그 어서를 후손들이 간직하여 오던 중 영조가 이를 보고 친필로 발문(跋文)을 써서 어서각을 건립토록 하였으며, 그 후 정조가 신덕왕후가 출생한 곳에 비각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의 어서각은 영조 때 사액하였던 것을 1846년(헌종 12)에 건립하였다가 그 후 고종이 이 친필을 보고 사적을 하사하여 현재 「태조, 세조, 영조, 고종」의 친필을 소장하고 있으나, 원본은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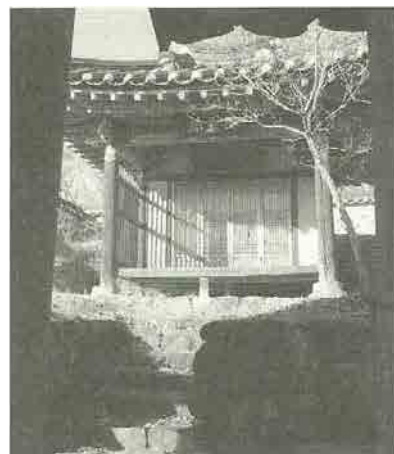
참고문헌

『조선환여승람』

『신천강씨곡산파보』

제보자

강웅식, 041-862-6172



어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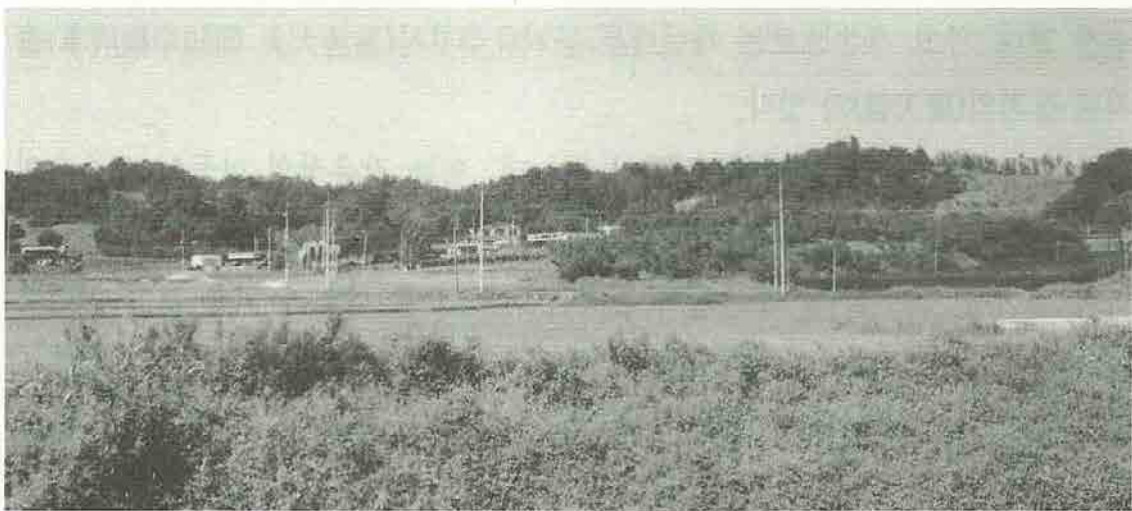
7. 남면 놀왕리 죽산 안씨 정양공파

남면 놀왕리의 죽산안씨(竹山安氏)정양공파(正陽公派)는 판서(判書)를 역임한 정양 안극창(安克昌)을 파조로 하고 있으며, 전체 35호 중 24호를 차지한다.

놀왕리의 죽산안씨 입향조는 안제세(安濟世, 1500년대 후반~1600년대 초)로 호는 놀계(訥溪)이다. 그의 아버지는 참봉을 지낸 안호문(安好問)이다. 안제세는 광해군 때에 이이첨의 아들 이대엽이 천거하여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안제세가 놀왕리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와 정확한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주요 인물로 안제세의 증손인 안수(安洙)는 명이 멸망(1644)하자 은둔하였는데 국사봉 아래서 대명시(大明詩)와 채미가(採薇歌)를 불렀고 벽 위에 ‘명(明)자 두개를 썼다. 사람들이 숭정처사(崇禎處士)라 불렀다.



놀왕리 마을 전경

참고문헌

『조선환여승람』

제보자

안증부(안제세의 12대손) 61세

8. 남면 고정리 청주 곽씨 연기파

남면 고정리의 청주곽씨 연기파는 곽희태(1577~?)를 입향조로 한다. 곽희태는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부인은 전주이씨이다. 곽희태는 원래 한양에서 거주하다가 만년에 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지형이 명당인 국사봉 아래 궁골을 찾아 입향하였다.



궁골마을 전경

제보자

곽충신 041-864-6154

9. 남면 놀왕리 장수 황씨 성구공파

남면 놀왕리 장수황씨(長水黃氏) 성구공파는 전체 34호 중 20호가 거주하고 있다. 놀왕리 문암마을의 입향조는 황윤(黃 揆, 1600년대)의 부인 장수장씨이다. 장수장씨는 원래 거주하던 동면 명학리 일대에 전염병이 돌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들 황익청을 데리고 보통리 강을 넘어 놀왕리 문암에 피신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이 일대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강진이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놀왕리 문암마을 전경

제보자

황인수(황윤의 12세손)

황의식 73세 041-863-4127

10. 남면 놀왕리 한산 이씨 공무공파

남면 놀왕리 한산이씨(韓山李氏) 공무공파(恭武公派)는 전체 35호 중 16호를 거주하고 있다. 한산이씨의 입향조는 파조 이계린(李季, 1400~?)의 9세손인 이여출(李汝, 1650년대)이며, 진사(進士)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는 이첩(李堞), 어머니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이고, 부인은 의흥박씨(義興朴氏)이다. 이여출이 남면 놀왕리에 입향한 이유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남면 놀왕리에는 이여출의 묘와 재실이 있다.



놀왕리 마을 전경

제보자

이혁구(입향조의 11세손) 041-863-4316

이기찬(입향조의 12세손) 041-863-4659

11. 남면 방축리 옥천 전씨

연기의 옥천전씨는 1600년대 후반에 전세승(全世承)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정확한 사유는 자료로 밝혀지지 않는다. 방축리 정문말에는 1772년(영조 48)에 명정 받은 전오복(全五福, 1714~



전오복처 창령성씨 전오륜 처 결성장씨 쌍정려

1735) 처 창녕성씨 · 전오륜(全五倫, 1717~1753) 처 결성장씨 쌍정려가 있다.

참고문헌

『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12. 남면 연기 2리 창원 황씨 부사공파

남면 연기 2리의 창원황씨(昌原黃氏) 부사공파는 전체 56호 중 10호가 거주하고 있다. 연기 2리의 창원황씨 입향조는 황귀하(黃龜河, 1700~1772)로 자는 성호(成鎬)로 파조의 13세손이다. 그의 아버지는 황현(黃鉉, 1685~1747)이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 1685~1744)이며, 부인은 보성오씨(寶城吳氏, 1710~1773)이다.

황귀하는 원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종촌리 보성오씨 집성촌에 살았으나, 보성오씨와 혼인한 뒤 장인, 장모, 처제 2명과 함께 보통리 강을 건너 든지미(월산공단)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촌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한다.

창원황씨는 연기 2리 외에 남면 방축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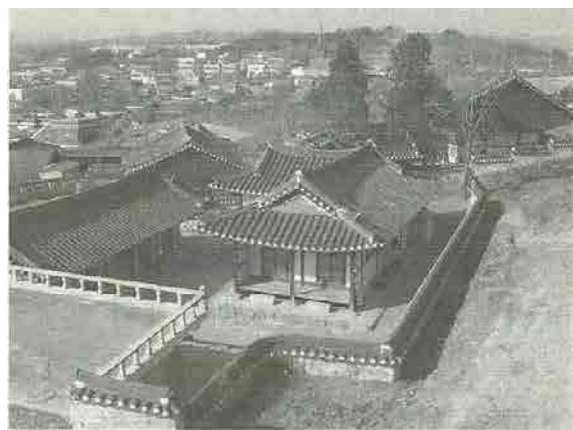
참고문헌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

『창원황씨세보』

제보자

황승수(입향조의 8세손), 50세, 041-863-4188



교촌마을 전경

제2장 연기군 남면의 인물

제 1 절 무 신

○ 연 신(燕信, 삼근왕때 인물)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공주)로 왕도를 옮길 때 연기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살았던 연씨의 인물이다.

해구가 문주왕을 살해하고 삼근왕이 즉위하자 삼근왕이 해구에게 군국의 정사를 위임하여 병관좌평에 올랐을 때 478년 연신은 은솔이었다. 해구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사를 전담하자 여타 귀족들이 그의 전횡에 반발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해구는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신진세력의 하나인 연돌과 결탁하여 대두성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해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선 것은 진씨세력이었다. 처음에 좌평 진남(眞男)이 2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뒤이어 덕솔 진노(眞老)가 정병 5백명을 거느리고 가서 해구를 죽이자 연신은 고구려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삼국사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

○ 연 돌(燕突, 동성왕때 인물)

동성왕은 484년(동성왕 6년) 신진 세력들을 등요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였다.

부여지방의 사씨(沙氏), 웅진지역의 백씨(昔氏), 연기지역의 연씨(燕氏) 세력이다.

신진세력의 등용으로 지배층의 폭을 넓힌 동성왕은 신진 귀족들과 한성에서 남하해온 구 귀족세력과의 세력 균형위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497년 동성왕은 왕을 옹립하는데 제 1의 공로자였던 병관좌평 진로가 죽자 달솔 연돌(燕突)을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동성왕이 신진세력의 하나인 연돌을 병관좌평으로 삼아 군사권을 관장하도록 한 것은 신구 귀족의 세력 균형을 통한 정치 운영보다는 신진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도모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사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

○ 김 혼(金旻, 1251 ~ 1309)

김혼(金旻)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고려시대의 명장이며 명재상이었던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둘째아들이다. 어릴 적 이름은 수(綏)였으며, 성품이 활달하고 자애로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특히 친척 간에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한다.

음서(蔭敍)로 산정도감 관관(刪定都監 判官)이 되었으며, 1272년(월종 13) 부친인 김방경을 따라 탐라(耽羅, 현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토벌하여 그 공으로 대장군으로 승진하였다가 곧 사재경(司宰卿)에 올랐다. 1274년 일본원정 때는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참가하였고, 돌아와서 진주목사가 되었다. 1277년 북쪽 변방이 소란해지자 출정하였고, 이듬해 김방경이 무고를 입어 대청도(大靑島)로 유배될 때 그도 함께 백령도에 유배되었으나, 충렬왕의 비호로 풀려났다.

1279년(충렬왕 5) 뿔루게(禿魯花)로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1282년에도 상장군(上將軍)으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원나라에 있을 때 고려사람 유주가 원나라 황제에게 “만이(蠻夷)로서 만이(蠻夷)를 치게 함은 중국의 대세이니, 청컨대 고려의 만자(蠻子)로 하여금 일본을 치게 하고 몽고군은 보내지 마소서.” 하고, 또 “고려로 하여금 병량(兵糧) 20만석을 준비하도록 하소서.” 하고 고려에 이롭지 못한 일을 건의하여 황제가 허락하였다. 김혼은 이 일을 듣고 유주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유금필(庾黔弼, ?~941) · 유자량(庾資諒, 1150~1229)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본국을 그와 같이 파괴하려 하느냐? 고 하였다.

1286년 지신사(知申事)로서 삼사사(三司事)가 되었고, 이듬해 동판밀직사사(同判密直司事)가 되었다. 1289년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 금호부(金虎符)를 차고 그로 인하여 소용대장군관고려군만호(昭勇大將軍管高麗軍萬戶)를 제수하고 진국상장군(鎭國上將軍)을 더하였으며, 누차 승진하여 첨의참리(僉議參里)가 되었다.

1290년(충렬왕 16) 12월 원나라해 반기를 들었던 합단(合丹)의 잔당이 남하하여 고려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렬왕은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합단적은 파죽지세로 고려의 중부내륙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활약으로 원주와 청주에서 잇달아 패한 합단적은 진로를 변경하여 연기(燕岐) 정좌산(正佐山)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원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때 고려에서는 인후를 중군으로, 한희유를 좌군으로,

김흔을 우군으로 삼고, 원나라에서는 평장사 설도간과 도리첩목아, 탐출등이 거느린 1,300여 명의 군사 외에 뒤이어 나만대가 이끄는 1만의 증원군을 투입시켰다.

이 전투는 연기지역의 역사상 그 유래가 드문 대규모 전투로 1291년 5월 2일 동이 틀 무렵, 여원연합군은 정좌산에 주둔해 있던 합단적을 기습 공격하였는데, 적은 불의의 습격에 놀라 험준함을 뒤로 하고 대적하였다. 이에 우리 삼군의 보졸들이 앞을 지키고, 기병들은 뒤를 공격하니 적들은 말을 버리고 숲 사이에 숨어 활을 쏘며 대항하였다. 선봉에 섰던 두 사람이 화살에 맞아 두려워 감히 공격하지 못하므로, 김흔이 장졸들에게 “감히 후퇴하는 자는 모두 참하리라.” 하고 독려하자 보졸 500여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진하였는데, 이때 졸병인 이석(李碩)과 전득현(田得賢) 등이 돌진하여 적의 선봉장 두 명을 베고, 승세를 타서 크게 소리치니, 모든 군사들이 합세하여 공격하였다.

이에 적의 세력이 무너져 달아났는데, 추격하여 공주 금강까지 이르렀다. 이때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렸고, 익사자도 많았다고 한다. 그 후 5월 8일 합단적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금강을 건너 재침략하였으나, 원수산에서 한희유의 활약으로 크게 패해 달아났다.

이후 6월 1일 왕은 김흔을 죽전(竹田)으로 보내어 합단의 남은 잔적들을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고,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서용하였으며, 원나라로부터 궁시(弓矢)·안(鞍)·옥대(玉帶) 등을 상으로 받았다. 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에서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

1299년 승려 일영(日英)이 한희유(韓希愈)가 모반을 꾀한다고 하여 인후(印候)와 함께 한희유를 잡아 좌승(左丞) 합산(合散)에게 고하고 국문하였으나, 희유 등이 불복하고 일영도 역시 도망가 버렸으므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었다. 이에 김흔과 인후가 충렬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에 가서 황제에게 고하였으며, 충렬왕 또한 사신을 보내 원에 가서 그 사건이 무고임을 변명하여 마침내 한희유는 사면받고, 김흔 등은 면직되었다. 이에 김흔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에 머물러 있다가, 1300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잠시 환국하였으나, 상을 마치고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니, 이는 당시 한희유가 재상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희유가 죽자 연경에서 7년 만에 돌아와, 찬성사 자의도첨의사사삼중대광(贊成事 咨議都僉議司事三重大匡)의 벼슬을 내리고, 삼중대광(三重大匡) 도첨의

사사(都僉議使司) 상락군(上洛君)에 봉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이르기를, “1299년(대덕 3)에 본국의 무뢰한 무리가 장차 난을 꾀하고자 하거늘, 혼(焮)이 만호 인후와 더불어 능히 먼저 알고 난을 진정하였으니, 그 공을 가히 상(賞)하여 특히 서용(敍用)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1309년(충선왕 1)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려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기대첩연구, 연기지역의 충열공 후예들)

○ 한 희 유 (韓希愈, ? ~ 1306)

고려의 권신으로 원래 평안북도 박천군 가산면의 아전이었다. 군졸 출신으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항상 왕의 은덕에 감격하였고, 왕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성품이 소박하고 도량이 넓으며 활쏘고 말달리는 것을 잘하고 담력도 대단하여, 1280년(충렬왕 6) 5월에는 대장군으로서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고성(固城)·칠포(漆浦)에 침입한 왜적을 방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일개 대정(隊正)에서 출발하여 대장군이 된 그에게는 모함의 사건도 발생하였다.

1282년에는 영통사(靈通寺) 승려 홍탄(洪坦)이 개인감정으로 모함하여 국문을 당한 적도 있으나, 무고가 발각되어 홍탄이 오히려 섬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 뒤 1287년에 호두패(虎頭牌)를 받고 좌익만호(左翼萬戶)가 되었다. 1290년에는 쌍성(雙城)에 주둔하여 합단적(哈丹賊)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

1290년(충렬왕 16) 12월 원나라에 반기를 들었던 합단(合丹)의 잔당이 남하하여 고려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렬왕은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합단적은 과족지세로 고려의 중부내륙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활약으로 원주와 청주에서 잇달아 패한 합단적은 진로를 변경하여 연기(燕岐) 정좌산(正佐山)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고려의 삼장군(한희유·인후·김흔)과 원나라 평장사 설도간 등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1291년 5월 2일 여명이 틀 무렵 정좌산에 주둔해 있던 적의 군대를 기습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이에 남은 적들이 공주금강까지 달아났는데, 이때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렸고 익사자도 많았다고 한다.

그 후 5월 8일 합단적이 1천여 기병으로 전열을 재정비하여 금강을 건너 재

침략을 하였는데, 원의 지원군인 나만대군이 크게 대적하지 못하였다. 특히 적의 용사 한 사람이 활로 아군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었으므로 군사들이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희유가 이를 보고는 긴 창을 가누고서 말을 달려 적진에 돌입하니, 적들이 놀라 한쪽으로 밀리므로 그 용사를 잡아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창끝에 걸어 적에게 보이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이었으므로 이에 대군을 휘몰아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이후 합단적은 전의를 상실한채 지리멸렬하다가 6월 5일 잔당 580여명이 한희유에게 투항함으로써 전후 2년 여에 걸친 합단적의 침입은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그 공으로 1291년 동북면도지휘사가 되었으며, 원나라에서는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으로 임명하여 삼주호부(三珠虎符)를 주고 궁시(弓矢) · 옥대(玉帶) · 은(銀) 등을 전공으로 하사하였다. 이어 다음해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로 삼고 진변만호(鎭邊萬戶)를 삼았다.

1295년 8월에는 김신보(金信甫)의 참소로 조월도(祖月島)로 귀양을 갔다가 풀려났으며, 1299년 승려 일영(日英)의 무고로 만호 인후(印侯) · 김흔(金忻), 밀직 원경(元卿)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맡은 좌승 합산(哈散)은 왕과 함께 흥국사(興國寺)에서 닷새 동안 국문하였으나, 그는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충렬왕은 인후와 김흔 등에게 이 사건을 원나라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결국 이들이 원나라에 가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희유는 원나라에 호송되었으나, 왕이 사신을 보내어 그를 두둔함으로써 풀려나 고려로 돌아왔다.

1302년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임명되고, 다음해에 첨의우중찬(僉議右中贊)에 임명되면서 7월에는 원나라의 명에 의하여 석주(石胄)와 그 아들을 연경으로 압송하기도 하였고, 1305년 11월 충렬왕을 따라 연경에 행차하였다. 1306년에 세상을 떠났다.

(고려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기대첩연구)

○ 인 후 (印 侯, 1250 ~ 1311)

충렬왕의 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따라 고려에 온 몽고의 귀화인으로, 본명은 후라타이다. 인후라는 이름은 당시의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와 친하여 그의 성을 빌려 쓴 것이라고 한다. 아들인 인승단(印承旦)이 충목왕 때 좌

정승으로 연안부원군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연안으로 삼고 가계를 잇게 되었다.

그가 처음 고려에 온 것은 충렬왕이 세자로 원나라 황녀인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한 1274년(원종 15)이다. 이때 중랑장에 보임되어 1280년(충렬왕 6) 대장군으로서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277년 조인규(趙仁規)와 함께 원나라에 가서 새매를 바쳤으며, 충렬왕이 응방(鷹坊)을 없애려고 할 때 이를 극력 반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주로 응방을 기반으로 하여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78년에 조인규와 함께 경상도에 가서, 몽고군사로서 본국에 귀환하는 자는 부모가 허락한 아내를 제외하고는 대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은 바 있고, 같은 해에 조인규와 함께 다시 경상도에 가서 유민(流民)을 찾아내어 호적에 올렸으며, 이듬해인 1279년에도 조인규와 함께 원나라에 가서 전함을 수리할 것을 보고한 일이 있는데, 후일 고려의 실권자로 등장하는 조인규와의 이러한 인연도 그가 영달한 한가지 이유가 된 듯 하다.

원나라에서 김주(金州 : 김해) 등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둘 때 원나라로부터 소용대장군진변만호(昭勇大將軍鎭邊萬戶)에 임명되어 호부(虎符) 및 직인(職印)을 하사받았다. 이때 합포(合浦 : 마산)에 있으면서 전라·경상도 백성을 크게 괴롭혔다.

1286년 부지밀직(副知密直)에 임명되고 적(籍)을 승평군(昇平郡)에 두었으며, 그 뒤 판밀직지도첨의찬성사(判密直知都僉議贊成事) 등의 관직을 거쳐 1291년(충렬왕 17) 원나라 합단이 쳐들어왔을 때 별장(別將) 만호(萬戶)로 합단 적(哈丹賊)을 토벌하는데 참여하였다.

1298년 광정사참지기무(光政事參知機務)에 임명되었다가 곧 중대관 첨의시랑 찬성사 판병조감찰사사(重大匡僉議侍郎贊成事判兵曹監察司事)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재상 한희유(韓希愈)와 사감이 있어 그를 무고하여 해도(海島)로 몰아내었으나, 뒤에 무고가 탄로나 파직당하여 계속 원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한희유가 죽은 뒤 1309년(충선왕 1) 평양군(平陽君)으로 봉해지고 자의도첨의사사(諮議都僉議司事)가 되었으며, 다시 만호부가 되었다. 충선왕이 복위한 뒤 첨의밀직(僉議密直)에 임명되었다가 검교정승(檢校政丞)을 더하였고, 충근보우공

신(忠勤輔佐功臣)의 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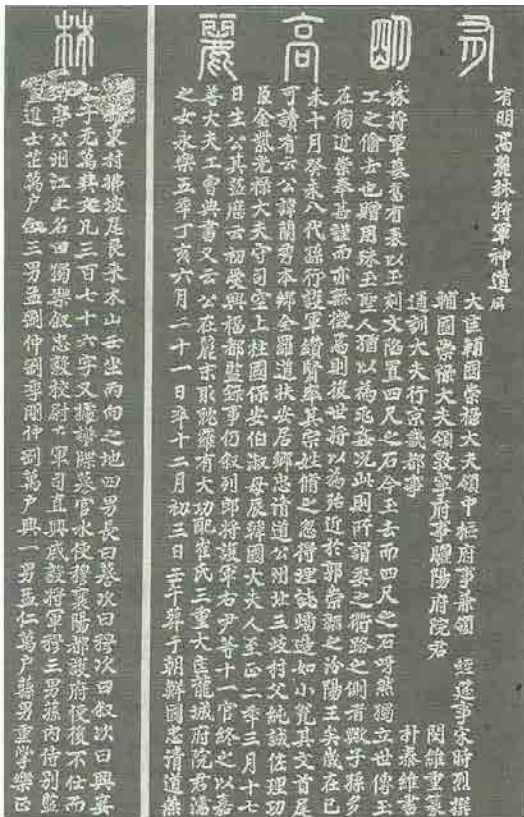
그러나 인후는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워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세력을 빙자하여 많은 뇌물을 빼앗아 거만(鉅萬)의 치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자 서로 축하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시호는 장혜(莊惠)이다.

(고려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기대첩연구)

○ 임 난 수 (林 蘭 秀, 1342 ~ 1407)

임난수는 전라도 보안현(保安縣 : 현 전북 부안)에서 아버지 임숙(林淑)과 어머니 유씨(劉氏) 사이에서 1342년에 태어났다.

32세의 나이로 공민왕 23년 최영 장군과 함께 탐라를 정벌하여 큰공을 세웠는데, 당시 오른쪽 팔을 적에게 잘리자 잘린 팔을 화살 통에 꽂고 계속 싸워 전승으로 이끌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 흥복도감(興福都監) 녹사(錄事), 낭장(郎將)·호군(護軍) 등 11관(官)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공조전서에 올랐으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한 하늘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임난수 신도비 탁본 (전면)



임난수 신도비 탁본 (후면)

충청도 공주목 삼기촌(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낙향하여 생활하다가 1407년(태종 7) 6월 21일에 생애를 마감했다.

그가 죽은 뒤 세종대왕은 기해년(1419)에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조에 벼슬하지 않은 임난수의 사당에 신숙주의 아버지인 신장(申樞)에게 명하여 ‘임씨가묘(林氏家廟)’라 선액,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명하였고, 아울러 사패지(賜牌地)로 ‘나성일구강산(羅星一丘江山)을 하사하였다. 아마 이 때에 하사받은 사패지지가 현재 독립정이 있는 나성리 일대와 현재의 양화리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내려준 사제문(賜祭文)에는 임난수의 품격에 대하여 “시기를 도울만한 기략을 운영하고 세상을 덮을만한 공훈을 세웠다”라 칭찬하였다. 아울러 이때에 치제문을 지어 청양현감 김미(金敕)에게 제사토록 하였다.

임난수가 죽자 자손들은 묘소를 연기 동쪽 불과미 임좌(壬坐)의 언덕에 마련하였는데, 1670년(숙종 5) 8대손 호군 찬현(欒賢)이 묘소를 보수하던 중에 376자의 지석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근거로 우암 송시열에게 신도비문의 찬술을 부탁하고, 1682년 묘소를 보수하고 신도비를 세웠다.

1710년에 여러 고을 선비들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큰 절개를 높이 사모하여, 사우를 세워 사액을 청원하는 상소가 있었다. 당시의 청액 상소문(1710년)은 당시 판서 한배하(韓配夏)가 지었다.

양화리 일대에는 임난수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양화리 정자동의 구행단 자리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압각수(鴨脚樹)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목은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임난수가 이 마을에 은거하면서 심었던 것이라고 한다. 또 양화리 전월산에는 임난수가 고려를 생각하며 시간만 나면 올라가 고려수도인 개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목상에 잠기곤 했다는 상려암(想麗巖)과 조석으로 개성을 향해 왕에게 예를 올렸다는 부왕봉(俯王峰), 임난수가 고려 임금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용천(龍泉)이 있다.

○ 류형국(柳亨國)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병자호란 때 월하(月河) 민후건(閔後騫)과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가 도사(都事)를 제수받았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마을 동쪽에 봉황정(鳳凰亭 현, 서면 봉암리)을 지었다. 문집으로 『수창집(酬唱集)』이 있다.

(연기인물지-충신편, 연기지 충신편)

○ 임 흥 (林興蘭)

본관은 부안, 고려말 공조전서를 지냈으나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공주 삼기에 은거한 임난수의 아들이다. 야은 길재의 제자로 고려말 과거에 급제하여 위익금오위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은퇴해서 정절을 지키고 살았다.

천성이 순박하고 충효를 겸비한 인물인데 여흥(驪興)이 죽었다고 하는 부음을 듣고 육식을 일체 끊고, 백이숙제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탄하며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굶어서 몸은 말랐어도 의리는 살찐 참 의사(義士)다” 라고 찬양하였다.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 드리니, 십여일을 더 연명했다고 한다.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전서 임난수의 절의를 가상히 여겨 그 자손을 불러 벼슬을 주려하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고려왕조에서 벼슬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조선왕조를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는 동혈산(銅穴山)을 지나면서 봄철에 고사리가 핀 것을 보고 백이, 숙제의 체미가를 슬피 노래부르며 말하기를 “고사리 고사리 미미하게 생겨난 저 고사리, 수양산 어느 곳에 이 바람이 있을진가.” 라고 하여 공의 충효정신이 투철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이 죽었을 때 예장(禮裝)으로 지내도록 특별히 어명을 내렸다. 기호서사에 제향되었다.

(연기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연기인물지)

○ 임 설 (林潑)

본관은 부안, 임응신(林應信)의 아들이다.

나이 스물에 음덕으로 군자감 주부가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무반에 들어가 급제한 뒤, 죽산산성(竹山山城) 전투에 맨 손으로 적군에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진천에 사는 송경(宋景)이 말하되, 공의 옷과 신발만 현의 동쪽 덕동(德洞)에 매립했는데, 그 원한이 풀리지 않음인지 비오는 날이면 왕왕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한다.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포장은 받지 못하였다. (전성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연기인물지)

「의복을 가지고 남면 학동에 장사지냄, 병절교위에 증직, 손자 임영철이 녹권과 유장을 가지고 여러차례 승정원에 상소하여 명정을 받았다고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되어 있음」

임설(林潑) : 부안인이고 무인(武人)으로 주부(主簿)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 죽산(竹山) 원천전투(遠川戰鬪)에서 전사했다. 제사지내어 죽은 혼을 위로하고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와 장사지냈다. 병절교위(秉節校尉)에 증직되었다.(공산지)

○ 임 경 택 (林景澤)

본관은 부안이며, 임엽(林燁)의 아들이다.

음관으로 군자감 주부가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에 들어가 죽산(竹山), 원산(遠山)의 전투에서 적군이 많아 관군이 대패하자 맨손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니, 그의 옷과 신발만 현의 남쪽에 장사지냈다. 조정에서 기록에 올리고 별절교위(別節校尉)를 증직하였다.

(전성지, 연기지, 부안임씨 문헌록, 연기인물지)

○ 임 수 담(林秀檀)

본관은 부안. 임세화(林世華)의 아들이다. 본래 이름은 수계(秀桂)인데 어명으로 수담(秀檀)으로 고쳤다. 영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으로 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에 충성심을 가지고 적군(김일경 일파)을 토벌하여 원종 2등공신의 훈열에 올랐으며, 기록에 올라 지금까지 잘 알려져 내려온다.

갑인년 가을에 영화당(映花堂)에서 영조가 공있는 신하들을 불러 술을 내리는 데, 공이 이미 죽고 없자, 왕이 한탄하는 시를 지어 내린 일도 있다고 한다.

(전성지-효자편, 연기인물지)

○ 임 봉 조 (林鳳祚)

본관은 부안이고, 자는 의서(儀瑞), 호는 학은(鶴隱)이다. 동중추 임두칠(林斗七)의 후손 임선중(林善鍾)의 아들이다. 벼슬은 부호군에 이르렀다.

천성이 강직한 그는, 1881년(고종 18) 의사(義士) 한홍렬(韓弘烈) 등과 함께

오랑캐들을 물리치는데 의리로서 꺾기하여 강화도에 집결하였다. 1895년(고종 32) 일본인에 의하여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대성통곡하며 마침내 죽었는데, 장사지낼 때 뇌성벽력이 울리는 등 이번까지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곽한소(郭漢紹)가 묘지명을 짓고 간재 임헌회가 묘표문을 썼다.

(조선환여승람, 연기인물지)

○ 임 세 노 (林世老)

본관은 부안. 자는 명노(命老), 호는 지설(知窩)이고, 주부 임상원(林尙元)의 아들이다. 언양현감을 지냈고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영조 무신난에 창의하여 의병으로 적을 쳤다. 조영국(趙榮國)이 공의 새전에 공격을 간략하게 글로 지어 말했다. “諸葛兩表終身誦讀” 이라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이 터 (李攄)

이터(李攄)는 본관이 강진(康津)으로 자는 백행(伯行)이다. 고려 충열왕 때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지낸 강진이씨의 시조 이진(李珍)의 증손이며, 유일로 천거된 이영기(李英寄)의 아들이다. 1431년(단종 1)에 세조를 도와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공을 세워 1456년(세조 1)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 3등에 책록 되었으며, 벼슬이 길주목사에 이르렀다. 묘소는 남면 원봉 간좌에 있다.

(세조실록, 연기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인물지)

○ 오 연 달 (吳淵達)

본관은 보성(寶城)이다. 호는 성재(誠齋) 보성부원군 오현필(吳賢弼)의 후손이며, 월성처사(月松處士) 오유립(吳裕立)의 9세손 오봉석(吳鳳錫)의 아들이다. 모친의 병환에 하늘에 빌고, 상을 당하여 시묘하였다. 향시에 합격했다. 고종 갑오년에 이병훈의 벽위별군이였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장 석 징 (張碩徵, 1677 ~ 1753)

장석징은 본관이 흥덕(興德)이며, 충훈(忠勳)으로 사천현감에 제수되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는 연기의 좌수(座首)로서 군기창고를 굳게 지키고 각 마을에 전령을 보내 병마(兵馬)를 단속하게 하였다. 또한 스스로 군량미를 갖추어 금강변에 진을 치고 반란군이 창궐한 가운데 사직을 보전하였다.

이듬해인 1729년 반란사건이 평정된 후 공에 따라 상을 논할 때 일등공신에 올랐으며,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되었다. 또 영조가 친히 불러 하교하기를 “그대는 한 사람의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서 능히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니 그 성의가 매우 가상하다” 하며 선운을 내리고 친히 벽상에 성명(姓名)을 기록하였다. 묘소는 변암리 내대(內垔)에 있다.

(영조실록, 충청도읍지, 연기현읍지, 연기지, 연기인물지)

○ 하 한 두 (河漢斗)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충신 하계명(河啓溟)의 6대손이다. 갑오년에 적을 맞아 싸워서 군기(軍器)를 잘 지켜서 빼앗기지 않았다.

○ 하 계 명 (河啓明)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도망가서 마을이 비고 인심마저 흉하던 때에 동생 계철(啓澈)과 함께 젊은이 700명을 인솔하고 전령을 보내어 군마를 가져오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들의 목을 베고 관군에 합세했다. 그 후 이들이 회갑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의 절의를 본도로부터 보고 받고 군령을 내려서 자손들을 등용케 했다.

○ 하 계 철 (河啓澈)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도망가서 마을이 비고, 인심마저 흉하던 때에 형 계명(啓溟)과 함께 젊은이 700명을 인솔하고 전령을 보내어 군마를 가져오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들의 목을 베고 관군에 합세했다. 그 후 이들이 회갑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의 절의를 본도로부터 보고 받고, 군령을 내려서 자손들을 등용케 했다.

○ 류 비 연 (柳斐然, 1627 ~ 1685)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문중(文仲), 호는 포옹(浦翁)이다. 본관은 진주(移封 晉州)로 공주 장기면 하봉리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어 있는 충경공(忠敬公) 류형(柳珩, 1566~1615)의 손자이며, 선진관 류신걸(柳信傑)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가 후금을 칠 때에 지원군으로 파견되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해, 명나라 황제로부터 요동백(遼東伯)에 봉해진 충무공(忠武公) 김응하(金應河, 1580~1619) 장군의 딸이다.

1646년(인조 24) 20세로 무과에 급제하여 승지가 되었으며, 무관직을 거쳐 별장(別將)으로 왕을 수행하였으며, 1665년(현종 6) 전라우도수군절도사, 1667년(현종 8)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69년(현종10) 함경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69년(현종10)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김석주 등 사간들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671년(현종 12) 충청도병마절도사로 복직되었고, 이듬해 1672년(현종 13)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어 조정을 하직하니, 왕이 인견하고 “본도의 군정(軍政)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급할 때 의지할 곳이 없다. 지금 군병을 모아 열무(閱武)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혹 사냥한다고 핑계를 대거나 해서 군병을 모아 강습하도록 하라” 고 당부하였다.

1672년 평안도병마절도사로서 장계(狀啓)를 올려 “도내의 군병들에 대한 시재(試才)와 군기(軍器) 점열(點閱) 등의 일을 삼남(三南)과 똑같이 겸영장(兼營將)이 맡아 순시 감독하게 할 것” 을 청하였다. 의정부의 복의(覆議)를 거쳐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대로 시행하고, 함경도도 그와 같이 하게 하였다.

1675년(숙종 1)에 당상 이상 무신(堂上 以上 武臣)에 특별선발 되어 가선(嘉善)이 되었다, 1676년(숙종 2) 경기도수군절도사가 되어 화개산성(華蓋山城)을 개축하면서, 군민(軍民)들을 동원하는 대신 조곡을 감해줄 것을 청하여 받아들여졌다. 1677년(숙종 3)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이때 청나라 강희제(康熙帝)가 장백산 즉 백두산을 그 조상의 발상지로서 관심을 갖고 신하를 보내어 장백산 일대를 답사시키고 백두산에 치제(致祭)하는 등 국경을 침입하자 장계를 올려 이 일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1683년(숙종 9) 장단부사가 되었다. 1684년(숙종 10)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근무 중 순직하셨다.

그는 생전에 임진왜란때 혁파되었던 오위군(五衛軍)을 복설하고 속오군(東伍軍)을 존속시켜 군제를 시행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가

죽은 후인 1705년(숙종 31)에 오위군을 회복시켰다.

1685년(숙종 11 을축) 3월 21일 58세로 순직하셨다.

묘는 금남면 도암리 산 18-1번지에 있다.

(현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보감, 비변사, 인물사전, 진주류씨대동보)

○ 임 기 상 (林琦相)(1822 ~ 1893)

기상(琦相)은 호군찬현(護軍纘賢)의 7대손이고, 교관명원(敎官命源)의 차남이다. 임오(壬午, 1822)년 5월 3일 출생하였다.

그는 기우(氣宇)가 현양(軒昂)라고 성질(性質)이 영매(英邁)하여 일찍이 문학을 좋아하였으나, 여러 번 과시(科試)에 급제하지 못하자 붓을 던지고 무예(武藝)를 익히어 활 쏘고 말 타는 재주로 세상에 칭송되더니 철종(哲宗) 무오년(戊午年)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월천(越薦)하였는데, 당시 천주(薦主)는 장신(將臣) 허습(許 燾)이었다. 상황(上皇) 을축(乙丑)에 비로소 효력부위(效力副尉)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더니 병인양요(丙寅洋擾)를 당하여, 조상서경호(趙尙書慶鎬)로 더불어 의리(義理)를 분발하여 적진에 다달아 적을 물리쳤다. 기사년(己巳年)에 이르러 각처의 원사(院社)를 훼손하니 선조의 원사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에 그가 영부(榮府)에 원통합을 아뢰어 마침내 등문(登聞)에 이름으로 원(院) 사당으로 하여 부조(不祧)의 신위를 모시었다. 경오년(庚午年)에 사당 곁에 투장(偷葬)의 변고가 있어 감영(監營)에 호소하여 다 파내고 영원히 후패를 막았다.

충효 가운데 행실이 가지런하니 가히 후대의 모범이라 하겠다. 기묘년(己卯年)에 수문장(守門將) 훈련주부(訓練主簿) 중추도사(中樞都事) 도총경력(都摠經歷) 금위영초관(禁衛營哨官)을 역임하였는데, 힘써 그 직무에 충실하였다. 임오년(壬午年)에 시폐십삼조(時弊十三條)를 개진(開陣)하여 상소(上疏)하니 임금께서 가납(嘉納)하시고 의정부(議政府)에 넘겨 시행토록 하였다. 곧이어 연일현감(延日縣監)을 제소(除授)하였는데 치적(治績)의 명성(名聲)이 높았다. 을유년(乙酉年)에 내직으로 돌아와 용양위부호군이 되더니, 곧바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하였다. 직각조공병집(直閣趙公秉輯) 이지은 행장(行狀)에서 가히 세상을 다스릴 큰 인물인데, 품은 포부가 어긋나 퍼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그가 천년(千年)으로 사제(私第)에서 죽으니, 남면 종촌 옥동(玉洞) 후록 경좌원에 장사하

였다.

배위(配位)는 숙인강씨(淑人姜氏)인데 합부하였다. 해주최씨(海州崔氏)는 옥동 계좌(癸坐)에 장수황씨(長水黃氏)는 합부하였고 풍기진씨(豊基秦氏)는 건위 좌변에 장사하였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 임 병 규 (林炳奎, 1851 ~ 1909)

병규(炳奎)는 호군찬현(護軍 纘賢)의 8대손이고 교관명원(教官 命源)의 장손이다. 아버지는 성균진사(成均進士)며 금부도사 달상(堦相)으로 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병규는 임신년(壬申年, 1872) 4월 무과(武科)에 합격하고 그 해 6초월에 월천(越薦)되었으며 월천주(越薦主)는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 김상현(金尙鉉)이 계유(癸酉, 1873)년 8월에 수문장(守門將)으로 초사(初仕)하였다. 그는 특히 무예(武藝)에 특출(特出)하여 육부사과(肉部司果)에 승진되었으며, 경자(庚子, 1900)년 10월에는 승삼품(陞三品)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그 직을 마감하였다.

배위(配位)는 숙인풍천김씨(淑人豊川金氏)로 부(父)는 태현(泰賢)이다. 묘는 전월산(轉月山) 선영하(先塋下) 간좌(艮坐)이고 건위합부(乾位合祔)이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 임 병 호 (林炳鎬, 1850 ~ 1930)

병호(炳鎬)는 호군찬현(護軍 纘賢)의 8대손이고. 교관 명원(教官 命源)의 손자이다. 그의 부(父)는 연일현감(延日縣監) 기상(琦相)인데, 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병호(炳鎬)의 자(字)는 희경(熙卿)이니 철종(哲宗) 경술(庚戌, 1850)년 4월 23일에 출생하여 경오(庚午, 1930)년 3월 3일에 81세로 죽었다. 묘소는 남면 중촌 화옥동(禾玉洞) 임좌(壬坐)이다.

그의 관직은 고종(高宗) 신미(辛未, 1871)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부장(部長),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첨정(僉正), 수문장(守門將), 총어(總禦), 금어(禁禦), 양영(兩營)의 초관(哨官), 포도청종사관(捕盜廳從事官)을 두루

역임하고 신묘(辛卯, 1891)년에 다시 주부(主簿)가 되었으니,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승진 가산군수(嘉山郡守)로 나가 효성령방수장(曉星嶺防守將)을 겸임하고, 만기가 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 내금위장(內禁衛將)이 되었다.

배위(配位) 기계유씨(杞溪俞氏)는 악주(岳柱)의 따님인데 기유(己酉, 1845)년 11월 23일에 출생하여 기미(己未)년 2월 3일에 졸하니, 71세 건위(乾位)에 합봉(合封)하였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 임 병 각 (林炳角, 1871 ~ 1950)

병각(炳角)은 호군 찬현(護軍 纘賢)의 8대손이고, 교관 명원(教官 命源)의 손자이며,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달상(瑳相)의 5자로 1871년 3월 17일에 태어났다.

무과(武科)에 급제하더니, 곧이어 중후원의관(中樞院議官)에 제수(除授)되었다.

1950년 6월 6일에 죽으니, 묘는 전월산(轉月山) 우록(右麓) 갑좌이다.

배위(配位)는 수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로 부면중(父勉中)의 따님이다. 건위합봉(乾位合封) 부좌(附左)하였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 임 성 철 (林成喆)(1868 ~ 1941)

성철(成喆)은 호군 찬현(護軍 纘賢)의 9대손이고 교관 명원(教官 命源)의 증손이다. 연일현감(延日縣監 琦相)이 그의 조부이다. 그의 아버지는 가산군수 병호(嘉山郡守 炳鎬)인데 비(妃)는 기계유씨(杞溪俞氏) 악주(岳柱)의 따님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났다.

그는 고종(高宗) 무진(戊辰, 1868)년 10월 23일에 삼기(三岐)마을에서 태어났다. 본래 위엄스러운 자품(資品)으로, 굳세고 씩씩한 재주를 겸했더니, 병술(丙戌, 1886)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갑오(甲午, 1894)년에 병조(兵曹)의 낭청(郎廳)이 되고 곧바로 군부주사(軍部主事)에 옮겼다가 을미(乙未, 1895)년에 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에 나가더니 후에 정삼품(正三品)에 승진하여 통정재부(通政大夫)가 되고 관직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그쳤다.

신사(辛巳, 1941)년 3월 10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셔서, 선고(先考)의 묘소를 좇아 계하임좌(階下壬坐)네 장례를 모셨는데, 그 장례에 모인 이 마다 고을에 의지할 분을 잃었노라고 애통해 하였다.

배위 경주김씨는 부장하였고, 진주하씨는 별장하였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제 2 절 문 신

○ 이 유 태 (李惟泰, 1607 ~ 1684)

이유태는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이며,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607년(선조 40)에 금산군 노동리(蘆洞里)에서 유학 이서(李曙)와 청풍김씨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0세 되던 해에 부친을 잃고, 큰형인 이유택(李惟澤)의 보호와 모친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15세 되던 해에 진잠의 가둔촌(嘉遯村,)에 은거하여 강학하고 있던 민재문(閔在汶)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배웠으며, 18세부터는 연산에 거주하던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 부자에게 사사하면서 그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특히 1년 연상인 동춘 송준길과 같은 나이인 우암 송시열과는 우의가 남달랐다.

1630년(인조 8)에 병시에 합격하였으나,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전시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른 것은 1634년(인조 12) 김집의 천거로 희릉 참봉에 임명되면서부터인데, 당시 그는 부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큰형이 가정의 빈한함을 이유로 벼슬에 나갈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벼슬에 나갔다고 한다. 그 후 1636년(인조 14)에는 다시 모친의 명과 형의 권고로 건원릉 참봉으로 5개월간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자, 그는 “선비가 가히 출사할 의(義)가 없어졌다.”고 탄식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무주의 덕유산 아래 산미촌(山味村)에 은거하였다. 이후 대군사부, 내시교관, 세자시강원 자의 등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면서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김자점(金自點) 일파를 견제하고 북벌을 도모하

기 위해 김상헌, 김집 등 척화파와 산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는데, 이때 이유태도 공조좌랑으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친척파들이 김상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유태는 앞장서서 이들의 죄과를 논척하였는데, 이는 조정이 시끄러워지는 단서가 되었고 1650년 2월 김자점 일파가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산림들은 결국 모두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의 발단이 된 이유태의 상소는, 후에 효종으로부터 광소(狂疏)라고 낙인찍히면서, 한때 정거(停擧 : 유생에게 얼마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1651년(효종 2) 말에 친척세력이 중앙정계에서 축출되자, 이듬해부터 다시 이유태의 재등용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1656년(효종 7) 마침내 공조정랑에 제수되고, 이어 지평 · 시강원 진선 · 장령 · 집의 등에 제수되었으나, 한번도 부임하지 않았다.

1659년(효종 10)에는 다시 송시열 · 송준길 · 유계 · 허적 등과 함께 밀지를 받고 조정에 나갔으나 당시 어지러운 조정과 사회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는 곧 낙향하여 ‘기해봉사(己亥封事, 혹은 萬言封事라고도 함)’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고를 끝내고 정서하는 과정에서 효종이 갑자기 승하하였기 때문에 기해봉사는 1660년(현종 원년)에야 비로소 조정에 제출되었다.

그는 이 ‘기해봉사’에서 변동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어 당시의 폐단을 7 조목으로 나누어 논하였으며(說弊論), 이 시폐(時弊)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3강령 16조목을 제시하고(求弊論). 그 실시의 효과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같은 시무(時務)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군주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군주의 수가지목(修己之目) 7조, 제가지도(齊家之道) 4조를 제시하고 있으며(君德論) 여기에 규모가 방대한 향약 일책을 곁들여 거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해봉사’가 조정에서 논의되는 동안 이유태는 산림의 중망인으로 추앙받았고, 관직도 계속 승진하여 현종조에만 해도 무려 22차례에 걸쳐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한번도 부임하지 않았다.

이유태는 송시열과 절친한 친우이자 동학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입장도 송시열과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1660년(현종 1)에 발생한 1차 예송에서는 송시열 · 송준길과 함께 기년설(基年設)을 주장하여 남인과의 예송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1674년(현종 15)에 시작된 2차 예송에서 패배하면서 윤희 등 남

인의 탄핵을 받아 영변(寧邊)에서 5년 반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절친하던 송시열과의 관계마저도 예론 논쟁과 연관된 알력으로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이유태는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이상의 정치활동은 하지 않고, 공주의 중동에서 독서로 여생을 보내다가, 1684년(숙종 10)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881년(고종 18) 문헌(文憲)의 시호를 받았으며, 연기 갈산서원과 금산 반계서원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예변(禮辯), 의례문목(疑禮問目), 의례문답(疑禮問答), 시의문답(時疑問答), 역설(易設), 경의문답(經衣問答), 사례홀기(四禮笏記), 사서답문(四書答問), 문산문답(文山問答), 정훈(庭訓)등 출판 간행된 초려전집 18책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남면 종촌리 도산(道山)에 있다. 또한 이유태는 한때 예송논쟁 이후 전의 비암사(碑岩寺)에서 대좌하면서 예서(禮書)를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공주목 삼기촌 갈산(현 연기군 남면 종촌리)에 그를 제향한 갈산서원(葛山書院)이 건립되었다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1978년 그가 살았던 공주시 상왕동(中湖)이 고전마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고택 및 용문서재를 복원하였고, 연이어 성균관으로부터 전국향교에 동문을 돌려 전국 유림의 협찬과 여야의원의 동의를 얻어 명덕사, 용문서원 동서재 강당, 유물관, 장서각 등 일체의 건물을 세우고 연 1회 향사를 올리고 있다. 근래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논문 1집이 일차적으로 간행되고, 2집의 이차간행을 준비중이다.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공산지, 호서읍지, 연기지,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공주의 향교와 서원, 경주이씨금석록, 해동인물지, 한국유학사)

○ 임 정 (林 頌, 1554 ~ 163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직경(直卿), 호는 용곡(龍谷)이다. 본관은 부안으로 전서공 임난수(林蘭秀)의 6세손이고, 아버지는 공조참의에 증직된 임대명(林大鳴)이며, 어머니는 보성오씨로 오질(吳軾)의 딸이다.

1554년(명종 9) 용곡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있어 장성하여서는 경적(經籍)을 깊이 탐구하는 한편, 고청(孤靑) 서기(徐起, 1523 ~ 1619)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처음엔 과거 공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명으로 과업(科業)에 힘써 1582년(선조 1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1년(선조 24) 문과에 급제하여 시정(侍正)에 올랐다.

1594년 의정부 사록(議政府司錄)으로 있다가 성환찰방에 제수되었고, 1596년 병조좌랑을 거쳐 이듬해 강원도 도사가 되었다.

1598년에 해주판관이 되었는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길을 막고 교자(轎子)를 타고 갈 것을 청하였으나 “공물(公物)을 어찌 사사로이 쓰겠는가.” 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로 수십년 간에 지낸 관직은 내직으로는 성균관 전적, 호조좌랑, 형조정랑, 호조정랑, 공조정랑, 춘추관 기주관, 한성부 서윤, 내섬시 정, 봉상시 정, 사복시 정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강령현감, 장흥판관, 전라도 도사, 경상도 도사, 부안현감, 진산군수, 문천군수, 용진현령, 서흥현감, 기장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기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남은 봉록으로 군기(軍器)를 다 보수하였는데, 관료들이 감영에 보고할 것을 청하자 “관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은 바로 신하의 직분인데 어찌 공을 바라겠는가” 하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는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어 높은 지위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여러 군현의 관장을 지냈으면서도 시종 맑고 굳은 지조를 지킴으로써, 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창고에 밥 지을 곡식조차 없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청백리에 천거되기도 하였다.

1610년(광해군 2) 고칭 서기의 제자인 박희성(朴希聖), 박희철(朴希哲), 민재문(閔在汶) 등과 함께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공암서원(孔巖書院=충현서원)을 중건하고, 1624년(인조 2)에 충현서원(忠賢書院)으로 사액받는 일에 앞장섰다. 그 후 가람들에 의해서 충현서원(忠賢書院)과 연기 봉암서원(鳳巖書院)의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천성이 효행스러워서, 부모의 병환에 변을 맞보아 병세를 확인하였으며, 양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6년 동안 죽만 먹고 시묘하였는데, 슬퍼함이 예제(禮制)에 넘었으며,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다. 상기(喪期)를 마친 후에도 항상 기일(忌日)을 당하면 애곡(哀哭)함

이 초상 때와 같았고, 조상을 받드는 예절에 성의와 공경을 다하여 제사의 절차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6년 동안 부모의 시묘를 하였다는 원수산 동쪽 기슭 중간에 후손들이 시묘비(侍墓碑)를 세워 놓았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일가 친척들간에 화목함에 힘써 주위에서 크게 칭송하였다고 한다.

1635년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전월산 북쪽 기슭에 장례를 치루었다.

월하(月河) 민후건(閔後鵞)이 부조(賻助)의 일로 통문을 적어 돌리면서 “선생은 유도를 진흥시킨 뛰어난 선비요, 학덕이 뛰어나신 분인데, 하늘이 남겨두지 않으시고 문득 의지할 바를 빼앗아 가니 배움없는 후생으로서 이제 장차 어느 곳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였으며, 송환기(宋煥箕)는 임정의 행장(行狀)을 지으면서 “송죽같은 지조로 학문을 즐기어 단연코 속세를 떠난 취미를 가진 인물” 이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이장재는 병암사에 봉안하는 글에 “유학을 깨달은 큰 선비로 몸소 실천하니 서고칭 같은 큰선비를 선배로 모셨다네. 부모상을 당함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고, 율곡과 우암선생의 학문을 깊이 연구했더라.” 고 하였다.

1654년(효종 5) 효로써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 겸동지의금부사에 증직되었으며, 정문을 받았다. 세보(世譜)에 의하면 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1805년(순조 5) 병암서사(屏巖書社)에 제향되었다.

(선조실록, 문과방목,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공산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지,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부안임씨전서공파문헌록)

○ 곽지흠(郭之欽, 1601 ~)

곽지흠(郭之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자는 흠로(欽魯), 호는 지포(芝浦)이며, 아버지는 곽희태(郭希泰, 1577~1663)이다.

1630년(인조 8)에 생원시에 급제하여 성균생원이 되었으며, 1645년(인조 23)에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술(製述)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되었다. 1646년(인조 24)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을 거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이듬해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왜차접위관(倭差接慰官)이 되어 대마도 도주가 보낸 사신 평성행(平成

幸)·서수좌(恕首座)?등지승(藤智繩) 등을 맞았으며, 이어 지평에 제수되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 사헌부 장령으로서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하여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암행어사가 되었다. 1650년(효종 1) 장령이 되었으며, 1653년 장령으로 있으면서 ‘범금자(犯禁者)에게 뇌물을 받고서 고의적으로 풀어보낸 뒤 또 그의 집에 가서 작란(作亂)한 금리(禁吏)를 죄주는 일’을 잘못 논의하였다 하여 삭탈관직을 당했다가, 이듬해 다시 장령으로 복직되어, 사간원 헌납과 사헌부 장령을 번갈아 역임하였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면서 사간원 사간이 되었고, 실록청 겸춘추로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61년 사헌부 집의가 되었으며, 1662년 정언 권격(權格) 등과 함께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변호하는 조경(趙綱)을 귀양보낼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다

묘는 남면 국사봉 아래 유좌에 있으며, 면암 최익현이 행장을 짓고, 대사성 김복한이 비문을 찬하였다.

(인조실록, 현종실록, 문과방목, 연기인물지)

○ 임 정(任 珽, 1694 ~ 175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성방(聖方), 호는 호재(扈齋)이다. 본관은 풍천(豊川)이며, 형조참판을 지낸 임수적(任守迪, 1671~1744)의 아들이다.

숙종 때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722년(경종 2) 황감시(黃柑試)에서 일등하여 전시에 직부(直赴)되고, 이듬해에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에 뽑혔다가 1728년(영조 4) 지평에 올랐다. 다음해 도당록(都堂錄)에 올랐고, 그 뒤 수찬·부수찬·정언·교리·부교리 등을 번갈아 역임하였다. 1731년에는 수찬으로서 탕평책에 따른 시정의 폐단과 주전(鑄錢)의 시행 불가, 각 도의 분장(分掌) 혁파 등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1734년(영조 10)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가 다시 수찬·부수찬·헌납·교리 등을 번갈아 가며 역임하였으며, 1735년 등극진하사(登極進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735년 사간이 되었고, 1736년 집의·응교를 지낸 후 1797년(영조 13)에 응교로서 중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고, 동부승지를 거쳐 1738년에는 대사간에 올랐다. 곧 승지가 되고, 1740년에 다시 대사간에 올랐다. 그 뒤 우부승지·이조참의·대사간 등을 번갈아 역임하였으며, 1748년 곡산도호부사가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가 1750년에 내직으로 돌아와 대사성이 되었다.

고금의 시가(詩歌)에 능했으며 글씨도 뛰어났다고 한다. 저서로는 『호재집(扈齋集)』이 남아 있으며, 글씨로는 해주축성비(海州築城碑), 개성의 계성사비(啓聖祠碑) 등이 남아 있다.

(경종실록, 영조실록, 문과방목,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 이 세 장(李世璋, 1497 ~ 1562)

이세장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도성(道盛), 호는 금강어수(錦江漁?)이다. 영남도평사(永安道評事)를 지낸 이목(李穆)의 아들로 1497년에 태어났다.

1516년(중종 11)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153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대교·주서·공조좌랑·부교리를 지냈다.

1537년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1539년부터 1543년까지 사헌부 지평·장령·집의, 홍문관 교리·부응교·응교·전한 등을 번갈아 역임하였다. 그 사이에 1542년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구황(救荒)하는 일에 대한 관찰사들의 조치를 감찰하였고, 1543년에는 시강관으로서 왕에게 환관(宦官)들이 미치는 화에 대하여 간하였으며, 당하관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술(製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숙마 1필을 하사받기도 했다.

1544년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으로서 실록 편수관이 되어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듬해에 의정부 사인을 역임하였다. 1548년 홍문관 전한이 되었고, 황해도 어사가 되어 구황(救荒)하는 일을 감찰하였으며, 특지로 홍문관 직제학과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1549년 춘추관 수찬관, 승정원 등부승지·우승지·좌승지가 되었고, 1550년 공조참의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1551년 예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호조참의·강원도관찰사를 지내고 내직으로 돌아와 병조참의가 되었다.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1554년 홍주목사, 1556년 양주목사로 나갔고, 1577년 호부위 대호군(虎賁衛 大護軍)이 되었다가 1558년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1538년(명종 17)에 세상을 떠나니, 명종이 예관을 보내 조문하고 부의(賻儀)를 내렸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성품이 화후(和厚)하고 과묵하였으며, 평생 청렴결백하게 지내서 명종 때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중종실록, 명종실록, 문과방목, 연기인물지,

충남의 서원·사우, 공주의 지리지·읍지, 공주시지)

○ 임 목(任 穆, 1371 ~ 1448)



임목의 신도비 탁본

조선 초기의 정치가로 본관은 부안이다. 서하 임춘(林椿)의 현손이고, 고려말 공조전서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공주 삼기촌(현 남면 양화리)으로 은거한 임난수(林蘭秀)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 최유(催濡, 1072~1140)의 딸인 해주최씨이다. 부인은 상주김씨 김선문(金善文)의 딸이다.

1406년(태종 6) 음사(蔭仕)로 비인감무(庇仁監務)를 지냈으며, 1418년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한 후 순승부 판관(順承府 判官), 평양서윤(平壤庶尹), 홍주판관(洪州判官)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평양서윤으로 있으면서 정사가 간결하고 청렴하여 사랑이 백성에게 끼쳤고, 홍주판관으로 있을 때에는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교화시켰으며, 1427년(세종 9) 음죽현감(陰竹縣監)

으로 재임하면서, 처음으로 향교를 건립하여 윤리를 밝게 드러냈다고 한다.

또 후에 함주통판(咸州通判)을 지냈는데, 이때에 함주목사로 있던 남금(南琴)과 친분을 맺어 후에 낙향하여 독락정을 지었을 때, 그 아들인 남수문(南秀文)이 기문을 지었다.

1433년 양양도호부사를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 금강상류에 정자를 지어 이름을 “독락정(獨樂亭)”이라 하고 그곳에서 한가로이 스스로 즐기며 여생을 보냈다.

1448년 세상을 떠나니 연기(燕岐) 서촌(西村) 월화고개 양산(현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에 안장하였고, 1710년 사람들이 기호서사(岐湖書社)를 세워 제향을 지냈다.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공주의 지리지·읍지)

○ 임 중(林 重)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안이다. 증조부는 고려 때 공조전서를 지낸 임난수(林蘭秀)이고, 조부는 나성리에 독락정(獨樂亭)을 지은 양양도호부사 임목(林穆)이다. 아버지는 내시별감을 지낸 임손(林蓀)이며, 어머니는 함길도관찰출척사 이유(李楡)의 딸 덕산이씨(德山李氏)이며 부인은 양녕대군의 딸이다.

성품이 효성스러워 부모의 생전에 용색(容色)을 부드럽게 능히 봉양하고 사후에 예를 다하여 행하였다.

1464년(세조 10) 원각사(圓覺寺)를 지을 때 선공주부(線工主簿)로서 충청도에 가서 벌목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1466년에는 충청도점마별감(忠淸道點馬別監)이 되어 충청도의 목장을 살피고 돌아왔다. 1468년 세조가 죽은 후 산릉도감 낭관이 되어 역사(役事)를 담당하였으며, 1477년(성종 8)에는 선공첨정(線工僉正)으로서 충청도 경차관이 되어 대창(大倉)과 공주의 집을 짓기 위해 재목을 벌채하였고, 청풍군의 석류황을 채취하여 진상하였다.

1484년(성종 15)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수리도감 낭관(修理都監 郎官)을 겸하면서, 사사로이 수리도감의 사령과 악공(樂工)을 사역시켜 소나무를 베다가,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한 죄로 파면당하였다.

그 후 1487년 사복시 부정(司僕寺 副正), 의금부 경력(義禁府 經歷), 1490년

(성종 21) 전연사 별좌(典涓司 別坐) 등에 임명되었으나, 수리도감 낭관으로 있으면서 부정을 저지른 일 때문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모두 개차(改差)되었다. 1490년 임중의 아들인 임유중(林有琮)이 상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상소하여 다시 종묘서령(宗廟署令)에 제수되었다.

1508년(중종 3년)에 세상을 떠나니, 현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濟川里)에 안장하였다. 부인은 현주(縣主) 완산이씨(完山李氏)로 양녕대군 이시의 딸인데, 이씨의 묘비가 서면 용암리 우줄마을에 있다.

그는 평소 서거정(徐居正)과 친분이 깊었는데, 그의 부탁으로 서거정이 지은 독락정에 대하여 읊은 칠언율시(七言律詩) 3편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 고적조에 실려 있다.

큰아버지인 희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임난수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말년에 고향(현, 양화리)에 내려와 조용히 부조묘의 제사를 받들었다.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 김 준 손 (金俊孫, 1454 ~)

연기김씨의 시조로 신라 제 56대 경순왕의 넷째아들인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예로 전한다. 아버지는 김덕의(金德義)이고, 자는 자연(子彦), 호는 주헌(酒軒)이다.

1468년(세조 14)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1473년(성종 4) 김준손이 유학(幼學)들과 관노(館奴)의 집에 거처하는 것을 다룬 일로 인하여 관원이 모두 종아리 30대를 때렸는데, “어찌 생원이 유학과 죄가 같을 수 있는가” 하면서 최희철 등과 함께 관(館)을 비워서 출학(黜學)·정거(停擧 : 과거시험을 보지 못하게 함) 당하였으며,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장(杖) 90대를 속(贖) 바쳤다.

그러나 후에 상언(上言)하여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1486년(성종 17) 훈도(訓導)로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는 2년 전인 1496년에 황인, 유인호와 함께 충청도 예산 향시(鄉試)의 시험관이 되어,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시호로써 책제(策題)를 낸 일로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1503년(연산군 9) 사헌부 장령을 거쳐 1504년 사헌부 집의가 되었으며, 이듬

해 승정원 우부승지가 되고, 가선대부로 가자(加資)되었다. ‘상원에 달을 감상하다(上元賞月)’ 이란 제목으로 지은 율시(律詩) 말구(末句)에 “곤드레 술에 떨어져 새벽이 되었건만, 붉은 해가 동녘에 걸린 줄 아예 몰라라” 하였는데, 연산군이 이를 “곤드레 술에 떨어져 새벽이 되었건만, 청악이 다시 울리니 호탕해지네.” 라고 고쳐 승정원에 내리기도 하였다.

1506년(연산군 12) 우승지가 되었는데, 왕이 경복궁에서 대비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 술에 취하여 김준손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두드리게 하였으니, 이는 김준손이 늙어 머리가 벗어졌으므로 희롱한 것이었다.

또 김준손이 강훈, 한준 등과 함께 궁방(宮房)의 잡물수납을 감독할 때에는, 왕이 서과(西果 : 수박)를 하사하고 어제시를 내리기를 “왕의 일 꺼리지 않고, 더운 날 고역하네. 빙과로 목마름 풀어 주노니, 은혜 생각하여 성의 다하오.” 라고 하였다.

1506년(중종 1) 9월 8일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승지로서 입시(入侍)하여 공을 세웠으며, 폐주(廢主) 연산군을 유배지인 강화도 교동(喬桐)까지 수행하고 돌아와 정국공신 4등에 올랐다.

1509년(중종 4) 연성군(燕城君)에 봉해졌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성균관 동지가 되었다. 1516년(중종 11) 오위도총부 도총관이 되었으나, 나이가 많아 왕을 제대로 호위할 수 없다 하여 사직을 청하여 윤허받았다.

1519년(중종 14)에는 권균(權鈞) 등과 함께 스스로 ‘외람되게 훈적(勳籍)에 기록되었으니 자신들의 이름을 빼줄 것’ 을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이 정국공신(靖國功臣)들의 위훈삭제(偉勳削除)를 끈질기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김준손의 후손들은 그가 연성군(燕城君, 燕城은 燕岐의 별호임)에 봉해진 후, 연기(燕岐)를 관향으로 삼아 가계를 잇게 되었다. 그의 후손으로는 1591년(선조 24)에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사간원 정언에 추증된 김효간(金孝幹)과 1651년(효종 2)에 문과에 급제한 김정(金珽) 등이 있다.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인의 족보, 성씨의 고향)

○ 김 효 간(金孝幹, 1564 ~)

본관은 연기(燕岐)이고, 자는 이경(而敬)이다. 아버지는 김장(金將)이다. 1591년(선조 24) 28세의 나이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는데,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추증되었다. (문과방목, 한국인의 족보, 성씨의 고향)

○ 김 정(金 珽, 1611 ~)

본관은 연기(燕岐)고, 자는 사휘(士輝), 후에 김숙(金○)으로 개명하였다. 아버지는 김충간(金忠幹)이다. 1651년(효종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이 되었다. (문과방목, 한국의 족보, 성씨의 고향)

○ 곽 희 태(郭希泰)

1577(선조 10)~1663(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 자는 종여(宗余), 호는 선주(仙舟). 아버지는 서포(西浦) 곽열(郭說)이고, 어머니는 홍익성(洪翼聖)의 딸이며, 부인은 이제남(李悌男)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명정전(明政殿)에서 거행된 정시문과에 병과로 등제하였다. 과거 전에는 교관(敎官)으로 있었으며, 등제 후 노직(老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까지 올랐으며, 문한(文翰)으로 이름이 높았다

묘는 남면 국사봉 아래 유좌에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환여승람—

○ 임 병 준(林炳峻)(1879 ~ 1950)

병준(炳峻)은 호군 찬현(護軍 纘賢)의 8대손이고 교관 명원(敎官 命源)의 손자이며 연일현감 기상(延日縣監 琦相)의 차남이다.

1879에 11월 5일에 태어났고, 1903년 행통정대부중추원의관(行通政大夫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다. 1950년 7월 20일에 졸하니 묘는 남면 중촌 옥동 선영(先塋) 우편(右便) 건좌(乾坐)이고 배숙인(配淑人) 밀양박씨(密陽朴氏)는 건위합봉(乾位合封)이다.

—연기군지, 부안임씨 세보

○ 임 홍 철(林弘喆, 1869 ~ 1919)

홍철(弘喆)은 기사(己巳, 1869)년 정월 28일에 나서 병진(丙辰, 1919)년 정월 6일에 졸(卒)하였다. 그의 7대조는 신도비(神道碑)와 기호서사(岐湖書社)를 이룩하신 호군찬현(護軍贊賢)이다. 증조(曾祖)에는 동몽교관 명원(童蒙教官 命源)이며, 그의 조(祖)는 성균진사 의금부도사(成均進士 義禁府都事)인 달상이다. 그의 아버지는 정2품 중추원도사(中樞院都事) 병규(炳奎)인데, 그의 맏이로 태어났다.

그의 관직은 신축(辛丑, 1901)년에 종사랑행경위원주사(從仕郎行警衛院主事)로 초사(初仕)하였다. 병진(丙辰, 1916)년 정월 6일에 생을 마감하니 큰 기둥을 잃었음을 애통해 하였다. 묘소는 전월산 선영하로 공인(恭人) 양주조씨(楊洲趙氏)와 공인(恭人) 인천채씨(仁川蔡氏)가 합봉(合封)이다.

참고문헌: 공주군지(公州郡誌),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扶安林氏 典書公派 文獻錄), 연기군지(燕岐郡誌)

○ 임 진 철(林振喆, 1887 ~ 1937)

진철(振喆)은 정월 19일에 가산군수 병호(嘉山郡守 炳鎬)와 기계유씨(杞溪俞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祖)는 연일현감 기상(延日縣監 琦相)이며, 증조(曾祖)는 교관(教官)인 명원(命源)이다. 9대에 올라가서 호군찬현(護軍贊賢)이 있다.

그는 융희무신(隆熙戊申, 1908)년 충청북도감찰부(忠淸北道監察部) 주사(主事)로 출사하였다. 경술(庚戌, 1910)에 국치(國恥)를 당하였다. 정축(丁丑, 1937)년에 통한의 생을 마쳤다.

참고문헌: 공주군지(公州郡誌),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扶安林氏 典書公派 文獻錄), 연기군지(燕岐郡誌)

제 3 절 유 현

○ 임 헌 회(林憲晦, 1811 ~ 1877)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명로(明老) · 중명(仲明), 호는 고산(鼓山) · 전재(全齋) · 희양재(希陽齋)이다.

아버지는 이조판관에 증직된 임천모(任天模)이며, 어머니는 홍익화(洪益和)의 딸 남양홍씨(南陽洪氏)로 1811년(순조 11) 직산(稷山) 산음리(山陰里)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1836년(헌종 2) 감시(監試)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떨어지자, 송치규(宋穉圭)를 찾아가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1842년 홍직필(洪直弼)의 제자가 되었다.

1858년(철종 9) 조두순(趙斗淳)이 “명가의 후예로서 효우를 힘써 행하면서 조용히 거처하며 평소 배양한 뜻을 지키고 있다”고 천거하여 효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판부사 김좌근(金左根)이 경술(經術)과 행의(行誼)로 천거하여 다시 활인서 별제(活人署 別提), 전라도사, 군자감정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모두 사양했으며, 1861년에는 다시 조두순(趙斗淳)의 천거로 경연관에 발탁되었으나, 역시 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1864년(고종 1) 장령 · 집의 · 장악원정 등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호조참의가 되었다. 이때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을 폐지하라는 왕명이 내려지자 절대 부당함을 거듭 상소하여 다시 제향하게 하였다.

1871년 공주 삼기(三岐)로 이거하였고, 2년 뒤인 1873년에는 공주 명강동(明剛洞)으로 옮겨 살았다. 1874년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승지를 보내어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고, 그 뒤 대사헌 · 좌주 등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1877년 성전(星田, 현 연기군 남면 방축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일찍이 이이(李珥) · 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그의 학설은 주리론(主理論)을 주장하는 이항로(李恒老) 문하의 김평묵과 대립하게 되어 1862년 서신으로 성리설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임헌회는 천주학(天主學)을 극력 배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1902년 윤용선(尹容善)의 주청으로, 정2품 자헌대부 내부대신에 추증되었다. 1908년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도(道)와 덕(德)이 있고 널리 글을 읽음[道德博文]을 ‘문(文)’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경계

함[夙夜做戒]을 ‘경(敬)’이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전재집(全齋集)』, 『고산집(鼓山集)』, 『속고산집(續鼓山集)』이 있고, 또 문인들에게 명하여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의 문집 속에서 명언들을 뽑아 책으로 엮도록 한 『오현수언(五賢粹言)』이 1905년에 간행되었다.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간재(艮齋) 전우(田愚), 경의당(敬義堂) 김진수(金振遂) 등이 있다. 연기군 남면 방축리의 덕성서원(德星書院, 崇德祠)에 제향되어 있으며, 남면 방축리에는 그가 살았었다는 집이 남아 있다.

(철종실록,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송덕사오현집, 전재전집)

○ 전 우(田愚, 1841 ~ 1922)

한말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담양(潭陽)이고, 초명은 경륜(慶倫)·경길(慶吉), 자는 자명(子明), 호는 구산(臼山)·추담(秋潭)·간재(艮齋)이다. 1841년 전재성(田在聖)의 아들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 정동·삼청동·순화동(順化洞) 등에서 살았으며, 21세에는 당시의 거유(巨儒) 신응조(申應朝)의 권유로 직접 아산의 신양(新陽)으로 찾아가 임헌회(任憲晦)와 사제의 의를 맺고, 임헌회가 죽을 때까지 아산·전의·연기·진천·상주·문천 등지에 따라가 살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1882년(고종 19) 선공감 가감역(繕工監 假監役)·감역·전설사 별제(典設司 別提)·강원도 도사, 1894년 사헌부 장령, 이듬해 순흥부사·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1895년 을미년에는 박영효(朴泳孝) 등 개화파가 그를 수구학자(守舊學者)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개화를 실현시키려면 전우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번 청하였으나, 고종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소(疏)를 올려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제자들과 상의하여 “마침내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공자의 뜻을 취해 해도로 들어갔다. 지금의 부안·군산 등의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옮겨다니면서 학문을 펼치며, 나라는 망하더라도 도학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2세에 되던 해에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여, 섬 이름을 중화를 잇는다는 의미인 계화도(繼華島)라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6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지금의 계화도에 있는 집은 모두 당시의 제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스승인 임헌회의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계승하여, 전통적인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려 한 점에서, 조선조 최후의 정통유학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그는 이이와 송시열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힘썼으며, 그 나름대로 성리학적 경지를 창안하여 심본성설(心本性設)을 주제로 성존심비(性尊心卑) 또는 성사심제(性師心弟)의 설을 부르짖었다. 이것은 주자(朱子)가 인간의 도덕적 의자와 작용을 설명하면서, 성(性)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정통 왕권(王權)의 계승만이 국권의 회복이라 하였고, 파리장서(巴里長書)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이적(夷狄)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하여 이는 척화를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외세의 간섭을 자초하는 일이니 열강의 세력을 빌려 이들에게 호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스스로 조선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전혀 일본인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세금은 물론 제자 가운데 개화하는 사람은 이름을 지었다.

제자로는 오진영(吳震泳) · 최병심(崔秉心) · 이병은(李炳殷) · 송기면(宋基冕) · 권순명(權純命) · 유영선(柳永善) 등 3천 여명이며, 저서로는 『간재집(良齋集)』, 『간재사고(良齋私稿)』, 『추담별집』 등이 있다.

그의 묘소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 연기의 송덕사(崇德祠), 계화도의 계양사(繼陽祠), 의령의 의산사(宜山祠), 고창의 용암사(龍巖祠), 정읍의 태산사(台山祠) 등에 제향되었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성서원지)

○ 임 찬 현 (林 纘 賢, 1602 ~ 1693)

임찬현은 본관(本貫)이 부안(扶安)이다.

1602년(선조 35) 3월 5일에 공주(公州) 삼기촌(三岐村)에서 태어나서, 1693년(숙종 19) 11월 26일 향년(享年) 92세로 죽었다. 이듬해 정월 8일에 남면 진

의리 가정자(柯亭子)에 간좌(艮坐)로 쌍분(雙墳)을 만들었다. 배(配)는 정부인 천안전씨(天安全氏)이다.

그의 관직은 가선대부용양위호군첨중추(嘉善大夫龍?衛護軍僉中樞)이다. 그의 증시조는 고려공조전서(工曹典書) 임난수(林蘭秀)로 그의 8대조이다. 본조(本朝)에 들어와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를 지내고 공직을 일찍 물러나, 삼기강(三岐江)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마친 임목(林穆)이 그의 7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어모장군충무위부사직(禦侮將軍忠武衛副使직)이고, 익배(益培)이며, 증조는 대필(大弼) 조(祖)에 응양(應樑)이다. 아버지는 철(轍)인데 어머니 순천박씨(順天朴氏)로 그는 삼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임씨의 가보(家譜)가 한 종인(宗人)의 실수로 불에 타 없어졌다. 전서공(典書公)으로부터 임정(林頲)까지가 6대이니, 약 180여년 간 공백기가 되는 것이다. 이 공백기를 뚫고 60년 후 그의 세대에 이른다. 임찬현은 족보의 상실로 선조에 대한 사라진 역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때에 임찬현이 주관하여 전서공의 묘를 사초(莎草)할 때, 묘소에서 376자가 새겨진 지식문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생졸일(生卒日), 관직(官職), 행적(行蹟)이 모두가 드러나니, 이는 전서공의 생환(生還)이며 부안임씨 전서공과의 역사 부활이라 - 이때가 1679년 10월 2일이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그를 비롯해 삼과의 후손 13인과 더불어 전서공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움에 이른다.

조선의 대현(大賢)인 화양부자(華陽夫子) 송우암(宋尤庵)의 찬(撰)과 숙종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친부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전(篆)과 당대 명필 경기도사(京畿都事) 박태유(朴泰維)의 글로서 신도비를 세웠다.

이 신도비의 의미는 다름아닌 이조사림(李朝士林)의 공인(共認)이며, 문중 사림계(士林界)의 진입을 말함이며, 부안임씨 전서공과의 중흥시대를 열어 가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1682년의 일이다. 1693년 그가 죽고 난 후, 710년에 후속(後續)의 역사는 이어져간다. 소(疎)는 판서(判書) 한배하(韓配夏)요, 승향축문(升享祝文)은 판서 황승원(黃昇源)이요, 춘추향사문(春秋享祀文)은 판서 박준원(朴準源)이라 기라성 같은 유현(儒賢)의 축복 속에 왕조포전(王朝褒典)인 기호서사(岐湖書社)를 완성을 본다. 이 서사(書社)의 창건은 그의 2자 성우(聖友)가 문장(門長)이 되어 주관(主管)하고, 그가 마련한 기금과 종인(宗人) 및 선비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왕주실록, 송자대전(宋子大全), 공주군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사마방목, 연기군지

○ 임 달 상 (林 墜 相, 1819 ~ 1887)

달상(墜相)은 호군찬현(護軍纘賢)의 7대손이고 교관명원(敎官命源)의 맏이로 태어났다. 자(字)는 맹수(孟叟)이며, 호(號)는 평강(平岡)이다.

순조(純祖) 기묘(己卯, 1819)년 8월 16일 고종(高宗) 정해(丁亥, 1887)년 5월 4일과 전월산(轉月山) 간좌(艮坐)는 그의 생졸 및 묘소이다.

을축(乙丑, 1865)년에 서하 임춘(西河 林椿) 선조(先祖)의 문집을 발행한 것은, 그 선업(先業)을 천양(闡揚)하고 후생(後生)을 계도(啓導)한 위대한 업적이며, 계유(癸酉, 1873)년에 진사(進士)에 오르고 을유(乙酉, 1885)년에 도사(都事)를 지낸 것은 그 관직의 이력이다.

배위(配位)는 무릇 세분이니, 초취는 경주김씨(慶州金氏)로 기로(冀羅)의 따님이고, 재취는 성주배씨(星州裴氏)로 유문(有文)의 따님인데 묘소는 합부(合祔)하였다. 삼취는 신천강씨(信川姜氏)인데 와치(瓦峙) 임좌(壬坐)가 묘소이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공주군지

○ 임 덕 량 (林 德 亮)

본관은 부안이며, 자는 대임(大任), 호는 양정암(養正庵)이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이름이 있었다. 모친상을 당하자, 울치(栗峙)에 움막을 짓고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고개를 ‘시묘티’라 하였다. 하늘에서 낸 효자라고 할 수 있다. 봉암에 사는 채선생 집에 가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학행과 덕행이 크게 세상에 알려졌다.

(연기지)

○ 곽 한 소 (郭 漢 紹)

본관은 청주이며, 호는 경암이다. 면암 최익현의 문인으로 의리가 엄정해서 춘추대의(春秋大義) 사상을 존중했으며, 학문도 탁월하고 행실도 곧은 선비였다. (연기지)

제 4 절 효 자

○ 이 정 환 (李廷煥, 1604 ~ 1671)

이정환(李廷煥)은 본관이 전주(全州)로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5세손이다. 자는 휘원(輝遠), 호는 송암(松岩)이다. 1633년(이조 11)에 생원이 되었으나, 병자호란의 국치를 통분히 여겨 두문불출하면서 ‘비가(悲歌)’ 10수를 지었다. 효행 또한 남달라서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으니, 그 소문이 퍼져 1666년(현종 7) 현종이 온천에 들르던 도중에, 이러한 효행사실을 듣고 특별히 백미를 보내어 포상하였다.

161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후 10년 만인 1681년(숙종 7)에 명정을 받아 남면 송원리 1구 만자동에 정려를 세웠으며, 1723년(경종 3)에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다. 1723년 이세구(李世龜)가 행장(行狀)을 짓고 남구만(南九萬)이 묘표를 썼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이 경 설 (李景高, 1650 ~ 1708)

이경설(李景高)은 이정환의 장손으로 자는 상우(相虞)이다. 18세 되던 해에, 뜻밖에 모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동생 이경익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 계신 분을 모시는 듯 하였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년간 시묘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쌍효자라고 일컬었다.

그 뒤 부친에게 더욱 효도하였는데, 비록 가세가 빈약하였으나 부친에게는 항상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봉양을 하였으며,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부친의 온돌방에는 훈훈한 열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형제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니, 이러한 두 아들의 효성으로 부친은 75세까지 편안한 여행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1699년(숙종 25) 동생 이경익과 함께 명정을 받았으며, 1708년(숙종 34) 58세에 동생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1723년(경종 3)에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이 경 익 (李景益, 1655 ~ 1708)

이경익(李景益)은 본관은 전주로 이정환의 손자이자, 이경설의 동생이며, 자는 공거(公舉)이다.

13세가 되던 해에 뜻밖에 모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형 이경설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듯 하였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년간 시묘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쌍효자라고 일컬었다.

형인 이경설과 부친 공양에 온힘을 다하였다.

1699년(숙종 25) 형인 이경설과 함께 명정을 받았으며, 1708년(숙종 34) 53세 되던 해에 형 경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1723년(경종 3)에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아들 이동명(李東明)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원종공신이 됨으로써 그 공에 의해 1728년(영조 4)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임 명 즙 (林命楫, 1774 ~ 1808)

임명즙(林命楫)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백섭(伯涉)이다. 1774년(영조 20)에 임종유(林宗儒)와 전주이씨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품성이 착하고 효성스러워 조부의 무릎에 있으면서 물러나라고 명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음식을 얻으면 항상 먼저 올린 뒤에 먹었다. 그러던 중 조부에게 병이 생기자 손수 미음을 끓이고, 약을 다리며 4년동안 보살피며 드렸다. 동네에 의원이 없어 10리나 떨어진 동네까지 가야 했는데, 그 의원은 신통하기로 소문이 나 아무리 부잣집에서 모셔가겠다고 해도 맞이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다. 임명즙이 어린 나이에 그 의원을 직접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뜰에 서서 간절히 청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니, 의원도 정성에 감동하여 직접 먼 동네까지 친히 찾아가 치료를 해주었다. 그 결과 병이 쾌유되었고, 의원은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번 길에 한 효동(孝童)을 보았다.”라며 칭찬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너무 늙으셨으므로 과거공부를 사양하고 오직 부모님

돌보기에만 마음을 다하였다. 두 아우와도 우애가 있어 집안 재산을 분간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모셨으며, 부모님이 평소 집안의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애롭게 돌보았기 때문에, 그 역시 근면 성실한 자가 있으면 의복 등을 후하게 주어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

1783년(정조 7) 그의 나이 40에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의 일이다. 상여가 연기군 남면 진의리 서죽소 나루에 이르렀는데, 얼음이 얇게 얼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임명즙이 강가에서 울면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니, 이튿날 아침에 얼음이 갑자기 녹아 배를 타고 상여를 건너게 해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

수년 후 모친께서 단독(丹毒)이 팔꿈치에 생겨 백약이 무효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술개의 깃을 달여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신명은 어찌하여 미물의 깃을 이토록 감추시나이까? 굽어 살피사 소생에게 소리개의 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곡히 기원하니, 어느날 소리개 한 마리가 집 마당에 깃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다. 그는 그 깃을 고이 태워 모친의 환부에 발라드리자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늙으신 어머니는 여러 가지 병으로 위중하게 되었고, 그는 모친이 거동을 할 수 없기에 이르렀을 때는, 항상 곁에서 시중을 하며 모친의 속옷을 직접 빨고, 변기를 비우는 일까지 몸소 하여 주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 했다. 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려 어머니의 병을 자신이 대신해서 받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기를 사흘이 되었을 때,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병이 낳았다. 이때 병에서 깨어난 모친이 말하기를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수년의 명을 빌려주시니라 하셨다” 고 한다.

1803년(순조 3)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그는 날마다 애통해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호곡하였으며, 매년 기일에는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여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모친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인 1808년(순조 8)에 향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임명즙은 25세에 손가락을 베었었는데, 그가 죽자 가족들은 신체발부(身體髮膚)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효(孝)를 행하기 위해 그동안 버리지 않고 상자에 담아 고이 간직해 오던 잘린 손가락을 꺼내어 시신에 이

어서 함께 엮었다고 한다. 1871년(고종 8) 명정을 받아 남면 송담리에 정려를 건립하였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임 수 준 (林秀俊, 1810 ~ 1875)

임수준(林秀俊)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사민(士民)이며, 호는 소재(素齋)이다. 1810년(순조 10)에 남면 월산리에서 태어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돌아가시자 나이 6세에 3년간 상복을 입고 죽으로 연명하였으며, 머리도 깎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는 학문에도 뛰어나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후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후배양성에 전력하던 중 병인양요(1866년)가 일어났는데, 때마침 극심한 가뭄이 겹쳐 난민이 발생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쌀 100가마를 이웃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어떤 약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명의를 만나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만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겨울로 어디에도 풀 한 포기조차 볼 수가 없었다. 수준은 약초를 구하러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계룡산에 입산하였고, 일편단심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40일째 되던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약초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 길로 달려가 산신령이 계시한 곳에 가보니, 온 산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데 오직 한 곳만은 눈이 없고 푸른 약초 2포기가 자라나 있었다.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리니 바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가 집에서 5리나 떨어진 곳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찾아가 예를 다하였다고 한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임 자 의 (林自儀, 1672 ~ 1717)

임자의(林自儀)는 본관이 부안이다. 아버지인 임상담(林尙談)이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홀어머니인 경주 최씨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다. 어느날 모친이 병에 걸리게 되자, 형제는 서로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하였고, 어머니의 변을 맞보며 병구완을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죽으로 연명하면서 3년간 묘 아래에 초막(草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오두막집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두 효자는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의 불효를 보고 해치려고 하느냐?’ 하였다. 그 후에도 호랑이는 3년간을 매일 와서 닭이 울면 물러갔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히 여기던 중에, 문득 형제의 꿈속에서 호랑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아무 곳에서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구해 달라고 청하였다. 깜짝 놀라 깨어나 그곳으로 달려가 본즉 호랑이가 과연 함정에 빠져 있었다. 형제는 포수에게 간청하여서 재물을 주고 호랑이와 바꾸어 풀어주었다고 한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임 태 선 (林太先, 1675 ~ 1720)

임태선(林太先)은 본관이 부안으로, 효자 임자의(林自儀)의 아우이다. 본명은 태의(太儀)이고, 태선은 어렸을 때의 이름이다. 아버지인 임상담(林尙談)이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홀어머니인 경주 최씨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다.

어느날 모친이 병에 걸리게 되자, 형제는 서로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하였고, 어머니의 변을 맞보며 병구완을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죽으로 연명하면서 3년간 묘 아래에 초막(草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오두막집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두 효자는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의 불효를 보고 해치려고 하느냐?’ 하였다. 그 후에도 호랑이는 3년간을 매일 와서 닭이 울면 물러갔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히 여기던 중에 문득 형제의 꿈속에서 호랑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아무 곳에서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구해 달라고 청하였다. 깜짝 놀라 깨어나 그곳으로 달려가 본즉 호랑이

가 과연 함정에 빠져 있었다. 형제는 포수에게 간청하여서 재물을 주고 호랑이와 바꾸어 풀어주었다고 한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충남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러운 연기의 문화재)

○ 임 부 영 (林敷榮)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3-4세 때부터 뛰어난 선행으로 마을 사람들이 신동(神童)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병환에 음식과 약달이기, 이부자리 일체를 자신이 살피고, 상을 당하며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아침, 저녁으로 성묘하고 일생 동안 삭망(朔望)과 성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효로써 군자감정(軍資監正)의 증직을 받았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징 표 (林徵杓)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효자 임연(林筵)의 손자로 계모의 병환에 대변을 맞보며 하늘에 빌고 상을 당하여, 3일간 곡을 끊이지 아니하고 3년간 시묘하였다. 그가 죽은 후 신령스러운 까치가 묘소에 집을 짓는데 나무토막을 물어다가 ‘효(孝)’ 자를 그렸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헐어버리자, 탄 까치가 역시 나무토막을 물어다 ‘효(孝)’ 자를 세 번 그렸다. 여러 선비가 도(道)에 알리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달 연 (林達淵)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효부 한씨의 장손이다. 집안의 좋은 행실을 이어받아 사람들이 모두 소년 효자라고 칭찬하고 도에 알리었다.(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달 원 (林達源)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효부 한씨의 차손이다. 부친이 담종을 앓는데 의원이 박쥐만이 약이 된다고 하자, 한 마리 박쥐가 날아와 그것을 잡아 태워서 약으로 썼더니 과연 효력이 있었다고 한다. 도에 알리어 포상을 받았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양 조 (林養祚)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통정대부 임석분(林碩芬)의 현손이다. 그의 아우 임양문(林養文)과 함께 서로 격려하여 글을 읽히고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기고 살아서 힘껏 효도하며 죽어서도 아쉬운 점이 없었다. 이웃에서 칭찬하였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노 수 (林魯壽)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모친이 이질을 앓는데 대변을 맛보아 시험하고 임종에 손가락을 깨물어 소생시켰다. 유림의 상장(上狀)이 있으며 아들은 희철이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태 조 (林泰祚)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동중추 임두칠(林斗七)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부친을 여의고 효성으로 모친을 봉양하는데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자 공은 그때 나이 63세였지만, 항상 모친을 등에 업고 뜰을 거닐어 모친의 뜻에 따랐다. 사적은 삼강록(三綱錄)에 나와 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학 수 (林學壽)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호는 해사(海史)이다. 학문과 행실을 겸비하였다. 90세는 노모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하여 모자라는 데가 없었다. 조카 임장우가 지은 묘비가 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학 희 (林學喜)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천성이 온순하고 근면하여 효도와 우애를 근본으로 삼았다. 내부협관(內部協辦)의 증직을 받았다. 임장우가 지은 묘갈명이 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헌 일 (林憲一)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호는 정송(靜松)이다. 동의금 이수담(林秀潭)의 후손이다. 효도를 다하여 계모를 섬기며 임헌창(林憲昌)과 함께 한 집안의 두 효자로 알려졌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사 근 (林士根)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위의공(威毅公) 임흥(林興)의 후손이다. 후손 임장우가 쓴 묘표가 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상 철 (林祥喆)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자는 준겸(俊謙)이다. 판결사 임석번(林碩蕃)의 9세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12년간 옆에서 되시고, 상을 당함에 예를 다하였다. 향리에서 효자로 칭찬하였으며,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연기지, 연기인물지)

○ 임 명 원 (林命源) (1803 ~ 1835)

명원(命源)은 자(字)는 효숙(孝叔)이며, 호는 호산제(湖山霽)이다. 호군(護軍) 찬현(贊賢)의 6대손이다.

서기 1803년 6월 12일과 서기 1835년 3월 3일과 남면 전월산(轉月山) 선영(先塋) 아래 간좌(艮坐)언덕은 그의 생졸과 묘소이다.

그는 타고난 품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릴적부터 장성함에 이르도록 부모를 잘 섬겨 무릇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함과, 거처를 살피고 문안드리며, 따뜻하고 서늘하게 해드림과, 이부자리를 해드리고 음식을 올리고 약을 드리는 절차 등에 조금도 예에 어긋남이 없었다. 한편 친척간에 화목하고 향당(鄉黨)에서 규간(規諫)하고 구휼(救恤)하여 일찍이 돈독(敦篤)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하며 널리 경사를 통하였다.

이에 사림(士林)에서 그 학문을 추중(推重)하고 그 효행을 천거(薦舉)하여 마침내 등문(登聞)하여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教官)에 증직(贈職)되었다. 영인(令人) 만녕노씨(萬領盧氏)는 장덕(章德)의 따님인데, 무오년(戊午年) 3월 20일 생으로 계축(癸丑) 5월 8일 졸하고 묘소는 합부이다.

타고난 자질(資質)이 곧고 착하여 너그럽고 넉넉하여 시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부군(夫君)을 손님처럼 공경하였다. 부군이 침질이 있어 의약으로 효험이 없고 마침내 돌아가심에, 구름과 안개가 집을 덮고 우레와 번개가 갑자기 일어나 한 줄기 무지개가 집 곁으로부터 선공(先公)의 묘소에까지 뻗었다. 사람들이 이르게기를 정열(貞烈)에 소치라 하고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참고문헌 : 연기군지,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 공주군지

제 5 절 효 · 열 부

○ 임 상 협 (林尙謙) 처 한산이씨(韓山李氏)

한산이씨(韓山李氏)는 부안임씨 임상협(林尙謙)의 처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는데, 병자호란 때 적들이 나타나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듯이 하여 숨어 있었다. 그런데 집안의 어린아이가 그 옆에 엎드려 있다가 적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씨를 구출해 내자, 적병이 멀리서 이것을 보고 다시 쫓아와 잡으려 하였다. 이씨는 적을 원망하며 화를 내고 적에게 욕을 하니 적병이 그녀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몸을 던졌던 연못을 ‘열녀배미’라 부른다. 1666년(현종 7) 명정을 받았다. 현재 남면 월산리에 1749년(영조 25)에 건립된 열녀비가 있다.

(연기인물지, 연기군충효열유적)

○ 열녀 일개 (一介)

일개(一介)는 예조에서 편찬한 『효행효제등록』의 1729년(영조 5)~1736년(영조 12)까지의 정려질(旌閭秩)에 공주의 사비(私婢)로 정려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남면 송원리에 1725년(영조 1) 열녀비가 있다.

(연기군충효열유적)

○ 재인(才人) 정성길(鄭性吉) 모 곽씨(郭氏)

재인 정성길의 어머니이며 스스로 남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은 안 해 본 바가 없지만, 급기야 상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스스로 염습하는 것을 보고 살피며 출상 날에는 집안 사람들에게 울며 말하기를 “나는 비록 천인이지만 어찌 죽은 남편의 은공을 잊고 구차스럽게 남은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샘에 빠져 죽으니 같은 날 같은 묘혈에 합장하였다.

『연기군지』 『연기인물지1997』

○ 윤봉연 처 완산이씨

진사 이서정의 딸로 함안윤씨 윤봉연에게 출가하였다. 효열의 천성이 빙옥과 같았다. 나이 30이 되던 해에 실화로 사당에 불이 났는데, 시어머니 조씨가 뛰어들어가 신주를 모셔내려고 하자 이를 말리고, 자신이 뛰어들어가 신주를 모셔냈으나 몸에 불이 붙어 참혹하게 타죽었다. 1933년 연기군지 편찬당시 유럽에서 위에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표창사실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연기지)

제 6 절 애국지사 · 독립운동가

○ 오 강 표 (吳剛杓, 1843 ~ 1910)

본관이 보성(寶城)이고 자는 명여(明汝), 호는 무이재(無貳齋)로 1843년(헌종 9)에 공주군 사곡면 월가리 도덕동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거유(巨儒)였던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와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 부터 성품이 바르고 의로우며, 효성 또한 지극하여 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행진 끈을 풀어 본 적이 없이 3년 상을 마쳤다고 한다.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하의 도리로 나라의 권리를 지

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살아 남을 수 있으랴.” 하고 오적을 토주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아편을 구해 공주향교 명륜당에 들어가 대성통곡한 뒤에 약을 먹었으나, 반사(半死)의 지경에서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광사(狂士)라 하였다. 이후 오강표는 세상에 살 뜻이 없다 하여 명강산(明岡山 : 공주 무성산)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몸에는 항상 독약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한다.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전해 듣자, 그는 절명사(絶命辭)를 지어 선산과 스승 임헌회의 묘에 고유한 후, 공주문묘(公州文廟)에 들어가 글을 벽에 붙이고 대성통곡한 후에, 향교 안에 있는 강학루(講學樓)에 올라가 자결하였는데, 이 때가 1910년 10월 16일이었다. 남면 갈운리에 그의 묘가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 공주산성 공원입구와, 그가 태어난 사곡 월가리 도덕골에도, 비가 세워져 있다.

○ 임 휴 철 (林倬喆 1850 ~ 1920)

본관은 부안이며 호는 호산(湖山)이다.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인효(仁孝)하고 식견이 많았다. 1910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단발령에 항거하여 “차라리 나의 목을 자를지언정 나의 머리는 결코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본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정(日政)의 관문을 출입하지 않았는데, 이 일은 니산(尼山) 권리사(闕里祠)의 『청금록』(靑矜錄)에 기록되고 있다.

○ 황 희 연 (黃禧淵, 1863 ~ 1924)

본관은 창원이며 호는 혜산(惠山), 연기군 남면 방축리에서 태어났다. 유학자(儒學者)였던 그는 한일합방 후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것을 개탄하여 공산사곡동(公山社谷洞)에서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배일애국사상(排日愛國思想)을 고취시켰고, 자손들에게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평생동안 일본상품을 쓰지 않았다.

○ 황 도 연 (黃道淵, 1863 ~ 1924)

본관은 창원(昌原)이며 호는 혜산(惠山)으로 간재(良齋)의 문인이다. 배일사상

(排日思想)의 일환으로 차편(車便)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녔으며, 서신왕래도 우편에 의하지 않고 인편으로 통했다. 또한 일본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았다. 나라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후, 세상을 개탄한 나머지 공주 두곡동에서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항일 애국사상을 주입했다.

○ 임 영 철 (林瑩喆, 1869 ~ 1939)

자는 공여(公汝), 호는 월계당(月桂堂)으로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났다. 유교경전에 능통했던 그는 후진 양성을 위하여 애쓰다가 한일합방 후에는 임천(林泉)에 은거하면서 제자들을 길러 냈다. 교육내용은 주로 배일사상(排日思想)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자신도 평생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 한 번은 일본인 군수가 세운 비를 몽둥이로 내리쳐 철거해 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 황 득 수 (黃得秀, 1869 ~ 1939)

본관은 창원으로 개국공신의 형조판서 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의 후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탄압에 분개하던 중 3·1운동 때에 동지(同志) 임헌상(林憲祥)과 더불어 주민들을 선동하여 방축리 뒷산에 있는 황우산에 올라가 대한독립을 외치다 일제에 의하여 체포, 수감되었다.

○ 임 수 철 (林壽喆, 1880 ~ 1960)

본관은 부안(扶安)으로 자(字)는 덕화(德化), 호는 직당(直堂)이며,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행(儒行) 임천우(林天佑)의 아들로써 인재교육에 전념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에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자신의 몸조차 추스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여 망곡례(望哭禮)를 행할 때의 그의 통곡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한다.

3·1운동 때에는 주민을 선동하여 남면 양화리에 있는 전월산(轉月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일제경찰의 눈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은거하다 해방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 임 대 수 (林大洙, 1882 ~ 1911)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고려때 공조전서를 지낸 임난수(林蘭秀)의 19세손이다.

1882년 2월 12일 연기군 남면 송담리 표석동에서 아버지 임헌직(林憲稷)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학수(學洙)였고, 자(字)는 호경(浩京)으로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나, 명철한 두뇌와 비범한 인품과 장대한 기골을 가졌다. 사람들은 학수가 마을아이들과의 전쟁놀이에서 늘 앞장서서 지휘하였기에 장차 큰 일을 할 인물이라고 믿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학문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약관 24세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울분을 토하며 일본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임대수는 송담리 표석동에서 의병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충청일원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지 권정남과 백여명의 강력한 병사를 인솔하여서, 왜군토벌에 동분서주 하기를 19개군을 돌면서 활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일본은,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內政)과 외정(外政)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더 나아가 군대를 해산하여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해산군인들은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의 자결을 계기로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는데, 이것이 정미의병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후 이러한 의병봉기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처럼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한 가운데 연기군에서는 임대수가 주도하여 의병운동을 이끌어나갔다. 1907년 9월 3일 의병 100여명을 모집하고 전의 소정역을 습격하였다. 일본군과 첫싸움을 벌인 후 직산 경무소, 은진, 정산 등의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였고, 1908년에는 당진, 청양, 비인, 한산, 임천, 면천, 신창, 아산, 평택 등지의 일본 경찰서를 급습하여 구속된 수백인의 지사(志士)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정한 거점이나 주둔지역을 정하지 않고,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 격투를 벌였다. 임대수는 호경대장이란 별칭처럼, 호랑이가 화가 나서 덩벼들 듯 용맹하게 싸웠고, 싸움터마다 전승을 거두었다.

1911년 6월 16일 임대수는, 연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동지 권정남과 함께 공주군 의당면 태산리에서 전투를 벌이기로 하였다. 이 때는 한일합방의 다음해이기 때문에 의병들은 다른 어느 때 보다 굳은 각오로 전투에 임하였고, 의병장 못지 않게 일본 경찰 또한 병력을 증강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태산리에 집결한 의병들은 누군

가의 밀고에 의해 본격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이 때에 의병들은 태산 강당(이씨 재실)의 높은 담을 넘어 마루 밑에 숨어 격전을 벌였지만, 임대수는 이곳에서 동지 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비록 그는 전사하였지만 정부에서는 그가 활약한 의병활동의 업적을 기리어, 1980년 8월 14일 건국포장을, 1990년 12월 26일에는 건국훈장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현재 그의 묘는 1982년에 이장한 대전공원묘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의 출생지인 연기군 남면 송담리 표석동 입구에 그의 공적비가 세워졌다.

○ 임 헌 규 (林憲奎, 1885 ~ 1954)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났다.

임병주(林炳周), 이덕민(李德敏), 김범식(金凡植), 임순철(林筍喆), 임헌빈(林憲斌), 이덕주등과 더불어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3월 23일, 대평리 장날을 기하여 분기(奮起)하였다.

그는 수 백 명의 시위군중을 선두에서 지휘하며 태극기를 앞세워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일본경찰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끌려갔다. 부상이 심하여 집에 와서 치료받다가 후일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1919년 6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가 수년도 채 못 되어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자, 그의 동지(同志) 임정철(林鼎喆)이 벗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시(漢詩)를 남겨 전해져 오고 있다.

會經己未三初一 聲討島夷不顧身, 仁以干戈何畏楚 義爲甲?亦輕秦

○ 임 희 수 (林熺洙, 1887 ~ 1934)

본관은 부안(扶安)으로 자(字)는 광도(光道)이고 연기군 남면 송담리에서 임영문(林永文)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33세가 되던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하고 임숙명(林淑明), 임만수(林萬洙)와 수 차례의 비밀 모임을 가지면서 시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약속된 4월 1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임숙명, 임만수 그리고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서운산(瑞雲山)으로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청이 다하도록 외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공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징역 3개월, 태형(笞刑)90대의 형을 언도 받았다. 출옥 후 그는 옥고

로 인한 병을 얻어 1934년 1월에 사망하였다.

○ 임 헌 석 (林憲奭, 1891 ~ 1969)

본관은 부안(扶安)으로 자(字)는 주백(周伯)이다. 1919년 3월 30일 조치원 장날을 이용한 시위에 참가하여 수많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때 일경이 쏜 총탄에 하복부를 맞았다. 상처를 입은 채로 역전 헌병대로 끌려갔으나, 상처로 인해 그가 의식을 잃자, 일인들은 그대로 방치했다. 이를 본 주민들이 급히 일인이 운영하는 ‘고시의원’으로 옮겼으나, 조선인이란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 당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했기에, 한약으로 치료하여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후유증이 심하여 항상 병석에 있다가 79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 임 헌 빈 (林憲斌, 1885 ~ 1975)

본관은 부안이며 호는 학산(鶴山)으로 고려말 임난수의 후손이다. 1894년 9월 8일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가학동 729번지에서 아버지 임규철과 어머니 기계유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75년 7월 5일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난한 생활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을 돌보며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임병하에게 사사를 받았다. 그는 일찍이 서당을 개설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으며, 공직으로는 연기향교 직원과 합호서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사례류집』, 『합호서원지』가 있고 맹의섭과 같이 「연기지」를 편찬하였다.

또 암울한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전국에 퍼지자 고향인 연기군 남면 양화리, 진의리, 고정리 일대의 봉화시위에 앞장서 주도하였고, 3월 23일 금남면 대평리 장날을 기해 수백명의 군중을 모아 태극기를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며 맹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 임헌규(林憲奎), 임병주(林炳周), 이덕민(李德敏), 김봉식(金鳳植), 임순철(林筍喆), 임헌빈(林憲斌)등과 함께 앞장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에게 검거되어 모진 고초를 겪었다. 그는 3·1운동을 보다 거국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하여 의친왕(義親王)을 수반으로 하고 전범무대신 김희진(金喜鎭)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조직한

대동단(大同團)의 참모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과 내통한 후에 연기군의 감직(監職-군대표)이 되었다. 길주(吉州)의 최시린(崔時麟), 청주(淸州)의 윤집(尹集), 오지항(吳志恒), 유성(儒城)의 권성채(權聖采), 그리고 연기군 직원이었던 임헌성(林憲成)과 지방 책임을 받고 활약하던 동지 일부가 만주에서 떠났다. 그러나, 의친왕 일행이 상해로 탈출하려다 안동현에서 발각되었다. 결국 그는 국내에 잠적했으나 검거선봉 속에서 피검되어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는 임헌성과 결합하여 독립자금경재에 활약하던 장의지사로 왜적이 참패·주멸될 때까지 조국 광복에 투신한 항일지사였다.

또한 연기문조에 공로가 컸으며 모친 유씨가 87세의 장수를 다하기까지 효성이 지극하여 군과 성군관에서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당질 임필수가 세운 비가 남면 진의리에 있다.

○ 임 헌 상 (林憲祥, 1884 ~ 1954)

본관은 부안(扶安)이고 자는 상인(祥隣)이며 남면 방축리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때에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 이민(里民)을 선동하여 황우산(黃牛山)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일본경찰에 주동인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에 출옥하였으나 수감당시에 가혹한 고문의 여독으로 광복을 일년 앞둔 1944년에 사망하였다.

○ 임 헌 성 (林憲成, 1893 ~ 1927)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남면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연기군청에 재직중이면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인근부락에까지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의친왕(義親王)을 수반으로 하고 전법무대신(前法部大臣)인 김가진(金嘉鎭)을 고문으로 하여 조직된 대동단(大同團)의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과 내통하였다. 그리고 당시 연기군을 무대로 하여 활약했던 임헌무(林憲武)와 길주의 최시린(崔時麟), 청주의 윤집(尹集)과 오지항(吳志恒), 유성의 권성채(權聖采)등과 규합하여 만주로 건너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중 일제의 총탄에 맞아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함북갑산(咸北甲山)으로 피신하고 있던 중에 체포되어, 여순형무소에 수감되어 2년의 형기를 치루었다. 출옥후 고문의 여독으

로 병석에 있다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1927년에 사망하였다.

○ 임 병 문 (林炳文, 1886 ~ 1945)

병문(炳文)은 호군찬현(護軍纘賢)의 8대 종손이다. 증조는 덕유(德儒)요, 조(祖)는 명성(命性)이요, 아버지는 한상(漢相)이며, 어머니는 성주배씨(星主裴氏)이다.

1886년에 태어나서 그 모습이 당당하였고, 지기(志氣)가 고결하였다. 일본에 의해 나라가 합방(合邦)되어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중 기미년에 이르러 족인(族人) 헌빈(憲斌), 헌규(憲奎)와 이덕민(李德敏), 김봉식(金鳳植) 등과 모의(謀議)하여 동년 3월 23일 금남면 대평시장에서 천여명의 군중을 모아 일제히 대한민국만세를 연호하니 민족의 정기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에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악형(惡刑)을 당하였어도 굴(屈)함이 없었다. 그 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해방과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고문과 악형에 의해 고질병을 얻었으니 그 기개(氣概)를 펼치지 못한 채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1945년 3월 2일은 그의 기일이다.

배위(配位)는 경주김씨(慶州金氏)이고, 묘는 남면 진의리 산 56번지 중허리 을좌(乙坐)이다. 참고문헌 : 공주군지(公州郡誌), 연기군지(燕岐郡誌)

부안임씨전서공파문헌록(扶安林氏典書公派文獻錄)

○ *정 낙 진 (丁洛鎭)

1925년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태어났다. 일본 동경철도학교에 재학중인 1941년 12월에 항일결사「우리 조선독립 그룹」에 가입하여 활약하였다. 그는 이 그룹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현창석(玄昌碩)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독립의식을 길렀다. 이들은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 속에서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이때를 독립의 기회로 보고 조선민중을 규합하여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 이 같은 계획은 국내와도 연결이 이루어져 공주 지역에서도 집단을 결성하고 서로 호응하였다. 이들이 계획한 활동 방향은 주요 건물의 파괴 및 식량창고의 방화, 수도 및 도로를 파괴함으로써 일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회원들은 활동 구역을 각기 분담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시켜 나갔는데, 도중에 일본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42년 3월에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검거되었다. 검거 후 그는 모진 고

문으로 정신장애를 일으켜 동경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초를 치렀다. 이 때에 일본에 살던 류석문(柳錫文)씨가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던 정낙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치료하여 본국으로 귀송시켰다.

第 8 編 문화재 · 유적

제1장 연기군의 문화재

제2장 남면 지역의 선사유적

제3장 남면 지역의 고분유적

제4장 남면 지역의 산성

제5장 연기군 남면의 사지

제6장 향교, 서원, 사우

제7장 남면의 금석문

제8장 남면의 정려

제9장 남면의 민속

제10장 남면의 발굴현황

제11장 남면 역사의 큰 흐름

제1장 연기군의 문화재

제1절 연기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1. 국보

1) 계유명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 (癸酉銘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

지 정 별 : 국보 제 106호
시 대 : 673년 (통일신라)
크 기 : 총 높이 40.3cm
소 재 지 : 원재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재 - 국립 청주박물관



1960년대 비암사 3층석탑 위에서 3기의 불상이 발견·조사되었는데, 이들 불상은 비석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상(碑像)이라고 불려졌다. 사찰 이름 또한 비상(碑像)이 있는 곳이란 뜻에서 비암사(碑岩寺)라 부른다.

이 삼존석상(三尊石像)은 옥개(屋蓋-머리)와 대좌(臺座-받침)가 없어지고 현재 신부(身部-몸체)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면의 가운데에는 아미타불 삼존상과 그 권속들을 조각하였다. 본존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는 복련의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으며, 좌우에는 각각 1위의 보살입상과 인왕입상이 유경연화좌 위에 직립해 있고, 본존과 보살사이에는 나한(羅漢)의 상반신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불상 위로는 거대한 이중의 주형광배가 조각되어 있는데, 광배 좌우에는 연꽃 위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奏樂天)이 좌측에 4명, 우측에 4명씩 배치되어 있다. 뒷면은 4단으로 구획하여 각 단마다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불상을 5구씩 병렬로 조각하였는데, 각 불상 사이사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석상의 중요성은, 조성한 연대를 비롯하여 발원자의 이름과 관등이 나타낸 앞면 하단과 측면, 뒷면의 명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명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동인물인 전씨(全氏)가 백제 멸망 직후(癸酉年, 676년)에 백제국왕과 대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서광암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瑞光庵 癸酉銘 三尊 千佛碑像)

지 정 별 : 국보 제 108호
시 대 : 676년(통일신라)
크 기 : 총높이 91cm
소 재 지 : 원재 - 조치원읍 서창리 서광암
현재 - 국립 공주박물관



이 석상(石像)은 현재 고려대학교가 들어서있는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었던 서광암이라는 정자에서 1961년에 발견·조사되었다. 비암사의 비상(碑像)과 같은 것으로 연기지역에서 발견된 비상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상·하 2석으로 되어 있는데, 연화대석(받침대)과 신부(身部-몸체)가 1석이고 정상부에 2단의 천개(천개)가 별석(별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석상은 장방형의 비신형(碑身形)을 이루고 있으며, 하부중앙에 삼존상을 조각하고, 그 양측에 각 4행의 명문(銘文)을 음각하였다. 그리고 삼존과 전면을

10단으로 나누어 9단에는 각 20위의 작은 여래좌상을 조각하였으며, 그 아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본존은 방형 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무릎 밑과 하단에 연화좌가 있고 그 사이에는 상현좌의 양식을 조각하였다. 머리는 부서져 없어졌으며, 가슴에는 만자(卍字)가 새겨져 있다. 소형 불상의 배치는 측면 각 14단에 8위씩, 뒷면 16단에 각 12위씩으로, 4면 전체에 걸쳐 720위가 조각되어 있어 공간을 남기지 않았다.

옥개석은 장방형 2단을 이루고 상·하단과 뒷면에도 작은 부처님이 약 200위가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전면에 새겨진 작은 불상은 천불신앙(天佛信仰)에 따르는 천불(千佛)의 표현으로 해석되며, 석상(石像)에 조성된 천불의 유예로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문에 새겨진 계유년(癸酉年-673년)이라는 연대로 미루어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癸酉銘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과 같은 시기에 백제의 유민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보 물

1) 기축명 아미타 여래제불 보살석상 (己丑銘 阿彌陀 如來諸佛 菩薩石像)

지 정 별 : 보물 제 367호

시 대 : 689년 (통일신라)

크 기 : 총높이 569cm

소 재 지 : 원재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재 - 국립 청주박물관



이 석상은 1960년 발견 · 조사된 비암사의 석불비상(石佛碑像) 중 가장 큰 것으로, 전면에만 조각이 되어 있고 뒷면에는 4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곡면(曲面)을 이루고 있다.

전면에 가득히 군상(群像)을 조각하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도상적(圖像的)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 한 폭의 변상(變相)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아미타경(阿彌陀經)에 보이는 극락세계(極樂世界)의 장면을 그대로 이 석상에 부각시킨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쪽에 단판의 연꽃 문양을 돌려 석상 전체의 대석(臺石)으로 삼았으며, 그 위에 만(卍)자문의 난간과 입체감을 살린 보계(步階)를 새겨 놓았다. 보계 좌우에는 연꽃 위에서 합장하는 인물상을 대칭되게 배치하여, 아미타경에 보이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의 장면을 표현하였다. 연꽃 중앙에는 큰 연꽃이 솟아났고, 그 곳에서 분기(分岐)된 꽃술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이 원형의 머리광배를 배경으로 결과부좌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엄격한 좌우대칭의 배치법에 의해 여러 불상이 나열되어 있다. 작은 불상 사이에는 보주(寶珠)와 영락(瓔珞)이 뒤덮인 큰 나무의 가지와 잎을 표현하여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뒷면에는 4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기축년(己丑年-689년)이라는 명문으로 미루어 이 석상이 백제 멸망 직후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미륵보살 반가석상(彌勒菩薩 半跏石像)

지 정 별 : 보물 제 368호

시 대 : 통일신라

크 기 : 높이 40cm

소 재 지 : 원재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재 - 국립 청주 박물관



이 석상은 1960년 비암사에서 발견된 비상(碑像)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명문은 없지만 석비의 형태를 띠고 있다.

4면에 모두 불상이 조각되어 있고, 전면이 주불(主佛)인 점은 다른 석상과 같다. 옥개(屋蓋-머리)와 대좌(몸통)가 1석으로 되어 있으며, 전·후면은 T자형을 이루고 측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전면의 네 모서리에는 둥근 기둥 모양을 새겨서 감실(龕室)을 표현하였으며, 그 속에 보살 좌상 1위를 조각해 놓았다. 보살상은 방좌(方座)에 앉아 왼쪽 다리는 내리고 오른발은 왼쪽 무릎 위에 얹은 이른바, 반가좌를 취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턱에 대고 있는 이른바, 사유형(思惟形)을 보이고 있다. 보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천의는 두 팔에 걸쳐서 대좌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머리 위에는 천개(天蓋)가 새겨져 있고, 다시 그 위에 보주와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하단 좌우에는 정면을 향해 무릎꿇고 합장한 인물상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승려와 공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뒷면은 앞면과는 달리 전면 가득히 보탑(寶塔)을 조각하였는데, 2단의 기단이 있으며 그위에 타원형의 탑신이 마련되고 다시 그 위에는 편판을 놓아 대소 3주의 상수를 장식하였다.

이 석상은 삼국시대에 유행된 미륵신앙(彌勒信仰)을 배경으로 삼아 크게 발달한 반가사유상 양식의 귀중한 유품이다.

3) 연화사 무인명석불상 부대좌 (蓮花寺 戊寅銘石佛像 附臺座)

지 정 별 : 보물 제 649호
시 대 : 1978년 12월 7일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1047
소 유 : 연화사
규 모 : 높이 52.4cm 너비 22.5cm 두께 16cm
시 대 : 678년 (통일신라)



이 석상(石像)은 장방형의 돌 4면에 각각 오존(五尊)과 3존(三尊)을 조각한 것으로 여래좌상과 반가사유상이 새겨진 앞뒤면이 주된 조각면이고, 나머지는 장식적인 성격의 것이다.

앞면에는 5존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손상이 심하여 얼굴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연(蓮) 줄기의 대좌 위에 앉은 본존불(本尊佛)을 중심으로 각각 나한상과 보살입상이 협시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중앙에 본존인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좌우에 향로를 들고 꿇어앉아 본존을 향하고 있는 보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3존불상(三尊佛像)이 새겨져 있는데, 그 표현 형식이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아미타삼존불비상과 동일하다. 양 측면의 상단에는 여래좌상을 조각하였으며, 하단에는 앞뒷면의 난간과 연결되는 만(卍)자문의 난간을 조각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낮게 다듬은 다음 4행의 조상기(彫像記)를 새겼다.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대좌는 불상과 같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크기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윗면의 결구공도 비신 하단에 돌출된 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계유명아미타삼존불비상과 동일한 조각기법과 무인(戊寅)이라고 새겨진 명문을 통하여 이 불상이 678년(신라 문무왕 18년), 즉 백제 멸망 직후에 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아미타불과 미륵존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소중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4) 연화사 칠존석불상(蓮花寺 七尊石佛像)

지 정 별 : 보물 제 650호

지정년월일 : 1978년 12월 7일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1047

소 유 : 연화사

규 모 : 높이 51cm 밑너비 33cm 두께 10cm



이 석상은 반타원형의 납석(蠟石)으로 만들어진 불비상(佛碑像)의 하나로 앞뒤 앞면에 조각이 되어 있다.

주형(舟形전)의 화강암에 본존여래좌상을 중심으로 협시보살 2구, 인왕상 2구 등 7존(尊)이 새겨져 있다. 본존불(本尊佛)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손의 모양과 옷 주름의 형태 등으로 보아 아미타불(阿彌陀佛)로 추정된다. 아미타불은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보장해주는 부처로 어떤 중생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면 서방극락의 아름다운 정토(淨土)로 맞아간다고 한다.

본존불의 광배 바깥쪽에는 줄기가 달린 연꽃 위에 가부좌한 화불 3구가 보이는데, 배치간격으로 미루어 원래는 모두 7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불 사이의 여백은 사실적인 불꽃 문양으로 메워져 있다.

뒷면 하단에도 앞면에서 연속되는 대석부를 조각하고 그 윗면에 주형광배를 배경으로 여래좌상 1구를 새겼으며, 그 좌우에 계유명삼존석불비상에서와 같이 줄기와 잎이 달린 연꽃이 솟아 있다. 연기지역 불교의 높은 수준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전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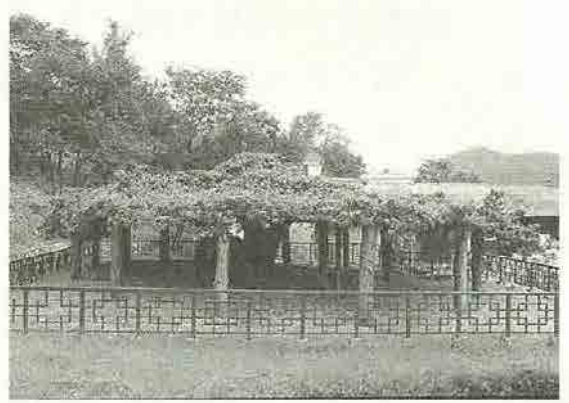
1) 봉산동 향나무(鳳山洞 향나무)

지 정 별 : 천연기념물 제 321호

지정년월일 : 1982년 11월 4일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128외 1필



측백나무에 속하는 향나무는 한국 또는 중국이 원산으로 우리 나라 정원수의 대표적 수종이다. 또한 향기가 그윽한 상록수로 엄동설한에도 절개를 지킨다 하여 인간에게 효열(孝烈)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봉산동의 향나무는 400여 년이 넘는 것으로, 강화 최씨인 최중룡(崔重龍)이 집안에 효열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약관의 나이에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 후손들 중에는 8대에 걸쳐 15명의 효자와 열부가 배출되었다.

키는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였으나, 줄기 둘레가 2.5m에 이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어 나무의 모양이 꿈틀거리는 용처럼 생겼으며, 위가 우산처럼 퍼져 있다.

후손들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고, 이로부터 동쪽 500여 m 떨어진 곳에는 최중룡의 묘소가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마을이 평화롭고 좋은 일이 있으며, 쇠약해지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제2절 연기군의 도지정 문화재

1. 비암사 극락보전(碑岩寺 極樂寶殿)

지 정 별 : 유형문화재 제 79호

지정년월일 : 1978년 12월 30일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4



극락보전은 불교도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사하고, 그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아미타불은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보장해주는 부처님을 의미하며, 어떤 중생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면 서방극락의 아름다운 정토(淨土)로 맞아간다고 한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덩벙 초석을 놓고 배흘림이 뚜렷한 둥근 기둥을 사용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집으로, 조선 후기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다포계(多包系) 건물이다.

전내(殿內)에는 아름답고 정교한 아미타불좌상(阿彌陀佛坐像)이 안치되어 있고, 불단(佛壇) 위에는 단집이 만들어져 있다. 1974년에 보수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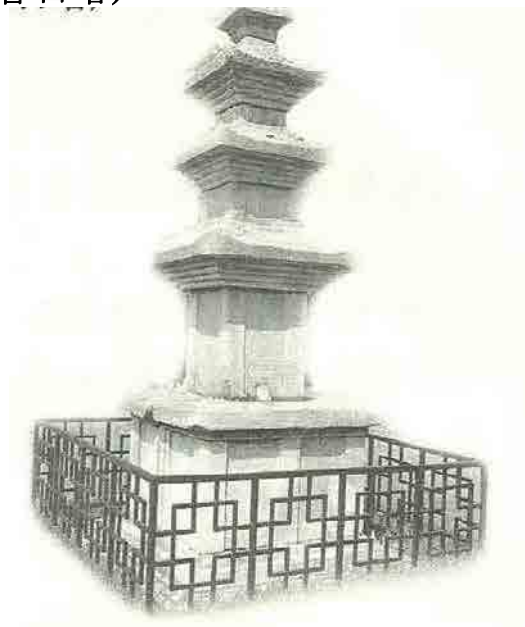
2. 비암사 3층석탑(碑岩寺 三層石塔)

지정별 : 유형문화재 제 119호

지정년월일 : 1985년 7월 19일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4

시 대 : 고려시대



비암사 삼층석탑(三層石塔)은 극락보전(極樂寶殿) 앞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탑의 높이는 2.9m이다. 1960년 이 석탑의 꼭대기에서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癸酉銘 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의 2기의 석불비상이 발견되어 각각 국보 106호와 보물제 367·368호로 지정되었다.

이 석탑은 고려때의 것으로 추정되며, 단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2단으로 된 하대석(下臺石)과 우주(隅柱)·탱주를 갖추고 있는 중대석(中臺石), 그리고 상대갑석(上臺甲石)이 안정성을 지니며 일층탑신(一層塔身)이 연결되었다. 옥개석(屋蓋石)의 층급(層級)받침은 4단(段)으로 되어 있고 1,2,3,층 옥개석은 체감률이 심하다. 상륜부(上輪部)는 없고 위치도 원래의 자리가 아니었는데 1982년에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상륜부가 없고 상대갑석이 뒤집혀 있던 것을 해체하여 기단부(基壇部)를 보완하고 위치를 건물 중앙으로 옮겨 복원공사를 완료하였다.

3. 효 교 비(孝橋碑)

所在地 : 서면 신대리(기룡리)
 時代 : 1773년(영조 49) 명정
 指定 : 유형문화재 제 108호
 지정년월일 : 1984년 7월 26일



효교비는 홍연경과 그 아들 홍정설, 손자 홍우적, 홍우평, 홍우구, 증손 홍만, 현손 홍득일 등 남양홍씨 가문에서 5대에 걸쳐 배출한 7명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5세 7효의 전통은 홍연경의 숙부인 홍신민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는 159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0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학유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의 병환에 피고름을 빨아냈다거나,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하던 중 너무 울어 실명상태에 이르렀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평소 효행이 지극하였다. 또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조카들에게 논밭을 별급해 주었으며, 특히 연경에게는 서책을 주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를 기울여 조헌(趙憲)의 의병활동을 도왔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쌀 300석을 풀어 빈민들을 구제하였다고 전한다. 홍연경(洪延慶, 1579~1647)은 홍의민의 차남으로 지역의 대소시험에서 12번이나 장원할 정도로 학문에 출중하였으며, 그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작성한 글은 경향각지에서 과거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모범답안처럼 이용될 정도였다고 한다. 효심 또한 매우 지극하여 부모님이 병환이 나자 이를 극진히 간호했으며, 결국 돌아가시자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경서를 섭렵하는데 주력하여 충청우도지역에서는 그만한 학문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병자호란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책 15권을 갖고 피난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다고 한다. 홍연경의 차남 홍정설(洪廷高, 1615~1671)도 부친을 닮아 효심이 매우 지극하였는데, 어머니가 병이 나자 주야로 옷

을 벗지 않고 간호하였으며, 목욕하고 기도하며 음식을 직접 드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가 잘 잡수시지 못하면 자신도 식사를 걸렀으며, 좋다는 약은 그 효험을 시험하여 썼고, 그로 인해 차도가 있어 사람들이 효행으로 어머니가 회춘하였다고 칭송하였다. 후에 노환이 있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마시게 하였고, 3년상을 치루면서 옷거나 친구를 만지도 않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효행을 석호 윤문거도 백행의 근본이라고 칭송하였으며, 이러한 효행으로 말미암아 효종조에 특별히 도사에 제수되었다. 현종조에 호조좌랑에 증직되었다가 후에 증손 득후로 인해 영조 때 사복시정으로 추가증직되었다. 그의 세 아들 우적(1634~1701), 우평(1640~1699), 우구(1646~1698) 역시 모두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석호 윤문거에게서 수학하였는데, 특히 우적은 학문이 뛰어나 대소 향사에서 연속으로 장원을 차지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자 과거를 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병이나자 삼형제가 함께 밤낮으로 간호하였으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드리기도 하였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가 3년간 함께 시묘하였다고 전한다. 우적은 지평에 증직되었다가 이조참의에 추가 증직되었고, 우평은 효행으로 급복을 받았으며, 우구는 지평에 증직되었다. 우평의 차남 홍만과 증손인 홍득일도 효로써 이름을 날려 1772년(영조 48)에 왕이 이들 7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효교동”이라는 마을 이름을 하사하였으며, 후손들이 비를 세워 이 사실을 기념하였다.

4. 백로 서식지(白鷺 棲息地)

지 정 별 : 기념물 제 71호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20일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산



백로는 백로과에 속하는 물새의 한 종류로 보통 날개길이 27cm 쯤지 10cm가량이고 몸빛은 백색이나 눈 주위에는 황백색을 띠며 긴 부리와 다리는 흑색, 발가락은 황녹색이다. 나무 위나 숲에 등지를 짓고 4~5월경에 3~5개의 알을 낳고 연못, 논, 강가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약 100여종의 백로가 살고 있다.

금남면 감성리 일대는 약 500여 년 전부터 백로들이 서식하기 시작했으며, 왜가리, 황로 등도 같이 날아온다고 하는데, 많을 때는 5,000여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백로가 많을 때는 풍년이 들고 적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5. 이성 (李城)

지 정 별 : 기념물 제 77호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29일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26

규 모 : 6,645m²

재 료 : 석축



이 산성은 해발 229m의 산 정상부를 감싸 만든 테피식의 산성이다.

총 둘레는 510여m에 이르는데, 현재는 허물어져 돌을 쌓은 양식이나 원래의 성 높이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고려 태조 때 이도(李悼)가 성을 쌓고 살던 곳이라 하여 이성(李城)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성 안에서 백제말기에 속하는 많은 기와 조각이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성은 백제시대에 국경 수비를 위한 산성으로 축성이 이루어졌고, 이후 계속 보수되면서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성의 크기가 1184척(尺)이고 우물이 한 곳 있었다고 한다.

6. 금이성(金伊城)

지 정 별 : 기념물 제 78호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29일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산 52
전동면 송성리 산 86

규 모 : 73,830m²



이 산성은 해발 430m의 금성산 위에 축조된 길이 714m의 테피식 산성이다. 성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철옹성(鐵甕城) 같다하여 쇠성 또는 금성(金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의 폭은 4.5~5m에 이르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높이는 3m정도인데, 남쪽의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성내시설은 성의 북단과 동남 서남단에 망루지의 형태가 남아 있고 동·북·서쪽에서 문터가 확인된다. 성내 정상 부에는 건물터의 흔적이 있으나 자세하지 않다. 성내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로 보여지는 항아리, 대접, 사발 등 토기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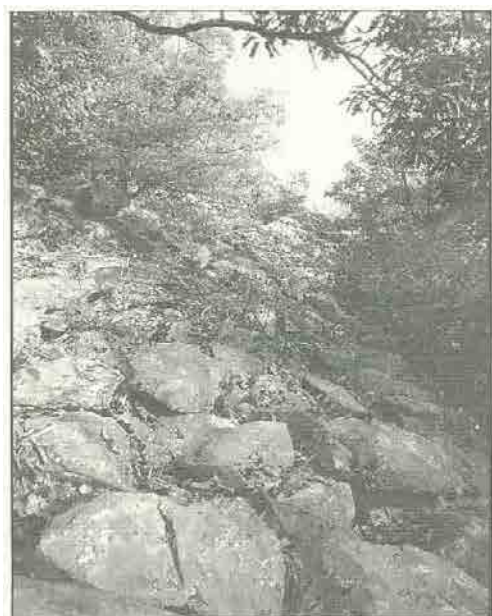
7. 운주산성(雲住山城)

지 정 별 : 기념물 제 79호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29일

위 치 :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산 90외

규 모 : 길이 3,210m²



이 산성은 해발 460여 m의 운주산 정상을 기점으로 서·남단에 있는 3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전동면 3개 마을과 전의면 2개 마을에 걸쳐 위치한 대단히 큰 산성으로 길이 3098m에 달하는 외성(外城)과 안쪽에 543m 달하는 내성(內城)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성과 내성은 모두 돌로 쌓았다.

성내 평지 및 구릉에는 크고 작은 건물지가 남아있어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는 백제시대의 토기 조각과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조각, 백제·고려·조선시대의 기와조각 등이 발견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의 동쪽에 고산(高山)이 있고 산에 고산산성(高山山城)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고산은 현재의 운주산으로 운주산성은 원래 고산산성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8. 연기향교(燕岐鄉校)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연기리 33번지

건립년대 : 1416년 (태종 16) 창건 추정

지정별 :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123호

지정년월일 : 1997년 12월 23일



연기향교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조선 초 대부분의 각 지방 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던 1407년(태종 7)~1413년(태종 13)사이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따름이며, 창건 당시의 위치도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향교가) 현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과 1824년에 간행된 『연기지(燕

岐誌)』의 '향교가 현의 동쪽 2리에 있다'는 기록의 차이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1530년부터 『연기지』가 간행된 1824년 사이에 향교의 이전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견연대나 그 사유는 확인할 수가 없다. 현의 서쪽 1리에 있었다는 향교의 원래 위치는 현재의 남면 월산리 황골마을 입구인 아랫말 야산의 남동향사면 중하단부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는 향교 건물의 축대 일부로 보이는 화강암의 자연석재가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변에는 무문·어골문의 회청색 와편과 청자·분청·백자편이 산포해 있다.

현재의 향교 건물은 구릉지의 경사진 곳에 전학후묘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길게 2단의 대지를 조성하여 하단에는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상단에는 제향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하였으며, 외삼문 대신 좌우 1칸 규모의 조그만 일각대문으로 정문을 삼고 있다.

또한 연기향교에는 향규 및 향안, 절목, 유생안 등 조선후기 연기지방의 신분구조와 향촌사회 운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9. 전의향교(全義鄉校)

지 정 별 : 기념물 제 124호

지정년월일 : 1997년 12월 23일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149-1



전의향교의 창건시기 역시 정확하지 않다. 다만 연기향교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 대부분의 각 지방 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던 1407년(태종 7)~1413년(태종 13)사이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처음 향교가 건립되었던 곳은 '현의 동쪽 1리(현 전의면 동교리 교동으로 추

정)’ 였으나, 지세가 협소하여 성현을 추가로 모시거나 제사를 올릴 대 법도대로 모시지 못하는 실정으로 말미암아 지세가 1649년 현감 이창윤(s李昌胤)에 의해 현의 남쪽으로 이건되었다. 그러나 1682년(숙종 8)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추가로 제향하면서 건물이 협소해져서 다시 현 위치인 현청의 서쪽 100보 가량 떨어진 곳에 옮겨 세웠는데, 이러한 사실은 『학교등록』과 『전성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 건물은 단지 명륜당과 대성전만을 두고 건물 앞에 각각 삼문을 둔 간단한 배치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현재의 건물은 1972년에 대대적으로 증축한 것이다. 명륜당 서측 담밖으로 수직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1996년 전사청을 신축하고 홍살문을 세웠다.

제임록과 선안(仙案), 흘기류 등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10. 매죽헌 사우 문절사(梅竹軒 祠宇 文節祠)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0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333



문절사는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을 모시는 사우로 1903년(고종 40년)에 세워졌다.

성삼문은 호가 매죽헌(梅竹軒)으로 홍성 노은동 외가에서 1418년(태종 18년)에 태어났는데, 막 태어날 무렵 공중에서 “낳았느냐” 묻는 소리가 세 번 들렸다고 해서 삼문(三問)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1438년(세종 20)에 문과에 급제한 후 항상 임금의 측근에서 유익한 건의를 많이 하였으며, 집현전의 직제학으로

재임할 때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455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예방승지로서 국새를 안고 통곡하였으며, 이듬해 아버지 성승,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1456년(세조 2년)에 죽임을 당하였다. 1758년(영조 34)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았다.

1902년 15대 방손인 성기운의 상소에 의해 충신으로 명정을 받아 달전리에 정려를 세웠으며, 이듬해에는 방손 성주영을 봉사손으로 삼아 소규모의 사우에서 세우 제사를 지내다가 1967년 5칸의 사우로 개축하여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문절사(文節祠)’라는 현판을 써주었다.

사우에는 성삼문의 영정과 유품, 친필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문서(沓文書)도 남아 있다.

11. 합호서원(合湖書院)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1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동면 합강리 105



이 서원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安珦, 1243~1306)의 영정과 위패(位牌)를 모신 곳이다.

안향은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1260년(고려 원종 원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자전서』를 베껴 가지고 돌아와 주자학을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이다. 호(號)는 회헌(晦軒)인데, 이는 그가 말년에 송나라의 주자(朱子)를 추모하여 그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국학생(國學生)의 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성된 일종의 장학기금인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하는 등 고려말기 유학진흥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그가 죽자 왕이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원나라 화가에게 명하여 그의 초상을 그리게 했다고 한다.

1716년(숙종 42년)에 후손들이 합강리에 영당을 창건하여 그의 영정을 봉안하고 춘추로 제사지내다가 순조 때 후손과 유림들이 서원으로 창건, 신덕재와 박반금재를 추향하였다. 고종 을사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는데, 그 후 후손들이 합호사(合湖祠)를 건립하고 안향의 영정만 봉안해 오다가 1949년에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향의 영정과 친필이 소장되어 있다.

12. 대곡리 3층석탑(大谷里 三層石塔)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2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이 탑은 화강암으로 된 3층석탑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지대석 위에 최근 보수한 시멘트로 된 중대석(中臺石)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상대석(上臺石)과 삼층 탑신(塔身)이 올려져 있다. 옥개석과 탑신이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옥개석 부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 옥개석 아랫부분에는 3단의 옥개받침이 있으며 옥개석 추녀는 약간 반전(反轉)되었다.

상륜부(相輪部)는 둥근 모양의 노반(露盤)만 있으나, 노반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상륜(相輪)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마을 동쪽 산중턱의 절터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대곡리 탑골에 큰 사찰이 있었는데, 대사동(大寺洞)에 사는 민대감이 사찰의 석탑을 자기 집에 옮겨다 놓은 이후로 차츰 몰락하였으며, 그 후 방치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 장승 옆으로 옮겨 놓았는데, 1969년 도난을 당하여 1년여 간 수소문한 끝에, 전라도까지 밀반출되었던 것을 찾아와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세워 놓았다고 한다.

13. 송용리 마애불(松龍里 磨崖佛)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3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동면 송용리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본 불상은 몸 전체를 둘러싼 배 모양의 광배(光背)가 구비된 입불(立佛)이다. 상부는 머리부분을 포함하여 파손되었다. 머리부분에는 육계(肉髻)의 흔적이 있고 희미하지만 눈, 코, 입의 윤곽을 볼 수 있다. 제작시기는 고려 중기로 추정된다.

손의 모양으로 보아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로 추정된다. 아미타여래는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경을 보장해주는 부처로서 어떤 중생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면 서방극락의 아름다운 정토(淨土)로 맞아간다고 한다.

좌측 윗부분이 파손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1880년경에 큰 뱀 한 마리가 불상 위에 올라 앉아있자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뱀을 죽이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한다.

원래 동면 내관지역 방치되어 있었는데, 1940년 경에 주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와 보존하고 있다.

14. 오강표의 묘(吳剛杓 墓)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5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 14



한말의 선비 오강표(吳剛杓, 1843~1910)의 묘소이다.

오강표는 1905년(조선 고종 42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관찰사 이도재(李道宰)를 통하여 이 조약의 조인에 참여한 정부의 대신들을 토벌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구한 아편을 가지고 공주향교 명륜당에 들어가 대성통곡한 뒤 약을 먹었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그 후부터 사람들이 그를 광사(狂士)라고 하였다. 이후 명강산(明岡山 : 공주 무성산)에 은거하였는데, 세상 살 뜻이 없었으므로 항상 독약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후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는 절명사(絶命詞)를 지어 선조와 스승 임현회의 무덤을 찾아가 고한 뒤, 10월 16일에 공주향교에 들어가 울분의 글을 벽에 붙이고 대성통곡한 후 향교 안에 있는 강학루에 올라가 자결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수여되었으며, 후에 유럽에서 남면 갈운리 입구에 순절비를 세웠다.

15. 홍일섭 묘(洪日燮 墓)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6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서면

신대리 239



항일 독립열사 홍일섭(洪一燮, 1878~1935)의 묘소이다.

홍일섭은 1906년 장례원(掌禮院) 주사(主事)로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나라의 힘이 쇠약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30일 조치원 장날을 이용하여 연기 청년회원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헌병대에 검거되어 공주형무소에서 옥고(獄苦)를 치루었다. 풀려난 후에는 사숙(私塾)을 경영하면서 후진양성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 서다가, 해방을 10년 앞둔, 1935년 5월 14일에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의 묘소는 1949년에 이장(移葬)한 것이고, 기념비는 그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하여 1978년에 건립되었다.

1983년 8월 31일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16. 봉산영당(鳳山影堂)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47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192



이 영당(影堂)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文臣)인 최용소(崔龍蘇, ? -1422)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매년 봄, 가을에 제사하는 곳이다

최용소는 조선초기 형조판서와 관한성부사(判漢城府使) 등을 지낸 인물로, 여러차례 사신으로 중국과 일본에 다녀왔다. 일찍이 명나라에 들어가 옥하관(玉河館)의 건축을 감독하여 명성을 얻기도 하였으며, 1394년(태조 3년)에는 일본 큐슈(九州)에 파견되어, 양국의 우호를 도모하는 국서를 전달하고, 피납된 조선인 570여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그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명나라 성조(成朝)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화공(畵工)에게 그의 화상 2폭을 그리게 하여, 한 폭은 자신이 평상시 거처하는 편전(便殿)에 걸고, 다른 한 폭은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봉산영당에 모셔진 영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17. 독락정(獨樂亭)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 264호

지정년월일 : 1984년 12월 29일

위 치 : 연기군 남면 나성리



이 정자는 1437년(세종 19)에 임목(林穆)이 지은 것으로, 망망한 들 가운데 있는 나성(羅城)을 등지고 낙낙 장송이 우거져 있으며, 앞에는 금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금강 팔경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고려 때 전서(典書)의 벼슬을 지낸 임난수(林蘭秀)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세속에서 벗어나 금강 월봉(月峰) 아래에 은거하여 16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독락정은 그의 둘째 아들인 임목(林穆)이 부친의 절의를 지킨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18. 화순 최씨 참판공 재실 (和順 崔氏 參判公 齋室)

지 정 별 : 기념물 제 357호
 지정년월일 : 1997년 12월 23일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197-2



이 곳은 화순 최씨 참판공 최한정(崔漢禎, 1427~1486)선생과 그의 아들인 도승지 최중은 선생을 제사하는 곳이다.

최한정은 1456년(세조 2년)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459년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이조참의를 거쳐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그가 성종(成宗)의 신뢰를 받는 것을 시기한 무리들이, 그를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에 적합하지 않다고 모함하자, 성종이 그를 대사간(大司諫)으로 발탁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이 재실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집으로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사각형의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1669년(현종 10년)에 건립되었으나, 후에 훼손되었던 것을 1928년에 다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 양화리 은행나무(2주)

지 정 별 : 기념물 제 157호

지정년월일 : 2001. 6. 20

위 치 : 남면 양화리 88-5



임난수(林蘭秀)는 1342년 출생하여 고려말 탐라정벌에 대공을 세우고 공조전서를 지낸 인물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건국하고, 여러번 벼슬을 주며 부름이 있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절의를 지킨 고려 유신이었다.

이후 공은 공주목 삼기촌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는데, 이 낙향지에 망국의 고려를 생각하고 임금을 그리며 암수 한쌍 두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6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심어 가꾸어온지 600여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인근 마을의 신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3절 연기군의 군지정 향토유적 목록

1. 밀양박씨 오충정려(密陽朴氏 五忠旌閭)
2. 충신 홍직 정려(忠臣 洪植 旌閭)
3. 효자 최회 정려(孝子 催會 旌閭)
4. 효자 김백열 정려(孝子 金百悅 旌閭)
5. 효자 임양문 정려(孝子 林養文 旌閭)
6. 효자 민후건 정려(孝子 閔後騫 旌閭)
7. 효자 김연 정려(孝子 金璉 旌閭)
8. 효자 김종철 정려(孝子 金宗喆 旌閭)
9. 효자 김한정 정려(孝子 金漢鼎 旌閭)
10. 효자 성이복 정려(孝子 成爾復旌閭)
11. 효자 이정환·이경설·이경익 정려(孝子 李廷煥·李景高·李景益 旌閭)
12. 효자 임자의·임태선 쌍정려(孝子 林自儀·林太先 雙旌閭)
13. 효자 임명즙 정려(孝子 林命楫 旌閭)
14. 효자 임수준 정려(孝子 林秀俊 旌閭)

15. 효자 강협 정려(孝子 康協 旌閭)
16. 효자 김익정 · 김사준 정려(孝子 金益精 · 金師俊 旌閭)
17. 효자 박이명 정려(孝子 朴履命 旌閭)
18. 사쌍 효열문(四雙 孝烈門)
19. 효자 김충열 정려(孝子 金忠烈 旌閭)
20. 열녀 최지철처 전주이씨 정려(烈女 崔之喆妻 全州李氏 旌閭)
21. 열녀 장응헌처 언양김씨 정려(烈女 張應軒妻 彦陽金氏 旌閭)
22. 열녀 박기정처 광산김씨 정려(烈女 朴基鼎妻 光山金氏 旌閭)
23. 효열부 장이상처 한양조씨 정문(孝烈婦 張舜相妻 漢陽趙氏 旌門)
24. 열녀 김기철처 밀양손씨 · 김성흠처 창녕성씨 양세정려
(烈女 金基喆妻 密陽孫氏 · 金聖欽妻 昌寧成氏 兩世旌閭)
25. 경주최씨 열녀문(慶州崔氏 烈女門)
26. 효부 유언하처 부안임씨 정려(孝婦 俞彦夏妻 扶安林氏 旌閭)
27. 의성김씨 정려(義城 金氏 旌閭)
28. 열녀 전오복처 창녕성씨 · 전오륜처 결성장씨 쌍정려
(烈女 全五福妻 昌寧成氏 · 全五倫妻 結城張氏 雙旌閭)

29. 김해김씨 열녀문(金海金氏 烈女門)
30. 열녀 김환처 남양홍씨 정려(烈女 金 妻 南陽洪氏 旌閭)
31. 조수빈 삼쌍 효열문(趙秀彬 三雙 孝烈門)
32. 효부 김진창처 나주나씨 정려(孝婦 金震敞妻 羅州羅氏 旌閭)
33. 열부 신이초의처 기계유씨 정려(烈婦 愼爾初의妻 杞溪愈氏 旌閭)
34. 충신 변응정 사당(忠臣 邊應井 祠堂)
35. 숭 모 각 (崇 募 閣)
36. 병 산 사 (屏 山 祠)
37. 문 목 사 (文 穆 祠)
38. 충 정 사 (忠 貞 祠)
39. 육 영 재 (育 英 齋)
40. 숭덕사 / 덕성서원(崇德祠 / 德星書院)
41. 어 서 각 (御書閣)
42. 임씨가묘
43. 봉서재
44. 원수산 산제
45. 용호리 산제
46. 전의 왕의 물

제2장 남면 지역의 선사유적(先史遺蹟)

선사시대는 문자의 발명과 그에 따른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의 시대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조선 건국 이전을 선사시대로 본다.

또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대체로 B.C 6000년경을 중심으로 나누는데 우리 연기군 남면은 금강하류 공주 석장리에 구석기 유적과, 금강상류에는 청원군 가덕면 노현리의 두루봉 동굴의 유적이 있어, 그 가운데인 연기군 남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B.C 1000년경까지 수천년간 지속되다가, 청동기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는 무문토기를 사용하였고 동검과 고인돌(지석묘, 支石墓)을 대표된 삶의 흔적으로 본다.

고인돌은 큰돌을 사용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거석문화에 속하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나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중심지이고 인접한 중국의 동북지방, 일본의 규슈지방에도 분포한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지방을 제외한 거의 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 와 흑산도에서도 발견된다.

우리 연기군은 금강을 중심으로, 금강북쪽은 동면 용호리와 남면 월산리 등지에서 발견되고, 금남 남쪽은 박산리, 대박리, 봉기리, 석교리, 장재리, 신촌리, 용포리 등에 산재하며 많은 고인돌이 발견된다.

고인돌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눈다면 북방식은 탁자처럼 두 개의 받침석이 높이 솟아있어 시신이 땅위에 묻히는데, 남방식은 받침돌이 땅 밑에 들어가 있다던지, 묘가 따로 되어있어 표면에는 덮개돌만 보인다.

우리연기군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전체가 남방식 고인돌이므로 언뜻 자연 속에 있는 바위와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인돌이 금강을 중심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고인돌에는 자식의 생산을 비는 행위를 한 흔적인 성혈(性穴, cupmark)이 있어 일 반 바위와 구분이 쉽다.

1. 보통리 1구 무문토기 산포지(散布地)

소재지 : 연기군 남면 보통리(湫通里)

시 대 : 청동기시대

남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약 1km정도 들어가면, 당산성의 동남쪽에 보통리 마을이 있다 조사된 무문토기 산포지는 마을에서 당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200m정도 올라간 곳인 당산성의 동향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확인된 지역은 미호천 서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마을 전체가 동남향하고 있으며, 당산성 들레로 낮은 구릉성 야산이 둘러치듯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무문토기 산포지는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 관계로 상단 부분의 지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향사면의 완만한 구릉지대로 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하다.

현재 지표면 답사를 통하여 수습할 수 있는 유물이나 확인된 유구는 없으나 수년 전에 이곳에서 마제석검 10점과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이 수습된 예를 전하고 있다.

2. 월산리(月山里) 고인돌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월산리 윗말

시 대 : 청동기시대

남면 중촌리에서 동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7.5km정도가면 금강변에 접하여 월산리 윗말이 있다. 고인돌은 미호천의 지류인 연천천 북안의 경작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근은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 지점으로



비교적 넓은 층적평야를 끼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모두 2기의 고인들이 확인되었는데 서로 3m정도의 거리를 두고있다. 그 중에 북쪽의 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들은 덮개돌로서, 하부가 약간 땅속에 묻혀있는 형태로 정확한 규모를 알수 없으나 남방식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기의 고인들은 밭 가운데 남북 장축을 이루며 위치하는데, 형태는 부정형한 장방형으로 노출된 부분의 크기는 남북170cm 동서80cm 가량이며, 화강암 자연석재를 이용하였다.

현재 고인들의 주변은 논으로 경지 정리 되어 있으나, 고인들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밭으로 경작되면서 보존되고 있다. 주변에서 고인들과 관련한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종촌리 무문토기산포지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종촌리

시대 : 청동기시대

남면 소재지 종촌리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로 왼편의 낮은 야산이 있다. 이곳은 진의리와 방축리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으로, 무문토기산포지는 이 산의 남향 사면 중산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점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된 예가 전한다. 기존의 조사된 기록에 의하면 적갈색조의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토기편은 대부분 굵은 모래가 포함된 거친 태도를 이용하여 성형한 것들이다. 또한 저부 주위에는 손누름에 의해 저면과 기벽을 접합한 접합흔이 확인되며, 표면에 붉은 slip을 입힌 것도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형은 금강의 북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낮은 야산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형상으로 볼 때 진의리 앞에까지 습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 북동쪽의 월산리 고인돌과 더불어 금강변의 선사유적지로 주목된다.

4. 송원리 마제석기 출토지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송원리

시대 : 청동기시대

유물소장 : 국립공주박물관

남면 소재지에서 1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5km 정도 거리에서 금남교를 건너기 전에 도로의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5km 들어가면 남면 송원리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서 1897년에 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자갈 채취 중에 우연히 마제석촉이 6점 출토되어 현재 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초 출토지와 관련하여 유구 상황이나 자세한 기록은 없으며, 다만 유물만이 수습되어 전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삼각편평만입촉 1점과 일단경촉 5점인데, 1점만이 반파되고 모두 원형이다. 일단경촉의 경우 유엽형을 하고 있으며, 스페 단면은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석촉 출토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황기록이 없으므로, 출토 위치에 대해서는 송원리 마을에만 한정한다. 주변지역 답사를 통하여 관련유물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제3장 남면 지역의 고분유적

1. 삼국시대 고분유적

1) 갈우리 고분

소재지 : 남면 갈우리

남면소재지인 연기리에서 1번국도를 따라 공주쪽으로 2km가면 갈우리 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 ‘금사교’를 건너기 전에 도로의 동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1km정도 들어가면 남쪽으로 원사골 마을이 있다. 갈우리 고분군은 원사골의 남쪽에 위치한 원사봉에서 연결되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의 서남향 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원사봉 일대의 여러 곳에서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원사봉의 서남쪽인 갈우리 원사골 뒷산의 중하단부에 수기가 균집되어 있는 것으로 전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은 원사골에서 오산마을로 넘어가는 구릉에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도굴되어 파손상태가 극심하며 주위는 송림으로 우거져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확인된 고분의 경우, 구릉의 자연 지세를 따라서 묘실의 입구가 대략 서북편을 향하고 있는데, 석실은 할석으로 현실만 구축한 횡구식 석실분으로, 그 평면이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정확한 체원은 알 수 없다.

출토 유물이 없으므로 유물을 통한 고분의 축조 년대를 알 수 없지만 인근의 원수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석실분들이 같은 유형의 할석조 횡구식 석실분으로 대개 같은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2) 보통리 고분

소재지 : 남면 보통리

남면 소재지인 연기리에서 마을의 동쪽으로 인접한 지역에 해발 160m의 당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은 남면의 동단에 위치하여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과 인접해 있으며, 연기리와 보통리를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산상에는 당산성이 위치한다. 고분군은 보통리 들에서 ‘개골’로 넘어서는 길목의 남서편에 자리잡고 있는 해발 30m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주변지역의 환경을 살펴보면 북편에는 연기리의 뒷산에 축조된 당산성이 근접해 있고, 동북쪽은 미호천을 끼고 있는 보통리들이 충북지역의 일원인 궁평리와 연결되어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고분의 세부적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된 기록을 살펴보면 (박영복 이규산, 금강유역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7책, 1985)고분은 사면의 자연지세를 따라서 장축을 동서로 하였으며, 할석으로 묘도가 없이 현실만 구축한 횡구식석실분이다. 현재 뒷벽쪽으로 2매의 개석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4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입구를 제외한 3벽의 높이는 45cm내외로 4단이 노출되어 있다.

장축인 두 벽은 할석으로 수직되게 쌓다가 맨 위의 한단을 내경시킨 다음, 그 위에 거칠은 대판석을 횡으로 걸쳐서 천정을 가구하였다. 입구쪽의 장벽일부가 손실되어 현재 170cm의 길이로 남아있지만 입구를 폐쇄시켰던 석실의 전체길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무덤의 양식도 판단할 수 있었다. 평면이 장방형인 석실의 크기는 길이 200cm, 너비 85cm이다.

보통리고분은 그 구조형태로 보아 조사지역의 남쪽에 있는 원수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들과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보인다. 출토 유물이 없어 정확한 편년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고분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보통리에 속하지만, 지형적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월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확인된 고분의 구조나 상황이 월산리에서 확인된 유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유적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시대 고분

1) 월산리 고분

소재지 : 남면 월산리

남면 소재지에 개설된 소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3.5km정도 들어가면 월산리 ‘개골’ 마을에 이르게 된다. 고분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의 양쪽 사면에 위치한다.

남면 내에는 해발 214m내외의 구릉성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산지 사이로 연기천과 종촌천이 흘러 면의 동부에서 각각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며, 미호천은 남류하여 면의 남부 경계를 서쪽으로 흘러가는 금강에 유입한다. 고분군이 위치한 월산리도 이 미호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노적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산능선 사이에 넓게 형성된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골짜기의 각각 3곳에서 고분군이 산포되어 있는데, ‘월산침교회’ 뒤편 능선에서 1기가 확인되었으며, ‘개골’ 뒤편의 남서향한 야산의 능선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여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고분은 크기 50cm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한 석축묘로 모두 도굴되어 고분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각각의 고분들은 능선의 중앙에 증선방향을 따라서 장축을 이루며 축조되어 있는데, 고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매의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한 횡구식석실분으로 개석의 일부는 도굴과정에서 유실되어 있다. 고분의 입지나 분포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석실분으로 판단된다.

주변지역 답사와 고분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습되는 유물은 전혀 없다. 확인된 고분은 주변의 보통리와 황골고분군과 유사한 유적환경을 보인다.

2) 월산리 황골 고분

소재지 : 남면 월산리 황골

남면 종촌리에서 개설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7.5km정도 가면 금강변에 접한

월산리 황골이 위치한다. 고분군은 이 마을의 서쪽 해발 162cm의 산 중단부에 위치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민묘 개장 과정에서 노출되어 파손된 것이라고 하는데, 석재를 쌓아서 조성한 석축묘로 전한다. 민묘 주변에 위치했었다고 하는데, 지표답사과정에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오랫동안 산림이 방치된 상태로 있으면서 잡목과 낙엽이 쌓여서 고분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전언에 의하면 이 고분은 능선의 경사면을 장축으로 하여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주변의 월산리와 보통리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가 유사한 유적환경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시대미상의 고분

1) 고정리 대비실 고분군

소재지 : 남면 고정리 대비실

조치원읍에서 공주에 이르는 1번 국도를 따라 약 5km 정도 가서 연기고개를 넘으면 고정리 마을의 입구에 이른다. 여기서 1.5km쯤 들어오면 대비실마을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이 마을의 입구에서 400m정도 들어오면 마을의 동쪽에 낮은 능선의 하단부에 분포한다고 전한다.

현재 고분군이라고 전하는 지역은 공장 건설과 경작으로 인하여 개간과 더불어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져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은 마을 동쪽의 공장이 자리한 능선의 남향 사면에 위치했는데, 석재를 축석하여 조성한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지표 답사를 통하여 유적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지역의 지형이 낮은 구릉지대가 연결되어 있고, 인근지역에 당산성과 진의리 산성등의 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고분의 입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연기군 남면의 산성

1. 남면지역의 산성에 대한 개요

산성(山城)은 산 위에 돌이나 흙, 나무 등으로 쌓은 성을 말한다. 이는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여 종족을 보전코자 하는 조상의 슬기가 담겨있다. 연기군 남면에는 세 개의 산성이 있는데, 당산성(唐山城), 라성(羅城), 원수산성(元帥山城)이다.

연기현의 치소가 있던 연기리에 당산성이 위치한다. 이는 백제시대 쌓은 산성으로 토석(土石) 혼축 산성이다. 당산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백제시대 산성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듯 읍성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으리라.

또한 백제말기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의자왕이 항복하자 이에 맞서 싸웠던 백제 부흥군은 금강변 나성에서 금강을 통하여 신라군이 공주의 웅진성과 부여의 사비성에 보내는 물자를 차단했던 곳으로, 옛 기록에 나오는 지라성(支羅城)을 이곳으로 본다.

양화리와 진의리 뒷산인 원수산성은 고려 충렬왕 17년에 몽고 합단(哈丹)적이 쳐들어왔을 때, 서면의 정좌산 아래 지금의 쌍전리에서 1차 격투하여 승리를 하고 금강으로 도망갔던 남은 잔당을 물리친 곳이 바로 원수산성이다.

이 때, 합단적을 이곳에서 물리치지 않았다면 고려는 어떻게 되었겠나.

남면지역은 이들 산성과 동쪽에는 동진강, 남쪽에는 금강이 있어 자연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의 6.25 전쟁시 금강은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여 강 건너에는 아군인 미군이 방어하고 남면의 금강 변에는 금강을 건너려는 북괴군의 주둔지여서 이곳을 공격했던 이들이 아군이였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커다란 전쟁시 방어하던 곳이 남면이고 이곳에 쌓여진 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께서 나라를 지키고자 우려난 충의심으로 산성에서 싸워 지킨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 라성산성(羅城山城)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방면으로 가다보면 금강이 나온다. 금강대교 건너기 직전 금강변 왼쪽 편에 오래된 소나무 숲 속에 정자가 지어져 있고, 정자 뒤로 낮은 산이 하나 있다. 이곳을 ‘독락정(獨樂亭)’ 혹은 ‘라성(羅城)’이라 부른다.

독락정은 고려말 충신 임난수(林蘭秀)의 둘째 아들인 임목(林穆)이 건립한 정자이다.

금강을 5강 8정(五江八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중 가장 오래된 정자가 독락정이다. 독락정 뒤편으로 언덕이 연결되어 있고, 그 언덕 안에는 부안임씨의 사당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이곳은 기호서사가 있던 곳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서사는 없어지고, 대신 양화리에 있던 임씨 가묘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사당을 중심으로 앞에는 부안임씨 중시조인 임난수 장군의 신도비가 있고, 그 앞으로 금강이 흐른다. 사당 뒤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미륵불이 남쪽을 향해 서있으며, 그 아래 민가가 있다. 성은 독락정과 미륵불로 이어져 내성은 금강 쪽으로 구부러져 사당을 감쌌고, 외성은 북쪽으로 더 내려가 마을을 감싸면서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 성의 축조방법은 토성이다. 먼저 내성은 북쪽 미륵불에서 양쪽으로 길게 펼쳐졌는데, 오른쪽의 길이가 181m, 폭은 37m이며, 왼쪽은 총 길이가 228m, 폭31m이다. 외성의 총길이는 513m이며, 내성과 외성의 떨어진 길이는 51m이다. 내성 안에는 부안임씨 사당과 독락정, 신도비가 있고, 외성은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주민 15호가 살고 있다.

성문은 뚜렷하지 않으나 축조당시에는 동쪽과 남쪽에 깊은 금강이 흐르고, 문을 만들었으면 서쪽과 북쪽인데, 현재 민가와 도로가 있는 관계로 성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성내에서는 백제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며, 오래된 기와편도 발견된다. 수습 유물과 성의 축조 방법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공주의 웅진성을 방어하기에 중요한 위치이다. 그러므로 나성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라성(支羅城)’ 일 가망성이 크다. 이곳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독락정기(獨樂亭記)>에도 쓰여 있듯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

도의 물이 만나고 길이 형성되어 삼기라 불린 지역이다.

또 금강 상류의 신라군이 공주 웅진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곳의 강을 이용하여 배로 움직였고, 웅진성을 빼앗은 후에는 무기와 식량을 금강으로 운반했다면 백제의 부흥군들은 이곳에서 보급을 차단하였을 것이다.



라성산성



라성산성



라성산성

3. 당산성(唐山城)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향으로 가다보면 봉암을 지나 남면 연기리가 나온다. 4차선 도로에서 구길로 접어들어 연기리 마을 뒤편에 당산이 위치하는데, 이 산 정상에 당산성이 있다. 당산은 표고160m의 산으로 동쪽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보통리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연기리가 자리잡고 있다. 연기리에는 연기향교가 있어 예전에 이곳이 현의 치소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시대 지방제도는 성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지방제도는 성이 기본단위가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지방단위로서 성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그런데 중국측의 정사인 <주서>에는 백제의 지방제도를 지방단위인 방·군·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백제에서는 가장 큰 지방 단위로서 전국에 5방이 있었는데, 중방을 고사성, 동방을 득안성, 남방을 구지하성, 서방을 도선성, 북방을 웅진성(熊津城)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에는 방령이 배치되는데, 그의 품계는 3품인 달솔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에서는 1,200인 이하 700인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지방의 작은 성들은 모두 이곳에서 관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지방제도는 성을 중심으로 조직하되 그의 위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방·군·성으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연기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백제의 두잉지현과 구지현은 그의 위치로 보아 북방의 웅진성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잉지현(豆仍只顯)은 일모산군(一牟山郡)에 속했었다. 일모산군은 오늘날 문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오늘날의 연기 지방에 위치하던 미곡현(未谷縣)이 영속되어 있었다. 연기현은 백제시대 두잉지현이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백제시대의 두잉지현의 치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연기현의 치소를 우선 찾아야 할 것이다. 연기현의 치소로는 남면 연기리가 이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아직도 향교의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기현의 치소임을 알 수 있다.

이곳 연기리 뒷산은 당산에는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사용되었던 산성이 위치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백제시대 지방제도의 방(方)·군(郡)·성(城)의 모든 단위가 모두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바로 연기리의 당산에 위치하고 있는 당산성은 백제시대 두잉지현의 치소로 판단된다.

당산의 정상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산성이 쌓였다.

우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봉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토석혼축으로 테피식의 산성을 구축한 다음, 이와 연결하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우리까지 확대하여 쌓았다. 그러므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형태상으로는 복합식의 산성에 속한다.

당산성은 두 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 같다. 처음에는 남쪽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테피식의 산성을 쌓고, 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이를 확대하여 북쪽 봉우리까지 확대하여 쌓았던 것이다. 남쪽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쌓은 성의 둘레는 약 540m에 이르며, 성벽의 높이는 약 2m에 이르고 이른다. 그리고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는 낮은 통로가 있는데, 이곳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지였던 듯 하다.

산성의 내부는 백제시대의 산성축조의 특징적인 형태인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평탄한 대지는 모두 당시 건물지로 이용되었던 듯 하다. 이곳에서는 주로 백제시대 토기 파편들이 수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유물들 또한 상당량 수습되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어골문 와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내에는 2개소의 우물지가 있는데, 동벽과 인접한 곳에 있는 인가에서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당산성은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요시되었던 이 지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연기군 남면의 동단에 위치하여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과 인접하여 있는 이 산성은 고대에 축조된 복합식 산성으로 그 동쪽에는 황우산성, 서편에는 기룡리 봉수, 그리고 남쪽엔 원수산성과 연결되고 있다. 미호천을 끼고 있는 동북편은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궁평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일부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요충지이다.



당산성과 동진나루



연기고개에서 바라 본 당산성



연기 조치원공단에서 바라본 당산성

4. 원수 산성(元帥山城)

원수산성(元帥山城)은 남면 진의리에 솟아 있는 표고 264m의 원수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치원에서 1번 국

도를 타고 약 10km쯤 가다 보면, 공주로 통하는 길과 대전으로 통하는 길이 분기되는 남면 종촌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난 소로를 타고 다시 약 1km쯤 가면 지의리 백동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북쪽에 솟아 있는 산에 오르면 곧바로 원수산성의 남벽에 닿게 된다. 또 다른 길은 종촌리에 닿기 직전 마을인 남면 방축리에서 동쪽으로 난 소로를 타고 오르면, 곧바로 성의 서벽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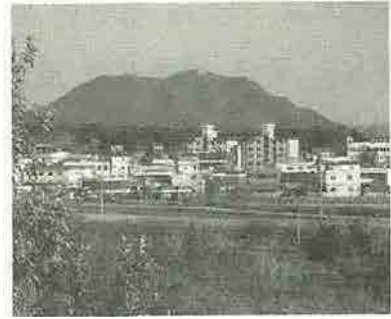
이 원수산성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원수산은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합단이 침범해왔다. 왕이 구원병을 원나라에 청하니, 세조가 평장사 설도간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돕게 하니, 왕이 한희유, 김흔 등으로 하여금 3군을 거느리고 원나라 군사와 함께 합단의 군병과 더불어 연기현 북쪽 정좌산 아래서 크게 싸워 이기고, 웅진(熊津-지금의 공주)까지 추격하니, 땅에 깔린 시체가 30여리까지 이어졌으며, 참수한 머리와 노획한 병기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래서 세속에서 지금까지도 그 군사가 주둔하였던 곳을 원수산이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동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써 보면, 고려 충렬왕 때 합단이 침입해 왔을 때, 원나라와 고려의 장수들이 이곳에 주둔하여 연기 지역에 쳐들어온 합단의 무리들과 전투할 작전을 짠 곳이 원수산이고, 전투를 벌인 곳이 원수산 아래 원수산성이다.

원수산은 그 모습이 뾰족하여 예전에는 문필봉이라 불렀다. 마치 붓끝을 세워놓은 형국이다. 그 아래 편편한 곳이 산성이 쌓여져 있던 곳이다. 이곳을 마을 주민들은 성재, 질마산 ‘이라 불렀으며, 산성 내에는 ’ 장군바위 ‘라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합단적의 침입으로 연기 정좌산(正左山)에서 1차 전투로 고려군이 크게 이겨 남은 합단적(哈丹賊)은 공주 금강으로 도망갔다가 남은 군사를 정비하여 금강 상



원수산성이 있는 성재



진의리에서 바라본 원수산

류로 올라가 다시 북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곳 원수산성에서 2차 전투를 벌인 곳이다. 2차 전투에서는 한희유 장군의 활약이 컸다. 적중에 한 명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으로 아군을 죽이자 아군이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한희유(韓希愈) 장군이 적진으로 말을 달려 그 적군의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아 아군의 사기를 높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를 연기대첩이라 한다. 산성은 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테피식의 토석혼축산성(土石混築山城)이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 개의 봉우리를 에워싼 누에고치형을 하고 있으며, 성의 둘레는 약 1,200m에 이른다. 성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하나, 남쪽으로는 금강과 그 주변의 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종초리가 북쪽으로는 보통리의 당산성과 정좌산이 내려다보인다.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진의리 쪽에서 올라오는 남벽과 동벽의 보존상태가 특히 양호하다. 남벽은 편축식으로 축성하였는데, 일부에서는 협축의 흔적만 남아 있다. 성벽의 안쪽 높이는 약 30cm 내외다. 성벽 바깥쪽의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성이 그러하듯이 원수산성 역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축성한 관계로 성벽 밑으로는 수십길의 낭떨어지가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성벽의 높이가 수십미터에 이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남벽과 서벽이 만나는 부분의 성벽은 서쪽으로 크게 돌출되어 있다. 이쪽 부분이 지형상 설상대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에워싸면서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서벽은 남쪽 봉우리의 사면을 지나 두 봉우리 사이의 낮은 부분을 통과하며 이어서 북쪽 봉우리의 사면을 타고 올라가는데, 북쪽 봉우리 부분의 절반 정도는 성벽의 통과선을 찾을 수 없다. 축성하였던 성벽이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성벽을 쌓지 않은 것인지를 지표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이곳이 성내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처음부터 이 지역에는 성벽을 축성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내 전체가 평탄면으로 되어 있고, 성밖으로는 경사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성의 내외면의 구별이 뚜렷하다.

동벽도 잘 남아 있다. 동벽은 편축식이 대부분이나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동벽과 남벽이 만나는 부분 등에는 일부나마 협축의 흔적도 보인다. 동벽 역시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축성한 관계로 실제 성벽의 높이는

3m 정도에 불과하나. 그 밑으로 급경사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성벽 높이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동벽의 현황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동벽과 남벽이 만나는 부분이다. 이곳에는 현재 높이 약 1m에 길이 약 7~8m 정도의 토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크기로 볼 때 작은 건물이 하나 세워질 수 있는 규모이다. 이 토단도 이러한 주변 지역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던 곳이 아닐까 생각된다.

산성의 부속시설로는 건물지 이외에 우물이 있고, 불완전하게나마 성문지로 추정되는 곳도 남아 있다.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성문은, 지금은 좀처럼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남쪽 봉우리와 북쪽 봉우리 사이의 성벽이 가장 낮게 남아 있고, 지금도 이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시에 이곳에 성문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물론 지금은 원형의 모습을 많이 잃고 있어서 성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은 평탄대지는 여기 저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의 규모도 크지만 성내에 평탄면이 많아서 규모가 더 커 보인다.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은 서문지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서벽의 중간 부분이다. 이곳은 북쪽 봉우리와 남쪽 봉우리 사이로 성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고 또 가장 평탄한 지역인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곳에 민가가 있었던 듯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정반대 쪽인 동벽의 중간 쯤에도 약 500평 정도의 대지가 있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이곳에도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부분과 북벽 근처, 남벽 근처 등에도 넓은 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치성처럼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서쪽 벽에도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런 곳들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규모나 지형으로 볼 때 원래 이들 지역은 건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도 또한 우물지도 확인되었다. 우물은 추정서문지가 있는 곳으로 안으로 약간 들어온 지점에서 확인되었는데, 지금은 시멘트 포장되어 있었다.

규모에 비하여 성내에서 수습할 수 있는 유물은 매우 적었다. 와편 1점과 토기편 3점이 전부였다. 오랜 기간동안 관리 소홀로 인해 지금은 많은 부분이 원형을 잃고 훼손되어 있지만, 성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성내에서 발견되는 넓은 평탄 대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산성이 이 지역의 중요한 산성 중 하나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듯 하다.

제5장 연기군 남면의 사지(寺址-절터)

사지(寺址)는 절터이다. 먼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 불타거나 비게 되어 집은 무너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어서, 겨우 깨진 기왓장이나 주춧돌이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남면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사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갈운리 사지-남면 갈운리 재지골
2. 보통리 1구 사지-남면 보통리
3. 고정리 궁골 사지-남면 고정리 궁골
4. 고정리 뜰이기 사지-남면 고정리 뜰이기 마을
5. 나성리 사지 - 남면 나성리 독락정 내

1. 갈운리 사지

소재지 : 남면 갈운리 자지골

시대 : 미상

남면 소재지 연기리에서 1번 국도를 남쪽으로 약 2km 가서 ‘금사교’를 건너기 전에 도로의 동쪽으로 원사골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길을 따라 약 1km 가면 남쪽으로 원사봉의 북동주한 능선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이 야산의 능선 중단부 서향 사면에 해당한다.

사지는 야산 중반부 담배밭으로 개간된 곳 상단부의 평지로 추정되는데, 잡목과 낙엽이 우거져 있어 사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듯한 3단의 평탄지가 보이고 있다. 사지 추정지역 주변에는 다량의 와편이 산견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절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개간으로 파손된 사지 주변으로 절의 축대로 사용되었을 만한 석재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사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약 200여평 정도에 달한다.

2. 보통리 1구 사지

소재지 : 남면 보통리

시대 : 고려-조선시대

남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약 1km정도 들어가면 당산성의 동남쪽에 보통마을이 있다. 사지는 이 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한 당산성의 남동향 사면 중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당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 개설과 민가 개축으로 인하여 산사면이 심하게 삭평되어 있는데, 삭평된 표면에 다량의 와편과 토기편이 노출되어 있다. 잡목이 우거져 있으나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약 100여평이 이르는 면적이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지역을 절터라고 전하는데, 실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 주변에 많은 석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임도 개설과 민가 개축과정에서 사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으로, 와편의 경우 당산성에서 수습된 와편과, 선조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회백색조의 연질와편이 대부분이다. 이곳 사지 아래 밭에서 오래 전에 밭주인이 밭을 갈다가 금동불상 1점을 발견하여 골동품상에게 팔았다가 경찰에 의해 되찾아져 부여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3. 고정리 궁골 사지

소재지 : 남면 고정리 궁골

시대 : 미상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1.5km정도 가서 연기고개를 넘으면 고정리 마을 입구가 나온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리 궁골 마을이 있다.

궁골 사지는 이 마을의 서쪽에 있는 국사봉에서 동북주한 능선의 남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부분적으로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일부는 산림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사역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을 절터골이라 칭하며 약 50여평에 걸친 좁은 면적으로 암자터와 같은 작은 시설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지역 답사를 통한 유물의 수습은 불가능하였다.

4. 고정리 뜰이기 사지

소재지 : 남면 고정리 뜰이기 마을

시대 : 미상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1.5km정도 가서 연기고개를 넘으면 고정리 마을 입구가 나온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리 뜰이기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궁골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사지는 이 마을의 서쪽에 있는 국사봉에서 남동주한 능선의 남향 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주변지역 상황으로 볼 때 사지는 약 300여평의 면적에 걸쳐서 넓게 분포했었던 것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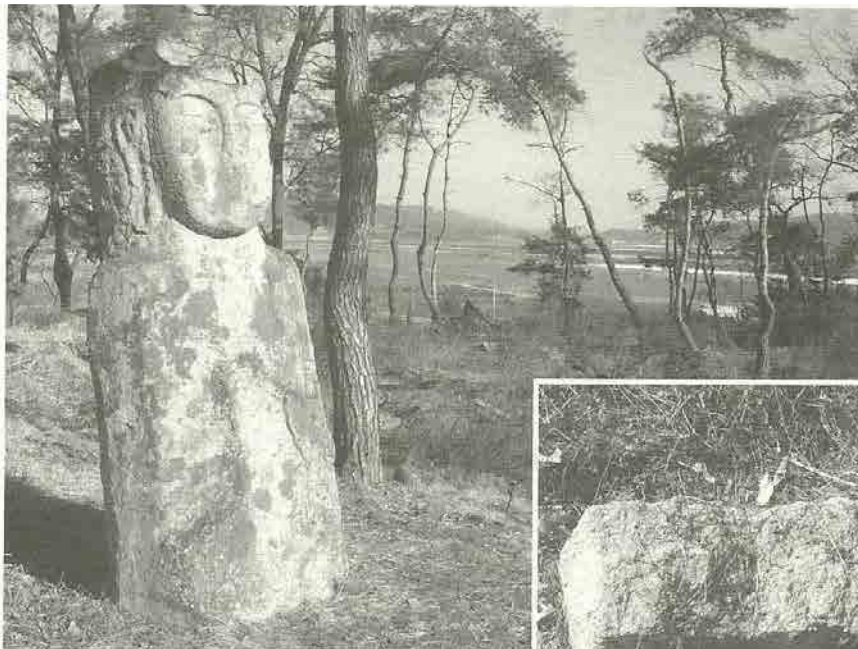
측된다. 사찰과 같은 시설물로 추정되는 유적은 전혀 외견되지 않으나, 사지 추정지역 주변 답사 과정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으로, 토기편은 회청색조의 경질 토기편이 대부분이며, 와편은 황백색조의 연질 선조문 와편과 회청색조의 경질 집선문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나성리 사지

소재지 : 남면 나성리 독락정 내

시 대 : 고려시대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향으로 가다보면 금강이 나온다. 금강가에 나성리가 있고, 사지는 나성리의 독락정이 있는 부안 임씨 사랑 뒤편에 있다. 현재 미륵불 1기와 초석이 발견되고 주변에서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산견되어 금방 사지임을 알 수 있다.



나성리 사지



나성리 사지

제6장 향교, 서원, 사우

제1절 연기향교

1. 연기향교(연기향교)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연기리 33번지
 창립연대 : 조선초기
 문화재 :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 123호



1) 연혁

연기향교는 남면 소재지인 연기리인 당산성 서남편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연기향교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아마 조선초 대부분의 각 지방 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던 1407년(태종 7)~1413년(태종 13) 사이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창건당시의 위치도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향교가 현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져 있다(在縣西一里)라는 기록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1824년에 간행된 『연기지(燕岐誌)』에는 연기향교가 현의 동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1530년부터 『연기지』가 간행된 1824년 사이에 향교의 이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이견연대나 그 사유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한편 1933년에 발간된 『연기지』에서는 향교가 읍의 서쪽 3리에 있었는데, 1827년에 현의 동쪽 2리에 옮겨 세웠다하였는데, 이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대사전』에서는 연기향교를 1647년(인조 25)에 현 위치를 옮겼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의 서쪽 1리에 있었다는 향교의 원래 위치는 당시의 현에서 1리 떨어진 현재의 남면 월산리 황골마을 입구인 아랫말 야산의 남동향사면 중하단부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향교건물의 축대 일부로 보이는 화강암의 자연석재가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대가 남아 있었다고 하나, 민묘 개장으로 일부의 석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손되어 현재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야산 경사면을 따라 약 400여평 가량의 면적이 향교터로 추정되는데, 주변에는 무문·어골문의 회청색 와편과 청자·분청·백자편이 산포하고 있다.

조선전기 연기향교의 연혁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대체로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편이라 향교의 변천과 운영실태를 살필 수 있다. 우선 『학교등록(學校謄錄)』에 의하면, 1680년(숙종 6)에 연기현 사람인 만설(晩說)이 역모를 저지르고 주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기현이 약 16년간 폐지되어 문의현과 합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연기향교도 잠시 폐지되었다. 그런데 고을이 폐지되면 사직단과 여단의 위판과 함께 향교의 위판도 고유제를 지내고 매안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연기향교의 위판은 매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기향교에서는 연기지방에 관한 향규 및 향안과 절목, 유생안 등의 귀중한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신분구조와 향촌사회의 운영원칙을 살필 수 있다. 연기현의 향안은 1652년에 작성된 『구향안(舊鄉案)』이라 불리우는 것과 1772년에 개정된 『좌목(座目)』이 전하는데 이를 통하여 연기향교의 17~18세기 향촌사회 운영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연기향교의 중수사실은 1865년(고종 2)의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 縣監 趙秉益 記, 宋來熙 書)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 중수기에 의하면 당시 현감이었던 이태진(李泰鎭)이 1862년(철종 13)에 부임하여 향교를 둘러보니 명륜당과 서재의 기둥이 썩어 지붕의 기와가 깨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채 수십년 내려온 것을 개탄하고 개정을 마련하여 몇 달 만에 명륜당과 서재를 중수하고 있다. 감독한 사람은 황유원(黃元)과 임학원(林學元)이고, 재임은 홍상종(洪上種), 유천주(兪天柱), 성상학(成相學) 등이다.

다음의 중수로는 1879년(고종 16)의 서재 중수이다. 이는 당시 현감 송명노(宋明老)가 지은 연기현향교중수기(燕岐縣鄉校重修記)에 보이고 있는데, 임종복(林鍾復)이 중심이 되어 서재를 중수하기 위해 재정을 거두어 보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01년(고종 38)에는 전사청이 중수되었는데 이는 전사청중수기(1901년, 洪在銓 讚)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시 현감 이범소(李範紹)가 부임해 50금을 내주어 전사청을 중수하게 하였다.

한편 연기향교의 흥학 재원의 마련이나, 향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모색되었던 흔적들도 현판자료로 남아 있다. 1871년(고종 8) 계관한 제향교(題鄕校)라는 현판이 그것이다. 이것은 여러 향교에서 볼 수 있는 현판으로 학문 권장의 글이 실려 있다. 서두에는 1517년(중종 12)에 영남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소학을 보급하면서 지은 글이 있고, 이것과 견주어 1817년(순조 17) 충청관찰사 권상신(權尙愼)이 호서지역의 모든 향교에 계관토록 한 글이 있다. 당시 공주유학 정인채(鄭仁采)와 청주유학 맹흠호(孟欽昊), 홍주유학 이주한(李柱漢) 등이 회덕·전의 등 좌·우도 13읍의 사립들과 연명으로 감영에 상서 5주갑을 맞는 정축년이었으므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에서 계관하였던 것이다. 이 계관문들은 충청도의 여러 향교에도 게시되어 있다.

향교의 운영이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자료로 또 하나는 1886년(고종 23)의 연기향교흥하기(燕岐鄕校興學記, 縣監 李聖烈 記, 都有司 林競佑, 掌議 洪在垠 · 姜泰萬)에서도 이같은 노력의 일단이 보이고 있으니, 즉 1897년(광무)12월 충청도 어사로 왔던 박영민(朴永民)이 연기향교에 청동 200량을 기부해 학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자원으로 강학의 자금을 삼고 있었다.

흥학자금을 마련한 기사는 2년 뒤인 1900년(고종 37) 섬학계기(贍學契記 : 縣監 宋鍾徵 撰)에서도 보이며, 그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모일 때마다 흥학의 자금이 적음을 걱정하던 중 50금을 마련하여 계를 만드니 자금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유공원(儒公員)은 임공우(林兢佑), 도유사는 임우선(林禹善), 장의는 안희문(安熙文)·김창희(金彰會)였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이루어진 연기향교의 중수사실은 다음과 같다.

- 1936년 명륜당 중수
- 1937년 문묘 중수
- 1949년 대성전 중수
- 1966년 신문 중수
- 1969년 대성전 보수



- 1973년 대성정 · 명륜당 중수
- 1978년 담장보수
- 1982년 명륜당 보수
- 1984년 명륜당 보수
- 1996년 전사청 · 외옥 중수
- 1998년 전사청 보수, 영신문 · 강학문 · 부속사 신축

연기향교의 직제는 동재(東齋)에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과 서재(西齋)에 장의(掌議) 1인, 유사(有司) 2인을 두고, 그 외에 교생(校生) 60인과 수호(守護)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향교가 전근대시기에 담당하고 있던 지방학교로서의 기능이나 지방민 교화기능은 거의 상실하였으나, 최근에는 향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통문화의 보급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연기향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주목되는 활동으로는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 · 하계 충효교실 운영, 전통혼례예식장과 경노당의 운영, 효자(孝子) · 효부(孝婦) · 제가상(齊家賞)을 들 수 있다.

2) 건축현황과 구조

(1) 입지환경

연기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미호천에 합수되는 일대가 보통리 들이다. 이 보통리 들 북편에 당산(唐山)이 불룩 솟아 있다. 연기향교는 당산을 배산으로 삼고 연기천을 임수로 하는 형국으로 입지해 있다. 향교가 입지한 위치는 당산의 정남이 아니라 약간 서측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향교의 배치는 정남향이 아니고 서측으로 조금 치우친 계좌정향(癸坐丁向)을 하고 있다. 한편, 정면 남쪽으로는 멀리 원수봉(元帥峰)이 안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2) 배치형태

구룡지의 경사진 곳에 전학후묘(前學後廟)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북으로 길게 2단의 대지를 조성하여 하단에는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배치하고, 상단에는 묘당 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하였다. 외삼문 대신 좌우 1칸 규모의 조그만 일각대문으로 정문을 삼았다. 정문을 들어서면 비교적 여유있는 대지에 동·서재 없이 명륜당을 배치하였다. 내삼문 동측에는 2칸 규모의 협문을 두고 있는데, 협문의 한칸은 제기고로 사용하고 있다.

명륜당과 내삼문, 대성전을 잇는 중심축선이 이 세 건물을 일직선상에 위치시키고 있다. 대성전의 동편에 수직사를 배치해 두었다. 명륜당 뒤편 동측담의 일부를 터서 수직사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건축구조 및 양식

① 대성전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전면열에 퇴칸을 두지 않고 모두 내부공간으로 꾸민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묘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성전의 전면열은 퇴칸으로 만드는데, 이 건물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가구는 2고주 5량집으로 하고,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며, 측면에는 풍판을 달



대성전

았다. 기단은 화강석을 정갈하게 사괴석으로 가용하여 세벌대로 만들고 정면 3곳에 계단을 설치해 두었다. 초석은 2개의 유형을 혼용하고 있다. 정면열의 것은 원형주좌를 높게 만든 쿡모양이고, 나머지는 방형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으로 기둥상부를 끼우고 주두를 놓은 다음 첨차를 올렸다. 첨차는 주두 위에 소첨차와 그 위에 대첨차를 올리고, 외부로 내민 출목첨차도 이와같이 출목소첨차와 대첨차를 올렸다. 밖으로 내민 2개의 제공은 익공으로 하고, 그 위에 3제공은 당초문양을 조각하였다. 1출목 2익공식이다. 출목첨차 중 밑에 있는 소첨차는 올림으로서

건물이 매우 화려하게 보인다. 측면으로 돌출시킨 창방뿔목은 직선으로 잘라 간단히 처리하였다. 첨차를 중첩하여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창방과 장여사이 간격이 넓어졌다. 이렇게 넓어진 부분에는 흔히 화반을 끼워두는데, 여기서는 깨끗하게 포벽을 만들고 회를 발라 마감하였다.

이와같은 공포와 순간곽을 붙인 형식은, 후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전·후면 모두 화려한 모습이다. 정면 가운데 3칸에는 궁관을 크게 만든 띠살 분합문을 달고, 양협칸에는 중인방 상단에 횡으로 긴 井자 살창을 달았다. 실내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하고 천정은 연등천정이다. 단청은 모루단청보다 조금 화려한 선모루단청을 해 두었다.

② 명륜당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내부에는 방을 두지 않고 모두 마루로 되어 있다. 2고주 5량집구조의 겹처마 맞배 지붕이며, 측면에는 풍관을 달아 두었다.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를 약 3자 높이로 조성하고 초석은 덩벙주 초를 썼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다.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기둥간을 끼우고 주두를 놓은 다음 주심첨자를 올리고 대들보와 장여를 친 丫자로 맞추었다.



명륜당

대들보가 놓이는 위치는 대개 장여 위, 아니면 장여와 도리사이 부분에서 맞춰지는데, 여기서는 도리 밑에서 장여와 맞추었다. 그것은 처마높이를 올리기 위해 장여 2개를 겹쳐 놓았기 때문이다. 대성전에서는 처마를 높이기 위해 소첨차 위에 대첨차를 올렸는데, 명륜당에서도 대성전과 같이 포를 짜게 되면 대성전과 정식적 위계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대성전 보다 검소하게 보이려고 장여를 하나 덧대어 처마높이를 올린 것 같다. 2개의 장여 사이에는 소로를 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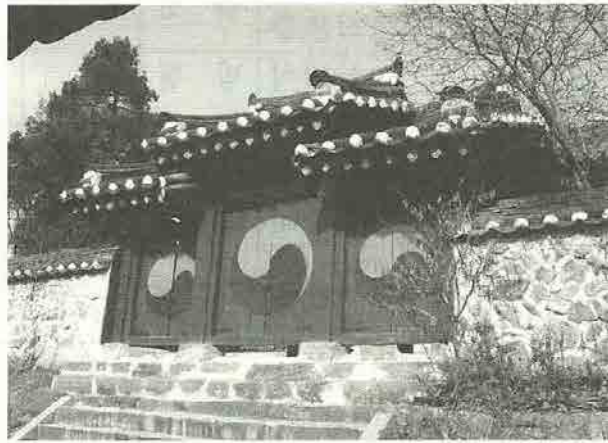
각 칸의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화반을 하나씩 끼워 두었는데, 상부에 소로가 있다. 공포는 출목을 내지 않고 제공을 2개 내민 무출목 2익공식이다.

첨차의 하단부는 연화두 모양으로 초각하고, 창방뿔목도 연화두형으로 처리하

였다. 창호는 어칸 정면과 후면에 띠살합문을 달고, 양 협칸 정면과 측면에 ‘用’자살 유리창을 달았다.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이다. 이 건물에는 선모루단청이 되어 있다. 이와같이 명륜당에 화려한 선모루단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 흔치 않다. 다른 명륜당에서는 모루단청, 가칠단청, 또는 굿기단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내삼문

명륜당 뒤쪽은 대성전을 세우기 위해 한단 높였는데, 단은 석축을 쌓지 않고 흙단으로 만들었다. 흙단의 중간부분에 좌·중·우 3개의 계단을 만들어 내삼문을 세웠다. 정면 3칸의 솟을 삼문형식이다. 사괴석 외벌대로 기단을 만들고 초석은 2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정면열 초석은 방형에 원으로 주좌를 새긴 쿡훗모양이고, 후면열은 사괴석으로 대충 다듬은 것을



내삼문

사용하였다. 기둥은 모두 방형 모기둥을 썼다. 기둥 상부는 포없이 보와 드리는 기둥에 반턱으로 간단히 맞춘 구조이다. 각 칸에는 장판문을 달고, 어칸문 상부에는 홍살을 달아 두었다. 모두단청이 되어있다.

④ 중문채

외삼문 동측에 2칸 크기의 장방형 중문채가 있다. 2칸중 남측 1칸은 제기고로 사용하고, 북측 1칸은 외부에서 대성전으로 직접 통하는 중문으로 사용한다. 민도리 3량 구조의 맞배지붕다. 초석은 화강암을 대충 다듬은 사괴석을 사용하였다. 출입문과 제기고 문은 장판 분합문으로 하고, 제기고 외벽으로 살창을 달아 두었다. 서까래 끝에는 모루단청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단홍색으로 가칠단청을 해두었다.

3) 연기향교 건물의 구조

| 건물명 | 평면 (정면 × 측면) | 구 조 | | | | | | | 비 고 |
|-----|--------------------|------------|------------|-----|------------|-------------|-----------|-----|-----------|
| | | 기 단 | 초 석 | 기 등 | 공 포 | 량 가 (樑架) | 지 붕 | 천 정 | |
| 대성전 | 5 × 3 | 사괴석 계별대 | 원형 + 방형 | 두 리 | 일출목 2익공 | 2고주 5량 | 겹처마 맞배 | 연 등 | 선모루 단청 |
| 명륜당 | 3 × 3 | 막 돌 허튼층 | 덤 병 | 두 리 | 무출목 2익공 | 2고주 5량 | 겹처마 맞배 | 연 등 | 선모루 단청 |
| 내삼문 | 3 × 1 | 사괴석 외별대 | 방 형 주 좌 | 방형모 | | 3량 | 숫을삼 문 | 연 등 | 모루 단청 |
| 협문간 | 2 × 1 | 막 돌 외별대 | 사괴석 방 형 | 방형모 | | 3량 | 홀처마 맞배 | 연 등 | 모루 단청 |
| 대 문 | 1 × 1 | 세멘트 | 사괴석 | 두 리 | | 3량 | 홀처마 맞배 | 연 등 | 모루 단청 |

(4) 비석류

향교 내에 24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척화비가 한 기이고 나머지는 현감과 순찰사의 행적을 기린 선정비, 불망비류가 주를 이룬다.

비석이 향교의 담벽과 거의 붙어 있어 음기의 유무나 연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비석은 모두 화강암재의 호패형이다. 세워진 순서(남→북)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縣監李侯進永世不忘碑』 45cm×142cm×15cm (너비× 높이×두께)
- ② 『洋夷侵犯罪戰則和主賣國』 42cm×120cm×15cm
- ③ 『郡守李侯景熙永世不忘碑』 39cm×96cm×16cm
- ④ 『縣監鄭侯匡始永世不忘碑』 50cm×149cm×20cm
- ⑤ 『縣監金侯炳恰永世不忘碑』 50cm×153cm×20cm
- ⑥ 『縣監朴侯斗寅愛民善政碑』 49cm×115cm×18cm
- ⑦ 『縣監柳侯觀升永世不忘碑』 39cm×127cm×16cm

- ⑧ 『縣監白侯大琦清白○○○』 55cm×117cm×18cm
- ⑨ 『縣監鄭侯鳴濟善政碑』 50cm×95cm×23cm
- ⑩ 『縣監申侯穀善政碑』 55cm×116cm×20cm
- ⑪ 『監李侯稷永世不忘碑』 45cm×116cm×19cm
- ⑫ 『行縣監李侯聖烈愛民善政碑』 47cm×130cm×20cm
- ⑬ 『監李侯升兼清德愛民善政碑』 51cm×140cm×24cm
- ⑭ 『縣監李侯○鎮愛民善政碑』 51cm×139cm×22cm
- ⑮ 『縣監李侯箕明永世不忘碑』 50cm×145cm×15cm
- ⑯ 『縣監李侯潞善政碑』 55cm×110cm×19cm
- ⑰ 『縣監李侯準○○○』 50cm×88cm×24cm
- ⑱ 『縣監安侯 善政碑』 50cm×123cm×16cm
- ⑲ 『兼巡察使沈公意臣永世不忘碑』 88cm×135cm×16cm
- ⑳ 『兼巡察使金公應根善政碑』 53cm×136cm×22cm
- ㉑ 『兼巡察使閔公致 永世不忘碑』 51cm×150cm×20cm
- ㉒ 『都巡察使南公一枯永世不忘碑』 48cm×136cm×24cm
- ㉓ 『兼巡察使趙公得林永世不忘碑』 45cm×122cm×18cm
- ㉔ 『兼察使趙公雲徹永世不忘碑』 41cm×110cm×20cm



비석류



대원군 척화비

4) 운영현황

연기향교는 전교 1인과 전교 · 총무 · 교화 · 재무장의 4인으로 구성된 임원회에서 향교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향교에 출입하는 성씨는 전통적으로 연기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성씨들이 대부분으로 부안임씨, 남양홍씨, 기계유씨, 결성장씨, 창녕성씨, 진주강씨, 강릉김씨, 순흥안씨, 강진이씨, 신천강씨, 파평윤씨, 화순최씨 등이 있다.

도내 대부분의 향교와 달리 연기향교는 참여 유림의 수가 해방전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는데, 현재 약 400여명이 향교의 각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향일은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이며, 5개면의 유림이 모두 참여한다. 향교의 주요 활동사업으로는 대외적으로 연간 3회 실시하는 충효교육과 2회 실시하는 유림 교양강좌가 있고, 대내적으로 ‘연유(燕儒)친목회’를 결성하여 월 1회의 모임을 갖고 있다.

한편 1997년에 들어서 전통혼례 예식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민의 편리에 일조하고 있다.

5) 관련자료

(1)문서류

연기향교에는 최근까지도 많은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1990년 이전에 조사된 목록에서는 유안 · 교생안이 28책, 향안 관계자료가 6책, 향약 관계자료가 8책, 기타자료 2책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의 조사목록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상당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의 조사목록을 토대로 소개하고 현존여부를 밝혔다.

① 『유안』, 『교생안』(儒案, 校生案)

① 『칭아록 선안(菁莪錄 仙安)』(현존, 33cm×28cm) : 목선에 5행을 구획한 뒤,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명 밑에는 자와 생년이 기록되어 있다.

1592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민후건(閔後鵞)부터 이장(黃以章)까지 43명을 기록하고 있다. 선안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뒤에 재정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② 『청아록(靑莪錄)』 : 모두 9책으로 크기는 각각 다르다.

대체로 양식은 비슷한데, 목선으로 5획을 구획한 뒤 명단을 기록하고, 성명 아래에 자와 생년을 적고 있다. 이들 청아록의 편찬년대는 정확하지 않다.

제 1책 : 임진년 청아록서(靑莪錄序)가 실려있다. 20장으로 구성된 필사본.

제 2책 : 경자년 서문병록(序文并錄)이 실려있다. 20장으로 구성된 필사본.

제 3책 (현존, 42cm×26cm) : 황세정(黃世楨 : 1622년)부터 한주진(韓柱震)까지.

제 4책 (현존, 33cm×28cm) : 양빙(梁憑 : 경신)부터 장차영(張次永 : 신미)까지.

제 5책 (현존, 43cm×27cm) : 황이장(黃以章 : 경오)부터 유제송(柳齊松 : 기사)까지

제 6책 (현존, 25cm×36cm) : 홍정민(洪廷敏 : 임술)부터 최성태(崔聖泰 : 갑술)까지

제 7책 (현존, 42cm×28cm) : 주선 6회 구획, 최진서(崔鎭瑞 : 기사)부터 황완(黃玩 : 경술)까지

제 8책 (현존, 44cm×27cm) : 홍득천(洪得天)부터 황이청(黃以淸)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청아록 제 8책에는 「서원록이록(書院錄移錄)」과 「환록(還錄)」이 덧붙여져 있다. 「서원록이록」과 「환록」은 연대별로 이록된 것을 모은 것으로 이록은 정묘년의 기록인데, 경원선(慶元善)부터 한도세(韓道世)까지 기록되어 있다. 「환록」은 기사년 8월 유명형(兪命亨)부터 임정(林挺)까지, 기사년 11월 박련(朴煉)부터 홍상적(洪相績)까지, 갑신년 8월 유익(柳益)부터 성이덕(成爾德)까지, 갑오년 홍경조(洪景祚)부터 유지까지, 갑오년 8월 김황(金璜)부터 김경록(金慶錄)까지, 정묘년 이필영(李必英)부터 성백조(成百祚)까지 기록되어 있다.

③ 『서재청아록(西齋靑莪錄)』 : 1책이나 전하지 않는다.

④ 『유사안(有司安)』 (현존) : 표제가 없으나, 내용중에 내제로 진신유사와 장보유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연기향교의 유사안임을 알 수 있다.

책의 크기는 26cm×39cm이고, 「진신유사안(摺紳有司案)」과 「장보유사안(章甫有司案)」으로 구분 · 합책되어 있다. 「진신유사안」은 목선 5행으로 구획되어 김관명(金觀命)에서 송계수(宋啓洙)까지 25명이 기록되어 있고, 「장보유사안」역시 목선에 5행으로 구획되어 김신겸에서 이영재까지 13명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조선청금록(朝鮮靑檣錄)』 : 인쇄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⑥ 『향사집성(享祀集成)』 : 1권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⑦ 『세신묘 청금(歲辛卯靑襟)』 :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사본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⑧ 『교궁입법(校宮立法)』 : 1책으로 3장이다. 경신이라고 쓰여 있는 필사본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⑨ 『모성계좌목(慕聖契座目)』 : 60장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⑩ 『재임안(齋任安)』 (현존) : 4책의 필사본이다.

제 1책 : 1795년(정조 19)에 기록된 것으로,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2책 : 정묘~을미까지 기록된 것으로, 19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3책 : 정축~정해까지 기록된 것으로,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4책 : 정묘~정축까지 기록된 것으로, 36장으로 구성되었다.

홍중후(洪重)부터 기록된 것이다.

- ⑪ 『향교둔정양안(鄕校屯田量案)』 : 신묘에 기록된 것으로 필사본 1권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⑫ 『향교둔전도조기(鄕校屯田도租記)』 : 신묘에 기록된 것으로, 필사본 1권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⑬ 『연기향교흥학절목(燕岐鄕校興學節目)』 : 병술년이라고 적혀 있는 2권의 필사본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⑭ 『학교규범(學校規範)』 : 갑신이라고 적혀 있는 한권의 필사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⑮ 『향교사례(鄕校事例)』 : 무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권의 필사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⑩ 『교중절목(校中節目)』 : 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권의 필사본이
나 전하지 않는다.
- ⑪ 『일기(日記)』 (현존) : 1929년~1960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총2권으
로 1권은 공부자(孔夫子) 2515년 갑진년부터
2권은 공부자 2488년부터 기록되어 있다.

② 향안 관계자료

- ① 『구향안(舊鄉案)』 (현존, 29.5cm×38.5cm, 1652년, 1772년 수정) :
모두 18장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구향안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내용은
구향안서(舊鄉案序), 개수정서(改修正序, 1772년 영조 48), 좌목(座目),
중수서(重修序, 신유), (중수)좌목(座目, 기사 · 임신 · 정축)으로 나누어
져 있다.
- ② 『향안』 (현존) : 모두 3책이다. 제 1책은 필사본으로 모두 22장인데,
임오년에 쓰여진 것으로 현감 정석달(鄭錫達)부터 장규서(張奎瑞)까지
2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제 2책은 역시 필사본으로 신향안서(新
鄉案序) 2장, 명단이 4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책은 중수향안서(重
修鄉案序) 4장과 명단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일향입법(一鄉立法)』 (현존, 1652년) : 1책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서문」과 「절목」 28조와 「관하인정습절차」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序文)」 : 연기지방의 향풍이 해이해진 것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유 · 향(儒 · 鄉)’ 분열 때문이라 하면서 ‘합석’ 할 것을 지적하였다.

「절목(節目)」 28조 : ‘합석’ 한 ‘유향’ 이 어떻게 연기지방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적고 있다. 절목의 내용은 향회의 구성, 향임, 향
청운영, 향원(鄉員) · 한산(閑散) 및 하민(下民)들에 대한 규정조항으로
구분된다. 절목 28개조를 통해서 연기지방의 사족들은 향원뿐만 아니
라, 한산과 상한 · 천민에 이르기까지 ‘유향’ 중심의 향촌사회질서를 구상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향입법’의 작성자들은 연기지방
향촌사회의 신분구조를 유향-한산-상한-천민 4개의 계층으로 이해하
고 있었으며, 그러한 등급에 따라 하급계층이 상급계층을 침묵하거나,

분외의 직임을 맡는 것을 규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어기면, 향원의 경우에는 향벌을 내렸으며, 한산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관청에 고하여 벌칙을 주도록 하였다.

「관하인정습절차(官下人正習節次)」 16조 : 향리(鄉吏), 가리(假吏), 사령(使令), 관노(官奴) 등 관속들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일종의 향규(鄉規)라 할 수 있다.

④ 「입법초」 : 향회의 구성과 향안에의 입록을 구성하는 향안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제1조는 서문, 제2조~제5조는 좌수·별감 등 향임의 선출방법과 향임에 대한 규제방법, 제6조~제15조는 향회의 구성과 새로운 향원의 입록, 즉 신천(新薦)에 관한 것이다. 새롭게 향안에 입록할 때에는 26세 이상으로서 먼저 3향을 보고, 다음으로 인품이나 학문이 빼어난 경우에 한해서는 2향인 경우라도 입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③ 향약 관계자료

① 『향약안(鄉約案)』(현존) : 모두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정사년에서 임오년까지의 기록으로 36장의 필사본이다. 또 하나는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진신유사 송명노가 연기현감으로 재임한 기간이 1878~1880년인 것으로 보아, 그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두 21장의 필사본인데, 푸른색 표지에 묵선으로 4행을 구획한 뒤, 앞에는 향약 임원의 직임과 명단, 뒤에는 각 면별 임원이 기록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향약임원 명안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향약참여자의 명단은 별도의 좌목에 적혀 있다.

- 연기현 향약의 임원은 진신 송명노(宋明老), 도약장 황처좌(黃處佐), 도약헌 유천주(兪天柱), 부약헌 임덕곤(林德坤), 도약정 장익상(張翊相), 부약정 성재기(成載璣)이고, 각 면별 임원은 면약장(面約長), 동몽훈(童夢訓), 공원(公員), 색장(色掌), 별검(別檢), 장선(掌善), 장과(掌過), 장벌(掌罰), 장화(掌貨), 장기(掌記), 독약(讀約), 직일(直日)이 각각 1명씩 기

록되어 있고, 성명 밑에는 자와 생년과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 총 30장으로 현존하고 있다.

- 북일면 (33명) : 임순영(林順影)부터 이재구(李載九)까지
 - 남 면 (125명) : 임학원(林학원)부터 임수광(林秀光)까지
 - 북이면 (86명) : 홍수영(洪洙泳)부터 장기택(張箕宅)까지
 - 동일면 (54명) : 임동승(林東昇)부터 황필원까지
 - 북삼면 (94명) : 홍도영(洪道泳)부터 안원량(安元良)까지
 - 동이면 (38명) : 장기제(張紀濟)부터 양명헌(楊明憲)까지 :
모두 430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한다.
- 제2책은 푸른색 표지에 목선으로 6행을 구획한 뒤, 역시 면별로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명 밑에는 자와 생년과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 총 21장이다.
- 동일면 (60명) : 황처좌(黃處坐)로부터 박연룡(朴淵龍)까지
 - 남 면 (76명) : 임덕곤(林德坤)부터 곽순영(郭純榮)까지
 - 동이면 (28명) : 장기상(張○相)부터 장필환(張弼煥)까지
 - 서 면 (28명) : 임영선(林永善)부터 임봉주(林鳳周)까지
 - 북일면(9명) : 임영선(林永善)부터 임희달(林希達)까지
 - 북이면 (3명) : 조희(趙熺)부터 김창기(金昌起)까지 모두 214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고 있다.
- ② 『향약강조(鄉約綱條)』 : 36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 1권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향약들을 정리한 것으로 향약연보, 향약관련제사, 서원향약, 흥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③ 『향약장정(鄉約章程)』 : 1책으로 조병식(趙秉式)등이 1904년에 만들어 각 군현에 배포한 향약규범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④ 『향약설립안(鄉約設立案)』 :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임원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 ⑤ 『직원록(直員錄)』 (현존) : 류인철(柳寅哲)이 지은 서문록이 있으며 임노동(林魯東)부터 황익주(黃益周)까지 기록되어 있다.

④ 기타자료

- ① 『구폐절목(幣節目)』 : 임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1권의 필사본이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② 『고마청전도록(*馬廳錢都錄)』 : 경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1권의 필사본이나 전하지 않는다.
- ③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 (현존) : 건(乾) · 곤(坤) 2책으로 되어 있다.
- ④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현존) : 1권은 경상도편이고 2권은 전라남도 · 강원도가 기록되어 있다.
- ⑤ 『모성계입금록(慕聖入金錄)』 (현존) : 병진년 8월 27일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다.
- ⑥ 『연기문묘석존대제분방기(燕岐文廟釋尊大祭分榜記)』 (현존) : 병인년 8월 9일 이후에 기록하였다.
- ⑦ 『장의록(掌議錄)』 (현존) : 공부자(孔夫子)탄생 2년 5월 15일부터 갑진년 정월까지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임헌빈(林憲斌)이 지었음. 유치성(兪致成)부터 임헌용(林憲容)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고 있다.
- ⑧ 『유도회등록부(儒道會登錄簿)』 (현존) : 단기 4292년부터 기록되어 있다.
- ⑨ 『장의회의록(掌議會議錄)』 (현존) : 병오년 11월 20일부터 경오년 12월 24일까지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⑩ 『전교사무인계부(典校事務引繼簿)』 (현존) : 공부자(孔夫子)탄생 2년 5월 15일 즉, 갑진년 1월 15일부터 임진년 10월 18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전교들이 사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현존하고 있다.
- ⑪ 『포창서류철(포彰書類綴)』 (현존) : 을묘년 이후를 기록하고 있다.
- ⑫ 『도기(到記)』 (현존) : 병진년 이월 이십일, 분방시도기(分榜時到記)부터 기사년 9월 4일(음력 8월 5일)까지 추향대제도기(秋享大祭到記)가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고 있다.
- ⑬ 『문묘춘추향시도기(文廟春秋享時到記)』 (현존) : 병인년 8월 9일(1926)부터 신묘년 3월 15일의 『별기(別記)』 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현존하고 있다.
- ⑭ 『추수기(秋收記)』 (현존) : 무술년(1958)부터 무오년(1978. 9.29)까

지 기록하고 있다.

- ⑮ 『청아록(清雅錄)』(현존) : 유학(幼學) 임여설(林汝楔)부터 임오년 5월 성선장(成善章)까지 기록하고 있다.

(2) 현판류

①제향교(題鄉校, 1871년) : 여러 향교에서 볼 수 있는 현판으로, 서두에는 정덕 정축년(正德 丁丑年, 1517년, 중종 12)에 영남관찰사 김안국이 소학(小學)을 보급하면서 지은 글이 있고, 김안국의 소학 보급과 견주어 1817(순조 17) 충청관찰사 권상신이 호서지역의 모든 향교에 계판토록 한 것이다.

②연기현학명륜당중수기(燕岐縣學明倫堂重修記, 1865년) : 현감 조병익(趙秉益)이 쓰고 송래희(宋來熙)가 기록한 것이다. 연기현감 이태진(李泰鎭)이 부임하여 강당과 서재를 둘러보니, 기둥이 썩어 지붕의 기와가 깨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채 수십년 내려온 것을 개탄하였다. 연기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청에서 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재정을 마련해서 몇 달만에 강당과 재실의 수리를 마치고 완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한 사람은 황유원(黃元), 임학원(林學元), 재임(齋任)은 홍상중(洪上鍾), 유천주(兪天柱), 성상학(成相學)이다.

③연기현향교중수기(燕岐縣鄉校重修記, 1897년) : 현감 은진인 송명노(宋明老)가 지은 것으로 송명노가 부임해 오던 1878년 10월 제향때 임중복(林鍾復)이 찾아와 우리 고을의 향교가 퇴락하였는데, 마침 올해 풍년이 들어 서재를 보수할 겸 재정을 거두기에 이르렀다. 이에 목수를 동원해 며칠만에 집의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다.

④연기향교흥학기(燕岐鄉校興學記, 1886년) : 현감 이성렬(李聖烈)이 기(記)한 것으로 향교의 학풍이 흥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⑤강학기(講學記, 1898년) : 전도유사(前都有司) 장태섭(張台燮)이 지었으며, 당시 재장은 임봉조(林鳳祚), 장기팔(張基八), 도유사는 유익환(兪益煥), 강의 홍재은(洪在垠), 강태만(姜泰萬)이다. 1897년 12월 충청도

어사로 온 박영민이 연기향교에 청동 200량을 기부해서 춘추로 강학할 때 소용되는 경비로 쓰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⑥섬학계기(瞻學契記, 1900년 : 제목이 없는 현판으로 강학의 자원으로 50금을 지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현감 송중휘(宋鐘徽)가 찬했으며, 당시 공원은 임공우(林兢佑), 도유사 임우선(林禹善), 장의 안희문(安熙文), 김창희(金彰會)였다.

⑦전사청중수기(典祀廳重修記, 1901년) : 재장 홍재전(洪在銓)이 기록한 것으로, 당시 군수는 완산인 이범소(李範紹)였으며 유공원(儒公員)은 유경환(兪璟煥), 도유사 홍재학(洪在學), 장의 임윤조(林胤祚), 장기팔(張基八)이었다. 현감 이범소가 전사청이 무너진 것을 살펴보고 50금을 내주어 제기와 주방을 수리해 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⑧연기문묘중수기(燕岐文廟重修記, 1930년, 直員 洪英燮 撰) : 향교중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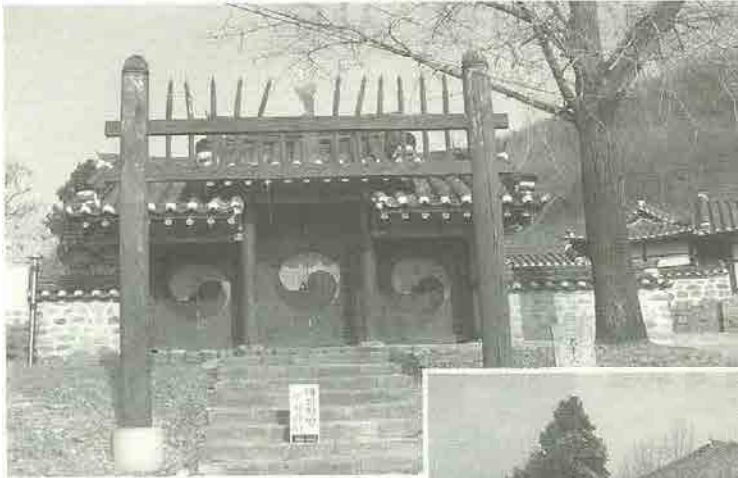
⑨문묘중수기(文廟重修記, 1937년, 林章佑 撰) : 대성전 중수를 기록하고 있다.

⑩신문중건실록(神門重建實錄, 1966년, 典校 林庚喆 撰) : 대성전 중수를 기록하고 있다.

⑪문묘중수기(文廟重修記, 1969년, 孟義燮 撰) ; 대성전 중수를 기록하고 있다.

⑫대성전급명륜당중수기(大成殿及明倫堂重修記, 1973년, 典校 康炳甲 撰) :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⑬중수사실기(重修事實記, 1984년) : 명륜당 중수기로 유의진(柳宜鎭)이 찬(讚)하였다.



외삼문



전사청



하마비



명륜당

제2절 남면의 서원, 사우

1. 덕성서원(德星書院)

소재지 : 남면 방축리

건립연대 : 1885년 창건 1978년 복원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 40호



1) 제향인물

(1) 임헌희(任憲晦 1811 ~ 1877)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명로(明老) · 중명(仲明), 호는 고산(鼓山) · 전재(全齋) · 희양재(希陽齋)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에 증직된 임천모(任天模)이며, 어머니는 홍익화(洪益和)의 딸 남양홍씨(南陽洪氏)로 1811년(순조 11) 직산(稷山) 산음리(山陰理)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1836년(헌종 2) 감시(監試)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서 떨어지자 송치규(宋穉圭)를 찾아가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1842년 홍직필(洪直弼)의 제자가 되었다.

1858년(철종 9) 조두순(趙斗淳)이 “명가의 후예로서 효우를 힘써 행하면서 조용히 거처하며 평소 배양한 뜻을 지키고 있다”고 천거하여 효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판부사 김좌근(金左根)이 경술(經術)과 행의(行誼)로 천거하여 다시 활인서 별제(活人署 別提), 전라도사, 군자감정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모두 사양했으며, 1861년에는 다시 조두순(趙斗淳)의 천거로 경연관에 발탁되었으나, 역시 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1864년(고종 1) 장령 · 집의 · 장악원정 등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호조참의가 되었다. 이때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을 폐지하라는 왕명이 내려지자, 절대 부당함을 거듭 상소하여 다시 제향하게 하였다.

1871년 공주 삼기(三岐)로 이거하였고, 2년 뒤인 1873년에는 공주 명강동(明剛洞)으로 옮겨 살았다. 1874년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승지를 보내어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고, 그 뒤 대사헌·제주(祭酒) 등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1877년 성전(星田, 현 연기군 남면 방축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일찍이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그의 학설은 주리론(主理論) 주장하는 이항로(李恒老) 문하의 김평묵(金平默)과 대립하게 되어, 1862년 서신으로 성리설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임헌회는 천주학(天主學)을 극력 배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1902년 윤용선(尹容善)의 주청으로 정2품 자헌대부 내부대신에 추증되었다. 1908년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도(道)와 덕(德)이 있고 널리 글을 읽음 [道德博文] 을 ‘문(文)’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경계함 [夙夜做戒] 을 ‘경(敬)이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전재집(全齋集)』, 『고산집(鼓山集)』, 『속고산집(續鼓山集)』이 있고, 또 문인들에게 명하여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의 문집 속에서 명언들을 뽑아 책으로 엮도록 한 『오현수언(五賢粹言)』이 1905년에 간행되었다.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간재(艮齋) 전우(田愚), 경의당(敬義堂) 김진수(金振遂) 등이 있다. 연기군 남면 방축리의 덕성서원(德星書院, 崇德祠)에 제향되어 있으며, 남면 방축리에는 그가 살았었다는 집이 남아 있다.



(2) 전우(田愚, 1841~1922)

한말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담양(潭陽)이고, 초명은 경륜(慶倫) · 경길(慶吉), 자는 자명(子明), 호는 구산(臼山) · 추담(秋潭) · 재(良齋)이다. 1841년 전재성(全在聖)의 아들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 정동 · 삼청동 · 순화동(順化洞) 등에서 살았으며, 21세에는 당시의 거유(巨儒) 신응조(申應朝)의 권유로 직접 아산의 신양(新陽)으로 찾아가 임헌회(任憲晦)와 사제의 의를 맺고, 임헌회가 죽을 때까지 아산 · 전의 · 연기 · 진천 · 상주 · 문천 등지에 따라가 살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1882년(고종 19) 선공감 가감역(繕工監 假監役) · 감역 · 전설사 별제(典設司 別提) · 강원도 도사, 1894년 사헌부 장령, 이듬해 순흥부사 ·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1895년 을미년에는 박영효(朴泳孝) 등 개화파가 그를 수구학자(守舊學者)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개화를 실현시키면 전우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번 청하였으나 고종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소(疎)를 울려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제자들과 상의하여 “마침내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공자의 뜻을 취해 해도로 들어갔다. 지금의 부안 · 군산 등의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옮겨다니면서 학문을 펼치며, 나라는 망하더라도 도학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2세 되던 해에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여, 섬 이름을 중화를 잇는다는 의미인 계화도(繼華島)라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6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지금의 계화도에 있는 집은 모두 당시의 제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스승인 임헌회의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계승하여, 전통적인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려 한 점에서, 조선조 최후의 정통유학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그는 이이와 송시열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힘썼으며, 그 나름대로 성리학적 경지를 창안하여 심본성설(心本性說)을 주제로 성존심비(性尊心卑) 또는 성사심제(成師心弟)의 설을 부르짖었다. 이것은 주자(朱子)가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작용을 설명하면서 성(性)을 가장 근본적인 것

으로 여겼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정통 왕권(王權)의 계승만이 국권의 회복이라 하였고, 파리장서(巴里長書)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이적(夷狄)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하여 “이는 척화를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외세의 간섭을 자초하는 일이니 열강의 세력을 빌려 이들에게 호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고 거절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스스로 조선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전혀 일본인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세금은 물론 제자 가운데 개화하는 사람은 이름을 지웠다.

제자로는 오진영(吳震泳) · 최병심(崔秉心) · 이병은(李炳殷) · 송기면(宋基冕) · 권순명(權純命) · 유영선(柳永善) 등 3천 여명이며, 저서로는 『간재집(艮齋集)』 · 『간재사고(艮齋私稿)』 · 『추담별집』 등이 있다.

그의 묘소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 연기의 승덕사(崇德祠), 계화도의 계양사(繼陽祠), 의령의 의산사(宜山祠), 고창의 용암사(龍巖祠), 정읍의 태산사(台山祠)등에 제향되었다.

(3) 이재구(李載九)

호는 불래재(不匱齋)이다. 1836년(헌종 2)에 연기에서 태어나 전재 임헌회 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도학(道學)에 전력함과 동시에 14년간을 경적탐구(經籍探究)와 육영사업에 종사했다.

(4) 김준영(金駿榮)

호는 병암(炳庵)이다. 1842년(헌종 8) 공주 현암(公州 玄岩)에서 출생하여 명도주의(明道主義)에 입각하여 간재 전우에게 사사(師私)하였다.

(5) 이유흥(李裕興)

호는 성암(誠庵)이다. 1859년(철종 10)에 천안 증자동(曾子洞)에서 태어나 성경효우(誠敬孝友)를 신조로 하면서 병암 김준영에게서 배웠다.

(6) 조홍순(趙弘淳)

호는 노암(魯庵)이다. 1860년(철종 11) 충북 진천 성암 유동에서 태어났으며, 문예에 능통하였는데 평생을 간재 전우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7) 임헌찬(林憲瓚)

호는 경석(敬石)이다. 1876년(고종 13) 연기 맹곡(孟谷)에서 태어났다. 그는 문예(文藝)에 조예가 깊었고 율곡 전집(栗谷 全集)을 탐독하였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예절과 청빈을 실천했다.

2. 갈산서원 터(葛山書院址)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종촌리 도산

건립연대 : 1694년(숙종 20) 건립 / ****훼손

갈산서원은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를 제향한 서원으로 1694년(숙종 20) 공주목 삼기촌 갈산(현 연기군 남면 종촌리 도산)에 세워졌다.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와 함께 충청오현(忠淸五賢)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산림학자이다. 1684년 그가 죽은 후 문인들에 의해서 그가 만년에 거주하던 공주의 충현서원에 제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문인들은 삼기촌 갈산에 이유태를 제향하는 서원을 별도로 세우게 되는데, 서원을 세울 당시 부안임씨 상련당(賞蓮堂) 임우직(林遇稷, 1637~1702)이 서원을 지을 당시 터를 희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려 이유태를 제향한 갈산서원의 건립과 운영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이씨 문중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에 의하면, ○○년 5월 20일 공주유생 오명협(吳命協) 등 50인이 이유태를 제향한 갈산서원을 훼파한 우두머리가 임희춘(林希春) 아니면 임우팔(林遇八)이라고 지목하고, 이미 임우팔이 그 죄상을 이장회(李長淮, 1688~1764)에게 자백했으니, 그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산서원은 지역 사족간의 대립 속에서 건립되고 훼파되었는데, 그 이후의 재건여부 등은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1) 제향인물

(1) 이유태(李惟泰, 1607~1684)

이유태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와 함께 충청오현(忠淸五賢)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산림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이며, 1607년(선조 40)에 금산군 노동리(蘆洞里)에서 유학 이서(李署)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15세 되던 해에 진잠의 가둔촌(嘉遯村,)에 은거하여 강학하고 있던 민재문(閔在文)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배웠으며, 18세부터는 연산에 거주하던 김장생(金長生) · 김집(金集) 부자에게 사사하면서 그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특히 1년 연상인 동촌 송준길과 같은 나이인 우암 송시열과는 우의가 남달랐다. 1630년(인조 8)에 별시에 합격하였으나,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전시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 1634년(인조 12) 김집의 천거로 회릉 참봉에 임명되었고, 이어 1636년(인조 14)에는 건원릉 참봉을 지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자, 그는 “선비가 가히 출사할 의(義)가 없어졌다.”고 탄식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무주의 덕유산 아래 산미촌(山味村)에 은거하였다. 이후 대군사부, 내시교관, 세자시강원 자의 등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면서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김자점(金自點) 일파를 견제하고 북벌을 도모하기 위해 김상헌 김집 등 척화파와 산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는데, 이때 이유태

도 공조좌랑으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친청파들이 김상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유태는 앞장서서 이들의 죄과를 논척하였는데, 이는 조정이 시끄러워지는 단서가 되었고, 1650년 2월 김자점 일파가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산림들은 결국 모두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같은 사건의 발단이 된 이유태의 상소는, 후에 효종으로부터 광소(狂疏)라고 낙인찍히면서 한때 정거(停擧 : 유생에게 얼마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형벌)에 처해지기까지 하였다.

1651년(효종 2) 말에 친청세력이 중앙정계에서 축출되자 이듬해부터 다시 이유태의 재등용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1656년(효종 7) 마침내 공조정랑에 제수되고 이어 지평 · 시강원 진선 · 장령 · 집의 등에 제수되었으나, 한번도 부임하지 않았다.

1659년(효종 10)에는 다시 송시열 · 송준길 · 유계 · 허적 등과 함께 밀지를 받고 조정에 나갔으나, 당시 어지러운 조정과 사회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는 곧 낙향하여 ‘기행봉사(己亥封事)’를 작성하였으나, 효종이 갑자기 승하하였기 때문에 1660년(현종 원년)에야 비로소 조정에 제출되었다. 그의 상소가 조정에서 논의되는 동안 이유태는 산림의 증망인으로 추앙받았고, 관직도 계속 승진하여 현종조에만 해도 무려 22차례에 걸쳐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한번도 부임하지 않았다.

이유태는 송시열과 절친한 친우이자 동학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입장도 송시열과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1660년(현종 1)에 발생한 1차 예송에서는 송시열 · 송준길과 함께 기년설(碁年說)을 주장하여 남인과의 예송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1674년(현종 15)에 시작된 2차 예송에서 패배하면서 윤희 등 남인의 탄핵을 받아 영변(寧邊)에서 5년 반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절친하던 송시열과의 관계마저도 예론 논쟁과 연관된 알력으로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이유태는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이상의 정치활동은 하지 않고, 공주의 중동에서 독서로 여생을 보내다가 1684년(숙종 10)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881년(고종 18) 문헌(文獻)의 시호를 받았으며, 문집인 『초려집(草廬集)』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연기군 남면 종촌리 도산(道山)에 있다. 공주의 용문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3. 금호서사 터(金湖書社址)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송원리 1구

건립연대 : 1827년(순조 27)

훼철연도 : 1868년(고종 5)

1) 연혁

금호서사(金湖書社)는 죽당(竹堂) 류진동(柳辰仝), 석담(石潭) 류형(柳珩), 금사(錦沙) 류충걸(柳忠傑)을 제향하기 위하여 1827년(순조 27)에 건립되었던 서원이다.

1832년(순조 32)에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이 쓴 『금호서원기(金湖書院記)』(1871년, 호서읍지 수록)에 의하면, 정묘조에 특명으로 유씨 세가(世家)가 『존주록(尊周錄)』에 편입되자, 금호의 선비들이 서로 상의하여 말하기를 “향선생이 죽으면 그 사례(社禮)를 지낸다. 우리 향리에 유씨의 집안과 같은 일문삼현(一門三賢)이 있으나 일찍이 숭봉(崇奉)의 예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은 향선생과 같지 않은 것이다. 향리에 모현(慕賢)의 풍속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여, 마침내 금호 위에 사우를 세우고 삼현을 병향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1783년(정조 7) 류취장 병조판서 증직, 1796년(정조 20) 류형 충청공 시호, 류지걸 명정 및 호조좌랑 증직, 1799년 류진동 정민공 시호, 1802년(순조 2) 류취장 무민공 시호 등 진주류씨 가문에서 배출된 인물들의 포장과 증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류형의 아들은 금사(錦沙) 류충걸(柳忠傑)의 유지(遺址)에 정민공 류진동과 충청공 류형, 류충걸을 제향하는 금호서사(金湖書社)를 건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공주 유생 이계원(李繼遠) 등 37명이 올린 등장을 보면, “죽당



금호서사터



출토기와



류진동, 석담 류형, 금사 류충걸의 충절을 찬양하고 이미 해남과 함평에 사당을 지어 모시고 있으니 공주에도 사우 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거둬진 요청에도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건립 40여년 만인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금호서사터는 연기군 남면 송원 1리의 이영동씨 집이 있는 자리로, 당시 서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주춧돌, 기와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류충걸(柳忠傑)과 류비연(柳斐然)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서원이 훼철된 후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류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류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기면 하봉리에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2) 제향인물

(1) 류진동(柳辰叟, 1497~1561)

본관은 진주(移封 晋州)로 자는 숙춘(叔春), 호는 죽당(竹堂)이다. 아버지는 류한평(柳漢平)이고, 어머니는 수사 홍귀해(洪貴海)의 딸 남양홍씨이다.

1522년(중종 17) 사마 양시에 합격하였으며, 153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제수되었다. 이후 예문관 검열을 거쳐 승정원에 주서가 되었는데, 스스로를 엄



격히 지키고 권귀(權貴)에 아부하지 않아 탄핵되기도 하였다. 1537년 사헌부 감찰이 되었고, 이어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었으며, 시강원 사서가 되는 등 조정의 총애를 받았다. 1538년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고, 이어 사헌부 지평, 시강원 문학을 여러번 지낸 후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1541년 홍문관 응교로 승진하였고, 사헌부 장령, 집의를 거쳐 다시 홍문관 전한으로 옮겼다가 직제학으로 승진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특명으로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소를 올려 소학(小學)의 금법(禁法)을 완화할 것을 청하여 마침에 소학에 대한 금령이 해제되었다. 이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그 소를 ‘일양

소(一陽疏 : 어두운 가운데 하나의 밝은 장소)라 칭찬하였다.

1544년 승정원 동부승지, 좌승지를 역임하였고, 이해 가을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홍문관의 장관이 되었다. 1546년(명종 1) 좌승지를 거쳐 도승지로 승진하였으며, 1547에는 사헌부 대사헌으로 발탁되었다. 1548년 동지춘추관사를 겸직하다가 그 해 겨울에 공조참판으로 옮겼으며, 이듬해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550년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고, 그해에 또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51년 경기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1553년 이조참판이 되어 도총부 부총관을 겸임하였고, 그해 가을에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다. 1554년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이때 경연(經筵)에서 『주역(周易)』을 진강하게 되어 『주역』에 밝은 자를 선발하게 됨으로 써 다시 기용되었다.

1555년 다시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었고, 1556년 한성부 판윤으로서 가을에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1558년에 내직으로 돌아와 공조판서가 되었다. 1559년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직하던 중 중풍을 얻어 사직을 청하니, 왕이 공조판서를 바꾸고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그 녹(祿)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며 받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해 여름에 소를 올려 당시 정사가 어그러지고 어지러움을 힘껏 진달하다가 이량(李梁) · 심통원(沈通源) 등의 미움을 받아서 한 달이 넘도록 옥에 갇혔다가 정주(定州)로 귀양갔다. 이듬해인 1560년에 풀려 나와서 1561년(명종 16)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인재(忍齋) 홍섬(洪暹, 1504~1585)이 신도비문을 지었다.

그는 성품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였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죽화(竹畵)를 잘 그렸으며, 남대문의 편액인 숭례문(崇禮門)을 썼다는 설도 있다. 1799년(정조 23년) 정민(貞敏)의 시호를 받았으며, 당시 시장(諡狀)은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지었다.

(2) 류형(柳珩, 1566~161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이며, 본관은 진주(移封 晉州)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북상하던 중

강화도에 이르러 김천일(金千鎰)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그 이듬해인 1593년 의주 행제소에 가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1594년 29세에 선전관으로서, 전주에서 실시된 무과 별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다시 선전관에 임명되었고, 이어 초관, 파총, 감찰 등을 역임한 후 1596년 해남현감에 제수되었다.



해남현감으로 재직하던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통제사 이순신의 막료가 되어 수군

재건에 노력하였으며,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으로 출전하여 왜군과의 싸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광양만 근처에서 이순신과 진린 제독의 연합작전 중, 그의 기지로 진린과 이순신을 곤경에서 구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1598년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등 임진왜란의 막바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특히 노량해전에서는 적탄을 맞고 전투한 이순신을 대신하여 군을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한 전공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로 특진되어 부산진 첨절제사에 발탁되었으나, 미처 부임하기 전에 경상좌수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600년에는 충청수사, 1601년에는 전라우수사에 임명되었다. 1602년에는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1603년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임명되었다가 바로 충청병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짐을 우려하여 그를 회령부사로 삼았는데, 그는 여기서 민심 수습과 성곽 개축의 공을 세워 가의대부로 승진하였다. 1607년에는 함경북병사로 임명되는 동시에 왕으로부터 밀부(密符)를 받았다.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경상좌병사로 전임되었는데, 야전지휘관으로 적격자인 그를 후방으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사헌부, 사간원에서 강력히 일어난데다, 미처 부임도 하기 전에, 때마침 평안도 변경에서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평안병사에 전임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압록강을 따라 일찍이 설치된 7개 읍성을 일일이 살펴보았는데, 성은 허물어지고 호는 흙으로 메워져 일단 유사시 적의 침입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는 한심한 실태였다. 그는 창성, 삭주, 벽동 등 7개성을 회령, 경성에서와 같이 차례 차례로 수축해 나갔다. 또

한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장군의 오랑캐 방어전술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거병(車兵), 기병(騎兵), 보병(步兵)의 합동 야전전술 교범을 만들어 이를 철저히 훈련시켰는데 그 강도가 서릿발같았다고 한다.

평안감사로 재직하던 1611년(광해군 3) 격무로 인한 중풍으로 쓰러지자, 왕이 어의를 보내 그를 치료케 하였으나, 마침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져 1612년 평안병사직을 사직하였다. 그러나 1613년 다시 평안병사에 재기용되어 많은 반대와 모함을 무릅쓰고 황주성 축성에 노력하였으며, 1615년(광해군 7)에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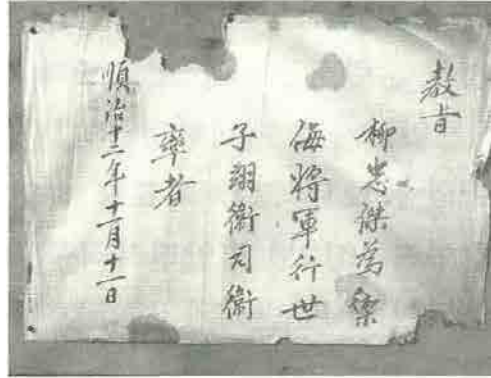
그가 죽은 후 1618년(광해군 10) 황주성 축성의 공이 인정되어, 병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증직되었고, 이어 1620년(광해군 12) 선무원종 1등공신으로 녹훈되어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추증되었으며, 부인도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다. 1624년(인조 2)에는 차남 효걸(孝傑)이 진무공신 2등에 책록됨으로써,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관상감사진산부원군에 추증되었다. 1722년(영조 48)에는 해남 사람들이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해남읍 용정리에 오충사를 세워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배향하였다. 1796년(정조 20)에는 충경(忠敬)이라는 시호교지를 받았으며, 1827년 금호서사에 제향되었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71년 충렬사의 건립과 함께 공주 장기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유형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갖춘 인물이었다. 국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그가 등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이란 글자를 문신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남송(南宋)의 악비(岳飛, 1103~1142)에 비견하였는데, 그의 손자 병연(炳然)도 등에다 ‘진충보국(精忠報國)’이라는 문신을 함으로써 중국에는 악무목 하나지만, 조선에서는 유씨 집안에서만 둘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효심 또한 이에 못지 않았는데,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였고, 모친이 임종 전에 꿩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꿩을 구하지 못해 드시지 못하고 임종하자 이를 슬프게 여겨 평생 꿩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3) 류충걸(柳忠傑, 1588~1665)

본관은 진주(移封 晉州)로 자는 신백(薰伯)이다. 아버지는 공주 장기면 충렬사

에 제향되어 있는 류형(柳珩, 1566~1615)이며, 어머니는 이구순(李久洵)의 딸 전주이씨이다. 자라서 휴옹(休翁) 정홍익(鄭弘翼, 1571~162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18년(광해군 10)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이이첨(李爾瞻) · 정인홍(鄭仁弘) 등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려 하자 그는 소장을 올려 대의(大義)를 밝히

려 하였으나, 어머니인 이씨부인이 붓을 쥐고 울면서 만류하였으므로 마침내 올리지 못하였다. 또한 표친(表親)인 정조(鄭造)가 폐모론에 앞장을 섰으므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조(造)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여 꾸짖은 후, 공주 금강 가에 은거하였다. 류충걸이 왜 공주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외가쪽의 인연으로 공주에 오게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류충걸의 어머니인 전주이씨는 공주 부전동에 세거(世居)하고 있던 이세장의 증손녀로 그 후손들이 아직도 송원리에 세거하고 있다.

인조반정 후 1625년(인조 3) 중림도 찰방(重林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얼마 후 흥경원 재랑(興慶園 齋郎)이 되었는데, 일찍이 인조가 원(園)에 이르러 전배(展拜)를 마치고 그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물품을 내리며 “너는 나의 포의(布衣) 적 친구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충걸의 부인인 능성구씨(綾城具氏)가 인조의 외숙인 능해군(綾海君) 구성(具成, 1558~1618)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양도 찰방(景陽道 察訪)에 제수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역 사람들이 비를 세워서 추모하였으며, 사재감 직장으로 승진되었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동(嶺東)으로 달려가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던 인조가 청에 항복하고 한양으로 환도하자, 곧 궐 아래로 나아가 병란을 당하여 죽음으로써 적을 제어하지 못한 죄를 물어 처벌해줄 것을 청하고, 소장을 올려 힘을 기르고 치욕을 씻을 방책을 개진하였다. 이후 한성참군(漢城參軍) · 상서원 직장(尙瑞院 直長) · 예빈시 별제(禮賓寺 別提) ·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등을 거쳐 석성(石城)과 정산(定山)의 현감을 역임하였

으며, 벼슬이 익위사 익위(翊衛司 翊衛)에 이르렀다.

그는 천성이 지략과 용기가 비범하고, 불의에 항거하여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었으나, 항상 마음가짐이 어질고 자애가 깊어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며, 청렴하고 결백하였다. 당시 영의정 원두표(元斗杓, 1593~1664)는 류충걸이 벼슬에 있으면서 털끝만치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음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진정한 사대부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시를 지어 찬미하였다.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나이가 든 후에도 모친의 앞에서는 항상 어릿광대 노릇을 하여 기쁘게 해드렸으며, 회갑을 맞이하여 모친의 장수를 축하할 때에는 목청을 돋우어 노래하며 일어나 춤추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1681년(숙종 1)에 넷째 아들인 병연(炳然)이 귀하게 되어,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그의 묘와 신도비는 장기면 대교리에 있다. 신도비(총고 184cm, 너비 71.5cm, 두께 20cm)는 1687년(숙종 13)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후손 류지발(柳之發)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전(篆)을 썼다. 묘지문은 박세채(朴世采)가 지었다.

4. 임씨가묘(林氏家廟, 구 岐湖書社)

소재지 : 남면 나성리 101번지

건립연대 : 조선초기

임씨가묘(林氏家廟)는 전서공 임난수(典書公 林蘭秀)의 절의를 기리는 부조묘(不桃廟)이다. 현재는 독락정(獨樂亭) 경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래 양화리에 세워져 있었다. 고려말 임난수는 최영장군과 더불어 탐라(제주도)를 정벌하는데 큰공을 세운 인물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하여 벼슬을 버리고 공주 삼기촌(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은거하여 일생을 마쳤다. 그러한 임난수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1419년 세종대왕은 사당에 임씨가묘(林氏家廟)라



선액(宣額)하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명하였다.

또한 사제문(賜祭文)도 내려주었는데, 여기에 이르기를 “시기를 도울만한 기략을 운영하고 세상을 덮을만한 공훈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전서공파 문헌록(典書公派 文獻錄)』의 「행단 구사우 실기(杏廬 舊祠宇 實記)」(상량문)에 의하면 임난수의 부조묘 창건이 1419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건당시의 상량문이 세종 1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143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건물은 5칸 전후퇴로 되어 있었으며 중손인 임중(林重, 통훈대부 행평양서윤 장악원 정)이 주도하였다

임난수가 죽자 자손들은 묘소를 연기 동쪽 불과미 임좌(壬坐)의 언덕에 마련하였는데, 숙종 5년(1679)에 8대손 호군 임찬현(林繼賢)이 묘소를 보수하던

중에 376자의 지석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에게 신도비문의 찬술을 부탁하게 되었다.

송시열은 전서공의 행적에 대하여 “전서공이 몸을 지킴이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같다.”라고 평하고 이를 신도비로 세웠다.

숙종 30년(1704)에 또 한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상량문이 남아 있다.

공주와 연기 등 충청지역에 절의로 새롭게 부각된 부안임씨들은 숙종 36년(1710)에 임난수를 제향하는 부조묘를 확대 발전시켜 기호서사(岐湖書社)를 건립하였다. 서원에 관련된 각종 보고와 그 처리 결과를 정리한 『서원등록(書院謄錄)』에 의하면 기호서사가 원래 1710년에 ‘세덕사(世德祠)’라는 이름으로 건



립되어 서하(西河) 임춘(林椿), 전서공 임난수(典書公 林蘭秀), 부사공 임목(府使公 林穆)을 병향(並享)한 사우로 출발하였다. 그 후 순조 5년(1805)에 위의공 임흥(林興)을 추배하였다.

그러나 고종 5년 (1868)에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인하여 위패를 철거하고 향사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때 기호서사의 전서공의 위패는 세종조에 부조묘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감안하여 유지가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의 임씨가묘는 당시 독락정 경내 기호서사의 옛터에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배향인물

(1) 서하(西河) 임춘(林椿, 생몰년 미상)

고려 의종~명종 때의 문인으로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이다. 문헌을 상고하여보면, 대략 의종경에 태어나 30대 후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건국공신의 후예로, 일찍부터 유교적 교양과 문학으로 입신할 것을 표방, 무신란 이전에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다가 무신란 이후 가문 전체가 화를 입는 가운데, 약 7년여의 유락(流落)을 겪었다. 끝내 벼슬길에 다시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남달리 불우하였던 생애를 군자의 도(道)로써 지켜가고자 하였다.

이인로(李仁老)를 비롯한 죽림고회(竹林高會) 벗들과는 시와 술로 서로 즐기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탄식, 큰 포부를 문학을 통하여 피력하였다.

예천의 옥천정사(玉川精舍)에 제향되었다. 문집인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은 그가 죽은 뒤 지우(知友) 이인로에 의하여 6권으로 편찬된 유고집이며, 『동문선(東文選)』,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에 여러 편의 시문이 실려 있다.

(2) 전서공 임난수(全書公 林蘭秀)

임난수는 1342년에 출생하여 흥복도감록사, 숙옹부 좌변행수산원으로 별장을 제수받았으며, 신호위 정호군, 봉선대부 자금지대를 하사받았고, 봉정대부 부평부사, 통훈대부 판종부시사, 가선대부 공조전서를 역임하였다.

고려말 공민왕 23년 최영장군과 더불어 탐라를 정벌하였고, 고려말 조선초 불사이군의 충절을 철저히 지킨 고려유신이다. 이후 공주 삼기촌(三岐村, 현 연

기군 남면 양화리)에 은거하며 1407년에 졸하였다.

세종은 그의 충의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에 벼슬하지 않은 임난수의 사당을 부조묘로 선택하고 사패급복(賜牌給復, 토지를 하사하여 떼어주고 세금을 면제하여 줌)하였다.

(3) 부사공 임목(府使公 林穆)

임목은 임난수의 둘째아들로 태종조에 생원과 진사 양시에 급제하고 음사(蔭仕)로 승진하여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지내면서도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비인감무(庇仁監務)를 지냈고 평양서윤(平壤庶尹)을 지냈는데, 정사가 간결하고 청렴하여 사랑이 백성에게 끼치었다. 음죽현감(陰竹 縣監)으로 재임 중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교화시킨 것이 다 기록할 수 없다. 함주통판(咸州通判)을 지냈다. 후에 양양도호부사를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 금강상류에 정자를 지어 독락정(獨樂亭)이라 이름하고 여생을 보냈다.

(4) 위의공 임흥(林興)을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고 있다.

『나여정절록(羅麗靖節錄)』에 의하면, 임흥은 전진용부위좌령별장(前進勇副衛左領別將)으로 관직이 위의장군(威毅將軍)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세운 뜻이 굳건하였으며 일찍이 백운사(白雲寺)에서 글을 읽고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양촌(陽村) 권근(權根)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며 예설을 논하였다. 20세에 학행으로 산원동정(散員同正) 및 금주지사(錦州知事)에 재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고 선산으로 가서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을 찾아가 그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스승으로부터 임흥처럼 충효가 독실한 자는 처음 보았다' 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2) 유적현황

임씨가묘는 삼문과 사우로 구성되어 있다. 삼문은 솟을대문으로 문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물 중앙 상단에는 ‘임씨가묘(林氏家廟)’라고 씌여진 현판이 걸려 있는데, 현판은 신숙주의 아버지인 신장(申樞)이 썼다.

사당을 중심으로 앞에는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지은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본래 임난수의 신도비는 동면 불과미에 있었으나, 임씨가묘를 재건하면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세운 것이다. 사당 뒤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미륵불이 남쪽을 향해 서 있으며, 그 아래 민가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와 토기 등이 출토되어 이곳에 오래된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독립정과 임씨가묘 뒤쪽으로 백제시대의 토성이 쌓여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백제토기와 기와편도 발견되며, 성의 축조 방법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공주의 웅진성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승모각(崇慕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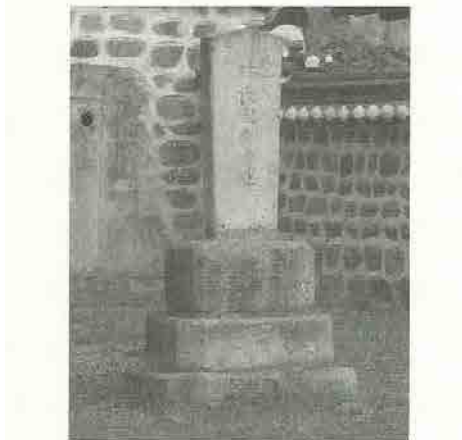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양화리 88번지

건립연대 : 1964년 건립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 35호

임난수(林蘭秀)는 부안인으로 1342년에 출생하여 삼사 우윤 등 11관직을 지냈으며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올라 고려말 최영 장군과 탐라를 정벌하는데 큰공을 세운 분으로 부안임씨의 중시조이다. 고려가 망한 후, 이태조가 여러번 벼슬을 주며 부름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큰 절개를 지켜 공주 금강변 삼기촌(남면 양화리)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다. 임난수가 승모각 앞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수령 650년으로 웅장한 괴목이 되어 도지정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일제때 일본인이 이곳의 나무를 베려했을 때, 은행나무가 울어 결국 베지 못하였다고 한다.

임난수는 1407년(태종7년) 6월 21일 돌아가시어 연기군 동면 불과미에 묘를 쓰고 승모



각에 가묘를 세우니, 세종대왕은 1419년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에 벼슬하지 않은 충절을 인정하여 임난수의 사당에 선택하고, 아울러 사패 급복하여 일구강산을 하사하고, 액자에 ‘임씨가묘’라 써주어 불천지위로 모시도록 명하시었다.



사당에는 임난수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임진 계사 때 왜적의 난리를 당하여 잃어버렸다. 당시 초상화의 모습은 임난수 장군이 탐라를 정벌하던 모습으로 싸움 중 왜구에 의해 한 손이 잘리었는데, 잘린 손을 화살통에 넣어 메고 있는 모습이라 한다.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독락정 경내의 기호서사를 지키기 위해 신주 일부를 그 곳으로 옮겼으며, 1923년 이곳에 유지의 비를 건립하였다. 1957년 서울 시공관에서 전국 임씨 총회를 거쳐 향단에다 건물을 중수하고, 송모각을 추진하였는데 임지수, 임교승, 임헌빈, 임봉수 등이 주관되어 1958년 삼문이 건립되고 5년 후인 1964년 3월에 본전이 복원되었다.

송모각에 당8학사의 위패를 모시려고 했는데 충절공 임팔급을 비롯해 그의 후손들만 모시게 되었다.

1) 배향인물

(1) 충절공 임팔급(忠節公 林八及)

서기 885년 당나라 덕종(德宗) 흥원(興元) 5년(乙巳)에 태어났다.

902년(任戊) 당년 18세로 登科하여 翰林學士를 거쳐 兵部侍郎 禮部尙書를 역임하다가 당나라 말기에 奸臣들의 참소를 당하자 팔학사 즉, 임팔급(林八及), 설인경(薛仁敬), 하동(許童), 유전(劉筌), 송규(宋圭), 최호(崔互), 권지기(權之寄), 공덕수(孔德狩) 등 八賢이 당나라 산둥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당시 팽성 용주방(현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에 정착하였다.

916년 신라 신덕왕 5년(丙子)에 吏部尙書에 오르고 적병이 변방을 침입하므로 공이 분연히 토벌하였다는 記錄이 있으며 포탄을 평정한 공훈(功勳)으로 彭城君에 봉하고 忠節公으로 시호를 받았다.

(2) 충선공 몽주(忠宣公 夢周)

서기 1010~1031 高麗朝 평찰품사(評察品事)를 지냈다.

(3) 금성군 임자미(錦城君 林自美)

高麗朝 金城君에 봉해졌다.

(4) 충숙공 임희(忠肅公 林曦—常山伯)

고려 제2대 임금인 惠宗의 妃 義和王后의 아버지다. 그는 943年 태조때 門下侍中 平章事를 지내시고 三韓壁上三重大匡領三司, 興化府院君 常山伯에 봉해졌다.

(5) 평택군 임견미(平澤君 林見美)

고려조 金紫光錄大夫 平澤君에 봉해졌다.

(6) 회성군 임기미(檜城君 林箕美)

고려조 檜城君에 봉해졌다.

(7) 문헌공 임계미(文憲公 林季美)

고려 顯宗朝 문과에 급제하여 文評章事로서 고려 현종시대 官職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태사(太師)에 이르렀을 때 왕으로부터 사소한 혐의를 받아 뱃놀이를 구실삼아 타게 된 배와 함께 풍랑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보안현 안흥창(保安顯 安興倉) 지금의 전북 부안군 보안면 포구(浦口)에 닿아 상륙케 되었다.

그후 왕의 오해가 풀려 평원보안군(平原保安君)에 봉해지고 文憲公 諡號를 받았다.

(8) 회진군 임비(檜津君 林庇)

고려 원종의 世子 심9諡 忠烈王)을 호종하고 元 나라에서 돌아오다가 파사부(婆娑府)에서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元나라로 들어가 세조에게 보고함으로서 원종을 복위시켰다.

뒤에 세자가 王位에 올라 忠烈王이 되고 그는 시종보좌(侍從補佐)의 功으로 2등공신에 올랐으며 대장군(大將軍) 충청도 지휘사(忠淸道 指揮使), 판사 재시사(判事 宰侍事)등을 지냈다.

(9) 서하공 임춘(西河公 林椿)

본지 내용 참조

(10) 문희공전서 임난수(文僖公典書 林蘭秀)

본지 내용 참조

(11) 부사공 임목(府使公 林穆)

본지 내용 참조

(12) 사직공 임서(司直公 林敍)

관직(官職)은 충의교위좌군사직(忠毅校尉左軍司直)을 지냈으며 공의 효우염결(孝友廉潔)한 자질을 타고나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공주(公主)에게 장가 들었으나 왕실(王室) 종친(宗親)을 끼고 현영(顯榮)하는 것을 혐의하고, 산반(散斑)에 머무르다가 사직을 당하여 선인(先人)의 구장(舊庄)에 자취를 감추어 스스로 정양(靜養)하였다.

조선 태조께서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수차 불렀으나 마침내 어명(御命)에 다르지 않고 맑은 절조(節操)를 고상히 지키며 여년을 마쳤다. 주상(主上)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특히 예장(禮葬)을 명하였다.

(13) 위의공 임흥(威毅公 林興)

본지 내용 참조

(14) 임산백 임완 (益山伯 林完)

고려 예종조에 문과에 급제 예부원외랑(禮部院外郎)을 지냈다.

인종(仁宗)이 수창궁옆에 서적소(書籍所)를 설치하자 김부식(金富軾)등과 함께 그 고문이 되고 이어 국자사업(國子司業) 지제고(知制誥)가 되었다.

1135年(인종 13年) 묘청이 민심을 현혹시키고, 서경에 대화궁을 세우려고 백성을 괴롭히자, 왕에게 그를 처형하라고 상소했다.

임씨요람에 의하면 임완(林完)이 익산백(益山伯)에 봉해졌다.

(15) 판서공 임윤덕(判書公 林允德)

공민왕조(恭愍王朝) 판전객시사(判典客侍事)가 되었고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이 개국(開國)한 이후 여러차례 불렀으나, 끝내 불응하고 부여(扶餘)에 은거하여 절의(節義)를 지켰다. 그래서 호(號)를 두문재(杜門齋)라 하였다.

6. 어서각(御書閣)

소재지 : 남면 고정리 302번지

건립연대 : 1846년 건립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 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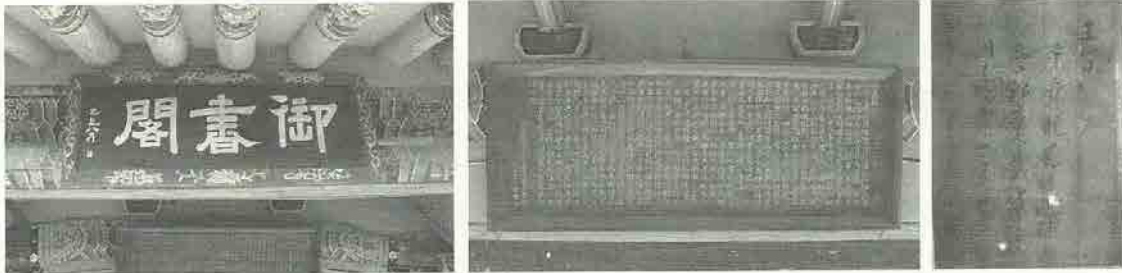
어서각(御書閣)의 주인공 강순용(康舜龍)은 고려왕때 문무과에 장원한 후, 원나라에 들어갔다가 1354년(공민왕 3) 귀국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있다가 7월에 은성부원군에 이르렀다가 낙향하여, 가람산 치마대 초야에서 후배양성에 힘썼다.

이 무렵 이곳에 이성계(李成桂)가 무술을 연마하다 용연(龍淵)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마침 그곳에서 물을 기르고 있던 강순용의 여동생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자 표주박에 물을 떠서 수양버들 잎을 띄워드리니 연유를 묻자 “갈증이 심하신 듯하여 급히 마실까봐 서서히 마시도록 잎을 띄웠습니다. 하거늘 이성계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이성계가 개국하면서 성후(聖后) 현비(縣妃)에 책봉 후 그의 아버지 강윤성(康允成)에게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을 봉하였고, 남매간인 강순용에게 교지를 친필로 하사하였으며 어서(御書)를 후손들이 간직해 오던 중 영조대왕(英祖大王)이 이를 보고 친필로 발문을 써서 어서각을 건립토록 하였으며, 그 후 정조대왕은 성덕왕후가 출생한 곳에 비각을 세웠다.

현재 어서각은 영조때 사액(賜額)하였던 것을 1846년(헌종 12)에 건립하였다

가 그 후 고종황제가 이 친필을 보시고 사적을 하사하시니, 현재(태조, 세조, 영조, 고종)의 친필을 소장하고 있으나 원본은 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다.



어서각

현판

왕지

제3절 남면의 누정(樓亭)

1. 독락정

소재지 : 남면 나성리

건립연대 : 1437년(세종 19)

지정사항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자료 264호



금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조치원 방면)으로 약 1.2km 정도 가면, 금강을 가로질러 남면과 금남면을 연결하는 “금남교”가 나오는데, 독락정은 금남교를 건너자마자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나성산성 내에 위치한다.

청자 내부에는 남수문(南秀文)이 지은 정자기와, 서거정이 지은 독락정 찬시 3수가 걸려 있는데,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목 고적조에 모두 전하고 있다. 또 임재무(林再戊) 중수기, 채지홍(蔡之洪) 중수기가 있다.

이 정자는 1437년(세종 19)에 양양도호부사를 지낸 임목(林穆, 1371~1448)이 지은 것으로, 망망한 들 가운데 있는 나성(羅城)을 등지고 낙락 장송이 우거

져 있으며 앞에는 금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금강팔경(錦江八景) 중의 하나로 일컬어질 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고려 때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임난수(林蘭秀)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不事二君)고 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세속에서 벗어나, 금강 월봉(月峰) 아래에 은거하여 16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독락정은 그의 둘째 아들인 임목(林穆)이 부친의 절의를 지키는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서거정 시에 의하면 이곳은 임난수가 원정(園亭)을 지어 독락(獨樂)하시다 돌아가시자,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아들 임목(林穆)이 지었다 한다.

(충남지역의 문화유적-12집 연기군편, 자랑스런 연기의 문화재)



독락정



독락정

獨樂亭記 東國與地勝覽 · 東文選

前襄陽府使林侯早以政事蜚英中外昔先君牧咸州侯爲通判先契甚密余故父事侯有年一日語余曰吾家世居公之錦江上流慶尙全羅忠清之江至此合流故名其地曰三岐所居南五里許有斷山自北而南行可二里許峙爲小峰脩篁茂松葱蒨可愛三江蜿蜒自東蛇繞其下吾嘗過而異之試一登焉北瞻元帥山環如城郭南望鷄龍山拔出霄漢其東西諸山或朝或揖賈奇獻異者不一狀而村墟野壟碁布遐邇吾樂其奇勝悼前之遺遂於峰之左築別業且亭其上於是江之平沙漫流天水一色風而綠皺月而銀波以至檣帆魚鳥之往來浮沈皆出屨舄之下山之層巒疊嶂巨麓長林邇延野綠遠混天碧輿夫雲烟之變于朝暮者皆對几席之上至若耕牧漁樵歌謳相答遊人行旅偃僂絡繹於四野者亦可坐而觀也吾今休官而歸幅巾藜杖日登斯亭心意俱閑身世兩忘獨釣于江獨採于山春朝之花秋宵之月吾獨詠之以爲樂雲峯之奇松雪之清吾獨觀之以爲樂凡物化之可樂者吾獨而專之洋洋乎若蟬蛻汚獨遊於物外四時之景不同而吾之樂獨無窮焉絲竹之歡有時而吾之樂獨無變焉敢竊涑水園名獨樂二字以扁吾亭似爲僭矣然彼之所樂者理也吾之所樂者物也無嫌於同請子記之余於侯不可以文拙辭昔吾夫子嘗

曰飲水枕肱樂在其中又稱顏子簞瓢陋巷不改
 其樂其所以樂則未嘗言而二程乃令學者尋孔顏所樂何事赤引而不發
 今侯乃獨樂其亭而徵余言夫既曰獨樂則尤
 非他人之所得知矧余雖讀聖賢之書其所謂樂者謾不知何說敢記侯之亭
 哉雖然其言曰彼所樂者理也吾所樂者物
 也余聞理外無物物外無理天地之所以高深山川之所以流峙鳶魚之所以
 飛躍草木之所以榮悴與物乎耳目者何莫
 皆爲名韁所繫着馳東鶩西無已時至有終身不歸其鄉者間有歸者亦不過
 執牙籌計錢穀得不勞苦其形者乎惟侯位
 不滿德年未至暮乃能謝榮宦脫世累自逍遙於山水間者如此獨樂之扁不
 亦宜乎之亭也直與涑水之園儼美於不朽
 也無疑矣司馬公負天下之望故竟不得優遊洛中今侯亦負一時之望則得
 以久擅斯樂乎未也若余竊位于朝無補於
 世奔走夙夜而猶不知止能無愧乎安得掛冠從侯於斯亭誦涑水之記詠坡
 仙之詩而一窺其所樂之高趣乎

直提學南秀文撰

독락정기(獨樂亭記)

전 양양부사 임후는 일찍이 정사로서 안팎에 이름을 날렸다. 나의 부친이 함주 목사로 계실 때 임후가 통판으로 있어 선인과 정의가 매우 친밀하였다. 나는 이런 연유로 임후를 아버지와 같이 섬긴 것이 이미 여러 해 되었다.

하루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여러 대를 두고 공주 금강상류에서 살아 왔는데 경상, 전라, 충청의 강물이 이곳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그곳을 삼기라 이른다. 내가 사는 곳에서 5리 즈음에 끊어진 산이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2리 즈음 가서 재가 작은 봉우리를 이룬바 긴 대와 무성한 솔이 우거져 사랑스럽고 세 강물이 꿈틀거리며 동쪽으로부터 그 아래를 감싸 흐른다. 내가 일찍이 그곳을 지나다가 마음에 기이히 여겨 시험삼아 한번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니 원수산이 성곽같이 둘러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계룡산이 하늘에 드높이 솟아 있으며, 동서의 여러 산들이 혹은 조회하는 듯 혹은 읍하는 듯 하여 기이한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한 두 가지만이 아니며, 마을과 논밭의 이랑들이 바둑판처럼 멀고 가까이 펼쳐 있었다. 나는 이 기이한 경치를 즐겨워하고 앞 사람들이 빠뜨린 것을 애석하여, 드디어 그 봉우리의 왼편에 별장으로 정자를 지었다. 이에 강의 질펀한 모래밭 넓게 흐르는 물 하늘과 물이 한 빛인데 바람불면 푸른 주름살이요 달 비치면 은물결이라. 저 돛대와 물고기와 새들이 가고 오고 떴다가 잠겼다 하는 것들이 다 내 발 밑에 있고, 산의 층층이 솟은 봉우리 겹겹이 둘러싼 석벽 큰 산기슭 긴 숲이 가까이는 들판 푸른 데에 연했고 멀리는 하늘 푸른 데에 섞였으며, 또 아지랑이가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것을 다 퀘석 위에서 대하게 되며, 심지어 밭가는 자 소 치는 자 고기잡이 나무꾼들이 노래하며 화답하는 것들과 놀이하는 사람 길가는 사람들이 사방 들판에서 꾸불거리며 연달아 끊이지 않는 것도 또한 앉아서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폭건과 명아주 지팡이로 날마다 이 정자에 오르니 마음이 한가로와 몸과 세상을 모두 잊고, 혼자서 강 위에 낚시질하고 혼자서 산에 나물 캐면서 봄날 아침의 꽃과 가을밤의 달을 나 혼자 읊어 즐기고, 구름 봉우리 기이한 것과 눈소나무 맑음을 내 혼자 즐겨보고, 무릇 경치의

즐길 수 있는 것을 나 혼자만이 오로지 점유하고 있는 듯 그 상쾌한 기분이란 마치 매미가 더러운데서 벗어나 세상 밖에서 노는 것 같아서 사철의 경치는 같지 않으나 나의 즐거움은 홀로 다함이 없고, 풍류의 즐거움이 때 따라 있으니 나의 즐거움이 홀로 변함이 없도다.

이에 감히 송나라 속수(사마광)선생의 원명인 독락 두 글자를 취하여 내 정자에 편액하고 보니 참람한 것도 같다. 그러나 그가 즐긴 것은 이(理)요 내가 즐긴 것은 물(物)이니 그 이름이 같다고 형의 짝을 것이 없다. 자네는 기문을 지어주기를 청한다하였다. 내가 임후에게 가히 글이 즐렬하다고 사양하지 못하였다.

옛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하였고, 또 안자를 칭찬하여 ‘누추한 골목에서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하시고, 또 즐거움을 일찍이 말씀하지 않았으며, 송나라 정명도 정이천 형제 학자로 하여금 공자와 안자의 즐거워 한바가 무엇인가를 찾으려하되 또한 인용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후가 홀로 그 정자를 즐기면서 나에게 말을 청하였다. 대저 이미 혼자서 즐긴다고 하였으니 더욱이 남이 알바 아니거던 하물며 내 비록 성현의 글을 읽었다 하나 이른바 즐거움이란 것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지 감히 임후의 정자의 기문을 짓겠는가.

그러나 임후의 말씀이 저 속수(사마광)선생의 즐거워하는 바는 이(理)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물(物)이라 하였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이치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밖에 이치가 없는 것이니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이나 산이 높고 물이 흐르는 것이나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나는 것이나 풀과 나무가 무성하였다가 시들고 떨어지는 등이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이 어느 하나도 지극한 이치의 나타남이 아닌 것이 없다.

이는 임후의 즐거워함은 성현의 즐거워하는 바를 찾는 것이지 어찌 한갓 그 경치만을 완상할 뿐인가. 내 가만히 요새 세상의 사대부들을 보건대 비록 전원이 있어 가히 스스로 즐길만함이 있는 자도 모두 명리의 고삐에 얽매여서 동서로 분주하여 쉴 때가 없고 심지어는 종신토록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자도 있으며, 간혹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해도 또한 산대를 잡고 전곡이나 계산하는데 불과하니 이는 그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오직 임후는 작위가 그 덕에 차지 못하였고 나이도 그리 늙지도 않은 터에 영

화로운 벼슬을 사양하고 세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산수 사이에 한가롭게 소요함이 이같으니 독락으로 편액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 정자가 속수의 독락원과 함께 아름다움을 짝하여 길이 전할 것은 의심할게 없다. 사마공이 천하의 명망을 지닌 때문에 끝내 낙양에서 한가롭게 살지 못하였는데, 지금 임후도 일시의 명망을 지고 있으니 오래도록 이 즐거움을 누릴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은 조정의 벼슬만을 헛되게 차지하였을 뿐 세상에 도움이 오래도록 이 즐거움을 낮으로 분주하며 그칠 줄을 모르니 부끄럽지 않은가?

어찌하면 관을 걸고 이 정자에서 임후를 따라 속수의 독락원기를 외고 소동파의 시를 읊으면서 한번 그 즐기는 바의 고상한 취미를 엿볼 수 있을 고?

— 직제학 남수문(直提學 南秀文) 찬(撰: 지음)

2. 송월정(松月亭)

소재지 : 남면 송담리 소갈산동

건립연대 :

지정사항 :

150년의 연대를 지닌 이 제각은 부안임씨의 학도들이 독서를 즐기던 곳으로 이 정외에는 100여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고, 동으로 금강이 길게 흐르며, 평원광야(平原廣野)가 전개된 군내 곡창으로도 유명한 지대이다. 남으로 멀리 계룡산이 전망되고, 또 북으로는 원수산성이蒼翠할뿐더러 그 성내에는 장대(將臺)가 있어 이 송월정은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중수까지 하여 한결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기군지)

3. 제산정(霽山亭)

소재지 : 남면 월산리 치가리골

건립연대 : 1905년 경

남면 소재지인 중촌리에서 동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4km 정도 가면 월산리 마을이 나온다. 제산정은 월산리 치가리골 입구의 도로변에 남동향하여 이 곳은 전라, 경상, 충청도의 삼수(三水)가 합수(合水)되어 금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잘 정비되어 담장과 같은 보호시설도 되어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화강석재를 이용한 8각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올렸다. 가구 양식은 이익공이며, 겹처마를 한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창방과 평방 사이에는 각각 2개씩의 화반 대공을 올리고 있으며, 어칸 상단부에 ‘제산정’ 이라고 각서된 현판이 걸려 있다.

정자 내부 중앙에는 김영한이 지은 정자기가 걸려 있고, 좌측에는 임장우(林章佑)가 지은 정자기가 걸려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 정자는 같은 마을에 있는 임수준 정려(1904년 명

정)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다고 하여 1919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효자 임수준(林秀俊)의 둘째 아들인 비서승(秘書丞) 임영휴(林永休)가 1905년 이후에 정자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 아들인 임헌두(林憲斗)가 이어서 완성을 보았다. 재산(齋山)이란 임영휴의 호로, 아들 임헌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임영휴는 성품이 고왔으며 학(學)과 덕(德)이 출중하여 비서승(秘書丞)까지 올랐다. 물려받은 천석지기를 줄이면서 이웃을 도왔으며 후덕한 성품을 근동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조선환여승람, 연기군 충효열유적)

霽山亭記(제산정기)

昔秘書丞 霽山 林公 靜自守하고 忽於榮利하여 卜岐陽之大谷鄉而隱居
 焉이라 覽其泓淨之佳麗하여 思欲 一亭하되 志未遂而遽歿矣라 賢嗣憲
 斗奉其衣履하여 安 于霽谷之阡하고 明年戊午에 又肯其構하여 揭公之
 號而顏之曰霽山之亭이라하니 志不忘也라 爲人子하여 不忘其親이면 幾
 於孝矣而能不忘者果有幾人也耶아 余之年이 雖不多나 閱之世固不少라
 若夫山之顛水之涯四衝五達之衢에 名園繚繞하고 臺榭碁竄하여 紋礎碧
 瓦精緻而堅固하고 花石魚鳥品列類彙하여 割膏腴奉致者, 充溢倉箱
 하여 父兄之爲子孫計야, 至矣로되 俄忽之頃에 傾蕩無餘하여 操一瓢遑
 遑號泣于道路커늘 問之則曰樗浦也며 日冶遊也며 日觸刑章而沒于官也
 라 하니 其忘親也 不亦甚乎아 梢存舊形하여 不墜家聲者는 余於童
 稚時에 頗比比見焉이러니 及乎弱冠하여 十存八九오 及乎三十則十存
 六七이오 四十則十而居四五而未滿五十에 不能屈二三指하여 譬如秋葉
 之飄而病齒之脫하여 彼先此後하고 東顛西倒하니 噫라 其咎安在오 罔
 念厥父兄之勤苦成家而乃驕奢縱恣하여 不遵規矩則爲溝中瘠宜矣라
 此豈非朱夫子之爲河南馬氏而反復致慨者歟아 如林君者는 乃勤乃儉하
 여 惟恐先業之不保하고 乃斲乃斫하여 唯恐先志之不承하니 是可謂不

忘其親者也라 不亦善夫아 仰其山則杖屨之跡을 可記也오 俯其流則濯纓之風을 可挹也라 隨處輿感하여 自不能忘焉이 온 況松檟之陰에 堂斧相望하고 桑梓之鄉 田廬猶存者乎아 又況假日登亭에 扁額이 觸目하여 恍然如承警咳而奉顏色者乎아 然則將終身慕而不衰矣라 今之求余語也에 不以不文辭而爲之記하여 以慰孝子無窮之悲云.

旃 蒙赤奮若仲春日

安東 金甯漢記

4. 연희루 터(燕喜樓址)

소재지 : 남면 연기리

건립연대 : 조선시대

현재 그 흔적조차 알 수 없다.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익(趙翼, 1579~1655)의 손자인 조지강(趙持綱)이 연기현감으로 부임해서 중수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연희루 중수기만이 전해올 뿐이다.

—연기지(1936)—

제7장 남면의 금석문(金石文)

제1절 신도비

1. 이유태 신도비(李惟泰 神道碑)

소재지 : 연기군 남면 종촌리
시대 : 1883년(고종 20) 건립.



남면 종촌리에서 남서쪽으로 5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림이 마을이 있는데, 신도비는 이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신도비는 1883년(고종 20)에 건립한 것으로,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한 너비 80cm, 높이 120cm, 두께 30cm의 방형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을 올렸다. 비신은 너비 81cm, 높이 208cm, 두께 38cm의 크기이며, 비신 상단부에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는데 너비 127cm, 높이 70cm, 두께 87cm이다.

이유태는 조선 현종대의 유학자로 자는 태지(泰之)이고, 호는 초려(草廬)이다. 사계 김장생의 문하로서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과 함께 호서사림의 거두로 꼽히고 있다. 1675년(숙종1)에 대사헌 윤호(尹鎬)의 예론을 지지하여 영변에 귀양갔다가 사면되었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 36권이 발간되었으며, 1984년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의 발행으로 중간되었다. 많은 유물과 서적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신도비의 뒷쪽으로 묘소가 있다.

제2절 묘비·묘갈·묘표 및 공적비

1. 강혁 묘갈(康赫 墓碣)

소재지 : 남면 고정리 뜰이기마을

시대 : 묘갈 시대 미상, 묘비 1976년 건립.

남면 종촌리에서 북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리 뜰이기마을이 있다. 강혁(康赫) 묘갈은 이 마을의 서쪽으로 남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기슭에 위치한다.

묘갈은 옥개형의 이수를 올리고 있는 비석으로, 전체높이는 240cm이며 비신은 높이 160cm, 너비 59cm이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대좌는 높이 66cm, 너비 91cm이다. 오석의 비신에는 ‘통훈대부 행아산현감 겸청주진관병마절제위 강공묘갈명 병서(通訓大夫 行牙山縣監 兼清州鎭管兵馬節制尉 康公墓碣銘 并書)’라고 각서되어 있다. 이 비석은 1976년 강혁의 공덕을 추모하여 후손이 세운 것으로 비문은 강상원(康祥源)이 짓고, 글은 조수형(趙壽衡)이 썼다.



2. 강순용 묘비

소재지 : 남면 고정리 대비실

시대 : 1989년 이건

남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리 대비실 마을이 있다. 조사된 묘와 묘비는 이 마을의 동쪽능선의 서향사면의 중턱에 위치한다. 묘비 주변으로는 경작지가 있으며 몇 기의 민묘가 있다.

강순용의 비는 호패형 비석으로 높이 120cm 너비 44cm의 규모이다. 이 비석은 본래 경기도 광주 오금동에 있었던 것으로 1989년에 이전되었다고 한다.

3. 임계현 묘비(林桂鉉 墓碑)

소재지 : 남면 진의리

시대 : 1684년(숙종 10)

남면 중촌리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들어가면 진의리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의 좌측 야산의 남향사면에 부안임씨 집안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임계현(林桂鉉)의 묘비는 이 묘역안에 위치한다.

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진 임계현 묘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말각장방형의 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렸다. 비신의 너비 50cm, 높이는 125cm, 두께 18cm이고, 이수는 너비 85cm, 높이 43cm, 두께 53cm이고 비좌는 너비 92cm, 높이 16cm, 두께 52cm이다. 묘소의 양쪽에는 문인상과 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유인고성 남씨부좌 학생임공계현지묘 유인진주하씨부우(儒人古城南氏附左 學生林公桂鉉之墓 儒人晉州河氏附右嘶筭 음각되어있다. 비문은 하산 성노동(成老童)이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1684년(숙종 10)에 건립된 것이다.

4. 고정리 곽씨(郭氏 墓碑)

소재지 : 남면 고정리 궁골

시대 : 조선

남면 중촌리에서 북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리 궁골이 있다. 묘비는 이 마을의 뒤쪽으로 국사봉에서 남주한 능선의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국사봉에서 남부한 능선의 동남향사면 중하단에 100여평의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2기의 묘가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묘비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린 비가 세워져 있다. 비의 전체높이는 150cm, 비신높이 116cm, 너비 42cm의 규모이며 이수와 대좌는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전체유적의 현황은 남향하고 있는데 대지의 조영방향에 비해 묘는 정남향을 하고 있어 비스듬하다. 묘비의 주인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다.

5. 송원리 열녀비

소재지 : 남면 송원리 1구 새터

시대 : 1726년(영조 2) 건립.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2.2km 정도 가면 금남면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금남교가 나온다. 이곳에서 도로의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들어가면 공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송원리 2구에 이른다. 열녀비는 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한 58cm×45cm 크기의 장방형 대좌 위에 호패형의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너비 44cm, 높이 93cm, 두께 19cm의 크기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열녀일개지려(烈女一介之間)’. 후면에는 ‘崇貞紀元後九十八年十一月命旌 孫宣守長插’ 라 각서되어 있다. 비 옆에는 묘소가 함께 있다.

6. 현감 이태진 청덕인혜비(縣監 李泰鎭 淸德仁惠碑)

소재지 : 남면 갈운리 수병재

시대 : 조선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갈운리가 나온다. 비석은 갈운리 수병재 마을 입구의 도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호패형으로, 비신은 너비 40cm, 높이 140cm, 두께 15cm가 측정되고, 비신을 받친 대좌는 너비 200cm, 높이 80cm, 두

께 120cm의 자연지대석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 비에는 ‘현감이후태진 청덕인 혜비(縣監李候泰鎮 淸德仁惠碑)’ 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시대나 기타 기록은 마모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다.

7. 연기향교(燕岐鄉校) 내 비석군(碑石群)

소재지 : 남면 연기리 33번지

시 대 : 조선

남면 소재지가 있는 연기리의 동북쪽에 ‘당산’이 있다. 연기향교는 연기리 ‘당산’의 서남향사면 중하단부에 남향하여 위치한다. 연기향교내에 명륜당 전방 서쪽으로 24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비석들은 모두 벽에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뒷면의 비문을 읽을 수 없다.



비석의 앞면 비문과 크기를 입구 쪽부터 번호를 붙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비석의 앞면 비문과 크기를 입구 쪽부터 번호를 붙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縣監李侯進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5×142×20cm(너비×높이×두께)
- 2 洋夷侵犯非戰則和主賣國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2×120×15cm
- 3 郡守李侯景熙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39×96×16cm
- 4 縣監鄭侯匡始求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0×149×20cm
- 5 縣監金侯炳怡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0×153×20cm
- 6 縣監朴侯斗寅愛民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9×115×18cm
- 7 縣監柳侯觀升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39×127×16cm
- 8 縣監伯侯大琦清白 * * *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5×117×18cm
- 9 縣監鄭侯鳴濟善政碑 화강암재 장방형으로 50×95×23cm
- 10 縣監申侯穀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5×116×20cm
- 11 縣監李侯稷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5×116×19cm
- 12 行縣監李侯聖烈愛民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7×130×20cm
- 13 縣監李侯升兼淸德愛民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1×140×24cm

- 14 縣監李侯*鎮愛民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1×139×22cm
- 15 縣監金侯箕明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0×145×15cm
- 16 縣監李侯潞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5×110×19cm
- 17 縣監金侯準 * * *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0×88×24cm
- 18 縣監安侯鋌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0×123×16cm
- 19 熏巡察使沈公意臣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88×135×20cm
- 20 兼都巡察使金公應根善政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3×136×22cm
- 21 兼巡察使閔公致○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51×150×20cm
- 22 都巡察使南公一○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8×136×24cm
- 23 兼巡察使趙公得林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5×122×18cm
- 24 兼巡察使趙公雲徹永世不忘碑 화강암재 호패형으로 41×110×20cm



대원군 척화비



연기향교내 비석

제8장 남면의 정려(旌閭)

1. 열녀 임상협처 한산이씨 정려비 (烈女 林尙謙妻 韓山李氏 旌閭碑)

소재지 : 남면 양화리

시대 : 1666년 명정, 1749년 입비.



연기군 남면 소재지인 종촌리에서 동쪽[연양초등학교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2.3km 정도 가면 연세초등학교가 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꺾어진 도로로 0.2km를 가면 양화천 도로변에 동향으로 열녀 한산이씨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임상협(林尙謙)의 처 한산이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한산이씨의 열행과 관련한 기록은 『연기구지(燕岐舊誌)』와 『연기삼강록(燕岐三綱錄)』·『전성지(全城誌)』 및 예조에서 편찬한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정을 받은 연대는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의 현종 7년 4월에 있었던 충청도(忠淸道) 각읍(各邑) 효행등제(孝行等第)의 열녀정문질(烈女旌門秩) 10건 가운데 연기의 임상협(林尙謙) 처 이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산이씨의 명정은 1666년(현종 7)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정 직후에 정려가 세워졌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열녀비의 기록에 의하면, 1749년(영조 25) 현감 이희기(李羲耆)가 비문을 지었다고 되어있다.

『연기삼강록』과 『전성지』에 따르면, 한산이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는데, 병자호란 때 적들이 나타나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듯이 하여 숨어 있었다. 그런데 집안의 어린아이가 그 옆에 엎드려 있다가 적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씨를 구출해 내자, 적병이 멀리서 이것을 보고 다시 쫓아와 잡으려 하였다. 이씨는 적을 원망하며 화를 내고 적에게 욕을 하니 적병이 그녀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비석은 이수(李水)를 올린 형태로, 비신과 이수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수는 단정한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비석의 총 높이는 150cm이며, 비신은 높이 109cm, 너비 50cm, 폭 18cm이다. 비신에는 전면에만 글이 새겨져 있는데, 중앙에 ‘열녀생원임상협처한산이씨지비(烈女生員林尙 妻韓山李氏之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좌우에 열행사실과 비석을 세운 연월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열녀 이씨가 몸을 던졌던 못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전에는 열녀못이라고 불리었으나, 현재는 논으로 바뀌어 이 일대가 열녀배미라고 불린다.

원래 이 열녀비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양화2리 마을 안 등 구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마을의 여자들이 1년에 3~4명씩 정신이상자가 발생하여, 이 비석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비석을 옮기자 정신이상자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더 이상 이런 환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녀소



한산이씨 열녀비

2) 효자 이정환 · 이경설 · 이경익 정려 (孝子 李廷煥 · 李景高 · 李景益 旌閭)

소재지 : 남면 송원리 1구 만자동

시대 : 이정환-1681년(숙종 7)

이경설, 이경익-1699년

(숙종 25)명정

1723년(경종 3) 건립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11호

남면 소재지인 종촌리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1.9km 정도 가면,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금남교’가 나온다. 이 곳에서 남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1km 정도 가면 송원리(松院里) 1구 마을이 나오는데, 정려는 이 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개설된 농로를 따라 800m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만자동’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만자동(滿子洞)’이라고 새겨져 있는 호패형 비석(163×66×18cm)이 있고 바로 뒷편에 정려가 있다. 마을명이 새겨진 비석은 1621년(광해군 13) 11월 19일에 세워진 것으로 280여 년이 지난 것인데, 이에 대한 사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본래 만자동은 ‘복자동’이라고 했는데, 이정환이 복자동은 자손이 번창을 못 하는 이름이라 하여 ‘복’자를 일만 ‘만(萬)’자로 고쳐서 만자동이라 했다고 한다.

이 정려는 전주이씨 집안의 이정환과 그 손자인 이경설 · 이경익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정환(李廷煥, 1604~1671)은 본관이 전주이고,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5세손으로,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송암(松岩)이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이 되었으나, 병자호란의 국치를 통분히 여겨 외출을 삼가고 ‘비가(悲歌)’ 10수를 지었다. 효행 또한 남달라서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으니, 그 소문이 퍼져 1666년(현종 7) 현종이 온천에 거둥하던 도중에 이러한 효행사실을 듣고, 특별히 백미를 보내어 포

상하였다. 죽은 후 10년 만인 1681년(숙종 7)에 어사의 계(啓)에 의하여 명정을 받았다. 1723년(경종 3)에 이세구(李世龜)가 행장(行狀)을 짓고 남구만(南九萬)이 묘표를 썼다.

이경설(李景高, 1650~1708)은 이정환의 장손으로 자는 상우(相虞)이며, 이경익(李景益 1655~1708)은 이경설의 동생으로 자는 공거(公舉)이다. 두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형은 아우 위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아우 또한 형의 말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섬기니, 보는 이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경설이 18세, 경익이 13세가 되던 해에 뜻밖에 모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형제가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듯 하였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년간 시묘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쌍효자라고 일컬었다.

그 뒤 부친에게 더욱 효도하였는데,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나 부친에게는 항상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봉양을 하였으며,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부친의 온돌방에는 훈훈한 열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형제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니, 이러한 두 아들의 효성으로 부친은 75세까지 편안한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들 형제의 두터운 효행과 뜨거운 우애는 조정에까지 알려져, 죽기 전인 1699년(숙종 25)에 형제가 함께 명정을 받았다.

1708년(숙종 34) 두 형제가 함께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경설의 나이 58세요, 경익은 53세였다.

1723년(경종 3) 이정환, 이경설, 이경익 3인 모두 효로써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증직되었으며, 이해 3월에 현존하는 3효자의 정려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정려는 계속된 중수를 거쳤을 것이 분명하나 관련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최근에는 1983년에 단청을 중수한 것이 이경익의 정려 현판 뒤편에 쓰여져 있다.

정려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암 석재를 가공한 8각의 높은 주초석(柱礎石)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아랫부분은 시멘트로 막아 놓았다. 정려의 4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주변에는 낮은 담장을

돌려 보호시설을 해 놓았다. 정려내부에는 ‘효자증통덕랑사헌부지평성균생원이정환지려(孝子贈通德郎司憲府持平成均生員李廷煥之閭)’, ‘효자증통선랑사헌부지평이경설지려(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高之閭)’, ‘효자증통선랑사헌부지평이경익지려(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益之閭)’라는 명정 현판이 차례로 걸려 있으며, 정려의 정면 중앙에는 성구용(成九鏞)이 1969년(己酉年)에 찬(撰)한, 가로 135cm, 세로 41cm 크기의 ‘전주이씨양세삼효정려기(全州李氏兩世三孝旌閭記)’가 걸려 있다.

3. 열녀 일개 열녀비(烈女 一介 烈女碑)

소재지 : 남면 송원리 1구 새터 산 20-1

시대 : 1725년(영조 1)건립

지정사항 :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2.2km 정도 가면, 금강을 사이에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금남교가 나온다. 이곳에서 도로의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들어가면 공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인 송원리 1구 원터 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은 본래 금호서원의 터가 있다 하여 ‘원터’ 혹은 ‘새터’ 라고 부른다.

열녀비는 송원주유소 맞은편 밤고개 남동향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은 대전~공주 도로 신설 공사 구간으로 분묘 이장 공고 팻말이 세워진 541분묘 바로 옆에 세워져 있다.

이 열녀비는 사비(私婢) 일개(一介)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725년에 세워진 것이다. 송원리 일대는 일제시대까지 공주군 장척면의 일부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이후 공주군 장기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일개 정려비와 관련된 자료는 공주의 문헌자료에서 찾아보

아야 한다.

일개(一介)는 예조에서 편찬한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 1729년(영조 5) ~ 1736년(영조 12)까지의 정려질(旌閭秩)에 공주의 사비(私婢)로 정려를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명단만을 적은 것이므로,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이 열녀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 다만 일개가 사비(私婢)였으나, 열행이 있어 고을에 널리 알려졌다는 정도뿐, 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열녀비의 후면에는 ‘승정기원후구십팔년(崇禎紀元後九十八年)’ 즉 1725년(영조 1)에 명정을 받았다고 하여 『효행등제등록』의 연대와는 차이가 보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열녀비 후면에는 건립 연대와 함께 손선수장수(孫宣守長插)라고 쓰여져 있어, 손선수장이 이 열녀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손선수장이 일개의 후손 선수장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열녀비의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민묘가 일개(一介)의 묘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비석의 주변은 잡풀로 뒤덮혀 있고, 바로 옆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목묘가 방치되어 있어 위치 확인조차 어려우며, 비석의 전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으므로 각서된 글자의 해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한 가로 58cm, 세로 45cm 크기의 장방형 대좌위에 호패형의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너비 44cm, 높이 84.5cm, 두께 19cm의 크기다. 비신의 전면에는 ‘열녀일개지려(烈女一介之閭)’, 후면에는 ‘승정기원후구십팔년 십일월명정 손선수장수(崇貞紀元後九十八年十一月 命旌 孫宣守長插)’ 라고 각서되어 있다.

4. 효자 임자의 · 임태선 쌍정려(孝子 林自儀 · 林太先 雙旌閭)

소재지 : 남면 송원리 2구

시 대 : 1752년(영조 28)건립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12호



남면 소재지인 종촌리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1.9km 정도 가면,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금남교가 나온다. 이 곳에서 남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2.5km 정도 가면 공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송원리 2구 마을이 있는데, 정려는 이 마을 입구에 서남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임자의(林自儀)·임태선(林太先) 형제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임헌회(任憲晦)가 1875년(고종 12)에 지은 「임효자형제정려기(林孝子兄弟旌闈記)」에 의하면, 임자의·임태선 형제는 각각 1717년(숙종 43)과 1720년(숙종 46)에 죽었으며,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752년(영조 13)에 고을의 선비들이 형제의 효행사실을 수령 「공주목사, 송원리가 지금은 연기군 남면에 속해 있으나, 1973년까지는 공주에 속해 있었다.」에게 호소하였고, 수령이 감영에 보고하였으며, 감영에서는 조정에 아뢰어,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았다고 한다.

임자의(林自儀, 1672~1717)·임태선(林太先, 1675~1720) 형제의 본관은 부안이다. 동생 태선은 본명이 태의(太儀)이고 태선은 어렸을 때의 이름이다. 그런데 정려를 청하는 계를 올릴 때, 어린 시절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려가 내려졌으므로, 명정 현판에는 그대로 태선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이다. 이들 형제는 임난수(林蘭秀)의 후손으로, 아버지인 임상담(林尙談)이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홀어머니인 경주 최씨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다. 어느날 모친이 병에 걸리게 되자, 형제는 서로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하였고, 어머니의 똥을 맛보며 병구환을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죽으로 연명하면서 3년간 묘 아래에 초막(草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오두막집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두 효자는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의 불효를 보고 해치려고 하느냐?’ 하였다. 그 후에도 호랑이는 3년간을 매일 와서 닭이 울면 물러갔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히 여기던 중에 문득 형제의 꿈속에서 호랑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아무 곳에서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구해 달라고 청하였다. 깜짝 놀라 깨어나 그곳으로 달려가 본즉 호랑이가 과연 함정에 빠져 있었다. 형제는 포수에게 간청하여서 재물을 주고 호랑이와 바꾸어 풀어줬다고 한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다.

시멘트를 깔아 주변의 바닥을 다듬었으며,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의 높은 주초석(柱礎石)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다. 4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아래쪽은 시멘트로 막아 놓았다. 가구양식은 익공이 두개이며, 정면의 상단부에는 ‘쌍효자정각(雙孝子旌閣)’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는데, 최근에 새롭게 정비된 상태이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붉게 칠한 명정현판을 걸어 놓았고, 후면 상단에는 정려기가 걸려 있다.

명정현판에는 ‘효자 증통정대부정삼품비서감승임자의 증통정대부정삼품비서감승임태선 형제정려(孝子 贈通政大夫正三品秘書監丞林自儀 贈通政大夫正三品秘書監丞林太先 兄弟之閭)’라고 새겨져 있으며, 가로188cm, 세로46cm의 크기이다. 그 후면에 걸려 있는 ‘임효자형제정려기(林孝子兄弟旌閭記)’는 고종 12년(1875)에 임헌회(任憲晦)가 술(述)한 것으로, 가로 154cm, 세로 38cm 크기이다. 또한 정려의 후면에는 ‘扶安林氏 형제분의 旌門을 세운 事蹟是繭遮’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액자형태로 걸려있다.

5. 열녀 전오복처 창녕성씨 · 전오륜처 결성장씨 쌍정려

(烈女 全五福妻 昌寧成氏 · 全五倫妻 結城張氏 雙旌閭)

소재지 : 남면 방축리 정문말 270번지

시대 : 1772년(영조 48) 명정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28호



남면 소재지인 중촌리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2km 정도 가면 도로의 서쪽으로 남면 방축리 마을이 나온다. 이곳은 창녕성씨와 결성장씨 두 열녀정문의 정문이 있다고 하여 정문말이라고도 불리는데, 정려는 마을의 북쪽 야산 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열녀 성씨와 장씨의 쌍정려는 1772년(영조 48)에 명정받아 건립되었다. 성씨와 장씨는 옥천전씨 전오복과 전오륜 형제의 부인으로 동서간이었다.

열녀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옥천전씨 전오복(全五福, 1714~1735)의 처로, 남편이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워 고통스러워 하자 몹시 슬퍼하며 잠도 자지 않고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동시에 하늘을 우러러 자신이 대신 병을 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성씨의 간절한 간호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자 바로 그날 그녀는 독약을 먹고 남편을 따라 자결했다.

열녀 결성장씨(結成張氏)는 전오복의 동생인 전오륜(全五倫, 1717~1753)의 처이다. 형인 전오복이 죽은지 18년이 지난 1753년, 전오륜도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장씨는 매일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고, 5일간 밥먹는 것도 거부하고, 7일 동안 머리를 감고 칠성을 향해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나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남편의 입 속으로 흘려 넣었다. 그래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장씨는 남편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뜻을 시부모에게 글로 남기고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 후 남편 전오륜은 약 한달 후에 병환으로 죽었다.

이와 같이 두 형제의 부인이 모두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으니, 유럽에서 그들을 추앙하여 국가에 포창하도록 상서를 올려 쌍열녀문을 세웠다. 1793년(정조 17)에 송환기(宋煥箕)가 지은 「정려기」가 있다.

현재 정려는 사면에 철책으로 보호시설이 둘러져 있고, 정·측면 1칸에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의 초석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오른쪽 두 기둥은 높은 주초석이고, 왼쪽 두 기둥은 낮은 주초석이다. 겹처마에 정려의 4면에는 홍살이 둘러져 있고, 아랫 부분은 시멘트로 막아 놓았다. 정려의 중앙 상단부에는 명정 현액이 걸려있고, 후면 상단부에는 정려기 2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6. 효자 임명즙 정려(孝子 林命楫 旌閭)

소재지 : 남면 송담리 393-1

시대 : 1871년(고종 8) 명정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13호

남면 소재지인 종촌리에서 성남 중·고등학교를 지나 동남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 송담리 큰갈피·작은갈피 마을이 있다. 정려는 이 두 마을 사이의 소로변에 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임명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1871년(고종 8)에 세워진 것이다.

임명즙(林命楫 1774~1808)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백섭(伯涉)이다.

1774년(영조 20)에 임종유(林宗儒)와 전주이씨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품성이 착하고 효성스러워 조부의 무릎에 있으면서 물러나라고 명하기 전

에는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음식을 얻으면 항상 먼저 올린 뒤에 먹었다. 그러던 중 조부에게 병이 생기자 손수 미음을 끓이고, 약을 다리며 4년 동안 보살펴 드렸다. 동네에 의원이 없어 10리나 떨어진 동네까지 가야 했는데, 그 의원은 신통하기로 소문이 나 아무리 부잣집에서 모셔가겠다고 해도 맞이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다. 임명즙이 어린 나이에 그 의원을 직접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뜰에서서 간절히 청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니, 의원도 정성에 감동하여 직접 먼 동네까지 친히 찾아가 치료를 해주었다. 그 결과 병이 쾌유되었고, 의원은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번 길에 한 효동(孝童)을 보았다.” 며 칭찬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너무 늙으셨으므로 과거공부를 사양하고 오직 부모님 돌보기에만 마음을 다하였다. 두 아우와도 우애가 있어 집안 재산을 분간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모셨으며, 부모님이 평소 집안의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애롭게 돌보았기 때문에, 그 역시 근면 성실한 자가 있으면 의복 등을 후하게 주어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

1783년(정조 7) 그의 나이 40에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의 일이다. 상여가 연기군 남면 진의리 서죽소 나루에 이르렀는데 얼음이 얇게 얼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임명즙이 강가에서 울면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니, 이튿날 아



침에 얼음이 갑자기 녹아 배를 타고 상여를 건너게 해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

수년 후 모친께서 단독(丹毒)이 팔꿈치에 생겨 백약이 무효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솔개의 깃을 달여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신명은 어찌하여 미물의 깃을 이토록 감추시나이까? 굶어 살피사 소생에게 소리개의 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곡히 기원하니 어느날 소리개 한 마리가 집 마당에 깃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다. 그는 그 깃을 고이 태워 모친의 환부에 발라드리자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늙으신 어머니는 여러 가지 병으로 위중하게 되었고, 그는 모친이 거동을 할 수 없을 때는 항상 곁에서 시중을 하며 모친의 속옷을 직접 빨고, 변기를 비우는 일까지 몸소 하여 주변 사람들을 수고롭지 않게 했다. 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려 어머니의 병을 자신이 대신해서 앓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기를 사흘이 되었을 때,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병이 낳았다. 이때 병에서 깨어난 모친이 말하기를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수년의 명을 빌려주시니라 하셨다” 한다.

1803년(순조 3)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그는 날마다 애통해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호곡하였으며, 매년 기일에는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여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모친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인 1808년(순조 8)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임명즙은 25세에 손가락을 베었었는데, 그가 죽자 가족들은 신체발부(身體髮膚)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효(孝)를 행하기 위해 그동안 버리지 않고 상자에 담아 고이 간직해 오던 잘린 손가락을 꺼내어, 시신에 넣어서 함께 엄했다고 한다.

정려의 중수는 1906년 5세손인 임동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려각 내에 걸려 있는 중수기 현판에 의하면 중수 직전 정려가 너무 오래되어 건물이 넘어갈 우려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리를 계획하였고, 토목(土木) 및 와석(瓦石)을 준비해 수리를 마치니 예전에 추가였던 것이 새롭게 완비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 화강석재를 가공한 방

형 기단위에 정려를 축조하였다. 8각의 높은 주초석(柱礎石)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정려의 아래부분은 벽돌을 쌓아 막아 놓았다. 4면에 홍살을 돌렸으며, 양 측면의 박공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에는 말각 장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호패형의 비석을 세웠다. 비석은 높이 약 135cm, 너비 40cm, 폭 14cm 이고 비신 정면에만 “有明朝鮮國孝子 / 贈通政大夫左丞旨林命楫之閭 / 崇禎紀元後五辛未 命旌” 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정려각의 후면 중앙 상단부에는 1906년에 5세손 임동수가 기(記)한 가로 60cm, 세로 29cm의 중수기 현판이 걸려 있다.

7. 효자 임수준 정려(孝子 林秀俊 旌閭)

소재지 : 남면 월산리 666번지
시대 : 1904년 명정
지정사항 : 연기군 향토유적 제14호



남면 소재지인 종촌리에서 개설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7.5km 정도 가면 금강변에 접한 월산리 윗말이 나온다. 정려는 이 마을 입구의 동남쪽 도로변에 북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정려 주변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이 정려는 부안임씨 임수준의 효자 정려로 1904년에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임수준(林秀俊, 1810~1875)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사민(士民)이며, 호는 소재(素齋)이다. 1810년(순조 10)에 남면 월산리에서 태어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돌아가시자, 나이 6세에 3년간 상복을 입고 죽으로 연명하였으며, 머리도 깎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는 학문에도 뛰어나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후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후배양성에 전력하던 중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는데, 매마침 극심한 가뭄이 겹쳐 난민이 발생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쌀 100가마를

이웃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어떤 약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명의를 만나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만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겨울로, 어디에도 풀 한 포기조차 볼 수가 없었다. 수준은 약초를 구하러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계룡산에 입산하였고 일편단심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40일째 되던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약초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 길로 달려가 산신령이 계시한 곳에 가보니 온 산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데 오직 한 곳만은 눈이 없고 푸른 약초 2포기가 자라나 있었다.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달여드리니 바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가 집에서 5리나 떨어진 곳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찾아가 예를 다하였다고 한다.

송병선(宋秉璿)이 쓴 묘비명에 의하면, 1870년(고종 7) 임수준이 사망한 후, 본도(本道) 유학(幼學) 이봉선(李鳳善) 등이 임수준의 효행 사실을 상신한 것은 1884년(고종 21)이었다. 이때 조정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로 증직하였다. 그리고, 1904년(광무 8)에는 또 한번 고을의 선비가 장례원(掌禮院)에 청하여 정려를 받기에 이르렀다.

정려는 정·측면 1칸에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양측면의 박공밑에는 방풍관이 설치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8각의 초석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리고 사면에는 홍살을 돌렸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각 칸의 창방 위에는 각각 2개씩의 화반대공을 올리고 있다. 정려의 내부 중앙에 별도로 8각의 고주초석(高柱礎石)을 세우고 홍살문을 올린 후에 그 정면에는 효자문(孝子門)이라는 현판을 달아 놓았다. 정려의 중앙에는 효자비를 세웠는데, 비석은 화강석재의 방형대좌 위에 오석(烏石)의 비신을 올렸으며 화강석재로 제작한 옥개형의 이수를 올리고 있다. 비신 전면에는 ‘효자 증통훈대부사헌부감찰임수준지려(孝子 贈通訓大夫 司憲府 監察 林秀俊之闕 上即位四十一年甲辰十二月 日 命旌) 是蘭筭’이라고 음각되어 있고, 옆면과 후면의 3면에는 ‘증감찰임공정려기(贈監察林公旌闕記)’라고 전서(篆書)로 새겨진 아래에 정려기가 음각되어 있다. 이 비문은 송병화(宋炳華)가 짓고, 조병즙(趙秉楫)이 전서와 정려기를 썼으며, 전우(田愚)가 비석 전면의 글씨를 썼다.

정려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주변의 소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되어 그 모습이 일품인데 정려 바로 뒤편에 도로가 났으나, 소나무는 베지 않고 보호했다고 한다.

제9장 남면의 민속

1. 원수산 산신제

원수산(元帥山, 254m)은 양화리와 진의리를 끼고 있는 세거리의 대표적인 산이다. 예부터 이곳 주민들은 원수산에 산신제를 지내 왔다.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300~400년 전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는 산제당에 관한 옛 문서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원수산 산제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예산 이름 모를 질병(돌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가래기(월령)’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스님 한 분과 도인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원수산을 바라보며, 명산이니 이 곳에 산제당을 짓고 산제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 질 것이란 말을 하고 떠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산제를 올리자는 쪽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쪽으로 나누어져 결국 의견을 모아 제관을 선출해 산신제를 올리기 시작하자 마을에 돌림병이

사라지고, 마을은 평화롭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원수산 산제는 임장철씨가 제당 앞에 요사채를 지어 놓고 아내와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다. 임장철씨는 아버지 고 임노택(1952년 작고)옹을 따라 이곳 산제당제에 해마다 참석하였다고 한다.



산제당 제사에 참석했던 마을범위는 갈운리의 원사골(원곡), 양화2구(평말, 상촌, 월룡, 희여물(백동))로 100여 호가 넘었다. 마을회의에서 제관을 선출해 제를 올리던 것을 1990년대 초·중반에 오면서 임장철씨의 아버지가 원곡·양화2구·백동 100여 호에서 쌀 1되씩과 돈을 걷어 대신 산제를 올려주기 시작했다. 그 후 아들인 임장철씨(남, 70세 진의리 거주)가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받아 40~50년 동안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원수산 산제당은 6.25전쟁 때도 제를 지냈으며, 새마을 때도 철거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산에 있는 암자 철거령이 내려졌을 때, 이곳 원수산 산제당에도 조치원 경찰서에서 철거를 하려고 왔는데, 주민들은 이 곳 산제당은 암자가 아니고 산제를 올리는 제당이기 때문에 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순경이 일련 번호만 붙이고 내려갔다고 한다. 80년대 초부터 교회가 생기는 것 등으로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산신제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산신제를 올리는 게 소홀해졌다.

그러다 21년 전 현재 산제를 주관하는 임장철씨가 한쪽 다리를 못 쓸 정도로 크게 앓아 누웠다 한다. 병을 고치기 위해 계룡산, 감사 등지로 돌아 다녔는데 그 곳에서 만나는 도인마다 원수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임장철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목욕제계를 하며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나자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임장철씨가 건강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부녀자들과 환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고, 그 후 본격적으로 산제당을 정성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산제는 매년 동짓달 초이틀(음력 11월 2일) 자시에 올린다. 산제를 올리기 10



일 전에 미리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산제 빨래를 다 해놓는다. 그 후부터는 부정한 것은 보지 말고 각종 금기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일 3일전에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파제날까지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8일 전에는 마을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

한해 동안 깨끗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관을 선출하게 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각종 금기사항을 지켜야 했고, 이런 금기사항은 제에 참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지켜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제관)이 산제를 지내면 마을과 개인에게 화가 미쳤다고 한다. 제관 외에 축관 유사 등 5명을 선출했다.

제관은 일주일 동안 찬물로 목욕재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잡지 말며, 빨래를 하지 말고, 비린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제관의 대문 앞에는 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무더기씩 양쪽에 뿌리며, 제관은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산제를 엄하게 지냈다. 그런데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산제를 주관하던 노인들이 하나 둘 작고 하면서, 산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임노택(임장철씨 부친)옹이 산제를 맡아 지내오다 1952년 작고하시자, 아들인 임장철씨가 맡아 지내게 되었다.

지금은 산신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을뿐더러, 1년 내내 깨끗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임장철씨 부부가 직접 제를 주관한다.

임장철씨는 산제를 지내기 전, 산제당에 있는 하탕 샘물에서 초를 켜 놓고 10일 동안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며, 문 앞에는 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무더기씩 양쪽에 뿌린다. 현재 원수산 산신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신 깨끗해야 하며, 제일 1주일 전부터는 부정한 것을 보지 말고(피 등), 피를 내지 말고, 옷을 깨끗이 입어야 하며, 목욕재계를 1주일 동안 해야 하는 등 각종 금기사항과 정성을 다해야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제에 참석하면 화가 개인에게 미친다고 믿는다.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전에는 100여 호에서 쌀 1되씩과 돈, 그리고 산제당 터에서 얻어지는 도지를 받아 충당했다고 한다. 쌀은 호수가 가장 많았던 가래기(양화 2구)에서 제일 많이 냈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는 임장철씨 자비 십만원 정도와, 150평 산제당 터에서 얻어지는 도지쌀 12되, 산제당을 위하는 사람들이 정성으로 모아서 지낸다.

제물은 생소머리, 과일(생대추, 감, 배, 사과), 무 1개, 미나리, 배추(양념 없이 익히지 않는다), 햇간, 소고기 반근, 산적, 명태포 5마리, 술(누룩과 쌀을 빚어 만든다), 백시루 등이며, 국(미역국)과 밥은 한 솔단지 씩 통채로 올려놓게 된

다. 특히, 1970년도까지는 황소를 잡아 소머리와 살코기를 산제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과제날 해먹고, 계원들에게 한덩이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오면서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 여건상 소는 잡지 못하고, 대신 소머리를 사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산제에 쓰이는 희생으로 소를 잡을 때 허가를 얻기 위한 문서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융희 원년(1906년) 11월 30일 가학동의 통장 임노원이 군수서리에게 올린 청원서로, 수백 년 동안 소를 잡아온 것이니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 허락을 얻은 귀중한 자료이다.

제물은 산제당에 직접 올라가서 조리를 하며, 제주 장만은 조치원, 종촌, 공주를 이용하는데, 주로 공주장에서 본다. 옛날에는 사기로 된 제기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놋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원수산 중턱의 산제당이다. 산제당은 산신을 모시고 있는 윗채와 장군, 약사, 관음, 지장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아래채의 두 건물로 되어 있다. 윗채는 산신제를 올리는 곳이며, 아래채는 법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래채에는 태극기를 모시고 있는데 태극기를 모시는 이유는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원혼들이 많다는 불도 제자들의 권유에 의해 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산제당은 처음에 건물 없이 돌로 담을 쌓고 그 담 안에서 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건물들을 지어 초가지붕을 얹었는데 그 당시 양쪽에 나무를 세워 대문형태의 문을 달았고 안에는 푸르스름한 사기로 만든 제기(시루, 잔대 등)와 솟대 등이 있었다.

그 후 1962년 아랫마을 임경철씨의 집을 지을 때 기와를 넉넉히 주문하여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산제당에 올렸다. 70년도에 들어오면서 교인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에 의해 산신각이 부서지면서 기와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각각 산제당 2채를 다시 증축했다. 산제당 주변은 돌탑과 솟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과 목욕재계 할 때 사용하는 샘물이 상·중·하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사의 옷으로는 과거에는 짚신에 도포를 입었으나, 지금은 털신이나 고무신을 신은 후 도포를 갈아입고 제를 올리게 된다. 제사의 순서에는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순서에 따랐으며, 소지는

산신소지→마을소지(원곡 혹은 원삭골)→상촌→원릉→평말→아랫말→성전→호
여물(백동)→윗골 순(牛馬수지 포함)→제관소지→家家 쌀 바치는 사람 소지

순서로 올렸다. 우마소지는 일제강점기까지 행해졌다. 산신제를 지내고 다음 날
유사집에 각 동네별로 대표로 쌀을 걷는 사람들 1명씩과 그 외 몇 명이 모여 산
제계를 했다.

산제계에선 결산을 보고하고, 다음해 제관을 선출하게 되는데 제관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1년 동안 심적으로나 행
동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두 명이 하는 관계로 초헌, 아헌, 독축만 한다. 독축 후 산신소지→마을
소지→제관소지→임장철씨 가족소지→산제당에 찾아오는 이들의 개인소지 총
60장 정도를 올려 동민들과 임장철씨 가족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소지를
올린 후 제를 마치고 음복을 한다. 음복 후 그 다음날 20~30명의 동네(백동)
어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의 축문은 1950년대까지는 한문으로 된 축문을 사용하다가 1960년대부터
임장철씨가 제를 지내면서부터 한글로 된 축문을 사용한다.

한글로 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경술 십일연계축삭 삼일을묘 유학림현표들감재명소고우
원수산지신 복이 천지정기 방박위산 치우연람 원수기존 상응천쾌 하응강관
령괴소종 신리공소 용출백리 리급군생 환이가자 퇴우명원 유자동맹 의양최근
범괴백가 범괴천인 이강이부 유 신우지 기생기아 유 신경지 유선필즐
유죄필서 소재치상 전액위경 재족필달 사즉필성 취자영지 호생이장
연수사인 석풍사인 요자모지 괴자포지 병자소지 취자영지 호생이장
찬천향지 왕국지생 태령기제 재아성명 치아결소 경천비구 간독신청
신기보아 영수 소향이

마을에서는 산제를 잘못 지내 화를 입은 사례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전한다.

① 성전에 사는 노인 한 분(임지순, 남, 95년 작고)이 제관을 하려고 산신제 당
일날 산제당을 둘러보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피가 나왔다고

한다. 그 날 제관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 이주일 동안 크게 앓아 누웠다고 한다. 후에 알고 보니 아들부부가 부정한 것을 보지 말아야 g 하는데 산신제 전에 묘 이장하는 것을 보고 와서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② 산신제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날 흐여물의 임헌석씨가 개를 잡아 그의 아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화를 당했다고 한다.

③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산제당에 참나무를 심어 키워 그 밑에서 숯을 구웠다.

그 중 한 그루가 오래되어 죽었는데 1950년대 임노군씨가 그것을 베어다 불을 때다가 2달 동안 크게 앓아 누웠다고 한다.

④ 마을의 어떤 사람이 산신제를 지내는 지계를 훔쳐가서 몇 달 동안 앓아 누웠다고 한다.

⑤ 백동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산제를 잘 올려서 1년 내내 편안하며,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고 차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자 : 임장철(남, 70세, 남면 진의리 백동 거주)

정찬기(여, 70세, 임장철씨 부인)

임영수(연기향토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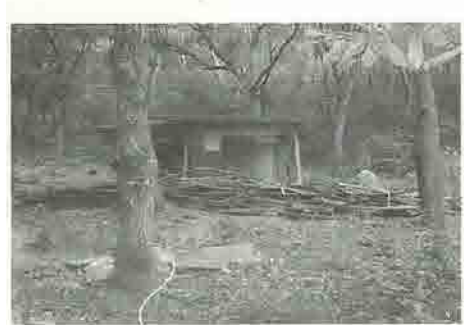
2. 전월산 산신제

양화리의 뒤편에는 해발 230m 정도의 전월산(轉月山)이 있고, 마을주민들은 이 산에서 마을제사를 지낸다. 이를 산신제, 산제 라고 부른다.

전월산 산신제는 101년 전 삭담 선생이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위해 산신각을 건립해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고 남은 돈은 산제당의 땅을 사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200평만 남아 있다. 1,200평의 땅은 노인회에서 경작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얻어지는 도지 백미 여섯 가마니는 현이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전월산의 산제당이 마을에 사는 정신이상자에 의해 파괴된 후 그 맥이 끊어졌는데 그동안 산제당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침례교와 감리교(두 교회의 교인 수는 100명 정도임) 교인들의 반대와 생기복덕을 가리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지금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제일은 매년 동짓달 초사흘날이다. 전월산 산신제는 동촌, 서촌, 정자동 3개의 자연마을이 함께 지내는데, 제관은 이 3개 마을 대표가 제일에 임박해서 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제관은 그 해 부정타지 않고 몸이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산신제를 지내면 마을과 개인에게 화를 미치게 된다고 한다. 제관 외에 3~4명을 더 선출한다.

동네에는 몸종이 미리 7주일 전에 징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사람들에게 산신제를 올릴 거라고 알려준다. 그럼 이때부터 금기에 들어가게 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정한 것은 보지 말아야 하는 등 각종의 금기사항을 지켜야 하며 3~4일 동안 찬물로 목욕재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청결함을 유지 해야한다. 또한 빨래를 빨지 않으며, 비린 것을 먹지 않는 등 온 마을이 정성이었다고 한다. 제관과 축관 등은 산신제 전날에 유사집에 모여 함께 자고, 산에 올라가 제를 올린다.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동답에서 나오는 도지로 충당을 한다.

제물은 근래에는 소고기 한근, 포, 칼을 대지 않은 깨끗한 삼사실과(대추, 밤, 감), 백설기 한 시루, 국은 없고, 밥, 술(추석 때 동네에서 담은 것이나 막걸리를 사용한다)을 사용하며 산신제에 필요한 제물은 주로 대평리, 종촌, 조치원 장에서 마련한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야하며, 또한 물건값은 일체 깎지 않고 부르는 대로 다 지불해야 한다.

제기(제기)는 자기를 사용했으며, 제사가 끝난 후에는 상자에 보관해서 다음해에도 사용했다.

제는 전월산 산제당에서 지내며 제고나, 축관, 유사 등 남성으로 구성된다. 큰 절을 두 번하고 잔을 올리고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석 장을 올리는데 맨 먼저 개인소지(제관)→산신령→산소지 순으로 올리게 된다. 제물은 종이에 싸서 동쪽에 묻어 산신령에게 바치며 음복 후 떡은 마을로 가지고 내려와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제보자: 임헌유(남, 75세, 양화 1리 88번지)

임건수(남, 47세, 양화 1리 112번지, 이장님)

3. 양화리 깃고사

양화리에서는 예부터 음력 1월 15일 기를 세워 놓고, 1년 내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깃고사를 지냈다.

예전에는 정자동, 골막, 동촌 세 마을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냈으나, 까다로운 금기사항 때문에 1990년대 말부터는 세 마을이 합쳐져 동촌 마을회관에서 1년에 한번만 올린다.

깃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해 설을 세고 정월달 초열흘께 동네어른들이 상의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마을에서 부정타는 앓은 사람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출하여, 그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깃고사를 지낸다.

동계장(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선출되게 되면, 제일 전날 잠자리를 하지 않는 등 금기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을 사람 중 술을 마시고 깃대를 훼손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제사비용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충당하고, 제물은 세 마을 대표가 5일 전에 모여 회의를 해서 이틀 전에 제물을 준비하게 된다. 제물은 생밤, 꽃감, 대추, 사과, 실로 묶은 북어 2마리, 돼지머리, 백설기 한 시루, 동동주 등을 마련하며, 장은 주로 조치원 장을 이용한다. 음식은 깃고사가 행해지는 집에서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며, 그 비용은 동계에서 지불한다.

깃고사에 필요한 깃대는 대나무를 사용하며, 광목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써서 매달고 깃대의 맨 위에는 썩 털로 장식한다. 깃대는 매년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든 것이 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하며 고사가 끝난 후 깃대와 천은 따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현재 깃대는 마을회관에, 깃발은 남자 경로당에 보관하고 있다.

깃고사는 그 해 깃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집 상 기둥에 깃대를 세워놓고, 고사상을 그 앞에 차린 후 마을의 평안과 무사함을 빈다. 먼저 제관이 절을 2번하고 소지를 올리게 된다. 소지는 풍년소지→부락소지→본인소지 순으로 3장을 올린다. 고사가 끝난 후 음식을 마을사람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으며, 풍물을 치고 신명나게 논다. 그전에는 깃고사가 끝난 후 혼례나 상례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지신을 밝아 주었다. 지덕을 늘려주는 정성으로 대개 쌀 한말 정도를 준비하였다

먼저 지신은 그 해 깃 고사를 지내는 집에서부터 지신을 밟기 시작해, 그 집을 중심으로 가까운 집 순으로 돌아주게 된다. 지신을 밟는 순서는 먼저 마당→ 장광→ 샘 순으로 술 한잔을 붓고 제를 올린다. 제를 올릴 때는 상쇠가 1년 내내 재수 있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풍년 들으라고 축원을 해준다. 가가호호(家家戶戶) 돌다 지나는 길에 우물이 있으면 풍물을 치고 우물 앞에 일렬로 서서 대표로 상쇠가 구부러 절을 하고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을 뚫어라” 외치면서 풍물을 쳐주고 제를 올리게 된다.

지신밟기 때 풍물패는 장구 1~2명, 북 2명 징1~2명, 팽과리 1~2명, 법고 5명, 상모 5명, 새나 1명 등으로 모두 15-20 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때의 형편에 따라 풍물패의 규모가 증감한다. 현재 깃고사 후 지신밟기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풍물패의 규모도 팽과리 1명, 장구 1명, 징 1명, 북 2명으로 작아졌다. 현 풍물패의 상쇠는 윤명근(62세), 장구는 임무철(59세), 북은 임민수(63세), 징은 임범수(63세)가 맡고 있다. 이들은 지신밟기의 순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지신밟기의 사실은 1960년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지신을 밟지 않고 그냥 노인정 마당에서만 풍물을 치고 논다.

마을의 농악대는 팽과리 1~2개, 징 1~2개, 장구1개, 북1개, 상무 15~20명 정도, 법고 15~20명 정도, 쇠납1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팽과리, 징, 장구, 북 정도로 구성된다. 마을에서 쇠를 치는 상쇠는 임석근 (남, 死), 전기문 (남, 死) 조수성 (남, 95세), 윤명근 (남, 62세), 북은 임민수 (남, 63세), 징은 임범수 (남, 63세), 장구은 임무철 (남, 59세) 등이 대표적인 풍물꾼이다.

깃 고사가 끝나면 제물로 쓰인 떡과 명태, 밤, 대추를 백지에 사서 깃대 맨 위에 매달아 놓는데, 이것을 상 기둥에 계속 세워둔다. 깃 고사를 주관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깃대를 세워두는 기간이 다르다. 몇 년 전부터 교회의 영향으로 부정타지 않는 집을 정하여 지내는 대신, 마을회관이나 남자 경로당에 모여 지내기 시작했으며, 올해 깃 고사는 남자 경로당 앞에서 행해졌다.

깃 고사를 올린 후 지금은 동계를 하며 예산을 보고하게 된다. 정자동은 미리 하고 동촌과 서촌은 정월에 한다.

제보자 : 조성연 (여, 63세, 양화 1리), 배문규 (여, 50세, 양화 1리)
박옥순 (여, 60세, 양화 1리), 정현숙 (여, 73세, 양화 1리)
윤명근 (남, 62세, 양화 1리), 임무철 (남, 59세, 양화 1리)
임민수 (남, 63세, 양화리), 임범수 (남, 63세, 양화리)
임건수 (남, 47세, 양화리 이장), 임헌유 (남, 75세, 양화 1리)

4. 갈운리 마을제

소재지: 연기군 남면 갈운리

남면 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2km 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갈운리 양지말이 나온다. 이곳에서 마을 안쪽으로 500여m 들어가면 길 북편에 김새마을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자지골이 있다. 김새마을 입구에는 암미륵이 자지골 입구에는 숫미륵이 서 있는데 마을제는 이 미륵 상에서 지낸다.

마을제는 음력 보름 저녁 7시경에 마을 사람들이 양미륵 앞에서 지낸다. 제를 지내기 전에 생기복덕을 따져 일진이 좋은 사람을 중심으로, 축관, 제관, 유사를 한 명씩 뽑는데, 그 자격은 부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월경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있는 집은 피한다고 한다. 제를 올리기 3일 전부터 제관 일행은 각자의 집 앞에 황토 흙을 떠다 놓고, 금줄을 치고 목욕재계하며 술과 담배를 안 하는 등 금기를 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개나 닭도 잡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그 해에 사고가 나거나 초상이 나면 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삼색실과·흰 시루떡·포·술(집에서 담근 것) 등이다. 제의 순서는 제물 진설을 한 후에 헌작을 한다. 소지는 미륵소지를 올린 후 제관, 축



관, 유사, 연장자 순으로 소지를 올린다. 이 밖에도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의 소지와 머슴을 사는 사람의 소지, 마지막으로 우마소지를 올린다. 제에 드는 비용은 마을계에서 부담한다.

5. 수산리 둔덕 노제

소재지: 연기군 남면 수산리 둔덕

남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5km 정도 가면 수산리 둔덕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공주시 의당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해당되는 곳으로, 둔덕마을의 노제(路祭)는 매년 정월 14일에 지내는데 그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마을 앞 숲이 우거져야 마을이 부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과 거리제와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노제를 마을의 큰 버드나무에서 지냈는데, 40여년 전 홍수로 떠내려가 현재는 마을 입구의 향나무에서 지내고 있다.

제를 올리기 전에 유사나 제관은 뽑지 않고, 다만 축관 1명만을 생기복덕에 맞추어 10일 전에 뽑는데, 축관에 뽑힌 사람은 살생과 외부출입을 금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사람들이 향나무 앞에 모여 제를 준비하는데, 이때 향나무에 “노중행차대신지위(路中行次大神之爲) 부적을 붙이고 제를 지낸다.

제물은 명태 · 삼색실과 · 시루떡 · 술(동동주)을 올리고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올리며, 군에 간 사람은 따로 소지를 올린다. 제가 끝나면 풍장을 치며 축관집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음복을 한다. 제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마을의 공동 경비로 충당한다.

6. 수산리 깃고제

소재지: 연기군 남면 수산리

남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5km 정도 가면 수산리 마을이 나온다.

수산리 깃고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지내는데, 제를 지내게 된 정확한 유래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전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풍물을 치며 마을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의 향나무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서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빌며, 이웃 마을과 기 뺏기 놀이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깃고제를 지내는 장소는 동일하나, 제의 형식이 많이 간소화되어, 유사나 제관은 뽑지 않고 제관 한 명만을 제 며칠 전에 생기복덕에 맞추어 선출한다. 그리고 제관에 선출된 사람은 당일에 목욕재계를 하고 제를 준비한다.

소지는 호당 하나씩 모두 올렸다고 하나, 현재는 대동소지 한 장과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택한 집안 3등 3장만을 올린다. 제물은 삼색실과 · 떡 · 포를 준비하며, 제가 끝나면 고시레라 하여 과일을 뿌린다고 한다. 제비는 마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현재는 깃고제의 형식이 축소하고,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

제10장 남면의 발굴현황

1. 연기 보통리 와요지(瓦窯址) 발굴 -1997-

(재)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I. 조사개요

1. 지리적 환경 및 역사·고고학적 환경

1) 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은 국도36호선(공주, 연기)도로 확장지역에 해당하는 연기군 남면 보통리 산1-1번지이다.

연기군은 충청남도 동부에 위치한 군으로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 서쪽은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천안시와 인접하고 있다. 군의 북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지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운주산(460m) 및 국사봉(9403m) 등이 있으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오랜 침식작용을 받은 저산성구릉지가 대부분이다.

유적이 위치한 보통리는 연기군 남면과 동면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마을로 전방(東)에는 금강의 지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넓은 평야와 저구릉사니로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지역의 서쪽에 인접한 곳에는 와촌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어, 이 지역이 요지에서 기와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지역임을 지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구역 이외의 남쪽지점에서 민묘 이장시 요가 노출된 바가 있어 이러한 추정을 확실케 하고 있다.

2) 역사 · 고고학적 환경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세로 보면 비교적 저평한 지대이며, 동으로 길게 평원을 이루고 있고 남으로는 계룡산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이 동서로 본 조사지역과 나란히 흐르고 있다.

연기군은 청주의 미호천과 금강의 지류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선인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선사유적지로는 남방식 고인들이 발견된 금남면 봉기리·장재리 및 남면 월산리 일대, 동검과 동과가 발견된 서면 봉암리, 무문토기가 수습된 금남면 석삼리·대평리·반곡리, 남면 중촌리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조치원읍 서창리 및 신안리, 서면 성제리 및 부동리, 금남면 도암리 및 용담리 등지에서는 원삼국기 및 백제시대의 토기편들이 확인조사되었다.

그 외 유적으로는 고려산성·당산성·증산성·이성산성·운주산성·고산산성·망경산성 및 기룡리 봉수대 등의 관방 유적과 비암사 석불비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유적 및 많은 요지 등이 연기군내 곳곳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기지역의 요지는 청자요지를 비롯해 분청사기 및 백자요지 그리고 와요지 및 토기요지 등이 고루 분포함을 살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및 백자요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와요지의 경우는 금번 발굴조사한 보통리 와요지와 더불어, 시기를 달리하는 전의면 양곡리 조선시대 와요지, 보통리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와촌리(瓦村里) 기와요지 등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보통리 및 와촌리는 근래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분리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와요지군은 대규모로 존재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I. 조사의 경과 및 방법

금번 (재)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도 36호선 공주-중촌간 확장 · 포장 공사지역은 기존의 도로가 증가하는 차량수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공사기관에서는 공사가 진행될 지역에 잔존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발굴 및 시굴조사 대상지역은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기군 남면 보통리 지역이다.

발굴조사지역인 보통리 유적은 충남연기군 남면 보통리 산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요는 계단식 등요인 4호요를 제외하곤 모두 제외하곤 모두 무계단식 등요로 동향사면의 완만한 저구릉성 산지에 동-서방향을 장축으로하여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용의 간격은 1호와 2호만이 약 6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2호, 3호, 4호 등은 각각 2-3m 정도 떨어져 있다.

유구의 조사는 우선 표면토 제거부터 실시하였다. 즉 조사구역의 표면상태는 최상층의 경우 표토가 약 40-50cm 정도였고, 경사의 하단부는 20-30cm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퇴적토는 낙엽등이 반복되어 쌓인 유기물질 및 지반토의 부식에 의해 형성된 부식토여서, 부식토의 제거는 일괄적으로 진행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면토 제거 후 와요지의 잔존상태는, 조사구역 내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 민묘이장 및 벌목작업 등의 인위적인 훼손을 감안할 때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 1호요의 경우는 생토면인 석비레층을 굴착하고 축조한 것이어서, 가마벽선은 중앙 및 중앙의 좌, 우에 피트설치를 통해 확인되었다. 퇴적토상에 조성된 3호요 및 4호요의 경우는 가마벽면이 화력에 의해 회청색 및 적색으로 변색된 것이 제토과정상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어, 유구의 윤곽을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2호요의 경우는 완전 지하식이어서 유구의 중앙 및 좌우 벽면측에 등간격으로 탐색 피트를 설치함으로써, 소성실에서 요전회구부 및 입구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유구의 윤곽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요의 내부조사는 방위와 요폭을 감안하여 그 주축방향의 중앙 및 벽체에 탐색 피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잔존하는 가마의 상부에 형성된 퇴적층 및 가마바닥의 상층에 형성된 무너진 천정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요의 바닥면 상태 및 벽면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런 후 토층상황에 유의하면서 벽, 소성실, 연도 등의 순으로 세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요지의 구조와 시설, 출토유물, 요지 주변에 존재할 부속시설 등을 파악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부속시설은 가마가 위치한 부근의 평탄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요지의 동쪽면 및 북쪽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Ⅲ. 조사내용

1. 보통리 와요지발굴조사

1) 1호요

요전회구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등이 구비된 반지하식 등요로 전체길이는 약 670cm로 추정된다. 회구부는 생토면 및 퇴적토를 굴착하여 복주머니형에 가깝게 조성하였는데 최대길이는 210cm, 너비는 220cm로 계측되었다.

아궁이는 생토면을 2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였는데 너비는 76-90cm이다. 연소실은 반원형으로 아궁이에 비해 약 3-5cm가량 높게 조성되었으며, 소성실에서 흘러 들어온 기와로 덮여져 있다. 소성실과 연소실 사이의 단벽은 현재 기와가 덮여 있지만 생토면 위에 점토를 발라 사용하였다.

아울러 1호요 요전 회구부 동쪽으로는 1호요에서 변화된 와적층 및 1호요와 관련된 부속시설 1동이 위치하고 있다. 요의 주축방향은 동서를 장축으로 S - 66° - W이다.

<표1. 1호요 현황>

(단위: cm)

| 구 분 | 전 체 길 이 | 아 궁 이 | | 연 소 실 | | | 소 성 실 | | |
|-----|---------|-------|-------|-------|------|------|-------|------|-----|
| | | 너 비 | 높 이 | 길 이 | 최대너비 | 단벽높이 | 길이 | 최대너비 | 경사도 |
| 1호요 | 약670 | 76-90 | 16-26 | 78 | 158 | 72 | 260 | 150 | 22. |

2) 2호요

1호요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6m정도 이격되어 있다. 다른 요와는 달리 완전 지하식으로 축조되어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요전회구부는 생토면을 타원형으로 굴착하고 바닥면을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고 조성하였는 바, 길이는 200cm, 너비는 176cm이고 깊이는 54cm이다. 아궁이는 요가 완전지하식인 관계로 생토면을 말각 방형으로 굴착하였다. 연소실은 평면 반원형으로 아궁이와는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호형을 나타내고 있다. 단벽은 1호요와는 달리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소성실은 금번 발굴조사된 4기의 요 중 23°로 가장 급한 경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골뚝은 소성실의 말단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20-30cm의 석재와 기와 그리고 점토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원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 주축방향은 동서를 장축으로 S - 81° - 이다.

〈표2. 2호요 현황〉

(단위: cm)

| 구 분 | 전 체 길 이 | 아 궁 이 | | 연 소 실 | | | 소 성 실 | | |
|-----|------------|-------|-----|-------|------|------|-------|------|-----|
| | | 너 비 | 높 이 | 길 이 | 최대너비 | 단벽높이 | 길이 | 최대너비 | 경사도 |
| 2호요 | 678 | 56 | 52 | 70 | 130 | 38 | 272 | 124 | 23. |

3) 3호요

3호요는 2호요의 북서쪽 약 3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요는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벌목작업을 위한 갓길조성으로 인해 요전회구부 및 아궁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다.

아궁이는 상인방석만 결실되었을 뿐 양쪽의 석재는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였다. 바닥면은 평평하게 정지되었으며, 양 아궁이석 사이의 간격은 60cm이다. 연소실은 평면 반원형으로 1회에 거쳐 북쪽으로 확장·보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단벽은 외적단벽과 이를 포함한 생토단벽 등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성실은 생토위에 모래를 얹었으며, 그 위엔 현재 전면에 기와가 깔려져 있는데 경사도는 1호요나 2호요에 비해 급하지 않다. 요의 주축방향은 동서를 장축으로 S - 50° - W이다.

특히 3호요 아래에서 2호요의 수비장이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2호요가 3호요에 비해 빨리 조성됐음을 살필 수 있다.

〈표3. 3호요 현황〉

(단위: cm)

| 구 분 | 전 체 길 이 | 아 궁 이 | | 연 소 실 | | | 소 성 실 | | |
|-----|------------|-------|-----|-------|------|-------|-------|------|-----|
| | | 너 비 | 높 이 | 길 이 | 최대너비 | 단벽높이 | 길이 | 최대너비 | 경사도 |
| 3호요 | 540 | 60 | 40 | 102 | 170 | 40-45 | 340 | 176 | 12. |

4) 4호요

4호요는 3호용의 북동쪽 약 3m 이격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요도 3호요와 마찬가지로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경작 및 공사로 인해 요전 회구부 및 연소실 일부가 훼손되었다.

아궁이는 3호요와 마찬가지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상인방석은 결실되었고, 아궁이와 요벽사이의 틈새는 기와편 및 점토를 이용하여 메꾸었다. 연소실은 양 벽이 화력에 의해 회청색으로 변색되었으며, 바닥면은 가운데 부분이 양측벽에 비해 낮게 만들어졌다. 단벽은 석축으로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어 있는데 석재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기와 및 점토를 이용하고 있다. 소성실은 계단식으로 바닥면에선 부분적인 부와가 확인되었으며, 부와는 주로 암키와편으로 하단의 경우는 중앙에만 밀집되어 나타났다. 연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용의 주축방향은 동서를 장축으로 S -85° - W이다.

〈표4. 4호요 현황〉

(단위: cm)

| 구분 | 전체 길이 | 아궁이 | | 연소실 | | | 소성실 | | |
|-----|-------|-----|-------|-----|------|------|-----|------|-----|
| | | 너비 | 높이 | 길이 | 최대너비 | 단벽높이 | 길이 | 최대너비 | 경사도 |
| 4호요 | 670 | 28 | 30-40 | 102 | 190 | 42 | 402 | 192 | 10. |

5) 기타 유적

요 이외에 확인된 유적으로는 1호요와 연관된 부속시설과 2호요의 수비장 등이 있다. 부속시설은 와적층 아래 240cm 지점에서 일부 파손된 채 확인된 것으로 잔존길이는 115-120cm, 너비는 270cm로 퇴적토상에서 조사되었다.

시설 앞 20cm 지점에선 240cm 간격으로 지름 26cm(남쪽 주공), 28cm(북쪽 주공) 크기의 기둥구멍 2개가 14cm, 7cm차 깊이로 남북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하면 평면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수비장은 2호요의 회구부 북쪽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3호요 보다 이른 시기의 또 다른 와요 조성으로 인해 동쪽부분이 파괴된 채 조사되었다.

수비장의 서쪽 상단부에는 능선의 상단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수비장의 좌우 즉 남북방향으로 배수하기 위한 구가 길이 약 400cm, 너비 50cm, 깊이 16cm의 궁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아울러 남동모서리부에서도 수비장내의 물

을 항상 일정 정도로 유지키 위한 구가 조성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길이는 약510cm이며, 너비는 수비장과 접한 서쪽의 경우 20-40cm 정도이고, 4호 북벽과 접한 부분의 경우 60cm 정도이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넓게 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비장의 전체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수비장의 전체 너비는 366cm이며, 깊이는 최고 120cm이다. 수비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퇴적토상에 포함된 기와 뿐으로 무문과 문양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와벽은 1cm 내외이며,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고 와토흔 또한 정교함을 살필 수 있다.

6) 유물

금번 발굴조사된 보통리요지는 전용 기와가마인 관계로 1호요를 제외하곤 모두 평기와만이 수습되었다. 특히 수기와의 경우는 언강기와를 비롯 토수기와도 함께 번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류의 언강기와라고 할지라도 언강의 경사도에 따라 수직인 것과 완만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와는 타날된 문양 및 문자에 따라 문양전, 무문전, 명문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명문전은 1호요의 와적층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명문의 내용은 “未(末) * “, “* * 印” 등으로 보통 2-3자 정도 타날되어 있다. 또한 1호요에서는 기와외의 유물로 청자편 1점과 토제족편 2점이 출토되었다.

요컨대 보통리 와요에서 출토된 유물 중 기와의 경우 태토, 와도흔, 표면, 와벽, 문양 등을 살펴 볼 때 고려전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추정은 1호료 회구부 앞에 위치한 와적층에서 출토된 청자편 등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IV. 맺음말 - 조사자의 의견 -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 및 시굴조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6호선 공주-종촌간 확장·포장공사구간인 토취장 부지의 연기군 남면 보통리 산1-1번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1. 보통리 와요지 발굴조사

유적은 고려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요지 4기가 조사되었는데, 3기는 무계단식, 1기는 계단식의 등요이다. 이들은 동향사면의 완만한 능선상에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소성실의 경사도는 대략 10-23°이며 길이는 아궁이를 포함하여 대략 600-700cm 안팎이다.

한편 조사구역 남쪽 사면에서도 민묘 이장시 와요지가 확인된 바 있고, 보통리 북쪽 인접마을이 와촌리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발굴조사된 보통리 유적은 보통리와 와촌리 일대에 위치한 와요지군의 일부분임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군을 이루는 와요지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와요지인 부여 정암리 및 통일신라기를 대표하는 보령 평라리 천방유적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보통리 와요지를 시대적인 연속선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의 변천 및 유물의 차이점 등을 보여줄 수 있어 앞으로 와요지 및 기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된 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보통리 와요현황〉

(단위: cm)

| 구 분 | | 1호요 | 2호요 | 3호요 | 4호요 |
|---------|---------|-------|-------|---------|---------|
| 전 체 길 이 | | 약 670 | 678 | 잔존길이540 | 잔존길이670 |
| 입 구 | 길 이 | 확인안됨 | 36-60 | 확인안됨 | 확인안됨 |
| | 너 비 | | 56 | | |
| | 잔 존 높 이 | | 10 | | |
| 회 구 부 | 길 이 | 210 | 200 | 확인안됨 | 확인안됨 |
| | 너 비 | 220 | 176 | | |
| | 높 이 | 24 | 54 | | |
| 아 궁 이 | 너 비 | 76-90 | 56 | 60 | 28 |
| | 높 이 | 16-26 | 52 | 40 | 30-40 |
| 연 소 실 | 길 이 | 78 | 70 | 102 | 102 |
| | 너 비 | 158 | 130 | 170 | 190 |
| | 단 벽 높 이 | 72 | 38 | 40-45 | |
| 소 성 실 | 길 이 | 260 | 272 | 340 | 402 |
| | 너 비 | 150 | 124 | 176 | 192 |
| | 경 사 도 | 22 | 23 | 12 | 10 |
| 굴 툽 | 잔 존 너 비 | 확인안됨 | 50 | 확인안됨 | 확인안됨 |
| | 잔 존 높 이 | | 30 | | |

조사단은 보통리 와요지 발굴 후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통리 와요지에 대한 사후조치를 협의하였다.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보통리 와요지 중 1호와 2호요의 이전복원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그 대상지로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가 검토되었다.

따라서 조사단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및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이전복원하기로 시공자인 (주)선경건설과 협의하였고, 와요를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로 이전복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열린 연기 보통리 와요지 이전복원 관련 현장 설명회의에서 시공자측인 (주)선경건설은 토취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이전복원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전복원을 포기하고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리 와요지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굴된 전 면적을 복토한 후 잔디를 식재하여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후에 발생할 인위적인 훼손의 대비책으로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이전복원 관련 현장 설명회의)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1. 회의일시 : 1997. 8. 22 14 : 30 - 15 : 00

2. 회의장소 : 연기군 남면 보통리 발굴현장

3. 회의안건 :

- 발굴조사된 와요에 대한 이전 복원문제
 - 한병삼 문화재위원의 건의로 고려대학교에 1호요 및 2호요를 이전 복원키로 함

4. 경과

-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지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통보
 - 이전복원에 합의
- 발주청인 선경건설에 지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통보

5. 항의대책

- 유적의 오랜 방치는 자연적 피해 혹은 인위적인 훼손이 요구되는 바
 - 선경건설의 와요 이전복원에 대한 재협의 ⇒ 이전복원 결정
 - 와요의 이전복원 경험업체를 선정하여
 - 보존과학자의 입회아래
 - 조속한 시일 내에 고려대학교에 이전 복원하는 것이 타당

2. 연기군 월산리 고분군

최무장(건국대학교박물관)

I. 조사 경위와 조사단 구성

월산지방산업단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리, 보통리, 양화리 일대 약 42만평에 걸쳐 조성될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연기군에서 이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요청하여 95년에 공주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건국대학교 박물관이 해당지역의 발굴을 맡기로 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조 사 단 장 : 최무장(건국대학교 박물관장)

- 지 도 위 원 : 안승주(공주대학교 교수)
 윤세영(고려대학교 교수)
 임효재(서울대학교 교수)

- 조 사 원 : 채현석(건국대학교 박물관 학예관장)
 최형수(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조준용(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 조사 보조원 : 이승배(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오민정(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박상길(건국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서영각(건국대학교 사학과 학생)외 사학과 재학생 다수

조사는 1996년 10월 15일부터 1997년 1월 16일까지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1997년 6월 30일부터 동년 7월 16일 까지 보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주대학교 지표조사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지역에 민묘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아 제한적으로 트렌치법을 사용하였을 뿐 대체적으로 이미 도굴되어 노출된 무덤을 중심으로 발굴을 실시하였다.

II. 조사지역의 위치와 환경

월산지방산업단지 발굴조사 지역은 행정 구역상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리, 양화리, 보통리 일대이며 조사면적은 42만여평에 달한다. 발굴조사 지역은 연기군 남면 월산2리 일대로서 동경 127° 17' 30" 북위 36° 32' 30" 이다. 발굴조사 지역까지의 교통편은, 조치원읍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서쪽으로 약 6km를 내려오면 연기1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받아 연남 초등학교 앞을 지나 다시 남동 방향으로 약 3km 더 들어가면, 남면 월산2리 갯골에 이르게 된다.

96년과 97년 발굴조사 지역은 이 갯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지역의 동남쪽에는 전월산(260m)과 노적산(181m)이 위치하며, 서쪽에는 원사봉(254m)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 남명 양화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00m 미만의 낮은 구릉들이 이어져 미호천과 만난다. 계곡과 계곡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대가 자리하고 있어, 논농사와 밭농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양쪽 계곡에서 흘러내린 구릉성 산지에는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이 가득 들어차 있다. 또, 구릉의 상당부에는 자연 암반 노두가 군데군데 보인다.

A, B지구는 노적산에서 북서쪽을 향해 뻗어나간 굴곡이 심하나,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 (19°)를 가진 능선의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백제시대 석실분 1기, 고려시대 석실분 9기와 고려시대 토광묘 1기·회곽묘 1기 등 총 12기의 고분과 시대미상의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무덤은 동-서로 장축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표고목 벌목작업과 도굴 등으로 인해 교란이 심한 편이다. A지구가 자리하고 있는 산 78, 산 79번지 일대와 B지구가 있는 산 72-1번지 일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C지구는 연기리로 나가는 도로와 보통리로 나가는 소로 사이에 있는 높지 않은 등고봉(115m)지역으로 산 전체가 공동묘지이며 산자락 남쪽 끝에는 군사 유격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C지구에서는 고려시대 석실분 1기와 원형적석유적 1기가 확인되었다.

D지구는 원사봉 동북쪽의 큰목골산(173.5m)지역으로 C지구의 남쪽(연기리와 연결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군데군데 민묘가 있으며, 동북쪽 산자락 끝에는 군인들의 야영장이 있다. 이 D지구에서는 고려시대 석실분 1기와 시대미상의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Ⅲ. 유구와 출토유물

1. 월산리 A지구

1)〈A-1 호분〉

전월산에서 북쪽을 향해 뻗어나간 서향한 능선의 중하단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장축은 S-86-E이며 장축 길이 330cm, 폭 100cm, 묘광길이 270m, 폭 70cm이다. 완만한 경사면의 석비례층을 자 모양으로 굴착한 후, 장방형의 화강암 활석과 무정형의 활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를 하였다. 남-북 장벽은 말안장형 돌(腰石)을 사용하지 않고, 60×20cm 내외의 비교적 커다란 활석으로 1단과 2단 벽석을 구축하였고, 3단과 4단 벽석은 얇고 납작한 활석을 쌓아 뚜껑돌을 올려놓기 좋게 마무리하였다.

뚜껑돌은 원래 4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벽에서부터 서벽쪽으로 2번째 뚜껑돌이 남벽에서 남쪽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뚜껑돌과 벽석의 일부로 보이는 활석편들이 석실분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오래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벽은 화강암 활석을 세로쌓기를 하여 축조하였는데 면석(面石)이 묘광을 향하게 하였으며 길이는 235cm이다. 북벽 역시 세로쌓기를 하여 축조하였으며 면석이 묘광을 향하게 하였다. 길이는 240cm이다. 남-북벽 서단, 즉 횡구부(橫口部)쪽 부분은 커다란 판석(板石) 1매를 사용하였는데 북벽은 64×60cm,

남벽은 66×46cm의 크기이다. 이렇게 횡구부쪽에 커다란 판석을 사용해 묘도(墓道)를 나타낸 듯이 만든 예는, 6호 석실의 남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깊은 벽쪽인 동단벽은 석재(石材)로 축조하지 않고, 생토면(석비레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토면을 이용한 예는, 이번 발굴에서 총 5기(A-1호, 2호, 6호, 7호, D-1호)가 조사되었다.

횡구부는 3매의 폐쇄석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밑에 2개의 할석으로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1매의 괴석을 올려 입구를 막은 후, 그 뒤에 총 8개의 할석으로 지탱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석실 내부의 생토층 바닥보다 폐쇄석이 놓여 있는 바닥의 생토층을 약 10cm 높게 하여 단(段)을 만들었다. 폐쇄석과 보강석 주변의 생토층이 주위보다 넓고 깊게 굴토되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횡구식 석실분으로 보여진다.

벽석은 내경(內傾)되게 쌓은 것이 뚜렷하지 않다. 벽석 제일 상단과 개성(蓋石) 사이에 얇은 할석을 조금씩 안쪽으로 내어 쌓아 뚜껑돌을 올려놓기 좋게 하였다. 북벽 최단부를 1매의 괴석으로 처리하였는데, 괴석 밑에 두 개의 할석을 괴고 고정시킨 점이 특이하며 이러한 형태로 횡구부를 축조한 예로는 6호분이 있다.

뚜껑돌의 두꺼운 쪽은 벽석을 낮게 쌓고, 얇은 쪽은 벽석 상단위에 얇은 판석을 끼워넣어 높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뚜껑돌(蓋石)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였다. 출토 유물로는 부식된 관정(棺釘) 편만 다수 있었다.

2) <A-2호분>

A-1호에서 북동쪽으로 약 3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횡구식 석실분으로 S-89-E 방향이다. 앞이 막히고 비교적 굴곡이 심한 급경사면의 중하단부에 생토층(석비레층)을 ‘L자’ 모양으로 굴착하여 장방형의 묘광을 만들고, 거칠은 할석으로 벽석을 축조한 후 뚜껑돌을 올렸다. 현재 동벽 위에 1매의 뚜껑돌만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벽석은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북벽이 100cm, 남벽은 70cm만이 잔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북벽과 남벽 사이 폭은 68cm이다. 2호분 하단 급경사면에 2호분 축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다수의 화강편마암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도굴된 듯하며, 급경사면에 고분을 축조한 관계로 유실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동벽은 A-1호와 마찬가지로 벽석을 축조하지 않고 생토층으로만 처리하였다. 뚜껑돌은 동벽선과 맞닿아 1매(枚)(30×80cm)만이 잔존해 있고, 나머지 뚜껑돌은 모두 유실되었다. 남벽과 북벽은 모두 동단에서 서쪽으로 각각 2매씩의 벽석만 남아있다. 가로 세로 각각 30~40cm, 두께 10cm 내외의 판석형(板石形) 할석을 1단 쌓아 벽석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할석 편들을 안으로 조금씩 내어쌓고, 뚜껑돌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석실분과는 달리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묘광 바닥까지의 깊이는 50cm로 추정되며, 바닥은 석비레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남북벽 모두 생토층에 흙을 파서 벽석을 축조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장축 길이는 약 180cm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벽은 심한 경사도(약 40°)로 인해 유실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없지만 한쪽 단면을 생토면을 쓴 것이 A-1, 6, 7호와 유사한 양식이므로 횡구식 석실분으로 파악하였다. 출토유물은 부식된 관정 편만 3점이다.

3) A-3호분>

A-5호 토광묘에서 남서쪽으로 약 7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A-1호분이 위치한 능선의 최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축 방향이 N-82-E인 석실분이다. 장축 길이는 220cm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머리 부분에서 150cm 정도 남아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유실되었다. 석곽의 내부 폭은 70cm이다.

무덤은 석비레층을 ‘L자’ 모양으로 파고 묘광을 설치했으며, 벽석의 바깥쪽과 벽석과 벽석 사이는 점토(粘土)로 처리하였다. 거칠게 손질한 할석을 쌓아 올려 벽을 이루었으며, 밑에서 2단계부터 벽석을 안쪽으로 조금씩 내어 쌓아 전체적으로 내경되고 있다.

북벽은 4단이 남아 있으며 가로쌓기를 하였고 납작한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남벽은 3단이 남아 있으며 북벽과 달리 세로쌓기를 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큰 석재를 하단에 사용한 것도 북벽과 다른 점이다. 동단벽은 눕혀쌓기를 하여 2단이 잔존되어 있다. 위에서 보면 세로쌓기를 하였다. 44×40cm 정도 크기의 괴석 1매를 하단 중앙에 놓고 그 주변을 화강암 할석으로 쌓았다.

서벽은 파괴가 되어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뚜껑돌은 유실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동벽에서 160cm, 남벽에서 20cm 지점의 묘광 바닥에서 고려시대 토기편 2점과 부식이 심한 청동제 동곳 1점, 청동제 편 2점과 머리없는 관못 4점이 출토되었다.

● 동 곳

3호 소형석곽분의 남벽에서 26cm, 동벽에서 53cm되는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깊이는 네벽 기준에서 61cm이다. 출토 시 이미 동곳의 두 가지의 끝부분이 부러져 있었다. 그러나 원형의 복원은 가능하다. 두 가지의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다. 한가지의 길이는 8.7cm, 한가지의 길이는 8.4cm, 동곳의 머리는 반원형으로 휘어졌다. 머리 폭은 0.9cm이다. 동곳은 약 71.1cm되는 긴 청동제 철사를 중간의 한 면만 편편하게 두드린 후 구부러서 만들어졌다. 가지의 직경은 0.3cm이다.

4)〈A-4호분〉

A-3호분에서 북서쪽으로 1.3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벽석 1단만 잔존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되었다. 장축길이는 250cm로 추정되며 폭은 90cm, 남벽 68cm이며, 이하 서벽까지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동벽에서 30cm 동쪽에 2점의 가공된 머리크기의 석재가 놓여 있는데 A-4호와 유관한 석재인지 아닌지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건물지〉

A-3호 석실분에서 남서쪽으로 2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 방향은 N-75-W 방향이며 유구의 정면은 남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장축 길이는 12m, 폭은 3m로 규모이다. 1칸 3m의 정면 4칸, 측면 1칸의 '일자형' 구조로 추정된다. 현재 상단(동쪽)에 4개 적심석이 노출되어 있고 하단(서쪽)에 3개의 적심석이 위치하고 있다. 상단(동쪽) 좌측에서 두 번째 적심석의 상태가 제일 좋은데 지름 60cm 정도이며 4매의 활석을 생토평(석비레)을 파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묻은 후 그 중간 중간에 췌기 모양의 활석편을 박아 견고하게 고정시켰다.

상단 1번과 2번 적심석 사이의 거리는 6m이며 중간에 생토층을 판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적심석이 더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 상단 2번 적심석과 3번 적심석 사이의 거리는 3m, 3번과 4번 적심석 사이의 거리 역시 3m이다. 하단 1번 적심석과 2번 적심석 사이의 거리는 6m, 2번과 3번 그리고 3번과 4번 적심석 사이는 각각 3m이다. 다량의 백제시대 토기편과 고려시대 토기편 그리고 분청사기편 등이 유구 전역에 걸쳐 1층 표토층과 2층 적색 점토층, 3층 갈색 사질토층, 4층 석비례층(생토층)의 모든 층위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상단 1번과 2번 적심석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부식이 심한 철제편 1점씩 수습되었다.

출토 유물 중 특히 상단 2번 적심석 아래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대접편은 그릇 높이 8cm, 굽 높이 1.1cm, 입지름 11cm이다, 아가리 부분은 외반되었다. 대접의 바깥부분은 상단만 귀얄처리 되었으며, 안쪽면은 중단부까지 귀얄처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무늬는 없다. 지표에서 수습된 분청편 중에는 인화문, 철화점초문 등이 돋보이며, 고려시대 토기 파수부(把手部) 편도 수습되었다. 생토층과 맞닿은 점토층과 사질토층 내에서 연결의 백제시대 토기편도 다수 출토되었다.

● 건물지

맥석영제의 등잔편 1점이 다량의 분청사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등잔 안쪽은 잘 마연되었으며, 벽은 짧게 안으로 수축되었다. 외벽 맥석영의 자연면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밑을 가공하여 바닥을 굽처럼 처리하였다. 등잔 그릇의 1/5 정도 편이다. 벽 두께 0.9cm, 벽높이 0.7cm, 바닥과굽 높이 1.3cm.

출토된 귀얄문 대접 또는 접시 구연부 편은 모두 27점인데 그 유형이 모두 다르다. 흥미있는 내용은 27점의 기종이 모두 다르며 백토에 그대로 담구어 분장시킨 것은 한 점도 없이 모두 귀얄로 백토를 분장하였으며 때로 내면에 수직사점문 1점의 인화(印花) 처리와 외면에 풀잎 또는 철사호선(鐵砂弧線)을 처리한 것 각 1점씩 외에는 거의 문양이 없다. 당시 귀얄로 백토 처리한 점은 대단히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15세기 늦은 시기로 거리상 계룡산 귀얄분청사기의 특징으로 보인다.

5)〈A-5호분〉

A-1호 석실분에서 북서쪽으로 약 43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1호가 자리하고 있는 능선의 하단부에 자리한다. 석비례층을 파서 묘광을 만든 N-75-W 장축의 토광묘이다. 토광의 폭은 120cm, 길이 268cm이며 내광의 폭은 70cm, 길이는 220cm이다. 석비례층(생토층)으로부터 토광 바닥까지 깊이는 약 152cm이다.

내광을 판 후, 회섞은 사질토를 약 7cm 정도 깔아 바닥을 고르게 하고, 관을 안치하였다. 조사 시 이 사질토 위에 관재 유기물이 3cm 정도 두께로 정연하게 나타났는데, 길이 184cm, 폭40cm 이다. 관 안치 후 묘광 바닥에서 40~50cm 높이까지는 소량의 회(灰)를 섞은 사질토로 묘광을 메꾼 후, 그 윗부분부터는 점토와 사질토를 한켜씩 번갈아 가면서 관축하였다.

관정은 총11개가 출토되었는데, 관재 유기물에 따라 정연하게 나와 관의 크기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또 관정이 크게 8cm와 16cm 크기의 2종류가 출토되었고 일부 관정은 목관편이 붙어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내광의 북벽에서 남쪽으로 21cm, 동벽에서 서쪽으로 39cm 지점에서 유리구슬 1점이 출토되었다.

● 유리구슬

5호 토광묘에서 1점의 적황색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 출토지는 사람의 목 부분에 해당된다. 구슬 내의 구멍이 관통된 양쪽에는 한쪽에만 원통형 대롱에서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고 다른 한 쪽은 마연되어 그 흔적이 없다.

구슬의 크기는 1.6×1.1×길이(너비)1.6cm, 두께 1.1cm 구멍 직경0.5cm

● A-5호 관정

5호 관정은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머리가 없는 통자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기타 무덤의 관정 보다 길이가 대단히 크다.

5호 관정 중 5·6호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정에 관재가 남아 있다. 5호 관정은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일종은 크기가 12cm에서 15cm 사이의 것과 다른 일종은 7cm에서 8cm사이의 관정이다.

묘광을 다진 관축부 사질토층 내의 회청색 백제시대 토기편, 분청사기편 등이 소량 관입되어 있었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토광의 연대는 고려시대에 속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호 토광묘 동쪽 지표면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남쪽 지표면에서 백제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다량의 토기, 자기편들이 수습되었다.

6)〈A-6호분〉

A-1호가 위치하고 있는 능선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서향한 또 다른 능선의 중단부에 자리잡고 있다. 구릉사면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생토층을 ‘L’ 자형으로 굴착하여 횡구식 석실분을 축조했다. 현재 1매의 개석(100×50×40cm)만 동쪽에 남아있는 상태이며, 장축은 N-75-W이다.

장축길이는 260cm, 폭 130cm이고 묘광 길이는 216cm, 폭 76cm이다. 북벽은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5단이 남아있다. 화강암 활석의 면석이 묘광쪽을 향하게 하여 정연하게 쌓았다. 남벽 역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5단이 남아있고 면 것이 묘광쪽을 향하고 있다. 동벽과 만나는 남벽 최상단 부분을 북벽선보다 약 15cm 정도 동쪽으로 더 나가게 쌓았는데, 개석을 올리기 위한 축조술인 듯 하다. 그리고 서쪽 끝에는 66×54cm 크기의 판석 1매를 사용하여 끝맺음을 하였다. 이것은 1호분과 유사한 형태이다. 안벽인 동벽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횡구부인 서벽의 폐쇄석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2매의 활석 위에 1매의 괴석(60×40×30cm)을 올리고 7매의 활석으로 밀리지 않게 고정시켰는데 1호묘의 횡구부에서도 이와 같은 폐쇄석 처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묘광바닥은 생토(석비레)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횡구부에서 높아져 약 6cm 정도의 단을 이루고 있다. 북벽과 남벽모두 4~5단의 벽석이 남아 있다.

1단에서 3단까지는 활석의 판판한 면이 묘광안쪽으로 향하게 세로로 길게 쌓아 올렸으며, 맨위 벽석은 개석을 안정되게 놓기 위해 얇은 활석을 가로로 배치하였다. 출토 유물은 부식된 철편 1점, 관정 편만 수점이다.

● A-6호 관정

관정 4점과 2점의 철제 방형관이다. 관정 4점과 철제 방형관 2점은 부식이 심하다. 방형관의 용도는 판단하기 어렵다. 관정은 머리가 없는 통자이며 단면은 거의 사각형이다.

● 돼지 이빨

A지구 6호 무덤에서 돼지 앞이빨 1점이 출토되었다. 위턱 또는 아래 턱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2개의 이빨인데 1개는 절반이 결실되었다. 치근은 없으며 치관 부분만 남아 있다. 당시에는 무덤에 돼지 머리 또는 돼지 아래턱을 부장하였다. 길이 $3.1 \times 2.7 \times 0.5\text{cm}$ 이다.

7)〈A-7호분〉

A-6호 석실분이 위치한 능선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A-6호분에서 동남쪽으로 약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A-1호분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66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석비례층을 ‘L’ 자형으로 파고 묘실을 축조하였다. 장축은 S-66-E 방향이며 장축 추정 길이는 320cm, 폭 190cm, 묘실 내 길이는 242cm, 폭은 104cm이다.

석실 중앙에 $110 \times 100 \times 35\text{cm}$ 크기의 거대한 개석 1매가 동→서로 기울어진 채 놓여 있으며, 동벽 끝단과 잇닿아 또 하나의 개석이 놓여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이 깨져 서→동으로 기울어져 있다. 남벽은 비교적 큰 거칠은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총 4단이 남아있었는데, 서쪽부분은 경사도와 도굴 등에 의해 1~2단만 남아있다. 동벽에서 2열 하단부에 길이 50, 폭 30cm, 깊이 17cm의 감실(龕室)이 있는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벽 역시 북벽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석재를 가로쌓기 하여 축조하였고, 동쪽은 5단이 서쪽은 파괴되어 1단이 잔존되어 있다. 안벽인 동벽은 별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횡구부인 서벽은 하단석 1매만 남아있다. A-1호와 A-6호 석실분의 횡구부 양식인 2매의 할석을 하단석으로 사용한 후, 1매의 괴석을 올리는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횡구부쪽은 단을 두어 약 8cm 정도 높이고 있다. 출토 유물은 부식된 관정편만 수점이다.

8)〈A-8호분〉

A-2호분이 위치한 능선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횡구식 석실분으로 A-1호분에서 북쪽으로 65m, 2호분에서는 북서쪽으로 65m 떨어져 있다.

N-20-E 장축으로 적당히 다듬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 괴석을 사용하여 축조

하였다. 석곽의 길이는 190cm, 폭은 100cm이며 묘광의 크기는 길이 120cm, 폭 55cm이다. 개석은 모두 결실되었으며, 주변에 석재들이 널려 있었다. 무덤의 축조 순서는 동장벽을 쌓은 후 북벽을 쌓고, 거기에 붙여 서벽을 쌓은 후 남쪽을 폐쇄석으로 막았다.

동장벽은 편편한 면석을 묘광쪽으로 향하게 하여 2매로 축조하였으며 세로쌓기를 하였다.

서장벽 역시 편편한 면석을 묘광쪽으로 향하게 하여 세로쌓기로 축조하였으며, 2매가 잔존되어 있는데 북쪽의 1매는 파괴되어 벽석이 없다.

북단벽은 눕혀쌓기로 2매의 석재로 축조하였는데 동쪽은 2단이 남아있다.

남벽은 횡구부로 북, 동, 서 3벽을 쌓은 후 3매를 세워쌓기로 쌓아 막은 후, 그 뒤를 2매의 할석을 사용하여 보강을 하였다. 북단벽의 동쪽을 제외한 모든 벽은 1단만 잔존하였는데, 주변의 석재로 보아 높아야 2단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배수로 등의 시설은 없었다.

석실의 협소함으로 보아 세골장용(洗骨藏用)이나 유아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석실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백제시대의 평저의 대접이 1점 출토되었으며, 석실 북벽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역시 백제시대 평저의 대접의 1점 출토되었다. 층의 교란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도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봉토의 조영(造營) 시 매납(埋納)된 제의적인 성격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 사발은 밝은 황색의 연질 토기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소량의 석영알이 섞여 있다. 잘 구워 졌으며, 둥그스러운 바닥에서 완만하게 오르는 몸통을 가졌다. 기신은 깊다. 기신 외벽은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이 되어 있으며 바닥 가장자리에는 작은 흔적이 남아 있다. 시기는 백제 5-6세경. 구경 11.5cm, 기벽 0.5cm, 높이 3.7cm, 저경 7.5cm, 대접형 토기는 반구형(半球形)의 평저기로 기신은 낮고 구연부가 외반되면서 퍼진 듯이 올라가다가 구순(口脣) 가까이에서 밖으로 젖힌 형상이다. 문양은 없으며,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소성도가 낮은 회갈색(灰褐色) 연질토이다. 몸체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원형 복원은 가능하다.

구경 16.3cm, 높이 5.2cm, 기벽 0.3cm, 저경 10cm이다. 상기한 소형 사발은 무덤 내에서 출토되고 하기(下記)의 사발은 무덤에서 동북쪽으로 약 1m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시기는 5세기말-6세기 초로 추정된다.

2. 월산리 B지구

A지구에서 남쪽으로 약 15분 거리에 자리한 B지구에는 B-1, B-2, B-3, B-4, B-5 등 총 5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1)〈B-1호분〉

B-1호분은 B지구 중앙부의 비교적 완만한 능선의 중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향한 능선의 중하단부 경사면을 자 모양으로 굴토하여 축조했다.

무덤의 장축 방향은 N-71-E이며 장축길이는 280cm이고 폭은 150cm이다.

이미 오래전에 도굴이 이루어져 심하게 교란된 상태이며, 현재 2매의 뚜껑돌만이 잔존되어 있었다. 뚜껑돌의 크기는 130×70×35cm, 100×55×35cm이다. A지구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석비례층을 장방형으로 파고 벽석을 쌓고 뚜껑돌을 올려 놓았으며 서쪽하단에 폐쇄부를 만들고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북장벽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 할석을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4단이 잔존되어 있는데 동쪽부분에 7단이 남아있다. 묘광쪽으로 약 15° 내경되어 있다. 남장벽 역시 화강암 할석으로 가로쌓기를 하여 축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단이 남아있고 동벽쪽은 5단이 남아있다. 내경의 흔적은 없다. 동벽은 상단이 유실되어 현재 4단이 남아있는데 눕혀쌓기로 축조했으며, 장벽들과 마찬가지로 길고 납작한 석재들을 사용하였다.

경사면과 도굴로 인해 약간의 과손이 되어 동벽선에서 서쪽으로 약 20cm 정도 밀려 들어와 있었다. 서벽은 폐쇄부로서 1매의 커다란 괴석을 세우고 그 북쪽사이를 할석들을 메운 후, 그 뒤를 7-8매의 화강암 할석으로 보강하였다. 이러한 폐쇄방법은 A지구의 폐쇄방법과는 다른 점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폐쇄부쪽에 약 6cm 정도의 단을 형성하여 횡구부쪽을 높이고 있다. 출토 유물로는 청동잔 1점, 청자 완 1점, 청동제 손가락 1점과 철제 관정 수점이 출토되었다. 금속제품은 모두 부식이 심한 편 들이다.

청동제 소형잠은 고려시대 금속기술의 발달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그릇이라고 생각된다. 월산공단 출토, 황록색 자기(초분)와 유형이 그 시대와 대단히 접근되고 있다. 구연과 몸체가 상당 부분 결실되었으나 전체기형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평저의 바닥에서 배가 약간 융기되면서 위로 가면서 넓어진다. 구연이 가볍게 외반되었다. 내·외벽에 명문 또는 시문이 없다. 기벽이 대단히 얇다. 황록색 자기와 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시기도 같은 시기인

11세기 후반기로 보인다. 구경 10.5cm. 기벽 0.1cm. 높이 3.2cm. 저경 3.5cm.

● 청동제 수저

B지구 8호 석곽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북벽에서 남으로 22cm, 서벽에서 195cm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소형의 수저이다. 슬부와 손잡이 부분이 절단되었다. 슬부의 중심부와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다. 손잡이 부분에 문양이나 명문은 없다. 특기할 사항은 단조품이다. 손잡이 부분 안면에 청동편이 걸쳐져 때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손잡이 중심 부분이 결실되었다. 끝부분을 연결시킨 전장은 13.9cm, 슬부(바닥부분)길이 7.2cm, 너비 3.7cm, 슬부두께 0.1cm, 손잡이 두께 0.1cm이다. 손잡이 끝부분이 손잡이 몸체보다 배 이상 넓다. 너비 1.3cm

● 청자대접

녹황색의 비교적 큰 사발이다. 내저곡면의 대접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었다. 내측 구연 아래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으며, 내부바닥에 공기돌(그릇과 그릇사이 받침돌)이 다섯점 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구연 외벽에 0.5cm 간격으로 음각선 두줄을 둘러었다. 11세기 후반기로 추정된다. 구경18cm, 기벽두께 0.3cm, 높이 5.7cm, 굽 높이 0.5cm, 저경 5.7cm

2)〈B-2호분〉

B-1호 석실분의 동쪽 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B-1호분과의 표고차는 2m 정도이며, B-1호분이 위치한 능선 윗부분에 자리한다. 장축방향은 N-88-E이며 석실의 장축 길이는 384cm, 폭은 170cm이다. 묘실 내 길이는 246cm, 폭은 90cm이다. 현재 3매의 뚜껑돌이 남아 있으며 폐쇄석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뚜껑돌과 벽석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할석들과 괴석들이 석실분 주위에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석실분 축조방법과 마찬가지로 서향한 능선의 중하단부 경사면의 석비레층(생토층)을 자 모양으로 파고 벽석을 쌓고 뚜껑돌을 얹었다.

북벽은 6단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비교적 길고 납작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남벽역시 6단으로 가로쌓기를 하였고 길고 납작한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양벽 모두 약간의 내경이 보이나 심하지는 않다. 동벽은 화강암 괴석 2매를 세워쌓기로 축조한 후 괴석사이를 화강암 할석으로 메우고 그 위에 1단을 눕혀쌓기로 축조, 벽을 완성하였다.

약간 내경한 흔적이 보인다. 서벽은 횡구부로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다. 2매의 화강암 괴석을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세워쌓기로 놓은 후, 그 뒤를 화강암 할석편과 2매의 괴석으로 막음을 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뚜껑돌은 커다란 화강암 괴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는데 뚜껑돌을 놓은 후 벽석과의 틈은 할석편들로 메웠다. 바닥은 별도의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횡구부쪽은 약 8cm의 단을 두고 있다.

출토 유물로는 청자 시(匙) 1점과 정제 관고리 2점, 철제 대단금구 1점과 용도 미상 철사와 철편, 대편 1점 절제 도자, 다수의 관정이 출토되었는데 유물들은 도굴 등에 의해 위치가 이동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

●B-2호 관고리

관고리 2점이 출토되었다.

1. 직경 0.1cm되는 철사를 원형으로 만들었다. 이음 부분은 확인될 수 없으나 끼움쇠는 절반이 부러져 있다. 이 끼움쇠의 장식은 따로 하지 않고 끼움쇠의 철사를 굽혀 고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끼움쇠의 단면은 방형이며, 폭은 0.7cm이다. 고리의 지름은 6.0cm이다.

2. 직경 0.6cm되는 철사를 원형으로 만들어 고리를 만들었다. 이음 부분은 확인될 수 없으나 끼움쇠는 거의 다 남아있다. 끼움쇠의 현존길이 5.5cm. 이 고리도 전자와 같이 끼움쇠의 장식없이 끼움쇠 철사를 굽혀 만들었다.

끼움쇠의 끝부분 단면은 방형이다. 고리의 지름은 5.7cm이다.

●B-2호 철사

철사편 23점이 출토되었다. 철사편 전체에 형겅이 부착되어 있는 것에 따르면 갑옷 또는 방패 같은 것의 속에 넣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점이 거의 ㄱ자 형태로 꺾여진 것으로 보아 의복 속에 넣은 철사가 분명하다.

가장 긴 것의 길이 13.5cm, 폭(단면 원형)은 0.3cm이다.

●B-2호 관정

관정은 모두 8점이다. 대부분 머리가 없는 통자이며 단면은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기타

1. 도자

손잡이가 부러진(결실된) 도자이다. 도자 몸체는 거의 완전하게 잔존되었다. 길이 11cm. 등 두께 1.3cm. 날 두께 0.2cm. 도자 단면은 썸기형이다.

2. 장형판식 (대)금구

두께 0.2cm되는 장방형 쇠판을 접어서 만든 식(대)금구이다. 못자리는 보이지 않지만, 의복(군복)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형상판에 형겔일부가 잔존되었다. 현존 길이 2.4cm, 폭 2.0cm

3. 리벳(兩頭棺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못으로 머리부분은 장타원형이다.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 두 개의 머리가 거의 대칭적이다. 몸체 중심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2.5cm. 몸체 폭 0.9cm

4. 혁대고리

일종의 혁대고리(金具)이다. ㄷ자로 꺾여진 끝부분은 전체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며, 끝부분은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자 안에 고리(針)는 따로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혁대고리의 꺾여진 양쪽 끝부분은 몸체보다 좁다.

혁대고리 몸체 중심 부분의 폭 1.2cm, 고리의 길이 0.7cm, 고리폭 0.6cm, 폭지 두께 0.4cm, 혁대고리 전체 길이 4.5cm

●소형 접시

녹황색 소형 접시이다. 황색이 조금 더 강한 색채를 띠고 있다. 외부 바닥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며 구연부에 이르러 가볍게 외반되었다. 내부 바닥에 이르러서 가볍게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다.

태토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져 유약 외부까지 돌출되었다. 굽 바닥에 공기돌 4점을 놓았던 흔적이 있다. 구경 11.2cm, 기벽 0.3cm, 높이 3.2cm, 굽 높이 0.8cm, 굽 높이 0.5cm, 굽 두께 0.4cm.

3)〈B-3호분〉(11호)

B-3호분은 B지구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B-1, 2호가 위치한 능선의 남쪽에 있는 서향한 다른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B-1, 2호 남쪽 약 5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능선의 중단 부분에 석비례층을 ‘字’ 자 모양으로 파고 묘실을 구축했다. 장축 방향은 N-83-E 방향이며, 석실 전체의 장축 길이는 328cm, 폭 166cm, 묘광의 길이는 250cm, 폭은 86cm이다. 4매의 큰 판석으로 뚜껑을 덮었으며, 뚜껑돌과 뚜껑돌 사이의 틈은 할석편으로 마감하였다. 동벽에서부터 3번째 뚜껑돌(100×80×30cm)이 모로 들려진 상태로 놓여 있어 이미 오래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북벽은 총 4단으로 길고 납작한 화강암 할석을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로 병행하여 축조하였다.

남벽은 4~5단으로 길고 납작한 화강암 할석을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양쪽 장벽 모두 정연한 축조상태를 보여주며 내경은 하지 않았다. 동벽은 2매의 다듬은 괴석으로 1단을 놓은 후 그 위에 2단을 눕혀쌓기 하였고 내경은 보이지 않는다. 횡구부인 서벽은 75×50cm의 커다란 괴석 1매를 사용해 막음을 한 후, 그 뒷부분에 또다른 1매의 괴석으로 고정시킨 다음 다시 몇 매의 할석들을 이용해 마무리를 하였다.

바닥면은 폐쇄석쪽에 약 10cm 단을 형성한 점은 여타 무덤과 같으나, 다른 무덤들은 폐쇄석 바로 아래에 단을 설치한 것에 비해 10호는 폐쇄석에서 약 30cm 떨어진 지점에 단을 만든 점이 다르다. 그리고 다른 석실분과는 달리 생토층위에 회백색의 고운 점토를 약 6cm 두께로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바닥처리는 방습효과를 위한 것이다. 실제 바닥 점토를 걷어낸 후, 계속 생토면이 축축하게 젖어 작업 시 애를 먹었다.

출토 유물로는 남벽과 맞닿은 폐쇄석 바로 앞에서 고려시대 회청색 광구편병 1

점, 서벽에서 40cm, 남벽에서 50cm 지점에서 황록색 사발 1점이 출토되었고 묘실 중앙에서 관재편과 관정 편이 수습되었다.

● 관구편병(扁瓶)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그러나 구연부의 복원은 가능하다. 구연부는 각이 저 세워지고, 측면에 세 줄의 돌대(突帶)가 둘러져 있으며 비교적 넓다.

비교적 긴 목에 어깨로부터 좁혀지다가 동체로 내려가면서 벌어진다. 그리고 하부에 이르러 다시 좁아진다. 어깨 부분의 아랫면에 세줄의 얇은 음각선을 돌렸다. 기벽은 경질이다. 관구편병에 가까워 토기의 두면을 가볍게 짓눌러 양 옆이 돌기된 형상이다. 바닥은 평저이나 가볍게 돌출 되어 몸체의 균형이 고르지 못하다. 태토에는 약간의 모래알이 섞여졌으며 회청색이다. 11세기 후반의 편병으로 추정된다. 구경 7.3cm, 돌대높이 1.5cm, 높이 25.2cm, 동경(넓은 부분) 14cm, 좁은 부분 11.9cm, 기벽 0.4cm, 저경 8.8cm.

● 소형 사발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황색의 소형 사발이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다가 구연부에 와서 가볍게 외반되었다. 태토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고은 흙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부 면에 음각선은 보이지 않는다. 굽이 비교적 높다. 굽과 몸체가 하나로 만들어졌다. 굽 밑에 공기돌을 4개 놓았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굽 내에는 유약을 처리하지 않았다. 구경 13cm, 기벽 0.4cm, 높이 5.5cm, 굽 높이 1.5cm, 굽 두께 0.6cm.

4)〈B-4호분〉

B-3호분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30c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회곽묘이다. 유구의 장축 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는 M-79-E이며, 석비례 암반층을 ‘L’ 자형으로 굴착해 축조하였다. 무덤의 장축 길이는 212cm, 폭은 76cm이다. 남, 북벽에는 상단에 단을 1단 만들었으며, 서벽은 횡구부인 듯이 축조하였으나 그 입구의 폭과 넓이가 낮은 점으로 미루어 형식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실질적인 시신 매납은 수혈식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위에 2cm정도 회를 깔았다. 내부에서 인골과 관재를 수거하였

으며, 바닥 중간부에서 고려시대 토기편 2점과 남성기 형태의 역석이 출토되었다.

●B-4

역암제의 길쭉한 강자갈 1점이 부장되었다. 전체가 잘 마연되었다. 무덤의 주인공은 여자로 보이며, 이 역암제의 강자갈은 남자 성기를 나타내며,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3cm, 최대 폭 3.9cm.

●인골편(人骨片)

고려 말 또는 조선초기에 해당되는 회고가묘에서 인골과 더불어 강자갈제 성기(남성) 한 점이 출토되었다.

●잔존된 인골편

왼쪽부터 어금니 2점(윗턱 또는 아래 턱 소속불명), 마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나이는 대략 50세에서 60세 사이로 보인다. 두 점 모두 치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치근은 각각 2지(枝)를 가졌다. 뒷머리(occipital)편, 두께 0.4cm.

5)〈B-5호분〉

A-6, 7호 석실분이 자리하고 있는 A지구 최남단과 B-1, 2호가 자리하고 이/는 B지구 최북단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서향한 능선의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B-1, 2호에서 북동쪽으로 85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축 방향은 S-84-E이다.

내광 장축은 250cm, 단축은 80cm 이다. 뚜껑돌은 화강암 괴석을 거칠게 다듬어 이용하였는데, 동쪽 2매가 잔존되어 있는데 1매는 판석이며, 1매는 괴석으로 처리했다. 뚜껑돌과 뚜껑돌 사이는 할석편으로 처리하였고, 뚜껑돌 동단 또한 할석편으로 마감하였다. 북장벽은 총 4단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최하단에 비교적 큰 화강암석을 대충 다듬어 놓은 후, 그 위에는 화강암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내경의 흔적은 없다. 남장벽 역시 총 4단으로 북장벽과는 달리 세로쌓기를 하였고, 거의 같은 크기의 납작한 화강암 할석을 이용하였다. 서벽은 횡구부로 길이 76cm, 폭 88cm의 화강암 괴석 1매를 표광쪽으로 내경되게 세운

후 그 북쪽 틈을 2매의 화강암 할석으로 메우고, 그 뒷면을 화강암 할석 수 매로 보강하여 폐쇄부를 만들었다.

다른 석곽묘와 달리 생토층(석비레층)부터 굴착하지 않고, 생토 윗층(황갈색 사질점토+쇄석층)부터 파고 벽석을 구축했다. 또한 벽석의 중간 높이까지만 굴토를 한 것으로 보여 완전한 지하식 구조가 아닌, 반지하식 석실분으로 보여진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폐쇄부 바닥을 묘광보다 약 12cm 높게 처리하였다. 출토 유물로는 부식된 관정 편 다수가 있는데, 북벽 상과 묘광 중심을 따라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북벽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으로 보인다.

●B-5관정

관정 4점과 꺾쇠 1점이 출토되었다. 관정은 머리 없는 통자이며 4점 모두에 관재가 부착되었다. 못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국화인화문접시

소형의 분청접시이다. 외부바닥(굽)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가볍게 외반되었다. 내부 구연 직하에 흰색으로 한 선을 두르고 이 선에서 0.5cm 아래에 또 한 선을 다시 두른 다음 인화문(승렵)은 1.5cm 두께로 처리하고 다시 그 아래에 0.5cm 두께의 흰색 선을 두른 후 그 아래에 인화문(승렵)은 1.5cm 두께로 시문하고 바닥 한 가운데 국화문을 처리하였다. 외부벽의 가볍게 외반된 직하에 4선의 흰색 선을 밀집하게 배열한 후, 아래 굽 가까이 약 2.5cm 두께로 인화문을 처리하고, 이 인화문과 굽에 다시 네 줄의 흰색 선을 둘렀다. 태토는 고운 흙이다. 분청사기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구경 11.5cm, 기벽 두께 0.5cm, 높이 3.7cm, 굽 높이 0.8cm, 저경 4.2cm.

3. 월산리 C지구

1)〈C-1호분〉(14호)

등고봉의 남동쪽 능선의 끝부분, 유격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횡구식 석실분이다. N-62-W 장축으로 등고선에 직교 방향으로 생토면을 형으로 굴착한

후 무덤을 조성하였다. 석실은 세장한 장방형으로 뚜껑돌은 총 2매가 남아있는데, 커다란 화강암 괴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뚜껑돌과 뚜껑돌 사이는 20×10cm 내외의 할석편으로 막음을 하였다. 평천정이다. 내광길이는 260cm, 폭은 52cm이다.

북장벽은 세로쌓기를 하였으며, 최하단에 비교적 큰 화강암 괴석을 놓았는데 화강암 할석으로 그 틈을 메웠으며, 그 위는 화강암 할석과 괴석으로 무질서하게 축조하였다. 내경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남장벽 역시 세로 쌓기를 하였는데 화강암 괴석과 할석으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무질서하게 쌓았다.

내경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안벽인 서단벽은 눕혀쌓기를 하였는데 다듬은 할석을 2열로 쌓았다. 남쪽 옆에서는 2단이 빠져나가 파괴되었다. 횡구부인 동벽은 할석과 회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반식은 월산리고분군의 횡구양식에서 유일한 것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횡구부쪽을 15cm 정도 단을 만들었다. 유물로는 관정 2점이 출토되었다.

4. 월산리 D지구

1)〈D-1호분〉(15호)

큰 골목산의 북동쪽 완만한 능선 하단의 산길 상에 위치하고 있는 횡구식 석실분으로 장축은 N-79-W이다. 석비례 생토층을 ‘L’ 자형으로 막 굴착한 후 무덤을 조성하였다. 뚜껑돌은 커다란 화강암 괴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2매가 잔존되어 있는데 뚜껑돌의 틈은 화강암 할석편으로 막음을 하였으며 평천정이다. 북장벽은 총 5단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비교적 납작한 화강암 할석을 이용하여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남장벽 역시 5단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비교적 납작한 할석편으로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남북장벽 모두 내경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서단벽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횡구부인 동벽은 커다란 화강암 판석 2매로 막음을 한 후, 다시 1매로 그 뒤를 받치고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횡구부쪽으로 오면서 경사지며 높아지는 형상이다. 이러한 바닥처리는 이 지역 횡구식 석실분의 특징인 횡구부에 단을 두는 형식과 차이가

있다. 유물은 관정 14점 출토되었다.

●관정 14호

14호에서 모두 14점의 관정이 출토되었다. 모두 머리가 없는 통자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는 거의 같다.

●16호 원형 적석유구(圓形 積石遺構)

원형적석유구로 등고봉의 동남쪽 능선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 길이 190cm, 동서길이 164cm이다. 무덤축조방식은 지표 위에 냇돌을 사용하여 2열의 석렬을 원형으로 둘러싼 후, 그 내부를 생토면까지 굴착하고, 황갈색 마사토 및 흑갈색 사질토로 약간 둔덕이 지게 쌓고, 그 위에 냇돌을 부정형으로 덮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석렬에 쓰인 냇돌은 주로 넓은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안정감이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였는데 지형의 경사도와 동일하게 남쪽으로 경사져 있어 생토면에 인공을 가하지 않고 바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닥의 중앙부에서 약간 남쪽으로 쳐져 혈이 1개 발견되었는데,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1점도 없다.

〈건물지〉

월산침례교회에서 북서쪽으로 약 60m 떨어진 완만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15호분이 속해있는 야산의 동쪽 자락이다. 경작에 의해 교란이 심해 1기의 초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초석 동남쪽에는 화강암 할석이 일렬로 6개 놓여 있는데, 북쪽에서 4번째와 5번째 할석 사이에는 소토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불을 지핀 흔적이 보인다. 아궁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유물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IV. 종합 고찰

1. 묘제

금번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총 15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그 중 석실분은 13

기, 토광묘 1기, 회곽묘 1기이다. 석실분 중 횡구식 석실분은 11기,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2기이다.

1)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

횡구식 석실분은 A지구에서 A-1, A-2, A-6, A-7, A-8 등 총 5기이며, B지구에서는 B-1, B-2, B-3, B-5 등 총 4기, C지구에서는 C-1, D지구에서는 D-1이다. 이 중 이들 횡구식 석실분은, 모두 입구를 막는 돌을 설치하지 않고 횡구부 전체를 개구하여 시설한 형식으로, 현현실(玄室) 평면 plan에 있어 폭/장축의 비가 $2/3$ 이하인 장방형을 띠고 있으므로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으로 볼 수 있다. 이중 A-8은 $1/2$ 에 가운데 이 무덤은 백제시대 평천정 양식의 횡구식 석실부능로 고려시대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들과는 구별된다.

이들 횡구식 석실분들은 D-1을 제외하고는, 모두 횡구부쪽에 10cm 내외의 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D-1 역시 단은 없지만, 횡구부쪽으로 가며 경사도를 점차 높이고 있어 약간의 차는 있으나, 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의 커다란 특징으로 볼 수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월산리 고분군의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은, 크게 A지구와 B지구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A지구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 전체와 D지구 D-1은 안벽을 석축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용인 좌향리 고분군 3호, 7호, 8호분. 홍성 성호리 고분군 10호분. 공주 신기동 고분군 5호분, 공주 웅진동 고분군 8호분 등에서 발견되는데, 고려시대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난 형식으로 파악된다. B지구는 모두 안벽을 석축하고 있다.

둘째, 횡구부 폐쇄석의 차이로 A지구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의 횡구부는 최하단부에 화강암 할석 2매를 놓고 그 위에 화강암 괴석 1매를 놓는 방식을 띠고 있는 반면 B지구 석실분의 횡구부는 커다란 화강암 괴석 1매를 세워 놓은 후 그 좌, 우 틈을 화강암 할석으로 메우는 양식을 띠고 있다.

월산리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의 침향은 동향 8기, 북향 2기, 서향 1기 등으로 동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침향은 유골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아니나 횡구부 반대쪽을 두부로 추측하였다. 우리나라 무덤들은 5세기를 중심으로

동-서측에서 남-북측으로 침향이 바뀌어서, 이후 북침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데 월산리 석실분에서는 동향이 많아 특징이 있다. 이는 백제 석실분의 전통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7호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에서는 감실이 존재한다. 감실은 그 초기에는 무녕왕릉에서 보듯, 등잔을 놓는 시설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유물을 부장하는 시설로 변한 듯하며, 주로 두부(頭部)에 시설되는 것이 통례이다. A-7호도 감실이 바닥에 붙어 시설되었고, 횡구부 반대편, 즉 두부쪽에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유물의 매납시설이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8호는 유일한 백제시대 횡구식 석실분으로 1단이 잔존되어 있는데, 높아야 2단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천정으로 생각된다. A-8호는 괴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이는 백제시대 횡구식 석실분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또한 양 장벽의 안으로 들어와 폐쇄석을 쌓았는데 이 것 역시 괴석으로 만든 백제시대 횡구식 석실분의 특징이다.

2) 회곽묘

월산리 고분군에서 회곽묘는 유일하게 1기가 확인되었다. 이 회곽묘는 형식적인 입구를 가진 독특한 형식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적인 모습이 유사한 것은 천안 남산리 고분군과 김해 덕산리 유적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2. 출토유물과 연대

1)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

A지구 1, 2, 6, 7호 D-1호 수혈계 횡구식 석실분- 한쪽 단면이 생토면인 것에서는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이 1점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조사된 무덤들과 비교하여 추정할 밖에 없다. 용인 좌향리 고려고분군의 3, 7, 8호 (한쪽단면이 생토면인 횡구식 석실분) 무덤에서는 고려시대 청자, 백자들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출토 청자, 백자들을 용인 서리의 퇴적층위 중 ‘해무리굽백자층’ 이후인 ‘조질백자층’의 전기에 해당하는 11세기 중반기 유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 따라 월산리 고분군 중 한쪽 단면이 생토층인 수혈계 횡구

식 석실분들도 11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수혈계 황구식 석실분들 즉, B지구 1, 2, 3, 5호와 C-1호분은 B-1, 2, 3호에서 출토된 백자 발(鉢)과 녹갈색 청자 시(匙), 회녹색 청자 완(碗)을 통해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백자 발은 해무리굽으로 외반된 형태인데 이는 용인 서리(西里)의 I류 A식에 해당되며 10세기 후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수혈계 황구식 석실분들의 조영시기를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로 보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수혈계 황구식 석실분에서는 용도 미상의 철사편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철사는 그 출토예가 거의 없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직물양이 남아 있어 시신의 의류 등에 부착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철사는 청주 신봉동 고분군에서 유사한 것이 나온 예가 있다.

A-8호는 유일한 백제시대 수혈계 황구식 석실분으로, 석실 내부와 주변에서 백제시대 완(碗) 2점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백제시대 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시대 분류가 없기 때문에, 묘제를 통해 대략적인 시대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백제시대에 있어 황구식 석실분의 발생은, 5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므로 A-8호 역시 5세기 말경 이후에 조영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2) 토광묘(土坑墓)

A-5호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유일한 토광묘로 바닥에서는 유리구슬과 관정 외에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충진토 내에서 분청사기편이 나와 이 무덤은 조선시대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회곽묘(灰槨墓)

B-4호는 회곽묘로 그 내부 바닥에서 인골편, 고려시대 토기편과 남성기(男性器) 모양의 강자갈(礫石)이 출토되어 그 시기가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3. 월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1호선)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최무장

I. 조사 경위와 조사단 구성

건국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충남 연기군의 학술용역을 받아 월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호선 건설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1999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0여일간 실시하였다. 이는 1997년 12월에 건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동 산업단지 진입도로 1~3호선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일차적으로 1호선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을 발굴조사한 것이다. 이번 발굴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 : 최무장(건국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 지도위원 : 임효재(서울대학교 교수)
윤세영(고려대학교 교수)
- 조 사 원 : 채현석(건국대학교 박물관 학예과장)
이승배(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최 원(건국대학교 박물관 조교)
- 조사보조원 : 김혜영, 강명훈, 김득진, 박중경(이상 건국대 박물관 조교)

월산산업단지 진입도로 1호선은, 조치원에서 공주 방향으로 향하는 1번 국도와 연결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연기리 연기2구에 속해 있으며, 1번 국도에서 동남 방향으로 진입도로의 서북단이 1번 국도와 연결되고 있다. 지리적 현황을 보면, 연기1구와 연기2구 사이에 동서방향으로 연기천(燕岐川)이 흐르고 있으며, 이 중간 연기1구와 연기2구 사이에 연기교가 설치되어 있다. 이 연기교(燕岐橋)에서 월산공단 진입로 1호선 서북단은 동남 방향으로 정확히 200m 지점에 있다.

진입로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서북단에서 동남 방향으로 밭과 낮은 구릉을 지나 동쪽의 ‘면산(面山)’을 향하여 ‘큰 골목’과 밤나무 단지를 경우하면 동쪽에 있는 월산산업단지 입구와 연결된다. 이곳의 해발 높이는 다양하여, 낮은 밭은 50m, 밭과 연결된 가장 높은 구릉은 81.9m이며, 그 중에 비교적 높은 구릉지대는 77.0m인데, 이곳은 진입로 서북단에서 동남 방향으로 600m 지점에 있다.

II. 밭굴 구덩이와 유구(遺構) 현황

밭굴 결과 주요 유구는 진입로 서북단에서 동남 방향으로 600m 지점에 있는 높이 77.0m의 구릉지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곳의 서북쪽 언덕에서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회곽무덤 1기와, 역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온돌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수묘인(守墓人)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진입로가 끝나는 곳, 즉 동남단의 월산공단 입구부근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도로(道路) 유구가 한곳 확인되었다. 발굴한 시굴 구덩이 번호는 회곽무덤을 1호로 하고, 나머지를 발굴한 순서대로 2호에서 15호까지 부여하였다. 시굴 구덩이 현황과 유구 내용을 시굴 구덩이 번호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호 구덩이 : 회곽묘

1호는 2호 구덩이에는 서남방향으로 5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회곽묘이다. 회곽의 장축은 거의 동서방향이다. 회곽은 수형식이며 북변의 중간에 길이 45cm, 깊이 약 10cm의 감(龕)을 설치하였다. 감 안에 부장품은 없었다. 회곽 동남코너의 해발은 55.52m이다. 회곽의 길이는 225cm, 너비는 100cm이다. 회곽변의 너비는 약 20cm, 곱내부의 길이 185cm, 너비 57cm, 깊이는 동쪽 71cm, 서쪽은 64cm이다. 무덤은 생토를 굴착한 후, 회와 점토를 섞은 흙을 너비 20cm, 두께 2cm 정도로 한 겹씩 쌓아서 조성하였다. 머리방향은 동쪽이다. 목관편이 일부 잔존되어 있다. 관의 길이는 165cm이며 너비는 40cm이다. 관내에서는 깨진 고려시대 진한 녹색 자기편 1점과 회청색 토기편 10편 등 모두 11점이 부장되었다. 토기와 자기를 깨어서 부장시켰다.

토기와 자기 부장품 외에 인골편(人骨片)으로 어금니 뼈 8개, 앞어금니 1점 등 9점이 채집되었다. 앞어금니 1점과 세 번째 어금니 1점 등 9점이 채집되었다. 부식정도가 심하여 앞어금니 1점과 세 번째 어금니 1점에만 치근(齒根)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치관만 남아있다. 치아의 마모상태로 보아 50-60세 여자의 치아로 보인다. 그 외 두점의 대퇴골편과 1점의 종지뼈가 남아있다. 대퇴골편의 잔존길이는 23cm, 직경은 2.2cm이며, 오른쪽 대퇴골편은 길이 17cm, 직경 1.8cm, 두께 0.3cm이다. 관절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왼쪽 종지뼈 일부의 잔존길이 7.5cm, 너비 1.8cm, 두께는 0.3cm이다.

회곽은 수혈식으로 목관 안치 후 나무토막 또는 널빤지로 윗뚜껑을 해서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은 단면에 의하면 특별히 높게 하지 않고 평분으로 처리하였다. 출토된 토기편과 자기편들에 의하면 고려 중기 또는 중기 말에 해당되는 회곽묘를 볼 수 있다.

● 2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2호는 3호에서 남동방향으로 5m 지점에 설치하였다. 길이 4m × 너비 3m의 중간에 독 50cm를 남겨놓고 서북과 남동벽을 제거하였으나 아무런 유구를 찾지 못하였다. 해발은 동남 코너가 56.33m이다.

● 3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3호는 7호에서 동남방향으로 21m 지점에 있는 길이 3m × 너비 3m, 중간에 50cm의 독을 남기고 북과 남쪽을 굴착하였으나 아무런 유구를 찾지 못하였다. 해발은 북동 코너가 52.63m이다.

● 4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4호는 2호에서 남동방향으로 10m 지점에 있다. 길이 2m와 너비 1m로 굴착하였으나 아무런 유구를 찾지 못하였다.

● 5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5호는 구릉사면에 놓여있었다. 직경 1.5m × 0.8m 되는 원형의 암석이 놓여 있어, 고분으로 오인하고 굴착을 하여 보았으나 생토 위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해발은 45.58m이다.

● 6호 구덩이 : 온돌 유구

6호 석제 온돌 유구는 1호 획곽묘로부터 동남방향으로 120cm 지점에 놓여있다. 온돌 유구의 장축은 서북→동남 방향이다. 길이는 약 480cm, 폭(너비)은 동편과 아궁이 사이는 320cm, 온돌구조는 180cm이다. 온돌구조는 무정형의 점판암편과 석영암 암석편들로 조성되었다. 크기는 길이25cm × 너비20cm × 두께10cm, 길이30cm×너비30cm×두께15cm 등이다. 온돌방 자체의 크기는 길이 300cm×너비180cm이며, 벽체의 잔존은 동벽이 4단 높이 약 55-60cm가 남아있으며, 그 반대편 서벽은 1단이다.

온돌의 구들장 받침돌도, 역시 구들장과 같은 크기의 무정형 점판암과 석영암 할석편으로 처리되었다. 현재 잔존된 1단의 구들장 받침돌의 상면 약30cm에 올려놓은 구들장(1매)의 높이는 15-10cm이며, 이 위에 점토에 회를 섞어 바른 온돌 흔적이 동벽 3단 위에 잔존된 것으로 보아 온돌의 방바닥 두께는 적어도 20cm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잔존한 온돌 구들장 구조의 길이 300cm와 너비 180cm로 보아 단칸방 형태를 갖추었으며, 서벽은 흙으로 벽체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내용은 연통이 온돌의 동남 코너상으로 120cm 길이로 돌출된 것이다. 그 너비는 50cm, 연기가 빠져나가는 동로로 너비는 약 30cm이다.

출토유물은 양이(兩耳)의 시루편 1점과 진한 갈색의 점시이다. 시루는 동벽에서 동남방향으로 50cm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시루편은 구연부 벽체 일부와 저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복원은 가능하다. 연질의 태토로서 고운 모래가 소량 섞여 있는 회갈색 토기이다. 시루의 외벽은 회색이며, 내벽은 회갈색이다. 시루의 바닥에는 비교적 큰 장타원형 원공과 원공주위와 벽체에는 소공(직경 0.5cm(바닥과)0.2cm(벽체)의 두 종류가)이 뚫려있다. 그것은 시루의 재활용(repair holes) 또는 사용시 파손을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루 바닥 원공의 직경은 6cm 정도이다. 시루 구멍은 장타원형이다.

시루 구경은 21cm이며, 잔존 기벽의 높이는 15cm이다. 두 개의 교량형 손잡이가 달려있다. 형태는 양이반환상(兩耳半環狀)이다.

진갈색 고려자기는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도면 복원은 가능하다. 점시구경(직경)은 10cm, 기벽 두께 0.6cm, 기고 3.5cm, 저경 4cm이다. 점시는 아궁이가 있는 북벽에 근접되어 놓여있었다. 연질의 회갈색 시루는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고려시대까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형의 진갈색 접시는 고려 초기의 전형적 자기(磁器) 접시이다.

출토된 시루와 고려자기에 의하면 온돌은 1인용 온돌로서 수묘인(守墓人)의 가옥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온돌에서 서북방향으로 120cm 거리에 있는 고려시대 회곽묘(1호 유구)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7호는 5호에서 동쪽으로 10m 거리에 있었다. 해발은 50.58m이다. 길이 3m×너비 3m로 굴착하였으나 아무런 유구를 찾지 못하였다.

● 8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8호와 9호 시굴구덩이는 서북단 진입로 입구에서 120m와 160m 사이의 두곳에 설치·굴착하였다. 8호는 해발 40.40m와 40.58m에 있다. 8호는 길이 3m×너비 2m로 굴착하였다. 표토에서 고려시대 회청색 경질 토기편 8점과 조선분청사기편 5편을 채집하였다.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 9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9호는 8호에서 동남방향으로 12m 지점에 설치하였다. 9호는 해발 39.15m와 39.95m사이에 있었다. 9호는 길이 5m×너비 2m로 굴착하였다. 주위에서 고려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 3점과 2점의 분청사기편이 채집되었다.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 10호 구덩이 : 추정 집자리

10호는 1호 회곽 무덤의 구릉을 지나 동쪽의 晝蠹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그곳은 또한 1번 국도에 접한 서북단 진입로에서 직선거리로 640m 지점에 있다. 지표조사시 구획을 정하여 놓은 곳으로, 시굴하여 본 결과 시굴 구덩이 중앙에 인공(人工)이 가해진 화강암 주초석(柱礎石) 2 매(枚)가 확인되어 그 주위를 길이 10m, 너비 8m로 확장하였다. 주초석의 크기는 1매는 길이 80cm×너

비 50m×두께 50cm, 다른 1매는 길이 70cm×너비 50cm×두께 50cm 이며 교란된 층위에서 100여 점의 분청사기편과, 바닥에서 청도제 수저편 1점이 출토되었다.

15-16세기 사이에 비교적 큰 집자리가 있었으나 후에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토된 분청사기편은 전형적인 충청도식의 실용 용기편들이다. 해발은 남동 코너가 48.42m이다.

● 11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11호는 10호에서 동북방향으로 42m 지점에 시굴구덩이를 설치하였다. 길이 4.5m×너비 1.5m 크기로 시굴하였는데, 표토 등에서 조선시대의 분청사기편 10여점을 채집하였으나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발은 북동 코너가 45.85m이다.

● 12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12호는 11호에서 동남방향으로 300m 지점에 시굴구덩이를 설치하였다. 길이와 너비를 각각 1m로 정하였다. 높은 언덕의 정상으로 바람이 너무 차서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다. 해발은 73.66m이다.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3점이 출토되었다. 층위는 나무 뿌리에 의해서 교란되었다. 별다른 유구를 찾을 수 없었다.

● 13호 구덩이 : 고려 석실 고분 흔적 확인

13호는 거대한 화강암석 2매(枚)가 노출되어 고려시대 석실묘로 생각하여 발굴하였다. 12호로부터 동남방향으로 60m 지점에 있다. 해발은 58.18m로서 12호의 산아래(동쪽)에 있다. 시굴결과고려시대 무덤(석실무덤)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미 고분은 완전히 파괴되어 동벽에 무정형 암석 4매, 서쪽에 2매가 잔존되었다. 바닥에서 고려시대의 회청색 경질 토·자기편이 15점 출토되었다. 동벽 4매 암석의 길이는 300cm, 4매 암석의 크기는 길이 100cm×폭 80cm×두께 50cm, 길이 90cm×폭 70cm×두께 50cm 등이다. 서벽 2매의 암석 중 1매의 크기는 길이 110cm×폭 70cm×두께 60cm 이다. 서벽과 동벽의 거리는 110cm로서 고려시대 석실분이 교란·파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14호 구덩이 : 유구 확인 못함

14호 구덩이는 13호 파괴된 고려시대 무덤에서 동남방향으로 84m 지점에 있다. 길이 2m×폭 1m의 시굴구덩이를 굴착하였다. 별다른 수습 유물이 없었고, 유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동남 코너의 해발은 67.71m이다.

● 15호 구덩이 : 추정 고려시대 도로 유구

15호는 14호에서 동남방향으로 220m, 1번 국도 서북단 진입로에서 동남방향으로 직선거리 1200m 지점이다. 이곳에서 월산산업단지 입구가 직선거리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15호는 고려시대의 유구로 추정된다. 장축은 거의 남북 방향이며, 북단의 해발은 54.80m 이고, 남단의 해발은 55.56m 이다. 남단이 북단보다 76m 정도 높다. 확인된 장축길이는 27m, 폭은 190~200cm이다. 도로는 무정형 점판암 할석편과 강자갈(pebble)로 조성되었다.

도로 가장자리에 비교적 큰 무정형 할석편(길이 50cm×너비 40cm×두께 7cm정도)들을 군데군데 놓고, 그 사이에 강자갈(크기 30cm×너비 20cm×두께 5cm정도)들을 충전(充填)시켜 도로를 조서하였다. 도로 단면은 “V”자 형태로 조성되었다. 단면의 가장 두꺼운 곳은 54cm이며, 도로 가장자리는 2단으로 두께는 20cm이다. 단면의 바닥에서 고려시대 토기 손잡이(회흑색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로 유구의 북단 끝에서 동쪽으로 4.8m 지점에 조선시대의 아궁이 1기가 도로 유구를 훼손하고 들어와 설치되어 있다. 모두 7매의 무정형 할석편으로 조성되었다. 흥미로운 내용은 아궁이 끝 북쪽에 수기와 1매를 동서방향으로 시설한 것이다. 이는 재(회, 灰)를 끌어 모아 수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1단(段) 7매의 할석은 도로에 깔렸던 비교적 큰 석재(石材)를 사용하였다. 남단을 막음질한 것은 순수한 노지(爐址) 역할을 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궁이의 길이는 수기와를 포함하여 길이 90cm, 너비 50cm이다. 수기와 제거 후 바닥에서 분청사기편 3점이 채집되었다. 이 노지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Ⅲ. 출토유물 및 수습유물

1. 1호 고려시대 회곽묘 유물

1호 고려시대 회곽묘 내에는 감(龕)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부장품은 없으며, 사자(死者)의 실용기(實用器)들을 깨어서 무덤 내에 부장하였다. 인골잔편(人骨殘片)에 의하면 여자로 추정되는데, 무덤내의 부장품(깨어진 도자기) 중에 시루 바닥편이 부장 되어 인골(人骨)이 여성임을 방증(傍證)해준다.

깨어진 용기 편들은 청록색의 접시 구연부편 1점, 철사병 동체부 1점, 연질(와질)류의 도체 1점과 여기에 부착된 용기 손잡이(이 耳, 교량홍)편 1점, 시루편 1점, 편병의 저부편과 와질류의 용기저부편 1점과 동체편 3점이 출토되었다.

2. 13호 고려시대 석실묘 유물

13호는 고려시대 석실묘이다. 이 무덤은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큰 석재 4점만이 남아있다. 바닥에서는 와질류의 회색 용기편 6점과 2점(1점은 구연부, 다른 1점은 저부편이다)의 철유병 편이 출토되었다. 와질류는 고운 태토를 가졌으며, 돌림판 흔적은 없다. 와질류 6점 중 2점은 저부 부위와 벽체이며, 이 2점은 복원이 된다. 잔존 부분의 크기와 길이는 $17 \times 10 \times$ 기벽 0.8cm이다.

고려시대 철유병(鐵釉瓶) 편 2점 중 1점은 구연부이다. 구연은 외반되었다. 구연 벽체를 1.5cm 정도 외반시키면서 끝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끝마무리를 하였다. 외벽에 철사(鐵砂) 액체가 가마 열에 의해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있다. 내부는 손대지 않았다. 잔존 크기는 $5.9 \times 4.1 \times 0.6$ cm이다.

유물번호 13-6은 철유병의 저부편이다. 동체의 끝 부분과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이 용기편은 내·외벽에 철사를 발랐다. 색깔은 암갈색이다. 고운 태토를 가졌다. 잔존 크기는 길이 $7 \times 6 \times 1.1$ cm이다.

그 외에 연질(와질)의 동체부 편 3점이 있는데, 고운 태토로 되어 있으며, 갈색과 회갈색이다. 그 중 1점에서만 내벽에 돌림판 흔적이 있다.

3. 15호 고려시대 도로 유구 유물

15호 도로 유구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도로 유구 중간의 「V」자 단면 바닥에

서 5점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 연질, 와질류가 3점, 회청색 동체(胴體) 토기편이 2점이다. 3점의 연질(와질류)의 토기편은 모두 비교적 큰 용기의 손잡이 부분이다.

상기한 5점 중 3점의 연질 손잡이는 백제시대의 용기 손잡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2점의 병 동체부 편은 전형적 고려의 것으로, 15호 도로 유구는 고려시대 도로 유구임이 거의 확실하다.

그 외 다음 9점의 자기류 편은 15호 도로 유구에서 동북 방향으로 정확히 100m 지점에서 채집된 것들이다. 그 중에는 고려시대 철요 동체부 편 1점, 철유병 저부편 1점과 암갈색 구연부 편 1점 그리고 철화 초문완(草文碗) 편 1점 등 모두 4점이 있으며, 나머지 5점은 조선시대 자기류이다. 기물(器物)의 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

조선시대 자기류들은 비교적 격조 높은 상등품으로 추정된다. 고려와 조선시대 15-16세기까지 연기군 일대에 많은 양반계층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 접시

소형 갈색의 접지이다. 기고 3.3cm, 구경 10.0cm, 굽 높이 0.9cm, 굽경 4.0cm이다. 굽 위에 바닥 부위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볍게 넓어지고, 복부는 바닥 부위보다 더욱 넓어진다. 그리고 복부 위 끝에서 구연부 부위는 약 1.5cm 정도 완전히 헤바라진다. 구연부 끝은 거의 수직으로 위로 치솟는 형태이다. 구연부 끝에서 위로 상승한 부위는 0.4cm 정도이다. 내부는 구연부에서 복부로 굽어지는 부위에 한 줄의 백색 선문대(線文帶)가 있으며, 그 아래 복부 중간에 또 하나의 백색 선문대가 있다.

외부는 구연부 끝의 수직 부위 아래에 백색 세선문대가 있고, 그 선에서 아래로 0.7cm 지점에 한 줄, 복부 끝 부위에 한 줄, 바닥부위에 0.7cm 간격으로 두 줄이 있다. 굽 외부와 굽 중간에까지 갈색 유약이 처리되었다. 갈색 노태 상태는 번조시 태토 받침대를 사용한 것을 나타내었다.

◎ 토기 시루 편

연질(와질)의 회갈색 태토이다. 잔존 부부의 크기는 높이 15.3cm, 구경 27cm, 저경은 26.5cm이며 기벽은 0.5cm, 바닥 두께는 0.7cm이다. 두 개의

손잡이가 양쪽에 대칭으로 달려 있다. 모두 가로와 세로(교량) 상태이다. 손잡이는 바닥에서 9.3cm 높이에 있다. 손잡이 길이 9.2×폭 3.2×두께 0.7cm이다. 손잡이를 부착하기 위하여 손잡이 부착 부위를 용기 안쪽으로 짓눌러 놓았다. 시루 성형시 녹로를 사용한 자국이 내부에 잘 남아 있으며, 외부는 가볍게 마연한 흔적이 보인다.

시루 바닥 바로 위에 4개의 소형 구멍이 있는데, 2개는 깨진 부분을 실 등으로 연결시켜 사용한 수리 구멍(Repair holes)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벽체보다 큰 구멍들이 타원형 시루 구멍(원공) 주위에 각각 4개가 잔존되어 있는데, 바닥 결실이 심하여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와질토기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기타 출토 및 수습 유물

1) 분청사기 소형 주자(小形 注子)

1998년 12월 진입로 지표조사시 1호 회곽묘와 6호 온돌 유구가 있는 언덕 정상에서 채집되었다. 15세기의 전형적인 분청 주자(注子)로 추정된다. 형태가 거의 완전하며, 크기는 높이 11.1cm, 배지름 8.2cm, 밑지름 5cm, 목 높이 1cm이다. 목 부분이 가볍게 외반되었다. 목 밑에서 어깨선 사이에 먼저 약 1cm 두께의 백색 유약을 바르고 그 바로 밑에 1줄의 백색 선문대(線文帶)를 처리하고 그 밑에서 어깨선까지 한 줄의 뇌문대(雷文帶)를 처리하였다. 번개문의 폭은 1cm이며, 그 위(구연부 방향)에 양각(陽刻)의 매죽문(梅竹文) 세 잎을 처리하였다.

어깨선 상대편에는 손잡이 부분이 약 1cm 정도 잔존해 있다. 그리고 번개문(어깨선) 아래의 복부(腹部)에 승렴문(繩簾文)을 뺄뺄이 채웠다. 문양의 폭은 5.2cm이다. 복부 끝에서 굽바닥까지는 좁혀지는데, 이곳에도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백색 선대문(線帶文)을 바닥끝까지 처리하였다. 그릇 전체에는 청색의 분청유(粉靑釉)를 진하게 발랐다. 그릇의 굽은 높이 1cm, 두께 0.8cm이다. 적갈색 노태(露胎) 상태인 바닥에는 모래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손잡이는 거의 전체가 결실되었으나, 주구 부분은 완전하다.

IV. 종합고찰

월산산업단지 진입로 1호선 발굴은 1999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40일간 실시되었다. 2월의 매서운 바람은 발굴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진입로 도로 공사 일부가 문화재 발굴전에 이미 실시되어, 작업상 어려움이 또한 가중되었다.

진입로 1호선은 조치원과 공주사이를 연결하는 1번 국도와 연결된다. 이 연결된 새로운 진입로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연기리의 연기1구와 연기2구 사이에 흐르는 연기천의 연기교에서 서남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시작된다.

1호 진입로의 길이는 2.2km, 너비는 18.5m이다. 진입로 1호선은 서쪽에서 동남방향으로 가벼운 대각선처럼 휘어진다.

발굴 구덩이를 모두 15곳 굴착하였다. 그 중에 1호는 고려 중기에서 말에 해당되는 회곽묘로서, 고려시대 와질(연질)의 시루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청록·철사의 자기편을 깨어서 부장시켰다. 인골(인골)도 어금니 8점, 앞어금니 1점 등 모두 9점이 확인되었다. 어금니의 마모 정도로 보아 50~60세 여인(女人)의 것으로 보인다.

6호는 무정형 할석편으로 조성된 단칸방의 온돌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아궁이 온돌(구들장)과 굴뚝 부위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 유구내의 주위에서 연질(와질)의 회갈색 시루편과 진갈색 고려자기가 출토되어, 적어도 고려시대 이른 시기의 수묘인(守墓人) 묘로 추정된다.

10호 유구는 조선시대 15~16세기의 주거지이다. 유구 내부에서 두 개의 거대한 주초석(주초석)과 100여 점의 전형적 충청도식 분청사기편과 조선시대 청동수저편 1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어깨선 일부가 확인되었으나, 오랫동안 인삼밭 경작으로 유구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10호 출토 100여 점의 자기편들은 15-16세기의 것들이다. 이들 중 36점을 선정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36점 중 17점은 구연부, 3점은 동체부, 바닥(저부)편은 16점이다. 문양은 자기들의 내외벽상에 대부분 모두 처리되었다. 문양은 태(太)·세(細)의 선문대(線文帶), 연판문, 당초문, 극소수의 파초문, 인화문(印花文), 승렴문(繩簾文), 나비문, 우점문(雨点文)과 국화문 등이다. 귀얄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감문양이 처리된 것도 있다.

기형과 문양의 다양성, 지표 채집된 격조 높은 1점의 주자(注子)는 당시 연기군 일대에 상당수의 양반계층이 생활한 것을 표명하여 준다.

15호는 고려시대 도로 유구이다. 도로의 장축은 거의 남북방향이며, 확인된 유구의 길이 27m, 노폭 1.9m이다. 도로의 단면은 “V” 자형이다. 즉 도로 부설(가설)시 도로의 폭을 2m로 잡고 그 내부를”로 굴착하여 그 내부에 무정형 할석편과 강자갈(pebble)을 충전시켜 도로를 건설하였다. 도로 유구가 남북으로 연결되었으나, 진입로 노폭의 제한으로 더 이상 굴착은 어려웠다. 다만 고려시대 도로 부설기술의 일단면을 확인한 점은 대단히 중요한 수확이라고 판단된다. 도로 단면 절개 바닥에서 고려시대 이른 시기의 전형적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번 발굴의 성과로는, 이 지역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유물(고분, 주거지, 도로 유구 등)과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수묘인(守墓人) 주거용 온돌 유구, 고려시대 도로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훌륭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굴의 유구들은 6호 온돌 유구를 제외하고 특별히 보존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돌 유구는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수묘인(守墓人)의 주거용 온돌 유구로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월산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공원에 이전 복원하여 교육자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제11장 남면 역사의 큰 흐름

1. 연기대첩

시 대 : 고려시대(충렬왕 17년, 1291년)

전적지 : 연기군 서면 정좌산, 남면 원수산

연기군은 지리적으로 전투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고대 삼국에는 국경선이 연기 근방이었기에, 산에는 산성을 많이 쌓았고, 6.25때는 금강을 중심으로 방어 전투를 벌였던 곳이였기에, 시대별로 전투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중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 몽고 합단적의 침략은 고려 조정에 커다란 시련이었으며, 이를 물리친 역사적 사실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가슴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연기대첩에 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근자에 와서 몇몇의 노력으로 연구책자 발간 및 세미나와 기념비 건립까지 하였으며, 이제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연기대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 남은 것 같다.

연기대첩은 우리나라 역사 중 7대 대첩(大捷) 중의 하나이다.

고구려 : 살수대첩(을지문덕), 안시성대첩(양만춘)

고 려 : 귀주대첩(강감찬), 연기대첩(한희유, 김흔)

조 선 : 한산도대첩(이순신), 행주대첩(권율), 진주대첩(김시민)

위와 같이 연기대첩은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哈丹賊)이 쳐들어 왔을 때 이들을 연기 정좌산(正左山)과 원수산(元帥山)에서 물리침으로써 풍전등화(風前燈火)같았던 나라를 구한 역사적 전투이다.

현재에도 연기 정좌산에는 큰창고개, 작은창고개, 전당골, 승적골, 군량골과

같은 지명이 전해지고 있으며, 원수산에는 장군바위(장수가 이곳에 올라 지휘했다고 함)와 향서바위(향복을 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가 전하고 있어 수백 년 동안 지역민들은 아득한 옛날이야기로 구전되어 왔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것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기록이 전하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써 증명되고 있다.

1) 연기대첩 당시의 고려 국내 상황

13세기 말은 1세기 간의 무인정권이 붕괴된 후 고려에 대한 원의 정치적 간섭 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려가 북방의 몽고로부터 총 11차례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항몽전을 수행하다, 끝내 원나라에 복속된 시기로서 삼별초군이 제주도와 진도를 거점으로 항몽전을 수행한 것까지 따진다면, 40여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이다.

충렬왕은 1274년 원나라 수도에서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忽都魯揭里迷失公主)과 혼인하고 곧 귀국, 왕위에 오름으로써 이후 고려왕과 원 황실과의 혼인관계를 관례화 시키게 된다. 동시에 왕실용어의 격하, 관제의 개정 등을 통하여 원의 정치적 간섭은 공식화하였다. 더군다나 원나라가 영통확장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원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 정벌전에 김방경을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나, 2차례 모두 일본의 강력한 저항과 태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전쟁물자만 잃게 된다.

특히 일본정벌에 있어서 원나라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함선과 군량미를 모두 고려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고려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된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고려인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농사에 종사하여야 할 장정들이 일본정벌에 강제 징집되어 영농시기를 놓침에 따라 수년간 흉작이 연이어 지는 등, 고려의 경제상황은 실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2) 합단적이 고려를 침략하게 된 배경

몽고는 칭기스칸(1206~1227)의 등장으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하게 되는데,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도 태종(太宗-오고타이 窩闊台, 1229~1241), 정종(定宗-구육 貴由, 1246~1248), 헌종(憲宗-몽케 蒙哥, 1251~1259)의 시대를 거치면서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석권하는 사상 초유의 영토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위의 계승과정에서 자주 혼선이 야기되었으며, 그로 인한 계열조직이 암투를 벌이다가 1259년 헌종(몽케)이 사망하자, 제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표면화되어, 헌종의 동생들인 쿠빌라이(忽必烈)와 아릭부게(阿里不哥)는 서로 자기 세력 중심의 쿠릴타이를 열어 각각 제위 계승을 선언하고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잔을 벌이게 되고, 결국 1264년 쿠빌라이(세조)가 승리한 후 황제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원 세조(쿠빌라이)의 반대세력이 일소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카이두(태종 오고타이의 손자)였다.

원 세조(쿠빌라이)가 수도를 중원의 북경(北京)으로 옮기고, 중국 한족(漢族)의 정치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펴나가자, 이에 불만을 품은 카이두는 1269년 탈라스강 연안에서 자기 계열의 쿠릴타이를 열고 유목민족인 몽고족의 전통적 문화계승을 선언하면서부터 30여 년에 걸친 원나라의 내란은 시작된다.

연기대첩에서 패주한 몽고군의 우두머리인 합단(哈丹)은, 이때에 원세조에 반대하는 카이두의 편에 섰던 인물 중의 하나이다. 1288년 합단적은 카이두의 반원 봉기에 합세하여 반기를 들었으나, 원세조의 손자 티무르(후에 성종) 군대에 의해 만주의 토오르강 부근에서 격파되고 밀리다가, 1290년(충렬왕 16)에 고려의 동북 변경으로 침입했던 것이다.

3) 합단적의 고려침략(쌍성에서 연기까지)

합단적의 고려침략은 몽고군의 침략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우선 침략군이 몽고족의 군사들이라는 점과 특히 이들은 쿠빌라이의 제위 계승을 거부하면서 유목문화의 전통계승에 집착하는 세력들이다. 몽고군의 고려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 종식된 것도 불과 20년 정도의 시간차이다. 따라서 이들 합단적과의 싸움은 다분히 몽고군과의 전투를 방불케 한다.

이들의 흉포함과 잔혹함을 『고려사(高麗史)』충렬왕 세가에서 전하는데, “합단

(哈丹)군 수만이 화주(和州), 등주(登州) 등을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여 양식으로 하였으며, 부녀자들을 윤간한 다음 포(胞)를 떴다.” 하였으니, 그 잔혹함을 가히 짐작케 한다.

합단적은 1290년(충렬왕 16) 12월에 고려 동북의 쌍성을 거쳐 군사요충지인 등주, 화주를 점거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남진(南進)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군사요충지인 철령에서 방어하려 하였다. 철령은 그 산세와 지세가 험준하여, 예로부터 북방의 오랑캐를 방어하는데 아주 훌륭한 천연의 요새지였던 것이다. 고려정부는 만호(萬戶) 정수기(鄭守琪)를 철령에 파견하여 방어케 하였으나, 정수기는 엄청난 합단적의 위세에 놀라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침으로써, 합단적은 철령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돌파하게 되었다.

철령의 방어선을 돌파한 합단적은, 그 여세를 몰아 양근성(지금의 양평)을 함락하고 방향을 돌려 원주에 이르게 된다. 합단적이 원주로 방향을 돌린 것은 한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합단적의 침입과정에서 가장 큰 싸움은 원주전투와 연기전투이다. 원주전투는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며, 연기전투는 최종적으로 적을 붕괴시켰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렬왕 17년 정월 원주에는 지역방어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방호별감(防護別監) 복규(卜奎)가 파견되어 있었다. 복규 휘하 원주의 병민(兵民)들은 치악산에 있는 치악성(雉岳城)에 입보하여 있었다. 원주민들 중에서 임시 모집 편성된 별초군(別抄軍)이 대단한 활약을 하였으며, 별초군은 원주지방의 선비인 향공진사(鄉貢進士) 원충갑(元庶甲)이 지휘하였다.

합단적의 기병 50이 원주 치악산 부근에 출현하여 민가의 소·말 등 가축을 약탈하여 갔고, 4백여 명이 치악성 부근에 나타나 운반 중이던 원주의 녹봉미(祿俸米)를 약탈해갔다. 이에 원충갑이 분쇄하여 보졸 6명을 데리고 추격, 적의 말 8필을 빼앗아 돌아왔으며, 중산(仲山) 등 7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말 25필을 얻어 돌아왔다.

합단의 후속군이 도착하여 공격진영을 정비한 후, 치악성 원주민의 자진 항복을 유도했지만, 원충갑은 편지를 가지고 온 자의 목을 베었다. 이어 합단적이 양근성에서 잡아온 고려의 여인 2명을 보내 성안 원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였으나, 원충갑이 이를 다시 목베어 버리자, 이를 신호로 대대적인 공성전(攻城戰)이 쌍방간에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원충갑은 합단적의 도라도 등 68명을 베고 사살한 자가 거의 반이나 되었다는 기록(『고려사』 104 원충갑전)으로 보아 상당한 타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서 패퇴한 합단적은 다시 남하하여 충주에 이르게 되는데, 충주는 예로부터 서울과 경상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찍이 몽고항쟁기간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합단적은 충주산성 전투에서도 패퇴하게 되는데, 이로써 경상도 진입을 포기하고 그 진로를 서쪽으로 돌려 충청도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 무렵 주력부대에서 이탈한 일부 합단적들은 개경을 포함한 경기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방에 출현하여 약탈을 일삼는 등, 중부 이북 지방을 유린하는 형국이였다.

여하간 충주산성 공격에서 실패한 합단적 주력부대는, 1291년(충렬왕 17) 4월 경 연기지역의 정좌산(서면 쌍전리)에 도착하여 인근 열대를 점령하고 주둔하게 된다.

4) 고려의 원나라군 지원요청

합단적의 고려 침입 당시 고려는 오랜 전쟁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에 따라 독자적인 대회상황 대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조직도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합단적이 침입하자 고려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원나라와 합단의 반군은 그 태생적 근본이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합단의 봉기가 일어나자 고려는 원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전쟁물자 지원과 조군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합단적이 고려를 침입하자 군사력이 약한 고려는 원나라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려가 원나라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고려사』 충렬왕 세가편에 역력히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의 기록은 이러하다.

합단적이 고려를 침입하자 고려정부는 1291년(충렬왕 17) 2월 장군 오인영을 원나라에 파견하여 원군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원 세조가 말하기를 “귀

국은 일찍이 당태종이 친히 정벌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이기지 못한 나라요, 또 원나라 창건 초기에 귀순하지 않아 우리가 정벌했으나 쉽게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 작은 도적을 왜 그리 무서워하는가?” 하고 반문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인영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며, 나라의 성쇠가 같지 않습니다.” 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대외 역량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당시의 사정을 잘 표현한다고 하겠다.

원나라에서는 고려에 군사를 파견하였는데, 1차로 설도간이 지휘하는 보병과 기병 일만 삼천명과 2차로 나만대가 지휘하는 군사 일만명이, 1291년 4월 고려에 당도하여 여원연합군을 편성하게 된다.

5) 연기대첩(燕岐大捷) 수만의 합단군을 연기에서 궤멸시키다.

충렬왕 17년(1291) 3월 충주전투에서 실패한 합단적은, 진격방향을 충청도 내륙으로 돌려 4월에 연기지역에 당도한다. 고려정부는 합단적 토벌작전을 위하여 3개 부대를 편성하는데 중익군에 인후(원나라 출신)장군, 좌익군에 한희유장군, 우익군에 김흔장군이 맡도록 편성하고, 경기도 지역에 당도해 있던 원이 설도간군과 함께 남하를 개시하여 목천(현 천안시 목천면)에 도착한다. 연기현에서의 전투는 5월 2일 새벽에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고려군의 계산된 기습작전이었다.

고려군의 정찰병이 5월 1일 정찰보고를 통하여 합단적이 연기현에 주둔하고 있다고 알리자, 고려군은 목천에서 연기까지 야간행군을 강행, 이를 걸려 갈 것을 하루만에 도착하여 5월 2일 정좌산(현 연기군 서면 쌍전리)에 주둔하고 있는 합단군을 포위하고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갑작스런 포위 공격에 놀란 합단군은 전열을 정비할 새도 없이 대항하다, 산의 숲속으로 퇴각하여 방어를 하게 된다. 이때 고려군은 적의 전면은 보병이 맡아 차단하고, 기병이 뒤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합단군의 저항이 완강하였다. 숲속에 매복한 적은 활을 쏘면서 저항하므로 고려군의 선봉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등 기습작전이 주춤거리자, 우익군 만호 김흔 장군이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 고 단호히 외치고 계속적으로 독전을 한다. 이에 500명이 결사적으로 돌격하여 싸우는데 사졸 이석과 전득현이 적의 선봉 2명을 베자 적의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

다.

적의 흔들림이 역력하자 고려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들어가게 되고 적은 방어를 포기하고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한다. 고려군은 승세를 이용하여 달아나는 적을 공주강(금강)까지 추격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에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죽어 넘어진 적의 시체가 30여 리에 이어졌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고 전한다. 이때 이후의 휘하에 있던 별장(別將) 배정지(裴廷芝)가 칼을 빼어 달리니 가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 이때 화살이 날아와 보거(輔車 : 광대뼈와 아래 이틀 사이)를 꿰뚫었으나, 상처를 싸매고 다시 분전하여 그가 사로잡은 포로와 목벤 자가 매우 많았다. 이 공으로 배정지는 전투가 끝나고 중랑장(中郎將)에 특진되었다.

합단군은 정좌산 전투에서 엄청난 전력을 상실하고, 1만여 명의 정예 기병만이 겨우 금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기에서의 1차 승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비교적 소상히 연기대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기록에 의하면 연기현에서의 대첩 지역을 원수산(元帥山 : 일명 형제봉 남면 방축리)이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기록과 조선의 기록을 정리하면, 정좌산에서는 전투가 개시된 지점이고, 원수산에서는 적을 상당수 살상하면서 전투를 일단 끝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5월 8일 합단의 정예기병은 다시 금강을 건너와 고려군을 공격하는데, 이때는 원나라의 후속부대인 나만대군이 합세한 후로써, 합단적은 극 수적인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1차 전투에서의 승전은 고려 김흔 장군의 독전이 주효했다면, 2차 연기현 전투에서는 좌익군 만호 한희유 장군의 역전에 힘입은 바 크다.

『고려사』 한희유전을 보면, “적진의 용사가 활로 아군을 쏘는데, 쏘는 대로 아군이 쓰러졌다. 이에 한희유가 긴 창을 가누고 말을 달려 적진에 돌입하니 적들이 놀라 한쪽으로 밀리므로 ㄱ 용사를 붙들고 나와 베어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창에 걸어 적에게 보이니 적의 기가 꺾이므로 이에 대군을 휘몰아 크게 이겼다.” 고 전한다.

합단(哈丹)과 노적(路的)부자가 이끈 2천의 정예기병은 포위를 뚫고 도주하였다. 연기현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대첩에 참여하지 못한 원의 나만대(那蠻台)는 도망간 합단을 추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설도간이 이를 거절하였다.

2차에 걸쳐 전투를 치른 연기전투에서 합단적의 붕괴는 명확해졌다. 그러나 아직 도처에 그 잔여세력이 횡행하므로 이를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 중의 일부는 옛 동주(東州-철원)까지 내려왔다가 연기에서의 대패 소식을 접하고 다시 오던 길로 철수하고 말았다.

6월 1일 정부는 합단군의 작전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여 김흔(金忻)을 죽전(竹田)에, 한희유(韓希愈)는 충청도에, 그리고 라유(羅裕)를 교주도(交州道 : 강원도)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6월 5일(신미) 합단의 잔적 580명이 한희유에게 투항하였다. 합단의 아들 노적(路的)은 휘하를 이끌고 죽전(竹田-황해도 瑞興)을 경유, 평양 방면으로 도망하였으나 라유, 현문현(玄文奭), 이무(李茂) 등이 이를 맹공격하여 적을 패퇴시켰다.

2년에 걸친 합단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의 내륙 중부지방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약탈과 살상을 일삼으며 횡행하였기 때문에 무력적 해결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오랜 몽고와의 전란으로 피폐한 데다가 2차에 걸친 일본정벌전 참여 등으로 극도의 곤궁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원의 정치적 간섭 하에 놓임으로써, 군사적 독자성과 체제 또한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점이었다.

이때에 연기현에서의 전투는 합단군을 최종적으로 궤멸, 패주시킨 대첩이었다. 이로써 고려는 더 이상의 전화(戰禍)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려인의 항전,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고려인의 의지는 더욱 주목될 만한 것이며, 이같은 의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기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그 시대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크나큰 교훈을 주었기에 연기대첩에 대해서 윤기의 시에서도 그 정황이 상세히 묘사



전월산에서 바라본 금강



전월산에서 바라본 금강



전월산에서 바라본 금강

되어 있다.

말멈추고 서쪽으로 연기산(燕岐山) 바라보니
 뜬 구름 아지랑이 빛이 어이 푸르른고,
 길가는 나그네 탄식하며 가다 다시 멈추되,
 이곳은 지난날의 큰 싸움터라네.

적의 기병 올 때에 몇 만이나 되었던고,
 하늘을 덮은 깃발은 구름을 휘날리듯
 처음에 강동으로부터 사방을 노략하니
 한번만 지나가면 폐허로 변하였다.
 영웅임을 자랑하고 힘 믿고 이 땅에 주둔할 때
 기세도 혁혁하다 누가 감히 당하랴.

정막 안의 미인은 절세의 일색이요
 수레 안의 금과 비단 사방 것을 탈취했네.
 마음대로 탐락(耽樂)해도 오히려 부족하여
 만 마리 소를 삶고 천 마리 양을 잡았네.
 황금 병 백옥 잔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흥
 도 길었다.

천병(天兵)이 한 번 오매 모두 무너져 버렸나니
 큰 수레바퀴가 범아재비(螳螂)누르듯이.

우습도다. 구구(區區)한 무리 제 힘 생각 못했다가
 계책 이미 다하여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네.

우리 임금님의 은덕과 공업(功業) 천지와 짝하여
 앞서서 온 사해에 농상(農桑)을 부성(富盛)하게 하니
 민간인은 화평하여 함께 생업을 즐기고
 장사꾼과 나그네도 양식 싸 가지고 갈 필요가 없네.

어리석은 선비 다행하게도 성대(聖代)를 만나서
 중천의 일월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

다니면서 성군(聖君)의 덕을 노래하고 성군의 만수무강을 비노니
 원하건대 우리 임금 만세(萬歲)에 장수하시고 창성(昌盛)하소서.



갈윤리에서 바라본 원수산



진의리에서 바라본 원수산



금강

2. 한국전쟁(韓國戰爭)과 연기군 남면

본 장은 육군본부에 소장되어있는 자료 중 한국 전쟁에서 오산 전투와 대전 전투에 수록된 내용 중 연기군의 북쪽 전의와 조치원 남면의 금강 방어 전투, 금남면에서 벌인 전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연기군 남면의 금강 방어 전투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당시 남면 금강 변에서는 북괴군이 금강 너머 미군과 대치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강을 건너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가, 조명탄 발사를 실수하는 바람에 금강선이 무너진 이야기를 자세히 수록하였다.

이 때 남면의 나성리, 진의리, 양화리는 미군들이 쏜 포격으로 인하여 많은 집이 불에 타고 북괴군에게 시달려야 했다.

1) 한국전쟁의 발발

김일성은 1950년 5월에 남침 준비를 완료한 다음, 6월 12일에서 23일 사이에 비밀리에 전 병력을 38° 선 부근으로 이동시켜 전술 전개를 단행하였는데, 당시 야군과 적의 병력 차이는 비교가 안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04:00에 38° 선 전역에 걸쳐 2,000여 문의 적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어 20분 동안 공격준비 사격을 가한 다음, 소련제 탱크 180여대의 T-34전차를 앞세우고 단숨에 38° 선을 무너뜨렸다.

북한군은 전차의 돌파력에 의존하여 단기간인 2주간의 속전속결을 시도하였는데, 「늦어도 7월 25일까지는 부산을 점령하여 전 한반도를 적화한 다음 8.15 해방 제 5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남한해방(南韓解放) 전승 축하식(戰勝祝賀式)을 서울에서 거행한다」는 전략 방침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전술 기동 계획을 세웠다.

「주공(主攻)은 의정부-서울-대전-부산을 축선으로 하고 경부국도를 지향하며, 그 축방을 조공선(助攻線)으로 하여 조공선이 주공선을 엄호하면서 최종목표인 부산으로 집중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적은 최정예 부대인 제3·4사단을 주공으로 내세우고 2개 전차 연대가 지원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2) 연기군(燕岐郡) 내 전투(戰鬪)

연기군내 전투는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간 벌인 전투로 전의 전투를 시작으로 개미고개 전투, 전동 전투, 조치원 전투, 금강방어전투, 대평리 전투, 두만리 전투로 이어져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연기군 전투는 북한군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 남쪽에서 전투태세를 갖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버는 것을 목표로 전투를 벌였으며, 아군은 주력부대가 미군으로 미 제 24단의 사단장 William F. Dean(딘소장)이 이끄는 부대로 제 21연대 1대대와 3대대, 제34연대 1대대와 3대대이다.

반면 적군인 북한군은 제3사단 이영호(李英鎬) 소장이 이끄는 제 7연대, 제 8연대, 제 9연대, 포병연대 등이었다.

(1) 전의전투(全義戰鬪)

미군 제21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편성되어 제1대대는 제1진을 오산전투에 투입하였으나 7월 5일 격파되어 대전에서 정비 중에 있었고, 제2진은 일본에서 7월 1일 오후 늦게 출발하여 부산으로 이동, 6일 오전에는 천안 남쪽 삼룡리에 투입되었다.

연대 본부와 제3대대는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7일 아침에 출발하여 12시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대전에 도착한 제21연대는 사단으로부터 “조치원 부근에 지연진지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받고 즉시 북상하였으며, 연대 지휘소를 조치원에 개설하였다. 제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조치원 북쪽 지역을 정찰한 결과 지연진지로서 적합한 지형을 발견하고 제3대대를 그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제3대대는 7월 8일 전의 남동쪽 2.5km 미곡리의 개미고개 좌우측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7월 8일 오후 늦게 삼룡리에서 제1대대가 전의로 철수하자 보충병을 충원시

켜 혼성 대대로 편성한 다음, 전의 남동쪽 1km의 낮은 능선상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제21연대는 1.5km 간격으로 전의 남동쪽에 2중으로 자연진지를 편성하였다.

제21연대장은 이날 밤 사단으로부터 “제21연대는 반드시 조치원을 확보해야 하며, 우측방의 국군이 청주를 철수할 때까지 국군의 좌측방을 엄호해야 한다. 연대는 앞으로 4일 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는 작전 지침을 받았다.

7월 9일 아침 제21연대는 참호를 깊게 파고 4.2인치와 81mm 박격포 및 155mm 야포의 제원기록 사격을 하고 제3공병 대대 B중대는 작전차의 진출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전의에 이르는 교량을 폭파하는 등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12시경에 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적의 전차가 천안쪽에서 남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적이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오후 3시경 알카이어 대위는 11대의 전차와 200~3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의 보병이 멀리서 전의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중 공격을 요청한 결과 오래지 않아 전폭기 편대가 나타나 공격을 가하였고, 폭격에 뒤이어 155mm 야포와 4.2인치 박격포의 포격이 뒤따랐다. 이때의 폭격과 포격으로 4시 50분경에 11대의 전차 중 5대가 불타고 있었고, 적의 보병은 분산되었는데 항공관측에 의하면 이날 전의 부근에서 모두 12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① 제1 지연진지 공방전

7월 10일 오전 6시경,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제1 지연진지로 접근하여 왔다. 능선 위의 병사들은 안개 속에서 적이 움직이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좌측방에서 사격이 개시되었다. 사격을 받은 병사들이 안개 속으로 무턱대고 사격함으로써, 진지만 폭로되는 결과가 되었다.

7시경 일부 병력으로 요란 사격을 하여 미군의 배치상태를 확인한 북한군은 미군 진지에 맹렬히 박격포 사격을 하면서, 좌측방에 단독 배치된 빅슬러 소대를 공격함으로써 그곳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11시 25분경 소대장은 대대 지휘소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연대장이 직접 받았다. 이때 소대장은 적의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버

틸 수가 없다. “고 하면서 ” 증원군을 보내주던가 아니면 후퇴를 허락해 달라.’ 고 건의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증원군은 없다. 알겠나? 그 대신 항공지원을 요청 하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진지를 고수하라. 진지에서 한발자국도 떠나선 안된다.” 고 단호히 명령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철수를 단념하고 참호 속을 뛰어다니면서 “진지를 사수하라” 고 독전하였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이미 죽었거나 부상당하여,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몇 명 안되었다.

연대장은 위급한 빅슬러 소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중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잠시 후인 11시 30분 경 2대의 제트기가 나타나 적의 전차를 로켓으로 공격하고 빅슬러 소대를 공격하는 적에게 기총소사를 하였다. 공중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적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엄폐물 밑에 엎드려 있었으나, 공격을 끝낸 항공기가 가버리자 다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적에게 사격을 계속하고 있던 우군의 155mm 포탄이 대대진지 중앙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오폭으로 능선에 있는 병사들이 파편과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흙 및 돌부스러기를 피하려고 참호 속에 웅크리거나 엄폐물을 찾고 있었다. 스티븐스 대령은 이 잘못된 포격을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가 후방으로 침투시 전화선 절단으로 인하여 유선이 두절되었고, 포병 전방 관측자의 무전기가 적 포탄에 맞고 기능을 잃어서 무선도 두절되었음을 확인한 연대장은 100m 후방에 놓아둔 자신의 짚차로 달려가 차량에 장치된 무전기로 야포사격을 중지시키라고 하였지만 포격은 빨리 중지되지 않았다.

11시 35분 경 연대장이 포격 중지를 지시하고 능선으로 올라오자, 빅슬러 중위로부터 “적에게 포위되어 소대원의 대부분이 전사 또는 부상하였다. 지금 적이 고지로 육박하고 있다.” 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빅슬러 중위의 마지막 보고였다. 이 보고가 있는 직후 진지가 적에게 유린되었으며, 빅슬러 중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대원은 도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참호 속에서 전사하였다.

12시 5분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제3대대 진지로 철수하라” 고 명령을 내렸다. 철수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제3대대 진지로 철수하는데 물이 가득한 논이어서 병사들은 무릎까지 빠지

는 논바닥에서 허우적거리거나 미끄러운 논두렁을 따라 마치 곡예를 하듯 달려야만 했다. 이때 2대의 미 제트기가 나타나 미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기총소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혼성 대대는 A중대가 181명 중 30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고 27명이 부상당함으로써 57명의 사상자를 냈고, D중대는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중 박격포 중대는 1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약 20%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② 제3 대대의 역습

병사들과 함께 우군기의 공중 공격을 받으면서, 미곡리의 제3대대 진지에 당도한 스티븐스 대령은 켄슨 중령에게 “즉시 역습을 실시하여 혼성 대대의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한 다음 철수 병력과 함께 조치원 연대 지휘소를 복귀하였다. 오후 2시경 제3대대장은 제78전차 대대 A중대의 지원 하에 대대 전 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였고, 목표 점령 후 방어 태세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혼성 대대 진지 대부분을 탈환하였으나, 도로 서남쪽의 빅 슬러 소대 진지만은 탈환하지 못한 채 날이 저물었으며, 그 곳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밤을 지새기로 하였다.

북한군은 제4사단을 뒤따르던 북한군 제3사단이 10일 저녁때 전의에 도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중 관측에 의하여 탐지되어 곧 사단장에게 보고되었다.

저녁 8시 45분 사단장은 제3대대가 적과 너무 근접한데다 남서쪽 진지(빅슬러 소대 진지)가 적의 수중에 있어 야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스티븐스 대령에게 전문을 보내어 “제3대대를 원래의 진지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였고, 9시 30분 경에는 “부득이한 경우 다음 지연진지까지 철수하되 새로운 진지를 확보하고 악착같이 싸워라. 본인은 내일 하루까지는 이 진지가 확보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전에서 정비 중이던 동연대 제1대대를 조치원으로 이동시키고 연대장의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사단장이 11일까지 조치원 북방진지를 고수하라고 강조한 것은, 대구의 제19연대를 금강선에 투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제3대대는 10일 저녁 11시 30분 경에 역습으로 정령한 능선에서 혼성대대의 잃어버린 장비만을 회수하여 원래의 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③ 제2지연진지 전투

7월 10일 밤, 사단장으로부터 조치원 북방 3km인 다음 지연 진지까지의 철수를 허락 받은 스티븐스 대령은 조치원 지연진지는 제1대대가 점령하고, 제3대대는 이미 준비된 제2 지연진지에서 적을 최대한 방어하다가 철수하기로 하였다.

7월 11일 06:30, 제3대대 병사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적 전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후에는 4대의 적 전차가 지뢰지대를 돌파하여 진지에 나타나 포격을 가하였다. 이때 어찌된 셈인지 대전차 지뢰는 폭발하지 않았다. 적 전차가 포격을 개시함과 거의 동시에, 제3대대 진지에 적의 박격포탄이 작열하기 시작하였는데, 적탄은 대대지휘소 일대에 집중되었다. 적의 포격으로 지휘소 부근에 있던 통신취급소와 탄약보급소가 피격되어 대대의 통신이 마비되고 탄약이 폭발함으로써, 대대 본부 요원의 태반이 전사 또는 부상당하였다. 대대지휘소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은 침투 부대의 활약으로 대대 지휘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전차와 박격포 등으로 제3대대 진지에 포격을 가하는 한편, 1개 연대병력으로 추산되는 1,000명 이상의 도보병력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좌우측방으로도 공격하여 포위를 기도하고 있었다. 전방 관측자들은 좋은 표적을 발견하였으나, 무전기의 고장과 유선 두절로 야포와 박격포 진지에 사격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제3대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야포나 박격포의 적절한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해 몇 시간 후에는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좌측방인 K중대에서는 적이 진내로 육박하여 중대본부에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었다. 이에 스피어(Paul R. Spear) 일병이 권총 하나만을 몸에 지니고 적 기관총 진지까지 기어갔으며,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적 기관총 사수를 덮쳐 격투를 벌이면서 빈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죽임으로써 기관총을 침묵하게 하였는데, 그 자신은 적의 사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대대가 전반적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동안,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동쪽으로 멀리 우회하여 대대지휘소 후방 1km지점의 도로를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대 후방에서 도로가 차단됨으로써, 대대는 부상병의 후송이나 탄약 재보급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후방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12:00 경, 대대장 쟈슨 중령은 진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치원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생존자들은 진지를 이탈하여, 개인 또는 소집단으로 조치원을 향하여 철수하게 되었는데, 1번 도로가 적에게 차단됨으로써 일부는 하천(조천)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였고, 일부는 도로 차단선을 강행 돌파하여 동쪽으로 향하였다.

이리하여 제21연대의 제2지연 진지가 적에게 유린되었는데, 이날 (11일) 조치원에서 수습된 제3대대 병력은 당초 667명 가운데 장교 8명과 상병 142명 등 150명으로서 대대는 이 병력으로 1개 중화기 중대와 1개 소총 중대(3개 소대)로 임시 편성하였다. 귀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 15일에는 322명으로 증가하였다. 제3대대는 11일의 전투에서 지원 중이던 제78전차 대대 A 중대의 경전차 2대를 비롯하여 병력 60%와 대부분의 장비를 잃었으며, 생존자의 90% 이상은 무기, 철모, 탄약 등을 내버렸으며, 심지어 수통과 군화까지 내버린 자도 있었다.

(2) 조치원 전투(鳥致院 戰鬥)

① 진지 편성

대전 북방 35km 지점에 있는 조치원은 낮은 구릉지대와 논으로 둘러 쌓여 있는 도시로서 경부선 철도가 남북으로 지나고 1번 국도가 남북으로 뻗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7월 10일 밤, 사단장은 역습으로 제1지연진지를 되찾은 제21연대장에게 “제3대대를 원래의 진지로 철수시켜라”고 하면서 “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새벽 전에 다음 진지로 철수하라” 말하여, 사실상 다음 지연진지인 조치원 북방 3km까지의 철수를 허락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진지를 확보하고 악착같이 싸우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스티븐스 대령은 제3대대로 전의에 이미 준비된 제2지연진지에서 적을 일단 저지하기로 하는 한편, 조치원 진지는 제1대대가 점령하도록 하고

제1대대장 스미스 중령 지휘 하에 있는 대전의 제1대대를 복귀시켜 줄 것을 사단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오산 전투 후 205명의 병력을 보충 받아 대전에서 정비 중에 있던 제21연대 제1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이날 밤 “조치원으로 복상하여 연대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7월 11일 새벽, 스미스 중령은 B·C중대를 이끌고 제21연대 지휘소가 있는 조치원에 당도하였으며, 이곳에서 지금까지 알카이어 대위가 지휘하고 있던 A·D중대를 장악하여 곧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A·D중대는 10일의 전의 전투에서 철수하여 조치원에 집결하였으며, 이곳에서 잃어버린 장비를 보충 받아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스미스 중령은 A·D중대를 장악함으로써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전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11일 07:30, 제1대대는 저지대를 감제할 수 있는 조치원 북방 3km 머지미(CR 4654)의 도로 좌우측 능선 상에 진지를 배치하였다. 제1대대가 조치원 북방에서 진지를 편성하고 있는 동안 6km 북방의 미곡리에서는 제3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통신이 마비되고 퇴로가 차단되어 고전하다가 12:00 경에는 참담한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보덕리(머지미 북쪽 2km)의 제11포병 대대 A포대를 조치원 남쪽으로 뽑아 제11대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제1대대에게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한편 제21연대 제3대대 진지가 유린된 것을 알게 된 사단장은 이날(11일) 밤에 제3공병대대 A중대에게 “조치원 방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설치하고, 필요시 제21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구와 포항에 있는 제19연대와 제13포병대대(105mm 곡사)에게 “대전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여 금강선 방어에 대비하였다.

② 맥없이 물러선 조치원 지연선

이날(11일) 밤, 조치원 북방의 지연 진지에 배치되어 있는 제1대대는 제3대대를 유린한 북한군이 수 시간 내로 밀어닥칠 것만 같아 불안 속에 있었으나, 야간에는 적의 공격이 없었다.

7월 12일 아침, 적의 정찰대가 대대 우측방어 C중대 진지로 접근하자 피아간에 교전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의 병력은 점차 증가되었다.

09:30 경,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야포지원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대대 좌측

방을 공격하였다. 대대를 공격하고 있는 좌우측방의 적은, 곧 연대 규모인 2,000여 명으로 증대되었다. 적은 아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계속함으로써 얼마 후에 제1대대는 포위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훈련되지 않은 보충병을 많이 받아, 재편성된 제1대대는 기세 등등하게 달려오는 적의 적수가 되지 못하며, 만약 진지를 고수할 경우 전날의 제3대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 제1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때에 동측의 국군 제1군단이 진천-음성선에서 물러나 미호천(청주 북쪽 5km)-괴산선에 방어배치 되어 있어서 조치원의 중요성이 반감되어 있었다.

12:00경,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즉시 진지를 이탈하여 조치원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대전의 사단장에게 “12:00 현재 아군 상황은 매우 불리함. 제1대대는 포위를 당하였으며, 대대 좌측은 철수할 수 있으나 우측은 매우 곤란함. 대대는 금강선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간에는 지연진지가 없음. 철수에 대한 명령을 내렸음”이라고 전문보고 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스미스 중령은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개 중대씩 진지에서 뽑아 철수 시켰다. 제1대대는 조치원 부근까지 철수하자 연대장의 조치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부터는 차량 철수를 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차량 철수를 계속하여, 15:30 경에는 금강을 건넜는데, 차량 철수 대열에 끼지 못한 제1·3대대의 낙오자들은 도보로 철수를 계속하여 그 후 5시간에 걸쳐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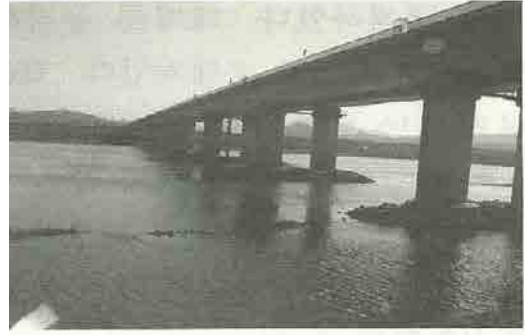
제21연대는 16:00에는 철수를 끝내고 금강 남쪽 제방에 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제1대대원 261명, 제3대대원 64명 등 진지에 투입된 병력은 325명이었다. 이때 사단장은 대구의 제19연대가 대전으로 이동하며 이 연대로 대평리에 방어배치 하려 하였으나, 대전 집결이 늦어지자 철수중인 제21연대로 하여금 우선 대평리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 전투에서 전투력이 미약한 2개 대대로 북한군의 가장 강력한 2개 사단을 1월 10일 ~12일까지 3일간이나 지연시켜, 딴 소장이나 맥아더 원수가 필요하였던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그러나 연대는 대대장과 참모 및 중대장 등의 간부들을 포함한 많은 인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2개 대대분의 무기, 탄약 등의 장비도 잃었다.

(3) 금강선 전투

① 미 제8군 사령부의 한반도 이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8일에 “대한민국에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이에 미국은 이미 육·해·공군을 파견하였고,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도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한국에 파병할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7월 7일에는 세 번째 결의안인 “통합군사령부 설치안”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유엔회원국 군대는 맥아더 원수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자신이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자, 동일부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한국에서의 유엔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였다. 이리하여 7월 9일 13:00에 대구에 미 제8군사령부 전방지휘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때는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주한 미 지상군 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아직은 군사령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2일에 미 제24사단이 금강 남안으로 철수하고, 미 제25사단의 주력인 2개 연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으로 향하게 되자, 미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7월 13일 00:01부로 주한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여 통합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미 제8군사령관은 7월 13일부터 제24사단 및 제25사단 등 예하의 2개 전투사단을 포함하여 한국전에 참가하는 유엔지상군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는 유엔지상군 사령관을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딘 소장은 동일부로 주한 미 지상군 사령관직을 워커 장군에게 인계하고, 미 제24사단장으로서의 기본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고, 동 부사령관 처치 준장은 이날 오후에 동경의 미 극동군사령부로 복귀하였다. 또한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가 유엔 지상군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자, 대전의 육군본부는 13일 오후에 대구로 이동함으로써, 다음날부터는 미 제8군의 통합작전에 협조

하게 되었다.

한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13일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8군 작전명령(요지)

1. 제8군의 목표는 적의 전진을 저지, 현 방어선을 확보, 상황을 안정, 차기공세를 위한 군사력 증강 등에 둔다.
2. 제24사단은 적을 금강선에서 저지하라.
3. 제25사단은 중부 산악지역에서 방어중인 한국군을 지원하고 1개 대대로써 영일비행장과 포항을 경비하라.

상기와 같은 작전명령은 제24사단이 7월 8일에 천안을 철수함으로써 맥아더 원수가 최초 추진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연기되고, 상륙사단으로 지명되었던 제1기병사단이 제8군에 편입되어 한반도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금강-소백산맥선에서 공산군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이 부대가 도착하면 공세 이전하려는 워커 장군의 작전개념을 표현한 것이었다.

② 미 제24사단의 금강선 방어준비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흐르다가 대전 북쪽 20km 지점에서 대전을 감싸안으면서 남서쪽으로 흘러 서해에 이르는 전장 401km의 큰 강이다. 이 금강은 공주-대평리 간에서는 강폭 500~1,000m, 유수폭 200~300m, 수심 2~5m, 유속 5~10km/h로써 공주 하류 쪽에서는 도섭이 불가능하나, 대평리 부근에는 몇 군데의 도섭 가능한 곳이 있다.

제24사단 제34연대 제1대대 수색대가 금강 남안으로 철수하기 전인 7월 12일 새벽에 공주 정면인 금강 북안의 신관리(GR3366)에서 금강의 강폭, 유속, 수심, 하상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던 북한군 제4사단 제 16연대 소속 정찰대의 군관 1명(소위 배준팔)을 생포하였는데, 이 포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는 공주 부근의 하천 상태를 조사하여 12일 10:00까지 보고하라는 명령

을 받고 11일 밤에 침투하였다. 제4사단은 한강 이남에서 미군과 전투한 결과 병력의 절반 정도인 5,000~6,000명을 잃었다. 제4사단은 현재 40~5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대의 T-34전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단은 이 포로의 진술과 전의·조치원 전투에서 파악된 상황을 기초로 하여 “공주 정면에는 북한군 제4사단이 진출했고, 대평리 정면에는 북한군 제3사단이 진출해 있으며, 이 양 개 사단은 전차 약 50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개 사단 공히 그간의 격심한 전투로 인해 병력 손실이 심하여, 병력은 편제 인원의 60~80%로 감소되어 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청주를 공격 중에 있는데, 만일 국군을 격퇴하면 이 사단도 대전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우측방이 노출되어 위협을 받게 된다” 라고 판단했다.

이 당시 유엔군의 공중 공격이 매우 심하였으므로 낮에는 적의 전차나 트럭 등 장비나 보병의 행군 종대가 도로에는 얼씬할 수가 없었다. 특히 적은 9~10일의 평택, 천안, 전의 근교에서의 대규모 공중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강으로 접근하면서도 야간에만 이동하고 주간에는 과수원이나 건물 속에 위장을 하고 숨어있었다. 따라서 적은 금강 도하 작전을 야간이나 여명에 하고 주간 작전은 피할 것으로 사단은 판단하고 있었다.

제24단장 딘 소장은 처음에는 경부축선상에서 지연전을 펼쳐 시간을 획득한 후, 금강선에서는 사단 전 병력으로 적의 전진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비교적 훈련이 잘 되어 있어, 기대가 컸던 제21연대가 전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이후로는 약화된 사단의 전투력으로서 기세 등등하게 밀려오는 전차를 동반한 2개 사단의 적을 금강선에서 저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금강에서는 며칠 동안 적을 지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리하여 그는 만약 금강선을 지탱하지 못한다면 대전으로 철수하여 지연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③ 방어준비

사단은 적의 정예부대인 제3사단이 경부국도를 따라 조치원-대평리로 진출하자 이 축선에 방어중점을 두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사단은 12일 밤과 13일 아침에는 공주, 대평리, 신탄진 등 금강에 걸려 있는 4개의 교량을 폭파하여 도보 병력은 물론 적 전차가 도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강-대평리 간의 모든 교량에도 폭파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대구에서 급거 이동한 제19연대를 대평리에 투입하고, 이곳에 긴급 배치되었던 제21연대를 대전으로 철수시켜 재정비하도록 하는 반면, 부여에서부터 신탄진까지의 모든 나루터를 조사하고 강변에 있는 모든 배를 파괴하여, 공산군이 이를 도하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여 서쪽은 개방되어 있었고, 신탄진 동쪽은 국군 책임지역이었다.

사단은 한반도에 투입되어 교전 1주일만에 1,500여 명의 병력이 전투에서 손실되었다. 7월 13일의 사단병력은 제21연대가 약 1,100명, 제34연대가 2,020명, 제19연대가 2,276명, 사단포병이 2,007명, 사단직할이 4,037명으로 사단 전체병력은 11,440명이었다. 금강선의 전투는 좌전방인 제34연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4) 금강 방어선이 무너지다.

① 방어선 중앙에서의 공방전

㉠ A중대 진지의 돌파

15일 밤이 되자 적의 야간 도하를 우려한 제19연대장 멜로이 대령은 각 대대에 “야간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야포와 박격포로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강북에 있는 마을에 포격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강북의 마을이 불타올라 한동안 강변을 비쳐주기도 하였다.

초저녁에 전개를 끝낸 적은 미군의 방어 강도를 시험하려는 듯, 전차의 엄호 사격을 받으면서 일부 병력으로는 목까지 잠기는 강을 도보로 건너고, 일부는 뗏목을 이용하거나 수영으로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어떤 자는 절단된 다리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며 건너기도 하였다. 이에 이곳에 배치된 A중대의 소총 및 기관총과 중화기중대의 75mm 무반동총이 맹렬히 사격함으로써 대부분의 적은 살상되거나 되돌아갔다. 16일 03:00경, 적의 야크기 1대가 나타나 교량 부근에 조명탄을 투하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공격의 신호인 듯 하였다.

조명탄이 주변을 밝혀주자 적 포화가 일제히 불을 뿜었는데, 이 포격은 매우 치열한 것이어서 적은 충분한준비를 한 듯 하였다. 적의 포격은 금남교 부근의 일선 진지와 제1대대 및 연대 지휘소 부근에 집중되었다.

이렇듯 강력한 화력지원 하에 적은 나룻배와 뗏목을 이용하거나 수영과 도섭 등의 방법으로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에 연대는 조명탄을 쏘아 올려 금남교 일대를 대낮같이 밝히고 포병화력과 연대의 박격포, 기관총, 소총 등 가용화기를 총동원하여 도하하는 적을 저지하였다. 04:30 경, 이와 같이 하여 적이 험사리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게도 적의 움직임을 낱낱이 밝혀주던 조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제1포병대대의 155mm 야포 1문이 조명 지원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조명지역이 적이 도하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자, 제1대대는 조명지역을 약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은 포가를 움직이지 않고도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인데, 포수가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포가를 움직여 조명지역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이결과 20여분 동안이나 조명이 중단되었으며, 이 동안에 적은 속속 도하하여 강 남안에 올라붙게 되었다. 이리하여 06:00 경에는 교량 부근에서 적의 도하병력과 방어벽력 간에 사격전이 전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숫자가 증가하여 06:30 경에는 A중대가 점차 수세에 몰리었다.

08:00 경, 도하에 성공한 적이 제방을 연하여 넓게 배치된 A중대의 2개 소대와 B중대 1개 소대를 돌파하고 도로와 논을 가로질러 용포리로 진출하였다. 이때 B중대 제1소대 지역에 있던 B중대 화기소대장 잉글리시(Jonh H. English) 중위는 제1소대장 호스키스(Hotchkiss) 중위가 전사하고 진지가 유린되자, 제1소대원 10명과 A중대원 4명 등 14명을 인솔하고 철모를 벗어 던진 채 용수천을 헤엄쳐 건너서 08:45 경에 B중대 제3소대장 어리(Early) 소위 진지로 철수하였다.

08:30경, 용포리에 당도한 적은 가동의 제1대대 지휘소와 그 일대를 공격하였으므로 대대 지휘소 요원과 박격포소대 요원들은 뒤로 달아났고 어떤 자는 다급한 나머지 박격포를 유기하거나 수류탄으로 파괴하기도 하였다. 가동의 대대 지휘소 뒤편에 있던 제1대대 중화기중대 1mm박격포 소대장 스미스(Lloyd D. Smith) 소위도 적이 기관총을 쏘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자 박격포를 내버리고 도로를 가로질러 100m 후방의 고지로 달아났는데, 그가 고지에서 관찰한

바 가동부근에서 약 200명의 적을 헤아릴 수 있었다.

제1대대장 윈스티드 중령은 “대대지휘소와 박격포 진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대대 중앙부대가 후퇴하고 있다.” 고 연대에 보고하고 연대지휘소로 물러났다.

㉞ 연습

스미스 소위는 능선에 몰려든 박격포 소대 및 대대본부 요원 등 약 60명을 모아 진지를 점령하게 한 후 적과 교전을 벌였다. 가동을 점령한 적은 남쪽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가동 동측방에 있던 A중대 제1소대와 가동 후방의 스미스 임시소대의 활약으로 진출이 저지되었다.

제1대대 지휘소가 있던 가동고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제1대대장 윈스티드 중령 일행이 발산리의 연대지휘소로 철수하자, 연대장 멜로이 대령은 연대지휘소 부근에 있던 연대본부중대 병력과, 예비로 확보중인 M-24 경전차 1대 및 M-16 대공포 1문을 급히 뽑아 제1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09:30 경, 제1대대장은 대대본부 중대요원과 연대본부 중대요원으로 급편된 연습부대로 부대대장 쿡(John M. Cook) 소령 지휘 하에 연습하도록 하였는데, 연습부대 구성원은 대대본부 및 연대본부의 전 장교와 행정병, 취사병, 운전병, 정비병, 경계병, 보급병, 박격포소대원 등 다양하였다. 이때 연대장과 대대장이 연습부대를 독려하였다.

연습부대는 발산리에서 가동고지를 목표로 과감한 연습을 감행하여, 10:00경에는 격전을 치른 끝에 제1대대 지휘소가 있었던 가동고지를 탈환하고 적을 금남교 쪽으로 패주시켰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패닉(전쟁공포증으로 인한 붕괴)현상을 일으켜 금강까지 달려가서 헤엄쳐서 강북안으로 달아났고, 일부는 흩어져 논이나 제방에 숨었다.

연습부대를 지휘했던 제1대대 부대대장 쿡 소령과 제1대대 인사장교 하케트(Alan Hackett) 대위가 전사했는데, 이들은 가동 고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에 올라섰을 때 적 기관총탄을 맞아 쓰러졌다.

한편 적의 공격을 연습으로 격퇴시킨 후, 연대장 멜로이 대령은 사단장에게 그간의 전황을 보고하면서 “일몰시까지 현 진지의 확보가 가능하다” 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일몰시까지 현 진지를 고수하다가 일

몰 후에 철수하여 유성 동쪽의 갑천 제방에 새로운 저지 진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멜로이 대령이 판단한 것처럼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제1대대장에게 “일몰시까지의 진지 고수 가능성 여부”를 물었을 때, 대대장은 “정면의 적은 방어할 수 있으나 적의 일부가 이미 강을 건너서 후방으로 진출했으므로 배후의 적을 방어할 부대가 없다.”고 말하여 일몰시까지의 진지고수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대대장의 우려는 오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② 적의 좌측방 침투와 B중대의 철수

제1대대의 좌측방에는 B중대(중대장 : 대위 Monroe Anderson)가 용수천 서쪽의 금강변 고지(CR 4435)에 제3소대(소대장 : 소위 Charles C. Early)를 좌, 제2소대를 우로 하여 배치되었고, 제1소대(소대장 : 중위 William H. Hotchkiss)는 M-24 경전차 1대와 함께 용수천 동쪽에 A중대와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제3소대 지역에는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2정과 75mm 무반동총 1정이 배치되었는데, 기관총은 소대장이 통제하였으나 무반동총은 중대장 통제 하에 있었다. 16일 02:00에 좌측의 제3소대장 어리 소위는 전초로부터 “좌측방에 적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그 곳에 포격 요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적의 움직임이 계속 보고되자 04:15 경에는 적이 도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CR 434356)으로 1개 분대의 정찰대를 파견했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인원의 웅성거림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3소대장은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했는데, 중대장은 “걱정할 것 없다”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 버렸다.

06:00경, 어리 소위는 정찰대로부터 적이 소대 좌측방을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주변을 살펴보니 소대 좌후방인 남서쪽 1.5km의 무명고지(CR 4334)에 300~400명의 적이 집결해 있고, 좌전방 1km 지점 (CR 4335)에서는 25~30명의 적이 무기와 보급품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물이 턱에까지 차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에 어리는 중대장에게 포격을 요청했으나 잠시 후 “지금 A중대와 C중대가 적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어서 B중대지역은 포 지원 불가” 통보

를 받았다. 그래서 어리는 중대장에게 75mm 무반동총으로 적의 집결지역에 사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잠시 후인 06:45경에 75mm 무반동총 분대로부터 “진지가 폭로될 위험이 있어 사격 불가”라는 보고를 받았다. 제3소대는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집결된 적에게 기관총과 M-1 소총 등으로 사격하였지만, 유효 사격 밖이어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

상급부대로부터의 사격 지원이 없는 데다 소대 화력으로는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자, 어리 소위는 고지 뒤편으로 가서 ‘적이 중대를 공격할 것인가 또는 남쪽으로 이동할 것인가’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적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08:00경, 어리 소위는 망원경으로 제1소대 지역을 관찰한 바, 약 300여명의 적이 호치키스 중위의 진지를 유린하고 있었으며, 그 중 30~40명이 B중대로 향하고 있었다. 어리 소위는 이들이 용수천을 건너면 일제사격으로 격멸시키려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 사격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이 하천을 건너기 직전에 병사 하나가 사격을 가하여 5~6명을 쓰러뜨리자 적은 흩어져 달아났다.

08:45경에 화기소대장 잉글리시 중위가 제1소대원 10명과 A중대원 4명 등 14명을 데리고 적에게 유린당한 제1소대 지역을 탈출하여 왔다.

09:30 경, 어리 소위는 제2소대 선임하사 스미스(Kenneth Smith) 중사와 통화하게 되었다. 이때 스미스가 “제2소대는 철수 명령을 받았다. 지금 철수 준비중이다.”라고 말하기에 어리가 “누구의 명령이냐”고 묻자 그는 “중대장의 명령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10:00경, 제3소대만이 철수명령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된 어리는 “현 진지에서 철수하여 고지 후사면에 집결하라”는 철수 명령을 내렸다. 집결지(CR 4535)에서 중대 인원을 점검한 바, 제1소대원여 명이 집결하지 못한 반면 A중대원 10명이 집결되어 있었다.

철수시에 중대지역에 있던 2정의 75mm 무반동총은 신속한 철수에 방해가 되므로 버릴 수밖에 없어 파괴하였는데, 제3소대지역에 있던 진지 폭로를 이유로 사격을 거부했던 무반동총은 결국 한 발도 사격해 보지 못한 채 파괴되었다.

11:00 경, B중대는 집결지를 출발하였으며, 12:00경에는 도암리의 용수천 제방(CR 4534)에 도착하여 제방을 따라 서쪽을 향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는 도로 쪽을 보호하려는 중대장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때 하천 동쪽의 도로에는 전방에서 철수하는 많은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스미스(James E.

Smith) 중위가 인솔하는 A중대원 60여 명도 B중대가 배치된 지역을 통과하였다. 13:00경, B중대는 측후방인 북동 1.5km의 200고지(CR 472358)에 설치된 적 기관총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3~4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하자 다시 철수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고에서 적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어서 결국 2~3명씩 또는 분대 규모로 분산되었다.

③ 적의 우측방 공격과 C중대의 철수

대대 우일선인 C중대(중대장 : 중위 Henry J. McGill)는 괴화산(CR4838, 200m)에서 금강 쪽인 북쪽으로 뻗은 3개의 능선에 제 3소대(소대장 : 소위 Augustus B. Orr)를 좌(CR 480390), 제2소대(소대장 : 중위 James Stavarakes)를 중앙 (CR 482393), 제1소대(소대장 : 중위 Thomas A. Maher)를 우(CR 487395)로 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화기소대(소대장 : 중위 George Lowe)의 60mm 박격포는 제2소대 후방 500m인 안골(CR 484390)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7월 16일 01:30경, 우측의 제1소대는 북동쪽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1소대 81mm 및 60mm 박격포, 구경 50 기관총 및 구경 30경 기관총 등의 지원에 힘입어 적의 최초 공격을 진전에서 격퇴시켰다.

최초 공격에 실패한 적은 그 후, 전열을 가다듬어 3차까지 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03:50 경, 적은 제1소대를 4번째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박격포를 쏘고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진내로 육박하였다. 중대장 맥길 중위는 제1소대의 상황이 염려되어 전화를 걸었는데, 소대장 마허 중위는 “잘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마허 중위는 중대장과의 통화를 끝낸 후 불과 30초 후에 머리에 기관총을 맞고 전사하였다. 소대장이 전사하자 제1소대 진지가 곧 무너졌으며, 선임하사관 브라운 상사는 12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중대본부가 있는 괴화산 중턱으로 물러섰다.

4:15경, 중대를 공격하고 있던 적의 일부가 중대 우측방을 우회하여 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맥길 중위는 중대가 고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중대 병력을 괴화산으로 철수시켜 제1소대 및 제2소대는 전면(북측면), 제3소대 및 화기소대는 후면(남측면)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여 전면방어

를 시도하였다.

동이 틀 무렵인 5:00 경, 적은 박격포와 기관총의 지원을 받으면서 괴화산을 공격하였는데, 이 공격은 주로 후면에서 실시되었으며, 12:00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괴화산 정상 부근으로 물러난 중대는 대대에서 구원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탄약 절약을 고려하여 노출된 적만을 조준 사격하는 등 저격으로 맞섰다.

적의 일부 병력이 괴화산을 공격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일부 병력은 후방으로 계속 진출하여 황룡리의 4.2인치 박격포 진지를 유린한 후 비화산(CR 735) 방향으로 침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12:00경, 후면방어를 담당한 제3소대장 오르 소위는 탄약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장의 참호로 달려갔는데, 잠시 후에 연락 임무를 띠고 대대본부로 갔던 반오르맨(Chester W. Vanorman)중사가 돌아와 “대대지휘소가 적에게 점령당했고, A중대와 B중대는 철수 중에 있다” 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12:30경, 비로소 대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된 중대장은 구원 병력이 올 수 없음을 알고 철수를 서둘렀다.

적의 포격으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반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기관총 사수인 아라와카(Jack Arawaka) 상병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적에게 기관총을 난사하는 가운데 중대 주력은 오르 소위가 앞장서고 맥길 중위가 후위가 되어, 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북서쪽으로 산을 내려와 강변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남측면으로부터 약간의 사격을 받았다. 선두의 오르 소위는 제방을 따라 서쪽으로 병력을 유도하다가, 금남교와 괴화산 중간쯤에서 남쪽인 신촌리(CR 470368)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14:00경에 신촌리에 도착한 100여명의 C중대 생존자들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로상으로 철수하고 있는 A중대의 후미가 보였고, 그 뒤로는 적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적은 C중대가 나타나자 측방 공격을 염려한 듯 퇴각하는 것이었다. C중대는 용포리-발산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는데, 발산리 동쪽으로부터 적의 박격포와 6정 이상의 기관총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여러 번 진로를 바꾸다가 결국 오르 소위는 부상당하고 중대원은 소규모로 흩어졌다.

3. 한국전쟁과 호국영령

1) 충혼탑(忠魂塔)

(1) 개요(概要)

한국전쟁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쟁(相爭)의 비극이며 강대국(強大國) 양대 세력의 세계적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북한괴뢰(傀儡)들이 전면적 남침(南侵)으로 멸공전선(滅共戰線)에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불행이도 산화(散華)한 연기군 출신 전몰(戰歿) 군경(軍警)이 455명이다.

연기군에서는 호국(護國)의 영령(英靈)을 봉안(奉安)키 위해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성금으로 1965년 5월 9일에 봉안소가 마련되었으나 시설과 규모가 협소하여 이 고장 출신 김제원(金濟愿) 국회의원이 5,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1969년 10월 14일 충혼탑의 확장과 아울러 공원화 했으며, 충혼탑(忠魂塔)의 높이는 22m이고 탑(塔)아래 10여평의 봉안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된 헌탑사(獻塔詞)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흘러가는 바람과 구름도 발길을 멈추고 온 누리를 덮는 해와 달도 굽어살피어라. 여기 나라와 겨레를 지키다 가신 님들의 넋이 쉬는 곳 억만년의 고요와 편안함이 빛나는 그 이름들 위에 머무르리라. 오늘 연기군민들은 독지가 김제원, 김창월 형제와 더불어 깊이 머리 숙이며 겨레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햇불이 되어지고 이곳에 충령탑을 바치노라.」

충혼탑은 조치원읍 침산동의 침산공원에 세워진 탑이다. 이곳에 봉안된 위패는 총 455명인데 이 중 연기군 남면 출신은 다음과 같다.

· 남 면(南面) 68명

| 계 급 | 성 명 | 전사지구 | 주 소 | 유 가 족 명 단 |
|-------|-----|--------|--------|------------------|
| 육군 일병 | 이일귀 | | 남면 연기리 | 자: 종구 부: 준식 |
| 육군 일병 | 강회복 | 양구 지구 | 남면 보통리 | 자: 용기 부: 기동 |
| 육군 병장 | 이순범 | 제주 지구 | 남면 진의리 | 모: 김춘희 제:용범 외 1인 |
| 육군 하사 | 윤관중 | 금화 지구 | | 모: 박순여 부: 인병 |
| 육군 일병 | 임종수 | | | 부: 현복 |
| 육군 하사 | 윤은병 | 금성 지구 | | 모: 이후분 |
| 육군 하사 | 임현만 | | | 자: 건수 형: 현천 |
| 육군 일병 | 임정수 | 철원 지구 | | 부: 문득 |
| 육군 일병 | 임병칠 | | 남면 송담리 | 부: 문수 |
| 육군 이병 | 이재영 | | 남면 고정리 | 부: 진만 |
| 육군 병장 | 임익수 | | 남면 고정리 | 부: 현기 |
| 육군 순경 | 안기우 | 대덕기성면 | 남면 수산리 | 현: 기문 |
| 육군 일병 | 이기하 | | 남면 고정리 | 부: 만길 |
| 육군 하사 | 이전균 | 인제 지구 | 남면 고정리 | 부: 학봉 |
| 육군 상병 | 감병훈 | 연천 지구 | 남면 고정리 | 부: 동춘 |
| 육군 병장 | 김창봉 | 금화 지구 | 남면 고정리 | 여: 복예 부: 남춘 |
| 육군 이병 | 임현선 | 금화 지구 | 남면 고정리 | 부: 응철 |
| 육군 상병 | 김석환 | | 남면 고정리 | 부: 기준 |
| 육군 상병 | 이규하 | 제주 지구 | 남면 갈우리 | 부: 팔남 |
| 육군 상병 | 최석조 | 안동 지구 | 남면 갈우리 | 부: 경환 |
| 육군 상병 | 황창익 | 금화 지구 | 남면 종촌리 | 모: 이경비 형: 계익 |
| 육군 중사 | 신선필 | | 남면 종촌리 | 자: 철수 |
| 육군 일병 | 이진하 | | 남면 놀왕리 | 모: 박복여 |
| 육군 일병 | 이은규 | | 남면 놀왕리 | 부: 훈달 |
| 육군 하사 | 이형구 | 인제 지구 | 남면 놀왕리 | 부: 각규 |
| 육군 하사 | 안명훈 | | 남면 놀왕리 | 모: 월분 |
| 육군 상병 | 이영찬 | 문경 지구 | 남면 놀왕리 | 조부: 진규 |
| 육군 일병 | 이훈병 | 금화 지구 | 남면 놀왕리 | 여: 평순 질: 덕규 |
| 육군 병장 | 오세욱 | 장서 지구 | 남면 월산리 | 부: 경환 |
| 육군 중사 | 임두철 | | 남면 월산리 | 부: 태성 |
| 육군 상병 | 김귀성 | 금화 지구 | 남면 수산리 | 호주: 정호 자: 능수 |
| 육군 일병 | 이규태 | 육군 병원 | 남면 연기리 | 처: 황정서 부: 준식 |
| 육군 하사 | 임현원 | 양구 지구 | | 처: 구씨 |
| 육군 이병 | 김재찬 | 금화 지구 | | 처: 엄정애 자: 2인 |
| 육군 소위 | 장정근 | 양구 지구 | | 형: 춘근 |
| 육군 하사 | 강은식 | 금화 지구 | 남면 진의리 | 처: 강복순 |
| 육군 일병 | 이관수 | | 남면 양화리 | 자: 한구 |
| 육군 중사 | 임현학 | 경북효령지구 | | 호주: 현필 |

| 계 급 | 성 명 | 전사지구 | 주 소 | 유 가 족 명 단 |
|-------|-------|-------|--------|-----------------|
| 육군 병장 | 임 현 효 | 금화 지구 | | 모: 박갑출 |
| 육군 병장 | 임 정 철 | | | 모: 정춘서 |
| 육군 일병 | 임 정 수 | 서화 지구 | | 부: 현문 |
| 육군 중사 | 임 재 무 | 금남면 | 남면 송담리 | 형: 재만 |
| 순 경 | 임 태 수 | | 남면 송담리 | 처: 김준임 |
| 육군 하사 | 강 복 기 | | 남면 고정리 | 부: 병대 여: 용순 |
| 육군 중사 | 강 병 훈 | 금화 지구 | | 모: 박완월 부: 동춘 |
| 육군 하사 | 양 태 춘 | | 남면 갈운리 | 처: 광삼영 부: 명흠 |
| 육군 중사 | 임 각 수 | | | 부: 현하 |
| 육군 일병 | 임 현 표 | | | 처: 김일순 |
| 육군 중사 | 정 천 길 | 의성 지구 | 남면 종촌리 | 처: 김분순 |
| 육군 하사 | 황 권 익 | 개천 지구 | | 부: 은석 |
| 육군 상사 | 황 하 성 | 가평 지구 | 남면 방축리 | 처: 김복진 |
| 육군 병장 | 임 한 수 | 금화 지구 | | 형: 하수 |
| 육군 중사 | 황 정 익 | 웅진 지구 | 남면 종촌리 | 제: 갑익 |
| 육군 일병 | 김 성 회 | | 남면 월산리 | 여: 흥분 |
| | 이 연 악 | 화천 지구 | 남면 수산리 | 처: 임현귀 |
| 육군 하사 | 성 영 수 | | 남면 진의리 | 처: 장찬희 |
| 수군 이병 | 임 현 부 | 원산 지구 | 남면 양화리 | 처: 정현숙 형:현인 자:수 |
| | 이 은 찬 | | 남면 방축리 | 부:기하 |
| 육군 중사 | 진 호 경 | | | 부: 문호 |
| 육군 병장 | 임 성 수 | 월 남 | 남면 양화리 | 부: 갑남 |
| 육군 일병 | 이 병 욱 | 월 남 | 남면 양화리 | 부: 택구 |
| 육군 군속 | 오 대 식 | | 남면 양화리 | 처: 임부영 |
| 육군 일병 | 이 화 | | 남면 연기리 | 부: 승갑 |
| 육군 상평 | 민 홍 식 | | 남면 연기리 | 부: 영국 |
| 육군 총경 | 김 용 덕 | | 남면 보통리 | 처: 윤순란 |
| 육군 병장 | 임 용 빈 | | 남면 방축리 | 부: 연순 |
| 육군 이병 | 인 동 식 | | 남면 월산리 | 모: 김남석 |
| 육군 병장 | 유 을 준 | | 남면 송담리 | 부: 진하 |

※ 충혼탑에 봉안된 위패는 총 455명인데 각 읍·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조치원 | 102명 | 동 면 | 77명 |
| 서 면 | 46명 | 남 면 | 68명 |
| 금남면 | 65명 | 전동면 | 53명 |
| 전의면 | 44명 | | |

남면 지역 주민의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무공수훈자

| 구분 포상명 | 계급 훈장번호 | 성명 생년월일 | 입대년월일 포상년월일 | 공적(功績)개요 | 주소 |
|------------|--------------|----------------|---------------------|--|----------------|
| 화랑 무공훈장 | 병장 62343 | 강인식 27.12.1 | 51.5.20 55.1.15 | 보병 7사단 5연대 소속으로 양구 지방 오성산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 남면 월산리 145 |
| 화랑 무공훈장 | 상병 62399 | 김주환 30.3.28 | 52.11.17 55.5.10 |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화천지구 작전에 투입 구만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 남면 진의리114-4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43203 | 이녹규 30.4.10 | 50.9.22 54.4.20 | 6.25당시 6사단7연대 소속으로 가평지구 용문산 전투에서 분대장으로서 공을 세웠다. | 남면 눌왕리 341 |
| 화랑 무공훈장 | 상사 44156 | 홍원술 30.5.1 | 49.2.25 52.2.2 | 6.25당시 보병3사단 포병부대 소속으로 인제서화전투에서 전방부대에서 요구한 화력지원을 적절한 지점에 투하하여 공을 세웠다. | 남면 연기리 598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24705 | 김학남 31.9.16 | 50.8.20 51.7.8 | 6.25당시 보병 6사단 소속으로 화천지구 백암산 전투에 참전 공을 세웠다. | 남면 갈운리 323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56539 | 남궁현 33.2.7 | 51.3.1 52.12.14 |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동부 전선 간성지구 351 고지작전에 참전 혁혁한 공을 세웠다. | 남면 월산리 267 |
| 화랑 무공훈장 | 병장 117057 | 황인근 46.5.3 | 65.5.30 67.6.5 | 수도사단에 입대하여 1966년 월남 파병되어 나트랑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 남면 종촌리110-7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12652 | 황우필 26.8.9 | 49.3.2 52.7.10 | 6.25당시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 호남지구 무주작전에 참전 공비를 소탕한 공이다. | 남면 종촌리 392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 정낙진 26.5.18 | 51.6.25 | 6.25당시 8사단 16연대소속으로 중부전선 혈지작전에 참전 15일간 포로가 되었고 아군반격으로 부대재정비후 적 1개대대를 전멸시킨 공이다. | 남면 송원리683-3 |
| 화랑 무공훈장 | 순경 | 안태균 29.3.10 | 1947 48.11.3 |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여수사건당시 지리산 전투에 참가 공비소탕에 지대한 공이다. | 남면 진의리 350 |

| 구분 포상명 | 계급 훈장번호 | 성명 생년월일 | 입대년월일 포상년월일 | 공적(功績)개요 | 주소 |
|------------|-------------|-----------------|-----------------------|---|----------------|
| 화랑 무공훈장 | 병장 | 이연식 34.10.25 | 52. 5.10 53. 5. 20 | 5사단에 입대하여 동부지구간 성 351 고지작전에 참전한 공이다. | 남면 수산리465-3 |
| 화랑 무공훈장 | 상사 | 임권철 28. 3.10 | 49. 5.10 52. 3. 5 | 6.25당시 1사단 소속으로 서부 전선 전투에 참전하고 경북다부 동 팔공산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 남면 양화리 533 |
| 화랑 무공훈장 | 상사 54972 | 강인수 23. 3.23 | 50.12. 7 54. 4.20 | 6.25당시 육군 화약부때 소속으로 전방 전투부대에 화약장비 보급에 공을 세웠다. | 남면 연기리175-3 |
| 화랑 무공훈장 | 병장 36420 | 황인희 25.10.25 | 51. 8. 1 54. 4.20 |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동부전선 거진지구 315고지작전에 공을 세 웠다. | 남면 연기리 38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75744 | 오종학 27. 6.27 | 50. 8.15 53. 6.25 | 6.25당시 제9경비대대 소속으로 고성지구 고지령 고지작전에 참전하여 적병을 생포, 작병으로부터 정보를 입수 아군작전에 기여 한 공이다. | 남면 갈운리 268 |
| 화랑 무공훈장 | 하사 33954 | 임한수 27. 8.25 | 49. 1.20 53. 9.29 | 6.25당시 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웅진전투, 팔공산전투, 인민군 장교를 생포하다 대동강 도하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평북 운산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 | 남면 갈운리498-3 |
| 화랑 무공훈장 | 일동중사 | 임정수 | | 인천상륙작전 | |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故鄉의發展을 祝願함

燕岐郡 南面 松院里 171番地

白 秉 基 理事長
李 純 周 女史宅

| | | |
|----|-------|--|
| 長男 | 白 仁 鉉 | 公州教育大學校 教授, 學生處長 |
| 子婦 | 姜 景 順 | 中,高等學校 教師 |
| 次男 | 白 德 鉉 | 韓國資產管理公社 弘報室長 |
| 子婦 | 張 美 永 | 大學 講師 |
| 長女 | 白 美 鉉 | 서울 大肛病院, 藥劑課長 |
| 婿 | 宋 永 重 | 第23回 行政考試合格, 青瓦臺行政官, 秘書官 保健福祉部 年金保險局長, 勞動部 產業安全局長 |
| 三男 | 白 章 絃 | 工學博士, 全北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韓國 電子通信研究院 招聘研究院 |
| 子婦 | 李 景 淑 | 專門醫 大田 관지, 聖母醫院 院長 |
| 四男 | 白 一 鉉 | 第35回 行政考試合格, 國務總理國務調整室 書記官 |
| 子婦 | 李 姪 炫 | 第42回 行政考試合格, 國務總理國務調整室 事務官 |



대영에너지 주식회사 · 대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인 천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72-6

TEL 041)866-5182~4, FAX 041)866-5185

| | | |
|-------------|----------------------|--------------|
| 대영주유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450-11 | 041)867-5104 |
| 대영 LPG충전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450-8 | 041)865-5182 |
| 종촌 대영주유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72-6 | 041)864-5002 |
| 종촌 대영LPG충전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214-5 | 041)868-5182 |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표 박 중 희

조립식 건축자재 전문생산업체



오천산업주식회사

* SANDWICH PANEL · PRE-FAB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3-3

TEL : (041) 866-0415

FAX : (041) 866-3501

H·P : 018-405-1323

회/사/연/혁

| | |
|------------|--|
| 1998.07.01 | 오천산업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0백만원 (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3-3번지 임대) |
| 2001.03.08 | 자가 공장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3-3번지) |
| 2001.03.17 | 공장등록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3-3번지) |
| 2001.06.19 | 자본금 100백만원 증자 (자본금 150백만원) |
| 2001.12.12 | 자본금 150백만원 증자 (자본금 300백만원) |
| 2002.01.01 |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
| 2003.03.06 | 한국산업규격표시(KS)인증 (KSF4724, KSF 4731) |
| 2003.05.31 | 중소기업선정 유망 중소기업(2003. 5. 31 ~ 2009. 5. 31) |
| 2003.11.18 | 난연 샌드위치판넬 적합판정 (KSF2271, 방재시험연구원) |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믿음을 쌓아가는 곳!!!

100% 한우암소 · 100% 암돼지
100% 덕갈비 · 참숯구이전문

안심축산물 미/소/원 식당

15인승 차량 항상 대기

대표 이 학 인

TEL : (041)862-6692, 862-8892

H·P : 011-466-9310

위 치 : 방공학교 앞(구.통합병원)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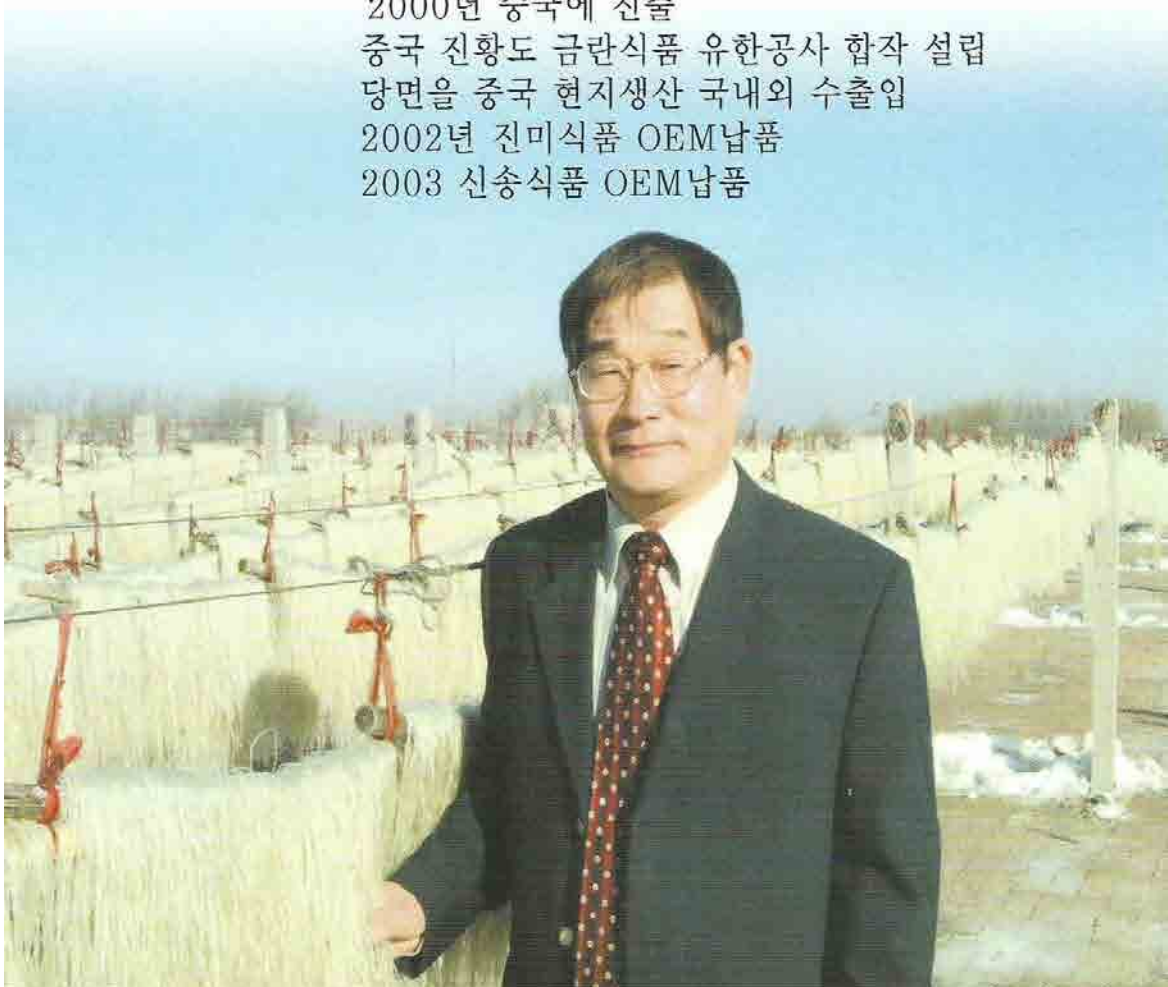
풍 · 년 · 식 · 품

대표 안 영 수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360-7번지
TEL 041)864-6719 / FAX 041)865-0334

1988년 12월 설립

사업내용 : 당면 냉면 생산 판매
2000년 중국에 진출
중국 진황도 금란식품 유한공사 합작 설립
당면을 중국 현지생산 국내외 수출입
2002년 진미식품 OEM납품
2003 신송식품 OEM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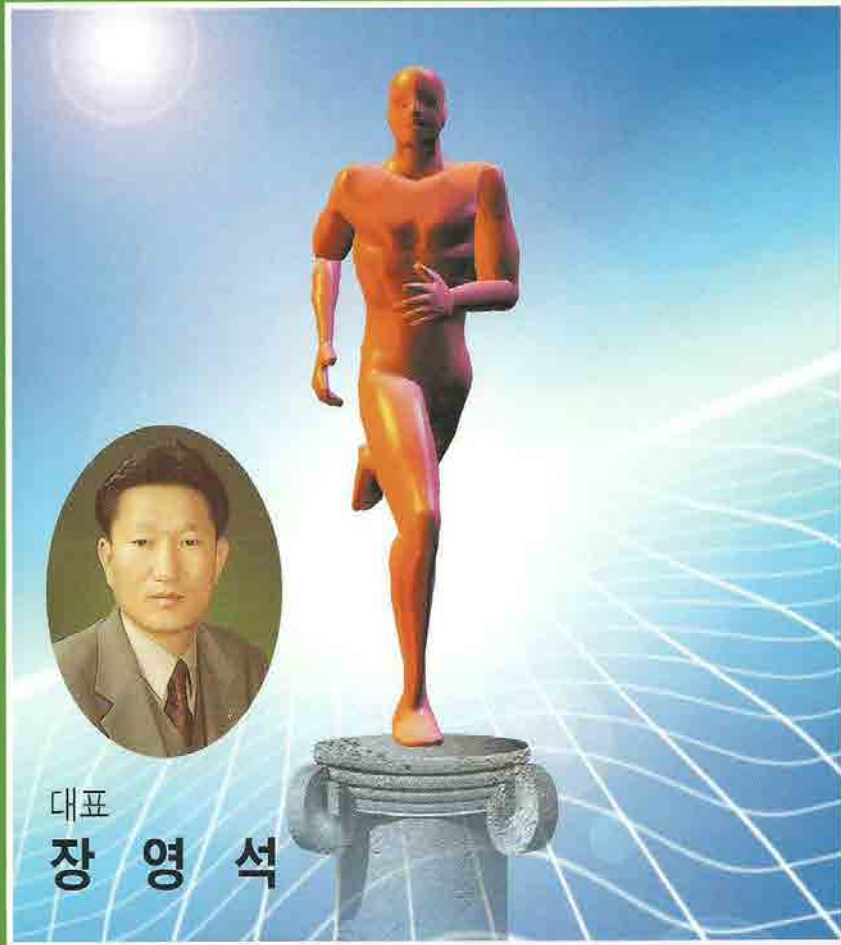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신용 · 창조주의

성원문화인쇄사

성원전산시스템



대표
장영석

339-803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명리 67-15
전화 : (041) 864-3386,3603 전송 : (041) 864-3391
C · P : 011-461-4587

남면 향토기 박물관을 축하합니다

서우산업(주)



대표 김 선 두

- H빔 제작
- 가시설 공사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430

TEL. 041)864-2507 H·P. 011-434-2505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김대식 외과의원

진·료·과·목

특·수·장·료

- ▶ 정형외과 ▶ 소아과
- ▶ 신경외과 ▶ 비뇨기과
- ▶ 흉부외과 ▶ 피부과
- ▶ 내과 ▶ 이비인후과

- ▶ 남성기 클리닉
(확대, 조루, 포경)
- ▶ 레이저 클리닉
- ▶ 점, 기미, 사마귀, 티눈

▶ 진료시간 : 오전 08시 ~ 오후 09시 30분까지 ◀

위치 : 양화리 가는입구(구.류의원 자리)

문의
전화

868-8275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광 명 건 설 [합]

중골토건 · 기재목축

대표 임 정 엽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 2리 111-11

TEL. 041)864-5243 / 864-6700

FAX. 041)864-0085 H · P. 011-425-0317



남면 향토지 발전을 축하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기업”

대 산 산 업



대표
하재봉

- 공 장 : 연기군 남면 월산리 6-11 (월산공업단지)
- 본 사 :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44-20
- 생산품 : 의류 부자재 (인조보석)
- 설립년도 : 1993년도
- 시흥에서 월산공업단지로 이전

고향을 생각하는 기업!

수출 증대를 이룩하는 기업!

신상품 개발에 이바지하는 기업!

본사. 02)2617-0328 FAX. 02)2617-0329

월산공장. 041)868-0328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KUMKANG
LAYERFARM

농업회사법인(유)금강나



대표
이 양 의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번지
TEL. 041) 864-6777
FAX. 041) 865-1540
H·P. 011-425-6778
E-mail. kumkangfarm@hamail.net

남면 향토기 발간을 축하합니다

벤처기업, INNO-BIZ기업, ISO9001:2000/HACCP 인증기업

식품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기술의기업!** 친환경적 제품을 추구하는 **청결의 기업!**
저희 **에스앤디**는 늘 고객과 함께합니다.



주/요/사/업

- ▶ 식품소재, 조미식품 원료 생산 및 판매
- ▶ 바이오 관련 기능성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
- ▶ 정부지원과제 연구결과물(학계, 연구소등)의 산업화 및 판매



(주)에스앤디
S & D CO., LTD

- 본사·공장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산업단지 6-12블럭
Tel: 041-8660-515/7, Fax: 033-8660-518
- 연구소 : 춘천시 후평동 198 하이테크 벤처타운 생물동 401호
Tel: 033-2586-515, Fax: 033-2586-517

남면 향토기 발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품질, 최선의 서비스로 고객민족을 최우선으로하는 **용마산업(주)**

· 아스콘 · 레미콘 제조업체 · 최신 생산설비 보유 · 최상 품질로 보답 · ISO 및 KS 인증업체



용마산업주식회사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5블럭
본사 - TEL 042-825-5925 FAX 042-825-5926
공장 - TEL 041-866-5020~3 FAX 041-866-5024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미 화 조 경

(잔디전문 · 관상수 · 화단관리)



대표 박공식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우리 371-4번지
 TEL 041)862-3394, 865-7891
 FAX 041)864-4026 H·P 011)461-5781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유림공영(주)



裕林工營株式會社

- ▶ 본 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8-8
 동아오피스텔 605호 (유성우체국 사서함 94호)
- ▶ 공 장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22-7
- ▶ 판매사업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6-1
- ▶ 전 화 : (042) 254-1940, (041) 864-5403
- ▶ 팩 스 : (041) 864-6587

<<<기업현황>>>

| | | | |
|---------|---|------------------|--|
| 회 사 명 | 유림공영주식회사 | | |
| 대 표 이 사 | 박순자 | | |
| 설 립 일 | 1984. 12. 21 | | |
| 본 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8-8 동아오피스텔 605호 | (042)254-1940(대) | |
| 공 장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22-7 | (041)864-5403(대) | |
| 판매사업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6-1 | (041)864-6587(대) | |
| 서 울 지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빌딩 407호 02)540-4059, 02)514-2884(주) | | |
| 법인등록번호 | 164711-0000569 |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307-81-01364 | 공장 307-85-06654 | |
| 업 종 | 제조업, 광업, 석공사 전문건설업 | | |
| 주 요 제 품 | 테라조 타일, 아스콘, 채석골재 | | |
| 자 본 금 | 10억원 | | |
| 연간매출액 | 120억원 | | |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금호타이어 연기대리점



대표 권정열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TEL. 041) 865-6358
H·P. 011-450-9430



남면 향토지 박간을 축하합니다

치솔종합메이커 ORIGHT®

오라이트



대표 노원호 (구.창현)

본사 및 공장 : 충남 연기군 남면 수산리 429-1
TEL : 041)868-0084~5 FAX : 041)868-0086
H·P : 011-650-2244 E-mail : orightnch@hanmail.net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덕성철강

고철납품 및 각종철재도, 소매



대표
임희철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195-9
TEL. 041)866-4141~3 FAX. 041)864-4141
H·P. 011-401-0910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방축만남의 광장 휴게소

대표 임재상

전화:(041)864-5531, 868-5566
핸드폰:011-421-8811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 덕 사



충남 연기군 남면 중촌리 398

TEL. 041)865-1702

남면 향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紙筆爲朋遊黑白
 水魚顛沛樂相逢
 今生不羨文儒面
 仙界無求墨客胸

乙酉之夏 節東湖林龍喆

黑客

紙筆爲朋遊黑白
 水魚顛沛樂相逢
 今生不羨文儒面
 仙界無求墨客胸

종이와 붓 벗삼아 흑백에 노니는데
 고기 물 만난 듯 엇치락 뒤치락 즐겁구나
 평생에 서생으로 부러울 것 없으니
 무래의 가슴에는 신선세계 구하지 않네



東湖 林龍喆

- 한국 서가협회 초대작가, 심사역임
 - 한국 국민미술 협. 초대작가, 심사역임
 - 한국 서도협회. 초대작가, 심사역임
 - 대전·충남 서가협. 부회장
 - 대전 중구 태평동 335-15 동호서실 운영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1동 335-15
 서실 : (042) 527-6702
 자택 : (042) 532-4557
 H·P : 018-414-4610

남면 황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중촌 황토참숯벽돌



숨쉬는 황토 자연속에서 노후
즐겁게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남 황토 벽돌 공장 대표 임창철 대표입니다.
당시는 시멘트 제품을 30년간 신용과 품질로 생산하다가 화학성분
(공해) 때문에 5년간의 연구 끝에 숨쉬는 황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습니다.
숨쉬는 황토주택은 실내 적외선 차단, 산소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거
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자연 그대로 시원합니다.
장성을 다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중촌 황토 벽돌 공장으
로 오십시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황토참숯벽돌 100×150×300



▲ 황토벽돌 200×150×300



♣ 회사 소개 ♣

1975년 설립하여 초창기에는
수동식 진동기로 시작하여 현재
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말해 주듯이
저희 중촌 벽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입식 벽돌을
생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켰으며, 기존의 벽돌보다
모래와 시멘트의 비율을 더 늘림으로서 강도면에서 월
등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992년 회사 자
동화 계획에 따라 신기계를 도입하여 수증 양생기를
사용하여 찌 벽돌과 불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황토흙
을 믹서하여 고유압 자연 양생으로 숨쉬는 황토벽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
해 저희 중촌황토벽돌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사 연혁 ♣

- ▶ 1975년 설립
- ▶ 1984년 7월 24일 등록 7-9 품목 벽돌
- ▶ 1986년 1월 24일 등록변경 5-2 품목 벽돌
- ▶ 1989년 1월 24일 등록변경 8-2 품목 벽돌
- ▶ 1989년 9월 20일 등록품목 시멘트 벽돌 및 불력
- ▶ 1992년 7월 28일 등록번호 변경 7-6
- ▶ 1997년 1월부터 황토벽돌 생산
- ▶ 2001년 3월 8일 특허등록



중촌 황토 벽돌

TEL : (041)864-5542 · 5949
FAX : (041)864-5948
H·P : 011-462-5949

남면 향토지 발전을 축하합니다



농민에게 선택을! 고객에게 보람을!!
농민을 위한 민족은행

남면농협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남면농업협동조합

본소 사무실 : 864-5800
 : 864-5801
 조합장실 : 864-6541
 구매계(사료) : 864-6580
 본소마트 : 864-6510
 본소팩스 : 864-3368

민들 수 있는 정량, 정품의
 농업용 유류와 가스

신청

☎ 864-5802

연기점 : 863-4075
 지점 : 863-4794
 지점 : 862-7081
 지점 : 864-5802
 지점 : 865-9618
 지점 : 865-1542

유류와 가스를 무료전화 080-080-5802 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남면(연기현) 향토지 발간 추진현황

목 적

향토지는 그 지역의 역사. 지리. 행정. 교육. 문화. 인물. 문화유적 등을 수록하여 선인의 발자취는 물론, 시대적 역사 기록을 통하여 역사를 남기고 연기군 남면에 살고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함이다.

추진일정

- * 2004년 5월 4일 : 제 1차 모임 발간에 따른 홍보 및 추진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협의)
- * 2004년 6월28일 : 이장 협의회에서 임원 6명 추진위원회 구성.
- * 2004년 7월 4일 11시 남면 회의실 : 회의결과 추진위원 구성완료

| | | |
|---------|-----------------|---------|
| 자 문 위 원 | 한문수 | 남면 면장 |
| “ | 임태수 | 군의원 |
| “ | 정창규 | 농협조합장 |
| “ | 임헌국 | 전면장 |
| “ | 한종률 | 전면장 |
| “ | 김관수 | 전면장 |
| “ | 이재진 | 성남중학교 |
| “ | 임택수 | 전교장 |
| “ | 임승철 | 전교감 |
| “ | 임헌서 | 남면노인회장 |
| “ | 임공열 | 남면기독교회장 |
| 추진위원장 | 임창철 | |
| 부위원장 | 임만수 | |
| 편집위원장 | 하재동 | |
| 편집위원 | 임화수 . 김갑수 . 장창원 | |

자료수집위원

하태영 . 임근수 . 임헌석 . 박남돌

황영일 . 이찬복

총 무

김창재

감 사

이종복 . 김명재

실행위원

연기1리 박노식

방축리 이필선

“

연기2리 황승수

갈운1리 임건철

“

연기3리 이병수

갈운2리 최원식

“

보통1리 이상옥

갈운3리 임재기

“

보통2리 김선길

월산리 임영철

“

놀왕1리 박일주

양화1리 임백수

“

놀왕2리 이재구

양화2리 임영수

“

수산리 안기주

양화3리 노수재

“

고정1리 김민수

송담1리 임봉수

“

고정2리 김갑용

송담2리 임헌만

“

종촌1리 황정익

나성리 임재금

“

종촌2리 황인산

송원2리 민원규

“

종촌3리 임헌봉

집필총괄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

연구위원

김선희

교 열

고우미 (충남대 졸. 충남 문화유산 해설사)



🍊 편집 후기 🍊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거나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소원을 빌었다.

남면 지역에 신행정수도건설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주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떠나야하는 불안감은 산천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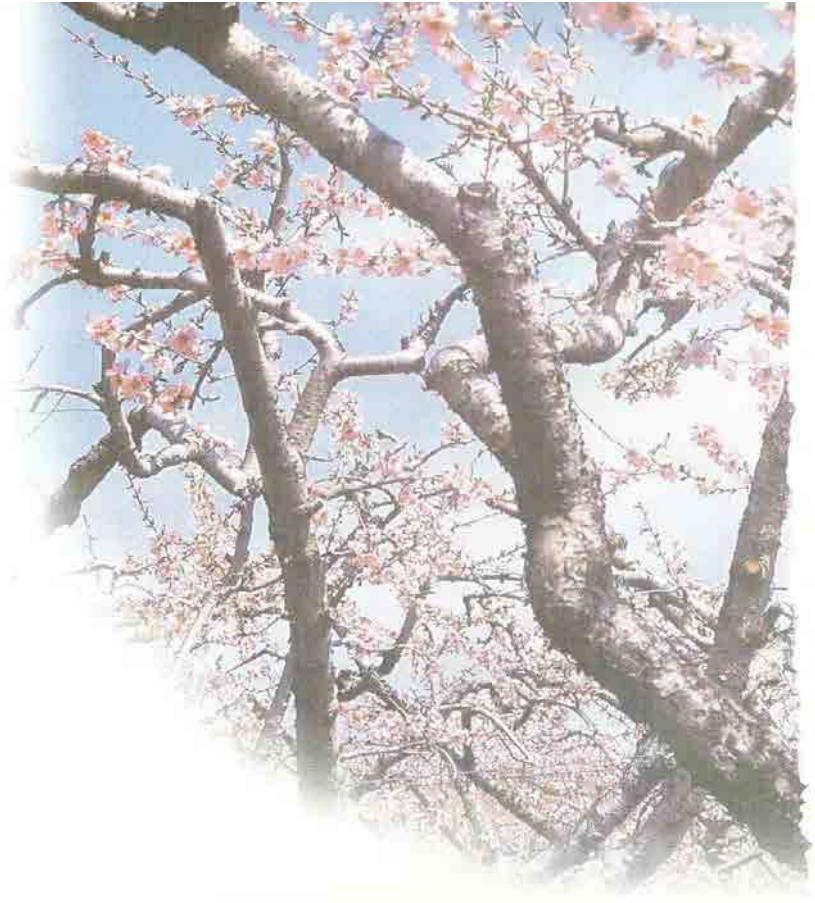
이곳이 언제 이렇게 주목 받게 되었는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리하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모든 관심사가 이곳으로 쏠려있다.

그래서 남면향토지는 지리한 장마를 만나게 되었고, 비가 그치면 모두가 공허할 것이다.

남면의 모습이 이 한편의 향토지 속에 잘 보관되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집필총괄/연기향토박물관장 임 영 수



南面郷土誌

서기 2004년 12월 1일 인쇄
서기 2004년 12월 25일 발행

-
- ◆발행인 **임 창 철** (추진위원장)
 장 영 (조치원문화원장)
 - ◆발행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조치원문화원
 TEL. (041) 865 - 2411
 - ◆인쇄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67-15
 성원문화인쇄사
 TEL. (041) 864-3386, 3603